국립국어원 2013-01-03

국어 연감

2012

국립국어원

차 례

Ⅰ. 2011년도 국어 분야의 주요 일지 · 1

Ⅱ. 국어 분야별 동향 · 133

국어 정책 ····· 정희창 · 135
국어 교육 ····· 박정진 · 165
한국어 교육 ····· 방성원 · 241
음성학 · 음운론 ····· 이봉원 · 291
형태론 ····· 최형용 · 310
통사론 ····· 고석주 · 366
어휘론 · 의미론 · 화용론 ····· 도원영 · 411
국어사 · 국어학사 ····· 박용찬 · 459
사회 언어학 ····· 전정미 · 509
방언학 ····· 이혁화 · 552
국어 정보학 · 사전학 ····· 안의정 · 585

Ⅲ. 국어학 관계 문헌 · 609

1. 분야별 논저 목록 ····· 611

국어 정책 ····· 611

국어 교육 ····· 623

한국어 교육 ····· 692

음성학 · 음운론 ····· 767

형태론 ····· 776

통사론 ····· 781

어휘론 · 의미론 · 화용론 ····· 801

국어사 · 국어학사 ····· 826

사회 언어학 ····· 843

방언학 ····· 853

국어 정보학 · 사전학 ····· 859

2. 정기 간행물 목록 ····· 870

Ⅳ.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및 대학원 · 895

1.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 897
국어국문학 ····· 897
국어교육학 ····· 913
한국어교육학 ····· 921
언어학 ····· 926

2. 전국 대학 국어 관련 대학원 ····· 927
국어국문학 ····· 927
국어교육학 ····· 940
한국어교육학 ····· 948
언어학 ····· 957

3. 전국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 958
한국어 교육 기관 ····· 958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 971

Ⅴ.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 989

Ⅰ. 2011년도
국어 분야의 주요 일지

1월 1일 산림청은 어려운 한자나 일본식 표기로 된 산림 용어를 대국민 공모를 통해 알기 쉬운 말로 순화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미 지난 상반기에 94개의 용어를, 하반기에 49개의 용어를 순화해 모두 143개의 산림 용어가 알기 쉬운 말로 바뀌었다. 어려운 산림 행정 용어는 국립국어원과 관련 학과 교수, 언론인 등으로 구성된 '산림행정용어자문단'의 심의를 받는 방식으로 순화되었다.

1월 3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 방송 언어의 품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방송 언어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체험 예능 프로그램(1,850건), 일반 예능 프로그램(1,632건), 주말 드라마(1,374건), 일일 드라마(464건)의 순으로 저속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또한 방송사별로는 MBC가 2,392건으로 저속한 언어 표현을 가장 많이 방송에 노출했고, SBS가 1,537건, KBS가 1,391건을 기록했다.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친 두 번의 조사를 통해 전체적으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많은 저품격 언어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었다.

1월 4일 광주교육대가 이주 여성이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모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중언어 교수 요원 양성 프로그램'은 일본과 중국, 필리핀, 베트남, 몽골, 카자흐스탄 등에서 온 대졸 이상 이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한다. 프로그램을 수료한 이주 여성들은 초등학교에 배치돼 방과 후 시간에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가르치게 된다.

1월 4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허리부터 발목까지 다리에 딱 달라붙는 청바지를 일컫는 '스키니진(Skinny jeans)'을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맵시청바지'를 선정했다.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국무 회의에 관계 기관(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과 합동으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및 건전화 방안'을 보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73.4%가 매일 욕설을 사용하며, 친구와 대화 시 5%, 문자 사용 시 7% 정도가 불건

전 언어를 사용했다. 욕설의 사용 동기로 약 50%가 '습관'이라고 응답했으나 욕설의 의미를 아는 청소년은 27%에 불과했다. 청소년 언어생활 건전화 방안으로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대한 규제 및 자율 정화를 병행하고, 각종 매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언어·청소년 보호 교육을 실시하며, 건전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 운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또한 학교 문화 선진화 사업을 확대하고('10년 150개교→'11년 300개교) 대인 관계 문제 상담 등을 위한 'Wee 프로젝트'를 운영해 건강한 또래 언어 문화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용 언어 사용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청소년 인터넷 윤리 교육을 확대하며 청소년 언어 순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하였다.

1월 4일 지난해 12월 21~23일 서울 시내의 서초구 A학교, 노원구 B학교, 금천구 C학교의 2,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력 검사가 실시됐다. 검사 실시 후 발표된 결과를 보면 2학년의 평균 점수는 A학교 86.7점, B학교 75.6점, C학교 69.7점이었으며, 3학년도 A학교 72.7점, B학교 58.4점, C학교 58.0점으로 A학교가 다른 두 학교보다 월등히 높았다. 어휘력, 독해력, 사고력, 표현력 등 평가 영역 전반에서 소득 수준이 높고 맞벌이 부모 비율이 낮은 지역에 사는 학생의 언어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고등학교나 대학 등 상급 학교 진학에 필요한 비판적 사고력이나 표현 능력의 격차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학교들이 방과 후 활동 형태로 독서 지도나 한글 보충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는 '아동 복지 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월 5일 서울 중구(구청장 박형상)가 2월까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자치 법규 전체인 184건을 알기 쉽게 바꾸는 작업을 추진한다. 조례나 규칙, 규정 내용 중 한문 투의 어려운 말은 쉬운 우리말로 바뀌게 되며, '서울특별시중구구민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처럼 하나로 붙여 쓰는 조례안 제명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게 된다. 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수정 조례안을 검토한 뒤 2월 중 조례 규칙 심의회를 열어 내용을

확정하고 구 의회 심의를 거쳐 3월에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고 하였다.

1월 6일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이 '영어 잘하는 나라가 잃어 가는 것'에 대해 기고했다. 권 원장은 최근 부탄 왕국의 국어발전위원회 위원장 일행이 국어 정책의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조언을 듣고자 국립국어원에 방문했다고 하였다. 부탄은 '종카어'라는 고유 언어가 있지만 실제 의사소통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진다. 영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탄과 같이 고유 언어 보존에 관한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립국어원은 외국의 언어 정책 기관과 협력하여 세계적인 자국어 지키기에 힘쓰는 한편, 우리말이 생활어로뿐만 아니라 전문어로서도 기능을 지켜 나가도록 힘써 우리 문화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하였다.

1월 7일 제주대 국어국문학과 강영봉, 김동윤 교수와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순자 연구원이 제주 작가들의 작품 속에 나타난 용례를 뽑아 제주어에 대한 어학적인 설명을 곁들인 해설집 『문학 속의 제주 방언』을 펴냈다. 이 책은 국립국어원의 '21세기 세종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이뤄졌던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 검색 프로그램' 결과물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에서 제주어 교육 자료 2종을 발간했다. 어린이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초등 자료 『개염지영 벳말축』은 그림책으로 구성되었으며 쉬운 이해를 위해 표준어와 제주어를 혼용했다. 중등 자료 『의성어와 의태어로 배우는 제주어』는 표현하기 어려운 미묘한 소리나 동작, 모양들을 삽화와 함께 대화 형식으로 엮어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1월 8일 스마트폰 등의 응용 소프트웨어를 뜻하는 '앱(app)'이 회원 투표를 통해 미국 2010년 '올해의 단어'로 선정됐다고 미국방언협회(American Dialect Society)가 밝혔다.

1월 10일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가요의 가사에 외계

어(외계인들이 쓰는 언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말)가 깊이 파고들고 있다. 대중음악 시장에 수많은 싱글곡들이 쏟아지면서 경쟁이 치열해져 감각적인 의성어로 이루어진 외계어 가사가 대중에게 빨리 각인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져 나타난 현상이다. 강태규 대중문화평론가는 이 현상에 대해 "요즘 노래는 추억이 없다. 곡이 그저 소비되기 때문에 곱씹으며 추억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졌다."라고 하며 "음악 관계자들 모두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1월 10일 고려사이버대학교가 골드만 삭스의 후원으로 한국어 숙달도가 높은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고급 수준의 '다문화 가정 e-배움 캠페인' 한국어 6, 7 과정을 개설했다. 이 과정은 애니메이션 형식의 강의로 개발되었으며, 사춘기 자녀 교육, 자기 계발, 봉사 활동 등을 주제로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월 12일 서울시가 종로구 통의동과 내수동 등 세종대로 일대 47만 제곱미터의 간판과 표지판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는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서울시는 세종로공원에 8,800여 제곱미터 규모의 '한글마당'을 조성하고, 전통 한옥 육성지인 서촌 지역에 '한글사랑방'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데일리NK는 북한에서 '얼음', '빙두' 등 마약 관련 은어가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탈북자의 급증과 함께 이와 관련된 은어들도 생겨나고 있는데 남한의 탈북자들이 북측의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을 이르는 '한라산 줄기'나 '두만강 자금'이 대표적이다.

1월 13일 EBS가 수능 강사와 전체 제작 참여자, 임직원이 모인 가운데 민주적 교육 발전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언어생활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고운 말 바른 콘텐츠' 선포식을 했다. 윤혜정 언어 영역 대표 강사와 명창식 피디는 품격 있는 방송 콘텐츠 이용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곽덕훈 EBS 사장은 인성 심화 · 환경 친화 · 언어 순화의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공영 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것을 다짐했다.

1월 14일 서울시가 15일 개장하는 세종문화회관 지하의 대규모 식당가 이름으로 '아띠'를 선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아띠'는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친한 친구, 오랜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국립국어원 관계자에 따르면 '아띠'는 현대 사전뿐 아니라 고어사전, 어원사전 등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순우리말이라는 공식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이름을 공모했으나 검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듣기 좋고 부르기 좋은 고유 명칭으로 받아들여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월 17일 건국대가 27일까지 건국대 언어교육원 등에서 한국어 교육 포럼을 진행한다. 포럼의 목적은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 수준 향상과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건국대 선우영 국제처장은 "이번 초청 교육 포럼을 통해 풍부한 교육 콘텐츠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중국 내 한국어 교육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나아가 우수한 중국 유학생을 국내로 유치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7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과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 87명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가족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3차까지 교육을 모두 이수하고 종합시험을 통과한 교육 수료자에게는 국립국어원 원장 명의의 수료증과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3급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1월 17일 리투아니아에 있는 비타우타스 마그누스대의 동아시아연구소 지카스 소장이 방한하여 "한국의 위상이 커지면서 일본학과 중국학만 있던 동아시아 지역학 석사 과정에 한국학 전공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리투아니아와 한국은 1991년에 외교 관계가 수립됐지만 한국대사관이 없어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한류 덕분에 한국의 음식, 춤, 노래, 드라마, 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것이

학문적 관심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전공과목은 '영화와 가요를 통해 배우는 한국어' 강좌이다. 현지에서는 한국학을 강의할 인력이 부족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홍보와 지원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시한 '한글 자판 표준화 방안 관련 선호도 분석' 결과, 한글 자판 선호 비율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천지인이 61.3%, LG전자의 나랏글이 17.1%, 팬택의 SKY가 6.5%, 기타가 1.9%, 모름/무응답이 13.2%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단일 표준의 경우 천지인을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천지인의 시장 점유율인 55%보다 높게 나타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한글 자판 표준이 하나로 정해지면 현재 LG전자의 나랏글이나 팬택의 SKY를 쓰고 있는 이용자들도 '천지인'을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위는 7개 소비자 단체들의 '휴대폰 문자 입력 방식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를 토대로 3월 전까지 '휴대폰 한글 자판 표준'을 최종 확정한다고 하였다.

1월 17일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KCD)' 6차 개정안에서는 2007년에 고유어로 바뀌었던 의학 용어의 상당수가 다시 한자어로 복귀됐다. 특히 장기 명칭은 대부분 한자어로 개정되었으며, 5차 개정안에서 '콩팥(신장)'으로 표기하도록 했던 것은 '신장'으로, '무릎'은 '슬'로 통일됐다. 주무 부처인 통계청 송금영 통계기준과장은 "5차 개정에서 무리하게 토박이 한글 낱말로 바꾸면서 생경한 단어가 공식 명칭이 되는 등 어색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 '수지(手指)'가 '손'으로, '구강(口腔)'이 '입'으로, '원공(圓孔)'이 '구멍'으로 개정된 것처럼 한자어 명칭이 고유어로 바뀐 경우도 있었다.

1월 17일 유네스코가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어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제주어 보전·활용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체계적인 자료 집적 사업과 제주어 활용 실태 조사 및 제주어 관련 예술 활동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1월 19일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개원 20주년을 기념한 언론간담회에서 "온 세상이 영어 사회가 돼 가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을 통한 획일화로 정치·경제적으로 강한 나라의 언어에 힘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말이 필리핀 타갈로그어나 부탄의 종카어처럼 생활 언어·가정 언어로 전락하고 정치·행정·법률·학문 등 공식 언어는 영어로 바뀔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다. 국립국어원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 국어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국어 보존을 위해 전문 용어의 우리말 순화, 지역어(방언) 보존, 한국어의 국외 전파, 영한 자동 번역 프로그램을 비롯한 국어 정보화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남북 언어학자 회의 재개와 새터민 대상 국어 교육에 힘을 기울여 통일 이후 언어 소통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 작업을 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1월 19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4회 한국학 국제회의에서 인도네시아 국립대(인도네시아), 말라야 국립대(말레이시아), 출라롱콘대(태국),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 4개 주요 대학과 '글로벌 e-스쿨' 협약을 맺는다고 밝혔다. 글로벌 e-스쿨은 국제교류재단이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아 한국학을 언어 중심에서 한류, 정치, 경제, 산업(IT·자동차)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목표 아래 새로 도입한 학문 보급 시스템이다.

1월 19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한글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을 방문한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에번 윌리엄스는 한글 서비스의 출시를 알리면서, 한국을 매우 중요하고 특별한 시장으로 평가했다.

1월 21일 구미1대학 정창주 총장과 서영길 국제교류센터장이 베트남 탱다이대학교와 한국어 전공 교류 협정서를 체결한다. 이번 교류 협정으로 구미1대학은 국제교류센터에서 직접 개발한 한국어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국외 대학으로 처음 수출하게 됐다.

1월 21일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은 내음(냄새)·손주(손자)·허접쓰레기(허섭스레기)와 같이 자주 쓰이지만 비표준어인 단어들을 복수 표준어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직속 국어심의회 소위원회는 흔히 쓰이는 35개 비표준어들을 복수 표준어로 삼기로 하고 국어심의회 본회의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하였다. 한편 국립국어원은 2012년까지 17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의학·건축·물리학 등 17개 분야의 전문 용어를 순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방언 보존과 한국어 사용 인구 확대를 위해 애쓰고 있다.

1월 21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숫자로 본 우리말』을 펴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7,700만 명(2010년 기준)으로 추산됐으며, 사용 인구로 볼 때 전 세계 6,900여 개 언어 중 한국어는 세계 13위에 해당된다. 또 언어별 인터넷 사용자 순위에서 한국어 사용자는 3,750만 명으로 세계 10위를 기록했으며, 1920년부터 2010년까지 발간된 국어사전은 모두 125종에 달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수록된 단어는 51만 개이며 이 중 한자어가 58.5%, 고유어가 25.9%, 혼용어가 10.6%, 외래어가 5.4%를 차지했다. 전 세계 한국어 보급 기관은 2,177개였으며 총 251,136명이 한국어 교육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발간된 한국어 교재는 3,399권에 달했다.

1월 2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정목 서강대 교수와 이계진 전 의원 등을 국어발전유공자로 선정했다.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서 교수와 박창원 이화여대 교수, 이기갑 목포대 교수가 문화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이 전 의원과 홍윤표 전 연세대 교수, 남영신 국어문화운동본부 대표, 안상순 전 금성출판사 부장, 조항록 상명대 교수, 임동찬 공항초등학교 교장이 국립국어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1월 23일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정상기)이 국내 13개 지역에서 제21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시행했다. 이번 시험에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 동포 8,233명이 응시했다. 국립국제교육원 재외동포교육·토픽팀은 "올해 불가리아, 헝가리,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스리랑카, 투르크메니스탄 등 동유럽, 북중미, 중앙아시아 등지로 시험 지역을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도 시행 도시를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1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이 터키 수도 앙카라에 위치한 터키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개설했다. 터키국립도서관 내 한국자료실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다양한 한국 관련 서적 및 DVD, CD 등과 서가, 컴퓨터 등의 설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터키인의 이해 증진 및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재현 주터키 대사는 "세종학당 및 올해 개설 예정인 한국문화원과 함께 터키 내 한국 문화를 소개·보급하는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가고 있어 양국 간 문화 교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1월 25일 여성가족부가 2011년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 내용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200개소로 확대하고 결혼 이민자 수 및 사업 실적에 따라 53개 센터에 종사자를 추가로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 교육을 도와줄 '언어 발달 지도사'를 200명으로 확대·배치할 계획이며, '엄마(아빠) 나라 언어 습득을 위한 언어 영재 교실'을 100개 센터에서 7개 언어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중도 입국 자녀에게 한국어 교육, 또래 관계 및 정체성, 편입학 등 한국 생활 초기 적응을 지원하는 '레인보우스쿨'을 전국 10개 지역에서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1월 25일 지번 주소가 2012년 1월부터 도로명 주소로 변경됨에 따라 각 지자체들이 역사적 유래나 지역 특성, 지역 인물 등을 알릴 수 있는 '특색 있는 도로명 짓기'에 고심하고 있다. 경기 군포시는 공직자들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해 시청 앞 도로 명칭을 '청백리길'로 확정했다. 여주군은 군청 앞에서 세종대왕릉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세종로'로, 조선 효종의 북벌론을 보좌했던 이완 장군의 묘소 일대 도로를 '북벌로'로 결정했다.

1월 26일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정상기)이 중남미 거주 동포와 현지

인들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 교재 『중남미에서 배우는 한국어』를 간행했다. 교재의 집필은 추인경 아르헨 한글학교 교장, 이은화 중남미문화원 교수, 하정현 아르헨 코르도바대학 한국어과 강사 등 아르헨 한인 2세와 현지인들을 10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는 이들이 맡았다. 정상기 원장은 "다른 언어나 문화권으로도 한인과 현지인을 동시에 배려하는 한국어 교재 발간 움직임이 확산되는 데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1월 26일 대법원 산하 법원도서관이 『민·형사 간결한 판결 사례집』을 발간했다. 판결문은 만연체의 긴 문장이나 딱딱한 문어체 표현, 어려운 법률 용어 등으로 인해 읽기 어려운 글로 꼽혀 왔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논리적으로 간결하게 작성한 모범 판결문의 예들을 잘 보여 준다. 사례집 집필에 참여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최유정 판사는 간결한 판결문으로 국민들은 쉽고 빠르게 판결을 이해할 수 있고 판사들은 판결문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1월 26일 전각 작가 정병례와 핸드백 디자이너 이건만, 패션 디자이너 이상봉, 도예가 전성근이 각자의 장르에서 한글을 이용해 만든 작품들을 '한글 디자인 명인전'에 출품했다.

1월 27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함께 모인 자리의 비용을 서로 각자 부담하는 것'을 의미하는 '더치페이(Dutch pay)'를 대신할 말로 '각자내기'를 선정했다.

1월 27일 증평향토문화연구회(회장 유병택)는 지역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규명한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제10집 『증평군의 토박이말』을 펴냈다. 118쪽 분량의 이 도서는 16명의 집필 위원들이 증평읍과 도안면에서 수집한 증평의 사투리와 토박이말 528개를 담았으며 용례도 함께 제시하였다.

1월 28일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우진영)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에서 '디지털 음성 도서(Digital Talking Book) 저작 툴'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 음성 도서 저작 툴은 인쇄물을 읽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제작된 국제 표준 DAISY(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에 기반을 둔 저

작 툴이다.

2월 1일 경기 안산의 안산강서고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수정 양이 정은식 교사의 지도를 받아 "결혼 이주민 여성을 위한 안산시 한국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 및 내용에 대한 진단과 제언: 안산 거주 여성 결혼 이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을 발표해 화제가 되었다. 논문에는 안산시의 결혼 이주 여성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편성 방식과 교육 방법 등의 개선점을 다문화 국가인 캐나다 및 호주와 비교해 제시했고, 결혼 이주 여성 3명과의 심층 면담 내용도 담았다.

2월 1일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에서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남북의 편찬 위원들이 각각 『표준국어대사전』과 『조선말대사전』을 모체로 양측의 어휘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다.

2월 1일 중국제한인문학회장인 김종회 경희대 교수가 카자흐스탄 현지 답사 과정에서 발굴한 한글 작품들을 집대성하여 『중앙아시아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을 발표했다. 수록 작품은 1930년대 연해주에서 포석 조명희로부터 직접 문학 수업을 받은 강태수(1909~2001)의 단편 '그날과 그날 밤'과 시집 '80고개 오르며'를 비롯해 리 왜체슬라브의 시 11편, 리시연의 수필 3편 등 시와 소설을 망라하고 있다.

2월 3일 미국 미디어 호스팅 업체 사이트 '이미지색(http://imageshack.us)'에 '한글 주기율표'라는 그림이 올라와 국내외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김다림(Darim Kim)이라는 한국 여성이 제작한 이 그림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해 놓고 표기법, 소리, 조합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한 것으로 한글 창제의 과학성을 잘 보여준다.

2월 5일 그동안 문제 은행 형태로 공개돼 온 한국어 능력 시험이 비공개 출제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기존의 공개된 문제집(2,000문항)에서만 출제하는 방식은 외국인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 신장과 우수자 선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상반기 중 한국어 표준 교재를 개발

해 근로자 송출 국가에 보급하고 시험 문제는 표준 교재를 토대로 비공개로 출제한다고 하였다.

2월 5일 최근 마트나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 가면 이상한 높임말이 자주 들린다는 지적이 있다. "사과 세트는 4만 원부터 있으시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면 '있으시다'는 말을 고객에 대한 존칭으로 사용했지만 문장 자체만 따졌을 때에는 '사과 세트께서 있으신' 꼴이 된다. 이러한 이상한 높임말에 대해 국립국어원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물건에 선어말 어미 '-시-'를 붙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자본주의 사회 특성상 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한 친절한 응대차 문장을 과도하게 포장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라고 분석했다.

2월 6일 외국어교학연구출판사에서 2008년에 발행한 한국어 교재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이 한국의 젊은 세대가 자주 사용하는 속어와 유행어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2월 7일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기초 학습 능력이 부족한 관내 주민을 위해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 기본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 수업은 초등 교과 1~2학년 과정의 초급반과 3~4학년 과정의 중급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초급반 수업 내용은 글씨 쓰기 기초부터 은행 입금표와 영수증 금액 읽기 등 생활 속 수학 등으로 이루어지며, 중급반 수업 내용은 보다 실용적인 국어 영역과 덧셈, 뺄셈 등으로 구성된다.

2월 8일 대전 서구청은 외국계 주민이 지역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2011년 한글 교실'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2월 8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한글 국가 도메인인 '.한국(점 한국)'의 생성을 완료하고 국제인터넷주소기구인 ICANN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기존의 영문 국가 도메인 '.kr'과 함께 '.한국'을 추가로 확보해 완전한 한글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월 9일 국립국어원과 SBS가 공동으로 방송 3사 프로그램 4개월

분량을 분석한 결과,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1분에 1번 이상 비속어, 욕설, 차별적 표현, 인격 모독 표현 등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2월 9일 국립국어원이 한 달간 전국 성인 남녀 5,000명을 면접 조사한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어에 관심이 있다고 한 응답자 비율이 2005년 60.9%에서 2010년 45.5%로 급격히 감소했다. 일상생활에서 욕설과 비속어를 쓰는 사례는 2005년 50.5%, 2010년 49.0%로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경어는 반드시 유지·존속해야 한다고 본다'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한 국민은 87.5%에서 78.1%로 감소했다. 일본식 용어에 대해 '익숙하니까 우리말로 흡수해 써야 한다'는 항목에 '그렇다'라고 답한 국민도 2005년 5.4%에서 2010년 16.1%로 늘어났다. 한편 국민들은 방언 사용에 대해 5년 전보다 훨씬 관대한 태도를 보였다. '지방 출신자가 해당 방언을 써도 괜찮다'는 항목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이 2005년 26.3%에서 2010년 62.0%로 급증한 것이다.

2월 9일 대전시 교육청이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듀코어', '해피스쿨', '에브리바디 조이풀 대전' 등과 같이 정체불명의 영어 구호를 남발해 한글 교육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월 9일 부산 해운대구가 결혼 이민자와 지역 거주 외국인에게 순한글 이름을 지어 주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결혼 이민자와 지역 거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소속감과 친근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월 11일 두산동아(대표 이사 성낙양)가 스마트폰, 태블릿PC 사용자들을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전 애플리케이션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앱은 '두산동아 새 국어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일한·한일사전', '두산동아 프라임 독한·한독사전'이다.

2월 11일 MBC 시트콤 '몽땅 내 사랑'이 저속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권고'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

의위는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 언어) 3항과 44조(수용 수준)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2월 12일 서울 은평구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한글 학습을 돕는 일대일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미취학 아동들의 한글 활용 능력을 높이고 또래들과의 관계 형성에 도움을 줌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2월 12일 전라남도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행정 용어 순화 성과를 『공문서 쉽고, 바르게 쓰기』로 정리해 발간했다. 국립국어원에서 발행한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란 책을 기본으로 한 이 책은 그동안 전라남도가 선정한 행정 순화 용어 131개를 수록했다.

2월 12일 제1회 '아름다운 전라도 말 자랑 대회'가 광주 시립민속박물관 앞 특설 무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초등학생부터 60대 할아버지까지 12개 팀이 출전해 전라도 생활상과 풍습, 개인의 인생 풍파 등을 해학과 재치가 묻어나는 전라도 사투리로 표현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2월 13일 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 의원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혼 이민자 등의 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지원 및 학습 지원 등 언어 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결혼 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월 13일 한양대학교 한국어문화원과 경기도 사랑회가 17~18일 이틀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한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한국어 교사 연수회'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월 1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박대원)이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의 국립 아자디대학에 어학실습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어학실습실 개원은 2008년 9월 개설된 한국어학과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2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공동으로 청소년들의 올바른 인터넷 이용 문화 확산과 건전한 언어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 언어 순화 캠페인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2월 14일 LG가 다문화 청소년 교육을 대폭 확대하고 중국 및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400명에게 이중 언어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함께 'LG 사랑의 다문화학교 이중 언어 온라인 과정'을 통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들에게 해당 언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2월 15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원장 김흥규)이 대학 연구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국어사전 애플리케이션 '고려대 한국어 사전 2011'을 출시했다. 이 사전은 민족문화연구원의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서 주요 어휘 15만여 개를 선정하여 만든 것으로 검색이 용이해 사용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2월 15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국가 간 비자 협정을 통해 상대국에서 관광과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를 일컫는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를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관광취업'을 선정했다.

2월 15일 서울시가 내달부터 12월까지 만 3~12세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방문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방문 교육은 한국어 교육을 비롯해 교육 정보 자료 제공, 한국 사회 문화 체험 및 문화 특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3월부터 서울시 내 3개 초등학교를 우선 선발해 방과 후 수업으로 일대일 맞춤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4월부터 7월까지는 '다문화학당'을 운영한다고 하였다.

2월 16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김순자 연구원이 제주시 애월읍 봉성 마을 강자숙 할머니 생애를 구술로 풀어낸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돌각돌각 미녕 싸멍 우린 늙었주』를 발간했다. 이 책에는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제주어는 물론 각종 농사와 민

속, 세시 풍속, 민간요법과 관련한 어휘들도 포함돼 있다.

2월 17일 캘리포니아 주 팰로앨토 시의 한 식당에서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원장 김신옥)의 주도로 인근 지역 공립 학교 학부모들과 한국어 교사 양성 전문가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된 '북가주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 추진 위원회'가 발족했다. 이 발족식에서 구은희 학장은 한국어 정규 과목 채택을 위한 전략과 함께 개별·학교별 한국 학부모회의 학교 설득 방법, 한국어 수요 설문 조사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다.

2월 18일 최근 언론들이 '하의실종', '종결자', '끝판왕' 등의 단어를 부쩍 많이 쓰고 있다. 하지만 누리꾼들은 "인터넷상에서 소통하는 데 우리끼리 재미나게 쓸 수 있는 단어들이지만 언론사들이 이러한 제목을 남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월 21일 오랫동안 방언 연구를 해 온 경남 통영초등학교 김성재 교사가 『방언 속에 내 고향이 있었네』를 펴냈다. 이 책은 기존의 『표준국어대사전』과 각종 방언 관련 도서에 실린 오류 사례와 방언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었다.

2월 21일 용산구가 베트남 현지 고등학교에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구는 베트남 중남부 꾸이년(Quy Nhơn) 시 우수 학생들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좋은 반응을 얻자 우수 고등학교를 선정해 한국어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2월 21일 초등학교 수학 교과서가 다른 교과서와 달리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을 띄어서 "1000 원", "100 배", "1000 명" 등과 같이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수학 교과서의 대표 연구진인 배종수 서울교육대학교 교수와 발행처인 두산동아는 이에 대해 어문 규정을 지키되 수학 과목의 특성상 어린이들이 숫자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숫자와 단위를 나타내는 낱말 사이를 약 4분의 1칸 정도 띄어 썼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발행 측의 의도와 달리 수학 교과서가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배종수 교수는 "연구

진과 의논해 숫자와 단위 낱말 사이의 간격을 더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어린이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2월 22일 서울시의회 남재경 의원이 서울시의회 여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종대왕 생가 복원을 제안했다. 남 의원은 세종대왕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도 보여 줄 수 없는 서울시가 한글 특화 지구 조성 등 '한글'을 주제로 사업을 펼치는 것은 주춧돌도 놓지 않고 기둥부터 올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월 23일 국립국어원과 EBS가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을 위한 한국어 중급 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2010년도 초급에 이어지는 중급 프로그램으로 2월 28일부터 14주 동안 방영된다. 방송은 한국어 교육 전문가와 원어민이 함께 출연하여 한국어를 함께 학습하고, 다문화 가족 출신 국가 중 분포도가 높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의 언어로 다시 설명함으로써 외국인이 자신의 언어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게 구성했다.

2월 23일 리비아 국가 원수 무아마르 카다피의 영어 표기가 중구난방이어서 많은 영자지 편집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인터넷판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카다피'의 영어 철자는 우선 첫 글자만 봐도 G, K, Q(Gaddafi, Kaddafi, Qadhafi) 등 여러 가지가 쓰이는데, 이 같은 문제는 아랍어 이름을 영어로 옮기는 데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관용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2003년 12월 제55차 외래어심의회에서 카다피의 우리말과 영어 표기를 '무아마르 알 카다피(Muammar al Qaddafi)'로 규정했다.

2월 23일 한국GM이 내달 '쉐보레' 브랜드의 공식 출범에 맞춰 새 법인명 '한국GM'의 법적 변경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GM은 브랜드명 '쉐보레'의 한글 표기와 관련해 국립국어원과 외래어 표기 용례 변경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월 24일 부산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부산국제영화제의 영문 약칭을 'PIFF'에서 'BIFF(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2000년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변경에 따라 부산의 영문 표기법이 'Pusan'에서 'Busan'으로 바뀌었지만 영화제 조직위와 부산시는 그동안 국내외 혼란을 우려해 'PIFF'를 유지해 왔다.

2월 24일 한국외국어대 노어과 강덕수 교수가 야쿠트어 연구서 『야쿠트어』(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를 출간했다. 이는 국내에서 발행된 최초의 야쿠트어 연구서일 뿐 아니라 러시아 이외의 국가에서 출간된 첫 야쿠트어 연구서라는 의의도 갖는다. 강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시베리아 소수 민족 언어에 대한 연구가 한국어의 계통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우회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2월 25일 상명대 부설 공공디자인센터와 KBS 한국어진흥원이 한글 디자인에 관한 '공공 디자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내용은 한글 디자인 관련 분야 발전을 위한 자문, 컨설팅과 정보 및 자료 공유, 올바른 언어 사용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2월 25일 원로 성우 최흘 씨가 장단음이 중심이 되는 발음 사전인 『우리말 바르게 말하기 사전』을 펴냈다. 이 책은 단어마다 장모음을 표기했고 왼쪽에는 단모음 낱말, 오른쪽에는 장모음 낱말을 배열해 장단음 차이를 구별했다. 또한 사자성어 6,500여 개도 장단음을 표기해 수록했다.

2월 27일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시메트로 9호선에 따르면 서울 전철역 이름 292개 중 순우리말 역명은 18개로 전체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우리말 역명은 현저히 적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들어 서서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한말글문화협회 이대로 대표는 순우리말 역명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며 "새로 만드는 역 이름이라도 정감 있는 우리 토박이 땅 이름을 찾아 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2월 27일 우리나라 벤처 기업 CSLI에서 안드로이드폰용 자동 통역기를 출시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IT 관련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내년 초를 목표로 여행·관

광용 자동 통역기 상용화 연구에 본격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

2월 28일 한글 단체들이 광화문 현판 한글로 바꿔 달기와 조선어학회 수난 기념탑 건립을 위해 대국민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한글학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글문화원 등 한글 단체와 '광화문 한글 현판 걸기 모임'은 3월 1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한글 빛내기 100만 명 서명 운동 시작 선언 기자 회견'을 한다고 밝혔다.

3월 2일 ㈜비타민하우스(대표 김상국)는 최근 인도네시아국제한국학회(INAKOS)의 『한국학 총서 제3권 – 한글과 한국어』 발간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한국학 전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외대 양승윤 교수는 "한국에 대한 지식을 인도네시아 학자들이 자국어로 만든 책을 통해 습득한다면 한국을 바르게 알게 되고 지속적인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며 총서를 기획하게 된 동기를 설명했다.

3월 2일 KBS 1TV가 창사 특집 네트워크 대기획 '사라진 언어, 잊혀진 세계'를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은 남태평양 서쪽 끝에 있는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의 올란반즈 부족 등 아직 고유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원시 부족들의 모습을 소개했다. 제작진은 "현재 인류가 사용하는 언어 6,000여 종 중 90% 이상은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의 소멸은 문화뿐 아니라 수만 년간 축적돼 온 정보의 소멸을 의미한다는 점을 경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3월 3일 한글과컴퓨터는 올해 출시할 '한컴오피스 2010 프리미엄(가칭)'에 일반 문서를 자동으로 점자 문서로 변환시키는 '점자 변환' 기술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한컴은 점자 변환 기술을 통해 그동안 수작업을 해야 했던 점역이 손쉬워졌다고 설명했다.

3월 4일 대한제국기에 발행된 교육 교재인 『유년필독석의』 등 한글 귀중본이 한글박물관에 기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차 한글박물관 자료 수증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소장자 등으로부터 한글 자료 474점을 받아 한글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했다. 기증

자료에는 서수열 씨가 평생 수집한 고소설『완판본 열녀춘향수절가』,『장끼전』,『춘외춘』을 비롯해 교육 지침서인『유년필독석의』등 국내에 얼마 남지 않은 희귀 자료, 그리고 일제 강점기와 미 군정 시절 발간된『조선어 독본』(1~7권),『조선말큰사전』초간본(1947년) 등 전시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자료 365점이 포함됐다.

3월 4일 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전운기) 고용노동연수원(원장 송봉근)이 노동 6개 분야의 1,000여 개 용어가 수록된『고용 노동 용어 해설』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노동 경제 227개, 노동 교육 242개, 노동법 146개, 노동 복지 152개, 노사 관계 198개, 국제 노동 32개 등 6개 분야의 997개 용어가 수록돼 있다. 송봉근 원장은 "노사 당사자의 선행 지식 습득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라며 "고용·노동 관련 용어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용례 제시를 통해 사용자들로 하여금 고용·노동 정책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노사 관계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해설집을 발간했다."라고 말했다.

3월 5일 조선대학교는 베트남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에 개설된 세종학당에서 호찌민 시 공안 경찰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설립된 세종학당이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은 일상생활과 실무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해 상호간 불편함을 해소한다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3월 5일 중국 정부가 조선어 입력 방식 표준을 정하는 등 이른바 '한글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조선어(한글)와 중국어를 포함한 6대 법정 문자의 자판 입력 방식 표준화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발의하였다. 중국이 이처럼 한글 공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기업·학계는 표준화를 놓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월 6일 전국에서 가장 많은 다문화 가족을 보유한 경기도가 결혼 이민자와 그 자녀가 편안하고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편다. 결혼 이민자의 가장 큰 어려움인 언어 문제

를 해결하고자 복지 센터와 인터넷에서 한국어 교실을 열어 무료로 한국어 교육을 한다. 한국어가 가능한 결혼 이민자에게는 취업 지원 사업도 한다.

3월 7일 경찰청은 전·의경 사이에서 자주 사용되는 은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2만 2,000여 명의 전·의경에게 '언어 예절' 등을 핵심으로 하는 80쪽짜리 소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인간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은어를 줄이면 전·의경들의 생활이 좀 더 개방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소책자에는 사용 빈도가 높은 은어들이 예시돼 있고 그와 함께 바른 표현이 제시돼 있다.

3월 7일 홍윤표 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김소월이 1925년에 펴낸 유일한 시집 『진달래꽃』에 쓰인 언어는 당시 평안북도 정주의 방언으로, 이 시집은 당시 정주의 말이 어땠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발표했다. 홍 전 교수는 "이 같은 정주 방언을 잘못 해석한 출판사들이 이를 다른 말로 바꿔 버리는 바람에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시집 『진달래꽃』의 언어는 상당 부분이 훼손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방언을 서울말로 고쳐 쓰면서 소월 시가 많이 손상됐는데 이것은 비단 『진달래꽃』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 "이번 『진달래꽃』 문화재 등록을 계기로, 잘못 알려진 문학 작품들을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3월 8일 국립국어원은 중앙 행정 기관과 광역·기초 지방 자치 단체 및 시도 교육청 등 316개 기관에 공공 기관 언어 표현 감수 지원을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고 공공 기관의 언어 표현 개선에 나섰다. 정확하고 쉬운 국어 사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국립국어원 공공 언어 지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publang), 공문서, 전화(02-2669-9724), 가나다전화(1599-9979)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월 8일 서천군 마산면(면장 강영주)과 마산면바우처후원회(회장 이봉구)는 결혼 이주 뒤 귀화한 여성들에게 한글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다문화 이주 여성 상당수가 까다로

운 개명 절차 때문에 모국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마산면 관계자는 "이들의 사회 적응과 한국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글 이름 지어주기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3월 8일 인하대학교는 우리말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안내 활동을 벌이는 국어문화원을 개원하였다. 문화원에서는 박사급 인력들이 상담원 및 연구원으로 일하게 된다. 원장을 맡은 박덕유 인하대 국어교육과 교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와 '시민 국어 어문 교실'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연과 독서 토론 대회도 열 계획이라며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키우고 우리말 순화 운동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8일 SBS 아나운서팀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대상'에서 '바른 방송 언어상'을 수상했다. SBS 아나운서팀은 바른 방송 언어의 실천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2006년부터 매년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방송 언어 연구 공동 발표회'를 진행했다. 또 2007년부터는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통해 SBS 아나운서가 직접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바른 우리말의 사용에 대해 강의를 해 왔다.

3월 9일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하루가 다르게 각종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한 온라인 취업 포털에서 실시했던 설문 조사에서 직장인의 73.5%가 신조어나 약어를 못 알아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69.4%는 신조어를 몰라 단어의 뜻을 검색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3월 10일 40여 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임무출 씨가 『우리말 달인 잡는 문제집』(다산초당)을 펴냈다. 이 책은 장황한 이론적 설명이 있는 기존 맞춤법 교재와는 달리 1,200개의 실전 문제를 통해 맞춤법을 쉽게 익힐 수 있게 하였다.

3월 10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에서 대표 어휘 120개를 선정해 중·고교생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제주 지역 중·고교생의 사투리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됐

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다섯 개 어휘는 '눌(가리, 1.0%), 고고리(이삭, 1.3%), 상고지(무지개, 2.8%), 노단손(오른손, 2.8%), 미녕옷(무명옷, 3.0%)'이었다. 유네스코는 지난해 12월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 가운데 4단계인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critically endangered language)'로 분류한 바 있다.

3월 15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건강과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생활 방식'을 뜻하는 '로하스(LOHAS)'를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친환경살이'를 선정했다.

3월 15일 정의훈 동해시 홍보감사담당관이 2008년 첫 번째 사투리 모음집 『사투리 사냥』에 이어 두 번째 향토 사투리 모음집 『이기 니끼나』를 출간했다. 『이기 니끼나』는 향토 사투리 700여 단어를 일상 대화체로 소개하였다.

3월 16일 고영조 성균관유도회 문경지부장은 최근 조선 중기 고상안(1553~1623) 선생이 집필한 농사 교본 『농가월령』을 국역본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작자의 체험을 토대로 1월부터 12월까지 농사짓는 법과 농가의 행사 등을 기술하고 있다.

3월 16일 멕시코 한 원주민 부족의 최후 생존자들이 더 이상 의사소통을 하지 않아 해당 언어가 소멸될 위기에 놓였다. EFE 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남부 타바스코 주 아야파에 사는 마누엘 세고비아(75)와 이시드로 벨라스케스(69)는 과거 원주민 말인 '아야파네코'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 2명의 생존자이다. 두 사람은 같은 마을 안에서 살지만 갈등을 빚으면서 더 이상 말조차 섞지 않는 사이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16일 ㈔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는 연말에 강릉 사투리 일화가 담긴 소규모 책자 발간을 위해 다양한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200쪽 내외로 제작되는 책자에는 조순 전 부총리 등 지역 유명 인사에 얽힌 강릉 사투리 비화를 비롯해 오래전부터 구전돼 내려오는 우스갯소리와 에피소드, 콩트 등이 수록된다.

3월 16일 최근 스마트폰으로 제주어를 배울 수 있는 무료 애플리케이션이 속속 개발돼 관심을 끌고 있다. IT 업체인 위즈넷이 제

주어보전회의 감수를 받고 출시한 '제주어 사전' 앱은 제주어 단어와 속담, 용비어천가 및 제주어 시집, 제주어 인사말, 제주어 문학, 관광객들을 위한 간단한 대화 표현을 담았다. 한편 앱 제작사 '이매진앤쇼(ImagineNshow)'가 새롭게 선보인 '제주어' 애플리케이션은 제주어의 단어와 재미있는 일상 표현 150여 가지를 제주도민의 발음으로 들려준다.

3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휴대폰 한글 문자판 국가 표준화 추진 공청회'를 공동 개최하고 업계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방통위와 기표원 등은 일반 휴대 전화(피처폰) 한글 자판은 '천지인'으로 통일하고 스마트폰 한글 자판은 '천지인, 나랏글, 스카이계열' 등 3개의 방식을 복수 표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3월 19일 외솔기념관은 4월부터 울산 중구 관내 1개 초등학교의 1개 학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울산대 국어문화원과 협의해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 외솔기념관 관계자는 "외솔기념관의 우리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울산 중구 하면 '우리말'이라는 연상이 되도록 사업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3월 20일 급속히 사라져 가는 제주어를 체계적으로 보존·유지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신관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특히 젊은 세대들의 제주어 사용 기회가 크게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및 일상 현장에서부터 제주어를 보존·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월 20일 충청북도는 2014년까지 세계 각국의 문자와 언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문자 언어 박물관과 언어 비교·연구 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 부처 등을 상대로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이자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이 청주에서 인쇄됐다는 점과 세종대왕이 청원군 초정 약수에서 한글을 창제했다는 점을 적

극적으로 알려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3월 21일 최근 애플 앱스토어에 '신조어 능력 시험' 앱이 등장했다. 이 앱을 이용하면 '차도남, 볼매, 레알' 등 신조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다.

3월 21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월 30일까지 금천구 시흥2동 주민 센터·교육관에서 매주 월요일에 '새터민(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표준어 교육 과정'은 새터민들이 어휘, 발음, 억양,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의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설됐다.

3월 21일 다문화 아동을 지원하는 경기도 포천의 대안 학교 '다문화국제학교'가 중도 입국 청소년의 중등 과정 검정고시 합격을 목표로 집중 교육을 실시한다. 이 학교의 민병욱 교사는 "학생들이 한국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만큼 한국어 학습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내후년에는 정규 고교에 입학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3월 21일 행정안전부가 '사무 관리 규정 시행 규칙'을 개정해, 공문서 관인에 쓰이던 획이 늘어나거나 구부러진 전서체를 폐지하고 알아보기 쉬운 글자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앙 행정기관 관인을 교체할 때부터 새로운 서체를 적용하도록 하고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해 학교와 군부대 등 각급 기관의 관인과 회계 공무원 직인의 서체도 바꾼다.

3월 22일 '2009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 결과에서 결혼 이민 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취업 지원과 자녀 교육 지원으로 나타났다. 결혼 이민 여성 중 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90%에 달하며, 이들이 취업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은 일자리 알선(29.6%), 자녀 양육 지원(22.9%), 한국어 교육(18.4%), 직업 교육(14.1%)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초등학생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지원은 기초 교과 지도(27.8%)와 학교 교육비 및 급식비 지원(25.5%)이라고 응답했다.

3월 22일 정부, 기업 등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중복 지원'과 '일회성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사업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 적응 교육이라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현덕 다문화사업팀장은 "다문화 가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1년 이상 장기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충분한 사업비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3월 23일 네팔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한국 시민 단체가 마련한 한국어 강좌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컴퓨터와 직업 교육도 함께 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3월 23일 오전 9시 30분경 조계사에서 '자성과 쇄신 결사 입재 법회'가 열려 '한글 반야심경'이 울려 퍼졌다. 조계종 총무원 차원의 공식 행사에서 한문이 아닌 한글로 된 반야심경을 독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글 반야심경 독경은 조계종이 올해 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자성과 쇄신'을 위한 실천 과제 중 하나이다.

3월 23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최근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 청년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한국어 강사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였다. 태국 정부가 한국어 강사 파견을 요청하게 된 것은 오는 7월부터 태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조 사업이 중단되면서 KOICA의 한국어 봉사 단원이 전원 철수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과 해결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다.

3월 24일 농수산물유통공사(aT, 사장 하영제)가 마포구 전국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가족 교육용 교재를 전달했다. 이번에 기증된 교재는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자녀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한국어 학습용 그림책으로,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단장 고선주)을 통해 농어촌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60개소에 총 4,080권이 전달됐다.

3월 25일 국립국어원에서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를 펴냈다. 이 책에서는 실제로 신문에 실린 기사를 뽑아 기자

들이 흔히 놓치는 띄어쓰기와 맞춤법, 표준어, 다듬은 말, 문장, 표현 등을 알기 쉽게 풀어 놓았다. 이 책은 100쪽 정도의 적은 분량이지만 경험이 풍부한 교열 기자들이 엄선한 기본적인 사항을 모두 담고 있어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3월 25일 서강대 동아연구소 송승원 교수는 '동남아시아의 역사적 문화적 구성: 외부의 영향과 현지화'라는 주제의 국제 학술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의 한글 수입의 정치·사회적 배경 분석'에 대해 발표했다. 송 교수는 "찌아찌아족의 한글 사용은 바우바우 시의 타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발전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획됐기 때문에 시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타밈 시장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송 교수의 전망이다.

3월 25일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한글과 관련된, 출처가 불분명하며 사실 관계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기재되어 수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교과서에는 한글을 '언어학자들이 세계 공용 문자로 쓰면 좋겠다고 선정한 문자', '옥스퍼드 대학에서 뽑은 가장 우수한 글자',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 UN이 제공하는 문자'로 소개하였다. 하지만 교과서 참고 자료 목록에는 어떤 자료를 근거로 이 내용을 수록했는지 나와 있지 않다. 신강탁 교과서기획팀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수정 자료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내년도 교과서에는 바뀐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3월 25일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영어 사전이 'OMG(oh my God)'처럼 온라인상에서 널리 쓰이는 축약어와 하트 기호 '♡'를 정식 단어로 사전에 올렸다. 127년의 옥스퍼드 사전 역사상 기호 '♡(사랑하다)'가 정식 단어로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월 28일 서울시는 시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방과 후 한국어 특별반'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밀집 지역인 보광초등학교, 이태원초등학교, 군자초등학교에 특별반을 시범 개설하고 2014년까지 30개

교로 늘릴 계획이라고 하였다.

3월 29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친환경, 경제성, 안전을 고려한 운전 및 그러한 운전 방식'을 뜻하는 '에코드라이브(eco-drive)'와 '에코드라이빙(eco-driving)'을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친환경 운전'을 선정했다.

3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해 발표했다. 그 결과 KBS 2TV의 '국민 히어로 명 받았습니다', '해피선데이', MBC의 '무한도전', '일요일 일요일 밤에', SBS의 '놀라운 대회 스타킹', '일요일이 좋다' 등이 엉터리 언어를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심의위는 먼저 지상파 방송들이 잘못된 언어·자막을 스스로 고치도록 유도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을 경우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3월 30일 국토해양부는 세종기지 주변의 아리랑봉 등 17개 우리말 지명이 처음으로 남극 지명 사전(CGA)에 등재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말 지명 등재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남극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로 인정받게 됐다."라고 말했다.

3월 30일 한국어와 태권도를 미국의 각급 학교에 보급하기 위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광규 전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28일 "미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는 65개에 불과하다."라면서 "10년 내에 미국 내 1,000개 학교에서 한국어가 정규 과목으로 채택되도록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3월 3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25일부터 사흘간 유럽 한글학교 교장·교사 세미나가 열렸다. 이 행사를 주관한 밀라노 한글학교 서유미 교장은 "재정 문제 해결이 요원하다."라고 고충을 밝혔다. 또한 교사들이 전원 비전공 학부모들로 구성돼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토로했다.

3월 31일 호주 재계가 한국어 등 아시아권 언어 교육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재계는 최근 연방 의회 의원 전원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호주로서는 아시아권 언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

면서 "오는 5월로 예정된 2011 회계 연도(2011년 7월~2012년 6월) 예산안 편성 때 아시아권 언어 교육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삭감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월 1일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국내 모바일 6개 업체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한글 자판 특허권 교환이 완료되는 대로 한글 자판 앱을 내놓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확정한 한글 자판 통일안이 내년부터 적용되면서 제한받을 수 있는 기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부터 삼성, LG, 팬택 등 3개사가 제조한 기존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한글 앱'을 내려받으면 천지인, 나랏글, 스카이 방식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4월 4일 강진군이 영랑 생가의 각종 홍보물 및 안내 표지판의 영문 표기를 'Yeongnang'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4월 4일 대한성서공회는 최초의 한글 성경인 『셩경젼셔』 발간 100주년을 맞아 연동교회에서 기념 예배와 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한글 성경이 한국 교회와 사회, 국어 문화에 끼친 영향'을 주제로 한 이 심포지엄에서는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고, 이덕주 감리교신학대 교수, 옥성득 미국 UCLA 석좌 교수, 민현식 서울대 교수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다.

4월 4일 외교통상부가 한·유럽 연합(EU) 자유 무역 협정(FTA) 협정문 한국어 번역본을 재검독한 결과 서비스 양허표에서 111건,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서 64건, 협정문 본문에서 32건 등 총 207건의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오류 유형 중에는 '생전 행위(inter vivos act)'를 '증여법'으로, '이식(transplant)'을 '수혈'로 번역한 것처럼 잘못된 번역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미상 번역해야 하는 단어를 누락한 경우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4월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청소년 언어 순화를 위한 블로그 '미우와 함께하는 미디어 여행(www.cyworld.com/kcsc2011)'을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싸이월드에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블로그는 방통심의위와 SK커뮤니케이션즈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언어 순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설됐으며, 올바른 언어 사용과 미디어 이용 교육 자료 등이 제공된다.

4월 7일 제주어 보전 육성을 주도할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고재환 전 제주교대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되었으며, 부위원장에는 강영봉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원장이 선출됐다. 이 위원회는 제주어가 사라지는 언어가 아닌 '되살아나는 언어'로 자리매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제주어연구소' 설립에 뜻을 모으기로 했다.

4월 8일 시드니 한국교육원(원장 조영운)에 따르면 올해 호주의 각급 학교에서 한국어를 선택한 학생들이 모두 5,75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030명에 비해 무려 90% 급증한 것이다. 특히 한국 교민 수가 가장 많은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2,999명으로 2년 전보다 100%나 늘었다. 그중 한국계는 51.1%가 증가한 데 비해 비한국계는 117.8%나 증가했다. 한국 교민이 두 번째로 많은 퀸즐랜드 주는 1,396명으로 106.5% 급증했다.

4월 11일 공주대학교는 서만철 총장과 보직 교수, 호주 교장 1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초·중등학교 교장단 한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호주 초·중등학교장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 및 한국의 발전상을 알려 호주 초·중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게 하고, 향후 학생 교류 등 교육 분야 인적 교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4월 11일 울산박물관(관장 김우림)은 올해에 들어 현재까지 개인 소장가 12명이 157건(176점)의 귀중한 유물을 기증했다고 밝혔다. 주요 기증 유물로는 김솔기(우신고) 씨가 기증한 조선어학회의 『사정(査定)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이 있는데 사정 위원으로 울산 출신인 외솔 최현배 선생과 눈솔 정인섭 선생, 민속어 분야 전문가로 석남 송석하 선생이 참여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근필(전 북구 부구청장) 씨가 기증한 『논어대전(論語大全)』 등 서당 교육 자료(22점)는 이 씨의 할아버지 이재관(1876~1955) 씨가 30여 년간 훈장을 지내면서 사용한 서적들로, 유

명한 시문을 쓰고 외운 흔적 등이 남아 있다.

4월 12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새로 지정될 12~13개의 세종학당 중 4~5개를 외국 인력 송출 국가에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지난 3월 세종학당 설립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양 부처는 6월까지 국내에 근로자를 송출하는 아시아 15개국을 상대로 송출 규모와 한국어 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4~5개국을 추리기로 하였다.

4월 12일 관련 학계 전문가 등이 바우바우 시의 세종학당 설립 작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초 찌아찌아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에 세종학당 사업을 신청한 A문화재단과 B대학교가 모두 '보류' 판정을 받았다. 초창기 한글 보급과 바우바우 시 도시 개발 사업 협조 의사를 밝힌 서울시도 사실상 검토 단계에서 멈추었다. 한글을 '공식 채택'했다는 무책임한 홍보도 말썽이다. 찌아찌아족은 현재 한글을 '비정규 과목'으로 분류해 원하는 학생만 수업을 듣고 있다.

4월 12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어떠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로가 양보 없이 극한으로 몰고 가는 상황'을 뜻하는 '치킨게임(chicken game)'을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끝장승부'를 선정했다.

4월 12일 서울시가 서울 광화문광장 옆 세종로공원의 '한글 글자마당' 조성에 참여할 국민 1만 1,172명을 선발했다. 한글 글자마당은 한글 초성(19자), 중성(21자), 종성(28자)으로 조합 가능한 1만 1,172자를 참가자들이 한 자씩 쓰고 돌에 새기는 사업이다.

4월 12일 종로구청에 따르면 초등학생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세종마을 어린이 영어 도서관'이 5월 어린이날에 맞춰 통인동 89-14호에 문을 연다고 하였다. 하지만 도서관이 세워질 곳이 세종대왕의 생가터 주변이라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다.

4월 13일 국회는 한강 여의도 봄꽃 축제 기간을 맞아 17일까지 국회 헌정기념관 중앙홀에서 한한국 작가의 '한글로 꾸민 세계

평화 지도 특별전'을 개최했다. 이는 금년 5월 개최되는 G20국회의장회의 개최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사랑을 염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4월 13일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에 대한 한글 보급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에 이어 해당 기관들이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는 능력과 신뢰성을 갖춘 기관 등과 연계해 세종학당을 조속히 설립할 계획이며 한글 보급에 관심이 있는 민간 기관들이 상호 협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복잡한 절차 등으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해명했다.

4월 14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불가리아, 헝가리 등 동구권, 도미니카 공화국, 멕시코 등 중남미권, 투르크메니스탄 등 9개의 신규 국가를 포함한 48개국에서 올해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14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교육원과 캘리포니아 주립대(CSU) LA캠퍼스가 CSU LA캠퍼스에서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설치를 위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CSU LA캠퍼스는 올해 가을 학기부터 한국어 부전공 과정을 설치·운영하며, 2015년부터는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사업은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교사 등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4월 15일 서아프리카 모로코의 명문 대학들에 한국 배우기 열풍이 불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지난 3월 21일 모로코 수도 카사블랑카의 명문 사립 경영 대학인 에콜 드 마나주망(ESCA)이 '한국의 날'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23일 카사블랑카에 있는 엔지니어 양성 전문 에콜 드 하사니아(EHTP)가 '제1회 한국의 날' 행사를 열기로 했다. EHTP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한국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 경제 발전에 관한 세미나와 한국 경제 정책 발표회, 한국 문화 전시회 및 한국어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4월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부터 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3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에 참석한 대한민국 대표단이 유자에 대한 명칭이 일본 이름인 'Yuzu(유주)'로 되어 있던 것을 'Yuja(유자)'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덱스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 유자차(Yujacha)에 대한 규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자에 대한 명칭을 수정한 것이다. 이번 회의 기간 중 아시아지역조정위원회에서도 일본 대표단에 공식 명칭을 유자(Yuja)로 제안하였음을 알렸다.

4월 16일 월스트리트저널이 저널 '사이언스'를 인용해, 전 세계 6,000여 개 언어가 모두 5~7만 년 전 초기 아프리카인들이 사용하던 '단일 조상 언어'에서 파생됐을 수 있다는 새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대의 진화 심리학자인 퀜틴 앳킨슨 박사의 이 연구는 뜻을 구별하는 최소 음성 단위인 음소에 기반해, '창시자 효과(founder effect)'라는 인구 유전학 개념을 차용하였다. 창시자 효과는 원래의 개체군으로부터 아주 적은 수의 개체가 떨어져 나와 새롭게 개체군을 만드는 경우에 유전자 변화와 복잡성이 조금씩 감소하는 원리다.

4월 17일 군 관계자는 군인 복무규율에 명시된 입영 선서와 임관 선서문 속의 '민족'이란 단어가 다문화 가정이라는 시대 상황과 맞지 않아 '국민'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월 17일 올해 두 번째인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이 국내외 32개국 121개 지역에서 4만 6,912명이 응시한 가운데 실시됐다.

4월 18일 국립국어원은 표준 수화 9,600여 개를 담고 있는 스마트폰용 '한국 수화 사전 앱(App)'을 일반에 공개했다.

4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날(20일)에 앞서 올해 초·중등 교과서에 수록된 일상생활 어휘 1,000개와 경제 전문 어휘 1,000개를 선정해 '수화 표준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어미의 쓰임에 관한 수화 교재를 편찬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시각 장애인들에게 점자를 보급하기 위해 현장 강의용 교재 및 온라인 강좌 프로그램을 개

발하고, 특수 부호의 점자화 연구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5월 중 시각 장애인이나 점역사들의 고충을 덜어 주기 위한 '점자 콜 센터'도 문을 연다.

4월 20일 제주도는 지난 한 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2개 행정시에 신고된 옥외 광고물 간판을 대상으로 제주어 표기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제주어로 표기한 간판 60개 중 43.3%인 26개 간판이 제주어 맞춤법 표기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망아지'란 뜻의 'ㅁ+ㅏ(아래아)+ㅇ+생이'를 '몽생이'로 표기하는 등 '아래아'의 표기를 잘못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제주도는 업주들에게 표기를 바로잡도록 권고하고 옥외 광고물을 사용하는 업자들에게 제주어 사전을 나누어 줘서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4월 21일 서울시가 '한글 글자 마당' 조성과 관련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현상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작으로 당선된 작품은 '한글 글자 마당' 설계에 반영되며 부상으로 천만 원과 서울시장 상장을 받게 된다. 세종로공원과 조화를 이루고, 새겨진 글자를 가능한 한 밟지 않으면서도 참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한글 창제 정신이 충분히 표현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요건이다.

4월 21일 훈민정음학회(이사장 이기남)가 찌아찌아족에 한글 교육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이오다인(대표 황호정)이 개발한 한글 교육 플랫폼 '케이마루'는 자기 주도 학습을 통해 한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App)과 웹 서비스를 결합한 글로벌 한글 교육 서비스다.

4월 24일 매헌(梅軒) 윤봉길(1908~1932) 의사가 야학에서 농민과 청소년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데 사용했던 교재가 80여 년 만에 발굴됐다.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는 "그동안 소실돼 없어진 줄로만 알고 있던 윤 의사의 저서 『농민독본』의 일부를 최근 발견했다."라며 8쪽짜리 한글 교재를 공개했다. 이 교재는 자음과 모음을 소개한 '소리의 갈래'와 한글 맞춤법을 설명한 '조선글 마침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훈민정음예의본'과 '용비어

천가'의 일부를 한글로 옮겨 놓았다.

4월 25일 한국빠알리(팔리)성전협회 회장 전재성 박사는 최근 발간된 『디가니까야』(긴 설법을 모은 경전)를 마지막으로, 부처가 직접 설법한 내용을 기록한 『사부(四部)니까야』 4개 경전을 모두 우리말로 옮겨 완간했다. 이 경전들은 부처 생존 시의 기록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적은 것이다.

4월 26일 '앱스토어(Appstore)'라는 단어를 두고 애플과 반애플 진영 간에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애플이 지난달 22일 '앱스토어' 서비스를 시작한 아마존에 '상표권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뒤부터다. 아마존은 "앱스토어라는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애플의 앱스토어와 혼란될 우려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MS도 올해 초 미국 특허청에 애플의 앱스토어 상표 등록 신청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었다.

4월 26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두 사람이 서로 팔을 엇갈리게 걸고 건배하는 일'을 뜻하는 '러브샷(love shot)'을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사랑건배'를 선정했다.

4월 2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태국 내 한국어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오는 9월부터 한국어 교육 분야 위주로 KOICA 봉사 단원을 다시 보내기로 하였다.

4월 27일 SBS TV '일요일이 좋다' 1부 '런닝맨'은 2월 13일 방송분 등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 언어)에 위반된 내용을 방송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을 지르거나 저속한 표현과 외모 비하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고 설명했다.

4월 30일 국립국어원은 우리말 지식을 측정하는 게임을 통해 아이들의 한글 구사력을 겨루는 '2011 어린이 한글 게임 대회'를 서울 강서구 삼정초등학교에서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어린이들이 띄어쓰기, 단어 호응, 단어 합성, 오탈자 찾기, 단어 유추를 다룬 게임 '도깨비 대왕과 한글 수비대' 등의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5월 2일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김광희)은 직장 교육으로

행정 용어 순화 교육을 실시했다. 아산교육지원청은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공문서 작성이나 각종 보고서 작성 시 영어나 한자어 등 어려운 행정 용어가 많아 직원들과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매달 순화 교육을 실시해 어려운 행정 용어를 우리말로 다듬어 나가겠다고 하였다.

5월 3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구현정)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충청남도 편 『공공 언어 바로 쓰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에서는 충청남도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과 '고시문', '충청남도지사의 인사말'과 '충남 소개' 등을 대상으로 어문 규범과 문장 표현의 오류를 조사해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올바른 표현을 제시했다.

5월 4일 미국의 한 웹 매체가 미 정부 소속 외국어 교육 기관 FSI(The Foreign Service Institute)의 통계 자료에 근거해, 영어가 모국어인 이들에게 가장 어려운 외국말 중 하나가 한국어라고 보도했다. 특히 한국어 문장의 통사 구조와 동사 활용형을 어려움으로 꼽았다. 한국어와 함께 어려운 외국어로 꼽힌 언어는 중국어, 일본어, 아라비아어였다.

5월 5일 도쿄대학의 션 리와 하세가와 도시카즈는 영국왕립학회보 B(the journal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에 실은 논문을 통해 일본의 다수 방언이 약 2,200년 전 한반도에서 이주해 간 농민들에 의해 이식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일본어에서 오래된 동사, 숫자, 명사 등 단어 210개를 뽑은 뒤 59개 방언에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 컴퓨터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표본으로 삼은 단어들이 2,182년 전의 같은 조상에게서 내려왔음을 발견했으며 이 시기는 한반도에서 대거 이주민 유입이 있었던 때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대 일본어의 기원이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열도 외부'라는 학설에 힘을 실은 것으로 평가된다.

5월 8일 세종대왕이 태어난 서울 종로구 통의동 137 일대가 역사적 의미는커녕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서촌(西村)'으로 불린다는 점에 대해 명칭 개정을 원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구

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자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세종마을'이라는 명칭을 제시했다. 이후 15개동 일대 지역 주민 130여 명이 '세종마을가꾸기회'라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및 한글학회와 손잡고 '세종마을 명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5월 9일 농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결혼 이민자를 위한 방문 교육 수혜율이 최대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지역에서 방문 교육의 혜택을 본 결혼 이민자는 5.85%에 불과했지만 농촌 지역은 35.1%가 방문 서비스의 혜택을 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최근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5월 9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중국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등 동북 3성 지역의 조선족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0명을 초청해 한국어 집중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7월 25일부터 보름 동안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에서 열리는 이번 연수는 멀티미디어를 사용한 최신 한국어 교수법과 작문·독서 지도법 등의 강좌와 민요 배우기, 문화 예절 교육 등 체험 행사로 진행된다.

5월 10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연예, 게임, 스포츠 등에서 석권, 전승' 등을 뜻하는 '올킬(all kill)'을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싹쓸이'를 선정했다.

5월 10일 정부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맺은 통상 협정의 한글본 작성 절차 등을 규정한 예규를 제정했다. '통상 협정 번역·검독 시스템 개선 방안'과 '통상 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외교부 예규 제181호)'에 따르면, 자유 무역 협정 협상을 총괄하는 부서장은 매회 협상이 끝날 때마다 한글본 초벌을 작성해 외교부 통상법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번역·검독 체계도 강화됐다. 통상 협정 번역팀은 조약 용어집 등을 참고해 1차 한글본을 마련하고 2개월 이내에 2차 한글본을 마련해야 한다. 그 후 법제처 심사를 받아 최종 한글본을 완성하면 국무 회의 등 비준 절차를 밟게 된다.

5월 10일 충청북도 학생교육문화원(원장 김세영)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과 유아들을 위한 '한글사랑인형극단'을 창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극단은 학생교육문화원 오경숙 연구사가 어린이들에게 우리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 지역 사회교육협의회에서 활동하는 동화동극연구회(회장 정영미)와 협력하여 창단한 것이다.

5월 11일 독도의 누리집인 '사이버 독도'의 영문 사이트에서 일부 표기상 오류가 발견됐다. 헤럴드경제 취재팀이 사이버 독도의 영문 누리집(en.dokdo.go.kr)을 검토한 결과, 경북(Gyeongbuk)이 'Gyeoungbuk'으로, 경상북도(Gyeongsangbuk-do)가 'Geyoungsnagbuk-do'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그 밖에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은 정보, 한글 누리집과 다른 정보, 오역된 영어 표기 등이 발견되었다.

5월 11일 충청남도 연기교육지원청(교육장 신정균)은 2011학년도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위한 상반기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다. 한국어 교실은 원어민 보조 교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한국 생활의 적응을 도우며 한국 문화를 홍보할 목적으로 개설한 것이다.

5월 11일 한남대 한국어학당은 12~13일에 '2011 국제 학생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제에는 한남대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는 스페인, 중국,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몽골, 캐나다 등 세계 17개국 12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세계 음식 잔치'와 '민속놀이 한마당', '국제 학생 공연' 등을 통해 각국의 문화를 뽐내게 된다.

5월 12일 경북 경주시의 각종 사적지 안내판 영문 표기가 제각각이어서 외국 관광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경주시 탑동의 신라 오릉(五陵)에서는 박혁거세 왕에 대한 표기로 'Bakhyeok geosewang', 'Pakhyeokgeose wang', 'King Pak Hyokkose' 등이 혼용되고 있으며, 알영부인에 대해서는 입구 안내판에는 'queen Aryeong', 내부 안내판에는 'Queen Allyong'이라고 표기돼 있다.

5월 12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사각형의 가로세로 격자 무늬에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2차원 형식의 기호'를 뜻하는 'QR코드'를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정보무늬'를 선정했다.

5월 12일 산림청은 5월 한 달 동안 누리집을 통해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의 산림 행정 용어를 찾아 쉬운 말로 바꾸는 용어 순화 공모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모를 통해 찾아낸 어려운 산림 행정 용어는 국립국어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행정 용어자문단'이 알기 쉬운 용어로 고쳐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5월 13일 농촌진흥청은 유아와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원예와 국어 통합 교육용 안내서 '텃밭에 다 있네' 시리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해 본 결과, 유아의 표현 언어, 언어 이해력 및 자연 친화적 환경 태도가 향상됐고, 초등 아동의 국어과 관련 학습 흥미도, 학업 성취도, 식물 친숙도의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3일 라종일 사단 법인 한국밀레니엄연구원 원장(전 우석대 총장)은 서울 서초동 한국어문회관에서 '올바른 어문 생활과 한자 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심재기 서울대 명예 교수, 정광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초빙 교수, 김성규 서울대 교수, 이명학 성균관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5월 13일 재한 외국인들이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제14회 세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서울 경희대학교에서 개최됐다. 연합뉴스(사장 박정찬)와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원장 김중섭)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50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본선에 오른 외국인 21명이 '내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 체험'을 주제로 다양한 사연을 전했다.

5월 13일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약 500여 개의 신조어가 탄생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0년 중국 언어생활 현황 보고'에 따르면 신조어 500개 중 3음절이 52.8%로 가장 많았고 4음절 단어가 그 뒤를 이었다.

5월 14일 하노이 중심가의 대형 서점에는 한류 열풍을 반영하듯 눈에 잘 띄는 곳에 한국어 학습 교재가 수북이 쌓여 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오탈자 투성이에다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틀린 한국어 문장들로 가득했다. 베트남 후에대를 졸업하고 한국 유학

을 준비하는 응우옌민 씨는 "이런 교재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라며 "수준 높은 한국어 교재는 너무 비쌀 뿐더러 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상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국외의 한국어 학습 상황을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5월 15일 경기도 여주군이 세종대왕 탄신 614돌 기념 숭모 제전을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 세종대왕릉 정자각 일원에서 봉행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숭모 제향과 궁중악 연주, 봉래의 공연이 진행됐다.

5월 15일 앞으로 영미권에서 나오는 한국 소개 책자나 지도에 부산은 'Pusan(매큔-라이샤워식 표기법)'이 아니라 'Busan(한국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표기된다. 1937년 이래로 '매큔-라이샤워(MR)' 표기법이 국내외에서 주로 사용되다가 2000년 우리 정부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MOE)'으로 개정 고시했기 때문이다.

5월 15일 재미 교포 발명가 박찬용 씨가 '만능 병음 한글 자판'을 발명했다. 이 자판은 기본 8개 모음(ㅏ, ㅗ, ㅐ, ㅡ, ㅣ, ㅓ, ㅜ, ㅔ) 글자를 n 자 모양으로 배열하고 10개의 단자음을 1키 1글자(직관 직타)로 배정해서 쌍자음과 연자음의 마찰을 없앴다. 박 씨는 "자음과 모음이 최적으로 배열돼 있어 엄지로 입력하거나 엄지와 검지 두 손가락으로 동시에 입력을 할 수 있고, 끌어 쓰고 당겨 쓰는 기능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글자의 입력이 2배나 빠르다."라고 강조했다.

5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2011년 국어 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에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의 '제주 문화의 얼굴 문화재 안내 문구 바꾸기' 사업이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대 국어문화원은 총 사업비 4,000만 원으로 제주도 내 문화재 안내판 가운데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중요 민속자료, 등록 문화재,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등 220개의 안내판 문구 내용을 분석해 오류를 바로잡는 사업을 추진한다.

5월 15일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틀리는 맞춤법을 모아서 쓴 소설'

이란 글 한 편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연인의 만남과 헤어짐을 주제로 쓴 이 글에는 '어의없다(어이없다)', '권투를 빈다(건투를 빈다)', '간장 계장(간장 게장)' 등 일상에서 잘못 쓰기 쉬운 표기들이 포함돼 있다. 이 글은 실제 온라인상에서 쓰였던 표현들을 모아서 작성한 글이다.

5월 16일 '2011 제주어 말하기 대회'가 6월 10일 예선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고 하였다. 이 대회는 제주대 개교 59돌을 기념하여 청소년과 대학생들에게 제주어를 익히고 확산시키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5월 16일 경기도 부천시는 시의 이름은 로마자로 'Bucheon'이라 표기하지만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는 'Puchon Fantastic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약자인 'PIFAN'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표지판은 2000년에 개정된 현행 국어 로마자 표기법(MOE)을 따라 바꾸었지만 부천판타스틱국제영화제는 종전 국제 관행에 따라 매큔-라이샤워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다.

5월 16일 조계종이 승가 교육 현대화를 위한 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한글 염불 의례 교육에 관한 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에 따르면 종단의 각급 승가 교육 기관 책임자와 염불 의례 교육 담당자는 교육원이 정한 한글 염불 의례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또 한글 염불 의례에 대한 숙지 정도를 5급 승가 고시와 4급 승가 고시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

5월 16일 주카타르 한국대사관은 어린이날 행사 이후 최근 카타르 수도 도하에 있는 알루카야초등학교의 매리엄 교장으로부터 "앞으로 두 달간 '한국어 교실'을 운영해 보고 싶다."라며 한국어 선생님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5월 16일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언론인들이 모여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제10회 세계 한인 언론인 대회가 인천 하버파크호텔에서 개막됐다. 세계한인언론인연합회와 연합뉴스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19개국, 35개 도시의 재외 동포 언론인 50여 명이 참석하여, '새로운 10년 글로벌 한민족의 중심, 세계한언'이라는 주제로 자체 활동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비전 설정을

모색한다.

5월 1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라디오 프로그램 언어 실태'를 발표하고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오후 2시대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공적인 언어로 부적절한 어휘와 표현, 청취자를 존중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각 방송사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인 이들 프로그램에서는 인격 비하 표현, 무분별하거나 잘못된 경어 구사, 청취자에 대한 반말 표현 등이 발견되었다.

5월 17일 우리 글씨에 담긴 다양한 표정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캘리그래피로 바라본 한글아 놀자!전'이 4일부터 17일까지 울주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대중들에게 쉽게 캘리그래피를 인식시키고 한글을 더욱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는 예술적 가치로 보여 주고자 기획된 것으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씨 등 20여 명의 작가들이 참여했다.

5월 17일 지난해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여자 월드컵 우승을 이끈 U-19 여자 대표팀 선수 가운데 한글 이름을 쓰는 7명이 '장한 한말글 이름 청소년상'을 받는다고 대한축구협회가 밝혔다. 수상자는 U-17 여자 대표팀 주장이었던 김아름과 심단비, 김나리, 이소담, 김빛나, 장슬기, 전한울이다.

5월 18일 서울 종로구가 세종대왕 생가터 인근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설립하기로 했으나 주민들과 한글 단체의 반대로 끝내 무산됐다.

5월 18일 제주대 국어문화원은 지난해 5~11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주도 내 행정 기관의 누리집 언어' 실태 조사 보고서를 내놓았다. 그 결과 제주시청 누리집의 오류가 가장 많았으며, 5개 기관의 총 오류는 1,528개로 집계됐다.

5월 18일 제천시가 산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쉽게 다듬고 문법에 어긋난 문장과 부자연스런 표현을 고치는 등 공직자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5월 19일 올 지방직 9급 공채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이번 시험이

지난달 치른 국가직 9급 시험에 비해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국어 시험에는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관련 문제가 9문제 출제됐으며 문장 부호, 사전 찾기, 표준 발음, 띄어쓰기, 표준어, 고전 문법 등 전 영역에서 고르게 출제됐다.

5월 20일 부산글로벌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 지역 거주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뿐 아니라 한국어 강좌, 세계 문화 교실 등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5월 20일 장한업 이화여대 불문과 교수는 제19회 이화여대 인문과학대학 교수 학술제에서 "이민자 자녀와 관련해 사용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등의 용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는 보통 한국인 가정은 단일 문화 가정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부적절한 용어이며 '이민자 가정'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이다.

5월 21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인 동포 밀집 지역인 봉헤치루에서 제6회 한국 문화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에서는 여러 공연과 한인 이민 사진전, 한글 전시, 한글 이름 쓰기, 전통 혼례 사진 찍기, 한국 음식 문화 코너 등이 마련돼 한인 동포와 참가한 브라질 주민들로부터 큰 반응을 얻었다.

5월 21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대사관(특명전권대사 서석숭)은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의 한 국제 학교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 부문에서는 이가은 양이 '해외 거주 청소년의 역사 교육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우승을 차지했으며, 슬로바키아인 부문에서는 니트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타티아나 유하소바 양이 '한국과 슬로바키아'라는 주제로 우승을 차지했다.

5월 23일 뉘앙스커뮤니케이션즈가 국내에 선보인 아이폰용 앱 '드래건 딕테이션'이 화제다. 드래건 딕테이션은 한국어 받아쓰기 앱으로 정확도가 90%에 달한다. 이 회사는 음성 인식과 관련된 기술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1,000개가 넘는 특허로 보호하고 있다.

5월 23일 최근 들어 미국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는 초·중등 공립 학교들이 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주재 한국 총영사관 산하 교육원에 따르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만 6곳이 늘어나는 등 모두 10곳이 증가해 총 60곳이 되어 지난해 대비 20%가 증가했다고 하였다.

5월 24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운동 경기나 어떤 일을 자기 능력이나 분수 이상으로 무리하게 하는 것'을 뜻하는 '오버페이스(over pace)'를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무리(하다)'를 선정했다.

5월 24일 우리나라 최초 사할린 동포 정착촌인 안산시 '고향 마을'에 이들을 위한 복지 센터가 생겼다. 경기도는 고향 마을 복지관 2층 대강당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철민 안산시장, 러시아 총영사 미하일 유리예비치, 사할린 한인협회 박해룡 회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학습관' 개관식을 가졌다.

5월 24일 이집트 국립도서관에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이 개설됐다. 이집트 국립도서관·문서관 5층 인류관에 40㎡ 규모로 마련된 이 자료실은 한국과 관련된 3,847점의 서적과 DVD, CD 등을 갖추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15년까지 매년 200권 이상의 한국 관련 도서를 추가로 지원한다.

5월 25일 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의 주최로 강릉 사투리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세미나에서 이익섭 서울대 명예 교수는 "고향의 정서와 향기를 짙게 간직하고 있는 강릉 말이 오래 건재할 수 있도록 공부와 노력에 힘써야 한다."라고 밝혔다. 부산대 김봉국 교수는 "강릉 말을 보전하려면 관용적 표현이나 속담 등 어휘 자료와 구술 발화 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리하고, 강릉 방언사전을 출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월 25일 경기도 광명시는 과거 경제적 형편 등으로 한글을 배우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문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제11회 광명시 평생 학습 축제 기간인 6월 12일 실내체육관에서 문해 교육생을 대상으로 '희망 백일장'을 실시한다.

5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충북 교육청은 내

년 2월까지 범사회적 언어 순화 사업을 펼친다고 밝혔다. 우선 이들은 바른 언어 습관 형성과 언어폭력 예방, 진단, 치료를 위한 교수 학습 자료를 개발해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하고, 16개 협력 학교와 100개 협력 교실을 지정해 특별 수업을 실시한다.

5월 25일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박종국)는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10명의 한글 컴퓨터 글씨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을 대표하는 10대 서예가의 붓글씨를 인쇄 출판물 등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5월 25일 순수 한글 국가 도메인인 '.한국' 등록 첫날, 정부·공공기관 중에서 청와대가 가장 먼저 한글 도메인 '청와대.한국'을 등록했다. 한글 도메인 등록 서비스는 오전 10시부터 등록 대행 누리집인 '도메인.한국(domain.kisa.or.kr)'에서 진행됐다.

5월 25일 취업 포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자사에 등록된 신규 이력서 중 100건을 무작위로 추출한 뒤 '맞춤법 모의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자기 소개서 한 건당 오탈자와 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평균 32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잡코리아가 입사 지원 시 자기 소개서의 오탈자와 띄어쓰기, 문법까지 점검해 주는 '한 큐! 맞춤법 검사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5월 26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지난 한 달간 각 방송사의 아침 드라마와 저녁 드라마 각각 4회씩을 대상으로 방송 언어를 분석한 결과, 모두 120건의 인격 비하 표현, 폭력적 표현, 비속어와 은어, 비표준어가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은 "비속어 및 인격 비하·폭력적 표현은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에서 실제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방송의 공공성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적어도 지상파 방송에서만큼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5월 26일 대만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2005년 대만에서 첫 시험이 실시된 후 응시자들이 2009년 27.4%, 2010년 30.9%로 계속 늘어났으며, 한국어 능력 시험의 수익금으로 장학 사업까지 실시하고 있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5월 26일 사단 법인 제주학회(회장 김진영)가 제주대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 국제 자유 도시 브랜드 강화와 제주학'이란 주제로 제35차 전국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제주어의 육성과 국제 자유 도시'를 주제로, 제2세션에서는 '제주 국제 자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회 통합과 문화 경쟁력'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발표가 진행됐다.

5월 26일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는 한국어학당 창립 52주년을 맞아 '한국어학당 큰잔치'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풍물 동아리의 길놀이를 시작으로 외국인 학생들이 참가하는 국가별 전통 의상 퍼레이드가 펼쳐졌고, 학생들의 공연도 열렸다.

5월 27일 네이버가 표기 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외래어에 대한 검색 편의성을 강화한 '외래어 발음 검색 서비스'를 선보인다.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외래어 대해 한 가지 발음 표기를 검색하면 관련된 다양한 표기와 함께 사전적 발음 표기를 제시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약 190만 개에 달하는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 것이다.

5월 27일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사업단은 '동아시아의 구전 전통과 문자 문화'를 주제로 하는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중국, 그리고 프랑스 문자 문화 전문가들이 동아시아 문자 문화의 다양한 양상을 분석해 발표했다.

5월 27일 지난해 11월부터 도쿄대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의 주도로 재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한국어 교실이 운영됐다. 이들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졌는데도 대학 내 공식적인 한국어 강좌가 없어 안타깝다며 한국어 가르치기를 자처했다. 소식을 들은 경희대 어학연구소에서는 수준별 한국어 교재를 무상으로 보내 주었다.

5월 29일 첫 민족어 대사전인 『겨레말큰사전』 편찬 작업이 남북 관계 경색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받아 지난 2005년부터 진행 중인 『겨레말큰사전』의 편찬 공정률이 작년 말을 기준으로 56.7%를 기록해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작년 3월 천안함 사건 발생 이후 1년이 넘도록 남북 간 실무

접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5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지상파 평일 심야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프로그램들은 15세 이상 시청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이지만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적절하지 못한 선정적인 표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방송을 진행하면 방송의 내용도 자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도 자극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5월 29일 서울시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시는 다문화 가족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고 한국어 교육과 직업 교육·일자리 알선, 아동 보육·교육 지원, 고국 방문 및 초청 사업의 경비 지원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5월 30일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 옆 세종로공원에 조성하는 한글 글자 마당의 아이디어 현상 공모에서 그람디자인이 출품한 '대한민국 문화의 주춧돌 한글'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마당이라는 공간에 주춧돌과 같은 수직적 구조물과 담의 패턴을 형상화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5월 30일 한글과컴퓨터(대표 이홍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 용어 순화를 위해 한글 프로그램에 '빠른 교정'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업무 협력 양해 각서(MOU) 체결식을 했다. 이는 한글 프로그램에서 어려운 행정 용어를 입력하면 쉬운 행정 용어로 자동 변환이 되는 기능이다. 한컴은 '한컴오피스 2010 SE 행망용' 제품에 빠른 교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패치 파일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5월 31일 김홍석 충남외고 교사(국어학 박사)는 최근 『은어(隱語)와 우리말의 세계』(글누림)에서 1950~90년대 히트한 대중가요 999곡을 대상으로 우리말 오용 실태를 분석했다. 가장 오용이 많은 경우는 '님(112곡)'이 꼽혔다. '네'의 잘못된 표현인 '니'

도 숱한 노래에서 그대로 쓰였고, 사이시옷 오류도 많았다.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3일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국문화원을 개원한다고 밝혔다. 국외 한국문화원은 현재 17개가 개설되어 있으며 유럽에는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폴란드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다. 주스페인 한국문화원은 앞으로 한국어 교육, 바둑 교실, 국악 강의 등 다양한 강좌를 운영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한국 영화 상영회, 한국 미술 전시회 등을 개최한다고 하였다.

5월 3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케이블 텔레비전 토크 쇼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MBC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은 '미인도'에서 불필요한 외국어가 다수 사용됐다. 위원회는 "시청자들은 아나운서들이 가장 이상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언어는 연예인의 언어보다 영향력이 크다."라며 "아나운서는 뉴스를 진행할 때가 아니더라도 방송에서 항상 바른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5월 31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중심가인 응우옌주 거리에 있는 한국문화원이 지난 2006년 11월 문을 연 이후 양국 문화와 예술의 가교 역할을 하며 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5월 31일 일본식 표기인 제주 '해녀'를 '잠녀'로 바꾸어야 한다는 청원이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접수돼 공론화 여부가 주목된다. 청원을 제출한 김 모(제주시 일도 2동) 씨는 일제 강점기 당시 언어 말살 정책으로 '제주 잠녀'가 일본 아마(海女) 문화에 이름을 빼앗겼다며 "제주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제주 잠녀'라는 명칭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5월 31일 미국 뉴잉글랜드 한국학교에서 4월 30일에 열린 '한글 글짓기·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재미 교포들을 제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민아(앨리사 도노반) 양이 1등을 차지했다고 하였다.

5월 31일 호찌민 세종학당(학당장 안경환)이 지난 5월 21일부터 이틀 동안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 세미나실에서 '한국어 강의자를 위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 특강에는 호찌민 세종학당 교사들을 비롯해 베트남 남부 지역 대학의 한국학과 강사들과 한국문화원, 사이공 한글학교 교사 등 60여 명이 참가했다.

6월 1일 국어학자인 일석(一石) 이희승(1896~1989)의 업적을 기리고자 일석학술재단(이사장 이교웅)이 제정해 시상하는 제9회 일석 국어학상 수상자로 송기중 전 서울대 교수가 선정됐다. 재단은 송 교수가 고대 국어의 표기와 어휘, 한자음, 역학서 분야는 물론이고 몽골어, 만주어, 여진어, 돌궐어에 관한 연구를 통한 국어 계통론 분야 등에서 혁혁한 업적을 냄으로써 국어학 발전에 크게 기여했기에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6월 1일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이 많이 거주하는 자치구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1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사무엘 어린이집'의 박은원 원장은 "다양한 민족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이 어린이집의 특성"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005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라며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6월 2일 경상북도는 중국 등 7개 국가의 공무원 10명을 초청해 11월까지 6개월 과정으로 한국어 연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가 교육비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며, 연수생들은 한국어를 배우면서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9개국 36명의 외국 공무원들이 이 연수 과정을 수료했다.

6월 2일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위원장 김도웅)는 제282회 임시회를 속개해 '빼앗긴 제주 잠녀 이름 되찾기 조례 개정 요구 청원'을 심사한 결과, '잠녀'라는 단어가 법령 용어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표준어인 '해녀'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용어의 정의와 유래를 검토한 결과 '해녀'라는 용어가 일제의 잔재라는 주장은 학자 간 의견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또한 "제주어인 '좀녀'가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에 맞지 않아 법령 용어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다."라고 밝혔다.

6월 2일 파리 주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프랑스의 한국 문화 팬클럽 '코리안커넥션' 회원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막심 파케 회장과 주축 회원들은 모두 한국문화원에서 한글 강의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한류에 빠져들었다고 했다.

6월 3일 최근 이집트에서도 한류 바람이 불면서 카이로 아인샴스대학교 한국어과를 중심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재정이 어려운 탓에 한국 정부와 기업 후원만으로 학과를 운영해야 하지만 학생들의 한국 사랑은 뜨겁다. 우수한 학생들이 한국어과에 몰리는 데는 한국 대중문화의 영향이 컸다. 김현주 학과장은 "한국국제협력단 등을 통해 받는 지원이 큰 도움이 되고 있지만 학과 규모가 커지면서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6월 3일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남북한 단일안이 마련됐다. 지난 5월 23일~6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정보처리표준화위원회에서 남북한 양측은 지난 87년부터 논의해 온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단일안 마련에 합의하였다. 한글의 로마자 표기법 단일안은 앞으로 ISO사무국에 등재되며 관련 국제기구의 협의를 거쳐 국제 표준으로 제정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6월 6일 강릉 남대천 단오장 수리마당에서 열린 제18회 강릉 사투리 경연 대회에서 전여빈(동덕여대 방송연예과 3년) 씨가 대상을 수상했다. 강원일보사와 ㈔강릉사투리보존회가 공동 주최한 이 대회는 시민 1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으며 국립국어원장 특별상이 처음 제정되는 등 강릉 사투리 대회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6월 6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미 시카고대가 1921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한 『시카고 아시리아어 사전』을 발간했다고 전했

다. 2,000년 넘게 사용되지 않았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 아시리아 방언 2만 8,000단어가 90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1권의 책으로 번역된 것이다. 이 사전은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까지 반영하고 있어 백과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6월 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중순 방송·통신 분야 전문 용어와 행정 용어 중 우리말로 다듬을 필요가 있는 단어를 선별한 뒤 7월 5일 TTA 정보통신용어표준화심의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의 논의를 거쳐 우리말 방송 통신 용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6월 7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커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즉석에서 커피를 만드는 전문가'를 뜻하는 '바리스타(barista)'를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커피전문가'를 선정했다.

6월 7일 서울시는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됐던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9월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에 민·관이 함께하는 '서울해비치다문화가족교육센터'를 연다고 밝혔다. 이 센터에서는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초기 이민자나, 국제결혼한 여성이 현지에서 데리고 온 중도 입국 자녀 등을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6월 8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 1위 아리랑',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 한글'이란 제목으로 초등학교 4학년 도덕 교과서에 실린 내용이 인터넷 유언비어로 확인돼 전면 수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해당 면을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집필해 일선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6월 8일 대법원은 경북 상주에서 발견된 국보급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을 훔친 배 씨에게 이를 원래의 소유주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상주본 해례본은 현재 국보 70호로 지정된 간송미술관 소장 『훈민정음』 해례본과 동일한 판본으로 서문 4장과 뒷부분 1장이 없어졌지만 상태는 국보 지정품보다 좋아 국보급으로 평가된다. 한편, 해례본의 원래 소유주 조 씨는 이 국보급 문화재를 반환받는 대로 국가에 기증하겠다는 의

사를 밝혔다.

6월 8일 벨라루스공화국 민스크국립언어대학에 한국문화센터가 문을 열었다. 벨라루스에서는 벨라루스 국립대학교와 민스크대가 한국어 과정을 잇달아 개설하는 등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6월 9일 경기도 교육청은 국립국어원, SBS와 손잡고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우리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SBS 본사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우리말 관련 자료 및 성과물을 공유하고 바른 말 고운 말 사용 연구 발표의 장을 마련하며, 도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우리말 교실'을 운영한다.

6월 9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영호)에서는 지난 5월 6~27일까지 3주간에 걸쳐 '미혼모의 새 이름을 지어 주세요' 공모전을 개최했다. 총 3차에 걸쳐 심사가 진행된 결과, 미혼모를 대신할 새 이름으로 이다원(대학원생) 씨가 응모한 '두리모'가 선정됐다. '둥근'이라는 뜻과 '둘'이라는 숫자를 의미하는 방언, 그리고 '둘레'라는 의미를 조합해 만든 새 이름이다.

6월 13일 강원 정선군 남면 마을의 5개 법정리 860여 곳의 지명 유래와 변천이 수록된 자료집이 발간됐다. 이 자료집은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이 지난 2001년부터 2011년 5월까지 남면 일대를 다니면서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과 고문헌에서 찾아낸 지명(地名), 지지(地誌) 사항을 토대로 지명의 유래와 변이, 인문·지리적 특성을 수록한 것이다.

6월 13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호주 시드니 도심의 대형 백화점 '웨스트필드시드니' 1층 터치스크린 안내판에 한글 안내문이 등장했다.

6월 13일 KT는 6월 말부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한글 자판 기술 '나랏글'을 누구나 무료로 활용해 키보드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나랏글 무료 제공은 정부의 한글 자판 표준화 정책에 따라 KT가 나랏글을 무상으로 제공키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6월 14일 최근 유럽 각국에서 온라인으로 영화, 드라마, 아이돌 가수 등을 접하며 한류에 빠진 유럽인이 많아졌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의 한국어 강좌에도 수강 신청을 위해 새벽부터 학생들이 몰려들었고, 한국 식당도 인기를 얻고 있다. 유럽의 한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장차 유럽 전역으로 한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6월 15일 국립국어원이 지난 4월부터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소속 외청 포함)에 용어 개선을 권고했지만, 대부분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라 변경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국어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어원 관계자는 "국어 책임관을 별도 직제로 편성하고 이들의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정책 용어들이 남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6월 15일 전라남도는 행정 용어를 다듬기 위해 국립국어원에 265개의 단어를 검토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은 행정 용어를 다듬어 91개를 선정했고, 전라남도는 이를 행정 용어로 확정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작물', '조류 인플루엔자', '로컬 푸드' 등은 '밭작물', '조류 독감', '향토 먹을거리'로 바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6월 17일 성균관대학교가 베이징에서 주최한 한글 백일장 대회에 중국 전역 43개 대학에서 온 83명의 대학생이 참가했다. 대회는 제시된 주제에 따라 120분 동안 산문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금·은·동상 수상자는 향후 성균관대 대학원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이 전액 면제된다.

6월 17일 주말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비속어나 은어 등 저품격 방송 언어들이 남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지난 5월 각 방송사의 주말 드라마 KBS 2TV '사랑을 믿어요', MBC '반짝반짝 빛나는', '내 마음이 들리니', SBS '내 사랑 내 곁에', '신기생뎐' 등 총 다섯 편의 1회분(5월 15일 방송) 방송 언어를 분석한 결과, 39건의 저품격 방송 언어 사용 사례가 나타났다며 "지상파 방송 3사의 주

말 저녁 드라마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위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6월 18일 한국일어일문학회(회장 정형, 단국대)가 신라대에서 '지배와 언어－조선 총독부의 언어 정책과 일상의 지배'라는 주제의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일본어라는 지배 언어의 일상 침투와 그것에 의한 식민지의 일상 세계의 변화 양상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이번 국제 심포지엄에서는 '권리로서의 일본어 학습', '1920년대 외지 일본 문학의 일본어', '언어 정책은 어떻게 일상을 지배하는가', '식민지와 독립 사이－이토 통감의 한국 지배와 교육' 등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6월 19일 내년 말 정부 부처 입주가 시작되는 세종시(행정 중심 복합 도시)의 행정 구역과 공공 시설물에 한글 이름이 붙여진다. 행정 구역 명칭은 현재 불리고 있는 한글 지명을 최대한 살려 쓰고 도로와 다리 등 시설 이름은 전국 공모 등을 통해 결정한다. 현재 세종시 내에는 '세거리(삼거리)', '수렁배미(수렁처럼 무른 개흙으로 된 논배미)', '방아다리(금·은·옥 등으로 만든 허수아비 형태의 노리개)' 등의 순수 한글 지명이 있다.

6월 19일 서울글로벌센터는 18~19일 이틀간 서울 남산 한옥마을에서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했다. 또 수강생들과 강사,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아가 한옥, 국악, 한복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기도 했다.

6월 21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속마음을 나타내지 않고 무표정하게 있는 얼굴'을 뜻하는 '포커페이스'를 대신해 쓸 우리말 순화어로 '무표정'을 선정했다.

6월 21일 국립대구박물관은 9월 18일까지 진주 하씨 묘에서 출토된 편지와 복식을 한자리에 공개하는 특별 전시 '400년 전 편지로 보는 일상－곽주 부부와 가족 이야기'를 진행한다. 한글 편지는 무려 172점이나 되는데, 임진왜란 직후의 한글 편지로 보존 상태가 뛰어나고 편지의 내용도 다방면에 걸쳐져 있어 역사와 한글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23일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국어학회와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회가 열렸다. 이 날의 주제는 '중국의 인명·지명 외래어 표기를 현지 원음에 따라야 하는가, 한자음에 따라야 하는가'였다. 참가자들은 '후진타오인가 호금도(胡錦濤)인가'라는 예시를 들며 열띤 공방을 벌였고, 방청석을 가득 메운 학자, 학생, 시민들은 토론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6월 23일 태국 부라파대학 한국학센터가 촌부리 주의 교내에서 태국 대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올해로 6회를 맞은 이 대회에서는 5개 대학교 학생 14명이 참여해 열띤 경쟁을 벌였다.

6월 26일 중국의 조선족 어린이들이 한국어 실력을 겨루는 제7회 '홈타민컵 조선족 어린이 방송 문화 축제'가 헤이룽장 성 하얼빈에서 개최됐다. 이 행사에는 지역 예선을 거친 60여 명의 초·중등 학생들이 참가했다.

6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법무부가 이주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한국어 공교육 시스템과 학교생활 관련 모국어 정보 제공 시스템을 운영하고 다문화 이해 교육 확대, 이주 아동 재학률 제고, 공교육 이탈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법무부는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강제 퇴거 대상자를 발견하면 출입국 기관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을 유보 혹은 면제하고 이를 반영한 출입국 관리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6월 28일 대구시 교육청은 '학생 저자 10만 양성을 위한 책 쓰기 프로젝트'의 두 번째 결과물로 초·중·고교생 199명의 학생 저자가 총 19권의 책을 출판했다고 밝혔다. 월서중 책 쓰기 동아리 '와글와글' 회원 15명이 펴낸 『중딩의, 중딩에 의한, 중딩을 위한 국어 교과서』는 교과서로서 손색없는 구성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 상서여자정보고 호텔조리과 학생 12명은 한식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예스 셰프(Yes Chef)』라는 제목의

요리책을 펴냈으며, 어린이 창작 동화집 『복을 물고 오는 부엉이 목걸이』, 현대 시조집 『내가 또 이만큼 가면』 등 다양한 장르의 책이 학생들의 손에 의해 집필됐다.

6월 28일 대만 남부 최대 도시 가오슝 시에 소재한 국립중산대학이 '한국연구중심'을 개소했다. 이는 수도 타이베이 시 소재 국립정치대학이 작년 5월 한국연구중심을 설립한 데 이어 남부에 첫 한국 연구 거점이 탄생한 것으로, 이로써 대만-한국 간 이해와 교류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연구중심은 웹사이트 개설, 한국학 강좌 개설, 한국학 국제 학술 세미나 개최, 한국 한문학 연구 확대, 가오슝 시 고교들 내 한국어 과정 개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6월 28일 KBS 아나운서들의 우리말 연구 모임인 'KBS 한국어연구회'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 언어 순화 정책'을 주제로 자문 위원 회의를 열었다. 장소원 서울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프로그램 장르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송 언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언어 오염의 심각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송 언어 평가 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6월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상표권자 우선 등록 기간 마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메인 '.한국' 신청자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대행 사업 업체 관계자는 "상표권자들이 한글 도메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등록자가 많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6월 30일 네이버가 영어 사전, 일본어 사전에 이어 모바일 웹용 국어사전과 한자 사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모바일 웹 한자 사전은 이용자들이 한자를 직접 써서 검색할 수 있는 필기 인식기 기능을 제공한다.

6월 30일 '동농 이해조 소설의 국어학적 연구'라는 주제로 열린 제7회 동농 포럼에서 이근영 대진대 교수가 이해조 선생의 표기 형태와 음운 체계를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해조 소설 『구마검』의 표기는 19세기 일반적 방법을 사용했으나 분철 표기는 현대적 표기법을 택했고, 음운 변동 현상이 반영된 표기는 당

시 언어 현실을 추정하는 데 많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7월 1일 멕시코 북서부 나야리트 주 자치대가 최근 한국학과를 개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지역에서 대학 내 한국학 학부 과정 개설이 추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학은 내년 2월에 신입생 20명을 선발한 뒤 8월 말에 첫 수업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7월 1일 박준영 전남지사는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정례 조회에서 "정책에 대한 도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 용어도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개선해 사용토록 하라."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라남도가 앞장서 어려운 행정 용어를 우리말로 쉽게 바꿔 사용함으로써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펼치자."라고 덧붙였다.

7월 3일 서울 용산구는 9월 28일 실시되는 제24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대비해 이촌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함께 공부할 외국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수업은 무료로 진행된다.

7월 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상파 주말 오락 프로그램의 자막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막에 불필요한 외국어와 통신 언어가 사용되거나 맞춤법이나 띄어쓰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표현과 표기가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출연자가 적절하지 못한 어휘를 사용하더라도 제작진이 자막으로 이를 바로잡아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7월 4일 미국 뉴욕 시 의원들이 안전을 이유로 플러싱 지역의 상점 간판에 영어 표기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플러싱 지역은 인구의 44.3%가 아시아계로 대부분의 간판이 한국어와 중국어로 쓰여 있는데, 화재, 범죄 등 사고 발생 시 경찰과 소방관이 사고 장소를 재빨리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편 지역 상인들은 플러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7월 5일 17세기 왕실에서 주고받은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에 대한 학술 연구서가 발간됐다. 국립청주박물관은 소

장하고 있는 2011년도 학술 연구서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을 펴냈다고 밝혔다. 보물 제1629호인 『숙명신한첩』은 한글 편지와 관련된 연구서에 자주 인용됐을 뿐만 아니라, 왕실의 한글 서예 특별전에도 여러 차례 출품됐던 중요한 문화재이다. 이번 학술 연구서에는 효종, 현종, 장렬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의 한글 편지 67점에 대한 판독, 주석과 관련 내용의 논문 4편 등이 실렸다. 『숙명신한첩』에 실려 있는 한글 편지 전체가 판독문과 함께 모두 소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월 5일 1908년 고종이 설립한 왕실 서고에서 유래된 장서각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내에 신축 개관했다. 장서각에는 전국 43개 사대부가 후손이 기증, 기탁한 고문서 3만 4,000점이 소장돼 있고 조선 왕실 의궤는 물론, 왕실에서 읽던 한글 소설 2백여 종이 보관돼 있다.

7월 5일 스웨덴 한인회가 스웨덴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한인 2세들과 입양 한인들을 대상으로 '제1회 한국어 집중 교육'을 무료로 실시한다. 3주간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짧은 시간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성인 학습자들에게 18시간의 집중적인 한국어 수업을 제공해 한국어 능력을 단기간에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7월 5일 원효와 의상, 지눌 등 역대 조사들의 저술을 정리해 한국 불교의 사상적 정수를 집약한 『한국전통사상총서』 한글 역본이 4년 6개월여 만에 완간됐다. 조계종 총무원은 7월 1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의 한글 역 13권 완간을 기념하는 봉정법회를 봉행한다.

7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중국 조선어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조선족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2011 조선어 교원 초청 연수 사업'을 실시한다.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는 중국 길림성, 흑룡강성, 요령성 등의 지역에서 31명의 조선어 교원들이 참가한다.

7월 5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한 달 동안 한양대학교 에

리카캠퍼스에서 독립 국가 연합(CIS) 지역의 고려인 한국어 교사 35명을 초청해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집중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연수에는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7개국에서 고려인 교사들이 참가한다.

7월 5일 한글문화연대(대표 고경희)가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일인 시위를 펼쳤다. 한글문화연대는 "역사적·문화적·세계적으로 의미가 깊은 한글날을 공휴일로도 지정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기고 그 뜻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7월 6일 경전 연구가 천명일 씨가 불교 경전 『수능엄경』 한문 원문과 번역본을 함께 실어 책을 집필했다. 천 씨는 책의 머리말에서 "『수능엄경』은 인류의 머리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이는 난해한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밝힌 경전"이라고 밝혔다.

7월 6일 대구대는 국내 외국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도를 소재로 한국어 능력을 겨루는 '독도 사랑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대구대 성산홀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국내 11개 대학에서 공부 중인 13개국의 유학생 41명이 각각 3~4명씩, 모두 12개 팀을 구성해 출전했다.

7월 6일 정부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중국과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3개국에 대한 봉사단 파견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706달러를 넘는 고중소득국(UMIC)에 해당되고, 중국의 경우 저중소득국(LMIC)에 속하지만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7월 7일 10개 개발 도상국 공무원 19명이 8월 25일까지 50일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초청으로 아주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한 연수를 받는다. 연수 참가자는 인도네시아와 페루 각 3명, 네팔·몽골·몰도바·우크라이나·요르단 각 2명, 스리랑카·예멘·조지아 각 1명이다. 이들은 한국어와 함께 한국의 행정, 경제, 문화 전반에 관한 내용을 배우고 산업체를 견학하게 된다.

7월 7일 국립국어원이 주최하고 국어학회·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두 번째 국어 정책 토론회가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렸다.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홍식, 이호영 교수와 엄익상, 이성미 교수가 각각 주제 발표와 토론자로 나섰다. 이 행사에는 교수, 학생, 시민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7월 7일 길림신문은 연길시가 올해 대학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간부 공무원 임용 공고를 내면서 23명을 뽑는 조선족 부문 응시생에 대해 우리말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우리말 시험에서 60점에 미달하는 응시생은 임용 시험에서 탈락한다.

7월 7일 창립 20주년을 맞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한국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11 코리아파운데이션 어셈블리'를 개최했다. 3일간 열린 이번 회의에는 20개국 86명의 한국학 학자를 포함해 200명의 학자가 참가했다.

7월 8일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원장 박성훈)은 19일까지 '미국 교육자 한국학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워크숍을 통해 미국 중·고교 교사 36명이 한국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언어 등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현장 수업을 체험하고 우리나라의 가정을 직접 방문한다.

7월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막장, 막말, 선정성 등으로 물의를 빚은 지상파 방송의 4개 드라마에 대해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 '경고' 등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KBS 2TV '로맨스 타운'은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2항, 제51조(방송 언어) 제3항 등을 위반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됐다. MBC '미스 리플리'는 제35조(성 표현) 제2항, 제51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내 마음이 들리니'는 제25조(윤리성) 제2항, 제51조 제3항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최고의 사랑'은 제51조 3항, 제44조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에 대해 각각 '경고' 조치를 받았다.

7월 8일 국외 한국학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외 한국학 학자들과 국회 의원 간담회를 마련해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존 덩컨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학(UCLA) 한국학연구소장은 "한국학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라고 요청했다. 선딩창 중국 베이징대 한국학연구센터 교수 또한 "중점 대학을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병석 의원은 "전 세계 학생이 한국학을 전공으로 택하는 상황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화이기에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겠다."라고 답했다.

7월 10일 보스턴글로브는 유명 언어 치료사 마저리 파인스타인휘터커가 운영하는 보스턴 악센트 수정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특유의 사투리를 교정받는 사람들의 사연을 소개했다. 사연에서 로리 라이든은 "보스턴 악센트가 둔하고 교육을 덜 받은 것 같이 들려 교정을 하고 싶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보스턴 사투리의 특징은 'r' 발음을 생략하는 것으로, 방언 10단계 등급 중 9등급에 속할 만큼 사투리가 심하다.

7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어세계화재단은 오는 9월부터 프랑스 등 주요 지역 10곳에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을 추가 개설한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최근 18개국 42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추가 설립 심사를 진행해 프랑스, 중국, 태국, 러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9개국에 세종학당 10곳을 개설하기로 했다. 또한 문화부는 오는 9월부터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재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7월 11일 서울시 공식 도장의 글꼴이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49년 만에 바뀐다. 공인(公印) 전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서울시는 1962년 이후 지금까지 한글 전서체 도장을 사용해 왔지만, 최근 공인 인문(印文)을 공모해 인장 공예 전문가인 조규호 씨가 응모한 훈민정음 해례본체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7월 12일 구글 한국어 음성 검색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마이크 슈스터 연구원은 "사용자가 사용하면 할수록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더 향상되는데, 한국 사용자들이 열정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 한국어 음성 검색 품질에도 많은 발전이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어 음성 검색은 지난 1년 동안 두 번의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특정 억양 및 화제가 된 사건들과 관련된 어휘가 추가됐고 띄어쓰기도 향상됐다.

7월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사회과학원 방언연구소와 전국한어(漢語)방언학회가 공동으로 연구해 최근 발표한 '중국 언어 지도집'을 인용해, 국제적 공인 언어의 영향력을 평가한 결과 중국어가 세계 6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언어학자들은 "중국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중국인들의 활발한 해외 진출로 중국어의 세계적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7월 13일 국립국어원 권재일 원장이 몬터레이 한국학교(교장 조덕현)를 방문했다. 권 원장은 한국학교 교사들에게 감사의 말을 잊지 않으면서도 성공적인 한국어 교육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교사들의 질적 향상임을 강조했다.

7월 13일 러시아에서 유일하게 설립됐던 한국학 단과 대학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러시아가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시에 있는 극동국립대, 극동공과대, 극동상업대, 우수리스크사범대를 통·폐합해 극동연방대를 신설하면서 한국학 단과 대학을 폐지하고 한국어학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7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광장에서 한글박물관 착공식을 열었다. 문화부는 이 박물관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꾸며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부각시키는 한편 전시·체험·연구·교육을 연계 운영하는 기관으로 특화할 방침이다. 한글박물관은 2013년 상반기에 정식으로 개관한다.

7월 13일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회장 대행 고은자)가 약 2년간의 작업 끝에 주말 한국학교 한국어 교과 과정 표준화를 위한 교사용 통합 교본 『한국어 교과 과정』을 발간했다. 이 책은 현지 실정을 감안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동북부협의회 소속 회원 학교들의 통일성 있는 한국어 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7월 15일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국외 한국어 전문가 초청 한국어 및 문화 연수가 배재대 한국어교육원에서 지난 4일부터 2주 일정으로 열렸다. 이번 연수에는 한국어 교수법 등에 대한 토론과 전주 한옥마을, 경주 불국사 등의 답사도 포함됐다.

7월 15일 서울시는 한강 공원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공원 내 15개 시설물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리버뷰 8번가'는 '광진교 8번가'로, '리버뷰 봄'은 '잠실 마루 쉼터'로, '리오카페'는 '노들 견우카페'로, '노들카페'는 '노들 직녀카페'로 변경된다. '플로팅 스테이지'는 '물 위로 반사되는 아름다운 물빛 조명'이라는 의미를 담으면서 동시에 여의도의 대표 공연장임을 강조할 수 있는 '여의도 물빛무대'로 이름이 바뀐다. 이러한 새 명칭은 서울시가 지난 4월 전수 조사를 거쳐 개명 대상을 정한 뒤 명칭을 공모해, 시민 570명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7월 15일 정부 부처들이 기관을 알리고 업무의 특성을 함축한 브랜드 개발에 적극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국가정보원 '안심이', 문화체육관광부 '한글누리', 환경부 '그린스타트', 국세청 '세누리' 등이 그 예이다. 이는 정책이나 행정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해 국민에게 친근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7월 15일 EBS가 다문화 가족을 위한 무료 한글 교육 사이트 '두리안'을 개설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서비스되는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어 강의 프로그램을 비롯해 '뽀로로' 등 유아 교육 애니메이션과 문화 교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다.

7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서울, 부산, 제주 등 국내 13개 시험장에서 14,710명을 대상으로 제23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시행했다. 이 시험은 시행 첫해인 1997년 응시자가 4개국 2,692명에 불과했지만 지원자가 급증해 이번 시험까지 누적 지원자는 79만 3,000여 명에 이른다. 2008년 이후에는 응시자가 연평균 16.5%씩 증가해 왔다.

7월 17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문화원이 개

설된다. 인도네시아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 문화 강좌, 상설·특별 전시회, 영화 상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필리핀 문화원은 한국어 강좌와 한국 요리, 무용, 태권도, 케이팝 노래·춤 등의 문화 강좌, 한류 콘텐츠 상영회, 한국 노래 경연 대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7월 17일 제63회 제헌절을 맞아 한글회관에서 한글학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외솔회 등 16개 한글 단체들이 지난달 발의된 국어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반대하는 밝힘 글을 발표했다. 이들은 밝힘 글에서 "나라 밖에서는 한글과 한국어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는데, 한자 교육을 필수화하려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라고 반문하며 법안을 철회해 달라고 주장했다.

7월 18일 서울시는 스마트폰용 서울 서체인 서울한강체 볼드(Bold)와 서울남산체 볼드(Bold)를 개발하고, 기존의 서울 서체 19종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최신 운영 체제인 윈도7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 올해 말 배포한다고 밝혔다.

7월 18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사인 싱어텍(SingerTech)이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케이팝 앱인 '포밴드'를 출시했다.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소녀시대 뮤직비디오와 함께 가사가 한글 발음에 맞춰 알파벳으로 뜬다. 또한 음의 높낮이에 따라 글자의 높낮이를 배치해, 악보를 모르더라도 노래를 따라 부를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이 앱에는 한국 노래 2,500여 곡이 수록돼 있다.

7월 19일 교육과학기술부는 독학자에게 학사 학위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령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 개정안이 제31회 국무 회의를 통과해 이를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쉬운 용어로 풀어 쓰고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부의하는'은 '심의에 부치는'으로, '동등'은 '같은 수준'으로 바꾸는 식이다. 이와 더불어 띄어쓰기, 문장 부호와 기호, 문장 성분의 호응, 어순 등의 정정도 이루어졌다.

7월 19일 파병 4주년을 맞는 동명부대가 주둔지인 레바논에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동명부대는 2008년 3월부터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매주 1회 1시간씩, 지역 5개 마을을 순회하며 현지인들에게 한글 교실을 운영해 왔다. 부대는 한글 말하기 경연을 주기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태권도 교실, 난타, 농악 연주 등의 행사도 개최하고 있다.

7월 20일 국립국어원과 한국방송(KBS)은 '승용차, 주택, 여행 상품, 장비 따위에 추가될 수 있는 장치를 모두 갖춘 것'을 의미하는 '풀옵션(full option)'을 대신할 우리말 순화어로 '모두갖춤'을 선정하였다.

7월 20일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최근 '한글.한국' 도메인 등록이 시작되면서 한글 인터넷 주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넷피아에 따르면 충주시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 등 공공 기관에서의 한글 인터넷 주소 등록이 늘고 있으며 다른 공공 기관에서도 한글 인터넷 주소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7월 21일 국내의 외국 유학생이나 외국인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 기관의 모임인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회장 김중섭)가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 호텔에서 하계 워크숍과 정기 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우수성 제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이 워크숍에서는 최용기 국립국어원 교육진흥부장이 '한국어 교육 기관의 평가 필요성과 평가 지표'를, 최주열 선문대 교육대학원장이 '유학생 수요 변화에 따른 한국어 교육 기관 운영 전략'을, 조항록 상명대 교육대학원 교수가 '한국어 교육 기관 대표자 협의회 중장기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7월 21일 국립국어원 주최, 국어학회·조선일보 공동 주관으로 목동 방송회관에서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성문 한글 맞춤법 규정 유지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에서는 "맞춤법에 '법'이라는 경직된 지위를 부여하는 대신 지침의 형태로 두는 게 언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라는 차재은 교수의 의견과 "법과 판례처럼 맞

춤법 규정과 사전은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라는 김인균 교수의 견해가 맞섰다.

7월 21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은 서울시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관에서 '국격 UP! 학부모 3대 실천 운동! 대국민 선포식'을 갖고 국가 이미지 개선을 위한 청소년 보호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학사모는 학생들을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추진하며 고운 말·바른 말 쓰기 및 사이버 예절 캠페인을 시작한다.

7월 21일 LG유플러스는 애니메이션 '뽀로로'의 제작사 아이코닉스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뽀로로 캐릭터를 이용한 유아용 교육 애플리케이션 '뽀로로 첫 낱말 놀이'를 출시했다. 이 앱은 낱말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말을 시작하는 아이들이 재미있게 낱말을 배우며 사물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 앱은 글로벌 마켓을 공략하기 위해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으로 동시에 개발됐다.

7월 22일 특허청(청장 이수원)이 특허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각국 특허 제도의 통일화를 목표로 하는 특허법 조약(Patent Law Treaty)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특허 고객 편의를 고려해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 용어를 쉬운 한글 표현으로 바꾸었으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바꾸었다.

7월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2011년 한국어 교육자 국제 학술 대회'가 30일까지 조선족 학교 교사, 재외 한국어 교육자(북미·중남미, EU, 아시아, 독립 국가 연합 등 40개국) 103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동구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 학술 대회에서는 '한국 현대 사회의 발전' 및 '한국의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주제 강연과 한국 문화 실습 등이 이루어졌다.

7월 26일 대구대(총장 홍덕률)는 '중국 조선족 문예 작품 공모전' 시상식을 가졌다. 이 공모전은 대구대가 국내 대학 최초로 지

난 2006년부터 중국 교포들을 대상으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6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조선족 학생과 일반인들의 작품 397편(시 부문 153편, 산문 부문 244편)이 접수됐으며, 시와 산문 장르별로 총 17명을 선정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수여했다.

7월 2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여수박람회를 앞두고 여수, 순천, 광양, 보성, 고흥, 곡성, 구례 등 동부권 7개 시·군의 관광 안내 표지판에 대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표본이 된 30개 관광 안내 표지판 중 6곳에서 오자와 탈자, 잘못된 표기가 발견됐고, 부정확한 외국어로 표기된 경우도 13곳(43.35%)에 달했다. 전라남도는 이 같은 표본 조사 결과를 해당 시·군에 통보한 뒤 8월까지 도내 전체 관광 안내판(4,724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여 박람회 전까지 모두 개선하기로 했다.

7월 27일 산돌커뮤니케이션(대표 석금호)은 최근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계승·개발한 '리도 한글 놀이'를 출시했다. 리도 한글 놀이는 초성, 중성, 종성에 쓰이는 자음, 모음의 한글 블록으로 구성된 교구로, 한글 블록을 직접 손으로 만지고 퍼즐처럼 맞춰 보는 등 놀이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한글을 깨치도록 개발됐다.

7월 27일 행정안전부의 도로 이름과 건물 이름을 기준으로 한 새 주소(도로명 주소) 시행이 임박해 오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와 우리글진흥원, 조계종 문화결사위원회 등이 결성한 '우리 땅 이름 지키기 시민 모임'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어, 새 도로명 주소가 우리 실정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경제적 효과도 지나치게 과대 포장됐다며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7월 28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상용어와 지명 가운데 불교에 뿌리를 둔 어휘를 가려 뽑아 사전식으로 정리한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불광출판사 발행)이 출간됐다. 박호석 전 농협대 교수가 편찬한 이 사전은 우리말 상용어 가운데 630여 개, 지명 540개의 유래와 원뜻, 쓰임을 자세히 밝혀 놓았다.

7월 29일 대구대(총장 홍덕률)가 중국, 몽골, 카자흐스탄 등 국외 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육자 16명을 '대구대 국제 홍보 대사'로 임명했다. 이들은 '제3회 국외 한국어 교육자 초청 연수'에 참가하여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경산캠퍼스에서 한국어 교육 이론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7월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 방송언어특별위원회는 케이블 TV 5개 채널의 56개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2.1%에 달하는 46개 프로그램이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채널별로는 KM의 8편 중 8편(100%), M.net의 14편 중 13편(92.9%), ETN의 10편 중 9편(90.1%), Ystar의 7편 중 5편(71.4%), tvN의 17편 중 11편(64.7%)이 외래어 제목을 달았다.

7월 29일 포항대학(총장 하민영)은 2011학년도 베트남 한국어 연수생 12명에 대한 수료식을 가졌다. 수료생들은 베트남 공무원 연수생으로 하노이, 호찌민 등 베트남 5개 지역에서 선발돼 50주 과정의 한국어 수업과 문화 체험, 탐방 등 맞춤식 교육을 받았다.

7월 29일 한국어문회(이사장 김훈)가 '국어 교육과 한국어의 발음' 학술 강연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장음이 짧아져 단음과의 구분이 모호해진 우리말의 실태와 그 폐해를 살펴보고 올바른 발음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7월 30일 세계한국어웅변대회가 서울 한국관광공사컨벤션센터 및 야외무대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국내 시도 대표 25명, 국외 동포 10명, 외국인 10명 등 총 45명의 대표 연사들이 참여하였다. ㈔한국웅변인협회가 주최한 이 대회는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의 언어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구촌에 한글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시작돼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하였다.

7월 30일 호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원장 김영수)이 운영하는 한국어반에 호주의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는 수업에 현재 20여 명의 호주인들이 등록하여 한국어

를 배우고 있다.

8월 2일 건국대학교(총장 김진규)는 2주 동안 국외 대학의 한국어 교사 및 강사를 초청해 한국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연수에는 중국 난징을 비롯해 체코와 독일, 이탈리아, 불가리아 등 국외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인과 외국인 교사, 강사 약 30명이 초청됐다. 이들은 건국대 언어교육원 한국어 교육 수업에 참관하고 한국어 교육 전반에 대한 연수를 받았다. 또 국외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교육의 특징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맞춤형 교육 과정과 교재,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했다.

8월 2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 김지영 심의 위원은 피동형 표현을 비롯해 한국 신문 기사 문장의 오염 실태를 파헤친 『피동형 기자들』(효형출판)을 펴냈다. 이 책은 피동형 표현이 1980년대 군부의 언론 탄압 속에서 생겨났으며, 피동형은 글을 쓴 주체인 기자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책임성이 부족해지며 기자의 의견을 일반화·객관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체불명의 '전문가들'과 같은 익명 표현, '~라고 전해졌다'라는 식의 간접 인용문, '~라는 전망이다'와 같은 가정 판단 서술 등도 객관 보도를 해치는 요소로 꼽았다.

8월 3일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나눔글꼴' 서체가 애플의 새로운 맥 운영 체제(OS)에 한글 글꼴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맥 OS 외에 다른 애플의 OS 제품에도 '나눔글꼴'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3일 충청대학(총장 유선규)이 중국과 대만, 일본 3개국 4개 자매 대학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연수 입학식을 가졌다. 연수생들은 19일까지 3주간 충청대학에 머물면서 오전에는 한국어를 배우고 오후에는 한국 요리와 태권도, 민속놀이 등 한국 문화를 체험한다.

8월 4일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학생들의 욕설, 비속어 사용을 개선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실시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협력 학교 및 협력 교실' 공모 결과 협력 학교 20곳, 협력 교실 100곳

이 선정됐다. 선정된 학교와 교실에는 각각 500만 원과 50만 원이 지원되며 해당 학교는 연말까지 교육 다큐 동영상 시청, 언어 순화 표준화 자료에 대한 교육, 한글날 특별 수업 실시, 학교 및 교사별 자체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8월 4일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강영봉)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 제주어센터를 만들고 현판식을 했다. 제주대학교에 들어서는 제주어센터는 국어문화원의 기능 중 제주어 채록과 연구 활동을 넘겨받아 제주어 자료 축적, 교육과 상담, 자료집 발간 등의 사업을 펼쳐 나간다. 제주어센터는 첫 사업으로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을 발간하였다.

8월 5일 전북대학교는 미국 국무부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인 'CLS 프로그램(Critical Language Scholarship Program)'에 참여한 미국 학생 30여 명과 수료식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8주간 주당 20시간의 한국어 학습 및 한국 문화 체험을 했다.

8월 5일 정원수 충남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온누리한글예술 대표)가 KT와 공동으로 중국어를 한글로 입력하는 방식의 모바일 자판 '모바일 기기용 중국어 한글 입력기' 애플리케이션을 고안했다.

8월 7일 연합뉴스가 북한 매체들의 보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조선중앙방송이 지난 2일 '중국, 인민해방군 창건 84돌 기념' 기사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 주석의 이름을 중국 현지 발음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3일에는 조선중앙통신과 평양방송 등 다른 매체들도 중앙방송과 같은 발음과 표기를 사용했다. 또 '길림(吉林)'을 '지린'으로 표기하기도 했다. 북한이 중국의 인명·지명 표기 방식을 바꾼 배경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교열 전문 한 언론인은 "북한이 중국 측의 요구를 수용했거나 국제화 노력의 일환으로 서방과 한국 등의 표기 추세를 따르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8월 8일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를 비롯해 전국 28곳의 원서 교부장에 8,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 원서를 접수

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원서 접수 전날 오후부터 교부장 부근에서는 노숙하는 이들이 보였고 부근은 극심한 혼잡을 이뤄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들이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는 이유는 외교통상부에서 이 시험 합격자에 한해 3년짜리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내주기 때문이다.

8월 8일 여운영 아산시 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충무공 이순신 제466회 탄신 기념일을 맞아 문을 연 충무공 이순신 기념관(忠武公李舜臣記念館)의 '기념관(記念館)'은 일본식 표현이며 올바른 표기는 '기념관(紀念館)'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한 관계자는 "'적을 기(記)' 자나 '벼리 기(紀)' 자 모두 쓸 수 있으며 『표준국어대사전』에 기념관의 한자 표기가 '紀念館'으로만 돼 있는 것은 기본 표기만 제시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기념의 기본 표기는 '紀念'이나, '記念館'이 일본식 표기인지에 대해서는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8월 8일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8일간 한양대 에리카캠퍼스에서 전 세계 58개국 233명의 한글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집중 연수를 실시했다.

8월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우리말로 주고받는 '114 한국어 생활 정보 안내 서비스(Kotoc 114)'가 시작됐다. 이를 통해 중국어를 몰라도 구급차 호출, 무료 법률 상담·자문, 전화번호 안내 등은 물론 항공권, 호텔, 렌터카, 공연 등의 예약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다.

8월 9일 지난 5월 25일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글 국가 도메인 '.한국' 신청 마감이 약 1주일 남은 현재까지 등록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도메인이 약 2,500건으로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등록이 완료된 일반인 대상 상표권자 우선 등록 3,000여 건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8월 9일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순수 문화 연구와 문화계 민간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할 사단 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이사장 김상태)이 개원식을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문화연구원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도네시아어 강좌와 인도네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다.

8월 10일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11 한글학교 교사 초청 연수'에 참가한 9개 대륙 한글학교협의회 회장들이 '세계한글학교협의회'를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세계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각 지역 협의회가 필요한 문제를 서로 협력해 풀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월 1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라는 주제로 네 번째 국어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는 1933년 한글맞춤법통일안에서 "표준어는 대체로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고 규정한 이후 우리 언어생활의 중심에 자리해 온 표준어에 대한 찬반 토론이었다.

8월 11일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 다양한 신조어가 존재하고 있다. '개드립'은 좋지 않는 애드리브, 불필요한 애드리브, 잘못된 애드리브를 뜻한다. '레알'은 영어 '리얼'의 달라진 음으로 '정말'이라는 뜻이다. '버터페이스'라는 말도 있다. 머리도 좋고 성격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데 그러나(but) 그녀의(her) 얼굴(face)은 아니라는 뜻이다. '광클'은 '미치도록 클릭한다'는 뜻이며,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빵셔틀'은 힘센 친구들의 강요에 의해 '빵 심부름하는 아이'를 뜻한다.

8월 11일 전국 자치 단체가 고시한 도로명이 외국어를 남발하거나 발음이 어려운 옛 지명을 억지로 쓰는 바람에 '쉽고 간편하게'라는 도로명 주소의 도입 취지를 흐리는 경우가 있다. 인천 서구의 '크리스탈로', '사파이어로'나 인천시 연수구의 '함박뫼로', '먼우금로' 등이 그 예이다. 행정안전부는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이의 신청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8월 12일 제주에서 태어나 평생을 제주 섬과 바다를 노래해 온 문충성 시인이 열 번째 시집 『허물어버린 집』을 냈다. 제주 토박이말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한 시인은 시집 앞부분에 4·3 사태를 제주말로 노래한 시 여러 편을 배치해 놓아 눈길

을 끌었다.

8월 13일 다문화 가족 지원 및 한글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글 지도 전문 자원 봉사단'(단장 최상순)이 창단되었다. 이 봉사단의 단원들 모두 규정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인정받은 '한글 지도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자체 개발한 교육 방법을 통해 문해 교육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8월 13일 서울글로벌센터는 주 중에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결혼 이민자,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들을 돕기 위해 '맞춤 한국어 교실'을 시작했다. 맞춤 한국어 교실은 외국인 근로자반, 결혼 이민자반, 몽골반, 글로벌반으로 나뉘어 12월 18일까지 18주 동안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진행된다.

8월 14일 김문길 부산외대 명예 교수는 프런티어타임스와의 통화에서 "대마도가 역사적으로 한국 영토이고 주민들은 한글을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문서를 일본의 한 대학 고문서실에서 발견했고 2년간의 조사를 통해 이 문서에 쓰인 글자가 한글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덧붙였다.

8월 15일 하상장애인복지관이 점자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주고 각종 관련 정보를 안내해 주는 '점자 콜 센터(1661-1104)'를 정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점자 관련 종합 누리집인 '점자 세상(www.braillekorea.org)'의 '학습 도우미→묻고 답하기' 게시판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글, 영어, 수학, 과학, 컴퓨터, 음악 등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 위원이 점자 규정에 대한 문제들을 수집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한다.

8월 16일 한국외대 한국어문화교육원은 24일까지 국외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연수를 진행한다. 국립국어원 주최로 실시되는 이번 연수에는 전 세계 15개국 내 34개 세종학당에서 51명의 한국어 전문 교사들이 참석한다. 연수는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교사들에게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8월 17일 최근 한 지상파 TV 방송 주말 연속극에서 수화를 사용하

는 청각 장애인이 등장하면서 수화를 국민 언어로 인식하고, 보급을 체계화해야 하며, 전 국민 언어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수화 교육 관련 전공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나사렛대, 한국재활복지대(현 한국복지대) 둘뿐이다.

8월 18일 김소영 불가리아 소피아대학 한국학과 교수는 '세계와 소통하는 한국학 교육'을 주제로 한 '2011년 한국학 국제 학술회의'에서 한류 효과를 이용해 외국에서 한국어 및 한국학 교육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조 강연자인 손호민 미국 하와이대 한국어학과 교수는 주변 학문에서 중심부의 학문으로 급성장한 한국학의 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국 정부가 중국어, 아랍어, 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와 함께 한국어를 국책 외국어로 지정하고 한국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다고 소개했다.

8월 19일 대전 배재대학교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과' 학생 8명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글로벌 학습 사업' 파견자로 최근 선정됐다. 이들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태국 내 59개 고교·대학에 분산 배치돼 현지 교사에 준하는 월급을 받으며 한국어 교사로 활동한다.

8월 20일 글로벌 웹진 '뉴스로'는 뉴욕 서니사이드의 150초등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는 김은주 KAACC-USA(한인예술문화연대) 회장이 지난 6월, 예일대에서 열린 AATK(미국한국어교육자협회) 콘퍼런스에서 '라자풍(Rajapoong)'이라는 제목의 음악을 통한 한국어 및 과학 교습법을 소개했다. 라자풍은 랩(Rap)과 재즈(Jazz), 풍물(Poongmool)[1]을 합친 뜻으로 김 회장이 지은 이름이다.

8월 22일 부산고법, 부산지법 법정커뮤니케이션 개선위원회는 KBS 부산방송총국 차경애 아나운서 부장을 초청하여 '법정 의사소통 방식 개선'을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차 아나운서는 판사들

1) '풍물'의 바른 로마자 표기는 'pungmul'이다.

을 대상으로 발성법, 말하는 태도와 표정, 시선 처리, 손짓, 기본적인 문법이나 바르고 고운 말을 쓰라는 주문 외에 특히 어려운 법률 단어를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표현하라고 지적했다.

8월 23일 인천 경제청이 송도 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 위치한 글로벌서비스센터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정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일상생활에서의 언어 소통과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8월 23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이 한국학을 국외에 전파하기 위해 전 세계 대학에 설치한 한국학 교수직이 100석에 이르렀다. 재단은 최근 영국 런던대학교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와 한국학 교수직 설치 협약을 체결했다. 대학 측은 협약에 따라 한국어문화 교수로 오웬 밀러 박사를 임용해 9월부터 한국학 연구 및 강의를 맡긴다.

8월 25일 국어학회와 조선일보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다섯 번째 국어 정책 토론회가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라는 제목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어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었다.

8월 25일 최민호 행정도시건설청장은 연기군민회관에서 열린 '세종시민 대학'에 참석해 세종시의 상징성을 살리기 위해 도시 내 행정 구역과 도로의 명칭을 순우리말로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도로는 구역별로 나눠 'ㄱ'부터 'ㅎ'까지 들어가는 명칭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청장은 "14개 자음으로 도로 이름을 지으면 기억하기 쉬운 데다 생활권별 구획이 가능하고 위치 정보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8월 26일 강릉의 전통 설화인 홍장의 사랑 이야기가 강릉 사투리로 극화돼 무대에 올랐다. '홍장, 홍장'이라는 제목의 이 연극은 강릉사투리보존회(회장 조남환)와 백향씨어터(대표 권대혁)가 공

동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연극은 강릉의 고유한 말을 무대극으로 승화해 새로운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시도된 작업이다.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최하는 '2011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가 3일간 서울 올림픽 파크텔에서 개최됐다. 올해로 3회째인 이 대회에는 세종학당, 재외문화원, 한국교육원 등 국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과 교육 기관 운영자 89명,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원과 관계자 160여 명이 참가했다.

8월 30일 문자를 창의적 미디어로 탄생시키는 '타이포 잔치 2011: 서울 국제 타이포그래피 비엔날레'가 개최됐다. 이는 서체 디자인을 통해 동아시아의 글자 문화를 교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동아시아의 불꽃'이라는 주제하에 9월 14일까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타이포그래피 대표 작가 107명이 전시에 참가했다.

8월 31일 국립국어원이 '짜장면'을 포함한 39개 항목을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 인터넷 '표준국어대사전'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새로 표준어로 인정한 것들은 크게 세 부류다. 첫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 이외에 같은 뜻으로 많이 쓰이는 말이 있어 두 가지 다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로, '간지럽히다'는 '간질이다'와 뜻이 같은 표준어로 인정됐다. 둘째, 현재 표준어로 규정된 말과는 뜻이나 어감의 차이가 있어 이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그동안 '눈꼬리'는 '눈초리'로 써야 했으나 둘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눈꼬리'를 별도의 표준어로 인정했다. 셋째, 표준어로 인정된 표기와 다른 표기 형태도 많이 쓰여서 두 가지 표기를 모두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다. 많은 국민들이 널리 쓰고 있던 '짜장면', '택견', '품새'를 이번에 표준어로 정했다.

9월 2일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제14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문쌍수 의원 등 의원 8명이 발의한 '진주 지역 언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일단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9월 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 한국교육원이 2011년도 후반기 한국어 강좌 개강식을 개최했다. 이견호 한국교육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교육원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많은 분들을 친구처럼 적극적으로 돕겠다."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교육원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한국어 강좌를 개설한 지역 센터와 협약을 맺어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교육원이 수용할 수 없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9월 3일 지역말 연구 모임인 '탯말두레'가 "지역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무시한 채 서울말만 사용토록 한 표준어 규정과 표준어로 교과서를 만들도록 한 국어 기본법은 행복 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을 침해한다."라며 지난 2006년 5월 헌법 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문화를 선도하는 점,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점, 지리적으로 중앙에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하기 어렵고,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9명의 재판관 중 2명은 "서울 지역 외의 지역 언어도 우리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지역 언어 모두를 표준어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해당 지역민에게 문화적 박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9월 4일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은 한글날을 앞두고 천안·아산 지역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가게 이름'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구현정 국어문화원 원장은 "아름다운 가게 이름 선정 사업을 통해 시민의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9월 4일 새 도로명 주소 중에 재미있고 유서 깊은 도로 이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서는 '노가리길'을 비롯해 '은쟁이길', '구름내길', '수풀오얏길'이 새 도로명으로 탄생했다. 안성시 죽산면 칠장리에는 '극락길'과 '임꺽정길'이 탄생했다. 전북 전주시는 우리 고유 지명을 새 도로명에 많이 이용해 '바람쐬는길', '꽃밭정로'라는 이름을 얻게 됐다. 충청북도는 역

사성과 지역성을 도로명에 반영해 '농다리길', '단재로', '두꺼비로'를 만들었다. 부산시는 전설과 관광 자원을 활용해 '황새알로', '톳고개로', '일산봉로' 등을 만들었다. 제주시는 세계 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의 명칭을 딴 '거문오름길'을 비롯해 '원당봉로', '사라봉길' 등 기생 화산의 명칭을 딴 도로명 9개를 만들었다.

9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안형환(한나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방송 언어 관련 제재 건수는 2009년 12건, 2010년 16건, 2011년 7월 24건 등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윤리·성적 표현·폭력 묘사 등 문제를 일으킨 저품격 드라마에 대한 제재 건수도 2009년 9건, 2010년 13건, 2011년 7월 1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5일 디오텍(대표 도정인)은 애플 앱스토어에 베트남어 사전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전은 베트남에서 전자사전 시장의 최대 점유율을 자랑하는 락비엣(LacViet) 출판사의 사전으로,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베트남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한·베 사전은 약 20만 개, 영·베 사전은 약 40만 개 이상의 구문 및 표제어를 지원하며, 일상 대화 및 방대한 전문 분야 단어들을 수록하였다.

9월 5일 템플스테이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불교 전문 용어들을 보다 쉬운 용어로 표준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의연 동국대 교수는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개최한 '템플스테이 영문 용어 표준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잘못된 로마자 표기법을 비롯해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의미가 부정확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템플스테이 영문 용어 표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9월 5일 KBS 아나운서실(실장 김성수)은 한국어 사용자들이 발음과 관련한 어문 규정을 쉽게 찾고 발음과 관련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KBS 한국어 발음 웹 서비스(http://korean.co.kr/speak)'를 시작했다. 기존 국어문화원 웹 사이트를 개편·보강해 구축한 이 서비스는 KBS 아나운서들

의 육성으로 녹음된 표준 발음법 전문을 담고 있다.

9월 6일 데이비드 크리스털이 『문자 메시지는 언어의 재앙일까? 진화일까?』를 출판했다. 크리스털은 언어학자로서 이러한 현상을 이전에 결코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자 메시지의 특징으로 편리하고 재미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발음이나 방언처럼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역할만이 아니라 오락적인 말놀이의 수단으로서 문자 메시지의 가치를 높이 평가했다.

9월 6일 상명대 국어문화원은 지난 2010년부터 매 학기 한국어문학과생 가운데 20명을 선발해 천안 지역 다문화 가정에 국어 도우미로 파견하고 있다. 구현정 국어문화원 원장은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겪는 어려움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언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업 부진이다."라며 "일반 가정의 어머니만큼 생활 속에서 국어 학습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도우미 제도를 도입했다."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9월 7일 고재환 제주어보전육성위원회 위원장이 제주어 고유의 풍부하고도 다양한 표현을 지속적으로 보존해 나가기 위해 『제주어 개론』(상·하)을 집필했다. 제주어의 음운론, 품사론, 어휘론, 구술론, 표기법을 상권으로, 어말 어미와 비어말 어미를 대상으로 한 형태론을 하권으로 분리해서 엮었다.

9월 7일 충남대학교가 세 번째 세종학당을 태국 콘깬대학교에 설립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충남대 세종학당은 태국 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총 4학기(정규 2학기, 계절 2학기)에 걸쳐 한국에 파견될 근로자 약 150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한다.

9월 8일 경기도 교육청 제2청사(부교육감 고붕주)는 학생들의 욕설 문화와 그릇된 언어 행태를 바로잡고, 올바른 언어 습관 및 언어 예절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고운 말 한마디는 자신의 인격입니다'라는 언어 순화 교육 장학 자료를 제작하여 제2청사 관내 초·중·고교에 보급하였다. 총 3부로 구성된 언어 순화 교육 장학 자료는 1부에 청소년 언어문화 실태를 다루고, 2부에 청소년 언어 순화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3부에 바르고 고

운 말 지도의 실제를 소개한다.

9월 8일 경상대학교는 2011년 하동군 위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이 주관해 운영하는 이 교육 과정은 한국어 교사 지망자가 한국어·한국학·한국 문학·한국어 교육학 등을 학습해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 이론과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월 8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미얀마의 양곤외국어대학이 한국어 교육 봉사 단원의 재파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미얀마에 파견된 KOICA의 한국어 교육 봉사 단원 임기가 지난달 종료됐기 때문이다. KOICA는 이에 대해 봉사 단원들이 2년 임기를 마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미얀마 정부가 비자 발급에 협조해 준다면 다시 봉사 단원을 파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9월 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대학 영어 강의 의무화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국어학회·조선일보가 주관하고 국립국어원이 주최한 국어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찬성과 반대 양쪽에서 나오는 말들은 반론이나 논박보다는 상호 보완에 가까웠다. 영어 강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였고, 획일적인 의무화에는 한목소리로 '절대 반대'였다.

9월 8일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최근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신규 이력서를 대상으로 모의 맞춤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은 평균 26건의 맞춤법 및 띄어쓰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10대가 33.6건으로 가장 많이 오류를 보였고, 30대 이상은 23.1건, 20대는 21.0건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31.9건으로 여성 19.9건에 비해 높은 오류 수치를 보였다.

9월 8일 우리 정부가 지원하고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세종대왕 문해(文解)상 시상식이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다.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은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뉴델리 소재 '마넥샤우 센터'에서 부룬디의 '전국 문해 서비스(National Literacy Service)' 프로그램과 멕시코 국립성인교육연구소의 '두 언어생활 문해(Bilingual

Literacy for Life)' 프로그램에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했다.

9월 8일 육군 군수사령부(사령관 중장 이상돈)가 군에서는 최초로 3일간 '국어문화학교'를 실시했다. 사령부는 최근 펼치고 있는 '우리말 바로 쓰기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립국어원에 협조를 요청했으며 국립국어원은 군에서 흔히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을 바로잡고, 고운 말 쓰기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사령부는 2007년도에 발간한 『이해하기 쉬운 군수 용어집』의 검토를 국립국어원에 의뢰했으며, 검토가 끝나면 용어집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9월 8일 KBS 울산방송국(국장 손정식)은 문현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KBS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강의를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이지향 아나운서는 청소년들이 자주 사용하는 비속어의 사례를 들고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설명했다.

9월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10월 21일까지 복잡하고 어려운 방송 통신 용어를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하반기 우리말 순화어 온라인 공모'를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방통위 블로그 '두루누리'에 댓글을 다는 방식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9월 10일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남북한 언어를 연구해 온 호주 국적의 박기석 김일성종합대 언어학 박사가 북한의 언어 동향을 평양 여행기에 담아 『JS-156』(글누림)을 펴냈다. 이 책의 제목은 북한 평양과 중국 선양을 오가는 고려항공의 비행기 편명에서 따온 것이다. 책에는 현재 북한에서 쓰이는 입말과 글말을 노동신문의 기사, 연속극 대사, 노랫말, 구호 등을 통해 소개했다.

9월 13일 유럽 전역의 한인 차세대들이 참가하는 한국어 웅변대회가 11월 18일부터 사흘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다. 웅변 주제는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 한국 전통의 우수성, 자랑스러운 한국·한국인, 동포 2세 및 다문화 가정의 한글과 한국문화 교육의 필요성, 유럽 한인 차세대로서의 우리가 가야 할 길 등이다.

9월 13일 중국을 대표하는 인민일보의 인터넷판인 인민망이 9월 말부터 한국어판 서비스를 개시한다. 인민망은 영어, 일본어, 스

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아랍어, 조선어 7개 외국어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한국어를 여덟 번째로 추가했다.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 공사 총경리(최고 책임자)는 "한중 간 경제 협력이 강화되고 정치적 현안이 많아졌기 때문에 직접 한국어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9월 14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호연 의원은 우리나라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발행하는 계간지 『코리아나』의 해외판 번역에 오류가 많다고 지적했다. 2011년 여름 호 '제주도 특집'의 일본어판에서는 독도와 다케시마(竹島)를 병기해 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한국을 알리는 사업이 오히려 우리나라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9월 14일 동아대학교 연구팀이 욕을 주제로 논문을 작성했다. 강기수 동아대 교육학과 교수와 이점식 동아대 박사는 '석당논총 제50집 기념호'에 욕의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한 '욕의 교육 인간학적 기능'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실었다. 이들은 욕을 쌍욕・방귀욕・익살욕・채찍욕 등 4가지로 나누고 예시를 통해 설명했다.

9월 14일 LG유플러스는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에서 나타나는 한글 파괴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16일까지 '휴대 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을 개최한다. '쪽글'이란 한글학회가 정한 문자 메시지의 순우리말 표현이며, 이 행사는 LG유플러스, 청강문화산업대학, 한글학회가 함께 마련한 것이다.

9월 15일 '부동산.한국', '꽃배달.한국' 등 사업 목적의 순 한글 인터넷 주소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글로 된 인터넷 주소 등록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열흘 동안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316만 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9월 15일 6월 23일부터 12주간 6차에 걸쳐 열린 국어 정책 토론회가 막을 내렸다. 대장정을 결산하기 위해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박창원 국어학회 부회장(이화여대 국어국문학 교수), 사회자였던 손범규 SBS 아나운서, 토론자였던 정재환(한글문화연대 공동 대표), 독자 박성렬(전 부산 대동고 교사) 등 5명이 모였다. 박성렬 씨는 "한글 전용이냐 한자 혼용이냐의 주제가 이번에

빠진 게 아쉽다. 사이시옷 문제에서 보듯이 우리 어문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손범규 아나운서는 "국어원이 이런 토론회를 월 1회 정도 상설화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어문 규범 운영을 보다 빠르게 현실화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앞으로는 언어 현실 변화에 보다 역동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9월 15일 소년한국일보 비둘기 기자 3명이 권재일 국립국어원 원장을 만났다. 권 원장은 표준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국민이 어려워하는 맞춤법은 어떤 구실을 하는지 등 평소 어린이들이 궁금히 여겼던 것들을 자세히 들려주었다.

9월 1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태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정규 과목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한국어 교원 54명을 28일에 파견한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초·중·고교에 한국어 교원을 보내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은 처음이다.

9월 16일 최근 대학가에 높은 등록금 부담과 취업난을 반영하는 신조어가 봇물을 이룬다. '삼포세대'는 경제적인 이유로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청년층을 뜻한다. 과거 시골 고향의 부모님들이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논과 소를 팔았기 때문에 대학을 '우골탑(牛骨塔)'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제 이 말은 부모 등골을 빼는 '등골탑' 혹은 '인골탑(人骨塔)'이라는 신조어로 다소 격하게 변했다. '청년실신'은 대학생 대부분이 졸업 후 실업자, 신용 불량자가 된다는 의미다.

9월 16일 최근 한류 열풍을 타고 국외에서 한국어가 제2 외국어로 채택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어를 제2 외국어로 채택해 우리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는 국가가 지난해 13개국에서 올해 23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동남아와 몽골, 중남미 등에서 한국어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뜨거운 만큼 이 같은 추세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9월 16일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응시자가 첫 시행 당시에

비해 13년 만에 약 6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한나라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7년 제1회 시험의 응시자와 합격자는 각각 2,274명, 711명이었다. 이후 응시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지난해까지 누적 응시자 14만 9,650명, 합격자 4만 4,477명으로 각각 1997년 수치의 65.8배, 62.5배 증가했다.

9월 17일 30여 년을 강릉 사투리 연구에 매진해 온 김인기 씨가 첫 소설집 『산방설화』(도서출판 한강)를 펴냈다. 저자는 30여 년간 강릉 사투리를 찾아 헤맨 내공과 강릉 지역의 전설 및 설화를 담아 이 소설을 저술했다.

9월 17일 이집트 카이로 아인샴스대학교에서 제24회 한국어 능력시험(TOPIK)이 시행됐다. 이집트에서 세 번째로 치러진 이 시험에는 164명의 학생이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 응시하였다.

9월 17일 일본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글 교가를 불러 화제다. 최근 니혼 TV가 방송한 교가 특집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의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교가를 제창한 장면이 방송됐다. 해당 학교는 이와테현의 모리오카 스콜레 고등학교로 학교 관계자는 한글로 교가를 제창하는 이유에 대해 "한글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9월 17일 국토해양부 소속 국립해양조사원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24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우리말로 지은 해저 지명 4건을 국제 지명집에 등재했다고 밝혔다. 남극에 우리말로 된 해저 지명을 붙인 것은 처음으로 '궁파 해저구릉군'과 '쌍둥이 해저구릉군'이란 명칭이 사용됐다.

9월 19일 예스24는 한글 교재와 우리 문학 작품 등 한글의 아름다움을 담은 1,500여 권의 도서를 베트남 중부 지역 3개 대학(달랏, 후에, 다낭)의 한국어과에 기증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예스24가 베트남에 기증한 도서는 총 1만 5,300여 권에 이른다.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전달했는데, 그중 50% 이상은 한국어 교재였다.

9월 19일 제주시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의 자녀에게

부모 나라의 언어를 익히도록 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재 교실을 12월까지 주 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강사는 중국 및 베트남 결혼 이민자들이며, 이를 통해 결혼 이민자들을 위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다.

9월 19일 최근 문단에서는 애초에 번역을 의식해 작품을 쓰는 작가들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작가가 소설가 김연수 씨다. 그의 작품은 번역가들 사이에서 '번역하기 좋은 소설' 1순위로 꼽힌다. 영문 소설을 한글로 옮긴 듯한 번역 투 문체 때문이다. 소설가 편혜영 씨는 문장이 간결하고, '그'나 '그녀' 같은 인칭 대명사를 자주 쓰는 것이 특징이다. 양한주 독일 보훔대 교수는 "문학 작품은 내용뿐 아니라 작가가 속한 사회 문화를 전달한다."라면서 이러한 국외 진출 전략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했다.

9월 20일 경남 진주 한국국제대학교에 도내 처음으로 국제한국어교원학과가 개설됐다. 이 학과를 졸업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증하는 한국어 교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진다.

9월 20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이 문화재청 영문 누리집과 창경궁 내 설명 안내판의 로마자 표기 오류를 지적했다. 문화재청 영문 누리집에서 창경궁(Changgyeonggung)은 Changgyunggung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또한 통명전(Tongmyeongjeon)도 Tongmyongjeon으로 잘못 쓰여 있고, 조선(Joseon)과 규장각(Gyujanggak)도 각각 Choson과 Kyujanggak으로 표기되어 있다. 창경궁 안내판에서도 자격루의 경우 Jagyeongnu가 옳은 표기지만, Jagyeok-nu로 표기돼 있었다. 또 한중록(Hanjungnok) 역시 Hanjungrok으로 잘못 표기돼 있었다.

9월 20일 서울시가 11주 동안 몽골·러시아·우즈베키스탄인 밀집 거주 지역인 중구 광희동을 주 2회 직접 방문해 한국어와 컴퓨터를 가르친다. 한국어 교육은 초급반, 시험 문제 풀이 TOPIK반이 있으며, 컴퓨터 교육은 초급반, 자격증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맞춤형 교육으로 안정된 서울 생활 정착을 돕고 자연스레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 20일 스페인 마드리드의 갈반공원에서 '한국 방문의 해 위원회'가 주최한 '2011 케이팝 커버댄스 페스티벌'이 열렸다. 행사장은 각국에서 온 17개 참가팀과 응원팀, 팬들로 북적였다. 공연을 보기 위해 체코에서 온 여대생 알리나는 "처음에는 한국어를 모르고 노래를 들었는데 가사를 이해하니 노래가 더 좋아졌다."라고 말했다.

9월 20일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있는 윌리엄 글라드스톤 외국어고에서 이번 9월 학기부터 한국어를 가르친다고 밝혔다. 한국어반이 생긴다는 소문이 퍼지자 22명을 뽑는 시험에 160여 명이 지원할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9월 20일 인천장도초교가 탈북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조사한 결과, 62%는 한국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한국어 활용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탈북 학생의 경우에도 어휘의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학교 장일태 연구 부장은 "탈북 학생의 학력 수준이 낮은 이유는 언어 문제가 가장 크다."라며 "학교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 과제는 국어 능력 향상이다."라고 했다.

9월 21일 인천 만수고등학교(교장 서용석)는 KBS 한국방송 주관으로 시행하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특별 강의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시간 동안 실시했다. 강연자로 나선 KBS 김재원 아나운서가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비속어 등과 틀리기 쉬운 외래어 표기법에 관해 강의를 진행했다.

9월 24일 충청북도는 한국어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시 무심천 체육공원에서 '전국 우리말 사랑 왕 선발 대회'를 개최했다. 총 상금 550만 원을 걸고 생활 속 우리말의 올바른 뜻을 찾아내는 OX 퀴즈와 황금 종(골든벨) 퀴즈 등을 통해 '우리말 사랑 왕' 15명이 선발됐다.

9월 25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뒤,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사회적 편익이 4조 9,116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함에 따라 한글날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9월 27일 국립국어원은 건축물보다는 규모가 작고, 조각보다는 규모가 큰 공공 시설물을 말하는 '폴리'의 우리말 표현에 대해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황용주 학예연구사는 "폴리가 설치된 곳이 소통의 공간으로 기능한다는 측면에서 '정자'를 살려서 정자마당, 마당정자, 양정자, 서양정자 등 네 가지 안을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확하게 폴리의 개념과 일치하진 않지만, 이 명칭을 통해 개념 정립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9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글 반포 565돌을 맞아 10월 3일부터 9일까지를 '한글 주간'으로 정하고 한글의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다. ㈔국어생활연구원은 옛 집현전 터인 경복궁 수정전에서 '세계 문자와 한글: 문자는 살아 있다'라는 주제의 전시회를 열었다. 또한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은 '외국인 한글 백일장'을, 국립민속박물관은 '외국인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는 '런던 국제 언어 박람회'에 한글관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한글사랑운동본부는 서울스퀘어에서 캘리그래피 영상전 '한글과 나무Ⅱ'를, 외솔회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집현전 학술 대회'를 여는 등 40여 개의 문화 학술 행사가 광화문 일원과 전국에서 개최됐다.

9월 29일 지난 4월 4일 공포된 '다문화 가족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이 10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귀화자와 외국인으로 이루어진 가족, 귀화자와 귀화자로 이루어진 가족까지 다문화 가족에 포함되어, 다문화 가족의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에 기존의 교육, 상담, 서비스 정보 제공 이외에 한국어 교육, 통·번역 서비스, 일자리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등이 추가된다.

9월 29일 포스코가 최근 일본식 표현과 이해하기 어려운 철도 용어를 개정해 글로벌 표준에 맞게 한글 표준화 작업을 완료했다.

이번 작업으로 어려운 철도 관련 용어 70여 종이 이해하기 쉬운 한글식 표현으로 바뀐다. 이번에 정립한 철도 표준 용어는 포항제철소와 최종 조율을 거쳐 포스코의 철도 용어 표준으로 사용한다.

9월 29일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에 따르면 보르도의 프랑수아-마장디고교는 한국어를 9월 초 시작된 신학기의 정규 제3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다. 또 수도 파리 중심가인 7구의 빅토르-뒤뤼고교에서도 이번 학기부터 한국어가 정규 강좌로 개설됐다. 주프랑스 한국교육원은 지금까지 프랑스 전국 23개 학교에 한국어 정규 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9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방송된 오락 프로그램 4편을 분석해 '케이블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프로그램 중 특히 '헬로 베이비'와 '무한걸스3'에서 은어나 비속어가 많이 등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9월 3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0월 9일 '제565돌 한글날'을 맞아 세종시 첫마을아파트 앞 금강 둔치에서 한글학회(회장 김종택)와 함께 세종시 한글 사랑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한글, 창조 그리고 세종'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세종시의 창조적인 한글 특화 및 한국성 구현 정책을 널리 알리고, 청소년들에게 한글 사랑 정신을 심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월 2일 남미 볼리비아의 원주민 아이마라 부족에게 본격적으로 한글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아이마라족은 210여만 명에 달해 인도네시아 원주민 찌아찌아족(6만 명)보다 34배나 많다.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는 최근 볼리비아의 투팍 카타리 아이마라 인디언대학과 한글 보급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10월 2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한국어 능력 시험의 의사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말하기 영역의 시범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교육원은 4개월간 평가 유형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내년에는

표준 문형 개발 검토에 들어간다. 2015년에는 국내 시험부터 시범적으로 말하기 평가를 적용하며 이후 시험장 환경이 좋고 응시자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 등의 국외 국가로 확대한다.

10월 2일 EBS TV '다큐프라임'은 3~4일에 청소년의 욕설 사용 실태를 조명하고 대안을 찾기 위한 2부작 '욕, 해도 될까요?'를 방송한다. 1부 '욕, 뇌를 공격하다'에서는 욕설로 얼룩진 청소년의 언어 사용 문화를 진단한다. 2부 '0818 언어 개선 프로젝트'에서는 4주간의 언어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소개한다.

10월 3일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약 8만 6,000명이며 이 가운데 중국인 유학생이 80%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중국인 유학생 숫자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전년 대비 약 50%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작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학당의 환경은 미비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유학생 유치를 늘려 가기 위해서는 등록금 및 환불 규정에 대한 표준 마련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10월 3일 한국교총에서 지난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교사 326명과 학생 3,429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교사 326명 중 141명(43.3%)이 "중학교 1~2학년 때 학생들 욕설이 가장 심하다."라고 대답했다. 교사의 55.2%는 "매일 학생들의 욕설을 듣는다."라고 했으며, 89.2%는 "학생들의 욕설의 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학생들 스스로도 욕설 문화가 심각하다고 인정했다. '같은 반 친구 중 어느 정도가 욕설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42%(1,427명)의 학생이 "반 친구 75% 이상이 욕설을 사용한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학생 중 74%는 "언어(말투)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친구"라고 대답했으며, 18.6%는 "방송과 인터넷, 영화 등 대중 매체"를 들었다.

10월 3일 한글날을 앞두고 울산 외솔 최현배 선생(1894~1970) 기념관에서 청소년들이 외솔 선생을 주제로 축제를 열었다. 울산 중구 '청소년 문화의 집'은 8일 중구 동동 외솔기념관에서 '제1

회 청소년 외솔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울산 지역 중·고생 35명이 지난 6월부터 외솔 선생과 한글을 주제로 제작한 벽화, 영상, 만화 등을 선보였다.

10월 3일 한글학회는 '2011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 수상자로 김차균 충남대 명예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주시경 학술상은 국어 연구와 한글학회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김 교수는 국어 성조 연구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10월 4일 농촌진흥청은 바우바우 시의 농림고등학교 개교식에서 한글판 영농 교본 1,000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농림고등학교 교과서로 쓰일 한글판 영농 교본은 우리나라의 선진 농법을 찌아찌아족의 전통 농경 문화에 적용할 수 있게 쉽게 풀어 기록한 것으로, 집필은 인도네시아어로 하되 영어와 한글 표기 찌아찌아어를 병기했다.

10월 4일 한글날을 앞두고 세계 속 한글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는 책 두 권이 출간됐다. 『한글의 탄생』(돌베개)은 일본의 한국어 연구자인 노마 히데키 전 도쿄외국어대 교수가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과 원리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찌아찌아 마을의 한글학교』(서해문집 펴냄)는 지난해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부톤 섬 바우바우 시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 찌아찌아족에게 한글을 가르쳤던 정덕영 씨가 쓴 '한글 전파기'다.

10월 5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565돌 한글날을 맞아 국어 교과서의 과거와 현재를 짚어 보는 디지털 한글박물관 특별 기획전을 개막했다. 이번 '한민족 일깨우다! 국어 교과서 한 세기' 전시에서는 근대 이후 우리말과 글을 교육한 국어 교과서 66종을 근대 계몽기, 일제 강점기, 건국기 및 교육 과정기의 세 시기로 나눠 선보인다.

10월 5일 동아대 국어문화원은 한글날을 앞두고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가게'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곳은 해운대에 있는 이탈리아 음식점 '부뚜막 고양이', 동래구의 주점 '한또바기', 사상구의 해장국 전문점 '뼈대로', 서구의 음식점 '콩마을 푸른 밥상', 연제구의 죽집 '단물 곤물'이다.

10월 5일 미래엔은 '교과서의 날'을 맞아 충남 연기군 미래엔 교과서박물관에서 '초등 국어 교과서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교과서의 기본인 국어 교과서의 역사를 정리하고 국어 교육의 새 지평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10월 5일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객원 교수가 한글날을 맞아 5일 자 월스트리트저널 유럽판 1면에 '독도 한글' 광고를 게재했다. 서 교수는 "1면 하단 박스 광고로 제작된 광고는 'Basic Korean(기초 한국어)-3'이라는 제목 아래 '독도'를 한 글자씩 소개했고 한글은 가장 과학적이고 누구나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설명했다."라고 밝혔다.

10월 6일 계명대 국제교육부는 훈민정음 반포 565돌을 기념해 한국어학당 소속 외국인 유학생 18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한글 퀴즈 대회를 개최했다. 계명대는 같은 날 베트남 타이응우옌대학에서도 계명 한국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기념 잔치를 열었다.

10월 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 565돌 한글날을 맞아 '학생 언어문화 개선' 특별 수업 등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 과정과 연계한 교사의 특별 수업, 공중파 방송을 활용한 범국민 캠페인 운동, 학생들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UCC 공모전 등이 주요 내용이다.

10월 6일 알바몬(대표 김화수)이 한글날을 앞두고 대학생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대학생 2명 중 1명은 이모티콘과 외계어 등의 인터넷 용어를 일상적으로 쓰고 있었다. 이모티콘이나 외계어에 대해 전체 응답 대학생의 약 93%가 "사용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자는 6.6%에 머무른 반면 "인터넷, 문자 등을 통해 매우 자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라는 응답은 무려 46.3%로 약 절반에 이르렀다.

10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한국어 세계화 3대 추진 과제'

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문화부는 내년에 세종학당 30곳을 추가하고 국외 20개 지역에 한국어 전문 교원을 파견한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지원 대상도 올해 55명에서 내년 2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표준 교육 과정을 올해 말까지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10월 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남단 몬터레이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언어 전문 교육 기관인 미 국방외국어대학에서 연세대학교의 후원으로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으며, 메건 스미스(한국명 송미란) 일병이 금상을 차지했다.

10월 6일 미국에서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공립 학교가 지난해 10곳이 늘어 총 60곳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교육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며 현지 한인 학부모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10월 6일 번화가가 형성된 광주 서구 치평동 상무 지구 일대에는 뜻을 알 수 없는 외국어 간판들이 즐비해 있다. 특히 커피 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옷 가게 등 젊은 층을 주로 상대하는 점포일수록 한글 표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문가들은 한글이 창제된 지 568년이 된 현 시점에 외국어 난립에 따른 신문맹(新文盲)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10월 6일 유비누리(대표 노성현)가 전 세계 거의 모든 언어의 발음을 입력하는 스마트폰 자판 입력 애플리케이션 '열린정음'을 '앱질'과 안드로이드 마켓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열린정음' 앱은 가획, 병서 등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10월 6일 한국만화박물관은 제565돌 한글날을 맞아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23일까지 '만화로 만나는 세종과 한글전'을 개최한다. 국립국어원,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와 함께하는 이번 전시회는 만화로 보는 세종대왕 일대기와 훈민정음 창제 이야기, 만화 속의 세종 캐릭터 모음 전시, 만화와 만난 한글 자음과 모음 전시, 닥종이 인형으로 만든 화려한 세종대왕 어가 행렬 등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돼 있다.

10월 6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오전 10시부터 순 한글 누리집 주소인 '.한국' 도메인 등록을 개시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65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날 전날인 8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특설 무대에서 관련 이벤트를 개최해 참석자들과 함께하는 주사위 게임 및 세종대왕과의 사진 촬영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하였다.

10월 6일 미도민속관(관장 김상석)이 한글 반포 565돌을 앞두고 가난을 이기지 못해 딸을 판매한 조선 시대 한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경사년(1780년 혹은 1840년) 4월 3일에 작성된 것으로, 흉상을 당한 여인 박사홰가 먹고 살기가 어려워 딸 쌍례를 구활 노비로 모인댁에 방매한다는 수기이다.

10월 6일 한글날 565돌을 맞는 가운데 한글이 최근 사상 최대의 부흥기를 맞고 있다. 한글은 현재 7,700만 명이 사용하는 세계 13대 언어로 등극했다. 국립국어원은 아시아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와 합격자 수가 2006~2007년을 기점으로 한류 열풍과 맞물려 크게 늘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글 세계화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 예산 확대 등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한글 세계화에 투입된 예산은 192억 원 정도다. 이는 2005년에 비해 1.45배 늘어난 데 불과하다.

10월 6일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어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한글 보급 노력은 인근 중국과 일본에 비해 '걸음마' 수준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이다. 미국의 경우 중·고교 중 5,000곳이 스페인어, 1,000곳이 중국어, 700곳이 일본어를 채택하고 있는 데 비해, 한국어를 채택한 중·고교는 65곳에 불과하다.

10월 6일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사용하던 행정 용어 가운데 뜻이 분명하지 않거나 보편적이지 않은 600여 개 용어를 전달하기 쉬운 순화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로써 '의료수가'는 '진료비'나 '치료비', '가내시'는 '사전 통보', '시방서'는 '설명서', '거마비'는 '교통비' 등으로 쉽게 바뀐다. 영어 등 외래어도 순화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공문서를 작성할 때 문서 결재 시스템에서 행정 용어 순화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한글날부터 행안부에 시범 도입되고 연말까지 시범 운영의 성과를 분석한 뒤 내년부터는 전 부처로 확대된다.

10월 7일 565돌 한글날을 기념해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논증과 국제 한국어 대학 설립 필연성'에 관한 학술 강연회 및 '국제 한국어 대학 설립 추진 결의 대회'가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열렸다. 한국바른말연구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 헌정회가 후원한 이 행사에서는 한국바른말연구원장인 원광호 전 국회 의원이 특강을 맡아 한글의 우수성과 함께 한국어 대학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국제 한국어 대학 설립 방침을 밝혔다.

10월 7일 강원도 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강원 교육 용어 사전『바른 말, 쉬운 글』을 내년 한글날 즈음 발간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전은 교육 기관에서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말, 외국어, 어려운 한자말, 일본식 말법, 권위적인 말 등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책이다.

10월 7일 국가기록원은 한글 반포 565돌을 맞아 한글 관련 기록물 29건을 나라기록포털(http://contents.archives.go.kr)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기록물 목록에는 세종 때 만들어진 훈민정음과 1929~1942년 조선어학회에서 조선말 사전 편찬을 위해 작성한 원고, 1927년 미국 하와이 독립단 총부와 북경 독립단 지부에서 발행한 어린이용 조선어 교본이 포함돼 있다. 한글날을 기념일로 정한 내용을 담은 1982년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1990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국경일로 승격한 2005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 자료'도 공개된다.

10월 7일 국립국어원의 김세중 공공언어지원단장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블로그 '두루누리'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신조어, 유행어, 은어가 난무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정보 기술이 발달할수록 신조어, 유행어, 은어의 생산과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김 단장은 젊은 층은 동질감을 확인하고 소통하기 위

해 신조어를 쓰지만 해당 단어를 모르는 어른들은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10월 7일 목원대학교(총장 김원배)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들과 학생 100여 명이 제565돌 한글날을 맞아 '한글 파괴 앞장서는 행정 기관 공공 언어'라는 주제로 '제8회 한글 사랑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물 자료는 모두 80여 점으로 구성됐으며, 자료는 국어교육과 교수와 학생들이 국가 기관의 인터넷 누리집과 각종 홍보 자료, 옥외 광고물 사진 등을 모아 제작했다. 이 전시회의 목적은 한글 보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공공 기관이 오히려 한글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실상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

10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대회에서는 예선 심사를 거친 9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한글 및 한국어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실력을 겨뤘다. 국립국어원은 발표된 소프트웨어를 공개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10월 7일 부산의 한 선박 엔진 설계 업체에 다니고 있는 직장인 경무수 씨가 기존 휴대 전화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글 입력 시스템보다 쉽고 간편한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목을 받고 있다. 경 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한글 입력 프로그램 '꽃잎한글'을 개발하기 시작해 거의 완성 단계에 있다. 현재 꽃잎한글은 특허가 출원된 상태이며 이미 꽃잎한글 앱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3,000건 이상 다운로드되는 등 그 편리함이 입증되고 있다.

10월 7일 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한글날을 맞아 글로벌빌리지센터에서 서래마을 인근의 외국인 어린이들에게 한글 디자인 앞치마 만들기 수업을 진행했다. 매년 한글날 무렵 진행되는 앞치마 만들기 수업은 외국 어린이들이 한글 무늬나 자신의 한글 이름을 이용해 앞치마를 만들며 한글과 친숙해지는 프로그램이다.

10월 7일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원장 이은섭)은 565돌 한글날을 앞

두고 울산대에 유학 온 외국인 대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3회 외국인과 함께하는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했다. 60문제 중 절반 정도 정답을 맞힌 중국 유학생 갈산산 양이 금상을 차지했다.

10월 7일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대표 유근형)가 10일까지 한글날 기념행사를 실시한다.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꿔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 행사에서는 외래어 '콘텐츠', '포인트', '아이템'에 대한 재치 있는 우리말을 공모한다.

10월 7일 주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한글 맞춤법 오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다. 검증 없이 웹툰 작가나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그대로 내보낸 탓이다. 국내 3대 포털 업체 중 별도 교열 담당자를 둔 곳은 NHN이 유일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웹툰은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어 맞춤법 수정도 작가의 몫"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민현식 교수는 "인터넷을 접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이를 그대로 접하는 청소년들을 감안해서라도 하루빨리 적절한 대책을 찾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10월 7일 최근 디자인계 일각에서는 한글 자모를 활용해 문자가 아닌 그림이나 무늬, 이미지로서 한글의 조형미를 부각시키려는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유진웅(히읗 대표) 씨는 한글을 활용한 타이포그램(문자를 조합해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작업으로 만들어 낸 공룡, 코끼리, 거북선 등의 형태를 티셔츠나 커피 잔 같은 제품에 인쇄한다. 허창봉(허창봉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씨는 한글의 자모를 재료로 프랙털(작은 구조가 전체 구조와 같은 형태로 끝없이 되풀이되는 도형)을 닮은 도형을 만들어 낸다.

10월 7일 최근 문자 메시지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사용이 빈번해지면서 청소년들의 띄어쓰기와 맞춤법 실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는 해마다 수험생이 대학 입시 때 치르는 논술 고사에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대입 학원의 수시 모집 담당자는 대학 논술 고사에서 원고지가 가로줄 용지로 대체되고, 학생이 문서 작성할 때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하다 보니 띄어쓰기에 소홀해진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10월 7일 KT(회장 이석채)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한글 알리기 RT'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KT와 현대카드/현대캐피탈, 산돌커뮤니케이션, 국가브랜드위원회가 함께 진행한 이 행사의 목적은 한글날을 기념하여 대한민국의 자랑인 한글을 전 세계에 알리자는 것이다.

10월 7일 MBC가 한글 주간을 맞아 2011 한글날 주간 특별 생방송 '소통, 한글로 통하다 2'를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케이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문장이 넘쳐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상을 진단했다. 또한 청소년 욕설 문제도 다뤘고, 습관화된 언어 파괴 현상이 스트레스와 관련이 깊으며, 언어폭력이 물리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했다.

10월 8일 가수 이소라의 '바람이 분다'가 2000년 이후 발표된 가요 중 노랫말이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꼽혔다. 대중음악 전문가 10명이 2000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발표된 가요 가운데 노랫말이 아름다운 34곡을 뽑았고, 그중에 '바람이 분다'가 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시인 김종해 씨는 "쉬운 언어를 쓰면서도 이를 잘 구성했다. 시적인 감성의 성취도가 높다."라고 호평했다.

10월 8일 강릉 출신 소설가 이순원이 이탈리아 그림책 『눈 오는 날』을 강원도 사투리로 펴냈다. 출판사 누리집(www.bookgoodcome.com)에 가면 작가가 직접 읽어 주는 오디오북도 사용할 수 있다.

10월 8일 부경대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Fun Korean－신 나라 부경 한국어'를 국어국문학과 채영희 교수가 무선 인터넷 콘텐츠 제작 업체 ㈜모바일로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앱은 기초 단계의 어휘 익히기부터 역할극을 통한 말하기 연습, 문법과 한국 문화 익히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9일 '한글 수출'로 관심을 모았던 인도네시아 소수 민족 찌아찌아족 대상 한글 문자 도입이 난관에 부딪혔다. 바우바우 시가 한글 보급을 추진한 훈민정음학회와 관계 단절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훈민정음학회 측은 "행정적 권한을 가진 바우바우시가 서울시만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당초 바우바우 시에 문화 센터를 짓고 도시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사를 내비쳤지만 검토 단계에서 예산 문제 등으로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명 자료를 내고 "서울시는 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원은 부적절하다."라고 밝혔다.

10월 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재윤 민주당 간사는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 감사 자료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조사 중간 보고서'를 인용해 국어 활성화를 위해 다문화 가정 이민자들의 국어 교육에 정부가 적극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이민자들은 '한국어로 말하는 전화 내용이 이해되지 않을 때'와 '공공 기관 이용 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를 한국 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으로 꼽았다.

10월 9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65돌 한글날 경축식에 참석해 "한국어 교육의 질을 높여 문화적 다양성과 융합을 통해 새로운 문화가 창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올해 세종대왕상을 수상한 아프리카 브룬디의 '국가 문해 서비스' 및 멕시코 국립성인교육연구소의 '두 언어생활 문해 프로그램' 등을 언급한 뒤 "공정한 기회와 원활한 소통을 이루고자 했던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이제 전 세계인들과 나누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10월 9일 대남 선전용 웹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우리말과 글이 천시당하는 비극적 현실'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조선에서 지금처럼 고유한 우리말과 글이 짓밟히고 그 순수성이 훼손되면 언어 분야에서 민족성이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조국 통일 위업에 커다란 해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래어를 남발하는 남한의 언어 현실을 지적했고 영어 교육에 대한 과열을 비판했다.

10월 9일 서울시가 이틀간 '세종 이야기' 축제를 개최했다. 첫날에

는 한글 영상 쇼, 아름다운 노랫말 음악회, 고은 시인의 시를 음악으로 재탄생시킨 공연 등이 펼쳐졌고, 한국어진흥원이 공모해 선정한 '아름다운 노랫말'을 노래로 작곡해 들려주기도 했다. 이튿날에는 청소년 대상 문화 공연 '한글 고마워요'와 '광화문 문화 마당'의 마무리 공연인 '희망의 광화문' 등이 진행됐다.

10월 9일 연세대 출판문화원은 한글날을 맞아 외솔 최현배(1894~1970) 선생의 저작을 담은 '외솔 전집 1차분'을 발간했다. 총 27권으로 이루어진 전집에는 외솔의 주요 학술서 『우리말본』, 『조선 민족 갱생의 도』, 『한글갈』 등의 육필 원고와 여러 판본이 실렸다.

10월 9일 유엔 산하 국제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개설한 한국어 강좌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강생은 1명밖에 없고, 올해는 4명의 직원들이 강좌를 신청했지만 WIPO 사무국이 예산 절감을 위해 강좌 개설 기준을 강화하면서 무산됐다.

10월 9일 정부가 제조사별로 상이한 한글 자판 시스템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놨지만 제조사의 무관심으로 정책이 유명무실해졌다. 지난 6월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한글 자판 배열 국가 표준'을 정하고 '천지인', '나랏글', 'SKY' 등 3개 방식을 복수 표준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요 제조사들은 여전히 자신의 자판 방식만을 고집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기면서 제조사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소비자 편의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10월 9일 ㈜네오패드(대표 정희성)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러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러닝 누리집(www.hangul.ac)에 들어가면 멀티미디어로 구성된 전자책 형태의 교재에서 수준별로 쓰기·듣기·읽기·말하기 등의 교육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기능도 구비되어 있다.

10월 9일 한국에서 인기를 끄는 트윗(트위터에 올라오는 메시지)을 자동으로 골라 재전송하는 공식 트위터 계정(@toptweets_ko)

에서 지난 1주일 동안의 게시물과 눈에 띄는 신조어들을 분석한 결과 '국어 파괴'를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많은 사용자가 맞춤법과 높임법을 지키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했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공동체 성격을 띠는 디시인사이드에 비교해 트위터는 개방적 매체다. 따라서 더 많은 사람과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은어보다는 보편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10월 9일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는 뜻 모를 신조어와 줄임말,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등으로 소중한 한글을 오염시키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은 "정부는 한글 창제에 담긴 뜻을 되새겨 민생 대란에 절망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대변인은 "생활 속에 범람하는 외래어, 욕설, 비속어, 은어 사용을 반성하고 정화해 한글을 한류 문화의 매개체로 삼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10월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9일 밤 10~12시에 방송된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KBS 2FM)', 'FM 음악도시 성시경입니다(MBC FM)', '이석훈의 텐텐클럽(SBS FM)' 등 3개 라디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해 '청소년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언어 사용 실태'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 프로그램 모두 외국어와 외래어가 빈번하게 사용됐다. '키스 더 라디오'에서는 '걸 그룹', '디렉을 봐주시는(감독하신)' 등의 표현, 'FM 음악도시'에서는 '애슬리트(운동선수)', '오버', '다시 포맷하는(새롭게 하는)' 등의 표현, '텐텐클럽'에서는 '컬러링', '비하인드 신' 등의 표현이 사용됐다. 한편 비속어와 통신 언어의 사용도 빈번했다. '발 연기(키스 더 라디오)', '우쭈쭈(→오냐오냐하다, 음악도시)', '대박, 인증 샷(텐텐클럽)' 등이 잘못 표현된 사례로 제시됐다.

10월 10일 연천초등학교(교장 임형명)는 최근 훈민정음 반포 565돌을 기념하여 제2회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

회에는 50여 개의 순우리말과 30여 개의 속담이 출제됐다.

10월 10일 영어와 각종 축약어의 범람으로 '한글을 망치는 주범'이라는 비난을 사던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한글날을 맞아 변신했다. NHN은 'NAVER' 로고 대신 '한글을 사랑하는 방법을 생각합니다'라는 캠페인을 선보였다. 구글은 'Google' 대신 레고 블록을 닮은 '구글'이라는 한글 로고를 넣었다. 다음은 'daum'이라는 로고의 크기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을 로고에 사용했다.

10월 10일 전남 순천시는 지난 2009년 6월에 '순천시 시장 운영 관리 조례'를 변경해 기존의 북부시장을 '웃시장'으로, 남부시장은 '아랫시장'으로 공식 변경했다. 하지만 한자어로 된 시장 명칭을 한글로 바꾸는 데에는 성공했으나 정작 맞춤법이 틀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순천시가 말하는 '웃장'은 '아랫장'의 맞섬 말이므로 '윗장'으로 표기해야 올바른 표기법이 된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옛날부터 북부와 남부시장을 '웃장과 아랫시장'으로 불러와서 여론을 수렴해 바꾼 것"이라며 "한글 맞춤법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알지 못했다."라고 답변했다.

10월 10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대구·경북 지역 업체 102개 중 한국식 이름을 가진 업체는 35곳, 외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 업체는 33곳이며 나머지는 모두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00년 이후 상장된 기업일수록 영어식 이름을 사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또한 영어식 기업명 변경은 코스닥 기업일수록 잦았는데 이는 인수와 합병 등으로 이전에 갖고 있던 회사 이미지를 지우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월 11일 경북대 이예식 어학교육원장(영어교육과 교수)은 예산 부족으로 세종학당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경북대 어학교육원은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공모한 인도네시아 세종학당 설립 사업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당초 약속한 5,000만 원 중 3,400만 원만 지원키로 한 데다, 2,000만 원을 지

원하기로 약속한 다른 모 재단이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경북대마저 지원에 난색을 표명해 필요 예산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10월 11일 대한불교 조계종의례위원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한글 반야심경 봉정식을 가졌다. 또 조계종 총무원은 전국 본·말사에 한글 반야심경을 내려보내 모든 법회에서 이를 독송하도록 했다. 조계종은 한글 반야심경 보급을 위해 자료집과 CD를 제작·보급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또 천수경, 불공, 상장례의 한글화 작업도 추진해 불교 의례 의식 전체를 점차 한글로 바꿔 나갈 방침이다.

10월 11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문화 연구·교류 민간 기관인 사단 법인 한·인니 문화연구원이 인도네시아 대학과 고교에 한국어 교육 과정을 개설해 한국어 보급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연구원은 10월부터 인도네시아 교육 그룹인 비누스(BINUS)대학의 비누스센터에 '한국어 산학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자카르타 시내 14개 상고·공고·특수 고교(SMK)에서 '한국어 시범 수업 및 정규 수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0월 12일 국립국어원과 SBS는 SBS 목동 본사에서 제6회 방송 언어 공동 연구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자들은 방송 언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살펴본 뒤 품격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10월 12일 한국언어문화연구원과 동아일보가 2007년부터 올해까지 시행된 5년간의 국어 능력 인증 시험(TOKL) 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표준어·맞춤법 문제에서 중학생 이하 응시자의 정답률(56.8%)보다 대학생·대졸자 응시자의 정답률(56.5%)이 더 낮게 나타났다. 김원영 한국언어문화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표준어 규정이 난해한 데다 너무 자주 바뀐다. 고교 졸업 이후에 계속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10월 13일 정부가 내외국인이 한글의 우수성을 몸소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한글박물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이대로 한말글문

화협회 대표는 "한글박물관은 한글이 얼마나 훌륭한지 국민과 외국인에게 알리고, 한글을 통해 한국을 세계 으뜸 나라로 만들자는 꿈과 희망을 담은 실현 중심 기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글박물관이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주당 전병헌 국회 의원은 국정 감사 보도 자료를 통해 "2013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면 전체 예산(370여억 원) 가운데 올해 반영된 예산(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320여억 원) 대부분이 내년에 투입돼야 하지만 내년 예산은 1/3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91억 원만 공사비로 반영됐다."라고 지적했다.

10월 14일 재중국 일조시 한국인회, 한국상회(회장 안병수)는 한글날을 기념하여 산둥외국어대학 대강당에서 '제7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서는 25명의 참가자가 한국어 실력을 겨뤘고, 한국 음식 문화 체험 행사와 민속 예술단 공연 등도 펼쳐졌다.

10월 15일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최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를 발간했다. 백서에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5개년 계획'의 과정과 결과물이 담겨 있다. 법제처는 지난 9월까지 현행 법률 1,000여 건 중 977건을 정비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753건이 통과·공포됐으며 121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10월 15일 『겨레말큰사전』 편찬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선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한글학회 개최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에서 '겨레말큰사전 미리 보기: 성격과 특징'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홍 교수는 "통일이 되면 달라진 말들이 차이를 만들어 내기보다 우리 언어를 더 풍부하게 만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10월 1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장 등 당정 간부들이 평양 두단오리공장을 방문했다며 "참관자들이 오리고기훈제장, 과학기술보급쎈터 등을 돌아보고 자동화, 콤퓨터화되고 생산문화, 생활문화가 높은 수준에서 보장된 데 대해 경탄을 표시했다."라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가 '쎈터', '콤퓨터' 등의 용어를 쓰는 것은 외래어가 북한 사회에서 자연스

럽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북한에 외국의 정보 통신 기술이 차츰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외래어가 늘어났지만 정보 통신 이외의 분야에서는 좀처럼 외래어를 쓰지 않고 있다.

10월 17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세종한글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았다. 세종한글학교는 지난 1991년 문을 연 이후 4,0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며 중앙아시아 최대의 민간 한글학교로 성장했다. 올해에는 우즈베키스탄 교육부로부터 한국어 교육 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다.

10월 17일 진주시의회 의정발전연구회(회장 조규석)는 진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대학교 황병순, 박용식, 임규홍 교수를 초청해 지역어 보전과 행정 용어 순화를 위한 합동 학술 세미나를 열었다. 연구회 소속 의원 및 진주시 관계 공무원 3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8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진주 지역 언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10월 18일 울산 중구청은 2월에 '최현배 선생 동상 제작·설치 공모 사업'에 접수된 10개 작품 중 제안서 평가와 심의 위원회 평가, 주민 선호도 조사 등을 종합해 조각가 임미진 씨의 작품을 최종 선택했다. 동상은 유족의 뜻에 따라 '60대의 외솔이 한복을 입고 책을 든 모습'을 기본 형태로, 한 손엔 책을 들고 다른 한 손엔 안경을 쥐고 서 있는 모습이다. 동상은 19일 오전 울산 중구 동동 외솔기념관에서 열리는 제막식에서 공개된다.

10월 19일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원장 허구생)은 최근 이화여대 다문화연구소와 함께 중국 충칭 시에 있는 쓰촨외국어대에서 한국어 교육 발전을 모색하는 국제 학술 대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학술 대회에서는 서강대와 연세대, 이화여대를 비롯해 쓰촨외대, 광둥외어외무대 등 두 나라의 한국어 교육 전문가들이 교수법과 교재 분석, 한국 문학 등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10월 20일 중견 소설가 구효서 씨가 식민지 시기 대표적 저항 시인 윤동주(1917~1945)를 소재로 한 새 장편 『동주』(자음과 모음)

를 출간했다. 구 씨는 "언어와 존재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윤동주를 선택하게 됐다."라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10월 21일 상명대학교는 청소년들의 언어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어 어휘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6회 전국 국어 대회'를 위한 '황금 사전 선발 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10월 22일 하상점자도서관(관장 김호식)이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85주년 '점자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서는 점자 주사위 미션, 퀴즈로 풀어 보는 점자, 시각 장애 체험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10월 23일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정책 유연화의 연장선상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과 만월대(滿月臺) 발굴 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 접촉을 승인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두 사업이 이르면 올해 안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10월 23일 한국어교육기관대표자협의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영국 런던 올림피아홀에서 열리는 '2011 런던 국제 언어 박람회'에 한글관을 설치·운영했다. 한글관에서는 디자이너 이상봉의 한글 의상이 전시됐다. 또한 기초 한국어 배우기, 드라마 '대장금'에 출연했던 방송인 박정숙의 문화 특강, 한류의 대표 주자인 케이팝 체험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10월 24일 서귀포시는 자매 도시인 일본 사가현 가라쓰 시가 제주도 파견 공무원을 강사로 초빙해 개최한 한국어 회화 교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가라쓰 시청 기획 정책과에서는 2012년부터 한국어 교실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검토 중이다.

10월 24일 서림초등학교(교장 이병노)는 29일까지를 교육 현장에서 바른 품성 함양을 위한 '고운 말, 바른 말, 예쁜 말' 사용하기 주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우리 아이들, 욕 빼고도 말하게 하자'라는 슬로건 아래 학생 언어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을 가정 및 지역 사회와 연계해 실행한다.

10월 25일 조선일보의 한글 교재 3종인 『한글원번』, 『문자보급반

한글원본』, 『문자보급교재』가 언론사 소장 자료 중 최초로 등록 문화재에 등록된다. 홍윤표 문화재위원(전 연세대 국문과 교수)은 이에 대해 "일제 강점기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운동'에 대해 국가 기관이 '독립 운동'이라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에 동아일보가 발행한 『신철자편람(新綴字便覽)』, 『한글공부』 등 한글 교재와 산수 교재 『일용계수법(日用計數法)』 등 소책자 3점도 등록 문화재에 포함됐다.

10월 25일 현대삼호중공업은 한마음회관에서 '한국어 어학반 개강식'을 열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사내 협력 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어학반에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60여 명이 등록해 한국어 기초와 실용 회화 등을 배우게 된다.

10월 26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소장 최북진)가 명나라 척계광(1528~1588) 장군이 지은 『기효신서(紀效新書)』를 사상 최초로 우리말로 번역해 출간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번역한 판본은 1664년 조선에서 내용을 재편집해서 펴낸 『기효신서』 조선본이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총 18편 중 10편까지를 번역해 이번에 『기효신서』 상권으로 펴냈고 나머지는 내년에 하권으로 출간한다.

10월 26일 중국 지린 성 연변 자치주와 지린 시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과 교육청 관계자들이 한민족복지재단의 국외 동포 지원 사업으로 실시된 한국 초청 연수에서 NIE(신문 활용 교육) 교수법을 배우기 위해 서울 성북구 대광초등학교를 찾았다. 실제 수업에 참여해 다양한 지도법을 익힌 조선족 교사들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절실한 조선어 교사들에게 NIE 교수법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10월 27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이 실내악 전용 공연장을 열면서 'IBK챔버홀'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의 실내악 공연장은 '세종체임버홀'이다.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면 '체임버(chamber)'가 맞다. 예술의 전당은 "명칭 변경을 두고 논의했지만 이미 'IBK챔버홀'로 알려졌고 변경 시

행정적인 문제들이 있어 그냥 사용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10월 27일 조연지(대원국제중 1) 양은 우정사업본부 '2011 다문화 사회 글짓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언어 습득'이라는 논설문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조 양은 "단일 민족주의를 넘어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방적인 다문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영어나 중국어에서 탈피해 태국, 베트남 등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10월 27일 충청북도 교육청이 아름다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표준 생활 언어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핸드북은 부모님과 교사, 친구들과 함께 만드는 언어문화를 주제로 하며, 갈등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제시하였다. 부록에는 새로 제정된 표준어와 헷갈리기 쉬운 말을 수록함으로써 바른 언어생활을 유도한다.

10월 28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김병국)이 베를린 소재 러시아 학술 문화의 집에서 열린 국제 언어 문화 박람회에 참가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경희대 등 국내 6개 대학이 만든 한국어 교재 20종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만든 한국 문화 예술 소개 계간지 Koreana를 비롯해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출판물 34종을 전시했다. 그리고 베를린자유대, 튀빙겐대, 보훔대, 함부르크대 등 독일 내 주요 대학의 한국학 과정 안내 책자도 제공했다.

10월 29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에서 '비속어를 타파하는 청소년 민주 시민'의 준말인 '비타민'을 주제로 한 이색 언어 순화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강사들은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언어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올해 초 뜻을 모았으며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국립국어원 관계자를 초빙해 사전 교육까지 받았다. '비타민'은 올해 여성부에 의해 우수 공모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11월 2일 광진구의회(김수범 의장)는 의회 본회의장에서 선플달기 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와 함께 선플 운동

협약식을 갖고 선한 말과 선한 글과 선한 행동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사회를 이룩하는 데 앞장설 것을 선언하였다. 광진구의회는 앞으로 '선플 달기 운동' 참여 및 누리집 배너 설치 등을 통해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선플 달기 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하였다.

11월 2일 방글라데시의 다카대 한국어센터에는 초급·중급·고급·최고 등 4개 과정에 1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들 중 절반은 한국 유학을 위해서, 나머지 절반은 한국 취업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11월 2일 서울 종로구 한글회관에서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 주최로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는 '신랑', '엄마', '시숙' 등과 같은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을 비롯해 사회에서의 호칭·지칭, 경어법 등에 대한 표준 화법(상황에 맞는 표현을 권장 사항으로 정해 놓은 것)이 논의되었다.

11월 3일 보건복지부는 노숙인과 부랑인 지원 정책을 일원화하기 위해 올해 초 마련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부랑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시설 설치·운영 규칙'에 따르면 '부랑인(浮浪人)'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 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부랑인 복지 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노숙인(露宿人)'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그에 따라 노숙인 쉼터에 입소한 18세 이상의 자'로 정의되어 있다. 이렇듯 '노숙인'과 '부랑인'은 표현상으로는 확연히 구분할 수 있지만 현실은 달랐다. '일정 주거 없이 거리를 배회하는 자'의 생업 능력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고 큰 의미도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11월 3일 부산점자도서관은 한글 점자의 날 85주년을 맞아 동래구 명장동 부산맹학교에서 기념식과 문학 행사를 열었다. 1부에선 점자 도서를 많이 읽은 시각 장애인들에게 다독상이 수여됐으며, 점자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

한 표창장, 감사패 전달식이 거행됐다. 2부에선 점자 백일장, 틀린 글자 찾기, 점자 끝말 이어 쓰기, 점자 보물찾기, 칸 수에 맞는 점자 만들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11월 3일 울산시 시각장애인연합회와 울산점자도서관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비롯해 대학과 대학원 전공 교재 등과 같은 전문 서적의 경우 점자로 된 것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점자책을 제작하는 과정은 '워드 작업→원본 대조→점자 출력 교정→출력→점자 출력 2차 교정→제본' 등으로 복잡하고 길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바뀌는 대입 수능 문제집과 참고서, 일찍 알 수 없는 대학이나 대학원의 전공 교재를 제때 만들어 시각 장애인에게 보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박길환 시각장애인연합회장은 점자책을 제작하는 과정 중 워드 작업과 원본 대조 과정을 줄이기 위해 교재를 출판할 때 한글 파일로 저장하고 그 파일을 점자도서관에 제공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11월 3일 충남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은 관내 초·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부 초청 국외 영어 장학생과 원어민 영어 보조 교사를 대상으로 11월 한 달 동안 한국어 강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업 방식은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활용해 원어민 교사들이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11월 4일 사단 법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교수)는 '선플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갖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착한 댓글 달기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매년 11월 첫째 주 금요일을 '선플의 날'로 정해 선플 달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11월 4일 약대 입문 자격 시험(PEET), 의학 교육 입문 검사(MEET), 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DEET)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는 최근 나란히 언어 추론 영역의 폐지를 발표하고 이를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으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국가 공인 국어 능력 시험으

로는 국어 능력 인증 시험(ToKL)과 KBS 한국어 능력 시험(KLT)이 있다.

11월 5일 중국 단둥에서 복지 병원을 운영하는 샘케어(대표 박세록)가 삼성꿈장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지안 조선족 학교 내 2개 교실을 최신식 교육 시설을 갖춘 도서관으로 꾸며 개관식을 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는 학생들을 위한 도서실로, 주말에는 한글을 배우는 교실로 사용된다.

11월 5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하고 인도 뉴델리의 델리대 동아시아학과가 주최한 '제4회 전인도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델리대에서 열렸다. 델리대와 네루대, 마가드대 등 4개 대학의 학생 22명은 이 행사에서 저마다 경험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체험담을 유창한 한국어로 발표했다.

11월 6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 충북 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 언어문화 개선 연구팀에 의뢰해 '바람직한 학생 언어, 사랑의 교사 언어'라는 제목의 '학생·교사 언어 표준 예시 자료'를 발간해 학교 현장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총 107쪽에 이르는 이번 예시 자료는 학생 언어 편, 교사 언어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언어 편에서는 학생들이 접하는 관계의 문제와 언어의 문제 그리고 개선 방법 등을 다뤘다. 교사 언어 편에서는 교사가 학교에서 겪는 하루 일과를 중심으로 언어 문제를 다뤘다.

11월 7일 삼산초등학교(교장 이영래)는 11월 한 달간 전교생이 바른 말 고운 말 쓰기를 생활화하는 학급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예로, 이 학교 1학년 2반은 욕설을 하는 학생에게 국어사전에서 예쁜 우리말을 10가지씩 찾아 직접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11월 8일 고용노동부는 12월부터 취업 활동 기간 내에 자진 귀국한 재고용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 한국어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자진 귀국한 외국인이 재입국할 때 신규 입국자와 똑같이 번거로운 절차를 모두 밟아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특별 한국어 시험을 신설해 재입국 희망자를 대

상으로 국가별로 설치된 CBT(Computer Based Test) 시험장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오는 12월에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2012년부터는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11월 8일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향교'와 '서원'의 의미를 구분하지 않고 영어 표기를 사용하는 등 외국어 관광 안내 표기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8년 발간된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 표기 용례집 표기 기준에서는 사찰의 '대웅전'을 'Hall of Sakyamuni'로 표기한 한편, 관광 전자 지도 표준화 지침에서는 'Main Hall'로 표기했다. 또한 2010년 한국관광공사 관광 안내 표기 용례집 가이드 라인에서는 이를 'Daeungjeon Hall'로 표기하여 외국인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11월 8일 부경대학교(총장 박맹언)가 재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표준어 구사 능력 향상 과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부경대 언어교육원(원장 박순혁) 주관으로 5주간 진행되는 이 과정은 학생 개개인의 발성과 표정 진단부터 호흡법, 강세, 발음, 3분 스피치, 이미지 트레이닝 등의 단계를 통해 표준어 구사 능력을 총체적으로 향상하는 스피치 컨설턴트 과정이다.

11월 8일 한국국제대학교 국제어학원(원장 최태옥)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IUK 한국어 학습 멘토 프로그램'이 유학생들의 한국 적응에 큰 도움을 주면서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유아교육과와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학생들이 유학생 한국어 학습 멘토에 참여하고 있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전통 놀이는 물론 판소리와 케이팝 등을 지도하고 있다.

11월 9일 수산 전문 용어는 주로 한자식·일본식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어구(漁具)의 명칭은 오랜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명칭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산관계법령에서 고착화되어 사용되는 한자식·일본식 용어 200개 내외를 한국법제연구원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쉬운 한글 표기로 변경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11월 9일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국보·보물 동산 문화재 348건(국보 72건, 보물 276건)의 지정 명칭을 변경 예고했다. 종전에 붙여 쓰던 문화재 명칭 표기는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하기로 했으며, 불교 회화는 불화를 통칭하는 '탱(幀)', '탱화(幀畵)'의 사용을 지양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쉬운 '도(圖)'로 통일해 표기했다. 또 일반 회화는 기존의 작품명 앞에 '호(號)'를 표기했던 것을 작가명 표기로 변경했고 작가명과 작품명 사이에 '필(筆)' 자를 표기했다.

11월 9일 지적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을 위한 단체인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는 성인 발달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 확보 방안 연구 공청회를 개최했다. 연구소가 성인 발달 장애인 9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성인 발달 장애인의 87.2%가 지상파 방송을 시청하고 있으며 그중 80.4%가 방송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외래어와 전문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대답했다.

11월 10일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와 고려대 언론학과 박사 과정 김정선 씨가 최근 한국언론학보 55권 5호에 발표한 논문 "욕설로 대화하는 한국 영화: 한국 청소년 관람가 영화에 나타난 폭력적 언어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청소년 관람가 등급의 한국 영화에서 강도 높은 욕설과 비속어가 점차 늘어났고, 강도 역시 지속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2000년대 초반부터 조직폭력배를 다룬 영화가 코믹 장르와 결합돼 흥행 코드로 자리 잡은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11월 11일 충청매일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의뢰해 본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제3회 사별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서는 정희창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이 '신문 언어의 표기와 표현'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에서는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오해, 한글 맞춤법의 원리, 경어법 사용, 기원 표현, 인용과 명령, 띄어쓰

기, 접속 부사, 사이시옷, 준말, 어휘, 언어 사용, 문장 표현 등을 다뤘다.

11월 12일 강희숙 조선대 교수가 국립국어원에서 열린 2011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학술 대회에서 '한국인 인명의 특성 및 언어 태도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강 교수는 광주의 20대 남녀 학생 13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고유어 이름에 대해 '좋은 이름이라고 본다'는 긍정적 태도가 67.6%를 차지한 데 반해, 외래어 이름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대에 어울린다(25.7%)'와 '세련된 느낌이 든다(10.3%)'는 긍정적 입장을 합해도 36.0%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영어식 외래어 이름보다는 고유어 이름에 대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도 작명자와의 관계, 작명 동기, 태명에 대한 인식 등이 조사됐다.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자리 잡은 세종로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이 공원에 설치된 한글 글자 마당에는 재외 동포와 다문화 가정 등을 포함한 1만 1,172명의 국민들이 직접 쓴 한글 1만 1,172자가 돌에 새겨져 있고, 참가자들의 우리말에 대한 다양한 사연도 소개되어 있다.

11월 12일 우리말 발음 연습 게임이 애플리케이션으로 출시됐다. 앱스톤(Appstone)에서 출시해 인기를 끌고 있는 앱 '간장공장'은 "간장 공장 공장장은……."처럼 비슷한 자·모음이 반복된 어려운 문장을 직접 녹음해 들어 보는 게임으로, 놀이는 물론 발음 교정의 효과까지 볼 수 있다.

11월 14일 '2011년 KBS 세계 한국어 방송인 대회'가 5일간 KBS 서울 본사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 대회에는 미국, 중국, 뉴질랜드, 호주, 인도네시아, 케냐, 파라과이 등 12개국 53개사 80여 명의 동포 방송사 대표들이 참가한다. 올해 TV 부문은 캐나다 밴쿠버 TV-Korea에서 출품한 '지울 수 없는 기억'이, 라디오 부문은 미국 시애틀 라디오한국의 '조진혜의 여기는 미국입니다'가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11월 14일 개원 3주년을 맞은 호찌민 세종학당은 베트남 국립호찌민인사대 대강당에서 제5기 수료식을 갖고 71명의 수료자를 배출했다. 이들은 조선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았으며, 우수 졸업자는 장학생으로 선발돼 1년간 조선대에서 유학하는 특전이 부여됐다.

11월 15일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는 미술가 강익중 씨가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씨와 작품을 통한 한글 알리기 프로젝트에 나선다. 한글 알리기 캠페인의 첫 번째 단계로 애국가 가사를 한 글자씩 써서 만든 작품 '애국가'를 14일 호주 시드니의 한국문화홍보원에 기증했다. 서경덕 씨는 "한국 드라마와 가요가 인기를 끌고 있는 지금이 한글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돼 한글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11월 15일 안동문화원(원장 이재춘)이 세 번째로 마련한 '안동 사투리 경연 대회'에서 '청중과 함께하는 퀴즈 퍼레이드'라는 주제로 청중들의 폭소를 자아낸 김성근(안동시 안기동) 씨가 일반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이 사투리 경연 대회는 각종 언론 매체와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해 지역 특색이 담긴 사투리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을 막고 안동 지역 고유 사투리의 맛과 건강함을 보존·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11월 15일 충남 부여군은 올해 4차례 시행된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군내 이주 여성 50명이 응시해 84%인 42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이주 여성들의 합격을 위해 초급과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맞춤형 한국어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수시로 모의고사를 실시해 시험에 대비한 실전 감각을 키우도록 했다.

11월 16일 안양남초등학교는 학부모 및 책 읽어 주는 어머니 명예 사서 등 5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특강을 실시했다. 특강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이규호 교수와 국립국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되었다. 특강에서는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등이 교수되었고, 우리말 다듬기를 통해 성장기 학생들로 하여금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습관을 형성케 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11월 16일 전자책 전문 출판사 아이이펍(대표 김철범)은 한국어 및 영어로 제작된 전자책을 공급하기로 미국의 오버드라이브(OverDrive, CEO Steve Potash)와 양해 각서(MOU)를 맺은 후 최근 최종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오버드라이브는 미국 및 전 세계에 있는 1만 5,000개의 도서관, 학교, 대학교 등에 전자책을 공급하는 업체로, 이는 국내에서 제작된 전자책이 전 세계의 도서관 및 학교에 납품되는 첫 사례다. 아이이펍 김철범 대표는 "한국어로 제작된 좋은 콘텐츠가 전 세계로 알려지고 국외 교포들이 전자책을 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11월 16일 충북 학생교육문화원(원장 민덕식)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한 한글사랑인형극단의 순회공연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단은 제천·옥천·영동·단양 지역 65개 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주 2회씩 찾아가 공연하여, 6,500여 명의 아이들이 한글 사랑 인형극을 관람하도록 했다.

11월 16일 통일부는 겨레말큰사전 편찬 사업 실무 협의를 위한 남측 관계자들의 방북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회 정도상 상임 이사 등 4명은 18일에 개성을 방문해 남북 공동 편찬회의 개최 문제와 편찬 자료 교환 등을 논의한다.

11월 17일 대구시 교육청이 '욕설 없는 청정 학교 만들기'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우선 교육 과정에서 청정 언어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모둠 활동 및 교과 수업에서의 청정 언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청정 언어 사용 의식을 높이기 위해 하루 10분 욕설 없는 대화 시간을 운영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감화 이야기 들려주기 운동 등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11월 18일 서울 태평로 삼성생명 본사에서 삼성생명과 인민일보 해외판 공동 주최로 '제1회 중국인 유학생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대상을 수상한 '천 년의 사랑'팀은 '고전과 현대 두 커플이 북촌의 멋을 소개하는 아이디어'를 수상 비결로 꼽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100여 개 대학의 중국인 유학생 700여 명이

예선에 참가했을 정도로 경쟁이 뜨거웠다.

11월 18일 한국국제대 국제교류처(처장 박선옥)는 국제어학원(원장 최태옥)과 함께 2012년 2월 8일부터 10일간 한국국제대 캠퍼스에서 열리는 '2012 동계 국제 한국어 교사 연수 과정'에 참가할 중국 내 한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연수 과정은 중국 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교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첫 연수로서 그 의미가 크다.

11월 19일 무지개주말학교 주최로 '제3회 무지개 가족 말하기 대회'가 부천 계남초등학교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자녀는 엄마 또는 아빠 나라말로, 부모는 한국어로 이야기 실력을 겨루었다. 무지개주말학교를 꾸려 가고 있는 다문화 가정 지원 교사 동아리 '무지개'의 김갑성(부천남초등학교) 회장은 "일찍부터 엄마 나라말을 써서 자녀와의 대화를 충분하게 하도록 배려한다면 자녀들의 지능 발달과 학습 능력 배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1월 21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누리꾼이 뽑은 가장 많이 틀리는 맞춤법 1위는 '어이없다'로 많은 사람들이 '어의없다'로 잘못 사용하고 있었다. 2위는 '병이 나았다'로 다수의 사람들이 '병이 낳았다'로 쓰고 있다. 또한 '예기를 하다 보니(X)→얘기를 하다 보니(O)'와 '오랫만에(X)→오랜만에(O)', '문안하다(X)→무난하다(O)', '왠일인지(X)→웬일인지(O)'가 뒤를 이었으며 '금새(X)→금세(O)', '몇일(X)→며칠(O)', '들어나다(X)→드러나다(O)' 등도 10위 안에 들었다.

11월 22일 부산 지역 대학들이 동남아 국가 대학에 한국어 교육 기관을 잇달아 개설하고 있다. 한국 문화와 한글을 알리면서 현지의 우수 유학생 유치를 위한 전초 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이다. 부산외국어대는 최근 베트남 하노이 인문사회과학대에 부산외국어대 한국어센터(세종학당)를 개소했으며, 신라대도 2009년부터 필리핀과 캄보디아 현지 대학에서 어학연수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성대도 2009년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산둥

성 칭다오대학에 경성어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11월 22일 랴오둥학원과 단둥한인회가 공동 주최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중국 랴오닝 성 단둥 시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예선에 700여 명이 지원을 했고,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9명이 최종 경합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자유 주제 발표와 주어진 질문에 답변하는 즉석 스피치, 5개의 단어로 문장 구성하기 등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자신의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11월 22일 창사 18주년을 맞아 현대HCN 경북방송이 2부작 특집 프로그램 '한글 나르샤'를 방송한다. 1부 '세종의 꿈'에서는 한글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한글을 예술과 문화의 경지로 끌어올려 국가 브랜드로 키워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2부 '한류, 또 다른 시작 한글'에서는 한류 붐을 타고 한글과 한국 문화를 배우려는 열기, 외국인의 시각으로 국가 브랜드 한글의 미래를 전망해 본다.

11월 23일 경기 연천군은 문화재청에서 올해 실시한 사적 지정 명칭 개선 사업에 따라 선사 유적지를 포함한 관내 사적 6곳의 명칭이 바뀌고 안내판 등의 정비 사업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고유한 명칭에 지역명을 더하게 되는 이번 정비 사업에 따라 '전곡리 선사 유적지'가 앞으로는 '연천 전곡리 유적'으로 불리게 된다. 또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를 적용해 '연천호로고루'는 '연천 호로고루' 등으로 띄어 쓰기로 했다.

11월 23일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 주관 제6회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지도 체험 수기 공모전 시상식이 경희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렸다. 이 공모전은 국내외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사들의 체험 사례를 발굴하고, 한국어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실시되는 행사다. 최우수상은 황정숙(미국)의 '민들레 씨앗을 날리며'가 선정됐다.

11월 23일 국립국어원은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를 주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베트남, 타이완, 중국, 마카오의 학자들을 초빙해 각 나라들의

문제점과 국어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23일 서울시는 국립국어원, 한글학회, ㈜한글과 컴퓨터 등 10개 기관과 어려운 행정 용어를 순화하기 위한 '서울시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글과 컴퓨터는 서울시의 워드프로세서에 행정 용어 순화 기능을 추가해 직원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돕게 된다. 참여 기관인 ㈜나라인포테크는 '한국어 맞춤법·문법 검사기'를 서울시 내부 전산망에 설치해 직원이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또 국립국어원과 한글학회 등은 온라인 강의와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 콘텐츠를 서울시 내부 전산망과 '한글 사랑 서울 사랑' 누리집에 제공하게 된다.

11월 24일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고(故) 오종호 베트남 달랏대 한국어 객원 교수를 '제6회 대한민국 해외봉사상' 국무총리표창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 교수는 2007년부터 4년간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베트남 달랏대로 파견돼 한국어과 학생들을 지도해 왔다. 오 교수는 달랏대 한국어과에서 한국어 전공 교과 과정 운영안을 확립하고 현지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 제작에 힘쓰는 등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데 기여했다.

11월 2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지원으로 2011년도에 구축한 '스마트 모바일용 다국어 대화체 언어 음성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한다고 밝혔다. 전자통신연구원은 솔트룩스 컨소시엄을 통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대화체 각 10만 문장과 350명의 음성을 구축해 웹 사이트(http://voice.etri.re.kr)를 통해 배포한다.

11월 25일 제주어교육연구회(회장 문덕찬)는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에서 '학교 현장 제주어가 나아갈 방향'이란 주제로 '2011 제주어 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주방언연구회 회장인 한남대 국어국문학과 강정희 교수는 기조 강연을 했으며, 제주 방언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11월 25일 주중 한국대사관 주최로 허난성 성도 정저우시에서 한중 우호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한국어 경연 대회가 열렸다. 1위는 정저우대학 국제교육학원에서 한국어를 전공하는 한잉펑 씨가 차지했다.

11월 25일 NHK는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휴대 전화로 메시지를 보낼 때 한글을 사용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누리꾼들은 "예쁘고 쉬운 글자인 한글의 매력을 일본인이 알게 됐다."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일본 누리꾼들은 "방송이 없는 유행을 만들어 냈다.", "방송국 이름을 NHK가 아닌 KHK로 개명해라." 등의 의견을 남기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1월 26일 KDB대우증권(사장 임기영)은 과천연수원에서 다문화 가족 참가자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엄마(아빠) 나라말 경연 대회' 본선을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다문화교육원이 주관한 가운데 치러졌다. KDB대우증권 임기영 사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도 함께 배우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11월 28일 '정치 언어'를 주제로 서울 한겨레신문사에서 한겨레말글연구소 제7회 연구 발표회가 열렸다. 이경우 한국어문기자협회 회장은 "대통령의 언어는 국가의 품격과 연결되고 사회 각 분야의 언어문화에도 커다란 영향을 준다."라며 대통령 후보들의 언어 능력 검증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토론을 맡은 김지영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심의 위원은 정치 지도자들의 말에서 나타나는 형용 모순, 자기모순, 자가당착, 자기 부정 등의 모습을 지적했다.

11월 28일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가 지난 7월부터 한 달 동안 서초구 및 서울 지역 781명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하루 2~3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이들의 40.4%가 욕설을 사용하며, 인터넷 사용 시간이 더 긴 경우는 응답자

의 75.5%가 욕설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V 시청 시간 역시 욕설 사용 빈도와 비례 관계를 보인 반면, 부모와의 대화 시간은 욕설 사용 빈도와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11월 28일 하이원과 함께하는 다문화 가족 NIE(신문 활용 교육) 교실 개강식이 인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양구읍 행복나눔지원센터에서 각각 열렸다. 개강식에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에서 시집온 결혼 이주 여성과 다문화 가정 방문사들이 참석했다. 첫 수업에서는 신문 기사와 이미지를 통해 자기소개를 하는 이색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수강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11월 29일 경기도에 사는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어 교육 방문 지도사에게 교육을 받기 위해 5개월이 넘게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한국어 방문 교육'을 내년도 다문화 가정 중점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455명인 방문 지도사 수를 약 600명으로 늘려 5,000명의 결혼 이민자가 교육 기회를 얻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현재 77개소에서 운영 중인 농촌이나 산업 단지 주변의 한국어 교실을 내년에는 100개소로 늘린다.

11월 29일 국립국어원은 언어 사용 개선을 위해 중앙 행정 기관 및 광역 지방 자치 단체 등 56개 기관의 보도 자료 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를 우수 중앙 행정 기관으로, 울산시·서울시·충청남도를 우수 광역 지자체로 뽑았다.

11월 29일 인천시 교육청은 2012년도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 교육 중심 학교에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를 배치한다.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로는 국내외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어가 능통한 결혼 이민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발하였으며, 이들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원생·학생을 가르치게 된다.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도 실시한다. 시 교육청은 다문화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교육을 경인교육대학교에 위탁했다.

11월 30일 '학생 언어문화 개선 학술 대회'가 교육과학기술부, 충청북도 교육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3개 기관의 협력하에 서울교육대학교 에듀웰센터에서 열렸다. 이 학술 대회는 학생들의 언어 사용 실태 및 문제의 원인을 학문적, 사회·문화적, 교육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진단하고 바람직한 학생 언어문화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2월 1일 유럽 연합(EU)의 본부가 자리 잡은 벨기에 브뤼셀의 세종학당에서 주벨기에 EU대사관(대사 안호영)과 루뱅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제1회 한국어 말하기 대회가 열렸다.

12월 1일 케냐에서 일부 뜻있는 한국인들이 설립한 단체 '아프리카 사랑모임(Love Africa Community)'이 11월 30일 수도 나이로비에서 한국어 교육 센터인 '세종학당' 개소식을 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개소식에는 현지 진출 한국 기업 대표들과 교민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찬우 주케냐 한국 대사가 축사를 하고 '한글의 역사와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12월 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와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이 경기도 포천 한화리조트에서 '남북통일 대비 외래어 표기의 문제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공개 토론회에서는 이윤표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 연구 위원, 최호철 고려대(국어국문학)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신문사 교열 부장, 방송사 아나운서, 국립국어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12월 2일 미국 명문 공과 대학인 조지아공과대학이 최근 학부교과과정위원회를 열어 내년 새 학기부터 한국학 부전공 제도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조지아공과대학은 한국학 부전공 자격을 얻기 위해 유관 과목에서 15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12월 3일 경북외국어대학교(총장 이영상)는 대구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제6회 대구·경북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대구시, 대구시 교육청, 대구 출입국관리사무소, 대구 상공회의소의 후원과 지역민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

러졌다. 경북외대 다문화문화원 정은재 원장은 "이 대회를 계기로 서로의 문화를 인정해 주고 아울러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문화 공유의 장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12월 3일 서울글로벌센터는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다문화 가족 1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다문화 학당 및 동화 구연반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서울글로벌센터의 다문화 학당과 한국어 교실 동화 구연반 수강생들이 한국어로 동화 구연을 하고 부모와 자녀가 각국 언어로 한국 동요를 부르며 화합하는 행사로 구성됐다.

12월 5일 순천향대학교(총장 손풍삼)가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중국 안후이 성 현지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백일장 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안후이 성 소재 11개 대학 한국어과 재학생 4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총 28명이 결선에서 실력을 겨룬 끝에 허페이대학 한국어과 2학년 팡이에민 씨가 우승을 차지했다.

12월 6일 가톨릭대 대전성모병원(병원장 박재만 신부) 강승범 교수가 여의도 성모병원 안과 정성근 교수팀과 함께 국내에서 처음으로 안과 용어를 설명해 주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안과 용어 대사전'을 내놨다. 영어로 된 안과 용어에는 한글 용어를 붙이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덧붙이는 한편, 색인·목차를 강화해 검색 편의성을 높였다.

12월 6일 양구군이 어려운 행정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 군은 국토 정중앙 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일본어식 용어 등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꾼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쓰였던 '기타'는 '그 밖의'로 모두 교체되며, '익일을 휴관일로 한다'는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로 바뀐다. 윤태용 군기획감사실장은 "주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용어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월 6일 충북 청원중학교는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학생들의 언어 순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녹화한 비디오 및 학생들의 설문 조사 결

과를 검토하고 언어 사용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또한 우리말 퀴즈 대회, 외래어·비속어 쓰지 않고 예쁜 엽서 쓰기, 열쇠고리 자모 디자인하기, 한글 사랑 티셔츠 디자인하기, 모둠별 노래 개사하기 등 다양한 한글 체험 활동을 펼쳤다.

12월 6일 KBS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학당에 KBS 월드 채널을 무료로 공급하기 위한 한국어 보급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양 기관의 협력을 계기로 한국어의 세계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고, KBS는 "공영 방송으로서 한류 확산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2월 7일 관객 1만 명을 돌파하며 독립 영화 흥행 붐을 이어 가고 있는 '고양이 춤'의 원작자 이용한 작가와 한국고양이보호협회가 낱말 '길 고양이'의 국어사전 등재를 요청하는 편지를 공개했다. 일반인, 작가, 소설가 등 많은 사람들이 '도둑고양이'라는 말 대신 '길 고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도둑고양이'만 등재돼 있고 '길 고양이'는 실려 있지 않다는 것이다.

12월 7일 국립국어원(원장 권재일)은 '패션 디자인 분야 등에서 착용감, 외관 등을 점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살아 있는 마네킹처럼 본이 되는 의상, 장신구 등을 착용해 보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피팅 모델'의 다듬은 순화어로 '맵시도우미'를 선정했다.

12월 8일 포항공과대(총장 김용민)는 인문사회학부 곽소나 교수팀이 블록형 한글 교육 로봇 '한글봇'을 제작해 네덜란드에서 최근 열린 국제 소셜 로봇 콘퍼런스에서 35%의 지지를 얻어 최고 인기상인 현장 투표상(Delegate's Choic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글봇 제작에는 곽소나 교수와 컴퓨터공학과 학부 과정 손영빈 군, 기계공학과 학부 과정 박준신 군, KAIST 김은호 씨, 미래물산 김지명 씨 등이 참여했다. 연구팀은 표음 문자로서 한글이 가지는 특성과 모듈화된 조형성을 기초로 자음 블록과 모음 블록으로 구성된 로봇을 개발해 전시했다.

12월 9일 경기 지역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욕, 비속어 등의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인성 교육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수원시 장안구 A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한 학생은 "반 친구들 대부분이 욕을 하는데 가끔 욕을 안 하는 친구를 보면 착한 척하는 것 같아 다 같이 말을 안 걸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학과 강경호 교수는 "단순히 학생들에게 상점이나 벌점을 주는 차원이 아닌, 아이들이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인성 교육, 무엇보다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바른 언어 교육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12월 9일 부안군은 지역 내 문화 관광 해설사와 군청 공무원 등 30명을 대상으로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를 개최했다. '바른 국어 생활'을 주제로 서광진 강사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이 강의에서는 부안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유산과 관광지를 소개할 때의 올바른 언어 사용 방법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12월 9일 인천 부평구는 구청 중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을 실시했다. 강의는 국립국어원의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와 연계하여 실시되었는데, '바른 공문서 쓰기 연습'을 주제로 한 사례 위주의 강의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12월 9일 좋은책어린이 출판사에서 『신통방통 한글』(강민경 글, 이주혜 그림)을 출간했다. 이 책은 왜 한글을 자연을 담은 글자라고 하는지, 왜 한글을 과학적이라고 하는지, 왜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세계 최고의 글자라고 하는지를 글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12월 10일 서강대 한국어교육원(원장 허구생)은 중국 난징사범대에서 '2011년 중국 화둥 지역 한국어 교수법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현지 31개 대학에서 교육자와 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및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교육원은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학을 배운 전문 교사를 양성하고 중국 실정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는 일이 시급하다

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전했다.

12월 10일 한국어문교육연구회는 서울여대 인문사회관에서 제186회 학술 대회를 개최했다. 한재영 한신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학술 대회에서는 임홍빈 서울대 명예 교수가 "고구려 지명 '濟次巴衣(제차파의)'의 '濟次(제차)'와 알타이 어족 가설"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임 교수는 "한국어나 일본어, 퉁구스어나 몽골어, 튀르크어가 '젖'이란 어휘를 공통어 단계부터 공유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때 친족 관계를 근원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온당한 것이 아니다."라며 반알타이 가설을 반박했다.

12월 12일 '경상도 사람들만 구분할 수 있는 숫자'가 온라인에서 화제다. 최근 주요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서울 사람들은 이걸 정말 구별 못하나요?'라는 제목과 함께 적힌 '2^2(2의 2승)', '2^e', 'e^2', 'e^e' 네 개의 표현이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었다. 글의 작성자는 "경상도 사람들은 특정한 음과 성조로 이 네 가지를 모두 다르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했다. 실제로 영남과 강원 남부 지역 방언에는 약하게나마 성조가 녹아 있어 이 네 가지 표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e'는 높고 강하게, '2'는 낮고 약하게 발음하는 식이다. 그러나 현대 서울말에는 성조가 거의 사라져 발음만으로 이들을 구별하기는 어렵다.

12월 13일 국립국어원이 2008년에 시작한 국어 문헌 자료 총서 출간이 3년여의 공백 끝에 재개됐다. 국립국어원은 이 총서 1권인 『역주 자학』을 펴낸 데 이어 이번에 2권 『구황촬요』와 3권 『내훈』을 잇따라 출간했다. 국립국어원은 국어 문화유산 보급과 확산을 위해 국어 문헌 자료 총서를 기획했으며, 『구황촬요』는 서종학 영남대 국어교육과 교수가, 『내훈』은 이선영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조교수와 이승희 상명대 국어교육과 조교수가 현대인이 알기 쉽도록 현대어로 풀어 썼다.

12월 13일 바르샤바에 살고 있는 모니카 올쉰스카 양이 바르샤바문화원에서 개최된 '제1회 폴란드 한글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모니카는 '한국과 나'라는 주제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등 한류 문화에 대한 열정, 한국 유학에 대한 장래 희망

을 이야기했다.

12월 13일 사단 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고경희)와 한겨레말글연구소는 '한국인의 언어생활 실태 조사'를 시행했다. 최근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외국인과 영어로 말하며 의사소통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37.8%)'가 가장 많았으며, '1년에 10분 정도(16.7%)'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조사는 '과연 우리는 그 필요성을 강조하는 만큼 영어를 실제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한글문화연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1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제15회 한글 문화 토론회'를 진행한다.

12월 13일 울산대학교는 전기공학부 한국어처리연구실에서 문장의 의미에 맞게 한글을 한자로 자동으로 변환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공동 주최한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대학 측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PC상에서 문서 작성 시 한글 뜻에 맞는 한자를 하나하나 찾아 바꾸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모든 글자가 자동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12월 1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 상 시상식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어 보급의 아버지' 손호민 미국 하와이대 동아시아어문학과 교수가 입국했다. 그는 1972년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시작해 40여 명의 한국어 교수를 키워 냈으며, 80여 개 영어권 국가에서 쓰이는 한국어 교육용 교재도 개발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손 교수는 "한국어 하나만 배워서는 높은 수준에 다다르기 어렵고 한국의 역사, 문화, 철학을 함께 배워야 한다."라며 한국어와 한국학의 연계를 강조했다.

12월 16일 대학가 강의 평가 시즌을 맞아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 강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다. 학생들은 영어 강의를 늘리는 것이 국제화 척도인지 의문이라며 입을 모았다. 영어 강의가 교수의 영어 실력,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나 만족도를 고

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비판도 거세다.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김 모 교수는 “영어 강의를 완벽하게 따라오는 학생들이 절반도 채 안 되는데 영어로 강의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라며 “전공은 모국어로 습득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12월 17일 사라져 가는 사투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투리가 소멸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7년 ‘제주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경남 진주시의회 의원들도 ‘진주 지역 언어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에 대해 경북대학교 이상규 교수는 “방언은 단순한 지역 언어가 아니라 지역의 문화를 대변하는 상징 체계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전국의 사투리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2월 17일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동남아시아에 한글을 보급하는 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수원시는 특히 국제 자매 도시인 인도네시아 반둥 시와 긴밀한 협력하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이날 반둥 시에 있는 마라나타크리스천대학교에서 한국어 강좌 수료식을 열었다. 4개월간 진행된 한국어 강좌를 마무리하는 수료식에는 수료생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12월 18일 서울시는 올해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외국인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을 내년에는 410명으로 2배 이상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외국인·결혼 이주 자녀들이 한국어 습득이 어려워 한국 학교 입학을 포기하거나 입학 후 부적응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대교와 공동으로 만 3~12세 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 방문 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12월 20일 법제처가 현행 법령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치는 데 기본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 제3판을 수정·보완한 제4판을 발간하고 중앙 행정 기관, 자치 단체, 전국 로스쿨, 한글 관련 학회 등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한 정비 기준 제4판은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를 순화 참고 용어로 수록했다.

12월 22일 공익광고협의회가 '무엇으로 보이십니까?'라는 한글에 관한 공익 광고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광고에는 "혹시 알파벳 E로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말의 ㅌ보다는 알파벳의 E라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라는 문구에 이어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말의 ㅌ보다 알파벳의 E를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국어보다 영어에 익숙해진 우리들. 자랑스러운 우리말은 우리 민족의 정신입니다. 우리말을 사랑합시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12월 22일 서울시는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과 함께 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강당에서 '서울말 겨루기 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에서는 인터넷 예선을 거쳐 선발된 30명이 본선에서 서울말에 대한 퀴즈를 맞히고, 결선에서는 서울과 관련한 경험 등을 서울말로 이야기하며 실력을 뽐냈다. 시 관계자는 "600년 서울 문화를 만들어 낸 서울말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라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12월 23일 국립국어원과 전국국어교사모임 등에 따르면 최근 몇 년 새 '물건 존칭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고 한다. 국어원은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건네는 모든 말에 주어와 상관없이 존대를 의미하는 '-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하였다. 학계에서는 '맞는 표현'보다는 '상대가 듣기 좋은 표현'에 초점을 맞추는 편의주의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세중 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장은 "말과는 달리 글에서는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공익 광고나 캠페인을 펼친다면 의외로 손쉽게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12월 24일 KBS에서는 겨울 방학 특집으로 '알쏭달쏭 청소년 회색언어'를 방송했다. 이 방송에서는 10대들이 은어를 쓰는 현상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는데, 여러 은어들의 뜻, 은어가 탄생한 이유와 더불어 은어의 욕구 표출 기능, 은어를 통한 뇌의 각성 등의 내용이 방송되었다. 연구진은 "10대들이 은어를 들었을 때 집중도 더 많이 해야 하고, 생리적으로 자율 신경계 자체도

깨어나는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설명했다.

12월 25일 세종문화회관은 겨울 방학을 맞아 '세종 이야기'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역사 교육과 한글 예술 교육을 결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한다. '한글을 그리다-나만의 한글 캘리그래피 족자 만들기'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교육은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기까지의 과정부터 한글이 세계화된 오늘날까지의 전 과정을 소개한다. 또 한글 세계화의 일환으로 한글 디자인 캘리그래피 장르에 대해 배워 보며 나만의 손 글씨로 제작한 족자도 만든다.

12월 25일 영국 일간 메트로에 따르면 영국 맨체스터 국제공항이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콜 센터 직원들에게 사투리를 가르칠 계획이라고 하였다. 영국은 지역마다 수십 가지 사투리 억양이 있는데 맨체스터는 특유의 비음과 센 억양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월 25일 『조선왕조실록』 한글 번역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다듬는 현대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최근 '조선왕조실록 번역 현대화 사업 추진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학자와 전문가들을 추진 위원으로 위촉했다.

12월 26일 교열 기자인 장진한 씨가 신문에 자주 나오는 단어 중에서 자세한 뜻풀이가 필요한 낱말을 집중 분석해 백과사전식으로 엮은 『한국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문 속 언어 지식』(행담출판)을 펴냈다. 장 씨는 국어사전에 담겨 있는 짧은 풀이만으로는 궁금증이 다 풀리지 않아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집필 동기를 밝혔다.

12월 26일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지난 9월 5일부터 10월 20일까지 실시한 '전국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에서 일본 출신 결혼 이민자의 62.8%가 한국어 능력 검사에서 90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았다. 시·군으로 나눠 시행된 지역별 조사에서는 대구 거주자의 45.5%가 90점 이상을 거뒀다. 강원도 군 단위(40.8%)와 경기도 군 단위(40.0%)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결혼 이민자들은 한국 생활을 하면서 힘든 점으로 '공공 기관 이용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23.5%)'을 꼽았다.

12월 26일 이르면 2014년부터 한글 전자 우편 서비스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아이디뿐 아니라 도메인 주소도 한글로 이뤄진 전자 우편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인터넷 주소 자원의 개발과 이용 촉진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13년 국내 및 국제 기술 표준 등 기반을 조성하며, 2014년부터 국내 포털을 중심으로 시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후 일반 기업으로 확대한다.

12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충청북도 교육청은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우수 사례 시상식을 열었다. 이 시상식에서는 선도 학교 9개교와 선도 교실 27교실, 학생 UCC 공모전 우수작 70개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우수 선도 학교로 선정된 청주 청운중은 매달 11일을 높임말과 사랑의 언어를 쓰는 '세움의 날'로 정했다. 우수 선도 교실로 뽑힌 옥천 증약초교 병설 유치원은 '친구 입장 되어 보기'라는 역할극과 '한글 사랑 인형극' 등의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월 27일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서강수)과 함께 '만화(MANHWA)'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국외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한국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 11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이 애플리케이션은 66작품 165권의 만화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12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상암동에서 진행된 내년도 문화부 업무 보고에서 문화원과 교육원을 합치자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단기간 내에 효율적으로 통합 논의를 확정 짓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문화원과 교육원은 국외에서 한글을 가르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현재 두 조직이 분리돼 운영되고 있다.

Ⅱ. 국어 분야별 동향

국어 정책

정 희 창
(동덕여자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에서는 2011년도에 발표된 국어 정책에 관한 국내외 성과를 중심으로 국어 정책에 관한 연구 동향과 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동안 『국어 연감』에서 적용해 온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국어 정책 일반, 어문 규범, 남북한 언어 정책,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어 능력 향상, 매체 언어, 지역어 정책, 소수자 언어 정책, 문자 정책, 국어 순화, 언어 정책사, 국어 교육 정책, 국어 정보화 등으로 연구 성과를 제시하되 논의가 활발하지 못했던 일부 영역은 언급을 하지 않거나 관련되는 영역을 통합해서 제시하기도 할 것이다.

국어 정책에 속하는 논의 가운데는 다른 영역과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이들은 논의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국어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논의는 포함하였지만 다른 영역이 중심이 되는 논의는 제외하였다.

예년에는 신문 기고문 등을 비롯하여 상대적으로 학술적인 성격이 적은 논의들도 폭넓게 포함하였지만 이번에는 반복적이거나 새로운 논의라고 하기 어려운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 그동안 반복되거나 같은 목소리였다면 2011년에 한정된 논의라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국어 정책이 지니는 특성을 고려하여 새롭게 제기되거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저는 전문 연구자의 목소리가 아니더라도 포함하였다.

영역별로 논의를 제시할 때는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논문, 신문 기고문 순으로 배열하였다. 국어 정책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형식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적인 연구와 이념이나 주장 등은 상호 관계가 있지만 어느 정도 구분되는 선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국어 정책 분야에서 전문 논문과 신문 기고문 등을 구분해 왔던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2. 국어 정책 일반

이 분야의 연구는 국립국어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국어원이 언어 정책의 기초 연구와 수행을 모두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학계에서 국어 정책에 관한 인식과 연구가 그리 활발하지 못하다는 점도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2.1. 단행본

『국어 정책 통계 조사』(국립국어원)는 다문화 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 알맞은 국어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어 정책과 관련한 기초 통계 자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로 정부 기관에서 수집한 국내 자료 150개와 영어권, 중국, 일본 등의 자료를 수집한 국외 자료 27개 등의 기초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1. 언어 정책 기반 조성, 2. 국어 정보 관리, 3. 공공 언어 개선, 4. 국어 능력 발전, 5. 한국어 세계화' 5개 대범주로 분류되어 '개요, 결과, 결과 요약, 자료 정보' 등으로 세부 정보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객관적인 국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실질적인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정책 시행 결과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는 '국어 기본법'에 의거하여 수행한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정책 시행 결과를 수록한 것으로 국어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 평가 보고서이다.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은 1차 계획이 완료되고(2007~2011) 현

재 2차 계획(2012~2016)이 수립되어 시행 중이다. 1차 계획의 성과를 담고 있는 이 보고서에는 '언어 정책의 개념'과 '국어 정책의 방향'을 비롯하여 '국어 관련 법령', '국어 정책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소개와 함께 그동안의 국내외 국어 정책 과정과 성과 등이 실려 있어서 일종의 국어 정책 백서의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국어 정책 성과를 살펴보더라도 국어 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초 연구가 무척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 공동체의 변화에 대처하고 복잡해지는 의사소통 통로를 원활하게 하려면 정책 공급 시 정책 수요를 고려해야 하는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 연구 없이는 이러한 정책 개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어 정책 토론회 자료집』(국립국어원)은 국립국어원에서 언론사와 함께 6회에 걸쳐 주최한 '국어 정책 토론회'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발표문과 토론문 신문 기사가 함께 실려 있고 '부록'으로 주제와 관련된 논의와 각계의 의견이 담겨 있어서 전문적인 견해부터 일반적인 여론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중국어 원음주의 표기, 로마자 표기, 성문화된 규범, 표준어와 방언, 국어 순화 강화, 대학 영어 강의'처럼 시사적인 주제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발표 및 토론의 형식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는 기존의 학술 대회나 공청회에 비해 참신하고 대중이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가 일회적으로 끝난 듯한 아쉬움이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해 관계자인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기획이라는 한계의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국립국어원으로서는 현재의 성문화된 맞춤법을 폐지하자는 논의에 관여하는 것부터가 부담스러운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간에서 이러한 논의를 주도하도록 정부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생각해 봄직하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어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려는 모색이 필요하다.

『국어 책임관 길잡이』(국립국어원)는 '국어 책임관'의 책무와 활동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지침서이다. 국어 책임관의 역할과 법적 근거, 대상 기관, 국어 책임관의 업무 등을 안내하고 참고

자료 등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국립국어원)는 2010년 수도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이어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언어 실태와 언어 의식을 전면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 청소년의 언어 문제는 최근 들어 국가적인 관심 사안이 되고 있을 정도로 여론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는 과제이다. 전국을 '경인,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의 6개 권역으로 나누고 학생 6,000여 명과 교사 1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500여 명의 구어와 문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의 언어 실태와 언어 의식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청소년 스스로 부정적인 언어 표현에 대한 문제를 자각하고 또래 간에 자제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내부적인 면과 부모가 부정적인 언어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긍정적인 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외부적인 면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2.2. 학위 논문

〈한글의 세계 문자화 방안 연구〉(고여운)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을 통해 여러 외국어 발음을 그 언어의 음절 특성에 맞게 한글로 표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세계 공용 문자로서의 한글을 제안하고 그 우수성을 입증해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글의 세계화를 위해 한글 정보 기술 개발 차원에서 유니코드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전후 일본의 국어 개혁에 관한 연구〉(김미숙)는 국어 개혁론자와 국어심의회를 중심으로 1960년대까지 이루어진 일본의 국어 개혁 관련 정책을 살핀 논문이다. 전후 일본은 언어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표음주의 문자 개혁'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언어 정책의 실무를 맡은 기관이 국어심의회였다. 일본 정부는 개혁론자와 전통론자의 대립을 유연하게 조정하면서 실리적인 정책을 펼쳤으며 국어심의회와 국립국어연구소, 국어 개혁론자·국어 전통론자가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루어 정책을 수행했음을 밝히고 있다.

〈국어 의식 향상 방안 연구〉(남택승)는 우리의 언어생활에 외래어와 외국어가 지나치게 많이 유입되어 사용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 차원에서의 해결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 의식의 개념을 외래어와 외국어에 대한 의식으로 좁혀 살피고, 가치 탐구 학습 모형과 블룸(Bloom)의 정의적 영역 교육 목표를 기본으로 삼아 국어 의식 향상 방안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글 조합 이모티콘의 조형적 특성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정혜인)는 한글을 문자 언어가 아닌 시각 언어로 인식하는 경향을 토대로 한글 조합 이모티콘의 커뮤니케이션 도구적 발전 가능성을 논하였다. 이를 위해 이론적으로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이모티콘의 개념, 한글의 제자 원리와 구조 및 조형 특성 등을 살피고 게슈탈트 시지각 법칙에 근거하여 한글 조합 이모티콘의 구조적, 조형적 특성을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각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의 한글 조합 이모티콘의 효용성을 논하였다.

〈자국어 해외 교육 정책〉(최정민)은 프랑스, 영국,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어 해외 교육 정책을 살피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세종학당 발전을 위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정리·제안한 논문이다.

2.3. 일반 논문

"국어 연구의 응용 언어학적 접근"(권재일)은 국어 연구가 이론 언어학적 연구와 응용 언어학적 연구의 균형을 추구하여 상호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올바른 국어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어학자가 직접 연구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바람직한 실례로 2011년의 국립국어원의 국어 정책 토론회가 국어학회와 공동으로 개최되었으며,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개방형 국어사전 편찬에 국어학계가 적극 참여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였다.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이관규)은 국어 정

책과 국어 교육 정책을 대등한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국어 정책은 의사소통의 매개체인 국어를 기반으로 하므로 의사소통 능력 신장이 목표인 국어 교육 정책과 공통성이 있다는 점을 논의하고 두 정책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발전 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이광석 · 김연수)는 공공 영역에 속하는 공공 기관, 언론 등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자격 없는 외국어'를 사용할 때 부담금을 부과하여 영화 발전 기금과 유사한 형태의 국어 발전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언어 상황과 문화 공존의 방식"(박진수)은 현재의 '다언어 상황'이 '다문화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이며 진정한 의사소통은 언어의 표준화와 국제어를 통한 소통이 아니라 상대와 상대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 통합 매체로서의 한국어와 한글의 역할"(성낙수)은 세계화를 가능하게 한 한글의 특징으로 종합 학문적인 글자이며 범세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어가 발전되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사례로 들고 있는 무문자 민족에 한글을 문자로 보급하는 일이 진정한 통합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 브랜드와 한국어 교육 정책"(조태린)은 '세종학당'으로 대표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공동 브랜드화를 국가 브랜드화의 관점에서 조명하였다. 기존의 국가 브랜드화가 주로 국가 경쟁력 차원에 집중하고 있어서 국가 브랜드의 윤리적 가치, 문화적 구성 요소, 실체적 품질과 신뢰 관계에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볼 때 '세종학당'의 공동 브랜드화를 홍보나 국가 경쟁력 강화로만 인식하는 일방적 견해에서 벗어나 상호 관계를 존중하면서 지속적으로 노력할 때 진정한 국가 브랜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국어 교과서 정책의 과제"(이성영)는 그동안 교과서 제도가 개선되어 왔는데도 교과서가 만족스럽지 않은 까닭은 국어 교과서 정책을 결정하는 체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관련 주체

들이 포괄적이고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참여성', 관련 정보와 의사 결정 과정이 공개되는 '투명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응을 보이는 '반응성', 관련 주체 간의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제가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네트워크', 갈등 관리와 관련된 '조정력', 전문 인력을 활용하는 '전문성' 등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 체제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만, 이 논의에서는 국어 교과서 정책을 위한 세부적인 모형이 제시되지 않아 실제 교과서 정책과 연결되기에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제도의 검토와 개선 방안"(조항록)은 우리 사회의 다문화를 둘러싼 담론과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제도의 관계를 고찰하면서 현재의 법령·제도가 수립되는 과정의 특징과 법령의 실제 현황 등을 소개하고,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국가적인 방향과 정책 목표를 합의하여 이민 정책의 도입 등과 같이 현실을 반영한 법령을 제정하며, 중복되는 제도와 정책의 혼선을 해결할 것을 제시하였다.

"국어과 교육 과정 정책 분석"(천경록)은 최근의 국어과 교육 과정의 변화 과정을 소개하면서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정책적 접근과 종합적인 언어 정책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육 과정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당파적으로 활용할 경우 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 과정 못지않게 교과서의 비중이 적지 않음을 언급하면서 교육 과정을 정책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새국어생활 21권 1호』(국립국어원)에는 개원 20주년을 맞은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을 조망하는 논의가 실려 있다. "국립국어원 스무 돌의 성과와 발전 방안"(민현식)은 국립국어원의 과제로 '국어 규범의 확립과 개선', '남북통일 대비 언어 정책', '다문화 언어 정책', '언어와 타 학문과의 융합 연구', '인문학으로서의 국어학 연구', '담화 연구 활성화' 등을 들었다.

"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박창원)은 국어 정책을 국내적 과제와 국외적 과제로 양분하고 추진 전략과 계획, 단계별 장기 계획의 수

립에 이르는 국어 정책의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덧붙여 국어 정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국어 기본법과 국립국어원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공공 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장소원)는 국립국어원에서 추진해 온 공공 언어 개선과 국어 능력 향상 분야의 성과와 전개 과정을 소개하고 개선 방안과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국어 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국어 능력의 측정, 교육, 교사에 대한 재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교육”(송향근)은 ‘한국어 교육 자격 심사’, ‘한국어 교원 연수’, ‘한국어 교재의 개발’, ‘세종학당 운영’의 네 분야를 중심으로 국립국어원의 한국어 보급 사업을 정리하고 향후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보급 업무의 기능 조정 및 조율,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초 연구 등에서 국립국어원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3. 어문 규범

어문 규범에 대한 논의는 국립국어원에서 문장 부호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면서 문장 부호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규범을 교육적으로 널리 보급하기 위한 응용적인 측면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규범의 개념과 해석 방법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3.1. 단행본

『표준 언어 예절』(국립국어원)은 기존의 ‘표준 화법’(1992)을 언어 변화에 맞도록 개정한 것으로 2009년, 2010년의 실태 조사 결과를 2011년에 ‘표준 화법 보완 자문 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고 국어 심의회를 거쳐 발간하였다. 기존의 표준 화법과 달라진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추가하였다.

② 맨 뒤에 서식을 따로 설정하고 전자 우편, 결혼 청첩장, 결혼 축하에 대한 감사장, 조위에 대한 감사장을 새로 넣었다. ③ 부모 호칭으로 어릴 때에만 '엄마', '아빠'를 쓰도록 하였던 것을 장성한 후에도 격식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는 '엄마', '아빠'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남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매제'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⑤ 여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제부'를 쓸 수 있도록 하였다. ⑥ 남편의 형을 지칭하는 말로 '시숙(媤叔)'을 추가하였다. ⑦ 남편 누나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아주버님', '서방님'을 쓸 수 있다고 하던 것을 '아주버님'만 쓰도록 하였다. ⑧ 아내 오빠의 아내를 지칭하는 말, 아내 남동생의 아내를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말로 '처남의 댁'만 있었던 것에 '처남댁'도 추가하였다. ⑨ 직장에서 윗사람에게는 '-시-'를 넣어 말하고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시-'를 넣지 않고 말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⑩ '축하드리다'가 불필요한 공대라 하여 '축하하다'로만 쓰도록 해 왔는데 '축하합니다'와 함께 높임의 뜻을 더욱 분명히 드러내는 말로 보고 '축하드립니다'도 쓸 수 있는 표현으로 인정하였다.

3.2. 학위 논문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문 규정 대조 연구〉(부이 티 응옥 빅)는 어문 규정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를 대조 분석한 논문이다. 베트남 교육부는 1980년 11월 '교육 개선 교과서 맞춤법 규정'을, 1984년 3월 '베트남어의 맞춤법과 전문 용어 규정'을, 2003년 3월 '교과서에서 인명, 지명의 고유 대문자에 대한 임시 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중심으로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표기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을 대조하여 두 나라의 어문 규정을 언어학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국어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의 실태〉(김진화)는 중학교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표기 오류를 살핀 논문이다. 총 23종의 검정 교과서 중 5종(교학사, 도서출판 디딤돌, 좋은책 신사고,

창비, 미래엔 컬처)을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를 찾아 제시하였다.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 표기 조사 연구〉(노유정)는 외국어 표기의 오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명동 일대의 음식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간판과 메뉴판에서의 외국어 표기를 조사하였다.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의 표기에는 한 가지 메뉴에 대해 여러 가지 표기가 존재하는 문제와 한글 원음형 가타카나 표기 문제, 번역형 표기 문제 등이 나타났다.

〈일본어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박재경)는 실생활에서 외래어 표기법에 맞지 않는 표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변화된 언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과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유 명사의 외래어 표기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어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 오용 유형을 어두 무성 파열음과 파찰음, 파찰음 'つ'의 표기, 장모음 표기, 어중・어말 무성 파열음과 파찰음의 유성음화, 중복 오용, 기타 오용 등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맞춤법의 비교 연구〉(석춘녀)는 현재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 조선족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학습자들을 위해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맞춤법의 같고 다름을 비교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이 한글로 글쓰기를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시대 역학서의 만문 한글 표기법〉(소뢰)은 조선 시대 역학서에 나타난 만문의 훈민정음 표기의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 역학서에서 전자(轉字)와 전사(轉寫) 중 어느 쪽을 더 중시했는지를 밝힌 논문이다. 전사에 따른 문헌은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이며, 음(音)을 무시하고 전자에 따른 문헌은 『팔세아(八歲兒)』와 『삼역총해(三譯總解)』, 음을 중시하면서 전자에 따른 문헌은 『동문유해(同文類解)』와 『한청문감(漢淸文鑑)』, 『오방원음(五方元音)』 등이다.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표준 발음법 연구〉(이규범)는 규범 교육의 개념을 규정하고 규범 교육으로서의 표준 발음법을 비판적으

로 고찰하였다. 기존 표준 발음법의 각 조항을 음운 변동 규칙을 적용한 순서를 바탕으로 재배열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붙임]의 성격을 '해당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부가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로, '다만'을 '해당 조항 또는 바로 위에서 언급한 [붙임]이 규정하고 있는 것의 예외적인 사항에 관한 기술'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두음 법칙과 한자의 한글 표기〉(이명숙)는 두음 법칙이 한자음 표기에서 잘못 적용되거나 일관성이 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일간지와 중등 교과서, 자습서, 속담사전, 고사성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논어, 맹자 등의 자료를 대상으로 한자 단어뿐만 아니라 고사성어와 문장 차원까지 검토하여 두음 법칙 적용의 오류 양상을 살폈다.

〈1930년대 전반기 민족어 규범 형성과 철자법 정리·통일 운동〉(임동현)은 개항 이후 '민족'에 대한 의식이 형성됨에 따라 민족어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표준화된 문어를 위해 민족어 규범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민족어 규범 형성 과정에서 요구되었던 철자법 정리 운동과 통일 운동을 주도 세력과 정책을 중심으로 살피고, 학회 간의 논쟁과 학회 주도의 강습회를 살펴 민족어 규범 형성 과정이 단선적 과정이 아니었음을 주장하였다.

〈한·중 외래어 표기 대조 연구〉(정지예)는 영어, 불어, 독어의 인명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외래어 표기를 대조 분석한 연구이다. 한국어와 중국어 간의 서로 다른 음소와 이에 따른 국제음성기호가 어떻게 표기되는지 그 규칙을 찾고 대조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3.3. 일반 논문

"중국어 고유 명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한국어 한자음이 곧 말은 아니다"(고석주)는 외래어 표기법에 나타난 한자음 표기의 문제점과 외래어 표기 규정의 오류를 짚었다. '한국식 한자음 표기'를 주장하는 것의 바탕에는 문자가 곧 언어라는 오해가 깔려 있음을 지적하고 현재 외래어 표기법에서의 '원지음주의 표기'의 타당성을

주장하였다. 또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미비한 사항들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어 교육적 고찰”(구본관・오현아)은 외래어 표기 규범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체적 도입 방법을 고찰하였다. 교육 과정 차원에서의 도입 문제를 다룬 후 현행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외래어 표기 규범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끝으로 1) 태도 중심, 2) 원리 중심, 3) 탐구・생활 중심 외래어 표기 교육을 제안하였다.

“우리말 규범의 어제와 오늘”(김순녀)은 남북한 언어의 통일을 위해 통일된 언어 규범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우리말 규범의 역사와 규범화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들을 고찰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말 동질성의 확보를 위해 정치나 종교적 이념을 떠나서 함께 노력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반성적 접근”(김인균)은 ‘표기 체계에서 언어적 실체로서 구어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한 문자나 띄어쓰기의 보조적 수단’으로 문장 부호의 개념을 재규정하고, 표기 체계에서 문장 부호가 갖는 지위를 점검한 후 문장 부호의 범위 설정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 부호 규정을 검토하여 가운뎃점, 쌍점, 빗금, 중괄호, 대괄호, 줄표, 붙임표, 물결표, 드러냄표, 숨김표, 빠짐표 등의 삭제를 제안하고 마침표, 물음표, 느낌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줄임표 등을 진정한 문장 부호로 제시하였다.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박덕유)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과 설문을 실시하여 두음 법칙 지도 어휘를 선정한 후 국어 교육용 어휘의 난이도를 참조하여 사용 빈도가 높은 어휘를 추출하였다. 다음으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4개 집단을 대상으로 어문 규정에 대한 이해도, 어문 규정 예시의 적정성, 어문 규정에 제시된 예시의 난이도 및 사용 빈도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두음 법칙 학습 내용과 세부 항목의 단계별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 띄어쓰기 규정의 검토와 개선안 연구”(박정규)는 현행 띄어쓰기 조항의 문제점이 단어를 품사 단위로 바꾸어 설명하는 방식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러한 설명 방식을 지양하고 조어적 설명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띄어쓰기 규정을 표준어 규정과 동등한 자격으로 독립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올바른 띄어쓰기 규정의 정립을 위한 시론"(박정규)은 학생들의 띄어쓰기 실력이 나아지지 않는 원인을 띄어쓰기 규정이 안고 있는 내적 문제에 의한 것임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1항에서 제50항까지 제시된 띄어쓰기 규정의 취지를 살펴 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음운론과 어문 규범"(신지영)은 음운론과 관계가 깊은 '표준 발음법'이 실제 의도하는 바는 '표준어의 발음'이나 실제 내용은 '표준 표기의 발음'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음운론과 음성학적 연구 성과에 비추어 현행 표준 발음법이 안고 있는 내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문장 부호의 재개념화와 설정 기준"(최호철)은 매체 환경의 변화와 사회 인식의 변화에 따라 문장 부호 규정 역시 변화해야 함을 주장하고 문장 부호의 기존 개념을 네 가지로 유형화하여 고찰한 뒤 개념 규정 문제를 자세히 논하였다. 이에 더하여 문장 부호 설정의 기준을 역사적 기준, 발생적 기준, 형식적 기준, 비도상성 기준, 의미적 기준으로 제안하였다.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양순임)는 사이시옷 표기의 확대가 기호성, 표의성의 저하, 표기 오류 증가와 같은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그 해결책으로 한자어 접미사 중 항상 경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는 사잇소리 현상과 무관하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말아야 하고, 고유어가 포함된 말은 사이시옷 표기의 확산을 막아야 하며, 한자어와 외래어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한글의 기호성과 표의성을 높이고 표기 오류를 줄이며 남북 간의 표기 차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현행 사이시옷 규정과 관련된 몇 문제"(이동석)는 사이시옷 규정의 변천을 살피고 현행 사이시옷 규정의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1) '위＃ N, 뒤＃ N'과 같은 구 구성에서의 사이

시옷 표기 문제, 2) 새로운 도로명에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문제, 3) '-님'이 결합하는 파생어의 사이시옷 표기 문제, 4)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 문제, 5) 외래어에 사이시옷을 표기하는 문제이다.

"국어 문장 부호 규정의 몇 가지 논점"(이동석 · 양세희)은 그동안 거론되었던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논점들을 외국(중국, 일본, 미국) 문장 부호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마침표', '쉼표'와 관련한 명칭 문제, 문장 부호의 개념 및 범위상의 문제, 띄어쓰기 문제, 줄임표나 온점, 쌍점 등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국어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전통성과 합리성의 균형점에서 국어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논의이다.

"국어 기본법에 의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이상규)는 외래어 표기법이 안고 있는 내용상의 문제점과 관리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외래어와 외국어 음차 표기의 규범 및 정책 관리를 『표준국어대사전』의 관리 방안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이홍식)는 로마자 표기법의 집행, 즉 로마자 표기법의 보급 노력이 로마자 표기법 제정이나 그와 관련된 정책 수립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였다. 로마자 표기법을 규범으로 여기고 그에 따라 한국어 고유 명사를 적는 주체는 한국인이며 그것을 읽고 해독하는 주체는 외국인 화자가 된다. 이때 외국인 화자의 나라에서 우리의 고유 명사를 어떻게 표기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이듯이 결국 로마자 표기는 우리나라 안에서의 문제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로마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어 고유 명사의 발음에 대한 외국어 화자의 지식이라는 점을 알고 한국어 발음 정보를 제대로 알리고 보급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번역 표기의 일관성과 로마자 표기"(정경일)는 한국 문학 작품의 외국어 번역에서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가 일관되지 않은 것을 비판하고 문화적 정체성 확보를 위해 고유 명사의 로마자 표기가 고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원천 언어의 고유 명사가 번역자들마

다 다르게 표기되는 것은 혼란스러움을 넘어서서 문화적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로마자 표기법을 번역의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어문 규정 실태에 대한 고찰: 한글 맞춤법을 중심으로"(황경수)는 대학생 83명을 대상으로 한글 맞춤법(제3장부터 제6장까지)과 관련된 오류 실태를 조사하였다. '소리에 관한 것'은 7가지를 정리하여 보였는데 그중 '낟가리', '부로', '연연불망'에 관한 오류가 많이 나타났다. '형태에 관한 것'은 8가지의 오류 양상 중 '반듯이', '잗다랗다', '머릿방'의 오류가 높게 나타났으며, '띄어쓰기'에서는 '떠난 지', '30여 일간',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좀 더 큰 집'의 띄어쓰기와 관련된 오류가 많이 지적되었다. '그 밖의 것'으로는 '-이'로 끝나는 부사와 '-히'로 끝나는 부사의 구별, 종결 어미 '-ㄹ까?'의 쓰임, '멋쩍다'의 된소리 발음과 표기, 종결 어미 '-데'와 '-대'의 차이 등을 다루었다.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표기와 문법"(정희창)은 어문 규정과 사전에서 어근과 파생어의 관계로 기술된 '부딪-'과 '부딪치-'가 역사적으로는 유의어 관계인 '부딪다'와 '부듸치다'에서 유래했으며 '부듸치다'를 '부딪다'에 이끌려 재분석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다'까지 출현한 것으로 가정하고 '부딪-'과 같은 상호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에서는 피동사 출현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통사적, 의미적인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정희창)은 한글 맞춤법에는 '소리대로'와 '어법에 맞도록' 외에 역사적인 표기 원리가 존재하며 한글 맞춤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표기법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돼-'의 역사적 표기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새국어생활 21권 4호』(국립국어원)는 '표준어'를 특집으로 다루었다. 2011년 8월 31일에 '짜장면'으로 대표되는 복수 표준어를 발표하면서 관심이 높아진 표준어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하였다.

"현대 사회에서의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최경봉)은 표준어의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표준어에 대한 의식, 공통어로서 표준어를 설정

하는 문제, 현재와 같은 규정으로 존재하는 표준어의 한계와 가능성 등을 논의하였다. 향후에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지향하게 되고 이에 따라 복수 표준어 등이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이관규)은 표준어 교육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실태와 교육 과정 및 교과서의 표준어 관련 내용을 조사한 다음 표준어가 실재하는 언어라는 인식의 확대, 방언 및 인터넷 언어, 개인어의 관련성 확장 등을 통해 표준어 교육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외국의 표준어 정책"(한재영)은 일본, 중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의 표준어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와 이들 나라의 표준어 정책을 비교함으로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우리 사회의 표준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전망하였다.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장소원)는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는 표준어 규정이 적합한지 여부, 국민의 인식 파악, 복수 표준어 확대를 위한 절차 확립 필요, 언어 사용 환경의 고려 필요, 『표준국어대사전』의 보완 필요성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외국의 표준어 관련 정책 조사, 현행 표준어 규범에 대한 국민의 의식 조사, 개별 표준어 항목에 대한 실태 조사, 표준어 규범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삼고 있음을 밝혔다.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최혜원)은 새롭게 복수 표준어가 된 39개의 복수 표준어에 대해 그동안의 경과와 내용을 소개하였다. 복수 표준어는 기존 표준어를 기준으로 동의어로 인정한 것, 의미가 다른 별도의 표준어를 추가한 것, 표준 표기를 추가한 것으로 나누어지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표준국어대사전』을 수정하였다.

4. 남북한 언어 정책

남북한 언어 정책에 대한 논의는 전반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북 언어 정책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겨레말큰사전〉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에서

도 편찬 사업은 지속되고 있다. 다만 논저의 형태로 간행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4.1. 단행본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국립국어원)는 국어원에서 주최한 국제 학술 대회의 내용을 수록한 자료집이다. 이 학술 대회는 남북 간의 직접 교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외국의 언어 통합 사례를 통해 남북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 정책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중국과 베트남, 타이완, 마카오, 미국에서 이루어진 언어 통합을 위한 정책 사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베트남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인다.

4.2. 학위 논문

〈남북 언어 통합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연구〉(박샛별)는 남북의 이질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남북 언어 통합 사전의 편찬을 제안하고 이를 위해 올림말 선별 지침, 뜻풀이 지침, 표기법 등에서의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 어문 규범의 차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두음 법칙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를 대상으로 단일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5. 국어 사용 실태 조사

국립국어원 등 정부 기관에서 국어 사용 실태 조사의 분야를 점점 확대하고 심화해 가는 반면, 학술 논문 등 개인적 차원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다른 해에 비해 청소년의 언어 실태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기초 조사가 폭넓게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청소년 언어에 대한 관심이 국어 사용에 대한 전반

적인 관심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5.1. 단행본

『2010년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국립국어원)는 국어 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국민의 언어 의식과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국어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 부문에서는 교육 수준과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고, 우리말 고유어에 대한 애착이 높은 반면, 국민의 국어 능력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사용 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의 말투가 거칠고 표준어가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인식하며, 경어는 불평등한 것이어서 점차 없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수에 이르며, 비속어 사용 빈도가 높고, 방언에 대하여 긍정적인 한편 공공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표준어 사용을 선호하며, 외래어·외국어 사용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으면서도 국어 순화의 필요성도 높게 인식하고, 통신 언어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며, 외국 문자 사용에 있어서는 고연령층일수록 한글 표기를 선호한다고 한다. 언어 교육과 언어 정책 부문에서는 외래어·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행어·신조어에 대한 거부감은 과거 조사에 비하여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에서의 언어 교육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며, 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고, 한자와 외국어(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실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많고, 어문 규범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계약서, 약관 등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국립국어원)는 정부 기관 등의 계약서, 약관의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집하고, 개선 방안을 제언한 것이다. 부록으로 계약서, 약관에 나타난 다양한 오류 실태를 자료로 덧붙였다.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국립국어원)는 1992년 발간된 『표준 화법 해설』에서 규정한 내용과 관련된 국민의

화법 실태와 인식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연구는 표준 화법 실태 전반에 대한 조사와 문제가 되는 쟁점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1) 인사말, 호칭·지칭어, 경어법 사용 등의 표준 화법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도가 높으며(31.9%), 2)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등 표준 화법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으며(65.3%), 3) 국가 차원에서 표준 화법 규정을 정하고, 학교나 방송에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역시 높다(72.9%)고 한다.

『국어 정책 통계 조사 및 통계 연보 작성』(국립국어원)은 국어 관련 지표들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 국어 관련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종 국어 관련 통계 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제시한 것이다. 국어 분야 연도별 예산 규모, 언어 소외 계층 규모 등 기존의 지표에다가 공중파 방송 TV 프로그램명, 인기 가요 제목의 어종별 비교, 연간 독서량, 국어 교사 임용 시험 응시 현황 등 9개의 지표를 새로 더하여 총 19개의 국어 관련 통계 지표들을 제시하였다.

『문장 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 효과 연구』(문화체육관광부)는 문장 부호의 개념, 현행 문장 부호 규정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의 문장 부호의 내용, 문장 부호 규정의 개정 타당성 등을 조사하고, 그 개선 방향을 제안한 것이다. 현행 문장 부호의 문제점으로는 명칭이 혼란스러우며, 분류 체계에 모순점이 있고, 띄어쓰기가 불분명하며, 불필요한 것이 많은 점을 지적하였다. 규정 개정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전문가 집단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는 인지도는 높으나 실제 사용에서는 인지 수준에 미치지 못하며, 규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높지 못하며, 실제 사용 양상에 따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정도로 높다고 하면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더하여 법학 전문가와의 면담 조사를 통하여, 문장 부호 규정의 법적 지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는데, 특히 해당 규정을 한글 맞춤법 본문 규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외래어 표기 규범 영향 평가』(문화체육관광부)는 외래어 표기 규

범의 영향을 평가한 것으로 기업, 학술, 출판 분야에서의 외래어 표기 실태를 조사하고, 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이해도, 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였다. 에스파냐어가 오류 비율이 가장 높고(91.07%), 영어가 가장 낮으며(7.48%), 규범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인보다 전문인이 높다는(각각 68.61%:84.09%, 68.89%:77.27%) 조사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외래어 표기 규범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 언어권의 외래어 표기 규범을 비교·조사하고, 쟁점별 개별 언어권 정책 방향과 만족도 차이에 따른 언어별 정책 방향의 두 가지 차원에서 외래어 표기 규범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 초·중·고등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입말과 글말에 대한 직접 조사와 설문 조사를 통해 청소년의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향후 과제 및 정책을 제언한 것이다. 조사 결과 청소년의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이 입말과 글말에 공통적으로 습관화되어 있고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비속어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이고 공격적인 거친 발화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한다. 그 결과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언어 파괴가 가속화되며, 세대 간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져오는 폐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바른 말 사용 교육 강화,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 교육 확대, 가족 의사소통 활성화 시스템 구축, 방송 언어 순화 및 청소년 언어 선도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언어 정책을 제안하였다.

5.2. 일반 논문

"청소년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 방안"(김선정 외)은 청소년 대상 영어 능력 평가 도구인 와이엘이(YLE), 슬렙(SLEP), 토익(TOEIC), 브리지(Bridge)와 한국어 능력 평가 도구인 토픽(TOPIK)의 20회부터 22회까지 각각 초급과 중급의 주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학습자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을 위한 주제

항목을 제시하였다. 청소년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를 위한 주제 선정에서 가장 고려하여야 할 점은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고, 흥미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나 학교와 관련된 주제의 비중이 높아야 하며 청소년 학습자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주제인 자연이나 컴퓨터와 같은 통신, 과학 관련 주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언어 사용 실태 조사"(김태경 외)는 비속어·유행어·은어의 사용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 및 의식을 조사하고, 의사소통 맥락과 응답자의 의사소통 환경에 따라 비속어 등의 사용 실태와 의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학교 급이 올라갈수록 비속어(욕설)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학생 시기에 비속어의 사용이 급격히 확산된다고 하였다. 대화 상황에 따라 보면 이성보다 동성의 또래 친구와 대화하는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어른들과 말할 때에는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대다수였다. 유행어와 은어를 알게 되는 주된 경로는 '동성 또래 친구〉인터넷〉TV' 순으로, 유행어와 은어의 확산에 인터넷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속어·유행어·은어의 광범위한 사용 실태에 비해 상당수 청소년들이 비속어 사용에 대해 무감각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문제의식 수준이 높지 않다고 보았다. 비속어의 원래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더 자주 쓰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평소 언어생활에 대한 문제점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자신의 언어생활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개선 의지도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가족 구성 형태보다는 가족 간 대화 빈도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비속어 사용 빈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 시간에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룹에서 비속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사용이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또한 게임 중계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 응답자 그룹의 비속어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으므로 대중 매체의 언어 사용에 좀 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학교 교육 경험 여부에 따라서도 비속어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

어 바른 말 사용을 위한 학교 교육을 체계화하고 언어 사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비속어나 욕설 사용의 결과로 청소년들의 공격성이 증가하고, 언어 파괴가 가속화되며 소통의 장애가 생길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언어 정책 및 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기 유학과 귀국 후 언어 적응"(박진규)은 조기 유학이 언어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 발달, 교과 발달, 인지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중 언어적 관점에서 부모의 선택이 아동들의 이중 언어 발달과 정서 발달, 그리고 교과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조기 유학생은 나이가 어릴수록 더 많은 정서적 고통을 겪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또래가 있는 학교에 다니고 외국어를 배우면서 모국어를 사용하는 이중 언어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조기 유학은 모국어 능력이 안정적이지 못한 어린 아이에게 모국어 문식성 발달 지체를 초래하여 교과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국어가 안정된 후에 유학을 보내거나, 조기 유학 시 지속적으로 모국어를 학습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기 유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중 언어 발달인데, 부모가 조기 유학으로 아이들을 내몰 경우 아이들은 정서적・언어적으로 더 힘든 과정을 겪고 발달 지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양명희・강희숙)는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습득 경로, 욕설 사용 이유 등을 지역, 학년, 성 등 사회 언어학적 변수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욕설 습득은 친구를 통한 직접 접촉이 많은 영향을 끼쳤으며, 고학년일수록 인터넷을 통한 습득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욕의 유형은 상대에 대한 욕과 혼잣말의 욕으로 나누었으며, 상대에 대한 욕은 '성적 욕설, 신체 및 정신 결합 욕설, 신분 비하 욕설, 행동 비하 욕설, 동물 비유 욕설'로 분류하였다. 사용하는 욕의 순위는 '씨발〉병신〉개새끼〉미친놈〉존나〉지랄' 순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욕을 처음 사용한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높았고, 94.6%가 욕을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욕설 사용 이유는 '습관이 되어서, 남들이 사용하니까, 말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친구끼리 친근감을 나타내기 위해서'의 순이다. 욕설을 들었을 때의 정서적 태도는 긍정적 응답률과 부정적 응답률이 거의 비슷하게 조사되었으며, 본인의 욕설 사용에 대한 태도가 좀 더 엄격하였다. 또한 욕설을 들은 상대의 행동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더 심한 욕설을 했다', '친근감을 표시했다' 중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가 가장 높았고, 그렇게 대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더 높았다. 부모보다는 교사의 욕설 사용에 대해 더 민감한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국어 국문학의 경계와 융합"(우한용)은 국어 국문학이 학문으로 성립하고, 제도를 만들고, 학술 활동을 추구해 온 내력을 되짚어 보는 회고와, 반성을 동반한 성찰을 통해서 전망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근대 국민 국가 이후의 '국어'는 한국의 언어라는 의미를 지니는 '한국(언)어'로, '국어학'을 '한국어학'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학문으로서 '한국어학'과 '한국 문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대상을 공유하지만 두 학문이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의 속성이 동질적인가 하는 데는 의문이 남는다고 보았다. 두 학문이 언어 운용의 방법과 원리가 다르다는 점을 전제하며, 공통점을 추출하고 공동의 학술적 수행을 도모하는 것이 다음 과제라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학'과 '한국 문학'이 분화된 영역의 학문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영역 사이에 유기적 연관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일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연구 대상을 공유하고 방법론의 상호 참조가 이루어지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상으로 하는 언어(한국어)의 속성과 운용 방식의 변화를 고려한 제도적 개선으로 국어국문학과를 '한국언어문화학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한국어학, 한국 문학(연구)의 영역을 한정하지 말고 연관되는 영역을 확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관성이 있는 다른 전공자와 함께 연구하고, 강의를 공동 개설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배제가 아니라 수렴과 포용을 원칙으로 하는 개편이라야 한국어학, 한국 문학의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인문학으로 새 지평 열기”(윤석민)는 인문학이 인간의 사유 행위를 다루는 중심적 학문이라는 근본적 전제하에서 과거 인문학적 돌파구의 사례로부터 현재 인문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지평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인문학이 지향할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은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인간의 소외와 대립을 넘어서는 ‘소통의 인문학’이어야 하며 그것은 다양성(多樣性), 통합(統合), 통섭(通涉)을 핵심 코드로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인문학은 인간과 사회의 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며 인문학의 가치를 너무 과신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인문학은 개인과 사회 발전의 원리와 방법론을 제공하는 것이 임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전은진 외)는 청소년의 문자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청소년들이 사용하고 있는 비속어・유행어・은어의 사용 비율은 총 어절 수 대비 평균 7%로 나타났다. 텍스트 유형별 사용 특징을 보면 ‘롤링페이퍼 11%〉작문 8%〉댓글 6%〉다이어리 5%〉메신저 3%’ 순의 사용 비율을 보이며,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사용이 증가하였다. 청소년들의 비속어・유행어・은어의 사용 실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까닭은 이들 언어의 사용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에 매우 강하게 나타나는 공격성과 비속어・유행어・은어의 무분별한 사용은 언어 파괴를 가속화하고, 이를 모르는 기성세대 또는 일부 청소년이 소외감과 불편함을 느껴 소통의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적인 차원에서 바른 말 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언어 사용에 관한 의식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간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나 청소년을 선도할 의사소통 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의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 언어의 순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 국어 능력 향상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도 이어졌으나 국립국어원의 정기적인 사업 성과를 제외하면 다양한 연구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6.1. 학위 논문

〈국어 능력의 개념과 평가 문항 분석 연구〉(김희선)는 기존 연구를 살펴 국어 능력의 개념을 고찰하고 '국어를 활용하는 총체적 능력'을 국어 능력의 개념으로 규정한 뒤 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구성 요소와 내용을 기준으로 'KBS 한국어 능력 시험'과 '국어 능력 인증 시험'이 국어 능력을 얼마나 타당하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육용 금융 기본 어휘 선정 연구〉(박철린)는 금융 기관 취업이나 금융 관련 대학원 입학을 목적으로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용 금융 어휘를 선정하였다.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전문 어휘 학습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언어학적 지식뿐 아니라 직업 관련 전문 지식을 통한 전문 어휘 선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학문 목적 전문 어휘와 직업 목적 전문 어휘를 분류하여 어휘를 선정하였다.

7. 매체 언어

매체 언어와 관련해서는 방송과 신문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성격의 연구가 전년에 이어 이루어졌다.

7.1. 단행본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국립국어원)는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되는 언어를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방송 제작진이나 출연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고 일목요연하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한눈에 알아보는 공문서 바로 쓰기』를 시작으로 『한눈에 알아보는 신문 언어 바로 쓰기』 등 일련의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책자를 연이어 발간하고 있다.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국립국어원)는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 기관의 보도 자료가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제시한 다음, 실제 사례를 분석하고 개선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일선의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한 지침서이다. 공공 언어와 관련해서는 이처럼 현장 중심의 지침서를 보급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8. 국어 순화

국어 순화와 관련해서는 『새국어생활 21권 2호』(국립국어원)에서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이라는 특집으로 논의된 것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지만 국어 순화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은 한계에 부닥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적지 않았음에도 뾰족한 방법론이 제시되지 못한 것은 국어 순화가 언중의 공감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국어 순화는 백 년 후를 내다보고 묘목을 심는 일과 비슷하다. 성과가 금세 눈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조급해 하거나 획기적인 방법론을 찾으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8.1. 단행본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국립국어원)는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국립국어원에서 다듬은 말 가운데 사용 빈도가 높고 단

어 구성 방식이 적절한 61개의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순화어와 순화 대상어를 나란히 보이고(예: 뷰파인더→보기창) 설명한 다음, 실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61개의 순화어가 지난 10여 년간 다듬은 대표적인 것이라면 이를 일상에서 이용하기 쉬운 소책자로 제작하는 등 보급 방법을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8.2. 일반 논문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고성환)은 그동안의 국어 순화가 걸어온 길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길을 전망한 것으로 국어 순화는 규범과 달리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인식이 약하며 광복 직후 우리말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적인 필요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어서 정착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국어 순화의 당위성은 존재하며 언어 대중의 참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어 순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박용찬)은 2004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www.malteo.net)'의 성과와 향후 전망을 조명하였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어 순화 방식은 합리적인 국어 순화 방법으로 초창기에는 많은 관심을 받고 '누리꾼', '자동길' 등이 사전에 등재되기도 하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순화어 보급이라는 면에서는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적절한 순화어를 만들어내는 노력과 함께 순화어를 널리 보급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이동석)은 어휘, 발음, 구문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순화의 성과를 검토한 점이 특징이다. 어휘 차원의 일본어투 순화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한자어나 서양 외래어의 순화는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였다. 특히 발음과 구문 차원의 순화는 외래적인 것을 배척하는 과정에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강현철)은 2006년부터 5년 동

안 법제처에서 시행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소개한 것으로 2010년까지 총 982건의 법률과 1,200여 건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2011년 이후에는 매년 400건의 하위 법령을 정비하여 2015년까지 3,000건을 정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러한 움직임은 법령 언어가 그동안 많은 지적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지제근)은 의학 용어 순화는 용어의 '정비와 표준화'에 가까운 개념임을 소개하고 전문 기술 용어인 의학 용어를 순화할 때는 정확성과 함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서 한자를 이용하는 방식을 논의하고 독일어식 용어와 영어식 용어가 혼동되는 것과 외국어의 한글 표기가 혼란스러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에 바탕을 둔 표준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김하수)은 국어 순화가 역사적으로 민족 국가 형성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어가 공식 언어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30년대에 고유어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한자어에 대한 통제가 한자어의 유입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것이 도리어 국어 순화를 불러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동안의 한자어에 대한 지나친 순화에서 벗어나 이미 토착어 못지않은 대중성을 획득한 한자어에 대해서는 한자 원어를 제거하여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어 발전'을 지향하는 국어 순화로 가는 길임을 주장하였다.

8.3. 학위 논문

〈상품 이름 실태 조사를 통한 국어 순화 방안 연구〉(이수정)는 상품 이름을 대상으로 표기 오용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어 순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상품 이름은 그 시대 사람들이 자국어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갖고 있는지를 살피기에 좋은 자료이며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이를 대상으

로 외래어와 외국어의 사용 실태를 살폈다.

9. 국어 교육 정책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국어 교육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 성과가 나왔다.

9.1. 일반 논문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결혼 이주 여성 지원 정책 분석”(류이현)은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서비스 중에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수요자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한국 사회의 새로운 소수자인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다문화 가족 서비스의 의의를 파악하고 가정생활, 한국 사회 적응, 네트워크 형성, 자아실현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 주체 요구 분석”(김태진)은 재미 한글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한글학교의 기능, 교사, 교재, 한국어 수업, 한국 문화 수업, 학교 운영 등 6가지 영역에 대한 53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한글학교의 실태를 살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0. 맺음말

국어 정책에 관한 논의는 양은 다소 줄어든 감이 없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국어 정책에 대한 성과와 그에 대한 논의는 풍성했다고 할 수 있다.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비롯하여 표준 언어 예절 공표, 문장 부호 개정 추진 등과 같이 언어 현실에 밀접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국어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어 정책의 주관 기관인 국립국어원이 설립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성과들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그동안 『표준국어대사전』이 보급되고 국어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국어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 등이 수립되는 등 국어 정책이 양적·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국어 정책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여러 가지 정책이 실현되고 있고 사회, 학계, 정부의 관심도 높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의 개발과 홍보가 뒤따라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한다.

한편, 특정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한 논의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한자, 한글 사용 논쟁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주제는 새로운 논의가 추가되지 못한 채 이전의 논의를 반복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반복성 논의는 다루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 외에도 지면상의 제약과 필자의 부주의로 미처 그 내용을 소개하지 못하거나 누락한 논의가 적지 않을 듯하다. 너그러운 이해를 바랄 뿐이다.

국어 교육

박 정 진
(가톨릭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 한 해 동안 국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 소개되는 성과물에는 국어 교육학 분야의 학위 논문 475편(박사 학위 논문 24편 포함), 주요 학술지 게재 논문 346편, 관련 단행본 23편 등이 포함된다. 적지 않은 연구 성과물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연구 업적이 있거나 연구 내용을 잘못 분류 또는 해석한 경우가 있다면 양해를 구한다.

이 글에서 국어과 교육 분야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기준은 대체로 기존의 것을 따르면서도 2011년의 연구 경향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기본적으로는 영역별 기준을 따랐는데, '듣기・말하기(화법) 교육', '읽기(독서) 교육', '쓰기(작문) 교육', '문법 교육', '문학 교육'이 그것이다. 그리고 교육 과정의 실행 요인별 기준으로는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교육 과정 요인)',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국어과 교재', '국어과 평가', '국어 교육 정책'으로 나누었다.

1. 듣기・말하기(화법) 교육

1-1. 화법 및 화법 교육의 본질(개념, 방향, 맥락이나 태도 변인 등)
1-2. 화법 교육 과정
1-3. 화법 지도 전략(방법)
1-4. 화법 및 화법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1-5. 화법 교육 교재
1-6. 화법 평가
1-7. 기타(타 영역과의 통합, 대학 화법 교육 등)

2. 읽기(독서) 교육

2-1. 읽기 및 읽기 교육의 본질(개념, 방향, 맥락이나 태도 변인 등)
2-2. 읽기 교육 과정
2-3. 읽기 및 읽기 지도 전략(방법)
2-4. 읽기 및 읽기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2-5. 읽기 교재 및 읽기 텍스트
2-6. 읽기 평가
2-7. 기타(타 영역과의 통합, 청소년 독서 및 대학 독서 등)

3. 쓰기(작문) 교육

3-1. 쓰기 및 쓰기 교육의 본질(개념, 방향, 맥락이나 태도 변인 등)
3-2. 쓰기 교육 과정
3-3. 쓰기 및 쓰기 지도 전략(방법)
3-4. 쓰기 및 쓰기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3-5. 쓰기 교재 및 쓰기 텍스트
3-6. 쓰기 평가(논술 포함)
3-7. 기타(타 영역과의 통합, 청소년 작문 및 대학 작문 등)

4. 문법 교육

4-1. 문법 교육의 본질, 문법 교육 과정 및 문법 교재
4-2. 문법 지도 전략(방법) 및 평가
4-3. 문법 내용 1(발음 및 음운, 규범, 품사, 문장, 문법 범주 등)
4-4. 문법 내용 2(북한어 및 방언, 사전, 텍스트, 국어 생활사)
4-5. 기타(타 영역과의 통합 등)

5. 문학 교육

5-1. 문학 교육의 본질, 문학 교육 과정 및 문학 교재, 문학 비평
5-2. 문학 지도 전략(방법) 및 평가
5-3. 문학 교육과 매체
5-4. 기타(타 영역과의 통합 등)

6.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교육 과정)
7.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8. 국어과 교재

9. 국어과 평가
10. 국어 교육 정책(어문 정책, 다문화 정책 등)

최근 학교 교육 과정의 변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면서 국어 교육에서는 교육 과정과 교재, 그리고 교수-학습 전략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어 교육 일반론보다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교육, 문학 교육과 같은 하위 영역별 연구가 상대적으로 왕성했다. 이것은 국어 교육이 교과 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부 영역을 공고히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다문화나 한류의 확산 등과 관련하여 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가 더 활발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2. 국어과 교육 영역별 연구

2.1. 듣기・말하기(화법) 교육

2.1.1. 화법 및 화법 교육의 본질

화법 교육 분야에서는 먼저 화법 및 화법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창덕의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상(理想)과 현실(現實)"은 화법 교육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적 화법 실태 기초 조사 실시, 실용 중심으로 화법 교육 과정 개편, 메타 점검과 조정 중심으로 교육 내용 전환, 교과서와 학교 화법 수업의 혁신을 주장했다. 박상진의 〈공감적 듣기 교육 방안 연구〉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공감적 듣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감적 듣기를 듣기 교육으로 실행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재현의 『설득 화법 교육론』은 학교 교육에서의 설득 화법 교육의 중요성과 방법을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최현용・김수현・조경하의 『발표와 토론』은 발표와 토론의 원리와 실제를 설명하고 실제 활동 자료들을 제공했다.

학습자의 화법 능력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도 수

행되었다. 박찬미의 〈초등학생의 듣기 활동 양상 연구〉는 담화 형식에 따른 초등학생의 듣기 활동 양상을 통해 학교 교육 과정이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담화별 듣기 능력을 제대로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동엽의 "초등학교 2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는 화법 능력을 구성하는 하위 능력인 이야기 능력 발달을 규명하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종단 연구를 수행하고 발달 양상을 분석했다. 이도영의 "초등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서는 맥락 교육의 방향을 재설정하여 언어적, 비언어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도입하고, 맥락 그 자체를 가르치기 위한 실제와 유사한 자료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선영의 〈요인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 말하기 불안 해소 방안 연구〉는 현재 말하기 불안을 호소하는 학생들의 수가 증가하는 점을 밝히며, 국어 시간에 충분한 말하기 시간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했다. 김평원의 "말하기 불안의 분석 모형 연구"는 생체 신호 측정법을 통해서 얻은 결과를 말하기 불안 분석 및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이론화했다. 황정현의 〈말하기 불안 해소를 위한 지도 방법 연구〉는 말하기 불안의 개념을 정의하고 불안 형성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이를 토대로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윤철민의 〈대학생의 말하기 불안에 관한 연구: 수업 중 발표 활동을 중심으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의 말하기 불안 실태 점검', '말하기 불안의 요인', '실제 학생들의 말하기 불안의 실현과 대학 말하기 교육 현황'을 분석했다. 구영산의 〈초등 국어 수업 담화에서 불연속 통어의 격률에 관한 연구〉는 국어 수업 담화의 불연속 상황이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하는지를 언어 구조, 화용, 이데올로기 세 수준에 걸쳐 분석했다. 서영진의 "고등학생의 말하기 효능감 구인 연구"는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 신장과 관련된 정의적 요인에 관심을 갖고, 논증 능력에 대한 자기 인정 및 사회적 인정이 토론 효능감의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장했다.

다음으로 학습자의 토론 능력 및 토론 교수 전략과 관련된 연구이다. 한현숙의 〈토론 능력 발달 양상 연구〉는 5학년, 8학년, 10학년을 대상으로 토론 능력의 발달 양상을 횡단적으로 살폈다. 서현석의 "초등학교 토론 교육의 내용 체계 연구"는 기존의 토론 교육의 내용이 형식과 논

리적인 측면만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고, 상황 맥락을 반영하여 실제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을 주장했다. 서승아의 "토론 교육의 내용 체계 연구: 중등 학습자군의 웹 토론을 대상으로"는 웹 토론 상황에서 중등 학습자의 발화들을 분석해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봄으로써 교육 내용의 체계를 제안했다. 임칠성의 "토론의 본질과 토론 지도"는 토론의 성격이 올바르게 규명되지 않아 토론이 교육적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토론의 본질에 맞는 토론 문화가 정착될 수 있게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주의 "토론 중심 고교 화법 교육 개선 방안 연구"는 논쟁형 토론을 중심으로 토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토의나 협상을 통한 통합적인 화법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조재윤의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토론의 성격 탐색"은 국어 교과에서는 '토론 학습'과 '학습 토론'을 동시에 다룬다고 제시하고 각 교과에서 사용되는 토론의 구체적인 의미 기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평원의 "토론 평가자 교육을 위한 퍼지 분석 모형의 효과"는 토론 평가에서 논증 구조를 있는 그대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을 제안하고, 이를 CEDA 방식 토론 평가자 훈련 프로그램에 적용하여 그 효과를 타진했다. 김평원의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은 CEDA 방식의 토론 형식과 내용으로 '마이크로 토론(Micro Debate)'과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이라는 방법론을 제안했다.

박재현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토론 유형 선택의 변수"는 최적의 토론 유형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판단의 변수들을 고찰하고 공공 포럼 토론이 초중등 화법 교육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선영의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초·중·고 토론 대회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는 토론 교육의 실태를 점검하고 논제, 토론 형식, 학습자 차원에서 토론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이선영의 "국내외 토론 대회 현황 분석을 통한 토론 교육 발전 방안 연구"는 국내외 토론 대회의 현황을 분석하고 토론 교육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류전익의 〈초등학생을 위한 다면 토론의 형식화 및 단계별 양상 연구: 초등학교 4, 5학년의 다면 토론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는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교육 토론 형식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초등학생에게 적합한

형식을 개발하여 적용했다. 서재승의 〈멀티 매체 시대의 토론 능력 신장 방안 연구: TV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메타 토론을 중심으로〉는 최근의 매체 환경에서의 토론 양상을 분석하고 메타 토론 능력을 신장할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화법 교육 내용 구성과 관련하여 화법 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수행되었다. 전은주의 "국어 교과의 영역명에 관한 일고: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국어과의 영역명에 내재해 있는 원리를 탐색하고 '듣기·말하기'라는 영역명보다 융합적인 명칭인 '구두 언어 의사소통'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행수의 〈통합적 말하기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은 통합적 말하기 교육의 내용 구성 시 맥락, 텍스트, 인지를 내용 선정 범주로 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성취 기준과 내용 요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덕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문식력 교육: 초등학교 중학년을 중심으로"는 문식력 교육은 읽기, 쓰기 영역뿐만 아니라 듣기, 말하기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구술력을 바탕으로 초등학교 중학년의 문식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한연희·전은주의 "2011 국어과 교육 과정 듣기, 말하기 영역 수직적 조직 분석: '국어' 과목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는 교육 목표를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의 내용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직하는가' 또한 중요하다고 보고, 교육 과정의 듣기·말하기 영역의 수직적 조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민주의 "협상 담화 지도를 위한 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는 2007년 7차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새롭게 포함된 협상 담화 영역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협상 담화의 교수-학습을 위한 과제 구성 원리를 분석했다.

화법 지도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도 있었다. 하미영의 〈연극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력 향상 연구: 학습 부진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중심으로〉는 연극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력 향상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에 그 효과를 검증했다. 심영택의 "협상 담화 교육 방법 연구"는 우리나라 협상 문화의 특징인 장유유서, 권위주의, 비합리성을 비판하고 '경쟁적 협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교육의 주체가 되어 협상 문화를 경험하고, 협상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판단하도록 이끌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이규록의 〈면접 담화의 효율

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는 2007 개정 화법 교육 과정에 담화 유형 중 하나로 신설된 면접을 살펴보고, 국어 교육 안에서 면접 담화의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류성기의 "초등 고학년 듣기 교재 메모할 내용 분석 및 메모 방법 연구"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듣기 아이콘이 있는 부분을 분석하고, 메모하기를 활용하는 듣기 방법에 대하여 논했다.

화법 및 화법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에는 박창균·이정우의 "초·중·고 교사의 교수 화법에 대한 인식 조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교수 화법 프로그램의 이수 경험을 갖고 있는 교사가 적은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할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했다. 서현석의 "초등학교 토론 대회에 대한 사례 연구"는 교사와 학생들이 토론 대회 과정을 의미 있는 교육적 경험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김재봉의 "국어 수업의 반영적 재진술 발화 양상에 관한 연구"는 말하기·듣기 수업에서 이뤄지는 반영적 재진술 발화의 양상과 기능을 탐색하고, 그것의 교육적 의의를 밝혔다.

다음은 화법 평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배수진의 〈관찰자 측정 말하기 능력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는 관찰자가 평가하는 과제 부여식 말하기 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언어적 표현력과 비언어적 표현력 모두 관찰자 측정 말하기 능력 척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을 확인했다. 황정연의 〈7차 및 개정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영역 분석〉은 교육 과정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간의 관련성 연구를 통해 전기보다 후기에서 의사소통 교육을 위한 발전적인 변화의 노력이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대학에서의 화법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장영희의 "대학생 토론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연구"는 대학생 토론 지도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 지도 과정을 순차적으로 제시하면서 학생들이 토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살핀 후 각각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유미의 "프레임(Frame)을 활용한 교차 토론 방법 연구"는 프레임 이론을 활용한 교차 토론의 방법을 제안하면서 '프레임 안의 전경과 배경의 변화', '상대측의 프레임 자체의 부정과 대상의 다른 프레임의 생성'으로 분석했다. 나은미의 "대학 토론 교육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 방안: 교양 교

육으로서 토론을 대상으로"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양 수업 내의 토론 교육의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고찰했다. 전제응・신애경・고전・장승희의 "교육 대학 토론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좋은 강의 실천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는 교육 대학 토론 수업의 문제점으로 준비도, 참여도, 토론 수준, 추후 성찰의 측면을 지적하고 읽기와 쓰기의 유기적인 관계를 강조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유혜원・김유미・김정녀의 "여성 리더 발화 분석을 통한 말하기 교육 방법론 연구"는 말하기 교육에서 주도적인 자기 훈련을 강조하며 여성 리더 9인의 발화 성향과 형태를 유형화하여 제시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말하기 수행을 위해 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공했다. 김현주의 "상호 교섭적 관점에 의한 대학 토론 교육: H대학 〈말과 글〉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는 H대학의 〈말과 글〉 강좌에서 상호 교섭적 관점으로 진행되는 토론 교육을 분석했다. 서승아의 "토론 기반 말하기 학습에 대한 연구: 대학생의 설득적 말하기 수업을 대상으로"는 토론에서 발표로 이어지는 표현 관련 교양 수업 과정에서 말하기 능력이 향상된 경우를 중심으로 설득적 말하기 유형들을 고루 학습하기에 토론 교육이 적합함을 주장했다.

화법 교육과 다른 영역과의 통합 연구도 수행되었다. 조지영의 〈국어 교과를 통한 자기 이해 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 수용,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 수용 및 자기표현과의 공통점을 추출한 후 '자기 이해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유임하의 『교양인의 화법과 대학 글쓰기』는 교양인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서의 화법과 글쓰기를 소개하고 대학 교양 교육의 활성화를 주장했다.

2.2. 읽기(독서) 교육

읽기 및 읽기 교육의 본질, 읽기 교육 과정, 읽기 및 읽기 지도 전략, 읽기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읽기 교재, 읽기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읽기 교육 분야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해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먼저, 읽기 및 읽기 교육의 본질과 관련된 연구이다. 이경화・이미영의 "이야기 글 요약하기의 개념과 의미"는 요약하기를 중심 내용, 줄거리 등과 비교하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야기 글 요약하기 원리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했다. 이미영의 〈이야기 글 요약하기 지도 방안: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는 이야기 글 요약하기가 읽은 내용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중요한 독해 능력임을 밝히고, 그 구체적인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이삼형의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생애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은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생애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은 체계적이면서 의미와 재미를 주는 독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충우의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선정"은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심리적, 인지적 요인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영의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연구〉는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 실태를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독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방법에 대해 탐색했다. 김도남의 "네트워킹 읽기의 교육 방향 탐색"은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읽기 교육이 네트워크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같은 필자의 "독자의 온삶을 위한 읽기 교육 방향 탐색"에서는 무위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온삶'을 이룰 수 있고, 이것이 읽기의 목적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지연의 〈이야기책과 정보 책 읽기 반응 연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유롭게 말하기'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에서는 이야기책과 정보 책을 읽은 후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여러 가지 반응을 분석했다.

김애화・김의정・유현실・황민아・박성희의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와 읽기 유창성에 대한 예측 변인 연구"에서는 한글 단어 인지 능력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은 단기 기억, 빠른 자동 이름 대기, 자모 지식이고 한글 읽기 유창성을 예측하는 대표적인 변인은 빠른 자동 이름 대기와 단어 인지임을 밝혔다. 이성영의 "초등 중학년의 읽기 학습 과업"은 읽기 발달 단계 대신에 읽기 학습 과업이라는 개념이 왜 필요한지, 읽기 학습 과업을 설정할 수 있는 합리적은 틀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면서, 단순하게 명시된 읽기 학습 과업이 교육의 실제 장면에서 교사

와 학생, 그리고 장학사와 학부모로 이어지는 교육 당사자들 서로 간의 명료한 의사소통에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영의 〈아동 독자의 이야기책 읽기 반응 연구〉는 아동 독자가 선택한 이야기책에 대한 읽기 전 반응과 이야기책을 읽고 난 후에 보이는 반응의 양상과 특성을 분석하였고, 같은 필자의 "잠복된 문학 독서의 발현 양상에 대한 연구"는 삶 속에 잠복된 문학 독서의 발현 양상이 드러나는 것에 대하여 논의했다. 최숙기의 "읽기 교육의 상위 인지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에서는 2011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읽기 교육 과정상에서 적용된 읽기 상위 인지의 개념상의 문제, 교육 과정의 학년별 위계화의 문제, 읽기 상위 인지의 실제적인 교수 학습 및 평가 방안과 관련된 문제 등을 논의하였고, 박정진의 "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은 독서 프로그램은 독자의 생각과 의도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고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청소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략을 탐색했다.

문병상의 "내·외재적 읽기 동기, 자기 조절 읽기, 읽기 활동과 읽기 능력의 관계"는 읽기 동기, 자기 조절 읽기, 읽기 활동과 읽기 능력 변인들의 인과 관계 모형을 설정하고, 적합한 인과 구조 모형을 검증했다. 장소영의 〈유치원아와 초등 4학년 아동 간 함께 책 읽기 활동에서 나타난 읽기 태도의 변화〉는 유치원생과 초등 4학년 아동이 함께 책 읽기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읽기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비교했다. 박순원의 〈독서 지수의 활용 방안 연구〉는 독서 지수는 독서 활동 참여 주체들에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고, 어휘 정보는 문학 작품의 문체나 경향을 연구하는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영민의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수준과 측정 방법"은 독자에게 적합한 독서의 수준을 정하는 측정 방법으로 '텍스트의 복합도'와 '눈동자 움직임의 추적'을 제안했다. 지순정·이상도의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동기와 독해 능숙도 및 독해 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학생들의 독해 능숙도를 상·중·하의 수준별로 분류하고 자기 결정성 동기 유형들과 독해 능숙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동기와 독해 전략의 사용이 독해 능숙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했다. 조형일의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읽기에서의 어휘 시소러스(thesaurus)의

응용"은 '어휘 분류집'을 이용한 어휘 중심의 읽기 교육의 유용한 점들을 제시했다. 김미배 · 배소영의 "낱말 읽기에서의 초등학생 음운 해독력 발달"은 읽기 발달에서 음운 해독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초등학교 아동의 음운 해독력 발달을 살펴보았다. 박수자의 "맥락 기반 읽기 지도의 관점과 반성"은 국어과 교육에서 맥락에 대해 기존의 구심적 접근과 더불어 언어 사용자 중심의 원심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읽기 교과서 개발에서 맥락 기반 읽기 과제 제시를 제안했다. 문숙현의 〈맥락과 대비에 따른 글자 간 간격이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읽기 속도는 문장 조건과 고대비 조건에서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실제 읽기 상황에 간격 임계치를 적용한다면 최대 읽기 속도로 문장을 읽을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수의 〈청소년 독자의 읽기 효능감과 독자 반응의 관계〉는 독자 반응이 읽기 효능감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읽기 효능감이 독자 반응에서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김효정의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매체별 뉴스 서사 읽기를 중심으로〉는 매체에 따른 뉴스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뉴스 생산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논의했다. 권이은의 "'비판적 읽기'의 범주 설정 및 내용 체계화 연구"는 '비판적 문식성'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적 읽기'의 뜻을 구체화하였고, 맥락의 범주화를 '비판적 읽기'의 한 방법으로 제시했다.

엄훈의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발달 양상 연구: 해부호화 능력을 중심으로"에서는 초등학교의 저학년의 읽기 발달 양상을 연구를 통해 해부호화 능력 중 자소-음소 대응 규칙은 뒤늦은 시점까지 완성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임미성의 "아동 독자의 읽기 발달과 읽기 지도"는 3년 동안의 질적 종단 연구를 통하여 아동 독자의 읽기 과정을 관찰한 결과, 개별 학습자가 자신만의 읽기 발달 과정을 가진다는 점과 읽기 발달에서의 전략과 태도는 한 쪽이 다른 쪽을 추동하기도 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는 점을 탐색했다. 같은 저자의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에서는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론이 의의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는 생태학적 읽기 교육의 단초를 마련한다고 주장했다. 조증열의 "초등 중학년의 한글 문식성 발달에

대한 인지 심리학적 이해"는 음운 인식과 형태소 인식이 모두 한국어의 문식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임임을 밝혔다. 최건아의 "이야기 읽기 중 초등학생의 상호 반응 유형: 초등학교 2학년의 소그룹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독자의 역동성'에 주목하여 주어진 텍스트에 대해 동료들과 상호 반응하는 유형을 13가지로 분석했다.

읽기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들도 다수 이루어졌다. 김중신의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 연구 과정의 비판적 검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에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 2009 개정 교육 과정으로 빈번하게 국어과 교육 과정이 개편되는 상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회 연합이 주도한 2009 개정 교과 교육 과정 개발 과정을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검토했다. 김현서의 〈핀란드와 한국의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 국어 교과 읽기 영역에 한정하여 한국과 핀란드의 국어 교육 과정을 국어 교과서로 비교 분석했다. 박수성의 〈독서 교육 과정 변천 과정 분석 연구〉는 6차 독서 교육 과정에서부터 2009 독서 교육 과정까지의 변화 양상과 최근 독서 교육의 경향을 살펴보았다. 성한나의 〈읽기 교육 내용의 학습 목표 위계 분석 연구: 설득 및 비판을 위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는 학습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 제시된 위계적 배열 원리와 비교하고 성취 기준의 진술 방식을 분석했다. 최숙기의 "차기 국어과 교육 과정 읽기 영역 내용 체계의 방향 설정"에서는 현행 중등 읽기 교육 과정의 내용 선정과 내용 조직의 측면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차기 국어과 교육 과정의 읽기 영역 내용 체계의 개선 방향을 탐색했다.

다음은 읽기 및 읽기 지도 전략에 관한 연구들이다. 정예언의 〈의미 구조도 작성을 활용한 다시 말하기 전략이 읽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의 독해력 및 회상력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 구조도 작성을 활용한 다시 말하기 전략이 초등학교 읽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의 독해력(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과 회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권주연의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을 마련하여 신문이라는 매체

를 수업 자료로 투입하여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동기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를 탐색했다. 김외순의 〈광고 이미지의 비평적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는 광고 이미지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김지희의 〈중심 내용 찾기 활동을 통한 설명문 읽기의 효과 연구〉에서는 설명문 읽기 활동을 통해 핵심어 찾기부터 글 전체의 중심 내용 찾기로 단위를 확대하면서 학습자들이 정보를 습득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김진희의 〈교사와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한 독서 토론이 학습 부진아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는 학습 부진아의 읽기 이해력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한 독서 토론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희경의 "협력적 읽기 수업의 교수 설계 모형"은 학습자가 혼자서 텍스트를 읽는 동안 많은 의미 구성의 장애를 만나게 되는데, 학습자가 읽기의 주체로서 이러한 문제 상황을 능숙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전략과 방법을 훈련하는 '협력적 읽기 수업'을 제안했다. 박을배의 〈다산 정약용 독서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두 아들에게 보내는 서간문을 중심으로〉에서는 다산의 독서법을 통해 독서 태도와 독서 목적과 독서 방법을 살펴본 후, 그가 독서를 하면서 활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수용해서 현대 독서 교육의 독서 전략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했다. 조호연의 〈현대 시와 엮어 읽기를 통한 고전 시가 교육 방법 연구: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는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상호 텍스트성의 관점에서 현대 시와의 엮어 읽기를 통한 고전 시가 교육 방법을 탐색했다.

진보배의 〈훈민정음을 소재로 한 교양서적의 비판적 읽기〉는 독자의 눈으로 현재의 훈민정음에 대한 인식 양상을 분석하고, 아직은 다양한 인식들이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진선영의 〈독서 태도 향상을 위한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연구〉에서는 독서 능력과 독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방안을 모색했다. 최정은의 〈비평적 읽기 교육 방법 연구〉는 국어 교육에서 비평적 읽기는 의미를 해석하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능동적 읽기와 객관적 읽기가 통합되어야 하고, 작가 및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도록 하는 소통적 읽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강옥려・이창선의 “그래픽 조직자 활용이 국어 학습 부진아의 어휘력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은 설명문을 지도할 때 그래픽 조직자를 활용할 경우 국어 학습 부진아의 어휘력과 독해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강희진의 〈읽기 전 활동을 통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는 KWL, 예측 안내, 빈칸 채우기 등과 같은 읽기 전 활동이 읽기 능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도남의 “읽기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코칭 방향”은 읽기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해 개별적 혹은 소집단적으로 지도하는 형태인 읽기 코칭을 제안했다. 김라연의 “공동 사고를 통한 예비 교사의 독해 전략 활용 양상 분석 연구”에서는 실제 수업에서 공동 사고가 예비 교사들의 독해 지도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보희의 〈읽기 워크숍을 통한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및 태도 신장 방안 연구: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는 설명적 텍스트 읽기 워크숍 프로그램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면서 인지적 측면과 반응적 측면 모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김선민의 “독서 일기를 활용한 창작 지도 방법 연구”는 독서 일기가 창작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독서 활동과 창작 활동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진의 〈의미 단위 띄어 읽기 전략 교수가 읽기 이해 부진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읽기 이해 부진 아동에 대한 의미 단위 띄어 읽기 전략 교수가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도 향상, 사실적 이해, 추론적 이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김연희의 〈SSR(Sustained Silent Reading)을 적용한 중학교 읽기 지도 방안과 효과에 대한 연구〉는 수업 시간 중 SSR을 도입하여 초보 수준 학습자들의 독해 능력과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연희의 〈독해・내용 정리 전략이 초등학교 학습 장애 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와 초인지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학습 장애 학생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적합한 독해 전략으로 피드백 제공과 오류 교정을 제안했다. 박수진의 〈도해 조직자를 활용한 요약하기 지도 방안 연구〉는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효과적인 도해 조직자와 요약하기 규칙을 제안하고, 그 지도 방안을 제언했다. 김윤주의 〈학교 도서관 활용

을 통한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이끌어 내는 방법으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학교 도서관의 활성화를 제시하면서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적합한 독서 교육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류수정의 〈독서 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 교육 향상 방안 연구〉는 독서 신문 제작 활동이 학습자들의 작품 이해와 창의적 사고,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문미선의 〈상위 인지를 활용한 시 읽기 교육 방법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상위 인지를 활용한 시 읽기 교육이 학습자의 시 읽기 능력과 동기, 그리고 태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박미영의 〈KWL모형이 읽기 학습 부진아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는 KWL 전략이 읽기 학습 부진아의 사실 인식 능력, 추론 능력, 일반화 능력 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박은미의 〈텍스트 구조화 훈련이 학습 부진아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는 초등학교 3학년 읽기 학습 부진아를 대상으로 텍스트 구조화 훈련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텍스트 구조화 훈련이 초등학생 학습 부진아의 읽기 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박정희의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 이해 능력: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20대 성인을 대상으로〉는 초등학교 6학년 일반 아동과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친숙하지 않은 속담을 접했을 때 문맥이 제시되었을 경우와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이해 정도를 20대 성인들의 속담 이해 능력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송애덕의 〈독서 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과 자기 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는 초등학교 아동 대상 독서 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 감소, 자기 효능감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다. 신창교의 〈텍스트 구조 중심 거시적 읽기 지도 연구〉는 학생들의 설명적 텍스트에 대한 읽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읽기 동기를 자극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텍스트 구조 중심의 거시적 읽기 지도를 제시했다. 심상욱의 "콘텍스트 개념의 변화에 따른 독서 전략"에서는 텍스트를 읽을 때 '콘텍스트의 틀'(저자 콘텍스트, 독자 콘텍스트, 읽기 콘텍스트, 언어 콘텍스트)에 따라 읽어야 함을 주장하고, 이 틀로 제임스 조이스의 '애러비'를 분석했다. 오창희의 〈모둠 독서 활동에 관한 문헌 연구〉는 교육 현장

에서 모둠 독서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에 필요한 구체적인 독서 지도의 방법을 제안했다.

윤준채의 “읽기 전략의 효과에 대한 검토: 메타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는 읽기 전략의 효과를 메타 분석을 통해 검증하면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읽기 전략을 다양하게 반영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상우・강연희의 “초중등 학습자를 위한 광고 비판적 읽기 전략 연구”는 학생들이 광고를 비판적으로 읽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호 분석, 신화 분석, 광고 카피 분석을 제시하고 그 방법들의 효과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수경의 〈비판적 읽기 지도가 비판적 사고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비판적 사고력과 태도 형성을 위한 비판적 읽기 수업의 방향을 모색하고 비판적 읽기 수업 설계의 방법을 제안했다. 이자영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의 교육 방안 연구〉는 인성 교육에 초점을 둔 전기문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전기문을 활용한 정서적 적응과 인성 형성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이혜숙의 〈초등학생의 읽기 전략 학습 사례 연구〉는 초등학생의 사전 읽기 능력의 차이에 따라 읽기 전략 학습 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여 읽기 전략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조영민의 〈독해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방법 연구〉는 ‘독해 능력 증진 시리즈’를 편집한 독해 부진 학생용 특별 교재를 실제 학생을 대상으로 적용한 후 그 성과를 분석했다. 조인선의 〈초등학생의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 활용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 개발〉은 토론을 활용한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이 아동의 논술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황혜인의 〈읽기 후 활동 수업을 통한 초등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발달 연구: KWL 활동을 중심으로〉는 친숙한 주제의 읽기 텍스트를 읽고 KWL 차트와 그래픽 구성도를 작성하는 과정과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읽기 후 활동 수업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수진의 〈초등학교 수업에서 낭독 활동 방법에 관한 연구〉는 국어 수업과 재량 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언어 교육 방법인 낭독 활동을 제시했다.

다음은 읽기 및 읽기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에 관한 연구들이다. 김소현의 〈국어 교사의 읽기 수업 문식성 연구〉는 읽기 수업 문식성의 구성 요인을 지식, 수행, 태도의 차원으로 범주화하여 이 요소들에 대

한 교사들의 인식 실태를 분석하고 실제 읽기 수업 관찰, 심층 인터뷰, 교사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읽기 수업 문식성 실행과 형성 과정을 밝혔다. 김선혜의 〈읽기 능력에 따른 상위 인지 인식 분석 연구〉는 현대 사회에서 읽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읽기 자질을 상위 인지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실제 읽기 지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이순영의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 연구: '정보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는 '정보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을 탐구하고 교육용 텍스트의 불균형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은 읽기 교재 및 읽기 텍스트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김지희의 〈초등 교과서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의미 분석〉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 9편을 선정하여 동화에서 부정적으로 그려진 아버지 부재 유형을 분석하여, 긍정적 아버지 상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나연의 〈고등학생의 종이 글 읽기와 컴퓨터 글 읽기 양상 비교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종이에 인쇄된 글과 컴퓨터 화면상의 글을 읽는 속도와 내용 이해 정도를 비교하고 국어 교과용 읽기 매체의 다양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미정의 〈사회적 상호 작용 단원의 어휘 사용 양상 연구: 1학년 읽기 교과서의 용언을 중심으로〉는 읽기 교과서에서 '정보 전달', '설득', '정서 표현', '사회적 상호 작용(친교)'과 같은 장르를 접하게 되는데, '사회적 상호 작용(친교)' 영역에서의 어휘 범주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했다. 박수자의 "초등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 고찰"은 2007 개정 〈읽기〉 교과서의 비문학 단원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용 도서의 수준과 제재 선정의 적합성을 분석했다. 박수자의 "초등 읽기 교과서 단원 체제 고찰을 통한 읽기 수업의 전망"에서는 국어과 읽기 교과서 단원 체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읽기 교과서가 지닌 인쇄 매체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책의 출현에 대비한 읽기 수업 설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백정이의 "자기 계발서의 구성에 따른 읽기 교육적 접근"은 자기 계발서 10종을 대상으로 자기 계발서 텍스트의 성격을 살피고, 자기 계발서에서 주장하는 가치에 대한 판단 및 합리적인 내재화가 중요함을 주장했다.

서혁의 "읽기(독서) 교육 체계화를 위한 텍스트 복잡도 상세화 연구

(1): 텍스트 복잡도 연구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는 기존 이독성 공식의 문제와 한계점을 보완하고 텍스트 복잡도를 상세화함으로써 더욱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읽기 텍스트 개발을 지적했다. 안부영의 "교과서에 반영된 '창조적 읽기' 양상"은 〈독서와 문법 Ⅰ〉 4종을 분석한 결과, 창조적 읽기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창조적 읽기에 대해 개념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제기했다. 이경숙의 "초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과정 양상 연구"에서는 그림책에 대한 인식을 넓혀 학교 현장에서 그림책 교육이 폭넓게 수용되어야 함을 촉구했다. 이고운의 〈학년별 읽기 과업 성취에 미치는 제재의 영향력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에서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 능력 향상에 발달적 시기와 글 제재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성영의 "초등 교과서의 이독성 비교 연구: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교과서 개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의 이독성을 비교·분석했다. 이수진·이동배·리차드 발다우프의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분석: 1-4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내재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고 국어 교과서가 폐쇄된 담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선주의 〈중학 국어 읽기 영역 단원 비교 연구: 검인정 1학년 교재를 중심으로〉는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국어과 검정 교과서 〈읽기〉 영역을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조성미의 〈독서 동기 부여를 위한 독서 교과서 개발 연구〉는 읽기의 심화 과정으로 있는 '독서' 교과서를 분석하여 '내재적 독서 동기'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애은의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서사 작품의 적합성 분석 연구"는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서사 작품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교육 과정 측면, 문학적 가치 측면, 학습자 수준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서사 작품 교재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하지영의 〈학습 만화 읽기 활동이 학업 성취도와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는 학습 만화 읽기 활동이 학업 성취도와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학습 만화의 교육적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김대희의 "독서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학습자의 독서 능력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양상을

살피고 독서 능력 위계화의 정의적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지영·박소희의 "초등학생의 책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은 초등학생의 책 선택의 요인을 재구조화하고, 독자의 책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여러 요인으로 범주화했다.

다음으로 읽기 평가 분야의 논문들이다. 박경희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영역의 개선 방안 연구〉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영역의 평가 틀과 평가 문항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서주현의 〈줄거리 요약문의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구연 설화 요약문을 대상으로〉는 줄거리 요약에 관한 논의와 요약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조병영의 "구인 타당도와 결과 타당도 이론이 독서 평가의 해석과 사용에 주는 함의"는 평가 타당도 개념을 독서 교육에 적용하여 타당한 독서 평가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면서 '사회적 결과'라는 개념을 준거로 평가 결과를 분석할 것을 제안했다. 최숙기의 "Rasch 모형을 활용한 요약문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도 분석"은 대안적 읽기 평가 방법인 요약하기를 활용한 읽기 능력 평가의 실시를 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요약문 평가 준거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읽기 영역과 타 영역과의 통합적 논의나 매체와 읽기 관련 연구, 대학에서의 읽기 및 읽기 교육 관련 연구 등이다. 송은정의 〈독서 논술 지도자 양성 연구: 독서 치료의 경험을 중심으로〉는 독서 논술 지도사 양성을 위한 독서 논술 지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소희의 〈매체별 그림책 읽어 주기가 초등학생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은 종이 그림책과 전자 그림책의 읽어 주기 활동이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매체별 장단점이 보완된 읽어 주기용 그림책 개발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재정의 〈연극적 희곡 읽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읽기 교육에서의 희곡 활용 방안으로 공연 효과를 의식한 읽기 활동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김종률의 "사고력 중심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법 연구: 설득을 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을 위해 이전과 현재의 국어과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사고력과 순환적 과정을 반영한 '읽기 사고력 쓰기'의 통합 방식이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김

주환의 “독서 토론이 고등학생의 감상문 쓰기에 미치는 영향”은 마인드맵, 자유 토의, 찬반 토론과 같은 독서 토론 형식이 고등학생들의 독후 반응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자유 토의보다는 찬반 토론이 비판적 사고에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다. 서유경의 “고전 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창의적 독서 결과 표현 연구: 〈심청전〉의 개작본 〈몽금도전〉을 중심으로”는 읽기의 결과를 쓰기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 탐색하면서 읽기가 작문 활동과의 통합 활동을 통해 효과적으로 계발될 수 있음을 밝혔다. 정부자의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부진 아동의 읽기 능력 및 읽기 관련 변인에 대한 종단 연구”는 읽기 장애가 다중 인지의 결함이라는 전제에서 현재 읽기 장애 위험 아동을 판단할 때 쓰이는 중재 반응 모델의 유용성을 주장했다. 정옥년의 “도서의 수준과 도서 선정에 관한 사회적 요인 탐색”은 책 읽기는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문화 산업 종사자, 출판사, 국가를 비롯한 교사와 도서관 등이 도서 수준과 도서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구의 “‘논쟁형’ 독서 토론 방식을 활용한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구조화 방안 연구”는 ‘논쟁형’ 독서 토론과 ‘토의형’ 독서 토론이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방향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호의 “청소년 권장 도서 선정의 비판적 검토”는 1980년대를 거치며 하나의 사회적 제도로 자리를 잡은 청소년 권장 도서 선정은 그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특정 주체임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권장 도서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탐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이황직의 “고전 읽기를 통한 교양 교육의 혁신”은 교양 교육의 역사와 국내외 대학의 교양 교육 강좌의 현황을 살피고 고전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3. 쓰기(작문) 교육

쓰기 교육 분야 역시 읽기 분야와 유사하게 쓰기 및 쓰기 교육의 본질, 쓰기 교육 과정, 쓰기 및 쓰기 지도 전략, 쓰기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쓰기 교재, 쓰기 평가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먼저 쓰기의 개념이나 방향 또는 맥락과 같은 주요 변인과 관련된 쓰기 및 쓰기 교육의 본질을 다룬 연구들이다. 주재우의 〈설(說) 양식

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는 설 양식은 형상성과 예술성을 특징으로 하는 설득적 글쓰기로서 오늘날 쓰기 교육에서 논제 측면뿐 아니라 내용 조직의 다양화를 위한 폭넓은 시야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했다. 주현정의 〈컴퓨터 작문과 지필 작문의 비교 연구: 동일한 필자가 수행하는 두 가지 작문 활동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컴퓨터 작문이 지필 작문보다 작문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후, 작문 연구자와 교사는 작문 결과와 작문 과정에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현의 〈주제에 따른 남녀 중학생 쓰기 수행의 수준 차이 연구〉에서는 쓰기 과제의 주제에 따라 남녀 학생의 쓰기 수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했다. 채현주의 〈초등학생의 쓰기 동기와 쓰기 능력 간 상관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는 쓰기 동기와 쓰기 능력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쓰기 동기와 쓰기 능력 간에는 높은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최숙기의 "Rasch 평정 척도 모형을 이용한 쓰기 불안 척도 분석"는 Rasch 평정 척도를 이용하여 고등학생들의 쓰기 불안을 분석하면서 쓰기에 대한 정의적 요인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가은아의 〈쓰기 발달의 양상과 특성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 면에서 쓰기 발달 양상과 특성을 탐색하고, 쓰기 수행에 미치는 요인을 필자 내적 요인과 필자 외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총체적 관점에서 쓰기 발달을 논했다. 나영은의 "경험담 분석을 통한 쓰기 태도 형성 파악: 정서 요소를 중심으로"는 쓰기 태도는 어린 시절부터 겪어 온 쓰기 경험에 의해 생성되며 그 경험은 가정, 학교, 그리고 학습자를 둘러싼 제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학생들의 경험담 분석을 통해 밝혀냈다.

문광진의 "중학생 쓰기 상위 인지와 쓰기 수행의 관련성 연구"는 중학생의 쓰기 상위 인지를 요인별로 세분화하여 요인별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쓰기 교육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김하정의 〈쓰기 동기 양상에 대한 연구〉는 쓰기 동기 검사를 통해 성별 간 동기 차이는 없지만 동기 수준에 따라 성별 간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쓰기 동기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 및 양상에 따라 달라져야 함을 제언했다. 최보혜의 〈쓰기 활동의 맥락 구체화 방안

연구〉는 학습자의 쓰기 활동과 관련하여 현행 교과서 쓰기 활동의 맥락을 분석하고 교사가 쓰기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맥락 구체화 방향을 제안했다. 김바래의 〈수업 일기 쓰기가 국어과 학업 성취와 학습 태도, 쓰기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수업 일기 쓰기가 국어 학업 성취도, 국어 학습 태도, 쓰기 불안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업 일기 내용의 양과 질에 대한 분석 연구가 필요함을 제언했다. 김지영의 〈소설과 논술의 쓰기 수행 상관 연구〉는 소설 쓰기 능력과 논술 쓰기 능력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다양한 상황 맥락 제시를 통해 긍정적인 쓰기 경험을 쌓도록 유도하는 것이 쓰기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희・이삼형의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에 대한 교육적 이해"는 쓰기에서의 자기중심성을 해석하고, 자기중심성이 쓰기에 작용하는 양상을 분석한 후, 자기중심성이 쓰기 과제 인식과 쓸 내용 생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옥현진・서수현의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 양식 문식성 양상 분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그림일기 분석을 바탕으로 복합 양식 문식성의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누적적이고 지속적으로 길러 주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전인숙의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 구체화가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를 설정하고 수사적 요소의 구체화 정도를 달리하여 쓰기 과제를 설계한 후,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 구체화 정도가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했다.

이재승의 "글쓰기 효능감 연구의 동향"에서는 쓰기 동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쓰기 수행이나 쓰기 효능감에 대한 그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전망했다. 임진선의 〈논설문 쓰기 지식과 쓰기 수행의 관계 연구〉는 논설문을 쓰기 위해 학습 필자가 갖추어야 할 세 가지 지식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검사 도구를 유형별로 제작하여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쓰기 지식과 쓰기 수행의 관계를 분석했다. 방실의 〈학령기 아동의 담화 장르에 따른 쓰기 발달〉에서는 초등학교 2, 4,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이야기 글쓰기와 설명적 글쓰기 활동 후에 쓰기 결과들을 분석하고 쓰기 발달 양상을 탐색했다. 김태은의 〈인문계 고등학생의 서사문과 논술문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 연구〉는 인문계 고등학생에게 서사문과 논술문이라는 비교적 뚜렷한

특성을 가진 두 문종으로 쓰기를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성별에 따라 분석했다. 최건아의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수준을 파악한 후 글 점수와 쓰기 효능감, 글 점수와 결과 기대 수준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면서 쓰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박정진의 "아동 쓰기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이 쓴 5년간의 일기를 통해 아동들의 쓰기 발달 양상이 표현적인 쓰기에서 규범적인 쓰기로 진행됨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김진혜의 〈논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관 요인 분석 연구〉는 성별, 가정의 지원·자극 유형, 논술 사교육 경험 유무, 언어 영역 성적 등 학생들의 논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했다. 오현정의 〈논술문 쓰기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논술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보고, 논술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탐색한 후 이를 체계화해서 제시했다. 김하늘의 〈컴퓨터 환경과 지필 환경에서의 고쳐쓰기 양상 비교 연구〉에서는 고쳐쓰기 활동에 컴퓨터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권재술·손천택·이성흠의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는 글쓰기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이 필자의 비판적 사고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면서 학문적 글쓰기의 의미를 개관했다. 김동우의 『이공계 글쓰기 노하우』는 이공계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예시를 통한 글쓰기 노하우를 소개했다. 양정호·김윤선·육민수·김창원·이봉호의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는 글쓰기의 인지적 과정과 원리를 설명하고 실제적 쓰기 기술을 소개했다. 최명환의 『글쓰기 원리 탐구』는 글씨 쓰기부터 문단 쓰기까지 체계적으로 글쓰기 과정을 설명했다. 허금주의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는 고전 이론부터 최신 이론까지 글쓰기 이론을 개관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글쓰기의 실제를 제공했다.

다음으로는 쓰기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김혜선의 "차기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영역 내용 체계의 방향"은 국어과 교육 과정 변화를 효과적인 개선으로 인식하고 쓰기 교육 과정의 변화 방향을 제시했다. 박수민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내용의 상세화 양상 연구〉는 2007 개정 교육 과정 쓰기 영역에 한정하여 교육 과정 내용 상세화 양상을 살펴보고, 학습의 계열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제

언했다. 박종임의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국어과 교육 과정 내에서 발생하는 태도 범주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논의했다. 서영진의 “쓰기 교육 내용 조직의 위계성 연구”는 2007 개정 초·중등 국어과 교육 과정에 제시된 쓰기 성취 기준의 조직 위계성을 분석하고 글쓰기와 관련된 성취 기준에 대한 학년 배열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도영의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작문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드러난 작문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일관성 부족, 계획과 운용의 구분 모호, 현실성 부족 등이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임을 밝혔다.

이은미의 “2011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문 영역의 발전적 위계화 방안을 중심으로”는 ‘화법과 작문’을 통해 쓰기 교육 과정의 위계를 살피고 2011년 개정 교육 과정 쓰기 및 작문 영역의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이재승의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쓰기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은 작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2007년에 개정된 국어과 교육 과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텍스트 선정의 문제와 실제 중심의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최승식의 “현행 작문 교육과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행의 문제”는 학교별 고사 시험 양상 분석과 작문 과목 담당 교사에 대한 설문지 분석을 통해 2009 개정 교육 과정이 현행 작문 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한경숙의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 검토: 공통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는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의 영역과 기준’ 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학년 군별 세부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을 적합성 측면에서 분석했다.

다음은 쓰기 및 쓰기 지도 전략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읽기 교육과 마찬가지로 쓰기 교육 영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정혜승의 〈쓰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을 위한 쓰기 교수 전략의 효과 비교: 자기 조절 중심의 ‘주장 쓴 글’ 전략, 그래픽 조작자 전략, 모델 학습 전략 중심으로〉는 쓰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을 대상으로 세 가지 쓰기 교수 전략의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쓰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의 글의 질적 향상과 양적 증가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무엇인지 규명했다. 최여지의 〈창의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조 감상 지도〉는 창의적 상상력을 신장하기 위한 시조 감상 지도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를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했다. 김애경의 〈영상 자료를 활용한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논술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는 '지식채널e'를 활용한 쓰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김중신의 "어휘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은 정의적 텍스트 쓰기에서는 논술이나 논문 쓰기와는 달리 창의성과 흥미성이 반영된 텍스트 생산 전략이 사용되어야 함을 논의했다. 김지수의 〈존재적 삶의 태도 형성을 위한 '자각의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는 존재적 삶의 태도를 위한 수업 방안으로 자각의 글쓰기 수업 전략을 제안했다. 김지연의 〈자기 평가 중심 학습이 중학생의 쓰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평가 중심 학습을 통해서 학생의 쓰기 능력 및 쓰기 태도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김현애의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마인드맵 글쓰기를 협동 학습으로 적용하여 학습자의 쓰기 부담감을 줄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박정경의 〈교사의 논평이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등학생의 '설득하는 글' 쓰기를 중심으로〉는 인문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쓰기 결과물에 대한 교사의 논평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박현진의 〈협동적 읽기·쓰기 통합(CIRC) 프로그램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직접 교수법을 활용한 협동적 읽기·쓰기 통합 프로그램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석재명의 〈논설문 쓰기 지도 방안의 경험적 개발 연구〉는 논설문의 형식을 학습하고 내용과 관련된 사유 방법을 익히는 쓰기 프로그램이 논설문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이재기의 "교수 첨삭 담화와 교정의 관계 분석"에서는 첨삭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를 분석하여 교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다. 허성백의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술 쓰기 교육 방안 연구〉는 쓰기에 대한 사회 인지적 관점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했다. 윤성진의 〈과제 표상

교육이 고교생의 논술문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논술문 쓰기에 적합한 과제 표상의 내용과 방식 이해가 고교생들의 논술문 쓰기에 영향을 준다고 제언했다. 양건우의 〈반성적 쓰기가 중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반성적 쓰기가 중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했다. 가은아의 "쓰기 교육에서 상위 인지 조정 전략의 지도 방법"은 상위 인지 조정 전략이 학생들의 쓰기 능력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제안했다. 강민경의 "설명적 텍스트 쓰기 양상 분석을 통한 쓰기 윤리 교육 내용 탐색"은 실제 쓰기 과정에서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 지도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권춘화의 〈초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단계별 지도 과정을 '계획하기-표현하기-고쳐쓰기'의 3단계로 설정하고 적용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했다. 김가영의 〈영상 매체 비평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에서는 소설 텍스트와 영상 텍스트에 대한 비평 텍스트 수용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쓰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했다. 김라연 · 박은경의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석 연구"에서는 독서 감상문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 구성 요소를 찾고 구성 요소별로 명확하게 지도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김정자의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 반응의 의의"는 학생이 쓴 글에 대한 교사 반응을 구어적 반응과 문어적 반응으로 분류하고, 효과적 반응을 위한 방법을 제안했다. 김종옥의 〈이야기 다시 쓰기를 통한 이야기 구조 내면화 지도 방안 연구〉는 이야기 속 인물과 배경을 다시 쓰게 함으로써 인물과 배경이 사건의 전개와 결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학습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제언했다. 김평원의 "프로토콜 분석을 활용한 쓰기 과정 지도 및 평가: 논술 텍스트 생산 과정 모형을 중심으로"는 학생의 논술문 작성 과정 프로토콜 분석을 활용한 수업 모형과 그 효과를 제시했다. 김혜영의 〈〈한중록〉의 기억 구성 글쓰기 방식과 그 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자전적 글쓰기를 할 때 〈한중록〉을 전범으로 기억 구성 원리를 모방 또는 변형이나 첨가하면서 자전적 글쓰기를 완성하는 과정과 교육적 효과를 분석했다. 김혜자의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고찰〉에서는 과학 글쓰기가 과학 지식을 경험과 통합하여 글로 구성하는 과학적 소양 계발에서 매우 중요함

을 고찰했다. 문향은의 〈자기 교정을 활용한 철자 쓰기 중재가 쓰기 부진 학생의 철자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자기 교정을 활용한 철자 쓰기 중재가 쓰기 부진 학생의 철자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민혜정의 〈내용 구조도 전략을 활용한 논술문 고쳐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내용 구조도 전략이 학생들의 자기 점검, 자기 질문, 자기 수정을 통한 고쳐쓰기 능력 향상에 기여함을 입증했다. 박금화의 〈초등학생의 반성적 쓰기 내용 양상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반성적 쓰기 내용 양상을 수준별로 분석했고, 각 수준별 작문 교수-학습 지도 방안을 제안했다. 박미용의 〈학업 성찰 일지 쓰기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 성찰 일지 쓰기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수자의 "초등학교 6학년 다큐멘터리 감상문의 양상"은 다큐멘터리 감상문 쓰기와 같은 학습 과제는 국어 수업에서 학생의 또 다른 잠재 가능성을 발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경의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석 연구"에서는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독서 감상문의 필수 구성 요소 및 이를 중심으로 한 지도 내용과 방법을 제안했다. 방혜진의 〈고전 편지글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은 우리 옛 선조들의 의사소통 방식과 표현 방식을 잘 보여주는 고전 편지글을 살펴보고 이를 현재의 글쓰기 교육 현장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배선태의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협력 학습: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협력 학습은 소통의 과정을 통해 효과적인 쓰기 교육이 가능하도록 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은정의 〈문자 디자인을 통한 한글 문자도 지도 방안 연구: 저학년을 중심으로〉는 문자도를 활용한 한글 문자 지도는 전통 미술에 대한 흥미와 자긍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한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배종용의 〈통합 교과형 논술 교육 적용 방안 연구: 7학년 국어 '설득의 힘' 단원과 과학 '지각 변동' 단원을 중심으로〉는 통합 교과형 논술 교육의 바람직한 지도 방향 및 방안을 제안하고 중학교에서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했다. 신유진의 〈영어 번역 투 문장 다시 써 보기를 통한 국어 문장 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중고등학생의 쓰기에

서 영어 번역 투 사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신은정의 〈구두 작문을 통한 글쓰기 능력과 태도의 변화 연구〉에서는 글쓰기 능력이 미숙한 저학년 학생들에게 구두 작문 프로그램이 글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신인혜의 〈소설을 활용한 쓰기 지도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소설을 읽은 후 실시한 개별 작문 및 소집단 협동 작문이 학생의 쓰기에 대한 흥미와 문장 구성 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신주영의 〈NIE를 활용한 글쓰기: 9, 10 학년을 중심으로〉는 쓰기 워크숍 활동에서 NIE 수업 방법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신희은의 〈고등학생 논문 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을 바탕으로〉에서는 '장르 중심 쓰기 이론'에 입각하여 고등학생 논문 쓰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했다. 심민수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 지도의 효과 연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사적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 지도'가 쓰기 태도, 글쓰기 초인지, 쓰기 능력 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원진숙·황정형·이형호의 "장르 기반 환경적 쓰기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장르 기반 환경적 쓰기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하고 이는 장르 중심 쓰기 교습법과 환경적 교습법이 서로의 한계를 보완하며 기능하는 대안적 모형임을 주장했다. 유혜령의 "작문 교육에서 문장 쓰기 지도의 방향"은 문장이 텍스트의 구성 요소로서 장르적 특성과 텍스트의 응집성까지 표현하는 방향으로 문장 쓰기를 지도해야 함을 제안했다. 윤한국의 〈통합형 문학 논술을 통한 논술 능력 신장 방안〉은 논리 중심적 논술이 아닌 통합형 논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이미정의 〈창의성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동화 바꾸어 쓰기를 중심으로〉는 스캠퍼, 토론·토의법, 시네틱스 기법을 적용한 동화 바꾸어 쓰기 지도 방안을 제안하고 이 방안이 창의성의 요소인 민감성, 융통성, 유창성, 독창성, 정교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이선영의 〈글쓰기 지도에서 내용 생성하기 교수·학습 활동 효과〉는 내용 생성하기의 전략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 전략을 활용한 글쓰기를 지도한 결과를 통해 내용 생성하기 전략의 효과와 선호하는 전략을 밝

혔다. 이점선의 〈일기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 쓰기 지도 방안〉에서는 시 쓰기 활동은 학생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아 주고 언어 사용 능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이정화의 〈문단 쓰기 중심의 '전략적 개요 짜기'를 활용한 초등학교 논술 지도 방안 연구〉는 전략적 개요 짜기 훈련은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논술 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 준다고 주장했다. 이지민의 〈쓰기 워크숍을 활용한 자서전 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쓰기 워크숍 방식을 적용한 자서전 쓰기 교육이 정서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고등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현주의 〈비평적 감상문 쓰기 학습이 아동의 문학 평가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는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비평적 감상문 쓰기 활동을 통한 문학 평가 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인의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 ITC의 활용이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ICT를 활용한 과정 중심 글쓰기가 일반적인 과정 중심 글쓰기에 비해 창의력 신장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이효정의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구조 중심 협동 학습 요소가 쓰기 부진 아동의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과정 중심 쓰기 지도 방법과 함께 단계별로 구조 중심 협동 학습 방법을 활용하면 쓰기 부진 아동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쓰기 태도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말숙의 〈글쓰기 전략 지도를 위한 단계별 자료 설계 연구〉는 과정 중심 글쓰기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회귀성과 통합화를 강조하며,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임창진의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는 신문 칼럼을 활용한 논술 지도가 학습자의 논술 쓰기 능력과 논술 태도 변화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장민철의 〈독서 토론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는 논술 교육의 성격과 위상을 점검하고 읽기와 토론 활동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 교수-지도 학습 모형을 제안했다. 전제응의 "쓰기 워크숍 방식의 고쳐쓰기 지도가 초등학생의 쓰기 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학생들의 쓰기 동기를 높여 주는 고쳐쓰기 지도법으로 쓰기 워크숍 방식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정아름의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문학적 글쓰기 방안 연구〉는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문학적 글쓰기 기법을 활

용한 자아 존중감 향상 활동지를 개발한 후 그 효과를 분석했다. 조희원의 〈장르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쓰기 교육 연구: 자기 소개서 장르를 중심으로〉는 쓰기 전 학습으로 장르 지식의 학습 단계를 설정하고, 이를 자기 소개서 장르에 적용한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서 그 의미를 탐색했다. 황소영의 〈STOP & DARE 전략 지도가 설득적 글쓰기 능력 및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서는 'STOP & DARE' 전략을 이용한 글쓰기 지도를 한 결과 생성된 내용을 조직하는 데에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다음은 쓰기 및 쓰기 교육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여기서 구성원들이란 국어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들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 사회, 교육 행정가 등을 의미한다. 김은경의 〈과학 글쓰기에 대한 초등학교 3, 4학년 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과학 글쓰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과학 글쓰기를 위한 교수 방법을 제공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광진의 "중학생의 문단 쓰기 지식과 인식이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문단에 대한 지식과 인식, 그리고 성별, 학년 등의 변인이 쓰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박광우의 〈받아쓰기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지도 실태〉는 대다수의 교사들이 받아쓰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에서 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박영민의 "국어 교사의 쓰기 평가 효능감 분석"에서는 현직 국어 교사의 쓰기 평가 효능감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교사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쓰기 평가 효능감의 평균이 상승하기는 하였지만, 경력이 6~20년에 속하는 국어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쓰기 효능감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복재원의 〈중학생 논술문에 대한 국어 교사의 논평 연구〉에서는 교사들이 학생 쓰기에 대한 교사 논평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논평을 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서종훈의 "문단 중심 고쳐쓰기 사례 연구"에서는 문단 중심의 고쳐쓰기를 통해 학습자들이 문단을 사고 혹은 의미 단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밝혔다. 서종훈의 "문단 구분과 쓰기 수행 능력 상관관계 연구: 중고등학생들의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에서는 문단 구분 여부가 쓰기에서 주요한 기능 요소이며, 이는 특히 수준과 연령이 낮을

수록 더 유의미하게 작용함을 주장했다. 전예진의 〈쓰기 동기, 쓰기 신념, 가정 환경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는 쓰기 동기, 쓰기 신념, 가정 환경 변인이 쓰기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전인숙의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에 대한 필자의 인식 연구"에서는 필자의 의사소통적 쓰기를 유도하기 위해 수사적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어야 함을 제안했다. 정미경의 "고등학생의 쓰기 전략 인식에 관한 연구"는 쓰기 전략을 어떻게 인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쓰기의 질에 차이가 나게 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다음은 쓰기 교재 및 쓰기 텍스트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김경남의 "근대적 글쓰기 교재의 문장 체제론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 문장 체제론의 성격을 분석하고 문장 체제론 또는 장르론 역시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제기했다. 김민정의 〈현행 작문 교과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작문의 실제' 단원을 중심으로〉에서는 현행 작문 교과서를 분석한 후 작문 교육이 지식에 치우쳐 있고, 학습 활동이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진희의 〈작문에 있어서의 신문 사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야기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는 신문 자료를 쓰기 수업의 자료로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히 제시된다면 실용적인 쓰기 교육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오현아의 "화제-초점 중심의 텍스트 구조 유형화에 대한 고찰: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는 5가지 텍스트 주제 전개 유형을 단순 선형식, 화제부 순환식, 상위 화제 파생식, 초점부 분열식, 화제 비약식 구조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했다. 오세영의 "2011년 도입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쓰기 전략 분석: 자기 주도적 쓰기 전략을 중심으로"는 현행 국어 교과서가 쓰기 전략 제시보다 단순 쓰기 과제만을 제공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은주의 "쓰기 과제에 드러난 내용 요소 분석"에서는 중학교 쓰기 과제를 분석한 결과, 다양한 글쓰기 과제를 제시하고 상호 텍스트성이 활용된 읽기 자료의 선정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정찬의 "작문사(作文史)적인 관점에서 본 근대 초기 작문 교재 연구"에서는 근대 초기의 작문 교재에 나타난 변화들은 역사·문화적인 배경 속에서 때로는 타협의 소산이었음을 지적했다. 주소희의 〈2007년 개정 7학년 수록 상소문 분석 및 활용 방안〉은 교과서에 제시된 상소문을 분석하고, 상소문 교

육의 의의와 활용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쓰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학생의 쓰기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 쓰기 검사 도구 개발, 논술 시험 등에 관한 연구들도 포함된다. 문광진의 "중학생의 쓰기 상위 인지 검사 도구 개발 연구"에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상위 인지를 요인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했다. 원민희의 〈동료 반응 활동을 통한 고쳐쓰기 지도 방안〉은 고쳐쓰기 지도 방법으로 동료 반응 활동을 제시하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고쳐쓰기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주언진의 〈학생 통제 작문에서의 형태 오류에 대한 교사 피드백 유형의 효과〉는 통제 작문에서 교사의 직접 피드백과 간접 피드백의 효과를 검증했다. 손다혜의 〈총체적 쓰기 평가와 분석적 쓰기 평가의 결과 비교 연구: 고등학생 논설문, 설명문, 수필을 중심으로〉에서는 총체적 평가와 분석적 평가가 글의 종류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밝혔다. 이미정의 〈쓰기 상호 평가적 협의에서 또래 간 비계 설정의 양상 연구〉는 소집단 작문 활동을 통한 쓰기 상호 평가적 협의의 단계별 진행 양상을 살폈다. 조재윤의 "작문 평가의 도구와 방법 개선 방향 설정"은 학습자들의 작문 성취를 돕는 평가 도구와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황경화의 〈오류 수정 피드백 유형이 한국 중학교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중학교 학습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피드백 방법을 모색했다. 김준기의 "통합 논술과 인재 선발과의 상관성 고찰"은 통합 논술의 개선 방안으로 난이도 하향 조정과 통합 논술 학습 선택화를 제시했다. 송희영의 〈글쓰기 평가의 시행 방식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컴퓨터식 글쓰기 평가와 지필식 글쓰기 평가가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오현아의 "학습자 중심 작문 평가 결과 제시 방식에 대한 고찰"은 학습자 중심 작문 평가 결과 제시 방식의 원리를 제안했다. 이수진의 "쓰기 직접 평가를 위한 텍스트 분석 평가의 실행 방안"은 텍스트 분석 평가 방식으로 쓰기에 대한 직접 평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은숙의 〈평가 예시문을 활용한 쓰기 평가 신뢰도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쓰기 평가자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쓰기 평가 방안으로 평가 예시문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재기의 "학생 필자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반응 중

심' 작문 평가"는 작문 평가는 해석 텍스트에 근거한 진지한 반응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혜란의 "시 창작 지도에서 피드백 방법 연구"에서는 어린이 시의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단계적 피드백으로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쓰기와 타 영역과의 통합, 쓰기 실태, 대학의 쓰기 교육 등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들이다. 최상민의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활용 문제"는 대학생 글쓰기 지도를 위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활용 실태를 분석했다. 김정미의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은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활용한 논술 지도를 주장하면서 그 지도 절차를 제시했다. 박현이 · 김화선의 "협력 학습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는 담화 공동체를 활용한 글쓰기 전략을 제안했다. 김준희의 "'자기'에 대한 이해의 글쓰기 교육 연구"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인문학적 글쓰기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신성환의 "통섭(通涉)의 학문으로서의 '글쓰기 인문학'과 효율적인 평가 방안"에서는 대학 교양 교육으로서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신현규의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은 '신입생 학습 능력 평가 및 선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건아의 "대학의 전공 쓰기 과제 분석"은 전공별 쓰기 규범 특성을 고려한 쓰기 교육 과정의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현진의 "대학 신입생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고찰"은 자기 소개서 쓰기 교육이 결과 중심의 첨삭보다는 쓰기 과정을 강화하고 독자를 고려한 쓰기가 되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옥현진의 "작문 연구의 국제 동향 분석과 대학 작문 교육을 위한 시사점"에서는 대학 작문 교육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찾기 위하여 작문 교육의 최근 국제 동향을 분석했다. 이은주의 "독서 토론과 연계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효과: 덕성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기 위해 독서 토론과 병행하는 글쓰기 방법을 제안했다.

박상민 · 최선경의 "첨삭 지도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과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법"에서는 '글쓰기' 교양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첨삭 지도에 대한 인식을 설문 조사했다. 이재성의 "'강의-실습-과제' 연계 대학 글쓰기 교육 모델 연구"는 대학 글쓰기 과목의 교재를 분석하여 강

의-실습-과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수 학습 방법을 도출했다. 조희정의 "대학 교양 수업의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는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비평문 쓰기 교육을 위해 '상호 텍스트성 전략'과 '5W+1H를 활용한 질문 전략'을 제안했다. 조희정·이희영의 "공과 대학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연구: 제안서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는 공과 대학 학습자들이 프로젝트 과제형 글쓰기에서 겪는 어려움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임춘택의 "전공 탐색과 진로 모색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전략과 지도에 관한 한 방안"은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전공 탐색과 진로 모색을 주제로 한 글쓰기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했다. 곽경숙의 "대학의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한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이 대학생의 감성적 교감에 효과적임을 주장했다. 김남미의 "TA(teaching assistant) 교육 원칙과 방안: 대학의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는 학습자의 창의적 사고 계발을 위한 체계적 전략으로서 TA의 필요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박호관의 "대학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는 '교양 국어' 관련 교과목의 교육 내용과 교수-학습 방법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조재윤의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 조사 연구"는 '사고와 표현' 교육의 방향, 내용 및 방법에 대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논의했다. 윤재연의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는 대학 글쓰기에서 비판적 사고가 중요시되는 상황에서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가 비판적 읽기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표정옥의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경계를 넘는 독서 토론과 융합적 글쓰기 연구: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술된 다문화 상상력을 중심으로"에서는 〈삼국유사〉의 융합적이고 통섭적인 연구를 위한 토대로서 독서 토론과 글쓰기를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양영희·서상준·손춘섭의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시행하는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에 소비자의 필요에 맞춰 공문서에 특화한 어휘 및 형식 교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순희의 "문학적 글쓰기를 통한 총체적 사고력 신장 방안: 국어 영재아 대상 소집단 협동 작문을 중심으로"는 국어 영재아 대상

소집단 협동 작문을 통해 교과 영역 간 통합 활동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진아의 〈블로그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와 학습 태도 효과 분석: 중학교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접근 연구〉는 블로그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 활동이 학습자들의 학습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김종률의 "논술문 형성 시기에 관한 연구: 고차적 사고의 관점에서"는 고차적 사고의 관점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논술문은 2세기경에 형성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옥희의 〈논리적 글쓰기에서 말하기를 활용한 조직하기의 실행 연구〉는 말하기를 활용한 내용 조직하기 활동을 통해 글쓰기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애의 〈중학생 작문 자료에 나타난 조사의 오류 분석〉은 중학교 3학년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조사의 오류 양상을 분석하고, 쓰기와 문법 개념을 통합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종철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에서는 작문 교육과의 통합적 입장에서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을 탐색했다.

김영심의 "초등학생의 문학 비평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문학 감상과 비평문 쓰기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정호의 〈범교과적 쓰기를 활용한 내용 교과 문식성 신장 방안 연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범교과적 쓰기 지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안했다. 김화순의 〈마인드맵 독서 전략을 활용한 국어 수업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마인드맵 독서 전략 활용을 통해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접근을 시도했다. 박수자의 "비문학 독서 감상문의 인용 양상 고찰"은 비문학 독서 지도의 활성화 방안으로 비문학 독서와 독서 감상문 쓰기의 연계를 제안했다. 이지민의 "문학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논설문 쓰기 양상 연구"에서는 문학 독서를 활용한 논설문 쓰기 학습의 효과를 분석했다.

2.4. 문법 교육

2011년 개정 교육 과정이 문법을 중심으로 한 지식 교육을 강조하면서 문법 교육 분야의 연구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문법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과정과 같은 문법 교육의 본질에 관한 연구가 과거보다 늘어

났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문법 교육의 본질 및 문법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여기에는 문법 교재와 관련된 연구들도 포함된다. 박진홍의 〈초등학교에서 띄어쓰기의 교육 과정 수용 방안〉에서는 문법적인 지식이 띄어쓰기 능력의 핵심임을 강조하면서 교육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주호의 "2011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에서는 2007, 2009, 2011 개정 교육 과정의 '문법' 과목을 검토하고 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제안했다. 오영신의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내용 분석"에서는 6종의 문법 교과서를 내용상 연계성과 내용 제시 방식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주신혜의 〈통합적 문법 교육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통합적 문법 교육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문법 영역과 언어 사용 기능 영역의 통합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홍경화의 〈통일 대비 문법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북한 이탈 학생들의 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는 통일 이후 학습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문법 교육의 방향을 논의했다. 김슬옹의 "국어 교육을 위한 근대 국어 시대 구분론"에서는 현재의 국어사 시대 구분이 문법사 위주라는 점을 문제 삼고 이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김은진의 〈피동 표현 단원의 개선 방안: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에서는 피동 표현이 제시된 6종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문희정의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분석: 7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에서는 7차 교육 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의 문법 영역 학습 내용의 변화를 분석했다. 박경희의 〈문법 교과서의 단원 선정과 배열 방안 연구〉에서는 현행 중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의 단원 선정 및 배열 방식 등을 분석했다.

박정진의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문법 영역의 교과서 실행 양상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단원을 교수-학습의 흐름에 따라 구성 체제별로 분석하여 문법 단원의 교육 과정 실행 양상을 논의했다. 오현아의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에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 강조되었던 '맥락'이 국어 문법 교육에서 잘 구현되고 있는지 논의했다. 윤지선의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품

사 단원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을 학습 내용 전개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관규의 "문법 교육의 인식 변화와 문법 교재의 양상"에서는 독서와의 통합에 기반을 둔 문법 교재의 개발 방향에 대해 실제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탐구 활동이 강조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이관규・신호철의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에서는 어문 규범 단계별 교재의 개발 방향을 논의하고, 어문 규범 교재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 방침과 세부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특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 같은 성격을 바탕으로 국어 어문 교재가 지니는 특성을 내용면과 구성면에서 제시하였다. 또한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어휘 선정 원리에 대해 논의하고, 어문 규범 항목의 단계 설정 기준을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바라봄으로써 어휘 등급을 설정하는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영호의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맞춤법 교육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단원 편제 방식, 단원 학습 내용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임소라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비교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개정 교육 과정과 중학교 1, 2학년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구현 양상을 비교・분석했다. 임양경의 〈중학교 국어과 검정 교과서 품사 단원의 비교와 분석〉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품사' 단원을 분석했다. 장신영의 〈통합적 문법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 구성의 실제: 2010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2010년 개정 교과서의 문법 단원을 분석하여 통합적 문법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을 제시했다.

정병철의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문법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에서는 기능주의 언어학 기반의 문법 교육이 인지 언어학 기반으로 보완되어야 함을 제언했다. 정하나의 〈고등학교 국어과 문법 교과서 분석〉에서는 학교 문법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 과정에 따른 「문법」 교과서를 분석했다. 조수정의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방안 연구: 6차-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에서는 문법 교육이 지식만이 아닌 '사용'을 중심으로 한 교육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주세

형・조진수의 “텍스트 이해 양상 진단 도구로서의 문법”에서는 학습자의 쓰기 결과물에서 학습자가 사용한 문법 장치를 통해 독해 능력을 진단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고울의 〈국어과 검인정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 관한 연구: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설문 조사를 통해 현장 교사의 관점에서 문법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최규홍의 “초등학교 문법 단원 구성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법 단원 구성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최윤선의 〈중학교 품사 단원 비교 분석: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품사 단원의 편재, 단원명, 학습 목표, 본문 텍스트와 학습 활동의 구성 등을 중심으로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분석했다. 한영옥의 “문법 교육의 현실과 지향”은 현재의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허재영의 “문법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가치 범주 설정 가능성”은 문법 영역의 내용 체계 구성 방안 중 하나로 ‘가치 범주 설정’을 제안했다. 허재영의 “근대 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은 근대적 교육 제도 및 개념이 어문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허재영・이규범의 “어문 규범 교재의 실제”는 기존의 어문 규범 교재 실태를 파악하고, 〈어문 규범의 단계별 교재〉의 체제와 내용을 소개했다. 권지현의 〈고등학교 국어 과목 내 문법 단원 분석〉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문법 영역의 성취 기준에 맞게 단원 구성을 갖추었는지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미정의 〈문법 영역의 내용 특성에 따른 교과서 구현 방향 연구〉는 학습자가 문법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교과서는 문법 내용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구본관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는 어휘가 습득 대상이라기보다 학습 대상임을 밝히고 어휘 교육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본관의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어휘 교육의 현실태로서 초등학교를, 가상의 이상태로서 중학교를 설정하여 어휘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김부연의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어과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해례본은 문자 훈민정음의 창조 원리와 창조 방식을 분명히 보여 주기 때문에 국어 교육 내용으로 적합함을 논의했다. 김소연의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교육 내용 연

구: 10학년 검인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문법 교육에서 담화의 가치를 소개하고 바람직한 내용 구성 방안을 모색했다. 김수정의 〈'훈민정음'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는 '훈민정음'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국어 생활사 측면에서 네 가지 교육 내용을 제시했다. 남가영의 "초등학교 문법 문식성 연구의 과제와 방향"은 '문법 문식성'의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문법이 음운이나 철자 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신명선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어휘 교육 내용 체계화'를 위해 '소통성과 문화성', '인지성과 정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을 논의했다. 손은실의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단원 연구: 통합적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는 문법 단원을 분석하고 언어 생활의 예를 활용한 활동 중심의 교과서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현미의 〈국어과 문법 영역의 실현 양상 연구〉는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2학년 검정 교과서를 문법 영역의 구성 방식, 내용 제시 방식, 성취 기준에 따른 내용 요소로 분석했다. 더불어 효율적인 단원 구성 방식, 효과적인 내용 구성 방식 등 검정 교과서 문법 영역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양순임의 『말소리: 학교 문법의 이해』는 표준 문법으로서 학교 문법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고찰했다.

다음은 문법 지도 전략(방법)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창근의 "맥락을 고려한 초등 문법 교육: 문장 쓰기를 중심으로"는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쓰기 영역과 관련지어 맥락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논의했다. 이창수의 〈국어과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 연구: 초등 어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는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어휘 교육의 내용을 검토했다. 강지혜의 〈문법과 작문의 통합 지도 방안 연구: 논술문에 드러난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는 문법과 작문의 통합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을 개발하여 제안했다. 고정은의 〈고등학교 학생의 높임법 사용 실태에 따른 지도 방안 연구〉는 고등학생들의 높임법의 사용 실태를 질문지법을 통해 분석하고 높임법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곽유정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문 규범 교육 방안〉은 초등학교 6학년의 어문 규범 인식 정도를 밝히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구본관·신명선의 "원리 중심의 문

법 교육에 대한 연구"는 문법과 원리의 관계를 논의하고, 문법이 학교 교육과 만나는 지점들을 제시했다. 권미정의 〈고등학생의 연결 어미 지도 방안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연결 어미 사용상의 특징과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그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훈의 "독서 연극을 통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 이야기 활용 문법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은 독서 연극을 이용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

김미연의 〈인터넷 통신 언어를 활용한 문법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인터넷 통신 언어에 초점을 맞추어 통신 언어의 다양한 유형과 문법적 특성들을 실제 자료들을 통해 분석했다. 김민경의 〈국어 문법 영역의 평가 방법 연구〉는 국어 문법 영역의 평가는 단편적인 언어 지식 그 자체보다는 탐구 과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김인혜의 〈띄어쓰기의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는 고등학교 1학년 띄어쓰기의 5가지 오류 형태를 제시하고, 직소(Jigsaw) 모형을 활용한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김중진의 〈틀 의미론과 코퍼스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어휘 학습 지도 방안 연구〉는 틀 의미론과 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교수-학습 설계로 체계적 어휘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지수의 〈중학교 〈생활 국어〉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에서 탐구 학습 모형의 가능성을 탐색했다. 김진혁의 〈낱말 형성법의 지도 방안 연구: 8학년 2학기 2단원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를 중심으로〉는 낱말 형성법의 개념과 특성, 유형을 정리하고 새로운 낱말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류예지의 〈낱말밭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법 연구〉는 어휘 교육 실태를 살피고, 낱말밭을 활용한 교육 방법의 개념과 유용성을 제안했다. 박보현의 "중세 국어 의문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는 중세 국어 의문문을 국어사 교육 내용으로 선정하고 '학습 방법의 다양성, 과제의 유용성, 자료의 친숙성과 완결성' 등을 고려해 그 실제를 제시했다. 박지훈의 〈고등학교 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는 관용 표현의 범주를 설정하고 관용 표현의 교육적 가치와 교육 내용을 고찰했다. 박진의 〈'문법' 영역의 교육어 사용 양상 분석: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중 화법을 중심으로〉는 '교육어'의 개념을 정리하고 실제 수업 사

례를 대상으로 교육어의 사용 실태를 분석했다.

박형우의 "'문법' 영역 수행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은 중등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통해 문법 영역이 수행 평가로 적절하지 않다는 교사들의 인식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방실이의 〈중·고등학교 띄어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는 현행 중·고등학교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나타나는 띄어쓰기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생의 오류 분석을 통해 띄어쓰기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송수현의 〈문제 중심 학습에 기초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 '품사'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는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화를 위해 문제 중심 학습 모델 활용을 제안했다. 신은정의 〈평가 문항을 이용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은 문법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교수 내용을 재구성하여 탐구 학습과 설명식 수업을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논의했다. 안찬원의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른 한글 자모 교육"은 초기 독서 단계의 아동을 위해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에 따라 한글 지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선미의 〈연계성 중심의 고등학교 중세 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는 중세 국어 문법 교육에서 고전 문학이나 현대 국어 문법과 같은 타 영역과의 연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관규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은 어휘력은 문법을 포함하여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통합적인 교수-학습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의했다. 이도영의 "어휘 교육 평가의 이론적 고찰: 목표와 내용 타당도를 중심으로"는 어휘 교육 평가를 위해서는 어휘력의 여러 구성 요소 중 필수 요소를 추출해야 하고, 평가 어휘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 탐색해야 함을 제안했다. 이상은의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3년간 미시적 차원의 변환을 중심으로〉는 문법 영역에서 '교사의 성찰'이 어떻게 수업에 환류되고 변화되는지를 분석하고 문법 교육에의 시사점을 모색했다. 이은희의 "문법 평가의 현황과 과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는 평가관의 변화에 따른 실제 교육 현장의 문법 평가의 현황을 검토하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은희의 "문법 평가의 영역 통합적 실현 양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는 성취 기준과 평가 문항이라는 두 측면에서 문법 평가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고찰했다. 이주영의 〈뇌 기능 특성에 따른 문법 교과서 학습 활동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심화 선택 과목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는 7차 심화 선택 과목 '문법'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의 좌·우반구 활동 수를 분석했다. 이지혜의 〈이야기를 활용한 문법 교수 방안 연구: 품사의 종류와 문장 성분 단원을 중심으로〉는 이야기를 활용하여 문법 용어를 설명하는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했다. 장희선의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환경을 활용한 문법 수행 평가 방안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을 활용하여 중학교 국어 문법 수행 평가를 구안·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정유정의 〈중학교 국어과 문법 영역의 '집중형 탐구 학습'에 대한 연구〉는 문법을 지식 습득의 대상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탐구 과정에 초점을 둔 집중형 탐구 학습의 구체적인 과정을 제시했다.

주세형의 "국어과 문법 평가 이론의 발전 방향"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를 이용하여 '문법 평가 틀'을 비판함으로써 문법 평가 틀이 정교함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주세형·신호철의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원리"는 학교 교육에서 어문 규범 교육의 현황과 한계점을 지적하고, 학교 급에 따른 적합한 어문 규범 교육을 논의했다. 최규홍의 "초등학생의 맞춤법 지도 방법 연구"는 초등학생 맞춤법 오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향성을 토대로 한 맞춤법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최세영의 〈연결 어미 지도를 통한 문장 구성 능력 신장 방안 연구〉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문장 구성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결 어미 사용 교수 방안을 제안했다. 최혜진의 〈한자어 지도를 통한 국어 어휘력 향상 방안〉은 한자어를 중심으로 문맥적 정보를 통해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의 음과 뜻을 문맥적 정보로 활용하여 의미를 추론하는 활동이 어휘력 향상에 효과적임을 입증했다. 윤자경의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제천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는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가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을 반영하는 기발한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크다는 점에서 올바른 언어문화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은 문법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우선 발음 및 음운, 음절, 품사, 어휘, 의미, 문장, 문법 범주, 규범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송현주・최진아의 "인지 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 표현 교육 연구"는 관용 표현 교육의 현황과 한계를 꼬집고, 인지 언어학에 기반을 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윤구희의 "문장 부호 '따옴표'의 국어 교과서 사용 실태 분석: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이후의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문장 부호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이승왕의 〈초등학교 국어 규범 교육 내용 연구〉는 효과적인 국어 규범 교수-학습을 위해 인지적・정의적 요소와 함께 사용 중심의 원리와 상호작용 중심의 원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희창의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은 한글 맞춤법 교육에서 '역사적 표기법'을 활용하기 위해 국어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먼저 다루고 표기법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진주의 〈학교 문법의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 연구〉는 부정 의문문의 대답 방식에 혼란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 내용이 학교 문법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밝혔다. 권화영의 〈국어 문법 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보어 설정을 중심으로〉는 현행 학교 문법에서 개념이 불명확한 보어에 대해 탐구 학습 모형과 토론 학습 모형을 적용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보어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건희의 "시간 관련 범주(시제, 상, 양태)의 문법 교육"은 시간 관련 문법 범주 연구(시제, 상, 양태)의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한 통합적인 문법 기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선애리의 〈고등학교 문법에서의 부사형 어미 연구〉는 2007・2009 개정 교육 과정에서 어말 어미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비종결 어미에 초점을 맞춰 어말 어미 체계 수립을 제안했다. 송순이의 〈중등 학습자를 위한 문장 부호 교육 내용 연구〉는 문장 부호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탐구 중심 문장 부호 교육 내용을 제안했다. 이래호의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남희의 〈겹받침 발음의 사용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는

표준 발음법, 교육 과정,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겹받침 발음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겹받침 발음의 사용 실태 양상을 조사했다. 김수정의 〈문장 발화 수준의 발음 교육 연구〉는 국어과 교육 과정 중 발음 교육의 연계성, 체계성, 지속성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교육 내용의 위계화를 주장했다. 이하나의 〈현대 국어에서 새말의 형성 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는 새말의 형성 양상을 살펴보고 교육적 가치를 밝혔다. 윤천탁의 "'공정한 어휘' 사용의 생활화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은 공정한 어휘란 무엇인지에 대해 밝히고 공정한 어휘 사용을 장려하는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수의 "어휘 교육 연구 어디까지 왔나"는 어휘 교육 연구사를 검토하고 앞으로 필요한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을 논의했다.

강연임의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 양상과 국어 교육적 개선 방안"은 대중가요의 노랫말에 나타나는 외래어의 문제를 살피고 그 개선책을 모색했다. 신승용의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는 형태론에서의 '구'와 통사론에서의 '구'에 대한 개념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처리 방안을 모색했다. 최소영의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는 국어 교육에서 국어 문화로서의 어휘사를 제안하고 어휘사의 교육적 가치를 논했다. 정영복의 "국어 교과서의 반의어 내용 구성 방안"은 반의어 쌍을 제시하는 반의어 학습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학습자의 발달 단계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형기의 "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은 품사 통용이 어떻게 처리될 수 있는가를 탐구하는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실제 문법 수업에 적용될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경미의 〈피동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4차 교육 과정 시기부터 7차 교육 과정 시기의 교과서에 나타난 피동 표현에 관한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신호철의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 양상 조사"는 설문 조사를 통해 중고등학생의 모호한 문장 부호 사용 실태를 지적했다. 임성규의 "'ㅖ, ㅒ' 발음의 교육 방법 연구"는 'ㅖ, ㅒ'의 잘못된 발음이 문자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사 양성 교육에서 발음과 문자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규의 "'ㅖ, ㅒ' 표기의 교육 방법 연구"는 'ㅖ, ㅒ' 표기의 오류를 교정하고 올바른 표기를 교육하기 위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며 실제 활용 가능한 문법 지식이 필요함을 논의했다. 김민정의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명사 발달: 명사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는 4, 6, 8학년들을 대상으로 언어 표본을 수집하고 각각의 텍스트를 기반으로 명사 밀도, 각 명사의 분포, 비추상 명사의 비율, 추상 명사의 비율 등을 분석했다.

다음은 담화 및 텍스트, 북한어 및 방언, 사전, 국어 생활사 등에 관한 연구들이다. 조현자의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는 문학 방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실제 방언 교육 현황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형의 "언간을 통한 국어 생활사 교육 연구"는 국어 생활사 교육의 성격과 목표를 명확히 하고 언간을 통한 국어 생활사 교육의 방안을 교재화를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춘화의 "국어사 교육 내용의 실현 양상과 교육 방법 연구"는 국어사 교육이 언어적 탐구, 문화의 창조, 고차원적 사고의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가영의 "문법 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는 문법 교육 내용을 논리적으로 표상한 '문법 교육용 텍스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문법 교육용 텍스트의 지속적인 발굴을 강조했다. 정병철의 "수사학적 문법의 인지적 토대"는 수사학적 문법의 특징과 체계를 살펴보고 인지 언어학이 수사학적 문법 체계에 토대가 될 수 있음을 논의했다. 제민경의 "텍스트 중심 문법 교육의 방향 탐색: 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는 텍스트는 사회·문화적 맥락이 총체적으로 수용된 것으로서 텍스트 중심 문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허선익의 "담화에서 지엽적인 의미 연결 인식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는 담화의 구성 원리 가운데 통사 결속과 의미 연결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무의식적으로 의미 연결 유형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안희은의 〈언어 인식 능력 신장을 위한 지역 방언 교육 방안 연구〉는 언어문화의 발전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언의 교수-학습 방안을 모색했다. 이승희의 "조선 시대 한글 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은 한글 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의 가능성을 친족 간의 호칭어와 지칭어 의미의 변화, 관계에 따른 청자 높임법 사용 양상의 차이, 전통적 수사와 관용 표현 측면에서 제시했다. 장영순의 〈신어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는 신어의 특

징을 유형화하고 이를 활용하여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강보선의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북한 어휘의 적절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마지막으로 문법과 타 영역과의 통합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들이다. 조현명의 〈문법 교육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독해 수업만을 진행하였을 때와 독해 수업과 어순 관련 문법 수업을 함께 진행하였을 때를 비교하고 어순 관련 문법 교육이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송원영의 〈문법과 읽기의 통합 양상에 대한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 및 '교수-학습 내용 요소'를 통해 문법과 읽기의 통합 양상을 논의했다. 홍선미의 〈이어진 문장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쓰기 능력 신장을 중심으로〉는 문법 영역의 관점에서 이어진 문장의 교육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유혜령 · 김성숙의 "문법 능력과 작문 능력 간의 상관성 고찰: 고등학교 1학년생의 논술문을 중심으로"는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문법 능력과 작문 능력 간의 상관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법 능력이 작문 교육에서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5. 문학 교육

문학 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교육 과정과 교재에 관한 연구가 많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먼저 문학 교육의 본질(개념, 방향, 성격, 내용) 및 문학 교육 과정에 관한 연구이다. 여기에는 교재 연구나 문학 비평 또는 작품 분석 등이 포함된다. 김은진의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신라초'를 중심으로〉는 '신라초'에 수록된 설화 수용 시를 바탕으로 교육적 활용 방안을 찾고, 설화 수용 시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시에 친숙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김정미의 〈고등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시의 현황과 적절성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시를 중심으로〉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시를 비교 · 분석함

으로써 고등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김지영의 〈분단 소설 지도 방안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 7·8학년 〈국어〉를 중심으로〉는 국어 교과서에 분단 문제와 통일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더 많이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혜의 〈중학교 1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양상 연구〉는 현행 검정 교과서에 국정 교과서 때보다 훨씬 다양한 문학 작품들이 수록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주장했다. 김학찬의 〈김승옥 소설의 화자 연구: 청년 화자 '나'와 그 교육적 가치〉는 김승옥 소설의 화자를 '청년 화자 '나'"라는 서사 유형으로 정리하고, 문학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향연의 〈영화 서사 이해 교육 방법 연구〉는 문학 교육에서 영화 서사 교육의 가치에 주목하고 영화 서사 이해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제안했다. 김현주의 〈창작 교육 제재로서의 〈토끼전〉 연구〉는 〈토끼전〉의 교육 제재로서의 가치를 살피고, 판소리계 소설로서의 열린 서사 구조 및 우의적, 풍자적 면모, 환상성 등을 통해 창작 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박연하의 〈문학 교과서 수록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그 교육 방안〉은 문학 교과서에 실린 여성 작가의 세 소설 〈토지〉, 〈엄마의 말뚝 1〉, 〈외딴방〉에 나타난 여성상을 분석했다. 박은영의 〈성장 소설의 서사 모형을 통한 황순원 소설 연구: 황순원의 성장 소설 중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는 성장 소설의 서사 모형을 분석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교수-학습 방법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지연의 〈수용사적 관점에서 본 주몽 신화에 대한 남북의 교육용 도서 비교 고찰〉은 주몽 신화에 대한 남북의 수용 과정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남북의 통합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했다.

선주원의 "다문화 소설에 형상화된 유목적 존재들의 삶 이해를 통한 소설 교육"은 다문화 소설을 읽음에 따라 독자의 주체적, 비판적 읽기 능력 신장을 유도할 수 있고 다원화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다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주원의 "이야기 유형을 활용한 옛이야기 수업(교육) 방법"은 어린이 학습자들의 서사 구성 능력 증진과 옛이야기에 표현된 보편적 인간 심성을 자신의 삶과 연계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성현수의 〈고등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시의 현

황과 적절성 분석: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검인정 고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고등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시의 현황을 파악하고, 작품 수록의 적절성에 대해 교육 과정의 반영, 학습 난이도, 학습 흥미도 측면에서 논의했다. 신소라의 〈상호 텍스트성에 의한 현대 시 교수법 연구: 제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서정주의 시 작품을 중심으로〉는 주제와 제재 측면의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교과서에 실린 서정주의 시 작품들 간의 상호성을 분석했다. 신은혜의 〈성장 소설의 교육 연구〉는 성장 소설의 개념 및 특성과 함께 성장 소설 교육의 목적과 의의를 논의했다. 양미영의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10학년 16종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문화 교육 요소를 추출하여 국어 교육적 측면에서 이를 분석했다. 양혜미의 〈청소년 소설에 대한 맥락 중심 교육〉은 국어 교육에서 맥락의 의미를 검토하고 청소년 소설 문학의 이론과 교육 방법을 논의했다. 엄지은의 〈생태 시 교육 방법 연구: 백석 시의 경우를 중심으로〉는 백석의 시를 생태 시 교육 텍스트로 선정하고 백석 시에 깃든 생태학적 상상력의 의미망을 추출했다. 우문영의 〈비평 교육의 방법 연구〉는 교과에서 활용되고 있는 비평 교육의 방법 중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하여 비평적 학습자의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유진경 〈김승옥 소설의 교육 방안 연구: 7차 교육 과정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는 협동 학습을 지향하는 대화 중심 교수-학습을 근거로 김승옥 소설 교육에 알맞은 협동 학습 모형을 설계했다.

장정순의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수업이 학습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는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교수-학습이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문학 감상 능력을 향상시키는가를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정우영의 〈초등 국어과 옛이야기 교육 연구〉는 옛이야기가 무엇인지 밝히고 학습 제재로 선정하고 배열하는 기준과 방법, 교수-학습 과정에서의 활용 방안 등을 제시했다. 정유정의 〈텍스트 간 관계성을 활용한 현대 시 교육 연구〉는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시의 의미를 구성하고 내면화할 수 있도록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현대 시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정정순의 "맥락적 지식 중심의 한시 교육: 두보의 〈春望〉을 중심으로"는 '소통론적 관점'으로 볼 때 문학 교육에서 필요한 것은 '맥락적

지식'이라고 제안하고 특히 외국 문학을 다룰 때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형근의 "'전통 계승 시'의 유형과 교육 방법"은 선행 텍스트와 '전통 계승 시'를 쓴 시인의 개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리파테르의 텍스트 생산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전통 계승 시의 유형과 교육 방법을 밝혔다. 조춘화의 〈창작 판소리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연구: 김명자 작 〈슈퍼댁 씨름 대회 출전기〉를 대상으로〉는 통합적 측면에서 교재 내용을 구안하여 적용했을 때 판소리에 대한 이해와 흥미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최미숙의 "문학 교과서와 재외 동포 문학 교육: 조선족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는 문학 작품 이해와 표현 교육의 차원을 더욱 보강해야 하며, 재외 동포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서 다양한 재외 동포 문학을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윤정의 〈고등학교 문학사 교육 개선 방향 연구〉는 문학사 교육이 문학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통해 개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레반리엠의 〈한국·베트남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비교 연구: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현대 소설의 분석을 통해 문화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류선중의 〈제7차 국어과 문학 교육 과정 연구: 창작 교육을 중심으로〉는 수시 개정 체제의 기본 바탕이 되는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을 문학 영역 특히 창작 교육에 초점을 두고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탄 반 찐의 〈한국과 베트남 국어 교과서 수록 시 작품 비교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는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시를 소재적 측면과 주제적 측면으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했다. 김은정의 〈손곡 시의 문학 교육적 기능 연구〉는 개정 7차 교육 과정에서 명시한 문학 교육의 목표를 바탕으로 손곡의 시에 나타난 문학 교육적 기능에 대해 논의했다. 김지희의 〈초등 교과서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의미 분석〉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전래 동화와 창작 동화 9편을 선정하여 아버지 부재 유형을 분석했다. 류경미의 〈소설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7차 개정 중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소설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밝히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재영의 〈반응 중심 시조 교육-학습 방법 연구〉는 현재의 시조 교육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반응 중심 문학 교육 이론을 시조 교육에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조지향의 〈소설의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지도: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는 사회·문화적 맥락 중심 읽기 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소설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간'과 '공간' 개념을 이용한 문학 읽기 지도 방법을 제안했다.

한선희의 〈신경숙 소설의 문체 교육 연구: 〈외딴방〉과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는 문체에 대한 인식과 분석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신경숙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문체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나혜정의 〈플롯을 통한 소설 교육 방안〉은 플롯의 다양한 개념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플롯 교육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광염 소나타'를 예로 플롯 교육의 바람직한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곽춘옥의 "초등 상업용 문학 도서의 현황과 지향점"은 상업용 문학 도서가 어린이들보다는 어른들에 의해 선택되므로 문학 도서 선정 과정에서 어른들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민보람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 시 텍스트 분석: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는 7차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해 편찬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중 '문학의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는 성취 기준을 반영한 단원의 시 텍스트를 분석했다. 박국원의 〈고전 소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고찰과 그 제언〉은 과거와 현재의 고전 소설 교육을 교육 과정, 교사, 학습자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박나리의 〈교과서에 수록된 서정주 시 분석과 교육적 의의 연구〉는 서정주의 작품들이 교과서에 어떻게 수록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서정주의 시가 보이는 특징을 중심으로 교육적 가치를 논의했다. 배다혜의 〈2007 개정 7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의 '자전거 도둑' 연구〉는 '자전거 도둑'의 수록 양상 분석을 통해 교육 과정과 교과서가 소설 교육에서 지향해야 하는 교육 목표 및 방향을 살펴보았다. 배윤민의 〈중학교의 〈소나기〉 소설 교육 연구〉는 〈소나기〉 단원을 교육 과정 내용의 반영도, 단원의 구성도, 문학 교육적 가치의 실현 정도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백안나의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연구: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는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개별 작품들이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수록되어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조

사했다. 변지윤의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활성화를 위한 〈흥부전〉 교육 연구〉는 문화적 차이에 대한 지식보다는 상황을 분석하여 맥락에 맞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활성화하는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 해결 방안으로 〈흥부전〉 활용을 제안했다.

변혜진의 〈윤흥길 소설 교육 연구: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을 중심으로〉는 윤흥길의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를 분석하고 연작과 시점이라는 형식적 특성이 작가가 담지하고 있는 주제적 특성과 결부하는 양상을 분석했다. 서민정의 〈가치 수용적 심미 체험을 위한 문학 교육 연구〉는 초등 독자의 수준을 고려한 심미 체험을 제안하고 그에 대한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방법을 제안했다. 엄해영·조재윤의 "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창작 교육 연구"는 7차 교육 과정에서 문학 창작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찰하고, 문학적 비평의 입장과 순수한 문학 창작의 입장에서 문학 창작 교육을 분석했다. 우신영의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시론"은 문학사와 문화사의 관계 양상을 세 개의 층위(문학 속에 형상화된 문화, 문학 형식에 작용하는 문화, 문학 소통에 관계하는 문화)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미희의 〈과정 중심 고전 소설 읽기 교육 연구〉는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고 고전 소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실제적인 교수-학습 방법으로 과정 중심 고전 소설 읽기 방법을 제시했다. 이민규의 〈과정 중심의 시 창작 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 2007년 개정 중1, 중2, 고1 국어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시 창작 교육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고 과정 중심의 시 창작 교육 모형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상아의 〈모더니즘 시의 맥락적 읽기 교육 연구: 김수영과 박인환을 중심으로〉는 텍스트 중심적 읽기로는 해석이 어려운 시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맥락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안하고 김수영과 박인환의 시 텍스트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수희의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문학 교육적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는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교육을 위해 여성이 주인공인 문학 작품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영태의 "고등 〈문학〉 교과서 소재 고전 시가를 통한 문학 교육 방법의 모색: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기대"는 창의적인 문학 교육 방법으로 스토리텔링을 제안하고, 〈문학〉 교과서에서 남녀 간의 '만남, 이별,

그리움, 재회'라는 모티브와 관련된 시가를 적용하여 그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윤희의 〈이청준 '눈길'의 교육적 의의와 교과서 수록 양상 연구〉는 '눈길'의 교육적 의의를 주제의 교훈성, 학습자 삶과의 연관성, 자전적 소설로서의 가치, 문학적 본질 및 속성에 대한 이해, 능동적 읽기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이은진의 〈'허생전'의 교육 방안 모색〉은 '허생전'의 출처인 〈옥갑야화〉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하고 고전에 대한 충실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했다. 이주영의 〈중학교 국어 교과의 고시조 교육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 7, 8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교육 과정의 변화에 맞추어 개발된 7, 8학년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고시조 작품에 대한 적합성을 논의했다. 이진아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분단 소설 교육 연구〉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분단 소설을 연관 짓고 거시적인 맥락을 통해 분단 소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방안을 논의했다. 최인자의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에서는 소설 '맥락'의 요소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맥락 교육이 독자의 윤리적 반응을 형성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명숙의 "2007 국어과 교육 과정과 초등 문학 교육 전망: '내용 체계'의 비판과 구성을 중심으로"는 실제 국어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 체계'를 초등 국어과, 특히 문학 내용 체계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예슬의 〈통사 구조로 본 시조의 정형성 연구: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시조 수록 실태를 바탕으로 고시조와 현대 시조의 통사 구조를 분석했다.

민재원·김창원의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지향과 시 교육의 이데올로기: 3·4차 교육 과정기의 중등 시 교육"은 3·4차 교육 과정기(학문 중심 교육 과정기) 시 교육 양상을 당시 한국 사회의 사회 문화적 맥락 위에서 탐색했다. 박현정의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 방향〉은 판소리계 소설에 삽입되어 있는 다양한 재담이 교육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을 밝혔다. 박현철의 〈제7차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과정 구현 양상 연구: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는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50작품의 성취 기준, 내용 요소의 예, 작품 수준

과 범위, 학습 목표, 학습 활동을 토대로 교육 과정 구현 양상을 분석했다. 이재혁의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는 입체적인 등장인물과 명확한 갈등 구조가 드러난 〈홍길동전〉을 활용하여 창의력 향상 수업을 설계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했다. 이정민의 〈초등학생의 은유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는 초등학생들이 사용하는 은유 표현을 분석하여 언어 발달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자료를 제공했다. 이종옥의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문학 교육적 의의: 1920-1930년대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는 김동인의 작품을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당시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했다. 이윤정의 〈2010학년도 EBS 교재 수록 한시 작품 양상 연구〉에서는 EBS 교재에 수록된 한시 현황을 파악하면서 주제 편향이나 번역 오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다음은 문학 지도 전략 및 평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김정미의 〈교육 연극을 활용한 능동적인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대상으로〉는 능동적 생산자로서의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극의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정민의 〈서정주 '자화상'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청소년기 자아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자화상'의 교수-학습 실태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김정은의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 방안 연구〉는 시의 이미지를 학습자가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창의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직소(Jigsaw)Ⅱ 모형을 적용하고 그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현자의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시 교육을 '계획 단계', '지도 단계', '평가 단계'로 설정하고 고은 시를 중심으로 그 실행 방안을 모색했다. 안소영의 〈토의를 활용한 가전 작품 교육 방안 연구〉는 가전 작품의 창조적 읽기를 통한 감상을 글쓰기로 내면화하고 언어 기능의 통합을 위한 토의 수업을 제안했다. 김효은의 〈고려 가요의 장르적 특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중심으로〉는 고려 가요 수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매체를 이용한 고려 가요 수업이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을 밝혔다. 김효진의 〈소년 인물의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는 청소년기 독자의 능동적 감상을 가능케 하고 자아 정체성 탐색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성장 소

설의 교육적 가치를 논의했다. 나혜정의 〈학습자의 시적 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 연구〉는 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의 시적 체험 양상을 분석했다. 노수정의 〈역할 놀이를 활용한 〈원고지〉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는 역할 놀이를 활용한 과정 중심 교수-학습을 제안하고 〈원고지〉를 중심으로 '펴즐 조각 기법', '즉흥적 상황극', '동물농장 기법'의 세 가지 방안을 구안했다. 노지나의 〈언어 외적·언어 부수적 표현을 활용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김유정 〈봄·봄〉을 중심으로〉는 언어 외적·언어 부수적 표현을 중심으로 소설 읽기를 시도하는 것은 언어 사용의 실제성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을 논의했다.

노해인의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연작 소설의 연계 교육 방법 연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는 독립된 단편 소설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재구성되는 연작 소설의 특징을 활용한 소설 교육 방안을 모색했다. 박소현의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는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으로 시를 읽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시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정지민의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을 통한 시 쓰기 교육 연구〉는 시 쓰기의 창작 주체가 대화를 통해 스스로 체험을 재구성한 후 재구성된 의미를 시로 형상화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그 효용성을 검증했다. 박수진의 〈서사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연구: 〈전우치전〉 이본을 대상으로〉는 전우치전 이본에 드러난 상상력의 구현 양상을 살펴 상상력이 작용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상상력의 문학 교육적 전이 가능성을 증명했다. 박순숙의 〈아동 문학 중심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는 통합의 원리를 바탕으로 문학 중심의 통합 지도 방안을 제안했다. 이영범의 〈중학교 시 단원의 지필 평가 문항 실태 분석〉은 여전히 지식 중심이고, 탈맥락적이며, 서술형 문항이 부족한 문학 평가 실태를 비판하고 그 대안을 모색했다. 김은애의 〈체험 중심 시 창작 교육 방법 연구〉는 체험을 중심으로 한 시 창작 교수-학습 과정을 제시하고, 실제 수업에 적용하면서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김은정의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는 시 창작 교육에 대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사례 연구와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김지혜의 〈협동 학습을 통한 〈숙향전〉의 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협동 학습 중 Co-op Co-op 모형을 적용하여 고전 소설에 대한 흥미도를 높이는 교육 방안을 제안했다. 민영아의 〈고등학교 고전 시가 어휘 지도 방안 연구〉는 학습자들이 고전 시가를 어려워하는 주된 원인인 어휘 학습을 위한 교육적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오근의 〈교육 연극을 적용한 고전 시가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를 중심으로〉는 문학 작품을 비평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위한 방안으로 '교육 연극'을 제안하고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박지영의 〈중학교에서의 활동 중심 소설 교육을 위한 수행 평가 연구〉는 '활동 중심의 소설 교육'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수행 평가 방안을 제안했다. 서자현의 〈율격 교육 방안 연구〉는 학교에서의 율격 교육이 단순한 수행 활동 차원에 그친다고 비판하고 적용 가능한 새로운 율격 교육의 방법을 모색했다. 손막래의 〈애니메이션 동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국어 학습 흥미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애니메이션 동시 학습 자료를 활용한 동시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고 교육적 가능성을 제시했다. 손주영의 〈고전 작품을 활용한 창작 교육 방안: 고전 작품을 패러디한 시 작품을 중심으로〉는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교육은 단편적이고 일시적이며 체계성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패러디 창작 지도 방안을 제안했다. 심예진의 〈현대 시 리듬 교육 방안 연구〉는 운율 대신 리듬을 고려한 시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알맞은 작품 선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안은주의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주제 중심의 시조 지도 방안 연구〉는 시조의 음악적·문학적·역사적 특징을 중심으로 교과 통합적 지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그 교육적 가능성을 모색했다. 엄성남의 〈〈누항사〉의 지도 방안 연구〉는 작품의 외적 요소와 문학사적 요소를 함께 가르치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연순임의 〈수행 평가를 활용한 소설 읽기 지도 방법〉은 학생들이 더 재미있고 쉽게 소설 읽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행 평가 방법들을 제안했다. 오봄의 〈모더니즘 시 교육 방안 연구: 김광균, 정지용

의 시를 중심으로〉는 모더니즘 시 교육을 위한 학습자 중심의 교수 모형을 구안하고 정지용과 김광균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오유경의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문학 감상 지도 방안 연구〉는 독자 반응 중심 문학 교육 이론을 토대로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문학 감상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하고 장르 수업에 적용했다. 오유정의 〈교육 연극을 활용한 〈흥보가〉의 교수 학습 방안〉은 판소리 〈흥보가〉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연극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원자경의 "소설 텍스트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이상 〈날개〉를 중심으로"는 사고 작용과 정서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법을 개발하고 〈날개〉 지도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경은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 방안 연구: 천상병의 '귀천'을 중심으로〉는 스토리텔링의 교육적 효용성과 가치를 탐색하고 이를 천상병의 '귀천' 학습 과정에 적용하여 가능성을 밝혔다. 이다은의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박씨전〉의 교수-학습 방안〉은 고전 소설의 환상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이 환상성을 바탕으로 〈박씨전〉을 활용한 창의성 신장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이상미의 〈고전 시가의 창의적 수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웹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는 웹을 기반으로 한 고전 시가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정철의 〈관동별곡〉 수업에 적용하여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했다. 이수진의 〈학습자 중심의 중학교 시 낭송 교육 방안 연구〉는 학습자 혼자 시 텍스트 속에 숨은 의미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작가와의 의사소통으로 의미를 생성해 가기 위해 시 낭송 교육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이승미의 〈문제 중심 학습(PBL)에 기반한 설화 교육 방안 연구: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중심으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설화 장르 교육을 통해 문제 중심 학습의 효과를 검증했다. 이윤주의 〈협동 학습을 통한 문학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에서는 협동 학습 모형 중 하나인 '팀 성취도 배분 학습(STAD) 모형'을 선택하고 중학교 1학년 문학 단원에 적용하면서 효율적인 문학 지도 방안을 모색했다. 이한공의 〈소설 창작 교육 방법 연구: 예술 고등학교 문예 창작과를 중심으로〉

는 소설 창작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예술 고등학교 문예 창작과의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소설 창작 교육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을 밝혔다.

이혜정의 〈문학사 교육 방법 연구: 9학년 과정 '단원 6.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을 중심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문학사 단원의 내용과 지도 방법의 문제점을 밝히고 바람직한 문학사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시했다. 이홍민의 〈고등학교의 고전 시가 교육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항의 상관성 연구: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내용 범주를 기준으로〉는 고등학교의 고전 시가 교육 내용과 수능과의 상관성이 떨어지고 특정한 영역에만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수능 고전 시가 문항 유형의 다양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아영의 〈협동 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 연구〉는 현재 수필 교육의 한계를 인정하고 학습자 중심의 수필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협동 학습 활용을 제안했다. 임재욱의 〈상위 인지 중심 소설 읽기 지도 방안 연구〉는 상위 인지 중심 소설 읽기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고 학습자들의 인지적·정의적 변화 양상을 분석했다. 임태정의 〈〈면앙정가〉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 소집단 탐구 협동 학습 이론을 활용하여〉는 소집단 중심의 협동 학습 교수 모형을 구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전성우의 〈판타지 동화 구조를 활용한 이야기 창작 지도 방안 연구: 〈환상성〉의 수용과 생산을 중심으로〉는 판타지 동화 구조의 이해가 이야기 창작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전한성의 "자전적 서사의 형상화 과정을 통한 서사 창작 교육 방향 연구: 〈백범일지〉를 중심으로"는 〈백범일지〉의 자전적 서사에서 형상화 요소를 찾아내어 서사 창작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조성욱의 〈협동 학습을 통한 고전 문학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박씨전〉을 중심으로〉는 고전 문학 수업에서 학습 계획, 집단 조직, 과제 분담, 집단 보고에 이르는 자기 주도적인 협동 학습 활동을 제안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조지민의 〈애니메이션 감상 지도 방법 연구〉는 애니메이션의 특성을 서사, 유희, 능동적 수용으로 분석하고 애니메이션의 문학 교육적 의의를 논의했다. 지혜란의 〈시 창작 지도에서 피드백 방법 연구〉는 어린이 시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단계적 피드백 방법을

제안했다. 최은주의 〈문제 중심 학습을 통한 〈채봉감별곡〉 지도 방안 연구〉는 문제 중심 소집단 학습의 문학 교육적 가능성을 고찰하고 〈채봉감별곡〉 지도를 통해 그 효과를 논의했다. 최주현의 〈초등학교의 옛이야기 지도 방안 연구〉는 반응 중심 문학 학습 모형을 근간으로 옛이야기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그 효용에 대해 논의했다. 최지현의 〈판타지 창작 지도 방안 연구〉는 아동들의 상상력을 신장하는 창작 활동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판타지 동화 창작 방안을 제시했다. 한유림의 〈시적 화자 변이 양상을 활용한 시조 창작 교육: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는 자신만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적 화자의 양상을 바꾸며 시조를 창작하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 주도의 문학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오주연의 〈서술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는 서술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를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평가 문항을 제시함으로써 그 효과를 입증했다. 문웅열의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이용한 고전 소설 기본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안〉에서는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활용해 고전 소설의 기본 학습 요소를 추출하고,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박준환의 〈소집단 토의 수업을 통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는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집단 문학 토의 수업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제 작품에 적용했다. 박지우의 〈음운적 특징을 활용한 시 낭송 교육 방안 연구: 윤동주 작품을 중심으로〉는 시 낭송 지도를 위해 어조와 운율, 음운론적 요소와 함께 심상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호의 〈책 읽어 주기를 활용한 문학적 상상력 신장 방법 연구〉는 책 읽어주기 과정별 전략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문학적 상상력을 자극하고 작품을 새로이 창작하게 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했다. 백민정의 〈송강 정철의 시조 문학 교수 방법〉은 정철의 시조들이 가진 문학 교육적 의의를 살피고 그에 알맞은 학습 방안을 모색했다. 심지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춘향전〉 교육 연구: 완판 84장본 '열녀 춘향 수절가'와 '남원 고사'를 중심으로〉는 '열녀 춘향 수절가'보다 '남원 고사'가 학습에 적합한 소재임을 제안하고 '남원 고사'를 능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교수 방안을 모색했다. 이영신의 〈학습자의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토의 연구〉는 문학 토의가 반응 중심 문학 교육의 장점을

보이면서도 학습 독자의 객관적 관점을 적용한 작품 평가를 경험시킬 수 있는 문학 교육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임의 〈향가 교육의 실태 분석과 배경 설화를 활용한 지도 방안 연구〉는 향가와 배경 설화의 관계를 검토하고 고전 시가 교육의 위상과 가치를 살펴보았다. 이나현의 〈토론 수업을 통한 고전 문학 교육 방안 연구〉는 고전 문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고 고전 문학 교육 방법으로 '토론'을 제안했다.

다음은 매체를 활용한 문학 교육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적인 국어과 매체 활용 교육은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에서 정리한다. 여기서는 문학이 매체를 활용하여 소통되는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문학 교육 분야에서의 매체 활용을 다룬 연구들을 정리했다. 김주연의 〈그림 동화책과 플래시 동화에 대한 초등학생의 문학 반응 양상 비교 연구〉는 학습자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고 수업을 계획할 때는 매체 특성이 잘 드러나도록 수업을 계획해야 함을 제언했다. 신혜경의 〈온라인 게임 서사 구조를 적용한 이야기 창작 지도 방안 연구〉는 쌍방향적인 디지털 매체 언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서사 양식을 추출하여 새로운 이야기 창작 교육 방법을 제안했다. 신효염의 〈고전 소설과 TV 드라마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방한림전〉과 〈성균관 스캔들〉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는 고전 문학에 대한 공감적 이해를 위해 오늘날의 문제와 연계한 교수-학습 방법을 〈방한림전〉과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을 예로 들어 제시했다. 오정훈의 "하이퍼텍스트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하이퍼텍스트의 속성을 권위의 해체와 개방성, 다성성(多聲性), 그리고 멀티 리터러시(multi-literacy)로 분석하고 시 교육에의 적용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선미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김유정 소설 〈봄봄〉을 중심으로〉는 영상 매체를 접목한 소설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 〈봄봄〉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원선의 〈인터넷을 활용한 문학 비평 쓰기 활동 연구〉는 비평 텍스트 쓰기의 한 방안으로 인터넷의 활용을 제안했다. 이지형의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을 중심으로〉는 영상 매체를 통한 효과적인 소설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고 〈기억 속의 들꽃〉을 중심으로 그 가능성을 모색했다.

조규찬의 〈극예술과 매체 언어 교육 방법 연구: 오영진의 〈맹 진사

댁 경사〉를 중심으로〉는 매체 언어의 종류를 무대 언어와 영상 언어로 구분하고 매체 언어의 특징을 〈맹 진사댁 경사〉를 통해 살펴보았다. 주용식의 〈시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시 교육 집단과 언어 중심 시 교육 집단을 비교하면서 그 교육적 효과를 정서적 공감이나 재구성 능력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하인성의 〈매체를 활용한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은 고전 문학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쇄 매체, 영상 매체,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이유경의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의 교수-학습 방안〉은 교수-학습의 소재로서 텔레비전 드라마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를 예로 들어 학습 과정을 제안했다.

다음은 문학과 타 영역의 통합 지도와 관련된 연구들이다. 이선영의 〈듣기·말하기 방식을 통한 고등학교 설화 교육 방법 연구〉는 설화의 가장 큰 특징인 구술성을 바탕으로 듣기·말하기 교육에 설화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했다. 성혜리의 〈〈바리데기〉를 통한 자서전 쓰기 지도 방안 연구〉는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서전을 쓰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로 설화 문학에 대한 이해를 꼽으며 읽기와 쓰기가 통합된 교육 방안을 제시했다. 김정우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에서는 문학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지향점을 모색하면서 '고유어의 보존과 활성화', '공동체의 경험과 정서 공유', '맥락을 고려한 창의적 어휘 사용'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목화의 〈고전 소설의 환상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쓰기 교육 연구: 〈박씨부인전〉 사례를 중심으로〉는 문학 교육에서 환상 소설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실제 교수-학습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했다. 신진성의 〈자기 성장기 쓰기를 활용한 성장 소설 교육 방안 연구〉에서는 '자기 성장기 쓰기'가 성장 소설 작품의 내면화와 학습자의 자아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문학적 태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논의했다. 김하나의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한 시조 창작 지도 방안〉은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한 시조 창작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 시조 창작 지도 방법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지민의 〈〈심청전〉을 활용한 비평

문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에서는 판소리계 소설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로 비판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수-학습 방안을 제시했다. 심유리의 〈비평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 시를 대상으로〉는 학습자의 인지적 반응과 심미적, 정의적 반응이 균형적으로 작용하는 비평적 읽기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3. 국어과 교육 과정 실행 요소별 연구

이 장에서는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 등 국어과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 현황을 먼저 살펴보고, 교수-교육 방법, 교육 콘텐츠·교과서 등 교재, 국어과의 평가, 국어 교육 정책의 순서로 정리하도록 한다. 매체 언어 교육은 교수-학습 방법에서,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국어 교육 정책에서 다루도록 한다.

3.1.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

국어과의 성격, 목표, 내용은 국어 교육의 본질적 측면을 다루는 연구 분야이다. 여기에는 국어과 교육 과정도 포함된다. 구영산의 "국어 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적 장의 언어와 다른 국어 수업 언어를 분석하고 제안했다. 김규훈의 "국어과 교육 과정의 통합적 내용 구성 방안: 2011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을 대상으로"에서는 국어 교육 통합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2011 교육 과정의 '독서와 문법' 과목을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김규훈의 "통합의 개념에 따른 교육 과정의 비판적 고찰: 2011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의 발전적 통합 방안 모색"에서는 '독서와 문법' 과목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보고 통합 가능한 내용 구성 방안을 제안했다. 김기창·정상섭의 "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 연구 (1):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에서는 조선족 소학교와 한국 초등학교의 국어과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하면서 공통적으로 제7차 교육 과정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했다. 김도영의 〈국어과 융합 교육 연구

2009 개정 교육 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융합 교육 요소를 선별하고 융합 교육의 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순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고려 양상"에서는 1차 교육 과정부터 2011 개정 교육 과정에 걸친 통합 교육 양상을 살폈다.

김상미의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한글, 영어, 한자 읽기 쓰기와 주의력 및 인지-언어적 능력 간의 관계〉에서는 한글, 영어, 한자의 학업 수행 능력은 서로 유의미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했다. 김상욱의 "문해력, 국어 능력, 문학 능력"은 문학 교육이 궁극적으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등의 모든 언어 영역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했다. 김시정의 〈국어 의식의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의 방안에 관한 연구〉는 학습자의 국어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교육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했다. 김종률의 "국어과 통합 교육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화법, 작문, 독서에 관련된 사고를 중심으로"는 국어과 영역 간의 유기적 결속성은 사고의 표현과 이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용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의 "초등 교사의 국어 수업 딜레마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국어 수업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변인이나 딜레마의 속성을 면밀히 분석했다. 김창원의 "국어과 교육 과정의 생태학 (1): 2011년 교육 과정 개정에 관한 성찰"에서는 교육 과정 개정 과정에 반영된 이면의 논리를 밝히며 2011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이 가진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했다. 김혜정의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 맥락의 교육적 실행 연구: 중등 읽기 영역에서의 교수법 및 교재 구성을 중심으로"에서는 국어과에서의 맥락의 개념 변화를 역사적으로 고찰했다. 노철현의 "개정 초등 교육 과정의 특징과 향후 과제"는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특징을 교육 과정 자율화, 교과군, 학년군으로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살폈다.

민현식의 "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 과제"는 국어 교과가 주제 기반 교육과 문법 교육을 강화하여 지식과 기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수의 "한·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비교 연구"에서는 한일 양국의 국어과 교육 과정을 비교 분석했다. 배상연의 〈유아 교육 과정의 언어 영역과 초등 1학년 교육 과정 국어과

에 관한 연계성 논의〉에서는 교육 과정 비교를 통해 유아-초등 언어 교육 연계의 방향성을 모색했다. 서영진의 "개정 '화법과 작문'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설득' 범주 교육 내용의 재구성을 통한 대안 모색"은 화법과 작문 활동의 통합 전략을 탐색하고 통합형 교육 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서영진의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는 교육 과정이 개정되더라도 논증적 소통의 교육적 가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서종훈의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은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은 영역 간 통합과 학습자들의 수준과 연령이라고 제언했다. 안부영의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제언"은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검토하고 국어 교육의 내용을 복잡성을 기준으로 위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염도의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교육 과정 비교 연구: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중학교 교육 과정 변천 전반에 관하여 고찰하고 현행 교육 과정을 비교·분석했다.

이삼형·이선숙의 "주장과 근거 관련 용어의 재범주화: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 등에서 '주장과 근거' 관련 용어가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상희의 〈생태학적 변인이 국어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른 국어과 학업 성취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정책,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함을 논의하고 있다. 이순영의 "21세기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미국의 '공통 핵심 기준'의 특성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는 미국의 공통 핵심 기준을 분석하여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이영희의 〈학습자 '의도' 중심의 국어과 창의성 교육 연구〉는 '의도' 중심의 국어과 창의성 학습 모형의 구체적인 실현태를 제시했다. 이충영의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과 반영 방안 연구〉는 교육 과정의 학년별 내용과 교육 과정 운영의 두 측면에서 학습자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유리의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방안 연구〉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목표에 따라 국어사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 교수 학습 내

용, 구체적인 교육 내용 등을 제시했다. 조용미의 〈발도르프 교육학에 따른 국어 교육 과정 연구: 발달 과정의 연계성을 중심으로〉는 입시 위주의 한국 교육을 비판하고 교육의 목적을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조희연의 〈중등학교 국어과 매체 언어 교육 연구〉는 국어과에서 매체 언어 교육을 수용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그 근거를 밝혔다. 최홍원의 "창의성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와 국어 교육적 재조명"은 공간적, 시간적, 교육적 지평 확대라는 세 차원에서 국어 교육에서의 창의성 문제를 재조명했다. 황정인의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재담 교육 연구: 7학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국어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재담 교육 방안에 대해 고찰했다. 임성규 외의 『새 초등 국어과 교육론』은 초등학교 교사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할 국어 교육의 목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교재 등에 대해 개괄했다.

3.2.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

다음은 국어과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된 연구이다. 매체 활용 교수나 다양한 학습 전략에 관한 연구가 포함된다. 강용운의 〈Egan의 스토리텔링 모형에 근거한 국어과 수업 모형 개발〉은 초등학교 단계에 흥미 있어 하는 이야기 형식과 이에 반응하는 인지적 방식을 반영하여 국어과에 적용 가능한 수업 모형을 모색했다. 강지혜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을 통한 한자 교육: 국어(하) 교과서를 중심으로〉에서는 권장 한자 300자를 선정하고 부수와 육서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고보현의 〈매체 언어 교육 방안 연구: 7학년 국어 교육을 중심으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매체 언어를 살펴보고, 매체 언어 교육의 반영 실태를 살폈다. 곽경숙의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표현 매체의 교육적 수용 효과에 대한 연구"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시각적 의사소통, 그리고 표현 매체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고찰했다. 곽고운의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적용한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은 초등학교 5학년 국어과 문학 영역(시와 동화) 디지털 교과서의 교수·학습 과정을 설계했다. 김두용의 〈정서 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과 단원 설

계〉는 학교 교육 과정 안에서 정서 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그 가능성을 살폈다. 김병수의 "국어 수업 패턴 고찰을 통한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은 교사의 국어 수업 패턴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 수업의 전문성 신장 방안을 제시했다. 김슬옹의 "다목적 통합형 '또물또' 발문 모형 설정론"은 수업 중에 교사가 학습자에게 묻는 다양한 발문 유형과 전략을 통합하여 '또 물음 또'(또물또) 모형을 제안했다. 김자순의 〈비판적 수용을 위한 매체 텍스트 지도 방법 연구〉는 매체 언어의 다양한 양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생산'하게 하는 매체 언어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희숙의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교육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멀티미디어 활용 국어과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요인이 학생들의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남상은의 〈어휘 학습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어휘 학습 전략별로 나타나는 학습 효과를 분석했다. 도준호 · 김명섭의 "디지털 매체 언어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수업 방법 제언"은 현대인의 취향에 맞게 문학을 교수-학습할 수 있는 수업 방법을 제시했다. 박성우 · 김홍범 · 조경희의 "프로젝트 기반 유러닝을 활용한 국어 교육"은 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 유러닝 학습 모형을 제시했다. 박윤희의 〈수업 상황 요인에 따른 국어 교사의 피드백 화법 양상 연구〉은 국어 수업에서 교사의 피드백은 학습을 공고하게 하므로 피드백 화법에 대한 연구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박주용의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 · 학습 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는 귀국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모색했다. 서순원은 〈직접 교수법과 탐구 학습법의 효과 비교 연구: 중학교 3학년 생활 국어 국어 지식 교육을 중심으로〉는 상위권 학습자에게는 탐구 학습법이, 부진한 학습자에겐 직접 교수법이 더 적합함을 증명했다. 서정원의 〈초등학교 미술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는 미술 교과에서 추구하는 창의성과 감수성이 학생의 국어 표현력과 상상력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성명희의 〈TV 드라마 교육 방법 연구: 〈경숙이, 경숙 아버지〉를 중심으로〉는 드라마를 분석하고 매체 언어 교육의 목적과 교수 ·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손혜정의 〈국어과 매체 언어 교육 지도 방안 연구: 영상 광고

텍스트를 중심으로〉는 영상 광고 텍스트로 학습자의 매체 문식성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안했다. 신영희의 〈국어과 수업에서 Flanders 언어 상호 작용 분석에 의한 우수 교사와 일반 교사의 수업 형태 비교 연구〉에서는 우수 교사와 일반 교사의 수업 형태를 비교하고 일반 교사를 위한 수업 담화를 제언했다.

신헌재의 "초등 예비 교사를 위한 국어과 수업 컨설팅 적용 연구"는 초등학교 예비 교사의 국어과 수업 컨설팅 모형을 구안하고 그 적용 사례를 제시하여 교생 실습 운용에 시사점을 제시했다. 염선숙의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언어 기능적 접근에 대한 연구〉는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 신장을 위한 독서·토론·논술 중심의 통합 언어 교육을 제안했다. 우유정의 〈비평적 읽기와 쓰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 향상 지도 방안 연구〉는 미디어가 다양하게 발달함에 따라 시각적 문해력 향상의 중요성을 논의했다. 위한샘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매체 자료 창작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2009 개정 교육 과정 '화법과 작문Ⅰ' 중 '작문' 중심으로〉는 매체 자료를 변용·생산하는 창의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했다. 유지영의 〈과정 드라마를 활용한 학습이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음성 언어와 비언어를 중심으로〉는 과정 드라마를 활용한 국어 학습이 아동들의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유해숙의 〈초등 국어 수업에서 삼각 논증을 활용한 피라미드 토의 지도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논리적·비판적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삼각 논증 활용 피라미드 토의 지도 방법을 개발했다. 이경수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초등학교 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소고"는 프랑스와 우리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비교·분석하고 두 나라의 국어 어휘 교육의 지위 및 비중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이명숙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언어적 창의력 신장 방법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교수 방법이 학습자의 학습에 대한 동기 부여와 매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신장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미숙의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의 실천적 원리 탐색: 애니메이션 교수, 학습 재구성 사례를 토대로"는 복합 양식 텍스트를 국어 교육의 실천적 차원에서 수용하는 원리를 탐색했다.

이선웅의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방송 언어 활용사: 거시적 관점

의 서술을 중심으로"는 국어 교육 자료로 방송 언어를 활용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지평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수현의 〈간판어 실태 분석을 통한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마포구 염리동과 망원동의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는 언어문화를 잘 드러내는 간판어를 활용한 언어문화 학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정숙·김국태·박창균의 "국어 수업 대화의 재개념화"는 국어 수업 대화를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적 관계'로 정의하고, 국어 수업 맥락에서 대화적 관계 형성 방식을 제안했다. 이지혜의 〈초등 국어 교육에서의 탈놀이 교재화 방안 연구: 하회별신굿 탈놀이를 중심으로〉는 초등 국어 교육에서 탈놀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교재화 방안을 논의했다. 임성규·이영심·이은주의 "국어과 수업에서 창의성 발현 방안 연구"는 논리적 사고와 맥락 활용하기, 표현하기에서 창의성을 발현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임천택의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 사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 사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 임천택의 "국어과 학습 부진아 지도 방법"은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하여 학습 부진아 지도 방안을 탐구했다. 장순희·성치경의 "체제적 교수 설계를 위한 7학년 문학 평가 분석"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의 문학 영역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 분석을 통하여 문학 영역의 학습 목표와 교수-학습 활동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했다. 장운혜의 〈일반 학급과 통합 학급 상황에서 초등학교 일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어 수업 활동과 관련 변인 탐색〉은 통합 학급과 일반 학급 간의 차이는 교사의 배경, 국어 교과 역량 수준, 자기 효능감 등과 관련됨을 밝혔다. 정상민의 〈장르 중심 접근법에 따른 건의문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는 건의문 장르의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실제 교수-학습 현장에서 구현한 내용을 제시했다.

조혜령의 〈국어과 좋은 수업 사례 연구〉는 좋은 수업은 구조적이고 의사소통이 원활한 수업이라고 주장했다. 최선화의 〈도로시 헤스콧의 '전문가의 망토'를 통한 통합 수업 연구: 4학년 2학기 국어, 도덕,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는 드라마의 교육적 접근 방법의 일종인 '전문가의 망토'를 사용한 통합 수업을 모색했다. 최영인·박재현의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시범 보이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양상"은 예비 교사들은 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 원론적인 수준의 이해만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최적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을 위한 유동적 인식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예진의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고전 소설 〈구운몽〉 교육 방법 연구〉는 〈구운몽〉 교수를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 방안을 탐색했다. 최원아의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영상 매체 언어 활동을 중심으로〉는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국어 사용 능력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최정아의 〈광고 연구 학습을 통한 미술 교과와 국어 교과 통합 교육〉은 국어 교과와 미술 교과의 통합·연계 교수 모델을 제안했다. 최현정의 〈영상 매체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영상 제작 교육 방안 연구〉는 영상 매체 교육을 위한 국어과에서의 영상 제작 교육 내용을 구체화했다. 박영목의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는 국어과 교수 학습 모형을 정리하고 다양한 수업 전략들을 제시했다.

3.3. 국어과 교재

다음은 교과서를 포함한 국어과 교재에 관한 연구이다. 곽정한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은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의 유형을 분석했다. 구자윤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교육 과정 반영 양상 비교 연구〉는 중학교 1학년 쓰기 단원을 중심으로 성취 기준, 단원 편성, 단원 구성을 비교했다. 권현숙의 〈한국의 '국어'와 중국의 '조선어문'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읽기 교과서의 체제를 중심으로〉는 한국의 '국어'와 중국의 '조선어문' 교과서를 비교 분석하고 '조선어문' 교과서의 개선점을 탐색했다. 금현정의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 반영 양상 연구: 7학년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는 국어 교과서가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교육 목표에 충실하게 편성되었는지 분석했다. 김기창의 "유관순 관련 제재 국어 교과서 수록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 제시된 유관순 열사 관련 제재의 의도와 내용을 논의했다. 김명순의 "국어 교과서의 변화 경향과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은 국어 교과서의 변화 경향을 살

피고, 그 연속선상에서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을 분석했다. 김은미의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과 교과서의 '정리 학습' 분석: 초등학교 1~4학년을 중심으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정리 학습'을 분석하고 연계성 강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환의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는 학교에서의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교과서 선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김준형의 "구한말 학부 편찬 국어과 교사용 도서와 『국민 소학 독본』"은 정부 주도로 간행된 첫 국어과 교과서인 『국민 소학 독본』의 등장 배경과 구성 및 내용을 분석했다.

김지영의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실태 분석〉은 교과서 선정 시 학습자의 흥미, 학습 분량과 난이도, 활동의 다양성 등이 주요 요건임을 밝혔다. 김혜숙의 "통합적 문장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맥락과 텍스트 중심의 활동 교재 구안을 위하여"는 맥락과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문장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을 제안했다. 맹은혜의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환경관의 변천〉은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담긴 환경관을 분석하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환경관 형성 방안을 제시했다. 민현식 · 김기훈 · 윤경욱의 "국어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는 국어 정보화 관련 교육의 방향이 국어 정보화 관련 기술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국어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을 논의했다. 박상규의 "교육 방송 상업용 도서의 수준과 적합성 검토: 언어 영역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대상으로"는 EBS 수능 연계 교재를 학습 분량의 적절성과 학습의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박성희의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 방안: 시를 중심으로〉는 암기 위주로 된 시 교육의 문제점을 찾고 이와 관련하여 문학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박용규의 〈단위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과정 연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가 어떤 기준, 절차, 방법으로 채택되는지 국어 교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박윤진의 〈국어과 교과서의 통합성과 연계성 분석: 2010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이 강조하고 있는 언어 활동의 통합성과 연계성이 국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분석했다. 박인순의 〈검인정 중1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언어문화적 고찰〉은 국어 교육에서 문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내용을 설계해야 함을 주장했다.

박진용의 "국어 교육과 교과서: 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과 과제"는 교과서 구매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민간의 창의성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과서 정책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박치범의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성격: 제일차 교육령기 사학년 교과서의 '연습'을 중심으로"는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에서 사용되었던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성격을 규명하고 교육적 의미를 살폈다. 서미숙의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놀이터'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는 개정 교과서의 '놀이터'를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신명선의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적 특징에 대한 통시적 연구: 1~7차 중학교 『국어』 1-1학기 1단원을 중심으로"는 각 시기별 교과서의 텍스트적 특징을 맥락, 필자와 독자, 형식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사적으로 살펴보았다. 신명선의 "국어 교육과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과 토론 교육 과정의 교과서 반영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은 고등학교 국어과 토론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를 사적으로 분석했다. 신헌재의 "국어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국어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의 국어 교육학적 의미와 국어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은 열린 교과서관의 국어 교육학적 의미를 짚어 보고 이상적인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을 제안했다. 양영옥의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는 초등 국어 교과서의 '우리말 꾸러미'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오현아의 "근현대 국어 교육 자료 변화 양상 연구: 초등 국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는 국어 교육 자료의 변모 양상을 개념 변화와 성격 변화의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왕효성의 "한·중·일 모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심으로"는 한·중·일 세 나라에서 만든 중학교 1학년 모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을 비교·분석했다. 유인선의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분석〉은 개정된 국어 교과서의 관용 표현 관련

내용을 학습 목표, 용어 정의, 목록, 학습 활동의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했다. 이명진의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분석: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관용 표현 교육의 목표와 국어 교과서 속의 관용 표현 관련 단원을 분석했다. 이은경의 〈관용 표현 교육의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7학년 국어, 생활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 단원을 분석했다. 유주애의 "중학교 〈국어〉와 〈생활 국어〉의 연계 지도를 위한 연구: 2007년 개정 중학교 1학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현장에서 '국어'와 '생활 국어'를 연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했다. 이경화의 "2007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과정 연구"는 국정제에서 국정 공모제로 전환하여 처음 개발된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개발 과정을 살폈다. 이경화의 "국어 교육과 교과서: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은 2011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국어〉와 〈국어 활동〉이 통합적인 국어 교육을 위한 방안임을 주장했다. 이승하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분석〉은 개정 교과서가 실제적인 언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평가했다.

이은희의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성 연구: 단원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는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성을 단원 구성 체제의 응집성과 통일성 차원에서 분석했다. 이재기의 "중등 상업용 교육 도서의 비판적 검토"는 교과 독서, 학습 독서를 지향하는 상업용 교육 도서의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령의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시 단원의 조직과 구성 체제 분석: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과정 반영 양상을 시 장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재승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은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학습자 입장에 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형의 "국어과 교과서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수용 양상"은 국어과 교과서에서는 실천적·해방적 주체를 지향하는 비판적 문식성이 중요함을 논의했다. 이향근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의 교육 내용과 교사 인식"은 '우리말 꾸러미'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호형의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비판적 이해와 교과서 구현 방안: 국어Ⅰ·Ⅱ를 중심으로"는

국어Ⅰ·Ⅱ 과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임천택의 "학습 목표 면에서 본 국어과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단원 학습 목표와 차시 학습 목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은섭의 "국어 교육과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 연구"는 국어 교과서가 수요자 관점을 반영하여 수정·보완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장철의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외형 체제, 단원 구성, 바탕글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국어 교과서를 비교·분석했다. 전상우의 "정전(正典) 개념의 확장을 통한 교과서 검토"는 정전 개념을 '제재(작품), 학습 활동, 단원 구성'이라는 측면까지 확장하는 새로운 교과서 분석 틀을 제안했다. 정진희의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체제 분석〉은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가 단원 구성 체제와 영역 구성 측면에서 제7차 교과서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준다고 주장했다. 정혜승의 "국어과 교과서 채택 기준과 채택한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반응"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의 교과서 선택 기준과 반응에 대해 분석했다. 정혜승의 "국어과 교과서의 다양성 구현 방안: 검정 전, 중, 후 단계를 중심으로"는 새로운 교과서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정 과정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정혜승의 "외국의 국어 교과서 체제 분석: 미국과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외국의 국어 교과서를 분석하고 우리 교과서 개발에 시사점을 제공했다. 조동길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는 교육의 당사자인 '학생'이 배제된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했다.

조유리의 〈중·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의 비교와 분석〉은 중국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장르별, 주제별로 비교·분석했다. 조윤희의 〈제7차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 역할 비교 연구: 현대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는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라 출판된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현대 문학 단원의 성차별 양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희정의 "국어 교육과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

천 연구"는 해방 이후 각 교육 과정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습자가 접하는 첫 교과서를 분석했다. 주형주의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를 선정하는 과정, 선정하는 기준, 국어 교사들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천경록의 "읽기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간의 정합성 분석"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읽기 단원은 교육 과정과의 정합성이 적절하고, 다른 영역과의 통합성은 높다고 주장했다. 최유진의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의 개작 양상 연구〉는 교과서에 게재된 문학 작품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개작에 신중해야 함을 주장했다. 최인자의 "국어 교과서 평가 기준의 비판적 성찰: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는 교과서 평가 기준에 대한 재구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지영의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는 1~4학년의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도입 학습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최지혜의 〈교육 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는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외국 문학 작품의 수록 양상을 사적으로 검토했다.

하광호의 〈중학생용 참고서명의 형식과 통보 기능 연구〉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참고서명의 형식과 통보 기능을 고찰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한아름의 〈단어 형성법 교육의 비교 연구: 제7차 교육 과정과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단어 형성법 교육 내용을 분석했다. 홍명숙의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는 교과서에 실린 동시를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홍새미의 〈초등학생 6학년용 전자 교과서의 쓰기 활동 유형 분석〉은 전자 교과서가 서책형 교과서를 적절하게 보충・보완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홍하은의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이해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는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둘 사이에 일관성이 있는지 탐색했다.

3.4. 국어과 평가

다음은 국어과 평가와 관련된 연구이다. 최근에 시행된 국제 학업 성취도 검사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았다는 특징이 있다. 김창원의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본질과 제 문제”는 국어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 맥락과 역사, 개념과 효과를 분석했다. 남민우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의 국제 비교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국어 교육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에 대해 기초적인 비교를 수행했다. 남민우・김경희・김희경의 “PISA와 NAEA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능력 특성 연구”는 2009년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모두 참여한 학생들의 성취도 평가 결과를 비교・분석했다. 남민우・남가영의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 개선 방안”은 학업 성취도 평가 시행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론장의 형성, 평가의 순기능의 극대화, 평가 기준에 관한 인식 확대 등을 주장했다. 이경화의 “초등 국어 수업 평가 기준 설정 및 수업 평가의 실제”는 초등학교 국어 수업 평가의 실태를 살펴보고, 초등학교 국어 수업 평가 기준을 설정했다. 이기연의 “어휘력 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유형에 대한 고찰”은 어휘력의 구성 요소를 기반으로 어휘력 평가의 평가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평가 요소를 제안했다. 이승재의 〈평가자 협의가 작문 평가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평가자 협의의 방법이 평가자 훈련과 평가자 해석의 장점을 취하는 작문 평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임칠성의 “국어과 수업 자가 평가 연구”는 수업 평가는 국어과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교사는 자가 평가를 통해 수업 능력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전진양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 매뉴얼에 비추어 본 언어 영역 문항 제작의 내용적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기출 문항을 분석하고 문항 제작의 내용적 오류 유형을 6가지로 정리했다. 정순공의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의 독해 책략 연구〉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의 독해 책략을 분석했다. 조수현의 〈중학교 국어과 지필 고사의 서술형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는 8개 중학교 기출 문제 중 서술

형 평가 문항을 문항 구성 측면과 문항 내용 측면에서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조재윤의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적합성 검토 연구: 국어과 평가의 적합성 검토 VRUT 모형을 사용하여”는 국어과 평가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준거로서 타당도, 신뢰도, 유용도, 투명도를 바탕으로 하는 VRUT 모형을 제시했다. 주세형의 “평가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사 교육”은 교사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 ‘평가 문식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천경록의 “국가 수준 국어과 평가의 정합성 분석: 중3, 고1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는 국가 수준 국어과 성취도 평가가 애초에 의도한 목적대로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다. 최운선의 “어휘 활용 능력 평가의 방법 연구”에서는 초등학생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어휘 활용 능력 지도 자료를 개발했다.

4. 국어 교육 정책

마지막으로 국어 교육 정책에 관련된 연구이다. 여기에는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개발, 교원 양성, 다문화 교육, 한자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포함된다. 구영산의 “국어 교육 정책 종결 과정에서 형성된 고교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의 의미: ‘매체 언어’ 과목의 폐지를 중심으로”에서는 적용되지도 않은 ‘매체 언어’ 과목의 폐지를 중심으로 국어 교육 정책을 비판적으로 논의했다. 김영심의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단어 정의하기 특성〉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학년에 따라 정의하기 발달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했다. 김경아의 〈수준별 수업형 국어과 교과 교실제 운영에 관한 연구〉는 국어과 수준별 교과 교실 수업에 필요한 최적의 반 편성 방안을 탐구했다. 김효정・제민경의 “국어과 사이버 가정 학습 수준별 콘텐츠 내용 개발 연구: 중학교 2학년용을 중심으로”는 사이버 학습 콘텐츠 개발의 맥락과 활용 방향 또는 콘텐츠의 단계별 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노은희의 “다문화적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교사 교육 연구: 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는 국어 교사의 다문화

적 교수 능력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문화적 교수 역량(근거에 기반한 지식, 경험적 기술 전문성, 고양된 의식)에 기초한 체계적인 교사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언했다. 박세진의 〈한·일 초등학교 한자 교육 비교와 바람직한 한자 교육 방안〉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의 한자 교육과 한국의 한자 교육을 비교 분석한 후, 바람직한 한자 교육의 방안을 제시했다.

송현정·양정실의 "다문화 사회의 국어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구"는 국어과 교육 과정에 다문화 교육 내용을 반영해야 하고 국어과 교과서에도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재기의 "국어 교육(國語敎育)의 정도 진입(正道進入)을 위하여: 국한 혼용(國漢混用)의 불가피성(不可避性) 논의(論議)"는 한자어가 사장 상태로 들어간 오늘날의 어문 생활 실상을 비판하고, 국어 교육에 있어 한자 교육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심재기의 "국어 교육(國語敎育)의 정도 진입(正道進入)을 위하여 (2): 국한 혼용(國漢混用)의 불가피성(不可避性) 논의(論議)"는 한자 문화의 계승과 한글 전용의 폐단을 막기 위해 한자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성미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정책 및 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는 설문 조사, 심층 면접, 실제 사례 연구, 계획안 및 교재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임미정의 〈다문화 가정 아동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비교〉는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이 비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비해 지체되고 있음을 밝혔다. 전지연의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과 한자 교육 방안 연구〉는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한자·한자어 빈도 분석을 통해 한자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최미란의 〈중등 국어과 임용 시험의 타당성 연구: 2009-2011학년도 문항 중 현대 문학을 중심으로〉는 교사 임용 시험이 '교사 자격 기준'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분석했다.

한국어 교육

방 성 원
(경희사이버대학교)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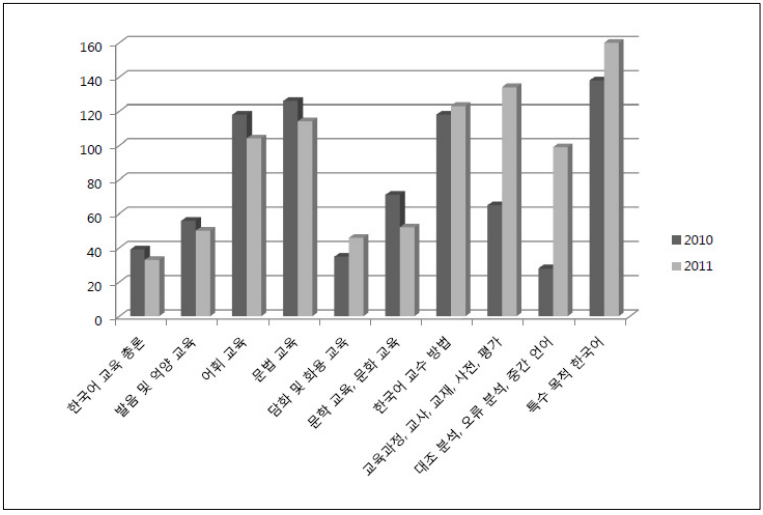
이 글은 2011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분야에서 간행된 단행본 및 논문 등의 연구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분야의 연구 동향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 분야는 다양한 하위 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며 매년 연구 논저의 편수가 증가하여 상당히 방대한 규모의 연구물이 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목록을 수정, 보완하여 정리한 후, 한국어 교육 분야에 해당하는 단행본 103편, 학위 논문 595편, 학술지 게재 논문 320편을 포함하여 총 1,018편의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국어 연감의 지난 5년 간 한국어 교육 분야 연구 동향을 비교해 보면, 이 분야의 연구가 외형적인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 교육학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9년에는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 등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2011년에는 단행본과 학술지 논문의 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하고, 학위 논문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2007	2008	2009	2010	2011
단행본	54	60	126	124	103
학위 논문	194	251	424	414	595
학술지 논문	205	177	353	380	320
총계	453	488	903	918	1,018

이 글에서는 2011년의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논저들을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볼 것이다. 단행본은 한국어 교재, 연구 보고서, 학술 저서 등을 포함한다. 논문은 학위 논문과 학술지를 함께 다루되 주제별로 하위 분야를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논문의 하위 분야 구분은 전년도 『국어 연감』의 분류 체계를 따라, 분야별로 연구 동향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논문의 내용이 두 가지 이상의 영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논문이 중점을 둔 내용을 기준으로 하나의 분류 영역에 귀속시켰다. 전체적인 분류 작업을 수행한 결과, 2011년에 발표된 분야별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분야	편수	비율(%)
한국어 교육 총론	33	3.61
발음 및 억양 교육	50	5.46
어휘 교육	104	11.37
문법 교육	114	12.46
담화 및 화용 교육	46	5.03
문학 및 문화 교육	52	5.68
한국어 교수 방법	123	13.44
교육 과정, 교사, 교재, 사전, 평가	134	14.64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중간 언어	99	10.82
특수 목적 한국어	160	17.49
계	915	100

2011년 한국어 교육학의 하위 분야별 연구 편수를 2010년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와 그래프에서 보듯이 2011년에는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 과정, 교사, 교재, 사전, 평가 분야의 연구, 한국어 교수 방법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 2010년과 비교해 보면 발음, 어휘, 문법 등 한국어 교육의 내용적 연구보다 한국어 교수 방법, 교육 과정과 교재 등의 연구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중간 언어 등 학습자 언어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분야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양적인 면에서 볼 때 한국어 교육학의 여러 분야별 연구는 2010년에 비해 좀 더 균형 있게 발전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단행본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단행본 목록 중에서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단행본 및 연구 보고서 총 103편을 검토한 결과, 2011년에 출판된 단행본 중에서는 학술적인 연구서, 한국어 교사 교

육을 위한 저서가 일부 출판되었으나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보고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교재 중에서 대학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간행한 교재들을 살펴보면, 초급과 중급의 수준별 교재(가톨릭대, 건국대, 경상대, 이화여대, 대원대, 충북대, 숙명여대)가 출판되었으며, 1-7권이 출판된 경우(부경대)도 있었다. 주 교재 외에도 워크북(건국대, 계명대, 이화여대), 단어장(건양대), 어휘 연습 및 문법 연습(연세대)을 위한 학습 자료가 다수 출판되어 그동안 주 교재에 집중되어 온 한국어 교육 자료가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학 기관의 한국어 교재 외에도 여러 종의 한국어 교재가 출판되었는데, 국립국어원에서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교재로서 『세종 한국어』 1, 2권을 발간한 것이 주목된다. 그 외 『초보자를 위한 톡톡 한국어』(민진영), 『벼리 한국어 회화: 초급』 1, 2권(나찬연) 등 입문 또는 초급 교재들이 다수 발간되었으며, 『열린 한국어』 초급 1~3, 중급 1~3 (한국어교육 열린연구회) 등 중급 수준의 교재까지 함께 나온 경우도 있었다. 또한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고려한 교재로서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장미경),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1, 2권(장소원 외) 등이 발간되었다.

학습자 집단의 학습 동기 또는 학습 목적의 다변화를 반영한 교재 개발의 성과도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을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의 결과물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4권,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권을 발간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로서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를 발간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가 주로 인문 계열이나 경상 계열 유학생 위주였던 것과 달리 공학 계열 유학생을 위한 『IT 공학 한국어』(김금옥 외)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이 외에 특수 목적 학습자를 위한 『실용 비즈니스 한국어』(판리리), 『(관광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한국어 회화』(신영대 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관광 서비스 예절과 호텔 한국어 회화』(신영대 외),

『요리 한국어』(김영주 외), 『Delicious Korean 31: a book for immigrants to learn Korean through cooking』(서경숙),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박미경) 등 개인 저자들의 다양한 교재 출판이 눈에 띈다.

2011년에도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보급을 위한 연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과정, 교재 개발 및 교사용 자료, 교원 양성과 관련된 연구 등 다양한 연구의 결과물이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를 발간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의 체계화와 표준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에서는 언어·문화 연계형 교육 과정, 한국 문화 독립형 교육 과정, 한국 문화 행사형 프로그램이 결합된 종합형 한국 문화 프로그램을 제안함으로써 세종학당 및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립국어원에서는 교재 개발을 위한 연구 보고서로서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 6 개발』을 발간하였고 교원용 지침서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4: 교원용 지침서』, 『초급 한국어 읽기: 교원용 지침서』, 『중급 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또한 교재 개발 외에 『한국어 교재 추천 제도 운영 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서를 펴내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등을 발간하였다.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는데, 2011년에는 여성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것이 주목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언어 지도 안내』(베트남어) 및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몽골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타갈로그어, 한국어)를 발간하였으며,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교사용 지도서 5, 6 수준』,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부모용 활용 안내서 5, 6 수준』, 『2011년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 자료 개발 제작 사업: 최종 보고서』 등을 발간하였고, 전라북도 교육연구정보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교육 지도 자료』(베트남, 필리핀)를 펴냈다. 이주자 사회 통합 정책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연구원에서는 『이주자 사회 통합 정책 교육 1. 이주자의 언어문화 교육』을 발간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재, 연구 보고서 외의 단행본으로는 한국 언어·문화 학습을 위한 교육 자료, 교사 교육을 위한 저술 등이 있다. 한국 언어·문화 학습용 자료의 성격을 갖는 단행본으로서 한국 문화 학습서라고 할 수 있는 『(생활 속) 한국 문화 77』(이해영 외), 『(외국인 대상) 한국의 언어와 문화』(한길), 『(외국인을 위한) 오늘의 한국』(이선이 외), 『난타로 배우는 아름다운 한국어와 문화』(안성희 외) 등이 있으며, 문법 학습서 『(Dr. Kwon의) 한국어 기본 문법』(권성미),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문법』(최영희),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를 위한 어휘 학습서 『TOPIK 필수 어휘 1000: 중급』(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연구회) 등도 발간되었다. 한국어 교사 교육을 위한 저서에는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한국어 교사를 위한 실제적인 교수 방법』(박덕재 외), 『한국어 듣기 교육론』(양명희 외), 『(한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수법: 초급 1-2』(라혜민 외),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이주행) 등이 있다.

학술적인 연구서로서는 특정 주제의 연구 실적, 박사 학위 논문을 보완한 이론서, 여러 연구자들의 논문을 모은 편저 등이 발간되었다. 『언어권별 한국어 문법 교육』(정정덕),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 문화 비교』(오정란 외),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황상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연구』(박덕유 외), 『유럽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쟁점: 유럽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 논문집』(연재훈 엮음), 『(언어 교육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어 교육 교재와 연구』(김영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합적으로 2011년 한국어 교육 분야의 단행본 현황을 살펴보면, 학문적인 연구서보다는 실용적인 목적의 교재 및 교육 자료의 출판, 정부 기관을 통한 한국어 교육 연구 보고서의 발간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논문

2011년에 발표된 논문은 학술지 게재 논문 320편, 학위 논문 595편으로 총 915편이다. 학술지 게재 논문은 2010년의 380편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학위 논문이 414편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학위 논문 중에서 석사 논문이 569편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학원의 한국어 교육 전공 과정 개설이 확대되어 석사 학위 배출이 늘어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이제 학술지 게재 논문과 학위 논문을 통합한 목록 915편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총론, 언어 내용 교육, 문학 교육·문화 교육, 한국어 교수 방법, 교육 과정·교사·교재·사전·평가, 대조 분석·오류 분석·중간 언어, 특수 목적 한국어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로 나타난 구체적인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한국어 교육 총론

한국어 교육의 총론적인 연구로서 2011년에 주목되는 성과는 지금까지 축적된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과제 및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외 한국어 교육의 학문적 특성 및 연계에 관한 논의, 한국어 교육 정책 및 국외 보급, 지역별 한국어 교육 현황,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는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획 논문을 통해 총체적인 논의와 세부 학문 분야별 논의가 함께 진행되었다. 한국어 교육의 현황을 교육 주체, 교육 대상, 정책, 교육 과정, 교재 개발 및 보급, 교육 기관, 평가 등의 면에서 총체적으로 살펴본 논의(박준언)를 비롯하여 대조 연구(송향근), 오류 분석과 중간 언어(이해영), 교육 과정(김정숙), 평가(장은아), 표현 교육(최정순), 이해 교육(김영규), 발음 교육(정명숙), 어휘 교육(강현화), 문법 교육(정희정), 담화 및 화용(한상미), 문화 및 문학 교육(황인교), 교재 및 교육 자료(방성원),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김중섭),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김선정), 교사 및 학습자 관련 연구(강승혜), 교사 교육(이정희) 등의 주제별로 연구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 외에도 한국어 교육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학의 연구 동향을 총체적으로 살펴본 논의(김용현), 2000년에서 2011년까지의 학위 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분석하여 한국어 교육학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연구 영역의 다양화, 연구자 집단의 전문화, 연구 방법론의 정립을 제언하는 논의(최정순 외) 등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동향을 검토하고 향후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한국어 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이나 위상 정립에 대한 논의보다는 인접 학문과의 관련성, 연계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어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언어학의 가능성(김남길), 호주의 상황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학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신상철)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을 바탕으로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고혜원)뿐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책 연구로서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조항록)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국외 보급의 핵심 정책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된 세종학당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는데, 세계 주요 국가의 자국어 보급 정책과 비교하여 세종학당을 정책적 측면에서 고찰한 연구(김아영), 개별 사례로서 일본 오사카 세종학당 한국어 학습자의 성향, 수강 동기,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등을 통해 일본 내에서의 한국어 교육의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김용경)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 한국의 대학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우창현)도 있었다.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한 연구는 지역별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고용 허가제, 몽골 현지의 한국어 교육 현황, 몽골 출신 유학생을 통한 한국어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본 연구(김명권), 미국 내 비정규 한국어 과정 중 하나인 주미 한국 대사관의 한국어 수업 현황과 발전 방향을 모색

한 연구(방혜숙), 호주 내 한국어 교육의 전반적인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본 연구(심상민), 중국 대학 한국어학과의 역사와 현황 검토를 통해 과제와 발전 방안을 제시한 연구(왕재이)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로서 재외 동포와 외국인을 위해 남북 통합 교재 '우리말 Korean' 편찬을 제안하고, 이에 따르는 언어 규범적 문제들과 실무적 실천 방안을 탐색한 연구(이상혁), 재외 동포 아동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가정 내 부모 주도의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송은영) 등이 발표되었다.

3.2. 언어 내용 교육

한국어의 내용 요소로서 발음 및 억양, 어휘, 문법, 담화 및 화용 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총 314편에 달하여, 언어 내용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변함없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어휘와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가 여전히 많았으나 담화, 화용 교육과 관련된 연구가 전년에 비해 더 증가하였다. 이는 언어 내용 교육에 대한 관심의 범위가 전통적인 내용 범주인 발음, 어휘, 문법에서 점차 담화, 화용의 방향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3.2.1. 발음 및 억양 교육

발음 및 억양 교육에 관한 연구는 총 50편으로 학습자 언어의 특성을 고려한 발음 교육, 개별 음소 및 음운 규칙의 교육 방안, 억양 교육, 다양한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언어권별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대한 것이다. 우선, 개별 음소와 관련된 연구로서 단모음(조아라, 이화진), 자음(만비, 서영, 황산산)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 자음 중에서도 된소리(이설동), 파열음 인지와 발음 교육에 대한 실험 연구(류화순), 중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여 장애음 교육 방안을 제

시한 연구(박시균), 종성 발음 교육 방안(손현미), 울림소리 받침(위원징), 겹받침(김혜영, 비강강) 발음의 오류와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들이 있다. 음운 규칙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음운 규칙 습득의 발달 양상, 습득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장향실), 음운 변동 교육 방안의 연구(유정, 양지이, 정효주・김영주, 한서인)가 있었다. 초분절음에 대한 논의들도 있었는데,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초분절음 사용 실태와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은미), 중국인 학습자의 피치 패턴을 한국어 화자와 대조 분석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김민경), 음절 길이 교육을 통해 중국인 학습자의 운율 오류 수정의 효과를 제시한 연구(최현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외에 한국과 중국이 공유하는 한자어 발음의 전환 과정에 나타나는 변환 규칙을 추적하여 한국어 교육에 응용한 연구(염창권), 중국의 오・월 방언권 출신 지역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용효엽), 중국인 학습자 대상의 발음 교육에서 중국어 권역을 반영하자는 논의(장쟁언), 중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발음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한 연구(손복희), 중국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을 바탕으로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주서연, 이명주), 한국어 교재의 발음 정보를 분석하여 중국어권 학습자의 발음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마금선, 이설동) 등이 있다. 이상의 연구들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논문이 상당수를 차지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권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다른 언어권 학습자의 발음 교육에 대한 연구로는 몽골인 학습자(박윤정, 뭉흐치멕), 베트남인 학습자(조혜란, 이혜강), 이탈리아어 화자(김훈태), 인도인 학습자(손영헌)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영어 화자의 한국어 분절음 및 억양 습득에 관한 연구(오미라 외),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 교육(노미숙),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재 개발(마쓰야마 수미레), 일본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클러스터 산출 및 지각(이나라) 등의 연구도 있었다.

억양에 대한 연구로는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 언어를 대상으로 하여 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의 특성을 논의한 연구(권성미), 평서문의 문말에 나타나는 친절성을 중심으로 억양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양상을 논의한 연구(권성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을걸'에 초점을 두고 억양 교육 과정과 교수 방안을 설계한 연구(이혜영)가 있었다.

기타 효율적인 발음 교육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한국어 어두 파열음 삼중 대립의 지각 학습 효과를 분석한 논의(박성현), 음운이 변동하는 단어를 학습하는 데 필요한 학습 과정을 제시한 연구(김명광), 음성학 기반의 한국어 모음 교육을 위해 보조 도구로서 막대 사탕을 이용한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윤은경), 발음 진단표(박은현),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활용한 자음 지도(Ji Meng), 초급 통합 수업 내에서 음운 변동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허유라), 분절음 및 비분절음 단위의 발음 교육 내용과 지도 방안(박숙희), 초분절음 교육을 위해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기 수정 활동을 개발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한 연구(오은경) 등 다양한 방식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3.2.2. 어휘 교육

어휘 교육에 관한 논문은 총 104편으로 언어 내용 교육 연구 중에서 문법 교육 연구와 함께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주로 관용 표현, 연어, 한자어, 의성어 및 의태어, 외래어 등을 비롯하여 특정 어휘 범주의 교육 내용과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유의어, 다의어, 반의어 등 어휘의 의미 관계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으나, 어휘 교육에 대한 이론, 쟁점에 관한 논의, 어휘 학습 전략 및 방법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어휘 교육에 대해 이론적 논의로서 어휘 교육의 이론적 쟁점 사항을 검토한 후 한국어 교육에 주는 시사점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을 모색한 연구(원미진), 제2 언어 어휘 교육 연구 시 고려할 사항을 토대로 한국어 어휘 교육 실험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한 논의(이승은)가 있었다. 어휘 교육 분야에서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인 한국어 교육용 어휘 등급 선정을 위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동사의 의미 빈도와 학습자 인지 능력을 고려한 등급 선정에 관한 논의(이유경), 해외 청소년 교재의 어휘 중복도를 고찰한 후 한국어 기본 어휘와 비교하여 교육용 어휘 선정 시의 양적 준거를 제시한 연구(민경모)가 이에 해당한다.

어휘 교육의 대상으로서 특정 어휘 범주의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관용 표현 및 연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관용 표현에 대해서는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하여 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색하는 연구가 많았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왕월, 요금휘, 리순푸, 공영, Wang Meng, 진정정),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사와다 히로유키, 박미선), 영어권 학습자의 '눈' 관용 표현 습득 연구(김수정), 스페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관용적 표현을 통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을 제안한 연구(김영인)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속담 교육과 관련하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교육용 속담 목록 선정과 등급 설정을 다룬 박사 학위 논문(왕청청)이 발표되었고, 그 외에도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장진, 조주동, 손사가)가 다수 진행되었으며,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정현미),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속담 선정 및 등급화 연구(임성욱) 등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한 속담 교육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외 신체 관련 속담(이천), 신체 내부와 관련된 관용 표현 교육(조영화), 구어 말뭉치 및 교재의 관용 표현, 한국어 화자 사용 빈도 등을 조사하여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을 선정한 논의(조혜인),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토대로 관용 표현의 수업 모형을 살펴본 연구(구효진, 형재연) 등 말뭉치 또는 교재 분석을 통해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목록과 교육 방안을 논의한 연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연어에 관한 연구로는 '체언+용언'형 연어 목록 선정(장옥경), 세 개 어휘의 상징부사 교육(함윤희),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연어 교육(야카시타 아이) 등의 논의가 있었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의 한자어, 외래어 교육 방안에 대해

서도 많은 관심이 이어졌다. 한자어 교육에 대해서는 주로 한자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과 관련된 연구(고암, 김몽, 범신성, 손이, 조경자, 황예, 무서이, 손운운, 염결여)가 다수 발표되었으며, 한자어 학습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과 중국의 동형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 학습 전략 활용 실태를 분석한 연구(저우 원시안)도 있었다. 그 외 한국어 사자성어의 존재 양상 및 외국어로서의 교육 방안을 탐색한 논의(호취월),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 전략이나 어휘력 향상 방안을 모색한 연구(류투안, 부 티 응옥 안)도 등장하였다. 외래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에 외래어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과 교육 방법론을 제시한 연구(이소영)를 비롯하여,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 조어소 선정을 위해 한국인 집단과 외국인 학습자 집단의 신어 어휘에 대한 인식과 사용상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남신혜 외), 기본 외래어 어휘 목록 선정 및 외래어와 순화어의 유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김미나), 외래어를 유형화하고 그에 따라 교육 방안을 살펴본 연구(박지영)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송연화, 주천문)도 이루어졌다.

특정 유형의 어휘 범주별로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로서 의성어와 의태어 교육과 관련한 논의도 많이 이루어졌다. 한국어 교육용 의성어, 의태어의 단계별 목록 선정 연구(신승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 및 의태어 교육(왕슈에),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 및 의태어 교육(김옥사나)이 있었으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성 상징어 분류(왕아전)에 관한 논의도 있었다. 또한 파생어와 관련하여 접두 파생어 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파생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김덕신), '서술성 명사+접미사' 구성 어휘의 오류 양상(최은지), 합성 동사의 선정과 배열을 다룬 연구(서희정 외)도 있었다. 문화 어휘에 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한국어 문화 어휘 교육 연구(전미순)에서는 한국어 문화 통합 교육을 위한 교육의 내용으로서 문화 어휘의 목록을 마련하고 문화 어휘의 특성에 따른 수준별, 주제별 문화 어휘 교

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문화 어휘의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는 문화 어휘 목록을 제시한 연구(전미순 외),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화 어휘를 활용하여 문화 어휘 선정과 제시 방안을 다룬 연구(오나영), 색채어 문화 상징 어휘 분석 및 교육 방안(이라용) 등도 문화 어휘의 관점에서 논의된 연구들이다. 그 외 어휘의 유형을 개별 품사나 어휘로 한정한 연구로서 수여 동사를 중심으로 논항 구조 인식을 통한 동사 교육 방안(김용),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착용 동사 교육 방안(박설교), 감탄사 교육(왕맹, 한교), 초급 단계의 부사(유정정), 양태 부사(이환우), 접속 부사(오정, 하지걸), 감정 형용사(정혜경), 색채 형용사(김명자), 공간 형용사의 어휘 정보와 교수 방안(주송희), 학습자의 '자기' 사용 양상과 교수 방안(김지혜)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왕 치아오시아, 조신),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 어휘 선정 연구(김소영), 사회 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신어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래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호칭어 교육(최경희, 미가) 등 다양한 어휘 유형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안이 모색되었다.

어휘 의미 관계, 의미 확장 등을 고려한 연구도 다수 있었다. 어휘의 의미 확장과 외국어 습득 이론을 토대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동사의 의미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유경)와 반의어 확장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 패러다임의 제안(강수진)은 어휘 교육 관련 박사 학위 논문이다. 어휘장 및 의미 영역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용 어휘장의 분류 및 교육 방법(문금현),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의미망의 구축 기준 및 교육 방법(신현숙), 감정 표현의 의미 영역을 고려한 교육 방안(이민경) 등도 논의되었다. 학습자들이 구별에 어려움을 겪는 유의어의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벌러르마), 개별 품사별 유의어 또는 유사 어휘(윤소영, 이제희, 융문도),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유추문, 강미함), 학술적 유의어의 공기 관계(황성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다의어 교육(김진희 외, 김은혜, 윤혜경, 정진), 의미 중심 어휘 지도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연상(김은혜)

등의 연구에서 어휘의 의미 관계를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한국어 어휘 확장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 외에도 어휘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로서 노래를 활용한 어휘 교육(정지현), '단어 활성화 도구'에 의한 교육(류혜림), 문맥 중심 어휘 지도 방법이 어휘 학습에 미치는 효과(신유정),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남상은 외), 심상을 활용한 어휘 교수 학습 방법이 학습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손근정), 멀티미디어 어휘 주석과 학습자 인식 양식이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백승주) 등의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논의들은 어휘 교육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그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어휘 교육의 실제적인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3.2.3. 문법 교육

문법 교육 분야의 논문은 총 114편이 발표되어, 2011년에도 변함없이 문법 교육은 한국어 교육학의 주요 연구 분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법 교육 분야의 연구는 크게 문법 교육 일반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문법 교육의 방법론을 다룬 연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특정 문법 범주 또는 개별 문법 항목을 대상으로 문법 교육의 내용과 방안에 대해 제안하는 논문이 가장 많았다. 특히 발음, 어휘 교육 분야와 마찬가지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문법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먼저, 문법 교육의 일반 연구로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제시한 논의(강현화)가 있었다. 교육 문법의 구축과 관련하여 형식과 기능의 상관성에 기초하여 한국어 교육 문법의 내용을 구성하고자 하는 시도(방성원)가 있었으며, 문법 교육 항목을 구성하는 형식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특히 문법적 연어 교육과 관련하여 두 편의 박사 논문이 나왔는데, 한국어 교육에서 문법적 연어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주를 설정한 후 말뭉치 자료를 근거로 교육용 목록을 등급화한 연구(유해준), 의존 명사의 문법적 연어 항목을 선정하고 형태 초점 교수법을 적용하여 교육 방

안을 논의한 연구(이경선)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한국어 교재 분석을 토대로 문법적 연어를 살핀 연구(이정현, 김진희)가 있었다. 문법 교육의 전통적인 쟁점 중 하나인 문법 항목의 선정과 배열, 범주화 등에 대한 연구(황지원, 윤혜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등급을 분석하거나 중국인을 위한 문법 교재 개발을 다룬 연구(장려려, 진류연, 최영), 문법 기술이나 설명과 관련된 연구로서 학교 문법과 한국어 교육 문법의 비교를 토대로 그동안 통일되지 않았던 용언의 설명 방식을 검토하고 대안을 제안한 논의(안주호), 한국어 교육 전공 유학생을 위한 문법 전문 용어 선정에 관한 연구(오윤정) 등도 있었다. 문법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방성원)에서는 한국어 교실 내 문법 교육의 비중, 의사소통과 문법 교육의 상관성에 대한 인식, 효율적인 문법 교수를 위한 교사의 요구 등을 제시하였다.

문법 교육의 내용에 관한 연구는 조사, 어미 등의 전통적인 문법 형식을 비롯하여, 여러 유형의 표현 범주에 이르기까지 매우 폭넓은 범위에서 진행되었다.

먼저, 조사 교육과 관련하여 초급 학습자의 조사 사용 실태(이경선), 한국어 교재의 조사 기술(서민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 교육(진아정), '이/가'·'은/는'·'을/를'(이은희), 고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은/는'과 '이/가'의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한 연구(오현정), 보조사 '나'(서희정), '에 대해'(김연희), 조사 결합형의 제시 방안(이진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사의 양태성(박주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어미에 대해서는 기능 및 의미에 따라 매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결 어미의 경우를 보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 어미의 교육 방안을 다룬 연구(손결, 이문군)를 비롯하여,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연결 어미 교육(풀쌉쌔뚜) 등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연결 어미 교육 일반을 다룬 연구가 있었고, 학습자의 이어진 문장 사용 오류를 분석하여 연결 어미 교육의 중요성과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한 연구(홍선미)도 있었다. 개별적인 연결 어미 항목으로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간 관계 연결 어미의 교수 방안을

제시한 박사 학위 논문(김경화)이 발표되었으며, 그 외에도 시간 표현 연결 어미(이수연, 김수진), '-더니/었더니'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이금희), '-고'와 '-면서'(반려), '-(으)ㄴ/는데'와 '-지만'의 교육 방안(서중운), 인과 표현(이효정), '-어서'와 '-(으)니까'(김희정, 김성일, 이운혜, 장수), '-길래'(민진영), '-자마자'와 '-는 대로'(노미연), 양보의 연결 어미(박지윤), 가정 표현 '-(으)면' 구문(안첨) 등 다양한 연결 어미의 의미와 기능, 구문에 대해 교육 방안의 모색이 이루어졌다. 이 밖에 대학의 외국인 신입생들 쓰기 평가 자료 분석을 통해 연결 어미의 대체 표현을 살펴본 논의(김서형), 수사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구어에 나타나는 '-는데'의 의미를 제시한 연구(이소현), 종결 기능을 담당하는 연결 어미(김미경), 어미 '-아'와 '-라' 및 '-아서'와 '-라서'의 관계(위언려) 등을 탐색하는 연구도 있었다. 종결 어미에 대해서는 박사 논문으로서 준말 종결 형식의 특성 및 형성 조건을 규명하는 연구(최은경)가 발표되었으며, 구어적인 종결 어미인 '-(으)ㄹ래요'(황혜진), '-잖아요'(원해영) 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전성 어미의 기능과 교육 방법(뢰유), 관형사형 어미 또는 구문(조정, 임시현)에 관한 연구도 이루어졌으며, 중국인 학습자의 관형형 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이향화), 베트남 학습자의 관형어 오류 생성 원인을 형태론적 측면과 통사론적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하티 투 투이)처럼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관형사형 사용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다양한 표현 범주의 내용과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시제 표현 또는 관련 선어말 어미의 교육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발표되었다. '-었-', '-겠-', '-더-'를 중심으로 한국어 선어말 어미 교육의 원리와 방안을 제시한 박사 학위 논문(최해주)이 발표되었으며, 한국어 학습자의 종단적 작문 말뭉치를 대상으로 복문에서의 시제 사용 양상 변화 추이를 분석한 연구(강남욱 외), '-더-' 결합형과 '-던'의 교육 방안 연구(오로지) 등이 있었다.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고려한 연구로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선어말 어미 교육에 관한 박사 학위 논문(선광용)이 발표되었다. 이 외에도 실험 연구를 통한 중국어권 학습자 대상의 선어말 어미 교

육 방안(김려연), 시제 교육(장은화, 심반), '-겠-'과 '-(으)ㄹ 것'의 사용 양상(장정정), 과거 시제 표현 교육(풍욱동)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인 학습자의 시제와 상 습득(최은정), 동작류에 따른 과거 시제 습득이 시상 가설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이민아)도 발표되었고,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방언 교육 논의로서 시제 선어말 어미의 표준어와 제주 방언을 비교하고 방언 문법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우창현)도 있었다.

전통적인 문법 범주로서 높임법에 관한 연구는 교재 분석을 통한 교육 방안의 제안(박성일, 우보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경어법 교육 방안(조나), 주체 높임법 교육 방안(류방동), 재외동포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의 높임법 교육(김수연)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피동 표현에 대해서는 중국어권(이정, 난매매), 일본어권(김진영), 태국어권(강해 사마와디) 학습자를 위한 교수 방안이 각각 논의되었다. 인용 표현으로서 '-냐고'가 '-(으)냐고', '-느냐고'에 비해 일반화되었음을 밝힌 연구(김현숙),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간접 인용 표현 교육(이운정)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김지혜)에서는 간접 인용 표현이 구어 담화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분석한 후, 교수 내용에 보완되어야 할 사항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추측 표현(유창, 장단화, 김세령), 추측 양태 표현(이순룡), 부정 표현(김용경, 류남, 장전자), 사동 표현(전전령)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보조 동사 교육(오일륵), 사이시옷 지도 방안(송아문) 등의 논의도 있었다.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칭 대명사 교육(무케쉬)에서는 한국어와 힌디어의 인칭 대명사 간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효율적인 한국어 인칭 대명사 교수 학습 방법을 모색하였다.

문법 교육에 대해 통사론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국어 관계절 구조의 제시 순서와 관련하여 NPAH(명사구 접근 가능성 위계)의 학습 가능성 및 교수 기법을 다룬 연구(김창구), 중국어 보어 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학습 방법(한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심방), SVO 어순을 가진 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연구(채문숙), 이주 노동자의 한

국어 구어 문장에 나타난 통사적 복잡성(김의수 외), 한국어 기본 문형 교육 방안(김미옥) 등의 연구가 이에 해당한다.

이 외에 한국어 문법 교육의 새로운 범주로서 문화 문법(ethnogrammar) 설정의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임채훈), 반복 구성(승종경), 한국어 은유 표현(김현정)의 교육 방안,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준말 연구(강혜림) 등이 이루어졌다.

문법 교육 방법론에 관한 연구 중에서는 형태 초점 교수법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늘어난 것이 주목된다. 박사 학위 논문인 형태 집중을 활용한 한국어 문장 구조 교육 연구(곽수진)는 한국어 문장 쓰기 교육을 위해 동사가 요구하는 격틀과 논항의 의미 정보 교육을 제안하고 교육 방안으로 형태 집중을 활용한 수업의 효용성을 주장하였다. 문법 의식 고양 과제(홍경화, 안나영), 시각적 입력 강화(박성미), 구조화된 입력 활동으로서의 처리 교수(박아현), 형태 초점 과제를 활용한 교수 모형으로서 인지 과정과 협력 학습을 촉진하도록 설계된 PCP 모형(Produce-Consciousness raising-Produce)을 제안한 연구(한하림) 등이 있었다. 한편으로는 연역적, 귀납적 문법 교수의 효과 비교(홍민경), 구성주의적 모형을 활용한 시간 표현 교육(오누리), 집중 피드백이 문법적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이진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법 교재 개발(이채원) 등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 밖에도 문법 교육의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로서 연어, 정형 표현, 단어 결합을 찾기 위한 통계적 방법으로 연관 분석의 가능성을 살펴본 논의(이준규 외)도 있었다.

3.2.4. 담화 및 화용 교육

담화 및 화용 교육 연구는 46편의 논문이 있었으며, 화행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였으나 한국어 화용 능력, 담화 구성 및 표지 등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담화 및 화용 교육에 대한 관심을 증명하듯 새로운 관점의 연구 성과가 나타나는 것이 주목되며,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총론적 논의로서 한국

어 교육에서 요구되는 화행 교육의 목표, 화행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연구(양명희)가 나오기도 하였다.

담화 및 화용 교육 분야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화행별 교육 방안에 대한 논의는 여러 화행 유형별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거절 화행과 관련된 연구가 가장 많았는데,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절 화행 수업 방안(오경숙), 몽골인 학습자의 숙달도별 거절 화행 발달(안선연), 거절 인접쌍(권민정), 한국인과 외국인 학습자의 거절 화행의 사용 양상(최혜민), 거절 화행 전략 교육(서아름), 거절 화행 학습을 위한 연역적 교수와 귀납적 교수 효과 비교(성아영) 등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언어권 화자의 사용 양상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인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동신상, 추원보)가 있었으며, 미국 내 대학 기관 초·중급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 화자를 대상으로 요청과 거절 화행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윤상석), 한국어 요청 화행에서 보조 화행의 전략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사와다 히로유키)가 있었다. 그 외에도 위로 화행(김예지), 설득 화행(최유미), 요구·제안·부탁을 중심으로 한 지시 화행(김미선), 청유문의 화행(김윤수)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한국어 화용 능력에 대해 규명하는 연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박사 학위 논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연구(이정란)는 '-아야 하다', '-고 싶다', '-으려고 하다', '-은/는/을 것 같다'를 통해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및 조건 관계를 규명하였다. 논의를 통해 문법 능력은 화용 능력이 발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조건 관계는 모국어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 외에도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화용 능력 분석(손희연), 이야기 구성 능력(김지혜) 등이 있었다. 또한 공손성과 관련된 연구로서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공손 전략 및 공손 표현을 분석한 논의(김수정),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의 공손 인식에 대한 차이를 제시한 논의(조혜경),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를 유형화하고 서양의 무례 유형과 비교한 연구(김태나)가 있었다.

담화 구성과 관련하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 과정에 대해 단락 구성과 모국어의 영향 관계를 밝힌 연구(제효봉)도 있었다. 고급 학습자의 논증 구성을 중심으로 토론 수업 내용을 모색한 연구(김민애), 중급 학습자의 서사 담화 구조에 따른 시제 사용 양상을 분석한 연구(박수진), 중급 학습자의 발표 담화에 나타난 응결 장치로 접속 부사와 연결 어미 사용 양상을 살펴본 연구(노미연)도 발표되었다.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 장치 비교 연구(이정란)에서는 화제 유지, 화제 아우름, 화제 상기, 담화 연결 사용 양상을 비교하여 학문적 구어 담화 능력과 문어 담화 능력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담화 상황 및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된 연구로서 전화 상황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전략 교육(심은희), 중국인 학습자들의 사적 담화와 공적 담화에 나타난 반복 양상을 비교 분석한 연구(이은희) 등이 있었다. 담화 유형 또는 학습자 숙달도에 따른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에 대해 다룬 연구(장은혜, 정미경, 조위수), 의사소통 전략과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을 다룬 연구(석진주, 왕효효)는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에 중점을 둔 논의들이다.

담화 표지에 대해서는 주로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어 담화에서 '그냥'이 수행하는 담화 표지 기능을 분석한 연구(심란희), '뭐', '글쎄', '있잖아'를 중심으로 담화 표지를 분석한 연구(동가곤), 텔레비전 토크 쇼에 나타난 '이제', '막'을 중심으로 담화 표지의 사용을 논의한 연구(당영)가 발표되었고, 담화 표지를 사용한 발표 지도 방안에 대한 논의(성인경)도 있었다. 표현 문형으로서 '-은/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을 기존 기능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한 연구(조인정)도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언어적 표현 연구(김경지)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서 비언어적 표현을 목록화하고 교육 방안을 모색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그 밖에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김형순), 중국인 학습자의 현장 지시어 기능 습득(왕교하 외), 3인칭 대명사 선택과 관련하여 화용적·사회 문화

적 복잡성을 살펴본 연구(김은성) 등이 발표되었다.

3.3. 문학 교육, 문화 교육

2011년에 문학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27편, 문화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25편이 발표되었다. 문학 교육 분야의 연구는 크게 한국 문학 교육 현황 및 텍스트 선정 등에 관한 연구, 문학 교육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현황 연구로는 터키 에르지예스대학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 사례를 통해 해외 한국학 교육 기관에서의 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연구(유홍주)가 있었다. 문학 교육 분야의 쟁점으로서 작품 선정 및 위계화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내용에 맞게 문학 작품을 위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정해권 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한국어 교육의 수준별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김혜영)에서는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해 고려할 변인들을 추출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문학 작품의 효율적인 읽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문학 작품 자체가 제공하는 문화 교육의 효과 등에 주목하는 연구 성과들도 나타났다. 박사 학위 논문인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노금숙)는 대화적 방법에 근거하여 한국 문학 읽기 교수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 텍스트의 정서 이해 교육 연구(김지혜),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화 교육의 전략을 고찰한 연구(마희정) 등도 문학 작품 읽기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다문화 중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서 문학 지문을 활용한 주제별 독서 지도의 사례 및 학습 결과를 제시한 연구(우혜경), 고전 작품 '춘향전'을 통한 문화 교육(김일, 주도), '홍길동전'을 활용한 교육(이혜진),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 '양반전' 교육(축취영), 시를 매개로 한 한국어 읽기 교육(양전), 시조와 하이쿠 작품을 비교하여 시조의 한국어 교육적 함의를 모색한 연구(서주연) 등도 문학 작품 읽기의 효과를 강조한 연구에 해당한다. 그러나 문학 교육 분야에서 변함없이 높은 관

심을 보이는 주제는 문학 장르 또는 텍스트를 활용한 언어와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고전 설화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 문화 교육 연구(안미영)는 이물교구설화(異物交媾說話) 장르를 활용하여 한국 문화 교육 방안을 모색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그 외에도 한국 문화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의 활용 방안(임보라)을 비롯하여, 소설(김소현, 오복남, 장이), 시(박미향), 수필(최희명), 설화(피영민, 양루이, 이지연), 전래 동화(김문희, 조윤희) 등 다양한 문학 장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가 발표되었다.

문화 교육 분야의 연구는 총론 또는 문화 교육 항목 선정 및 자료 개발 등에 관한 기초 연구, 문화 교육의 내용 연구, 문화 교육 방법론 및 현장 기반 연구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총론적인 연구인 한국어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윤여탁)에서는 한국어 문화 교육의 현황과 내용을 살펴보고 지향점을 제시하였다.

문화 교육의 오랜 쟁점 중 하나인 문화 교육 과정 설계에 관해서는 여러 편의 기초 연구가 진행된 것이 주목된다.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강현화 외)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제시되는 문화 항목의 검토를 통해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한국 문화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CIS 지역 재외 동포 대상 한국 문화 교육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김중섭), 재외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교수요목(김수미) 등의 연구에서는 학습자 집단의 요구 조사를 바탕으로 문화 교수요목 개발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그 외에도 세종학당 학습자를 위한 원형적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에 대한 연구(강현화), 요구 조사를 반영한 중국 대학용 한국 문화 교재 개발 방안(양묘),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유형의 적절성 연구(김인경) 등도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및 교육 자료 개발과 관련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문화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도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문화어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박영순)를 비롯하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생활 문화(곽민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음식 문화 교육(반학포),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 가치 문화(김봉성), 영화 '축제'를 활용한 장례 문화 교육(조영미), 속담을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 교육(황지민, 유효단, 왕문도), 문화 상징 항목을 중심으로 문화 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한국 문화 교육의 가능성을 논한 연구(김낭예) 등에서 여러 범주를 바탕으로 문화 교육의 내용 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문화 교육 방법론 및 현장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룬 연구들도 다수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정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문화 교육 사례(황인교)는 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수해 온 국내 대학 부설 정규 과정의 사례를 제시한 논문이다. 방법론적인 면에서는 단편 드라마를 자료로 하여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론을 적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양지선), 문화 체험 학습이 한국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남보현)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 양상 연구(황인교)는 고급 학습자의 연구 논문의 내용과 제목을 대상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습득 양상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교사와 중국인 학습자 사이의 상호 작용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규범의 차이와 부적응 사례를 다룬 연구(엄상란),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 언어 문화 적응 연구(최권진), 광주 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연구(이관식) 등은 문화 간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문제들을 다룬 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한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의 양상 및 교육의 실제를 제시한 연구(신현단), 한국어 교육자의 문화 의식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김혜영) 등은 문화 교육 연구의 관심을 학습자와 교사의 태도, 의식 등의 차원으로 확대했다는 의의가 있다.

3.4. 한국어 교수 방법

한국어 교수 방법의 영역으로 분류된 논문은 총 123편으로, 하위 주제는 교수 학습 방법 이론 및 수업 운영 관련 연구를 비롯하여,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 언어 기능별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 매체를 활용한 교수 학습, 한국어 학습자 연구 등이다.

먼저 교수 학습 방법 이론과 관련된 연구로서 교실 수업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탄뎀(Tandem) 언어 학습법의 적용을 모색한 박

사 학위 논문(배고운)이 발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학습자와 모국어 학습자를 팀으로 만들어 각자 상대방의 언어를 학습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학습을 도와주는 탄뎀 학습법을 한국어 교육에 적용하여 수업 모형 및 학습 자료를 제시하였다.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이지용)에서는 말하기·듣기·읽기·쓰기 전 영역에 걸쳐 개념적 은유 이론이 교수 학습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 그 활용 방안을 제시하였다. 침묵식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함은주), 상호 작용 활성화를 위한 중급 한국어 수업의 운영 방안(박정애),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이윤경) 등도 다양한 교수 이론 및 방법의 적용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과제로서 한국어 학습자에서 한국어 사용자로 전환되기 위해 언어 사용 원리에 입각한 교육 책략을 과제로 제시하는 연구(박문자)도 있었다.

언어 기능별 교수 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듣기 7편, 말하기 8편, 읽기 18편, 쓰기 22편이 발표되어 구어 교육보다 문어 교육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어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듣기 교육(정선화)은 박사 학위 논문으로서 듣기 교육에서 구어 교육의 중요성을 밝히고 구어 교육의 기본 원리와 내용에 대해 제시한 연구이다. 듣기 교육을 위한 현실 발음 유형(박혜레나)도 듣기 교육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로서 청자의 듣기 과정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주장한 연구(이미향)도 있었다. 듣기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김윤희)에서는 학습자의 듣기 능숙도에 따라 사용하는 듣기 전략을 조사하여 효율적인 듣기 전략의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듣기 교수 학습의 실제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입출력 강화를 통한 듣기 교육 방안(최문석), 딕토글로스 활용(손해숙), 자기 주도적 한국어 듣기 학습 지도 방안(심마니) 등의 연구가 있었다.

말하기 교육에 대해서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 학습의 실태 및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김순녀), 감탄사를 활용한 말하기 전략 교육(신아영), 토론 활용(장운잠), 설화의 이야기판 활용(장수영), 문학 작품의 극화 학습을 통한 말하기 교수(김재정),

교육 연극의 활용(형연희, 안선욱), 각색극 활용(유패패) 등의 논의가 있었다.

읽기 교육에 대해서는 읽기 교육 방안 및 읽기 전략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텍스트 문법에 기초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김충실)은 형식 스키마에 초점을 둔 텍스트 유형별 읽기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특히 중국인 학습자에게는 문장의 핵심 어휘를 먼저 소개하는 의미 중심의 읽기 교육이 유용함을 지적하였다. 확장형 읽기 프로그램의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구(우형식 외)에서는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자료의 선정과 등급 구분 및 확장형 읽기 교육의 효과 분석 등이 이루어졌으며, 협동적 읽기 수업에 대한 논의(이현아)도 있었다. 읽기 전략과 관련된 교육 방안 연구로는 스키마 활성화 전략(황정인),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정수아), 요약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읽기 교육 방안(이병희), 생각 말하기 활동을 통한 읽기 전략 지도 방안(노미경), 중국인 학습자의 읽기 초인지 전략과 읽기 효능감과의 관계(전영분)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특정 전략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략을 활용한 읽기 교수 방법 등이 논의되었다.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한국어 읽기 학습자의 태도 및 동기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최서원)에서는 한국어 읽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읽기 학습에 대한 태도이며,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읽기 동기임을 주장하였다. 알고 있는 단어의 텍스트 점유율이 읽기 이해 및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윤새롬)에서는 한국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문지방 단계를 설정하고 텍스트 수정 기준을 제안하였다. 텍스트상의 한자 병기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황민형),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읽기 텍스트의 이독성 공식(백재파) 등의 연구도 있었다. 실제적인 읽기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로는 어휘의 문화 배경 지식 활용을 제안한 연구(신윤경), 읽기 전 활동 유형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노미경), 읽기 후 활동 설계 및 제시 방안(송이슬)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쓰기 교육 분야에서는 장르 중심 쓰기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학문적 텍스트 서론의 장르 분석(안지혜), 다차원 분석에 의한 한국어 논문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홍혜란),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신영주),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장르 인식 양상(이은혜), 읽기 텍스트를 활용한 장르 중심 쓰기 교육 방안(유미정), 요청 전자 우편 쓰기(김가람), 자기 소개서 쓰기(이옥화) 등에서 장르 중심 쓰기 교육 이론에 중점을 두거나 특정 장르의 특성에 대한 분석, 장르별 쓰기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진행되었다. 또한 텍스트 언어학적 관점에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기제 사용(민주희), 학습자 글의 접속·생략·지시를 중심으로 텍스트 결속 구조 장치의 오용 및 개선 방안(최고나)을 제안한 연구도 있었다. 실제적인 쓰기 교수 학습과 관련된 논의로서 한국어 쓰기 교육의 방법과 전략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즉시 쓰기'와 '말하기 후 쓰기' 비교를 통해 말하기와 쓰기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하평평), 수필을 활용한 대화 일지 쓰기가 한국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민유경),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쓰기 수업(류은주, 이현희), 협동적 쓰기 과제에 나타난 형태 집중과 정확성 연구(남주연) 등에서 쓰기 과제에 효율적인 다양한 교육 방안이 모색되었다. 그 외 신문을 활용한 글쓰기(김현미), 독자를 고려한 쓰기 교육 방안(임지현),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문단 쓰기 교육(이진옥)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쓰기 전략과 관련된 연구인 자기 조정 전략 연구(최보미)는 과정-장르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자기 조정 전략이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쓰기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다. 과정 중심 쓰기 교육의 대화식 저널 쓰기와 교사의 피드백에 따른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 연구(채상이), 문제 해결 쓰기 전략을 바탕으로 동료 피드백을 활용한 협력 쓰기 교수 모형(공영숙)을 제안하는 연구도 있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수업 방안(남빅토르)에서는 한국 대학의 교재들이 주로 의사소통 능력을 말하기 능력에 국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목적에 따른 쓰기 교육의 필요성 및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언어 기능을 통합한 교육 연구로는 시각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육(초정), 협동 학습 중에서 CIRC 프로그램을 활용한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조영철)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우체국 이용 상황과 관련하여 필요한 한국어 교육의 내용과 방안을 제시한 연구(진정신)도 있었다. 그 밖에 해외 대학의 한국어 전공 과정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번역 교육과 관련하여,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번역 교육 모형 설계를 위한 연구(장정윤)도 이루어졌다.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논문은 41편이 발표되어,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학습자에게 친숙하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 활용에 대한 제안이 있었는데, 이는 교사와 학습자가 영상 매체를 점점 더 친숙하게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다양한 매체 중에서도 영상 매체인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와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의 실제에 관한 연구가 많이 발표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인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윤영)는 소설과 영화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서사적 특징을 활용하여,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소설 교육을 위해 작품을 선정하고 교수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영화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지도(왕나), 실제 영화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안(손명진)을 비롯하여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한경화),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노유미), UCC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고문희)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 구성(이미혜)에서는 드라마 활용의 수업 모형과 비디오 클립 제작 방법을 제시하였다. 드라마 활용 한국어 교수 방법과 프랑스 대학에서의 수업 사례를 제시한 연구(권용해 외)가 발표되었으며,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말하기 교육(김윤선, 박명실), 드라마형 뮤직 비디오 활용(정영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 활용 한국어 교육(옌난), 드라마 활용 교수의 실제로서 '시크릿 가든'을 활용하여 통합 수업을 진행한 결과 학습자들이 말하기 능력에서 많은 향상을 보였다는 연구(유경수 외)도 있었다. 광고 활용과 관련된 연구로서는 멀티미디어 기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실제(김성수)에서 프랑스의 한 대학에서 텔레비전 광고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한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텔레비전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이수), 광고를 활용한 교육 방안 및 효과와 관련하여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한수정), 가치 문화 교육(김정순), 맥락 중심 영상 텍스트 읽기(이유림) 등의 다양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안(판티홍하, 팽언),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교실 수업 모형(치형난),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표현 교육 방안(유현정)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류희정),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수업(김복수),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우혜, 김지혜) 등은 학습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노래를 통해 한국어 교육을 시도한 연구들이다. 그 밖에 한국어 고급 수준의 부교재를 중심으로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의 실제를 다룬 연구(곽지영)를 비롯하여,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황용, 오우) 등의 연구가 있었다.

매체 활용과 관련하여 컴퓨터 및 인터넷 기반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도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최열)에서는 읽기와 듣기 능력이 인터넷 활용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용 웹사이트 내용 분석(이설), 웹 기반 한국어 교재의 재사용성 제고 방안(오승영), 한국어 교육 웹 교재의 내용 설계(송재희), 원어민 영어 교사를 위한 e-러닝 한국어 학습 방안(한혜민), 중국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블로그 활용 한국어 교육(주일문),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박정님), 인터넷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 방법(차순정) 등의 연구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연구이다. 한편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교육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연구도 나타났다. 모바일(m-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안 연구(박유진)에서는 스마트폰용 모바일 한국어 학습 애플리케이션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스마트폰 활용 한국어 학습 지원 애플리케이션 구성 방안(백종훈)에서는 대화문을 증강 현실과 연계한 애플리케이션 구성의 방안을 제시하였고, 한글 듣기 교육용 콘텐츠의 설계 및 구현(송종윤)에서는 모바일 운영 체계를 기반으로

외국인을 위한 한글 교육용 콘텐츠의 설계를 보여 주었다. 좀 더 확장된 범위의 연구로서,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학 디지털 자료의 활용 방안(홍윤표)은 해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지털 한국학 자료와 활용 방안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효율적인 교수 학습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 인지적, 정의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가 증가한 것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박사 학위 논문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 분석 연구(손성희)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개인차 변인에 따른 언어 학습 전략 사용의 차이를 살펴보고 언어 학습 전략이 한국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분석(손성희 외)에서는 797명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학습자의 학습 동기를 분석하고 성별, 연령, 언어권, 한국어 숙달도, 한국어 성취도와 한국어 학습 동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분석 연구(손성희 외)는 성공적인 한국어 학습자가 그렇지 못한 학습자에 비해 학업적 자기 효능감이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학습자의 자기 결정성 동기 유형을 파악하고 동기 유형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 연구(고형진, 고형진 외),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개인차 요인과 제2 언어 성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밝혀낸 연구(이은하 외),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에서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연구(주운), 한국어 교실 상황과 학습 동기 및 태도와의 관계 연구(유연경) 등은 학습자의 학습 동기와 학업 성취와의 관계를 보여 준다. 교사의 동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남명애 외)에서는 동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도 고려해야 함을 통계학적 검증을 통해 보여 주었으며, 한국어 교육에 정의적 수업이 미치는 영향(전성민)에서는 정의적 수업을 받은 학습자가 교사와 긍정적으로 소통한다고 느끼며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수용력 확대, 학업 성취에 대한 만족 등을 보인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학습자의 개인적 변인에 따라 외국어 불안과 모험 시도가 학업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권유진 외)도 발표되었으며,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

습자의 인지 양식과 성취도와의 관계(오혜인), 학습자의 성격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연구(최욱)도 있었다. 그 밖에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정체성 연구(지민정)에서는 설문 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동기 부여 및 상호 작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3.5. 교육 과정, 교사, 교재, 사전, 평가

한국어 교육 과정, 교사, 교재, 사전, 평가 등의 연구는 총 134편이 발표되어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실제 한국어 교육 현장과 관련성이 높은 주제들에 대해 연구자들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연구는 총 11편이 발표되었는데, 구체적인 학습자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과정의 개발 또는 분석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김정숙 외)은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세종학당용 모형, 세종학당의 교육 현황 분석을 근거로 하여 표준 교재의 교수요목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내 수도권 대학의 단기 과정의 현황 분석 및 교육 과정 설계(박선옥 외)뿐만 아니라, 중국 대학교의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및 개선 방안(조은숙),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김병호), 일본어권 대학생을 위한 단기 한국어 문화 연수 과정 교수요목 설계 방안(김지현), 태국 대학에서의 관광 한국어 교과 과정 연구(김화란) 등 다양한 국외 한국어 교육 과정 연구가 있었으며, 재일 동포 총련 조선학교의 국어 교과 내용 변천(송재목)과 같이 교육 과정의 역사적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편,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의 기술 원리 및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김선정 외)에서는 한글학교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해외 초·중등학교용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의 비교를 통해 여러 '표준'을 상호 연계 내지 통합하고자 할 때 제기될 수 있는 논점을 고찰하였다. 그 외에 한국어 학습자의 상담 사례 분석(조현선),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최재찬), 한국어 어학당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수강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왕가) 등의 연구는 한국어 교육 과정의 여러 측면에서 발전을 제고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어 교사와 관련된 주제로는 1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어 교사의 관리와 평가(안경화)에서는 국내 현황 및 외국어 교육 분야의 평가 사례 검토를 통해 한국어 교사의 관리 및 평가 방향을 제안하였다. 좋은 한국어 교사에 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공민정), 한국어 경력 교사의 교수 지식(정대현) 연구는 좋은 교사, 숙련된 교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를 보여 준다.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시한 연구(김한빛나리), 요구 분석을 토대로 한글학교 교사 교육의 방향을 모색한 논의(안수정)가 이에 해당한다. 한국어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현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 연구(서상영)가 발표되었으며,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의 한국 문화 영역 시험 문항 분석을 통해 개선 방안을 제안한 논의(박선옥)도 있었다. 교사 인식과 관련된 연구로는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용어에 대한 예비 교사 및 현장 교사의 인식도 조사와 결과 분석(지현숙 외)이 있었다. 초보 한국어 교사의 교사 일지에 나타난 자신감과 불안 분석(연준흠)에서는 자신감과 불안이 교수 행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여 주었다. 교사 효능감 연구(안정민)에서는 한국어 교사의 교사 효능감을 측정하고, 여러 변인들이 교사 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생의 자국어 교육 프로그램 인식(한영목)에서는 설문 조사를 통해 자국어 교육에 대한 인지 실태를 분석하기도 하였다. 교사 피드백 및 교사 발화 등도 교사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인 교사 발화에 나타난 관여 유발 전략(백승주)은 한국어 수업 대화의 구조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 발화의 관여 유발 전략의 종류와 사용 양상을 규명하였다. 한국어 초급 교실에서 교사의 수정적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최은정 외), 교사의 역할(김은주), 문법 설명 중심의 교사 말 실태(서정애), 제2 언어 교실에서 질문 분

류 방식과 기능에 대한 문제 제기(백승주) 등도 교사 발화, 피드백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산출하였다.

한국어 교재와 관련된 연구는 69편에 해당하여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변함없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러 유형의 교재 개발 또는 교재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교재 개발 관련 연구는 실제 교재 개발 과정과 사례를 소개하거나 영역별 교재, 특정 언어권 학습자를 위한 교재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의 단원 모형 개발 방안(이해영 외), 가톨릭대 한국어교육센터의 교재 개발 사례(박선옥)는 모두 실제 교재 개발 과정을 바탕으로 발표된 논문이다. 드라마를 활용한 말하기 교재(편효경), 중국 대학 강의용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 방안(조은숙),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굴영)은 언어 기능별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박사 학위 논문인 중국의 한국어 교재 '정독'에 대한 연구(교우박)는 중국 대학의 한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정독' 과목에 대해 학습자 요구 조사를 토대로 교재의 형식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문화·문학 교재 개발 연구로는 문학 읽기 교재 구성 방안(김창아), 문화 체험 학습 사례를 바탕으로 한 문화 교재 구성 방안(김동욱), 설화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 교재 개발 방안(임찬진)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통합 교재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황은지), 플래시(Flash)를 활용한 발음 교재 개발(조애란), 한글 자모 교재 개발(김윤진)은 자모 및 발음 교재 개발과 관련된 연구이다. 그 외에 재외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모형 개발(류선숙), 중국 사설 학원용 한국어 회화 교재 개발(조렬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과 교재 개발(천신신),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말하기 교재(이엘레나),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어휘집 개발(유미현) 등 학습자 집단의 특성을 고려한 교재 개발에 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그 밖에 한국어 워크북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김선희), 한국어 인쇄 교재의 시각적인 면을 고려한 가독성 향상 방안 연구(허은영)도 있었다.

교재 분석 연구는 전체적인 분석이나 평가보다는 특정 기능 또는

영역별 분석과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언어 기능 중에서는 읽기 교재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초급 교재의 읽기 담화 유형 분석(장명원), 초급 교재에 나타난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 변천 연구(장미라), 중국 대학용 초급 정독 교재 분석(황진재), 중국 초급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오류를 분석한 연구(김정은), 사설·칼럼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고급 한국어 교재 내 읽기 자료의 텍스트 전형성을 검토한 연구(이승연 외), 학문 목적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 텍스트를 대상으로 읽기 텍스트의 난이도 분석 기준 및 방법을 제시한 연구(구민지), 중급 한국어 교재의 읽기 과제 분석(리준) 등이 읽기 교재의 분석과 관련된 연구들이다. 한국어 고급 교재의 쓰기 영역 학습 활동 분석(최향옥) 외에 한국어 초급 교재의 쓰기 활동을 영어 교재와 비교하여 분석한 논의(김애순), 한국어 교육과 일본어 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쓰기 교재 분석(혼다토모쿠니 외)은 한국과 다른 지역의 쓰기 교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제안한 연구들이다.

교재의 대화문, 과제 및 학습 활동 등 교재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한국어 초급 교재의 대화문에 나타난 사회 언어학적 요소와 대화 구조 분석(김다원), 초급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적절성(김준희),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구어적 요소 분석(엄나영), 대화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 전화 대화문 분석(박상은), '의사-환자'의 의료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실제성을 분석한 연구(정다운), 대화문에 나타난 공손 표현 연구(김율희) 등이 있었으며, 한국어 교재와 TOPIK에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유형과 분포(조수현 외)를 분석한 연구도 발표되었다. 한국어 초급 교재의 과제 복잡성과 의사소통 기능 분석(구와노 토모미), 중급 교재의 과제 제시 현황 및 방안(지승필), 말하기 교재 속 역할극 활동의 분석 및 구성 방안 제시(이정민) 등을 통해 교재 구성의 세부적인 요소에 대해 실질적인 구성 방안이 논의되었다.

교재의 문법이나 어휘, 발음 영역과 관련된 분석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문법 교재 분석(이주화 외), 한국어 교재의 인용 구문 분석(채숙희), 한국어 교재의 반복 구문

분석과 교육 방안(전가영),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재를 대비 분석한 논의(한염아),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청자 경어법 교재의 개선 방안 연구(왕시훼),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교육 양상 분석(임은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체어 어휘장 분석(장종임), 한국어 교재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고유 문화 어휘의 번역 방향을 살펴본 연구(최혜민), 중국의 발음 교재 구성 체계 분석(손복희),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윤정기), 중국의 한국어 교재 발음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왕단) 등의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문화 교재와 관련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재의 주제 분석(김정남 외)에서는 동일 주제를 다루고 있는 교재들 속의 상이한 텍스트들 사이에서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적합성 판단과 기준을 모색하고 분석한 논의(이소영 외),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옛이야기를 비교한 연구(왕지원)도 있었다.

언어권별 교재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는 일본 대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한국어 교재 5권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을 마련해 분석한 연구(박소연),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양경진) 외에 베트남어권 학습자 맞춤형 한국어 교재 분석 및 평가(고혜진),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유영지)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밖에 한국어 초급 교재 내용의 적절성 분석(박진국),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성별 언어와 관련하여 한국어 교육 과정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현상(조남민) 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한국어 교육 자료에 대한 역사적 고찰도 교재 연구의 한 축을 이룬다.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검토(오대환), 해방 전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 교육에 관한 기록의 발굴(오대환), 오구라문고(小倉文庫) 소장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일 고찰-『금고기관(今古奇觀)』을 중심으로(정승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Book 1 『한국어 교본』 연구(여찬영)는 연세대 한국어학당 개원 시 간행된 박창해(1960)의 한국어 교본 내용을 분석한 것이며, 한국어 교수 설

계를 위한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 문화 고(이미향)는 외국인 저술 초기 한국어 교재를 검토하고 한국어 교육 연구와 실제에 언어 문화의 교육적 적용을 제안한 논의이다.

이 외에도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교재의 통사적 특성 연구(김민진), 한국어 교사용 지침서의 과제(task) 지도 방법(강명희), TOPIK 응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기영흠) 등이 교재 관련 연구로서 이루어졌다.

사전 관련 연구는 4편이 발표되었다. 박사 학위 논문인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몽골어 학습 사전 편찬에 관한 기초 연구(김주희)는 사용자 요구 조사를 통해 학습 사전의 실제적 모형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정의문 연구(홍주희)도 학습자 사전 개발과 관련된 연구이다. 한편, 한국학 기초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한국어 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이수미, 서승아)가 논문으로 발표되기도 하였다.

평가 분야의 연구는 총 33편이 발표되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어 능력 시험에 관한 연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론적인 논의로서 1997년 제1회 실시 이후 2011년 22회까지의 시행 결과를 통해 한국어 능력 시험의 발전 양상을 살펴본 연구(김정숙)가 있었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한국어 어휘 평가의 현황과 전망(조현용),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능력 시험의 현황 및 특징(안여경), 중급 평가 문항 분석(이상린), 의사소통 능력 평가라는 관점에서 본 TOPIK의 타당성(여하나)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영역별 평가와 관련하여, 어휘·문법 영역(박석준, 리스미스안젤라 외, 이춘매), 읽기 영역(이경화, 김장식, 김정은), 듣기 영역(오상미), 쓰기 영역(왕가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그 외 한국어 능력 시험 평가 기준에 근거한 교재 분석(최수정 외), 어휘 내용 연구로서 한국어 교재와 TOPIK에서의 기본 어휘의 상관성(김수정), 중급 어휘 문법 영역과 읽기 영역의 어휘 내용 분석(이은숙), 평가 문항의 오류와 관련된 연구로서 어휘·문법 및 쓰기 평가 문항의 오류(남경란), 읽기 영역 오류 문항(이상린)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해 언어권별 교수 방안

을 모색한 연구(김광일)도 있었다.

일반적인 평가 관련 연구 중에서는 한국어 표현 능력 평가에 대한 논의들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특히 한국어 말하기 평가, 학습자의 문법적 능력 평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말하기 평가와 관련하여 담화 분석을 통해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김은혜), 의사소통 기능의 실현 양상(김상수 외), 결속 장치 사용(김상수)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며, 말하기 능력 평가의 문항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구(임연희, 이세훈)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인터뷰 시험에서의 발화 추출 방법 분석(나카가와 마사오미)은 일본 대학의 성취도 시험 사례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학습자의 문법적 능력 평가와 관련하여, 한국어 구어 문법 평가의 방향(정명숙)에서는 지금까지의 구어 평가에서 문법적 능력에 대한 평가가 진정한 구어 능력 평가로 보기 어려웠음을 지적하였으며, 언어 기능과 통합한 한국어 문법 능력 평가(정혜)에서는 문법 능력 평가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쓰기 평가와 관련된 연구로는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능력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일반화 가능도 검증(김성숙) 논의가 있었다.

그 외 SAT 한국어 시험과 IB 한국어 B를 중심으로 대입 자격 시험을 통해 바라본 한국어 교육(김진실), 한국어 학습자의 진급 여부 의사 결정을 위한 준거 점수 설정 방법에 대한 연구(이은하), 청소년 학습자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 방안(장근영),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곽민정)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3.6.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중간 언어

대조 분석 연구, 오류 분석 및 중간 언어 연구의 성과는 99편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3.2의 언어 내용 교육 분야로 분류된 연구들 중에도 특정 언어권 학습자의 언어적 특성 또는 오류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과 방법을 논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 분야의 연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먼저, 대조 분석과 관련된 연구는 총 29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병렬 말뭉치의 대조 주석 모형 개발(신자영 외)은 다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을 위한 대조 주석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대조 연구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그 외 대조 분석 관련 논문 중에서는 16편이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분석에 기반을 둔 것들이다. 한국어·중국어 음운 대조 분석과 관련된 연구로서 음절 대조 분석을 통한 발음 오류(정해연),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북경어권과 광동어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ㄹ/ 발음 대조 연구(최호량)가 있었고, 어휘 대조 분석 연구로는 한·중 의성어 및 의태어(동치엔), 비친족 관계 호칭어(수혜교), 속담(송효교), 고사성어(유영), 동형이의 한자어(왕배배), 한자어 의미 대조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 학습 전략을 제시한 연구(유서천),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의 어휘 비교(박기숙) 등의 연구가 있었다. 문법 분야의 대조 분석 연구로서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 연구(이영)가 박사 학위 논문으로 발표되었으며, 조사 '이/가'와 '은/는'(백수진), '으로, 으로서, 으로써'(장유린), 원인·이유 연결 표현(안연진) 등에 대한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 외 비교 문화 언어학의 관점에서 인칭 대명사와 지시사를 비교한 연구(백수진), 텍스트 결속 기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 한·중 텍스트 대조 분석(한지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의성 대비(동양) 등의 연구도 이루어졌다. 한국어와 영어의 대조 분석 연구로는 활음의 음의 길이를 중심으로 이중 모음의 음성적 대조 분석을 실시한 연구(윤은경), 관용어 대조를 통해 난이도를 구분하고 대조에 기반한 관용어 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이양금), 영한 병렬 말뭉치를 통해 한국어 접속 표현과 영어 접속 표현의 변환 현상을 살펴본 연구(백승주), 시제 체계 대조를 통해 '-었-'의 교수 방안을 제안한 연구(김선희) 등이 있었다. 일본어와의 대조 분석 연구는 '선생님' 호칭 사용에 대한 대조(이승민 외), '하다' 표현의 대조(이은정), 속담 비교(박현주)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밖에 한국어 모어 화자와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 분석(김선미), 말레이어·한국어 대조 분석을 통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나디아), 태국

라후족의 언어와 한국어의 대조 분석에 기초하여 초급 한국어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최혜경) 등이 발표되었다.

오류 분석 연구는 학습자의 오류 유형, 원인 진단 등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총 32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 논의가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중국인 학습자의 오류 분석에 대한 연구가 16편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김연이, 최향란, 김현숙, 강려), '가다/오다'의 사용 양상(이연옥), '-하다'·'-되다'형 용언의 사용 양상(이덕향), 한국어 재귀 표현 사용 양상(제효봉), 조사 오류(왕엽, 영염, 왕문비), 종속 접속문 구성 오류(이재성), 자음과 모음을 습득하는 과정의 철자 오류(양군), 한글 맞춤법 오류(주로), 중한 번역 오류(이정원), 학문 목적 학습자의 말하기 발표 오류(홍윤경) 등의 오류 분석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격 조사 오류(이지훈), 몽골인 학습자의 격 조사 오류(아마르자르갈), 몽골인 초급 학습자의 작문 오류(온다르마), 베트남인 학습자의 조사·어미를 중심으로 한 작문 오류 경향(이병운), 베트남인 학습자의 조사 오류(탁진영), 태국인 학습자의 모음 발음 오류(류미용), 태국 교포 아동의 맞춤법 오류(윤미영 외), 캄보디아인 학습자의 발음 오류(조동현), 스페인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박하나), 터키어권 학습자의 주격 조사 오류(손호섭), 아랍어권 학습자의 자모 쓰기 오류(박찬숙) 등 다양한 언어권 학습자의 오류 분석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조사 오류(전영옥),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 비교(황상심 외), 중급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나는 조사·어미 오류(장화숙) 등의 연구가 있었다.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대한 논문은 32편이 발표되었는데 주로 조사, 시제, 어미 등의 문법적 단위를 중심으로 한국어 습득 양상을 살펴본 연구가 많았다.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을 다룬 논문(정해권), 중국 및 인도네시아 이주 노동자의 중간 언어에 나타나는 조사의 습득 순서와 패턴을 분석한 연구(박혜손), 중국인 학습자의 조사 '에, 에서, 로' 습득(설위), 폴란드어권 학습자의 단계별 '이/가'와 '은/는' 사용 양상

(이보혜), 과거 시제 형태 습득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개념 습득 양상을 살펴본 연구(강남욱), 담화 구조 가설을 중심으로 하여 학습자 쓰기 담화에 나타난 텍스트 장르별 시제상 습득 양상을 다룬 연구(심은지),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중간 언어를 살펴본 연구(장위), 결혼 이주 여성 관련 방송 자료를 중심으로 중간 언어 대화에 나타나는 '-었-'의 사용 실태를 살펴본 연구(손희연),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구어 발화의 연결 어미 사용 양상을 비교한 연구(이정희), '-고'와 '-어서' 구문 습득에서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 중간 언어(범엽),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별 연결 어미 정확성 변이 양상(서세정 외) 등이 조사, 시제, 어미를 중심으로 중간 언어를 다룬 연구들이다. 베트남인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이해영), 중국인 학습자의 이유·원인 표현 습득(성은주), 중국인 학습자의 피동 표현 습득(정수민),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모국어와 숙달도에 따른 추측 표현 습득 양상을 살핀 연구(홍승연), 복문의 사용 양상, 연결 어미, 전성 어미 등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인 학습자의 발달 양상을 살펴본 논의(김선정 외), 해라체 평서문의 습득 양상(엄진숙) 등도 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이다. 발음과 관련된 중간 언어 연구로는 일본어,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 음절 종성 지각에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정미지),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습득 과정에 대한 종단 연구(한정임 외), 체코어 화자의 중간 언어(신예리), 한국내 아시아인의 한국어 조음 음운 특성(구희량)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어휘에 중점을 둔 중간 언어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 학습자 쓰기에 나타난 어휘 사용 빈도 예비 조사(배도용),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눈' 관용 표현 습득에 있어서의 모국어 전이 효과(김수정 외), 중국인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수준별 어휘적 특성(이영지), '-어지다'류 동사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김윤신 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담화 표지 '뭐'의 의미 기능 이해를 분석한 연구(민유미), 미국인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언어 유형학적 관점에서 주제 중심어적 특

성 발달에 대해 다룬 연구(이선진 외), 평균 발화 길이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를 살펴본 연구(김선정 외, 김목아) 등이 있었다.

그 밖에 제2 언어 습득 이론에 근거한 논의로서 한국어 영 주어와 영 목적어 습득을 다룬 연구(정진희), 대화 상대자 간 숙달도 차이에 따른 의미 협상 양상 연구(구자혜), 한국어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나타난 자기 시발 자기 수정의 유형과 분포(이재은 외), 이중 언어 또는 다중 언어 습득과 관련된 연구로서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어 가정 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대용어 결속이 가진 잠재적인 불완전 습득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김지혜), 해외 거주 한국 화교의 한국어 사용 현황에 대한 연구(강소영), 제3 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조재현, 김선영)가 있었다.

3.7. 특수 목적 한국어

학문 목적, 직업 목적 등 한국어 학습 목적에 따라 학습자 집단이 세분화되고,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이들 분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23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는데 기초적 연구로서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전형길 외),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이훈병), 광주·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대책(강희숙)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교육과정 및 교재와 관련하여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중요도(레인, 김운), 기초 교육 교재 개발 방향의 제안(최선경) 등의 연구가 있었다. 언어 기능별로는 쓰기에 대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하였으나 듣기, 말하기, 읽기 등의 연구도 진행되었다. 한국인·외국인 간 강의 듣기 전략의 사용 양상 비교(배윤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듣기 교재 내용 선정(이빈), 말하기 과제 유형 개발(박혜미), '반론하기'의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정미진),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읽기 후 활동 분석(박효훈), 학습자의 다독 능력 향상(전병옥) 등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학문 목적 쓰기 교육과 관련된 연구로는 '읽은 후 쓰기 과제' 연구(이준호), 학위 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김현진),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배윤경 외),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이수정),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요약문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교육 방법 연구(정다운), 내용 중심 교육과 장르 중심 교육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수업 구성 방안(정다운), 윤리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이윤진), 학문 목적 한국어 논설문 쓰기 교재(남주혜) 등의 다양한 논문이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발표되었다. 그 밖에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어휘 학습 전략을 활용한 교육 방안(이지아), 이공계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묘예나)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학습 기술 교육 방안(김상영), 노트 필기 전략과 언어 학습 신념 및 전략에 따른 학업 성취도(최윤정) 등 학습 기술 및 전략과 관련된 연구도 진행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5편으로서 국내 이주민 지원 센터의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연구(최혜진), 중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안은경), 캄보디아인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빈도경), 인도네시아인 대상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최정희), 스리랑카와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의 한국어 문장 연구(손현화) 등이 발표되었다. 특정 직업·직무 수행과 관련된 한국어 교육 연구도 6편 발표되었는데 한국어 통역 교육 과정 개발(이은진), 군사 한국어 교재 개발(김경섭), 관광 가이드를 위한 교재 개발(이준기),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안형미),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를 위한 문화 요소(최현주), 태국 대학생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김호정) 등이 그에 해당한다.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총 120편이 발표되어 특수 목적 한국어 교육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부 주제로 다시 구분해 보면, 크게 다문화

가족 지원 현황 및 정책과 쟁점,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연구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로는 한국어 교육 관련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박주영)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와 '사회 통합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김재욱)에서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 양성 과정과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고 그 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다문화 교육 교수-학습 평가(안한나)에서는 현직 교사들의 심층 면접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평가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축적된 연구 경향을 분석한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쟁점(강현화)에서는 다문화 관련 연구들이 일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학 중심의 기초 연구가 부족했음을 지적하였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는 교육 과정, 교재, 교수 방법, 교육 내용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류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한국어 집합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손병길) 등 교육 과정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교재 분석 및 개발과 관련하여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범용 교재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개발 방안(나정윤), 기존 출판된 교재 분석(정현옥, 김정미), 교재의 대화문 분석 및 구성 방안(유은우), 의사소통 상황 및 문화 중심의 교재 분석(김윤주) 등의 논의가 있었다. 새로운 교재 및 교육 자료 개발에 중점을 둔 연구로는 통합 교재 개발(정주리), 인권을 주제로 한 교재 구성(김현주), 생활 중심 읽기 교재 개발(김선용), 읽기 텍스트 구성 및 개발 방안(신미진, 박혜경), 읽기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권승임), 알기 쉬운 통신문 작성을 위한 텍스트 수정(정은미), 읽기·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문식성 과제 단위 요구 분석(이귀염), 문화 기반 읽기 자료 개발 방안(정영주), 기존 교재의 쓰기 활동 분석과 구성 방안 제언(박선옥), 워크북 개발(양지현) 등 다양한 방면의 시도가 있었다.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교수 방법 연구로는 언어 기능별 교

육과 관련하여 전래 동화 활용 수업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최미진), 듣기·읽기 능력 상관관계와 전이(윤민애), 자유 쓰기의 오류와 유형별 지도 방법(전숙자),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김연희), 이야기 표현 교수·학습 모형 개발(함욱 외) 등의 논의가 있었다. 또한 다양한 매체 및 양식을 활용한 교육 방안 연구로서 영화 활용(반경희),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김현아), TV 방송의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미혜), 드라마 활용(임희영),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홍승랑), 생활 중심 상황 학습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학습자의 지식 생성 및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 탐색(김현영), 웹 기반 쓰기(최효정), 교육 연극 활용(이연수) 등의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일원인 여성 결혼 이민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연구로서 그림책을 활용하는 교육 방안(박현주, 이영란, 유지숙), 자녀 교과 활용(김명화), 초등 국어 저학년 교과서 활용 방안(김정숙) 등의 제안도 있었다. 관련된 연구로서 여성 결혼 이민자와 유아를 위한 어머니 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현은애)는 설문 조사를 통해 해당 프로그램이 아동과의 상호 작용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를 보여 준 박사 학위 논문이다.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현실을 고려하여 방언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방언 교육 방향을 제시한 연구(우창현), 경북 지역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방언 교육(최진희)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발화 시 운율 특성을 한국 여성과 비교한 논의(정진숙), 관용 표현 교육(한미연, 김남경, 이보배, 김민정), 속담 교육(박연신), 서식 관련 어휘 교육(이수현), 의성어·의태어 교육(진아름, 유흔), 거주 기간과 상호 작용이 연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조현지) 등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또한 교재 분석과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호칭어 유형과 사용 양상을 살펴본 연구(박은하)를 비롯하여 호칭어·지칭어의 사용 양상 및 교육 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명희, 이명화)가 발표되었다. 문해 교육의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문해 교육 활성화 방안(구은미), 한글 맞춤법 교육(전경숙) 등도 논의되었다. 문화 및 문학 교육

차원의 연구로는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 조사(주월랑 외), 한국 현대 시 수업 모형 설계(이정엽), 동시 활용(서승이, 심재숙), 중국・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전래 동화 이해도(이은화), '심청전'을 중심으로 한 문화 교육(김미진) 등의 논문이 있었다. 한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주요 교육 형태로 자리 잡고 있는 방문 교육에 대한 연구도 발표되었는데, 지역별 사례를 바탕으로 교육 효과와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제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이유미, 배상남, 홍칠선). 이와 관련하여 방문 한국어 교육이 집합 교육보다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이락희), 방문 교육 지도사의 역할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황보람)도 있었다.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도 크게 증가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연구로서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언어 교육 문제(이해영)에서는 문헌 연구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언어생활과 교육의 문제를 점검하고 언어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하였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이영희)에서는 다문화 가정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윤경동)가 이루어졌으며, 서울 지역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주체의 요구 조사(이순연)에서는 이중 언어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방향의 재정립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장한업)에서는 학술적 논의 없이 생성된 용어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교육 과정과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과 교수-학습 모형(심상민)이 제시되었으며, 중등학교 다문화 교육 교과의 활성화 방안(김철주 외), 중등학교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주경아),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조영란),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과정(정지현), 교과목 연계 한국어 교육 방안(오세미) 등의 제안이 있었다.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

국어 교재 개발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구(강현화)를 비롯하여, 기존 교재를 한국어 발달 측면의 적합성 면에서 분석한 연구(김세현), 어휘 폭발기 아동 중심의 한국어 교재 개발(이은정), 국제결혼 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윤재한), 교육용 콘텐츠 분석 및 개선 방안(김태희)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수 방법이 제안되었는데,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 작용을 높이는 협동 학습(어수진), 균형적 접근법을 이용한 문어 교육 방안(김유미), 전신 반응 교수법(이수미), 놀이 활용(박미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언어 기능에 대한 교육으로는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초급 쓰기 교육 방안(홍승희), 대화주의에 입각한 쓰기 지도(김경현),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조경애),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표현 교육 방안(박진욱 외), 동화 활용(최경자), 전래 동화 활용(이선화) 등의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한편, 다문화 가정 자녀는 언어 발달의 문제, 언어 능력의 진단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일반 가정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능력과 그 언어 특성을 제시한 연구(김영란 외, 오희자), 비유창성 평균 빈도와 유형 등을 분석하고 유창성을 강조하는 지도안을 모색한 연구(신명선), 취학 전 만 2~5세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어 습득 양상을 살펴본 연구(한아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어휘 및 문법 능력에 주목하는 논의들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연구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어휘 능력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품사별 어휘 정확도와 반응 속도를 함께 비교한 연구(오소정 외), 단어 유추 능력 평가를 통해 수행력의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전지희 외), 고유어·한자어·외래어 어휘 표현 능력 비교(임은해) 등의 연구가 있었으며, 어휘 교육과 관련하여 친족어 지도 방안(김영호)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문법 능력과 관련된 연구 중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결 어미 사용 양상 연구(김지숙)는 아동의 연결 어미 표현인지 양상을 기술·분석함으로써 연결 어미의 사용 과정, 연결 어미 사용에 나타난 통사적 특징을 살펴본 박사 학위 논문이다. 6~8세 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 수정(김은정), 연결 어미 '-고' 습득 양

상(김지숙), 조사·어미 사용 면에서의 언어 발달(사공진) 등 문법 습득과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이야기 산출 능력(박민주), 이야기 산출 및 이해 능력 비교(조아라), 단락 듣기 이해력(김영기) 등의 언어 능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의 언어적 취약은 환경에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컴퓨터 보조 학습을 활용한 부모 훈련의 효과를 입증한 박사 학위 논문(김영란)이 발표되었으며, 다문화 가정 아동 교실의 언어적 상호 작용 양상과 정체성 형성(박나현),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례(이영주)도 논의되었다. 한편으로는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조옥이 외), 중도 입국 자녀를 위한 통역 보조 교사제에 대한 제언(박지윤) 등 중도 입국 자녀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귀국 학생, 선교사 자녀, 새터민 아동, 입양 청소년 등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귀국 조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 언어 문제(이진주), 초등 귀국 학생의 교과 학습 적응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방안(조효경),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류한나), 이주 초기 새터민 초등학생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윤혜란),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김명민), 입양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황윤정) 등이 한국어 교육의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4. 맺음말

지금까지 2011년에 간행된 한국어 교육 분야의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을 개괄적으로 검토하고 논문의 하위 분야를 구분하여 주제별 연구 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이제 2011년 한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 동향에서 주목되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2011년 한 해 동안 단행본,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된 연구물의 수가 1,018편에 달하여 이제 한국어 교육학은 방대한

규모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 잡았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그동안의 한국어 교육학 연구가 주로 내용학적 측면의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보여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2011년에는 한국어 교수 방법, 교육 과정, 교사, 교재, 평가 등의 교수학적 연구, 대조 분석·오류 분석·중간 언어 등의 학습자 언어 연구, 특수 목적 한국어 연구가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전체적으로 한국어 교육학이 하위 학문 영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해 가는 경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교과 내용학적 측면의 연구 성과를 보면, 언어 내용 교육 연구 중 어휘·문법 교육 연구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줄어든 양상을 보여 주었다. 발음, 어휘, 문법 등의 전통적인 언어 내용학적 연구 성과가 감소한 반면, 담화 및 화용 교육 연구는 증가하여 언어 내용 교육 연구의 범위가 점차 다양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학 및 문화 교육 연구의 경우에는 양적인 면에서 전년도에 비해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문화 교육 분야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되어 왔던 문화 교육 항목 선정 및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성과들이 발간되어 향후 더 구체적인 연구들을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도 교수 방법, 교육 과정, 교육 자료 개발 등 교수학적 측면의 연구 성과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교수 방법 관련 연구에서는 다양한 교수 이론을 수업에 적용하는 이론적 연구들을 비롯하여 읽기·쓰기 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관련 연구의 주제가 세분화되고, 학습자 변인,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요인 등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 한국어 교육학 연구가 점차 세분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세종 한국어 교재 개발 등 정부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 보급을 위해 추진한 연구 사업의 성과들이 결실을 이루고 학습자의 학습 목적을 고려한 다양한 교재 개발 연구가 증가한 것도 주목된다.

학습자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2011년 연구 동향에서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이다. 대조 분석 연구, 오류 분석 및 중간 언어 연구의 성과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질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연구 성과들을 산출해 냈다. 학습자의 언어권을 고려한 연구는 대조 분석, 오류 분석, 중간 언어 연구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어 교육학의 여러 분야에서 고르게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했는데, 특히 중국인 학습자와 관련된 한국어 교육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논문 편수로 보면, 학술지와 학위 논문을 합한 전체 915편 중 197편(21.53%), 석사 학위 논문 595편 중 159편(26.72%)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또는 중국의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들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국어 교육학이 하위 학문 분야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었으나, 각 분야별로는 중국인 학습자와 관련된 연구의 비중이 매우 높았음을 보여 준다. 중국 내 한국어 교육의 발전,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증가 등을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되지만, 향후로는 좀 더 다양한 언어권별 학습자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문화 가정 대상의 한국어 교육 연구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1년에는 여성 결혼 이민자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자녀의 언어 발달 및 한국어 교육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어 교육학이 한국의 사회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그러나 다문화 가정은 구성원의 특성, 아동 및 청소년의 발달적 측면에서 여러 분야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한 대상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좀 더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연구, 관련되는 학문 영역 간의 학제적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기존 국어 연감의 분류 체계에 따라 2011년에 발표된 논저들을 하위 분야별로 구분하고 연구 동향의 변화 추이, 분야별 연구의 개관을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방대한 규모의 연구물을 분류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연구 주제의 특성상 영역 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논문이 많았기에 분류의 타당성에 대해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여러 논저들을 주제별로 분류하고 간략히 개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를 미처 다루지 못하였

거나 연구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해당 연구자, 독자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한다.

음성학 · 음운론

이 봉 원
(나사렛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에 발표된 음성학과 음운론 분야의 연구 성과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의 동향을 정리한 것이다. 2011년도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는 예년에 비해 그 수가 많지는 않았으며, 음성학과 음운론을 관련지은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연구 논저 목록을 기본으로 연구 성과물을 입수하여 정리하였는데, 제공된 목록을 중심으로 하고 일부 자료를 추가하였다.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학술지 논문을 구분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다시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학위 논문은 음성학과 음운론으로 나누고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았으며, 학술지에 실린 일반 논문은 음성학과 음운론으로 나눈 다음, 음성학은 분절음 연구와 운율 연구로, 음운론은 음운 단위, 음운 현상, 방언 및 사적 연구, 기타로 구분하였다. 기타 분야에는 발음 실태 조사나 한국어 교육 등 응용적 성과를 묶어 기술하였다. 체제의 통일성보다는 연구 논문의 수에 따라 기술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조정한 것이다.

가능하면 제공된 목록에 있는 연구 논저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논저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제외하였다. 학술 발표 논문집에 수록된 논문은 이후 학술지 게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외하였고, 국어학의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다룬 경우는 타 영역과의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음성학 · 음운론적 특성을 중심으로 다룬 것은 소개하였고, 교수 방법 위주의 논저는 제외하였다.

2. 단행본

2011년에는 11권의 국어 음운론 및 음성학 분야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먼저 음성학 분야의 단행본으로는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박한상)이 있다. 이 책은 입문서를 읽은 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음성 분석 프로그램인 'Praat'을 이해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쓰인 안내서이다. 총 두 권으로 간행되었는데, 1부는 편집기 중심으로, 2부는 음성 신호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개체와 메뉴 중심으로 구성하여 독자가 책을 참조하여 음성 편집 및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음운론 분야에서는 3종의 국어 음운론 개론서가 출간되었다. 이 중 두 편은 개정판이고, 한 편은 새로운 저서이다. 『한국어의 말소리』(신지영)는 음성학과 음운론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설명한 개론서로, 1장 말소리란 무엇인가, 2장 말소리의 생성, 3장 말소리를 적는 기호, 4장 음운론의 기초 개념, 5장 자음, 6장 모음, 7장 한국어의 말소리 빈도, 8장 한국어의 운율, 9장 음운 현상(Ⅰ), 10장 음운 현상(Ⅱ)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 음운론』(강옥미)은 2003년 초판을 개정한 개론서이다. 음성학, 구조주의 음운론, 생성 음운론, 복선 음운론의 기초적 내용을 중심으로 한 책이다. 1장 인간과 언어, 2장 음성의 이해, 3장 음소, 4장 변별 자질, 5장 음운 규칙, 6장 복선 음운론, 7장 음절과 음운 현상, 8장 운율적 요소, 9장 한국어의 음운 현상 등 주제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국어 음운론 개설』(배주채) 역시 1996년의 초판을 개정한 개론서로 초판의 논저 목록을 빼고 용어 풀이를 새로 넣었다. 1장 서론, 2장 음성학적 기초, 3장 음소, 4장 형태 음소, 5장 음절, 6장 운소, 7장 자질, 8장 음운 과정, 9장 음운 규칙, 10장 통시적 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서로는 우선 이토 지유키의 책을 이진호가 번역한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과 『한국 한자음 연구: 자료편』을 들 수 있다. 이 책은 고노 로쿠로 이래 40년 만에 나온 일본 학자의 한국 한자음 연구서로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한국 한자음 연구의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말엽까지의 문헌 26종에 사용된 한국 한자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으

며, 대상 자료에서 한자음 전체를 직접 조사하여 정리한 후 한국 한자음 일람표를 작성하여 자료편에 제시하였다. 본문편에서는 각 문헌을 서지학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한자음을 성모, 운모, 성조 각각에 대해 정리하였고, 한국 한자음의 모태음 및 고대 국어 모음 체계를 추정하였다. 『국어의 음운 현상과 음운 변화 연구』(김주필) 및 『음운 변화와 국어사 자료 연구』(김주필)는 저자의 음운사 관련 논문을 교열하고 수정하여 묶은 것으로, 각각 음운 변화 관련 논의가 중심이 된 논문 17편 및 문헌 성격의 고찰에 중심을 둔 12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응용 분야의 책으로는 『한국어 발음의 이론과 실용』(이현복)이 있는데, 표준 발음에 대한 안내서이다. 1989년에 간행된 『한국어의 표준 발음』을 근간으로 하고 '한국어 발음 진단법'을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준 발음의 여러 현상을 음성학적으로 다루고 실제 발음 습득 방법을 설명한 후 연습 문제를 제시하였고, 실제 발음되는 대로 한글 전사한 음성 독본 자료를 첨부하였다. 『한국어 발음 검사』(이현복 · 김선희)는 1991년의 초판본을 다시 간행한 것으로 음성 · 언어학적 바탕 위에서 언어 장애인의 조음 문제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 도구로 제안한 것이다. 그림 발음 검사와 문장 발음 검사를 수록하고, 검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한 음운론적 기초 개념과 사례를 제시하였다.

3. 학위 논문

2011년도에 제출된 음성학 및 음운론 분야의 학위 논문을 크게 음성학 분야와 음운론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음성학 분야에서는 응용 분야의 연구가, 음운론 분야에서는 통시적 연구가 더 많았다.

3.1. 음성학

음성학 분야의 학위 논문은 다른 영역과의 관련하에 이루어진 것이 많았다. 청자의 지각적 특성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오재혁)는 종결

억양의 지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심리학적 연구 방법인 지각 실험을 도입하여 체계화한 것이다. 표준어 화자 1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각 실험을 통해 억양의 변별적 지각 단서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국어의 종결 억양을 상승 억양, 하강 억양, 높은 상승-하강 억양, 낮은 상승-하강 억양, 하강-상승 억양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이들 고유의 문법적 기능과 구체적인 음성적 특성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의문법을 실현하는 상승 억양은 9ST 이상의 음높이로 상승하며, 평서법과 명령법 기능을 실현하는 하강 억양은 3ST 이하의 음높이로 하강한다는 형식적 특성을 명시하여 개별적 억양 유형의 문법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명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조민하)은 종결 기능을 수행하는 연결 어미의 억양을 정리하고 그 기능을 체계화한 것으로, 자유 발화에 나타난 종결 기능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의 발화 말 경계 성조를 정규화된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은 연결 어미의 고유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화자의 주관적 인식에 따라 확장되고 강화되며 억양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억양의 물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의미 기능과의 관련성을 구체화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방언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인 〈현대 육진 방언 자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정은혜)는 2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현대 육진 방언 화자 10명의 자음과 모음의 음향적 특성을 서울말과 비교한 것으로, 화자별 분석을 통해 육진 방언에서 8모음 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파찰음이 치조음으로 실현되기도 한다는 등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고하였다. 〈한국어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 발화에 나타난 음향 음성학적 특성〉(서미석)은 대구 방언과 제주 방언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 포먼트 값을 비교하여 지역 방언의 차이가 영어 모음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려 한 시도이다. 〈실험 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박순형)는 경남 방언 20대 화자와 50대 화자의 단어별 성조 실현 양상을 실험 음성학적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음성학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 〈한국어 단모음 발음 자가 교정을 위한 프라트(Praat) 활용 기초 연구〉(심현주)는 음성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모음 학습 스크립트의

예를 제시한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 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주림)는 이중 모음 발음을 음향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것이고, 〈중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파열음과 파찰음에 대한 실험 음향 음성학적 연구〉(레이레이)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파열음 인식과 발음〉(류화순)은 자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 연구〉(김윤정)는 몽골인 학습자의 모음 포먼트 값을 측정하고, 이 값을 바탕으로 발음 교정을 실시한 것이다. 운율과 관련된 것을 보면,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중국어 성조의 영향〉(리우씨양)은 한자어 발음에 나타나는 음높이 유형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고, 여기에 중국어 성조가 영향을 주는지를 규명하려 한 것이다.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호양)는 유형별 의문문의 문미 억양 경계 음조를 억양 곡선을 이용하여 시각화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문미 억양 차이를 비교하였다. 〈효과적인 억양 교육의 순서에 대한 연구〉(배정선)는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억양 교육의 효과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억양 교육의 구체적인 절차를 제안한 것이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 연구〉(김민경)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무의미 단어 발음의 피치 패턴 실현 양상을 비교한 것이다.

언어 병리학이나 의학 분야에서 화자의 특성을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존재한다. 〈하악전돌증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한국어 모음 발음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김군종)은 수술이 발음에 미치는 영향을 모음 포먼트 분석으로 측정한 것이며, 〈정상 아동의 마찰음과 파찰음 산출의 음향적 특성〉(임지혜)은 아동의 마찰음 /ㅅ/, /ㅆ/와 파찰음 /ㅈ/, /ㅊ/, /ㅉ/에 대해 길이 중심으로 음향적 특성을 측정한 것이다.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한국어 운율 발화의 음향적 특징〉(정진숙)은 이주 여성이 한국어 문장을 읽을 때 나타나는 운율 특성을 한국어와 비교한 것이다.

3.2. 음운론

음운론 분야의 학위 논문은 통시적 연구가 더 많았으며, 특히 최근

에는 드물었던 한자음에 대한 연구가 다수 눈에 띈다. 박사 학위 논문인 〈한·중·일 한자의 발음 비교 연구〉(샤우쥬나스-까찐스까스 마르띠나스)는 동일한 한자의 한·중·일 자음 발음을 비교하여 고찰한 것이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의 한자 4,316개의 발음을 수집하고 음절 구조, 자음 체계, 음절 두음 및 음절 말음 자음의 대응을 고찰하여, 한자 발음의 차이는 어휘 차용 시 기증 언어의 음성 체계가 수령 언어의 음성 체계에 맞추어 수정된 결과이지만 한국어와 일본어의 한자음 모두 비슷한 시기의 중국 한자음을 비슷한 차용 과정을 거쳐 수용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일 한자음의 중고음 수용 현상 비교 연구〉(정영미)는 한자음 수용에 대한 연구로, 지배 음운론을 이론적 바탕으로 하여 중고음과 한국 한자음, 일본 한자음의 불규칙한 대응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음운론적 원인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음절 초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및 후음과 음절 말 자음이 한국어와 일본어에 수용된 양상을 살피고, 이 양상을 언어 보편적인 음운 현상 및 매개 변수의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방언의 비교 연구〉(고흔영)는 『광운(廣韻)』의 한자음을 기준으로 하여 현대 중국어의 대표적인 7개 방언인 북방 방언·월 방언·오 방언·공 방언·상 방언·민 방언·객가 방언과 현대 한국어 한자음을 비교하여, 이중 월 방언과 한국 한자음의 유사성이 가장 크다는 결론을 내렸다. 〈≪(無先生速修)中國語自通≫의 중한 역음과 현대 표준 중국어의 음운 대응 규율 연구〉(박종대)는 일제 시대에 간행된 중국어 교재인 『중국어자통(中國語自通)』을 대상으로 중국어의 역음 표기를 살펴보고 이전 자료와 비교하여 표기법의 제정, 실제음 표기 노력 등의 영향으로 인한 표기의 차이를 정리한 것이다.

통시적 변화의 연구로는 〈한국어 /ㅎ/의 통시 음운론〉(위국봉)이 있다. 고대 국어 /h/의 변이음 [*x]를 재구하고 소위 /k/〉/h/의 변화 현상을 이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ᄋᆞ/으'계 어미의 'ᄋᆞ/으' 탈락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남하정)는 'ᄋᆞ/으'계 어미의 출현 양상을 중세 국어와 근대 국어의 문헌 자료에서 확인하고, 근대 국어에 들어서면서 일어난 'ᄋᆞ/으' 탈락 현상을 실현 양상과 변화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형태론적·통사적인 요인이 이 탈락에 영향을 주었을 가

능성을 제시하였다. 〈신활자본 음식 조리서의 음운 연구〉(신하영)는 20세기 초에 발간된 13권의 음식 조리서에 나타난 표기법과 음운 변화를 고찰한 것이다. 외국어 고유 명사를 적기 위한 표기 특성과 20세기 초의 서울 지역 음운 변화를 드러내는 음운론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공시적 음운 현상에 대한 논의로는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박사 학위 논문인 〈동일 형태소의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 음운론적 연구〉(임현열)가 있다. 이 논문은 동일 형태소가 나타내는 자유 변이 현상이 발생되는 원인과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는 원리를 인지 음운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다. 체언 말 설정 장애음의 마찰음화와 한자음의 경음화 현상에 대해, 기존 발음 형식에 음운론적 과정 또는 형태론적 유추가 개입하여 변화가 발생하고 영역 일반 인지 처리 과정이 작동하여 확산된다는 인지 음운론적 가설을 설정하고 증명하려 한 것이다.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한명숙)는 어두 경음화를 언어 외적인 심리적 원인의 결과로 파악한 기존의 논의를 반성하고, 현대 서울말의 어두 경음화 양상을 240명에 대한 설문을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 각 지역별 어두 경음화 실태를 '한국 방언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도 단위별로 비교하고, 통시적 어두 경음화 현상을 어휘별로 조사하였다. 어두 경음 실현율이 50% 이상인 어휘가 총 조사 대상 어휘의 30%에 달하는 등 현대 서울말에서도 어두 경음화 실현 양상이 우세한 어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어두 경음화 현상을 지속적인 음운 변화의 과정으로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방언 음운론적 연구로는 〈자음군 단순화 연구〉(최은영)를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한국 방언 자료집〉의 자료를 바탕으로 ㄹ계 자음군의 단순화 현상의 실현 양상과 분포상의 특징을 검토한 것이다. 모음이 후행하는 경우 체언에서는 재구조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으나 용언에서는 자음군이 유지되는 등의 특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였다. 또 〈서부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김은주)은 서부 경남 방언의 세 가지 음운 현상, 즉 자음과 이중 모음의 결합 회피, 모음과 모음의 결합 회피, 전설 모음화 현상 등을 최적성 이론의 틀로 분석하여 방언 내 음운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의 가능성을 제안한 것이다. 〈교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이지애)는 강화 교

동 지역어의 음운 체계, 기저형, 음운 과정 등을 공시 음운론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발음 실태 조사에 대한 연구로는 〈대구 지역 새터민의 언어 적응 양상 연구〉(배준영)가 있다. 이 연구는 새터민의 언어 적응 문제를 발음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새터민의 발음을 대구 방언 방언형과 비교하여 적응 지수를 산출하고, 적응률의 정착 시기별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추이를 분석하였다. 음운 체계, 음운 현상, 성조에 걸쳐 분석한 결과 성조 적응률이 낮으며 20-30대 제보자의 적응률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음운론 분야의 학위 논문은 중국어 학습자와 관련된 것이 많았다. 〈한국어 자음 발음 실태 분석 연구〉(김옥란)는 중국 현지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학생과 교사의 발음을 녹음하여 오류 양상을 조사하고 원인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체계 대조〉(장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대조 연구이며,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쩌우티투튀)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특성을 음운 체계, 음절, 음운 현상 등에 걸쳐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이다.

〈인공 와우 이식 아동의 음운 규칙 사용 능력 연구〉(배성은)는 읽기 능력이 낮은 인공 와우 이식 아동은 음운 규칙 사용 능력도 저조하며, 인공 와우 이식을 받은 청각 장애 아동에 대해 음운 규칙 원리에 대한 중재가 필요함을 제안한 연구이다.

4. 학술지 논문

4.1. 음성학

4.1.1. 분절음에 대한 연구

분절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음을 살펴보면, “한국어 중첩 비음의 길이에 대한 고찰”(양순임)은 무의미어와 유의미어를 단독

형, 문장형으로 발음한 자료에서 중첩 비음과 홑자음의 길이를 측정하여 비음 자체의 길이는 물론 앞 모음의 길이, 비음/앞 모음, 앞 모음/전체 어절, 비음/전체 어절 등의 길이를 측정한 결과 모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중첩 자음과 홑자음을 구별하는 지표라는 사실을 밝혔다. 중첩 비음의 길이는 홑자음보다 최소 1.66배, 최대 3.71배 더 길었다. "단어 내 위치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VOT 연구"(손형숙 · 안미애)는 대구 지역 화자의 폐쇄음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을 어두 및 어중 환경에서 측정하여 어중 위치에서 격음의 약화 현상과 경음의 강화 경향을 확인하였다. 조음 양상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한국어 자음의 특성을 밝힌 연구들도 있다. "Supralaryngeal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Coronal Consonants /n, t, th, t*/ in Korean"(손민정 · 김사향 · 조태홍)은 한국어 치경 폐쇄음과 비음에 대해 전자기 조음 그래프(EMA)를 이용하여 혀의 위치와 턱의 높이 등을 측정한 것이며, "Coordinations of Articulators in Korean Place Assimilation"(손민정)은 위치 동화의 조음적 특성을 EMA를 이용하여 관찰하고, 화자가 위치 동화에 대한 어휘적 지식을 갖고 이를 혀의 움직임에 반영하고 있음을 제안한 것이다. "The Projection of Syllable Structure"(손민정)는 기저 음절 구조가 발음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음 사이의 /k/에 대해 EMA를 이용하여 혀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지각 실험을 실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한 것이다.

운율 단위와 자음 실현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들도 있다. "The Effect of Prosodic Position and Word Type on the Production of Korean Plosives"(장미)는 운율 단위와 관련된 국어 파열음의 실현 양상을 측정한 것이며, "Prosodically Driven Phonetic Properties in the Production of Korean Fricatives"(장미) 역시 운율 단위와 관련된 국어 파찰음의 실현 양상을 마찰 소음의 길이, 모음의 길이, 마찰 소음의 중앙값, 모음의 기본 주파수, 제1배음과 제2배음의 진폭 차이를 측정해서 관찰한 것이다. "An Acoustic Analysis of the Aspiration Merger in Korean"(장미)은 한국어의 /p/+/h/ 연쇄가 음운구 내와 음운구 경계에 있을 때 격음화의 양상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관찰한 것이다.

모음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서울 지역 세대 간 /ㅟ/와 /ㅚ/

모음의 포먼트 측정"(박시윤)은 단모음의 포먼트 측정을 통해 60-70대 노년층은 두 모음을 구별하지만, 10-20대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lectroglottographic Measurements of Glottal Function in Voi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고도흥)는 전기 성문 파형 검사(EGG)를 이용하여 모음 발음 시 남녀의 발성 특성을 측정한 것이고, "음성 산출의 정규화(normalization) 방법 비교"(윤은경)는 모음의 음향적 측정값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정규화 방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남녀 화자 12명이 발화한 8개 모음의 자료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정규화 방법을 적용하고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한국어 학습자의 발화에 나타난 음성학적 특성을 연구한 논문들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중국인 화자가 발화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 음성학적 특성"(레이레이·김영주)은 한국인과 중국인이 어두와 어중에서 발화한 파열음을 음향 음성학적으로 분석한 것으로, 중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경음은 한국인과 유사하지만, 평음과 격음에서는 차이가 크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이경·박동근)는 한국인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초·중·고급 학습자의 /ㅗ/와 /ㅓ/ 발음을 비교하여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은 모어의 영향으로 /ㅗ/를 한국인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조음하지만, 고급 학습자들은 한국인과 유사한 발음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어 사용자의 말소리 특성을 밝힌 연구도 있는데, "중국 무순 지역 한국어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 음성학적 연구"(정의향)는 중국 요령성 무순 지역의 한국어 사용자의 모음 발음을 세대별로 측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조 언어학적 차원의 음성학적 연구들을 찾을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음성학적 대조 고찰"(김성란)은 두 언어의 말소리 특성을 조음적 차원에서 대조한 연구이다. "The Mid and Low Vowel Systems of Korean-English Bilingual Speakers"(오은진)는 한국어와 영어의 중모음과 저모음을 대조한 음성학적 연구로, 이중 언어 화자는 양 언어의 모음을 모어 화자와 유사하게 실현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Word-Initial Stops in Korean and English Monolinguals and Bilinguals"(오미라·로버트 댄런드)는 자음에 대한 대조 연구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 Language Phonetic Influences and L2 Proficiency in terms of VOT"(김미령)는 영어의 유창성과 VOT 조절의 관련성을 음성학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판별 분석을 통한 모음의 분류"(윤은경)는 한국어와 일본어 화자 각 12명씩의 포먼트를 음향적으로 분석하고 판별 분석을 거쳐 대조한 음성학적 연구로, 한국어 모음은 일본어와는 달리 이웃 모음과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나타난다는 결과를 얻었다. "발화와 인식의 상호 작용"(최한숙)은 폐쇄음과 모음으로 구성된 영어와 한국어 음절에서 자음과 모음의 길이 특성을 측정하고 모음 길이와 피치 변화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 지각 실험을 실시하여, 한국어는 음절 길이를 일관성 있게 조절하며 따라서 자음 지각에 모음 길이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아동의 말소리 발달을 다룬 "삼분지 폐쇄음 발달 양상"(손민정)은 유아 1인의 발화를 13개월부터 20개월까지 수집하여 성대 진동 시작 시간(VOT)을 분석한 결과, 초반 4개월에는 짧은 VOT를 가진 음성이 주로 나타났지만 후반 4개월에는 VOT값이 다양하게 실현되는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

4.1.2. 운율에 대한 연구

운율에 대한 음성학적 연구 중에는 청자의 지각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오재혁)는 평서형 발화 끝 음절의 음높이, 음길이, 음 세기를 조정하고 강세구 시작 음높이 패턴을 설정하여 지각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이 결과, 음높이가 주요한 지각 단서이며, 음길이와 강세구 시작 음높이가 부차적인 단서이며 음 세기는 지각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국어의 운율 정보가 음운 단어 탐색에 미치는 영향"(최지연・조혜숙・남기춘)은 강세구의 음높이 표지의 지각적 영향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Perceptual Development in the Categorization of Pitch Accent Contrasts in Children and Adults"(김정선)는 경북과 전남 방언 아동 및 성인에게 경북 방언 화자의 발음에서 성조를 변조한 자료를 들려주고 판단하게 한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6세 이전에 성조에

대한 음운론적 범주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보조사의 실현에 대한 지각적 연구도 있는데, "보조사 '-요'의 음장 변화에 따른 청자의 지각 차이 비교"(윤은경 · 김슬기)는 문장 마지막 음절 '요'의 길이를 조작한 자료에 대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화자의 지각 반응을 살펴본 것으로, 한국인은 제2 언어 학습자에 비해 음절 길이에 따라 청자 예우의 정도를 민감하게 지각한다는 사실을 밝혔다. "The Prosody of the Alleged Korean Topic Marker -nun"(김지은)은 보조사 '는'이 실현될 때의 음성학적 특성과 청자 판단을 실험을 통해 분석한 것이다.

방언 자료에 대한 연구로는 "제주 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 국어 성조와의 관계"(강석한)가 있다. 제주 방언 여성 화자 5명의 단음절 명사에 나타난 액센트 유형을 기본 주파수 측정을 통해 파악하고 중세 국어 성조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것이다.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상성의 영향"(김영주 · 유사양)과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음평과 양평의 영향"(유사양 · 김영주)은 한자어 발음에 나타나는 음높이 유형에 중국어 성조가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한 것이다. "The Interaction of Accent and *wh*-intonation in Korean and Japanese"(황현경)는 경남 방언과 일본어에 대해 어휘적 성조와 의문사 의문문 억양의 상호 관련성을 음성학적으로 비교 연구한 것이다.

4.2. 음운론

4.2.1. 음운 단위에 대한 연구

음운 단위에 대한 연구 중 활음의 지위에 대한 것이 여럿 있었다. "The Nuclear Status of Onglides in Korean"(안미진)은 국어 활음의 음운론적 지위에 대한 논쟁을 정리하고, 활음이 음절 핵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증명하려 한 것이다. "The Gradient Nature of Syllabic Affiliations of Korean Glides"(이용은)는 한국어의 활음이 음절 두음에 속하는지, 아니면 음절 핵에 속하는지를 밝히기

위해 활음과 인접 음 사이의 음소 배열적 확률을 측정하였다. 활음-모음의 결합이 자음-모음의 결합보다는 더 강하지만 자음-활음의 결합이 활음-모음의 결합보다 더 강하고, 그 결합 강도는 점진적인 경향이 있어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또 유형론적 입장에서 한국어 음운 단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찰한 논문도 발표되었다. "한국어 자음 체계의 유형적 보편성 연구"(허용)는 말소리 데이터베이스인 UPSID에 제시된 자연 언어의 자음 체계를 바탕으로 한국어 자음 체계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살펴본 것이다. 전체 음운 목록과 자음 수는 자연 언어의 보편적 특성을 따르고 있으며, 유음과 긴장음에서는 한국어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난다는 것을 밝혔다. "모음 체계 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허용) 역시 대상 언어의 모음을 산포 원리에 기반하여 유형론적으로 비교하여 한국어가 중앙부 모음이 많고 구성도 독특한 체계를 갖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4.2.2. 음운 현상에 대한 연구

우선 음운 현상 전반에 걸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시태와 공시적 음운 기술의 대상으로서 진행 중인 변화"(신승용)는 진행 중인 변화로서의 음운론적 현상이 공시적 음운 기술의 대상이 되는지를 밝히려는 시도이다. 공시태의 개념이 어느 시기의 이질적 언어 차이를 포괄하는 상태라면 진행 중인 변화도 공시적으로 기술될 수 있어야 하며, 공시태는 정태적인 언어 상태이고 통시태는 동적인 언어 상태라는 그동안의 이론적 전제를 극복하고 공시 음운론의 외연이 더 확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Two Undercurrents in Korean Phonology"(김진우)는 한국어 음운 현상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음성적 원리인 폐구조음 원칙과 원심성 원칙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확인하고 이 원리가 국어 음운 현상 전반에 걸쳐 공모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한 것이다.

구어에 대한 이론적, 자료적 관심도 보인다. "구어의 음운 현상 연구"(권경근)는 구어 음운 현상 이해를 위한 시각의 확장을 제안하며,

일상적인 구어 현상에서의 음운 현상 조사, 계층별 실태 비교, 규범적인 음운 현상과의 통합적 설명, 부문 사이의 인접 현상 등의 하위 영역을 제시하였다.

개별 음운 현상의 분석에는 음성학적 성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눈에 뜨인다. "공명도 및 관련 음운 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김현)은 공명도 제약의 음성학적 근거가 빈약함을 지적하고, 기존에는 공명도 제약으로 설명되어 왔던 비음화와 유음화 현상에 대해서 공명도 제약에 기대지 않고 음성학적인 측면에 중심을 두고 검토한 것이다. "경음화의 발생"(김현)은 장애음 뒤에서의 경음화란 평음이 비어두에서 무성 무기음으로 실현된 음성을 음소로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음운 현상임을 논의한 것이다. 기존 논의를 검토하고 평음이 비어두 위치에서 무기음으로 실현되며, 무기음 앞에 무성의 폐쇄 구간이 길게 존재할 때 그 무기음이 경음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국어의 위치 동화에 대한 지각적 분석"(박선우)은 한국어의 위치 동화에 대한 지각 실험을 실시하여 피동화주의 조음 위치가 치경음인 환경에서 일어난 양순음화와 연구개음화는 긍정적으로 지각되었지만 피동화주가 양순음인 환경에서 일어난 연구개음화는 부정적으로 지각되었음을 밝혔다. 따라서 치경음의 무표성은 확인되지만 언어 보편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양순음과 연구개음의 비대칭성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한 것이다. "한국어 조음 위치의 유표성에 대한 검토"(박선우)는 이 논의를 발전시켜 언어 보편적 유표성 이론에서의 유표성 개념을 점검하고, 기존의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연구개음〉양순음〉설정음'의 위계를 연구개음과 양순음의 차이가 크지 않은 새로운 위계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청자의 인지적 판단에 의한 음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국어의 'p/k 교체'에 대하여"(소신애)는 순음 p와 연구개음 k가 상호 대체되는 음운 현상을 문헌 및 방언 자료에 기초하여 확인하고, 이 교체의 동인을 p와 k의 음향적 유사성에 기인한 오지각, 즉 청자의 음운론적 재해석에서 찾고 발화의 지각적 측면을 음 변화 설명에 도입한 시도이다. "ㄱ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박종희 · 권병로) 역시

‘길 〉 질’, ‘기름 〉 지름’ 등의 변화의 동인을 인지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 것이다. 전설 고모음 ‘ㅣ’ 앞의 ‘ㄱ’은 ‘ㅈ’과 음향적으로 유사해서 ‘ㅈ’으로 인지적 혼동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ㅈ’으로 오인한 결과 특정 환경에서 ‘길 〉 질’ 등의 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하였다. “음운 변화와 패러다임의 상관관계”(김경아)는 음운 변화 예외를 패러다임의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다. 순경음의 변화와 관련된 원순성 소실이 피사동 파생 접사 ‘-이-’와 부사 파생 접사 ‘-이’가 결합하는 파생 패러다임에서 나타나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 접사에 대한 화자와 청자의 분석력이 원순성 변화에 저항하여 표면 음성형을 유지하게 만든 동인임을 주장한 것이다. “/ㄴㄹ/ 연쇄의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적 접근”(임현열)은 /ㄴㄹ/ 연쇄와 관련된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해 인지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실제 언어 자료 분석을 통해 화자별 특성을 정리하고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고찰하였다.

“[n]-출현 현상의 두 가지 양상”(이희두)은 /ㄴ/ 출현을 공시적 첨가 현상으로 본 기존 연구를 비판하고,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이 현상이 음절 접촉 시 발생하는 열림도 조정과 재구조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활음 첨가 재론”(임석규)은 대학생들의 표기상 오류를 자료로 삼아 활음 첨가의 양상과 원인을 고찰한 것으로, y첨가와 w첨가의 조건을 찾아내고 이 현상이 순수 음운론적 현상임을 확인하였다.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대한 연구인 “형태적 구성에 나타나는 겹받침 발음 연구 Ⅰ”(김연희)은 현대 국어의 겹받침 발음을 〈표준 발음법〉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관련 음운 규칙을 조사한 것이며, “음절 말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연구”(이세창)는 음절 말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새로운 제약을 도입하여 설명한 것이다. “Stratal-OT Approach to the Overapplication of Coda Neutralization an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n Korean”(한은주) 역시 음절 말 자음 중화와 자음군 단순화 현상을 최적성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이다.

이 밖에도 최적성 이론에 기대 음운 현상을 설명한 연구들이 여럿 보인다. “서울말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박나영)은 모음 탈락, 활음화 등의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

를 검토하고 최적성 이론에 기반하여 분석한 것이다. “Optionality as Local Optimality in Serialism”(이민경)도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해 도출 중심의 최적성 이론을 적용하여 설명한 것이며, “음운론적 불규칙성과 입력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이세창)는 ‘ㅅ-불규칙 용언’과 ‘ㅎ-불규칙 용언’의 음운론적 불규칙성을 최적성 이론의 틀 안에서 통합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으로, 불규칙성을 보이는 분절음이 입력형에서 한 개의 모라를 가진다고 가정하고 이 연결이 출력형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는 제약을 도입하였다. “Vowel Harmony in Korean Ideophones”(홍성훈)는 모음 조화를 다룬 것이다.

지배 음운론에 기댄 음운론적 연구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어간 말 자음 /h/의 음운론적 행위에 대한 지배 음운론적 접근”(이상직)은 격음화, 비음화, 탈락 등에 나타나는 어간 말 자음 /h/의 음운론적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지배 음운론에 기반하여 어간 말 자음과 어간 말 자음군의 /h/의 기저 구조를 달리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음화를 통해서 본 언어 보편적 음절 구조 연구”(허용)는 지배 음운론의 틀로 한국어와 일본어의 음절 구조가 모두 CV형임을 주장한 것이다.

4.2.3. 방언 및 사적 연구

방언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로는 “구개음화 규칙의 전파와 어휘 확산”(곽충구)이 있다. 현재 구개음화가 진행되고 있는 육진 방언의 노년층 화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이 음운 규칙의 발생과 확산, 변화의 과정을 미시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한 것이다. 노년층 화자들은 주로 교육을 통해 조선족 표준어를 차용하였고 화자의 언어 태도 및 표준어와의 접촉은 구개음화 규칙을 촉발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초기 구개음화를 겪은 어휘는 한자어가 많고 빈도가 높은 어휘에서 시작되며 어휘 형태소에서 먼저 시작되어 문법 형태소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다. “고려 말의 파찰음과 파찰음화”(고동호)는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화자 1인의 자유 발화에 나타나는 파찰음의 음가를 설단-전위 경구개음으로 분석하고 파찰음화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청년층 동남 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이토

다카요시)은 방언 연구에서 청년층의 성조 실태를 조사하여 기술하는 작업이 기존의 연구와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하면서 청년층 방언에서 상성형에 일어난 음운 변화 및 음운 변화와 굴절 패러다임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찰한 것이다.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이진호)은 성조와 음장의 관련성을 반모음화가 일어났을 때 동반되는 운소의 변화를 통해 고찰한 것이다. 중세 국어의 성조 실현과 현대 국어의 음장 실현을 검토하고 비교하여 중세 국어 시기에는 '아/어'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반모음화가 적용되어도 상성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현대 국어에서 보상적 장음화를 동반하는 반모음화는 중세 국어를 직접 계승한 것이 아니라 반모음 첨가와 중복음 탈락이라는 변화가 연속적으로 적용되어 이를 계기로 나타난 결과임을 밝힌 연구이다.

고대 국어와 관련된 논의로는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상(上)'의 음가 연구"(최중호)가 있다. 고구려 지명 '上'과 '車'가 음차에 의한 대응 양상을 보이며 그 음가는 /자/로 볼 수 있음을 밝힌 연구이다.

"한국 한자음(15 · 16세기 현실음)과 위진 남북조 시대 음과의 비교"(강신항)는 한국 한자음이 3세기에서 6세기에 이르는 위진 남북조 시대 음을 수용한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를 15-16세기 현실 한자음과 대조해 본 시도이다.

특정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로는 "〈ᄉᆞ민필지(士民必知)〉의 음운론적 연구"(이근영)가 있다. 한국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ᄉᆞ민필지〉를 음운론적으로 분석하고 이 문헌이 19세기의 일반적 음운 체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형태주의 및 발음 위주의 표기 양상이 공존함을 확인한 것이다.

4.3. 기타

언어 정책과 관련된 논저로는 "음운론과 어문 규범"(신지영)이 있다. 현행 표준 발음법의 문제점을 음운론적 차원에서 찾아내고, 현행 어문 규정이 실제 발음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와 관련된 현실 발음에 대한 논의로는 다음 논문들이 있다. "한국어 용언 어간 말 자음군의 발음 연구"(박시균)는 발음 혼란이 나타

나는 용언 '넓다, 짧다, 밟다; 맑다, 늙다, 읽다; 읊다'가 들어간 문장을 서울·경기 지역 및 충남 지역의 20대 화자에게 읽게 하고 발음을 조사한 것으로, 이 발음이 지역적 차이보다는 화자 개인적 차이로 발현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구어에 나타나는 모음 변이 양상"(최현정)은 일상생활의 발화를 수집하여 모음 변이를 모음 상승, 모음 하강, 원순화, 평순화, 전설화, 후설화 등으로 구분하고 세대별 차이를 관찰하고 정리한 것이고, "통신 언어 준말의 형성에 대한 음운론·형태론적 고찰"(김선철)은 음운론적 과정을 포함하여 통신 언어 준말 형성의 기제를 살펴본 것이다.

문학 작품과 연관된 음운론적 논의로는 "시문학파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조성문)이 있다. 시문학파의 작품 중 김영랑, 박용철, 정지용의 작품에 나타난 음절 수 및 초성, 중성, 종성의 수를 측정하여 작가별 특성을 찾아보려 한 시도이다.

차용어 음운론은 주로 언어 교육과 관련되어 연구되고 있다. "영어 차용어에서 나타난 어중 자음 연쇄의 [ɨ] 존재에 대한 지배 음운론적 접근"(이상직)은 영어 차용어 분석에 지배 음운론을 도입하여 종래의 최적성 이론에 따른 분석과는 달리 국어와 영어 차용어의 [ɨ] 실현을 동일한 기제로 설명하려 한 것이다. "Origins of Glides and /ʃ/-Decomposition in Korean Loanword Phonology"(이봉형)는 차용어에 나타나는 활음의 특징적인 양상을 다양한 근거를 통해 설명하려 한 것이다. "국어 혼성어에 대한 기술적 연구"(강은경)는 혼성어의 형성 과정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제약에 대해 고찰한 것으로, 혼성은 기저 단어의 음소나 음절 구조를 준수하고 음성적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약의 관점에서 설명하였다. "A Study of Korean Syllable Structure"(김정윤·이용은)는 랩 음악을 통해 한국어 음절 구조를 파악하려 한 것이다.

"북한의 말소리 연구에 대한 고찰"(이기동)은 〈조선어 실험 음성학〉, 〈조선어 어음론〉, 〈조선어 음운론〉을 중심으로 북한의 음성학 및 음운론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는데, 실험 음성학적 성과와 음운론적 개념의 정교화, 운율에 대한 관심 등 북한 말소리 연구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 것이다.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음운론적 연구로는 "음운 이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송향근)이 있다. 지배 음운론 및 최적성 이론의 한국어 발음 교육 분야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1986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어 발음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요소, 자료, 방법, 체계, 양상이라는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한국어 발음 교육 분야에서의 음운 이론의 이해와 적용에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어에서의 성인과 유아의 음성 인식 비교"(유재권 · 이경미)는 유아의 음성을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한 것이고, "Implementation of Korean Syllable Structures in the Typed Feature Structure Formalism"(이용훈 · 박예슬)은 한국어 음절에 대한 전산 음운론적 논의이다.

5. 맺음말

이상으로 2011년에 발표된 음성학과 음운론 분야의 연구 성과를 개괄적으로 정리해 보았다. 전반적으로 단행본은 기존에 간행된 저서의 재발간이나 개정이 많았으며, 연구서의 수는 많지 않았다. 학위 논문의 경우 음성학에서는 응용 분야가, 음운론에서는 전통적인 주제가 강세를 보였다. 학술 논문은 음성학과 관련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였으며 음운론에서도 음성학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논의에 도입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한국어 교육, 언어 병리학, 국어 정보학 등 관련 분야의 연구가 독자성을 확보하면서 그 비중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음성학 및 음운론 관련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졌다.

이 글은 여러 논저에 대한 개략적인 소개이지만 모든 논저를 다 소개하지는 못했다. 일부 기술에서는 필자의 한계로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논저의 저자 및 독자께 양해를 구한다.

형태론

최 형 용
(이화여자대학교)

1. 머리말

본고는 2011년 한 해 동안 발표된 형태론 관련 업적들을 크게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본 것이다. 목록은 국립국어원에서 정리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나, 그 가운데 이 자리에서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상 토론, 논평, 서평 등은 포함시키지 않았고 다른 분야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들은 해당 분야로 미루었다.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태론의 개념과 범위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어느 정도 형태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논의가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가령, 단어 형성을 다룬다고 하여도 단어 형성에 관여하는 음운 변화, 어휘의 의미, 문장에서의 기능 차이 등이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을 특정 분야에 자리매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는 이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형태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형태론과 '관련된' 것으로까지 분야를 넓게 다루었다. 그 수가 한정된 단행본과 박사 학위 논문은 따로 분야를 나누지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석사 학위 논문과 일반 논문을 편의상 몇 개의 주제로 나눈 것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 주제를 나누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가령, 단어 형성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다룰 수도 있고 접두사, 접미사 등의 단어 형성 요소를 구분하여 더 미시적으로 나눌 수도 있다. 파생어, 합성어 등 단어 형성의 결과물 혹은 단어 형성의 기제나 어휘부

문제를 대상으로 주제를 나눌 수도 있다. 또한 같은 주제라도 석사 학위 논문이 다루는 내용이 일반 논문보다 포괄적인 경향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어떤 분류 방법도 모순을 피하기가 어렵다. 본고의 일차적인 목적은 한 해 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연구 결과물을 위해 일종의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령 서로 모순되는 측면이 있더라도 독자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연구 업적물의 연구 주제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분야를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는 석사 학위 논문과 일반 논문의 세부 주제를 이원화하여 석사 학위 논문은 단어 형성, 품사, 대조 언어학적 연구, 기타 등으로 나누고자 하며, 일반 논문은 형태소, 파생어, 합성어, 조사와 어미, 품사, 한자어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석사 학위 논문에서의 '기타'는 단어 형성이나 품사에 논의를 한정하지 않고 의미 측면에 대한 언급도 적지 않아 주제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상품명', '꽃 이름'에 대한 연구와 앞의 주제들과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자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일반 논문에서의 '형태소'는 교체를 포함하여 어근과 관련된 문제, 단어 형성과 관련 없는 접두사 및 접미사, 형태소에 기반한 현저성 관련 논의를 위한 것이다. 석사 학위 논문에서는 단어 형성으로 한데 묶었던 것을 일반 논문에서는 '파생어'와 '합성어'로 세분하였다. '품사'는 조사를 제외한 품사에 관한 연구 업적을 한데 묶기 위한 것이며 '한자어'는 단어 형성과 관련이 없는 한자어의 제 문제들을 다룬 연구 업적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한편, 석사 학위 논문에서 대조 언어학적 연구를 따로 독립시킨 것은 특히 외국인에 의한 이 분야 연구의 증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조 언어학적 연구라도 세부적으로는 단어 형성이나 품사를 다루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앞의 주제 분류와 충돌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는 않다. 또한 일반 논문에서는 대조 언어학적 연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것이 세부 주제로 해체되면서 한데 모이지 못한 것도 본고의 분류 체계가 가진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점 독자들의 양해를 바란다. 또한 본고의 주제 분류는 하향적인 것이

아니라 연구 업적물들이 다루고 있는 것들에 따라 상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해마다 업적물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의 경향에 따라 세부 주제가 달라질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서 상정한 주제들은 '망라적'이라기보다는 '선택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본고에서 다룰 업적들은 특별히 출간 순서의 차이를 밝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연구자의 순서를 가나다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러나 선후가 중요한 경우는 이를 반영하여 배치하였다. 가령, 어떤 연구자의 논의를 기반으로 이를 발전시킨 경우라든가 같은 연구자가 어떤 연관성 아래에 연속하여 글을 발표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2011년에 나온 박사 학위 논문이 다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단행본 쪽에서 해당 업적물을 소개하였다.

본고는 연구자의 생각을 최대한 그대로 요약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문법 용어와 표현도 될 수 있으면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추상적으로 내용을 요약하는 것만으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체적인 예들을 가미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른 해보다 분량이 적잖이 는 것은 본고가 가진 단점 중의 하나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오로지 필자의 잘못임을 미리 밝혀 둔다.

2. 단행본

방향옥의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는 저자가 조선대학교 대학원에 제출했던 박사 학위 논문을 다듬어 출간한 것으로서 X-Bar 이론의 틀을 원용하여 파생어를 중심으로 대조적인 관점에서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의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그 차이점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파생어를 내심 구조로 정의하고 이른바 영 접사도 공범주 가설에 입각하여 내심 구조에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또 내심 구조에서 파생

어의 핵의 모든 자질은 어휘 범주 자질을 포함하여 첫 분지 교점으로 삼투되어 올라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접사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한·중 접두사 목록을 제시하였는데 한자어 접두사는 39개, 중국어 접두사는 32개, 한자어 접미사는 48개, 중국어 접미사는 49개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먼저 접두 파생어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대조를 위해 '한·중 공통 접두 파생어', '한자어 단독 접두 파생어', '중국어 단독 접두 파생어로' 분류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의미와 구조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우선, 유사점으로는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모두 쓰이는 11개 접두사인 '單-, 無-, 半-, 不-, 非-, 亞-, 第-, 准-, 初-, 超-, 總-' 등의 의미가 대체로 유사하거나 같다고 보았고, 한자어 접두 파생어의 조어 방식은 대체로 중국어의 내부 구조와 비슷하여 한문의 통사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였다. 차이점으로는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공통으로 쓰이는 접두사 '難-, 老-, 大-, 小-, 軟-, 親-, 好-'가 한자어에서는 대체로 의미의 유연성이 남아있는 데 비해 중국어에서는 의미의 유연성을 상실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구조상으로는 중국어 접두 파생어의 어휘 범주가 더 다양하고, 접두사에 의해 어기의 어휘 범주가 바뀌는 경우는 중국어에 한정되며, 영 접사 첨가에 의해 어휘 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중국어에 더 많다고 하였다. 또한 한·중의 품사 차이로 내부 구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통사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한자어에서는 구나 절이 파생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자어는 어휘 핵이 항상 우측에 있지만 중국어는 좌측에도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접미 파생어도 다루었는데 유사점으로는 한자어와 중국어에 모두 제시된 접미사 중 '-家, -度, -夫, -師, -士, -性, -手, -員, -人, -者, -化'의 의미는 두 언어에서 대체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며 '-家$_1$, -家$_2$, -度, -夫, -師, -士, -性, -手, -員, -人, -者, -化'에 의한 파생어들의 내부 구조는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하였다. 차이점으로는 먼저 의미상 '-家, -當, -兒, -然, -地'가 한자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다르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구조상으로는 한자어 어휘 범주가 중국어보다 덜 다양하고, 중국어는 어기가 한자로

국한되지만 한자어는 그렇지 않으며, 한자어에서는 어휘 핵의 위치가 모두 우측인 데 비해 중국어는 좌측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차이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중국어 접미사는 어기의 범주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첨사의 기능도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 파생어의 어휘 핵 구조와 특성에 대해서도 일반화를 모색하였다.

심현숙의 『조선어 합성어 연구』는 저자가 북한의 사회과학원에 제출한 박사 학위 논문을 다듬어 출간한 것으로서 합성어의 유형, 구조적 특성과 합성어 형성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먼저 합성어의 구조 유형을 고유어와 한자어로 나누었는데 고유어는 합성 명사, 합성 동사, 합성 형용사, 합성 부사로 크게 나누었고 합성 대명사, 합성 수사는 나머지 합성어로 분류하였다. 한자어는 먼저 합성어 요소의 자립성에 따라 '자립적 요소+자립적 요소', '자립적 요소+비자립적 요소', '비자립적 요소+비자립적 요소'로 나누었고 조성 방식에 따라 반복 구성 합성어, 줄임말 합성어로 나누었으며 문장론적 관계에 따라 대등 결합, 규정적 결합, 서술적 결합으로 나누었다. 합성어의 구조적 특성은 어휘론적 특성, 의미론적 특성, 형태 구조적 특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어휘론적 특성으로는 합성어의 '풍부성과 다양성', '체계성'을 들어 설명하였다. 전자는 합성어의 양적인 측면을 풍부성으로, 질적인 측면을 다양성으로 강조한 것이다. 체계성은 합성어가 근간적인 단순 단어들에 기초하여 형성된 것과 새로 만들었거나 다듬어진 것, 즉 전문 용어로 나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특히 전문 용어는 학술적 개념의 체계에 따라 체계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의미론적 특성은 '의미 구조의 정밀성과 구체성', '대상 논리적 의미의 다양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전자는 합성어가 비교적 다의성이 적고 단의적이며 따라서 이를 정밀성, 구체성으로 특징화한 것이다. 후자는 합성어가, 단일어가 가지는 동음이의어 현상을 탈피하게 함으로써 자유롭고 다양한 의미 구조를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합성어의 형태구조적 특성은 합성어 형성에 참여하는 단어들이 문법적 요소를 매개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둘 이상의 단순 단어들이 변형이 없이 결합된 합

성어 구조', '말뿌리에 문법적 형태가 붙어 결합된 합성어의 구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편, 합성어 형성법에서는 일반어로 된 합성어와 학술 용어를 대상으로 그 방법을 예시하였는데 이에는 '합침법', '비유법', '생략법' 등이 있다고 하였다. 이 가운데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말뿌리를 합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합침법이 합성어를 만드는 가장 적극적 방법이라고 하였다. 비유법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모양이나 성질을 가진, 이미 알려진 다른 사물이나 현상과 그 뜻을 비유하여 나타내는 수법이라 하였다. 생략법은 합성어를 형성할 때 소리마디를 줄이거나 형태부를 줄이는 것 혹은 모음을 줄이는 것이라 하였다.

조일규의 『파생법의 변천』은 같은 저자가 1997년에 출간한 바 있는 『파생법의 변천 (Ⅰ)』에서 다루었던 이름씨('명사') 파생 뒷가지('접미사')의 변천에 새로 풀이씨('동사'와 '형용사') 파생 뒷가지의 변천 과정을 더하여 함께 묶은 책이다. 먼저 이름씨 뒷가지는 가지가 가진 추상성 여부에 따라 '추상화 뒷가지', '사물 뒷가지', '사람 뒷가지'로 나누어지고 밑말의 씨갈래 바꿈의 여부에 따라 '씨갈래 바꾸는 뒷가지'와 '씨갈래 안 바꾸는 뒷가지'로 나누어지며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한 씨갈래 뒷가지'와 '여러 씨갈래 뒷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하였다. 추상화 뒷가지는 중세, 근대 국어에서는 '-이, -기, -음, -ᄋᆡ/의'가 쓰이고 현대 국어에서는 '-이, -기, -음'이 쓰인다고 보고 다시 움직씨와 그림씨로 나누어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사물 뒷가지는 다시 중세, 근대, 현대 국어에 같이 쓰여 그 변천을 볼 수 없는 것('-지', '-아미/어미' 등), 앞 시대에는 가지로 쓰였으나 다음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복', '-살' 등), 앞 시대에도 쓰였고 다음 시대에도 가지로 쓰이나 가지의 형태, 의미 등이 변한 것('-아지/야지', '-ᄭᅢ(개)〉-깨' 등), 앞 시대에는 가지로 나타나지 않으나 다음 시대에 가지로 나타나는 것('-갱기', '-때' 등)으로 나누어 변천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람 뒷가지도 다시 앞 시대와 다음 시대에 같이 쓰여 그 변천을 볼 수 없는 것('-어리〉-어리/아리', '-직이' 등), 앞 시대에는 가지로 쓰였으나 다음 시대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뎡이, -여기'), 앞 시대에도 쓰였고 다음 시대에도

가지로 쓰이나 가지의 형태, 의미 등이 변한 것('-바치/아치〉-아치', '-방이〉-뱅이/방이' 등), 앞 시대에는 가지로 나타나지 않으나 다음 시대에 나타나는 것('-바치/아치', '-직이' 등)으로 나누어 그 변천 양상을 살펴보았다. 기타 뒷가지로는 '행위 뒷가지'('-질'), '겹셈 뒷가지'('-희'), '높임 뒷가지'('-님'), '장소 뒷가지'('-맡'), '뭇셈 뒷가지'('-븨', '-네/내') 등으로 나누어 변천 양상을 제시하였다. 풀이씨 뒷가지도 이름씨 뒷가지에 준하여 밑말의 본질적인 뜻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에 따라 '본질적인 뜻을 바꾸는 뒷가지'와 '본질적인 뜻을 안 바꾸는 뒷가지'로 나누고, 가지가 밑말의 씨갈래를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에 따라 '씨갈래 바꾸는 뒷가지'와 '씨갈래 안 바꾸는 뒷가지'로 나누었으며, 가지가 결합될 수 있는 밑말의 정도에 따라 '한 씨갈래 뒷가지'와 '여러 씨갈래 뒷가지'로 나누었다. 이러한 분류를 기반으로 '힘줌 뒷가지', '정의 표현 뒷가지', '하임 뒷가지', '입음 뒷가지'로 나누었다. 먼저 힘줌 뒷가지는 다시 중세 국어에 나타나 근대나 현대 국어까지 쓰이는 것('-티-〉-티/치-〉-치-', '-혀/혀-〉-혀/켜/키-〉-키-' 등), 중세나 근대 국어에는 쓰이지 아니하다가 현대 국어에서 새롭게 쓰이는 것('-뜨리-', '-앟/었-' 등)으로 나누어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정의 표현 뒷가지는 중세 국어에 쓰이다가 근대 국어에서도 쓰이는 것('-ᄇᆞ/브, -붕/봉-, -ㅂ-'〉'ᄇᆞ/쁘/부-, -ㅂ-' 등), 중세 국어에서는 한 가지의 이형태로 쓰이다가 근대 국어에서는 서로 다른 가지로 쓰이는 것('-돕/답-, -ᄃᆞᄫᅵ-(〉-ᄃᆞ/도외-), -롭/롭-, -ᄅᆞ/로ᄫᅵ-(〉-ᄅᆞ/로외-, -로ᄋᆡ/의- 〉 ① -답-, -ᄃᆞ/도외-, ② -롭/랍/롭-, -ᄅᆞ/로외-'), 근대 국어에서 새롭게 가지로 쓰이는 것('-스럽-')으로 나누어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하임 뒷가지는 '-이-'계 변천, '-오/우-'계 변천으로 나누어 변화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입음 뒷가지는 중세 국어에서 '-이-, -히-, -기-', 근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이-, -히-, -기-, -리-'로 나누어 구체적인 변천 과정을 제시하였다.

황화상의 『현대 국어 형태론』은 형태론 개론서로서 크게 다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부분은 개관이다. 형태론의 정의, 국어의 형태론적 특징, 형태론 연구의 흐름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두

번째 부분은 단어와 형태소를 다루었다. 단어와 관련해서는 단어의 정의, 단어의 구조, 단어의 유형에 대해 다루었으며 형태소와 관련해서는 형태, 이형태를 교체의 관점에서 다루고 형태소의 구분 문제, 형태소 분석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 번째 부분은 국어 단어의 품사이다. 품사의 정의와 품사 분류 기준을 먼저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순으로 그 특징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부분은 국어 단어의 형성인데 단어 형성 요소와 단어 형성법에 대해 개괄한 후에 파생과 합성으로 나누어 이를 살펴보았다. 다섯 번째 부분은 형태론과 어문 규정인데 이를 '단어와 어문 규정', '어미, 접사와 어문 규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전자는 '조사와 의존 명사', '복합어'로 나누어 이들 단위가 어문 규정과 관계되는 부분을 다루었으며, 후자는 '어간과 어미', '접두사와 접미사'로 나누어 어문 규정이 형태론과 관련되는 부분을 언급하였다. 한편 부록으로 관형사와 접사 목록, 구별하여 적는 단어들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3. 학위 논문

3.1. 석사 학위 논문

3.1.1. 단어 형성

곽은주의 〈신어에서 준말의 단어 형성법〉은 신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준말 형성 방법을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준말'을 줄임법을 통한 단어 형성으로 정의하고 이에 약어(약어형), 융합어 등을 하위 유형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신어에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준말을 포괄하기 위해 본말에서 한 음소나 한 음절 이상이 탈락되거나 두 음절이 결합하면서 음운의 변이가 일어나 축약된 말을 '협의의 준말'로 규정짓고, 한 단어 내부에서나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되면서 구성 요소의 일부를 절단하거나 음절을 따와서 줄인 말

을 '광의의 준말'로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신어에서 준말이 형성되는 방법을 크게 축약, 음절 따오기, 절단, 혼성으로 나누었는데 축약은 다시 탈락에 의한 축약, 음운 변이에 의한 축약으로 나누었으며, 음절 따오기는 머리 음절 따오기, 꼬리 음절 따오기, 혼합하여 따오기로 세분하였다. 따라서 이들 방법에 따라 준말은 축약어['말'(←'마을'), '셤'(←'시험')], 두음절어['강추'(←'강력+추천')], 미음절어['넷심'(←'인터넷+심'(心))], 혼음절어['포차'(←'포장+마차')], 절단어['스펙'(←'specification')], 혼성어['네티즌'(←'네트워크+시티즌')]로 세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준말의 단어 형성법은 두음절어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곽자건의 〈현대 한국어 파생어 연구〉는 다른 언어에 비해서 훨씬 발달해 있고 생산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어 파생어들의 유형과 형성 능력의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어 파생어의 체계 및 특성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파생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접사로 보았는데 접사는 분리성이 약하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며 한 낱말의 비핵심적 구성 요소로서 가의적이거나 품사 전환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지니는 형태소로 보았다. 이러한 접사의 종류에 따라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누어 논의하였는데 먼저 명사 접두 파생어에서는 '막-, 날-, 알-, 수(숫)-, 한-' 등의 고유어 접두사와 '남(男)-, 여(女)-, 외(外)-, 친(親)-, 강(强)-, 약(弱)-, 신(新)-' 등의 한자어 접두사들이 생산력이 높다고 보았다. 동사·형용사에서는 '들이-, 엇-, 덧-, 맞-' 등과 색채 형용사에 붙는 '새(샛)-, 시(싯)-' 등의 생산성이 높다고 하였다. 접두사와 관형사의 구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접두 파생어는 자체가 하나의 단어로서 그 내부에 휴지가 없고 어근과의 사이에 다른 수식하는 낱말을 넣을 수 없지만 관형사는 이와는 반대의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접미사는 의존성, 어근의 통사 범주의 변화성, 분포상의 제약성, 어근 의미의 첨가성에 따라 설정하였는데 명사 파생의 경우에는 '-꾼, -질, -가(家), -장(匠)이, -쟁이, -개(게), -이, -적', 동사 파생의 경우에는 '-하-, -나-, -치-' 등과 피동·사동의 접미사, 형용사 파생의 경우에는 '-스럽-, -롭-, -답-, -하-', 관형사 파생의 경우에는 '-적', 부사

파생의 경우는 '-이' 등이 전형적이고 생산성이 높다고 하였다. 한편 접미사와 어미의 구별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분포, 의미, 대치, 수식, 지배, 치환, 결합 가능성, 밀착도 등에서 파생 접미사의 제약이 어미보다 심하다고 하였다. 이 외에 파생어에 접두사나 접미사가 모두 출현하는 경우를 품사별로 나누어 그 유형과 예들을 제시하였다.

권예란의 〈[N-V-suf]형 단어의 내적 구조 고찰〉은 [N-V-suf]형 명사 가운데 [N-V-음], [N-V-기], [N-V-이], [N-V-개]의 내적 구조 분석을 통해 유형을 분류하고 각각의 유형이 가지고 있는 통사·의미론적 양상을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N-V-suf]형 명사의 내적 구조 분석을 위해 적용한 기준으로 '유형 빈도, 통합 관계, 의미의 특수화, 자립성'을 들었다. 이 가운데 '유형 빈도'를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단어 형성이 생산성과 유형 빈도 사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N-V-suf]가 [N-[V-suf]]로 분석되면 합성어로, [[N-V]-suf]로 분석되면 파생어로 보았다. 전자는 [V-suf]가 자립성을 가지며 후자는 그렇지 않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N-V-음], [N-V-기], [N-V-개]형 명사는 [V-suf]의 자립성에 따라 합성어와 의사 파생어의 자격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N-V-이]는 이 두 가지 외에도 파생어의 자격을 더 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파생어는 [N-V] 사이에 통사적 관계를 갖는 것도 있다고 하였다.

우정의 〈한국어 중첩형의 구조와 단어 형성 연구〉는 현대 한국어 중첩형의 구조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첩형이 참여한 단어 형성과 의미론적 특징을 살펴본 논의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한국어 중첩형을 '고유어 중첩형'과 '한자어 중첩형'으로 나누었다. 먼저 고유어 중첩형은 음절, 형태소, 단어, 굴절형 등으로 구성 요소를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음절 중첩형'은 다시 전체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전체 중첩형'과 일부가 중첩되어 이루어진 '부분 중첩형'으로 구분하였다. 전체 중첩형은 자립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고 자립성이 있는 경우는 다시 음절이 전체가 모두 중첩된 것과 비슷한 음절이 중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형태소 중첩형'은 어근의 중첩, 어간의 중첩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단어의 중첩형’은 그 단어의 문법적 특성에 따라 명사의 중첩형, 대명사의 중첩형, 부사의 중첩형, 수사의 중첩형, 관형사의 중첩형, 감탄사의 중첩형, 조사의 중첩형으로 분류하였다. ‘굴절형 중첩’은 곡용형, 활용형으로 나누었는데 곡용형은 ‘대명사+도’, ‘대명사+로’ 등이 있고 활용형은 ‘동사/형용사 어간+어미’ 구조로서 이 경우 어미는 주로 ‘-고’, ‘-나’, ‘-락’, ‘-어’, ‘-며’, ‘-면’ 등이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한자어 중첩형은 AA형, AABB형, ABAB형, ABCB형, ABAC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다시 자립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더 세분하였다. 논문에서는 중첩형이 파생이나 합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경우에도 관심을 기울였는데, 고유어 중첩형은 자립성이 없는 중첩형을 어기로 하여 ‘-이, -보, -증, -하-’와 결합하여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로 파생되며 자립성이 있는 중첩형을 어기로 하여 ‘-하-, -이’와 결합하여 형용사, 동사, 부사를 파생시킨다고 하였다. 한자어 중첩형은 자립성이 없는 중첩형을 어기로 하여 ‘-하-, -롭-, -스럽-, -이’와 결합하여 형용사, 동사, 부사를, 자립성이 있는 중첩형은 ‘-하-, -이’와 결합하여 형용사, 동사, 부사를 파생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중첩형은 명사와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보았는데 이는 제1요소, 즉 중첩형이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여부와 제2요소, 즉 명사가 고유어인지 한자어인지 여부에 따라 크게 ‘고유어+고유어’, ‘고유어+한자어’, ‘한자어+한자어’, ‘한자어+고유어’의 네 가지로 나뉜다고 하였다.

한은실의 〈한국어 혼성어와 두자어의 비교 연구〉는 절단과 결합의 과정을 겪어서 형성된 혼성어(blending)와 두자어(acronym)가 가지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우선 혼성어와 두자어는 모두 음절 수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즉, 혼성어는 선행 단어의 음절 수나 후행 단어의 음절 수와 맞추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혼성어의 의미 추측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편 두자어는 원형식의 의미를 가장 적은 음절수로 표현하려고 하는 ‘최소 최대 원리’를 따른다고 하였다. 혼성어와 두자어는 절단형이 결합하는 경계에서 음운 변화를 겪는다는 점에서도 공통점이 있으나 혼성어가 두자어보다 음운 변화가 일어나

는 예가 많은데 이는 두자어가 반드시 머리글자를 취해 형성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혼성어와 두자어 형성에서 선택된 절단형들은 모두 준형태소의 자격을 가지고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파라치', '-텔' 등과 같이 혼성어 형성에 활발히 참여하는 것들은 접사와 같이 심층 어휘부에 들어가며 '-줌마', '-렐라'와 같이 몇몇 혼성어에만 참여하는 것들은 표층 어휘부에 존재하는데 이들을 '혼성어 형성 고정소'라 하였다. 그러나 두자어인 경우에는 절단형이 다른 단어나 구에서 머리글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두자어 형성 고정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기존의 논의에서는 두자어를 준말에 포함시켜 왔으나 두자어는 '줄이기'를 겪은 후 '결합하기'를 겪는다는 점에서 준말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혼성어는 두 단어의 의미를 모두 가지지만 두자어는 원형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고, 혼성어는 언어의 경제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어휘의 빈칸을 채우는 역할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3.1.2. 품사

고인영의 〈조사 '에'와 '로'의 의미 기능 연구〉는 명사구의 문법 기능에 대한 방법론적인 기준을 제시한 후, 이를 바탕으로 'NP-에'와 'NP-로'의 의미 기능 형성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고찰한 논의이다. 명사구의 문법 기능에 대한 방법론적 기준은 이를 '통사 기능'과 '의미 기능'으로 양분하고, 의미 기능을 다시 '관계 요소'와 '본유 요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관계 요소는 '서술어와의 의미 관계'와 '다른 성분과의 의미 관계'로 나누었고, 본유 요소에 대해서는 'NP의 의미 유형(부류)'과 '조사의 내재적 의미'를 설정하였다. 이때 서술어와의 의미 관계는 어휘 의미 구조와 논항 구조 및 통사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개별 서술어의 의미 특성을 통해 밝힐 수 있다고 보았고, NP의 의미 유형은 서술어의 선택 특성과 함께 NP가 가진 의미 특성을 중심으로 선택 제약을 통해 밝힐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조사의 내재적 의미는 명사구의 의미 기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과 다른 조사와의 교체를 통한 의미 변화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법론적 기준에 따라 'NP-에'와 'NP-로'를 논항인 경우와 부가어인 경우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대체로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요구된 논항일 경우 명사구의 의미 기능 형성에 본유 요소보다 관계 요소가 크게 작용한다고 보았고,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요구된 논항이 아니더라도 서술어의 의미 특성이 명사구의 의미 기능 형성에 작용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때 작용하는 의미 특성은 서술어의 선택 특성이라고 하였다. 또한 명사구가 서술어의 의미 특성에 의해 필수적으로 요구된 성분이 아닐 경우에는 대체로 관계 요소보다 본유 요소가 의미 기능 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관계 요소 중의 하나인 서술어와의 의미 관계는 개별 용언의 어휘 의미 구조, 논항 구조, 통사 구조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의미 특성으로 밝힐 수 있다고 하였고, 본유 요소 중의 하나인 NP의 의미 부류는 각각의 NP가 갖는 어휘적 의미 특성으로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본유 요소에 속하는 조사의 내재적 의미는 개별 조사가 결합한 명사구의 의미 기능과 다른 조사와의 교체 그리고 교체에 따른 의미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에'의 내재적 의미는 [+조건성]이나 [+대상성]의 의미 자질을, '로'의 내재적 의미는 [+변성]과 [+영향성], [+과정성]의 의미 자질을 갖는다고 보았다.

김민진의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 설정에 관한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관형사와 접두사 목록을 대상으로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를 연속성상에서 파악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관형사와 접두사는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 범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하고 해당 범주의 원형적 속성에 따라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위를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고유어 관형사 37개, 한자어 관형사 32개, 고유어 접두사 83개, 한자어 접두사 93개를 추출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이들 가운데 고유어 4개('맨', '새', '온', '한'), 한자어 7개('구(舊)', '귀(貴)', '단(單)', '본(本)', '성(聖)', '수(數)', '총(總)') 총 11개의 목록은 중복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들 목

록을 분석하면서 고유어는 분포, 후행 성분의 성격, 의미 등을 고려하여 원형적인 범주로부터의 이동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자어는 형태, 기능, 분포면에서 차이를 발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의미만을 기준으로 삼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제약 때문에 관형사와 접두사 범주의 분화가 어렵다고 해석하였다.

수쉐페이의 〈한국어 체언+조사 결합형의 형태적・의미적 제약 연구〉는 한국어에서 특정 조사와만 결합이 가능한 곡용형 체언과, 조사와의 결합 자체에는 제약이 없으나 특정 조사와 결합하였을 때 의미가 특수화되는 특수 곡용형 체언의 분포와 특징을 고찰한 논의이다. 전자의 제약 곡용형은 모두 172개가 제시되었는데 '에' 결합형이 83개, '의' 결합형이 33개, '(으)로' 결합형이 26개이며 두세 개의 조사와 결합하는 제약 곡용형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특수 곡용형은 총 89개가 제시되었는데 '(으)로' 결합형이 28개, '의' 결합형이 20개, '에/에서' 결합형이 18개이다. 한편 특정 구성으로만 쓰이는 것들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는데 제약 곡용 구성은 21개, 특수 곡용 구성은 25개를 추출하고 이들 구성의 분포와 형태적, 의미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상과 같은 곡용형 혹은 곡용 구성들은 형태적, 의미적 제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이 매우 어려워한다고 하였다. 실제 5종의 한국어 교재를 대상으로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제약 곡용형과 특수 곡용형에 대해 제시한 내용이 제약 곡용 구성과 특수 곡용 구성에 대하여 제시한 내용보다 비중이 작으며 제시 방식은 주로 어휘로 제시하는 것과 문법 항목으로 제시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3.1.3. 대조 언어학적 연구

루 탄 투이의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대비 연구〉는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의 용법과 의미를 대비 분석하여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 논의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베트남어 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인칭 대명사보다 더 많고 풍부하다고 하였다. 이는 베트남어에서는 단순 비교에서도 그 수가 많을 뿐만 아

니라 1, 2인칭 대명사가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 한국어에서는 높여야 할 대상을 대명사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베트남어에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대상으로 쓸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먼저 1인칭 대명사의 경우 한국어와 베트남어는 모두 단수형이 단음절이고 경어법과 관련하여 존칭과 비칭으로 나뉜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하였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어는 단독으로 복수형이 따로 있는 데 비해 베트남어는 접두사를 이용하여 복수형을 만든다는 점, 한국어는 복수형이 단수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베트남어는 이러한 경우가 없다는 점, 한국어는 상황에 따라 1인칭 대명사가 생략되는 것이 흔한 데 비해 베트남어는 그럴 경우 예의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다음으로 2인칭 대명사의 경우 한국어는 접미사, 베트남어는 접두사이기는 하지만 모두 접사를 이용하여 복수형을 만들고 높임 등급에 따라 대명사가 분화되어 있다는 점은 공통점이라 하였다. 반면 베트남어는 2인칭 대명사도 모두 단음절이고 상대방을 높여야 할 경우에 대한 대명사가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으며 청자의 성별에 따라 인칭 대명사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점, 호칭이 친족 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생략을 하면 예의에 어긋난다는 점은 한국어와의 차이점이라 하였다. 끝으로 3인칭 대명사의 경우 두 언어 모두 3인칭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어 '그'와 '그녀'에 해당하는 베트남어 인칭 대명사의 사용 환경도 문어체에 주로 국한된다는 점 등은 공통점이라 하였다. 차이점으로는 복수형을 이룰 때 베트남어에서는 훨씬 다양한 접두사가 결합한다는 점, 베트남어에서는 한국어의 '지시사+의존 명사'가 아니라 '2인칭 대명사+지시사'를 사용해 통합형 3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점, 지시사가 베트남어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점, 베트남어에서는 사물 대명사가 인칭 대명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이 외에 한국과 베트남어의 재귀 대명사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도 다루었다.

서성의 〈한국어 '-적'과 중국어 '的(de)'에 관한 비교 연구〉는 한·중 양 언어의 '-적'과 '的(de)'을 형태론적, 통사론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논의이다. 먼저 형태론적 측면에서 한

국어 '-적'은 명사나 어근 뒤에만 나타나는 반면 중국어 '的'은 명사뿐만 아니라 대명사, 형용사, 동사나 구 뒤에도 붙을 수 있고, 한국어의 '-적'은 주로 접미사로 쓰이지만 중국어의 '的'은 구조 조사로서 자립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킬 수 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통사적인 측면에서 한국어 'X적'은 단독으로 주어, 목적어로 쓰이기가 어렵고 보어, 관형어, 부사어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중국어의 'X的'은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생략 가능성, 서술어 형성 가능성, 부사의 수식 가능성도 살펴보았는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생략 가능성에 차이가 없는 경우('-적$_1$/的$_1$')도 있지만 부분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적$_2$/的$_2$')도 있으며 동사와 형용사 뒤에 나타나는 '的'('的$_3$')은 한국어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하였다. 생략 가능성에 제한이 없는 경우('-적$_1$/的$_1$')는 서술어 형성이 불가능하고 정도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생략 가능성에 부분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적$_2$/的$_2$')는 두 언어 모두에서 서술어 구문으로의 전환에 제약이 없다고 하였다.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소속, 소유' 등 관계적 의미 자질을 가지는 '-적$_1$'은 주로 [+실체성] 명사 뒤에 오는 반면 '상태, 성질' 등 어휘적 의미 자질을 가지는 '-적$_2$'는 주로 [+상태성] 뒤에서 나타나고 중국어 '的$_1$'은 앞의 단어에 제약이 없는 반면 '的$_2$'는 [+상태성] 명사와 결합하고 '的$_3$'은 [±상태성] 명사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또한 선행어와 후행어의 의미 관계를 보면 중국어 구조 조사 '的'은 '수량, 시간, 장소, 소속(소유) 범위, 상태(성질), 용도, 직업' 등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데 이들의 의미 관계는 [±제한성], [±묘사성]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 한국어의 '-적$_1$'은 '소속, 소유'의 의미 관계를 가지는 [+제한성]의 특성이 나타나고 '-적$_2$'는 '상태, 성질'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묘사성]을 표시한다고 보았다.

서총의 〈한·중 신조어의 형태론적·어휘론적 대비 연구〉는 국립국어원에서 조사한 2001년에서부터 2005년까지의 신어 10,655개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 조사된 신어 1,484개를 토대로 형태론적 조어법에 따른 어휘적 특징을 고찰함으로써 양국 신조어의

특징을 살핀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조어를 '의미와 형식 모두 새로운 말', '의미는 원래 있고 새로운 형식으로 표현되는 말', '형식은 오래되었지만 새로운 의미가 부여된 말'로 정의하고 형태론적으로 파생법, 합성법, 혼성법, 축약과 유추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파생의 경우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새로운 준접사(類詞綴)가 많이 사용되며 한국어의 한자어, 외래어 접사와 중국어의 새로운 접사는 모두 어근의 '접사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접미사는 모두 접두사보다 더 다양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합성의 경우 신조어에서는 통사적 합성어보다 비통사적 합성어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신조어가 더욱 개방적이고 활발한 조어력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혼성은 중국어 신조어 조어법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어의 신조어 조어법 중에는 적지 않다고 하였고 이들에 기존 단어와 동일한 지위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축약은 합성 형태를 기본으로 하면서 가장 경제성을 강조한 유형으로서 최근 양국 사회에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신조어 형성법이라고 하였다. 축약은 혼성과 혼동할 수 있지만 실제 본딧말과 함께 사용한다는 점에서 혼성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문자 구조의 차이에 따라 '음절 축약' 현상은 한국어에만 존재한다고 하였고 압축에 의한 축약은 양국의 신조어에 모두 존재하지만 한국어는 두자어가 많이 나타나고 중국어는 표의적 속성 때문에 대표적 음절을 자유롭게 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끝으로 유추는 표면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와 구조적 유사성에 기초한 유추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의미의 대응 관계에 따라 반의적 유추와 유의적 유추로 분류하였으며 반의적 유추보다 유의적 유추의 생산성이 더 높다고 하였다. 어휘론적으로는 신조어 외래어 차용과 수사법 조어로 나누었는데 한·중 외래어 차용과 관련하여 표기 방식과 조어 방식으로 구별하였다. 즉, 한국어는 외래어를 차용할 때 '음차' 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중국어는 '의역'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음역할 경우에도 각각의 음과 뜻이 어울리는 형태소를 선택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음차와 의역의 혼용, 음차 속에 의미 포함, 음차 후 종류

를 표시하는 형태소 첨가 등 그 유형도 중국어가 한국어보다 다양하다고 하였다. 한·중 신조어의 수사법 조어는 비유, 과장, 완곡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비유법의 범위는 중국어보다 한국어에서 훨씬 넓다고 보았다. 그러나 비유법을 제외한 과장과 완곡 수사법으로 만든 신조어의 예는 한·중 신조어에서 공통으로 발견된다고 하였다.

손연화의 〈한글을 통한 한중 한자어의 병행 표기에 관한 연구〉는 중국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유하고 수월성이 높은 한글 위주로 중국어를 표기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중국 한자어를 학습하는 방안을 제시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운 체계의 공통점을 제시하고 새롭게 개발된 발음 표기법 '온누리 한글'로 중국어 음절을 표기할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어와 한국 한자어는 의미적으로도 많은 상관성이 존재하므로 두 언어의 역사적, 언어학적 친밀 관계를 드러내는 데는 그 발음을 한글 문자로 충분히 표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끝으로 한국 한자어들을 구성 성분의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하고 현재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어휘들을 뽑아내 한글로 표기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해당 단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한국 한자어가 중국에서는 어떻게 발음되고 뜻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국 학습자에게 명확하게 알려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양기기의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의 대비 연구〉는 한국어의 선어말 어미 '-겠-'과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 '要'의 미래 시제 의미와 양태 의미를 대조 분석한 논의이다.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는 대체로 추정과 의지를 나타낼 때 쓰이는데 먼저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가 추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 제약과 시제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고,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가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주어 제약과 시제 제약을 받는다고 하였다. 의지를 나타내는 평서문에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는 1인칭이고, 의문문에서는 한국어의 주어는 2인칭이며 중국어의 주어는 1인칭이라고 하였다.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는 모두 과거/완료(-였-/了)와 결합할 때 의지를 나타내지 못하고 추정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심리학

적 측면에서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는 사유 과정에서 의사 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을 때 의지를 나타내고 본인에게 없을 때 추정을 나타내는데, 이때 본인이란 평서문에서는 화자를, 의문문에서는 청자를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는 완전히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소가 아니라고 하였는데 한국어 '-겠-'은 화자의 배제적 사유 과정을 나타내고 중국어 '要'는 포괄적 사유 형성 과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배제적 사유를 나타내는 한국어 '-겠-'은 주관성이 높고 포괄적 사유를 나타내는 중국어 '要'는 객관성이 높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국어 '要'는 비현장성을 나타내고 청유 표현이나 확인 의문문에도 쓰인다고 하였다.

왕얀의 〈한·중 신어에 사용된 명사 파생 접미사의 비교 연구: 한자어·외래어 접미사를 중심으로〉는 한·중 신어에 사용된 한자어 및 외래어 명사 파생 접미사를 중심으로 상호 동질성과 이질성을 비교 고찰함으로써 그 변별적인 특성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신어의 정의와 범위, 한·중 신어의 조어 방식을 논의하였다. 먼저 신어는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의 표시를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에 사회의 인정을 받고 널리 사용되되 아직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어휘'로 정의하고 신어의 범위는 임시어, 유행어, 전문어, 은어 등과의 구별을 통해 정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중 한자어·외래어 접미사의 판별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신어 자료에서 한자어 접미사 17개와 중국어 원어 접미사 33개를 추출하였다. 한자어 접미사의 비교는 의미 기능 분류의 비교, 어기 양상의 비교, 개별 접미사의 비교로 나누었고 외래어 접미사의 비교는 의미 기능 분류의 비교, 어기 양상의 비교, 차용 방식의 비교로 나누었다. 먼저 한자어 접미사는 의미 기능 분류에서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의미 기능은 일치한다고 보았고, 어기의 어종에서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들은 외래어 어기와 잘 결합되는 반면 중국어 원어 접미사들은 외래어 어기와 결합되는 예가 많지 않다고 하였다. 어기의 품사에서 서술성 명사 어기와의 결합은 중국어 원어 접미사보다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가 더 활발하며 동사 어기, 형용사 어기와의 결합은 중국어 원어 접미사가 더 활발하다고 하였다. 그리

고 부사 어기와의 결합은 한국어에서만 발견된다고 하였다. 음절 수에서는 한국어는 2음절 어기가 일반적이지만 중국어는 주로 1음절 어기나 2음절 어기라고 하였다. 다음으로 외래어 접미사의 의미 기능 분류에서는 '사람, 사물, 행위나 사건, 장소'를 나타내는 외래어 접미사가 한·중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지만 '사상'을 나타내는 외래어 접미사는 한국어에만 있다고 하였다. 또한 어기 양상에서 한국어 외래어 접미사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 어기와 잘 결합되고 외래어 어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중국어 외래어 접미사는 외래어와의 결합이 아주 제한적이라고 하였다. 한편 한·중 외래어 접미사 어기의 품사는 주로 명사이고 음절 수에서는 중국어 외래어 접미사 어기의 음절 수가 강한 규칙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한·중 접미사 가운데는 신어에 사용된 것 중에서 '-族, -男, -女, -人, -狂, -盲, -客, -派, -通, -王, -家, -師, -士, -者, -房, -界, -圈, -風'을 들어 의미 기능, 어기의 음절 수, 품사에서의 차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왕옥주의 〈중국어 '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연구〉는 중국어 '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을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대조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的'이 동사, 형용사, 서술격 대명사 등과 결합하여 명사화된 후 뒤의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시제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선행어 앞에 반드시 시간을 표시하는 시간 명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어에서 구조 조사의 기능을 하는 '的'의 선행어와 후행어의 의미 관계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는데 명사와 명사 사이에 쓰일 경우 소유, 소속 관계뿐만 아니라 직업, 원료, 재질 등을 묘사하는 데도 쓰인다고 하였다. 형용사와 명사 사이에 쓰일 경우에는 피수식어의 속성에 대한 묘사의 의미 관계를 나타내고, 동사와 명사 사이에 쓰일 경우에는 각종 '대상', '용도', '시간' 및 '장소'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한편 명사 뒤에 쓰이는 중국어 '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에는 '-적'과 '의' 두 가지가 있고, 형용사 뒤에 쓰일 경우에는 한국어에서 '-ㄴ/은'이 붙은 형태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동사+的+명사' 구성은 한국어

에서는 '-ㄴ/는/ㄹ'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왕원원의 〈한·중 이형 동의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친족 호칭어의 비교와 교재 분석을 통하여 한·중 이형 동의어를 분석하고 가르칠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 방안 개발의 방향을 제안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 16권의 어휘 목록에 나오는 한자어를 모두 추출하여 동형 동의어, 이형 동의어, 동형 이의어의 비중을 살피고 그 가운데 이형 동의어에 초점을 두어 이를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는 2음절 이형 동의어의 어휘 수가 제일 많은데 이는 한국과 중국에서 2음절 형태소를 제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공적인 제2 언어의 사용을 위해 적당량의 어휘 습득은 필수적이며 어휘론적인 관점이 도입되어 어휘가 언어 기술 중의 하나로 간주되어야 하지만 실제 학습 현장에서는 어휘 교육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히 어휘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형 동의어를 중심으로 실제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형 동의어 가운데 빈도가 높은 것을 제시하면서 중국어의 사용 양상과 한·중 의미와 형태상의 다른 점을 비교해야 하며, 많은 예문과 연습을 거치고 어휘의 확장을 통해 더 많은 한자어를 습득하는 심화 단계가 있으면 더 효율적으로 한자어를 학습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 끝난 후에 교재에 나온 이형 동의어를 유형화하여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는데 가령 2음절을 기준으로 할 때 AB:AC, AB:BC, AB:CB, AB:CA, AB:BA 등의 유형으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유췌의 〈한·중 한자 사자성어 비교 연구: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생들이 사자성어를 정확하게 활용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중 양국의 한자 사자성어를 비교해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논의이다. 먼저 사자성어의 개념과 특징, 유래를 살펴보고 한자 사자성어에 나타난 한·중 양국의 문화성을 살펴보았다. 그 다음 한국과 중국의 상용성어 사전에 수록된 한자 사자성어를 형태와 의미에 따라 가려 뽑아 모두 412개를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

자 사자성어는 대부분 중국에서 전해져 왔으므로 중국의 한자 사자성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전해온 것들 중에 한자의 결합 순서나 형태 등이 한국인의 언어 습관과 표현 방식에 따라 한국의 문화 특징에 맞게 바뀌게 된 것들도 있으므로 한·중 사자성어를 형태가 같은 것과 형태가 다른 것으로 먼저 크게 나누고, 형태가 같은 것은 다시 의미가 같은 것(336개)과 의미가 다른 것(23개)으로 나누었으며 형태가 다른 것은 글자의 위치가 다른 것(10개), 구성에서 한 글자가 다른 것(20개), 두 글자가 다른 것(13개), 글자가 완전히 다른 것(10개)으로 세분한 다음 각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응우옌 티 응우옛 민의 〈한국어 단어 형성에서의 '生'의 용법〉은 한국어의 단어 형성에서 나타나는 '生'에 초점을 두어 이를 자립 형식으로 쓰이는 형태소 '生'과 어근 '生', 접사 '生'으로 나누어 살펴본 논의이다. 먼저 자립 형식으로 쓰이는 '生'에 대해서는 이것이 명사의 품사를 가지고 몇 가지의 격 조사와 결합할 수 있어 자립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지만 단어 형성 과정에 참여할 때에는 그 자립성은 약화된다고 하였다. 또 '生'은 단어로서의 용법을 보장 받은 환경에서만 자립성을 가지며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는 의존성을 가진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단어 형성에서는 자립 형식 '生'의 활용 범위가 좁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어근 '生'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다른 한자어와 똑같이 한국어의 굴절 접사(어미)와 직접 결합할 수 없으며 한국어 고유어와 달리 하나의 형태소라도 동사, 명사, 관형사, 부사 등 여러 가지 품사성 어근으로 쓰여 다양한 구조로 단어를 형성한다고 하였고 또한 거의 한자 어기와만 결합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生'이 접사의 자격을 가질 때 특히 접두사인 경우 생산성이 높다고 하였는데 원래는 중국어에서 수입된 요소이지만 한국어에 들어와서 고유어 문법의 영향을 받아 한자어와 결합할 뿐만 아니라 결합 대상의 범위가 넓어져서 고유어나 외래어와 잘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접미사 '生'은 의미 범위가 접두사보다 좁아져서 주로 '사람'과 '학생'의 의미로 많이 쓰이며 단어를 형성할 때 주로 한자어와만 결합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生'의 의미를 분류

한 결과 1자어 '生'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2자어 구조에 참여하여 [生+X] 구조에서 6가지의 의미, [X+生] 구조에서 5가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3자어 구조에 참여하는 접두사 '生'은 20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접미사 '生'은 크게 7가지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

장증의 〈한·중 합성 명사의 구조 비교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 방식을 밝히기 위해 한국어와 중국어 합성 명사의 유형 및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합성 명사의 구조적 특성을 비교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형태, 의미, 통사의 측면에서 한·중 합성 명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였는데 먼저 합성 명사와 명사구의 판별에 대해 한국어는 음운론적으로 개방 연접의 개입 불가, 형태·통사론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의 비분리성, 의미론적으로 의미의 특수화를 설정하였다. 반면 중국어는 음운론적으로 뒤 음절이 부정위(不定位) 형태소이고 형태·통사론적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것, 의미론적으로 비합성성을 지닌 것을 합성 명사로 보았다. 합성 명사의 구성 성분의 품사 차원에서는 중국어 합성 명사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어 합성어는 하나로 고정된 중심이 없고 구성 성분이 낱말의 품사 유형을 결정하지 않으며 구성 성분의 배열 순서와 문장 어순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합성 명사의 유형 분류를 통한 특징 측면에서는 중국어 합성 명사의 구조 유형이 한국어에 비해 더욱 다양하며 한국어 어휘 체계에 융합된 한자어 합성 명사는 점점 한국인의 언어 습관에 따라 합성법 대신 파생법이 더 많이 발달하게 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장혜진의 〈한·중 2음절 동형 한자어 품사 대조 연구: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는 한·중 동형 한자어를 품사별로 분류하여 그 분포 양상을 살피고 한국 한자어가 중국어에서 어떤 품사에 대응하는지를 검토하려는 논의이다. 먼저 한국 한자어를 품사별로 살펴보았는데 전체의 51.28%인 681개는 명사, 38.55%인 512개는 명사 겸 '하다' 동사의 어근, 5.05%인 67개는 명사 겸 '하다' 형용사의 어근, 기타 '하다' 형용사 어근, 명사 겸 부사 등이 5.12%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중국 한자어는 전체 51.20%인 680개는 명사, 20.03%인 266개는 명사 겸 동사, 14.76%인 196개는 동사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어에서는 '하다'와 결합해 동사가 될 수 있으면 명사로 쓰일 수도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명사로는 쓰이지 않고 동사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고 형용사 어근도 비슷하다고 하였다. 또한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명사인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9개 품사 유형과 대응하는데 전체의 90.31%인 615개는 중국어 명사에 대응하고 나머지 66개는 중국어에서 명사 겸 동사, 명사 겸 형용사 등의 품사 유형에 대응하며, 한자어가 한국어에서 명사 겸 '하다' 동사 어근일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11개 품사 유형과 대응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중 한자어의 품사 대응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도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어휘 학습을 진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품사의 차이는 양국의 한자어가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가령 중국에서 '거리(距離)'는 명사적인 의미 이외에 동사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한국에서는 '사이를 두다'라는 동사적인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건진의 〈'-적(的)'의 용법에 대한 한·중 대조〉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사용 빈도가 매우 높은 '-적(的)'의 출현 환경과 형태 그리고 통사적 기능의 측면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어의 '-적(的)'을 어휘적 의미가 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누어 'N적 N', 'N적이다', 'N적으로'의 용법으로 분석하였다. 중국어의 '的'은 관형어를 만드는 기능을 하는 구조조사, 확신 어기를 나타내는 어기 조사, 동작이나 행위가 이미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동태 조사의 셋으로 나누었다. 대조를 위해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서로 대응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는데 서로 대응하는 경우는 'N적 N', 'N적이다'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서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한국어의 '-적'이 중국어에서 '-的' 이외의 표현으로 쓰이거나 반대로 중국어의 '-的'이 한국어의 '-적' 이외의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로 나누었다. 전자는 'N-적 N'에서 '-적'이 삭제형 'Ø'로 표현되고 한국어의 'N-적-으로'가 중국어의 '地', '在N上' 등으로 대응하는 경우라 하였고, 후자는 중국어의 구조조사 '-的'이 한국어에서 '의', 'Ø', '-(으)ㄴ', '-(으)ㄹ', '-는', '-던',

'X 것', 'X-(으)ㄴ 것' 등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고 어기 조사 '-的'은 '-(으)ㄹ 것이다', 동태 조사 '-的'은 '-었-'에 대응한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의 '-적'은 접미사로서 어휘적 기능을 주로 하는 데 비해 중국어의 '的'은 조사로서 문법적 기능을 주로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하였다.

정보경의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와 중국어 접미사의 대조 연구 : 사람과 관련된 명사를 중심으로〉는 '사람'과 관련된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와 중국어 접미사를 비교함으로써 같은 한자가 서로 다른 두 가지 환경에 처할 때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사람'과 관련된 한자어를 모두 추출하여 한자어 접미사 설정 기준에 따라 '사람'과 관련된 한자어 접미사 목록을 제시하였다. 한자어 접미사의 판정 기준으로는 '의미 변화', '비단축형', '1음절 의존 형식', '생산성' 등을 들었다. 접미사 목록으로 제시된 한자어 접미사들은 '-家, -哥, -客, -狂, -夫, -師, -士, -生, -手, -員, -者, -族, -漢' 등인데 이들을 각각 의미와 형태 측면에서 중국어에서의 쓰임과 대조하였다. 중국어에서 전형적으로 접미사로 간주되는 것들은 특별한 어휘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에 국한되는데 어휘적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특성은 접사와 똑같은 것들을 '준접미사'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앞의 목록으로 제시한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들과 대응할 수 있는 중국어는 주로 준접미사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대조 작업을 진행할 때 형태면에서는 주로 어기의 음절 수, 어기의 성격, 어기의 세부 구조 등으로 나누어 비교하였고 의미면에서는 의미 변화의 단계성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주교령의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를 대상으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를 비교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우리말 파생어 사전』(2006)에 수록된 88개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를 논의 대상으로 삼았다. 접두사는 다시 동형 접두사와 이형 접두사로 나누었는데 전자는 두 언어에서 쓰이는 접두사의 한자가 같은 것이고 후자는 한국어에서만 접두사로 쓰이는 것과 중국어에서만 접사로 쓰이는 것

이다. 구체적인 접두사에 대해서는 접두사로서의 의미, 후행 어근과 통사적 기능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먼저 접두사로서의 의미 부분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는 원래 한자어의 의미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반면 중국어 접두사는 원래 한자어가 갖는 의미와 다른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후행 어근의 특징은 다시 품사 분류와 구조상의 특징으로 나누었다. 전자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의 후행 어근은 대부분 명사인 데 비해 중국어 접두사는 형용사, 동사, 구별사도 있다고 하였다. 후자에서는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가 후행 어근의 측면에서 보면 대부분 단일어이지만 '-적(的)', '-화(化)', '-국(國)', '-가(家)' 등과 결합하여 구성된 파생어도 있다고 하였고 중국어 한자 접두사는 후행 어근으로 단일어나 복합어를 취할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통사적 기능은 어기 범주의 변화를 일으키는 한자어 접두사에 주목하였는데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 가운데는 비서술성 어기를 서술성 어기로 변화시키는 서술성 파생 접두사['대(對)-', '친(親)-' 등], 부정 의미가 없는 어기를 부정적인 어기로 변화시키는 부정 파생 접두사['불/부(不)-', '비(非)-' 등], 피동 파생 접두사와 자동사 파생 접두사['피(被)-']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중국어의 접두사는 대다수가 품사를 한정 변화시키는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전형적인 접두사와 마찬가지로 많은 경우 단어를 명사로 변화시키는 문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준접두사들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최려나의 〈한국 색채어 파생 접사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 연구: 한국인과 중국인 색채 인식의 비교를 통하여〉는 인지 언어학적 측면에서 설문 조사를 통해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본적인 색채 인식을 통계적으로 조사한 후 같은 계열의 색채에서 파생 접사의 교체에 따라 사람들의 색채 선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붉다', '누르다', '푸르다', '희다', '검다' 등 5계열의 색채를 연구 범위로 삼아 100명의 한국인과 100명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색채 인식 조사를 진행하였다. 한국어는 다양한 접사가 존재하므로 이를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색채어 계열이 형성되어 있지만 중국어는 접사 파생이 활발하지 못하므로 대신 어기 합성법을 통해

색채어를 형성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색채 인식 비교를 위해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본 색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다음 색채 변화 양상과 중국어 어기 수식어의 대응 관계를 바탕으로 파생 접사 '새/싯-', '시/싯-', '-스름하다', '-죽죽하다'의 기본 의미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한국인이 인식하는 단일 색채어에 대응하는 색채는 중국인이 인식하는 단일 색채어에 대응하는 색채보다 더 옅은 색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인과 중국인의 기본 색채에 대한 직관적 감각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는데 '새/샛-'은 명도와 채도가 높아지고 선명하고 깨끗하다는 기본 의미를, '시/싯-'은 명도가 낮아지고 채도가 높아진다는 의미를 나타내는데 중국어 어기 수식어와는 대응을 이루는 부분이 적다고 하였다. '-스름하다'는 명도가 높아지고 채도가 낮아지며 중국어 어기 수식어를 통해 보면 '옅고 맑다'의 기본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고 '-죽죽하다'는 명도와 채도가 모두 낮아지고 '어둡고 검다'의 기본 의미를 갖는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기본 의미는 색채 계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검다' 계열은 '-죽죽하다'의 결합 형태에서 '거무죽죽하다'만이 명도가 높아지며 명도가 매우 높은 '누르다' 계열은 주로 '채도'의 변화에 의거하고 명도와 채도가 '누르다'와 '푸르다'의 사이에 놓이는 '붉다' 계열은 명도와 채도 변화가 모두 뚜렷하며 채도가 매우 낮은 '푸르다'는 명도의 변화도 거의 없기 때문에 접사의 첨가에 의한 색채 변화가 '누르다' 계열이나 '붉다' 계열에 비해 뚜렷하지 않다고 하였다.

3.1.4. 기타

김빛나의 〈인스턴트 면의 상품명에 대한 형태·어휘적 연구〉는 인스턴트 면 상품명을 구성하는 형태소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그 상품명을 수집한 후 형태소를 유형별로 분석하고 어종별 사용 현황을 살핀 후 시대별 차이에 대해 고찰한 논의이다. 먼저 인스턴트 면 상품명의 형태론적 특징으로는 사용된 형태소의 대부분이 어휘 형태소이며 접사를 비롯한 문법 형태소의 비율이 낮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실질 형태소 가운데는 명사가 대부분이지만 최근에는 명사가

아닌 품사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조어 방식은 대부분 명사 합성어이지만 최근에는 문장이나 절 구조의 통사적 구성 방식이 늘어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어종별 특성은 한자어 형태소가 가장 많다는 점과 최근 고유어 사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또한 다양한 어종이 혼성되어 결합하는 양상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고 보았다.

오금희의 〈한국어 꽃 이름의 형태·의미 분석〉은 한국어의 꽃 이름을 대상으로 형태소 개수, 조어 방식, 어종을 통한 형태 분석과 꽃의 모양, 생태적 특성, 서식지, 규모, 용도, 색깔, 냄새, 맛을 통한 의미 분석을 시도한 논의이다. 먼저 형태 분석을 통해서는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분류하였는데 한국어의 어휘가 접두 파생어보다 접미 파생어가 훨씬 많은데도 꽃 이름에는 접두 파생어만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였다. 또한 소유격 조사 '의'와 보조사 '도'가 들어간 구 형태도 있다고 하였다. 꽃 이름 가운데는 합성어가 가장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종속 관계의 합성어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한편 꽃 이름의 어휘 종류에는 고유어,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형, 한자어 등이 있지만 고유어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꽃의 의미 분석에서는 구성 요소들을 사물, 동물, 인물, 신체 일부, 기타 등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 사물에는 '붓, 고깔, 우산' 등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물을, 동물에는 '범, 여우, 제비' 등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을, 인물에는 '며느리, 처녀, 기생, 각시, 광대' 등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존재들을 많이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신체 일부에는 '노루귀, 범의귀, 개불알꽃'처럼 인간에게 친숙한 동물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였다고 보았다. 생태적 특성의 경우에는 꽃의 생존 양식을 반영한 것이 특징적이라 하였는데 '봄맞이꽃, 부들, 이른범꼬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서식지는 '갯', '두메', '바위', '산', '섬', '양지'와 같이 꽃의 자생지나 '광릉', '변산', '만주'와 같은 고유 지명, '당개지치'의 '당(唐)'과 같은 원산지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규모는 접두사 '말-', '왕-', 관형형 '큰-'과 같이 큰 것을 나타내거나 접두사 '왜-', '좀-', 작은 동물 '개미', '병아리', 작은 의미를 나타내는 '애기', '새끼' 등이 있다고 하였다. 꽃의 용도는

'식용', '약재', '도구·재료'로 나누어서 살펴보았고 색깔은 금색(金色)을 포함한 노란색이 가장 많으며 색깔 요소가 항상 맨 앞에 온다고 하였다. 또 꽃 이름에는 냄새, 맛을 나타내는 구성 요소도 쓰이는데 이는 다른 꽃과의 구별에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전지연의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과 한자 교육 방안 연구〉는 국어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어휘에서 한자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자료는 천재교육에서 출판한 7차 개정 교육 과정 가운데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빈도를 조사하였다. 다음으로는 한자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 설문 조사를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여 전국 23개 대학 2,11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한자 교육의 부침(浮沈)을 교육 과정기별로 정리하고 한자 교육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교별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자 교육 방안을 중학교 학년별로 제안해 보고 수업 지도안을 꾸며 제시하였는데 먼저 중학교 1학년 수업에서는 부수 학습을 이용한 한자의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 계획안, 중학교 2학년 수업에서는 형성자의 제자 원리를 이용한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 계획안, 중학교 3학년 수업에서는 어휘망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수업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3.2. 박사 학위 논문

루 투안 안의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대조 분석 연구 : 한국 한자어의 어휘 교육을 위하여〉는 베트남인 학습자의 한국어 어휘력 확장을 위해 한자어의 공유라는 학습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 한자어에 대한 효율적 인식 방안을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계량적 분석과 사전의 의미 해석을 기준으로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를 음운, 형태, 의미의 측면에서 대조하였다. 먼저 음운론적 대조 부분에서는 한자의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분할하여 한국어의 427개 음절로 표시된 한자를 베트남어 독음으로 전환하고

국제 음성 기호를 붙여 '한-베 한자음 대조표'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5,780개의 한자는 한국어의 독음으로 427개, 베트남어의 독음으로 1,822개가 되었는데 그 가운데 131개의 한자가 베트남어에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 한자음에 대응하는 베트남어의 성모와 운모 목록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고빈도 한국 한자어들을 예로 삼았다. 다음으로 형태론적 대조 부분에서는 한자의 자유로운 결합 가능성과 의미의 실질성에 근거하여 조어력이 높은 한자를 한자어의 구성 성분으로 교육시켜 학습자의 어휘력을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단어 구성에서 앞뒤 자리에 모두 나타나는 한자 형태소만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조 결과를 보면 베트남어에서는 4,137개 한자어를 만드는 1,613개 개별 한자 중 670개의 한자가 앞과 뒤의 구성 성분으로 같이 나타나는 데 비해 한국어에서는 3,758개의 2음절 한자어 가운데 앞뒤 자리에 모두 분포하는 한자는 697개로서 베트남어와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하였다. 논문에서는 이 두 목록 가운데 공통으로 나타나는 453개 한자를 추출해 활용하였는데 이처럼 동일한 구성 성분으로 만들어진 일련의 한자어 집합을 활용한 어휘 학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실제 작업을 통해 검증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끝으로 의미론적 대조 부분에서는 한국어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베트남어의 국어사전을 기준으로 하여 한자어의 의미를 대조 분석하고 1,500만 음절 규모의 베트남어 코퍼스를 이용해 문맥 색인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개별 언어의 사전에 기재된 의미가 대부분 일치하고 그 용법도 서로 같은 경우가 81.86%를 차지하며 갈래뜻으로 보아 일부의 의미 및 용법이 일치하고 그 외 서로 다른 사물이나 개념을 나타내는 경우는 11.61%, 같은 한자 형태소로부터 이루어진 말이지만 해석된 의미, 그리고 다른 말과의 결합 관계에 있는 선택 제약 측면에서 보면 양국 언어에서 일치하는 않는 경우는 6.5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베트남어에 없는 한자어이지만 그 구성 성분인 한자가 베트남어에서 생산성이 있어 구성 성분의 의미로부터 한국 한자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베트남어에 존재하지 않으며 동시에 그 구성 성분인 한자 형태소로부터

도 의미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도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경우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한자어 어휘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박지연의 〈한일어 부사의 조어법 대조 연구〉는 공시적으로 한국어와 일본어 부사의 형태적 구조를 분석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대조의 관점에서 두 언어의 부사의 형태적 특징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부사의 조어 유형을 단순 부사와 복합 부사로 나누어 한일어 간에 보이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조명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으로 삼은 한국어 부사 1,778개 중 단순 부사는 18.95%, 복합 부사는 81.04%인데 일본어 부사는 875개 가운데 단순 부사 25.14%, 복합 부사는 74.85%로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어종으로는 한국어는 고유어 부사가 51.51%이고 일본어는 74.85%, 혼종어 부사는 한국어 38.41%, 일본어 8.91%로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한국어에서 한자어 어기에 고유어 접사가 결합된 혼종어 부사가 일본어에서는 형용 동사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한자어의 비율은 일본어 비율이 16.22%로 한국어 10.06%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단순 부사는 음절 수, 접미사나 조사가 수의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부사, 공통된 어말 음절별 분류, 반복 형식이 가능한 부사 등으로 나누어 대조하였다. 복합 부사는 파생 부사와 합성 부사로 나누었는데 한국어는 파생 부사가 86.95%인 데 비해 일본어는 69.31%로 낮다고 하였다. 또 한국어는 접두사, 접미사, 조사, 어미가 부사를 파생하지만 일본어는 접두사, 접미사, 조사, 조동사, 동사의 연용형이 부사를 파생하여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접미사 파생 부사가 87.23%로 가장 높고 일본어는 조사 파생 부사가 76.87%로 가장 높다고 하였다. 합성 부사는 다른 어기끼리 결합하는 형식인 비반복 합성 부사와 동일한 어기끼리 반복하는 반복 합성 부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두 언어에서 비반복 합성 부사와 반복 합성 부사의 비율은 50% 전후로 비슷하다고 하였다. 또한 합성의 방식을 분류하여 대조하였는데 먼저 비반복 합성 부사는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22개의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한국어 비반복 합성 부사의 조어 구조는 '관형사+명사'의 예가 가장 많지만 일본어 비반복

합성 부사는 '명사+명사'의 예가 가장 많다고 하였다. 반복 합성 부사는 한국어가 10개, 일본어가 9개로 큰 차이가 없는데 한국어는 부사의 반복 구성이 가장 많고 일본어는 명사의 반복 구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 외에 복합 부사를 형성하는 선행 어기, 합성 부사를 형성하는 후행 어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뒤나 앞에 붙는 요소들을 추출하기 위해 한일어 부사 어기의 결합 양상도 제시하였다.

방향옥의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는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라는 제목의 단행본으로 출간된 바 있고 그 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내용에 대한 소개는 이미 제시한 저서 부분의 내용 정리로 대신한다.

안소진의 〈심리 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는 언어 사용자의 실제 한자어 운용이라는 관점에서 심리 어휘부의 한자어 어휘 범주 형성 문제, 한자어 구성 요소의 심리적 지위 문제를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어휘부'를 이론 내적 준거에 의해 설명하는 방식을 버리고 어휘에 대한 심적 표상으로서의 어휘부, 즉 개별 화자의 어휘부로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 언어학적 연구에서 사용되는 방법과 그 결과 확인된 효과들, 그리고 이러한 방법론을 사용한 언어 심리학 연구 및 국어학 연구의 실례를 통해 살펴보려 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어 범주가 국어의 어휘 체계를 구성하는 문법적 범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휘부에서 심리적 실체를 가진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별하는 기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러한 심리적 실체가 유사성에 기반한 범주화라는 일반 인지 능력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그 다음 한자어 구성 요소들이 심리 어휘부에서 인식되는 단위로서 갖는 특징과 그러한 특징을 갖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한자어 구성 요소들이 심리 어휘부에서 인식되는 단위로서 갖는 특징을 '한자 표기 형식 정보와의 관계가 필수적이지 않음', '시현하는 기능의 범위가 제한됨', '한 형태소가 다양한 인지적 지위를 가질 수 있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문법적인 분석 단위로서의 한자어 형태소는 한자 표기 정보와의 관련이 필수적이지만 심리적인 단위로서의 한자어

구성 요소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자 표기 정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국어 화자가 인식하는 한자어 형태소는 '정확히 어떻게 표기되는 한자이며 어떤 자의(字義)를 가진 한자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한자와 대응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의미를 가진 음절 형식'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보았다. 다음으로 심리적 단위로서의 한자어 구성 요소는 문법적 분석 단위로서의 한자어 형태소와 비교해 시현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자어 형태소가 한문에서 통사적 단위였던 흔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보이지만 본래의 통사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발휘하지는 않으므로 화자가 이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한 형태소가 다양한 심리적 지위를 보인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2음절어의 두 번째 음절-3음절어의 접미사적 요소', '2음절어의 첫 번째 음절-3음절어의 접두사적 요소'가 밀접한 관련을 맺는 자료들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이들 자료가 한자어 형태소의 어휘부에 표상되는 정도의 다양성을 보여 줄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어휘 판단 과제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점화 효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현상들의 해석을 위해 고유어 자료에 적용된 바 있는, 형태론적으로 복합적인 단위에 대한 바이비의 어휘부 표상 모델을 한자어 자료에 적용하였는데 이는 해당 모델의 설명 방식이 심리적 단위로서의 한자어 구성 요소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윤영민의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는 현대 한·일어의 파생 접사 전반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의도 아래 주로 접사의 양적 구조와 어종, 어기와의 접속 관계, 생산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한·일어의 접사 항목이 망라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양국의 대표적인 사전을 기초하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자료와 일본 국립국어연구소가 구축한 자료를 원용하였다. 먼저 한·일어 파생 접사의 양적 구조 측면에서 현대 한국어는 접두사 157개, 접미사 286개 총 443개이고 일본어는 접두사 108개, 접미사 336개 총 444개로 그 수가 비슷하다고 하였다. 어종별로는

한국어의 접두사는 고유어계 70개, 한자어계 87개, 접미사는 고유어계 53개, 한자어계 48개라 하였으며 일본어의 경우 접두사는 고유어계 53개, 한자어계 48개, 접미사는 고유어계 106개, 한자어계 224개, 외래어계 3개, 혼종어계 3개라 하였다. 다음으로 파생 접사와 결합하는 어기에 대해 살펴본 결과 한·일어의 접사와 결합하는 한자어계 어기는 2자 구성 단어가 가장 많고 한자어계 어기는 고유어계, 한자어계, 외래어계, 혼종어계 등 접사의 어종에 제약을 받지 않지만 동일한 한자어계 접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파생 접사와 결합하는 어기의 품사는 한국어는 명사, 동사, 부사, 어근, 형용사 등이며 일본어는 명사와 동사, 형용사 어기라고 보았다. 생산성의 경우 한국어 접두사에서는 고유어계인 '맞-'과 한자어계인 '대(大)-' 등이 가장 높다고 하였으며 접미사에서는 고유어계인 '-히'와 한자어계인 '-법(法)'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일본어 접두사에서는 고유어계인 'おお(大)-'의 생산성이 가장 높고 한자어계인 'ふ·ぶ(不)-', 외래어계인 'パン-'이 높다고 하였다. 접미사에서는 고유어계인 '-や(屋·家·舍)'와 한자어계인 '-てき(的)'의 생산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만 코퍼스 자료에 나타난 현대 한·일어 접사의 생산성이 사전 자료와 차이가 있다고 하였는데 특히 한자어계 접사에서 특정 항목들이 파생어를 형성하는 경향이 많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 코퍼스 자료 전체에서 고빈도 어휘군을 형성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부정 접두사, 일부 서술성, 부사성을 가지고 임시어 형성에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난 접두사, 접미사에서 보인다고 하였다. 이 외에 현대 한·일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생산성이 높은 접사 가운데 '무(無)-, 부·불(不)-, 비(非)-'의 접두사와 '-성(性), -적(的), -화(化)'의 접미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서로 비교함으로써 세부적인 기능과 단어 형성에서의 역할을 살펴보았다.

전락의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복어 대조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복어의 형태, 의미적 특징을 대조하여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규칙화함으로써 양국 언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상의 편리와 이론적 지원을 제공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반복어를 '어떤 말이 형태

의 변동 없이 반복되거나 일부가 바뀌어 반복되는 언어 형식'으로 정의하고 사용 빈도가 2 이상인 한국어 반복어 1,590개, 중국어 반복어 1,888개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반복어의 분류 유형은 반복된 말의 언어 단위에 따라 '어근 반복'과 '비어근 반복'으로 나누었으며 반복 형식에 따라서는 '동형 반복'과 '유사 반복'에 따라 하위 부류를 설정하였다. 어근 반복은 다시 체언 어근의 반복, 용언 어근의 반복, 부사 어근의 반복으로 나누었다. 체언 어근의 반복은 양 언어에서 동형 반복이 양적으로 제일 많고 반복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어근은 주로 시간이나 공간을 의미하는 명사나 분류사의 기능을 하는 명사들이라고 하였다. 용언 어근의 반복은 동형 반복과 유사 반복으로 나누었는데, 한국어에서의 용언 어근의 반복은 반복형 상징 부사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수단이고, 중국어에서의 용언 어근의 반복은 형용사와 동사로 더 나누었는데 형용사는 의태어의 한 부류에 해당되는 반면 동사는 상징어와 상관이 없고 통사적 차원에서의 반복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부사 어근의 반복에서는 양 언어 모두 동형 반복, 유사 반복으로 나누었는데 동형 반복은 모두 일반 부사 어근, 상징어 부사 어근에 의한 반복어들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양 언어의 유사 반복은 탈락 반복만 있다고 하였다. 비어근 반복의 경우 한국어는 문법 형태의 반복, 음절의 반복, 어원적 어근이 불명확한 기타 반복어로 나뉘는 데 비해 중국어는 이러한 유형이 드물다고 하였다. 다음으로는 반복어의 의미적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먼저 단위에 따른 분류는, 체언의 반복은 [복수], 용언의 반복은 [반복], [확대], [강조], 부사의 반복은 [반복], [강조], 비어근 반복은 [반복]이나 [확대]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반복 유형에 따라서는 [동질성], [다양성], [대조성], [단발적 연속], [축소]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들 각 경우들을 다시 세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반복어가 가지는 의미 특성의 공통성과 차이점을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가령 체언 반복 가운데 동형 반복의 경우 두 언어 모두 [복수], [동질성]을 나타낸다는 점은 같지만 유사 반복의 경우 [복수], [다양성]의 의미 자질을 가져 한국어에서는 선행 형태와 후행 형태의 음운 교체를 통해 비슷한 두 상황이 함께 일어나는데 중

국어에서는 유사 반복을 통해 사물의 다양함을 나타내거나 공간의 [축소]를 나타내기도 하여 서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4. 일반 논문

4.1. 형태소

송원용의 "한자계 어근 분류 방식의 심리적 실재성"은 국어의 한자계 어근을 비활성 어근, 약활성 어근, 강활성 어근으로 분류하는 형태론적 논의가 인지적 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는지를 어휘 판단 과제라는 심리 언어학적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 논의이다.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 결과는, 비활성 어근 '활-', '-혁'에 대한 반응 시간은 각각 '활동', '개혁'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길었고, 약활성 어근 '가-'에 대한 반응 시간은 '가건물'에 대한 반응 시간과 차이가 없지만, '-인'에 대한 반응 시간은 '한국인'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길었다고 하였다. 한편 강활성 어근은 '가전-'에 대한 반응 시간은 '가전 업체'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짧았지만, '국제-'와 '대북-'에 대한 반응 시간은 각각 '국제 사회',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 시간과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에서 수행된 어휘부학적 해석의 결과는, 비활성 어근은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는 반면 약활성 어근은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는 부류와 그렇지 않은 부류로 나뉜다고 보았다. 한편 강활성 어근은 모두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며 제한적 자립성을 획득하면 통사적 구성에 참여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론은 국어의 한자계 어근을 비활성 어근, 약활성 어근, 강활성 어근으로 나누는 분류 체계가 부분적으로 심리학적 실험 결과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송원용의 또 다른 논문인 "불규칙적 고유어 어근의 심리적 실재성"은 심리학적 실험을 통해 '착-', '아름-'과 같은 불규칙적 고유어 단순 어근, '바람직-', '달콤-'과 같은 불규칙적 고유어 복합 어근의

실리적 실재성을 점검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불규칙적 고유어 단순 어근에 대한 반응 시간은 대응 복합어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느리지 않다', '불규칙적 고유어 복합 어근에 대한 반응 시간은 대응 복합어에 대한 반응 시간보다 느리지 않다'는 작업 가설을 세우고 어휘 판단 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불규칙적 단순 어근 가운데 '훌륭-, 알뜰-, 보슬-'은 대응 복합어와 마찬가지로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착-, 아름-, 오솔-'은 대응 복합어와 달리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는 어근 일반이 가지는 의미론적 독자성과 각 어근이 국어 어휘 체계 안에서 보이는 유형 빈도와 관련이 깊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불규칙적 복합 어근인 '바람직-, 달콤-, 달짝지근-, 푸르스름-, 푸르스레-, 푸르무레-'는 모두 어휘부에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다. 다만 이 경우 대응 복합 형식 가운데 '달짝지근하다,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레하다, 푸르무레하다'는 독자적 어휘 표상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복합 어근이 가지는 부사적 속성으로 인해 대응 복합 형식을 일종의 통사적 구 구성으로서 인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송창선의 "국어 형태소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는 형태소와 관련되는 세 가지 쟁점에 관해 견해를 밝힌 논의이다. 먼저 형태소가 결합할 때 나타나는 음운 현상은 음운론의 소관 사항이므로 이는 형태소에 대한 논의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즉,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의 이형태는 /-았-, -었-, -였-/에 국한되며 이들 이형태가 환경에 따라 발음되는 [았], [알], [안], [었], [얻], [언], [였], [옏], [연]은 음성 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행 학교 문법에서는 '-거라'를 규칙 활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아라/어라'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이형태 관계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끝으로 형태소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에서'와 '-던'을 관심 대상으로 삼았는데 '에서'의 '서'는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던'의 '-더'는 '-더-'가 단독으로 쓰일 때와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회상'이나 '보고'의 의미가 담겨 있으며, '-던'의 '-ㄴ'이 관형사

형 어미와 차이가 없는 한 이를 '-더-'와 '-ㄴ'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양영희의 "여성 지칭 접미사 '-네'와 '-댁'의 형성 과정과 기능 변천 고찰"은 전남 방언권을 중심으로 여성을 지칭하는 데 관여했던 '-네'와 '-댁'의 기능 변천 양상과 그 원인을 밝히려는 논의이다. 먼저 '-네'는 15세기에 '-내'의 형식으로 존칭형 복수 접미사로 출발하여 17~8세기를 거치면서 비존칭형 복수 접미사로 기능 전환을 시도하다가 19세기에 들어 자식의 이름 뒤에 붙어 존대하지 않아도 되는 여성을 지칭하는 단수 접미사로 바뀌었고 21세기에 들어서 비칭의 개념이 소멸된 '어떤 특정 무리'를 뜻하는 접미사로 굳어진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댁'은 16세기에 '-쩍'의 형식으로 [집]의 존칭형 명사로 출발하여 17~8세기에 존칭형 여성 지칭 접미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1세기에 들어 역시 존칭의 개념은 소멸되고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시집온 여자'를 뜻하는 접미사가 된 것으로 보았다. '-네'의 기능 변화 과정에서 특히 주목한 것은 19세기였는데 19세기 격변기의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명칭 생성의 필요성'과 "'-네' 기능의 재정립 결과'를 변화 요인으로 보았다. 즉, 종전에 평민이나 종의 신분에 해당하는 여성을 지칭하는 새로운 방식의 필요성에 따라 비존칭 복수형으로 기능하던 '-네'를 이용한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반해 '-댁'은 17세기 이래로 반가의 여성을 지칭하던 접미사로서 19세기에도 그 기능에 변함이 없었다고 하였다.

전후민의 ""-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느-'의 이형태 교체를 중심으로"는 '분포'와 '의미'라는 형태소 존재의 기준으로 미루어 볼 때 '-느-'는 이형태들이 배타적 분포를 보이고 현재 시제라는 의미를 가지므로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한 논의이다. 다만 '-는데', '-는지' 등에 나타나는 '-느-'는 '-었-'과도 결합할 수 있고 '-었-'이 결합하면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적인 형태소가 아니라 '-느-'의 화석이며 '-습니다', '-나이다'의 '-니-', '-나-'도 '-었-'과 결합할 수 있고 형용사와도 결합할 수 있으므로 역시 공시적인 형태소가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종결 어미라고 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느-'의 이형태는 '-느-', '-는-', '-ㄴ-',

‘-Ø-’가 있는데 이들 중 기본형은 ‘-느-’로 간주하였다. 한편 ‘-느-’는 ‘-냐’ 앞에서 ‘-Ø-’와, ‘-니’와 ‘-니라’ 앞에서 ‘-나-’와 자유 변이 관계를 보이는데 이들은 비록 배타적 분포를 보이지는 않지만 의미 차이가 거의 없고 그 관계는 임시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형태 관계로 보는 데에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였다.

정혜의 “한국어 복수 표지 ‘들’에 대하여”는 ‘들’에 의한 복수 개념의 표시와 그 의미 기능을 살펴보려는 논의이다. 먼저 ‘들’은 복수 개념을 표현할 때 유표형(‘아이들이 논다’)과 무표형(‘유학생이 많다’)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무표형은 화자가 대상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단수 의미로도 복수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술어가 집단적 서술어인 경우에는 복수 표지 ‘들’이 없는 무표형이라도 복수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들’의 의미 기능은 복수성과 개체성이라고 보았다. 먼저 목적어 위치에 ‘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문맥에 따라 직접적 복수 해석과 간접적 복수 해석이 가능한데 후자는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경우라 하였다. 아울러 목적어 위치 이외에 나타난 ‘들’은 모두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개체성은 복수 대명사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것도 일반적인 명사와 같이 복수 표지 ‘들’에 의해 개체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앞의 명사가 특정한 지시를 나타낼 때 복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복수 표지 ‘들’이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조지연의 “접두사 [강-] 의미 파생에 대하여”는 한자어 접두사 ‘강(强)-’과 고유어 접두사 ‘강-’의 의미와 파생 양상을 살펴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강-]의 접두사로서의 지위를 확인하고 이들이 결합한 어휘를 대상으로 그 의미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한자어 접두사 ‘강(强)-’은 한자의 접두사화를 통해 설명할 수 있고 고유어 접두사 ‘강-’은 한자어 ‘강(强)’의 고유어화를 거쳐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고유어 접두사 ‘강-’이 가지는 ‘까닭 없는, 억지스러운’, ‘오직 그것으로만 된, 한 가지 재료로만 이루어진’, ‘물기가 적은, 된, 물기가 없어 바싹 마른’ 등의 의미는 ‘강하다’, ‘물리적인 힘이 세다’, ‘수준이나 정도가 높다’로부터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실제 언중들은 [깡-]을 고유

어 접두사 '강-'이 가진 의미 가운데 '오직 그것으로만 된, 한 가지 재료로만 이루어진'과 같은 의미 외에도 '강한, 매우, 심한'의 의미로도 쓰고 있다고 하였다.

최형용의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에 대하여"는 한국어의 교착어적 속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 보기 위해 그린버그의 계량론적 방법론을 한국어에 적용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음운론적 단위인 어절을 단어로 간주하여 단어당 형태소 수라는 통합성 지수를 포함한 형태론적 현저성을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하면 한국어는 그린버그가 교착어의 예로 제시한 야쿠트어(통합성 지수: 2.17), 스와힐리어(통합성 지수: 2.55)보다 형태론적 현저성이 더 높은 '통합적 언어'[통합성 지수: 2.73(9개 예문 평균)]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 현저성은 고유어 및 외래어 대 한자어라는 어종(語種)이 문체적 변수가 된다고 보았다. 통합성 지수 외에 합성 지수, 파생 지수, 교착 지수를 통해서는 한자가 어근으로 분석되어 이를 반영한 합성 지수에서 특히 그린버그가 제시한 교착어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중세 한국어는 남아 있는 자료의 성격상 현대 한국어와 특별히 차이가 나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다.

한기선의 "음운론과 형태론에서의 가장자리 비대칭"은 어떤 제약도 오른쪽 가장자리를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가장자리 비대칭 가설(Edge Asymmetry Hypothesis)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논의이다. 요루바(Yoruba)어처럼 접두사만 있는 언어들, 푸탄코레 풀라르(Futankoore Pulaar)어처럼 접미사가 부착되며 접사가 통제하는 모음 조화를 보이는 언어들, 불어나 터키어처럼 단어의 마지막 음절에 강세가 오는 언어들, 단어의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음절 말음 조건에 대한 예외가 발견되는 언어들은 모두 오른쪽 가장자리에 대한 언급이 명백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가장자리 비대칭 가설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4.2. 파생어

김명광의 “총칭적 객관화 원리와 조건에 대한 재고찰”은 같은 저자가 이전 논의에서 제시한 총칭적 객관화 원리와 그 하위 조건들을 수정 보완하려는 논의이다. 총칭적 객관화 원리란 통사부 단위가 공시적으로 어휘부 입력형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특칭적 사건과 관련이 있는 외연적 의미가 도출되는 것을 저지하면서 그 형식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내포적 의미만을 발현시키는 일련의 과정 및 하위 규칙들이다. 그런데 이전 논의에서는 이를 ‘-음’, ‘-기’에만 한정하여 논의하였으나 이 원리는 개별 형식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포괄성을 띠고 어휘 삽입 단계 이전에 발현되어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파생어, 합성어, 단일어 등에 모두 적용되는 상위적 개념이라고 보았다. 이와 함께 원리와 조건을 기술하는 가운데 필요한 ‘저지’(인식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제어 현상) 개념은 무인식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휘 삽입 단계에서 요구하는 문법 형식과 기존어 또는 임시어가 가지고 있는 문법 형식이 불합치할 경우 적극적인 인식을 화자가 갖게 된다고 보았다. 또한 ‘-음’, ‘-기’ 이외에도 총칭적 객관화 원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그 조건도 수정·확대하여 문말 앞 형태소 출현 제약이 접사 ‘-음’, ‘-기’ 이외에 적용될 경우 특칭성을 가지고 있는 종결 형태소도 제약되지만 사건의 사태에만 관여하는 연결 어미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김민국의 “파생 접사의 사용 양상과 생산성: 문어 사용역 간의 빈도 비교를 중심으로”는 소설, 신문, 학술 산문 문어를 중심으로 모두 89개 파생 접사의 사용 양상을 살펴보려는 논의이다. 이를 통해 ‘격식성’, ‘정보 전달성’, ‘학술성’에 따라 파생 접사의 사용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였다. 즉, ‘격식성’과 ‘정보 전달성’의 차이에 따라 고유어 접사와 한자어 접사의 사용 양상이 차이가 나고 일부 접사는 ‘학술성’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정보 전달’이라는 목적의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밀집성’과 ‘전달되는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접사의 사용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고 보았다. 또한 본 논의에서는 일부 파생 접사를 대상으로 이들 사용역별

요인이 생산성의 차이와 연관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파생 접사의 생산성은 그 접사의 사용 양상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생산성이 접사가 가진 내재적 속성이라는 가설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해석하였다.

이영제의 "수 분류사 구성과 파생 접사 결합형의 구조와 기능"은 국어의 수 분류사 구성과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접사 결합 구성이 통사적 단위를 이루는지 아니면 어휘적 단위를 이루는지에 대해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수량 구성에서 공범주의 설정이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삼아 공범주 설정이 가능한 구성('롯데백화점$_i$, 중동점 등 [[e$_i$ [3개]$_{N'}$]$_{NP}$점$_i$] 동시 오픈!')을 통사적 파생어로, 불가능한 구성('[[*생산 연도 30년]産]')을 형태론적 파생어로 구분하였다. 이는 접사를 태생적으로 통사적 접사나 어휘적 접사로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결합형의 의미에 따라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년생', '-년산', '-인승', '-인분', '-회용', '-원권' 등의 수 분류사 구성과 접사 결합형의 형태론적 구성 역시 결합 제약이나 생산성의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통사적 구성으로서의 특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정도성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보았다.

최상진의 "파생 접사 '-이'의 의미 성분 분석"은 실체 명사를 파생시키는 접사 '-이'의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고 그 의미 영역과 의미 자질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를 고찰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우선 '절름발이', '젖먹이', '멍멍이', '먹이', '목걸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파생 접사 '-이'는 동사 어간에 접미되어 [+유정성]을 지닌 인물, 동물 또는 [-유정성]을 지닌 사물 등의 의미가 첨가되어 특정한 개체를 지닌 실질 명사를 파생시킨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는 어기 혹은 문장의 의미 구성 요소로서의 결합 양상에 따라 다양한 의미 영역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의미는 1차적으로는 어기와 접사의 상보적인 의미적 공기 관계로 이루어지고 파생어가 문장의 구성 요소로 참여하면 2차적으로 문장 구성 요소와의 상호 간 유기체적 자기 조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였다. 끝으로 파생 접사 '-이'의 의미 자질은 내포적 의미 자질과 외연적 의미 자질로 나

누어 살펴보았는데, 내포적 의미 자질은 의미 영역을 고려하여 분석될 수 있으며 외연적 의미 자질은 파생어가 문장 속 구성 요소로 쓰이고 있을 때 분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4.3. 합성어

김유범의 “통사성과 합성어의 유형 변화”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를 나누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 통사성을 기준으로 삼아 품사를 중심으로 한 문법 범주의 차원뿐만 아니라 개별 형태소의 차원에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본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통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므로 주어진 합성어에 대한 통사성의 판단은 판단 당시의 공시적인 통사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비통사적 합성어란 해당 합성어에 참여한 형태소가 통사성 판단 당시의 공시태에서는 보이지 않는 통사 양상을 보여 주는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확대하면 공시적 통사 구성을 기준으로 주어진 합성어의 통사성을 판단하는 것은 동일한 합성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사이시옷 구성을 들었는데 사이시옷은 예전에는 통사 요소였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단어 내부 요소이므로 통사적 합성어 여부 판단이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개별적인 경우에 따라 단어 형성 참여 여부도 달리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김정남의 “AABB형 반복 합성어에 대하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117개의 AABB형 단어들의 구조와 형성 과정에 대해 고찰한 논의이다. 117개 가운데 한자어 계열이 102개이고 고유어 계열은 15개로 한자어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기존의 논의에서는 이들을 AB의 반복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간주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고 하였다. 실제로 『표준국어대사전』을 분석한 결과 AB가 존재하는 것은 한자어 계열에서 61개가 발견되어 그 수치가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단어들에서 AB와 AABB 사이의 의미적 연관성을 살펴본 결과 AABB가 온전히 AB의 반복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은 ‘간간악

악(侃侃諤諤)', '노노역역(勞勞役役)', '주주야야(晝晝夜夜)'의 세 개뿐이라고 하였다. 또한 AB가 존재하는 AABB형 반복 합성어 가운데 90% 가까운 수치에서 AA나 BB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ABB형 반복 합성어는 ABAB형 반복 합성어와 마찬가지로 AA와 BB의 병렬 합성이 주된 형성 기제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박소영의 "한국어 통합 합성어의 통사 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은 합성어의 제2 요소가 동사에서 파생된 요소이지만 전성 명사로서의 자격을 가지지 못하는 통합 합성어의 형성 원리를 분산(distributed) 형태론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논의이다. 먼저 통합 합성어는 통사적 구성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는데 통합 합성어는 통사적 구성의 명사형 구조와 부사어에 의한 수식 여부, 동사 선행 성분의 지시성 여부, 문법적인 사건 자질의 유무, 의미의 합성성 원리 준수 여부 등에서 명백한 대조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해 통합 합성어는 기능 범주가 어근 구에 결합하는 반면 통사적 구성은 명사화 기능 범주가 vP에 결합하는 것으로 보았다. 즉, 통합 합성어와 통사적 구성의 명사형 구조와의 대조적인 통사·의미론적 자질은 바로 이러한 통사 투사 방식의 상이성에 기인한다고 해석하였다.

김혜미의 "국어 통합 합성어 형성 원리 연구: 신어 분석을 기반으로"는 통합 합성어의 형성 원리를 분산(distributed) 형태론에 의거하여 설명하려는 박소영의 「한국어 통합 합성어의 통사 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의 논지를 받아들여 신어에도 적용하려는 논의이다. 분산 형태론에서는 단어가 형성되는 어휘부의 존재를 부정하고 문법 전반에 '분산되어' 단어가 형성된다고 본다. 이에 의하면 통합 합성어는 대응하는 통사적 구와는 달리 선행 명사 성분과 후행 동사 어근이 기능 범주 투사 이전에 결합하여 하나의 어근 구를 형성한다고 본다. 2001년 이후에 형성된 통합 합성어에는 기존의 통합 합성어와는 달리 '새판짜기', '눈길장보기'의 '새판'과 '눈길'처럼 핵명사보다 큰 최대 투사를 이루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기능 범주 투사 이전에 어근 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역시 분산 형

태론의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두위의 "한국어 한자어 합성어와 중국어 이합사의 대조 연구"는 한국어 한자어 합성어와 중국어의 이합사를 형태, 품사, 용법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시켜 대조하려는 논의이다. 중국어 이합사는 '어간+어간', '어간+비자립 어간/비자립 어간+어간', '비자립 어간+비자립 어간'의 네 가지 구성 형식이 있다고 하였다. 품사의 측면에서는 'N+N, V+N, A+N, N+V, V+V, A+V, Ad+V, N+A, A+A, Ad+A, V+A, V+Ad, A+Ad, Ad+Ad'의 14가지가 있는데 중국어 합성어에는 이 14가지가 모두 존재하지만 한국어 한자 합성어에는 이 가운데 'V+A, V+Ad, A+Ad, Ad+Ad'의 4가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중국어 이합사에는 'V+N, V+V, V+A'의 3가지만 존재한다고 하였다. 용법에서는 '동형 동의', '동형 이의', '이형 동의'의 3가지로 나누어 대조하였는데 '동형 이의'는 'AB≠AB(동형 완전 이의), AB～AB(동형 부분 이의), AB〉AB(동형 축소된 이의), AB〈AB(동형 확장된 이의)'의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이형 동의'는 'AB+AC, AB=CA, AB=CB, AB=BC, AB=BA, AB=CD'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박주원의 "술목 구조 VN형 한자어의 논항 실현에 대하여: 'VN-하다'의 목적어 출현을 중심으로"는 의미상 술목 관계를 가지는 VN형 한자어들이 자동사적 용법만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목적어를 취하여 타동사적으로 쓰이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들을 살펴보려 한 논의이다.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한자어의 구성 요소 N과 동일한 요소가 다시 출현하는 경우('옷을 탈의하다')와 구성 요소 N과 관련된 내용이 출현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후자는 다시 N이 그림자 논항으로서 그 논항의 하위 유형이 목적어의 내용이 되는 경우('바지를 탈의하다')와 목적어-구성 요소 N이 일정한 의미 관계를 맺는 경우로 더 세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뒤의 경우는 소유자-피소유물('도망병을 참수하다'), 처소-대상('젖병을 살균하다') 등이 그 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VN형 한자어가 다시 목적어 논항을 가지는 것은 구성 요소 N이 지시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 정보를 추가하는 목적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하

였다. 또한 VN 전체가 나타내는 사건의 성립을 위한 경우에는 목적어 출현이 필수적이라고 파악하였다.

오민석의 "문장형 단어 형성 요소의 형성과 특성: 용언 어간과 종결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는 '떴다방', '묻지마투기', '신기료장수', '카더라통신' 등 용언의 종결형이 관여하는 합성 명사에 주목하여 이를 유형화하려는 논의이다. 이들 단어에서 보이는 용언의 종결형은 온전한 문장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불완전 형식문'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온전한 문장으로의 복원 과정에서 단어 내적으로, 외적으로 관계 맺는 명사를 고려하면서 합성 명사 구성 요소, 즉 단어 형성 요소화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단어 내적 정보를 이용하여 복원할 수 있는 것을 '생략문Ⅰ'('떴다방', '묻지마투기')로 보았으며 단어 외적 정보를 이용하여야 복원할 수 있는 것을 '생략문Ⅱ'('신기료장수', '카더라통신')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후행 명사와의 관계가 비명시적이라는 점에서 관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들 단어들에서의 종결형들은 의미의 추상화 과정을 거치면서 해당 성분이 관계하는 합성 명사의 집합도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의 합성 명사 형성이 일회적이고 단발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이민우의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 연구"는 먼저 기존에 '명사+명사' 합성어를 대등, 종속, 융합 등으로 나누었던 논의가, 대등과 종속은 통사론적 기준의 적용에 의해, 융합은 의미론적 기준의 적용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그 기준이 일관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합성어의 구성 요소가 보이는 의미 관계를 동일 범주에 속하는 요소들 사이의 직접적인 관계인 범주 내적 관계와, 서로 다른 범주들 간의 간접적인 관계인 범주 외적 관계로 크게 나누었다. 전자는 동의(분가루, 걱정근심), 대립(남녀, 바지저고리), 부분·전체(사과나무, 기와집) 등의 계열 관계를 구성하고 후자는 가령 '봄비'가 '봄바람, 봄꽃, 봄기운' 등 '봄'이라는 특정한 상황과 관련되는 것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이현근의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대응 합성어의 개념화"는 영어

명사 합성어와 그에 상응하는 한국어 명사 합성어를 비교하여 개념화되는 양상을 고찰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영어 명사 합성어가 한국어 명사 합성어로 되면서 발음이 그대로 차용된 외래어 수준의 합성어('word processor-워드프로세서'), 다른 발음이지만 개념은 유사한 합성어('stem cell-줄기 세포'), 하나의 개념이 달라진 합성어('wisdom teeth-사랑니'), 그리고 둘 이상의 개념이 달라진 합성어('foxtail-강아지풀')로 세분하였다. 이를 통해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합성어가 동일한 현상을 개념화할 때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는데 이는 인지 언어학에서 주장하는 현저성의 원리 혹은 동일시의 원리와 연관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대체로 영어의 문법 형태소는 한국어의 합성어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는 형태에 따라 개념화가 제약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조민정·손혜옥의 "합성 명사 형성 및 개념 확장 방식에 대한 논의: 'N사냥'류를 중심으로"는 'N사냥' 형태의 구 구성이 합성어가 되는 방식과 그러한 방식이 변화됨에 따라 이루어진 개념의 변화 등을 기술하려는 논의이다. 논의를 통해 'N사냥' 구성이 통사적 구 구성과 합성 명사로 달리 처리되는 이유로, 대응되는 통사적 구성의 유무, 생산성, 제3의 의미 파생을 들었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도구 명사+사냥' 구성은 합성어로, '대상 명사+사냥' 구성은 구 구성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상 명사+사냥' 구성이더라도 비유적 의미를 획득할 경우 합성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이전에는 도구를 나타내는 명사와 '사냥'이 결합하여 합성 명사를 형성하였지만 최근에는 '사람, 기업, 메달'과 같은 구체 명사뿐만 아니라 '정보, 득점, 인터넷' 등 추상적인 대상이 '사냥'과 결합하여 다양하게 합성 명사를 형성한다고 하였다.

최규수의 "'X하다'와 'X를 하다'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문제들"은 'X하다'('공부하다')와 'X를 하다'('공부를 하다')에서 'X', '하다', 'X하다'의 형태 및 통사 범주와 문장들의 통사 구조를 밝히려는 논문이다. 먼저 'X하다'에서 어기인 'X'는 어근[(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형태소]인 경우도 있고 어간[(굴절 접사와 결합하여) 어절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 형식]인 경우

도 있으며 어절('좋아하다'의 '좋아')인 경우도 있다고 보았다. 이들에서 '하-'는 의존 형식인 접사와는 달리 어느 정도 자립성이 있다고 보아 어근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X하다'를 합성어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Y를 X를 하다'('영어를 공부를 하다')에서 'X'의 통사 범주는 보통 명사이지만 명사구와 유사한 특징을 띠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때의 'Y'는 용언구 'X를 하다'의 논항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4.4. 조사와 어미

고석주의 "조사 '에'의 의미 재고"는 조사 '에'가 격 조사가 아니라 후치사임을 주장한 논의이다. 즉, 조사 '에'를 격 표지나 격 할당자로 보게 되면 국어 명사의 형태적 실현, 명사 논항의 조사 교체와 생략 등의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조사 '에'가 결합한 명사항의 다양한 의미역을 바탕으로 할 때 그 의미는 [명사의 의미+'에'의 의미+서술어의 의미]에 의한 합성적인 것으로 파악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조사 '에'는 인지 언어학의 '전경-배경' 개념 틀에 따라 그것이 결합한 명사항이 문장으로 표현된 사태에서 '배경'임을 나타내는 '후치사'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송재목(Song Jaemok)의 "Verbal Inflections in Korean and Mongolian : A Contrastive Analysis"는 한국어와 몽고어의 동사 굴절을 대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 언어의 접미사의 형태론적, 의미론적, 통사론적 속성들을 조사하였다. 한국어의 굴절 접미사는 동사 형식을 완성하느냐 여부에 따라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지만 몽고어의 접미사는 모두 동사 형식을 완성하는 경우만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 시제를 표시하는 비종결 접미사들('선어말 어미')은 몽고어에서는 직설법 접미사가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 둘 사이의 통사적 행태는 구별된다고 하였다. 즉, 한국어는 문장을 끝맺을 수 없으므로 문장 종결 접미사('어말 어미')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신 명령형 접미사와 연결형 접미사는 대체로 의미론적, 통사론적 기능이 흡사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몽고어의 동사적 명사 접미사들은 한국어의 명사 수식 접미사('-은', '-던', '-는',

‘-을’) 혹은 명사화 접미사들과 비교될 수 있다고 하였다. 몽고어의 동사적 명사 접미사들은 상적이거나 양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한국어의 명사 수식 접미사와 비슷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한국어와는 달리 통사론에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데, 하나의 접미사가 수식절이나 명사절을 형성할 수 있으며 또 그 자체로 문장을 끝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숙의 “서술 종결형 어미 ‘-단다’의 형성과 의미 기능 분석”은 간접 인용의 ‘-다고 한다’로 환원되지 않는 ‘-단다’의 형성 과정과 분포적 특성 그리고 그 의미 기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는 논의이다. 먼저 ‘-단다’는 16세기경 인용 동사 ‘ᄒᆞ-’가 인용 서술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문법화의 길을 걷게 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단다’가 보이는 분포적 특성은 인용 구문이 가지는 화용상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단다’는 청자가 상정된 담화 환경에 나타나고 화자의 인지 영역 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건이나 상태를 전달하는 경우에 쓰인다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인용 구문에서 화자가 표현하는 심리적 거리감이 문법화된 ‘-단다’에도 지속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단다’가 청자의 소극적 체면을 유지해 주는 화용 기능을 갖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즉, 화자가 자신의 인지 영역 내에 있는 정보를 전달할 때 청자가 관심 밖의 내용에 대해 자유롭고자 하는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지 않도록 전달 정보에 대해 거리감을 표현하기 위해 ‘-단다’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조나야의 “한국어 격 조사의 언어 유형적 재분류: 러시아어 ‘격 어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교착어인 한국어의 격 조사와 굴절어인 러시아어의 ‘격 어미’를 비교하여 두 언어의 격 표지를 언어 유형론적으로 한데 묶을 수 있는 가능성을 살핀 논의이다. 두 언어는 모두 격 표지를 사용하는 언어이며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주어가 같은 격 표지를 취하고 타동사의 목적어가 다른 격 표지를 취하는 대격 언어에 속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몇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우선 러시아어에는 한국어에 없는 성이 존재하여 격 표지에 차이가 있고 러시아어에서는 예외적 격 표지 현상이 나타나지만 한국어에서는 이를 찾아볼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어의

격 조사는 생략이 가능하고 이중 주어 구문과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하나의 격 표지가 문장 내에서 중복하여 나타날 수 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중복하여 출현하는 경우가 없다고 하였다. 이상의 사실을 참고할 때 두 언어의 '격 조사'와 '격 어미'는 동일한 범주에서 다룰 수 없다고 보았다.

조민하의 "'-는데'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은 연결 어미 '-는데'가 가지는 종결 기능을 확인하고 자유 발화 자료를 대상으로 이의 억양을 분석한 논문이다. 분석을 위해 서울 방언 여성 화자 20명의 발화 자료에서 추출된 179개를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는데'가 종결 기능을 하는 경우는 억양에 의해 변별되고 맥락적 기능에 의해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한국어 운율 기술 규약(K-ToBI)에 따르면 저조(L%), 고조(H%), 저고조(LH%), 고저조(HL%), 저고저조(LHL%)에 의해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에서 다양하게 화자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는데'가 종결의 기능을 갖는 것은 이 어미가 주관적이고 포괄적인 의미 특성과 독립성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의도의 완결성이 억양에 의해 표현된 경우를 연결 어미로, 문법 기능과 의미가 달라진 경우를 종결 어미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였다.

황국정의 "『淸學四書』에 나타난 만주어의 격 체계 연구: 근대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는 만주어 역학서인 『팔세아(八歲兒)』, 『소아론(小兒論)』, 『청어노걸대(淸語老乞大)』, 『삼역총해(三譯總解)』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만주어의 격 체계를 비교하려는 논의이다. 논의 결과 만주어와 한국어는 주어적 속격 구문이 가능하며 대격과 속격의 생략이 가능하고 주격 중출문과 대격 중출문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격이 대상역 외에도 방향역을, 처격이 방향역 이외에도 도구, 대상, 원인 등의 의미역을, 그리고 도구격이 도구, 방향의 의미역을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만주어에서는 주격 조사가 영 형태로 실현되고 처격 조사와 도구격 조사의 생략이 가능한데 이는 근대 한국어와의 차이점이라고 하였다.

4.5. 품사

목정수의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은 일반적인 형용사를 '동사성 형용사'로,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 부류('새', '여러', '유명', '국제')를 '명사성 형용사'로 보아야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논의가 유형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본 논의이다. 이러한 전제에 기반하여 기존에 명사나 관형사로 간주하던 'X的'을 명사성 형용사에 편입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유명'이 '유명 대학/그 사람은 유명하다/유명한 작가를 만나다'와 같은 용법을 보이는 것처럼 '경제적'도 '경제적 활동/디젤이 더 경제적이다/경제적인 효과가 크다'에서 평행한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때 서술적 용법을 보이게 하는 '유명하다'의 '하다'와 '경제적이다'의 '이다'는 같은 기능을 하지만 분포가 상보적인 변이 형태로 볼 수 있고 '경제적으로'에서 보이는 '으로'는 '조용히', '깊숙이'에서 보이는 '히/이'와 같이 형용사 '경제적'을 부사로 파생시키는 파생 접사로서 서로 변이 형태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안종기·송경안의 "한국어-영어 품사의 유형론적 비교 연구"는 한국어와 영어의 품사를 유형론적 관점에서 비교하고자 한 논의이다. 먼저 동사와 형용사는 둘 사이의 구별이 없는 언어들도 적지 않고 한국어에서도 둘 사이의 공통점이 더 많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접속사의 경우 한국어는 등위 접속과 종속 접속에서 조사나 어미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사는 이미 품사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미는 단어로 취급되지 않으므로 접속사를 따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한편 영어의 전치사에 비해 한국어의 조사는 '격 기능', '전치사 기능', '접속사 기능', '부사적 기능'을 하고 또 여러 개가 겹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적지 않다고 하였다. 그 밖에 대명사 체계에서도 한국어와 영어는 차이가 많다고 하였다. 또한 영어는 관사가 발달하였지만 한국어는 그렇지 않고 조동사의 경우, 영어의 양상 조동사는 유형론적으로 볼 때 특수 어류이며 이와는 달리 한국어의 조동사들은 특별한 형태·통사적 특징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계사는 언

어 보편적인 범주이지만 언어에 따라 그 쓰임은 약간씩 차이가 있다고 보았고 한국어에는 의성·의태어, 분류사 등이 특히 발달해 있다고 하였다.

이금희의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에 대하여"는 현대 국어 부사 목록 가운데 파생이나 단순 복합이 아닌 것 가운데 통사적인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를 유형화하려는 논의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부사들을 검토하여 목록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을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다가 하나의 부사로 어휘화한 것, 부사구나 부사절 등으로 쓰이다가 하나의 부사로 어휘화한 것으로 나누었다. 또한 이들은 다시 하나의 부사로 어휘화하는 과정에서 원래 형태 그대로 어휘화한 경우('실제로', '마음대로', '언뜻하면', '대놓고' 등), 음의 탈락이나 축약을 겪은 경우('아무래도', '그러면' 등), 어근이 절단된 경우('하기는', '모쪼록' 등), 선행 성분이나 후행하는 조사 등이 생략된 경우('갈수록', '척하면', '노드리듯', '눈빨리' 등)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선영(Sun-Young Lee)의 "Categorical Distinctions in SLA : Evidence from Inflectional Morphology in Korean"은 영어 화자가 제2 언어로서 한국어를 습득할 때 품사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 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한국어 감탄형 어미 '-(는)구나'를 활용하여 형용사와 동사의 차이에 대한 인식 차이를 실험하였는데 실험 결과 일관적이며 매우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품사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 발화 능률성의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실험 결과를 통해 제2 언어 학습자들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품사 차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곧 제2 언어 학습자들이 제1 언어인 영어의 단어 범주 체계에 기반하여 형식과 의미의 사상 과정을 통해 제2 언어의 품사 체계에 접근한다는 '전이(transfer)'와 '의미론적 전략(semantic strategy)'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 두 가지 가운데서는 전자보다 후자의 비중이 더 크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이현희의 "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전형성: 명사와 그 중복 범주

를 중심으로"는 원형 이론에 입각해 그동안 품사 처리에 문제가 있었던 예들을 '품사 전형성'의 측면에서 새롭게 살펴볼 수 있음을 주장한 논의이다. 즉, 단어의 품사를 고정적으로 보는 대신 가변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같은 명사나 동사라도 더 명사적인 것이 있고 덜 동사적인 것이 있다고 본 것이다. 가령 같은 명사라도 '책상'은 품사 전형성이 가장 높으며 '전진'은 '동작'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명사로서의 품사 전형성이 낮다고 보았다. 이렇게 보면 그동안 품사 통용이나 전성 등으로 설명되었던 예들도 달리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즉, 명사와 부사 두 가지로 통용되는 것들은 명사와 부사의 품사 전형성 모두에서 원형적인 명사나 부사보다 그 전형성이 덜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전형성의 우위에 따라 어떤 품사를 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사 전형성을 측정하여 제시하였는데 '책상-전진, 해결/신, 품-진짜/혼자, 서로-정말, 함께' 등의 순서로 명사 전형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4.6. 한자어

김양진의 "국어사전 속의 이두식 한자어 연구"는 국어사전 속의 한자어들 가운데 한자의 음이나 훈을 이용한 이두식 한자어 즉 한국 한자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도 이에 대해 그동안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문제를 제기한 논문이다. 가령 '作者'에는 '글 쓰는 이'나 '만드는 이'의 의미와는 전혀 다른 '농사짓는 이', '물건을 살 이'의 의미가 있는데 전자는 중국 한자어의 의미이지만 후자는 한국 한자어에서만 찾아 볼 수 있으므로 현행처럼 '作者'를 다의어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구별하여 동음이의어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추고(追考), 추쇄(推刷), 도척(刀尺)' 등의 예를 더 들었다. 한편 논문에서는 이두식 한자어가 고유어와 혼동을 일으킨 채 따로 등재된 경우들도 지적하였다. 이의 대표적인 경우로 '애매(曖昧)'를 들었는데 '애매(曖昧)'는 현행 사전에서 '억울하다'는 의미일 때는 고유어인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사실은 이두식 한자어, 즉 한국 한자어이던 것이 일본어에서 사용되던 중국식 한자어가 세력을 확대하면서 고유어로 오

해하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같은 예로 '안담(按擔)-안다미', '안달복달' 등을 더 들었으며 이러한 논의를 확대한다면 일반 한자어로 알려진 것들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박병철의 "지명어의 후부 요소 '遷'에 관한 연구"는 지명어의 후부 요소로 쓰인 '遷'에 주목하여 원초적으로 '一字一義'였던 한자가 '一字數義'로 발전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 논의이다. 이를 위해 먼저 '遷'의 원의를 추적하였는데 강희자전(康熙字典)에 따르면 '遷'의 원의는 '오르다'였고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학습서와 역대 자전을 통해 '옮기다'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가 지명어의 후부 요소로 쓰일 때는 '遷'이 '물 언덕 돌길'이라는 지형의 특징을 반영하기 위해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의미하는 고유어 '*벼ᄅᆞ'를 한자로 표기할 때 동원된 글자가 '遷'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의미는 원래 '遷'이 가지던 의미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남는데 이는 새로 글자를 만드는 대신 '遷'의 원의 '오르다'와 '물 언덕 돌길'의 의미상 연관성에 주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 '遷'은 한국에서 '*벼ᄅᆞ'라는 의미를 더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보았다.

이경숙의 "이체자의 생성, 조자, 응용 발전 및 정리"는 음은 같지만 모양이 다른 이체자의 다양한 양상을 고찰하여 이체자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자는 논의이다. 먼저 이체자는 원자의 상형성으로 인하여 말의 복잡하고 세밀한 의미를 표현할 수 없거나 사회적 실용성이 요구될 때 혹은 문화, 정치, 역사적 객관 사실의 영향을 받을 때 생성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체자의 형성 즉 조자는 주로 편방(偏旁)의 변화를 통한 것이 가장 많은데 이 경우 편방의 증감이나 교체가 지배적임을 언급하였다. 다만 다양한 요구에 따라 이체자의 형성은 피할 수 없는 현상임에 비해 이의 정리는 뚜렷한 원칙을 세우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체자 형성의 복잡한 현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자형의 특징에 따른 통합적인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팽철호의 "한자어의 오용에 대하여: 한자의 형태 및 발음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는 인터넷상에서 한자의 형태 및 발음과 관련된 것들을 중심으로 한자어의 오용과 남용 실태를 살펴보려는 논의

이다. 형태와 관련된 한자어의 오류로는 형태가 유사한 다른 글자로 오인한 경우[‘호열자(虎列剌)’를 ‘호열랄(虎列剌)’로 오인], 글자의 특정 부분에 근거하여 발음을 유추한 경우[‘변려문(駢儷文)’의 ‘변’을 ‘병’으로 읽음]를 들었다. 한자의 발음과 관련된 한자어의 오남용으로는 뜻은 무관하나 발음이 유사한 다른 말로 오해하는 경우[‘목이(木耳)버섯’을 ‘모기버섯’으로 발음], 의미와는 관계없이 유사 발음으로 왜곡하는 경우[‘희한(稀罕)하다’를 ‘희안하다’로 발음], 의미상 약간의 관련성이 있으며 발음이 유사한 어휘와 혼동하는 경우[‘당선(當選)’을 ‘당첨(當籤)’으로 발음], 발음과 의미가 유사하거나 관련성 있는 어휘와 혼동하는 경우[‘만반(萬般)의 준비’를 ‘만전(萬全)의 준비’로 혼동], 난이도 높은 어휘를 유사한 발음의 다른 어휘로 재구하는 경우[‘견치석(犬齒石)’을 ‘경치석’으로 재구], 어휘의 함의를 같은 발음의 다른 한자어가 내포하는 특성으로 오해하는 경우[‘수련(睡蓮)’을 ‘수련(水蓮)’으로 오해], 두 가지 이상의 발음이 있는 어휘를 오독하는 경우[‘부앙정(俯仰亭)’을 ‘면앙정(俛仰亭)’으로 오해], 한자어를 유사하거나 같은 발음의 한국어로 착각하는 경우[‘방방곡곡(坊坊曲曲)’을 ‘방방곳곳’으로 착각]를 들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011년 한 해 동안 학계에 발표된 글들을 크게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논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보아 형태론의 고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단어 형성과 관련된 논의들이 가장 많았지만 이와 연관되는 어휘부의 등재, 조사와 어미의 단어 형성 참여, 품사, 문법적 지위의 통시적 고찰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연구물들이 배출되었다.

한편 외국인에 의한 대조 언어학적 연구는 꾸준한 증가세에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제 이를 넘어서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도 군데군데 눈에 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에 의한 한국어 연구가 피상적인 고찰

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은 시야에서 한국어의 형태론적 구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최근에 한국인에 의한 유형론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적지 않게 배출되고 있다는 점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형태론에 대한 보편성과 개별성이 균형 잡힌 시각을 통해 객관적으로 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끝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연구 업적들에 대한 내용 소개가 독자들의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거쳐 일진보된 연구물들을 생산해 내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통사론

고 석 주
(연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도에 발표된 국어학 관련 학술지, 학위 논문, 단행본 중에서 통사론 분야와 관계된 것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들의 성과를 살펴보고 그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통사론 분야를 조사, 어미, 어휘 범주, 문법 범주, 구문 구조, 기타의 여섯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주요 논저들을 대상으로 각 영역의 주요 성과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부 영역별로 연구 성과를 기술하기에 앞서 이 글에 소개된 연구 성과들의 선택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들을 밝힌다. 최초에 제공된 검토 대상 논저의 목록은 400여 편이 넘었으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일부 논저들을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음을 밝힌다. 먼저, 기존에 발표된 논저의 재출간이나 편집본은 제외했다. 둘째로, 공시적인 현대 국어 통사론이 주된 내용이 아닌 논저들은 제외했다. 예를 들면, 이주행의 『한국어 의존 명사 연구』는 통시적 연구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제외했다. 셋째로, 다른 분야와 중복되는 연구로서 연구의 초점이 통사론이 아닌 경우는 제외했다. 그러나 통사론적 관점을 포함한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 논저의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았다. 넷째로, 한국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연구 논저들은 여기에서 소개하지 않았다.

이 글에서 마땅히 소개되어야 함에도, 이상의 기준에 속하지 않거나 필자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당 저자와 독자들께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 연구 논저들은 그 주제와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 영역으로 분류하고, 해당 논저의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려 했다. 가급적 저자의 의도와 논지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각 논저의 용어를 따랐고 저자의 국문 초록이나 결론 부분의 내용 이상을 제시할 수 없을 때는 그대로 인용하여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저자의 논지가 곡해되지 않았기를 바란다. 여기에 제시된 논저의 순서나 분량은 해당 논저의 성과와는 전혀 관계가 없음 또한 밝혀 둔다.

2. 조사

허철구의 "조사 '인가'의 문법"은 '누구인가가 왔다' 등에 보이는 '명사구+인가' 구성을 대상으로 그 형태 통사적 특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하여 조사 '인가'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국어사전을 비롯하여 국어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는 '인가'를 조사로 인정하지 않고 '계사+어미'의 절 구성의 일부로 보는데 이처럼 '인가' 구성을 절로 보는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것이 절일 수 없는 다양한 문법 현상을 제시하였다. 구문에 따라서 절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구문에서는 단순히 명사구에 조사 '인가'가 결합된 구성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구성은 절 명제가 아니라 명사성의 의미를 가지며, 다양한 격 조사가 결합하여 문장의 주요 논항으로 기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반해서 국어 조사의 목록에 '인가'가 새로이 추가될 수 있음을 주장했다.

최규수의 "전제와 함축에 기초한 보조 조사의 의미 분석 (2)"는 '부터'와 '까지'의 전제와 초점, '부터'와 '까지'가 사용된 부정문의 해석, '도, 만, 조차, 마저, 이나마, 이라도'와의 통합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도, 만, 조차, 마저, 이나마, 이라도'가 한정적 논항과 결합하는 데 비하여, '부터'와 '까지'는 한정적/비한정적 논항과 결합하고 범위가 순서 있는 집합임을 전제하는데, '부터'의 초점은 '선택항 앞에는 범위

에 속하는 나머지항이 없다'는 것이고, '까지'의 초점은 '선택항 뒤에는 범위에 속하는 나머지항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터'와 '까지'가 사용된 부정문의 초점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의 해석은 '부터'와 '까지'의 부정의 초점은 둘 다 선택항이 배제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의 해석은 '부터'의 부정의 초점은 앞의 나머지항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고, '까지'의 부정의 초점은 뒤의 나머지항이 범위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도, 만' 등이 사용된 문장에 대한 부정은 긍정문에 사용된 보조 조사들 대신에 적절한 다른 보조 조사로 교체해 표현하는데 '부터'와 '까지'가 사용된 문장의 부정은 부정문으로 표현되며, '부터'와 '까지'를 그대로 유지함을 보였다. 그리고 '부터, 까지'는 '도, 만, 조차, 마저, 이나마, 이라도'의 앞에 놓이는데, 'X부터, X까지'가 '도, 만, 조차, 마저, 이나마, 이라도'의 작용 범위에 든다는 것을 보였다.

윤용선의 "현대 국어 '-로'의 용법에 대한 일 고찰"은 현대 국어의 '-로'가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가 독립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서로 상관관계를 지니는 체계임을 논의하고자 했다. 기존 논의에서 '-로'의 용법이 개별적으로 기술된 것은 의미 관계에만 치우쳐 분석했던 것이 원인이라 보고, '-로'가 쓰인 구문의 문법적 속성을 중심으로 '-로'의 용례를 검토하여 그 기능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로'의 용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1) 서술어 논항 성분과의 주술 관계 성립 여부, (2) '-로서', '-로써'로의 교체 여부, (3) 필수 성분인가 수의 성분인가의 판단」이라는 문법적 속성과 (4) 서술어와 선행 명사구의 의미 자질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현대 국어에서 필수 성분으로 쓰이는 'NP로'는 통시적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NP로'는 본질적으로 수의 성분이며, 수의 성분의 'NP로'는 "방향"을 나타내는 '-로'와 부사어적 '-어' 활용형에 대응하는 관계 의미를 나타내는 '-로'로 양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후자의 용법은 서술어 논항 성분과의 주술 관계가 성립하느냐에 따라 용법이 구분되는데 주술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수단"의 의미이고, 주술 관계가 성립하면 "상태"의 의미라고 보았다. 현대 국어에서 늘어나고 있는 "접속"의 '-로'는 "상태"의 용법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용법으로 "상태"의 하위 영역이며, "이유"의 '-로'는 '-로 인해'가 굳어져 확대된 용법으로 "수단"의 하위 영역으로

보았다. 필수 논항의 '-로'는 "방향"의 '-로' 용법에 계사 구문의 명사구 확장 규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조현주의 "'이서'의 문법 범주"는 수량사구와 결합하는 '이서'의 문법 범주를 설정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거의 모든 연구에서 단일 범주로 처리된 '이서'를 '이서'의 선행 형식에 따라 두 가지로 해석했다. 하나는 [NP QP-이서] 구성으로 실현되며 여기서 '이서'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서'에 선행하는 수량사구는 기수사나 분류사구로 실현되는데, 이들은 선행 명사구의 수를 지시한다. 다른 하나는 [NP-이 QP-이서] 구성을 이루고 [이+서]로 분석된다. '-이'는 부사 파생 접미사이고 수량사구는 기수사로만 실현된다. 후행하는 '서'는 [QP-이]를 강조하는 보조사이다. 하지만 두 '이서' 모두 수량사구와 더불어 [+공동성]의 의미 자질을 지니며 문장에서 방식 부사어로 기능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보았다.

엄정호의 "격의 개념과 한국어의 조사"는 한국어의 격 범주가 존재하는가를 고찰했다. 먼저 격의 개념과 기능을 형태론적, 통사론적, 기능적 입장에 따라 살펴보았고, 터키어의 목적격이 한정성/특정성을 표시하기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한정성/특정성의 개념을 살피면서 한국어의 조사 {가}, {를}이 격과 함께 한정성/특정성을 표시하는 유일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 인구어적인 배경을 가진 격의 정의는 격 표지에 격을 표시하는 것 이외의 기능/의미를 부여하지 않지만, 유형론적인 배경을 가진 기능적 격 정의는 격에 구별과 확인 기능을 부여한다는 데 주목하였고, 격 조사라고 하여 격만을 표시한다고 가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의 {가}와 {를}이 격 조사로 분류될 수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아울러 굴절이라는 개념을 통하지 않고도 문법 범주를 설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안주호의 "현대 국어 {-고} 계열 조사의 문법화 연구"는 {-보고, -말고, -갖고}를 조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동사의 활용형으로 볼 것인지를 문법화의 측면에서 논의하였는데, 이들 형태가 형태적 측면에서 단순화되어 형태적 단위가 되는 것으로 보았고, 의미적 측면에서 추상적 의미로 바뀌어 문법적 기능을 하며, 기능의 변화로서 여격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와 '제한'을 나타내는 문법적 표지로 기

능이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빈도수의 면에서도 문어에서는 많이 나타나지 않으나 구어에서 많이 나타나며 활발하게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용하의 “조사의 핵성”은 조사가 핵으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다른 연구의 주장을 (적어도 일부의) 조사가 ‘명사구+조사’의 구성에서 핵이 될 수 없다는 반론으로 비판했다. 조사를 핵으로 취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는 핵의 특성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문제와 관련이 깊은데, 핵과 그 투사체의 분포가 동일하다는 것을 가장 기준이 되는 특성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것과, 통사 구조를 의미 해석에 기초해서 해명하려는 시도는 성공적일 수 없다는 것을 특히 속격 조사 ‘의’의 출현 여부와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것과, 구조격 조사는 보조사와 동일한 분포를 보이며 양화 효력이나 한정성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조사와 함께 D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주장했다.

김용하의 “격과 조사”는 한국어 문법론에서 격과 관련하여 조사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한국어 조사들을 분류하고 그 특성을 일별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조사가 문법론에서 파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지금까지 제시된 해결책들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격을 다룬 이론을 간략히 살피면서 격 이론과 조사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론적으로 격을 다루는 방식이 어떠했는지를 파악했다. 생성 문법적 개념의 조사 도입의 층위 문제를 살피면서 그 해결의 어려움을 제시했고 조사의 범주 문제와 조사의 핵성에 대한 문제도 기술했다.

김미형의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은 이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본 전제의 규명에서 출발하여 이 기본 전제로 인해 이루어지는 문법·화용 기능과 내포적 의미에 대한 것을 살폈다. ‘이/가’는 화자의 인식 속에 술어가 고정되어 있고 주어의 자매항을 선택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고, ‘은/는’은 화자의 인식 속에 주어가 고정되어 있고 술어의 자매항을 선택한다는 기본 전제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러한 기본 전제들이 각기 주격이라는 문법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화제 표현이라는 화용적 기능을 담

당하게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문맥 상황에서 가능성 있는 다른 주어 자매항들이 인식되면 '이/가'는 '선택적 지정'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갖게 되며, 가능성 있는 다른 술어 자매항들이 인식되면 '은/는'은 대조성이라는 내포적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보았다.

3. 어미

백낙천의 "조사 통합형 접속 어미의 특징"은 마지막 구성 요소로 조사가 통합된 접속 어미의 형태론적 구성과 의미 기능을 살폈는데, 조사 '-만'이 통합된 접속 어미인 '-다만', '-지만', '-으련만', '-건만', '-더니만', 조사 '-도'가 통합된 '-어도', '-더라도', '-을지라도', 조사 '-야'가 통합된 '-어야', 그리고 조사 '-은'이 통합된 '-으면', '-거든', '-느라면', '-더라면'의 형태와 의미 특징을 다루었다. 이 접속 어미들은 선행 요소를 선택하고 선택에서 제외된 요소를 대립하여 담화에 전제하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갖는 조사가 마지막 구성 요소로 재구조화된 것으로 이들 접속 어미가 동일하게 양보적 조건의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가 분석된 조사에 근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조민하의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은 발화 말에 나타난 종결 기능 연결 어미에 실현된 억양의 기능을 밝히고자 했다. 구어에서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은 담화적 특성에 의해 연결 어미의 구조적 위치가 발화 내에서 발화 말로 이동하고 발화 말 경계 성조가 연결 어미 형태와 결합하여 수행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은 종결 어미적 용법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억양에 의해 발화 완결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 억양은 발화의 완결 기능에 작용할 뿐만 아니라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로의 범주 구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억양의 본질적 기능과 담화 사용에서 해석된 확대 기능을 따로 분리함으로써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은 억양에 의해 주도되고 맥락적 기능에 의해 화자의 의도가 구체화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형태, 어휘, 통사, 음운론적 요소들과 화용적 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접근이 전제될 때 화자가 표현하

는 의미를 올바로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강성춘의 〈국어 연결 어미 연구〉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연결 어미를 분석하여 연결 어미의 분류 체계와 통사적 특성의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했는데,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본문의 문장을 분석하여 연결 어미를 추출하여, 연결 어미의 분류 체계를 고찰하고, 연결 어미의 통사적 특성의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교과서에는 연결 어미가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로 분류되어 있지만, 연결 어미의 분류 체계를 문장과 문장의 결합과 용언과 용언의 결합으로 나누어서, 문장 연결 어미에 대등적 연결 어미와 종속적 연결 어미, 단어 연결 어미에 보조적 연결 어미, 전성 어미에 관형사형 어미와 명사형 어미, 부사형 어미를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필영의 "'-었더니'의 통사와 의미"는 '-었더니'가 '-었-'과 '-더니'가 결합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의미나 기능이 '-더니'와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었더니' 그 자체를 하나의 어미 구조체로 보고, '-었더니' 구문의 선행절과 후행절의 의미 관계에 따른 의미들을 대립적 관계에 서도록 재정립하여 크게 '계기', '인지', '대조'로 나누어, 이들 각각의 개별적 특성과 공통적 특성을 살폈는데, '-었더니'의 공통적 특성을 '선·후행절 사태가 계기적으로 연결되는 동시에 후행절 사태에 대한 화자의 관찰자 시점을 나타냄'으로 보았다.

유현경의 "한국어 어말 어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은 접속과 내포의 의미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접속은 문장의 확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 단위의 연결에 쓰이는 기능적 개념임을 주장하면서 대등 접속 어미를 부사형 어미의 일부로 편입시키려 했다. 접속을 범주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에서 비롯되는 기능으로 해석하고 '종속'과 '대등'은 내포에서의 두 개의 사태의 의미적 관계를 드러내는 개념으로 보아 어말 어미 체계 안에 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말 어미는 문장을 끝맺느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나누고 비종결 어미의 기능은 두 개의 사태를 드러내는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의 기능을 하며 이는 두 사태의 의미적 관계에 따라 종속과 대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보았다. 두 사태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주는 전성

어미에는 부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 관형사형 어미가 있는데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부사형 어미의 일부는 두 사태를 종속적 관계로 만들어 주며 부사형 어미 중 일부만이 대등적 관계의 문장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유현경의 "품사에 따른 어미 형태 교체에 대한 연구"는 이형태 교체시 품사 정보를 참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어미의 형태 교체 양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어미들의 이형태 관계를 기계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움을 제시하면서, 몇 개의 형태가 하나의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로 규정되기 위해서는 의미의 동일성과 상보적 분포의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품사에 따라 형태 교체를 보이는 어미류들은 대부분 그 분포가 음운론적이거나 형태론적 조건에 의하여 엄밀하게 기술되기 어렵거나 의미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있음을 보였다. 품사에 따른 어미의 형태 교체가 음운론적이거나 형태론적인 조건 중 하나로 단일하게 기술되지 못하고 대부분 여러 가지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일부만을 형태소의 이형태 관계로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형태 교체 시 품사 정보가 참조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

송재목의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중복 실현"은 한국어 증거성 표지가 하나의 술어에 중복하여 출현하는 경우를 살폈는데 한국어에는 4개의 증거성 표지로 과거 직접 관찰 '-더-', 현재 직접 관찰 '-네', 간접 지식 '-겠-', 보고 '-ㅐ'가 있다고 보았다. 한국어의 증거성 표지는 하나의 술어에서 중복 출현이 가능하지만 이들의 결합에는 다음과 같은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였다: i) 간접 지식 표지는 직접 지식 표지보다 앞선다, ii) 현재 직접 관찰 표지와 보고 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iii) 보고 표지는 다른 증거성 표지의 뒤에 위치한다, iv) 과거 직접 관찰 표지와 현재 직접 관찰 표지는 함께 실현되지 않는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증거성 표지가 한국어에서 하나의 술어에 함께 실현될 수 있는 것은 '간접 지식+과거 직접 관찰, 간접 지식+현재 직접 관찰, 과거 직접 관찰+보고, 간접 지식+보고, 간접 지식+과거 직접 관찰+보고'의 5가지만이 가능하며, 이들이 중복 출현할 경우 각각의 증거성 표지는 독자적 통사 영역을 형성하며 증거성의 의미는 그 통사

영역 안에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하정수의 "'-ㅂ쇼, -ㅂ시고, -(으)십사'에 대하여"는 현대 국어의 어미 구조체인 '-ㅂ쇼, -ㅂ시고, -(으)십사'가 가지는 표현 기능이 그 구성 성분의 기본 의미에서 기인함을 밝히고자 하였다. '-ㅂ쇼, -ㅂ시고, -(으)십사'는 각각 '{-읍-}+{-사-}+{-이-}+{-오}', '{-읍-}+{-사-}+{-이-}+{-고-}', '{-(으)시-}+{-읍-}+{-사}'로 분석 또는 재분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ㅂ쇼'에서 분석된 형태소의 기본 의미는 '선어말 어미 {-읍-}의 화자 겸양, 선어말 어미 {-사-}의 청자의 행동 요구, 선어말 어미 {-이-}의 청자 존대, 어말 어미 {-오}의 화자 겸양'이므로 어미 구조체 '-ㅂ쇼'의 기능은 화자가 청자를 존대하면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ㅂ시고'에서 분석된 형태소의 기본 의미는 '선어말 어미 {-ㅂ-}의 화자 겸양, 선어말 어미 {-사-}의 청자의 행동 요구, 선어말 어미 {-이-}의 청자 존대, 어말 어미 {-고}의 선행 서술을 미완결하고 후행 서술에 연결함'이므로 어미 구조체 '-ㅂ시고'의 기능은 화자가 청자를 존대하면서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을 미완결하고 후행 서술에 연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으)십사'에서 분석된 형태소의 기본 의미는 '선어말 어미 {-(으)시-}의 경험주 높임, 선어말 어미 {-ㅂ-}의 화자 겸양, 어말 어미 {-사}의 청자의 행동 요구'이므로 어미 구조체 '-(으)십사'의 기능은 화자가 경험주(주체)를 높이면서 화자 자신은 겸양하고 청자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ㅂ쇼, -ㅂ시고, -(으)십사'가 가지는 미묘한 표현적 기능은 세 형태에서 공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소 {사}의 기본 의미인 청자의 행동 요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채숙희의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는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라고'와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자고'를 하나의 어미로 파악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이들이 보이는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들을 간접 인용 구문의 피인용문에 인용 표지 '고'가 결합한 형식이 아닌 하나의 어미로 파악하는 근거로는 인용 동사의 보어가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청자를 대상으로 한 발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든 점, 형용사가 선행절 서술어로 쓰이는 점, '그렇게'로 대신할 수 없으며 의문문에서 '뭐라고'나 '어떻게'에 대응하지도 않

는 점, '고' 생략이 불가능하다는 점, '-다라고, -냐라고, -라라고, -자라고'와 같은 연쇄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라고'의 통사·의미적 특성으로는 동일 주어 제약을 받지 않고 선행절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없으며 후행절에 명령문이 쓰일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자고'의 통사·의미적 특성으로는 동일 주어 제약을 받는 점, 선행절에 시제 선어말 어미가 쓰일 수 없는 점, 후행절에 명령문과 청유문이 쓰일 수 없는 점, 후행절로 쓰이는 의문문이 주로 수사 의문문이라는 점을 보였다.

채숙희의 "목적의 '-겠다고'에 대하여"는 '-겠다고'가 그 전체로 목적을 표현하는 하나의 연결 어미와 같이 파악될 필요가 있음을 보이고 그 통사·의미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목적의 '-겠다고'는 형태상으로 '-겠다고'로 끝나는 간접 인용 구문의 피인용문에 인용 표지 '고'가 결합한 형태나 이유의 '-다고'에 의도의 '-겠-'이 결합한 형태로 분석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했다. 목적의 '-겠다고'를 하나의 연결 어미와 같이 설정하여 그 통사·의미적 특성으로 동일 주어 제약이나 후행절로 명령문이나 청유문이 쓰일 수 없는 점, 선어말 어미 '-었-'이 선행할 수 없는 점에서 전형적인 목적의 어미 '-려고'나 '-고자'와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겠다고'는 후행절에 의문문이 올 때 수사 의문문이 주로 쓰이며, 주어의 의도 또는 목적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것들과는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목적의 '-겠다고'가 보이는 이와 같은 특성은 목적의 어미 '-자고'가 보이는 특성과 유사한 것으로, 이들은 많은 경우 서로 대치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자고'는 인칭 제약이 있지만 '-겠다고'의 경우는 인칭 제약이 없으며 결합하는 서술어의 유형에서 '-자고'와 '-겠다고'는 일부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시했다. 목적의 '-겠다고'는 하나의 연결 어미와 같이 기능하는 것으로 파악되나, 의미적으로 의도의 선어말 어미 '-겠-'의 분석이 가능하여 완전히 어미화했다고 보기는 힘든 면이 있어 문법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목적의 '-겠다고'는 하나의 연결 어미로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하였다.

조은형·이한민의 "반말체 어미 '-게'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는

‘-게’가 단독적인 문장에서 종결 어미로 문법화되는 양상을 살피면서 연결 어미일 때 [목적]의 의미로 쓰이던 ‘-게’가 도치나 생략과 같은 기제로 인하여 문법화 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보았다. 평서문일 때 주어가 1인칭인 구문과, 의문문일 때 2인칭 주어를 갖는 구문에서 동사와 결합하는 ‘-게’는 [목적]에서 [미래 행위]로 그 의미가 변화하여 문법화의 진행이 더해지는 것으로 보았다. 주어가 2인칭인 의문문에서 나타나는 [예상 결과]의 ‘-게’는 [미래 행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문법화의 양상을 보이며, 이들은 일부 형용사와도 결합 가능하기 때문에 전 단계와의 차이를 보인다고 보았다. ‘-게’는 [미래 행위], [예상 결과]를 거쳐 [완료 결과]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2인칭이나 3인칭 주어를 갖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완료 결과]의 ‘-게’는 동사나 일부 형용사뿐만 아니라 지정사 서술어와도 결합할 수 있으며,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는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송재목의 “‘-더니’와 ‘-었더니’: 선어말 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는 선행 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더니’에 대해서는 선어말 어미 ‘-더-’와 관련이 있으나 ‘-었더니’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다루는 것과 달리, ‘-더니’는 ‘-더-’와 ‘-으니’의 결합, ‘-었더니’는 ‘-었-’, ‘-더-’, ‘-으니’의 결합으로 보았다. 선어말 어미 ‘-더-’는 ‘과거 직접 관찰’이라는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며 이로 인해 ‘-더라’는 일반적으로 1인칭 주어와는 잘 사용되지 않고 주로 3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선어말 어미 ‘-더-’를 포함하고 있는 ‘-더니’와 ‘-었더니’ 역시 증거성 의미를 나타내고 연결 어미 ‘-으니’가 나타내는 접속 관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더니’는 ‘-더라’와 유사한 주어 제약과 예외를 보이는데, ‘-었더니’는 ‘-더라, -더니’와 달리 주로 1인칭 주어와 함께 사용되는데 ‘-었더니’의 이러한 특징은 ‘-었-’이 나타내는 ‘완료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았다.

박재연의 “한국어 연결 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는 한국어 연결 어미의 의미 기술에 사용하는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고 ‘양보, 설명, 발견’ 등의 의미 속성과 관련하여 메타언어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종속적 연결 어미의 메타언어는 선행절의 의미 기능을 중심으로 선정할 것, 임의적 선정을 지양하고 체계를 고려

하여 선정할 것, 역방향 점검법으로 검증할 것이라는 세 가지 메타언어 선정의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언어 선정에서 문제가 되어 온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하였는데 '-어도' 등이 표현하는 '양보'는 조건의 일종으로서 후행절 사태 실현에 관여하지 않는 조건인 '비관여적 조건'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점, '-은데' 등에 대해서 부여되었던 '설명, 상황'에 비해 '배경'이 나은 메타언어라는 점, '-으니(까)'의 일부 용법은 '발견, 지각' 등의 용어로 기술되었으나 이는 '이유' 중 '인식 영역에서의 이유'로써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김승곤의 "'음'-이름법과 '기'-이름법의 말본"은 '음'-이름법과 '기'-이름법의 용법을 살폈는데, 용법은 그 움직씨나 그림씨에 따라 또는 풀이말과의 의미 관계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기'-이름법이 반드시 쓰이는 경우는 있으나, '음'-이름법이 반드시 쓰이는 경우는 있는 것 같지 않고, '음'-이름법과 '기'-이름법에 안 맺음 씨끝 중 「-겠-」, 「-었-/-았-」, 「-었겠-/-았겠-」과 쓰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음도 제시했다. 특히 「-시-」는 「-기-」와 「-음-」과는 풀이씨와 풀이말에 따라 그 용법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김명광의 "통사적 접사 '-요'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는 반말체의 종결 어미와 '-요'의 결합과, 비종결 어미와 '-요'의 결합 양상을 살폈는데, '-요'의 보어 자질과 보어의 핵 자질을 제시하고 핵의 보어 자질과 보어의 핵 자질의 점검을 통하여 완전 해석 원리가 적용되는 모습, 그리고 LF 표시에 적용되는 방식을 제시했다. '-요'는 [-중화], [+구], [+의존]을 보어 자질로 가지는데, 보어 구성이 그것들 중의 적어도 하나를 갖지 못하면 LF에서 비해석성 자질로 비문이 되는 것으로 보았다.

4. 어휘 범주

안주호의 "{만큼}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는 {만큼}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고, {만큼}을 의존 명사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의존 명사

와 조사의 품사 통용어로 볼 것인지를 살펴보고, {만큼}이 {처럼/같이}와 같이 동등 비교를 나타낼 때의 의미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또한 {만큼}이 선행의 문법 요소와 결합하여 '이유·근거'의 연결어미 기능을 하는 과정을 문법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현대 국어 {만큼}의 다양한 문법적 특성을 알아보고, 이를 단일 방향성의 원리에 따라 문법화되는 것으로 보았다.

최기용의 "한국어 균열 구문의 '것': 빈 NP 채우기로서의 '것'"은 한국어의 '것' 균열 구성(cleft construction)이 계사절(copular clauses)의 서술어 자리에 있는 DP 내부의 NP 혹은 NP가 N-to-D 핵 이동 후에 주어 자리로 이동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보았다. '것'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으면 비문법적일 수 있는 관형절이나 속격 NP 다음의 빈 NP 자리에 삽입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러한 분석하에서 한국어 분열문 구성에서 '것'의 이중성(명사 혹은 보문소, 명사화 용법 혹은 지시적 용법)은 계사절의 서술(predicate) 용법과 등가(equative) 용법에 대한 관찰과, 서술 용법이 주어 NP가 [Spec, IP]로 이동할 때 획득되고 등가 용법이 서술 NP가 그 자리로 이동할 때 획득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황화상의 "관용어의 문법 범주와 범주 특성"은 부사가 의미적으로 관용어 전체를 수식하고 관용어 구성 요소가 통사부에서 직설적 용법은 갖는다면 공기하기 어려운 논항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관용어가 어휘부 요소라고 보았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관용어를 구성하는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관형사 수식과 부사 수식, 보조사 결합, 주제화, 관계화 등의 통사 현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용어를 (어휘적) 단어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관용어의 구성 요소는 통사부에서 단어의 자격을 갖지만, 이들은 통사부에 입력될 때 이미 관용어의 구성 요소라는 자격을 가진 채 입력되어, 관용어를 구성하는 요소의 단어로서의 자격은 형식적인 차원에서는 유지되지만 의미적인 차원에서는 유지되지 않으며, 관용어의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통사 현상(관형사 수식, 부사 수식, 보조사 결합, 주제화, 관계화 등)도 관용어의 의미가 유지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분열문 형성은 형식적으로도 관용어가 하나의 통사 단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되므로 관용어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보았다.

정유진 · 강범모의 “친족 명사의 공기어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은 한국어 신문 텍스트로 이루어진 물결 21 코퍼스를 통해 2000~2009년의 신문 기사에서 친족 명사가 어떤 단어들과 사용되는지 의미적 관련성을 네트워크로 분석하고, 공기어가 단순한 개념적 의존성이 아닌 공기적 의존성에 기반하여 사회와 문화의 모습을 반영하는 언어 속에서의 상호 연관성을 보여 주며, 단어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미 부류, 군집 형성 그리고 유의어의 공기어 사용 양상을 파악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여러 분석 지표를 통해 단어와 관련된 우리의 직관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임근석의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 양상과 쟁점을 성구론적 연어 연구와 말뭉치 지향적 연어 연구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는데, 일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연어 연구는 세계적 연어 연구의 흐름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그 과정에서 성구론적 연어 연구의 전개 과정과 말뭉치 지향적 연어 연구의 전개 과정도 다루었고, 그것이 한국어 연어 연구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혹은 이루어지고 있는 성구론적 연어 연구와 말뭉치 지향적 연어 연구를 검토한 결과, 양 방법론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수련의 “‘내가’와 ‘나에게’의 대비 분석”에서는 개념 화자가 공적 자기로 언어화될 경우에 주체의 기능을 하면 일인칭 대이름씨 ‘내가’ 또는 ‘나에게’로 실현되는데, ‘내가’가 성립하는 표현은 말할 이의 내면과 관련된 심리 상태 변화 또는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나에게’가 성립하는 표현은 대상의 상태 변화 또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내가’는 말할 이와 대상과의 관계가 밀접하고,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내가’가 성립하면 〈말할 이 중심〉이고, ‘나에게’가 성립하면 〈대상 중심〉 표현인데, 이를 공간 지각의 관점에서 보면 전자는 개념 화자가 언어로 표현된 ‘나’를 바라보는 표현이고, 후자는 개념 화자가 언어로 표현된 대상을 바라보는 표현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정택의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는 고유 명사는 단수를 지시해야 하고 보통 명사는 복수를 두루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인식이 옳지 않다고 보면서 고유 명사가 일반적으로 단수를 지시하고 보통 명사가 흔히 복수를 지시하는 것은 하나의 경향일 뿐이라고 하였다. 이보다 중요한 것이 언중이 고유 명사의 본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이름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며 복수의 지시 대상을 가질 수 있는 작명된 이름(상품명 포함)들이 양화사와의 관계에서 전형적인 고유 명사와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 언어의 기술이 언중의 인식을 일정한 근거에 입각해 체계화하는 것이므로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를 인위적인 작명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서종학의 "'시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는 현대의 사전과 여러 글을 검토하여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structure)를 분석하고 그 의미(meaning)를 파악하려 하였다. 그 결과 '시키-'는 동사로 사용되는 경우와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보였다. 동사 '시키-'가 사용된 문장의 구조는 매우 다양하고 그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있음을 보였고, 접미사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를 '-하-'의 오용으로 해석하거나 문법화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때에도 앞의 어근에 따라 의미가 다름을 보였다.

김문기의 "품사 통용의 감탄사 처리 방안 연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감탄사 중 명사, 대명사, 관형사, 부사로도 쓰이는 품사 통용의 감탄사를 대상으로 그 목록과 뜻풀이, 용례 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형태·통사·의미적인 문법 범주로서의 감탄사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전에서 감탄사를 설정할 때 형태·통사·의미론적 단위와 화용론적인 단위의 층위 구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혼란을 야기한 것으로 보았다. 즉, 사전에서 감탄사로 등재한 단어들의 뜻풀이와 용례를 살펴보면, 이들을 감탄사가 아닌 다른 품사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화용론적인 단위로서의 감탄사는 절이나 문장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보아 감탄사라는 품사 범주로 설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을 논의하였다.

한정한의 "통사 단위 단어"는 국어의 단어가 통사부의 기본 단위라는 그 문법적 지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정의조차 분명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개념이라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단어로 부르는 것에 너무 많은 관점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과, 둘째 언어 유형별로 매우 다양한 단어 분류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단어를 분류하는 형태적 기준, 분포적 기준, 기능적 기준, 의미적 기준, 어휘적 기준, 정서법적 기준(어절) 등의 예를 검토하면서, 이들의 원칙이 분명하며, 결코 함께 섞여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학문적 엄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위의 여러 가지 기준 중 어느 한 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능적 기준이 그러한 대안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았다. 기능이란 문장 성분들이 문장 내 다른 성분들과 갖는 문법관계(역할)를 말하며, 이것이 통사론의 기본 단위를 가장 잘 드러내주며, 형태적 기준(자립이나 의존성)에 비해 다른 언어와의 비교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형태적 기준은 형태 단위 정보의 기준이고, 분포적 기준은 위치 결합 정보이며, 의미적 기준은 의미 단위 정보의 기준이지 문장 성분의 통사 단위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단어 분류에서의 이러한 기준 분리 원칙이 오히려 통사 정보를 가장 잘 포착해 줄 수 있다고 보았다.

박철우의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은 상황과 언어의 접점이 되는 화시라는 현상에 대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한국어 표현들을 한정하고자 하였다. 화시는 지칭 대상을 직접 가리키는 현상으로, 화시 표현들은 가리킴이라는 일차적 기능이 포함된 언어적 표현들이라고 한정했다. 화시 표현들은 그런 일차적인 기능에 더하여 지칭 대상을 한정해 주는 개념적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화자, 청자, 공간, 시간, 담화, 양태 등의 차원을 구분해 주거나 그런 화시 중심을 기준으로 관련 대상을 지칭할 수 있게 해 주는 함수 관계의 표상을 말하고, 화시 표현은 이러한 기능과 의미가 어휘화된 언어 표현으로 보았다. 화자가 자신의 발화가 일어나는 상황의 화맥적 요소들을 화시 중심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때로 자신이 보고하는 다른 발화 상황의 화맥적 요소들을 화시 중심으로 삼는 경

우가 있는데, 이를 화시 표현의 상대화라고 하였다. 화시 표현의 한정을 위해 발화 참여자(화자, 청자), 공간, 시간, 담화, 양태의 차원을 구분하여 관련 표현들을『표준국어대사전』등 다양한 표현을 통해 수집하여 제시하였다. 아울러 화시 표현의 사전 기술 원칙 등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논의점과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이은섭의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은 체언 수식 부사로 언급된 어휘들이 진정 체언을 수식하는가의 여부를 살폈다. 부사는 용언, 수식언, 문장 등을 수식하는 품사 부류인데 예외적으로 후행 명사를 수식하기도 한다고 기술되어 왔으나 통사적 측면에서 부사가 체언을 수식한다고 보는 것에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첫째, 부사가 체언에 선행한다고 그 체언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부사 부류가 아닌 것들을 부사로 오인하거나 생략, 어순 변이, 문법화 등의 기제를 설정하여 체언 수식 부사의 존재를 입증하려는 논의는 지양해야 한다. 둘째, 부사 중 그 분포가 체언 앞으로만 고정되어 있는 어휘는 관형사로 보아야 한다. 실제 사전에 부사로 등재된 어휘들 중에 이러한 제한된 분포를 지닌 부류들이 몇몇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몇몇 체언 선행 부사들은 후 보충 구문의 성분이 되면서 관형어가 아닌 전형적인 부사어의 분포 행태를 보인다. 넷째, 통사 구조의 차원에서 선행 체언 부사 중 일부는 그 수식 대상이나 작용역이 체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체언이 참여한 조사구 전체에 이르는 경향을 보이므로 해당 부사가 체언을 수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섯째, 부사가 체언에 선행하는 구성은 일반적인 '관형사-명사' 구성과는 달리 문장 성분으로 실현될 때 극심한 제약을 보이므로 이 구성은 통사 단위로서의 자격을 지니지 못한다. 여섯째, '바로'는 부사적 행태와 관형사적 행태를 보이며, 각각의 용법에서 의미의 차이가 나므로 부사 '바로'와 관형사 '바로'를 구분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피고 이들 부사가 그리 간단히 명명되거나 분류될 수 없음을 제시했다.

박동근의 "동시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연구"는 계량 언어학적인 방법으로 형태, 통사, 어휘・의미 특성 면에서 동시의 흉내말 사용 양상을 살폈는데, 다음과 같이 그 특징을 제시했다. 첫째, 400편의 동시에서 흉내말이 사용된 동시는 205편이고 사용된 흉내말 수는 모두

533개로 편당 1.33개의 흉내말이 사용되었으며 어절 수로 보았을 때 100어절당 4.62개의 흉내말이 사용되어 같은 아동 문학 장르인 동화에 비해 약 3.4배에 이른다. 가장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 것은 '가득'이었고 흉내말의 빈도 순위에 있어 동시는 동화와 차이를 보인다. 둘째, 형태 면에서, 동화와 마찬가지로 단순형의 사용 빈도가 높으며, 일 음절 반복형의 경우 3회 이상 반복하는 형태의 사용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하다, -거리다/-대다, -이다' 파생에서 '-거리다'에 비해 '-이다' 파생어의 빈도가 높은 것은 이례적이다. 동시 텍스트에는 '꼭-꼬옥', '살짝-사알짝'처럼 형태를 음운적으로 확장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이는 동시의 운율을 맞추거나 현장감을 살리기 위해, 또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통어적 특성으로, 흉내말은 부사어로 기능하는 경우가 가장 많지만, 흉내말이 독립적으로 행을 이루거나 다른 문장 성분과 관련을 맺지 않는 독립어로 사용하는 경우와 후행하는 서술어가 생략되거나 흉내말 자체가 서술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넷째, 흉내말이 갖는 생생한 표현력은 동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데 적절한 도구로 활용된다. 흉내말이 갖는 반복 구성이나 홀소리어울림의 특징은 동시에서 흉내말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리듬감을 갖게 한다. 어근 창조의 방법으로 새 흉내말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다.

남수경의 "품사 통용의 몇 문제"는 '품사의 통용'의 개념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논의했는데, 먼저 품사 통용이 전제하고 있는 '한 단어'라는 표현이 논의마다 달리 이해되어서 품사 통용의 개념 자체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품사 통용을 같은 현상에 대한 다른 인식에 의해 생겨난 품사 전성과 영 파생의 개념에 비추어 살펴봄으로써 품사 통용과 품사 전성이 사실상 거의 구별되지 않는 개념이며 이 둘은 방향성의 측면에서만 차이를 가질 수 있는 개념으로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품사 통용 역시 방향성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 문제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품사 전성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품사 통용의 개념이 논의마다 달리 이해된 것으로 보

았다.

나카무라 마유의 "시간 부사 〈갓〉에 대하여"는 현대 한국어의 시간성(temporality)이나 상성(aspectuality)을 나타내는 부사들 가운데 '갓'의 쓰임을 자세히 살폈는데, '갓'은 주로 용언을 수식하나 체언도 수식하는데 그 비율이 2.8%였고 체언은 주로 사람의 연령이나 경력을 가리키는 수사로서 이러한 직능을 관형사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갓'이 수식하는 용언은 동작이 일어난 후에 주체 혹은 객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변화 동사뿐이며 전체의 86.6%가 서술어의 바로 앞에 쓰이고, 용언의 활용 형태는 관형사형이 85.1%에 달하며 접속형이 12.4%, 종결형은 2.5%인데, 용례 중의 84.1%가 과거 시제 표지와 공기하여 서술어가 나타내는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시간성을 가리키지만, '-기 전에'라는 형식과 공기했을 경우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시간성을 가리키지 않고 오직 화자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양태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김일환의 "공기어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은 2000~2009년의 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물결 21 코퍼스'에서 '가족'과 '친구'의 변화 양상을 대상어와 공기어의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했다. '가족'의 공기어 중에는 '어머니'를 비롯한 20개의 단어가 허브의 역할을 하는 주요 공기어이며 2000년대 후반으로 오면서 '고통, 사랑, 주말, 여행, 체험' 등의 단어가 높은 연결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친구'는 상위 50개의 공기어 가운데 31개의 단어가 허브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가족'보다 강한 연결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을 제시하였다.

고혜원의 "정도 부사 '너무'의 의미와 공기 특성"은 부사 '너무'의 이중적 의미와 이에 따른 공기 특성을 논의했는데, 부정 강조와 긍정 강조라는 이중적 의미를 각기 규정하였고, '너무'가 일부 동작 동사와 공기하거나 '명사+이다'를 수식 가능한 경우는 공기하는 단어에 정동성이나 상태나 속성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김옥영의 "'어떻게'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는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가 형용사 '어떻다'의 활용형으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시적인 문법적 위상으로서 '어떻게'의 실현 양상 및 대응 방언형을 분

석하고 부사로 분류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현대 국어의 표준어를 중심으로 '어떻게'의 실현 양상과 사전에서의 문법적 처리 문제를 살피고 '어떻게'를 부사로 볼 수 있는 근거로 형용사 '어떻다'의 활용형 가운데 특히 '-게'와의 결합 빈도가 매우 높다는 점, '어떻게'가 부사 '어찌'와 동일한 의미·기능으로 사용된다는 점, 일부 국어사전에서 '어떻게'를 부사로 처리하였다는 점을 제시했다. 개별 지역 방언에서 실현되는 '어떻게'를 문법 범주의 변화는 물론 이미 어휘화의 과정까지 겪은 것으로 분석하였는데, '어떻게'에 대응하는 방언형의 음운론적 어휘화를 공시적 음운 규칙의 적용 불가, 혼효 현상, 절단 현상, 융합 등을 통해 보이고 '어떻게'를 구성하는 요소를 공시적 구성 성분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석주의 "구문 기술을 위한 명사의 의미 정보"는 명사-동사 통합 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언어 현상이 동사의 논항 구조나 의미역, 의미 구조 등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려운 현상이 있는데, 함수-논항 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동사 중심의 문법 연구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언어 현상을 온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논항 명사의 의미 정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함을 피동 구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피동 구문이 능동 구문과 대응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명사항의 의미 정보와 관련된 특성을 규명해야 함을 보였다.

김기혁의 "사동형 타동사 파생의 유형과 특징"은 현대어의 관점에서 단순 타동사로 여겨지는 많은 타동사들이 실제로는 자동사에서 파생된 사동 타동사임을 보이고자 했다. 현대 국어에서 빈도수가 높은 동사 약 250여 개를 골라 단순 타동사와 사동형 타동사로 나누고, 사동 파생형 타동사 100여 개 가운데 상당수가 사동화에 의해 타동사가 된 후 역사적으로 굳어져 단순 타동사로 쓰이고 있다고 보았다.

구종남의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은 보조 동사 '오/가다'의 상적 특징을 이들의 직시어로서의 특징과 관련하여 논의했다. 직시어로서의 '오/가다'의 특징을 살펴본 뒤 시폭을 가지는 미완상으로 '오/가다'에 의한 상적 기능을 구명하기 위해 역시 미완상으

로서 시폭을 가지는 진행상과 비교·검토하고 '오/가다' 구문이 보이는 여러 가지 특징을 들어 이들은 사태의 과정을 드러내 보이는 지속상 표지라고 보았다. '오/가다'는 기준점에 따라 이들이 선택적으로 쓰이는 바, '오다'는 발화시까지의 지속을, '가다'는 발화시까지의 지속뿐 아니라 이후의 시점, 즉 미래 시점까지의 지속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는 '오/가다'의 직시적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오/가다'가 통합되는 선행 술어에 따라 지속의 세부적인 기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 이들과의 통합 제약을 살폈다. 화자가 특정한 사태에 대한 바람이 있을 시 '오다'가 선택되며, 이때는 화자의 바람이 기준점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기준점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오다'가 선택되기 어렵다고 보았다.

5. 문법 범주

여승주의 "The Morpheme - *key* in Resultatives and Periphrastic Causatives/Passives in Korean"은 결과 구문과 우언적 사동 구문이 매우 밀접히 관련된다고 주장하는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사건이 [±RESULT] 자질을 통해 상적으로 해석되는 방식을 명세하는 동일한 통사적 핵을 공유하는 것으로 보았다. 결과 구문과 우언적 사동/피동 구문에서의 '-게'의 두 가지 실현이 동일한 통사적 핵의 상이한 외양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는데 상이한 자질 명세를 가진 ASP의 구현형들로 보았다. 이러한 가설에서는 분포의 상보성과 해석상의 경쟁적 특성들이 직접적으로 포착된다고 하였다.

박소영의 "한국어 어휘상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은 조민정의 『한국어에서 상의 두 양상에 대한 고찰』(한국문화사, 2007)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한국어 어휘상 연구에 통사론적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박소영은 어휘상의 어휘부 명세에 반대하고 어휘상이 근본적으로 통사부의 투사 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으며, 'T-동안' 부사어에 의한 종결성 판정이 유효하지 않고 [±순간성]의 자질 설정이 어휘상 분류에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어는 무관사 언어

로서 명사구 해석에서 한정성 여부와 단/복수 조합에 따라 중의성이 다양하게 초래되므로 어휘상 판정에 유의해야 함을 지적하였다.

한정한 · 정희숙의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문법 제약"은 문법적 연어 구성을 이루는 양태 표현 중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에 대하여, 양태 표현이 명제 내부의 어휘적 의미를 담당하지 않고 명제 밖에서 추측의 기능을 하는 문법 범주로 묶일 수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선행 용언의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선행 용언의 어휘 제약, 서법 제약, 양태 표현의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연결 어미와의 공기 제약, 추측의 양태 표현의 구조 의존성 등의 통사적 현상들을 적용해, 선행 용언의 시제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과 어휘 제약에서는 공통적인 현상을 보이지만 다른 분석에서는 차이가 나타남을 보였다. 그리고 추측의 양태 표현을 나타내는 문법적 연어가 문법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명제 밖에서 완전히 문법적 의미 기능만을 하기도 하고 복문의 특성을 유지하는 통사 구조도 있음을 보였다.

최정애의 "동작성 명사 논항의 실현에 대하여"는 명사구에서 '의' 논항이 통합되는 것과 '의'가 실현되지 않는 관형 구성 명사 외에 '에 대한', '에 의한' 논항이 실현되는 것도 있다고 하면서 이 세 논항의 실현이 상보적이라고 하였다. '의' 논항 실현과 무표지 논항이 실현되면 문법성이 떨어지거나 비문법적이 되는데 '에 대한', '에 의한'을 통합시키면 문법성이 증가되므로 '에 대한', '에 의한' 논항의 통합 양상을 통사-의미적 측면에서 동작성 명사의 논항인 '에 대한', '에 의한' 논항 실현 양상을 살폈다. 동작성 명사와 결합되는 '하다'나 '되다' 혹은 '받다', '당하다'에 의해 통사 구조가 결정되므로 동사의 의미 구조나 논항 정보와 연계시킬 때에만 그 통사 구조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의 "중간 투사 범주 X' 이동의 가능성"은 중간투사 범주 X' 이동과 관련한 몇 가지 견해를 살피면서 X' 이동은 가능하며 언어에 따라 X' 이동이 드러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논지를 전개했다. 첫째, X' 이동 불가능성에 대한 주장은 다분히 약정적인 성격을 띠고, 둘째, X' 비가시성은 문법에 따라 여러 가지 부담을 야기하며, 셋째, X' 범주도 X 범주나 XP 범주와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으나

특정 기능 범주가 존재함으로써 X' 이동의 효과가 겉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따름이라고 하였다.

이재성의 "부사절의 시제와 상 결합 양상 연구"는 '-아서' 절을 제외한 모든 부사절에 시제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는데 부사절에 나타나는 '-었'은 완료상일 수도 있고 과거 시제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부사절의 시제와 상의 결합 양상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양보절은 상 범주와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양보절이 구체적인 일회적 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사실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보았다. 조건절에는 진행상이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기준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조건으로 제시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았다. 동시절에는 완료상과 과거 시제가 결합하지 않는데, 이는 내포절과 주절의 행위가 동시에 일어나기 위해서는 비과거 진행 상태이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의도절과 결과절은 모두 비과거 시제와만 결합하는데, 이는 이들 부사절이 내포하는 의미가 모두 기준시 현재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으로 보았다.

박진호의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는 증거성 및 의외성에 대한 언어 유형론 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유형론적 연구 성과를 참고하여 이 문법 요소들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였는데, 한국어에는 의외성과 증거성이 필수적인 문법 범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의외성은 한국어에서 '-구나'나 '-네', '-더-'에 의미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각기 무표적인 종결 어미 '-다'와 무표적인 과거 시제 표지 '-었-'과 교체되어 쓰일 수 있다고 하였다. 증거성도 한국어에서 여러 요소들에 의미 성분으로 흩어져 있는데, 연결 어미들 가운데에도 증거성의 의미 성분을 지닌 것들이 있다고 하면서 '-길래'의 용법 중 하나에서 화자가 선행절 사태를 지각했을 것을 요구한다고 하였다. 한국어에서 증거성과 의외성은 많은 경우 문법 요소의 핵심 의미 성분이 아니라 부차적 의미 성분으로서의 지위를 지닐 뿐이라고 경계했다.

문숙영의 "접속문의 시제 현상과 상대 시제"는 접속문의 시제를 독

립적 해석과 의존적 해석으로 양분하는 것이 시제 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대등 접속에서도 상대 시제가 가능하고 종속 접속에서도 절대 시제가 가능하다면서 대등 접속과 종속 접속의 시제 특징이 절대 시제와 상대 시제로 대별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국어 접속문의 시제 기술에는 '-었-'이 필요한 경우와 '상대적 현재'가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정교한 구분이 필요하며, 접속문의 시제를 해석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상대 시제로 실현된 절의 실제 상황 시를 찾아내는 데까지만 유효할 뿐 실제 시제 현상을 이해하거나 기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복문의 시제 사용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진호의 "시제, 상, 양태"는 시제와 상과 양태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유형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어의 시제, 상, 양태 체계의 기본적인 윤곽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국어는 시제 언어로서, 과거-현재-미래의 3분 체계를 갖는데, 각각의 경우에 필수적/전형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태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요소로서 '-었-'(발화시 이전), '-느-'/Ø(발화시), '-겠-'/'-을 것이-'(발화시 이후)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한국어의 '-어 있-'과 '-고 있1-'은 결과상, '-고 있2-'는 연속상을 나타니며, 중세 한국어는 과거 시제에서 완망상 대 비완망상의 상적 대립을 지니고 있었으나, 현대 한국어에서는 관형형에 이 체계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어의 양태 관련 요소들은 문법화의 진전도가 높지 않아, 꽉 짜인 서법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관형형·명사형 이외에는 별로 없다고 보았다.

강창석의 "국어 문법과 주어"는 국어 문법가들의 주어에 대한 인식에 중대한 문제가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오류들이 연쇄적으로 파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주어는 국어 문법 논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고 주어가 국어 문법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문장 구조를 '주어-술어'로 분석했기 때문인데 국어 문법의 주어 관련 기술은 논리의 모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았다. 국어에서 '주어'라는 문장 성분을 설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국어 문장을 '주어-술어'의 구조로 인식해 온 오랜 관행이 재고되어야 하며 그럴 경우 새로운 시각에서 국어 문법 현

상들을 다시 조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광희의 “대용 표현”은 국어 대용 표현의 연구가 대명사 체계를 세우고 이를 다듬어내는 과제와 더불어 결속 이론을 도입하고 국어의 매개 변인화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국어 대용 표현 연구를 통사론적 시각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대용 체언과 대용 용언 그리고 생략과 영 대용화에 대한 그간의 주요 논점들을 살펴보았다. 대용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문법 현상이지만 이를 활용하면 구문 분석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조 동사문, 사동 구성과 부정 구성, 병렬문, 접속문 등의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대용 표현에 대한 연구가 현재는 다소 소강 상태에 머물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앞으로 통합 통사론 내지 통합 문법론의 방향에서 대명사와 재귀사의 핵 자질 설정, 공범주의 통합 기술, 비변형적 통제 이론, 대용어 장거리 결속 등이 더 깊이 탐구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6. 구문 구조

양정석의 “부가어 대응 규칙과 문법 기술”은 이호승의 “부가어 대응 규칙의 성격과 문제점 검토”(『형태론』 12.1, 91-110. 2010)라는 서평 논문에서 제기된 6개의 문제에 대한 필자의 답변 논문이다. “비행동성 능격 동사 구문에 설정한 통사적 공범주인 흔적은 타당한가?”라는 문제는 해결 방안을 모색한 필자의 다른 저술이 있음을 밝혔고, “명사의 의미 전이 현상과 문장의 시상성 현상은 부가어 대응 규칙과 동질적인가?”에 대해서는 필자의 입장이 어휘 기재항에 둘 이상의 의미 형식을 설정하는 방식과 함께 실행 가능한 방안임을 정당화했다. “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는 의미 구조와 통사적 정보를 담은 논항 구조를 통합한 형식이 아닌가? 부가어 대응 규칙은 기존의 변형 규칙이 안고 있던 의미 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동사의 기본 의미를 설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어 대응 규칙으로 어휘 의미 구조가 바뀐 동사들은 어휘부에 저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방안이 다른 방안보다 유리한 점이

있음을 보였다.

유혜원의 "'이'와 '에'의 교체 구문에 대한 연구"는 '이-에' 교체가 가능한 동사 구문을 대상으로 구문의 특성을 살폈는데, 구어와 문어를 포괄하여 '이-에' 교체 구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구어 코퍼스와 문어 코퍼스에서 해당 구문을 보이는 동사류의 특징을 고려하여 교체가 일어나는 원인들을 분석하였다.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특정한 동사가 특정한 교체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어휘적으로 규정된 것이고, 조사 '에'가 '이'로 교체되는 것은 텍스트 메타 기능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박희문의 "한국어 '주제화 구문'의 HPSG(핵어 중심 구 구조 문법) 분석"은 주제화 구문 제약을 좀 더 세분화할 것을 제안하여 주제화되는 요소에 [TOPIC+] 자질이 구현되면, 동시에 한정성 구현 규칙(Definiteness Instantiation Rule)에 의거하여 핵어 자질(Head Feature)의 일종인 한정성 자질([DEF+])이 구현되도록 수정하고 한국어의 주제 표시 접사(TMFORM)인 '은/는(un/nun)'은 주제어의 자질 구조에 직접 표기하기보다는 핵어 문장의 논항 구조(ARG-ST)에 표기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새로운 표기 방식은 주제어에 [TOPIC+] 자질이 부여됨과 동시에 [DEF+] 자질도 같이 구현되게 함으로써 주제어구가 지니는 한정성을 포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주제 표시 접사인 '은/는(un/nun)'을 자질 구조 내에 포함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았다.

시정곤 · 김건희의 "'의존 명사+이다' 구문에 대한 양태적 고찰"은 의존 명사에 선행하는 관형형 어미 '은'과 '을'이 [+확실성]과 [-확실성]이라는 고유한 양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 의미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의존 명사+이다'에서 '이다'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 '의존 명사+이다' 구성에서 '이다' 대신에 조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의존 명사+이다' 구문에서 '이다'가 고유한 양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의존 명사+이다'의 양태 의미는 '의존 명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고 '의존 명사'를 중심으로 한 양태 의미를 살펴보았는데, '의존 명사+이다' 구문은 인식 양태와 증거 양태로 나눠지며 인식 양태는 확실성 정도에 따라 [한정], [단정], [이유], [정도], [의도], [추측]의 양태

의미로 세분화될 수 있고 증거 양태는 [당위]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틀을 제시했다.

홍용철의 "제시어에 대한 내포 성분 이동(SubMove) 분석의 문제"는 기존 연구에서 주장된 한국어 제시어에 대한 이동 분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기저 생성 분석이 타당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시어 구문들이 제시어를 되받는 요소의 유형에 따라 어휘 대명사인 경우와 대명사가 'pro'인 경우와 제시어를 되받는 요소를 절 내부에 설정할 수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제시어가 어떤 때는 문장 앞에 기저 생성되고, 어떤 때는 그 위치로 의무적으로 이동해야 하고, 어떤 때는 그 위치로 수의적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일반화를 추구하는 이론적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언어 습득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저 생성 분석으로만 포착할 수 있는 관련된 여러 현상이 있음을 들어 기저 생성 분석이 옳은 방향이라고 했다.

최재희의 "학교 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는 학교 문법 교과서 문법(2002)의 겹문장 체계 기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여기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문법(2002)에서 설정한 안긴문장의 5개 하위 유형 중 서술절과 인용절은 분류 체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위 유형에서 제외함에 따라, 안은문장은 '명사절 안은문장', '관형사절 안은문장', '부사절 안은문장으로 하위분류하였고, 이어진문장의 하위 유형 중 종속적 이어진문장은 그 앞 절이 부사절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이어진문장이라는 동일 부류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이어진문장은 종래의 대등적 이어진문장만이 남게 되고, 앞·뒤 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병렬 관계, 대립 관계, 선택 관계의 이어진문장으로 하위분류하였다.

이호승의 "목적성 이동 동사 구문과 복합 서술어"는 목적성 이동 동사 구문의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이동 동사가 〈NP-가, NP-에/에게/으로, NP-을〉의 논항 구조을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중 일부는 [NP-을(목적성 목적어)+이동 동사]로 구성되는 복합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 따라 형성된 구문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이 목적성 '을' 성분을 목적어 논항으로 갖는다는 점은 부사어 삽입 허용 현상, 관형어 수식 허용 현상 등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목

적성 목적어와 이동 동사가 연어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대용화 불가 현상, 이동 동사에 대한 어휘적 유사어 대치 불가 현상 등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목적성 목적어와 이동 동사의 연어적 결합은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지만 한 단위가 되어 독자적인 논항 구조를 갖는 복합 서술어를 구성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NP-을+보내다]의 목적성 이동 동사 구문은 '보내다' 구문이 아니라 〈NP-가, NP-을, NP-에/에게/으로〉라는 논항 구조를 갖는 복합 서술어 [NP-을+보내다]가 형성하는 구문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NP+이동동사]는 한 단어가 아니라 복합 서술어 [NP-을+이동 동사]에서 격 조사 '을'이 생략된 복합 서술어라고 보았다.

이정훈의 "후 보충 구문의 구조와 Ω 그리고 빈칸"은 그 기능이 구조와 구조를 형성하는 어휘 항목에서 예측되지 않는 후 보충 구문(afterthought construction)의 구조와 '0'으로 표시되는 빈칸(gap)의 정체를 탐색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첫째, 후 보충 요소는 의미적으로는 양태, 음성적으로는 억양으로 해석되는 핵 Ω에 부가된다. 둘째, Ω는 CP나 제시 표현과 인접하여 나타난다. 셋째, 후 보충 구문은, 이동과 마찬가지로, 복사와 병합 그리고 삭제로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이동에 따른 빈칸과 마찬가지로 후 보충 구문의 빈칸도 복사에 삭제가 적용된 결과이다. 다섯째, 후 보충 구문에는 오른쪽 지붕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는 후 보충 구문을 우향 이동으로 분석하는 견해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정택의 "주어를 제한하는 'NP+에서' 구성"은 조직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주격 조사로 사용된다는 '-에서'의 주격 조사로서의 기능을 인정하지 않고, 위치가 제한되고 직관적으로 '주어성'이 느껴지는 등 장소를 나타내는 여타의 'NP+에서'와 다소 다른 특성을 보이는 'NP+에서' 구성을 서술어 수식 기능을 하는 부사어가 아닌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로 보았다. 이 구성에서 '주어성'이 느껴지는 것은 이 구성이 담고 있는 정보를 통해 주어의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고 'NP+에서'가 숨어 있는 주어를 수식하는 관형어라고 결론지었다.

이정식의 "선택 부정 반복 동사 부정 극어"는 국어의 '선택 부정 반

복 동사 구문'을 새로이 소개하고 그 통사적 특징을 살폈는데, '하든지 말든지'와 같이 양자의 선택을 부정하는 반복 동사가 분포상 부정 극어와 그 성질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왜 그러한 성질을 보이는지 그 인허 절차와 방법을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선택 부정 반복 동사 구문을 쌍 절이 아니라 단일 절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보이고, 이 구문이 보이는 다양한 어순을 국어의 전통적 어순으로 가정해 왔던 SOV 가설로는 유동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면서 최근에 부각되어 온 SVO 가설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이론적 측면에서 지정어-핵-보어의 범언어적인 SVO 기본 어순 관점을 지지하는 것이며 핵 매개 변인을 없애 최근 최소주의 보편 문법의 극소화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선웅의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연속 동사 구문"은 범언어적인 SVC의 특성을 살피고 언어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한국어의 핵문에는 SVC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고 AVC 역시 SVC의 일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국어에서 SVC로 다루어지는 구성은 S-구조에서 재구조화된 것으로서 범언어적인 핵문의 SVC와는 다름을 제시한 후 재구조화된 구성을 어휘부에 등재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누어 전자를 복합 서술어로 후자를 서술 복합체로 명명할 것을 주장하고 한국어의 AVC와 SVC는 서술 복합체의 일종이라고 하였다.

이규호의 "'체언+부사' 구성과 부사의 서술성"은 부사가 체언을 논항이나 관형어로 요구하는 현상을 살폈는데, 체언 논항을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사가 서술성을 가지며 체언 관형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부사가 명사적 성격을 가지는 구성을 '체언+부사'의 구성이라고 하고 이 구성은 체언이 수식어가 되고 부사가 중심어가 되는 부사구를 이룬다고 하였다. '체언+부사' 구성의 유형을 둘로 나누었는데, 부사가 서술어 기능을 하고 체언이 그 논항이 되는 구성을 '술어 논항 구성'으로 부르고 두 구성 성분의 통합 관계에 따라서 '주술 구성, 목술 구성, 부술 구성'으로 구분했으며, 서술어가 통째로 생략되어 만들어진 '체언+부사'의 구성은 '술어 생략 구성'으로 부르고 서술어는 '바람(이 분) 덕분에'처럼 부사의 앞쪽에서 생략될 수도 있고, '예상과 반

대로 (하여)'처럼 부사의 뒤쪽에서 생략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오충연의 "국어 어절의 통사적 내용"은 조사나 어미와 같은 문법 양식이 특정한 자질로 고정되지 않고 어절 단위에서 지시 받는 의미·기능적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국어의 조사나 어미가 이행하는 문법 관계는 단지 구성 내부뿐만 아니라 구문 전체의 구성과 조응하고 있으며 그 원리는 지시 체계에 의하므로 문장 안에 포함된 하나의 어절이 담고 있는 통사·의미 내용은 그 내부의 구성 요소들의 합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의 밖에서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수용한 상태의 것임을 논의했다. 이를 주어나 목적어가 담고 있는 한정적인 내용과 복수 표시, 보조사, 관형어의 현상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통사 이론이 투사와 일치를 근간으로 성분 구성을 설명하는 것에 반하여 화자가 가지고 있는 통합적 내용이 통사 구성의 하부로 지휘되는 체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했다.

엄홍준의 "한국어에서의 영 논항의 본질"은 한국어에서의 영 논항이 명사구(논항) 생략 분석에 의해 가장 잘 설명된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는데, 영 주제 변항 분석은 한 문장 안에 있는 영 목적어의 경우에는 잘 설명되지만 대등 접속절에서의 영 목적어의 경우와 동사구 생략 분석에는 잘 설명될 수 없으며, pro 분석도 재귀 대명사(대용사)가 목적어로 쓰이는 문장에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함을 제시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명사구 생략 분석에 의해 영 목적어를 분석하는 방식이며 영 주어의 경우도 영 목적어와 같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보이기 때문에 영 주어에도 명사구 생략 분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찬규·이성수의 "한국어 이차 서술 구문의 의미 변별과 상 구조"는 한국어 이차 서술 구문의 두 유형인 묘사 구문과 결과 구문의 자료를 기초로 두 구문이 상적 구조에서 차이를 보이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어 묘사 구문과 결과 구문이 형태론적으로 구분됨을 주장하면서 묘사 구문에 출현하는 형태소 {-아{서)}는 두 개의 요소로 구성되며, 여기서 {-아}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하고, {-서}는 전후의 시간 관계를 의미하는 반면에 결과 구문에 출현하는 형태소 {-게}는 단일 요소로서 특정 상태에 도달을 의미하는

데, 여기에는 시간 관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이런 시간 관계는 이런 시간 관계가 구문으로 투사되는지 여부에 따라 묘사 구문과 결과 구문이 구조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묘사 구문은 T의 투사이며, 결과 구문은 T의 투사가 아니라고 보았다. 상이한 두 형태소 {-아(서)}와 {-게}의 의미는 묘사 구문과 결과 구문의 상적 특성, 즉 미결(atelic)과 완결(telic)에 반영되고, 이것은 각각 「-동안」과 「-만에」 테스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배진영의 "어휘적 결합 표현의 유형 연구"는 기존에 관용구나 속담으로 사용된 결합 구성들을 제외하고 어휘적 연어 구성을 포함하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 단위 이상의 어휘 연속체로 이루어진 어휘 결합군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휘 결합군'이란 특정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미를 나타내기 위하여 실질 내용을 지닌 어휘들이 구 단위 이상의 연속을 보이는 구성체를 말하는데 이러한 '어휘 결합군'을 이루는 구성들을 대상으로 실제 말뭉치를 통하여 이들 구성들의 구조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에 나타나는 양상을 살피면서 어휘적 결합을 이루는 표현 구성의 유형을 상정하였다. 어휘적 결합을 이루는 표현 구성의 유형으로 '체언+(의)+체언, 체언+격조사+용언, 체언+용언, 용언의 관형사형+체언, 의태어/의성어+용언, 부사형 어미+용언, 합성 용언 구성, 보조 용언 구성' 등을 제시하고, 유형별로 나타나는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안명철의 "주격 중출 구문과 귀속역"은 한국어 구문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인 주격 중출 구문에 대한 그간 논의의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이 구문의 진성 주어를 NP1으로 보았다. 이때 발생되는 통사 · 의미론적 문제점의 극복을 위해 의미역은 단일 동사뿐 아니라 술어 동사로부터도 부여받을 수 있다고 보고 또한 국어에서 형용사나 일부 자동사의 주어의 의미역으로 '귀속역' 범주가 반드시 설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하였다. 한편 'NP2+V'가 귀속역을 NP1에 배당할 수 있는 내적 의미 구조를 가질 수 있으면 이 구성이 술어 동사가 되어 주격 중출 구문을 생성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여기에서는 이 절차를 확대 귀속역 도입 원리로 규정하고 이 원리의 적용 여부를 형용사 구문, 일반 동사 구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NP1의 생성

은 술어 동사의 의미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귀속역을 생성할 수 없는 의미 구조체들은 NP1을 생성할 수 없음을 보였다. 술어 동사는 내적인 결속력을 확보한 통사 단위로 초기의 느슨한 내적 결속체 구성에서 점차 연어적 구성, 관용어 구성 나아가서 복합 동사 형성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종남의 "국어의 부정 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은 국어 부정 극어(negative polarity item)의 허가자에 무엇이 있으며 어떤 원리로 부정 극어를 허락하는지를 밝히려고 시도했다. 명시적인 부정 문맥은 모든 부정 극어들이 허용되는 공통 조건인데, 국어에서 명시적 부정문은 '안', '못', '-지 않다', '-지 못하다', '말다', '모르다', '없다'에 의해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런데 '-기 싫(어하)다', '-기 어렵다', '-기 힘들다', '거절하다', '-기 전에', '-면', '-느니/기보다', 성분 부정, 수사 의문문 등 비명시적 부정 문맥을 이루는 표현들이 또한 일부 부정 극어를 허가하는데, 기왕에 제시되었던 부정 극어 허가자에 대한 여러 가지 허가 이론을 살펴보고 비명시적인 문맥에서 허가되는 부정 극어 허가자의 특징과 허가 양상을 살펴보았다. 국어의 비명시적 부정 극어 허가자 중 '-기 전에', '-느니/기보다'는 반형태 함수였으며 나머지는 반부가 함수였고, '-기 싫어하다', '-기 거절하다', '-기 전에'는 반진정적 운용소이고 '-기 어렵다', '-느니/기보다', '-면', 수사 의문문 '-기 힘들다'는 비진정적 운용소였다. 따라서 국어 부정 극어는 반부가 함수, 비진정적 운용소 이상에서 허가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임동훈의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은 문장 유형이 화행과 관습적으로 연관된 문법적 형식에 의해 표시되며,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상호 배타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한국어도 이러한 정의에 따른 다수의 문장 유형이 존재하며, 한국어에서 문장 유형의 일차적 분류 기준은 간접 인용절에도 나타날 수 있느냐 높임, 중간, 안 높임의 세 화계에 두루 나타나느냐의 두 가지로 보았다. 이에 따라 한국어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의 4가지 문장 유형을 설정할 수 있는데, 한국어 문장 유형은 주로 종결 어미에 의해 표현되고 특징적인 억양 패턴이 이에 동반된다고 하였다. 종결 어미가 나타내는 문장 유형의 문법 범주는 서법에 포괄될 수 있는데, 의미상 서법은 단언적인 것과

대립되는 측면뿐만 아니라 평서적인 것과 대립되는 측면이 있고, 서법은 크게 서실법과 서상법으로 나뉘는데, 평서문과 의문문은 전자에, 명령문과 청유문은 후자에 속한다고 보았다. 한국어에서 평서문은 다른 문형에 비해 무표적이지 않으며 반말체에서는 담화 참여자 간의 담화적 관계에 따라 세분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감탄문과 경계문이나 약속문은 독자적인 문형으로 간주할 만한 근거가 충분치 않아 평서문의 일종으로 보았다. 의문문은 크게 판정 의문문, 선택 의문문, 설명 의문문으로 나뉘는데, 판정 의문문은 화자가 어떠한 답변을 기대하는지에 따라 중립 의문문과 편향 의문문으로 나뉘고, 판정 의문문과 달리 의문사가 쓰이는 설명 의문문은 억양 패턴이 평서문과 동일하며 설명 의문문에 부정 극어가 나타나면 반대의 극성을 단언하는 수사 의문문으로 해석이 고정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였다. 명령문은 수행 주체의 인칭에 따라 세분되기도 하나 한국어는 명령문과 청유문이 독자적인 문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았다. 명령문의 서술어는 주로 동사이지만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를 나타내는 형용사에는 명령형 어미가 결합할 수 있으며, 또 기원이나 허락을 나타내는 문장도 명령문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는 개별화되지 않은 청자에게 쓰이는 문장들이 존재하는데 평서문은 '-다'형이, 의문문은 '-ㄴ가'형이, 명령문은 '-으라'형이 이를 담당하고, 청유문은 화자와 청자의 공동 수행뿐만 아니라 화자나 청자의 단독 수행 장면에도 쓰이는데, 이는 1인칭 복수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박소영의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격 교체와 '하다'의 유형론"은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격 교체에 대한 통사론적 분석을 제시하는데, 장형 부정문의 격 교체 현상은 '-지' 앞 서술어의 목적격 자질의 유무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장형 부정 형태와 결부되어 있는 동사 '하다'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였다. 한국어 '하다'는 중동사, 경동사, 허사의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장형 부정문의 격교체 비대칭성은 장형 부정 형태가 선택하는 어미 '-지'의 하위 범주화 특성과 부정문의 통사 도출에 있어서 허용되는 적법적인 가능성에 의한 필연적 결과라고 하였다. 그래서 '전이'라는 문제성 있는 특별한 기제를 가정하지 않고 장형 부정문에 대한 무리한 통사 구조를 가정하지 않고도 이 구문에 나타나

는 격 교체 현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 분석에서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하다'는 '하다'가 결부된 다른 구문, 즉 서술성 명사 구문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그 일반성이 검증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정훈의 "통사 구조 형성과 명사구 및 동사구"는 형식주의의 관점에서 한국어를 대상으로 통사 구조 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논의를 정리하고, 명사구와 동사구가 보이는 몇 가지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설명 방안을 살핌으로써 한국어 통사론의 지평을 조망해 보고자 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하는 가운데 의미역 위계, 사건 구조, 어순에 대한 이해, 문법 작용의 대상 단위, 다중 보충어 구조와 패각 구조, 다중 관할 등이 연구를 요하는 주요 현안임을 제시하였다.

이정훈의 "접속의 순서와 구조 그리고 의미 해석"은 어순과 같은 '순서 의존적 현상'을 대상으로 선형-관계 개념의 도움 없이 그 기능적 동기와 형식적 처리 방안을 모색했는데, 논항과 서술어가 동시에 등위 접속의 형식을 갖는 구성 [[ARG2 ARG3][PRED2 PRED3]]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기능적 관점에서 '순서 의존적 현상'의 '순서'는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제시 순서에 대응하고, 형식적 관점에서 순서 의존성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술어-논항 관계에 의해 파생되는 부수 효과이며, 순서 의존적 현상은 이동 작용과 뒤섞여 나타나기도 하는데 핵 이동 제약과 같은 독립적인 규칙이나 제약으로 그 순서 의존성을 해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정석의 "국어 미완절 보충"은 국어의 미완절의 미완성이 직접적으로 시상 형태소를 더하는 방법이나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통사적인 방법으로 극복될 수 있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러한 방법들이 미완절에 대한 시간적인 지시(temporal reference)를 정착시켜, 즉 시제 정착을 통하여 미완성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절의 사건 논항이 전형적인 시상소나 다른 사건 요소의 보충에 의해 비로소 통사적으로 인허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보충이 미완성 극복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이로써 통사적 시제가 의미적 시제로 연결되어 구체화된 사건 변항이 궁극적으로 절의 시제 운용소 결속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은섭의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은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에 대하여 그 개념을 다시 살펴보고 특정한 몇몇 성분들이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들을 효과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어휘부의 모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고찰하고 다음과 같이 내용을 요약했다. 첫째, 논항은 의미론적 성격의 개념으로서, 격 조사와의 통합 과정을 겪지 않은 채 바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없고, 둘째, 보충어는 문장 구성의 핵이 요구하는 통사적인 필수 성분이며, 셋째, 부가어는 보충어와는 달리 수의적인 성분으로서 배경과 관련된 사항들이 특별히 명세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실현되고, 넷째, 일부 서술어의 필수 부사어들은 해당 구성의 보충어로서 후행하는 서술어와 통합한 구성 전체가 단일한 서술어와 같이 기능하며, 다섯째, 필수 부사어가 통합된 서술어 구성은 기존의 어휘부에서 그 통사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어휘부를 확대하여 이 구성의 하위 범주화 틀 등의 통사 정보를 기술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현경의 “접속과 내포”는 접속과 내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검토하고 이 두 문법 범주와 관련된 통사론적 쟁점 및 통사 현상들을 정리했는데, 접속과 내포에 대한 논쟁이 여전히 유효하며 부정문이나 복문 등에서 발견되는 통사 현상에 대한 논의가 국어 문법론을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 접속과 내포의 문제를 논하면서 지금까지 접속과 내포를 형태적으로 분리하고 이를 절대적인 틀로 설명해 왔지만, 접속과 내포는 둘 이상의 사건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언어 현상이므로 의미는 결국 구조에 반영되고 형태로 실현되기 때문에 의미와 구조, 그리고 형태의 문제를 한꺼번에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 밖에 언어 유형론적인 논의와 다양한 자료 발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김희경의 “간접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 연구”는 간접 인용문에 나타나는 구조적 특징과 대격화, 주제화, 생략 현상을 살펴보았는데, 주어 대격화 현상의 형성 조건을 기술하고 주제화 현상의 특징으로 [+추측]의 ‘-겠-’과 결합이 불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인용문에서 모문의 술어가 실현되지 않는 현상을 생략 현상으로 보고 그 언어 환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신서인의 “문장 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은 문장 부사가 포함된 문장의 무표적인 어순은 무엇인지 밝히고, 문장 부사가 포함된 문장이 유표적인 어순으로 나타날 때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부사로서 문장 부사의 무표적인 위치는 문장 맨 앞으로 보고, 문장 부사를 포함한 문장이 유표적인 어순을 가지는 경우는 문장 부사가 다른 위치에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성분이 문장 부사 앞에 위치한 것으로 문장 부사보다 앞에 위치하는 성분은 주제화된 것이라고 하였다.

송창선의 “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은 국어의 기본 문형을 설정하는 데 문제가 되어 왔던 ‘이다’와 ‘아니다’의 문제, 이른바 ‘이중 주어 문제’를 비롯한 주어의 범위와 ‘이중 목적어 문제’ 그리고 인용문에 대해서 살핀 후, 국어의 기본 문형을 ‘제1 유형: 주어+서술어’, ‘제2 유형: 주어+보어+서술어’, ‘제3 유형: 주어+부사어+서술어’, ‘제4 유형: 주어+목적어+서술어’, ‘제5 유형: 주어+목적어+부사어+서술어’의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박진희의 “국어 목적절의 네 가지 유형”은 국어 목적절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유형의 특성을 밝히고자 했는데, 국어 목적절을 부가절의 의미 부류 중 하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 그 속성을 상위절과의 관계 의미로 파악하여 ‘-(으)려, -(으)려고, -고자, -자고, -(으)러, -게, -게끔, -도록, -(으)라고’ 부가절을 논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들을 의도의 양태 의미 유무와 수행적 상위절 제약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양태 의미, 의도는 행위주 동일 제약 등으로 확인하여 국어 목적절에는 ‘-(으)려, -(으)려고, -고자, -자고’의 유형 1과, ‘-(으)러’의 유형 2와, ‘-게, -게끔, -도록’의 유형 3과, 마지막 유형 4의 ‘-(으)라고’가 있다고 분류하였다.

김창섭의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은 보충어를 무표지로 취하여 그에 직접 결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생각’은 ‘*고향의 생각’이 아니라 ‘[[고향]NP [생각]N]NP’과 같은 구를 만들고, ‘이-’는 ‘*학생이 이-’가 아니라 ‘[[학생]NP [이-]V]VP’와 같은 구를 만드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단어들로 ‘부접어’라고 하는 어휘 범주를 설정하고, 부접어가 만드는 구나 문장을 ‘부접 구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처리로써 부접

동사 '답-', '이-', '같-', '시작하-'의 구문들을 체계적으로 기술할 수 있고, '이-'의 보충어가 조사 '이'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그것이 부접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정남·수 쉐페이의 "한국어 체언과 조사의 결합 제약에 대하여"는 한국어의 몇몇 체언이나 용언 중에는 모든 조사, 모든 어미와 결합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고 특정한 하나 혹은 소수의 조사나 어미와만 결합하는 제약을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런 제약 곡용형과 제약 활용형 중 제약 곡용형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 결합에 제약이 있는 제약 곡용 체언들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주로 '~' 꼴로 쓰여), (흔히 '~' 꼴로 쓰여), ('~' 꼴로 쓰여)와 같은 문법 정보를 주고 있으므로 그러한 예들을 검색하여 모두 172항목으로 구성된 체언 목록을 작성하고 그 각각의 체언들이 어떠한 조사들과 결합하는지를 하나하나 밝혔다. 단일한 조사와만 결합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예는 'N-에', 'N-의', 'N-(으)로' 형이 있으며 두세 개의 조사와 결합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단독형도 Ø라는 하나의 조사 결합형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표준국어대사전』 초판(1999)와 개정판(2008)에서 제시한 문법 정보 내용의 변화를 추적하여 문법 정보 속에 들어 있는 '주로'와 '흔히'라는 수식어의 함의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합에 제약을 보이는 체언들의 특성을 고찰하여 주로 한자어, 사자성어, 복합어의 비중이 높음을 밝혔고 이들이 특정 조사와 굳어져 나타나는 현상에 대하여 '어휘화'로 설명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민경모의 "지시사 수식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는 국어의 명사구 중 지시사 '이, 그, 저'가 관형 성분으로 쓰인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을 살피고 응집 관계의 관점에서 고찰했는데, 지시사 수식 명사구는 주로 관형사 수식 명사구와 동격 명사구의 구조로 파악되어 왔으나, 통사적 특징과 응집 관계를 살펴보면, 관형사 수식 명사구, 대명사 수식 명사구, 대명사 동격 명사구의 세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관형사 수식 명사구와 대명사 수식 명사구는 관형격 구성으로의 교체 여부, 복수 표지 '들'이 결합하였을 때의 구조 분석, 피수식 명사(구) 내부의 병렬 구성적 확장 여부에서 차이를 보이며, 대명사 수식 명사구와 대명사 동격 명사구는 피수식 명사(구)를 생략하

였을 때의 의미 해석, 조사 '의'의 실현 여부, 피수식 명사(구)의 복수 해석, 피수식 명사(구) 내부의 병렬 구성적 확장 여부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유형별 차이는 응집 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데, 관형사 수식 명사구는 피수식 명사(구)가 어휘적 응집 관계를 이루어 두 개의 응집 묶음을 가지게 되어서 명사구 전체의 의미 해석에 선행 문맥이 영향을 미치는 반면, 대명사 수식 명사구는 참조(reference)라는 하나의 응집 묶음만을 가지기 때문에 후행 명사(구)는 선행 문맥의 영향에서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았다. 대명사 동격 명사구의 경우에는 관형사 수식 명사구와 같이 두 개의 응집 묶음을 가지지만, 지시사와 후행 명사(구)의 지시 대상이 동지시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관형사 수식 명사구와는 그 특징이 다름을 보였다.

고석주의 "한국어 무주어문 유형 연구"는 한국어에서 문장의 주어가 언어 표현으로 나타나지 않는 구문들을 '주어 생략문'(subject-drop sentence)과 '무주어문'(subjectless sentence)으로 구별하여, 문장의 주어가 발화 맥락에 따라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복원될 수 있는 경우와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주어가 복원될 수 없는 경우로 나누었다. 한국어에서 '무주어문'은 그것이 기술하는 사태의 행위자가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크게 둘로 나뉘는데, 하나는 문장이 특정 사태가 아니라 '유형 사태'를 나타내므로 그 사태의 행위자가 존재하지 않는 구문들인데, 이와 같이 문장의 주어 지시체를 상정할 수 없는 경우는 '공주어(null subject)' 구문이라는 용어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문장이 특정 사태를 나타내고 그 사태에 존재하는 행위자의 일부는 파악할 수 있지만 행위자의 전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적절한 언어 표현으로 행위자가 지칭될 수 없는 경우를 '영 주어(zero subject)' 구문이라는 용어로 범주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7. 기타

윤평현의 "허웅 문법의 통사론 연구"는 허웅의 『20세기 우리말의 통어론』(샘문화사, 1999)에 대한 서평 논문으로서 책의 기본적인 내

용을 살피고 책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것을 언급했다. 허웅의 통사론이 구조주의와 초기 생성 문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았고, 허웅의 국어학 연구가 주시경과 최현배의 연구를 바탕으로 삼고, 아울러 서양의 최근 일반 언어학 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전통과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어학 연구사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통사론 연구에서 허웅은 최현배의 우리말본 체계를 염두에 두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체계의 간결성을 추구하고 있으며, 특히 '가려잡기'와 '손질'의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는 전통적인 국어학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을 서양 언어학 이론을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그 책에서 제시된 방대한 자료는 국어학 연구자들에게 귀중한 자산이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자료 속에서 허웅 교수 자신이 풀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과제와 가설들은 후학들이 해결해야 책무이기도 함을 언급했다.

이율하의 〈한국 수어의 동시적 결합 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는 한국 수어가 계기적인 결합뿐만 아니라 동시적인 결합으로도 언어 형식을 갖추고 있음을 통사론적 구성 차원에서 규명하고 있다. 한국 수어의 동시적인 결합 구성이 통사론적 구성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어 살폈다. 첫째, 한국 수어 문장 성분의 동시적 결합 구조는 수어 형태소의 수어소 자질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수어는 수형, 수동, 수위에 기초한 어족으로 상징적인 의미와 특징을 가질 수 있으며 특정 수어소로서 의미를 구성할 수 있다. 각각의 수어소가 의미 자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국 수어 문장 성분의 동시적 결합 구조는 수어 공간의 활용에 의해 구성될 수 있다. 수어 공간은 인칭을 가리키는 의미를 갖는다. 특히 일치 동사에서 주격과 목적격, 대상격 부사어는 수어 공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한국 수어의 일치 자질인 수동 방향, 수향, 수위에 의해 나타나는 수어 공간이 인칭의 의미를 갖는 문장 성분으로 기능할 수 있다. 화용론적 차원에서도 먼저 제시된 수어에 의해 어떤 대상이 수어 공간에 배치되면 다시 조정하지 않는 한 그 공간이 계속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게 된다. 셋째, 수어는 손의 동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수지 언어(手指言語)로서, 손짓을 조동해 내는 손이 두 개이므로, 한 손 수어 형태소

를 동시에 두 개 표현할 수 있다. 두 개의 한 손 수어 형태소가 동시에 결합할 수 있다. 한국 수어의 통사론적 구성에서 동시적 결합은 수어소의 의미 자질, 수어 공간의 문법적 활용, 두 손으로 이루어진 조동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송현주의 〈국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연구〉는 국어의 단어, 구, 문장의 세 가지 층위에서 언어 구조(form)와 의미(meaning)가 동기화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를 통해 언어 사용자의 개념화 방식을 살폈다. 단어 층위에서 복합어를, 구 층위에서 관용 표현을, 문장 층위에서 부정 구문을 살펴 이들이 자의적이기보다는 동기화되어 있음을 보였다. 도구명 복합어는 '동작 대상, 동작, 도구 접사'에 현저성을 부여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식물명의 경우 '자생지'와 '모양'에 현저성을 부여한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가 도구는 어떤 동작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공물인데 반해, 식물은 어디에서 어떻게 자생하는지 어떤 모양인지가 식물을 변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어떤 대상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환유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복합어를 형성하는 데는 지각적 현저성이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된다고 보았다. 관용 표현의 경우에는 '성공'과 '실패'의 개념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에만 한정하여 그 개념화 방식을 밝히고자 했는데, '성공'과 '실패'는 '목적이 있는 행동은 경쟁이다, 목적이 있는 행동은 삶을 위한 싸움이다, 발전은 생장이다, 주제를 다루는 것은 섭취이다, 발전은 물리적 이동이다, 발전은 기계의 작동이다.'와 같은 6가지로 개념화된다고 했다. 부정 구문에서는 짧은 부정 구문과 긴 부정 구문은 동의적이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실제 말뭉치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다음의 4가지 면에서 두 가지 부정 구문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용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안' 부정 구문과 '-지 않-' 부정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경우 서로 다른 의미와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안' 부정 구문은 명제의 의미를 부정하는 의미로서 직접적인 부정의 의미를 갖고 있으나 '-지 않-' 부정 구문에서는 명제적 의미를 부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표현하거나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담화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주로 사용됨을 보이고 그러한 차이에는 '안'과 '-지 않-' 자체의 길

이, '안'과 '-지 않-'이 결합하는 요소와의 거리, 평서문과 의문문이라는 문장 형식이 모두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또한 특정 단어는 특정 구문을 선호한다는 것을 빈도를 통해 보였다. 둘째, 사용역과 관련하여 부정 구문의 사용 빈도를 통해 [-격식성]을 갖는 자유 대화의 경우 짧은 부정 구문을 선호하고, [+격식성]을 갖는 학술 문어의 경우 긴 부정 구문을 선호함을 보였다. 셋째, 구문별로 사용되는 요소의 품사 비중을 살펴보았는데, '안' 부정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전체의 10% 정도를 차지하지만, '-지 않-' 부정 구문에서는 형용사가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이는 형용사는 동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면 대 면 대화인 자유 대화에서 형용사를 사용할 때는 '-지 않-' 부정 구문을 통해 부정의 의미를 약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넷째, 함께 사용되는 용언의 음절 수이다. 4음절 이상의 단어는 '안' 부정 구문보다 '-지 않-' 부정 구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배 정도 더 크지만, 항목과 유형 수를 보면 '안' 부정 구문과 '-지 않-' 부정 구문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 또한 의미적인 면에서 두 구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과 시차적으로 사용되는 것들 간의 의미적 공통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까지의 연구로서는 음절 수가 구문의 길이를 동기화하는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내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마쯔자키 마히루의 〈한국어 문장 연결 연구〉는 텍스트 내에서 사용된 지시, 접속, 생략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어의 문장 연결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인터넷 상에 공개되어 있는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조선일보의 사설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구축한 연구용 말뭉치에서 검색 소프트웨어인 '한마루'를 사용하여 용례를 추출하여, 지시 관형사와 접속 표현과 생략의 문장 연결 양상을 살폈다. 텍스트에서 문장이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대상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지시, 접속, 생략 등이 여러 문장의 집합체인 텍스트를 텍스트답게 하는 수단이며, 문장은 단순히 연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수단을 통해 연결되어 결국 하나의 텍스트가 된다고 하였다.

이향천의 "관계에 관하여"는 언어 기호와 관련한 관계의 설정이 자

의적이고, 약정에 의해서이고, 규범적인 성질을 갖는데 자의성의 원칙만 깊이 통찰해도 통사가 의미나 그 무엇을 결정한다는 통사 결정론적 시각의 오류를 피할 수 있다고 보았다. 언어의 구조는 여러 가지 관계로써 기술되며 세계의 구조도 관계로써 기술되는데, 사태는 무엇이 어찌하다는 서술로서 이 서술은 세계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적 현상으로서 언어를 써서 세계를 표상할 뿐만 아니라 세계를 그러한 것으로서 구성하므로 언어는 피동적인 표상체로 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언어의 분석은 의미를 배제한 형식주의로도 안 되고 논리적 분석(환원)만으로도 안 되며, 궁극적으로 언어 사용자의 언어 직관을 통해 들어가야 한다고 보았다.

목정수의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은 구어 문법의 존재와 그 가치를 입증하고자 하였는데, 기존 문어를 기반으로 한 국어 문법에서 취한 설명 방식이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구어를 위한 구어 문법의 모형 설정을 통해서 문어 문법까지 아우를 수 있는 통합 문법의 방향을 제시했다. 구어 현상에 대한 천착을 통해서 한국어의 주요 문법요소들에 대해 재인식하고자 했는데, 구어 문법에서는 조사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그리고 조사 생략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하는가를 구어 문법 중심에서 그 입장을 제시했다. 그리고 어미 '-(는)다'를 평서형 종결어미로 규정하고 있는 문어 문법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현상을 드러내고 구어 문법의 입장에서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한국어의 어미 구조체가 인칭과 문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원이라는 점을 밝혀 인칭 정보가 한국어 통사 구조를 밝히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입증하고, 구어체 문장의 분석을 위한 문법 모형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윤정원의 "『조선어 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연구"는 북한의 문법서인 『조선어 문장론』에 나타난 문장 유형의 종류와 그 구조에 관한 논의를 『표준 국어 문법론』에 나타난 남한의 문장 유형 분류 체계와 대비하여 살핌으로써, 『조선어 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체계를 검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난 문법 기술상의 특징을 논의하였다. 『조선어 문장론』과 『표준 국어 문법론』은 유사한 문법 항목을 다루고

있으나 『조선어 문장론』은 『표준 국어 문법론』에 비하여 기능 중심적인 시각에서 문장의 유형을 분류하고 그 각각의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였다. 『조선어 문장론』은 구조 외에도 기능 또한 기준으로 삼아 문장 유형을 분류한 반면 『표준 국어 문법론』은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문장의 유형을 분류한 점, 『조선어 문장론』이 문장 구성 단위 '부' 및 '구'를 설정하는 기준으로 기능을 제시한 데 반해 『표준 국어 문법론』에서 문장 구성 단위 '구'를 설정하는 근거는 기능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조선어 문장론』의 문법 기술은 『표준 국어 문법론』보다 상대적으로 기능 중심적인 성격을 보인다고 파악했다.

김혜영의 "명사 수식 구문의 번역 글쓰기 문제"는 번역 글쓰기에서 나타나는 명사 수식 구문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말 표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영한 번역문의 명사 수식 구문에서 발견되는 문제는 크게 영어 어순에 기댄 표현, 수식의 범주에 따른 중의적 해석, 관형격 조사의 반복, 다중 내포 관계에 따른 구조적 복잡성 등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어 수식어들 간의 어순을 정리하였고, 어순 교체, 어휘의 교체와 삽입, 쉼표 삽입, 문장 나누기 등을 통해 문장의 용인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고창수의 "문법의 차원 이론에 대하여"는 문법은 인간이 보이는 복잡한 현상의 일부이고 문법의 복잡성은 앞으로도 어려운 숙제이겠지만 문제는 문법을 탐구하는 방법의 정합성에 있다고 보았다. 특정한 이론적 틀 안에서 설명하지 않는 어떤 설명도 문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면서, 문법의 이론을 차원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문법은 복잡한 현상이기 때문에 문법의 각 요소들 중에는 층위와 층위 사이에 접점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현상이 이른바 통사적 접사로서 형태론적 층위에서는 접사로 기능하지만 통사론적인 층위에서는 단어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층위나 부문의 문제로 해결하기는 어렵지만 차원 이론에서는 이들을 다른 차원의 관찰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접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강영세의 "대격 허가: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촉면"은 논항의 대격

허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논항이 갖는 대격은 논항을 지배하는 활동 동사에 의하여 허가된다'는 논항 대격 허가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부사의 대격 허가를 설명하기 위하여는 "비위치 부사가 갖는 대격은 부사를 성분 통어하는 활동 동사에 의하여 허가된다"는 부사 대격 허가 규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의 규칙으로 통합하여 "가. 논항이 갖는 대격은 논항을 지배하는 활동 동사에 의하여 허가된다. 나. 비위치 부사가 갖는 대격은 부사를 성분 통어하는 활동 동사에 의하여 허가된다."는 대격 허가 규칙을 설정하여 국어의 대격 허가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격 중출 구문에 들어있는 대격의 허가도 그러한 대격 허가 규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고 주장했다.

김민국의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는 공시적으로 다양한 성격을 지니는 '말이다' 구성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이들의 의미·기능과 문법적 특성을 고찰하였고 문법화 이론을 통해 이들의 변화 원리, 변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말이다' 구성의 변화는 문법화 양상을 보이는 동시에 화용화 양상도 함께 보이지만 '말이다' 구성의 화용화 양상은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 과정과 동일하다고 보았다. '문법화'라는 용어가 가진 일반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화용화는 문법화의 하나로 보기 힘들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법화'라는 용어가 가진 함의를 살펴보았는데, 문법의 외연을 보다 넓게 설정하여 언어 변화와 언어 변이에 대한 일반적 원리로서의 문법화라는 의미에서 화용화는 문법화의 한 종류로 보는 관점을 제시했다.

8. 맺음말

이상으로 2011년에 발간된 단행본과 논문을 대상으로 국어 통사론 분야의 연구 성과를 크게 조사, 어미, 어휘 범주, 문법 범주, 구문 구조, 기타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검토하면서 느낀 소감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통사론 분야는 과거와 달리 특정 이론이나 특정 주제가 연구를 주도

하는 흐름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고 공시적 관점의 순수 통사론만의 연구보다는 특정 언어 단위에 대해서 통사론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연구들이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학위 논문에서 두드러지는데, 다른 언어와의 대조적 연구와 통시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이와 함께 다른 분야에 비해, 그리고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어 통사론 분야가 위축된 양상인 것으로 보인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국어의 통사 현상을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다루는 연구들이 조금씩 늘어간다는 점이다.

필자가 통사론 분야의 논저들을 온전하게 살피지 못하고 읽어 내지 못한 내용이 있을 줄 안다. 다시 한 번 저자와 독자에게 널리 양해를 구한다.

어휘론 · 의미론 · 화용론

도 원 영
(고려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에 발표된 국어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연구 동향과 주요 논의를 소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11년에 발표된 논저 중에서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에 해당하는 논저의 총수는 380여 편으로, 단행본이 24권, 박사 학위 논문이 5편, 석사 학위 논문이 118편, 일반 논문이 240여 편에 이른다. 이 중에서 학술적 성과로 보기 어려운 글을 제외하고 어휘론, 의미론, 화용론의 순서로 개괄하고자 한다.

먼저 각 분야별로 서두에 총론에 해당하는 논저를 언급하였다. 이어 어휘론은 어원론과 어휘사, 어휘의 양상, 어휘의 습득과 교육, 어휘 조사와 계량, 어휘 대조 등으로 나누었고 의미론은 어휘 의미론, 문장 의미론, 인지 의미, 의미 변화와 확장, 의미 습득과 교육 등으로 갈래를 지었다. 화용론은 발화 의미와 화행, 담화 표지와 화시, 함축, 담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 의사소통과 화법 등으로 나누었다. 이는 수백 편의 글을 편의상 분류한 데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는 논문의 주제가 다른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좁게는 어휘론과 의미론, 화용론 간의 경계를 넘나들고 넓게는 형태론과 통사론, 사전학과 사회 언어학, 국어사, 국어 정보학, 교육학, 심리학, 철학 등도 관련되어 있다. 이에 논저의 내용이 다른 분야나 분과와 겹치는 경우에는 국어의 어휘 · 의미 · 화용적 측면에 집중해서 살폈다.

이 글에서는 각 분야별 논저에 대해 학문적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영역별, 주제별로 새롭게 다루어진 논문을 소개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었다. 이는 각 논저에 대해 연구사적 평가를 내리기에 턱없이 부족한 필자의 역량 때문이며 무엇보다 그간 우리말의 어휘와 의미, 화용에 관한 연구에 천착한 연구자들의 성과를 두루 소개하는 것이 연감의 성격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여 주요 논의를 소개하지 못하였거나 저자의 논지를 잘못 파악한 경우는 오로지 필자의 책임이니 미리 양해를 구한다.

2. 어휘론

2011년도에 발표된 어휘론 분야는 먼저 일반론에 해당하는 성과를 정리한 다음, 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어원론과 어휘사를 개괄하고 공시적 관점에서 접근한 어휘의 양상, 어휘 습득과 교육, 어휘 대조의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1. 어휘론 일반

『국어 어휘론 개설』(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은 책의 머리말에 언급한 것처럼 '국어 어휘론' 분야에서 모처럼 나온 개론서이다. 이 책에서는 언어에 대한 문화적·사회적·교육적 접근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향후 언어 연구의 핵심이 어휘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방적 구조의 어휘에 대한 연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어휘론의 주요 주제인 국어 어휘의 특성, 국어 어휘의 어종, 어휘의 계량과 기본 어휘, 어휘와 의미, 어휘와 사회, 관용 표현 등 6개의 장으로 나누어 다루었다. 어휘론에 대한 개론서가 태부족한 상황에서 어휘의 기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최근의 어휘 변화 양상, 어휘 계량의 성과까지 반영하고 있어 어휘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만한 성과이다.

2.2. 어원론과 어휘사

국어 어휘에 대한 최초형을 찾아가는 분야가 어원론이라면 어휘사는 현재까지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어원론에 해당하는 성과를 살펴보겠다.

『우리말 수첩』(김양진)에서는 국어사전의 뜻풀이만으로는 어휘의 의미와 역사가 충분히 이해되지 않는 말 600여 개를 골라 어원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풀어 주었다. 이들 어휘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의 용법 정보에 채 담지 못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특징은 고유어뿐만 아니라 한자어, 외래어 등 어종을 한정하지 않았고 파생어와 복합어도 포함하였으며 발음의 변화나 표기의 변화, 조어 과정의 특징 등을 통해 단어의 어원을 살폈다. 예를 들어 '개암'의 경우 15세기 『구급간이방언해』에 실린 형태를 최초형으로 보고 형태의 변화를 설명하였다. '낭패(狼狽)'는 9세기 당나라 단성식의 『유양잡조』에 나오는 말로 앞다리가 길고 뒷다리가 짧은 이리를 말하는 '낭'과 뒷다리가 길고 앞다리가 짧은 이리를 말하는 '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고 하면서 현재 쓰이는 '낭패'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애굽'은 이집트의 고대 그리스식 이름 'Aigyptos'를 음역한 데서 온 말이라고 보았다.

"'장마' 관련 어휘의 어원과 의미"(조항범)에서는 15세기 이래 존재한 '장마' 관련 어휘의 어원과 의미, 형태와 의미의 변화, 의미 대립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장마 관련 어휘에는 '한비, 오란비, 마ㅎ, 댱마ㅎ, 맛비, 댱마비' 등이 있으며 '한비'는 15세기 문헌에 등장, 본래 큰비(大雨)라는 뜻이나 부차적으로 장마를 뜻한다고 하였다. '오란비'는 15세기 문헌에 등장, 근대 국어 이후 세력이 약화되었고 '마ㅎ'는 근대 국어 문헌에 등장했으나 중세 국어에서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당마ㅎ'는 16세기 문헌에 등장, '오랫동안 내리는 비'에서 '비가 오랫동안 내리는 현상'이라는 의미가 파생하여 '댱마비'로 변형, 18세기 이후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골', '산', '들'에 준거하여 생성된 '내(川)'의 명칭에 대하여"(조항범)에서는 '골, 산, 들'에 준거하여 생성된 '내'의 명칭에 대해 종

합적으로 다루었다. 골에 준거해 생성된 '골내, 실내'는 골짜기에 있는 내를 지시하는 명칭이며, 산에 준거해 생성된 '뫼내, 산내, 달내'는 산에 있는 내를 지시하는 명칭이고, 들에 준거해 생성된 '들내, 벌내'는 들에 있는 내를 지시하는 명칭이라고 풀이하였다.

"모음 교체와 관련된 어원"(김무림)에서는 모음 교체를 보이는 어휘를 대상으로 현대 국어의 모음 체계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음 교체에 대해 살폈다. '아~으', '아~우'의 교체는 중세 국어로 소급시키면 모두 'ᄋᆞ~으'의 모음 조화에 의한 교체로 환원되며 이와 같은 모음 교체 과정에서 음성 모음인 형태가 기본 형태이며 이로부터 양성 모음으로의 교체가 일어났다고 판단하여 'ᄋᆞ~으' 모음 교체는 등가적이고 평행적인 관계가 아니라 '으'가 'ᄋᆞ'에 선행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땀띠'와 '뙤약볕'의 어원"(김무림)에서는 '땀띠'와 '뙤약볕'의 어원을 형태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땀띠의 '띠'와 뙤약볕의 '뙤약'은 본래 같은 말이며 '뙤야기'의 3음절을 1음절로 줄이는 경제성의 원리에 의해 '띠'가 형성되었으며 '땀되야기, 땀되약'이 형성된 이후 '뙤약볕'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론하였다.

비교적 최근에 생성, 유통된 어휘에 대한 어원 연구도 이루어졌다. 바로 '한류'에 대한 어원 분석이다.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장규수)에서는 한류를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현상'으로 정의하고 한류가 중국 언론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문제 제기를 한 다음, '항류', '일류'에 이어 한류라는 표현이 아시아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기 시작했고 1999년 문화부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음반의 이름에서 시작, 한국 드라마의 일본 성공 이후 널리 사용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한류의 사용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어휘사적 연구 성과를 살펴보겠다. 먼저 근현대 시기 국어의 신어 정착에 대한 논문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신어의 정착 연구: 1920~1930년대 대중 잡지에 소개된 신어를 대상으로"(김태훈·박상진)에서는 일제의 문화 통치 아래에서 발간된 '천도교회월보, 신민, 조선지광, 개벽' 등 잡지 25종에서 신어를 확인하고 목록

을 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신어를 9가지 계열, 즉 신어 계열/술어 계열/숙어 계열/유행어 계열/모던어 계열/외래어 계열/신문어 계열/현대어 · 첨단어 · 사회어 계열/기타 계열 등으로 나누고 신어의 정착 기준과 정착 여부 판단 기준을 각각 제시하였다.

"1920~1930년대 대중 잡지의 어휘 소개에 대하여: 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박상진)에서는 1920~1930년대 당시 신어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아 '어휘 소개란'을 뜻하는 다양한 명칭이 있었음을 밝히고 대체로 한자어와 외래어의 어종을 구분하려는 의식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유의어 분석을 통한 어휘사 연구: 1930년대 대중 종합지 『삼천리(三千里)』를 중심으로"(안예리)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즉 근대 국어에서 현대 국어로 오는 과도기적 시기에 어휘 체계가 흔들리는 양상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1930년대의 한국어를 대상으로 새로운 어휘의 유입에 의한 유의어 간의 경쟁 관계를 '시대'와 '시절'의 의미적 경쟁, '때문'과 '까닭'의 분포적 경쟁으로 나누어 고찰하고 말뭉치를 이용해 양적 분석과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언어적 혼란 속에서도 일정한 질서가 포착된다는 점을 밝혀냈다.

"'듣다'(落)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신은수)에서는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누어 국어의 '듣다'의 특징을 살피고 의미를 기술하였다. 15세기에는 '구체물이 내려지다', 16세기에는 '어떤 상태가 나타나다', 18세기에는 대상이 비나 이슬 등으로 축소되면서 '구체물이 내려지다'로, 19세기에는 액체에 한정되어 하강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로 축소되었으며 20세기 전반에 '어떤 상태가 나타나다'의 의미로 많이 쓰였고, '빛깔이 나오다' 등의 '생성'의 의미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현대어 '사과'의 통시적 혼란상과 정착 과정"(이광호)에서는 '사과'는 중 · 근세어에서는 한자어 '沙果, 楂果, 査果'로 쓰였고 현재의 사과와 의미적 연관성을 가진 단어는 '林檎, 林禽, 來檎, 柰禽, 來禽, 柰檎'으로서, 고유어 '멎'과 '농배'가 대응한다고 하였다. '멎'과 '벚'은 형태상 유사성으로 혼란을 야기하지만 '벚'은 사과와 관련이 없으며 '벚'이 아닌 '벗'과 한자어가 연관되어 있고 '멎'이 『해동농서』 이후

에 사과에 대응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표기(表記)와 문법(文法)"(정희창)에서는 '부딪-'에서 '부딪치-'와 '부딪히-'가 파생된 것으로 보았던 기존의 견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역사적인 발달 과정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우선 '부딪다'와 '부듸치다'는 서로 독립적인 어휘였지만 '부딪다'에 이끌려 '부듸치다'를 '*부딪치다'로 재분석하여 '부딪치다'가 생성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부딪치-'의 자동사적인 용법과 타동사적인 용법이 '부딪치-'와 '부딪히-'로 나누어져 '부딪히-'가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통사적인 관점에서 '부딪히-'는 피동문을 형성한다고 하기가 어려우며 의미적으로도 능동과 피동으로 선명하게 나누어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부딪히-'의 설정이 정당하다고 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문헌 성격에 따른 한자어 수용 양상"(김무식)은 시가 자료 '용비어천가, 두시언해, 사미인곡', 경서류 '석보상절, 번역소학, 칠대만법', 생활문 중 일기류 '병자 및 산성일기', 한글 편지 자료 '순천 김씨 한글 편지, 현풍 곽씨 한글 편지', 한글 소설 '홍길동전'을 대상으로 자료에 등장하는 고유어 및 한자어의 증감 양상을 계량 언어학적으로 분석한 논문이다. 고유어와 한자어의 증감 양상은 언해 여부보다 글의 제재와 관련한다고 밝히면서 고유어의 비중이 높은 순서는 '경서류〉한글 편지〉일기류〉홍길동전'으로 나타났으며 운문이 산문보다 고유어의 비중이 높았고, 홍길동전과 산성일기는 정치 상황을 다루어 한자어가 많았으며 필사체 자료인 편지류와 일기류는 균질하게 나타났다고 분석 결과를 밝혔다.

"중세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그 형태·의미적 특성"(이영경)에서는 냉각 표현에서 '칩다'에 의해 제한적으로 물리적 온도와 생리적 온도의 구별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세 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가 이원적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온각 표현으로는 '덥다', '덥듯ᄒᆞ다', '둣다/둣ᄒᆞ다/ᄃᆞᄉᆞ다', '*둣둣다/듯듯다', '*둣믜욘ᄒᆞ다', '믜곤ᄒᆞ다' 등의 어휘가 있고, 냉각 표현으로는 'ᄎᆞ다', '칩다', '사ᄂᆞᆯᄒᆞ다/서늘ᄒᆞ다/ 서느럽다', '서느서늘ᄒᆞ다' 등이 확인된다고 하였다. 이들은 단순하지만 정연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파생,

합성, 내적 변화, 중첩 등 국어 감각 어휘의 주된 단어 형성 절차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흥미로운 어휘 부류라고 소개하였다.

"중국 조선어의 한어 기원 한자어에 대한 고찰"(남명옥)에서는 중국 조선어가 한자를 유대로 한어 기원의 한자어를 수용하여 민족어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어가 현대 한어에서 새로 수용한 한자어를 한어 기원 한자어로 정의하고 한자음으로 읽을 수 있다는 점과 조선어 어휘 체계에 들어왔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었다. 이어 중국 사회의 변혁과 관련하여 수용 양상을 살피고 동의어 충돌, 의미 변화 등의 의미 특징을 정리하였다.

"최남선 역 『ABC계』의 한자 번역어 고: 신한어의 수용과 창출"(황미정)에서는 한국 근대 어휘 형성에서의 최남선의 역할을 분석하고 근대에 등장한 새로운 번역어와 전통적 개념들의 연관성을 살폈다. 최남선이 신한어, 즉 막부 말기 이후 일본에서 서양 문물과 관련된 개념어를 번역하기 위해 만든 말을 수용한 것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최남선이 일본인 하라 호이츠안의 번역본에 등장하는 신한어들을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자어로 대체하거나 자신이 조어한 단어로 대체한 경우도 있음을 밝혔다.

2.3. 어휘의 양상

여기서는 어휘의 다양한 양상을 다룬 연구를 묶어서 개별적으로 다룬다. 어휘 부류별 특징에 따라 현저히 구별되는 논문들을 정하여 각각 한자어와 혼종어, 색채어, 관용구와 속담, 지명, 겹말 등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2.3.1. 한자어 · 혼종어

"국어사전 속의 이두식 한자어 연구"(김양진)에서는 이두식 한자어를 이두식 한자어로 인식하지 못하여 발생한 국어사전에서의 혼동과 부정확한 기술에 대해 다루었다. 국어사전에서 다의어와 이의어를 혼동하거나 고유어와 이두식 한자어를 혼동하는 경우의 예를

분석하면서 이두식 한자어의 확장 문제를 다루었다.

“한자어의 유형 분류 재고: 한중일 한자어의 대조 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고찰”(김희경)에서는 한자어 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을 파악하여 유형 분류를 시도하였다. 한자어 간의 의미 일치도를 분석한 뒤 어휘 의미적 특징을 대조한 결과 중국어는 광범위성, 일본 한자어는 구체성을 가졌으며, 한국어는 음역된 한자로 인해 새로운 의미의 한자어가 낮은 분포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중일 한자어는 외형적 유사성에 비해 의미 일치도가 낮다고 하면서 의미의 관련성을 근거로 동형 완전 동의어, 동형 부분 동의어, 동형 부분 이의어, 동형 완전 이의어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부분적 형태 차를 보이는 한자어의 의미 차에 따라 이형 완전 동의어, 이형 부분 동의어, 이형 부분 이의어, 이형 완전 이의어로 분류하였다.

“혼종어(混種語) 형성(形成)과 어종(語種) 제약(制約)”(노명희)에서는 최근 신어에서 혼종어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은 어원 의식의 약화 또는 어종 제약의 약화를 뜻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혼종 두음절어가 많고, 구 이상의 단위도 줄여 쓰는 현상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어에서 혼종 합성어는 한자어와 결합한 예가 가장 많고 고유어도 혼종 합성어의 비율이 높으며 외래어는 외래어끼리 결합한 단일 어원 합성어가 많다고 밝혔다. 파생어의 경우 고유어 접두사는 외래어 어기와 결합한 경우가 많지 않으며 한자어 접사 신어가 거의 없어 어종에 대한 제약을 보인다고 하면서 예외로 ‘-족’은 어기의 어종 제약이 거의 없고 외래어 접두사는 외래어 어기에만 결합, 외래어 접미사인 ‘-ism, -tic’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에 결합하여 어종 제약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2.3.2. 색채어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이현희)에서는 한국인의 색채 인지 방식과 그 언어적 표현 간의 관계를 다루었다. 색채 표현을 크게 지시형과 서술형으로 나누어, 지시형 색채 표현을 물리적으로 색채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보고 특정 색상, 명도, 채도 등을

지정하는 언어 표현과 전문가 집단에 의해 학술적으로 지정된 색 이름이 있다고 보았다. 서술형 색채 표현은 색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가 포함될 수 있고 물리적 색채 표현보다는 색의 보임에 따른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2.3.3. 관용구와 속담

관용구나 속담,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숙어에 대한 논저가 여러 편 나왔다. 그중 김한샘의 『한국어 숙어 연구』는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 책에서는 중의성을 띤 숙어를 대상으로 통사적, 의미적, 계량적 특성과 번역, 사전 기술, 언어 공학적 처리까지 다루어 숙어 정보 처리의 이론과 실제를 아우르고 있다. 책의 말미에 각종 사전류와 말뭉치에서 추출한 숙어 표현을 제시하고 있는데, 사전 출현 빈도, 문자적 의미로 쓰인 빈도, 숙어적 의미로 쓰인 빈도와 함께 각각의 사용 영역과 의미 유형을 제시하여 숙어의 사용 양상과 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자료 가치와 활용도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정연주 · 최석재 · 정경미 · 홍종선)에서는 감정 표현 관용구가 '구' 단위로 다룰 만한 이유를 지녀야 하며, 결합적 관습성을 기본 특성으로 가져야 성립한다고 보았다. 구를 이루는 일부 요소가 감정의 의미를 전적으로 담당하지 않고 구 전체를 통해 감정의 의미가 드러나고 관습적으로 부호화된 의미로서 감정의 의미를 내포하며 자극체에 의해 유발되는 비의도적인 감정을 의미할 때 등으로 범위를 설정한 뒤 이 기준에 맞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목록을 제시하였다.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최석재 · 정연주 · 정경미 · 홍종선)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 말뭉치에 수록된 소설 자료를 이용하여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감정의 무의지적 속성은 주로 '주격어+서술어' 구조로 나타나며 감정의 강렬함을 함축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정 유발 자극체의 능동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목적격어+서술어' 구조를 사용한다는 점, 감정의 내적

진행이나 외적 표출 상황은 환유적·은유적인 묘사로 주로 '체언+용언' 구조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2.3.4. 지명

지명 연구로는 석사 학위 논문인 정진규의 〈초평면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가 유일하다. 이 논문에서는 진천군 초평면 지역의 지명 368개를 전부 요소를 중심으로 '동물, 모양, 물, 사람, 사물, 생활, 성질, 수(數), 식물, 신구(新舊), 역사, 위치, 유물, 전설, 종교' 등으로 분류하고 후부 요소를 중심으로 '고개, 고을, 골짜기, 날, 다리, 당(堂), 대(臺, 垈), 들, 말(마을), 미, 바위, 방죽, 배미, 보(洑), 봉(峰), 산(山), 소(沼), 전(田), 지(池, 址), 촌(村), 터, 펀' 등으로 분류해 의미별 분포 수를 살폈다. 전부 요소 중 '위치, 모양, 사물'이 지명 명명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후부 요소 중에는 '골짜기, 고개, 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바, 이를 통해 지명 명명의 대상으로 사람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들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을 밝혔다.

2.3.5. 겹말

"겹말의 의미와 생성에 대하여"(이동석)에서는 겹말의 내부적 의미 관계를 검토하여 겹말이 잉여적 표현인지의 여부와 겹말의 생성 원인을 살피고 있다. 먼저 겹말은 어종별로는 '고유어+한자어' 결합이 가장 일반적이며 동종어끼리 결합을 이루는 경우가 적다는 점, '한자어+고유어' 결합이 많고 한자어 단어에서 중심을 이루는 의미가 고유어의 의미와 중복되는 경향이 강하다고 주장하였다. 구성별 분류에서는 복합어, 명사 연쇄 구성, 명사 수식 구성, 서술어 수식 구성, 주어·술어 구성, 목적어·술어 구성, 서술어 연쇄 구성으로 나누어 살피면서 겹말을 비문법적 표현으로 본 기존의 관점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였다.

"시조에 나타난 반복 표현의 의미 특성"(하길종)에서는 현대 국어 이전의 시조에 나타나는 반복 표현들을 단어와 구, 절의 반복까

지 확대하여 다루었다. 특히 『청구영언』, 『가곡원류』, 『해동가요』 등 세 시조집을 대상으로 동의 반복, 의사 반복, 한자어 반복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의미, 화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4. 어휘 습득과 교육

예년에 비해 어휘 습득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주요 논의로는 "『그림 어휘력 검사(PPVT-K)』 어휘 단위에 대한 개념 분포 및 개념 층위 연구"(배희숙 · 김현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언어 치료 분야의 어휘력 진단 평가 도구 중에서 중의성이 배제되어 의미 구분이 달리 필요하지 않은 『그림 어휘력 검사(PPVT-K)』의 어휘 단위를 대상으로 각 어휘 단위는 어떠한 개념에 해당하는지, 이들 개념은 개념 체계 내에서 어떤 개념 층위를 차지하는지를 살폈다. 대표적인 낱말 112개를 대상으로 'KAIST 다국어 어휘 의미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어휘 단위가 구체와 추상에 고루 분포되어 있었지만 만 3세 이전의 영유아는 추상 비율이 높았고 내부 체계에서는 일부 노드에 편중된 분포가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어휘 단위가 일반 분야 개념 체계의 말단에 분포하였으며 일반 분야와 전문 분야를 아우르는 개념 체계에서 중간 층위에 해당하였다고 밝혔다.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연구"(이연정)에서는 텔레비전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을 한국어 어휘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광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광고적 효과를 위해 사용되는 의인화와 각종 은유 표현의 근원 영역에 대해 분석하고 인지 체계 내에서 친근하고 합리적 ·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은유 기제를 살펴, 은유 표현에 대한 도입과 연습, 확장 단계별 학습 방안을 제시하였다.

2.5. 어휘 조사와 계량

교육용 어휘 선정과 조사에 관한 연구로는 김한샘의 "교육용 어

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어휘 계량 단위로서의 단어족 개념 적용의 효율성 검증에 초점을 맞추어 빈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단어족의 개념과 적용 방안을 제시한 뒤 단어족 개념에 기반한 어휘 분석을 시도하여 같은 수의 어휘를 제시했을 때 단어족 단위로 제시하는 것이 개별 어휘를 기준으로 한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점, 단어족 기준의 어휘 목록의 작성 및 제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단어족과 함께 제시할 어기와 결합하는 요소의 목록과 분류의 작성·제시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신문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조사와 계량적 분석을 다룬 논문이 두 편 발표되었다. 먼저 "신문 광고 어휘의 품사별·어종별 분포 양상"(서은아)에서는 1896~1996년에 발행된 신문의 광고를 7기로 구분한 뒤 시기별로 신문의 일정량을 표본 조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광고 963개, 문장 3,548개, 어절 수 56,713개, 전체 어휘 54,398개, 개별 어휘 15,742개 등의 조사 결과를 밝힌 뒤, 품사별 분포와 어종별 분포를 제시하였다. 특히 어종별 분포에서는 한자어(46.5%)〉고유어(40.8%)〉혼종어(10.6%)의 순서로 나타났고 고유어 사용 빈도에서는 동사의 빈도가 29.1%, 한자어 사용 빈도에서는 명사의 빈도가 92%, 혼종어 사용 빈도에서는 동사의 빈도가 66%, 혼종어 구성 가운데 '한자어+고유어' 구성이 97.5%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신문 사설의 어휘적 특징: 2009년 신문 코퍼스에 기초한 키워드 연구"(김혜영·강범모)는 2009년의 4개 일간지의 사설과 해당 연도의 보도문 기사의 핵심어를 비교한 논문이다. '물결 21' 코퍼스를 대상으로 사설 120만 어절의 어휘 빈도와 핵심어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무를 나타내는 서법 표지 '-어야/아야(하다, 되다)'의 사용 양상, 당위성 진술 '옳다, 당연하다, 분명하다, 마땅하다'와 사건이나 이슈를 해석하거나 완화하는 표현 '것이다'의 양상, 부사 사용에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강조를 나타내는 표현인 '제대로, 결코, 물론' 등이 독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호소하고 있다는 점, '-는가'와 같은 어미를 통해 수사적 질문을 하여 화자가 원하는 대답을 청자로부터 유도하는 화행을 보인다는 점, '이런', '그런'

등의 관형사는 화자와 독자가 상호 공유하는 정보를 주로 다루고 있다는 점 등을 밝혀내었다.

2.6. 어휘 대조

어휘론 분야에서 국어를 다른 언어와 대조하는 연구 경향은 예년에 이어 2011년도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가운데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를 대조한 연구가 수적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중국인 유학생의 지속적인 증가 때문이다. 특히 대조 연구로 박사 학위 논문 두 편이 제출되었다. 〈한 · 중 동사의 의미 대조 연구: '보다'와 '보다' 복합어를 대상으로〉(황림화)와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복어 대조 연구〉(전락)이다. 〈한 · 중 동사의 의미 대조 연구: '보다'와 '보다' 복합어를 대상으로〉는 한국어와 중국어 동사의 대응 관계 및 대조 기준, 대응 양상을 다루었다. 한국어 동사 '보다'의 28개 단의와 '보다' 복합 동사 49개의 140여 개 단의를 '관찰', '관찰 · 판단', '동작', '획득'으로 분류하였다. '관찰'은 '보다'의 기본 의미를 바탕으로 한 의미로, '관찰 · 판단'은 '보다'의 기본 의미에서 문맥적 변이를 통해 '판단'으로 전환되어 확장된 의미로, '동작'은 지각자의 역할 처리 기능 중 기능적 처리자가 지각 행위를 통하여 관련 행동으로 부각한 의미로, '획득'은 첫 단계의 관찰에 의한 단계에서 확장을 통해 가장 주변적으로 확대한 의미라고 보았다. 이어 동사 '보다'와 '보다' 복합 동사를 대상으로 대응 중국어의 목록을 제시하고 의미 자질을 도입하여 의미 분석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복어 대조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 반복어의 형태와 그 의미적 특징을 대조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규칙화하였다. 어떤 말이 형태의 변동 없이 반복되거나 일부가 바뀌어 반복되는 언어 형식으로 정의한 반복어를 유형화한 다음, 한국어와 중국어의 체언, 용언, 부사 어근의 반복, 비어근 반복을 살펴보았다.

그 외에도 다양한 어휘 부류에 대한 대조 연구가 진행되었다. 관용구에 관한 연구로는 "한 · 중 이형 동의(異形同義) 관용어의 의미 생성 양상: 완전 이형 동의 관용어를 대상으로"(왕보하), "러 · 한 관

용어에 나타난 여성의 양상”(이희숙), 〈한·일·중 신체 어휘 비교 연구: 두부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장령), 〈고유어계 관용구와 한자어계 관용구의 비교 연구〉(두전하) 등이 있다. “한·중 이형 동의(異形同義) 관용어의 의미 생성 양상: 완전 이형 동의 관용어를 대상으로”는 한국어의 ‘체언+용언’형 관용어 3,265개와 중국어 사전에 실린 관용어 2,414개를 분석하여 완전 이형 동의 관용어 125쌍을 추출한 다음, 구성 요소의 기본적 의미와 파생적 의미를 분석하고 앞뒤 어절의 의미가 전의되어 쓰이는 경우를 파악하였다. 양 언어의 완전 이형 동의 관용어가 형성된 원인을 체언의 동일한 파생적 의미, 용언의 동일한 파생적 의미, 체언과 용언의 동일한 파생적 의미로 나누어 살폈다.

“러·한 관용어에 나타난 여성의 양상”은 양 언어의 관용어에 대해 구성 요소의 형태적 속성에 따라 여성을 지칭하는 인물을 포함한 관용어와 여성을 간접적으로 의미하는 구성 요소를 포함한 관용구, 동물을 포함한 관용구로 나누어 러시아어와 한국어의 양상을 비교하였다. 의미적으로는 여성의 내적 속성(적극성, 부도덕성, 교활성, 포용성/유용성, 열등성)과 여성의 신체, 결혼 및 가정으로 나누어 차이를 살폈다.

속담에 관한 연구로는 〈한국과 일본 속담의 비교 연구〉(김현아),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손성영)”, 〈한·중 양국의 속담의 비교 연구: 빈곤, 부유에 관한 속담을 중심으로〉(둬잉), 〈“개”와 관련된 한중 속담, 성어 대비 연구〉(임병) 등의 석사 학위 논문이 있다.

그 외 신체어, 사자성어, 존칭어, 색채어, 호칭어, 친족어, 완곡어 등 다양한 어휘 부류의 대조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부분이 석사 학위 논문들이다. 내용 요약은 생략한다.

번역학의 측면에서 이루어진 이언어 간의 대조 연구 성과도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김정우)에서는 영한 번역에 관한 연구사를 통시적 연구와 공시적 연구로 나누어 정리한 다음, 영한 번역문의 특징을 문장 층위와 어휘 층위로 나누어 살폈다. 이어 영한 번역문의 특징을 용례에서 확인하고 시간의

추이에 따른 변화 여부를 관찰하여 대명사,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 양상, 연결 표현 등에 나타나는 상투적 표현, 다양한 의성 의태어의 등장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이경규 · 오경순)에서는 일어 번역량은 증가하나 번역의 질은 향상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구체적 문제점과 대안을 어휘와 문체 두 측면으로 나누어 지적하고 제시하였다. 어휘에서는 음역 차용어, 일본식 한자어, 번역 차용어, 일본식 조어, 일본식 후치사 등을, 문체에서는 '-고 있다' 표현, 피동 표현, 사동 표현, 이중 부정 표현, 일본어 '-に違いない', '-に他ならない'의 우리말 번역어 등에 대해 예를 들어 분석하였다.

외래어, 시사 용어, 관용구, 비속어 등과 번역 대응어에 관한 연구도 폭넓게 이루어졌다. "번역 텍스트와 한국어 원문 텍스트 속의 외래어 사용 비교 연구: 정보 전달 텍스트를 중심으로"(김순미)에서는 번역 텍스트에서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향을 관찰하여 외래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도 외래어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문화적으로 생소한 어휘들이 번역되지 않고 우리말에 정착하고 있으며, 전문 용어는 외래어 사용 빈도가 일상어보다 높고 정형화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번역 텍스트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 밝혔다.

"영어와 한국어 시사 용어의 의미 대조 연구"(주진국)에서는 시사 분야의 용어 중에서 '대응', '등가' 관계를 모두 충족하는 영어와 한국어의 대응어와, 중심 의미는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동일한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간주된 영어와 한국어의 어구를 의미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번역학적 측면에서 어휘를 다룬 박사 학위 논문 두 편이 발표되었다. 서유경의 〈한국어 관용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에서는 한국 문학에 사용되는 관용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전략의 연구를 위해 총 25편의 장 · 단편 소설에서 종류로는 651가지, 총 1,279개의 번역에 대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목표 언어의 독자 반응 조사를 통해 유효성을 검증한 결과 번역 양상에서 '풀어쓰기〉생략〉대응 번역〉직역〉오역'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길석의 〈불전 한글 번역과 용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불전 한글 번역에 나타나는 오류 유형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번역 용어를 정리한 뒤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불전 문장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 오류를 최소화하고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표현 방식을 제안하였다.

3. 의미론

의미론은 2011년에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분야이다. 먼저 총론에 해당하는 연구를 살핀 다음 어휘 의미론, 문장 의미론, 인지 의미, 의미 습득과 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의미 일반

언어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용어라 한다면 '의미'일 것이다. 강범모의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에서는 라이온즈(Lyons)의 『의미론』(1977)에 나타나는, 의미론의 근본적인 연구 대상인 의미와 관련된 6개의 전문 용어 즉, sense(뜻), reference(지시), denotation(표시 의미), extension(외연), intension(내포), connotation(암시 의미)에 대해 그 특징을 기술하고 개념 차이를 명확히 반영한 한국어 번역어를 제안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히 적용 표현 범주를 고유 명사, 한정 명사구, 서술어 등으로 나누어 세부 차이를 살핀 뒤 표로 제시하였다. 이론이나 연구자마다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메타 술어를 변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정리한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대상'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일 고찰"(이지수 · 조은영)에서는 '대상'이라는 말이 여러 학문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단어이지만 그 개념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을 지적하고 대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현황에 대한 검토와 사전적 검토를 한 다음, 대상의 개념을 구성하는 의미 요소들의 철학적 검토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이어 의미역 이론에서 쓰이는 '대상역'은 일반적 의미의 '대상'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고 '대상'의 범주 안에는 외적 실재와 주관의 내적 의식까지 포함되며 방향성에서는 주체와 대상 객체 간의 양방향성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문법 연구의 주요 술어에 대해 정확한 의미를 밝히고자 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어휘 의미론

3.2.1. 단어의 의미

단어 차원의 의미 연구는 품사의 순서로 살피고자 한다. 먼저 체언류부터 정리하면 신현숙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냄새}" 등을 비롯하여 수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냄새}"(신현숙)에서는 한국어 후각어 범주에 속하는 명사 '냄새'의 어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술하여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어휘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 사전이나 인공 지능 개발자에게는 어휘 정보 구축에 필요한 통사 정보와 의미 정보를 제시하였다. {냄새}의 통사 정보와 의미 정보를 분석한 결과 한국어 사용자는 '냄새'에서 '코로 인지할 수 있는 느낌', '몸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느낌', '마음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느낌'의 의미를 인지하며, '[부정]〉[긍정]〉[부정/긍정]' 순으로 의미 가치를 인지한다고 보았다.

"명사 '바닥'의 의미 분석과 의미 관계"(황림화)에서는 '아래'의 의미를 갖는 명사 '바닥'의 단의들에 대한 의미 관계를 분석하여 '바닥'의 의미를 '병이나 그릇 속의 가장 아래쪽', '무엇의 밑을 이룬 평평한 부분', '어떤 지역이나 장소' 등 12가지로 나눈 뒤 각 단의가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 관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우어 목록 추출 및 의미 특질 분석: 대명사를 중심으로(최재웅)"는 대우어로 쓰이는 대명사의 분포를 의미 · 화용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를 고찰한 논문이다. 어의에 기반을 둔 객관적 방

법으로 전수 조사를 해서 169개 대명사 대우어를 선정한 뒤 『표준국어대사전』의 180개 뜻풀이를 대상으로 지시, 정표, 장르 세 차원의 분석 틀에 따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자질 분석 대신 결속 관계를 반영한 논리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지시 차원의 상세한 분석과 상위 일반화를 통해 대우 대명사가 의미·화용적으로 다분화되는 과정을 명시적으로 보였다.

관형사 '어느'와 '어떤'에 대한 의미 비교 연구로는 "'어느'와 '어떤'의 사용 의미 연구"(박기선)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선택 의문문에서 의문사 '어느'와 '어떤'의 사용 양상과 의미 기능을 구별하였다. '어느'는 한정된 대상 중 선택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후행 명사가 일반 명사일 경우 의미 영역이 축소되어 그 자리를 '어떤'이 대신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 일상 언어에서는 '어느'와 '어떤'이 함께 쓰이며, 둘 다 부정사 용법으로도 사용되고 '어떤'은 대상의 특성을 묻는 의문사 용법 외 선택 의문사로서도 사용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예시를 통해 밝혔다.

"수량 표현 '한번', '한'의 문법적 해석"(정희창)에서는 '한번'은 서술어를 수량화 대상으로 삼으며 그 속성은 문맥에 따라 '시도', '시간', '강조'의 의미로 해석되며 기본적인 의미는 '일회성'이라고 보았다. '한'은 명사를 수량화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가 실제 사용될 때 내보이는 형태로서 '외모 하나 뛰어나다'와 같은 의미로 '한 외모 하다'로 확대되어 나타나 새로운 의미와 용법을 획득하였다고 보았다.

부사에 관한 의미 분석 연구도 여러 편 발표되었다. 김신회의 "양(quantity), 정도(degree), 가능 세계: 부사 '거의'의 어휘 의미를 중심으로"에서는 부사 '거의'가 명사(+이다), 관형사, 부사, 동사, 형용사, 동사구 등을 수식하며 가상으로 상정된 전체, 전형의 속성과 관련되어 있으며 현실의 서술 대상이 양, 정도, 빈도 등에서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는 뜻을 덧붙이는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부사 '거의' 의미 연구"(이홍매)는 부사 '거의'가 [+근접성]의 의미로 주로 공간, 시간, 수량,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 앞에 붙어 그 기준이나 한도에 가까운 정도를 나타낸다고 하면서 객관적으로 [-도달]의 의미를 나타내나 심리적으로 [+도달]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물리

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심리적 거리의 근접도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거의'에는 객관적인 사물이나 현상 관련 화자의 주관적 판단, 평가가 많이 개입된다는 점을 공기하는 명사의 의미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다.

"부사 '적어도'의 한정의 의미 연구"(이홍매)에서는 부사 '적어도'의 구성 의미를 형용사 '적다'로부터 분석하여 '적어도'는 주관적인 양보에 의한 최저 기준으로 한정을 나타낼 때 최저 기준이 객관적인 수량이나 정도의 충분조건일 경우에는 당위성의 양태적 의미를, 화자의 인지적 경험에 대한 한정일 경우에는 확실성의 양태적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더'와 '덜'의 의미 연구"(봉미경)에서는 말뭉치의 용례를 바탕으로 부사 '더'와 '덜'의 의미와 선후행 결합 요소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들의 반의 관계 특성을 고찰하였다. 아울러 말뭉치 분석 결과를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 의미 및 사용법 교수 순서를 정할 때, 연어 정보를 교수할 때, 관련 어휘를 지도할 때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용언을 다룬 논문 중에는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전은진) 등이 있다. 전은진의 논문에서는 후각 형용사를 찾아서 목록화하고 의미 체계를 고찰한 뒤 의미 전이 현상을 살폈다. 후각 분화상에 따라 '향내', '고린내', '노린내', '비린내', '지린내', '고소한내', '매운내'로 하위분류하였다. 이어 단어 내부 성분이 교체의 내적 변화를 겪어 어감 차이로 정도성을 나타내거나 어근이나 접사와 결합, 새로운 성분이 단어 형성에 참여하여 의미나 성격을 변화시켜 의미 체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예시로 보였다. 그리고 기본 의미에 후각적 자질과 미각적 자질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음식이나 동식물의 냄새'가 '사람의 성품이나 행동'으로 전이되거나 미각 형용사로 전이됨을 밝혔다.

"국어 차원 형용사를 포함한 관용 표현의 의미 척도 연구"(김억조)에서는 차원 형용사의 척도 체계를 기본 의미와 확장 의미로 나눈 다음, 차원 형용사를 포함한 관용 표현의 척도 체계를 상가어만 포함된 관용 표현, 하가어만 포함된 관용 표현, 상가어와 하가어를 모두 포함하여 대립적으로 나타나는 관용 표현으로 나누어 그 특징

을 살폈다.

“보조 용언 “놓다”와 “두다”의 양태적 의미”(김정남)에서는 ‘-어 놓다’를 ‘-어 놓다1’과 ‘-어 놓다2’로 구분한 뒤 후자는 상적 속성을 논하기 어려운 반면 전자에는 없는 강조의 의미가 있고 형용사와만 결합하는 특징을 중시하여 ‘-어 두다’와 동음이의 관계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 ‘놓다’보다 ‘두다’에 양태적 의미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한 점을 비판하면서 [+바람직함]의 행위 동사와 어울리지 못하는 제약이 ‘두다’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이를 ‘-어 두다’가 중세에 비해 현대에 와서 사용 빈도가 낮아지는 현상과 결부시켰다. 이를 근거로 문법 기술이 달라져야 하며 사전에도 반영되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특정 품사의 의미 운율에 대한 논문으로는 강범모의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 운율”과 최준의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가 있다.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 운율”(강범모)에서는 평가적 암시 의미로서의 의미 운율의 개념을 살피고 한국어의 의미 운율을 형용사의 암시 의미와 형용사 수식 명사의 연어의 관점에서 밝히고자 하였다. 형용사는 하위 범주에서 두루 긍적적, 부정적 암시 의미를 보이는 반면, 명사는 그 자체 또는 형용사와의 결합을 통해 긍정적, 부정적 의미 운율을 생성한다는 점을 말뭉치 추출 자료를 통해 보였다.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최준)에서는 경험 동사의 공기 관계를 살피고 공기 관계의 선호도를 분석한 다음 부정적, 긍정적 의미적 운율을 분석하였다. 세종 말뭉치에서 ‘치르다’, ‘겪다’, ‘경험하다’의 연어 관계와 의미적 선호 등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이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며 이들이 사전 뜻풀이에서 순환적 메타어로 기능할 때에도 큰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3.2.2. 의미 관계

2011년에도 어휘 의미론에서 유의 관계, 대립 관계, 다의와 동음이의 관계, 중의성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먼저 “현대 국어 이종 어휘의 유의적 공존 양상”(노명희)에서는 이종 어휘

사이에 공존하는 유의어의 의미 관계를 다루었다. 고유어와 외래어의 유의 관계에서는 고유어가 외래어의 순화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개념적 의미 차이를 보이기는 어렵고 문화적인 차이와 사용역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외래어가 다의적이거나 파생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아 외래어 용법이 국어에서 일반화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자어와 외래어가 의미 영역을 분담한 경우, 외래어의 순화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다거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삼종 대립을 이룰 때 고유어가 포괄적인 의미, 한자어와 외래어가 분화된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였다.

"언어 사용역을 활용한 "죽다"류 유의어 의미 연구"(김유정)에서는 유의어의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언어 사용역'의 개념을 고찰한 연구이다. 의미 분석을 위한 10가지 기준을 마련하여 '죽다'류 유의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살폈다.

"대립어 {가볍다/무겁다}의 의미 척도 체계 연구"(김억조)에서는 크루즈(Cruse)와 크로프트(Croft)가 제시한 대립어의 척도 체계가 기본 의미와 관련된 쌍만 척도에 포함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단어의 의미가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대립어 쌍이 한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대립어 쌍의 기본 의미 척도 체계가 확장 의미에서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가볍다/무겁다]와 결합하는 명사 중 공통으로 나타나는 명사를 대상으로 의미 대립과 척도를 살펴, 확장 의미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의어의 여러 의미 중 대립 관계에 있는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 대한 연구가 여러 편 발표되었다. "국어의 모순어에 대하여"(이선영)에서는 반의 관계의 두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다의어를 모순어로 보고 정반대의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중의성이 문맥에서 해소되는 양상을 다루었다. 또한 모순어가 생기는 원인을 의미의 모호성, 의미의 전염, 통시적 변화의 결과, 원인과 결과의 혼재, 생략된 성분의 영향 등으로 나누고 모순어의 조건을 어원이 동일하고 상반되는 두 의미가 공시적으로 둘 다 쓰여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모순어의 유형으로는 단어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 연어가

상반된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로 나누었다.

“어휘 의미의 자체 대립 유형 연구”(이민우)에서는 국어에서 동일한 형태의 어휘가 갖는 의미들이 서로 대립적 양상을 보이는 현상을 ‘자체 대립’으로 규정하고 의미 관계에 따른 유형으로 상보 대립·반의 대립·방향 대립을, 대립 형식에 따른 구분으로 어휘적 대립·문법적 대립·맥락적 대립을 설정하고 그 특징을 보였다.

석사 논문인 〈현대 국어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 연구〉(도재학)에서는 다의어의 이의 중 두 개가 서로 대립하는 대립적 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 조건과 특징에 따라 상보적 대립 관계, 상관적 대립 관계, 상반적 대립 관계, 정도적 대립 관계로 분류한 뒤 대립 이의 관계의 발생 원인을 언어적 원인과 비언어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폈다. “국어 모순어에 대하여”는 어휘 부류로서 모순어의 특징을 포착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고 “어휘 의미의 자체 대립 유형”과 〈현대 국어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 연구〉는 의미 관계의 체계 안에서 대립 관계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 논의이다.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김건희)에서는 형용사문의 다의성이 논항의 다양성에 기인한다고 보기에 의문스러운 점을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즉, 계열 관계에 있는 형용사들이 결합하는 논항이 불일치하며, 형용사가 서술형과 관형사형으로 쓰일 때 결합하는 논항이 서로 다르고, 모음 변이로 동일하게 여겨지는 형용사 쌍의 논항 결합이 차이를 보이며, 형용사화 파생 접미사가 결합된 형용사 쌍의 논항 결합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면서 형용사 자체가 가지는 다의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상에서의 동음이의어: 국어 말뭉치에서의 ‘다리’ 분석을 중심으로”(김해연)에서는 말뭉치 자료에 나타나는 동음이의어 ‘다리’를 분석, 실제 언어생활에서 동음이의어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방식에 대해 다루었다. 신체 기관인 다리는 생물체와 무생물체가 대응 관계를 갖는 은유적 방식으로 확장되며, 시설물 다리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장돼 관계 형성의 뜻을 나타내며, 화자/필자는 서술어나 수식어와의 공기 관계, 문맥에서의 주변 상황적 정보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중의성을 해소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결합적 어휘 의미 관계의 독립성과 특성에 대하여"(이동혁)에서는 결합적 어휘 의미 관계가 계열적 어휘 의미 관계와 독립적이어야 하고 선택 제약과도 다르다는 점을 주장한 뒤 결합적 어휘 의미 관계가 성립하는 조건과 저장 방식, 유형을 다루었다.

3.2.3. 어휘 의미망

어휘 의미망 관련 논의로는 낱말밭에 관한 연구 논문이 주를 이루었다. 먼저 "고유어 단위 명사의 낱말밭"(박상진)에서는 수량 표현의 대상에 따라 단위 명사의 의미 영역이 분절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고유어 단위 명사 138개를 '척도'와 '수효'라는 영역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 영역을 다시 세분화하여 낱말밭을 파악하였다.

용언에 대한 낱말밭 분석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한국어 요리 동사의 낱말밭"(김정남)에서는 다양한 요리 동사들의 의미 차이를 변별적 의미 자질로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요리 동사를 요리 준비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저장 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재료 혼합 및 가미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익히는 과정을 표현하는 동사, 기타 요리 동사로 분류하여 변별하였다.

"평행 이동 동사의 낱말밭"(김혜령 · 정유남 · 황림화)에서는 용언 중 평행 이동 동사 어휘를 선정하여 의미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낱말밭을 고찰하였다. 평행 이동 동사는 이동의 마지막에 특정한 도달점을 상정할 수 있느냐에 따라 나뉘며 도달점이 있는 동사는 이동의 경로가 중요하며 도달점이 없는 동사는 이동의 양상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대상 이동 동사의 낱말밭 연구"(정연주 · 이영제 · 이화자)에서는 목표점을 전제하는 대상 이동 동사의 의미 분절 양상을 다루었다. 한국어의 대상 이동 영역의 의미 분절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정리하고 유사한 동작도 도달점과 이동 대상의 의미 특성에 따라 단어들을 다양하게 구별한다는 점을 밝히고 본래적으로 의미가 유사하여 의미 자질이 거의 동일한 어휘도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다.

부사 중에서 의태어에 대한 의미 영역을 분류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바로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2):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김홍범・이영주)이다. 이 논의에서는 『조선말 의성 의태어 분류 사전』에서 사람과 관련된 의태어 항목을 중심으로 사전의 내용을 분석, 오류의 원인을 파악하고 기존 사전의 분류 체계를 재분류하여 서술어 항목을 다섯 가지로 유형화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하였다.

네트워크 이론에 따른 논의로는 “사건 명사의 공기어 네트워크 구성과 분석”(김혜영・이도길・강범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4대 일간지에서 드러나는 증감 관련 사건 명사 20개와 그 공기어의 연관적 관계를 네트워크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업, 주가, 수출, 정부’ 등 공통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단어들이 높은 강도로 사용되었으며 공기어들은 평균 약 6개씩 연결되어 있고 네트워크 크기는 상당히 크게 구성되었다고 하면서 긍정적 부류는 객관적인 경제 지표를 드러내는 단어들인 반면 부정적 부류들은 주로 우려와 불안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사전 뜻풀이를 이용한 용언 의미 군집화”(배영준・최호섭・송유화・옥철영)에서는 사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용언을 대상으로 용언 의미 군집화를 시도하였다. 이전의 방법론과는 달리 의미 태그가 부착된 사전의 뜻풀이를 이용하여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용언의 집합을 만들고, 유의어 집합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언의 계층 구조를 분석하여 간단한 용언 계층 구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총 106,501개의 용언을 대상으로 한국어 용언 의미 계층 군집 2,748개를 생성하였다. 이 중 순환 정의 군집은 130개, 중간 계층의 서브 군집은 261개가 나타났으며 군집 내 계층의 최대 깊이는 16단계였고 용언 의미 군집 평가를 위해 세종 사태 의미 부류와 비교하여 70.14%의 응집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3.2.4. 의미 변화와 확장

“남북 사전의 뜻풀이 비교를 통해 본 어휘의 의미 차이 연구”(김

수현)에서는 남·북 사전의 동형 표제어를 비교해 의미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을 살펴 그것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연구하였다. 의미 차이는 사회 구조와 생활 양식의 차이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뜻풀이가 달라지는 동형 표제어 유형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 유형별로 의사소통에서 오류가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추정하였다.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명사'를 중심으로"(조항범)에서는 현대 국어 호칭어인 '삼촌, 이모, 아버님, 어머님, 언니, 애인, 애, 쟤'의 의미 변화를 살폈다. '삼촌, 이모'는 삼촌과 이모 또래의 어른이나 특정 장소에서 일하는 남녀를 가리키는 말로, '아버님, 어머님'은 장인과 장모를 이르는 말, 잘 모르는 처지의 부모 또래의 남녀를 친근하게 부르는 말로 확장되었으며 '언니'는 아랫사람에게도 쓰이기 시작하여 식당 등의 젊은 여종업원을 부는 말로도 쓰인다고 하였다. '애인'은 정부를 일컫는 말로 의미가 확장, 변화되었고 '애, 쟤'는 사물을 지칭하는 '이것', '저것'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았다.

"한국어 동사 "놓-"의 의미 변화 양상 분석"(이민우)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 한국어 사전』을 참고하여 '놓-'의 의미를 29개로 나누어 19~20세기 초 국어 말뭉치와 현대 국어의 말뭉치를 분석하였다. 두 시기에 사용된 '놓-'의 개별적 의미가 크게 다르지만, 구체적 의미에서 추상적 의미로의 변화라는 일반적인 의미 변천의 과정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도구 유입에 따른 어휘 의미 변화"(박동근)에서는 컴퓨터 사용과 관련한 동작이나 작용에 따른 동사의 의미 변이 양상을 연구한 결과, 도구의 유입과 더불어 번역 차용에 의한 다의 확장이 어휘 의미 변화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컴퓨터 관련 명사가 새로 유입됨에 따라 필요해진 동사는 대부분 기존의 어휘를 사용한다는 점을 밝혔다. 컴퓨터와 관련된 행위를 나타내기 위해 기존 동사의 의미가 변하는 유형으로는 의미 변화가 없는 경우, 표면적인 선택 제약을 유지하는 경우, 선택 제약을 위배하는 경우로 나누고 의미 변이의 요인을 외국어 번역 차용과 적용상의 전이라고 하였다.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양상 연구"(송지혜)에서는 온도 감각어로 쓰이기 전에 사용된 '시원하다'에 집중하여 '시원하다'의 의미를 밝혀내고자 했다. '시원하다'의 의미별 출현 순서는 심사(心事)와 결합한 '시원하다', 언행(言行)과 결합한 '시원하다', 신체어와 결합한 '시원하다', 음식어와 결합한 '시원하다', 공간어와 결합한 '시원하다' 순으로 보고 '시원하다'의 어원적 의미를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후련하다'로 파악했다.

"한국어 완곡어법의 의미 변화 현상"(짠 티 반 옌)에서는 한국어의 완곡어를 의미에 따라 어원의 원래 의미보다 그 의미를 격상시키는 경우, 어원의 원래 의미보다 그 의미를 약화시키는 경우, 의미를 넓히는 경우, 직접적 표현을 피하기 위한 단순한 형태 변화인 경우 등 총 네 가지로 분류하여 그 특징을 살피면서 외국인 학습자에게 한국어 완곡어법을 가르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대조적 관점에서 의미 변화를 다룬 논의로는 "자동사 파생 과정에서 의미 변화 연구: 한국어와 러시아어 비교"(이영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자동사 중 접사의 도움으로 파생된 자동사를 대상으로 하여 노어에서 파생성이 높은 접사 '-sja'를 중심으로 '-sja'의 기능, '-sja'를 통한 의미의 강화와 약화 등을 다루었고 이와 대응되는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사용된 피동 구문에 대해 분석하였다. 새로운 자동사가 파생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면서 의미의 강화 및 약화도 이루어지며 이러한 의미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비능격성과 비대격성이라고 밝혔다.

대조적 관점에서 의미 확장을 다룬 논문으로는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chi)"의 의미 확장 비교"(종결)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먹다'와 '吃(chī)'의 사전적 의미를 검토, 비교하고 '먹다'와 '吃(chī)'의 개별 의미들을 원형 의미와 확장 의미로 나누어 원형 의미에서 확장 의미로 파생되는 경로를 살폈다.

3.3. 문장 의미론

문장 의미론에서는 문법 형태와 관련된 의미를 다룬 논의와 구문

의 의미를 다룬 논의로 나누어 개괄하고자 한다.

3.3.1. 문법 형태와 의미

"'-만큼'과 '-처럼'의 의미 특성과 비교 · 비유 표현"(나은미)에서는 '-만큼'과 '-처럼'의 의미 특성을 살펴 이들 간의 차이를 제시하였다. 먼저 '-만큼'은 선행 요소로 측정성 어휘와 결합하는 경향을 보이며 서술어의 의미 등급을 한정하고 견줌 내용의 등급을 한정함을, '-처럼'은 구체적 존재 양상을 표현하는 선행 요소와 결합하며 서술어와 결합에 제약이 없고, 견줌 주체와 견줌 대상이 동질적이며 견줌 내용이 대상의 두드러진 속성이 아닐 경우 '사실 판단'으로 해석된다고 하였다. 특히 비교 표현은 견줌 내용에 대한 견줌의 결과를 표현한 것이며 비유 표현은 견줌 주체의 존재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정리하여 그 변별성을 구체화하였다.

"보조사 '까지, 마저, 조차'의 발달과 의미 관련성"(남미정)에서는 '까지, 마저, 조차'의 발달 과정을 통해 현대 국어에서 이들이 보이는 의미의 관련성을 설명한 논의이다. '까지'와 '마저'는 '종결, 한계'로 출발하여 '더함'이라는 부차적인 의미를 획득하는 반면 '조차'는 '함께, 같이'라는 의미로 출발하여 '더함'이라는 의미를 획득하였으며 '조차'는 기대의 부정이나 극단적인 부정 강화라는 양상을 띠며 '까지, 마저'와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

"From Semantics to Pragmatics: the Accusative Case in Korean"(김원호)에서는 한국어의 절 의미 구성에서 대격 표지인 '을/를'의 역할이 크며, 한국어의 대격 표지인 '을/를'은 피행동주를 지시한다고 하면서 대격 표지의 역할은 의미론을 넘어 화용론의 영역까지도 닿아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의성 분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겠-'의 의미 구조"(다카치 토모나리)에서는 '-겠-'의 의미를 양태적 의미, 시간적 의미, 상적 의미, 화용적 의미로 분류하고 '-겠-'의 근원인 '-게 ᄒᆞ엿-'의 의미 등을 고려해 원형 의미를 [외적 요인에 의한 가능]으로 보고 의미 확장을 설명하였다. '-겠-'의 모든 의미를 총망라하는 핵심 의미는 없

고 각 의미들 사이에 의미 연쇄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연결 어미 "-고"의 다의적 쓰임에 대한 인지적 해석"(정수진)에서는 어미 '-고'의 기본적 의미 기능은 공간적, 시간적, 인지적으로 인접해 있는 둘 이상의 상관적 사태의 나열이며, '-고'에 의해 나열된 사태들의 관계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상관적 사태들의 관계에서 추론되는 의미가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면 개별적인 의미로 관습화되기도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고'의 기본적 의미는 여러 다른 의미로 확장되는데, 이 의미망 구조는 시간 구조에 따른 상관적 사태의 구조와 흡사하다고 밝혔다.

"'-으니'와 '-더니', '-었더니'의 의미 기능: 접속 관계를 중심으로"(송재목)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통해 '-더니', '-었더니'가 나타내는 접속 관계의 의미 기능은 모두 '-으니'에서도 관찰되며, 선행 연구와는 달리 '-더니'와 '-었더니'가 서로 다른 의미 기능을 가진다고 결론짓고 '-더니'와 '-었더니' 모두 '-으니'를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직접적인 관찰을 나타내는 '-더-'의 영향으로 '-더니'는 동일인의 연속적인 행위에 주로 사용되며, '-었-'은 '-었더니'에 완료성의 의미를 갖게 한다고 결론지었다.

"연결 어미 '-아서'의 의미 고찰"(김준기)에서는 '-아서'가 앞뒤 문장을 시간적 순서에 의해 나열하되 그 양상이 단일하게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서'를 계기의 '-아서'와 원인의 '-아서'로 나누어 의미를 살폈다.

"이접과 양태의 상관관계 고찰: '-인가'를 중심으로"(최윤지)에서는 '-인가'는 계사의 활용형에서 조사로 문법화된 것으로서, 접속 조사와 보조사의 지위를 모두 가지며 의미적으로는 배타적 이접, 불확실성의 인식 양태적 의미 및 비하의 화용적 의미가 있으며 이런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았다.

"'-어지다' 의미 고찰에 대한 시론: 유형론적 관점에서"(남수경)에서는 '-어지다'의 다양성을 유형론적으로 고찰한 결과 '-어지다'의 의미는 피동, 반사동, 가능, 상태 변화, 무의도로 나뉜다고 하면서 '-어지다'

의 다의성이 고유 문법 요소가 가진 특성이라기보다는 여러 언어들의 반사동/피동과 관련된 형태소들이 가지는 유의성의 의미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이' 파생 명사의 다의 형성"(차준경)에서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의 다의성에 주목하여 의미 형성의 기제를 논의하였다. 단일어 사건 명사의 다의성과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의 다의 유형이 유사하며, 이들은 모두 〈사건〉 의미 영역으로 분류될 수 있고 단일어 사건 명사는 형태론적 변화를 겪지 않고 다의적으로 사용되며, 단일어 사건 명사의 다의성이 파생 명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3.3.2. 구문과 의미

"유의 어휘 관계와 문장 의미 구성"(임채훈)에서는 유의 어휘 관계는 단순히 어휘부 내 단어들 간 관계가 아니라 문장을 생성, 해석하는 기제나 지식으로 작용하며 유의 관계 어휘가 문장 안에서 공기하여 쓰일 때 문장 내에서 중첩된 의미를 토대로 한 경우에는 수사적 기피, 대용으로서의 지시어, 강조의 의미, 부연과 환언의 기능을 하며 중첩되지 않은 의미를 토대로 한 경우에는 의미 명세, 결합 제약에 따른 유의어 선택 등의 기능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어 결과 구문의 의미 특성"(황주원)에서는 한국어 결과 구문의 의미 특성을 밝히고 의미를 중심으로 결과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고 세 가지 제약 조건, 즉 1차 · 2차 서술어의 관계와 관련된 결과성 조건, 2차 서술어의 의미적 · 상적 제약 조건, 1차 서술어가 [+완성성]의 상 속성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 등을 제시하였다.

"'-를 가다' 구문의 화용적 쓰임과 의미: 장소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이미지)에서는 '-에 가다'와 '-를 가다'의 사용 맥락과 화용적 의미를 살폈다. 장소 명사+'-를 가다' 사용의 경우 선행 장소 명사에 도달점이라는 의미 외에 추가적 의미인 '소속', '의외', '내부 경험'이 강조된다고 주장하였다.

대조적 관점에서 구문의 의미 해석을 다룬 논의로는 "영어와 한

국어 비교 구문 의미론 연구"(박기성)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개체 비교・정도 비교, 암시적 비교・명시적 비교 등 두 가지 비교를 바탕으로 양 언어의 비교 구문을 분석한 결과를 밝히고 있다. 영어의 경우 비교 구문들이 개체 비교와 정도 비교라는 개념으로 설명되지만 한국어의 경우 구절 비교 구문이나 절 비교 구문 모두 기본적으로 개체 비교이지만 정도 비교를 허용하며, 암시적 비교와 명시적 비교에서는 영어가 서로 다른 통사 구문을 사용하여 암시적 비교와 명시적 비교를 구분하나 한국어는 이러한 개념적 구분이 형태적으로도 의미・화용적으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하다' 동사와 'する' 동사의 대응 양상: 동일 한자어 어근 구성을 중심으로"(다키구치 게이코・남길임)는 문장 내에서 '하다'와 'する'의 대응 쌍을 의미적, 문법적, 담화・화용적 관점에서 살폈다. 먼저 '한자어+하다'와 '한자어+する'의 대응 관계에서 문제를 보이는 비율은 매우 적고 '의미적 차이〉담화・화용적 차이〉문법적 차이' 순으로 문제를 일으킬 요소가 많으며 이중 언어 사전 기술 시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3.4. 인지 의미

인지 언어학에 기반한 의미 연구는 2011년에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먼저 어휘 범주의 기본 층위와 그 의미 특성을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다룬 논의가 나왔다. "국어 어휘 범주의 기본 층위 탐색 및 의미 특성 연구"(임지룡)는 기본 층위를 범주의 계층적 분류 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사물을 지각하고 개념화하는 층위로 정의하고, 그 어휘적 실현을 기본 층위 용어로 명명한 뒤 세 가지 의미 특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본 층위의 인식이 순전히 개념적이므로, 기본 층위 용어의 선정에는 개인, 문화권, 언어권에 따라 보편적인 측면과 문화 의존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으며 따라서 기본 층위 용어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탐색 실험 자료 보완 및 피험자 군을 확대해야 하며, 타 문화권과의 대조를 통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가늠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민간 모형의 의미 특성"(임지룡)에서는 민간 모형에 대해 인지언어학의 관점에서 기본 개념, 양상, 의의를 살폈다. 민간 모형은 경험을 통해 상식 수준으로 형성된 세계관으로서, 전문 지식에 바탕을 둔 전문 모형과 성격을 달리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간 모형의 전형적인 양상은 감각 표현이나 감정 표현, 속담과 속언에 잘 나타나며 민간 모형의 의의는 설명력, 사실성, 친숙성, 예측력에 있다고 하였다. 종래 객관주의 철학과 자율 언어학에서 포착하지 못한 민간 모형의 의의와 가치를 인지론적 관점에서 포착한 데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임지룡)에서는 인지언어학의 원형적 다의관의 관점에서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 의미 특성을 논의하였다. 어휘 항목의 형태와 의미의 불연속성 중, 단일어와 다의어 간에 다면어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다의어는 어휘 항목이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파생 의미가 생성된 것이나 다면어는 어휘 항목의 국면들이 상호 보완하면서 의미적 통일체를 형성한 것이며 의미 확장, 의미적 비대칭성, 개념의 통합성, 의미 부류 측면에서 다의어와 다면어가 변별된다고 하였다. 또한 다면어는 자율성을 갖고, 원근 화법화에 따라 다의어와 구별되는 의미 특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단어나 어휘 부류에 대한 인지론적 연구 성과도 여러 편 나왔다. 공간어의 시간 개념화 양상을 다룬 박사 학위 논문인 〈국어 공간어의 시간 개념화 양상 연구〉(홍달오)에서는 순수 공간 개념어의 시간 개념화 양상을 영상 도식 이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인간의 인지, 체험 양상을 강하게 반영하는 순수 공간 개념 기원의 어휘를 선정하여 은유 과정을 통해 시간 개념화가 완성되며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인지, 체험 요건이 강하게 개입된다는 점을 증명하였다.

"명사 '소리'의 인지 양상 연구"(박건숙)에서는 명사 '소리'의 언어 표현을 분석하여 '소리'가 언어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소리'의 인지 양상을 분석하였다. '소리'를 물리적 소리와 내용적 소리와 맥락적 소리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한국인의 정보(情報)에 대한 개념화 양상"(전혜영)에서는 일상

어 속에 개념 이해가 나타난다는 인지 의미론적 관점에 따라 정보 개념이 사용된 맥락 속에 어떤 은유 방식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사물로 개념화한 경우, 동물로 개념화한 경우, 식물로 개념화한 경우, 글자로 개념화한 경우로 나누어 살폈다.

“코퍼스에서의 어휘 ‘가깝다’의 의미와 용법 분석”(김해연)은 세종 계획 말뭉치 자료를 대상으로 어휘 ‘가깝다’를 인지 언어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이다. 어휘 ‘가깝다’는 기본적으로 기준점과 대상 사이의 근접성에 대한 물리적, 실재적 거리에 대한 화자의 판단을 나타내는 어휘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은유적으로 확대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다.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부사 ‘바로’의 체계적 다의성 연구: 대조 언어학을 위한 새로운 접근”(정병철)에서는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다의 체계의 분석 원리를 설명하고, 부사 ‘바로’의 다의 체계가 동반 경험 망 모형을 통해 적절하게 설명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분석이 대조 언어학과 언어 습득 연구에 제공하는 시사점을 언급하였다.

3.5. 의미 습득과 교육

“수화 사용 청각 장애 부모 가정 건청 자녀의 인지 심성 동사 의미 구조화 발달”(이은주 · 김영태)에서는 수화를 사용하는 청각 장애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건청 자녀 집단과 건청 부모 가정의 일반 아동 집단, 일반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인지 심성 동사 쌍에 대한 유사성 판단 능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청각 장애 부모 가정 건청 자녀 집단의 경우 일반 성인과 다른 인지 심성 동사 내적 의미 구조화 차원을 보였는데 이는 청각 장애 부모 가정 건청 자녀 집단은 심적 활동 내적 의미 구조화가 완성되는 시기가 건청 부모 가정 아동과 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바, 이는 언어 환경 차이에 의한 영향에서 온 것으로 설명하였다.

“인지 언어학에 기초한 한국어 공간 개념 부사격 조사의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정수진)에서는 한

국어 교재에 나타난 공간 개념 부사격 조사를 대상으로 기술 방식을 살피고 부사격 조사의 인지적 의미를 분석한 뒤 학습자를 위한 부사격 조사의 제시 및 설명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한국어 교육에서 인지 언어학은 한국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확보하고 한국어의 구조와 의미에 대한 기억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연구의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4. 화용론

화용론 관련 연구에서는 발화 의미와 화행, 담화 표지와 화시, 함축, 그리고 담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 마지막으로 의사소통과 화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4.1. 발화 의미와 화행

"국어 발화의 의미에 대하여"(최호철)에서는 문장 단위보다 더 큰 단위에 대한 연구와 관련하여 달리 사용되고 있는 여러 용어에 대해 점검하고, 발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서 고려되는 의미를 고찰하여 그 의미가 발화의 의미에 작용하는 방식과 발화 의미의 해석 절차를 각각 형식화하였다. 화맥이 배제된 언어 표현을 '언표'로, 화맥이 결부된 언어 표현을 '발화'로 구분하고 언어 단위의 크기에 따라 '언표 단어, 언표 구절, 언표 문장, 언표 단락, 언표 담문', '단어 발화, 구절 발화, 문장 발화, 단락 발화, 담문 발화'로 구분하였다. 언표 담문의 의미는 단어나 문장 자체의 의미에 문맥적 의미인 결속적 의미가 더해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발화의 의미는 단어나 문장, 또는 담문 자체의 의미에 언어 외적 세계 사이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화맥적 의미가 더해지는 것으로 보고 이를 '화행적 의미'라 칭한 뒤 발화 의미 해석 절차와 표시 형식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예시를 보였다. 발화와 관련된 다양한 언어 단위와 그 의미를 체계화하고 발화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기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김수진 · 차재은 · 오재혁)에서는 발화에 관한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언어 병리학이나 한국어 교육 등의 응용 분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발화 구분 요소와 발화 분류 요소를 분리하여 체계를 세우고 각 요소들로 발화 판정과 발화 분류의 틀을 마련하여 실제 구어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러한 틀이 적용 가능한 방법임을 확인하여 그 효용성을 증명하였다.

“공익 광고 언어의 표현 전략으로 본 ‘우리’의 의미”(이철우 · 이혁화)에서는 공익 광고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우리’라는 표현이 사용되는 다양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이 화용론적으로 어떤 표현 전략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익 광고 언어에서 ‘우리’를 유대 강조의 ‘우리’, 지시 강조의 ‘우리’, 대표 강조의 ‘우리’로 나누어 분석하고 공익 광고에서 ‘우리’의 사용은 일종의 공손 전략이라고 보았다.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 작용적 기능(김해연)”에서는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 자료에서 ‘-는 것 같다’를 분석하여 이것이 화자 추정 양상 표현으로서 화자의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며 ‘-어/아 보이다’를 덧붙여 추측의 정도성을 낮춘다고 정리한 뒤 추측과 겸양 표현으로서의 상호 작용적 기능과 의미를 분석하였다.

“문어에 나타나는 “-는데”의 의미 연구”(이소현)에서는 연결 어미 ‘-는데’의 의미들을 수사 구조 이론에 기초하여 빈도에 따라 살핀 결과 빈도의 상위 90%를 차지하는 의미 일곱 개는 상세 설명, 배경, 환경, 연속, 대조, 양보, 연결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언표적 행위 대상 메타 화행의 유형”(김선화)에서는 언표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메타 화행을 하위분류하고 음성적 행위 대상 메타 화행, 형태적 행위 대상 메타 화행, 의미적 행위 대상 메타 화행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하였다.

“의사소통적 특성을 고려한 정표 화행의 유형 분류”(이혜용)에서는 정표 화행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정표 화행의 전체 체

계를 보이고, 그 체계 속에서 각 개별 화행이 속하는 위치를 살폈다. 대화 참여자를 고려한 의사소통적 관점에서 양자 공감 형성 정표 화행, 청자 공감 유발 정표 화행, 청자 반감 유발 정표 화행으로 설정하고 각 분류 기준마다 하위분류 기준을 설정하였다.

"TV 홈 쇼핑 화장품 판매에 나타난 쇼 호스트의 구매 설득 말하기 방식"(권순희 · 석예은 · 이형주)에서는 쇼 호스트들의 구매 설득 메시지를 구매 기회의 희소성과 긴급성, 판매처의 신뢰성과 브랜드의 명성, 제품의 기능과 성능, 스토리텔링, 가격의 매력성 등의 다섯 가지 기준으로 분류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쇼 호스트들은 이 다섯 가지 소구점에 해당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잠재적 소비자들이 실제 소비자가 되도록 유도하지만 감정적인 면을 지나치게 공략하거나 많이 과장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대조적 연구로는 석사 학위 논문인 〈한 · 일 거절 표현의 대조 연구: 화용론적 관점에서〉(임여주)와 〈한 · 중 맞장구 표현 대조 연구〉(이홍염) 등이 있다.

4.2. 담화 표지와 화시, 함축

담화 표지에 관한 연구는 2011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담화 표지어 '좀' 사용 연구"(박혜선)에서는 한국어를 외국어로 습득하는 중국인 이주 노동자와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인터뷰를 진행하여 구어 담화를 채집하여 분석한 결과 '좀'이 요청 완화, 부정 약화, 진술/변명, 강조, 요청 강조, 시간 벌기 등의 기능을 한다고 분석하였다.

"한국어 담화 표지어 '예'의 의미"(이한규)에서는 담화 표지어 '예'의 쓰임을 사회 · 문화적, 화용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예'의 기본 의미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이지만 한국 사회가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집단주의 문화로서 고맥락 의사소통 방식으로 대화하기 때문에 '예'가 인간관계를 고려한 전략으로서 다양하게 발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의미를 크게 정보 표지 기능과 공손 표지 기능으로 나누어 예시하였다.

“대화의 회고적 기능에서 살펴본 응답어 ‘네’ 연구”(전정미)에서는 ‘네’가 항상 응답이 아니라 후행 발화에 대한 자극이 된다는 점을 세종 말뭉치의 응답어 ‘네’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내림의 억양을 가진 ‘네’는 상대방의 발화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을 기본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방법으로 기능하며 올림의 억양을 가진 ‘네’는 확인 불가, 수용 불가, 놀람, 되묻기 등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어떻게’의 담화 맥락적 분석”(윤정화)에서는 동사와의 결합에서 ‘어떻게’의 의미는 ‘어떠한 상태에서 변화를 거쳐 이르게 되는 결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변화’에 대한 포괄적 질문이 가능하며 완곡한 표현, 공손 표현으로도 쓰이며 수사 의문문에서는 화자의 강한 부정과 불만을, 명령문에서는 넓은 범위의 방법을 뜻한다고 하였다.

“입말에 나타난 “다”의 담화적 기능에 관하여”(타이라카오리)에서는 구어 말뭉치 931개 예문을 분석하여 ‘다’가 서술, 순간적 발화, 의지 표명, 되묻기/되새기기의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였다.

“‘말(을/도) 마라’의 의미 화용적 기능 연구”(이홍매)에서는 ‘말(을/도) 마라’가 발화 진리치에 영향을 주지 않고 발화를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기능적 요소이면서 문두에 위치할수록 화용적 기능이 뚜렷하고 문중에서는 서술의 초점을 강조하며 문말에서는 생략 기능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담화 장르에 따른 삽입 표현의 사용 양상”(현영희 · 남길임)에서는 삽입 표현의 유형을 단순 삽입 유형, 대치 삽입 유형, 도치 삽입 유형으로 나누어 그 특징을 설명하면서 [±공식성], [±상호성] 등 담화 장르의 자질에 따라 삽입 표현 전체 유형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NSM에 기초한 국어 간투사의 의미 기술”(이정애)에서는 NSM(Natural Semantic Metalanguage) 즉, 자연 의미론적 메타언어로서 의미 원초소를 설정하여 간투사의 의미를 기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의지적 유형과 감정적 유형의 간투사에 대해 각각 의미 불변항을 설정하고 NSM의 의미 기술 방식에 따라 의미 설명을 제시하였다.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홍정하)에서는 모문 주어에 출현하는 담화 표지 ‘-는/-가’와 모문 동사

의 공기 분포를 통해 시점과 관련한 특성을 밝혔다. '-는'은 시공간적 화시 중심과 관련하여 정감성, 사람 주어, 능동성, 주관성을 띠는 반면 '-가'는 시공간적으로 화자와 거리가 있는 특성, 사물 주어, 수동성, 객관성을 띤다고 보았다.

2011년에도 화시에 대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박철우)에서는 전통적 화시 범주에 대해 개념과 기능, 용어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고 그에 따라 국어 화시 표현의 체계 한정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인칭, 장소, 시간 등 전통적인 화시 범주 외 담화 화시, 사회적 화시, 화시와 주관성 등을 고려한 확장된 화시 범주를 제시하였다.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임동훈)에서는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가 화시의 확장된 하위 범주라고 하면서 전통적인 인칭 · 시간 · 공간 화시와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담화 화시는 화시 표현이 그 자신이나 자신을 포함한 발화 자체를 가리키는 징표 재귀성을 가지며 시간 화시나 공간 화시에 쓰이는 용어가 담화 화시어가 되거나 선행 발화나 텍스트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인용 표지로 발달하기도 하고 담화 표지로 발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화시의 경우 사회적 지위나 위상이 화시 중심이 되어 발화 참여자의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관계를 표시하게 되는데, 형태론적 체계로 부호화하기도 하고 대명사, 호격어, 호칭 어휘적 선택을 통해 경어법으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였다.

특정 단어의 화시적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구종남의 "'아무'의 지시적 성격과 출현 형태 및 의미적 해석"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아무'의 지시 관련 의미적 속성에 대해 '아무도, 아무나'가 [-지시성]의 자질을 갖는 것이 '아무'의 조사 결합 제약의 근본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고 하면서 '아무'는 실체적 존재가 될 수 없어 사태 성립의 선조건을 어긴다고 보았다. 또한 '아무'는 [-고정적] 자질을 가지고 있어 구체적 실체를 나타내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도', '-나'와 결합할 경우 지시 대상이 확정되어 실체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결합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양화사로서의 쓰임에 있어서는 '아무도'는 전칭적으로, '아무나'는 특칭적으로 해석되며 양상을 포함한 특수

한 경우에는 전칭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화시에 대해 번역학적 연구 성과도 있다. “영한 번역에 나타난 지시 표현의 변경에 관한 언어 유형론 및 문화 심리학적 연구”(정연창・김은일)에서는 영한 번역에서 같은 담화 환경이라 해도 영어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한국어는 보통 명사와 이름을 많이 사용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영어는 맥락의 따라 그 맥락에서 주제가 되는 인물이 대명사로 지시되나 한국어에서는 주제가 되는 인물이라도 보통 계속 이름으로 지시한다는 점, 둘째, 영어는 등장인물을 지시할 때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름 또는 대명사가 사용되나 한국어에서는 등장인물의 역할, 즉 보통 명사가 사용된다는 점, 셋째, 영어는 유생성 차이와 상관없이 동일한 지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어에서는 유생성에 따라 다른 지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함축에 관한 논의인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분석”(조숙희・조의연)에서는 수량사 없는 무표형 명사의 수는 중의적이지 않고 한정된 맥락에서 사용될 때 등급적 함축을 통해 단수 해석을 받는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한국어 무표형 명사는 수에 대한 지표는 가지고 있으나 그 지표의 값이 단수냐 복수냐 하는 정보는 어휘 단위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무표형 명사의 수가 단수냐 복수냐 하는 정보는 해당 명사가 수량 표현과 함께 쓰이는 경우 이 수량 표현에 의해 결정되고, 수량 표현 없이 무표형 명사만이 사용되는 경우의 수의 해석은 비언어적인 화용 맥락에 의해 명시된다고 보았다. 또한 지시 관형사 ‘이’, ‘그’ 등을 수반하는 직시적 대화 환경에서는 공유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무표형을 선택하며 이런 경우 실제로 계산되지 않는 특성을 가진 단락적 함축이라고 하였다.

4.3. 담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

구어 담화에 대한 연구 동향과 활용에 관한 개괄적인 연구 성과가 나왔다.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구현정)에서는 구어 담화 연

구가 언어 형식의 측면보다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라는 기능주의적 관점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으며 특히 학제적 성격이 강해 화행 이론과 같은 언어 철학의 방법론과, 미시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대화 분석이나 담화 분석과 같은 방법론을 통해 시도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그간 문법화론이나 말뭉치 언어학과 함께 언어학 연구를 풍성하게 하고 영역을 확대하는 역할을 해 왔으며 화법 교육에 활용되고 자연 언어 처리와 인공 지능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남성과 여성의 사적 대화에서 발화 특성 연구: 담화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김혜영)에서는 사적인 상황에서 남성·여성 화자가 모두 담화 표지를 사용하며, 남성이 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고빈도로 추출된 목록의 사용 정도는 여성이 더 많다는 점을 분석해 내었다. 이어 성별에 따른 '뭐', '막', '근데', '음', '어', '네', '맞아' 등 담화 표지 사용 양상의 차이를 기술하였다.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남길임)에서는 한국어의 비유창성 현상이 예측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실수가 아니라 범언어적인 공통성이라는 점을 전제로 담화 유형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지닌다면서 삽입, 대치, 도치, 담화 표지의 빈도, 대치 표현의 비중 등을 다루었다.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 방법에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주경희)에서는 면접 담화에서 스토리텔링은 면접자와 면접관의 상호 작용 아래, 자신의 경험을 현재에 필요한 것으로 목적에 맞게 재구조화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면접에서 좋은 대답의 조건과 스토리텔링 구성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의 텍스트 기반 구두 발표 연구"(김현강·손희연)에서는 외국인 대학원생의 구두 발표를 분석하여 구두 발표 담화의 특징과 구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학술적 구두 발표 담화는 발표를 위해 준비된 글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구두적 매체 전환이 야기하는 구어체 스타일의 변화가 맞물리고, 여기에 학술적 구두 발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습적이고 전략적인 표현들이 결합하여 생성된다고 주장하였다.

“광고의 전략과 언어 표현 기법”(채완)에서는 광고주가 숨겨 놓은 함축적 메시지를 소비자로 하여금 광고주의 의도대로 추리하고 해석하게끔 설치한 장치들을 찾아내어 국어학적 관점과 광고학적 관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이야기 분석”(이경숙・신의진・조숙환・주금정)에서는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이야기하기 능력이 비장애 아동의 능력에 비해 MSSB(맥아서 이야기 구술 검사) 이야기의 주제와 직결된 반응을 보이지 못하며 이야기의 짜임새나 응집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였다.

“장애적 담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담화 유형에 따른 화자 주관성 언어 형태의 분석”(백경선)에서는 장애적 담화의 성찰을 위해서는 신경 심리 언어학의 관점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담화 층위의 장애적 언어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일탈적 화자들의 수행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담화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의 문제: 비언어 요소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김현강・송재영)에서는 담화 자료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의 기능에 주목하여 그 유형과 전사 방법을 살폈다. 몸짓, 시선, 표정, 웃음 등 비언어적 행위와 사진, 효과음 같은 매체의 시각・청각적 요소를 포함하여 선정 과정을 밝히고 비언어적 행위의 기능과 자막 등의 담화상의 기능을 도입하여 매체 담화의 틀을 제시하였다. 영상 매체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요소들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밝힌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비교 인지 언어학적 고찰: 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오현아・박진희)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영화 속에 등장하는 동일한 장면의 인물들의 대사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의 차이로 인한 언어 표현의 차이를 드러내고 그 차이를 유형화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어 화자는 대개 청자 중심의 발화를, 영어 화자는 대개 화자 중심의 발화를 구성하지만 한국어에서도 화자 중심의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으며 영어에서도 청자 중심의 주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음을 세부적으로 밝혔다.

2011년에는 텍스트 언어학의 개론서가 출간되었다. 『텍스트 과학』(고영근)은 『텍스트 이론』(1999)의 제2판으로서, 초판에서 이론의 차원으로 기술된 부분을 학문적 위상이 달라진 현재에 맞추어 책명과 일부 구성을 수정하였다. 전체적으로 텍스트와 텍스트 과학, 텍스트 언어학의 관계 설정에서부터 텍스트 연구의 흐름, 기호학과의 관련성, 응결성과 응집성의 문제, 텍스트의 생성과 구조 분석, 기능과 유형 등을 다룬 다음 분석 실례까지 제시하여 이론과 실제를 아울렀다. 특히 언어학의 대상인 일상 발화뿐만 아니라 문예학의 대상인 문학 작품과 수사학의 대상인 문서, 미디어학의 대상인 영상 매체까지 분석 대상으로 삼아 텍스트 이론을 확대하여 인문 과학의 위상을 정립한 점, 아울러 텍스트 생산의 측면과 함께 수용의 측면을 보강하여 텍스트 소통에 관한 부분까지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문체론 분야에서도 두 권의 단행본이 나왔다. 『국문 서사체의 문체론』(정은균)에서는 국문 서사체가 역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문체의 변화 양상을 이야기 배열, 시점, 문장 연결과 종결의 측면에서 살핀 후 그 특징과 효과를 밝히고 있다. 박사 학위 논문을 단행본으로 출간한 책이다. 이어 『국어와 문학 텍스트의 문체 연구』(정은균)에서는 문체를 기능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특징적인 언어 요소에 따라 텍스트의 문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집중해서 근현대 국어의 문체와 시, 소설과 같은 문학 텍스트의 문체를 다루고 있다. 고려 시대는 석독 구결문의 문체적 특징을, 근대 이전은 장문 구성과 문장 종결 형식, 계사 종결 형식 등을, 개화기는 신소설의 문체를 분석하였다. 이어 시 텍스트에 대해서는 어휘의 용법과 통사 · 의미론적 분석을, 소설 텍스트에 대해서는 시점에 따른 서술 문체의 특징을 토대로 텍스트 해석을 하였다. 특정 텍스트에 한정하지 않고 시대별 국어 텍스트와 문학 텍스트를 고루 다루어 국어 문체의 흐름뿐만 아니라 일반어와 문학어의 텍스트 성격을 밝히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텍스트 언어학과 화용론: 그 상호 접점을 찾아서"(윤석민)에서는 화용론과 텍스트 언어학이 출발 동기는 다르나 언어의 기능적

측면을 중시하는 데 공통적임을 전제하고 텍스트 언어학의 통보 기능이 텍스트 설정의 중요 기준이며 텍스트 자체의 구조 분석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맥락 정보는 텍스트와 순환적, 상보적인 것으로 보며 문장 이상의 언어 단위를 다루어 문장보다 작은 언어 단위의 문법론과 대립한다고 하였다. 반면 화용론은 통보 기능을 중시하나 구조 분석을 가능한 한 제외하며 맥락 정보는 통보 기능의 전제이며 언어의 사용적인 측면을 다루어 문장론과 대립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의미 연구의 주요 이론 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 기술하여 두 이론의 관련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논의이다.

"한글 필사본 음식 조리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안의정·차경희·남길임)에서는 17~20세기 초 한글 필사본 음식 조리서가 어떠한 역사적 변천을 통해 현대의 조리서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고찰한 연구이다. 제보 기능과 호소 기능을 동시에 가지는 필사본 음식 조리서를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주제 분석과 텍스트 유형"(신지연)에서는 주제를 '알려진 정보'로서의 '주제1'과 '새로운 정보'인 '주제2'로 나누고 텍스트를 논증형, 기술형, 설명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정보 구조 요약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에서는 레마가 확장되는 성격을 갖는데 반해 논증형 텍스트의 레마는 여러 근거나 뒷받침 자료를 통하여 하나의 주장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텍스트에서 중요하게 읽히는 것은 레마이지만, 요약적 성격을 가지는 주제의 성격상 기술형, 설명형 텍스트에서는 테마가 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특정 장르에 대한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을 시도한 논의가 여러 편 나왔다. "문학 작품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김진호)에서는 신동엽의 〈봄은〉을 대상으로 상징어 분석을 통해 텍스트의 내용 구조적인 측면을 분석하면서 〈아사녀〉에서 출발한 역사 인식, 현실 인식, 민족 의식적 기반에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문화 교과서 텍스트의 사이버 문화 계열성에 관한 연구"(김영순·이효은)에서는 3학년부터 10학년의 사회 교과서에 수록된 사이버 문화의 내용 요소를 계열성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정보 사회, 정보 격차, 개인 정보 보호, 사이버 공동체, 사이버 중독, 전자

민주주의, 전자 상거래, 사이버 윤리를 다루면서 같은 개념에 대해 반복, 심화, 확대되어 있고 일부 내용은 발전 없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계열성과 계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평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 현상 연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를 중심으로"(안정아, 남경완)에서는 처음으로 텍스트를 구성하는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접속 부사를 문장 간의 접속과 단락 간의 접속에도 사용하며 여러 사건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때도 접속 부사를 과잉 적용하고 있으며 구어와 문어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구어 습관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보았다.

"토론 댓글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다음 아고라의 토론 댓글을 중심으로"(양명희)에서는 인터넷 토론 댓글을 정의하고 언어적 특징을 댓글 작성자, 댓글 작성자 간, 기타 인물로 나누어 살폈다.

"신동엽 산문의 담화 · 화용 양상: 문법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김흥수)에서는 시인 신동엽 산문에서 두드러진 담화와 화용 현상이 문체 기능을 실현하는 양상을 살폈다. 명사적 표현, 지문 등을 통해 주요 내용을 제시하였으며 주요 내용의 강한 전달을 위해 시상, 양태, 지시사, 수사 의문을 사용하여 주관적 태도 개입과 강조 표현을 적극 활용하였고 핵심 전언의 설득과 촉구를 위해 의문 화행이 부각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애도와 치유 언어의 언어적 특징: 박완서 수필『한 말씀만 하소서』를 중심으로"(정성미)에서는 박완서가 아들을 잃은 슬픔을 표현한 글『한 말씀만 하소서』에 나타난 애도의 언어적 특징으로는 자기중심적인 언어, 고통의 언어, 불일치 언어 등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을 들었고 치유 언어의 특징으로는 직접적 표현, 원망의 표현, 추억을 반추하는 것이 자주 등장하고 변형 문장에 의한 사고의 전환도 나타난다는 점 등을 분석해 내었다.

"갑자 상소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민현식)에서는 보그란데 · 드레슬러의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으로 갑자 상소문을 분석한 결과를 응결성과 응집성, 수용성과 용인성, 정보성과 상황성, 상호텍스트성의 관점으로 나누어 설명한 뒤 국어학적 의의를 밝혔다. 그

결과 갑자 상소문은 단순히 한글 창제를 반대한 문서가 아니라 한자음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이념적 관점에서 어문 정책을 추구한 한국 최초의 이념적 어문 정책 문서로 보아야 한다고 평하였다.

"『서경별곡』의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이윤선)에서는 『서경별곡』과 하위 텍스트 T1, T2, T3의 통사 구조의 결속성과 응집성을 분석한 결과 통사 구조의 결속성와 응집성을 높게 가지는 것으로 보고 주제적 측면에서 하위 텍스트 〈T3: 대동강〉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주제 구조적 측면에서도 T3이 T1과 T2의 의미를 모두 아우르는 통사적 결속성과 의미적 응집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거시적인 구조 분석을 통해 〈서경곡〉을 중심에 두고 〈구슬곡〉과 〈대동강곡〉이 이를 보완하는 의미로 파악하는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호 텍스트성에 관한 연구 논문은 두 편이 발표되었다. "텔레비전 드라마와 상호 텍스트성: '텍스트 소환 기법'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박노현)에서는 텍스트 소환 기법을 언급, 인용, 전시, 재생, 교란, 교차 등 여섯 가지로 유형화하고 드라마 내용이 시와 소설 텍스트를 소환하여 극적 발화를 시도하는 장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텍스트가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르와 매체를 가로지르는 광범위한 '텍스트 공동체'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성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해조신문』과 『공립신보』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구명숙)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행된 일간지 『해조신문』과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된 주간지 『공립신보』의 상호 텍스트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표기와 보도 내용, 문체 등을 비교하여 『해조신문』이 타 신문에 비해 『공립신보』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번역학의 입장에서 문체와 주제 구조, 조사와 어미 표현 등을 다룬 논의가 다수 발표되었다. "중국 현대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백수진)에서는 예술적이고 미적인 요소를 전달하고 독자가 어떠한 감정을 느끼게끔 해야 하는 번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 중한 번역문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그 사례를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주어로 사용된 '관형어+的(적)+피수식어' 구조의 번역에서 '的'을 직역하여 '의'로 번역하는 경우, 관형어 구조의 차이, 지시사 這(저), 那(나)의 번역, 인칭 대명사/완전 명사의 첨가와 삭제 등으로 나누어 살폈다.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 구조 비교"(김동연 · 최진숙 · 안동환)에서는 영어 원전과 한국어 번역문의 비교 결과, 전체 절 수에는 큰 차이가 없으며 원전과 번역문에서 화제적 주제와 텍스트적 주제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나 원전에 비해 번역문에서 비율이 더 낮다고 하였다. 화제적 주제 중에서 과정 참여 수는 감소하지만 환경적 요소의 수는 증가하며 텍스트적 주제 중 연결사가 감소하고 접속 부가어 등이 증가하여 절의 응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비속어의 영한 번역 사례 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한미선)에서는 텍스트 내외적으로 비속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소설 세 편의 영한 번역본을 비교 분석하였다. 격식성에 따라 문체가 달라진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한국어와 영어의 5단계 어휘 격식성 모델을 제시한 뒤 어휘 격식의 변화가 담화문 전체에 가져오는 손실을 살피고 텍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최하위 문체 격식을 구성하는 비속어를 어휘 격식이 높은 어휘로 번역하거나 해당 어휘 자체를 번역하지 않을 경우, 담화문 전체의 문체 격식이 높아져 원문과는 다르거나 상반된 문체 효과를 창출해 저자의 의도나 인물의 성격 및 사회언어학적 배경, 맥락과 같은 정보 전달에 실패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영한 번역에서 조사와 어미의 의미 표현"(장경현)에서는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형식의 일치가 아니라 원어 독자와 목표 언어 독자의 반응이 일치하는 것을 목표로 번역해야 함을 주장하면서 영어에 없는 요소인 조사, 어미 등의 실례를 들면서 성공적인 번역이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4.4. 의사소통과 화법

"의사소통과 화용론: 화용론과 의사소통론의 연구 범주를 통한

고찰"(이유미)에서는 화용론과 의사소통론의 상호 관련성을 살피고 청자의 역할과 관계성에 대한 인식, 중의성 등 연구 범주에서 화용론과 의사소통론의 차이를 정리하였다.

"토론 프레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이숙의)에서는 틀 의미론 지식에 기초하여 토론 프레임에 관한 인지 언어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프레임넷(FrameNet)과 같은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 토론의 각 단계별 하위 사건 프레임과 핵심 구성 요소 프레임을 연결 관계를 통해 각 단계의 하위 사건 프레임에서 어떤 핵심 구성 요소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프레임의 활성화에 기여하는가를 표상하였다.

"인터뷰 면접자 담화에 나타난 '상호 작용 활성화' 발화 연구"(강현주)에서는 한국어를 학습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 인터뷰 담화를 분석하여 수험자의 발화를 유도하는 면접자의 발화를 새로운 주제 준비, 어휘 제공 또는 수험자 발화 완성, 평가, 수험자의 발화 반복 또는 수정 등에 따라 살펴보고 각각의 유형들이 나타나는 양상을 제시하였다.

"설득 화법의 전략 연구: 설득 실패 화법 분석을 통한 전략 제시"(최숙이·백정민)에서는 설득 화행이 실현되는 주요 속성을 청자 선택의 자발성(자유 선택 의지)과 설득자 주장의 수용성(자유 선택 결정)으로 규정하고 설득 장애를 화자 중심적 전략과 청자 중심적 전략으로 나누어 설득이 실패한 사례를 분석, 제시하였다.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전정미)에서는 구어에 나타난 비동의 화행의 양상을 대화의 전략적 측면에서 살폈다. 지시 행위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는 상태를 나타내는 부정적인 응답이나 진술 행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발화를 비동의 화행으로 규정하고, 비동의 화행에 나타나는 대화 전략을 자기중심 전략, 상대방 중심 전략, 회피 전략, 승승 전략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시사 토론에서의 말 차례 뺏기 발화의 양상: 토론자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이은희)에서는 경쟁 대화로서의 시사 토론에서 말 차례 뺏기의 의도를 분석하기 위해 공중파 토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사회자를 대상으로 한 말 차례 뺏기와 토론자를 대상으로 한 말 차

례 뺏기로 나누어 살폈다.

“토크 쇼 대화에 나타난 질문-응대의 전략 분석”(장민정)에서는 토크 쇼 진행자의 질문을 정보 확인, 사실 확인, 정서 표현 질문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질문-응대 표현과 상호 소통 방식을 분석하였다.

“한국어에서의 불손 실현: 리치(Leech, 1983, 2002)의 불손 격률”(김태나)에서는 리치(1983)의 공손 이론에서 불손의 잠재성을 살펴 이로써 한국어에 불손 격률을 규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대립적으로 상정한 불손 격률들을 한국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대화들에 적용한 연구이다. 불손은 계획적이며 목적을 가지고 체면을 위협하는 의도라고 보고 공손 원리에 대립하는 불손 격률이 한국어에서 실현되는 기제를 의도, 화·청자의 관계, 청자의 반응 등으로 보았다. 한국적 소통 상황에 맞는 불손 격률을 정확히 포착하여 기존 격률과의 상관성과 실현 기제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이정복)에서는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을 지위 관계에 맞게 대우하기, 공손한 태도 드러내기, 대인 관계 조정하기로 정리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생각을 경어법의 시혜적 사용을 통해 이끌어내려는 의도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말하기라고 주장하였다.

5. 맺음말

이상으로 2011년도에 나온 어휘론과 의미론, 화용론의 연구 성과와 그 흐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말뭉치에서 추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가 분야별로 고루 나왔으며 새로운 주제와 방법론으로 접근한 논문들도 많았다. 특히 학술적 메타 술어의 의미와 용법에 천착하여 정확한 기준점을 제시하는 논의들은 동학들의 연구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인 연구자의 증가와 번역학적 논의의 증가로 대조 연구 분야의 논문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분야별로 그 경향과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어휘론에서는 어휘 연구의 주요 주제를 다룬 개론서가 나왔다. 이 분야의 연구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20세기 초의 어휘를 다룬 논문이 많았는데, 이는 최근 근현대 국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아직은 일정한 텍스트나 장르에 국한된 논의가 다수이지만 앞으로 좀 더 다양한 부류의 어휘를 고찰한 연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해 본다. 어휘의 양상에서는 혼종어와 한자어, 지명, 겹말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관용구와 속담에 대한 연구 성과가 많았다. 반면 신어와 호칭어·지칭어, 상징어 등에 대한 논의는 예년에 비해 저조하였다.

의미론에서는 단어의 의미, 의미 관계, 의미망 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의미'나 '대상'과 같은 학술적 술어의 쓰임에 대해 점검하고 정확한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문장 의미론에서는 문법 형태의 의미를 다룬 논문에 비해 구문의 의미를 다룬 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인지 의미론적 측면에서 제시된 다면어와 민간 모형 등에 관한 연구는 언어 현상을 다각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 주었다.

화용론에서는 발화 의미와 화행, 담화 표지와 화시, 의사소통과 화법 등 여러 주제에 걸쳐 고른 성과를 내었다. 특히 담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에 관한 연구 성과가 두드러졌다. 분석 대상도 문학 작품뿐만 아니라 근대 신문, 교과서, 일기, 구두 발표 등으로 확대되어 외연이 넓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상 자료를 담화 연구 말뭉치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등도 눈길을 끄는 성과이다.

한 해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 동향과 특징을 정리하는 일은 필자가 과문한 탓에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훌륭한 논저임에도 그 가치와 성과를 제대로 소개하지 못했거나 누락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한다.

국어사・국어학사

박 용 찬
(대구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에 나온 국어학 연구 논저 가운데 국어사와 국어학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본격적인 연구 동향의 기술에 앞서 이 글의 기술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언급해 두고자 한다.

이 글은 2011년 국어사・국어학사 연구 논저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지면의 제한도 있는 관계로 연구 논저의 결론이나 주요 요지를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의의를 평가하거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필자의 주관적 평가는 지양하였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기 바란다.

국어사・국어학사와 관련된 모든 논저를 기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능한 한 모든 논저를 기술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밝혀 둔다. 연구 성과는 학술지 게재 논문, 학위 논문, 단행본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어사와 관련된 논저는 제2장에서, 국어학사와 관련된 논저는 제3장에서 기술하였다. 제2장은 '2010년 국어사・국어학사 연구 기술 동향'의 체재에서처럼 다시 문자 및 표기, 자료 및 문헌, 음운, 어휘 및 의미, 형태, 통사, 기타의 7가지 분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분야 안에서도 필요에 따라 더 하위분류하였는데, 하위분류한 논저 가운데 대상 자료나 논의 내용이 시기가 이른 것을 가급적 앞세워 배열하였다.

2. 국어사

2.1. 문자 및 표기

문자 및 표기는 차자 표기와 한글 표기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차자 표기와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삼국 시대 이전의 차자 표기와 관련된 논의로는 "『삼국지』·위서·동이전의 고유 명사 표기자 분석"(권인한)이 있다 이 글에서는 『삼국지』·위서·동이전에 실려 있는 '부여, 고구려, 동옥저, 예,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명/부명(部名), 지명, 인명, 관명 등의 고유 명사 표기를 부여계와 한계로 나누어 그 용자(用字)를 수집·정리하고, 성모·운모·성조별 분포상의 특징을 추출하여 3세기경 한반도의 언어, 특히 음운 상태를 재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성모 면에서는 한계가 부여계에 비하여 유성음, 특히 공명음의 비율이 높고, 운모 면에서는 한계가 부여계에 비하여 폐음절(양성운+입성운)의 비율이 높고, 성조 면에서는 부여계나 한계 모두 '평성〉상성〉거성〉입성'의 순서로 나타나 평성자 선호 경향이 있고, 음소 분포 제약 면에서는 부여계나 한계 모두 어두에서의 /ŋ/, /l/ 제약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삼국 시대 및 통일 신라 시대의 차자 표기와 관련된 논의는 고유 명사 표기, 목간, 이두, 구결, 향찰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고유 명사 표기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고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비교 고찰"(조재형)은 고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바위'와 관련된 지명을 찾아 '바위'의 형태 변화 과정을 알아보았다. 더불어 고대 국어 시기의 '바위' 관련 지명의 명명(命名) 과정과 현대 국어의 '바위' 관련 지명의 명명 방법이 유사하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다. 『삼국 시대 한반도의 언어 연구-고구려어의 역사 비교 언어학적 연구를 중심으로』(정광)는 한국어의 기원 및 계통 연구의 자료로서, 삼국 시대 언어 가운데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고구려 지명 등의 고구려어에 주목한 논의이다. 『고구려어의 언어 유산』(김영황)은 고구려 지명과 인명 표기

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구려어의 어휘와 문법을 살펴본 것이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어 연구: 한・일 지명어 비교의 관점에서"(나카지마 히로미)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타나는 백제 지명 표기에 사용된 용자의 용법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이들을 고대 일본어와 일본 지명 및 아이누어 지명과 관련지어 고찰한 논의이다. 그 결과, '忽'과 동원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긔'(城)는 '잣'의 세력에 밀리어 사어가 되었으나 일본 지명에 차용되어 그 흔적을 남겼음과, 중세 국어 '빗그-'(斜), '벼ᄅᆞ'(崖)로 이어지는 백제 지명어가 일본 지명에서 'ひだ', 'ひら', 'ほき・ほけ'(崖)로, 그리고 아이누어 지명에서 'pira'(崖)로 차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침미다례(枕彌多禮)』고"(김정빈)는 일본서기(720) 백제기에 나타나는 탐라의 음차 이표기인 '枕彌多禮(とむたれ)', '忱彌多禮(とむたれ)' 등과 관련하여, '耽(羅)'에 대응하는 음차 이표기 '枕・忱'이 나타나게 된 음운사적 배경과 그 연혁에 대한 해명을 시도한 논의이다.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장희)은 고대 국어의 고유명사 차자 표기를 활용한 한자음 연구를 개관한 후, 이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안하고 연구 성과 목록을 제시하였다. 삼국 시대로부터 통일 신라 시대까지의 것, 고유 명사를 연구 대상으로 한 것, 한자음 연구에 초점을 둔 것 등을 주 대상으로 삼아, 한자음 연구와 관련한 주변적 연구와 한자음 연구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덧붙여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간략하게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고유 명사 표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는 아니지만 차자 표기와 얼마간 관련된 논의로 "광개토왕릉 비문의 새로운 판독과 해석"(권인한)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우리의 현존 최고 금석문인 고구려 광개토왕릉 비문(414)에 대해 새로운 판독과 해석을 시도하였다. 주내본, 북경대본, 수곡 1・2본, 청명본, 중연본, 금자본, 주운태본 등 8종의 탁본들을 일일이 대조하고, 미즈타니 데이치로(1959) 이후의 주요 논저들과 함께 중국 문헌들에서의 용례와 용법을 폭넓게 검토하여 최대한 문면에 충실한 판독과 해석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다음은 최근 들어 크게 주목받고 있는 목간과 관련된 논의이다. “목간에 보이는 고대 국어 표기법”(김영욱)은 백제 목간과 신라 목간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석독 표기의 사례와 이두의 발달 과정을 검토해 본 것이다. 부여의 능산리사지 목간에 기입된 ‘猪耳(*돗귀/*돝귀)’를 통해 7세기 백제에 석독 표기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월성해자 목간에 기입된 신라식으로 변형된 이두를 통해 이두가 7세기에 이미 신라에서 완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미륵사지 목간에서 찾은 고대어 수사”(이승재)는 미륵사지에서 발굴된 목간(7세기 말엽 또는 8세기 초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 318호에 기입된 표기를 판독·해독하고, 목간에 적혀 있는 39개의 문자를 통해 ‘1, 2, 3, 5, 7, 8’ 등의 여섯 개 수사를 확인한 논의이다. 목간의 표기법이 백제의 표기법임을 밝히고, 목간에 기입된 ‘1, 2, 3, 5, 7, 8’ 등의 수사를 각각 ‘*가덥, *이더릅, *새둡, *다십, *닐곱/*닐굽, *여더릅, *으답/*여덥’ 등으로 재구하였다.

이두와 관련된 논의로는 우선 “삼국 시대 이두에 대한 기초적 논의”(김영욱)는 삼국 시대(기원전 1세기~서기 7세기 중반)의 이두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이두 특징을 고찰한 것이다. 이두는 삼국 시대 후기(5세기) 초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초는 고구려이고 5세기 이후 고구려의 이두가 한반도 전역으로 퍼진 것으로 파악하고, 7세기 무렵 신라에 이르러서야 한문과 완전히 결별된 이두문이 등장한 것으로 보았다. “이두의 개념과 성격”(서종학)은 이두의 개념과 관련된 문헌 자료와 연구사를 검토·분석함으로써 이두의 개념과 성격을 재정립하고자 한 논의이다. 그 결과 ‘이두’란 술어가 ‘표기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사료들이 대부분이며, 연구자 대부분이 ‘이두’를 ‘표기법’으로 해석하고 ‘이두, 향찰, 구결’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것에 동의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필자는 표기법을 뜻하는 ‘이두’를 상위 개념에 두고 그 하위에 ‘향찰, 이찰, 구결’을 두자고 주장하였다.

구결은 음독 구결과 석독 구결로 나뉘고 석독 구결은 다시 자토 석독 구결(기존의 ‘석독 구결’)과 점토 석독 구결(줄여서 ‘점토 구결’ 혹은 ‘부호 구결’, ‘부점 구결’, ‘각필 구결’ 등)로 나뉘는데, 먼저 구

결과 관련된 일반적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한국의 문자, 입겾[구결]"(남경란)은 한국인들이 자국어를 표기하기 위해 만든 한국의 문자인 입겾[구결]을 부호 입겾, 석독 입겾, 음독 입겾으로 나누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석독 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장경준)은 고려 시대 석독 구결(자토 석독 구결, 점토 석독 구결) 자료가 중국어로 쓰여진 한문 텍스트를 필요에 따라 한국어로 옮기는 일의 결과물로, '번역'된 자료이므로 이 자료들도 번역사의 기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결 및 이두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김무림)은 구결 및 이두의 한자음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음차 구결 본자(本字) 목록과 음차 이두자 목록을 작성하고 구결 음차자에 대한 연구, 이두 음차자에 대한 연구, 기타의 연구로 나누어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다.

다음은 점토 석독 구결과 관련된 논의이다. "『화엄문의요결문답』 고사본의 문헌학적 연구"(정재영 · 김성주)는 『화엄문의요결문답』의 고사본인 좌등본과 연력사본을 문헌학적으로 검토하였는데, 좌등본(연력사본과의 서체 비교를 통해 799년을 전후하여 필사한 것으로 추정)은 1축의 권자본으로서 기입된 점토가 신라의 구결을 반영한 중요한 문헌으로, 연력사본(799년 필사)은 2축의 권자본으로서 초기 일본 훈점 자료로 평가하였다.

향가(편의상 균여 향가에 대한 논의도 포함시킴)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p/, /m/ 교체의 허실과 향가 執音乎에 대하여"(최춘태)는 고대 국어에서의 /b/, /m/ 교체 양상(/p/와 /m/은 어떤 언어에서도 공시태에서 어두음 교체가 불가능함. 고대 국어에서는 /b/와 /m/이 음운 자질의 유사성으로 서로 교체가 가능함)을 통해 고대 국어가 유성 저해음 /b/를 가진, 개음절 언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헌화가』와 『풍랑가』의 執音乎나 『광수공양가』의 執音馬를 각각 '*자므온, *자므마'로 해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찰 '(-)頓(-)' 해독의 변증"(양희철)은 '仰頓隱'(『원가』), '頓叱'(『청전법륜가』, 『항순중생가』), '頓部叱'(『참회업장가』, 『수희공덕가』, 『상수불학가』, 『보개회향가』) 등의 세 어휘에 나타나는 향찰 '(-)頓(-)'에

대한 기존의 해독을 변증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仰頓隱', '頓叱', '頓部叱' 등을 각각 '울월좃은/울월조슨', '뭇-', '무두빗/무주빗' 등으로 해독하였다. "향찰 '皆' 해독의 변증"(양희철)은 균여의 보현십원가의 『청불주세가』, 『상수불학가』, 『보개회향가』 등에 여섯 번 나오는 향찰 '皆'에 대한 기존의 해독('긔, 가, 개, 거, 긔, 기, 다, 다ᄋᆞᆺ/닷, 모든, 몯, 므릇, 여ᄃᆞ, 여러, 여릐, 한, 함목' 등 16종)을 변증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청불주세가』, 『상수불학가』, 『보개회향가』 등에 나온 6개의 향찰 '皆'를 모두 훈독자로 파악하고 '모도'로 해독하였다. "균여 향가 『보개회향가』의 한 해석"(김성주)은 정원본 『화엄경』 권제40 보현행원품의 '보개회향원'과 최행귀의 한역시 '보현행원송'에 바탕을 두고, 기존의 균여 향가 해독 및 최근의 석독 구결 등의 국어학적 연구 성과를 토대로 균여의 보현십원가 가운데 하나인 『보개회향가』를 국어학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해독과 달리 제1구 '修孫', 제2구의 '迴良只', 제4구의 '悟內去齊', 제8구의 '然叱爲事置耶' 등을 각각 '닦온 손', '돌이악', '알이ᄂᆞᆫ가져', '그엇ᄒᆞᆫ 일이도야' 등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다. "향찰 표기자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이준환)은 향찰 표기자 한자음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향찰 표기자의 목록(100여 자)을 작성하고 향찰 표기자의 한자음을 검토한 다음, 그 특징을 기술하고 앞으로의 연구 방향을 제안했다. 고대 국어 차자 표기 자료에 대한 연구, 일본 자료에 대한 연구, 한어 음운사 연구 등이 더욱 풍성해져야 하며 목간이나 고문서 자료 등에 나타나는 서체에 대한 관심이 더 커져야 함을 강조했다. 『신라 향가의 표기 원리』(고창수)는 향가의 표기 체계와 고대 한국어의 구조격 등을 살펴보았는데, 고대 한국어의 구조격들이 보여 주는 언어학적 일반성에 기반하여 관련된 문맥들을 해독하는 것이 향가 해독의 또 다른 방법론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고려 시대의 차자 표기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석독 구결의 속격 '-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장윤희)는 석독 구결에서 주로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는 '-尸'이 속격 조사의 표기에도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그 이유를 밝히려 한 논의이다. 속격 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의 유사성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으

로 보고, 중세 국어의 속격 조사 '-ㅅ'과 동명사 어미 '-ㅭ'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음절 말 ㅅ이 'ㅅ→?'의 불파음화를 경험한 결과음과 동명사 어미 '-ㅭ'의 말음이 서로 같기 때문에 동명사 어미 '-ㄹㅅ' 표기가 나타나기도 함)에 주목하여, 석독 구결 자료에서 동명사 어미를 표기하는 '-尸'이 속격 조사의 표기에도 나타나는 현상은 음절 말 ㅅ의 불파음화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속격 '-尸'은 속격 '-ㅅ'이 불파음화한 '?' 음임을 표시)이라고 추정하였다. "구결 '支' 해독의 변증"(양희철)은 고려본 『유가사지론』, 고려본 『대방광불화엄경』, 고려본 『합부금광명경』 등에 나오는 고려 구결 '支'에 대한 기존의 해독을 변증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인데, 『유가사지론』의 '如支, 如支ㅅ-', 『대방광불화엄경』의 '故(/能/免/善/如則)支, 離支-, 如支ㅅ-, 元矢支ㅐ分, (ㅅ)ㄷ支立', 『합부금광명경』의 '如支, 如支ㅅ-, 如支弖' 등 가운데 '如支·如支(ㅅ)-', '故支·能支·免支-·善支(ㅅ分)·則支·離支-', '元矢支ㅐ分', (ㅅ)ㄷ支立' 등을 각각 'ᄀᆞᆮ/ᄀᆞᆮ(ᄒᆞ)-'('支'는 말음 첨기의 'ㄷ'), '닫/탇·싣·벋-·읻(ᄒᆞ며)·곧·헤어디-'('離支-'의 '支-'는 말음절 첨기의 'ㄷ'이고 나머지 '支'는 말음 첨기의 'ㄷ'), '미디 디이며'('支'는 의존명사 '디'), '(ᄒᆞ)나디쎠'('支'는 소망의 선어말 어미 '-디-') 등으로 해독하였다. "석독 구결 자료의 전산 입력 및 교감에 대하여"(장경준)는 그동안 석독 구결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교감해 온 역사를 간략히 살펴보고, 최신 입력 자료인 'sktot_2011_08'을 대상으로 하여 전산 입력 및 교감의 원칙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다음은 고려 시대 석독 구결 가운데 점토 석독 구결과 관련된 논의이다. "11세기 이두 자료로 본 부점 구결의 기입 시기"(이승재)는 여러 불경 자료(『유가사지론』 권제5, 8, 주본 『화엄경』 권제6, 22, 31, 34, 36, 57), 진본 『화엄경』 권제20)에 부점을 기입해 넣은 시기를 추정한 논의이다. 11세기 이두 자료와 부점 석독 구결 자료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언어 형식을 중시하여, 『유가사지론』, 주본 『화엄경』, 진본 『화엄경』 등에 부점을 기입한 시기가 이들 불경의 간행 시기와 그리 멀지 않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결과적으로 『유가사지론』 권제5, 8에는 11세기 전반기의 언어가, 주본 『화엄경』 권제6,

22, 31, 34, 36, 57)에는 11세기 말엽이나 12세기 초엽의 언어가, 진본『화엄경』권제20에는 10세기의 언어가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았다. "고려 시대 점토 구결의 부호에 관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선생의 논고에 대한 검토"(장경준)는 고려 시대 점토 구결에 사용된 부호에 대한 최근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한국 점토 구결의 발견과 초기 연구에 커다란 공헌을 한 고바야시 요시노리 선생의『각필문헌연구도론』(2004)의 논의 내용 가운데 재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검토한 것이다.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다. '返讀符'로 기술한 다섯 가지 유형 가운데『유가사지론』계통에 사용된 [3], [4], [5]만 인정하는 것이 좋겠고, '句節符'로 기술한 부호들은 모두 '句節符'로 보기 어렵고, '合符'로 기술한 a, b, c의 세 유형 중에 a형과 b형은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 '四聲點'의 例로 제시한 것들은 점토 구결의 부호로 인정하기 어렵고, '節博士'의 예로 제시한 것들은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

조선 시대의 차자 표기 가운데 이두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박성종)는 14세기 말부터 16세기 중엽까지의 한문의 이두 번역문인『대명률직해』(1395),『양잠경험촬요』(1415),『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1541),『농서집요』(필사본, 15세기 초인 조선 태종대, 늦잡아도 1517년 중종대 필사한 것으로 추정) 4종을 대상으로 그 문체와 어휘에 관해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본 것이다. 명사문으로 텍스트를 종결하고, 원문의 1음절 한자에 유사한 의미의 한자를 덧붙이거나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보족 기능의 한자를 덧붙여 다량의 2음절 한자어를 생성하고 있는 것 등을 주요한 특징으로 꼽았다.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과 그 이두에 대하여"(박성종)는『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의 계통(1541년 원간본, 1578년 중간본, 1636년 복간본, 1644년 증보본 등의 4가지 계통) 및 서지 사항, 그리고 이두문과 언해문의 관계, 이두어와 이두토의 언해 반영 양상 등을 살펴본 것이다. 이두문과 언해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두문에 이끌려 언해한 경우도 없지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두문과 상관없이 한문을 바탕으로 언해하였고, 이두문에서는 경어법의 '-白-'과 주격 조사 '-亦'이 쓰이지 않았으며

‘-矣’가 처소의 부사격 조사로도 쓰였음을 확인하였다. “‘풍정도감의궤’의 국어학적 연구”(장혜원)는 1630년(인조 8년) 3월 22일 인목대비의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인경궁에서 열린 잔치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풍정도감의궤’에 나타나는 이두 형태의 총목록(58개)을 조사류와 어미류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고 ‘풍정도감의궤’에 나타나는 어휘의 특징을 정재명(呈才名), 찬선명(饌膳名)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국어사전류에 등재돼 있지 않은 단어(‘擧爵, 排宴, 上號, 盛禮, 習閱, 閱樂’ 등)를 분석하였다.

다음은 구결과 관련된 논의이다. “영남대 소장 구결 자료 ‘대혜보각선사서’에 대하여”(박진호)는 대혜 선사(1089~1163)가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아서 펴낸, 영남대 동빈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대혜보각선사서』(고려 말 혹은 조선 초에 인출된 것으로 추정)의 간행 경위 및 서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이 자료에 기입된 구결의 양상 및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표훈사판 『치문경훈』의 서지 및 구결”(황선엽)은 택현온제(?~1130)가 지은 『치문경훈』의 간행 경위 및 서지적 사항을 살펴보고, 영남대 동빈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치문경훈』 표충사판(1539)에 기입된 구결자 및 구결토(200자 정도) 목록을 작성하였다. “영남대본 『불조역대통재』의 서지와 구결”(김성주)은 원(元)의 염상(念常)이 과거 칠불부터 원의 원통(元統) 원년 즉, 1333년까지의 불교 사실(史實)을 기록한 불교 역사서인 『불조역대통재』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영남대 동빈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불조역대통재』 쌍봉사 복각본(1576)의 권제1 · 2에 기입된 구결자(51자) 목록을 작성하고 기입된 구결의 성격을 알아보았다. “동빈문고본 『법화영험전』의 서지와 국어사적 가치”(심보경)는 영남대 동빈문고에 소장되어 있는 『법화영험전』의 문수사본(1534)의 서지 사항과 내용 분석을 통해 국어사적 가치를 밝히려 한 논의이다. 권상 첫 장에서 9개의 구결자가 28회 사용되었음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차자 표기와 관련된 그 밖의 논의로 “『신편집성마의방』의 향명 표기 해독”(이건식)을 더 들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신편집성마의방』 전주부 개간본(1580)에 기재돼 있는 16개의 향명 표기를 해독(15개

해독)하였다. '馬衣[於之]', '田螺[古乙方]' 등을 각각 '어지'('어치'의 선대형), '골왕'('골방'의 선대형) 등으로 해독하였고, 종래의 향명 표기 자료에서 찾아볼 수 없는, 鬐[捫多會/몬다회], 老鼠瘡[蝶癖/나빙], 蝶瘡/나비창], 作騷[取袋/취딕], 梓木[牙木/엄나모], 節黃[肢派/지페] 蹄黃[召伊/초리], 腿骨解[都或出/독나다], 花瘡[菌瘡/미상], 黃狂[召西肥/죡져비] 등의 새로운 향명 표기들을 확인하였다.

이제부터는 15세기 이후 한글로 표기된 문헌이나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표기법을 중점적으로 다룬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중세 국어의 표기법과 음운 현상 연구"(송미영)는 『월인천강지곡』(1447), 『용비어천가』(1447), 『석보상절』(1447) 등을 중심으로 형태음소적 표기(분철)의 특징을 확인하고, 분철 표기의 등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음운 현상(ㄱ 탈락, ㄹ 탈락, ㅇ/으 탈락, 반모음 삽입, 중화)을 살펴보았다. "『월인석보』와 『법화경언해』의 표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권화숙)는 『월인석보』(1459)와 『법화경언해』(1463)에 나타나는 언어 사실 가운데 다양한 표기법 양상을 살펴, 두 문헌 간의 표기법의 차이를 고찰한 것이다.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의 문자 체계와 표기법-대영도서관본을 중심으로-"(강신아)는 대영도서관본 『삼강행실도』(1460년경)를 여러 이본(김영중 소장본, 성암고서박물관 소장본, 일석문고 내사본, 성균관대 소장본, 규장각본 등)과 비교하여 이 자료가 성종대본의 원간본 계열(김영중 소장본과 동일본 혹은 복각본)임을 확인하고, 대영도서관본의 문자 체계(음절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 목록을 정리함)와 표기법(음소적 표기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여씨향약언해』와 『이륜행실도』의 표기법 비교: 중앙과 경상도에서 간행한 문헌의 표기를 중심으로"(최영미)는 『여씨향약언해』 화산본(1519, 중앙 간행)과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1518)의 표기를 비교하고, 『여씨향약언해』 존경각본[1518, 경상도 금산(지금의 김천) 간행]과 『이륜행실도』 옥산서원본[1518, 경상도 금산(지금의 김천) 간행]의 표기를 비교하여, 세 문헌에서 나타나는 표기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살펴본 것이다. 세 문헌의 표기는 모두 16세기 음운 변화나 변동을 반영하여 이질성보다 동질성이 더 많은데, 이는 세 문헌의 간행에 동일인(김안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세 문

헌에 김안국 개인의 표기 의식이 반영된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17세기 초기의 표기법 단순화 연구: 방점과 'ㅇ'을 중심으로"(조오현)는 방점과 'ㅇ'이 표기에서 사라진 원인을 음가의 소실로 보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17세기 초에 나타난 표기 체계의 단순화에서 찾으려 한 논의이다. 17세기 이후에는 성운학자가 아닌, 문학가, 실학가, 평민들이 개인적으로 펴낸 책이 많아서 표기 체계를 간략하고 단순하게 바꿀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방점과 'ㅇ'[일반인은 'ㅇ'과 'ㅇ'을 잘 구별하지 못함]이 소멸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진법언해(陣法諺解)』의 표기와 음운"(이진호)은 1693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법언해』의 문헌적 성격, 표기상의 특징, 특징적인 음운 변화 등을 고찰한 것이다. 표기상의 특징으로서 7종성법(ㄱ, ㄴ, ㄹ, ㅁ, ㅂ, ㅅ, ㅇ) 확립, 분철 표기(체언의 받침이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일 경우 항상 분철하고, 나머지 자음의 경우 항상 연철함. 용언 어간의 받침이 'ㄱ, ㅂ'일 경우 항상 분철하고, 'ㄹ'일 경우 분철과 연철을 임의적으로 선택하고, 나머지 자음의 경우 연철함), 된소리를 적기 위한 세 계열의 병서자 사용(ㅺ, ㅼ, ㅽ, ㅆ; ㅳ, ㅄ; ㅆ) 등을 확인하였다. "근대 국어 중철 표기의 유형 검토"(김소연)는 근대 국어 중철 표기의 양상을 살펴보고, 중철 표기가 나타나는 환경(형태소 경계, 형태소 내부), 정도성(완전 중철형, 부분 중철형), 방향성(순행 중철형, 역행 중철형), 품사(체언, 용언, 수식언) 등을 고려하여 중철 표기의 유형을 재분류하였다.

"개화기 국어 체언 말 자음의 표기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신소설 작품을 중심으로"(이자형)는 20세기 초 발표된 「애국부인전」(1907), 「구마검」(1908), 「경세종」(1908) 등 총 43편의 신소설 자료에 나타난 'ㅈ, ㅊ, ㅌ, ㅍ, ㅋ' 말음 체언 어간의 곡용에서의 표기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ㅈ, ㅊ, ㅌ, ㅍ, ㅋ' 말음 체언 어간의 연철 표기는 거의 나타나지 않고, 이들 체언 어간 가운데 'ㅈ' 말음 체언 어간은 주로 분철 표기(ㅅ)되어 나타나고, 'ㅊ, ㅌ' 말음 체언 어간은 분철(ㅅ) 및 중철 표기(각각 'ㅅㅊ, ㅅㅌ')되어 나타나고, 'ㅍ, ㅋ' 말음 체언 어간은 분철 표기(각각 'ㄱ, ㅂ')되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글 표기와 관련된 그 밖의 논의로 "범자의 한글 음사(音寫)에

대한 고찰: 『오대진언』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불정존승다라니”를 중심으로”(미즈노 슌페이)를 더 들 수 있다. 이 글은 1485년에 간행된 『오대진언』의 “신묘장구대다라니”와 “불정존승다라니”를 대상으로 다라니·진언의 한글 음사를 분석하여 그 음사의 원리를 밝힌 것이다. 그 결과 이 다라니·진언들이 대체로 한글 음사의 기본 원칙을 제시한 『진언집』의 ‘실담장’에 따라 한글 음사를 했지만 『진언집』의 ‘실담장’과 괴리를 보이는 한글 음사를 한 것도 많은데, 이는 한자 음사에 쓰인 한자음에 직접 영향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았다.

2.2. 자료 및 문헌

새로운 국어사 자료·문헌을 소개하거나 국어사 자료·문헌의 특징이나 성격을 면밀하게 밝힌 논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고려대학교 소장 『훈민정음』(언해본)의 특징과 의미”(김주필)는 고려대학교 소장 『훈민정음』(언해본)에서 보사한 첫 장의 앞뒤 두 면의 내용과 특징을 검토하여 이 책의 성격과 의의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다. 보사 내용과 보사 부분에 사용된 언어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고려대본은 17세기에 한문에 조예가 깊은 학자가 낙장된 두 면을 보충하여 편찬해 낸 것으로서, 안병희(1976)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보사자는 첫장 맨 앞에 찍혀 있는 장서인인 남학명(1654~1722)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였다. “『월인천강지곡』 결사의 재구 시론: 『월인석보』 권25 권말 주석 복원을 겸하여”(이호권)는 현전본 『월인석보』 권25의 권말의 훼손된 주석 부분을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월인천강지곡』의 결사(기582~583) 부분을 재구하여 복원하였다. “『월인석보』 권두 부속 문자의 서지”(이호권)는 『월인석보』 권1 앞에 붙어 있는 5종의 부속 문자들, 곧 『세종어제훈민정음』, 『팔상도』, 『석보상절서』, 『어제월인석보서』, 『패기』의 편철 순서에 관련된 문제와 그들의 문헌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월인석보』 권십팔과 『법화경언해』 권육, 권칠의 번역에 대한 비교 연구: 의역과 직역 양상을 중심으로』”(권화숙)는 『묘법연화경』을 동일 저본으로 하고 있는 『월인석보』(1459) 권18과 『법화경언해』(1463) 권6, 권7을 대상으

로 하여 의역과 직역을 중심으로 두 문헌 간에 나타나는 번역 양상의 차이를 검토한 것이다. 단어 유형별로 대비해 본 결과 『법화경언해』에서는 대체적으로 직역체의 모습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금강경삼가해』의 국어학적 연구"(한승주)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금강경삼가해』(1482)의 특징을 살피고 표기법, 음운적, 어휘적, 문법적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논의이다.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 연구"(김무봉)는 『오대진언』(1485) 속에 합철된 형태로 전해지는 『영험약초언해』의 성격 및 형태 서지, 국어사 자료로서의 가치 등을 살펴본 것이다. 『영험약초언해』는 네 편의 진언과 관련된 영험담을 모아서 먼저 한문으로 적은 후 이를 정음으로 옮긴 언해본인데, 원문과 언해문을 모두 합해도 18장에 지나지 않는 매우 짧은 문헌이고 언해문이 문어투이지만, 15세기 후반의 국어 연구를 위해서는 소중하게 다뤄야 할 자료로 평가하였다. 그 밖에 『훈민정음』 해례본이 일제에 의해 낙장 보사되었다고 주장한 『훈민정음의 숨겨진 진실』(최명재)이 있다.

"『이륜행실도』의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진서화)는 『이륜행실도』의 원간본(1518), 중간본 가운데 하나인 기영 개간본(1727), 『오륜행실도』(1797)의 관련된 부분 등을 대상으로 세 문헌 사이에 나타나는 번역상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세 문헌을 대상으로 하여 번역 순서(명사구, 동사구, 부사어 등의 번역 순서), 어휘적 차이(명사류, 동사류, 부사류, 형용사류), 번역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 번역된 부분, 의역과 직역, 문법적 차이 등을 비교하였다. "석봉천자문 판본 연구"(손희하)는 국내외 『석봉천자문』(1583)의 판본 16종을 간략히 정리하고, 갑술 중간본의 간행 연대 문제, 경인 중보본의 판종 문제, 내사본 영인 자료의 진위 문제 등을 고찰하였다. '천자문'과 관련된 논의로서 "'무술맹하서내신간' 『천자문』 연구"(손희하)는 1898년 음력 4월에 간행한 천무술맹하서내신간본 『천자문』을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였고, "을사 계동 완산 신간 『천자문』 연구"(손희하)는 1905년 음력 12월에 간행한 을사계동완산신간본 『천자문』을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김국표 서 『천자문』 해제"(홍윤표)는 영조 때 명필 김국표가 쓴 『천자문』(1750)을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고, "『증보천자(增補千字)』 해제"(홍윤표)는 1870년대에 이복원이 편찬한 것으로 추정되는 『증보천자』를 새로 발굴하여 소개하였다.

"칠서(七書)의 언해와 그 국어사적 의의"(이영경)는 1590년에 간행된 『논어언해』, 『맹자언해』, 『대학언해』, 『중용언해』와 1610년을 전후하여 간행된 『주역언해』, 『서전언해』, 『시경언해』의 언해상의 특징과 국어사적 의의를 고찰한 것이다. 칠서 언해의 언해상의 특징은 축자작해에 의한 철저한 직역 원칙, 다른 문헌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한자어 사용 비중으로 대별되며, 칠서 언해가 완결성을 갖춘 번역 체재로 공인받음으로써 언해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지식층에 한글을 널리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언해의 성격에 대하여"(이영경)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가 체재나 언해 양식에서 이전의 행실도류와 다른 특징을 보여 준다는 점에 착안하여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나타나는 이질적인 언해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동국신속삼강행실도』는 원문과의 철저한 대응을 추구하는 직역 문헌의 특징을 현저하게 보여 주는데, 이는 동 시기에 간행된 칠서 언해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걸대신석언해'의 번역 양상과 특징"(주해영)은 평안 감영판 『구간노걸대언해』(1745), 『중간노걸대언해』와의 비교를 통하여 『노걸대신석언해』(1763)의 번역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한어 원문이 다르고 언해문이 다른 부분과, 한어 원문이 같고 언해문이 다른 부분으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에는 어휘, 구절의 분단, 생략, 첨가 등을 살펴보았고 후자의 경우에는 표기, 음운, 어휘, 문법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천예록』과 『동패락송』의 국문 번역본 고찰"(남궁윤)은 18세기 초·중엽에 편찬된 한문본 야담집인 『천예록』과 『동패락송』의 국역본을 소개하고, 번역 양상과 특징을 통해 야담의 국문 번역본이 갖는 의의를 고찰하였다. "'금산사몽유록'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박진하)은 정확한 창작 연대를 알 수 없고 조선 후기의 소설로 추정되는 '금산사몽유록'을 대상으로 어음 표기, 어휘론적 특징, 문법론적 특징 등을 고찰하였다.

“19세기 초기 전라 방언 자료『수운정비회유록(睡雲亭悲懷遺錄)』 연구”(백두현)는 전라도 임실의 김낙현이 1826년에 작성한 문서(필사본)로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기까지의 전라 방언을 반영한『수운정비회유록』을 소개(전반부 5장은 한문, 후반부 10장은 한글, 후반부의 한글 문장은 전반부 한문의 언해가 아님)하고, 한글 문장에 담긴 저술자 김낙현의 언어 의식과 음운, 형태, 어휘 등의 제 양상에 대하여 간략히 기술하였다. “나에시로가와본『석음담』에 대하여: 조선어 학습서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박진완)는 교토대학에 소장돼 있는, 조선어 학습서인 나에시로가와본『석음담』의 성립 과정을 추정하고, 이 책이 조선어 학습서로서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논의이다.『석음담』은 왜관을 배경으로 일본 측 통사가 질문하고 조선 측 역관이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본래 일본어 문답집『췌언시집』 등을 조선어로 번역한 것인데 쓰시마(對馬島)의 학습서로 사용되다가 나에시로가와에 전해진 뒤 현지의 조선어 통사에 의해 다시 필사된 것으로서 1803년 이후 1854년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오구라문고(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중세어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후쿠이 레이)는 오구라 신페이의 장서를 모은 오구라문고 소장본에 대하여 그 전반적 특징을 살펴보고, 중세어 자료(15세기와 16세기에 간행된 한글 자료와 구결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나카무라 쇼지로 기증본 약 27부 29책]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오구라문고 소장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일 고찰:『금고기관』을 중심으로”(정승혜)는 오구라문고에 소장돼 있는 자료 가운데, 나카무라 쇼지로가 1876년에 필사한『금고기관』 언해본의 자료적 가치와 더불어 그 내용 및 국어학적 특징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다. 오구라문고에 소장돼 있는『금고기관』은 현전하는 몇 안 되는 언해본 중의 하나이며, 아직 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대 국어 연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고 평가했다.

“개화기의 천주교, 개신교 관련 자료”(김형철)는 1860년부터 1910년까지 간행된 천주교, 개신교 관련 문헌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로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성서 자료, 성서 이

외의 자료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개화기 신문과 잡지 자료의 국어사적 현황과 분류”(신중진)는 개화기(1876~1910) 신문(159종)과 잡지(590종)의 총목록(749종)을 정리하고 그것을 다시 문체별(순국문체, 국한문체, 기타)로 분류한 것이다. 『한일 초기 번역 성서의 어학적 연구』(오미영)는 한국, 일본의 초기 번역 성서를 비교한 것인데, 특히 이수정 역 『신약마가젼복음셔언히』(1885)의 문체와 명사 번역어를 일본의 초기 번역 성서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영남대 소장본 『숙혜기략』 고찰”(정은진)은 1895년경 학부 편집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발간한 『숙혜기략』(1895)의 편찬 의도, 간행 시기 및 내용적 특징을 살펴보고 영남대 동빈문고 소장본[목활자본 1종, 필사본(1921년 필사) 1종]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국어사 자료로서의 ‘개화기 소설’: 개화기 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이영아)는 지금까지의 개화기 소설 연구의 주요 쟁점들들에 대한 논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종합적인 개화기 소설(1896년부터 1910년 8월 이전까지 신문, 잡지, 단행본으로 발표된 작품) 목록을 작성하였다. “20세기 초 러시아 동방학원의 한국어 학습서 『조선어독학』에 대하여”(김동언・로스 킹)는 20세기 초기 러시아 원동지방의 동방학원에서 발간한 『조선어독학』(1908)의 서지(포드스타빈의 강의를 바탕으로 그의 제자 야신스키가 알려지지 않은 일본의 한국어 학습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발간한 것으로 추정)와 문법, 『조선어독학』 본문의 특성(키릴 문자로 전사하고 번역, 구어체)을 살펴보았다. 자료 및 문헌과 관련된 그 밖의 논의로 “조선 시대 유교 의례 관련 한글 문헌 연구”(김봉좌)가 더 있다.

국어사 관련 자료에 대해 일반론적으로 소개한 것으로는, 한글 고문서의 양식과 내용에 대한 논문 20편과 디지털 시대의 한글의 미래에 대한 논문 3편을 모아 엮은 『한글 고문서 연구』(이상규), 「현풍 곽씨 언간」(1602~1650)을 중심으로 조선 시대 선비의 삶과 그들의 생활 문화를 살펴본 『한글 편지로 본 조선 시대 선비의 삶』(백두현), ‘조선왕조실록’에서 한글과 관련된 이야기를 추려 내 엮은 『조선언문실록: 실록으로 보는 조선 시대 사람들의 한글 사용기』(정주리・시정곤) 등이 있다.

국어사 관련 자료나 문헌에 대한 역주 · 주석서 및 번역서로는 국립국어원에서 국어 문헌 자료 총서 시리즈로 펴낸 『내훈』(이선영 · 이승희), 『구황촬요』(서종학), 세종대왕기념사업회에서 '한글 고전 역주 사업'의 일환으로 펴낸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0』(임홍빈),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김영배), 『역주 번역소학 권6 · 7 · 8 · 8 · 10』(정호완), 『역주 소학언해 권1 · 2』(정호완), 『역주 소학언해 권3 · 4』(정호완), 『역주 논어언해 권1 · 2』(장세경), 『역주 논어언해 권3 · 4』(장세경), 한국한의학연구원 동의보감기념사업단에서 번역하여 펴낸 『언해구급방』(안상우 · 박상영 · 이정화), 『언해두창집요』(안상우 · 권오민), 『언해태산집요』(안상우 · 이민호), 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을 현대어로 풀어 쓴 『현대어로 풀어 쓴 주시경의 국어문법』(고영근 · 이용 · 최형용) 등이 있다.

국어사 관련 자료집으로는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한글 고문서 자료집』(문화체육관광부 편), 『개화기 가사 자료집』 1~6(신지연 · 최혜진 · 강연임 편), 『통감 시대 교과서 자료』 1~8(허재영 편), 『일제 강점기 일본어(국어) 보급 정책 자료』(허재영 편), 『조선어법 급 회화서』(허재영 편), 『(월간 잡지) 조선어』 1~6(허재영 편), 『조선어문학회보』(허재영 편),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 상, 중, 하(허재영 편), 『중등학교 조선어 교과서』(허재영 편) 등이 있다. 그 밖에 광개토왕릉 비문을 포함해 고구려 · 백제 · 신라 3국 관련 금석문 탁본과 사진 등의 이미지 자료들을 모아 엮은 『금석문 자료 (1): 삼국 시대』(국립중앙박물관)와 효종, 현종, 장렬왕후, 인선왕후, 명성왕후 등이 숙명 공주에게 보낸 한글 편지 67편을 하나로 묶은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국립청주박물관) 등도 국어사 관련 자료집으로 볼 수 있다.

2.3. 음운

먼저 국어 음운의 통시적 변화를 다룬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어 /ㅎ/의 통시 음운론: /k/〉/h/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위국봉)는 고대 국어로부터 후기 중세 국어에 이르기까지 /ㅎ/의 음소적 지위

와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고대 국어를 보여 주는 차자 표기 자료에서의 아음 계열과 후음 계열의 혼용 현상을 통해 음소 /h/의 변이음으로 [*x]를 재구하고, 고대 국어로부터 후기 중세 국어에 이르기까지의 /k/〉/h/ 변화의 여러 음운 현상을 통하여 음소 /h/의 변이음으로 [*x]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일본 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한 /ㆍ/의 음가 고찰"(이준환)은 /ㆍ/를 모음으로 지닌 한국 한자음과 일본 한자음의 대응 양상을 분석하여, /ㆍ/는 고대 국어에서부터 근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중설 모음이고, [舌縮]을 축으로 한 /ㅜ/:/ㅗ/, /ㅡ/:/ㆍ/, /ㅓ/:/ㅏ/의 체계적 대립을 고려하면 그 음가는 /ə/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기 중세 국어 음운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배영환)는 15세기의 국어에서 적극적 기능을 갖는 'ㅇ'을 후두 유성 마찰음의 음가를 갖는 'ɦ'과, 'ㅸ'의 변화 과정에서 생긴 'ㅇ'으로 구분하고, 'ɦ'은 15세기의 'ㄱ' 약화 규칙과 '$C_1V_1C_2V_2C_3$'형에서의 'C_3'의 약화에 따른 것으로 보고, 'ㅸ'이 변화한 'ㅇ'은 ß〉w의 과정에서 'ß'가 갖는 [마찰성]이 'w'에 전수되면서 표면적으로 'ㅇ'으로 남은 것으로 보았다. 결국 'ㅇ'은 'ɦ'과 'ß'가 공통적으로 갖는 [마찰성]이 선행 말음을 분철시킨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세 국어 2자 중성 합용자의 음 변화"(정영호)는 15세기 중기의 'w'는 'ㅗ/ㅜ'의 변이음에 불과하며 'ㅗ/ㅜ'와 'w'는 음소와 변이음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았다. 형태소 내부의 'ㅘ, ㅝ'는 1음절에 2모라를 가진 복합음운 '[oa], [uə]'로, 형태소 경계에서 'ㅸ〉w' 변화(w 활음화)의 결과로 나타난 '바〉와, 벼〉워'의 '와, 워'는 '[wa], [wə]'로서, 'ㅗ/ㅜ'와 'w'를 음소와 변이음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15세기 후기부터 w 활음화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w 삽입이 본격화되면서, w가 독립 음소로 기능하기 시작하다가 w 삽입이 활발하게 적용되기 시작한 16세기 이후에 비로소 w가 독립적인 음소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어의 어두 자음군에 대한 최적성 이론의 분석"(조성문)은 중세 국어의 어두 자음군('ㅂ'계 어두자음군의 'ㅲ'ㆍ'ㅳ'ㆍ'ㅶ'ㆍ'ㅷ', 'ㅄ'계 어두 자음군의 'ㅺ'ㆍ'ㅼ'ㆍ'ㅽ')은 왜 'ㅂ'으로 시작하는지, 그리고 왜

‘ㅂ’계 어두 자음군에 ‘ㅂㄱ’·‘ㅂㅋ’·‘ㅂㄴ’·‘ㅂㅁ’·‘ㅂㄹ’·‘ㅄ’이 존재하지 않고 ‘ㅺ’계 어두 자음군에 ‘ㅆ’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을 최적성 이론의 제약(Sonority 제약, *pC 제약, *Onset/bv 제약, *Onset/on 제약, *Onset/oa 제약, *Complex 제약 등)을 적용하여 설명하였다.

후기 중세 국어의 성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는 2편이다.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김성규)는 성조 변동 유형에 따라 중세 국어의 어미류를 분류하였다. 먼저 1음절 모음 어간을 평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류(약어미, 주로 어말 어미)와 거성으로 실현시키는 어미류(강어미, 주로 선어말 어미)로 나누고, 고정적으로 거성을 가지는 어미류와 어간의 성조에 따라 유동적인 성조를 가지는 어미류로 나누었다. 그리하여 중세 국어의 어미는 약어미이면서 고정적인 성조를 가지는 것(A), 강어미이면서 고정적 성조를 가지는 것(B), 강어미이면서 유동적인 성조를 갖는 것(D)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어순 면에서 볼 때 A 유형의 약어미들은 선어말 어미 ‘-오/우-’보다 뒤에서 실현되는 어미들이고(‘-오/우-’ 포함) B와 D 유형의 강어미들은 선어말 어미 ‘-오/우-’보다 앞에서 실현되는 선어말 어미들이라고 하였다. “후기 중세 국어 ‘거, 아/어’계 어미의 성조와 형태 분석”(유필재)은 선어말 어미 ‘-거-, -아/어-’ 및 선어말 어미 ‘-거-, -아/어-’가 포함된 어미와, 어말 어미 ‘-거, -아/어’의 성조 교체 양상을 검토하였다. 선어말 어미 ‘-거-, -아/어-’(‘-가-, -나-’ 포함)는 모두 모음 어간을 거성으로 실현시키는 강어미로서, ‘-거-’는 앞 음절의 성조를 따르는 전의적(前倚的) 성조를 갖는 데 반해 ‘-아/어-’(‘-가-, -나-’ 포함)는 거성의 성조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거늘, -아늘/어늘’, ‘-거니와, -아니와/어니와’, ‘-건댄’ 등의 ‘-거-, -아/어-’계 어미는 어간의 타동사성 여부에 따라 교체를 보이는 부류(‘-거늘, -아늘/어늘’)와 그렇지 않은 부류(‘-거니와, -아니와/어니와’, ‘-건댄’)로 나눌 수 있는데 두 부류의 성조 교체 양상이 선어말 어미의 그것과 완전히 같고, 어말 어미 -거, -아/어’의 성조 교체 양상 또한 선어말 어미의 그것과 대체로 같음(선어말 어미 ‘-거-’와 달리 어말 어미 ‘-거’의 성조가 거성인 점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다음의 논의는 후기 중세 국어 성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는 아니지만 얼마간 후기 중세 국어의 성조와 관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창원 방언 성조 체계에서 중고 한음 평성의 반영”(김세진)은 중고 한음의 성조가 평성이거나 평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① 평성, ② 평성과 상성, ③ 평성과 거성, ④ 평성과 상성과 거성)이 창원 방언에서 어떠한 성조로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를 계량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중고 한음의 평성 그리고 평성{상성, 거성}이 창원 방언에서 75% 정도가 평성으로, 19% 정도가 상성으로, 6% 정도가 거성으로 나타나 중고 한음의 평성이 창원 방언에서 매우 충실하게 평성으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진주 방언에서 된소리로 시작되는 상성형 낱말의 거성형화”(김차균)는 창원 방언과 진주 방언을 포함하는 경남 방언 공통 조어에서 된소리로 시작되는 상성형 낱말들이 진주 방언에서 거성형으로 바뀌는 현상을 창원 방언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창원 방언은 보수성이 강해서 경남 방언 공통 조어에서 된소리로 시작되는 상성형 낱말들이 그대로 된소리 상성으로 나타나는 데 반해, 진주 방언은 개신성이 강해서 된소리이되 거성으로 바뀌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근대 국어의 음운론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송준길가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발신자의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주필)는 17세기 중·후기부터 18세기 중기에 걸쳐 충청남도 회덕에 기반을 둔 송준길가의 19인이 작성한 139건의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 관련 예들을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 등의 사회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개음화 확산 과정에, 원칙적으로 남성 발신자의 편지에서는 ‘세대’가 주요 변인으로 관여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구개음화를 쉽게 수용하고, 수신자가 발신자보다 하위자이고 여성인 경우에 구개음화된 변이형이 많이 나타났다. “ㄱ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박종희·권병로)은 17세기 남부 방언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ㄱ 구개음화가, 다른 종류의 구개음화에 비해 그 분포가 매우 제한적(제1음절에서만 발생)이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조음적 동화 이외에 구개음화된 연구개음이 설정음으로 인지되는 2차적인 인지적 단계

를 거쳐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였다.

"『몽어유해』의 음운론적 연구"(P. Erdenetuya)는 1768년 간행된 『몽어유해』(현존본은 1790년 개정본)를 대상으로 몽골어를 한글로 전사할 때 나타나는 특징을 고찰하였다. 몽골어를 모음(단모음, 장모음, 이중 모음)과 자음(폐쇄음, 파찰음, 마찰음, 유음, 비음)으로 구분하여 이들 각각의 음운을 한글로 전사할 때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았다. "『ᄉᆞ민필지(士民必知)』의 음운론적 연구"(이근영)는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ᄉᆞ민필지』(1889~1891)에 나타난 음운론적 정보(음운 체계)와 변동 규칙을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음운 체계 및 변동 규칙은 대체적으로 19세기의 음운 체계 및 변동 규칙을 따르고 있으나 표기 방법은 형태 중심의 보수적 표기가 적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19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 현상: 도교 문헌을 중심으로"(오가현)는 1876~1884년 사이에 간행된 7종의 도교 문헌을 바탕으로 19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법(자음 표기와 모음 표기)과 음운 현상[음절 짜임새 맞추기(겹받침 줄이기, 일곱 끝소리 되기), 두음 법칙, 동화 규칙(자음동화, 모음동화), 줄임 규칙(반모음 되기, 거센소리 되기, 된소리 되기), 탈락 규칙(자음 탈락, 모음 탈락) 등]의 특징을 살펴본 논의이다.

다음으로 국어의 한자음과 관련된 논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고대 국어 차음자 이문 연구"(김무림)는 '令, 呂, 禮, 兮, 亦, 喩/鍮, 儒, 留' 등의 차음자 표기를 살펴보고 중세 국어와는 다른 고대 국어의 한자음을 재구한 논의이다. 고대 국어 한자음과 중세 국어 한자음의 불연속적 성격을 주장하고 '令, 呂, 禮, 兮, 亦, 喩/鍮, 儒, 留' 등의 고대 국어 한자음으로, '令/리, 呂/리, 禮/리, 兮/히, 亦/이/익, 喩/鍮/디, 儒/누, 留/루/리' 등의 한자음을 재구하였다.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上'의 음가 연구"(최중호)는 고구려 지명 '上忽'과, 그것의 이표기로 나타나는 '車城'의 대응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지명 표기에 사용된 '上'의 음가를 밝히려 한 것이다. '上忽'과 '車城'에서 '上'과 '車'는 모두 훈차자가 아닌 음차자로 봐야 하며, 그 음가는 둘 다 /자/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조운성)는 『동국

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폈는데, 『동국정운』의 성모 체계는 『고금운회거요』의 자모 체계를 따르되 知모·徹모·澄모에 한하여 현실음을 고려하여 설음(舌音)과 치음(齒音)으로 다시 나누고, 『동국정운』의 운모 체계는 당시의 현실음을 바탕으로 하되 개합(開合)과 운미(韻尾), 그리고 특수한 자에 한해서만 일부 조정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동국정운의 業모와 欲모"(조운성)는 『동국정운』의 23자모 가운데 業모와 欲모가 무엇을 근거로 구별된 것인지 밝히려 한 것인데, 『동국정운』과 그것의 저본인 『고금운회거요』를 비교하여 『동국정운』 편찬자들이 『고금운회거요』의 疑모와 魚모를 합쳐 業모(ㆁ)를 만들고 喩모를 그대로 欲모(ㆁ)로 삼은 것으로 보았다. "중세 이후 한국 한자음의 변천 양상 연구"(박미숙)는 먼저 『광운』의 중국 중고음과 『훈몽자회』 중세 한자음의 대응 관계를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중세 한자음을 보여 주는 『훈몽자회』와, 근대와 현대 한자음을 각각 보여 주는 『전운옥편』(1819)과 『한자 대사전』(2003, 장삼식 저) 사이의 차이와 상동(相同)을 살펴봄으로써 한국 한자음의 변천 과정을 알아보려 하였다. "한국 한자음(15·16세기 현실음)과 위진 남북조 시대 음과의 비교"(강신항)는 필자가 줄곧 제기해 온, 한국 한자음은 한어 상고음 말기인 3세기 초나 위진 남북조 시대 음(3세기 초~6세기)을 받아들인 것이고 일부 한자음을 제외하고는 각 시기별로 한어 음운 변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찍부터 고정되어 자체적으로 변화해 온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왕리(王力)가 『한어 음운사』(1987)에서 제시한 3~6세기의 한음(漢音)인 위진 남북조 시대 음과 15·16세기 현실 한국 한자음을 성모와 운모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16세기 후반·17세기 국어 한자음 운모의 대응 양상 및 특징(1)"(이준환)과 "16세기 후반·17세기 국어 한자음 운모의 대응 양상 및 특징(2)"(이준환)는 16세기 후반·17세기 현실 한자음 가운데 각각 通攝·江攝·止攝·遇攝·蟹攝·臻攝·山攝·效攝 등과 果攝·假攝·宕攝·梗攝·曾攝·流攝·咸攝·深攝 등과 관련되는 한자음을 추출하고 이들과 중고 한어와의 운모 대응 양상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특히, 한자음의 층위 및 변화(한자음 변화의 양상 및 변화의 요

인)를 중심으로 한자음 대응상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 시기 한자음은 중세 국어 한자음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중세 국어보다 더 다양한 형태의 한자음이 출현하고 한자음도 변화함으로써 중세 국어에 비해 한층 더 복잡해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번역노걸대 · 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신용권)는 『번역노걸대』와 『번역박통사』의 각 한자 밑에 한글로 표기한 좌우의 중국어음 표기를 각각 정음과 속음으로 본 기존의 논의에 대하여 좌측음은 운서의 규범음에 부합하진 않지만 당시 북방에서 널리 쓰인 현실적인 정음인 데 반해, 우측음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정음은 물론 속음의 개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중국어 학습자를 위해 최세진이 만든 표기(현실적 정음인 좌측음에 대응하여 현실적 속음의 기능을 가짐)라고 보았다.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비교 고찰: '천자문'의 한자를 중심으로"(류상)는 '천자문'에 나오는 1,000개의 한자를 대상으로 한 · 중 한자음의 대응 관계를 고찰한 것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음의 초성과 성모, 중성과 운모, 종성과 비음운미가 일정하게 대응되지만 일부 불규칙적인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자음과 관련된 그 밖의 논의로 "훈민정음 문자의 전환 방식에 대한 연구: 『홍무정운역훈』의 표기를 중심으로"(유효홍)가 더 있다.

2.4. 어휘 및 의미

어휘사적 관점에서 개별 어휘를 다룬 논의는 다음과 같다. "'드위(飜, 搜)-'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이현정)는 중세 국어 '드위(飜)-'와 '드위(搜)-'의 통시적 발달 과정을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으로 살펴본 논의인데, 문헌 자료와 방언 자료를 통해 '드위-'의 이전 시기 어형으로 '*드뵈-'를 재구하고, '뒤집-'과 '뒤지-'의 의미 검토('뒤집다'로부터 '뒤지다'로 의미가 전이됨)를 통해 '드위(飜)-'의 의미가 '드위(搜)-'의 의미로 전이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세 국어 '마초아'의 용법과 어휘화"(장요한)는 중세 국어 문헌 자료에서 확인되는 '마초아'를 통사적 구성의 '마초아'와 부사 '마초아'의 두 가지

로 구별하여 각각의 용법을 고찰하였는데 통사적 구성의 '마초아'와 부사 '마초아'의 의미적 특성을 고려할 때, 부사 '마초아'는 통사적 구성의 '마초아'가 어휘화하여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양상 연구"(송지혜)는 현대 국어에서 '알맞게 서늘하다'의 의미로서 온도 감각어로 쓰이는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그 결과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시원하다'는 '심사(心事)'와 결합하여 '답답한 마음이 풀리어 흐뭇하고 후련하다'의 의미로 쓰였고, 현대 국어처럼 '알맞게 서늘하다'의 의미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 또는 20세기에 이르러서라고 보았다. "'미꾸라지[鰍魚]'의 형태사와 방언 분포"(신중진)는 문헌 자료를 통해 '미꾸라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피고 그 어형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각각의 방언형들로 분화하였는지 살펴보았다. 현대 국어의 '미꾸라지'가 '밋구라지'로 소급하며, '밋구라지'는 '밋구리(<믓구리)'에 지소 접미사 '-아지'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중·근세 국어 '멎/벚/봋'의 혼란상과 의미"(이광호)는 현대의 국어사전이나 옛말 사전에서 '벚'의 의미로서 유의어를 형성하고 있는 '멎, 벚, 봋'을 중·근세 국어에서 상이한 의미를 가졌던 별개로 단어로 파악하였고, "현대어 '사과'의 통시적 혼란상과 정착 과정"(이광호)은 중, 근세 국어에서 '沙果, 楂果, 査果' 등의 다양한 한자어로 표기된 '사과'가 복잡한 형성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사과'로 정착되었으며, 한자어 '林檎, 林禽, 來檎, 柰禽, 來禽, 柰檎' 및 고유어 '멎, 농ᄇᆡ' 등과 의미적 연관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래 농서에서의 채과류 분류와 명칭의 혼란"(이광호)은 채과류의 한글 표기가 나타나는 『색경』(1676), 『산림경제』(1715), 『증보산림경제』(1766), 『색경증집』(1787), 『해동농서』(18세기 후반), 『농정회요』(1834) 등을 대상으로 채과류의 분류상의 특징과 명칭의 혼란을 살펴보았는데, 명칭의 혼란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대상('들ᄭᅢ', '엿귀'와 'ᄎᆞ조기', '당귀'와 승엄초 등)과 동일 대상의 이명칭('갓'과 '계ᄌᆞ', '우'와 '토란')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다. "전래 농서의 과수류 분류와 상이 명칭"(이광호)은 과수류의 한글 표기가 나타나는 『증보산림경제』(1766), 『색경증집』(1787), 『해동농서』(18세기 후반), 『농정회요』

(1834) 등을 대상으로 과수류의 분류상의 특징과, 동위 계층에 속하면서 상이한 대상인 '林檎과 柰, 기얌과 고욤, 松柏과 側柏, 柳와 楊', 상・하위어에 속하면서 상이한 대상인 '감, 배, 귤, 椵'의 어휘 특징을 살펴보았다.

개별 어휘를 다룬 그 밖의 논의로는 "'머리'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 고찰: 몽골어 신명 '텡게르'와의 의미 관련성을 중심으로"(전무용)가 더 있다. 이 글에서는 고대 국어에서 '머리'를 뜻하는 단어(관직명 '莫離支', '檀君', '王儉', '림배', '지리산' 등)가 모두 몽골어에서 신명(神名)으로 사용되는 '텡게르(Tenger)'와 의미적으로 깊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개별 어휘가 아닌 특정 어휘 부류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세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그 형태・의미적 특성"(이영경)은 중세 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를 온각 표현 어휘('덥다, 덥듯ᄒᆞ다, 덪다/덪ᄒᆞ다/ᄃᆞᆺ다, *덪덪다/듯듯다, *덪ᄆᆡ욘ᄒᆞ다, ᄆᆡ곤ᄒᆞ다' 등)와 냉각 표현 어휘('ᄎᆞ다, 칩다, 사ᄂᆞᆯᄒᆞ다/서늘ᄒᆞ다/서느럽다, 서늘서늘ᄒᆞ다' 등)로 나누어 각 어휘의 형태・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온도 표현 어휘를 대상으로 중세 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 체계를 수립하였는데, 중세 국어의 온도 표현 어휘가 단순하지만 매우 정연한 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한글 문헌에 나타난 한자어 사용 양상 연구: 15세기부터 19세기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노해임)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문헌에 나타난 2・3음절 한자어를 대상으로 한자어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한자어를 의미장 원리에 따라 계량, 사람, 동물, 식물, 사물, 제도, 장소, 천문, 건물, 학술 용어, 일과 행동, 감정, 형용, 오행, 기운, 윤회, 원리, 어사 등의 18개 항목으로 나누어 시대별 변천 내용을 통계적으로 조사하고 특정 한자어가 처음으로 나타난 시기, 사용 기간, 사라진 시기 등을 고찰하였다.

개별 문헌 또는 특정 문헌류에 나타나는 어휘 특징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자어의 번역 어휘 연구: '구급방언해'의 어휘적 특징을 중심으로"(김희경)는 1465년에 간행된 『구급방언해』를 중심으로 한자 번역어를 체언류, 용언류, 부사류로 나누어 그 실현 양

상을 고찰한 것이다. ‘검듸영(墨의 번역어), 즈ᄋᆡ(粗의 번역)’ 등 주로 『구급방언해』와 같은 의서류에 나타나는 희귀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석주연)은 조선 시대 의약서 언해본에 주로 나타나는 분류사를 동사 기원 추정의 분류사(‘머곰, 져봄, 줌, 소솜’ 등)와 명사 기원 추정의 분류사(‘무적, 덩이, 알, 단, 적, 번, 낯, 보ᄉᆞ, 사발, 잔, ᄀᆞᆯ, ᄇᆞᆯ, 줄기, 빡, 붉)로 나누어 분류사 각각의 형태적 특징, 의미, 한문 원문과의 대응 양상, 통합 명사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문헌별 한약 ‘약명’ 사용 양상 연구: 15~17세기 의약서 언해본 자료를 중심으로”(박지연)는 15~17세기의 의약서 언해본(『구급방언해』(1466), 『구급간이방언해』(1489), 『창진방촬요』(1517), 『간이벽온방』(1525), 『분문온역이해방』(1542), 『언해태산집요』(1608), 『언해두창집요』(1608), 『언해납약증치방』(16??), 『벽온신방』(1653), 『두창경험방』(16??) 등)을 대상으로 한약 약명 목록을 추출하고 문헌별 한약 약명의 사용 실태, 문헌 간 공유 한약 약명의 종류와 비율을 조사하였다.

“(번역) 『박통사』 (상)의 명사류 난해어에 대하여(김양진)”와 “(번역) 『박통사』 (상)의 몇몇 난해어들”(김양진)은 모두 (번역) 『박통사』 (상)에 보이는 난해어를 살펴본 것인데, 전자는 ‘비므슬ㅎ, 보십고지, 박풍이, 귀엿골희, 귀여ᄉᆞ, 마지, 지페’ 등의 고유어계 명사류와 ‘도산, 향초, 날, 갸품’ 등의 외래어계 명사류의 난해어를, 후자는 ‘가사ᄒᆞ다가, 고디식-, 얼-/얻-, 봅놀-, 지체소옴터리로뷔밍ᄀᆞ니, 버근ᄃᆞᆯ, 뭇-, 션ᄇᆡ, ᄆᆞᄃᆞ려녀, ᄇᆞᄅᆞᆷᄉᆞᆫ집’ 등의 일부 난해어를 살펴보았다. “조선 시대 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 용언 어휘를 중심으로”(배영환)는 조선 시대 언간을 대상으로, 옛말사전은 물론이고 현대 국어사전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미 및 용법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는 용언류를 ‘의미 용법상의 특징을 보이는 용언’(‘굴다, 부지ᄒᆞ다, 브리다, 일ᄀᆞᆺ다, 빗치다, 이젓ᄒᆞ다’ 등)과 ‘감정 표현을 나타내는 특징적인 용언’(‘굿브다, 굼겁다, 심심ᄒᆞ다, 아ᄆᆞ라타 없다, ᄐᆞᆨᄐᆞᆨᄒᆞ다, 헤헤ᄒᆞ다, 허우록ᄒᆞ다’ 등)으로 나누어 그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았다. “『창진방촬요』의 동의어 연구”(남성우)는 『창진방촬요』(1517)의 어휘를 고유어와 한자어로 분류하고, 이들 사이의 동의 관

계를 고유어 간의 동의,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동의, 한자어 간의 동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역어유해』의 쇄설류 어휘 연구"(박향옥)는 『역어유해』(1690) 하권과 『역어유해보』(1775)에서 '쇄설(瑣說)'로 분류되어 실린 어휘(840개) 가운데 이자류(二字類, 256개)를 대상으로 어휘 의미의 변화 양상을 중국의 현대 보통화와 비교한 것이다.

"『삼역총해』의 어휘 연구"(원순옥)는 1774년 중간된 『삼역총해』에만 나타나는 희귀어를 추출하고, 이들을 옛말 사전과 대조하여 '강노, 깃, 도라' 등처럼 옛말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돼 있지 않은 어휘(총 11개)와 'ᄀᆞᄅᆞ지다, 니도ᄒᆞ다, 달회다' 등처럼 옛말 사전에서 잘못 풀이된 어휘(총 10개)로 구분해 냈다.

"한글본 의궤의 어휘적 특징: '뎡니의궤'와 'ᄌᆞ경뎐진쟉졍례의궤'를 중심으로(이화숙)는 '뎡니의궤'(1800?)와 'ᄌᆞ경뎐진쟉졍례의궤'(1828)의 어휘를 분석한 것인데, 이들 의궤에 나타난 어휘를 음식명, 식재료명, 조리기 및 용기명, 건축 자재 및 연장명 등으로 범주화하여 차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대응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淡沈菜', '苧蛤', '甕', '鐵' 등이 '슴거온침치/담침치', '모시됴개/져합', '독/옹', '쇠/쳘/텰' 등의 두 가지 이상의 한글 표기로 대응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백병구급신방』의 어휘 연구"(이은규)는 19세기 중엽에 간행된 『백병구급신방』에 나타난 어휘 가운데 '견의-', '구리' 등처럼 옛말 사전류에 등재되지 않은 희귀어 88개를 추출하여 그 의미를 분석한 것이다. "한 · 일 한자어의 동의 관계 연구: '인어대방'(1882년간)을 중심으로"(고명균)는 『인어대방』의 여러 이본 가운데, 1882년에 간행된 명치간본을 대상으로 한일 한자어의 동의 관계를 21유형으로 분류하고 각각의 용례(91쌍)와 의미를 알아보았다.

"신문 광고 어휘의 계량 연구: 개화기 국문 신문을 중심으로"(서은아)는 「독립신문」(1896), 「매일신문」(1898), 「제국신문」(1898), 「대한매일신보」(1904) 등에 순 한글로 게재된 광고의 어휘(전체 어휘 11,430개, 개별 어휘 2,798개)를 품사별 · 어종별로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고빈도 어휘의 목록을 추출한 것이다.

사전과 관련시켜 어휘를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조선어연구회

의 『선화 신사전』에 대한 고찰: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 사전』과의 비교를 중심으로"(이지영)는 한국어·일본어 대역어 사전이라는 공통성을 갖고 있는, 조선어연구회가 1930년 3월에 발행한 『선화 신사전』과 조선 총독부가 1920년에 발행한 『조선어 사전』를 비교·검토한 것이다. 그 결과 『선화 신사전』이 『조선어 사전』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된 보급형 사전이며, 1930년 2월에 공포된 「언문 철자법」을 대체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어사전 속의 이두식 한자어 연구"(김양진)는 현대 국어사전에 실려 있는 이두식 한자어가 중국에 유입된 한자어나 일본에서 유입된 한자어와 다의어로 처리된 예['작자(作者)', '추고(追考)', '추쇄(推刷)', '도척(刀尺)' 등]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들을 별도의 표제어로 나누어 기술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지명과 관련시켜 어휘를 논의한 것은 다음과 같다. "『용비어천가』 정음 표기 지명과 한자어 지명의 대립, 변천에 관한 연구: ·쇠벼·ᄅᆞ:淵遷·金遷을 중심으로"(박병철)는 『용비어천가』에서 한자 표기와 한글 표기가 병기되어 나타난 지명(173개) 가운데 하나인 '·쇠벼·ᄅᆞ:淵遷·金遷'의 형태 및 의미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쇠벼·ᄅᆞ'는 '·쇠'와 '벼·ᄅᆞ'로 분석되는데, '·쇠'는 물이 깊은 곳을 뜻하는 '·소'('潭, 湫, 淵'에 대응되는 순우리말)에 속격 조사 'ㅣ'가 결합한 것으로, '벼·ᄅᆞ'는 '*벼ᄅᆞ'에 소급되며 물 언덕 돌길을 뜻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지명의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미즈노 슌페이)는 1895년부터 1896년에 걸쳐 제작된 5만 분의 1 지형도인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의 제작 경위와 거기에 수록된 지명(217개)을 검토한 것이다.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는 가타카나로 된 토로 지명을 표시하고 있어 해당 지명이 당시 어떻게 읽혔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는 귀중한 자료이며, 217개 지명 가운데 음독 지명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훈독 지명이 16%(34개)를 차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조선지지자료』의 제주 지명 (1): 제주군 신좌면(新左面: 조천읍) 지명을 중심으로"(오창명)는 『조선지지자료』(1911)에 나오는 제주군 신좌면(오늘날 조천읍) 지명 110개(한자 표기 72개, 한글 표기 38개)를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동래'와 '기장'의

옛 땅 이름 연구"(최중호)는 부산 지역의 '동래'와 '기장'의 옛 땅 이름을 살펴본 것이다. '동래'의 옛 땅 이름은 '거칠산국(居漆山國)이고 한자식으로는 '래산(萊山)'인데, 나중에 '동래(東萊)'로 개신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장'의 옛 땅 이름은 '갑화량(甲火良)'인데, 이 말은 '큰 마을' 정도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았다. "'골', '山', '들'에 준거하여 생성된 '내[川]'의 명칭에 대하여"(조항범)는 '골', '山', '들'에 준거하여 형성된 '내' 이름(각각 '골내'와 '실내' 계열, '뫼내'와 '산내'와 '달내' 계열, '들내'와 '벌내')들을 유형화하고, '내' 이름의 형성(자연물에 준거하여 형성), 형태 변형, 의미 변화, 한자화, 지명으로의 전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하남(河南) 지역의 지명 변천"(김순배)은 고려 시대 이전과 조선 시대 이후로 나누어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지명 변천을 고찰하였다. "법정리 한역 지명 연구 Ⅱ"(김진식)는 충북 청원군 낭성면과 미원면의 법정리 한역 지명(6개)을 고유어로 되어 있는 자연리 이름과 관련지어 고찰하였다.

그 밖에 "중세 언해 문헌의 전이어에 대한 연구: 써[以], 다ᄆᆞᆺ/더브러/ᄃᆞ려[與], 히여(곰)[使], 뫁/밋[及]을 중심으로"(양언)와 『고려 가요의 낱말밭 연구』(김응모) 등이 있다. 후자는 구조 의미론과 낱말밭 이론에 근거하여 고려 가요의 내용을 명사와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흥구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2.5. 형태

고대 국어의 문법 형태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고 한국어의 문법 개관"(남풍현)은 이두와 『삼국유사』의 향가 자료에 나타나는 문법 형태를 기능별로 분류[조사(격 조사, 보조사), 어미(종결 어미, 접속 어미, 동명사 어미), 보조 어간, 접미사, 조동사, 계사, 준문법 형태, 부정법 등]하여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고대 국어의 조어론 또는 접사와 관련된 논의로 "고대 국어 파생 부사 결합형 연구"(최정은)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고대 국어 자토 석독 구결 자료에서 다양한 부사 파생 접미사를 추출하고, 이러한 부

사 파생 접미사들 가운데 접미사 '-ㅣ(이)'와 '-ㅇ/ㅱ(오)'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 부사가 그 앞에 나타나는 논항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해 '-ㅣ(이)'와 '-ㅇ/ㅱ(오)'가 어미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해석한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달리 '-ㅣ(이)'와 '-ㅇ/ㅱ(오)' 뒤에 나타나는 'ᄒᆞ(ᄒᆞ)-' 동사 전체 구성이 파생 부사 앞에 나타나는 논항을 지배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고대 국어의 조사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고구려어의 속격 조사"(이장희)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지명을 대상으로 고구려어의 속격 조사 체계를 확인하고, 그것의 국어사적 연계성을 밝히려 한 것이다. 고구려 지명에 쓰인 '斯, 也, 於' 등이 현대 국어의 속격 조사 '의'(중세 국어의 속격 조사 'ㅅ', '이/의')에 대당함을 확인하고, 고구려 속격 조사로서 *[si], *[a], *[ə] 등을 재구하였다. "향가의 체언화소 '叱(-ㅅ)'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황국정)는 향가에서 용언 어간 뒤에서 실현된 일부의 '叱'은 속격 조사(-ㅅ)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 서술구를 명사화시키는 체언화소라고 규정한 고창수(1995)의 견해를 재확인한 논의이다. 존칭이 되는 주어와 호응하는 사실을 중시하여, '叱'이 존칭의 체언화소일 가능성도 언급했다.

다음은 고대 국어의 어미와 관련된 논의이다. "고대 한국어의 겸양법 조동사 '白/ᄉᆞᆰ'과 '內/아'의 발달"(남풍현)은 15세기 한국어에서 '-ᄉᆞᆸ/ᄌᆞᆸ/ᄉᆞᆸ-'으로 표현되던 겸양법이 고대 한국어에선 조동사 '白/ᄉᆞᆰ'으로 표현되고, 그 이전에는 조동사 '內/아'로 표현된 것으로 파악한 논의이다. '內/아'는 합당법의 조동사로서 부차적으로 겸양법도 표현했었던 것인데, '內/아'에 의해 부차적으로 표현되던 겸양법이 조동사 '白/ᄉᆞᆰ'에 계승되어 15세기 한국어의 '-ᄉᆞᆸ/ᄌᆞᆸ/ᄉᆞᆸ-'으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았다. 한편 합당법 조동사로서의 '內/아'의 기능은 10세기부터 '良/아'로 옮겨가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이제부터는 중세 국어의 문법 형태를 다룬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 비교"(박용찬)는 『두시언해』 초간본(1481)과 중간본(1632) 사이에 보이는 언어적인 차이를 통해 그 문법적 양상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을 면밀하게 비교하여 곡용(ㅎ종성 체언의 ㅎ 소실, 속격 조사 'ㅅ'의 소실, 처소의 부사격 조사 '예'의 기능 약화, 강세 보조사 'ㄱ'의 소멸, '마ᄅᆞᆫ'의 '마ᄂᆞᆫ'으로의 교체, 보조사 'ᅀᅡ'의 '아'로의 대체), 활용(용언 어간 '오ᄅᆞ-/올ㅇ-' 유형의 활용 방식의 변화, 선어말 어미 '-오-'의 소멸, 감동법의 선어말 어미 '-옷-'의 기능 약화, 관형사 어미의 명사적 용법 상실, 어미의 형태 변화, '-야' 불규칙 활용의 '-여' 불규칙 활용으로의 변화 등), 조어론(형용사 파생 접미사 '-ᄅᆞᄫᅵ-'의 '-ᄅᆞ오-'로의 변화) 등의 측면에서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중세 국어 활용 및 어미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어기설"과 중세 한국어 동사 활용"(가와사키 게이고)은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기설'이 중세 한국어 동사 활용을 분석 · 기술하는 데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우선 '어기'를 '어간(+모음)'이라는 구조에 바탕한 '음운론적 기본 활용 패러다임'이라 정의하고, 용언 어간(또는 선어말 어미와의 통합체 등)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덩어리를 제1어기, 매개 모음을 취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는 (매개 모음까지 포함한) 덩어리를 제2어기, 모음 어미 '-아/어(-)', '-오/우-'(및 이들을 포함한 어미들)와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덩어리를 각각 제3어기, 제4어기로 규정했다. 이러한 '어기설'을 따르게 되면 중세 한국어의 활용 현상에 관한 사실을 새로이 밝힐 수 있는데, '아ᄎᆞᆫ-/아ᄎᆞᆯ-'은 제2어기에 국한되어 형성된 쌍형 어간이라는 사실, '-어 ᄒᆞ-' 구문은 제3어기를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바로 그것이다.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정수현)는 연결형 · 종결형에서의 '-오-'와 명사형 · 관형사형에서의 '-오-'가 모두 동명사형 어미 '-ㄴ, -ㄹ, -ㅁ' 앞이라는 형태소적 분포 환경을 중시하여, 연결형 · 종결형과 명사형 · 관형사형(명사구 내포문 구성)에 쓰인 '-오-'의 유기적 상관성을 살펴보고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을 고찰하였다.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이 원칙적으로 명사성을 부여하는 것이고, '-오-'를 선접시킨 연결 어미('-오ᄃᆡ, -오려, -오니, -오리니' 등)와 종결 어미('-오니라, -오라, -오이다, -오리잇가, -온가, -오마' 등)도 기원적으로 명사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

하였다. “중세 국어 접속 어미 ‘-디옷’의 문법에 대하여”(장요한)는 중세 국어의 접속 어미 ‘-디옷’의 형태·통사적 특성과 함께 그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디옷’ 접속문의 선행절에는 어떠한 선어말 어미도 통합하지 않으며 후행절에는 평서법 종결 어미만 통합할 수 있다는 형태·통사적 특성을 확인하고, 접속 어미 ‘-디옷’이 ‘조건-결과’의 사태 구조를 취하지만 단순히 조건이나 가정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으며 선행절 사태의 ‘계속’ 내지 ‘반복’이나 ‘정도나 수준이 한층 심화됨’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중세 국어 의존 명사 ‘ᄃᆞ’의 문법화 연구: 명사구 보문 구성 ‘-ㄴ 디’와 통합형 어미 ‘-ㄴ디’를 중심으로”(김효신·송혜정)는 15세기 문헌 자료에서 명사구 보문 구성 ‘-ㄴ 디’와 통합형 어미 ‘-ㄴ디’를 추출하고, 통합형 어미 ‘-ㄴ디’가 ‘ᄃᆞ’ 명사구 보문 구성인 ‘-ㄴ 디’([[[-ㄴ] # ᄃᆞ]+ㅣ]로부터 문법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활용 어미 연구”(허보미)는 『번역소학』(1518)과 『소학언해』(1588)에 나타나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의 형태와 결합 양상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16세기 국어의 활용 어미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근대 국어의 문법 형태 가운데 조사를 다룬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근대 국어의 조사 ‘의’의 분포와 기능: 동일 원문의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김선효)는 근대 국어의 동일 원문의 언해서[17·18세기의 『노걸대언해』(1670)와 『중간노걸대언해』(1795), 『박통사언해』(1677)와 『박통사신석언해』(1765), 『첩해신어』(1676)와 『개수첩해신어』(1748), 19세기의 도교 권선서 언해본]를 대상으로 조사 ‘의’와 ‘에’의 용례를 비교하여 ‘의’의 기능과 분포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근대 국어의 관형격은 조사 ‘의’가, 부사격은 조사 ‘에’가 대표형으로 쓰이고, ‘의’와 ‘에’ 모두 관형격과 부사격으로 쓰이는 형태적 혼용이 지속적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형태적 혼용 양상이 관형격 조사구의 약화 및 소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근대 국어의 어미를 다룬 논의는 다음과 같다. “서술법 씨끝의 변화 유형 연구: 근대 국어를 중심으로”(김병건)는 근대 국어를 대상으로 서술법 씨끝의 생성과 관련된 통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서술

법 씨끝의 생성을 음 변화로 인한 단순 형태 변화('-ㄴ더〉-ㄴ댜', '-ㄹ셔〉-ㄹ샤' 등)와, 응축(형태나 기능이 변화된 안 맺음 씨끝과 맺음 씨끝이 녹아붙은 것, '-리러라〉-ㄹ러라', '-오라〉-롸', '-ᄂᆞ다〉-ㄴ다/는다' 등)이나 절단(특정 형태소의 후행 요소를 잘라 낸 것, '-닝', '-지', '-다네', '-옵' 등)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창원 황씨 한글 간찰의 종결 어미 형태"(조용림 · 백낙천)는 창원 황씨 한글 간찰(19세기?)에 나타난 종결 어미 형태(평서법, 의문법, 명령법)를 살펴본 것이다. 평서법 종결 어미로 '-다(-ᄃᆞ), -ㄴ다/ᄂᆞᆫ다, -ㄹ다, -로다', '-라'(이상 ᄒᆞ라체), '-오'(ᄒᆞ소체), '-이다', '-닝다', '-옵/숩'(ᄒᆞ쇼셔체) 등이 나타나고, 의문법 종결 어미로 '-냐, -랴', '-리', '-다, -라'(이상 ᄒᆞ라체), '-ㄴ가/ᄂᆞᆫ가', '-ㄴ고/ᄂᆞᆫ고, -ㄹ고'(ᄒᆞ소체), '-잇가, -릿가', '-옵/숩'(ᄒᆞ쇼셔체) 등이 나타나고, 명령법 종결 어미로 '-라'(ᄒᆞ라체), '-쇼셔/소셔', '-옵'(ᄒᆞ쇼셔체) 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정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문법 형태의 통시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춘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문법 형태 가운데 접사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이다. "여성 지칭 접미사 '-네'와 '-댁'의 형성 과정과 기능 변천 고찰"(양영희)은 15세기에 '존칭형 복수 접미사'였던 '-내'가 16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여성 지칭 접미사 '-네'로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고, 16세기에 어떤 특정인의 집을 나타내는 명사였던 '댁'이 17세기에서 현대에 이르는 동안 여성 지칭 접미사 '-댁'으로 변화하는 과정과 원인을 살펴보았다. "사동형 타동사 파생의 유형과 특징"(김기혁)은 현대 국어에서 빈도가 높은 타동사 약 250여 개를 골라 단순 타동사와 사동형 타동사로 나누고, 사동형 타동사 100여 개 가운데 상당수가 자동사에 사동 접미사 '-이-, -히-, -리-, -기-, -오/우-, -구-, -추-' 등이 결합하여 형성된 것(사동화)임을 밝혔다.

다음은 문법 형태 가운데 조사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이다. "'-에게'형의 변천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성환갑 · 조재형)는 소위 여격 조사인 '-에게'의 형태 변화를 통시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에게'형은 전기 중세 국어 이전

시기에는 차자 표기상으로 '-衣希'(향가), '-良中/亦中'(이두), '-ᄀᆞᄒᆞ'(구결) 등이 있었고 후기 중세 국어 시기에는 '-의그에, -의게'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中(ᄀᆞ)〉-衣希, -ᄀᆞᄒᆞ〉-의에('-良中/亦中〉에' 변화에 따른 '-衣希, -ᄀᆞᄒᆞ' 구성의 변화)〉-의+긍+-에(속격과 처격의 분화 및 조사 중첩 조건 위배에 따른 실사 '그' 삽입과 재구조화)〉-의그에〉-의게'의 변천 과정을 거쳐 현대 국어의 여격 조사 '-에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은 어미의 통시적 변화와 관련된 논의이다. "선어말 어미 {삽} 이형태의 분포 변화"(박부자)는 15세기 국어의 선어말 어미 {숩}의 이형태 실현 양상을 주체 겸양과 화자 겸양(화자 겸양의 {삽}은 16세기 말부터 확인됨)으로 나누어 각 세기별로 살펴보고 그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숩} 이형태의 /숩/으로의 단순화는 16세기에 주체 겸양의 {숩}이 'ㄴ, ㅁ' 뒤에서 /숩(〉ᄫᆞᆸ)/이 아닌 /숩/으로 나타나면서 시작되었는데, 주체 겸양의 {숩}은 19세기에 이형태 /숩/이 거의 사라지고 /줍/과 /ᄫᆞᆸ/이 어휘화의 과정에 참여하면서 겨우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았다. 반면 화자 겸양의 {숩}은 17세기에 'ㄴ, ㅁ' 뒤에서 /숩/으로 나타난 이후 18세기에 /숩/ 분포가 더욱 확대되어 본래 /줍/이 분포하던 환경에서도 /숩/이 나타나게 되었고 19세기와 20세기를 전후하여 'ㄹ' 이외의 자음 뒤에서도 /숩/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았다. "안 맺음 씨끝 '-ᄂᆞ-, -니-, -이-' 통합체의 변화"(김수태)는 15세기에 안 맺음 씨끝으로 기능하던 '-ᄂᆞ-, -니-, -이-' 등의 통합체가 15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는 15세기부터 '-ㅇ-, -ㅇ이-, -(ㅣ)-' 등으로, '-니이-'는 '-니이-, -닝-, -닝이, -니(ㅣ)-' 등으로, '-니-'는 물음법 씨끝 '-오, -아/어' 등과 통합하여 '-뇨, -냐/녀' 등으로 변화하고, '-ᄂᆞ-'는 17세기 이후에 '-ㄴ-, -ᄂᆞᆫ-, -는-' 등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니-' 등은 이미 15세기에, '-ᄂᆞ-'는 17세기에 의미 기능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의문 어미 '-ㄴ가', '-ㄴ지'의 통시적 연구"(정주연)는 후기 중세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의문 어미 '-ㄴ가, -ㄴ고, -ㄹ가, -ㄹ고' 등과 '-ㄴ지, -ㄹ지' 등의 통사·의미적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먼저 의문문을 통사적 기준에 따라 내포 의문문과 독립 의문문으로, 의미적 기준에 따라 자문문과 질문문으로 나눈 후, '-ㄴ가'계 의문 어미가 15세기부터 이미 통사 · 의미적으로 여러 가지 의문문을 실현(주로 내포 의문문과 자문문으로 쓰임)시킬 수 있었던 데 반해, '-ㄴ지'계 어미가 '-ㄴ가'와 유사한 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말에 이르러서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고은숙)은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연구"를 깁고 다듬은 것으로, 고대 국어부터 근대 국어에 이르기까지의 국어 의문법 어미의 시기별 기능과 의미 특성을 살펴보았다. "'-도쇠'류 어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이동석)는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도쇠'류 어미의 통시적인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15세기의 '-도소이다'에서 어형이 축약되어 형성된 16 · 17세기의 '-도쇠'는 감탄형 상대 높임의 중간 등급으로 사용되고, 17세기에는 '-도쇠'에 '-ᄋᆞᆸ-'이 결합한 '-ᄋᆞᆸ도쇠'와 새로운 어형 '-올쇠'가 출현하여 화자 겸양의 'ᄒᆞᄋᆞᆸ소체'로 사용되고, 19세기에 출현한 '-ㄹ셰'는 'ᄒᆞᄋᆞᆸ소체'보다 등급이 한 단계 낮은 '하게체'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2.6. 통사

문법 범주의 통시적 변화 및 고대 국어 및 전기 중세 국어의 문법 범주와 관련된 논의로는 부정법에 대한 것들이 있다. "한국어 부정 요소 '아니하-'와 '아니'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박상수)은 국어의 부정 서술어 '아니하-〉안하-〉않-'과 부정 부사 '아니〉안'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고대 국어로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아니+하-/-하지+아니하-'의 내포절 부정에서 '아니하-〉안하-〉않-'의 통시적 변화 요인을 부정 요소 '아니-'의 내부 구조 축약에 따른 순환 원리 충족으로 분석하고, '아니+용언'의 용언 부정에서의 부정 부사 '아니〉안'의 통시적 변화 요인을 부정 서술어 '아니하-〉안하-〉않-'의 유추 작용, 핵우선 원리, 핵선도 원리 등의 충족 결과로 분석하였다. "균여 향가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에 대하여"(안정희)는 균여의 보현십원가에 나타나는 부정을 표현하는 차자 표기를 정리하고, 당시의 부정 표현의 체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현십원가에 나타난 부정 표현은 통사적·의미적 기능에 중세 국어나 현대 국어와 큰 차이가 없고, '아니' 부정문과 '몯' 부정문은 각각 '不冬(용언 부정문)/不喩(체언 부정문)'와 '毛冬/毛等(둘 다 용언 부정문)'으로 표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석독 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 기능 연구: 한문 부정소와의 대응을 중심으로"(문현수)는 한문의 부정 구문과, 석독 구결의 용언 부정문 및 현대 국어의 용언 부정문의 대응 양상을 통해 석독 구결에 나타나는 용언 부정사의 의미 기능을 밝히려 한 것이다. 한문의 '不'에 대응하여 현토되는 '不(多)/不(多)'[안둘], '不〈ノ〉'[?]·'不ㅅ'[안득] 등이 각각 현대 국어 용언 부정사 '안'과 '못'이 한문의 부정 구문에 대응될 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한문의 '未'에 대응하여 현토되는 '未多'[안둘](유일 예), '未ㅅ'[안득], '未ㅐ'[아니?] 등에 대해서는 '未多'[안둘]과 '未ㅅ'[안득]이 각각 현대 국어 용언 부정사 '안'과 '못'이 한문의 부정 구문에 대응될 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데 반해 '未ㅐ'[아니?]는 현대 국어 용언 부정사 '못'이 한문의 부정 구문에 대응될 때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未ㅐ'[아니?]는 현대 국어 용언 부정사 '못'에 대응되는 한문의 '未得' 구문에만 대응하여 현토됨)으로 파악하였다.

중세 국어의 문법 범주 및 구문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세 국어 때 매김법의 통어적 결합 제약"(허원욱)은 중세 국어 때 매김법의 통어적 결합 제약을 홑월[서술월, 물음월, 시킴월/꾀임월], 겹월[안은 겹월(이름마디, 매김마디, 어찌마디), 이은 겹월(현실법, 회상법, 미정법, 완결법, 완결법+현실법, 완결법+회상법)]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 글은 필자가 중세 국어 때 매김법의 통어적 결합 제약을 각 마디별(이름마디, 매김마디, 어찌마디, 인용마디, 풀이마디, 이음마디)로 연구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한 것이다. "'{-고져, -과뎌} ᄒᆞ-' 구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김한결)는 15세기의 '{-고져, -과뎌} ᄒᆞ-' 구성이 내포적 구성으로서 이 구성의 'ᄒᆞ-'가 본래는 여러 가지 내적 화법 동사를 대신하는 포괄 동사였는데 이 포괄 동사

가 형식 동사로 기능이 변화하면서 생략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았다. 그 결과 '{-고져, -과뎌} ᄒᆞ-'의 내포적 구성이 접속 구성으로 변화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문장 구조 연구"(장숙영)는 『번역노걸대』(1510년대)에서 홑월이었던 것이 『노걸대언해』(1670), 『중간노걸대언해』(1795)에서 겹월로 바뀌어 표현된 것과, 『번역노걸대』에서 겹월었던 것이 『노걸대언해』, 『중간노걸대언해』에서 홑월로 바뀌어 표현된 것을, 맺음 씨끝과 이음 씨끝의 종류에 따라 정리하였다.

다음은 근대 국어의 문법 범주 및 구문과 관련된 논의이다. 먼저 17세기 국어와 관련된 논의를 살펴보기로 하자. 『근대 국어 청자 경어법 연구』(남미정)는 저자의 박사 학위 논문을 약간 수정하여 펴낸 것으로 형태 원리적 시각에서, 전기 근대 국어와 후기 근대 국어로 나누어 근대 국어의 청자 경어법 체계를 수립하였다. "17세기 국어 계사문 연구"(민지원)는 17세기 국어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계사 '이다'가 쓰인 계사 구문을 유형별로 나누어 명사구 간의 의미 관계를 고찰하였다. 17세기 국어의 계사 구문을 논항의 수와 특징에 따라 2항 계사문, 3항 계사문, 주어 생략 계사문, 양상적 의미의 '거시라' 구문 등으로 유형화하여 명사구 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았다. 2항 계사문은 동치 · 포함 · 속성 등의 기본적 의미 관계를, 3항 계사문은 주로 동치 · 속성 등의 의미 관계를, '거시라' 구문은 하나의 융합체로 재구조화되어 보조 용언처럼 의지 · 강조 · 추측 등의 양상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근대 국어 '-어 가다' 구성에 대하여"(권용경)는 근대 국어 '-어 가다' 구성을 합성어 구성, 접속 구성, 보조 용언 구성으로 나누어 각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합성어나 접속 구성의 '-어 가다'는 구체적 의미, 즉 '장소 이동'의 의미로, 보조 용언 구성의 '-어 가다'는 추상적 의미, 즉 '진행'의 의미로 쓰이는데, 합성어나 접속 구성의 '-어 가다'에 비해 보조 용언 구성의 '-어 가다'가 상대적으로 덜 쓰이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노걸대언해』 · 『박통사언해』의 '有'자문 연구"(안진영)는 근대 중국어의 언어 현상을 살펴보기 위한 일환으로 『노걸대언해』(1670)와 『박통사언해』(1677)를 텍스트로 삼아, 고대 중국어, 현대 중국어, 구어체,

문어체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도 다양한 형식과 의미로 쓰이는 '有'자문을 조사·분석한 것이다. 『노걸대언해』와 『박통사언해』에 나타나는 '有'자문의 모든 용례를 추출하여, '有'자문의 형식과 의미를 고찰하였다. 『근대 국어의 인용 구조 연구』(윤혜영)는 17세기 문헌에 나타난 인용 구조를 분류하여 그 통어적 구조를 밝힌 것이다. "『여사서언해』에 나타난 인용 구조 연구"(윤혜영)는 『여사서언해』(1736)에서 추출한 428개 인용마디를 직접 인용, 간접 인용, 형식적 인용(빌어온 인용 형식 안에 '뜻풀이'와 '뜻풀이 대상'을 넣어 나타낸 것)으로 나누어 인용 구조의 특징(유형 및 인용 풀이씨)과 분포를 살펴보았고, "조선 시대 윤음 언해본에 나타난 인용 구조 연구"(윤혜영)는 1757년부터 1882년까지의 윤음 언해본 26종에서 추출한 490여 인용마디를 대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조선 시대 윤음 언해본에 나타난 인용 구조를 살펴보았다.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오-'의 소멸과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최대희)은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의 형태·통어론적인 특질을 밝히고 이름마디의 변화 과정을 고찰하였다. 17세기에 이미 현대 국어와 비슷한 이름마디 체계가 완성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18세기 국어의 문법 범주 및 구문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18세기 국어의 '-ㅁ(음), -기' 이름마디 연구"(최대희)는 18세기 국어 '-ㅁ(음), -기' 이름마디의 형태·통어·의미론적 제약 관계를 살펴본 것인데, 17세기에 이미 현대 국어와 비슷한 체계가 완성된 이름마디의 체계가 18세기에 더 확고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18세기 부정문 연구"(박형우)는 18세기 국어 부정문을 '아니' 부정문, '못' 부정문, 이중 부정문('아니' 부정문에 다시 '못' 부정문이 겹친 형식 또는 '아니' 부정문이 연이어 나타난 형식) 및 장형 부정문, 단형 부정문으로 나누어, 자료별·연결 어미별('-디'와 '-지')·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별로 그 사용 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18세기에 들어서서 이전 시기에 비하여 장형 부정문화의 경향이 더 강화되었는데, '아니' 부정문보다 '못' 부정문에서, 단일어보다 합성어나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파생어'보다는 '합성어'일 때) 장형 부정문화의 경향이 더 강화된 것으로 파악했다. "『몽어노걸대』와 『첩해몽어』의

구문에 대한 연구: 몽골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항가이마)는 몽골어와 비교하여 『몽어노걸대』(1790)와 『첩해몽어』(1790)에 나타나는 계사문, 존재 동사문, 형용사문, 자동사문, 타동사문 등의 구문 구조를 살펴보았다.

다음은 19세기 국어의 구문과 관련된 논의이다. "'너기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9세기를 중심으로"(윤혜영)는 19세기 문헌을 대상으로 '너기다'류 단어들이 어찌마디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통어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 글은 필자의 "'너기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5 · 16세기를 중심으로"(2008)와 "'너기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7 · 18세기를 중심으로"(2010)의 후속 연구물이다.

특정 단어 부류(품사)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사와 관련된 것이다. "한국어 순간 부사에 관한 역사적 연구"(왕철)는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한글 문헌 자료에 나타난 순간 부사의 의미 특성을 통시적인 관점으로 살펴보았다. 순간 부사를 기준시가 있는 순간 부사와 기준시가 없는 순간 부사로 나누어, 기준시가 있는 순간 부사 가운데 과거 지시적인 'ᄀᆞᆺ'류, '앗가'류 등과 미래 지시적인 '곧X'류('곧'류와 '고대'류), '卽X'류('즉자히'류와 '卽時예'류), '믄득$_1$'류, '方將'류, '今方' 등의 의미 특성을 고찰하였고, 기준시가 없는 순간 부사 가운데 한어 '忽'에 대응하는 '홀연히'류, '믄득$_2$'류 등과, 한어 '頓'에 대응하는 '모로기'류, '믄득$_2$'류 등과, 한어 '卒'에 대응하는 '가ᄀᆞ기'류, '과ᄀᆞᆯ이'류, '창졸애'류, '졸연히'류 등의 의미 특성을 고찰하였다. "국어 부사의 통시론적 고찰"(정성애)은 중세 국어부터 현대 국어에 이르기까지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사 가운데 많은 변화를 보이는 부사를 선별하여, 의미 변화(의미 전이, 의미 축소, 의미 확대)와 형태 변화[쟝ᄎᆞ('쟝ᄎᆞ'의 변이 형태), 어둑('더욱'의 음운도치)]의 측면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근대 국어 시기 이후 생성 · 소멸된 부사들을 찾아보았다. "중세 국어 양보 부사 연구"(이상훈)는 중세 국어 양보 부사 '비록', '아ᄆᆞ리', '현마', '가ᄉᆞ · 가셜', '아마커나' 등을 대상으로 양보 부사의 형성 과정과, 양보의 연결 어미와의 호응 양상을 살폈다. 그리고 대응하는 한문 원문의 한자(어)를 찾아 양보 부사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노걸대' 언해본에 나타난 부

사의 통시적 연구"(이수진)는 『번역노걸대』(1510년대), 『노걸대언해』(1670), 평양판 『노걸대언해』(1745), 『중간노걸대언해』(1795) 등에 나타난 부사를 성분 부사(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와 문장 부사(양태 부사, 접속 부사)로 나누고, 이들 부사의 형태론적 변화(부사 파생 접미사 '-이'의 '-히'로의 교체) 및 의미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특정 단어 부류(품사)에 대한 그 밖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근대 국어 형용사 연구: 어휘 체계와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방영심)는 근대 국어 형용사의 어휘 체계와 의미 관계를 고찰하였다. 형용사를 속성 형용사(감각 형용사, 색채 형용사, 성격 형용사)와 상태 형용사(형상 형용사, 평가 형용사, 정서 형용사, 외모 형용사)로 분류하여 각 부류별 형용사의 어휘 체계(어종 체계, 의미 체계)와 의미 체계(유의 관계, 반의 관계, 다의 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2.7. 기타

이 절에서는 문자 및 표기, 자료 및 문헌, 음운, 어휘 및 의미, 형태, 통사 등의 분야에 넣기 어려운 것들을 모아서 기술하고자 한다.

우선 역주와 관련된 논의들이 있었다. "국어사 자료 역주의 원칙에 대하여"(조규태)는 역주의 개념과 원칙을 고찰한 것이다. 역주는 번역과 주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고, 오늘날 국어사 자료를 역주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원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역주하는 시대의 언어로 역주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말을 만들어 번역하여야 하며, 번역한 말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에는 주석을 달아야 하고, 일관성 있게 번역하되 문맥에 따라 적절히 바꾸어 번역하기도 해야 하고, 표기는 한글로 하여야 한다는 역주 원칙을 제안했다. "차자 표기 자료의 역주에 대하여"(황선엽)는 차자 표기 자료들의 역주와 관련한 문제들(역주 시의 주의점, 자료별 특징을 고려한 역주 형식)을 정리하였다. 이두 자료의 역주는 글자 하나하나의 판독이 중요하며 자료의 제시 형식도 가능한 한 원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하고(특히 금석문), 향찰의 역주는 연구자마다 다른 형식과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 역주 형식을 체계화하여 통일하는 방안의 모색이 시급한 것으로 보았다. 자토 석독 구결 및 점토 석독 구결의 역주는 구결학회의 공동 연구 모임을 통해 어느 정도 통일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았다. "한글 불전류(佛典類)의 역주 방법론 연구"(정우영)는 15세기 중반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부터 16세기 말까지의 국어사 자료 중 한글로 기록한 불전류의 목록과 역주 현황을 조사하고, 최근까지 출간된 여러 유형의 역주서 가운데 특징적인 10가지를 선정해 각각의 역주 형식과 내용을 비교 ·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역주자, 형식, 목적, 표기, 주석 등과 관련된 한글 '불전류'의 역주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행실도(行實圖)류의 역주 방법론 연구"(김유범)는 행실도류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역주 작업들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역주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역주 방법론의 원칙으로 서문의 번역과 해제 싣기, 그림의 기능과 효용성 살리기, 문법적 주해의 일관성 유지하기, 현대역의 현대화 정도 결정하기 등을 제안했다. "역학서류의 역주 방법론 연구"(정승혜)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역학서의 역주 연구사를 살펴보고,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학서의 역주 방향을 모색하였다. 바람직한 역주본의 형태로 해당 언어의 원문과 언해문(간행 순서에 따른 이본 포함), 현대역, 언어학적 주석, 단락별 문화적 해설 등을 포함시키고 영인본도 함께 볼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제안했다. "언해 의서류의 역주 방법 연구"(최미현)는 기존의 언해 의서류 역주서의 체재 및 역주 방법을 살펴보고, 역주 체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문, 주석, 색인'을 중심으로 새로운 역주 방법을 제안하였다.

자료 복원과 관련된 논의들도 있었다. "『월인천강지곡』 한글 활자 복원을 위한 실험 주조 · 조판 연구"(김성수)는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이후 최초로 한글 금속 활자를 주조하여 간행한 『월인천강지곡』의 한글 활자를 복원하고, 그 조판을 실험한 과정을 기술하였다. "영남대본 『발심수행장』 연구: 자료의 실상과 복원을 중심으로"(정우영)는 영남대 동빈문고에 소장돼 있는 서봉사판 『발심수행장』(1583)의 서지 특징과 구성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동경대 오구라문고

의 서봉사판 『발심수행장』과의 비교를 통해 서봉사판 원간본을 재구·복원하였다.

조선 시대 언간과 관련된 논의도 눈에 띈다. "조선 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황은영)은 일관된 원리 없이 분류·명명되고 있는 언간 명칭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언간 명칭을 표준화하기 위한 일련의 기준[출처 중심의 원리와 작성자(발신자) 중심의 원리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함]을 제안하였다. "조선 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김주필)은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특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매체적 기준과 언어적 기준을 설정하고, 한글 편지의 문어적 특성과 구어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글 편지는 매체적 기준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문자 언어적 특성을 가지지만 일방적인 대화체의 형식으로 비교적 자유롭게 쓴 글이라는 점에서 구어적 특성을 보이고, 언어적 기준에 따르면 발신자와 수신자의 사회적 관계를 드러내는 경어법(그 중에서도 상대경어법)에서 구어적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안동 김씨 언간에 나타난 한글 흘림체 이어 쓰기 양상과 문법 단위의 관계에 대한 시론"(박부자)은 은진 송씨 송규렴의 처 안동 김씨가 쓴 언간을 대상으로 화자가 붓을 떼지 않고 이어 쓴 단위의 성격을, 필사할 때의 개인 화자의 문법 의식과 관련시켜 규명하려 한 것이다. 자료 분석 결과 어절 경계와 필사절(필사할 때 붓을 떼지 않고 이어 쓴 단위) 경계의 일치 비율이 91.9%로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필사자인 안동 김씨의 어절에 대한 문법 의식이 매우 규칙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번역과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분문온역이해방』의 분석적 연구: 영향 관계 및 번역사적 관점"(여찬영)은 『분문온역이해방』의 체재 및 내용을 이전에 간행된 의약서와 비교하여 그 영향 관계를 살펴보고, 번역사적 관점에서 『분문온역이해방』과 같은 의약서 번역의 시대적·사회적 요인과 번역자를 분석하였다.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근대 한국어: 유비·등가·분기, 영한 사전의 계보학"(황호덕·이상현)은 근대 한국에서 생산된 영한 사전 5종[『영한ᄌᆞ전』(Horace Grant Underwood, 1890), *English-Corean Dictionary*(James Scott, 1891), *An*

English-Korean Dictionary(George Heber Jonese, 1914), 『삼천자전』(James Scarth Gale, 1924), 『영선자전』(H. G. Underwood & H. H. Underwood, 1925) 등]의 계보를 각 사전을 잉태시킨 정치성과 관련지어 검토하였다.

"『신약전서 국한문』의 비한자어화 요소 연구"(유경민)는 『신약전서 국한문』(1906)이 한글 전용 성경인 『신약젼셔』(1906)를 저본으로 하여 다시 쓰기된 것으로 파악하고, 『신약젼셔』(1906)를 『신약전서 국한문』(1906)로 다시 쓰기 하는 과정에서 한자어로 표현되지 않는 요소들을 문법 범주별로 유형화한 다음, 그것들의 문법적, 의미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어휘적 의미가 분명할수록 한자어화하고, 어휘적 의미보다 문법적 의미가 강하거나 선·후행 요소와의 결합이 긴밀한 연어/구의 구성 요소일 때 한자어화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한 혼용문 성경의 정착 과정: 『간이 선한문 신약 성서(1913/1936)』를 중심으로"(유경민)는 한국어 번역 성경 가운데 국한 혼용문 성경을 두 가지 유형의 세 계열('신약전서 국한문' 계열, '간이 선한문 구역' 계열, '신약전서 선한문 개역' 계열)로 나누어 이들의 간행 역사와 교체 과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발견된 대한성서공회 소장의 『간이 선한문 신약 성서』를 상세히 소개하였는데, 『신약전서 국한문』과 『간이 선한문 신약 개역』(1940) 및 『간이 국한문 신약전서 개역』(1956) 등과 비교하여 이 자료가 '簡易 선한문 구역' 계열에 속할 뿐만 아니라 초기 국한 혼용문이 현대적 국한 혼용문으로 교체되는 과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그 밖의 주제와 관련된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 고유 한자 咊의 시대별 용례와 원시적 의미"(이건식)는 한국 고유 한자 咊의 시대별(고려 시대 이전, 고려 시대, 조선 시대) 용례를 찾아내어, 咊가 한어 和와 다른 의미를 가지며, 咊와 관련된 국어의 선대 어형은 '섥'과 '섭'이라고 추정('섥'과 '섭'의 의미는 '성글다'로 파악)하였다.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도판 그림의 이야기 전달력 비교"(오정란)는 『삼강행실도』(1460년경),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오륜행실도』(1797) 등의 도판 그림의 변화(만화적 기법→동영상적 착상→회화적 기법)를 살펴보고 각 기법에 따른 이야기 전달력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삼강행실도』 도판 그림의 만화적 기법이 『오륜행실도』 도판 그림의 회화적 기법에 비해 이야기 전달력이 더 높고, 『삼강행실도』 도판 그림의 만화적 기법에서 『오륜행실도』 도판 그림의 회화적 기법으로의 변화한 것은 이야기 전달력보다 심미적 감동을 더 추구한 시대적 요청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주제 분석에 기여하는 텍스트 요소: 개화기 가사 자료를 중심으로"(신지연)는 1875년 개항 이후부터 1910년 한일 강제 병합 시기까지 발표된 개화기 가사(약 1,400여 편)를 대상으로, 텍스트 내적 요소인 주제문, 주제 암시자, 평가를 드러내는 표현, 거시 구조, 순서 등이 주제 분석에 얼마나 또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한글 노래의 변천사"(리의도)는 한글 노래의 변천(「글날 노래」(일로), 「한글노래」(이극로), 「한글의 노래」(최현배), 「한글 반포 오백년 기념가」 등)을 통해 「한글날 노래」의 정착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밖에 한국어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언어생활과 관련된 문화 등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한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고창수), 우리말 시가체를 음운, 어휘, 문법론적 측면에서 문화와 연결시켜 그 특성과 사용 양상을 살펴본 『우리말 시가체 언어 연구』(전영근·김기종), 연나라 화폐로 알려져 온 명도전이 고조선 화폐이고 그 뒷면에 고조선 문자가 새겨져 있다고 주장한 『고조선 문자』(허대동), 동아시아 사회의 교류와 소통의 도구였던 한자에 대한 인식을 재조명한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소통』(동북아역사재단 편),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 문화 속에 자리 잡은 한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본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노마 히데키, 김진아·김기연·박수진 역) 등이 있다.

3. 국어학사

국어학사와 관련된 논의로는 우선 훈민정음 또는 한글 창제와 관련된 것을 들 수 있다. "문자 생활사 관점에서의 '갑자 상소문' 재평가"(장윤희)는 '최만리 (한글 또는 언문) 반대 상소문'으로 널리 알

려진 '갑자 상소문'의 내용(한글 창제 반대)과 상소문 작성에 참여한 최만리에 대한 평가(사대주의론)에 대해 문자 생활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였다. 그 결과 갑자 상소문이 한글 창제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으나 이는 표면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한글 창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갑작스러운 한글 시행, 『고금운회거요』 역훈을 통한 한자음 변개 및 중국 고전의 변개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로 봐야 하고, 갑자 상소문의 '사대모화'의 강조 및 언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또는 이두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최만리 개인의 인식이 아니라 당시 지배층의 일반적인 인식 및 우리 문자 생활의 실상과 부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갑자 상소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민현식)는 갑자 상소문을 보그란데 · 드레슬러의 응결성, 응집성, 의도성, 용인성, 정보성, 상황성, 상호 텍스트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갑자 상소문은 단순히 한글 창제를 반대한 문서가 아니라 한자음 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 이념적 차원에서 어문 정책을 추구한 한국 최초의 이념적 어문 정책 문서로서 국어학사, 국어 정책사에서 귀중한 자료로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국정운: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의』(이재흥)는 우리나라의 한자음을 바로잡아 통일된 표준 한자음을 정하려는 목적으로 간행된 『동국정운』의 서문을 번역하고, 『동국정운』의 서문에서 밝히고 있는 훈민정음 창제 동기의 진의를 고찰하였다.

이제부터는 국어 연구자 및 단체들의 업적을 고찰한 논의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자. "개화 초창기 한글문화 자강 활동에서 헐버트(1863~1949) 박사의 역할과 업적"(김동진)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스민필지(士民必知)』(1889~1891)와 이를 펴낸 헐버트 박사의 생애 및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헐버트가 개화 초창기 한글문화 자강 활동의 선구자이자 어문학자이며, 한글학회 창립에도 많은 도움과 영향을 주었음을 부각했다. "한글문화 자강 활동과 한글 독립 투쟁의 발자취: 한글학회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이대로)는 한글학회의 성립과 발전을 개화 초창기의 한글문화 자강 활동, 일제 강점기의 한글 독립 투쟁, 광복 이후 한글문화 운동 등으로 나누어 개략적으로 기술하였다.

"유길준 문법에서 문법 단위와 문장의 종류"(김인택)는 유길준의 문법서들이 그 내용과 체재를 고려할 때 전기와 후기의 문법서로 나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한문전』(1908)을 전기 문법서의 대표로, 『대한문전』(1909)을 후기 문법서의 대표로 삼아, 문법 단위의 설정과 문장의 종류에 대한 기술 내용을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문법 단위와 관련하여 『대한문전』(1908)이 '단어(언사)-구-문(장)'의 3원 체계인 데 반해 『대한문전』(1909)이 '단어(언사)-구-절-문(장)'의 4원 체계로서 '구'와 '절'을 구분하고, 문장의 종류와 관련하여 『대한문전』(1908)이 '단문, 복문(대등접속문), 연구문(접속문)'을 설정함으로써 복문과 연구문(접속문)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데 반해 『대한문전』(1909)이 '단문, 복문(내포문), 중문(접속문)'을 설정함으로써 『대한문전』(1908)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문장의 종류를 기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서유견문』 문체 연구의 현황과 과제"(한영균)는 유길준이 펴낸 『서유견문』(1895)의 문체에 대한 국어학적 평가, 근대 계몽기 국한 혼용문의 연원에 대한 연구사를 검토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한 혼용문의 문체 연구에 코퍼스 언어학의 연구 방법론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현배의 『우리말본』 둘재매 유인본 연구"(서상규)는 연세대학교에 소장된 『우리말본』 유인본(3종류)들의 구체적인 서지와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말본』(1937)의 성립 과정에서 이들 유인본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최현배의 씨가름(품사) 체계의 과도기적 모습은 물론이고, 씨갈(품사론)의 많은 부분이 거의 완성되어 이미 초기 최현배 말본(문법)의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이들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석 이희승 선생의 국어학 연구"(임홍빈)는 일석 이희승(1896~1989)의 국어학 연구의 구성과 내용 및 성격을 살펴보았다. 먼저 이희승 국어학의 형성 과정[주시경의 『국어문법』(1910)에 촉발], 국어학 연구 방법론(언어학적 방법론, 공시태와 통시태의 구별, 기술적 성격), 구성적 특징(음운론, 어휘론, 문법론) 등을 살펴본 후 음운론, 어휘 분류, 어원론 등의 연구로 나누어 이희승 국어학의 특장을 알아

보았다. 더불어 이희승 문법의 결함으로서 '어절'의 개념과 '체언의 활용'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교 문법 체계"(채완)는 이희승이 펴낸 6종의 중 ·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내용과 형식에 따라 세 부류(기본 개념에 충실한 문법서, 새로운 교육 방법을 도입한 문법서, 학교 문법 통일안에 의거한 문법서)로 나누어 그 내용과 구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희승의 학교 문법 이론이 대부분 학교 문법 통일안에 수용되어 오늘날까지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석 이희승 선생의 어문관과 한글 맞춤법"(송철의)은 이희승이 어문 규범 중 한글 맞춤법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기여를 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희승의 어문관이 「한글맞춤법통일안」 제정 과정에서 맞춤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이희승이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하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한글 맞춤법을 해설한 글(『한글맞춤법통일안강의』)을 씀으로써 한글 맞춤법 보급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일석 『국어대사전』의 특징과 사회적 기여"(조재수)는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 북한의 『조선말사전』(평양, 1960~1962) 등과 비교하여 이희승의 『국어대사전』(민중서관, 1956~1961)의 올림말, 사전의 속 구조상의 짜임새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조선어학회(한글학회)의 『큰사전』(1947~1957)이 완간되고 몇 해를 못 넘기고 절판된 즈음에 출간된 이희승의 『국어대사전』이 우리 말글살이 참고서로서 학교 교육과 일반 국어생활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해암의 국어사 연구"(이현희)는 해암 김형규(1911~1966)의 국어사 연구를 개관하고 그 국어학사상의 의의를 고찰하였다. 먼저 국어사를 자신의 전공이라 생각한 해암의 전공관, 개별 언어학적 연구와 일반 언어학적 연구의 적절한 조화를 꾀한 해암의 연구 태도, 고어 연구와 관련하여 대내적 비교 방법 및 역사학적 연구 태도의 필요성을 역설한 해암의 고어관 등을 확인하였으며, 해방 전, 해방 후 1940년대, 1950년대, 1960년대, 1970 · 1980년대 등으로 나누어 해암의 국어사 연구 업적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다음은 근대 계몽기 · 일제 강점기의 국어 정책(국어 교육 포함)

및 국어 의식과 관련된 논의이다.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허재영)은 근대 계몽기(1880~1910)의 교과서(대략 430종)의 변천 과정을 세 시기(교과 미분화기, 학제 도입기, 통감시대)로 나누어 국어사, 교과 교육사 등의 관점에서 근대 계몽기 교과서 연구의 경향을 정리하였다.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허재영)은 근대 계몽기에 형성된 언문일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근대 계몽기의 문장 유형(순국문체, 한문체, 현토체, 국한문체, 음 부속 국문체, 훈 부속 국문체, 부속 한자체, 부속 국문)을 분류・정리하였다.

“일제 강점기 『조선어 독본』과 『국어 독본』의 비교: 제1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김윤주)는 제1차 교육령에 따라 펴낸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1911)과 『보통학교 국어 독본』(1911)을 비교・분석하여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이 교과서에 어떻게 구현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과 『보통학교 국어 독본』의 언어 교육 내용과 사상 교육 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조선어 교과의 위상이 조선어의 교육에 있다기보다는 아직 일본어가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교육 현장에서 임시적 보조 수단으로서의 조선어를 이용한 사상 교육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조선 총독부 중등 교육용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조선어 인식: 『신편 고등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임상석)는 조선 총독부가 제3차 교육령에 따라 펴낸 『신편 고등 조선어 급 한문 독본』(1924)의 조선어 인식을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았다. 이전의 『고등 조선어 급 한문 독본』(1913)에서 조선어가 단순히 일본어와 한문의 번역 수단이었던 데 반해, 『신편 고등 조선어 급 한문 독본』에서는 조선어가 여전히 일본어 번역의 수단이긴 했으나 제한적이나마 조선의 문화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 언어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중등 교육 조선어 급 한문 독본』(1932)에 이르러서는 조선어가 창작과 저술의 수단으로 그 위상이 한층 더 올라서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성격: 제일차 교육령기 사학년 교과서의 ‘연습’을 중심으로”(박

치범)는 일제 강점기에 보통학교에서 조선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1918)이 학습 교재로서 갖는 성격을 규명하고, 이것이 당대의 학교 교육에서 갖는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 권4(4학년 대상)와 일본어(국어) 교과서로 사용되었던 『보통학교 국어 독본』(1915) 권7, 8(4학년 대상)에 수록된 '연습'을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 결과, 『보통학교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조선어 부분이 일제의 지배 이데올로기와 계몽 담론을 전파하는 매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조선어 독본과 국어 문화』(강진호 · 허재영 · 김소륜 · 박수빈 · 박치범)는 『조선어 독본』의 형성과 변천 과정을 살펴보고, 각 교육령기에 강조된 교육 정책 방향이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그 밖에도 『일제 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허재영)은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한 어문 정책을 살펴보았고, 『조선 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허재영)는 일제 강점기 조선 총독부의 조선 교육령 및 교육 정책 변화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국어사 연구 방법론과 관련된 논의로는 "근대 국어 연구의 특수성과 방법론"(최경봉)을 들 수 있다. 이 글은 '언어의 규범화'라는 국어에 대한 목적의식적 작용을 근대 국어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했을 때, 근대 국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주제와 방법론을 제시 · 제안했다. 표준어 정립과 관련된 국어의 주체 문제, 국어 정리의 주체 및 원칙 문제 등이 근대 국어 연구의 중요 주제가 되며, 국어에 대한 목적의식적 작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대 국어 자료를 언어 사용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와 언어의 규범화 양상을 보여 주는 자료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국어의 정립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어 규범을 집약한 국어사전과 문법서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국어학 연구 동향을 살펴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이상혁)는 해방 후 현재까지 북한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를 분석하고 그 학문적 계보와 경향을 살펴보았다. "북한 조선어학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어학 전서』(2005)와 『언어학 연구 론문 색인 사전』(2006)을 대상으로"(이상혁)는 『조선어학 전서』와 『언어학 연구 론문 색인 사전』이 지난 60년간의 북쪽 '조선어학'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두 문헌을 대상으로 북한 조선어학의 특징과 현황을 살펴보았다.

4. 맺음말

이상으로 2011년에 발표된 국어사 및 국어학사 관련 논저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이 글은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논저 목록과 필자가 추가 파악한 논저 목록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이 글의 기술 대상에서 누락된 논저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소개한 논저의 경우에도 시간과 능력 부족으로 핵심 논지를 빠뜨려서 충실히 소개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 기술한 것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독자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를 구하는 바이다.

이 글은 2011년 국어사·국어학사 연구 성과의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라 국어사 및 국어학사 관련 논저의 결론이나 주요 요지를 간략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하였다. 그리하여 필자의 주관적 평가를 철저히 지양하였다. 객관적인 기술을 위한 방편이었으나 연구사 기술에 있어서 연구의 의의를 평가하거나 논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의 주관적인 평가는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도 큰 아쉬움이 남는다. 이 점 또한 독자 여러분이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다.

사회 언어학

전 정 미
(상명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에 발표된 한국어 또는 한국어와 관련한 사회 언어학 분야의 연구 성과를 살펴보고 연구 동향과 특징 및 주요 논의를 유형별로 묶어 간단히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 언어학의 이론이 국내에 소개된 이후 그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서 매년 이 분야의 연구 결과는 지속적으로 그 양이 더해지고 있다. 국어 연감에서도 2008년부터 사회 언어학을 독립된 분야로 분류하여 연구 동향에 관해 살펴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사회 언어학이 국어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는 반증이 된다. 또한 연구 주제도 다양화되고 있다. 어휘 차원의 연구에서부터 담화를 대상으로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 나타나는 언어 사용의 변이 현상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한 해 이루어진 사회 언어학 분야의 모든 연구 목록을 완전하게 검토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그동안 국어 연감에서 제시된 사회 언어학 분야의 하위 범주 목록과 2011년도 연구 성과의 전반적인 현황을 고려하여, 2011년에 이루어진 연구를 '언어 정책과 공공 언어', '언어의 변이와 변화', '매체와 언어 사용', '언어 의식과 문화', '사회적 상호 작용과 언어 사용', '기타'의 총 6개 하위 분야로 나누어 최대한 그 내용을 기술하고자 한다.

위에 나열한 6개 분야에 속하는 연구 결과는 다시 텍스트 유형에 따라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논문의 순으로 분류하였고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연구 논문은 이 책의 원고 작성 지침에 맞추어 각각 『단행본』, 〈학위 논문〉, "일반 연구 논문"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분야

에 속한 연구는 연구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소개하는데, 해당 연구의 내용을 최대한 있는 그대로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의도와 논지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가급적 각 연구에 나타난 용어를 그대로 따랐으며, 연구자의 의도가 필자로 인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국어원에서 정리한 목록에 있는 연구는 대부분 다루었지만 이 글에서 마땅히 소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역량과 시간의 부족으로 인해 포함되지 않은 연구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해당 저자와 독자들께 간곡히 양해를 구한다.

2. 언어 정책과 공공 언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신문과 방송, 문화재 안내문 등에 사용되는 언어는 일반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대중의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는 본보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1년에는 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대중 매체 언어가 가진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여러 편 진행되었다.

“외래어 수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김혜정)는 외국어가 빠른 속도로 유입됨에 따라 외국어와 외래어의 관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에 외래어 수용이 더 이상 어휘나 표기법 차원에서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다. 외래어 사용은 언어문화의 한 현상으로 의사소통 차원의 측면에서 그 문제점을 인식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특히 외래어의 남용과 국수주의적인 태도 사이에서 어느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게끔 하는 외래어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방송 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김한샘)은 현장에서 사용되는 방송 언어가 언어생활의 본보기로서 공공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진단할 기준을 설정한다. 방송 언어가 대중에게 끼치는 파급력을 인식하여, 방송 언어가 공공성의 요건을 갖출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방송 언어는 공공 언어로서 정확성, 품격성, 공정성, 용이성의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송 언어의 내용과 표현은 정확하

여야 하고, 정보가 가감 없이 드러나야 하며 기본적인 도덕과 규범의 범주를 지켜야 하며, 방송 제작진은 방송에서 쓰는 말은 각계각층의 시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방송 프로그램 언어 건전성 평가 지수 개발 연구』(나미수)는 방송 언어의 건전성 측정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여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송 프로그램의 언어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1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평가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방송 언어 건전성 평가 요인에는 방송 언어의 공손성, 언어의 선정성, 언어의 폭력성, 언어의 표준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기준을 연예・오락 프로그램과 드라마에 사용된 언어에 적용한 결과,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는 언어의 폭력성, 드라마에서는 언어의 표준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방송 프로그램의 언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드라마와 연예・오락 프로그램 모두 언어의 건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통적으로 선정적인 언어 사용의 정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서은아)는 공공 언어로서 방송 언어가 확보해야 할 공공성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기준에 따른 평가 요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관한 논문이다. 어법에 맞는 바른 언어 사용과 상황을 고려한 알맞은 언어 사용,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 사용이 방송 언어가 갖추어야 할 요소임을 확인하고 방송 언어가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기준으로 규범성, 적절성, 용이성 등을 제안하였다.

"문화재 안내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소재 지정 문화재 안내문을 대상으로"(송지혜)는 문화재뿐만 아니라 문화재 안내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기존 문화재 안내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글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가 69%, 적절하지 않은 어휘 사용이 50%, 문장이 과도하게 길거나 문장 성분이 호응하지 않는 문장이 75%, 문단을 나누지 않거나 들여쓰기를 하지 않은 것이 72%가 있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으며 한자 표기가

통일되지 않고 들여쓰기를 하지 않으며 각주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어 국문학자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문화재 안내문 작성 지침안'을 제시하였다.

"신문 언어의 공공성 척도와 사례 분석"(양영하)은 대표적인 대중매체로서 큰 영향력이 있는 신문 언어가 공공 언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공공성 척도를 제시하고, 이 척도를 적용하여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공공 언어로서의 신문 언어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척도는 정확성, 소통성, 공공성이다. 척도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정확성에서는 띄어쓰기와 문장 부호, 조사 사용에서 오류가 많았으며 소통성에서는 한자, 로마자 표기, 약어, 외국어, 압축, 문장 성분 생략에 따른 부자연스러운 의미 등을 주요한 문제점으로 파악하였다. 공정성에서는 주관적인 해석을 통한 표제의 표현 방식, 인용문을 제시하는 서술어, 과장되고 주관적인 표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공공 언어에 대한 요건별·장르별 만족도"(박재현·이관희·김승현)는 공공 언어의 생산자인 공무원과 공공 언어의 수용자인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간극을 확인하고, 이러한 간극 속에서 국민들이 공공 언어에 대해 가지는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미 생산된 공공 언어들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을 지적·교정함과 동시에 실제로 공공 언어를 대면하는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공 언어의 만족도를 확인하여 공공 언어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대국민 의사소통'의 실태를 명확하게 진단하고, 이를 통해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공무원 4명과 일반인 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공공 언어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만족도를 장르별, 요건별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3. 언어의 변이와 변화

언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이 현상은 2011년에도 활발하게

연구된 분야이다. 이 글에서는 음운 및 형태의 변이와 변화, 호칭어와 경어법,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사회 방언 부분에서는 성별 언어와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논의가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3.1. 음운 및 형태의 변이와 변화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이은선)는 전주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사회 언어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주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어두 경음화 현상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으로 '세대, 성별, 학력'을 들 수 있으며, 영향을 주는 정도는 세대〉학력〉성별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장승혜)은 화자가 처한 '상황'이나 언어에 대한 '태도' 혹은 '선호'에 따라 그 발화 형태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어두 경음화 현상을 살펴보았다. 가장 자연스러운 상황인 Section A와 그보다는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인 Section B, 화자의 어두 경음화에 대한 태도를 묻는 Section C를 설정하여 각 상황별로 어떠한 지역적·사회적 변수가 어두 경음화 실현율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른 분석에서는 학력과 연령 등의 사회적인 변수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그중에서도 학력은 Section A와 Section B-2에서 모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분석할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지역적인 변수가 '자기 보고'를 하는 Section C에서는 어두 경음화 실현율을 극대화하는 변수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전북 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 형태소 경계 사이를 중심으로〉(정영신)는 모음 조화의 유형별, 지역별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 그 실현 양상의 같고 다름에 따라 모음 조화 현상을 유형화하며 그 유형에 따른 실현 양상과 지리적 분포를 통해 언어 지도를 만들고 변화의 방향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특히 〈한국 방언

자료집〉을 중심으로 모음 조화 현상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유형별로 분류한 후 매 항목마다 지도를 작성하여 모음 조화의 변화가 지리적으로 어떻게 상이하게 전개되어 왔는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충남에서 진행된 개신파가 전남 지역에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경남 지역과 일부 지역은 지리적인 폐쇄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한명숙)는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일련의 연구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어에서 어두 경음화 실현 실태와 어두 경음화에 대한 표기 인식 태도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293명의 발표를 녹취하여 구어에서의 어두 경음화 실태를 살펴보고, 어두 경음화 현상이 표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받아쓰기를 실시했다. 그 결과 발표자에 따라 구어에서 어두 경음화가 실현된 비율은 40.6%였으며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좀'을 /쫌/으로 발음하는 경우였다. 표기 면에서 어두 경음화 비율이 가장 높은 어휘는 '주꾸미(/쭈꾸미/)(90.0%)'와 '곰장어(/꼼장어/)(90.0%)'였고, 그 외에 어두 경음화 표기 비율이 높은 어휘로는 '숙맥(/쑥맥/)(61.7%), 골초(/꼴초/)(48.8%)' 등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복합어 구성 형태소의 결합 순서 변화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근대 계몽기 교과서에 나타난 어휘 변화를 중심으로"(허재영)는 복합어 형태소의 결합 순서에 대한 화용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 순서 변화가 갖는 의미를 사회 언어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근대 계몽기에 이르러 대등 관계의 어휘에서 전위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나며, 어순이 바뀌기 전의 단어와 바뀐 후의 단어가 경쟁 관계에 있다가 어느 하나가 정착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들 어휘 가운데 일부는 용례나 느낌의 차이를 가져오기도 하며 단어의 의미 영역이 달라지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근대 계몽기 전의 어휘 가운데 일부는 사회·문화적인 관심사를 반영함을 설명하였다.

〈대구 지역어의 음운 변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홍미주)

는 대구 지역어를 대상으로 다양한 음운 변이의 양상을 관찰하고, 그러한 음운 변이가 출현하는 요인을 언어 내적, 외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음운 변이를 언어 외적인 부분인 화자의 다양한 사회적 배경과 관련하여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공존 변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공존 변이는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변이의 단계를 잘 드러내 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공존 변이 실현은 사회적 요인에 따라 그 실현 양상이 다르며 변화의 과정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3.2. 호칭어와 경어법

"닉네임의 언어 특징에 대하여"(강용택)는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필요해진 인터넷상의 이름인 닉네임의 언어 특징을 구조, 내용, 문체 등으로 나누어 살폈다. 사용자의 진짜 이름은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부모나 윗세대들이 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윗세대의 인생관, 가치관 등 사상 이념을 반영하는 반면, 닉네임은 사용자 당시의 심리적 감수에 따라 명명하기 때문에 시간과 생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심리적 변화를 반영하는 동시에 복잡한 인격 특성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 조선족들이 사용하는 닉네임의 언어적 특징을 구조, 내용, 문체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수많은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닉네임의 내용적 특징이나 다양한 수사법의 사용은 인터넷 용어를 대표하는 언어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우리말 어휘 체계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한다고 보았다. 닉네임에 대한 이러한 연구는 언어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교류에 이로우며 나아가 서로 다른 문화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교류를 촉진하는 데 유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신 별명의 사회·문화론적 특성"(김인택)은 통신 별명의 특성에 대한 고찰이다. 컴퓨터 가상 공간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가 대화의 주체로서 사용하는 통신 별명은 사용자 자신이 명명 주체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보고 통신 별명의 특성과 일반 별명을 비교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통신 별명의 구성이 문자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신 별명의 구성상 특성을 단순 구성과 복합 구성, 그리고 혼합 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명명 주체의 자기 정체성 표출 방법에 따라 내재적 정보 지향, 주변적 정보 지향, 사물 속성 정보 지향, 언어유희 지향으로 유형화하고, 통신 별명의 명명 양상에서 보이는 사회·문화적 현상은 자기 정체성 표현의 다양화, 언어유희와 풍자, 표기 도안의 다양화, 개성과 차별성 등을 추구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았다.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일곱 개 언어에 대한 사회언어학적 분석"(유원호·채서영)은 직업명이 타이틀이나 호칭어로 사용되는 양상이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데에 의문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곱 개의 언어, 즉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비교·분석하여 어떤 직업명이 각각의 언어에서 호칭어나 타이틀로 쓰이는지, 또한 그렇게 되는 데는 어떠한 언어적·사회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15개의 직업명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호칭어와 타이틀은 일상적인 언어 사용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각 언어에서 사회의 가치관 요인이 타이틀과 호칭어에 충실하게 반영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 측면"(조태린)은 사회 언어학적 접근과 여성주의적 접근을 통해 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호칭어와 높임법 사용에서 나타나는 양성 불평등적 측면을 분석하고 그 개선 방안의 의의와 한계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실태 조사 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했으나 연구의 진행 과정에서 실시한 의식 조사에서 특정 변수를 고려하지 못해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기존 연구나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 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스스로의 한계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20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해 보면, 현재 20대 대학생들이 결혼하게 될 즈음에는 부부 간에 상호적이고 양성

평등적인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이 현재보다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다.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 사회 언어학적 연구: 성별어적 차이를 중심으로"(강현석)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연령대의 인물이 등장해서 청자 대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성격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 대본을 바탕으로 해요체와 합쇼체 사용에 나타나는 성차를 분석하였다. 화자의 성은 발화의 의례성, 발화 장면, 문형과 더불어 해요체와 합쇼체의 사용 비율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두 성 그룹의 차이는 다른 변인들(친밀도, 연령 관계, 위계 관계, 발화 장면)과의 교차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상당히 견고하고 일관되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두 성 그룹의 해요체/합쇼체 사용에서의 내부 변이는 일탈적이지 않아서 충분히 그룹의 평균 수치가 유의미한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해요체 관련 문장 종결 어미와 표현들은 흔히 쓰이지 않아서 계량적 점검이 어려운 '-셔요'와 '-거 있죠'를 제외하고는 여성 인물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말의 성격과 청자 대우 체계의 실상"(이유기)은 '반말'은 '충분치 않은 아주 짧은 의사 표현'을 나타내는 개념인데 19세기 말에는 오늘날과 같은 '높이지도 않고 낮추지도 않는 말'의 의미로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반말이 청자 대우의 체계 속에서 한 영역을 차지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반말을 화용적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반말의 개념을 적용하여 우리말 높임의 등급을 고려하면 모든 화계는 '높임(하십시오-해요-하오-하게): 안 높임(해라)'의 체계를 이루며, 반말은 홀로 '높이지도 않고 안 높이지도 않는' 무표적 등급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다.

〈한국어 높임법에서의 청자의 역할〉(최효연)은 높임법에서 청자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두 가지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나는 기존의 논의에서 청자의 역할이 어떻게 파악되어 왔는지 살펴서, 한국어의 높임법 체계를 청자를 기준으로 재설정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실생활에 흔히 쓰는 압존법과 가존법에 대해 살펴서 그 특징을 청자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상대 높임법뿐

만이 아니라 주체 높임법과 객체 높임법에서도 청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확인함으로써 한국어 높임법에서 청자는 높임법을 실현하는 데 수행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높임법의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일 경어법의 대조 사회 언어학적 고찰: 양국 고교생의 경어 사용 실태를 토대로”(홍민표)는 한일 양국의 고교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어 사용 실태를 토대로 한일 양 언어의 경어법을 실증적으로 대조・고찰하였다. 한일 양 언어에는 존경어와 겸양어 전용 동사가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일반 동사를 존경어로 만드는 문법 형식으로 한국어에는 보조 어간 ‘-(으)시’가 있고 일본어에는 ‘おご～になる’와 조동사 ‘れる/られる’ 형식 등이 존재하며 일반 동사를 겸양 표현으로 만드는 문법 형식은 일본어에만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직접 경어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연령이나 지위의 상하 관계가 경어 사용의 우선적인 기준이 되지만 일본어에서는 상하 관계뿐만 아니라 친소 관계도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부모에게도 경어를 사용하지만 일본에서는 부모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간접 경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어는 절대 경어, 일본어는 상대 경어의 규칙에 따라 경어가 사용되지만 한국어 경어법에서도 상대 경어적인 요소가 일부 작용하고 일본어에서도 절대 경어적인 요소가 일부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국어 경어법에서도 압존법이라는 상대 경어적인 용법이 있지만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 이외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3.3.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

“海巖 선생의 방언 조사・연구”(곽충구)는 해암 선생의 방언에 대한 관심을 국어사의 보조 과학으로서 방언을 인식하고 연구에 이용하고자 한 것과 현지 조사를 거쳐 방언 자료를 수집하고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방언 현상을 연구하고자 한 것으로 나누어 살폈다. 그 결과 해암 선생은 역사주의 언어학의 이론과 방법을 견지하면서 국어사를 연구하였으며, 국어사 및 국어사 연구를 저술하면서 문헌

중심의 국어사를 기술하고 이를 보완 또는 논증하기 위하여 동계어와 방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방언학을 언어사 연구를 위한 보조 과학으로 인식한 해암 선생은 국어사 연구를 진행하면서 일인 학자들의 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마저 반세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리 손으로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방언 조사를 하여 자료를 집대성하고 또 그 연구 결과를 모아 〈한국 방언 연구〉를 간행하였음을 밝혔다. 그리고 〈한국 방언 연구〉는 문헌 중심의 국어 연구에서 벗어나 국어의 공시태를 정밀하게 기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귀중한 자료임을 밝혔다.

"사회 언어학의 이론으로 본 지역 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관련성"(오새내)은 지역 인구의 변동이 지역어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 언어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소개하고 있다. 또 20세기에 인구 변동과 경제적, 사회적 구조 변화를 겪은 한국 사회에서 사용되는 현대 한국어에도 인구 변동을 고려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자는 제안을 한다. 인구 집중에 의한 언어 접촉 상황에서의 방언 변화 유형론을 소개하고, 표준어와 방언이 공존하는 현실을 반영한 지역어 연구 이론도 다루었다. 그리고 지역 인구 감소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방언 소멸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비도시 지역 인구 과소화에 주목하여 방언 사용자의 감소와 표준어 또는 다른 방언의 영향으로 방언 사용 축소에 따른 지역어 변화 가능성도 다루었다.

〈『한글』지 소재 방언 연구〉(임진아)는 1927년에서 1956년까지 조선어학회가 편찬한 『한글』지에 수록된 방언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일차적으로 『한글』지에 수록된 방언들을 어휘, 음운, 문법 항목으로 분류하고, 분류된 자료를 다시 형식과 내용의 측면으로 나누어 상세히 다루었다. 이를 통해 초기 방언 연구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글』지 소재 방언 자료가 종전보다 그 가치를 더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언어문화의 질 제고 방안"(강희숙)은 청소년들의 욕설과 통신 언어 사용의 실태를 점검하고 거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청소년들은 욕설이나 비속어 등의 사용을 전형적인 의사소통의 방법이자 고유한 문화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고 하였다. 욕설이나 비속어가 경쟁 위주의 교육과 사회 분위기에서 오는 스트레스 해소, 또래 집단의 연대감을 높여 남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자기 방어 기제로 작용하고 있어 그러한 언어 사용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러한 언어 사용의 결과가 대화의 상대자나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무엇인지 관찰하고, 그 언어 사용의 주체인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발적인 실천 의지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보고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이를 통해 건강한 정서 상태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의 욕설 사용의 심리적 기제 및 순화 방안"(강희숙・양명희)은 예전과 달리 이른 시기부터 성별, 학업 수준, 학교 생활의 적응 정도를 불문하고 일상화된 욕설을 사용하는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와 욕설 사용의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적 기제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욕설 사용을 줄이거나 순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 대상자의 94.6%의 학생이 친구들과 놀면서, 친구들을 대상으로 욕설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심리적 기제는 '습관이 되어서'(25.7%)나 '남들이 사용하니까'(18.2%)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욕설을 사용하는 데에 별다른 동기가 없을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였다. 욕설의 순화 방안은 학생들 스스로가 학교 교육의 효과에 회의적 태도를 보이면서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성별의 언어적 구조"(권영수)는 언어학적 젠더 연구에서 취급하는 중심 문제를 개관하고, 학제적인 젠더 연구에서 '행동하는 성'의 수행 방식을 고찰하였다. 성별의 언어적인 구조는 개인의 능동적인 상호 행위 수행인 '행동하는 성'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젠더 연구에서의 행동하는 성은 근본적으로 성별에 전형적인 커뮤니케이션 태도, 즉 언어 태도 차이에 의해 제한되는 것이며, 여성과 남성의 커뮤니케이션 태도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은 상이하게 인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지 모형의 개념에는 어떤 이론적인 배경이 기초하고 있는지, 언어와 관련된 성별 스테레오 타입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또한 인지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였다.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김정선·이필영·김태경·이삼형·장경희·전은진)는 청소년들의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 유행어, 은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서울·경기 지역 총 8개 학교 18개 학급의 600여 명을 대상으로 비속어, 유행어, 은어의 목록과 사용 빈도, 학교 급별/성별 비속어(욕설), 유행어, 은어의 사용 양상, 비속어(욕설)의 거친 강도와 학교 급별 선호 사용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내용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에 대한 형태·통사적 관점, 표현법 등에 대한 분석이 따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청소년 언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과 교육 방법 수립에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젠더와 언어: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녀의 소통 전략』(김귀순)은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는 남녀의 언어 사용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중심으로 언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와 언어 개혁 운동의 현황을 다루었다. 남녀 간의 대화에서 나타나는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성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담화에 참여하고 있는 남녀 간의 상호 작용에 의한 힘의 우위가 결정한다는 페미니즘적인 설명의 타당성을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였다. 특히 남녀 간의 담화 시 담화 전략과 담화 하위 문화의 차이로 양성 간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언어 전략의 상대성 원리로 설명하였다.

"사적 대화에서 성별에 따른 의문형 발화 분석"(김혜영·하승완)은 실제로 여성이 부드럽고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방식으로 발화하는 경향이 있는지, 질문이 성별에 따라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세종 구어 원시 코퍼스 중 남성 간의, 여성 간의 2인 대화 약 9만 어절을 추출하여 설명형 질문, 판정형 질문, 확인형 질문과 보상, 어사, 말 중복 현상의 남녀 간의 사용 차이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의문형 어조의 발화는 여성이 약 1.5배가량 더 많이 사용했고, 설명형 질문은 남성이, 판정형 질문은 여성이 더 많이 사용했으며, 보상의 빈도를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화자와 청자 간의 상호 작용과 대화를 진행하는데 더 적극적임을 밝혔다. 또한 부가 의문문의 사용 정도와 맞장구로 쓰이는 어사, 반복하여 되묻는 질문의 사용은 남성이 더 많아서 남성 간의 대화 시 상호 호응이 좀 더 활발함을 알 수 있었고, 의문형 교환 구조의 경우에는 여성의 대화에 '연쇄 구조'의 사용이 좀 더 많아 여성이 재질문하여 선행 발화를 보충 설명하며 이끌어가는 경향성이 높다고 보았다.

『은어와 우리말의 세계』(김홍석)는 교양서처럼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은어와 잘못된 언어 표현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1부에서는 궁중에서 사용된 은어와 소경, 범죄인, 심마니 사이에서 사용되는 은어의 종류를 정리하였고 2부에서는 청소년들의 잘못된 발음과 1950년대부터 1999년까지의 대중가요 노랫말 중에 잘못된 표현을 정리하였다.

"한국어 성별 언어의 개념에 대한 연구"(박석진)는 기존의 연구가 성별 언어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화자의 성별과 성별 언어 사이의 관계를 규범적으로 접근하여 규정해 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성별 언어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별 언어가 규범적으로 실현되는 양상뿐만 아니라 규범을 위반하여 전략적으로 실현되는 양상도 다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누가 어떻게 발화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화자는 어떤 의도와 방식으로 발화하고 이에 대해 청자는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어휘 능력의 성별·세대별 차이 연구"(박재현·이관희)는 어휘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세대 변인을 추가하여 성별과 세대에 따른 어휘 능력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KBS 한국어 능력 시험

의 어휘 문항을 기초 자료로 삼아서 22,886명의 수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어휘 영역 전반과 네 가지 하위 차원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 통계 분석과, 성별과 세대를 독립 변인으로 설정한 이원 배치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세대 변인의 조합에 따른 어휘 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고 전체 평균 점수는 여성이 높지만, 세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의 어휘 점수가 여성에 비해 높아진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한자 능력의 영향에 주목하여 논의하였다.

〈간판 언어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언어 순화 방안〉(서인숙)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간판의 언어 사용 실태를 알아보고 간판 언어와 관련된 설문 조사를 통해 간판 언어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말 오용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간판 언어를 순화하여 아이들에게 언어를 바르게 쓸 수 있게 하고자 하였다.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들 자신들은 우리말의 소중함을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간판 언어는 아동들이 뜻도 제대로 모르는 외국어와 맞춤법이 잘못된 언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간판 언어를 통한 언어 순화 방법으로 학교 교육과 행사를 통해 우리말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긍심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점, 우리말 다듬기 운동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아름다운 우리말 간판 짓기 운동을 강화하고 제도적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 양상 분석”(신경민・하예림)은 대중가요에 나타난 어휘들을 분석하여 외래어의 사용 실태에 대해 알아보고 국어에 사용되는 외래어를 양적・질적으로 분석해 향후의 언어 사용 양상을 예측해 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중가요의 제목과 가사를 모두 어종별로 분석하고 고유어와 한자어는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외래어는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과거에는 단순한 단어 차원의 차용이었으나 근래에는 명사, 동사, 전치사, 부사 등 다양한 부류의 외래어 어휘들을 차용하고 국적 불명의 신조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중들이 대

중가요에 쉽게 영향을 받는 만큼 대중가요에 사용되는 어휘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양상과 인식 실태 연구"(이승왕·이병운)는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양상을 통사적, 음운적, 어휘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통사적 측면에서는 주어와 호격어가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부사어와 감동어의 빈도도 유의미하게 높음을 확인하였다. 음운적 측면에서는 경음과 격음이 많이 나타났고, 변이음과 초분절음과 관련된 어휘가 많고 어휘적 측면에서는 비속어의 경우에도 다양한 어휘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초등학생의 비속어 인식 실태에서는 학생 설문과 교사 설문을 분석하였는데, 초등학생들은 본인 또는 친구들이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이 사용할 때보다 타인이 사용할 때 거부감이 더욱 높게 나타났다. 교사도 학생과 대부분 유사하게 응답하였으나 비속어를 배우게 되는 경로에 대해 'TV/인터넷'과 '친구'의 빈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점은 '친구'의 빈도가 높은 학생의 응답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제천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윤자경)는 중학생들의 통신 언어 사용을 사회 방언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통신 언어의 음운론적, 어휘론적, 통사론적, 표기 방법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는 언어의 경제성, 효율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지니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군 내 용어 순화를 위한 외래어 연구"(이지수·조은영·정은진)는 군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래어와 외국어가 신구 세대 간, 일반인과 군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외래어와 외국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기준과 근거를 검토하고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순화어를 제시하였다. 언어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 내 언어생활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

는 외래어 및 외국어 순화를 위한 구체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경멸적 평가어로서의 비속어 형성 과정과 요인 연구"(허재영)는 어휘를 대상으로 비속어의 개념과 특징을 검증하고 경멸적 평가어로서 비속어가 형성되는 과정과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 비속어는 비어와 속어를 합쳐 이르는 말로 대상이나 존재에 대한 온당하지 않은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경멸적 평가어이다. 비속어는 동일한 어휘나 표현일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비속어로 간주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므로 어휘나 문장 단위에서 외형적 표현을 기준으로 비속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비속어와 속어를 구분하는 문제, 언어학적 관점에서 비속어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는 문제, 비속성의 평가 기준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4. 매체와 언어 사용

매체와 언어 사용에서는 매체를 인터넷, 신문과 방송, 광고 등으로 나누어 각 분야에 관련된 연구 내용을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 통신 언어에 관한 연구에서는 사회적 소통망(SNS)인 트위터에 관한 연구가 여러 편 진행되어 사회 변화에 따른 언어 사용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4.1. 인터넷 통신 언어

"통신 언어에 나타난 말줄임표의 의미와 기능"(김순자)은 인터넷 통신 언어를 대상으로 문장 부호 가운데 하나인 말줄임표의 의미와 그 기능상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통신 언어에 나타난 말줄임표가 음성을 문자화하는 과정에서 구어의 운율적 특징인 휴지를 적는 부호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말줄임표가 텍스트이긴 하지만, 구어화의 특징을 갖는 통신 언어의 연속된 경계에서 이루어

지는 의미 확장과 모방적 도상성의 형상화라는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된 혹은 긴 휴지→짧은 휴지'로의 의미 변화를 겪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통사적으로는 발화 경계 표시, 수식 성분 변별, 생략 요소 대용의 기능을 가지며 담화상에서는 주제 표시, 정보 탐색 과정의 구현, 초점화, 감정 표현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인터넷 토론 댓글의 방어 전략과 전략 선택 요인"(안태형)은 인터넷 토론 게시판 댓글에 사용되는 방어 전략의 유형을 살피고 방어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혔다. 방어 전략의 유형으로는 경험 제시하기, 유희적으로 대응하기, 정보 제공하기, 단순 의견 진술하기가 있다. 방어 전략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게시글에 대한 찬반 입장, 게시글의 토론 분야, 게시글 작성 목적, 게시글 작성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방어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토론 분야와 게시글 작성 방식임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토론 댓글의 표현 전략 연구〉(안태형)는 인터넷 토론에서 댓글 작성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불어 댓글이 사용되는 환경에 따라 댓글 전략, 표현 방법, 감정 표출 대상이 어떤 분포를 보이는지도 살피고자 하였다. 토론 댓글 표현 전략, 표현 방법, 표출 대상을 설정하고, 이들의 차이가 발생하는 요인을 수행성, 게시글에 대한 입장, 토론 분야, 게시글 작성 목적, 게시글 작성 방식 등으로 제시하여 사이트에 따른 댓글의 다양한 분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이정복)는 2011년 현재 한국어 인터넷 공간, 특히 트위터 등의 사회적 소통망(SNS)에서 쓰이는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연구 과정을 통하여 통신 언어는 현재 모든 세대에서 쓰거나 이해하고 있으며 그것은 세대 간에 질적 차이가 거의 없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세대 간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중요한 요인은 '소통 태도', '욕설' 등의 부정적 표현 사용으로, 통신 언어 자체가 세대 간 소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요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인터넷 통신 언어와 사회 언어학"(이정복)은 인터넷 통신 언어를 사회 언어학의 관점과 방법으로 연구해야 할 필요성과 효과를 '한다요체'를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한다요체'의 쓰임 실태와 기능, 발생 및 유행 배경, 사용자 분포, 기능에 대한 누리꾼들의 인식을 사회 언어학의 대표적 연구 방법인 사례 분석 및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한다요체'는 해라체에 높임 보조사 '요'를 덧붙인 형식이며, 어린 아이들이 경어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일종의 '오분석'에 나타나기도 하는 형태이다. '한다요체'의 기능은 크게 '경어법 사용 기능'과 '통신 언어 표현 기능' 두 가지인데, 높임말과 안 높임말의 미묘한 어울림, 귀엽고 친근한 느낌, 낯선 형식에서 나오는 재미 등이 뒤섞여 누리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통신 언어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이정복)는 2011년 한국어 인터넷 공간에서 잘 쓰이는 통신 언어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통신 언어와 관련된 세대 차이와 세대 간 의사소통 문제의 원인 등에 대해 누리꾼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세대 간 갈등이나 의사소통의 문제에 통신 언어를 포함한 어떤 요소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영향을 준다면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해결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과정에서 통신 언어가 경제성, 표현성, 오락성, 유대성, 심리적 해방성의 동기에서 활발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고 통신 언어는 거의 모든 세대에서 쓰거나 이해하고 있으며 세대 간에 질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았다.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접근"(이정복)은 '트위터'를 대상으로 그것의 소통 구조 및 언어적 성격을 파악하고, 호칭어의 쓰임을 사회 언어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트위터에서 누리꾼들은 어떤 구조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거기서 쓰이는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한국어 호칭어의 쓰임 자료를 사회 언어학의 대표적 연구 방법인 사례 분석과 통계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호칭어가 다른 사람을 부르고 가리키는 기본 기능을 넘어 호칭 대상에 대한 화자의 친밀감, 호감도, 공감도 등의 태도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호칭어 사용을 통하여 상대방의 마음이나 행동을 비

판하고 움직이려는 전략적 기능까지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트위터의 소통 구조와 통신 언어 영역"(이정복)은 트위터를 통한 활발한 언어 사용 및 의사소통 상황을 소개하고, 관련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트위터는 기능의 혼재와 마찬가지로 언어적인 면에서도 다양한 '섞임'의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입말과 글말, 대화와 독백, 높임말과 안 높임말, 규범과 비규범 표현이 섞여 쓰인다. 이는 트위터를 이용하는 누리꾼들의 특성과 트위터 이용 목적, 트윗글의 내용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댓글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이주형)는 댓글을 통해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를 살펴보았다. 댓글에 나타나는 표기 실태에서는 숫자, 로마자 혼용, 닿소리만의 표기, 첨가, 교체 등의 표기가 나타났는데, 숫자, 로마자 혼용, 닿소리만의 표기는 주로 표기의 편리함과 '인터넷 금지어'에 해당하는 어휘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첨가'와 '교체' 표기의 경우에는 표기의 편리함과 다른 어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였다.

〈중학생과 대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양상 비교: 전자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최지영)는 통신 언어의 사용이 가장 활발한 세대인 중학생과 대학생의 전자 게시판 언어를 분석하여 전반적인 사용 양상과 함께 중학생과 대학생의 게시판 언어에 나타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10대, 20대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음운, 단어, 문장 단위로 크게 분류하고 이들 각각의 단위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음운·기존 단어·문장 성분의 더하기, 빼기, 바꾸기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중학생은 독자보다는 필자를 우선시하며 개성의 표현에 집중하는 데 반해 대학생은 필자를 우선시하고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자 그룹 인터넷 언어에 나타난 특성 분석"(최진숙)은 사회 방언이 특정한 집단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정체성의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한국 학자 그룹이 인터넷 언어를 통하여 어떠한 사회 방언과 정체성 인식을 형성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사회적 속성과 그들 언어의 참모습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사회 언어학적 분석을 통하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집단의 언어와 사회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분석 결과 이들은 상위 계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언어 특성들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언어 특성이 다른 그룹과 차별화되는, 그들 그룹 고유의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자신들의 언어를 계속 사용함으로써 언어 정체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결국 언어는 사회 계층이라는 사회 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따라서 사회와 언어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중·한 인터넷 통신 언어의 비교 연구〉(판디)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인터넷 언어와 그 발생 과정, 그리고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문자 생활에 대해 살펴보았다. 근대 이후의 매체들이나 대중적 문학 양식들은 인쇄를 거치며 법제화로 강요된 순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어 구어화된 글쓰기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지금 인터넷은 기존의 다른 매체와 달리 청소년기에 사용되는 빈도가 많다. 지금 이용하는 30, 40대 역시 10대부터 사용했음을 상정하면 인터넷상의 언어는 10대의 언어생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나 최소한 공감,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인터넷의 글쓰기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보다 자유화된 참여이기에 인터넷의 언어는 '탈화'의 경우도 보이지만 이 역시 새로운 매체의 출현에 따른 구어화의 과정으로 본다.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허상희)의 목적은 트위터가 의사소통 도구로서 어떠한 소통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트위터의 의사소통 구조는 우리 일상의 의사소통 구조, 즉 상호 교섭적 활동과 닮아 있으며, 트위터의 관계 맺기의 일방향성, 간편성, 확장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트위터의 이용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트위터는 새로운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이며, 앞으로 이러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한 의사소통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았다.

4.2. 신문과 방송 언어

『방송 글, 방송 말: 방송 언어의 이론과 실제』(김기덕)는 방송 글, 특히 방송 기사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글쓰기 기초부터 방송 기사 문장 등의 특성과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문 기사를 방송 기사로 고쳐 쓰는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 자료를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국어 국문학도의 대중 매체 언어 문화 콘텐츠 창작』(김미형)은 국어 국문학이 전파력 강한 대중 매체 속에 들어갈 내용물의 창작에 참여해야 한다는 과제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특히 네이밍과 광고 카피 실습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중 매체의 언어문화 콘텐츠에 대한 총체적 인식과 창작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

"신문 칼럼 글쓰기의 유형 분석: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김병홍)는 칼럼의 개념, 기능, 종류 등을 바탕으로 칼럼의 분석 기준을 논증 구조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논증 구조에 따른 유형별 특징을 분석하였다. 특히 칼럼의 설득 전략이 주장, 사실, 논거 등의 어떤 논리적 기제를 사용하는가를 분석하여 논증 유형을 제시하였으며, 칼럼의 내용을 논증 구조로 분석하는 데는 툴민(Toulmin)의 논증 모델인 사실-주장-논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고, 브로크리드(Brockriede)와 에닝어(Ehninger)의 논증 구조를 참조하였다. 그 결과 논증 구조에 따른 칼럼의 유형은 주장형 칼럼, 감상형 칼럼, 설명형 칼럼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방송 언어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소통과 비평 관점의 해결 전략"(김슬옹)은 시청자와 제작자 사이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방송 언어의 역기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작자는 성찰의 태도로 자체 비평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일반 시청자와 비평 전문가의 비평이 가능하도록 하며, 시청자 게시판을 의무화하여 소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게시판을 활성화하여 댓글을 활용한 토론과 비평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지면 방송 언어의 역기능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리라 보았다. 이 연구는 방

송 언어 문제를 기존 연구에서 제안한 순화 전략이 아니라 성찰과 소통과 비평과 토론 전략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공기어 네트워크와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의 트렌드"(김일환·정유진)는 2000년대 10년 분량의 신문 코퍼스에 나타난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사의 추이를 주요 대상어와 공기어의 네트워크, 그리고 대상어와 공기어 사이의 관련성의 증감도 등을 통해 살펴보았다. 사회 계층을 대표할 만한 대상어로 '부유층, 중산층, 빈곤층'을 각각 선정하고 이들과 공기하는 단어들을 연도별, 계층별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허브어를 통해 각 계층의 관심과 사회적 이슈 등을 알 수 있었으며, 계층별로 통합된 네트워크를 통해 각 계층에 따른 주요 관심사를 확인하였다. 또한 공기어의 관련성이 연도별로 어떻게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도 확인하여 네트워크 분석 결과와 함께 논의하였다.

"뉴스 전달 속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박경희)는 뉴스 전달 속도가 수용자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을 갖고 전달 속도 차이에 따라 수용자가 인지하는 유사 언어적인 변별력의 차이와 선호도, 뉴스에 대한 이해도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방송 진행자의 공신력에 전달 속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뉴스 전달 속도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말 속도가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전제에서 전달 속도의 시대적인 변화를 알아보고 수용자에 대한 배려, 수용자와의 관계, 방송 전달 환경 변화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동안 매체 연구나 수용자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었던 수행 차원에서의 연구로서 커뮤니케이션 전체 과정에서 전달 속도가 왜 의미가 있는지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회 언어학적 맥락으로 본 방송 언어"(오새내)는 방송이라는 사회 언어학적 맥락에서 방송을 둘러싼 언어 외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방송 언어에 대한 다양한 사회 언어학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방송이 가진 역사적 가치를 인식하고 방송 언어를 연구할 때에는 방송이라는 맥락과 인간의 언어 행동이라는 맥락

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방송 언어가 일상적인 언어 사용과는 다른 사회 언어학적 맥락을 지니고 있으므로, 방송 언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사회 언어학적 접근이 방송 언어 연구를 위해 필요함을 방송 환경의 변화와 방송 출연자들의 태도, 새로운 장르의 출현 등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문의 보도 양상 연구"(이상린)는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문의 보도 양상을 파악하였다. 2005년 1월 1일부터 2011년 8월 31일까지 6개 주요 일간지의 기사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기사 내용을 한국어 교육 정책의 각 영역별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별로는 2009년까지 기사 수가 계속 증가하다 2010년부터 기사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문의 관심이 2009년을 정점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형별로는 단순 전달 기사>기획, 연재 관련 기사, 내용별로는 국외 한국어 교육 정책>다문화 한국어 교육 정책>한국어 교육 과정 정책>한국어 교원 교육 정책>한국어 교육 평가 정책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문사별로 전달하는 기사의 유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남을 보여 주었다.

"의사소통 행위로서 TV 방송 자막의 언어학적 고찰"(이성범)은 TV 자막 방송을 언어학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TV 자막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공공적 용도의 텍스트지만 현재는 모든 시청자들을 상대로 방송의 효과를 높이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방송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두 개를 비교하여 TV 자막이 시청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송 자막 언어의 특징과 관련 요인"(이준환)은 방송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른 자막의 형태, 제시 양상, 표기, 어휘, 문장으로 나누어 그 실태를 살피고, 방송 자막 언어의 입체적 특징과 관련 요인에 대하여 분석했다. 고찰 결과 자막의 언어는 프로그램의 성격, 제작 목적, 제작진의 개입 정도, 주 시청자층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데, 연예 정보나 예능 프로그램일수록 부호, 준말, 신조어, 외래어 또는 한 단어만을 이용한 상황 묘사어 등이 많이 쓰이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인터넷 통신 언어상에 나타나는 젊

은 층의 언어 사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자막 언어의 특징을 살피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 언어와의 관련성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도 제안하였다.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의 아나운서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제언"(장소원)은 최근 아나운서가 뉴스나 시사뿐 아니라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도 관여하는 사실에 입각하여 그들의 언어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상황에 따른 바람직한 언어 구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아나운서의 언어를 격식적인 영역과 다소 비격식적인 영역으로 나누어 종합 뉴스의 문장 실태를 검토하며 문법적인 오류의 실상을 분석하였으며, 오락 프로그램에서 아나운서가 포함된 진행자의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방송이 우리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는 매체이며 동시에 우리가 지향해야할 모습을 제시하는 교육적 매체라는 점에서 언어적 측면이 중요하며, 특히 아나운서의 언어 사용은 다른 방송인들보다 크게 지적되고 품격 논란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뉴스 문장의 문법성에 대한 검토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한국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문 속 언어 지식』(장진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서 잘못 쓰는 예가 많거나 구분하기 어려운 말, 국어사전의 뜻풀이가 미진하거나 잘못되어 있는 말, 자주 쓰는 말인데 국어사전에 올라 있지 않은 말, 써야 하는지 버려야 하는지 논란이 되는 말, 생성·발전 과정에 교훈적인 에피소드가 나오는 말 등을 가나다 순서로 엮어서 정리한 것이다. 특히 신문에 자주 나오는 말 중에서 글을 쓰거나 가공하는 사람, 또는 신문을 깊이 읽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만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와 더불어 말의 조어 구조나 유래에 관한 정보도 함께 싣고 있어 말과 글 속에서 어휘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대학생 시청자 성별과 이들이 인지하는 앵커의 성 역할에 따른 언어·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의사 인간관계 그리고 공신력 차이 분석"(정동훈·이은지)은 송신자 속성 인식의 하나로 앵커의 성 역할 인식과 시청자의 성별이 공신력 인식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지 살펴

보며, 이와 관련하여 언어·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의사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청자들의 성별과 이들이 인식하는 앵커의 성 역할이 상호 작용을 통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피고 있는데, 앵커의 공신력과 의사 인간관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앵커의 생물학적 성이 아닌 시청자가 인지하는 앵커의 성 역할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4.3. 광고 언어

"인쇄 공익 광고와 TV 방송 공익 광고의 구문 특성 분석"(김미형)은 TV 방송에서 음성과 영상을 통해 스토리가 전개되는 방송용 광고 문구의 문체와, 신문에 실린 광고 문구의 문체를 비교·대조함으로써 두 매체 간 문장들의 차별적인 문체적 특징을 고찰하였다. TV 방송용 광고의 문구는 대사, 내레이션, 자막의 형태를 하고 이는 구어체와 문어체의 중간쯤 되는 성격을 가진다고 보았다. 종결 어미의 존대법 양상은 인쇄용의 경우 아주높임형 종결 어미 사용 비율이 86.2%로 월등히 높았고 방송용은 아주높임형이 42.22%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이밖에도 접속사의 사용 양상, 문장 유형의 양상 등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방송 광고의 상호 텍스트성 활용 양상: 패러디 광고를 중심으로"(김정우)는 방송 광고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패러디 광고에 나타난 상호 텍스트성의 징표인 반복과 변형에 초점을 맞추어 광고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반복과 변형이 왜 수신자들로 하여금 광고에 주목하게 할 수 있는가를 밝혀내기 위하여 AIDMA의 법칙으로 불리는 수신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도입하였다. 또한 실제 광고를 선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 요소의 활용, 장면의 활용, 내용의 활용, 구조의 활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그 안에서 지각적 경계를 일으키는 반복과 인지 부조화를 일으키는 변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파악하였다. 그 결과, 요소를 활용한 광고는 TV 프로그램을 선텍스트로 활용하고, 장면

을 활용한 광고는 영화를, 내용을 활용한 광고는 고전 작품을, 구조를 활용한 광고는 광고를 선텍스트로 활용함을 확인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른 라디오 광고 언어의 전략과 표현 양상 비교 연구: 초창기 라디오 광고와 2008~2009년도 라디오 광고를 중심으로"(김정우)는 1959년~1964년까지의 초창기 라디오 광고와 2008년~2009년의 라디오 광고 사이에 나타나는 언어 표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어휘에서는 초창기 라디오 광고들이 외국어의 남용, 무리한 과장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데 반해, 최근 라디오 광고들은 전략적으로 정제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문장은 초창기 라디오 광고에 비해 최근의 라디오 광고가 평균 2/3 길이임을 확인하였다. 텍스트 구성 전략 차원에서는 초창기 라디오 광고에서는 스트레이트형이, 최근의 라디오 광고에서는 드라마형이 주된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상 자막 번역과 두 줄의 미학』(박윤철)은 대학원 박사 논문을 좀 더 확대한 것으로 짧은 두 줄의 자막 속에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막 번역의 정의와 영상 번역의 특징, 생략, 압축, 부가, 대체 등과 같은 번역 기법을 통해 축서 번역이 만들어지는 축역에 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설득 담화로서의 텔레비전 공익 광고 텍스트 연구〉(손도영)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2년간 제작된 공익 광고 97편을 텍스트 언어학적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언어적 영역에 치중되어 왔던 광고 텍스트 연구의 범위를 영상과 음악에까지 확장하였으며, 특히 텔레비전 공익 광고가 갖는 설득 텍스트로서의 구조를 파악하고, 광고의 개별 구성 요소가 설득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어떠한 담화 구조를 형성하는지와 그 안에 어떠한 설득의 전략이 내포되는가에 대하여 다루었다.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광고의 서사 전략"(심영덕)은 현재의 스토리텔링이 단순한 이야기나 서사가 아니며, 하나의 스토리 콘텐츠가 여러 채널과 형태로 유통돼 시너지를 창출하는 트랜스 미디어 형태를 가진다고 하였다. 광고 역시 이야기의 구체화가 추가되면서 하나

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광고는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특정한 경험을 주고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스토리 콘텐츠가 결합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오현아)는 TV 광고에 나타난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중점 가치 양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실제 TV 광고 자료를 대상으로 인간관계 유형을 부모-자식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사회관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논의 결과, 오늘날 한국인의 인간관계의 중점 가치는 집단의 가치를 우선시하던 전통적인 것에서 개인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V 화장품 광고에 반영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언어 태도의 차이"(이진성)는 언어 관습이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여성 화장품과 남성 화장품의 광고 문안을 종결형 어미, 설득 전략, 빈도가 높은 어휘, 레드 플래그(red flag) 표현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의문문은 친밀감과 소통이 더 부각되는 문장 형태로 여성에게 더 많이 쓰인 반면, 명령문은 남성에게 더 많이 쓰였다. 여성 화장품의 경우 존대법이 많이 쓰이는 현상은 여성어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낮춤법이 선호되었고 친밀감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말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인쇄 매체 공익 광고의 국어학적 연구〉(장혜연)는 공익 광고에 대한 설득 표현 기법의 연구를 통해 광고가 어떻게 대중을 설득하는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 설득이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살펴보았다. 설득을 위해 텍스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휘, 문장, 수사법을 주목하여 구체적 사용 양상 및 사용 특징을 확인하고 그 표현 특징을 통해 공익 광고에서 사용된 설득의 기법을 확인하였다.

"TV 광고 언어의 통합적 해석"(채완)은 광고 언어의 특성에 맞는 '광고의 대화 격률'을 제시하였다. 언어 외적 요소 속에 함축을 숨기기도 하고 화용론적 전제라든지 일상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모순 어법 등을 통해 짧은 표현 속에 많은 의미를 담는 방법, 논리적인 비약이나 오류도 광고 언어에서는 폭넓게 허용되는 점, 상품에 대한 감성적인 이미지 형성이 소비 태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비이성적 요소도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되는 점 등이 광고의 격률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하였다.

〈공익 광고 언어의 화행 양상〉(한은주)은 공익 광고를 대상으로 삼아 주제에 따라 화행의 양상이 각각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전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표제는 주로 [진술], [주장] 화행이, 본문은 다양한 화행이 실현되고, 슬로건은 [주장]으로 나타났다. 문장의 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청유문, 명령문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1인칭 대명사 '우리'를 사용할 때는 [주장]이나 [진술], 2인칭 대명사 '당신'의 경우는 [요청]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추론 가능한 상황에서 특정 부분의 생략 현상이 일어나면 [요청]이나 [명령]의 화행이 실현된다고 하였다.

〈광고 언어의 기호학적 분석: 러시아어와 한국어 광고 텍스트의 대조〉(함승은)는 러시아와 한국의 광고 언어를 기호학적 관점으로 분석함으로써 언어 기호를 통해 나타나는 기표와 기의를 알아보았다. 러시아는 정보 전달 차원의 광고가 대부분이었고 한국은 이미지 중심의 설득 추구형 광고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로 인해 한국 광고 텍스트에서는 기호가 함축적이면서 은유적인 형태를 띠고 있어 이차적인 의미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았다. 또한 한국 광고의 슬로건은 브랜드명을 문장 말미에 배치하는데 러시아 광고 슬로건은 강조되는 단어가 앞 문장이나 문장의 앞쪽에 배치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5. 언어 의식과 문화

언어 의식과 문화에서는 언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말에 대한 의식과 관련된 부분과 언어와 문화와의 관련성을 다루는 부분으로 나누

어 살펴보았다. 언어와 문화 부분에서는 특히 한국어와 외국어 사용에 있어서의 비교 연구에 대한 부분을 따로 정리해 보았다. 한국어와 외국어의 비교에 관한 연구는 최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늘어나고 있으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5.1. 언어 의식과 태도

“신문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머리기사 제목을 중심으로”(김병훈)는 신문사가 자사의 이데올로기와 같은 특정한 이념을 강요하여 그 의도를 객관적인 사실처럼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면에서 신문들이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신문의 언어는 그 시대 언어문화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특히 한 나라의 언어문화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잣대가 됨을 역설하였다.

〈대중가요 가사의 정서 표현과 시대적 의미 연구〉(김주현)는 대중가요 가사에 나타난 정서 표현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대중가요의 시대상과 의미를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중가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서 표현이 다양해지고 가사를 통해 대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다. 대중가요는 시대 상황과 관련되어 정치나 사회적 이슈, 혹은 문화 유입에 따라 정서 표현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한국어 어휘의 의미와 그 사용 실태”(문영자)는 한국의 신문, 방송, 텔레비전, 광고 등 주로 일상에서 쓰이는 언어를 논의의 대상으로 그 어휘적 의미를 살펴보고 현재의 어휘 사용 실태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특히 언론 매체뿐만 아니라 정부 기관도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어의 순화 작업에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을 더 박식한 것으로 느끼는 사회 풍토를 비판하였다. 세계화의 길에 들어서는 현 시대에 한국 정부와 산하의 많은 관련 기구들 그리고 한국 국민 모두가 한국어를 사랑하고 지키고 홍보하는 선두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수신자 관점에서 본 한국 브랜드 슬로건의 언어학적 분석"(유경애)은 세 가지 한국 브랜드 슬로건인 'Dynamic Korea'와 'Korea, Sparkling', 'Korea, Be Inspired'가 발신자가 아닌 수신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언어학적 분석을 통해 이들 슬로건들의 의미적 중의성을 지적하고, 이 슬로건들이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적절하고 효과적인 언어 전략을 수행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더불어 수신자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 표현 방식과 언어 전략에 의해 국가 브랜드 슬로건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어 이중 발화 인식 양상 연구"(이찬규 · 황희선)는 학력과 연령에 따른 이중 발화어의 인식 양상을 분석했다. 중졸과 고졸 이상, 또 대학교 재학과 대학원 이상 사이에서는 이중 발화의 의미 인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10대나 60대 이상과 20대~50대가 인식하는 의미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학력이나 연령이 낮거나 높을수록 이중 발화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보다 명확히 드러난다고 하였다.

"언어 예절 인식 변화와 언어 갈등 해결 방식 탐색"(임칠성 · 이창덕)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언어 예절 인식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로 인한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특히 인사말을 중심으로 세대 간 언어 예절에 관한 인식의 변화 실태를 살펴보고, 인식 차이로 인한 갈등과 문제 요소를 짚어 보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조태린)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선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뤄 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지,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개선 노력은 어떤 방향과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개선 노력의 의의와 한계를 짚어 보고 발전 방향을 제안하였다. 차별적 언어를 아무리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긍정적으로 바꾼다고 해도 대상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태도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바꾼 표현에도 다시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덧입혀질 것이라는 지적도 하고 있다.

5.2. 언어와 문화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과 언어의 역사성”(김원회)은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를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여 그중에서 문화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종교적 측면, 자연환경적 측면, 인지 언어학의 신체어적 측면, 그리고 그 외 단어들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초문화성과 상호 문화성 관련 이론을 정리하고, 개별 문화 중심어를 바탕으로 하는 본격적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러시아어와 불가리아어 관련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을 기술하였다.

『한국인의 문화 간 의사소통』(김정은)은 다문화, 다민족, 다국적 시대에서 한국인의 문화와 의사소통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이 문화 간 의사소통 상황에서 다른 문화권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언어와 문화의 의사소통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한국인의 의사소통에 나타난 문화적 배경, 가치관, 사고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문화 간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는 이문화 소통 능력과 언어적・비언어적 표현, 가치관과 사고방식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한국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하나의 제언”(김희숙)은 동서양 문명을 대표하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각각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일본의 ‘스토리텔링’을 시대성과 대중성의 두 축의 모형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국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한국은 미국의 현재적이며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중국의 복고적이며 대중적인 ‘스토리텔링’, 프랑스의 현대적이며 소수적인 ‘스토리텔링’, 그리고 일본의 현대적이고 대중적이지만 ‘아시아적 스토리텔링’을 부분적으로 공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유교 문화와 한국어”(주명애)는 언어문화학적 관점에서 가족주의 문화, 예의 문화, 공동체 문화, 서열 문화 등 유교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의 유교 문화를 고찰하는 동시에 한국어에 반영된 유교 문화적 양상을 분석하였다. 복잡하고 엄격한 한국어의 경어 체계는

유교 문화적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되며, 한 언어 체계는 그 사회의 문화를 잘 반영하고 있는데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을 받아 왔고 그 특성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의 유교 문화적 특성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유교 문화에 대하여 맹목적으로 수용하거나 비판하는 자세보다 유교 문화의 훌륭한 덕목을 발견하고 계승하는 작업과 현대 사회 발전을 위해 유용한 방향으로 적용시키는 노력이 함께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거절 방법의 의미 전략적 차이: 화행론의 사회 문화적 고찰을 중심으로"(김언조)는 미국인, 일본인, 한국인들이 영어 대화에서 모국어의 의미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의미 전략을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의 빈도로 사용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목표의 능숙도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외에도 현저하게 의미 전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에 따라서 사용하는 의미 전략의 순서, 의미, 빈도수는 서로 차이가 있으며 문화적 차이에 따른 거절의 방법을 포함한 화행적 의미 전달의 방법은 모국어의 화용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국 조선족의 코드 변환 연구: 3·4세대의 구어 담화 중심으로〉(김영)에서는 조선어와 중국어를 병용하는 조선족 3·4세대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중 언어 사용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이중 언어 배경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구어 담화를 통하여 나타나는 코드 변환의 발화 상황을 각각의 유형과 상황에 따라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귀신 말 또는 한국어의 피그 라틴(Pig Latin)"(김주관)은 영어 사용권에서 피그 라틴이라고 알려진 말놀이와 유사한 말 행위가 한국어에서도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구조와 사용을 분석하고 교차 문화적으로 어떤 유사점과 상이함이 있는지 살폈다. 한국어 화자는 'ㅅ', 'ㅂ'을 가장 이국적인 소리로 인식하고 대체로 10세 이후에 국어의 음운과 음절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한다고 보았다. 교차 문화적으로 귀신 말은 화자의 연령과 성별에 있어

한정적이며 그 사용의 주기가 짧다는 특징이 있고 피그 라틴의 경우 성인 화자들에 의해 금기어를 대체할 때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지만 귀신 말의 경우는 그러한 용례가 없다고 하였다. 또한 둘의 공통적 특징은 비밀 언어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것과 여러 표현의 매체를 사용하여 표현될 수 있다는 것 등을 제시하였다.

〈한·중 간판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동동)는 언중의 의식을 지배하고 널리 통용되어 두루 쓰이며 언중의 언어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간판 언어에 대해 살펴보았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고 있고 한 곳에 오랫동안 붙여 놓음으로써 대중들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판' 중에 주로 간판 언어의 환유 표현을 살펴보았다. 간판 언어들을 생산한 곳, 생산자, 제조 재료, 제조 방법, 재료 특성으로 나누어서 각각 표현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런 표현에 반영된 한국과 중국의 사회 문화적 특성과 두 나라 사람들의 사회적 심리를 살폈다.

〈루마니아어의 공손 표현에 대한 한국어로의 분석 연구〉(데뉴와나)는 한국어와 루마니아어 사이의 언어적 특징을 비교하였다. 언어 전반에 걸친 비교를 바탕으로 루마니아어에 나타나는 공손 표현의 특징을 살펴보면 루마니아어는 한국어와 달리 2인칭, 3인칭 존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공손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어와 이집트어 호칭어 대조 분석 연구〉(라니아)는 한국어 호칭어와 이집트어 호칭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한국어와 이집트어 이름에 붙이는 호칭어, 직함 호칭어, 직업 호칭어, 통칭적 호칭어와 이들의 호칭어를 선택하는 결정적 요인들을 대조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유학이나 취업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에 온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국어와 이집트어의 대조를 통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호칭어의 특징을 알리고자 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어휘 높임법 비교 연구〉(류가)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나는 높임법을 비교 연구하였다. 두 언어가 가진 체계의 차이는 높임법의 실현 방법에도 영향을 미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대부분 어휘를 통한 어휘 높임

법이 실현되는 것이 한국어와 가장 큰 차이이다. 이 외에도 중국어에는 부사격 조사 '께'와 같은 높임법은 실현되지 않으며 대명사와 호칭어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높임법의 차이는 없고 중국어 높임법은 명사, 대명사, 동사, 양사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하였다.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사용의 연구〉(박수현)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이중 언어 사용자인 화교의 언어 사용에 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국 화교들은 상황·장소·상대방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화교어를 사용하며 특히 친밀하거나 친하고 싶은 같은 화교에게만 화교어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화교어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코드 전환이 된 형태의 언어이며 이러한 코드 전환은 관련 언어들의 문법적 틀(frame)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중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사용 능력을 보여 주는 언어 현상으로 보았다.

"휴대 전화에 있어서의 행위 선택의 한일 대조 연구: 대우법의 새로운 형태"(아라이 야스히로)는 휴대 전화 사용에 있어서 사람들의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의 행위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그 규칙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대학 학부생 160명, 일본의 대학 학부생 109명을 대상으로 특정한 상황에 있어서 음성 통화와 문자 메시지 중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를 양적·질적 조사 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휴대 전화 이용자는 무작위로 음성 통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행위 선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연락 미디어의 선택에 대우법이 반영됨을 통해 언어 매체 선택이라는 대우법의 새로운 형태의 등장을 제시하였다.

"영어와 국어 2인칭 대명사의 화용적·사회 언어학적 용법"(오명기)은 영어와 국어 2인칭 대명사의 발달과 분포를 좀 더 정밀하게 제시하고 그 화용적·사회 언어학적 요인을 비교한 후 두 언어 사이의 차이를 사회적·문화적 요인에서 찾으려 하였다. 연구 결과 2인칭 대명사는 화·청자 간의 직접적 대화에 사용되므로 그 사용에 있어서 다른 대명사보다 화용적·사회적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하는데 그중 가장 두드러진 요인은 Brown & Gilman(1990)에서 지적된 '힘'과 '유대감'이며, 사회적 위계가 더 복잡한 국어에는 그 변이형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영어의 경우 2인칭 대명사의 사용에 있

어서 '힘'의 요인이 줄어들고 '유대감'의 영향을 받지만 국어의 경우에는 여전히 '힘', 즉 '사회적 위계'가 2인칭 대명사 혹은 2인칭 호칭을 선택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았다.

〈중국 청도 거주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오성애)는 중국 청도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언어 태도와 사용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이다. 청도 조선족들의 조선어와 중국어의 구사력과 보존 정도, 각 언어의 영역별 활용 능력, 출신 지역별 언어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언어 태도 면에서는 청도 조선족들은 대부분 조선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세대별로는 학생 세대는 중국어 선호도가 높고 부모 세대로 갈수록 조선어 선호도가 높다고 하였다.

〈한·중 화장품 TV 광고 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왕봉정)는 한·중 두 나라에서 2006년~2010년까지 나온 텔레비전의 화장품 광고 언어에 나타난 수사학적 표현을 분석하였다. 한·중 화장품 TV 광고 언어에서 사용된 수사법의 분포를 살펴보면 한국 화장품의 광고 언어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사용된 수사법은 생략법이고 중국 광고에서는 대조법이다. 이와 같이 서로 다른 수사법의 차이는 양국의 민족 습관, 문화적 차이 등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중 친족 호칭 '형수'와 '제수'에 대한 통시적 비교"(유현아)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친족 호칭 중에서 방계 인척에 해당하는 '형의 아내'와 '동생의 아내'를 나타내는 친족 호칭어를 통시적으로 비교 고찰하였다. 중국어의 친족 호칭에는 형의 배우자에게는 특별히 '수'라는 호칭을 만들어 줌으로써 아우의 부인들과 차별되는 위치를 나타내고, 아우의 아내를 나타내는 호칭은 복종의 뜻을 지니고 있는 '부'를 사용하여 종법 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제수'의 호칭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에서는 1음절 '수'만으로도 형의 아내라는 뜻인데도 불구하고 '형'자를 덧붙인 것은 사람들이 '수'의 본래 의미를 혼동하여, 아우의 아내에게도 '수'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제수'라는 잘못된 호칭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응하여 '형수'라는 2음절 호칭이 생겨나게 된 것으로 보았다.

"한·미 이중 발화 인식 양상 비교 연구"(이찬규·이유미)는 한·미 이중 발화의 인식 양상을 설문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식적 차이가 문화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보여 주는 연구이며 이중 발화의 속성에 대한 설문을 통해 한국인과 미국인에게 있어서 이중 발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한국인이 이중 발화를 해석할 때는 미국인보다 주변인에게 영향을 많이 받으며 주변인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다고 하였다.

〈한·중 인터넷 신어의 형태, 의미와 교육 방안 연구〉(장기)는 한·중 인터넷 신어의 단일어 형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학습 목표, 대상, 방법, 학습 활동, 마무리의 순서로 신어를 활용한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언어 교육에서 신어에 대해 좀 더 심도 깊고 다양하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생산성과 조어력이 큰 교육용 신어를 선정하여 외국인 학습자에게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강조하였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거절 화행 전략 비교 연구〉(Wu Xiao)는 담화 완성형 텍스트를 이용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거절 화행 전략을 비교하였다. 전체적으로 한국어 화자는 1,097개의 거절 전략을 사용하여 1,014개의 거절 전략을 사용한 중국어 화자보다 더 많은 거절 전략을 사용하고 부담의 정도, 친밀도, 공적·사적 장면의 차이, 성별 등에 따라서 한국어 화자와 중국어 화자의 거절 전략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특히 친밀도가 낮은 경우 한국어 모국어 화자는 비언어적 방법을 거절 전략으로 사용하는 데 비해서 중국어 모국어 화자에게는 비언어적 방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6. 사회적 상호 작용과 언어 사용

사회적 상호 작용은 서로 같은 집단에 속해 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방법이며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해 나타나는 의사소통의 방식은 언어적, 비언어적 방법 모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상호 작용에 관한 연구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6.1. 언어적 의사소통

“대학생의 보고서에 대한 동료 반응과 그 수용 양상”(서수현)은 대학생 필자들이 동료의 보고서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또한 자신의 보고서에 대해 동료들이 보이는 반응을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실제 대학생 필자들이 글쓰기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글을 좋은 글로 생각하고 있는지, 동료의 어떤 반응을 특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동료의 반응을 대체로 수용하였으나 때로는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영화 제목의 효과적 의사소통”(오미형)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의 한국 영화 영어 제목과 같은 기간 미국 시장 내 극장 수입 1억 달러 이상을 기록한 외국 영화의 제목을 길이, 통사 구조, 자주 사용되는 어휘 차원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제목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 영화의 영어 제목과 외국 영화 제목 사이에 길이 등 양적인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단어 형태의 제목에서 고유 명사를 제목화한 경우 외국 관객의 이해를 방해하는 음차 번역을 통한 한국 영화 영어 제목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실제 사용되는 어휘나 구문에 있어서는 한국 영화의 영어 제목이 수용 문화의 언어 규범과 상이함을 보이고 있어 영화 제목 번역 시 수용 언어 규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설득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적 분석”(이유미)은 설득적 의사소통의 성공과 실패의 양상을 프레임 이론과 인지적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인지적 균형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정보를 취했을 때 인지적 부조화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이를 조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프레임의 이동에

관여하는 이성과 감정의 역할에 대하여 다루었다.

"정치인 팬 커뮤니티 분석"(조국현)은 정치인 팬 커뮤니티의 본질적인 속성이 회원들의 자발성과 자율성에 기반을 둔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에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에 따라 한국의 정치인 팬 커뮤니티에는 어떤 유형의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제공되어 있으며 그곳에서 해당 팬 커뮤니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어떠한 텍스트들이 생산되고 수용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정치인 팬 커뮤니티의 커뮤니케이션 양상과 특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활성화된 정치인 팬 커뮤니티의 정치 담화는 일반적으로 정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며, 평상시에는 리더 숭배와 연관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 중심을 이루다가 정치적 이슈에 따라 투쟁적 성격이 짙은 담화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Cross-Cultural Variations of Apology Realization in Korean"(안정근)은 175명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8개의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사과 행위에 관여하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Bergman and Kasper(1993)와 Vollmer and Olshtain(1989)의 결과와 비교하여 한국인이 사과 표현을 수행하는 특징을 교차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 사과 표현은 전략적 요소가 활용되는 사회 문화적 행동임을 밝히고 있다.

6.2. 비언어적 의사소통: 수화, 손짓 언어

"한·일 신체 언어 비교 연구: 손짓 언어를 중심으로"(김수정)는 한국과 일본의 신체 언어가 상당한 부분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20%의 차이점에 주목하여 한·일 양국의 손짓 언어에 대해 TV CM과 광고 Print, 양국의 TV 교육 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 기존 자료들의 성과를 중심으로 의례·평가 동작, 요구·청유 동작, 감정 표현 동작, 정보 제공 동작, 지시 동작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조사하였다. 이러한 손짓 언어의 차이점들은 일본어 화자의 언어·문화적 숙달도를 한층 더 고양시키는 방안으로, 한국어 텍스트 안에서 발화 상황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요소로서 첨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국 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남기현 · 원성옥 · 허일)은 수화 내러티브에서 구성된 행위와 관련하여 비수지 신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먼저 비수지 신호의 문법적 역할 소개와 수화 문헌에서 역할 연기, 역할 전환 등으로 언급되어 온 구성된 행위의 의미와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음성 언어의 구성된 대화의 개념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한국 수화 내레이션에서 구성된 행위는 주로 얼굴과 시선 응시의 방향, 상체의 미세한 방향 변화, 그리고 인용하는 그 누군가의 감정 상태, 얼굴 표정으로 표현되며 특별히 수화자의 시선 응시는 전체 내레이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글말과 입말 수행에 대한 사례 연구”(서종훈)는 말하기에서 발화 단위의 주요한 구분 요소로 작용하는 ‘쉼(pause)’을 쓰기의 ‘문장’과 관련시키고, 입말과 글말 수행의 관점에서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말하기와 쓰기 영역을 연계하여 교육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증권 상담의 비언어적 표현 전략”(손승민)은 증권 회사 상담 직원이 투자 고객을 응대하는 것에 언어적 전략과 더불어 비언어적 전략을 사용한다는 데에 주목하여 상담 직원이 어떠한 전략으로 상담에 임하는가를 분석하였다. 비언어적 전략의 유형은 신체 언어, 자세 언어, 눈동자 언어, 접촉 언어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증권 회사 상담 직원은 언어적 표현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더 구체적인 교감을 나누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텔레마케터와 쇼 호스트의 목소리 분석 연구”(이시훈 · 박란희)는 텔레마케터와 쇼 호스트의 목소리를 음향 음성학적으로 분석해 보고, 더 호감가는 목소리를 찾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결과, 텔레마케터와 쇼 호스트의 목소리는 음높이와 공명 주파수 대역폭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고, 스펙트로그램이나 발화 에너지도 매우 좋은 목소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텔레마케터와 쇼 호스트의 이상적인 목소리로 현재 목소리보다 음높이를 약간 낮추고(200Hz),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하는 것(분당 320음절 내외)이 호감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한국 수화와 중국 수화 비교 연구: 기호 구성 방법 중심으로〉(이현호)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청각 장애 학습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국과 중국의 수화를 비교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모두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만큼 문화의 보편성이 수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 중국 수화에 관한 인적, 물적 자료나 선행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을 지적하여 향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휘 인출과 구어 동반 제스처의 관계"(하지완 · 심현섭)는 구어 동반 제스처가 어휘 인출 과정의 개념화와 어휘화 가운데 어떠한 단계와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 단어 설명 시에는 추상적 단어 설명 시보다 운동 제스처가 더 많이 나타나며 구체적 단어의 경우 개념의 난이도와 제스처 양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구어 동반 제스처가 어휘 인출 과정의 개념화부를 반영한다고 하였다.

7. 기타

위의 분류와는 별도로 인명, 지명, 상호명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연구 주제는 과거에는 사회 언어학의 전형적인 연구 분야에 속했으나, 최근 들어서는 매체 언어나 사회 문화적 차이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관심이 줄어들고 있는 분야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땅 이름 '지리산' 고찰"(곽재용)은 지리산에 대한 어원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리산은 순우리말 '지루하다'의 방언인 '지리하다'에서 온 말이며, 지리산의 다른 이름인 '두류산'의 '두류'는 우리말 '달/들/두리' 등에서 유래하였는데 그 어원은 고구려 지명어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고유어 인명의 명명 특징"(김정태)은 고유어 인명의 명명 특징, 이를테면 단어로서의 이름이 명명자에 의해 명명되는 과정과 결과에서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고유어 인명의 음운

적인 특징은 '조음'의 수월성을 제고한 것이며 형태상의 특징은 줄임법을 사용하거나 굴절 형태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또한 고유어 인명의 명명에서 어휘의 선택은 적극적인 일상화의 선택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고 하였다.

"용촌리(龍村里)의 지명"(정민영)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촌리의 소지명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정리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명에 관한 기존 기록을 토대로 소지명을 정리하면서, 잘못 기술된 지명에는 바른 해석을 가하고 기록되지 않은 채 구전되고 있는 소지명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수집하고 해석하여 기록하였다. 이 지역의 소지명 중에서는 들 이름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이는 이 마을이 전라도 논 농사 위주의 농촌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인천 지역 상호명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 음식점을 중심으로〉(한경섭)는 2000년과 2010년의 음식점 상호명의 고찰을 통해 10년간의 차이를 두고 음식점 상호명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하였다. 음식점 상호명의 작명에 담겨 있는 사회적 의미를 분석하고 한국인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인천시 음식점의 국어 사용 실태를 분석하였다. 2000년도의 상호명은 사회가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면서 외국 자본을 유입하고 서양 문물에 대한 동경과 우월 의식을 갖게 됨에 따라 서양식 음식점과 외래어를 사용한 음식점이 증가했으나 2010년도의 상호명은 옛것임을 강조하거나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음식점 상호명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경 번역본의 문체에 관한 연구가 있다.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주어와 서술어의 문법 표지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전무용)는 20세기 초부터 21세기까지 이루어진 한국어 성경 번역본에서 발견되는 주어에 결합하는 조사 '-이/가, -는/은, -께서'와 서술어에 결합하는 종결형 어미 '-라/다'가 보여 주는 문체상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조사 '-이/가'는 중립적으로 지시 지정의 의미를 나타내며 '-는/은'은 한정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라'는 주관적 제시 차원의 진술이고 '-다' 종결형은 사실의 객관화로 경험된 사실을 객관화할 때 사용됨을 확인하였다.

8. 맺음말

지금까지 2011년에 나온 사회 언어학 분야의 연구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지난 한 해 이루어진 연구 성과물은 사회 언어학 분야에서만 130여 편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 언어학의 연구 영역이 확대되고, 연구 방법론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글을 준비하면서 될 수 있는 한 연구 결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기술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술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연구자의 의도를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온전히 필자의 책임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동향을 간단히 정리해 보고자 한다. 2011년도에는 공공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신문 방송 언어가 갖추어야 할 공공성 요건에 대한 논의가 상당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사회의 변화 과정에 따라 나타나는 음운적, 형태적 변이 현상에 대한 주제가 꾸준히 다루어졌으며, 특히 어두 경음화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 매체의 발달로 인해 매체 언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의 발달은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사회 언어학 분야의 연구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트위터 언어가 새로운 연구 주제로 발돋움하고 있다. 또한 언어와 사회 문화와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어 타 언어와의 대조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분야의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자들이 유학생이어서 세계화와 더불어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 가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적 상호 작용에 활용되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의 활용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행동 양식과 가치를 확인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주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진 2011년도 연구 결과는 사회 언어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방언학

이 혁 화
(영남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에 간행된 방언학 관련 논저들의 연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고 방언학 분야의 연구 동향과 경향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인공어인 표준어를 제외한다면 한국어를 이루는 하위 체계로서 실재하는 모든 하위 변종을 방언이라 부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방언학의 범주는 상당히 넓어지지만,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분화되는 변종을 다루는 '사회 방언학' 분야를 따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주로 지리적인 분화 양상에 주목하는 전통 방언학 분야의 연구 논저를 위주로 연구 경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방언학 분야의 연구 논저 수집은 일차적으로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한 2011년 방언학 분야 연구 논저 목록을 바탕으로 하였다. 해당 논저 중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논저는 원문을 확인하여 연구 성과를 정리하였고, 온라인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논저들은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으로 구입하여 연구 성과를 확인하였다. 제공된 논저 목록에서 빠진 업적들을 보충하여 필자가 수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11년 방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필자의 능력 부족으로 미처 수집하지 못한 논저들이 있을 것이며 필자의 식견이 짧아 해당 논저에서 축적한 연구 성과들이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였을 수도 있다. 이 글에 나타난 오류와 몰이해는 모두 필자의 능력 부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해당 연구자들과 독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한다.

필자가 수집하고 파악한 범위 내에서 2011년의 방언학 분야 연구 동

향을 몇 가지로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방언 중에서 특히 제주 방언의 보존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유네스코가 분류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에 제주 방언이 등록되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 방언에 대한 생태 언어학적 접근과 언어 정책적 접근, 보존과 활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둘째, 각 지역 방언과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지역어와 지역 문학"(강영봉), "일제 강점기의 방언 의식과 작품 속의 북부 방언"(곽충구), "강원 방언과 강원 문학"(김봉국), "부산 방언의 문화 콘텐츠론"(이근열 · 김인택) 등이 그것이다. 방언 자체의 특성을 규명하는 내적 탐구의 범위를 넘어서, 문학이나 문화와 같은 언어 외적 범주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었다.

셋째,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는 지역어 조사 사업과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11년의 지역어 조사 사업에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8개 보고서와, 중국 길림성의 '도문시 양수진(충북 출신),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 영길현(경북 의성 지역어)'을 대상으로 한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3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에서는 해초류,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 자염, 돌살 · 김 양식,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등의 5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넷째, 방언학 전문지 '방언학'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2011년에 방언학은 제13호, 제14호가 간행되었는데, 방언학 전문 학술지의 성격에 맞게 연구 논문 14편과 서평 논문 4편을 수록하였다. 방언 음운론을 다루는 논문에서 방언 분화를 다루는 논문에 이르기까지 방언학의 전 분야에 걸쳐 연구 논문을 고르게 수록하여 방언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방언학 관련 저술에 대한 서평 논문을 통해 해당 분야의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역할도 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1년에 간행된 방언학 관련 논저를 편의상 일반 논문, 학위 논문, 조사 보고서 및 단행본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각각은 필요에 따라 음성학 · 음운론, 문법론, 어휘 · 의미 · 화용론, 문화, 종합 등으로 세부 영역을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2. 일반 논문

2.1. 음성학 · 음운론

“교동 지역어의 자음 체계”(이지애)는 강화도 교동 지역의 어간 말 자음과 음절 말 자음을 고찰하였다. 강화도의 교동 지역은 황해도 방언과 경기도 방언의 특징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용언 어간 말 자음으로 ‘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있-’(有)이 ‘잇-’으로 실현되면서 ‘-았/었-, -겠-’ 역시 말음 ‘ㅆ’이 아닌 ‘ㅅ’임을 확인하고, 이를 황해도 연백 지역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어간 말 자음이 음절 말 자음으로 실현될 때에는 평파열음화, 자음 동화, 어간 말 자음군 단순화를 거쳐 ‘ㅂ, ㄷ, ㄱ, ㅁ, ㄴ, ㄹ, ㅇ’으로 실현된다고 분석하였다.

“국어 방언에 반영된 어두 경음화”(오종갑)에서는 『한국 방언 자료집』을 바탕으로 중세 혹은 근대 국어에서 어두 복자음, 어두 단자음(평음)을 가졌던 126개의 어사를 추출하여 이들의 경음화 여부와 거기에 적용된 규칙을 검토하였다. ‘ㅂ’ 계열의 어두 복자음에서 ‘ㅂ’이 탈락하는 현상의 개신지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으로 추정하였고, 폐쇄음의 경음화는 경북의 동남부 지역과 경남의 동북부 지역이 개신의 진원지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찰음의 경음화는 경남의 서남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어두 경음화의 빈도를 군 단위로 통계 처리하면서, 파열음의 어두 경음화와 마찰음의 어두 경음화를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ㅂ’ 탈락(ㅄ〉ㅅ) 빈도, 폐쇄음의 경음화 빈도, ‘ㅅ’의 경음화 빈도를 지도 형식으로 제시하였다는 점도 주목된다.

“경남북 접경 지역 방언의 성조 연구”(이문규)에서는 경남북 접경 11개 시군의 방언을 대상으로 성조소와 성조형을 비교함으로써, 경상 방언의 성조 변화가 남북과 동서 방향으로 일정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일정한 방향을 지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거창, 울산, 합천과 같이 경북과 접한 경남권 지역은, 경북과 같은 상승조를 실현하고 있어 성조를 지표로 방언 구획을 할 때 경북 방언권에 소속되

어야 하며, 밀양 방언과 창녕 방언은 인접 방언들과 비교할 때 전이적인 성조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성조형 변동의 현상, 즉 '말(語)'류 및 '말(斗)'류가 '말(馬)'류로 바뀌어 가고 '말(馬)'류 중에서도 특정 성조형이 선호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는데, 이러한 변동 현상은 경상 방언의 서남부 쪽에서 시작하여 북쪽과 동쪽 방향으로 확산된다고 지적하였다.

"차용어의 성조 패턴 L┐HL에 대하여"(임석규)에서는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성조 방언 화자들이 어떤 성조 패턴으로 발음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라이온, 시나리오, 스트라이크' 등과 같은 차용어를 받아들일 때 성조 방언 화자들은 LHL, LLHL, LLLHL 등과 같은 성조 패턴, 즉 L┐HL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즉 끝에서 둘째 위치에 고조가 놓이는 패턴이 지배적이고 강력한 성조 패턴이라고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 성조 패턴은 압도적으로 그 수효가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하나의 율동 제약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를 통해 성조 소실 문제와 관련된 의미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는 사실도 주목하였다.

"『칠대만법(七大萬法)』에 실현된 16세기 후기 동남 방언의 표기 및 음운적 특징"(이옥희)에서는 해당 시기 동남 방언의 음운론적인 특징을 공시적인 비교와 통시적인 변화를 통해 확인하였다. 해당 시기의 중앙어를 반영한 문헌들과 비교를 통해, 동남 방언에서는 'ㅸ'이 'ㅜ'로 변화한 형태와 함께 'ㅂ'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븟, 隣)가 있으며, 'ㅿ'의 반사형으로 'ㅅ'이 나타나는 특징을 지적하였다. 또한 이 문헌에는 근대 국어의 요소가 나타남을 지적하였는데, 이는 분철 경향, 'ㅇ'의 동요, 어말에서 'ㄷ'과 'ㅅ'의 혼기, 'ㄱ' 탈락의 혼란, 유기음화의 부분적 실현 등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전주 방언의 'ㄹ' 말음 어간과 '으'의 수의적 실현"(백은아)에서는 전주 방언을 대상으로 '판~팔은(팔+(으)ㄴ), 밀면서~밀으면서(밀+(으)면서), 사시요~살으시요(살+(으)시+요)' 등과 같은 예에서 찾아볼 수 있는 수의적인 '으'의 실현 원인을 고찰하였다. 19세기 후기의 완판본 고소설에서는 '으'계 어미들 중에서 '으' 뒤에 'ㄴ, ㅅ'

으로 시작하는 어미들과 결합한 활용형에서 이와 같은 수의적인 ‘으’의 실현이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움직임은 자동적 교체를 지향하여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이루려는 화자의 의도로 해석하였다. 그런데 이는 활용 패러다임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새로운 활용 방식이 모든 ‘으’계 어미로 확대되어 개신형의 활용형을 만들어 내어 자동적 교체와 패러다임의 규칙화를 지향하였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현대 공시적인 관점에서는 수의적인 실현을 보이는 현상에 대해, 역사적인 진행 과정을 고려함으로써 패러다임의 단일화라는 기제를 확인하였다.

“방언에 나타나는 모음 간 ‘ㅇ/ŋ/’ 삽입의 원인”(김수현)에서는 방언에 나타나는 ‘ㅇ/ŋ/’ 삽입의 유형을 정리하고, 그러한 삽입이 일어난 원인을 고찰하였다. 해당 음의 삽입은 주로 2음절 어휘 형태소에서 일어났는데, 그 환경은 ‘ㅿ, ㅸ’ 탈락 후 동일 모음 탈락 환경, 하향 이중 모음의 단모음화 환경, ‘w’ 활음화 환경, 모음 연쇄 시 후행 모음이 탈락하는 환경, 음성적인 하향 이중 모음이 형성되는 환경 등 5가지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ㅇ/ŋ/’ 삽입의 원인은 형태소 구조 보존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즉 ‘ㅇ/ŋ/’은 다른 자음에 비해 음절 경계를 자동으로 부여하여 어휘 형태소의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할 수 있다고 파악하였다. 기존의 모음 충돌 회피라는 원인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에 대하여 화자와 청자의 관계를 설정하여 발화 산출 과정과 발화 이해 과정으로 나누어 이해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제주 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 국어 성조와의 관계”(강석한)에서는 해당 지역 40대 여성 5명의 39개 단음절 명사의 액센트 유형을 중세 국어의 성조형과 조음 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주 방언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은 ‘저성조, 고성조, 상승조’로 나뉘며 음성학적인 차원에서 성조어의 잔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조어의 잔재는 음절의 길이와 최대 F0에 이르는 구간 길이에 집중되는데, 제주 방언 단음절 명사의 액센트는 피치 곡선의 처음과 끝이 동일한 ‘LL’ 혹은 ‘HH’형이거나 끝이 상승하는 ‘LH’형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다.

"Acoustic Cues for the Korean Stop Consonants Produced by Jeju Speakers"(한경임)에서는 해당 지역 30대 남성 5명, 여성 5명으로부터 '-im' 앞에 'ㅂ, ㄷ, ㄱ, ㅃ, ㄸ, ㄲ, ㅍ, ㅌ, ㅋ' 자음이 들어간 단어의 발화를 수집하여 성별, 조음 위치, 후두 방식에 따라 VOT와 모음초 기본 주파수(vowel-onset Fundamental Frequency)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여성의 VOT는 남성보다 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음 위치와 관련하여 VOT의 길이는 연구개음>치조음>순음의 순서였으며, 후두 방식과 관련하여 VOT는 평음과 경음이 유기음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F0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았으며, 조음 위치와 관련해서는 음성학적인 특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모음초 F0은 유기음인 경우에 가장 높았으며, 평음인 경우에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Merger of Vowels in Cheju Korean"(존 스톤햄)에서는 제주 방언에서 '에'와 '애'의 합류 문제를 다루었다. 제주 방언 화자의 발화를 분석한 결과 두 모음의 합류가 일어난 것은 분명하지만, 제주시의 남성만이 완벽한 합류를 보여 주며, 제주시의 노년층 여성들과 60세 이상의 도시 화자들은 '에'와 '애'의 구별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또한 '혀(舌)'와 같은 특정 어휘 항목의 경우, '에:애'의 구별이 있는 화자라 하더라도 '애' 쪽으로 실현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에 있는 언어의 화자를 연구할 경우 자료의 혼합과 같은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밝혔다.

2.2. 문법론

"경주 지역어의 대상성 '-로' 구문에 관한 연구"(황국정)는 해당 방언에서 "불로 끄면, 차로 몬다, 술로 묵으면" 등과 같은 구문에서 나타나는 '-로'의 대상성이 통사적 기능으로서 구조적으로 보장받는 대상성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자유 발화를 수집하여 대상성 '-로' 구문의 유형을 8가지로 구분하여 각 구문의 특징을 살펴본 뒤, '-로'와 '-을'이 모두 대격 조사로 간주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현 환경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행 체언의 말음 조건에 따라 '-을'

과 '-로'가 이형태 규칙을 따르다가 그 조건이 변화한 것이 현재 경주 방언의 상태라고 파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향가의 '-로(留)' 구문, 이두의 '-로(以)' 구문, 구결의 '-로(ᄆᆞᆯ/ᄆᆞᄉᆞ)' 구문을 검토하여 대상성의 의미를 가지는 '-로'의 용례를 검토하였다.

"동남 방언 확인 의문문에 대하여"(성진영)는 동남 방언의 "간다 아이가?", "이름이 아있나?" 등과 같은 확인 의문문의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동남 방언의 확인 의문문은 종결 어미 '-다'에 '아이가'라는 부정의 형태가 부가된 형식과 청자의 반응을 원하여 상승조의 억양으로 실현되는 반의의 형식으로 나타남을 지적하였다. 부가 의문의 형식은 종결 어미 '-다' 뒤에 이어지는 '아이가', '그쟈'의 형식만을 인정하였다. 특히 '아이가'와 같은 부정적 표현이 동남 방언에 흔하게 나타남을 지적하면서 이를 문화적인 배경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도 하였다. 표준어 담화 표지 '있잖아'와 유사한 담화 책략으로, 동남 방언에서 '아있나'와 '있다 아이가'와 같은 두 형식을 사용한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방언의 상대 대우법 연구: 경남 방언을 중심으로"(정희선)는 경남 방언을 대상으로 아주 높임과 예사 높임의 '-ㅂ니더, -ㅂ디더, -ㅂ니꺼, -ㅂ디꺼, -소'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하였다. 역사적으로 '-이-'에 의해 실현되던 상대 대우법이 점차 '-습-'으로 바뀌게 되면서, 경남 방언에서는 각각 '-ㅂ니더, -ㅂ디더, -ㅂ니꺼, -ㅂ디꺼'와 '-소'에 대응된다고 파악하였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종결 어미의 탈락 여부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고, 후자의 경우 종결 어미가 탈락되면서 대우의 등급이 한 단계 더 낮아지게 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함북 육진 방언의 평서형 종결 어미"(남명옥)에서는 해당 방언의 평서형 종결 어미의 목록과 용법을 살펴보고 통사·의미적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존대의 종결 어미는 '-읍구마/습구마'가 쓰이는데 각각 모음 뒤와 자음 뒤에서 쓰이며, '-더-'가 결합된 '-읍더구마, -습더구마'가 나타나며 더 공손한 표현이면서 친숙한 사이에서는 '-꽈이(~까이)'가 쓰임을 지적하였다.(예: 날래 식사 하ː꽈이.(빨리 식사를 하시지요.)) 평대의 종결 어미로는 '-오/소, -읍데/습데, -요, -재이쿠' 등이 쓰이는데, '-재이쿠'는 '-지 않고'의 방언형으로서 종결

형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대의 종결 어미에는 '-는다/ㄴ다/다, -더라' 등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중국 연변 지역어 주격 조사의 식별에 관한 연구"(최화)에서는 중국 연변 지역어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구두어를 자료로 하여, 주격 조사로는 '-이'만 존재하며 주격 조사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이가'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연변 지역어에는 마지막 음절이 개음절로 끝나는 명사구가 주어의 위치에 놓일 때 격 조사가 실현되지 않으며(쌔씨개∅ 온다!, 무슨 소리∅ 나두 등), '-이가'가 실현된 예들(빨간 꽃이가 곱다(=빨간 꽃이 곱다), 옷값이가 공자아 절바이다(=옷값이 월급의 절반을 차지한다))과 달리 기저형에 접미사 '-이'가 없는 명사에는 '-이가'의 형태가 실현되지 않는다는 점(교까서 언제 오니?(=교과서가 언제 도착해?) 등)에서 명사구 '빨간 꽃이'와 '옷값이'에 결합되는 '-가'는 [+초점, +강조]의 기능을 한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랑, -(이)라메, -(이)란게, -(이)사' 등은 특수한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특수 조사로 처리되어야 하며, [+존대]를 나타내는 주격 조사 '-께서'는 연변 지역어에 존재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제주 구비 문학에 나타난 제주 방언의 문법 연구"(문순덕)에서는 제주 방언의 구비 문학 자료를 시기별로 정리한 뒤, 『한국 구비 문학 대계 9-1』을 중심으로 하여 제주 방언 문법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조사로는 '-의, -이, -의게, -(디)레, -영, -안티' 등의 쓰임을, 어미로는 '-주, -가지고, -랜, -매' 등의 쓰임을 살펴보았다. 보조 동사로는 '불다, 두다'의 쓰임을 분석하고, '지다'가 쓰인 피동 표현과 의존 명사 '디'의 쓰임을 분석하였다. 이밖에도 '윤칩, 여호, 궁기, 사름, 일름, 바찌다, 봉그다' 등을 중심으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제시하였다.

2.3. 어휘 · 의미 · 화용론

"마한(馬韓)의 지명 '牟水國'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이상신)은 '牟水'에 대한 두 의문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은 곧 '牟水國'의 위치를

오늘날의 수원으로 보는 것에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牟水'를 '벌물'로 읽어 水原과 연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파악하였는데, 기존 논의들은 '牟水'와 '買忽, 水城郡, 水州, 水原'의 공통 요소인 '水'에 경도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도 그러할 가능성이 적다고 파악하였는데, '牟'를 석독하여 '보리' 정도로 읽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하고 어두 음절이든 비어두 음절이든 간에 '牟'는 음독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벌물'과 '물벌'의 의미는 다른 것으로 파악하였다.

"전남 방언 담화 표지 고찰: 종결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강희숙)는 전남 방언의 종결 담화 표지인 '와, 웨, 잉, 야'의 통사적 특징과 담화상의 기능을 관찰하고 분석하였다. 이들은 문장의 종결 표지 뒤에 연결되어 일정한 담화적 기능을 갖는데, 통사적 특징과 구체적 담화 기능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좁은 디서는 더는 못 살겄다와, 나는 풀이나 뽑고 있을끄나와?" 등에서 사용되는 '와'는 '해라체'에 사용되고 서법상의 제약이 없으며, 진술 내용을 강조하고 확인하거나 간곡한 요청 및 청자에 대한 염려를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워찌 살아야 쓸랑가 몰르겄소웨, 사람 칵 미치게 맹그네웨" 등에서 쓰이는 '웨'는 '허씨요'체 혹은 '허소'체와 결합하고 주로 설명법과 명령법에 쓰이는데, 상황에 대한 화자의 유감 및 부정적 태도를 표명하는 기능을 한다. "한 끼 혀 먹어 봐야겠다잉, 니가 목심이 열 개넌 된갑다잉!, 와따메, 워째 그리 놀래뿌요잉?" 등에서 보이는 '잉(~인~이)'은 높임법 및 서법상의 제약이 없으며, 청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친밀감을 표현하는 기능을 한다. "괴기가 영판 쫄깃쫄깃하고 부드럽소야, 니는 참말로 좋겄다야" 등에서 쓰이는 '야'는 두루높임의 등급에서 제약되며 설명법이나 명령법에서 주로 쓰이고, 진술 내용을 강조하거나 확인하며 간곡하게 요청하거나 하소연하는 기능을 한다.

"전남 완도 약산면의 친족어 연구"(정성경)는 육지와 사용 양상이 다른 해당 지역의 친족어 '조부니, 자인과 장모, 성애와 동숭애, 아재(아잡씨)와 아짐(씨)' 등을 보고하고 주요 기능을 밝힌 논문이

다. ‘조부니’는 ‘조부님’과 달리 호칭, 지칭으로 모두 사용되며 고유어계 접두사 ‘큰-’이나 ‘늙은-’과도 결합이 가능한데, ‘함마니, 어무니’에서 유추되어 변화된 ‘조부니’가 친밀감을 획득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인, 장모’는 접두사 ‘큰-’이나 ‘작은-’과 결합되며, 호칭과 지칭이 동일하게 쓰임을 지적하였다. ‘성애, 동숭애’는 ‘형, 동생’을 친밀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데, ‘-애’를 친밀감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는 정의적 접미사로 파악하였다. ‘아재(아잡씨), 아짐(씨)’에 대해서는 화자, 관계, 성별, 대상 등의 변수에 따른 복잡한 사용 양상을 정리하였으며, ‘시숙, 성님, 동숭, 성수/헹수, 오춘과 숙모’ 등의 가까운 친족원을 나타내는 친족어에서도 육지와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어휘들은 각각의 형태와 의미와 기능이 다르지만, 모두 ‘친밀감’을 기반으로 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전라 방언 ‘꾀벗다’의 방언사적 연구”(이태영)는 판소리, 완판본 한글 고전 소설, 구비 문학, 현대 소설 등에서 나타난 전라 방언의 ‘꾀벗다’를 추적하여, ‘꾀를 벗다, 활씬 벗다, 꾀복쟁이’ 등의 어원과 변천 과정을 검토하였다. ‘꾀’의 어원은 ‘아랫도리 옷’을 의미하는 ‘고의’와 관계된 것으로, ‘*ᄀᆞᄫᅵ〉ᄀᆞ외〉고외〉고의〉고이〉괴〉꾀’의 변화 과정을 상정하였다. ‘활씬 벗다’라는 표현은 ‘꾀를 활씬 벗다’ 등에서 나타나며, 표준어 ‘발가벗다’에 대응되는 전라 방언은 ‘활씬 벗다’로 이해하였다. ‘꾀복쟁이’는 ‘꾀복쟁이 친구, 꽤복쟁이’ 등으로 나타나며 ‘고향 친구, 동네 친구, 또래 친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북 방언 ‘인자’의 담화 표지 실현 양상: 중부 방언 ‘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박지윤)는 ‘인제, 인저, 이자, 제’ 등의 변이 형태로 실현되는 경북 방언의 담화 표지 ‘인자’의 담화 기능을 중부 방언 담화 표지 ‘인제’와 비교하여 고찰하였다. 연구 자료는 TBC 대구 경북 방송의 ‘리얼 인터뷰 통’, SBS의 ‘생활의 달인’, KBS의 ‘다큐멘터리 3일’의 구어 발화를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인자’는 ‘뭐, 아, 좀’ 다음으로 빈도가 높았으며, 중부 방언의 ‘이제’ 역시 빈도가 높은 담화 표지로 드러났다. 담화 표지로서 경북 방언의 ‘인자’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확인, 지연, 화제 전환, 유도, 다

짐, 강조, 문장 접속'에,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군말, 머뭇거림, 덧말'에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이에 비하여 중부 방언의 '인제'는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지연'의 기능만 있고,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군말, 머뭇거림, 덧말'에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방언 담화 표지 '마'에 대한 연구"(임규홍)는 담화 표지 '마'를 대상으로 그 어원과 제약, 의미와 담화 기능을 규명하였다. '마'는 '그만'에서 '고만〉고마〉마'의 형태적 변형 과정을 거쳤으며, 지시 대명사 '그'와 보조사 '만'의 의미가 '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법화되어 담화 표지로 사용된다고 이해하였다. '마'에는 실현 제약이 여럿 있는데, '마' 앞에 선행 정보가 있어야 하고, '마'의 후행 정보에는 화자의 발화 태도에 대한 언표적 표현이 동반된다. 또한 서법의 측면에서 명령형이나 청유형으로 실현되며, 화자가 청자보다 손위일 경우에 자연스럽다는 높임의 제약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마'의 담화 기능으로는 선행 정보 강조, 후행 정보 강조, 사태나 행위의 전환 강조, 후행 행위 요청, 대수롭지 않은 사태나 행위로 담화를 이끄는 담화 책략의 기능 등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경남 남해군 어촌 지역 생활 어휘 연구"(홍기옥)는 해당 지역의 생활 어휘 중에서 생활의 행위 주체인 '행위자'와 어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어휘를 정리하였다. 행위자 관련 어휘로는 '어부, 어민, 해녀' 외에도 '투망꾼, 어로장, 선장, 발쟁이, 발일꾼, 삯꾼' 등의 어휘를 보고하였다. 환경 관련 어휘로는 '시간, 날씨, 공간'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구체적으로는 '물때, 미세기, 바람, 비, 날씨, 방위, 바다, 지형' 관련 어휘를 보고하고 쓰임을 분석하였다.

"장(醬) 명칭의 분화 양상 연구(1)"(김지숙)은 경북의 영천, 경산, 영덕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醬) 관련 어휘의 분화를 다루었다. 해당 지역에서 '장'은 '콩장, 메주장'으로 사용되어 된장과 간장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며, 된장과 간장을 가르기 전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됨을 지적하였다. 된장과 간장은 각각 '된장'과 '지렁, 지랑, 지랑물, 장물'로 구분되었다. 시기와 방법에 따라 '정월장, 삼월장, 묵은장, 나장'과 '달아 넣는 장, 애 달아 쑤는 장, 앙개가 담는 장, 막장, 빠꿈장, 덧장' 등의 명칭이 사용됨을 지적하였으며, "메

주 낂이 놓고 머리 감으면 안 된다, 장맛이 가믄 살림이 이래 실실 나가 뿐다" 등의 장 관련 표현을 '금기 표현, 담그는 시기와 관련된 표현, 장의 상태 변화에 관한 표현, 장맛에 관한 표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새로 발굴한 방언(7)"(박경래 · 곽충구 · 강영봉)에서는 국어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충청, 함경, 제주 지역의 어휘와 속담 18개를 소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전다지, 구단, 끌외, 끌농사, 끌갈다, 졸락물질, 종짓눈, 서슬, 것사리, 족사리, 노지리느 깻글게 앉아서 통 텬하르 본다(=종달새는 깨의 그루터기에 앉아서도 온 천하를 본다), 갈그느 나비두룩 보드랍고 말으는 거츨어딘다(=가루는 칠수록 보드랍고 말은 자꾸 할수록 거칠어진다), 가샛밥은 붙이디 못하구 말으느 어디 가 주어 오디 못한다(=가윗밥은 다시 붙일 수 없고 말은 어디 가 주워 오지 못한다), 가물깉이느 먹어두 마깉이느 못 먹는다(=가뭄이 남긴 것은 먹을 수 있어도 장마가 남긴 것은 먹을 것이 없다), 싀느비느 바디 밑에 베리기(=시누이는 바지 밑의 벼룩), 만년 봁에 쳔년 기왜(=만 년 자작나무에 천 년 기와), 검덩개 도투 슈우한다(=검정개가 돼지 흉을 본다)' 등이다.

"새로 발굴한 방언(8)"(박경래 · 곽충구 · 강영봉)에서는 충청도, 함경도,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한 말 중에서 10개의 어휘와 8개의 속담을 소개하였다. 토박이 화자들이 구사한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어휘를 발굴하여 확인하였다. 충청도 어휘로는 '선구례, 타래반, 채미, 도로지, 피창'을, 제주도 어휘로는 '꿰저립, 베드레기, 밥자리, 사텡이, 졸갱이'를 예문과 함께 자세한 어원과 특징을 제시하였다. 함경도 속담으로는 "가문 다른 데 없구 측실이 다른 데 없다(=家門이 다른 데가 없고 厠室이 다른 데가 없다), 강태르 셈기다(=까마중을 섬기다), 깡치르 내다(=찌꺼기 또는 앙금을 내다), 귀먹대 제 둏온 소리만 한다(=귀머거리가 자기 좋은 소리만 한다), 그릇으느 내돌구무 깨애디구, 안깐으느 내돌구무 소리난다(=그릇은 밖으로 내돌리면 깨지고, 아녀자는 밖으로 나다니면 구설수가 들려온다), 쑥 굴게서 쑥이 나구 참대 글게 참대 난다(=쑥 그루터기에서 쑥이 나고 대나무 그루터기에서 대나무 난다), 둏은 나무부터 띡히구 못 쓰는 낭그

느 깉는다(=좋은 나무부터 찍혀서 없어지고 못 쓰는 나무는 산에 그대로 남는다), 후벌낭그 낮촤 베에라(=후에 베어 낼 나무를 위해 그루를 낮추어 베어라)"를 소개하였다.

2.4. 문화

"서울·경기 방언과 현대 문학"(한성우)에서는 해당 방언이 반영된 문학 작품이 적은 이유, 해당 방언의 반영 양상, 그리고 해당 방언의 활용 방법 등의 문제를 다루었다. 서울·경기 방언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 '무지와 무시, 오만과 편견, 본류와 아류' 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입견이 들어 있음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문학 작품에 반영된 서울·경기 방언의 양상을 분석하면서, 해당 지역의 방언이 불완전하게 반영되어 실제 언어와 거리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해당 방언을 문학 작품에 잘 살려 쓰기 위한 방법으로는 표준어의 위세에 굴하지 않는 '자의식, 지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지역어와 지역 문학"(강영봉)에서는 제주 지역어를 중심으로 하여 지역어와 지역 문학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어와 지역 문학의 정의를 살핀 다음, 현기영의 소설집 『마지막 테우리』와 문충성의 『설문대할망』을 대상으로 '농경 문화, 잠녀, 무속, 지명, 식물 이름'을 고찰하였다. '소의 뿔, 말의 종류, 기량에 따른 잠녀의 명칭, 심방, 신칼, 산판, 나무 이름, 귤의 종류' 등에서 지역어와 지역 문학의 관련성을 확인하였다. 지역어로 쓰인 지역 문학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는 지역어에 대한 풀이 형식의 문제, 표기법의 문제 등을 제시하였다.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 방안: 제주 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강정희)는 유네스코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한 언어' 중의 하나로 제주어를 분류하고 등록한 현실에서, 제주 방언의 가치와 보존의 당위성을 생태 언어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주 방언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안하였다. '언어=인간=자연'이라는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언어를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로 인식하는 생태 언어학적 관점에서, 언어의 단일화는 사고의 단일화로 이어져 문

화의 다양성이 소멸되는 파국을 막기 위한 지역 방언과 소수 민족 언어에 대한 조사 및 보호 방안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토착 언어와 외래종 언어 사이의 뒤섞임 현상을 보이는 '아지다, 고추룩, 있수다, 없수다, 먹었수다, 가시쿠가, 말ᄒᆞ난, 해버련' 등의 접촉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데껴불다' 관련 혼성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주 방언의 현실을 살펴보고, '생태적 사고'를 통한 의식의 전환을 역설하였다. 제주 방언 보전을 위하여 방언 조사 및 연구자를 위한 지원 정책 실시, 토착 방언 화자 발굴 및 보호와 육성 정책 실시, 방언 교육의 강화, 방언 문화 활성화, 지역 대중 매체들의 방언에 대한 관심 등을 제안하였다.

"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김세중)는 제주의 고유한 문화나 풍속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언어 곧 제주어라는 점에서, 제주어의 보존 및 육성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어 어휘에 대한 전승 실태(2008년)의 고찰을 통해 제주어 어휘의 소멸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으며, '제주어 보존 및 육성 조례'를 발판으로 실제 조례에 명시된 각종 정책을 입안하여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제주어가 직면한 소멸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제주어에 대한 제주인들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보았으며, 제주어 부활을 위한 방안으로 제주어 채록 작업, 제주어 토박이 화자의 교육적 활용, 제주어의 보급 및 홍보, 제주어 박물관, 학교 교육에서의 제주어 학습 강화, '제주어 능력 시험'을 통한 혜택 부여, 언론 매체의 적극적 활용 등을 제안하였다.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김순자)에서는 제주어 실태를 점검하고 보존과 활용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보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제주 지역어의 생태 지수 조사 보고서와 제주도민의 제주어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제주어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어 제주어의 현실이 매우 어두움을 지적하였다. 제주어 보전을 위한 각 기관과 개인의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제주어 자료집을 분류하여 연대순으로 정리하였다. 올바른 제주어 활용을 위하여, 제주어에 대한 인식 전환, 제주어 채록 작업의 필요, '제주어 표기법'의 제정, 제주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 양성과 연구 인력 확충, 제주어 교육 자료의

개발, 상호와 상품 이름 부문에서 제주어의 활용, 표준어와 제주어의 병행 사용 유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 방송의 우리말 사용 실태 검토"(허춘)는 최근 1년여 동안 제주 방송의 우리말 실태를 조사하여 발음, 단어, 문장의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음, 장단음, 겹받침, 동화, 경음화, 첨가, 숫자 읽기, 강세, 띄어 읽기 등과 관련된 잘못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였다. 단어 차원에서는 맞춤법의 오류, 부적절한 말, 일본어와 영어의 잔재, 외국어 혹은 외래어의 남용 등을 보고하였고, 문장 차원에서는 수식어와 피수식어의 거리, 앞뒤 연결이 매끄럽지 못한 접속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구·경북 지역어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김무식)는 대구 지역어와 경북 지역어의 연구 현황을 종합하고 연구 경향을 분석하였는데, 지역어와 지역 문화를 함께 다루고 있는 연구 실적이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임을 지적하였다. 지역어와 지역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 방법을 검토함으로써 언어학의 외연을 넓히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 언어학적 논증 이외에 문화 요소 측면에서 논거를 더 확보하여 설명의 틀을 다양화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친족 호칭어의 분화 양상에 대한 연구와 성조 체계에 대한 연구, 그리고 '모르다'의 방언 분포에 대한 해석의 문제 등에서 문화 층위를 고려한 해결 방안의 모색이 매우 중요한 문제임을 역설하였다.

"일제 강점기의 방언 의식과 작품 속의 북부 방언"(곽충구)에서는 일제 강점기의 작가와 문화인들의 방언 의식을 통해 방언이 문학어로서의 지위를 얻게 된 동기를 살펴보고, 평안도와 함경도 출신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북부 방언을 국어학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공통어와 문학어, 표준어와 방언에 대한 논의 전개 과정을 김동인, 이태준, 염상섭, 홍기문, 고제휴 등의 견해를 통해 고찰하고, 1920년대와 1930년대에 활동한 작가들의 방언 의식을 정리하였다. 백석과 김소월 시를 예로 들어 원전 비평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한불(〈한볼〈ᄒᆞᆫ볼), 명주 싸다, 무명 혀다, 절게, 막서리, 불술기, 저릎등' 등과 같이 작품 속에 나타난 방언 요소를 국어사, 지역 방언의 어휘 체계 연구, 언어 지리학적 연구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강원 방언과 강원 문학"(김봉국)은 강릉, 삼척, 정선 방언이 반영된 네 작품을 대상으로 하여 거기에 나타난 강원 방언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음운 측면에서는 모음 축약(여〉에, 여→에, 워→오), 모음 상승(에 : 〉이 : , 어 : 〉으), 모음 조화(부사형 어미 '-아/어'), 전설 모음화(으〉이), 비모음화, 구개음화, 불규칙 곡용, 어간 재구조화 등의 항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문법 측면에서는 주격 조사 증가 현상, 목적격 조사의 이형태, '-설라무네, -구서네, -구로, -깐두루, -으민, -으므는, -매' 등의 어미 등을 고찰하였다.

"부산의 지역어와 언어문화"(김봉국)에서는 부산 지역의 언어적인 특징 전반을 살펴보고, 부산 지역의 언어문화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부산 지역어의 특징에 대해서는 음운 현상과 높임법으로 나누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자에서는 'ㅅ:ㅆ'의 대립 문제, 후두 폐쇄음 'ㆆ'의 설정 문제, 모음 체계의 문제, 성조소의 문제, 반모음화 관련 현상,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불규칙 활용 등을 중심으로 특징적인 현상을 고찰하였다. 후자에서는 아주높임, 예사높임, 예사낮춤, 아주낮춤으로 나누어 각각에 해당하는 어미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언어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친족 어휘와 관용적 표현을 위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충청도 방언과 충청도 문학"(박경래)에서는 정지용의 '향수'에 쓰인 충청도 방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향수'의 표기가 원전에 따라 달리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세 판본의 텍스트를 비교 분석하는 원전의 확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지줄대는, 회돌아, 얼룩백이, 해설피, 뷔인, 짚베개, 그립어, 활살을 찾으려, 함추름 휘적시든, 누의, 여쁠, 발벗은, 안해, 줏던, 석근, 돌아 앉어' 등 '향수'에 반영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충청 방언의 특징적 현상을 분석하였다.

"부산 방언의 문화 콘텐츠론"(이근열 · 김인택)에서는 부산 방언을 어떠한 문화 콘텐츠로 담아낼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부산의 문화와 부산의 언어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너에게 잘 어울린다", "그거 어디서 샀노?", "그거 얼마 줏

노?"와 같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는 반응 양식을 토대로 부산 방언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검토하였다. 부산 방언은 경상 방언의 일부로서 짧은 부정문 선호, 설명 의문과 판정 의문의 구별, 반어법의 빈번한 사용 등과 같은 보편소를 가지기도 하지만 해양성 문화, 첫음절 강화의 성조 패턴, 혼합성, 군영의 군사 문화, 왜색성, 이질성 등의 변별소를 가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방언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김영선)에서는 방언 자료가 가지는 적극적인 가치에 대해 논의하였다. 즉 방언 자료는 자료로서 일차적인 가치가 있지만, 이를 뛰어넘어 언어학적으로 이론의 수정이나 발전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로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기저형과 표면형, 그리고 규칙의 상관관계 속에서 새로운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시도로 방언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걸카다/걸쿠다/걸케 하다, 너가배(너 아버지), 묵어라/무 : 라(食), 끼리+어서→끼리서(沸)' 등의 방언 자료가 가지는 가치를 고찰하면서, 기존 이론의 체계적 정당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새로운 이론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수단으로 방언 자료를 다루어야 한다고 하였다.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 주체 형성"(차윤정)은 지역어 운동 단체인 '탯말두레'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어 인식과 언어 주체 형성의 문제를 다루었다. 지역인들이 경험하는 언어적 타자화의 원인을 표준어 중심의 언어적 아비튀스와 지배적 사고에 있음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언어 주체 형성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탯말두레' 모임의 활동 중에서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소개하면서, 소통과 연대를 강조하는 실천적 행위로서 언어 주체를 형성하는 데에 이 운동이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지역어와 콘텐츠"(김정우)는 지역어가 콘텐츠의 목적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콘텐츠 개발의 방법론을 모색하였다. 콘텐츠 기획을 전략적 차원에서, 지역어를 전술적 차원에서 사용함으로써 콘텐츠가 제공하는 경험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지역어의 사용으로 〈사투리쇼 얼룩말〉, 〈상상 더하기〉, 〈말 달리자〉와 같은 프로그램이나 〈위메프〉의 광고에서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아구 할매〉, 〈말바우 아짐〉, 〈자갈치 아지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 〈비봉산의 메아리〉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공감의 폭'을 확대한다고 하였다. 〈강릉 사투리 경연대회〉나 〈강릉 사투리 시화전〉에서는 경험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고, 〈강 대리의 콩글리쉬 탈출기〉나 〈서저희의 음악 동네〉와 같은 콘텐츠에서는 '친근감'을 증대시킨다고 하였다. 각종 문화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서 지역어의 활용 양상을 파악하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2.5. 종합

"생애사 기록물 『册平日記』와 『月波遺稿』에 나타난 정체성과 언어 의식"(김규남)은 개인 생애사 기록물인 『책평일기(册平日記)』와 『월파유고(月波遺稿)』 두 자료를 소개하고, 개인어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고 일기 작성자의 언어 의식을 규명할 수 있는 가치를 확인하였다. 『책평일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외부 규범을 수용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표기에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의식 위로 올라온 토속 방언을 위신형으로 교정하기도 하지만 원순 모음화나 'w' 첨가와 같이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보여 주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현대 일기 자료가 개인의 생애사적 산물인 교류망과 정체성을 분석하기에 효율적인 자료임을 지적하였다.

"'方言'의 개념사"(정승철)에서는 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언의 개념을 『계림유사』와 『삼국사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일제 강점기의 여러 문헌들에 이르기까지 고찰하였다. 근대 이전까지 방언은 '중국의 변방어'를 뜻하였지만, 개화기에 들어서면서 '지방어'로서의 의미를 확보하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강력하게 대두한 '표준어'로 인해 '방언'은 '표준어가 아닌 말' 또는 '그 지방에서만 쓰는 말'의 의미로 한정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방언 연구 동향과 전망"(이상규)에서는 일본에서 이루어진 국가적인 방언 조사 및 언어 지도 제작 등의 개별 연구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구 방법적인 측면에서 언어 지리학과 사회 방언학

의 연구 방법이 확장되고, 도시 방언의 위계와 방언 확산 추이를 살펴보는 등 다양한 시도를 지적하였다. 또한 방송과 언어, 방언과 연구, 방언과 전승 문예 등 학제 간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의 구축과 관리, 언어 지도 제작 등의 전산화에 주목하면서 지리 방언 유형론에 대한 관심도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최진숙·조숙정)은 해당 저술(왕한석, 2010)에 대한 서평 논문이다. 해당 저술이 오랜 기간 기획된 작업으로 한국의 방언권을 기반으로 한국의 언어문화 전반에 대한 자료 중심적 기술지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하였다. 책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촌 지역과 농촌 지역 사이의 주요한 언어문화 양상 차이를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준다는 장점을 부각하였다. 더불어 사람의 '신체' 부분 명칭에 대한 민속 구분법의 연구가 필요하고, 언어문화를 더욱 포괄적으로 기술하는 데에 합당한 연구 질문 항목에 대한 세밀한 고찰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박성종·전혜숙 편『강릉 방언 사전』"(이익섭)은 해당 저서의 서평 논문이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편찬하고 현장감이 있어 살아 있는 예문이 많다는 장점을 지적하면서 표제어에 활용형이나 관용구를 적극적으로 수록하여 방언 사전의 새로운 양식을 열어 주는 시도로 평가하였다. 강릉 방언에서 특이한 활용을 하는 용언들의 활용형을 표제어로 제시하면서 기본형도 함께 표제어로 제시한 양면 작전을 펼친 것을 일거양득의 효율적인 방법으로 파악하였다. 발음란을 두지 않은 체제에서 된소리를 표기하는 데 고민스러웠던 부분이 존재하며, 예문이 없어 아쉬움을 주는 항목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예문을 좀 더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을 되돌아보면서, 강릉 방언이라고 할 수 없는 요소가 다소 포함된 것이라든지 엉뚱한 뜻풀이가 제시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 강릉 방언에 정통한 평자답게 '오랍드리'는 '오래뜰'보다 범위가 넓다는 점, '포강'은 논 언저리쯤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저수지라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한마디로 이 서평은, 앞으로 우리의 방언 사전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곱씹어 보게 하는 서평이라 할 수 있다.

"『강릉 방언 총람』과 『강원도 영동 남부 지방 방언』에 대하여"(김봉국)에서는 해당 저서에 대해 소개하고 그 특징을 고찰하였다. 『강릉 방언 총람』은 표준어 표제어에 따른 대응 방언형을 제시한 후, 대응 방언형이 포함된 방대한 양의 예문을 수록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일반적인 사전과 달리 생활 문화적인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관용적인 표현에 대해서도 용례와 함께 그 표현의 유래나 의미를 제시하였다는 특징에 주목하였다. 『강원도 영동 남부 지방 방언』은 표제어를 삼척말을 기준으로 배열하였으며, 표제어에 따른 표준어 대응형과 해당 예문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을 지적하였다. 더불어 활용형과 곡용형뿐만 아니라 관용적 표현을 등재한 것도 이 저서의 특징으로 파악하였다. 개선점으로는 운율적인 정보의 제공, 공동 연구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에 대하여"(이기갑)는 왕한석 교수의 해당 저술에 대한 서평 논문이다. 전남 진도군 조도와 전북 고창군 지역의 언어문화에 대한 이 책의 체제를 설명하고, 각 장별로 책에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지명, 생태 환경의 어휘적 구분, 친척 용어 체계, 호칭 체계, 존댓말 체계, 특수한 상황 변이어, 말의 주요 범주와 빈담, 언어 예술'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 내용을 간추리고 평을 추가하였다. 종합적으로 해당 지역의 언어문화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인류학자뿐만 아니라 언어학자나 방언학자에게도 매우 유용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서평: 鄭源石・徐潤煥 編(2010), 『咸興 地方 方言集』"(정승철)에서는 해당 저술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해당 저술은 정원석 선생의 단독 업적임을 직접 확인한 사실 등의 간행 경위를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표준어와 동일한 방언형에 대해서도 수록한 점, 5천 개가 넘는 표제어 중에서 1/4 정도는 기존의 어떤 자료집에서도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활용형을 표제어로 삼은 점, 어미 또는 조사를 완전히 배제하지 않은 점, 용례를 달아 놓은 표제어가 상당한 점 등을 자료집의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다양한 언어재들이 표제

어로 등재되어 있고, 용법상의 미세한 차이를 기술하였으며, 접미사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등의 특징을 주목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방언 연구자들에게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방언 자료의 공백을 메워 주는 가치 있는 자료집으로 평가하였다.

"의문형 종결 어미의 방언 분화"(정인호)에서는 '-습니까'류, '-는가'류, '-느냐'류 세 부류의 의문형 어미를 중심으로 한국어 전 방언을 대상으로 하여 방언 분화의 요인을 탐색하였다. '-습니까'류에 대해서는 {-습-}의 결합 여부, {-ᄂᆞ-}의 결합 여부, 음운 변화의 차이로 '-슴니까, -으요, -슴니꺼, -니이껴, -능교, -시꺄, -시니꺄, -슴네까, -슴둥, -수까, -음네까' 등의 어미가 분화되었다고 파악하였다. '-는가'류에 대해서는 설명/판정 의문의 대립, {-습-}의 결합, '는가〉나'의 변화 여부에 따라 '-나, -능가, -응가, -능가/능고, -슴나, -슴마, -슴메, -소, -응가/응고' 등이 분화되며, '-느냐'류는 설명/판정 의문의 대립, 용언과 체언의 어미 차이, 변화 단계에서의 '-ᄂᆞ이-'의 존재 여부에 따라 '-나, -냐, -나/노, -가/고, -니, -네, -은냐, -으냐/으니, -가/ㄱ' 등이 분화된다고 이해하였다. 아울러 각 부류의 종결 어미에 대한 분화 양상을 지도로 제시하였는데, '중부, 전라, 경상, 황해, 평안, 함경, 제주'에 이르는 전 방언권의 분포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중국 청도 조선족 사회의 언어 정체성"(한성우)은 해당 지역 조선족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언어 정체성 문제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선어가 중국 내에서 어떻게 융합되고 있으며, 중국어 및 한국어가 조선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조선족 사회의 언어는 다언어 사회 및 이중 언어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어가 이들 언어의 주류를 이루지만 그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설문 분석 결과 이들의 언어 정체성은 조선어에서 중국어 또는 한국어로 옮겨 가고 있다고 이해하였다. 앞으로는 중국어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중국어가 이들의 언어 정체성의 중심을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망하였다.

"河野六郎의 한국어 방언 연구에 대하여"(이진호)는 일본인 학자

고노 로쿠로의 생애와 학문에 대해 조망하고 그의 방언 조사와 연구 전반을 고찰하였다. 고노 로쿠로는 어려서부터 습득한 외국어 및 한자음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에 기반을 둔 사고를 보여 줌으로써 새로운 시기의 선두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파악하였다. 그의 방언 조사 과정과 방법론을 검토하고 방언에 대한 인식을 추적함으로써 체계를 고려한 방법론적 특징을 추출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널리 알려진 그의 저작인『조선 방언학 시고,「협(鋏)」어고』에서 다룬 네 주제인 'ㆍ', 'ㅿ', 어중의 'ㄱ', 소위 복합모음 'ㅐ, ㅔ, ㅚ' 등을 소개하면서 이에 대해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였다.

3. 학위 논문

학위 논문으로는 석사 논문이 6편, 박사 논문이 2편이 있다. 방언학 관련 학위 논문의 수는 예년에 비하여 소폭 감소했지만, 제주 방언을 대상으로 언어 지리학적인 방법론으로 분화 양상을 고찰한 논문과 연변 방언의 격 조사를 연구한 두 편의 박사 논문이 주목된다.

〈실험 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박순형)에서는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별, 세대에 따른 경남 방언의 성조 실현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성 화자의 경우에는 3성조 체계에서 2성조 체계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성조형의 조정이 나타나지만, 여성 화자의 경우에는 음절별 성조는 남아 있으나 단어 내 성조는 점점 사라지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세대에 따른 성조 변화의 원인으로는 특정 부류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경우에만 성조가 유지되는 언어 내적 요인, 매스 미디어의 영향, 수도권과의 근접성이라는 언어 외적 요인 등을 지적하였다.

〈교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이지애)에서는 강화도 교동 지역어의 특징을 공시 음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교동 지역어의 음운론은 음운 체계, 어간의 기저형, 음운 과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는데, 'ㆆ'을 포함하여 자음은 20개, '위, 외'를 제외하여 모음은 8개를 세우고, 음장은 어두 위치에서만 변별적으로 기능한다고 파악

하였다. 어간의 기저형은 곡용 어간과 활용 어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각각 단일 기저형과 복수 기저형으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음운 과정은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였다.

〈전북 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정영신)는 해당 방언에서 모음 조화의 유형별, 지역별 실현 양상을 고찰하고 실현 양상에 따른 차이를 밝힌 논문이다. 형태소 경계에서 규칙 어간과 불규칙 어간으로 나누고, 다시 단음절 어간과 다음절 어간으로 나누어 양성/음성/중성 모음의 모음 조화 현상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전북 지역에서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남원' 지역이 '익산, 김제, 정읍, 완주' 지역보다 모음 조화가 잘 지켜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지리적으로 고립된 위치에 있는 '무주, 진안, 임실, 장수, 순창, 남원' 지역이 충남 방언에서 발생한 '아〉어' 변화의 개신파 영향을 덜 받은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문구 소설의 세계관과 충남 방언 연구〉(노문희)는 이문구의 소설 '우리 동네', '내 몸은 너무 오래 서 있거나 걸어왔다', '관촌 수필'을 대상으로 하여 문학적으로 나타나는 세계관의 문제와 함께 대천・보령 방언의 사용 양상을 고찰하였다. 이 소설에 나타난 방언의 특징을 어휘와 음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어휘의 특징으로는 '모이(묘), 오이상(외상), 읎는 규(없는 것이요), 안 갈류(안 갈래요), 따비밭, 메갓' 등과 같은 토속어를 많이 활용하고 고유어와 상징어를 두드러지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음운의 특징으로는 움라우트, 상승 모음화(에→이, 어→으, 오→우, 아→어), 저설 모음화(예: 심부럼), 후설 모음화(예: 으붓자슥), 원순성 이중 모음화(예: 워치기, 원제나, 워떤), 하강 이중 모음(예: 가이, 대이구), 단모음화(예: 메누리, 댕기메), 경음화, 구개음화 등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법적인 특징으로 보조사 '-사리'(=-커녕), '-할래, -한지'('-까지, -조차, -마저'에 '-도'가 결합한 것과 유사) 등의 용례와 쓰임을 분석하였다.

〈中國 朝鮮族의 朝鮮語 方言 硏究〉(천홍희)에서는 중국 연길 지역의 방언을 고유어와 차용어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고유어의 측면에서는 주격 조사의 대응과 자음의 대응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주격 조사 '-가'는 이 지역에서 쓰이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자음의 대응에서는 'ㅅ, ㅂ, ㄱ'의 대응을 중심으로 '가을-가실, 여우-여끼, 새우-새비, 가루-갈기' 등의 예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차용어의 측면에서는 중국어를 차용한 것은 '음독형, 음역형, 의역형, 복합형'으로 나누고, 외래어를 차용한 것은 각각 일본어 차용과 한국어 차용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언어 인식 능력 신장을 위한 지역 방언 교육 방안 연구〉(안희은)에서는 방언 활용 교육의 가능성을 언어 인식 능력 제고 측면에서 검토하고, 이를 통한 방언 교수 학습 방안을 제안하였다. 언어에 대해 주체적인 안목을 갖는 것을 '언어 인식'이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방언 교육의 목표와 교육적 의의를 분석하였다. 국어 교육에서 방언 교육이 갖는 가치는 언어 및 문화의 다양성과 교육 과정의 지역화 측면에서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방언 교육의 교재 구성 방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문학 작품 속에서 나타난 방언의 여러 측면을 분석하였으며, 방언 교수 학습의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교수 학습 모형을 검토하여 백석 시 텍스트에 실제로 이를 적용하였다.

〈제주도 방언의 언어 지리학적 연구〉(김순자)는 제주도 각 읍면에서 1개씩의 조사 지점을 선정하고 비양도와 가파도를 추가하여 16개의 지점에서 조사한 바를 언어 지리학적으로 분석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2010년 4차에 걸친 방언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155개의 어휘에 대한 응답형을 바탕으로 하여, 155장의 언어 지도를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의 방언 구획을 시도하였는데, 제주도를 동서로 가르는 등어선은 제주시와 조천의 분계선(산북), 그리고 서귀와 중문의 분계선(산남)으로 해석하였다. 이 등어선은 역사적인 동서도현(東西道縣)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다. 제주도를 남북으로 가르는 등어선은 역사적으로 제주읍, 대정현, 정의현이라는 삼읍 행정 체계와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결국 제주도를 '제주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동남 방언, 서남 방언'과 같이 4개의 하위 방언권으로 구획하였다. 또한 현평효(1962)의 자료집에 조사된 방언형과 50여 년의 차이를 둔 조사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방언의 변화 양상도 분석하였다. 비록 어휘적 측면에서

의 방언 분화에 국한된 면이 있지만, 155개 어휘의 방언 지도를 일일이 작성하면서 제주도의 방언 분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중국 연변 지역어 격 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최화)는 연변 지역이 고향인 회원들이 교류하는 인터넷 게시판 '내 고향 사투리'의 게시글을 자료로 삼아 격 조사 실현 양상을 고찰한 박사 학위 논문이다. 게시글에서 수집한 자료를 말뭉치로 구축하여 격 조사로 간주되는 형태들을 추출하고 이를 통해 연변 지역어 격 조사 목록을 추출하였다. 주격 조사 '-이', 목적격 조사 '-으, -우, -르', 관형격 조사 '-에, -이', 부사격 조사 '-에, -메, -에서, -메서, -다대구, -인데, -인데서'(처격 조사), '-루, -러, -을러, -을르' 등(향격 조사), '-루, -러, -을러, -을르' 등(구격 조사), '-까, -하구'(공동격 조사), '-같이, -마, -마이, -처러므' 등(비교격 조사)을 구체적인 목록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격 조사의 실현 양상에 대해서는 격 조사의 의미 실현, 격 조사의 교체, 격 조사별 대명사의 형태 교체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이 논문은 연변 지역어 격 조사의 전반적인 실현 양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인터넷 게시글을 활용하여 다양하고 풍부하게 용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조사 보고서와 단행본

4.1.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2011년의 지역어 조사 사업의 결과물로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의 8개 보고서와 중국 길림성의 '도문시 양수진(충북 출신),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 영길현(경북 의성 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3개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2011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김봉국)

는 강원도 정선군 화암면 호촌리 호명마을에 거주하는 토박이 화자들의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 내용을 녹취하여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토박이 화자들의 자연스러운 발화를 전사하였는데, '마을 들여다보기, 논농사, 밭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세시 풍속' 등을 담고 있다.

『2011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한성우)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서 실시한 방언 조사 결과를 보고한 것이다.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에 따라 조사 자료를 분석하였는데, 구술 발화 자료에는 제보자의 성장 과정, 풍습, 가신 숭배와 금기 등의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세시 풍속과 놀이 등을 수록하였다.

『2011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김정대)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에서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이다. 전사 자료는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술 발화는 '마을 소개, 농사짓기, 의생활, 식생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김무식)는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에서 조사한 내용의 보고서이다. 전사 자료는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으로 정리하였으며, 구술 발화는 '마을 소개, 결혼 과정, 장례 절차, 밭농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이기갑)는 전남 광양시 진상면에서 이루어진 지역어 조사의 결과 보고서이다. 광양은 경남 하동군과 인접한 곳으로 경남 방언과의 접촉 방언의 성격이 강한 곳으로 이해하였다. 구술 발화 자료는 제보자의 결혼 생활, 가신 숭배와 금기 등의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세시 풍속과 놀이, 어촌과 산촌의 생활, 누에치기, 옷 만들기 등의 의생활을 수록하였다.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강영봉)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 보고서이다. 전사 자료는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섬 지역이라 상당량의 동물·식물 관련 어휘는 조사할 수 없었으나 바다 관련 내용은 풍부하게 조사하였다.

『2011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한영목)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조사한 구술 발화와 어휘, 음운, 문법 등에 관한 전사 자료를 수록하였다. 구술 내용으로는 마을 들여다보기, 논농사,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전통 놀이 등과 채소 재배, 요리 밑반찬의 조리 등 식생활에 관련된 것을 조사하였다.

『2011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어휘·음운·문법)』(박경래)는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에서 이루어진 조사의 결과 보고서이다. 역시 구술 발화, 어휘, 음운, 문법의 전사 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구술 발화로는 조사 마을의 환경과 배경, 결혼 생활, 의생활, 생업 활동, 거주 생활, 질병과 민간요법, 전통 놀이 등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박경래)은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서 부부 사이인 이용안(84세), 신명옥(77세) 두 제보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의 보고서이다.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소강춘)는 중국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안도현 송강진 무주촌에서 거주하는 김양순(84세, 전북 김제시 죽산면 출생) 씨를 주 제보자로 하여 조사하였다.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3』(최명옥)은 중국 길림성 영길현 차로하진에 거주하는 신해경(86세, 경북 의성군 사곡면 출생) 씨를 주 제보자로 선정하여 실시한 조사의 결과 보고서이다.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의 보고서는 5개이다.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1 [해초류]』(강정희·김순자)은 제주 동부 우도의 해초류 관련 어휘를 조사해 정리하였다. 조사된 어휘는 미역, 모자반, 듬북, 톳, 우뭇가사리, 기타 해초류 등 6개 주제로 종류, 부분 명칭, 행위와 방법, 상태와 색깔, 음식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해초류 관련 어휘 205개 중에서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새 어휘는 167개로 파악되었다. 예를 들어 '참메역, 물메역, 조각메역, 조각우미, 청우미' 등이 새롭게 조사되었는데, '참메역'은 먹을 수 있는 참미역을, '물메역'은 바닷가 바위가 아니라 물이 깊은 곳에 자라는 미역을 일컫는다. '조각메역, 조각우미'는 가장 먼저 수확하는 미역과 우뭇가사리를, '청우미'는 색깔이 파래서 푸른빛이 감도는 우뭇가사리를 일컫는다.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2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강정희・김지숙)는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평창군 대관령면 등에서 조사한 어촌 생활 관련 어휘를 보고하였다. 조사 내용 범주로는 '행위자, 장소, 공간, 그물의 종류, 기타 어로 도구, 어로 활동 과정, 어획물 종류, 어로 행위와 관련된 관용 표현' 등을 설정하고, 622개의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이 중에서 미등재 어휘는 439개였다. 일례로 명태 관련 어휘는 크기에 따라 '대태〉중태〉소태〉노가리, 앵태〉앵노가리' 등으로 분화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3 [자염]』(강정희・안귀남)은 충남 태안군에서 조사한 염전 관련 어휘를 보고하였다. 염전과 행위자의 명칭, 자염의 제염 설비, 제염 도구, 제염 과정 등을 조사하고 소금의 종류, 소금을 이용한 가공품, 소금의 민속에 관한 어휘도 정리하였다.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4 [돌살, 김 양식]』(강정희・홍기옥)는 전남 해남군 송지면에서 조사한 돌살과 김 양식에 관련된 조사 어휘를 보고하였다. 돌살에 대해서는 '돌살 관련 명칭, 돌살 만들기, 고기 거두기, 보수하기, 고사 지내기, 관용 표현' 등으로 범주를 나누고, 김 양식에 대해서는 '김 양식장 만들기, 포자 캐기, 김 기르기, 김 손질하기, 김 완성품' 등으로 범주를 나누어 관련 어휘를 조사하였다.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강정희・김순자・김지숙・안귀남・홍기옥)는 제주도 동부, 동해안 북부, 서해안 중부, 남해안 서남부 어촌을 대상으로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를 조사하였다. '행위자, 환경, 어획물, 어로 도구, 어로 행위, 민속, 음식' 등으로 범주를 나누고 세부 항목을 조사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동일 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기초 어휘들의 다양성이 조사되었으며, 미등재어 상태의 기초 어휘 800여 개를 새로이 발굴하였다.

4.2. 단행본

『제주 방언 통사론: 비교 통사론』(김공칠)은 생성 문법적인 관점에서 제주 방언의 통사적인 생성 기제를 해명하고 이와 관련된 구문을 분석하였다. 언어의 기술이나 비교 연구에서 표면적인 분화상

뿐만 아니라, 문장 형성의 통사 과정과 같은 내면적인 규칙성이나 원리성의 비교나 분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법의 체계, 범주와 자질, 구조체, 이동과 재구조화, 술어와 문의 형성 기제, 중간 동사 구문, 격 실현 기제, 소위 예외적 격 표시 구문에 대하여, 주격 목적어 구문, 이중 목적어 구문, 결속 이론'이 그것이다. 제주 방언의 언어 자료뿐만 아니라, 넓게 보면 방언적 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언어인 만주어, 몽골어, 일본어, 아이누어, 에벤키어, 튀르크어 등의 자료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여러 언어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과 구문의 이동(異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였다. 외적인 방언의 모습은 한편으로 언어 생성의 여러 경로를 보여 주고 다른 한편으로 언어(방언)의 분파와 변화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 파악하였다. 또한 이 책에서는 방언 구조의 생성 경로를 도출주의식 파생으로 계층 구조의 수형도로 나타내고 있다. 개별 문법으로서의 방언의 통사 구조를 생성 문법적인 구조적 형상성으로 명시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였다. 이러한 점은 통사론의 핵심적인 부문에서 선명한 대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말에서 때 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송상조)은 제주 방언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태소인 때 가림소(때를 가리어 나타내는 형태소) '-ㅇ, -ㄴ'의 의미 기능과 특징을 분석한 책이다. 때 가림소 '-ㅇ, -ㄴ'은 씨끝 '-어/아/라, -다, -어다/아다'와 의도를 나타내는 '-저'와 마침법 씨끝 등에 붙는데, 서로 대립되는 때매김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과 어울리는 뜻을 가진 씨끝을 가려 써야 바른 호응이 된다고 파악하였다. 이 책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때 가림소 '-ㅇ, -ㄴ'에 관한 개요, 동작상과 때 가림소 '-ㅇ, -ㄴ'과의 관계, 때 가림소 '-ㅇ, -ㄴ'과 씨끝의 호응, 때 가림소 '-ㅇ, -ㄴ'과 따옴마디에서의 호응, 때 가림소 '-ㅇ, -ㄴ'과 두 자격법의 호응, 연결법에서의 호응 등과 같이 여러 통사적인 차원에서 때 가림소와 호응되는 씨끝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풍부한 용례를 통해 '-ㅇ, -ㄴ'의 의미 기능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사적인 환경에 따라 정밀하게 의미 기능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방언 문법 기술의 또 다른 전형

을 발견할 수 있다.

『제주어 개론(상・하)』(고재환)은 저자가 1970년대부터 제주 속담을 채록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파악한 일반적 기초 지식을 집대성한, 제주어에 대한 개론서이다. 제주어의 기초 이론과 용례를 집약한 '제주어 개론'의 효시라는 점에서 가치가 크다. 상권은 '음운론, 품사론, 어휘론, 구술론, 표기법'을 다루었고, 하권은 형태론만을 단독으로 다루었다. 음운론에서는 자음의 구분과 쓰임, 모음의 구분과 쓰임, 음운 변화를 다루었고 품사론에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로 나누어 단어의 쓰임을 파악하였다. 어휘론에서는 의미 구조, 조어 구조, 고어, 고문헌 제주어, 호칭어, 토속어, 외래어 등을 다루고 구술론에서는 어순, 구술 형태, 표현법, 생략과 축약, 구술형 첨사 등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표기법에서는 제주어 표기법을 제시하고 '신화, 토속요, 속담, 생활어, 현대시' 등에서 표기법의 실제 적용을 보여 주었다. 하권의 형태론에서는 선어말 어미, 전성 어미, 강세 첨사, 연결 어미, 종결 어미 등으로 나누어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종결 어미에 대한 분석이 하권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용례를 제시하였다. 평서형과 의문형 종결 어미는 '존대형, 비존대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명령형과 청유형 종결 어미는 'ᄒᆞ라체, ᄒᆞᆸ서체, 말라체, 맙서체', 'ᄒᆞ주체, ᄒᆞᆸ주체, 말주체, 맙주체'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아무리 이론에 밝아도 실제가 어긋나면 표준어도 아니고 토속어도 아닌 어정쩡한 사이비 제주어가 돼 버린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화용론에 입각한 제주어 본연의 실질적인 용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전라북도 방언 연구』(이태영)는 전라북도 방언을 중심으로 일상어적 특징과 문법 현상, 어휘를 다룬 책이다. 그동안 전라북도 방언에 대한 단독 저술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의 가치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은 크게 '공통어와 일상어, 방언 자료와 활용, 문학과 방언의 기능, 방언과 어휘, 방언과 문법'의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공통어 중심의 정책과 일상어의 특징을 다루었고, 2부에서는 방언 말뭉치, 문학 작품과 방언 연구, 방언 어휘의 자료 정리와 연

구 방법 등을 논의하였다. 3부에서는 채만식, 최명희, 윤흥길 등의 작품 세계와 방언의 기능을 고찰하였으며, 4부에서는 방언 어휘 '누, 누구, 내비두다, 내쏴두다' 등을 고찰하였다. 5부는 전북 방언의 문법 변화와 어미, 조사 등의 특징으로 구성하였다.

『1960년대 육진 방언 연구(자료편)』(황대화)는 육진 방언의 언어 구조를 밝히기 위해 1960년 김일성종합대학 어문학부 조선어학과에서 만든 등사본 책자 "륙진 방언 연구(자료집)"를 바탕으로 펴낸 책이다. 육진 지역의 6개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함경북도 경흥 2지점, 경원 5지점, 온성군 2지점, 종성군 2지점, 회령군 2지점, 부령군 5지점에 대해 어음, 형태, 어휘의 측면에서 조사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음운, 형태, 어휘의 차원에서 1960년대 육진 방언의 모습을 잘 보여 주는데, 육진 방언의 자료 수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가치는 매우 크다.

『강화 토박이말 연구』(한성우)는 강화 토박이말의 전형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강화의 교동, 화도, 양사 지역의 방언 조사를 바탕으로 음운, 어휘, 문법적 특징을 분석한 책이다. 책의 부록으로 조사 자료가 제공되어 있어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도 높다고 판단된다. 강화 토박이말에 대한 조사는 전체적으로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조사 질문지'를 따랐으나, 구술 발화는 제보자의 성격에 맞도록 다양한 주제로 자료를 채록하였다. 강화 토박이말의 특징으로는 경기 방언의 하위 방언이긴 하지만 외래적인 요소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나는 방언으로 파악하였다. 음운적인 면에서는 교동말에서 어간 말에 'ㅆ'이 나타나지 않는 점, '위'의 발음으로 uy가 나타나는 점, '오-'(來)의 활용형으로 '오느서, 오나서' 등이 나타나는 점 등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어휘적인 면에서는 강화의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여 산발적으로 서해의 다른 지역 방언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문법적인 면에서는 과거 강화 토박이말의 전형적인 특성으로 일컬어지던 '-겨, -꺄, -시겨, -시꺄' 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다.

『방언 속에 내 고향이 있었네』(김성재)는 20여 년 동안 방언을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한 책으로,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책은 전체 1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내용은 방언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로 내용이 알차다. 특히 2장 '뿌리 깊은 방언'에서는 저자가 연구한 방언 어휘의 의미와 용법을 자세하게 밝혀 놓았는데, 기존에 잘못 풀이되거나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지적이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5장 '방언 도서 평론'에서는 기존에 간행된 방언 관련 도서들에서 재고를 요하는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하였다. 마지막 12장은 '사진으로 보는 내 고향 방언'이라 하여 해당 어휘의 실물을 사진으로 보이고 여러 지역의 방언형을 제시하는 것과 동시에 '내 고향 방언'을 적을 수 있는 난을 배치하였다.

5. 맺음말

지금까지 2011년 방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방언학 분야에서 2011년에 이루어진 연구 성과를 최대한 반영하려 노력하였지만, 누락된 업적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앞선다. 또한 본의 아니게 연구 결과를 곡해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는 모두 필자의 책임이다.

이 글은 전체적으로 2011년 방언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려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이에 큰 틀에서 2011년 방언학 연구의 몇몇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제주 방언의 가치와 특징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언어 생태적인 측면과 정책적인 측면에서 제주 방언의 가치와 보존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제주 방언의 특성을 연구한 굵직한 서적의 출판이 이루어졌다. 특히 제주 방언의 본격적인 소개서라 할 수 있는 『제주어 개론(상·하)』, 제주 방언의 통사론을 다루고 있는 『제주 방언 통사론: 비교 통사론』, 『제주 말에서 때 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등이 주목할 만하다.

둘째, 각 지역 방언과 문화의 상관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문학 작품과 지역 방언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

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영 주어문'의 기획 특집이 큰 역할을 하였다. 더불어 지역 방언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셋째, 그간 방언 연구에서는 주로 음운론 분야가 연구가 중심이 되었으나 2011년의 연구에서는 문법론뿐만 아니라 어휘·의미·화용론 분야로 관심의 폭이 확장되었다. 특히 담화 표지와 관련된 화용론 분야의 연구 성과가 두드러지며, 어촌 생활어를 비롯하여 장류 관련 어휘에 대한 어휘론적 연구가 이어졌다.

넷째, 방언학 관련 논저에 대한 서평 논문이 꾸준히 발표되었다. 방언 사전류, 방언 연구서류 등에 대한 서평 논문은 해당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연구 방법을 반성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러한 서평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될 수 있는 연구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지 '방언학'의 역할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다섯째, 국립국어원에서 진행하는 지역어 조사 사업과 민족 생활어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방언학 분야에서 조사 보고 사업은 그 어떤 연구 논저보다도 중요성이 크다. 한정된 예산 속에서도 꾸준하게 사업을 추진해 온 국립국어원에,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조사 보고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해 온 연구진께 방언학 연구자로서 감사를 드린다.

국어 정보학·사전학

안 의 정
(연세대학교)

1. 머리말

이 글은 2011년도에 이루어진 국어학 연구 중 국어 정보학과 사전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어 정보학 분야는 먼저 연구 동향을 정리하고,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를 다루었다. 다음으로 말뭉치와 컴퓨터를 활용한 국어 연구와 컴퓨터를 이용한 한국어 처리 방법론 연구의 두 축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전자는 말뭉치를 기반으로 한 순수 언어학적 연구와 말뭉치를 이용한 응용 언어학적 연구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음성 처리나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 기계 번역, 정보 검색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국어 자료 처리에 초점이 있지 않고 전산학적 기법만을 다룬 논문은 배제하였다.

사전학 분야는 연구 동향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주제와 대상 사전의 유형, 사전 단행본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 국어 정보학

2.1. 말뭉치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

국어 정보학은 말뭉치가 근간이 된다. 따라서 국어 정보학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려면 말뭉치 구축과 관련된 연구들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말뭉치 구축과 관련된 연구는 말뭉치 구축의 토대를 마

련하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말뭉치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말뭉치 구축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가 수행되었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말뭉치 구축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학습자 말뭉치와 다면 말뭉치(자료) 구축 분야이다. 먼저 학습자 말뭉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강현화)에서는 국내외 학습자 말뭉치 구축과 도구 개발, 활용 기법 등을 총망라하여 정리하였고, 사용자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말뭉치 이용 관련 설문 조사도 수행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활용 및 구축 방안 연구〉(강찬미)는 학습자 말뭉치의 활용 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학습자 말뭉치의 활용 영역을 교수와 연구, 학습으로 나누고 실제로 학습자 말뭉치를 활용한 수업을 구상하여 문법, 어휘, 음운 분야에서의 실제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안의정 · 한송화)에서는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에서 2010년에 구축한 말뭉치를 대상으로 삼았다. 먼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1'의 구축 과정을 소개하고, 이의 활용 방안의 한 사례로서, 무작위로 추출한 2만 어절 규모의 샘플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소 분석과 기초적인 계량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학습자의 어휘 사용 양상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면 말뭉치 구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면 말뭉치(multimodal corpora)란 기존의 텍스트 상태의 말뭉치에서 진화한 형태로, "영상 및 음성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전사, 주석 혹은 코딩을 전자화된 형태로 함께 수집한 자료[1]"로 정의할 수 있다. 먼저 "다면성과 다면 말뭉치에 대하여"(봉미경)에서는 다면성(multimodality)의 개념과 특성을 정리하였고, 이를 텍스트 분석과 담화 연구, 상호 작용 분석, 기호학, 문식성, 상호 작용 시스템 및

1) Allwood, J. (2008). "Multimodal corpora". In Lüdeling, A. & Kytö, M.(eds), *Corpus Linguistics: An International Handbook* Vol.1: 207-224, Walter de Gruyter.

인터페이스 개발 등의 영역으로 확장하여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다면 말뭉치의 구축 요건과 국내외 구축 사례 등을 소개하였다. "다면 자료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안의정)에서는 다면 자료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하고, 자료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매체 담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어 다면 자료 구축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글에서 저자는 다면 자료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윤리적인 문제와 메타 데이터, 동기화 정렬, XML 마크업 언어의 이용 등 4가지 요소를 거론하였다.

다음으로 살펴볼 연구는 말뭉치에서 추출되는 1차적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 연구이다. 이에는 어휘 빈도 자료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어휘 빈도는 언어 통계학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수치이며, 이는 수학적 정보이지만 언어학적으로 다양하게 해석되고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까지도 국내외에서 어휘 빈도 조사 사업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말뭉치에서 출현한 단순 빈도를 기반으로 한 결과물인데 비해 "어형적 연관성을 고려한 어휘 빈도 산출"(최재웅 · 윤혜준 · 전지은)은 이전 연구와 다른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저자는 한국어 말뭉치로부터 어형적 연관성, 즉 단어족 빈도를 고려한 빈도 목록을 추출하였다. 아울러 이 목록에서 단어족 빈도의 영향 정도를 구체적인 계수로 환산하여 단순 빈도 기반 어휘 목록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다음으로 말뭉치 구축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료 구축의 기반이 되는 몇 가지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구어 비유창성 현상의 주석 체계 연구"(남길임)는 그동안 구어 말뭉치 구축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구어 텍스트의 전형적인 특성인 비유창성 현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여기서는 비유창성 현상을 삽입, 대치, 도치로 대분류한 후에 다시 9가지로 세분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담화 기능적인 분류가 아닌 기술적 분석에 근거를 둔 것으로 추후 주석 말뭉치로 구축되었을 때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한국어 TimeML: 텍스트의 사건 및 시간 정보 연구"(유현조 외)는 자연 언어 텍스트의 의미 내용에서 핵심을 이루는, 사건의 속성과 시간 정보를 말뭉치에 어떻게 마크업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텍스

트의 시간 정보에 대해 2009년에 제정된 ISO-TimeML이라는 국제적 표준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연구는 ISO-TimeML을 한국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이다. 사건의 속성을 주석하기 위한 체계와 시간 표현의 유형과 속성, 시간 관계의 분석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이 향후 실제 말뭉치 구축으로 이어져 한국어 타임뱅크(TimeBank)가 완성된다면 자연 언어 처리와 언어학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자료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말뭉치 자료는 전산화를 기본으로 한다. 따라서 현대어 자료든 고어 자료든 자판을 통해 입력이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먼저 『알타이 언어 텍스트 자료의 분석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최운호)는 알타이 언어 사용 지역에서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한 언어 자료와 현지 조사 과정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데이터로 구축하고 체계적으로 문서화하는 과정을 소개하였다. 국립국어원에서는 '국어사전 비표준 문자 표준화 자료 구축' 사업을 진행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과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의 웹 사전이 인터넷상에서 원활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152개의 한자를 한국 표준으로 만들어 이를 대상으로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마지막으로 말뭉치 언어학의 기초와 통계 분석을 위한 2개의 단행본이 출판되었다. 강범모의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개정판)은 컴퓨터를 이용한 언어 연구의 기초를 설명한 책으로 빈도, 용례, 연어, 텍스트 부호화와 문서 표준, 하이퍼텍스트 등을 다루었다. 『언어학자를 위한 통계 분석 입문: 언어학 연구 방법론』(Sebastian Rasinger 지음, 박명관・김선웅・김유희 옮김)은 『Quantitative Research in Linguistics: an Introduction』의 번역본이다. 이 책은 통계 이론에 대한 선행 지식이 없는 사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쓰였다. 실제 언어학 데이터를 예로 들어 샘플링과 설문지 코딩, 산포, 가설 검정 등을 다루었기 때문에 언어학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자료에 이용이 가능한 3가지 검정 방법을 소개하였다.

2.2. 말뭉치 기반 국어학 연구

말뭉치 기반 국어학 연구는 문법론과 의미론, 어휘론, 텍스트 언어학, 문체론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2.1. 문법론

"구어 · 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방향과 자료 구축의 문제"(배진영 · 손혜옥 · 김민국)는 지금까지의 구어 문법 연구의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구어 문법을 기술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말뭉치를 문어와 구어로 이분하지 않고 사용역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Biber 외(1999)[2]의 연구와 같은 방법으로 말뭉치를 4개의 영역(대화, 소설, 신문, 학술 산문)으로 구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를 대상으로 사용역 말뭉치를 구축할 때의 문제점을 다루었다.

"언어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복합 명사 구조 분석"(김동성)은 '21세기 세종계획'의 형태소 분석 말뭉치를 대상으로 하여, 3개의 명사가 연쇄된 어휘 군집을 추출하여 내적 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연어 측정을 위한 여러 가지 통계 기재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PMI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복합 명사의 구조가 내심 구조로 확인된 유형은 다시 핵-수식, 술어-논항 구조로 구분하였다. 복합 명사의 구조 분석은 명사구 합성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로, 정보 검색에서 색인어를 작성할 때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으며 형태론적 합성어 분석에서도 중요한 논의가 된다.

"A Corpus Analysis of Grammatical Evolutions of Korean Positive Causal Expressions"(안미경 · 김성아)는 고빈도 현상이 문법화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적 담화 표지인 "덕분에, 덕에"의 용례를 분석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용례는 '21세기 세종계획'의 균형 말뭉치를 이용하였으며 용례 검색에는 UNICONC를 활용하였다.

---

2) Biber 외(1999). *Longman Grammar of Spoken and Written English*. Longman.

2.2.2. 의미론

의미론 분야에서는 다음의 논문이 유일하다. “말뭉치 분석을 통한 ‘멀다’의 의미와 용법 연구”(김해연)는 인지 언어학의 은유 이론을 논의하기에 앞서 그 기초 작업으로 말뭉치의 용례를 분석하였다. ‘21세기 세종계획’의 말뭉치를 사용하였는데, ‘멀다’의 말뭉치 용례 830회를 분석한 결과 56.6%가 물리적·실재적 거리를 나타내지만, 은유적으로도 확대되어 사용됨을 밝히었다. 은유적 의미 확대로는 추상적 개념·상태, 친인척 또는 사회적 친분, 특정 기준·수준·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대상·목표까지의 거리 등이 있다.

2.2.3. 어휘론

어휘론 분야에서는 대규모 말뭉치 빈도 변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통시적인 빈도 수치의 변화를 밝힌 자료는 언어학적으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문학이나 사회학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다. “명사 빈도의 변화, 사회적 관심의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2000-2009]”(강범모·김흥규)는 이를 입증해 주는 연구로서 신문 텍스트를 통하여 사회적 관심의 유행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명사 빈도의 증감을 통하여 사회적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언어의 사용이 바로 그 단어가 지시하는 사물이나 그 단어의 개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4억 어절에 이르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신문 말뭉치를 사용하였고, 네트워크 이론을 도입하여 공기 명사의 의미적·개념적 연관성을 파악하는 작업도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대규모 말뭉치의 분석은 아니지만 개별적인 어휘 조사로 이루어진 연구도 있다. 먼저 “신문 광고 어휘의 계량 연구: 개화기 국문 신문을 중심으로”(서은아)는 개화기 광고 어휘의 계량적 연구를 위하여 4개의 개화기 신문에서 286건의 광고를 말뭉치로 입력하고 품사 주석하여 품사별, 어종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오규원 초·중기시의 어휘의 통계학적 접근: 품사를 중심으로〉(유종헌)는

현대 시 연구에서 실증적 자료의 검토를 통한 시인의 시 시계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 연구는 오규원의 초기 시와 중기 시를 각각의 말뭉치로 구축하여 시어의 품사별 빈도와 의미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명사, 대명사, 용언, 수식언의 변화 경향을 파악하였는데, 이를 통해 작가의 시가 추구하는 세계관의 변화를 시기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2.2.4. 텍스트 언어학과 문체론

텍스트 언어학 연구로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분석한 "말뭉치를 이용한 신문 표제어 연구"(조영순)가 있다. 신문의 표제(기사 제목)는 언어학과 언론학 등에서 별도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연구될 만큼 독특한 언어 형식을 보이는 텍스트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문 말뭉치에서 표제를 추출하여 체언, 용언, 수식언의 사용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기호 사용의 양상과 효과, 기능어가 생략되거나 보존되는 환경, 종결 형태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한국 어문학의 경계와 정보학"(고창수)은 한국 어문학과 인접 학문들과의 경계를 논의하면서 언어 정보 처리의 간학문적 특성에 대해 살폈다. 이 연구는 문학에서의 정보학의 위치와 가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2.3. 말뭉치를 이용한 응용 국어학 연구

말뭉치 기반 응용 국어학 연구는 한국어 교육과 국어 교육, 대조 분석과 번역학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특히 2011년에는 대조 분석과 번역학의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2.3.1. 한국어 교육

〈『조선어문』과 『국어』 읽기 텍스트 어휘의 계량 비교 연구: 중학교 1학년 상권을 중심으로〉(원예련)은 북한의 조선어에 익숙해진

조선족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하여 어휘를 중심으로 그 이질성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국어 교과서에 실린 어휘들을 계량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조선족의 국어 교과서인 『조선어문』(7학년)과 한국의 중학교 국어 교과서(1-1) 두 교과서에 나온 어휘의 빈도별 분포와 고빈도 어휘의 분석, 품사별・어종별 분포와 혼종어 분포 등을 살펴보았다.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과서 어휘 연구는 계속 있어 왔지만, 이 논문처럼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를 계량적으로 비교한 연구는 많지 않다.

2.3.2. 대조 분석과 번역학

학제 간 연구가 활발해지고 외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급증하면서 번역학과 대조 분석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나왔다. 또, 새로운 방법론이 개발되어 이 분야에서의 말뭉치의 활용도 다양해졌다.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 언어적 특성: 그 연원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김정우)는 말뭉치가 번역학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이를 위해 말뭉치 기반 번역학 연구사를 개관하였으며, 말뭉치에 근거한 번역문의 층위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특이점은 말뭉치를 이용한 계량적 접근에서 그치지 않고,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번역문의 정성적 조사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도를 통해 의존 명사 ‘때문’과 장형 사동 구문, 문장 접속 부사 등을 분석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선택적 명시화, 구조적 명시화, 선택적 명시화의 번역 보편소 등을 발견하였다. 마지막으로 번역문의 중간 언어적 특성을 밝히기 위해 번역 언어와 일상 언어와의 거리를 연구하였으며, 그 결과 수정 변화 규칙을 제안하여 번역문을 일상 언어에 접근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특정 영역의 대조 분석과 번역의 문제를 다룬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 먼저 번역 기법을 중심으로 전문 용어 번역 양상을 다룬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김성원・김정우)가 있고, 그 밖에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 전략”(곽은주・진실로), “코퍼스 기반으로 ‘-적’에 대한

한 · 중 대조 분석 및 활용 연구"(두도),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이승아 · 배지연),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신진원 · 박기성), 〈영한 번역에 나타난 영어의 명사 중심 성격과 한국어의 동사 중심 성격에 관한 연구〉(박혜림), 〈(A) Corpus-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Presidential Addresses(코퍼스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미국 대통령 연설문 대조 분석)〉(전기숙) 등이 있다.

말뭉치와 통계적 기법을 이용하여 텍스트의 어휘 난이도를 측정하거나 어휘적 특징을 파악하는 연구는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병렬 코퍼스와 텍스트 어휘 측정법"(조준형)은 이러한 어휘 측정을 번역학 분야에서 활용한 결과이다. 인권에 관한 협약 및 선언문을 대상으로 불한 병렬 말뭉치를 구축하여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병렬 말뭉치 내에서의 어휘들 간의 번역 대응 관계를 관찰하였다. 텍스트 어휘 측정법은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평가 연구: 프랑스 소설『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고빈도 명사를 중심으로"(조준형 외)에서도 활용되었다. 동일한 작품의 한국어 번역본 3종을 빈도수 분석, 어휘 색인, 공기어 탐색, 맥락 분석 등을 통하여 비교하였다.

2.4. 자연언어처리 연구

2.4.1. 음성 인식과 음성 합성

음성 처리에서는 전체적인 음성 인식과 합성에 대한 논의보다는 개별 영역의 음성 인식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음절 기반 인식 단위를 사용한 한국어 연속 숫자 음 인식〉(백수연)은 한국어 숫자 음이 1음절이어서 음향 모델 중 트라이폰을 사용하면 인식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절과 음절 사이에 발생하는 조음 변화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문맥 종속적인 음절인 트라이실러블을 제안하였다.

음성 합성 분야에는 운율 정보를 이용한 연구가 2편이 있다. “운율 경계 정보를 이용한 HMM 기반 한국어 TTS 자연성 향상 연구”(임기정・이정철)는 복잡한 운율 정보보다는 억양 변화를 상승, 평탄, 하강으로 구분한 운율 경계 정보를 이용하여 질의문의 패턴을 정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초분절적 운율 정보를 이용한 HMM 기반 한국어 음성 합성〉(이승욱)도 같은 분야의 연구이다.

2.4.2. 형태소 분석과 구문 분석

“형태소 분석기 사용을 배제한 음절 단위의 한국어 품사 태깅”(심광섭)은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지 않고 말뭉치로부터 습득한 확률 정보만으로 수행되는 음절 단위의 품사 태깅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자질 가중치의 기계 학습에 기반한 한국어 의존 파싱”(임수종・김영태・나동열)과 “투사성과 재탐색을 이용한 결정적 한국어 의존 구조 분석의 보정 기법”(박영민・서정연)은 의존 구문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전자는 세종 구 구조 말뭉치와 ETRI 의존 구조 부착 말뭉치를 학습 말뭉치로 이용하여 파싱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고, 후자는 결정적 의존 구문 분석에 투사성의 원칙을 이용하여 오류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CRF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심광섭)는 자동 띄어쓰기 기법을 다루었다. 띄어쓰기 처리를 일종의 레이블링 문제로 파악하여 이에 효율적인 CRF(Conditional Random Fields)에 기반한 기법을 소개하였다. CRF는 HMM(Hidden Markov Model)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주어진 입력 데이터 열에 대해 레이블 열의 확률을 이용하는 조건부 모델이다.

2.4.3. 어휘 의미망과 의미 분석

먼저 어휘 의미망에 대한 연구에는 KorLex를 이용한 “Automatic Mapping Between Large-Scale Heterogeneous Language Resources

for NLP Applications: A Case of Sejong Semantic Classes and KorLexNoun for Korean"(박흠 · 윤애선)이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자료를 통합하여 풍부한 언어 자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즉, 의미 · 통사 표지가 부착된 세종 전자사전의 정보를 자동 매핑의 기법을 이용하여 KorLex에 통합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때 이용한 통계적 기법은 χ^2, MI(Mutual Information), IG(Information Gain) 등인데, 수작업으로 매핑한 자료와 비교하여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찾아내었다.

〈온톨로지(Ontology) 기반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방법 연구〉(박종호)는 동사 의미망 구축을 위해 개념 체계에 따라 동사를 분류하고, KAIST의 코어넷 개념 체계를 바탕으로 고빈도 동사를 대상으로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개별 동사가 소속된 개념 체계 중 실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거래' 영역을 중심으로 동사 의미망을 구축하여 개별 동사의 내적 정보를 표상하였다. 〈온톨로지에 기반한 한국어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이선아)는 6천여 개의 용언 중심의 문형 패턴 사전인 Verb-OntoNet과 Noun__OntoNet을 구축하여 의미 분석에 이용하였다.

의미의 중의성 해소는 기계 번역이나 정보 검색과 같은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국어 어휘 의미망의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의 중의성 해소"(김민호 · 권혁철)는 한국어 어휘 의미망에서 중의성 어휘의 의미별 관계어를 찾고, 중의성 어휘와 이의 공기 어휘 간 연관성을 카이 제곱 통계량을 측정하여 이용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대규모 의미 부착 말뭉치 없이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의미 분석은 아니지만, 텍스트 문서를 의미적으로 분류하는 기술은 최근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되고 인터넷 문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가 활발해지는 영역이다. "한글 텍스트의 오피니언 분류 자동화 기법"(김진옥 · 이선숙 · 용환승)과 "상품평 극성 분류를 위한 특징별 서술어 긍정/부정 사전 자동 구축"(송종석 · 이수원)은 모두 텍스트에 대한 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텍스트의 긍정/중립/부정을 자동 판단하는 기법을 고안하였다. 전자는 학습 말뭉치에서 추출한 어절 빈도에 근거한 방법을, 후자는 도메인별

로 제품 특징에 대한 서술어의 의미 방향을 고려한 사전을 자동으로 구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어 비교 마이닝을 위한 비교 요소 자동 추출”(양선·고영중)과 〈한국어 오피니언 문장 분류 시스템을 위한 사전 및 구문 패턴 연구〉(안애림)가 있다.

2.4.4. 기계 번역

기계 번역은 정보화 시대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한영 기계 번역의 격 실현 연구〉(배지연)는 한국어와 영어를 대상으로 격 구현에 차이를 보이는 유형을 생략, 보조사 대치, 격 중출 구문으로 나누어 현재 통용되는 번역 시스템에서 오류 유형을 분석하고 오류 유형을 해결하기 위한 형태·통사 변형 규칙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 기계 번역 시스템의 품사 모호성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인 “실용적 영한 기계 번역을 위한 확률적 품사 결정의 확장”(김성동)이 있다.

2.4.5. 정보 검색과 검색 시스템 구축

정보 검색 분야에서는 문서 검색과 분류에 폭넓게 사용되는 키워드 추출에 관한 연구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대규모 신문 기사의 자동 키워드 추출과 분석: t-점수를 이용하여”(김일환·이도길)는 10년간 발간된 신문 기사 약 4억 어절을 대상으로 t-점수를 활용하여 특정한 영역에서 높은 빈도로 출현하는 어휘들을 자동으로 추출해 내었다. 이렇게 추출된 키워드가 보이는 특성을 주제별·연도별로 분석하였다. 신문에 드러난 10년간의 시대상을 어휘 자료로 해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언어학 연구가 사회·문화적 배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연구이다.

〈웹 사전 검색 실패어의 유형 연구: 사전학적 활용을 중심으로〉(정철)는 포털에서 서비스하는 웹 사전의 검색 실패어 자료를 분류하여, 이를 사전 등재어와 미등재어로 나누어 연구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사전 표제어를 구성할 때는 말뭉치뿐 아니라 검색 실패어를 반영해야 함을 입증하였고, 사용자의 맞춤법 오류 유형을 실증적으로 찾아내었다. 영어 외래어 표기법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온라인 질의문의 질의 초점 자동 인식을 위한 어휘 · 패턴 연구〉(심승혜)는 효과적인 질의응답 시스템의 개발을 위해 실제 온라인상에서 관찰되는 자연 언어 질의문의 형태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분석하였다. 이 외에도 "검색 의도 파악을 위한 질의어 관계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권순진 · 김원일 · 유성준), "웹 질의에 존재하는 동사구 수준의 사용자 의도 탐지 기법"(김성찬 · 김경민 · 맹성현) 등도 검색 의도 파악과 관련한 연구들이다.

"추천 키워드 및 기계 학습을 이용한 문서 분류"(김문현 · 구영현 · 유성준)는 비교 및 추천 키워드(~보다, 추천, 우위, 월등, 압승 등) 등을 활용해 추천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이 외에도 정보 검색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요소들이 특정 단위별로 수행되었다. 이에는 연어 추출에 쓰이는 다양한 종류의 단어 결합 측정 방법론의 성능을 비교 · 평가한 〈통계에 기반한 한국어 연어 결합 측정의 평가〉(이두행)와 "구문 다양성 해소를 위한 복합 명사구 색인 방법"(조민희 · 정도헌), "한국어 Hedge 문장 인식을 위한 태깅 말뭉치 및 단서 어구 패턴 구축"(정주석 외) 등이 있다.

마지막으로 검색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연구 사업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국립국어원) 사업은 사전 편찬 및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어휘 의미 정보를 정밀하게 보여 주는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과 같은 기구축 국어사전 간의 어휘 의미 연계를 모색하였다. 이 밖에도 '디지털 한글 박물관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특별 기획전 개발 사업'(국립국어원)과 '한글 문화유산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국립국어원) 사업이 진행되었다.

3. 사전학

3.1. 말뭉치와 사전

오늘날 사전 편찬에서 말뭉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므로 말뭉치와 사전과의 관계를 논의한 연구를 가장 먼저 살펴본다.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에서의 몇 문제에 대하여”(최정도)는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이 지니는 문제점을 말뭉치 구성과 저빈도어의 문제, 주석 말뭉치와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한일사전 기술 방안 연구: 문법 요소 기술을 중심으로”(김선혜 · 장승혜)는 병렬 말뭉치를 이용한 이중어 사전 편찬에 관한 논의로 연결 어미 ‘-고’를 대상으로 삼아 한일 병렬 말뭉치에 나타난 대응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일사전 기술 모형을 제시하였다. 단일어 말뭉치에 비해 병렬 말뭉치는 많은 양이 구축되지 않았으며 그 활용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는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문법 요소를 기술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3.2. 사전사와 사전 편찬사

문세영의 『조선어 사전』에 대한 평가와 논의를 다룬 연구가 2편 발표되었다. “문세영 『조선어 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박용규)는 기존 연구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당대의 사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인용하여 『조선어 사전』의 편찬 동기와 진행 과정을 상세히 다루었다. 또한 『조선어 사전』에 대한 당대의 평가와 영향, 국어사전 편찬사에서 갖는 의의 등을 기술하였다. “한글+한자(漢字) 문화 칼럼: 최초(最初)의 국어사전, 조선어 사전(朝鮮語辭典)”(이여덕)은 『조선어 사전』의 진위와 관련된 논의를 간략히 다루었다.

“‘사전연구초’의 사전학적 분석”(박형익)은 1910년에 『대한민보』에 연재되었던 ‘사전연구초’를 사전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사

전연구초'의 전문을 말뭉치로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사전연구초'는 일반 언어 사전과 달리 신문의 기사 형식을 빌렸기 때문에 사전 집필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서문에 해당하는 간략한 '사전연구설'과 '사전연구초'의 휴게를 알리는 기사 정도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한민보』에 연재한 '사전연구초'는 한국 어문 운동의 역사와 국어사전 편찬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의 설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허재영)은 국어사의 시대 구분을 재검토하고 국어사전 편찬의 역사를 다루면서 근대 국어사전 편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한국어 사전 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유현경)는 한국어 사전 편찬의 동향과 향후 전망을 기술하고 국어사전 편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현재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인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과 『겨레말큰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 국어사전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는 국어사전 편찬의 실제와 이론을 같은 지면에서 논의하였다는 점에서 사전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작업이다.

3.3. 유형별 사전 연구

3.3.1. 학습자 사전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업의 일환인 학습자 사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학습자 사전에서의 고유 명사 표제어 선정의 문제"(김선혜 · 한승규)는 모국어 사전에서는 등한시해 온 고유 명사의 표제어 선정 문제를 다루었다. 고유 명사는 학습자의 모국어로 대역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도 학습자들의 문화 습득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자 사전에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영역이다. 이 연구는 표제어의 언어적 가치, 빈도 조사, 초등학교 교과서 등재 여부, 한국어 교육 전문가의 자문 등의 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등재 유형을 살펴보았다.

“한국어 학습자 사전 뜻풀이 어휘 통제를 위한 기술 방법에 관한 연구”(원미진・한승규)는 현재 집필 과정에 있는 다국어 대역을 위한 한국어 학습자 기초 사전의 뜻풀이 어휘 통제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뜻풀이 어휘 통제란 뜻풀이용 어휘를 선정하여 표제어를 뜻풀이하는 것으로, 설명하는 말이 설명되는 말인 표제어보다 쉽도록 하는 장치이며, 주로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영어 단일어 사전에서 그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는 현재 집필 중인 표제어 중 고빈도어 3천 개의 뜻풀이를 분석한 결과 약 3천 개의 어휘군이 사용되었음을 밝히고 이 중에서 기초 어휘의 풀이말에 적당하지 않은 어휘를 대체할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의적 정도 부사의 빈도・분포・결합 관계의 분석과 그 활용: 학습자 사전의 용법 기술의 관점에서”(한영균・고은아)는 학습자 사전에서 부사의 용법 기술을 위해 “아주/너무/되게/매우”의 4가지 부사를 대상으로 말뭉치 분석을 시도한 연구이다. 정도 부사의 올바른 용법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의미만을 아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바, 사전에서 사용역과 언어 사용에 관한 지식을 기술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학습자 사전과 관련된 연구에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정의문 연구〉(홍주희)와 〈한국어 학습 사전의 화용 정보 기술 연구〉(김경은), “한-중 의성・의태어 학습 사전 모형 개발 연구”(범엽) 등이 있다.

3.3.2. 유의어 사전

언어 교육과 어휘 의미론에서 유의어는 매우 중요한데, 2011년에는 학습용 유의어 사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학습용 유의어 사전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봉미경)는 국내외 중요 유의어 사전을 비교・분석하고 유의어 사전에서의 변별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을 논의하였으며 유의어 사전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유의어 변별 기술의 모형은 연접, 중첩, 포함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밖에도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사전 개발 연구〉(맹지은)가 있다.

3.3.3. 이개어 사전

“한중 한자어 비교 사전 구축을 위한 초보적 고찰”(채춘옥)은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또는 반대의 의미로 사용되는 한자어의 특성 및 용법을 설명하기 위한 비교 사전을 제안하였다. 국어에는 한자어로 이루어졌거나 한자어를 포함하는 어휘가 69.1%에 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교 사전은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며, 중국인 학습자나 한국인이 자신에게 익숙한 한자로 그대로 옮겨 사용할 때의 오류를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영영한 사전 비교 분석”(윤서향)과 “중한사전의 품사 체계에 대한 고찰”(범기혜) 등이 있다.

3.3.4. 전문 용어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이현주 · 조동성)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한국 학술 단체 총연합회의 학술 전문 용어 정비 사업의 결과이다. 이 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진행된 1차 사업의 후속으로 진행되었다. 1차에서는 25만 용어를, 2차에서는 52만 용어를 정비하여 결과적으로 총 77만 개의 전문 용어를 정비하였다. 분야별 표준안 심의 내용과 어문 규정과 관련된 문제점, 분야 간 중복 용어 정비 방법 등과 새로운 전문 용어 표준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국방 과학 기술 전문 용어 사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활용 방안”(최중환 외)과 〈Developing an English-Korean Dictionary of Military Terminology (군대 용어 영한 사전 개발)〉(Joseph Haid) 등이 있다.

3.3.5. 웹 사전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웹 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모색”(김창일)은 국립민속박물관의 중장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의 웹 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등을 다

루었다. 이에는 표제어와 연결되는 멀티미디어의 지속적인 확대 구축, 필자에 의한 표제어 평생 관리 제도의 활성화, 콘텐츠 및 멀티미디어의 상시적인 갱신, 전자 지도의 강화, 네트워크와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투자 등이 있다. 이 밖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통 지원 체계 구축'(국립국어원) 사업도 진행되었다.

3.4. 거시 구조와 미시 구조 연구

사전에서 거시 구조란 표제어의 구성과 배열 등을 말하고, 미시 구조란 표제어의 정보 항목을 이루는 뜻풀이와 발음, 원어 정보, 어휘 관계, 용례 등을 가리킨다.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도원영・박주원 편)은 2011년에 나온 사전학 연구에서 유일한 단행본이다. 이 책은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편찬 과정에서 발표된 거시 구조에서 미시 구조 항목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연구들과 응용 언어학적 사전 연구, 사전 편찬과 관련된 문제 제기로 구성되어 있다.

3.4.1. 거시 구조 관련 연구

"국어사전의 표제어 늘리기와 '유령어' 범주의 문제"(박동근)는 유령어의 개념과 용어의 적절성 및 그 해결책 등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표제어 늘리기 현상을 한자어와 토박이말 중 웃음의 의태어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초 출현형과 출전을 밝히는 것, 신어 조사와 함께 사어 조사도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정한데로)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에서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과정을 고찰하고, 통사론적 구성이 단어화한 임시어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3.4.2. 미시 구조 관련 연구

미시 구조 관련 연구는 뜻풀이와 발음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국어의 기술”(남길임)은 궁극적인 사전 기술의 목표가 의미에 대한 총체적 기술이라는 점에서, 고빈도의 어휘적 연쇄에 대한 의미 기술을 시도하였다. 즉, n-gram을 활용하여 ‘것/거’를 포함한 5개 형태의 연쇄를 추출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 ‘것’과 ‘거’가 형태가 사용역과 장르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드러냄을 밝혔다.

“사전 메타 용어 선정을 위한 연구: ‘꼴’, ‘따위’의 의미를 중심으로”(김진희 · 한승규)는 그동안 활발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사전의 메타 용어에 대한 논의로, 고유어 메타 용어로 빈번하게 쓰이는 ‘꼴, 따위’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꼴, 따위’의 유의어들과의 변별적인 의미 양상을 공기 관계, 연접 범주, 의미 선호, 의미 운율 등 다양한 의미 관계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 밖에도 뜻풀이 기술에 관한 연구에는 “형용사의 경험주 논항 처리 방안: 심리 형용사에서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에서 감각 형용사로의 전용에 대하여”(정연주)와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한승규) 등이 있다.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 『연세 한국어 사전』을 중심으로”(김선철)는 표현적 장음화를 가장 활발하게 겪는 부류인 형용사와 부사를 대상으로 표현적 장음화 현상의 음운론적인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표현적 장음화를 표시한 유일한 사전인 『연세 한국어 사전』의 형용사 85개와 부사 42개를 관찰하고 그 분포 양상을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사전에서 발음 정보의 공시적 대표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과 구어적 현상이 사전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매우 귀중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큰사전』 고유어 복합어의 음장”(차재은)도 사전의 발음 정보와 관련된 연구이다.

3.5. 사전 단행본

3.5.1. 한국어 사전

2010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국립국어원)은 『표준국어대사전』의 50만 어휘에 신어, 실생활어, 전문 용어, 방언 등의 50만 어휘를 추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국어 기초 사전』과 이를 5개 언어로 번역하는 다국어 대역사전도 구축하고 있다. 2012년에 1단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국어 학습 사전은 제 1언어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 사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래로 꾸준히 연구되어 왔으며 그 성과물로 2006년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이 출간된 바 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10년간의 어휘 수집과 분석 과정을 거친 『(중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임형재 편)은 약 900쪽의 종이 사전으로서 듣기와 읽기 등의 이해 과정을 목적으로 한다. 표제어는 한국어로, 뜻풀이는 중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였다. 표제어를 선정할 땐 한국어 능력 시험과 한국어 교재로 구성된 기초 말뭉치를 구축하여 활용하였으며, 한국어 세계화 재단의 기초 어휘 목록과도 비교하였다. 표제어에 '이거, 뭐' 등과 같은 구어체 어휘를 추가하였다는 점이 특이하다.

3.5.2. 이개어 사전(한-외국어 사전)

이개어 사전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과 같은 중요 언어권보다는 최근 들어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한 베트남어나 인도네시아어 등과 관련된 것이 주를 이루었다.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송정남・박연관・이강우)은 4만 표제어가 수록된,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사전이다. 용례와 관용구를 풍부하게 수록하였고 동형어 구분을 위해 한자 표기를 병행하였다. 또 다른 한국어-베트남어 사전으로 『한국어-베트남어 대사전』(문예림)과 이를 축소한 포켓형 사전도 출판되었다.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사전』(정영림 편)은 1998년에 출판된 대사전을 휴대와 실용성을 고려하여 4만 표제어 규모로 축소한 사전이다. 표제어에는 시사 용어와 학술어, 전문어 등이 포함되었으며, "동티나다, 돼먹지 않다" 등과 같은 고유어 표현의 인도네시아어 풀이가 추가된 점이 특이하다.

『(한국어 학습자용) 한국어 명사 대역사전: 한국어 · 인도네시아어 · 몽골어 · 아랍어』(남지순 외)는 번역 작업에서 중요한 명사의 의미 파악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며, 한국어 전자 사전 DECO에 수록된 명사 12만 개 중 약 5,200여 개를 기초 어휘로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3개 언어 대역 작업을 수행하였다.

3.5.3. 기타 사전: 특수 용어 사전, 실용 사전

『한자 동의어 사전』(강혜근 외)은 기존 자료를 참고하여 동의적인 어휘를 의미별로 분류하여 총 327개의 중요 항목을 선정하였다. 평균 4~5개의 어휘가 한 항목을 이루는데 많은 경우는 12개까지 있기도 하다. 제시된 어휘 항목에 대해 공통 개념을 먼저 밝히고, 다음으로 각각의 차이와 개별 글자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예문도 제시하였다.

『경기도 역사 지명 사전』(동아시아 역사연구소 편)은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 등의 실용적인 면에서도 참고가 되도록, 현재의 지명과 더불어 과거의 지명도 추적하여 일정한 항목 구성에 따라 해설을 붙인 사전이다. 경기도의 지명 총 1,184개를 수록하였다.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박호석 편)은 '단발마'와 같이 불교에서 유래된 상용어 630개와 불교 용어 유래 지명, 사찰 용어 유래 지명을 수록한 사전이다. 저자는 우리말의 어원을 바르게 알리고, 잘못 쓰이고 있는 용어를 바로잡는 것이 목적임을 밝혔다. 표제어, 한자, 뜻풀이, 어원, 용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개화기 시가 사전』(송기한 · 김교식 · 박태옥)은 개화기에 발표된 모든 시가를 대상으로 어휘를 추출하고 주석을 붙인 사전으로, 표제어마다 뜻풀이, 용례, 출전 등을 보였다. 이는 당대에 사용되

었던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사건이나 풍물, 제도, 지리, 인명 등을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한 작업이다.

『옛 편지 낱말 사전: 선인들의 간찰 읽기』(하영휘 외)는 조선 사회의 생생한 모습이 간직되어 있는 간찰을 대상으로 하여 어휘를 추출하고 이를 해석한 사전이다. 표제어, 뜻풀이, 유래, 예문, 출전, 참고어 순으로 정리되어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관혼상제, 의식주, 기후, 질병, 선물, 범죄 등 당대 사회와 문화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전통문화와 조선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5개 국어 한/영/프/중/일로 보는) 한국 음식 용어 사전』(전희정)은 한국의 전통 음식 용어를 주요 언어 5개로 대역한 사전이다. 표제어는 음식 용어와 요리명 1,300개로 되어 있으며, 각국의 대역어와 함께 조리법을 풀이하였고, 재료와 음식 사진도 들어 있다. 이는 한국 음식의 세계화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만하다.

이 밖에도 2000년에 출간된 『한글 글꼴 용어 사전』(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한글 글꼴 개발 연구원)의 개정판이 나왔다.

4. 맺음말

지금까지 2011년의 국어 정보학과 사전학 분야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국어 정보학 분야에서는 전통적인 언어 처리 기술이 발달하였다기보다는 말뭉치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데이터의 유형이 다양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말뭉치 기반 국어학, 응용 국어학 연구에서는 다양한 말뭉치가 사용되었고, 새로운 유형의 말뭉치와 새로운 주석 유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것이 특징이다. 연구 분야별로는 대조 분석과 번역학 분야에서 말뭉치가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자연 언어 처리 분야는 음성 처리, 형태소 분석, 구문 분석보다는 어휘 의미망이나 온톨로지를 이용한 연구, 정보 검색, 데이터 마이닝 기술이 활발하게 연구되었다. 이 외에도 자연 언어 처리 분야에

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철자 검사, 문자 인식, 각종 시스템의 개발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필자의 힘이 닿지 않아 다양하게 살펴보지 못한 점이 아쉽다.

사전학 분야에서는『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사업의 일환으로 학습자 사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으며, 다양한 주제의 실용 사전이 많이 출간되었다.

Ⅲ. 국어학 관계 문헌

1. 분야별 논저 목록

국어 정책

〈단행본〉

강범모, 『언어: 풀어 쓴 언어학 개론』, 한국문화사
강영철 글·투리아트 그림, 『우리말의 달인: 맞춤법 편』, 북스
강영철 글·투리아트 그림, 『우리말의 달인: 아름다운 우리말, 북한말 알기 편』, 북스
고길섶·서민정·이연숙·이효석·최일·허재영, 『민족의 언어와 이데올로기』, 박이정
국립국어원, 『2011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연구 책임자: 박재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 국어 정책 통계 포털 구축 완료 보고서』(연구 책임자: 정재훈),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1』(연구 책임자: 민현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2』(연구 책임자: 민현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공문서 쓰기 길잡이(안)』(연구 책임자: 박지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1회 '호금도'인가 '후진타오'인가: 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2회 '부산'은 Busan인

가 Pusan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3회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4회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5회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 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6회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 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 논문집』(연구 책임자: 위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연구 책임자: 박재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교재』(연구 책임자: 김종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교재』(연구 책임자: 김종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연구 책임자: 김문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연구 책임자: 김종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연구 책임자: 박지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연구 책임자: 조원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연구 책임자: 남영신),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연구 책임자: 김문오),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 결과 보고서』(연구 책임자: 장경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 개발』(연구 책임자: 박재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연구 책임자: 이운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 언어 예절』(연구 책임자: 박주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연구 책임자: 박주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행정 기관 보도 자료 작성 지침』(연구 책임자: 민현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Language Policies in the Worl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연구 책임자: 조원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2011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1』(연구 책임자: 구현정), 국립국어원·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국립국어원·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2012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2』(연구 책임자: 구현정), 국립국어원·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국립국어원·이화여자대학교, 『문장 부호 지침서(안)』(연구 책임자: 임동훈), 국립국어원·이화여자대학교
국립국어원·KBS한국방송, 『2011 청소년 언어 개선 활동 사업 보고서』(연구 책임자: 박현우), 국립국어원·KBS한국어진흥원
국립국어원·KBS한국어진흥원,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연구 책임자: 김한샘), 국립국어원·KBS한국어진흥원

국어국자품격진흥동아리 편저, 『국어 국자의 품격』, 국어국자품격진흥동아리
권오운, 『우리말 소반다듬이: 우리 소설을 망친 잘못된 문장과 단어 바로잡기』, 문학수첩
김도훈, 『문장 부호의 번역학: 영어-한국어 문장 부호 비교와 영어 문장 부호의 번역 전략』, 한국문화사
김미경, 『(영어학자의 눈에 비친) 한국어의 힘』, 소명출판
김우영, 『(우리말의 달인 나은 김우영의) 한국어 이야기』, 푸른사상사
김원길 지음·국가상징물연구소 기획, 『IT 타이거 (국어 한국어)! 문화는 국격이다: 대한민국 7대 국가 상징물 한글 이야기 (5)』, 관성문화사
김진규, 『국어 정서법의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김진우, 『언어와 뇌: 생물 언어학의 전망』, 한국문화사
김희숙, 『21세기 한국어 정책과 국가 경쟁력』, 소통
문화체육관광부 편, 『성씨의 로마자 표기 정책 마련 연구: 최종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국어 책임관 길잡이』, 문화체육관광부
박창원, 『(글누리의 모음) 한글 박물관』, BM책문
박천서, 『(한글과 한자 두 날개로 훨훨 나는) 힘 있는 영상 국어』, 역락
서상준·손춘섭·양영희, 『국어의 이해와 탐구』, 역락
양병선, 『(영어 철자와 발음 기준) 국어의 음절 단위 영문 로마자 표기법』, 한국문화사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엮음, 『인문 언어학의 전망과 과제: 언어·문화의 다면적 접근』, 박이정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편, 『호모 리테라투스: 문자와 사람』, 연세대학교 출판부
우리말로 학문하기 모임, 『우리말로 학문하기의 날갯짓』, 채륜
은하출판사 편집국, 『(핵심) 언어의 이해: 교양 1』, 은하출판사
이익섭, 『국어학 개설』, 학연사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편, 『전국국어문화원 2010년도 사업 백서』,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정종수, 『국어 어문 규정 문제집』, 태학사

초아, 『언어 민주주의의 희망을 깨우다: 고등학생 우리말 지킴이 초아』, 아름다운재단
최종규 글·호연 그림, 『10대와 통하는 우리말 바로 쓰기』, 철수와영희
최흘 엮음, 『우리말 바르게 말하기 사전: 방송인·교사·연기자·강연자들을 위한 필독서』, 현음사
한재영·안경화·박지영·권순희, 『언어학 용어 해설』, 신구문화사
허웅 지음·권재일 엮음, 『언어학 개론』, 지식을만드는지식
허재영, 『일본어 보급 및 조선어 정책 자료』, 경진
허재영, 『일제 강점기 어문 정책과 어문 생활』, 경진
허재영, 『조선 교육령과 교육 정책 변화 자료』, 경진
황명진, 『이주자 사회 통합 정책 교육 3: 이주자의 사회 참여』, IOM이민정책연구원

〈학위 논문〉

고여운, 〈한글의 세계 문자화 방안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김대영, 〈한글의 일본어 표기법에 관한 고찰: 수도권 지하철 역명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숙, 〈전후 일본의 국어 개혁에 관한 연구: 국어 개혁론자와 국어심의회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화, 〈국어 어문 규정에 어긋난 표기의 실태: 2010년 개정 중학교 1-1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진, 〈재미 한글학교 교육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교육 주체 요구 분석〉,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김희선, 〈국어 능력의 개념과 평가 문항 분석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남택승, 〈국어 의식 향상 방안 연구: 외래어·외국어 사용 문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노유정, 〈일본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음식 표기 조사 연구: 명동 일대 음식점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류이현, 〈수요자 중심 시각에서 결혼 이주 여성 지원 정책 분석: 한국

어 교육 서비스를 중심으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박샛별, 〈남북 언어 통합 사전 편찬을 위한 어문 규범 연구: 두음 법칙 표기와 사이시옷 표기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박재경, 〈일본어 고유 명사의 한글 표기 실태에 관한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철린, 〈한국어 교육용 금융 기본 어휘 선정 연구: 명사 어휘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석춘녀, 〈한글 맞춤법과 조선말 맞춤법의 비교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소뢰, 〈조선 시대 역학서의 만문 한글 표기법〉,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규범, 〈국어 규범 교육을 위한 '표준 발음법'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이명숙, 〈두음 법칙과 한자의 한글 표기〉,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정, 〈상품 이름 실태 조사를 통한 국어 순화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임동현, 〈1930년대 전반기 민족어 규범 형성과 철자법 정리·통일 운동〉,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지예, 〈한·중 외래어 표기 대조 연구: 영어, 불어, 독어 인명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정혜인, 〈한글 조합 이모티콘의 조형적 특성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대학원(석사)
최정민, 〈자국어 해외 교육 정책: 프랑스·영국·중국·한국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석사)
Bui Thi Ngoc Bich,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어문 규정 대조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남욱·박재현, "공공 언어의 수준 평가를 위한 진단 지수 개발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고석주, "중국어 고유 명사 외래어 표기법에 대하여", 한글 293, 한글학회

곽경, “외국어 표기를 위한 방점 한글 및 세 방점 한글 글꼴”,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구본관·오현아, “외래어 표기 규범에 대한 국어 교육적 고찰”,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권재일, “국어 연구의 응용 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김선정·장근영, “청소년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 방안: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김순녀, “우리말 규범의 어제와 오늘”,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인균, “국어 문장 부호에 대한 반성적 접근”, 시학과 언어학 21, 시학과 언어학회
김진표, “공청회 특집: 한자 교육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을 위해서 필요”,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창진, “일본어·중국어 외래어 표기법의 폐기 필요성”,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태경·장경희·김정선·이삼형·이필영·전은진,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민현식, “공청회 특집: 국어 정책과 한자 문제의 해결 방안”,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덕유, “국어 어문 규정의 두음 법칙 위계화 연구”,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성렬, “한글+한자 문화 칼럼: 국립국어원 주최 “국어 정책 토론회”에 대한 소감”, 한글+한자문화 14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수빈,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과 『조선어 독본(朝鮮語讀本)』: 4차, 7차 교육령기 『조선어 독본』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 변화”,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용찬, “외래어 표기법 해설: 정의와 표기 원칙을 중심으로”, 나랏말씀 26,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정규, “국어 띄어쓰기 규정의 검토와 개선안 연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정규, “올바른 띄어쓰기 규정의 정립을 위한 시론”,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박진규, “조기 유학과 귀국 후 언어 적응”,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진수, “다언어 상황과 문화 공존의 방식: 언어 국가주의·언어 제국주의를 넘어서”, 아시아문화연구 24,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변재일, “공청회 특집: 한자 교육 방법에 대한 체계적 논의 필요”,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성광수, “한자 문화권 내 자형 통일을 촉구하며”, 한글+한자문화 14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성상환·한광훈, “도서 지역 결혼 이주 여성의 언어문화 실태 조사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송월주, “한자 교육과 전통문화: 불교계에서는 한자 교육이 절대 필요”, 한글+한자문화 14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신지영, “음운론과 어문 규범”,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신호철, “문장 부호의 재개념화와 설정 기준”, 국어교육 135, 한국어교육학회
양명희·강희숙, “초·중·고 학생들의 욕설 사용 실태와 태도에 대한 연구”,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양순임, “사잇소리 현상과 사이시옷 표기에 대하여”, 한글 293, 한글학회
우한용, “국어국문학의 경계와 융합”,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윤석민, “인문학으로 새 지평 열기: 언어학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이관규, “2011년 한국 교육 국제 학술회의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방향”,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광석·김연수, “국어 발전 기금 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이규항, “공청회 특집: 한자는 한자이다 -국어는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는 언어이다”,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기호, “공청회 특집: 한자 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동석, “법령 별표 및 서식의 우리말 문제점과 개선 방안”, 어문논집 64, 민족어문학회
이동석, “법령 별표 및 서식의 우리말 오류에 대하여”,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한국중원언어학회
이동석, “현행 사이시옷 규정과 관련된 몇 문제”, 민족문화연구 54,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이동석·양세희, “국어 문장 부호 규정의 몇 가지 논점: 외국 문장 부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병선, “『한자 교육 기본법』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한글+한자문화 14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봉원, “1960년대 국운회 학생 활동이 박정희의 한글 전용 정책에 끼친 영향: 은상, 한갑수의 중간 역할을 되새기면서”, 한국어정보학 13-1, 한국어정보학회
이상규, “『국어 기본법』에 근거한 『외래어 표기법』의 문제”,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이성영, “2011년 한국 교육 국제 학술회의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 교육: 국어 교과서 정책의 과제”,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종찬, “외국의 인명 지명 표기에 대한 하나의 의견”, 한글+한자문화 14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준석, “공청회 특집: 한자 기본법의 필요 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현복, “국제 한글 음성 문자의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표기”, 동아문화 4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이홍식, “로마자 표기법에 대하여”,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장은영, ““한국어를 배워야 하나요” 계승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관한 다중 사례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전은진·이삼형·김정선·김태경·이필영·장경희, “문자 언어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실태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정경일, “번역 표기의 일관성과 로마자 표기”,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정준섭, “해암과 국어 교육 정책”,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태린, “국가 브랜드와 한국어 교육 정책”, 한글 294, 한글학회
진용옥, “1969년 광화문 창작 현판의 저작 인격권과 원상회복 1)에 대하여”, 한국어정보학 13-1, 한국어정보학회
천경록, “2011년 한국 교육 국제 학술회의 각국의 자국어 정책과 국어교육: 국어과 교육 과정 정책 분석”,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형용, “전문 용어로서의 문장 부호의 명칭에 대하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한명희, “당하고 나서야 후회할, 화급한 현실도 못 보는 어문 정책”, 한글+한자문화 145,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허재영, “국어 표기 규범화 과정에서 나타난 ‘역사적 철자법’의 성격”,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홍일식, “공청회 특집: 한자 교육의 당위성과 역사의식”,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황경수, “신문 언어의 오류 양상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황경수, “어문 규정 실태에 대한 고찰: 한글 맞춤법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황용주, “한국의 언어 관리 정책: 공공 언어 개선 정책을 중심으로”,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황우려, “공청회 특집: 한자 교육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Chai, Myong-Hi, “Presenting Korean Personal Names in International Contexts: Focusing on the Cases of Other Countries”,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Kim, Sang Tae, “Korean Graphemics and Korean Orthography”, 언어학 19-4, 대한언어학회

〈기타〉

강현철,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법률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강현화,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전문 용어의 국어화”,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고성환,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국어 순화의 역사와 전망”,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구법회, “사이시옷 표기법과 사이시옷에 대하여”, 말과 글 127, 한국어문기자협회
구법회, “한글의 우수성과 우리 말글의 세계화 방안 (2)”, 한글새소식 467, 한글학회
김만식, “‘아울러 이르는 말’과 가운뎃점(·)”,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김영환, “한자 폐지의 큰 뜻: 비판적 역사 인식을 위하여”, 한글새소식 468, 한글학회
김하수,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국어 순화의 비판적 대안”,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김하수,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말과 글 129, 한국어문기자협회
김형배, “공공 언어, 이대로 둘 것인가”, 한글새소식 469, 한글학회
민현식, “[특집 1: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국립국어원 스무 돌의 성과와 발전 방안”,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박용찬,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누리꾼 참여형 국어 순화 방식의 성과와 개선 방향”,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박창원, “[특집 1: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국어 정책을 위한 제언”,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성낙수, “사회 통합 매체로서의 한국어와 한글의 역할”, 나라사랑 120, 외솔회
성낙수·이관규·조장희·최인호·황영심, “지상 회담: 현행 『한글 맞춤법』, 이대로 좋은가?”, 한글새소식 465, 한글학회
송향근, “[특집 1: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국립국어원과 한국어

교육”,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이관규, “[특집 1: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표준어 교육의 실태와 방향”,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이동석,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국어 순화 결과 분석 및 방법론 제언”,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이동석, “‘효과’의 발음에 대하여”, 말과 글 127, 한국어문기자협회
이병갑, “‘사과 한 개’와 ‘한 개의 사과’”,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장소원, “[특집 1: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공공 언어 개선 및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장소원, “[특집 1: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표준어 규범 영향 평가의 결과”,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조남호, “한국의 언어 정책”,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조남호·민현식·박창원·송향근·장소원·김정숙·남영신·한재영, “[특집 1: 국립국어원의 성과와 전망] 국립국어원이 나아갈 길”,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조항록, “다문화 가족 관련 법령·제도의 검토와 개선 방안”, 나라사랑 120, 외솔회
지제근, “[특집: 국어 순화 방법론 모색] 의학 용어 순화의 실태와 문제점”, 새국어생활 21-2, 국립국어원
최경봉, “[특집 1: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최혜원, “[특집 1: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방향: 복수 표준어 발표의 경과와 의의”,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한재영, “[특집 1: 언어 현실과 표준어 정책] 외국의 표준어 정책”, 새국어생활 21-4, 국립국어원
홍현보, “국어 기본법과 한자 병용 문제”, 한글새소식 468, 한글학회

국어 교육

〈단행본〉

강연호 외 지음·자기표현과 글쓰기 편찬위원회 엮음, 『(지식 기반 사회의) 자기표현과 글쓰기』, 경진
건국대학교 글쓰기연구회 편, 『글쓰기의 기술: 문화편』, 조율
고인환 외, 『나를 위한 글쓰기: 후마니타스 칼리지 기초 교과』,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교육과학기술부, 『(2009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 과정 적용을 위한) 교과용 도서 집필 기준: 국어, 도덕, 역사, 경제』, 교육과학기술부
국립국어원,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1』(연구 책임자: 권순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2』(연구 책임자: 권순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3』(연구 책임자: 권순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연구 책임자: 권순희),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교재 2011』(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 2011』(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제5회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자료집』(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한국어문화연구소,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통계표 및 설문지』(연구 책임자: 김경령), 국립국어원·한국어문

화연구소
국립국어원·한국어문화연구소,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연구 책임자: 김경령), 국립국어원·한국어문화연구소
국립국어원·SBS,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연구 책임자: 박미영), 국립국어원·SBS
국사편찬위원회, 『개화기의 교육』, 국사편찬위원회
군정청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1기 『중등 국어 교본』 (상), (중), (하)』, 역락
권재술·손천택·이성흠, 『학문적 글쓰기의 이해』, 교육과학사
김돈·고원·김건우·김세령·이수곤, 『대학 글쓰기와 의사소통』, 아카넷
김동우, 『이공계 글쓰기 노하우』, 생능출판사
김병섭·박흥식·김준기·김태일·이창길·정진우·한승준 공편, 『학술 원고 작성 매뉴얼』, 대영문화사
김보일·고흥준 씀·마정원 그림, 『(사춘기) 국어 교과서: 생각을 키워주는 10대들의 국어책』, 작은숲
김승종·김병덕·김수정·이하나, 『테크니컬 글쓰기』, 한올출판사
김승종·이연숙·김영범·한용국, 『설득과 말의 기술』, 한올출판사
김영채, 『독서 이해와 글쓰기』, 교육과학사
김오식, 『과학 기술계 글쓰기』, 홍문관
김용구·남기탁·이대범·이효숙·최영자·최홍렬, 『(인문학도를 위한) 인문학 말하기와 글쓰기』, 북스힐
김윤식, 『혼신의 글쓰기, 혼신의 읽기』, 강
김종록·이관희, 『과학 글쓰기 전략: 이공 계열 학생들을 위한 실용 글쓰기』, 박이정
김종철, 『글쓰기가 삶을 바꾼다』, 21세기북스
김중신, 『(이공 학도를 위한) 글쓰기 논술 교재』, 수원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김창완, 『좋은 글 바르게 쓰기: 글쓰기 기초 체력 다지기 10단계』, 지혜서가
김해식, 『(가장 기본적이고 실용적인) 글쓰기 특강』, 파라북스
나사렛대학교 교양국어 교수진, 『(움직이는) 읽기 쓰기』, 보고사

대전교육연수원,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중등 국어과 수업 전략과 기법 직무 연수 2011.1.3-7』,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연수원,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중등 독서 논술 직무 연수 2011.1.3-7』, 대전교육연수원
대전교육연수원, 『(교원 능력 개발을 위한) 초등 국어과 수업 전략과 기법 직무 연수 2011.1.10-14』, 대전교육연수원
르 클레지오·가오싱젠·김우창 외, 『세계화 속의 삶과 글쓰기 〈2011년 제3회 서울국제문학포럼〉 논문집』, 민음사
마치다 저·허재영 해제, 『일선어학교범』,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2기 『중등 국어』 1, 2, 3』,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3기 『중등 국어』 1, 2, 3』,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3기 『중등 국어』 4, 5, 6』,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4기 전시기 『고등 국어』 1-Ⅰ, 1-Ⅱ, 2-Ⅰ, 2-Ⅱ, 3-Ⅰ, 3-Ⅱ』,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4기 전시기 『중등 국어』 1-Ⅰ, 1-Ⅱ, 2-Ⅰ, 2-Ⅱ, 3-Ⅰ, 3-Ⅱ』,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5기 전후 『고등 국어』 Ⅰ, Ⅱ, Ⅲ』, 역락
문교부 편·허재영 해제, 『제5기 전후 『중학 국어』 1-Ⅰ, 1-Ⅱ, 2-Ⅰ, 2-Ⅱ, 3-Ⅰ, 3-Ⅱ』, 역락
박건숙, 『쓰기 교육을 위한 ⓒ논술 프로그램의 구현과 실제』, 노드미디어
박영목, 『국어과 교수 학습 방법 연구』, 박이정
박인찬·구연상·구자황·김병구·김병길·박승억·박영욱·박정일·서정혁·신희선·이광모·이명실 외, 『글쓰기와 읽기』, 경문사
박재현, 『설득 화법 교육론』, 태학사
박종석, 『(박종석의) 글쓰기 기술』, 이담북스
박현이·고영진·김정숙·김화선·남기택·오연희·오홍진·유경수·한상철, 『글쓰기 교육과 문학적 글쓰기』, 푸른사상
배종훈·박상은·이경원 집필·문지은 연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 국어 문법 교과서』, 메가북스
배학수, 『누구나 쉽게 따라 하는 글쓰기 교실』, 소울메이트

사단법인 국어문화운동본부,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한 방송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연구 책임자: 장소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강대학교 교양국어 교재편찬위원회 편저, 『읽기와 쓰기』, 서강대학교 출판부
성정일, 『어린이 훈민정음: 어휘력·맞춤법·띄어쓰기·받아쓰기·발음·원고지 사용법 5-2』, 시서례
성정일, 『어린이 훈민정음: 어휘력·맞춤법·띄어쓰기·받아쓰기·발음·원고지 사용법 6-2』, 시서례
손주일·한길·이경수, 『(사회 과학을 위한) 글쓰기와 말하기』, 북스힐
신승용, 『(국어사와 함께 보는) 학교 문법 산책』, 태학사
안숙원·김시윤, 『글쓰기와 글 치기』, 굿모닝
양순임, 『말소리: 학교 문법의 이해』, 월인
양정호·김윤선·육민수·김창원·이봉호, 『글쓰기의 원리와 실제』, 월인
유임하 편, 『교양인의 화법과 대학 글쓰기』, 역락
유임하, 『(고전과의 대화) 읽기와 글쓰기: 동서양 고전으로 배우는 논술의 31가지 핵심 주제들』, 역락
이성준, 『글쓰기의 이해와 활용: 글쓰기 기초와 각종 글쓰기 방법을 실례를 통해 정리한다』, 태학사
이정자·한종구, 『사고와 표현』, 한올출판사
임성규 외, 『새 초등 국어과 교육론』, 교육과학사
임승수, 『글쓰기 클리닉: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적 한 방』, 비즈니스북스
장윤정, 『(중학교부터 시작하는) 언어 영역: 중1에서 고3까지 언어 영역 자기 주도 학습법』, 성안당
전용오·정문권·김화선·한상철, 『(다문화 시대의 소통을 위한) 바른 글쓰기: 인문·사회 계열 편』, 창과현
전재강·윤천근·한경희, 『(신세대를 위한) 발표와 토론: 논리적인 사고력 함양의 비결』, 박이정
준석·은서와 함께 고경태, 『글쓰기 홈 스쿨』, 한겨레
채석용, 『논증하는 글쓰기의 기술: 성공적인 논증적 글쓰기 비법 43가지』, 소울메이트
최명환, 『글쓰기 원리 탐구』, 지식산업사

최숙기, 『(중학생의 읽기 발달을 위한) 읽기 교육 방법론』, 역락
최웅·정금철·함복희·김복순·반지영, 『공학 글쓰기와 말하기』, 북스힐
최형용·김수현·조경하, 『(열린 세상을 향한) 발표와 토론』, 박이정
태평양저널 편집부 편, 『(상상) 한글 쓰기: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 주는 교재: 나라 사랑, 한글 사랑 1-1』, 태평양저널 편집부
태평양저널 편집부 편, 『(상상) 한글 쓰기: 올바른 언어, 습관을 길러 주는 교재: 나라 사랑, 한글 사랑 2-1』, 태평양저널 편집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0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국어』(연구 책임자: 김미경),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CURRV 모형에 기초한 국어과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고찰』(연구책임자: 김영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논술연구회, 『논술 지도의 원리와 실제: 인문계-입문 3』,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학전형지원실
한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재편찬위원회, 『우리말·글의 이론과 실제』, 한남대학교 출판부
한현종 편저, 『국어 문법 기출 해설집』, 열린교육
허금주, 『글쓰기의 이론과 실제』, 한국문화사
허재영, 『나는 국어의 정석이다: 5천만 문장 강화를 위한 국어 사용 설명서』, 행성:B잎새
황경수, 『글쓰기를 위한 우리말 좋은 글』, 청운

〈학위 논문〉

가은아, 〈쓰기 발달의 양상과 특성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박사)
강영현, 〈중학교 13종 『생활 중국어』 쓰기 영역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용운, 〈Egan의 스토리텔링 모형에 근거한 국어과 수업 모형 개발〉,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은지, 〈한국인 고등학생의 요약문 쓰기에 있어서의 어휘 지식의 역할〉, 서울대 대학원(석사)
강지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을 통한 한자 교육: 국

어(하) 교과서를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강지혜, 〈문법과 작문의 통합 지도 방안 연구: 논술문에 드러난 문법 지식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강희진, 〈읽기 전 활동을 통한 읽기 지도 방법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고미현, 〈국어과 교육 과정과 교과서의 연계성 연구: 제7차 교육 과정과 10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고보현, 〈매체 언어 교육 방안 연구: 7학년 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연민,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표현력 신장 방안 연구: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이순, 〈동요 노랫말 바꾸기 활동이 지적 장애 학생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정은, 〈고등학생의 높임법 사용 실태에 따른 지도 방안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곽고운, 〈디지털 교과서 활용 교수·학습 활동 유형을 적용한 초등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곽유정,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문 규범 교육 방안〉,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정한,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장애 관련 내용 분석: 2007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구영산, 〈초등 국어 수업 담화에서 불연속 통어의 격률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구자윤,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교육 과정 반영 양상 비교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중학교 1학년 쓰기 단원을 중심으로〉, 경남대 대학원(석사)
구혜미, 〈생각 모으기 활동을 통한 쓰기 학습의 효과〉,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권미정, 〈고등학생의 연결 어미 지도 방안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권윤정, 〈국어과 교육 과정 '음운 영역'의 교과서 반영 양상에 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주연, 〈신문 텍스트를 활용한 거시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지현, 〈고등학교 국어 과목 내 문법 단원 분석〉, 부산대 대학원(석사)
권지현, 〈중학생 학습자 수준에 따른 문맥 중심 어휘 지도법의 효과성〉,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춘화, 〈초등학생을 위한 단계별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권혁선, 〈균형적 읽기 게임 놀이 프로그램이 입학 전 아동의 읽기 능력과 음운 인식 읽기 태도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대 대학원(석사)
권현숙, 〈한국의 '국어'와 중국의 '조선어문'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읽기 교과서의 체제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권화영, 〈국어 문법 교육의 개선 방향 연구: 보어 설정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권회연, 〈읽기 장애 아동의 음운 인식 및 명명 속도와 읽기 능력 간의 관계〉, 공주대 대학원(박사)
금현정,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국어 교과서 반영 양상 연구: 7학년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가영, 〈영상 매체 비평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육: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미, 〈한글 교육을 위한 유아 그림책용 활자 꼴 개발 연구〉, 서울여대 대학원(석사)
김경아, 〈수준별 수업형 국어과 교과 교실제 운영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나연, 〈고등학생의 종이 글 읽기와 컴퓨터 글 읽기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남희, 〈겹받침 발음의 사용 실태와 교수-학습 방안: 서울 지역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도영, 〈국어과 융합 교육 연구: 2009 개정 교육 과정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두용, 〈정서 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한 초등학교 1학년 2학기 국어과 단원 설계〉,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선, 〈지각적 학습 스타일(Perceptual Learning Style)이 쓰기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연, 〈독서를 통한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수줍음 아동의 자기표현력과 공감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연, 〈인터넷 통신 언어를 활용한 문법 교수-학습 방안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정, 〈'문법' 영역의 내용 특성에 따른 교과서 구현 방향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미희, 〈글쓰기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 일기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민경, 〈국어 문법 영역의 평가 방법 연구〉,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정,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의 명사 발달: 명사 수준 분석을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석사)
김민정, 〈학습 성찰 저널 쓰기가 중학생의 쓰기 능력 및 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정, 〈현행 작문 교과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작문의 실제' 단원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바래, 〈수업 일기 쓰기가 국어과 학업 성취와 학습 태도, 쓰기 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병수, 〈마인드맵을 활용한 쓰기 교수 방법의 수정이 중학교 지적 장애 학생의 문장 구사력과 글 구성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보희, 〈읽기 워크숍을 통한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및 태도 신장 방안 연구: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부연,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어과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상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의 한글, 영어, 한자 읽기 쓰기와 주의력 및 인지-언어적 능력 간의 관계〉, 경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영, 〈요인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 말하기 불안 해소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혜, 〈읽기 능력에 따른 상위 인지 인식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성숙, 〈학문 목적 기초 한국어 쓰기 능력 평가 척도 개발과 타당성 검증〉, 연세대 대학원(박사)
김소연, 〈'장면에 따른 표현 방식'의 교육 내용 연구: 10학년 검인정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소진, 〈의미 단위 띄어 읽기 전략 교수가 읽기 이해 부진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소현, 〈국어 교사의 읽기 수업 문식성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김소희, 〈매체별 그림책 읽어 주기가 초등학생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정, 〈'훈민정음'의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국어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수정, 〈문장 발화 수준의 발음 교육 연구: 실제 발화 단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진, 〈초등학교 수업에서 낭독 활동 방법에 관한 연구〉,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진, 〈형태 초점을 통한 대화문 지도에 따른 의사소통 능력 신장 방안: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희, 〈텔레비전 매체 언어를 활용한 높임법 교수·학습 방안: EBS 청소년 드라마 매체를 바탕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순희, 〈동요 부르기를 통한 어휘 지도가 발달 지체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대불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김시정, 〈국어 의식의 향상을 위한 국어 교육의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김시현, 〈인터넷 자료를 활용한 통합 쓰기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아름, 〈경도 정신 지체 아동의 받아쓰기 오류 패턴 및 분석〉,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석사)
김애경, 〈영상 자료를 활용한 쓰기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논술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다큐멘터리 지식채널e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심, 〈텍스트 분석을 통한 유형별 보고서 쓰기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희, 〈독해·내용 정리 전략이 초등학교 학습 장애 학생의 국어과 학업 성취도와 초인지에 미치는 영향〉,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희, 〈SSR(Sustained Silent Reading)을 적용한 중학교 읽기 지도 방안과 효과에 대한 연구〉,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영심,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단어 정의하기 특성〉, 용인대 재활보건과학대학원(석사)
김영심, 〈초등학생의 문학 비평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비, 〈단어 분류 활동이 초등학생의 단어 읽기 및 단어 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옥희, 〈논리적 글쓰기에서 말하기를 활용한 조직하기의 실행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외순, 〈광고 이미지의 비평적 읽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 지도 방안 연구: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유희, 〈수준별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윤정, 〈청소년들의 대화 양상을 통해 본 대화 교육: '공손성 원리'를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윤주, 〈학교 도서관 활용을 통한 독서 지도 방안 연구: 전문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경, 〈과학 글쓰기에 대한 초등학교 3, 4학년 교사들의 인식 조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미,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과 교과서의 '정리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미, 〈한국 예술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문화 교육 방법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애, 〈체험 중심 시 창작 교육 방법 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은정, 〈손곡 시의 문학 교육적 기능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정,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한 시 창작 교육 연구〉, 영남대 교

육대학원(석사)
김은주, 〈ICE-GB 기반 방책어 분석: 성별 및 학력과 방책어 사용의 관계 분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진, 〈서정주 시의 설화 수용 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신라초』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진, 〈피동 표현 단원의 개선 방안: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혜, 〈음성 언어 선행 노출이 어휘 읽기에 미치는 장·단기 효과〉,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인혜, 〈띄어쓰기의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자순, 〈비판적 수용을 위한 매체 텍스트 지도 방법 연구〉,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재정, 〈연극적 희곡 읽기의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 〈입력 처리 교수가 한국어 불규칙 활용 학습에 미치는 효과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정남, 〈동화 구연을 활용한 옛 이야기 들려주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사고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미, 〈고등학교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시의 현황과 적절성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미,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미, 〈교육 연극을 활용한 능동적인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나비를 잡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민, 〈서정주 『자화상』 교수·학습 방법 연구〉,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숙, 〈문장의 길이와 구조에 따른 3-5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고신대 보건대학원(석사)
김정애, 〈중학생 작문 자료에 나타난 조사의 오류 분석: 중학교 3학년

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은, 〈이미지 중심의 시 교육 방안 연구: 협동 학습 모형을 활용하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종옥, 〈이야기 다시 쓰기를 통한 이야기 구조 내면화 지도 방안 연구〉, 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주연, 〈그림 동화책과 플래시 동화에 대한 초등학생의 문학 반응 양상 비교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주영, 〈단순 관점에 따른 초등학교 저학년 하위 유형별 읽기 저성취 아동의 읽기-관련 요인 비교〉, 부산대 대학원(박사)
김주현, 〈동시를 활용한 음악적 즉흥 표현 지도 방안: 초등학교 3, 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주희, 〈리모델링 접근법을 적용한 그림책 읽기 활동: 유아의 비판적 사고 교육 방법〉, 동덕여대 대학원(박사)
김중진, 〈틀 의미론과 코퍼스 연구를 통한 효율적인 어휘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선, 〈시적 맥락을 통한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황인숙 시에 나타나는 감정 형용사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수, 〈존재적 삶의 태도 형성을 위한 '자각의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수, 〈중학교 『생활 국어』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연, 〈자기 평가 중심 학습이 중학생의 쓰기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연, 〈표현 활동 영역에서 하나로 수업 모형의 적용이 교사의 수업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영, 〈고등학교 국어과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실태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영, 〈분단 소설 지도 방안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 7·8학년 『국어』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영, 〈소설과 논술의 쓰기 수행 상관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지혜, 〈중학교 1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의 양상 연

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혜, 〈협동 학습을 통한 『숙향전』의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희, 〈중심 내용 찾기 활동을 통한 설명문 읽기의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희, 〈초등 교과서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의미 분석〉,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숙, 〈번역 상황의 번역 교육 적용에 관한 실행 연구: 통번역 대학원 번역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
김진혁, 〈낱말 형성법의 지도 방안 연구: 8학년 2학기 2단원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를 중심으로〉, 인제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혜, 〈논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상관 요인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희, 〈교사와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한 독서 토론이 학습 부진아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진희, 〈학습 스타일에 따른 연역적 문법 지도의 효과에 대한 개인차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은, 〈인문계 고등학생의 서사문과 논술문 쓰기 수행의 성별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정, 〈문장의 의미성 여부가 언어 발달 지체 아동의 피동·사동 문법 오류 판단 과제 수행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하나, 〈'-되어 보기' 활동을 활용한 초등 국어과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하나, 〈과정 중심 쓰기를 활용한 시조 창작 지도 방안〉,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하나, 〈동료 말하기 평가 상황에서 관계성의 영향 탐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김하늘, 〈컴퓨터 환경과 지필 환경에서의 고쳐쓰기 양상 비교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하정, 〈쓰기 동기 양상에 대한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학찬, 〈김승옥 소설의 화자 연구: 청년 화자 '나'와 그 교육적 가치〉,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행수, 〈통합적 말하기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향연, 〈영화 서사 이해 교육 방법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현서, 〈핀란드와 한국의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읽기 영역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애, 〈마인드맵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자, 〈고은 시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정, 〈영상 텍스트를 활용한 고전 소설의 교육 방안 연구: 소설『전우치전』과 영화『전우치』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정, 〈창작 표현 활동 수업에 대한 인식: 초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주, 〈창작 교육 제재로서의『토끼전』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형욱, 〈감상 교육과 연계한 창의적 발상 표현 학습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영, 〈『한중록』의 기억 구성 글쓰기 방식과 그 교육적 적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 고찰〉, 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진, 〈만 3-5세 교실 문해 환경이 유아의 어휘력과 인쇄물 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홍은, 〈정신 지체 특수 학교 중등부 국어 교과 교육 운영 실태와 교사 인식 조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화순, 〈마인드맵 독서 전략을 활용한 국어 수업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라지, 〈언어 기능 통합 교수법에 필요한 원어 표현 분석: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은, 〈고려 가요의 장르적 특징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가시리』와 『서경별곡』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정,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매체별 뉴스 서사 읽기를 중심으로〉,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효정, 〈아트프로펠을 적용한 창의적 영화-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박사)
김효진, 〈'국어' 글쓰기와 '국민 문학'의 성립〉,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효진, 〈소년 인물의 성장 모티프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희숙,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국어과 교육이 학습 성과에 미치는 영향〉, 동양대 대학원(박사)
나혜정, 〈플롯을 통한 소설 교육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나혜정, 〈학습자의 시적 체험 활성화를 위한 시 스토리텔링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남상은, 〈어휘 학습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 대학원(석사)
남영인, 〈지적 장애 학생의 어휘력 및 읽기 지도 논문 분석〉, 단국대 대학원(석사)
남은주, 〈초등 수학에서 문제 해결 과정 글쓰기의 효과 분석〉,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노목화, 〈고전 소설의 환상성을 활용한 창의적인 쓰기 교육 연구: 『박씨부인전』 사례를 중심으로〉, 홍익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송이, 〈북 아트를 활용한 자기 소개서 제작 수업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미술 교육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수정, 〈역할 놀이를 활용한 〈원고지〉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재윤,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효과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분석에 입각하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노지나, 〈언어 외적·언어 부수적 표현을 활용한 소설 읽기 교육 연구: 김유정 『봄·봄』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지혜, 〈지역 문화 축제를 활용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 고령 대

가야 체험 축제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노해인,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연작 소설의 연계 교육 방법 연구: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등정, 〈『침중기』와 『구운몽』의 비교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레반리엠, 〈한국·베트남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소설 비교 연구: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광주여대 사회개발대학원(석사)
류경미, 〈소설 교육의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7차 개정 중학교 1·2학년 국어 교과서의 '정의적 영역'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류선중, 〈제7차 국어과 문학 교육 과정 연구: 창작 교육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류수정, 〈독서 신문 제작 활동을 통한 독서 교육 향상 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석사)
류예지, 〈낱말밭을 활용한 어휘 교육 방법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류전익, 〈초등학생을 위한 다면 토론의 형식화 및 단계별 양상 연구: 초등학교 4, 5학년의 다면 토론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맹은혜, 〈초등 국어 교과서 텍스트에 나타난 환경관의 변천〉, 서울대 대학원(석사)
맹희선, 〈학령기 ADHD 아동의 쓰기 표현에 나타난 구문 특성〉, 대구대 재활과학대학원(석사)
문두성, 〈균형적 문해 접근법에 기초한 책 만들기 활동이 유아의 쓰기 인식 및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문미선, 〈상위 인지를 활용한 시 읽기 교육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선현, 〈Paired Text Sets를 활용한 읽기 수업 모형의 적용 및 효과: 서사적 텍스트와 설명적 텍스트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숙현, 〈맥락과 대비에 따른 글자 간 간격이 읽기 속도에 미치는 영

향〉,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문웅열,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을 응용한 고전 소설 기본 학습 요소 교수·학습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장옥, 〈긍정 기도문 쓰기가 군 생활 만족도 및 자아 존중감, 군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문재현, 〈탐구적 과학 글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과학 글쓰기에 나타나는 논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문향은, 〈자기 교정을 활용한 철자 쓰기 중재가 쓰기 부진 학생의 철자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 대학원(석사)
문희정,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과서 분석: 7학년 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민보람, 〈중학교 국어 교과서 시 텍스트 분석: '정서와 분위기'를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민영아, 〈고등학교 고전 시가 어휘 지도 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민혜정, 〈내용 구조도 전략을 활용한 논술문 고쳐쓰기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경희,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읽기 영역의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박경희, 〈문법 교과서의 단원 선정과 배열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광우, 〈받아쓰기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지도 실태〉,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국원, 〈고전 소설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고찰과 그 제언: 학습 당위성 강화를 중심으로〉,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금화, 〈초등학생의 반성적 쓰기 내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나리, 〈교과서에 수록된 서정주 시 분석과 교육적 의의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경, 〈동요를 활용한 범주별 어휘 발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남부대 보건경영대학원(석사)

박미영, 〈KWL 모형이 읽기 학습 부진아의 독해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용, 〈학업 성찰 일지 쓰기가 초등학생의 학업적 자기 효능감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정, 〈과정 중심 모형을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안 연구: '설(說)' 양식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정, 〈사회적 상호 작용 단원의 어휘 사용 양상 연구: 1학년 읽기 교과서의 용언을 중심으로〉, 경기대 문화예술대학원(석사)
박보람, 〈자기표현 훈련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대인 관계 능력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보영, 〈만 2세 영아들의 문식성 환경 경험에 대한 연구〉,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박상진, 〈공감적 듣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상희, 〈균형적 문해 교수 활동이 문어 저성취 유아의 읽기,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새봄, 〈음악과 시의 관계를 통한 음악-국어 교과 통합 교육〉,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숙, 〈마인드맵을 활용한 어휘력 신장 연구: 청각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옥, 〈창의성 기법을 활용한 시 창작 교육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선옥, 〈활동 중심 연어 수업이 고등학생들의 어휘적 연어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 대학원(석사)
박성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학습 활동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개선 방안: 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세진, 〈한·일 초등학교 한자 교육 비교와 바람직한 한자 교육 방안〉, 성신여대 대학원(박사)
박소라, 〈시각적 문해력 향상을 위한 그림책의 그림 읽기 전략 연구〉,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소현, 〈학습자 중심의 시 교육 방법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수민,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내용의 상세화 양상 연

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수성, 〈독서 교육 과정 변천 과정 분석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수진, 〈도해 조직자를 활용한 요약하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수진, 〈서사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문학 교육 연구: 『전우치전』 이본을 대상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박수현,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학습 부진아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순숙, 〈아동 문학 중심 초등 국어과 통합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듣기 학습〉,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연하, 〈문학 교과서 수록 여성 작가의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그 교육 방안〉,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오근, 〈교육 연극을 적용한 고전 시가 교수 학습 방안 연구: 고등학교 문화 교과를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용규, 〈단위 학교에서의 교과서 채택 과정 연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박윤진, 〈국어과 교과서의 통합성과 연계성 분석: 2010년 중학교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윤희, 〈수업 상황 요인에 따른 국어 교사의 피드백 화법 양상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경,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석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미, 〈텍스트 구조화 훈련이 학습 부진아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영, 〈성장 소설의 서사 모형을 통한 황순원 소설 연구: 황순원의 성장 소설 중, 초기 단편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은영, 〈유방암 환자를 위한 표현적 글쓰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서울대 대학원(박사)
박을배, 〈다산 정약용 독서법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두 아들에

게 보내는 서간문을 중심으로〉, 강릉원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박인순, 〈검인정 중1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관용 표현의 언어문화적 고찰〉, 관동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인지, 〈청소년의 표준 국어 사용을 위한 교수법: 매체 활용 교수법에 대한 고찰〉,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정경, 〈교사의 논평이 학생들의 고쳐쓰기 활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고등학생의 '설득하는 글' 쓰기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정희, 〈문맥 유무에 따른 속담 이해 능력: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및 20대 성인을 대상으로〉,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석사)
박종열, 〈영화를 활용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준환, 〈소집단 토의 수업을 통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민, 〈『심청전』을 활용한 비평문 쓰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연, 〈수용사적 관점에서 본 주몽 신화에 대한 남북의 교육용 도서 비교 고찰〉,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연, 〈탐구적 과학 글쓰기 활동이 학생들의 글쓰기에서 나타난 다중 표상에 미치는 영향 및 다중 표상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영, 〈중학교에서의 활동 중심 소설 교육을 위한 수행 평가 연구〉,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우, 〈음운적 특징을 활용한 시 낭송 교육 방안 연구: 윤동주 작품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현, 〈한국 대학생들의 어휘 습득에서의 과업 유도 관여도의 역할〉,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박지훈, 〈고등학교 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훈, 〈컬러 필터 렌즈를 이용한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동신대 대학원(석사)

박진, 〈'문법' 영역의 교육어 사용 양상 분석: 교과서와 교사의 수업 중 화법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진미, 〈어휘 접근법을 통한 어휘 지도가 어휘 습득과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진주, 〈국어과와의 통합 교육을 통한 찰흙 입체 표현 수업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박진호, 〈책 읽어 주기를 활용한 문학적 상상력 신장 방법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진홍, 〈초등학교에서 띄어쓰기의 교육 과정 수용 방안〉,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진희, 〈작문에 있어서의 신문 사진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이야기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박찬미, 〈초등학생의 듣기 활동 양상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미, 〈국어과 문법 영역의 실현 양상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 중학교 2학년 검정 교과서 15종을 대상으로〉, 목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정, 〈판소리계 소설에 나타난 재담의 유형과 교육 방향〉,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진, 〈협동적 읽기·쓰기 통합(CIRC) 프로그램이 쓰기 능력과 쓰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철, 〈제7차 개정 교육 과정 10학년 국어 교과서의 교육 과정 구현 양상 연구: 검인정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관동대 교육대학원(석사)
방실, 〈학령기 아동의 담화 장르에 따른 쓰기 발달〉, 한림대 보건대학원(석사)
방실이, 〈중·고등학교 띄어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방은석,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워크북이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쓰기 능력과 학습 태도에 미치는 영향〉,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방혜진, 〈고전 편지글을 활용한 글쓰기 지도 방안〉,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배다혜, 〈2007 개정 7학년『국어』교과서에 수록된 박완서의『자전거

도둑』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상연, 〈유아 교육 과정의 언어 영역과 초등 1학년 교육 과정 국어과에 관한 연계성 논의〉, 경북대 과학기술대학원(석사)
배선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글쓰기 협력 학습: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수진, 〈관찰자 측정 말하기 능력 척도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경희대 언론정보대학원(석사)
배윤민, 〈중학교의 『소나기』 소설 교육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은정, 〈문자 디자인을 통한 한글 문자도 지도 방안 연구: 저학년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정희, 〈동요를 활용한 균형적 언어 활동이 유아의 구어 능력과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배종용, 〈통합 교과형 논술 교육 적용 방안 연구: 7학년 국어 '설득의 힘' 단원과 과학 '지각 변동' 단원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백민정, 〈송강 정철의 시조 문학 교수 방법〉,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안나,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국어 교과서의 현대 소설 연구: 박완서의 작품을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은희, 〈외국어 계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조법의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번위협,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 쓰기 문제 유형 분석〉, 상명대 대학원(석사)
변지윤,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활성화를 위한 『흥부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변혜진, 〈윤흥길 소설 교육 연구: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연작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복재원, 〈중학생 논술문에 대한 국어 교사의 논평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상명식, 〈교육 연극적 기법을 활용한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서나영, 〈내용 및 형식 스키마 활성화 듣기 전 활동이 한국 고등학생

의 장르별 듣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서미숙,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놀이터'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서민정, 〈가치 수용적 심미 체험을 위한 문학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박사)
서순원, 〈직접 교수법과 탐구 학습법의 효과 비교 연구: 중학교 3학년 생활 국어 국어 지식 교육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영미, 〈교사-영아 그림책 읽기 상호 작용 증진 임상 장학 사례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우석, 〈은유 분석을 통한 초등학생의 교사상 탐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윤경, 〈중등 교과서에 제시된 완료형의 연계성 분석과 학습자의 이해도 조사〉,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은진,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서자현, 〈율격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재승, 〈멀티 매체 시대의 토론 능력 신장 방안 연구: TV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메타 토론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정원, 〈초등학교 미술 교과와 국어 교과의 통합적 지도 방안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주현, 〈줄거리 요약문의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구연 설화 요약문을 대상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지영, 〈중학생들의 문장제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서한보미, 〈단일 대상 연구를 중심으로 한 학습 장애 아동의 읽기 중재 연구 동향 분석〉, 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석재명, 〈논설문 쓰기 지도 방안의 경험적 개발 연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선애리, 〈고등학교 문법에서의 부사형 어미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설아영, 〈언어 발달 지체와 일반 영유아 양육자의 언어 및 의사소통 특성 비교〉, 한림대 보건대학원(석사)

성명희, 〈TV 드라마 교육 방법 연구: 〈경숙이, 경숙 아버지〉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성윤니, 〈만 5세 슬기반의 동화 들려 주기 활동에 대한 실행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성한나, 〈읽기 교육 내용의 학습 목표 위계 분석 연구: 설득 및 비판을 위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성현수, 〈고등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 시의 현황과 적절성 분석: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의한 검인정 고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성혜리, 〈『바리데기』를 통한 자서전 쓰기 지도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다혜, 〈총체적 쓰기 평가와 분석적 쓰기 평가의 결과 비교 연구: 고등학생 논설문, 설명문, 수필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막래, 〈애니메이션 동시 학습 자료를 활용한 수업이 국어 학습 흥미도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은실, 〈2007 개정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단원 연구: 통합적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주영, 〈고전 작품을 활용한 창작 교육 방안: 고전 작품을 패러디한 시 작품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손혜정, 〈국어과 매체 언어 교육 지도 방안 연구: 영상 광고 텍스트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송규현, 〈언어 발달 선별 검사로서 K-ASQ(Korean-Age and Stages Questionnaires) 의사소통 영역의 유용성 및 활용 방안〉, 한림대학교 보건대학원(석사)
송미숙, 〈그림책에 대한 토의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동덕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수현, 〈문제 중심 학습에 기초한 문법 영역의 교수·학습 활동 구안에 대한 연구: '품사' 관련 단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송순이, 〈중등 학습자를 위한 문장 부호 교육 내용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애덕, 〈독서 치료 집단 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아동의 우울과 자기

효능감,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효과〉,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원영, 〈문법과 읽기의 통합 양상에 대한 연구: 중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은정, 〈독서 논술 지도자 양성 과정 연구: 독서 치료의 경험을 중심으로〉, 순천대 대학원(석사)
송희영, 〈글쓰기 평가의 시행 방식이 초등학생의 교육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대학원(석사)
신경진, 〈특수 학교 기본 교육 과정 국어와 초등학교 교육 과정 국어의 연계성 연구〉, 공주대 특수교육대학원(석사)
신미화, 〈읽기를 통한 문법 학습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소라, 〈상호 텍스트성에 의한 현대 시 교수법 연구: 제7차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서정주의 시 작품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영희, 〈국어과 수업에서 Flanders 언어 상호 작용 분석에 의한 우수 교사와 일반 교사의 수업 형태 비교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유진, 〈영어 번역 투 문장 다시 써 보기를 통한 국어 문장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은정, 〈구두 작문을 통한 글쓰기 능력과 태도의 변화 연구〉,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은정, 〈평가 문항을 이용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은혜, 〈성장 소설의 교육 연구〉,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인혜, 〈소설을 활용한 쓰기 지도 연구: 중학생을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주영, 〈NIE를 활용한 글쓰기: 9, 10 학년을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진성, 〈자기 성장기 쓰기를 활용한 성장 소설 교육 방안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창교, 〈텍스트 구조 중심 거시적 읽기 지도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혜경, 〈온라인 게임 서사 구조를 적용한 이야기 창작 지도 방안 연

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효염, 〈고전 소설과 TV 드라마를 활용한 글쓰기 교육 방법 연구: 〈방한림전〉과 〈성균관 스캔들〉의 비교·대조를 중심으로〉,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신희은, 〈고등학생 논문 쓰기를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장르 중심 쓰기 이론을 바탕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심고우니, 〈초등학교 1, 2학년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읽기 유창성 특성〉, 한림대 보건대학원(석사)
심민수, 〈수사적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 지도의 효과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심예진, 〈현대 시 리듬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심유리, 〈비평적 읽기 교수-학습 방안 연구: 중학교 2학년 시를 대상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심지영, 〈'읽기'를 바탕으로 한 『춘향전』 교육 연구: 완판 84장본 『열녀춘향 수절가』와 『남원 고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상화, 〈다문화 그림책을 활용한 동시 짓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 능력 및 정서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전남대 대학원(석사)
안선희, 〈동화책을 통한 토론 활동에서 보여 지는 유아의 반응 연구: 철학적 탐구 공동체 활동 활용〉, 총신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소영, 〈토의를 활용한 가전 작품 교육 방안 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은주, 〈교과 간 통합을 통한 주제 중심의 시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장호, 〈학습자를 고려한 매체 언어 교육 방안 연구: 학습자의 매체 이용 실태 및 수용 태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진아, 〈블로그(Blog)를 활용한 성찰적 글쓰기와 학습 태도 효과 분석: 중학교 수학 교과를 중심으로 한 통합 접근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차현,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안현지, 〈음악-국어 교과의 통합 교육적인 다문화 수업 지도 방안 연구: 7학년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안혜진, 〈글 없는 그림책 읽기 활동이 만 3세 유아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미치는 영향〉, 남서울대 대학원(석사)
양건우, 〈반성적 쓰기가 중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 및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양미영,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국어 교과서 내용 분석: 10학년 16종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양영옥,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양혜미, 〈청소년 소설에 대한 맥락 중심 교육〉,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엄민옥, 〈협동적 동화 재구성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대 대학원(석사)
엄성남, 〈『누항사』의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엄지은, 〈생태 시 교육 방법 연구: 백석 시의 경우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연순임, 〈수행 평가를 활용한 소설 읽기 지도 방법 연구〉, 세명대학교 대학원(석사)
염선숙, 〈독서·토론·논술 교육의 언어 기능적 접근에 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오봄, 〈모더니즘 시 교육 방안 연구: 김광균, 정지용의 시를 중심으로〉,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유경, 〈비평적 에세이 쓰기를 통한 문학 감상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오윤정, 〈교육 연극을 활용한 『흥보가』의 교수·학습 방안〉,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재영, 〈반응 중심 시조 교수-학습 방법 연구〉,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주연, 〈서술을 활용한 시 감상 방법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오창희, 〈모둠 독서 활동에 관한 문헌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오현정, 〈논술문 쓰기 교육 내용에 관한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왕가음, 〈대중 소설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한국 문학 교육 지도 방안 연구: 김수현 장편 소설 『눈꽃』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석사)

왕염도, 〈중국과 한국의 중학교 교육 과정 비교 연구: 국어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우덕례, 〈언어 발달 인적 지원 환경이 유아의 읽기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석사)
우문영, 〈비평 교육의 방법 연구〉, 공주대 대학원(박사)
우유정, 〈비평적 읽기와 쓰기를 통한 시각적 문해력 향상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원민희, 〈동료 반응 활동을 통한 고쳐쓰기 지도 방안〉,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원선임, 〈노래 그림책을 활용한 통합 프로그램이 만 2세 영아의 언어 이해력과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 교육대학원(석사)
위한샘,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매체 자료 창작 교육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법: 2009 개정 교육 과정 '화법과 작문Ⅰ' 중 '작문' 중심으로〉,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유보림, 〈학습 전략 사용을 유도한 수업을 통한 읽기 능력 향상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성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국어 교육: 다문화 가정 정책 및 국어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인선,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7학년 검정 국어 교과서 분석〉,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주애, 〈중학교 『국어』와 『생활 국어』의 연계 지도를 위한 방안 연구: 2007년 개정 중학교 1학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지영, 〈과정 드라마를 활용한 학습이 자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음성 언어와 비언어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진경, 〈김승옥 소설의 교육 방안 연구: 7차 교육 과정 문학 교과서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유해숙, 〈초등 국어 수업에서 삼각 논증을 활용한 피라미드 토의 지도 연구〉,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선미, 〈연계성 중심의 고등학교 중세 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성진, 〈과제 표상 교육이 고교생의 논술문 쓰기 수행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안젤라, 〈학습 만화의 내용 전개와 질문 양상 분석: 등장 인물의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자경, 〈청소년의 통신 언어 사용 실태와 지도 방안 연구: 제천시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을 중심으로〉, 세명대학교 대학원(석사)

윤지선, 〈동화를 활용한 균형적 언어 교육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효과〉, 경희대 대학원(석사)

윤지선,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품사 단원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철민, 〈대학생의 말하기 불안에 관한 연구: 수업 중 발표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한국, 〈통합형 문학 논술을 통한 논술 능력 신장 방안〉, 서울시립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미, 〈피동 표현의 교육 내용 연구: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경수, 〈청소년 독자의 읽기 효능감과 독자 반응의 관계〉,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이경숙, 〈초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과정 양상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경은,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문학 감상 교육 방안 연구: 천상병의 『귀천』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고운, 〈학년별 읽기 과업 성취에 미치는 제재의 영향력 연구: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규록, 〈면접 담화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나현, 〈토론 수업을 통한 고전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다은, 〈창의성 신장을 위한 『박씨전』의 교수·학습 방안〉,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명진, 〈관용 표현 교육에 대한 분석: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이미영, 〈이야기 글 요약하기 지도 방안: 초등학교 6학년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미정, 〈창의성 향상을 위한 글쓰기 교육 연구: 동화 바꾸어 쓰기를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석사)
이미희, 〈과정 중심 고전 소설 읽기 교육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민규, 〈과정 중심의 시 창작 교육 모형에 관한 연구: 2007년 개정 중1, 중2, 고1 국어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상미, 〈고전 시가의 창의적 수용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연구: 웹 기반 학습을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상아, 〈모더니즘 시의 맥락적 읽기 교육 연구: 김수영과 박인환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상은, 〈문법 지식의 교수학적 변환 연구: 3년간 미시적 차원의 변환을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상희, 〈생태학적 변인이 국어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선미,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김유정 소설 『봄봄』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선영, 〈글쓰기 지도에서 내용 생성하기 교수·학습 활동 효과〉,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선영, 〈듣기·말하기 방식을 통한 고등학교 설화 교육 방법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선영, 〈토론 교육 내용 체계 연구: 초·중·고 토론 대회 담화 분석을 바탕으로〉, 서울대 대학원(박사)
이선희, 〈말하기와 쓰기를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사 사용 특성: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용인대 재활보건과학대학원(석사)
이소연, 〈한국어 토의 담화 구성 능력 신장을 위한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수경, 〈비판적 읽기 지도가 비판적 사고 및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정,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안 연구: 윤흥길 『장마』를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진, 〈학습자 중심의 중학교 시 낭송 교육 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현, 〈간판어 실태 분석을 통한 언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마포구 염리동과 망원동의 학교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희, 〈여성의 다양한 삶에 대한 문학 교육적 연구: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현대 소설을 중심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승미, 〈문제 중심 학습(PBL)에 기반한 설화 교육 방안 연구: 『용소와 며느리 바위』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승왕, 〈초등학교 국어 규범 교육 내용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이승재, 〈평가자 협의가 작문 평가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승하,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 비교 분석〉,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애리, 〈결혼 이민자의 학부모 역할 수행을 위한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범, 〈중학교 시 단원의 지필 평가 문항 실태 분석〉,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신, 〈학습자의 비평 능력 신장을 위한 문학 토의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영희, 〈학습자 '의도' 중심의 국어과 창의성 교육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유경, 〈동영상 매체를 활용한 〈어느 날 심장이 말했다〉의 교수-학습 방안〉,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정, 〈2010학년도 EBS 교재 수록 한시 작품 양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주, 〈협동 학습을 통한 문학 지도 방안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희, 〈이청준 『눈길』의 교육적 의의와 교과서 수록 양상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희, 〈출력이 형태 습득에 미치는 영향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경, 〈관용 표현 교육의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과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숙, 〈평가 예시문을 활용한 쓰기 평가 신뢰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은진, 〈『허생전』의 교육 방안 모색〉,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자영,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전기문의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재령,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시 단원의 조직과 구성 체제 분석: 제7차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재혁, 〈고전 소설 교육을 통한 창의력 향상 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점선, 〈일기 활용을 통한 초등학교 저학년 시 쓰기 지도 방안〉,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민, 〈초등학생의 은유 표현 양상에 관한 연구〉,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아, 〈교사의 그림책 읽기 상호 작용 유형이 중국 출신 다문화 가정 유아의 어휘력, 이야기 이해, 이야기 산출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
이정임, 〈향가 교육의 실태 분석과 배경 설화를 활용한 지도 방안 연구〉,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호, 〈범교과적 쓰기를 활용한 내용 교과 문식성 신장 방안 연구〉, 서울교육대 대학원(석사)
이정화, 〈문단 쓰기 중심의 '전략적 개요 짜기'를 활용한 초등학교 논술 지도 방안 연구〉, 공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종옥, 〈김동인 소설에 나타난 여성상과 문학 교육적 의의: 1920-1930년대 단편 소설을 중심으로〉,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주영, 〈뇌 기능 특성에 따른 문법 교과서 학습 활동 구현 방안에 대한 연구: 심화 선택 과목 『문법』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주영, 〈중학교 국어 교과의 고시조 교육 연구: 2007 개정 교육 과정 7, 8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민, 〈문학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논설문 쓰기 양상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민, 〈쓰기 워크숍을 활용한 자서전 쓰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연, 〈이야기책과 정보 책 읽기 반응 연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자유롭게 말하기' 독후 활동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영, 〈아동 독자의 이야기책 읽기 반응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이지형, 〈영상 매체를 활용한 소설 교육 방법 연구: 윤흥길의 『기억 속의 들꽃』을 중심으로〉,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혜, 〈이야기를 활용한 문법 교수 방안 연구: 품사의 종류와 문장 성분 단원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혜, 〈초등 국어 교육에서의 탈놀이 교재화 방안 연구: 하회 별신굿 탈놀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진아, 〈사회·문화적 맥락을 활용한 분단 소설 교육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진주, 〈학교 문법의 부정 의문문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창수, 〈국어과 문법 영역 교수·학습 방안 연구: 초등 어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박사)
이충영, 〈국어과 교육 과정 개선을 위한 학습자 요구 분석과 반영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하나, 〈현대 국어에서 새말의 형성 양상과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한공, 〈소설 창작 교육 방법 연구: 예술 고등학교 문예 창작과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주, 〈비평적 감상문 쓰기 학습이 아동의 문학 평가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주, 〈유아기 쓰기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과 유아의 쓰기 발

달〉, 성결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숙, 〈초등학생의 읽기 전략 학습 사례 연구〉, 가톨릭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혜정, 〈문학사 교육 방법 연구: 9학년 과정 '단원 6.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을 중심으로〉, 경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홍민, 〈고등학교의 고전 시가 교육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문항의 상관성 연구: '지식', '경험', '태도', '수행'의 내용 범주를 기준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효정, 〈과정 중심 쓰기 지도의 구조 중심 협동 학습 요소가 쓰기 부진 아동의 쓰기 능력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희순, 〈협상 과제 중심의 말하기 교육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인현미, 〈훈민정음 제자 원리를 활용한 정음법(正音法) 교수·학습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임말숙, 〈글쓰기 전략 지도를 위한 단계별 자료 설계 연구〉,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임미정, 〈다문화 가정 아동과 비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구성 능력 비교〉, 용인대 재활보건과학대학원(석사)
임소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법 영역 비교 연구: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송이, 〈말하기·쓰기 교육 내용의 통시적 고찰을 통한 말하기·쓰기 통합 방안 연구: 고등학교 '국어' 과목의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아영, 〈협동 학습을 활용한 수필 교육 연구: 제7차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의 수필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임양경, 〈중학교 국어과 검정 교과서 품사 단원의 비교와 분석〉, 창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재욱, 〈상위 인지 중심 소설 읽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진선, 〈논설문 쓰기 지식과 쓰기 수행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임창진, 〈신문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임태정, 〈『면앙정가』의 효율적인 교수-학습 방안 연구: 소집단 탐구 협동 학습 이론을 활용하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장민철, 〈독서 토론을 활용한 논술 지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소영, 〈유치원아와 초등 4학년 아동 간 함께 책 읽기 활동에서 나타난 읽기 태도의 변화〉,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신영, 〈통합적 문법 교육을 위한 학습 활동 구성의 실제: 2010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영순, 〈신어를 활용한 창의성 신장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운혜, 〈일반 학급과 통합 학급 상황에서 초등학교 일반 교사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어 수업 활동과 관련 변인 탐색〉,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정순,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문학 수업이 학습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철, 〈한국과 중국의 교과서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석사)

장혜영, 〈동화를 활용한 마인드맵 활동이 유아의 어휘력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 대학원(석사)

장희선,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환경을 활용한 문법 수행 평가 방안 연구〉,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성우, 〈판타지 동화 구조를 활용한 이야기 창작 지도 방안 연구: 〈환상성〉의 수용과 생산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대학원(석사)

전예진, 〈쓰기 동기, 쓰기 신념, 가정 환경에 따른 쓰기 수행의 차이〉,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유리, 〈효과적인 국어사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내용 선정 및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유영, 〈균형적 접근법에 기초한 유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적용 효과〉, 중앙대 대학원(박사)

전인숙,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 구체화가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대학원(박사)

전지연, 〈국어 교과서의 한자어 분석과 한자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진양,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출제 매뉴얼에 비추어 본 언어 영역 문항 제작의 내용적 오류 유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정상민, 〈장르 중심 접근법에 따른 건의문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정선주, 〈중학 국어 읽기 영역 단원 비교 연구: 검인정 1학년 교재를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성화, 〈글 없는 그림책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표현 능력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성희, 〈비구조적 놀잇감을 활용한 역할 놀이가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언어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수현, 〈주제에 따른 남녀 중학생 쓰기 수행의 수준 차이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정순공,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언어 영역 비문학 지문의 독해 책략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박사)
정아름,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문학적 글쓰기 방안 연구〉, 한남대 대학원(석사)
정예연, 〈의미 구조도 작성을 활용한 다시 말하기 전략이 읽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의 독해력 및 회상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우영, 〈초등 국어과 옛이야기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정유정, 〈중학교 국어과 문법 영역의 '집중형 탐구 학습'에 대한 연구〉, 순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유정, 〈텍스트 간 관계성을 활용한 현대 시 교육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민, 〈체험의 대화적 재구성을 통한 시 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정진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체제 분석〉,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정하나, 〈고등학교 국어과 문법 교과서 분석〉,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정혜승, 〈쓰기 학습 장애 위험 아동을 위한 쓰기 교수 전략의 효과 비교: 자기 조절 중심의 '주장 쓴 글' 전략, 그래픽 조직자 전략, 모델 학습 전략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박사)
조규찬, 〈극예술과 매체 언어 교육 방법 연구: 오영진의 『맹진사댁 경사』를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성미, 〈독서 동기 부여를 위한 독서 교과서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성욱, 〈협동 학습을 통한 고전 문학 교수-학습 방법 연구: 『박씨전』을 중심으로〉,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수정, 〈문법 교육 내용의 선정과 배열 방안 연구: 6차~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수현, 〈중학교 국어과 지필 고사의 서술형 문항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영민, 〈국어 지식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중학교 3학년 생활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영민, 〈독해 부진 학생을 위한 지도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용미, 〈발도르프 교육학에 따른 국어 교육 과정 연구: 발달 과정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유리, 〈중·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의 비교와 분석〉,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조윤희, 〈제7차 국어 교과서에 나타난 성 역할 비교 연구: 현대 소설 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조인선, 〈초등학생의 논술 능력 신장을 위한 토론 활용 비판적 읽기 프로그램 개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지민, 〈애니메이션 감상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지영, 〈국어 교과를 통한 자기 이해 활동이 초등학생의 자기 수용,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지원, 〈그림책 텍스트 읽기 과정 연구: 앤서니 브라운의 『고릴라』

를 중심으로〉, 진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지향, 〈소설의 사회·문화적 맥락 읽기 지도: '시간'과 '공간'을 중심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춘화, 〈창작 판소리의 국어 교육 활용 방안 연구: 김명자 작『슈퍼댁 씨름 대회 출전기』를 대상으로〉, 전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명, 〈문법 교육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현자, 〈문학 작품을 활용한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제7차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중·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혜령, 〈국어과 좋은 수업 사례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호연, 〈현대 시와 엮어 읽기를 통한 고전 시가 교육 방법 연구: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효경, 〈초등 귀국 학생의 교과 학습 적응을 위한 한국어 읽기 교재 개발 방안〉,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희연, 〈중등학교 국어과 매체 언어 교육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희원, 〈장르 기반 접근법을 활용한 쓰기 교육 연구: 자기 소개서 장르를 중심으로〉,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주소희, 〈2007년 개정 7학년 수록 상소문 분석 및 활용 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주신혜, 〈통합적 문법 교육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주언진, 〈학생 통제 작문에서의 형태 오류에 대한 교사 피드백 유형의 효과〉,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주용식, 〈시 교육에서 멀티미디어 활용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주재우, 〈설(說) 양식을 활용한 설득적 글쓰기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박사)
주현정, 〈컴퓨터 작문과 지필 작문의 비교 연구: 동일한 필자가 수행하는 두 가지 작문 활동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
주형주, 〈국어 교사들의 검정 교과서 선정 과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지혜란, 〈시 창작 지도에서 피드백 방법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진보배, 〈훈민정음을 소재로 한 교양서적의 비판적 읽기〉,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진선영, 〈독서 태도 향상을 위한 학교 도서관 활용 수업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채현주, 〈초등학생의 쓰기 동기와 쓰기 능력 간 상관 연구: 초등학교 5학년을 중심으로〉,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천숙현, 〈재미있는 책 읽기 활동을 통한 바른 독서 습관 형성〉,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최고울, 〈국어과 검인정 교과서의 문법 영역에 대한 연구: 7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미란, 〈중등 국어과 임용 시험의 타당성 연구: 2009~2011학년도 문항 중 현대 문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보혜, 〈쓰기 활동의 맥락 구체화 방안 연구〉, 청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빛나, 〈초·중·고등학생의 쓰기 윤리 실태 비교 분석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선화, 〈도로시 헤스콧의 '전문가의 망토'를 통한 통합 수업 연구: 4학년 2학기 국어, 도덕, 사회 교과를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석사)
최세영, 〈연결 어미 지도를 통한 문장 구성 능력 신장 방안〉,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여지, 〈창의적 상상력 신장을 위한 시조 감상 지도〉,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예진,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고전 소설 『구운몽』 교육 방법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원아, 〈매체 언어 교육을 통한 국어 사용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영

상 매체 언어 활동 중심으로〉,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유진, 〈중등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작품의 개작 양상 연구〉, 광주여대 사회개발대학원(석사)
최윤선, 〈중학교 품사 단원 비교 분석: 1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은영, 〈효율적인 독서 지도 방안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은주, 〈문제 중심 학습을 통한 『채봉감별곡』 지도 방안 연구〉,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최정아, 〈광고 연구 학습을 통한 미술 교과와 국어 교과 통합 교육〉,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정아,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 및 언어 이해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정은, 〈비평적 읽기 교육 방법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주현, 〈초등학교의 옛이야기 지도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지영,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도입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지현, 〈판타지 창작 지도 방안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지혜, 〈교육 과정과 외국 문학 수록 양상: 교수요목기부터 제7차 교육 과정까지 중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최현정, 〈영상 매체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영상 제작 교육 방안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혜진, 〈한자어 지도를 통한 국어 어휘력 향상 방안〉, 인천대 교육대학원(석사)
추현정,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과 매체 언어〉,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표윤정, 〈고등학교 문학사 교육 개선 방향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하광호, 〈중학생용 참고서명의 형식과 통보 기능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하미영, 〈연극 활동을 통한 자기표현력 향상 연구: 학습 부진 학생의

말하기 능력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애은,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서사 작품의 적합성 분석 연구〉,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인성, 〈매체를 활용한 『관동별곡』 교수-학습 방안〉, 전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하지영, 〈학습 만화 읽기 활동이 학업 성취도와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한나영,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서 소득 수준에 따른 만 4, 5세 유아의 수용·표현 언어 발달, 어휘력, 단어 읽기 비교: G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건국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선희, 〈신경숙 소설의 문체 교육 연구: 『외딴방』과 『엄마를 부탁해』를 중심으로〉, 부산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아름, 〈단어 형성법 교육의 비교 연구: 제7차 교육 과정과 개정 교육 과정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한영진, 〈국어과 말하기 교육 실태 조사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예슬, 〈통사 구조로 본 시조의 정형성 연구: 고등학교 18종 문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유림, 〈시적 화자 변이 양상을 활용한 시조 창작 교육: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서울교육대 대학원(석사)
한현숙, 〈토론 능력 발달 양상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허성백,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의 논술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허윤수, 〈정신 지체 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변천 연구〉, 대구대 교육대학원(석사)
홍경화, 〈통일 대비 문법 교육 목표 설정을 위한 연구: 북한 이탈 학생들의 문법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홍명숙,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동시 연구: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새미, 〈초등학생 6학년용 전자 교과서의 쓰기 활동 유형 분석〉,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선미, 〈이어진 문장의 교수 학습 방안 연구: 쓰기 능력 신장을 중심

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세영, 〈연어적 접근 방식이 유아 말하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만 5세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홍지은, 〈육하원칙을 활용한 이야기 꾸미기 활동이 유아의 언어 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글 없는 그림책을 중심으로〉,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홍하은,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초등 국어 교과서 '이해 학습' 분석: 초등 1~4학년을 중심으로〉, 제주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소영, 〈STOP & DARE 전략 지도가 설득적 글쓰기 능력 및 쓰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황은영, 〈탐구 학습을 통한 중학생의 음운 영역 교수·학습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정연, 〈7차 및 개정 7차 교육 과정에 의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말하기 듣기 영역 분석〉, 성신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정인,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재담 교육 연구: 7학년 검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황정현, 〈말하기 불안 해소를 위한 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정화, 〈오류 수정 피드백 유형이 한국 중학교 학습자들의 글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황현숙, 〈중등 국어 교과의 희곡 지도 방안 연구〉, 수원대 교육대학원(석사)
황현정, 〈'그림책 읽어 주기'를 통한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춘천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황혜인, 〈읽기 후 활동 수업을 통한 초등 학습자의 읽기 능력 발달 연구: KWL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Than Van Chinh, 〈한국과 베트남 국어 교과서 수록 시 작품 비교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 중심으로〉, 광주여대 사회개발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가은아, “쓰기 교육에서 상위 인지 조정 전략의 지도 방법”,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강길운, “선진국 진입에 한자 교육 반드시 필요”, 한글+한자문화 13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강남욱, “북한의 외국어로서의 조선어 교육 운영 사례에 대한 면담 조사 연구: 김형직 사범 대학 연수생 출신의 제보자 면담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강민경, “설명적 텍스트 쓰기 양상 분석을 통한 쓰기 윤리 교육 내용 탐색”,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강보선,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북한 어휘의 비판적 고찰: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2 국어 교과서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강연임,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 양상과 국어 교육적 개선 방안”,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강옥려·이창선, “그래픽 조직자 활용이 국어 학습 부진아의 어휘력과 독해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2-1, 서울교육대학교
고춘화, “국어사 교육 내용의 실현 양상과 교육 방법 연구”,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곽경숙, “대학의 사고와 표현 관련 교육에서 스토리텔링의 활용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곽경숙, “대학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표현 매체의 교육적 수용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곽종혁, “한자 교육 최적기는 초등 교육 때”, 한글+한자문화 13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곽춘옥, “초등 상업용 문학 도서의 현황과 지향점”,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구본관,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어휘 교육의 목표와 의의”,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구본관,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구본관·신명선, “원리 중심의 문법 교육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구영산, “국어 교육 정책 종결 과정에서 형성된 고교 선택 과목에서의 “선택”의 의미: “매체 언어” 과목의 폐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구영산, “국어 수업에서 “관계의 언어” 생산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권순희, “문학적 글쓰기를 통한 총체적 사고력 신장 방안: 국어 영재아 대상 소집단 협동 작문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권순희, “호주 다문화 사회에서의 영어 교육 정책”,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권이은, “‘비판적 읽기’의 범주 설정 및 내용 체계화 연구”,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김건희, “시간 관련 범주(시제, 상, 양태)의 문법 교육”, 한글 294, 한글학회
김경남, “근대적 글쓰기 교재의 문장 체제론에 대한 연구”,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김규훈, “국어과 교육 과정의 통합적 내용 구성 방안: 2011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을 대상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규훈, “독서 연극을 통한 문법 교수·학습 방법: 이야기 활용 문법의 교수·학습 모형 개발”,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김규훈, “통합의 개념에 따른 교육 과정의 비판적 고찰: 2011 교육 과정 ‘독서와 문법’ 과목의 발전적 통합 방안 모색”,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김근호, “청소년 권장 도서 선정의 비판적 검토”,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김기창, “유관순 관련 제재 국어 교과서 수록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기창·정상섭, “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 연구(1):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

어문교육학회
김남미, “TA(Teaching Assistant) 교육 원칙과 방안: 대학의 글쓰기 수업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김대희,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독서 수준과 텍스트 수준의 위계화 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도남, “네트워킹 읽기의 교육 방향 탐색”,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김도남, “독자의 온 삶을 위한 읽기 교육 방향 탐색: 노자『도덕경』의 인식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김도남, “읽기 학습 부진 학생을 위한 코칭 방향”,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김라연, “공동 사고를 통한 예비 교사의 독해 전략 활용 양상 분석 연구”,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김라연·박은경, “독서 감상문의 구성 요소 분석 연구”, 교육과학연구 17, 신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김명순, “국어 교과서의 변화 경향과 2007 개정 국어 교과서의 특징”,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김명순, “국어과 교육 과정에 나타난 국어과 통합 교육에 대한 고려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미배·배소영, “낱말 읽기에서의 초등학생 음운 해독력 발달”, 언어청각장애연구 16-2,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김병구, “‘논쟁형’ 독서 토론 방식을 활용한 대학 독서 토론 교육의 구조화 방안 연구”,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김병수, “국어 수업 패턴 고찰을 통한 수업 전문성 제고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상욱, “문해력, 국어 능력, 문학 능력”,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선민, “독서 일기를 활용한 창작 지도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성제·김순자·송원찬, “인문학 전공 대학생의 논리력과 창의력을 위한 글쓰기 수업 사례 연구: ‘수행 인문학 논술’ 과목과 현장 교육 개

선 분석”, 수행인문학 41-1,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김세령, “미술 계열 실용 글쓰기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김슬옹, “국어 교육을 위한 근대 국어 시대 구분론”,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슬옹, “다목적 통합형 “또물또” 발문 모형 설정론”,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김애화·김의정·유현실·황민아, “읽기 성취 및 읽기 심리 처리 검사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6-3,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김애화·김의정·유현실·황민아·박성희, “초등학생의 단어 인지와 읽기 유창성에 대한 예측 변인 연구”, 초등교육연구 24-1, 한국초등교육학회
김애화·유현실·김의정, “조기 문식성 검사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김영선, “효율적인 문법 교육을 위한 항목 배열 연구”, 동남어문논집 32, 동남어문학회
김영심, “초등학생의 문학 비평문 쓰기 지도 방안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영주, “독서 문화 텍스트 구성과 소설 교육: 〈소설 신문 만들기〉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영호, “초등학교 다문화 학습자를 위한 친족어 지도 방안 연구”,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김옥영,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대학에서의 글쓰기 교육”,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김옥희, “논리적 글쓰기에서 말하기를 활용한 조직하기의 실행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김원준, ““읽기·토론·쓰기” 통합 교육의 효율성 제고: [명저 읽기와 글쓰기] 강좌를 통해서”,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김은주·변지혜, “유치원 우수 수업의 언어 상호 작용 및 수업 전개 과정 분석”, 교사교육연구 50-2,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김인경, “대학생 요약문 지도를 위한 ‘첨삭 지침안’ 연구”,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김자성·김정미, “설명과 경험 이야기에 나타난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의 구문 발달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김재봉, “국어 수업의 반영적 재진술 발화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김정숙·정승문, “문장의 길이와 구조에 따른 3-5세 아동의 문장 따라 말하기 수행력”, 언어치료연구 20-2, 한국언어치료학회
김정우,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학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김정자, “학생의 글에 대한 교사 반응의 의의”,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종록, “자연 과학계 논문 문장의 사용 실태와 그 개선 방안”,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김종률, “국어과 통합 교육을 위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화법, 작문, 독서에 관련된 사고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김종률, “논술문 형성 시기에 관한 연구: 고차적 사고의 관점에서”,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종률, “사고력 중심의 읽기와 쓰기 통합 방법 연구: 설득을 위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김종환, “한글+한자 문화 칼럼: 역사 교육을 위한 한자 교육의 필요성”, 한글+한자문화 14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주영, “초등 교사의 국어 수업 딜레마에 대한 사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김주환, “국어 교과서 선정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조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김주환, “독서 토론이 고등학생의 감상문 쓰기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준기, “통합 논술과 인재 선발과의 상관성 고찰”,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준형, “구한말 학부 편찬 국어과 교과용 도서와 『국민 소학 독본(國

民小學讀本)』",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김준희, "'자기'에 대한 이해의 글쓰기 교육 연구",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김중신,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어휘를 통한 정의적 텍스트 생산 전략",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김중신,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과정의 비판적 검토 -고등학교 선택 과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지희, "초등 교과서 동화에 나타난 아버지 부재의 의미 분석",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김창원,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의 본질과 제 문제",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김창원, "국어과 교육 과정의 생태학 (1): 2011년 교육 과정 개정에 관한 성찰",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김평원, "말하기 불안의 분석 모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김평원,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토론 평가자 교육을 위한 퍼지 분석 모형의 효과",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김평원,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매크로 토론(Macro Debate)을 활용한 CEDA 방식 토론 교육",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김평원, "프로토콜 분석을 활용한 쓰기 과정 지도 및 평가: 논술 텍스트 생산 과정 모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김현주, "상호 교섭적 관점에 의한 대학 토론 교육: H대학 〈말과 글〉 교육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김혜선, "차기 국어, 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 차기 초등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영역 내용 체계의 방향",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김혜숙, "통합적 문장 교육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맥락과 텍스트 중심의 활동 교재 구안을 위하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김혜정, "국어과 교육 내용으로서 맥락의 교육적 실행 연구: 중등 읽기 영역에서의 교수법 및 교재 구성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

말연구학회
김호정·박재현·김은성·남가영, “한국어 수업 담화 분석을 통한 교사의 문법 용어 사용 사례 연구”,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김효정·제민경, “국어과 사이버 가정 학습 수준별 콘텐츠 내용 개발 연구: 중학교 2학년용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희경, “협력적 읽기 수업의 교수 설계 모형”,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나영은, “경험담 분석을 통한 쓰기 태도 형성 파악: 정서 요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나은미, “대학 토론 교육의 비판적 검토 및 개선 방안: 교양 교육으로서 토론을 대상으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남가영, “문법 교육용 텍스트의 개념 및 범주”,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남가영, “초등학교 문법 문식성 연구의 과제와 방향”,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남기탁, “전국 한자 능력 검정 시험과 한자 교육”, 어문연구 3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민우,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 도구의 국제 비교 연구”,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남민우·김경희·김희경, “PISA와 NAEA에서 나타난 우리나라 학생들의 국어 능력 특성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남민우·남가영,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시행 체제 개선 방안”,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노은희, “다문화적 교수 역량 강화를 위한 국어 교사 교육 연구: 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노철현, “2009 개정 초등 교육 과정의 특징과 향후 과제”, 초등교육연구 24-3, 한국초등교육학회
도준호·김명섭, “디지털 매체 언어를 활용한 읽기와 쓰기의 수업 방법 제언”, 논문집 72-1, 육군3사관학교

류성기, “초등 중학년 듣기 교재 메모할 내용 분석 및 메모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문광진, “중학생 쓰기 상위 인지와 쓰기 수행의 관련성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문광진, “중학생의 문단 쓰기 지식과 인식이 쓰기 수행에 미치는 영향”,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문광진, “중학생의 쓰기 상위 인지 검사 도구 개발 연구”,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문병상, “내·외재적 읽기 동기, 자기 조절 읽기, 읽기 활동과 읽기 능력의 관계”, 중등교육연구 59-1,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민재원·김창원,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의 지향과 시 교육의 이데올로기: 3·4차 교육 과정기의 중등 시 교육”,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민현식, “국어 교육의 학문적 정체성과 실천 과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민현식·김기훈·윤경욱, “국어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박보현, “중세 국어 의문문 교육 방법에 대한 연구”,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박상규, “교육 방송 상업용 도서의 수준과 적합성 검토: 언어 영역 ebs 수능 연계 교재를 대상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박상민·최선경, “첨삭 지도에 대한 학습자 요구 분석과 효율적인 첨삭 지도 방법”,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박성우·김홍범·조경희, “프로젝트 기반 유러닝을 활용한 국어 교육”,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박소경, “한자는 지적 능력 향상에 반드시 필요”, 한글+한자문화 14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수빈, “일제의 황국 신민화 정책과 『조선어 독본(朝鮮語讀本)』: 4차, 7차 교육령기 『조선어 독본』을 통해 본 일제의 식민 지배 정책 변화”, 어문연구 1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수자, “맥락 기반 읽기 지도의 관점과 반성”,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수자, “비문학 독서 감상문의 인용 양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박수자, “초등 교과용 도서의 적합성 고찰”,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박수자, “초등 읽기 교과서 단원 체제 고찰을 통한 읽기 수업의 전망”,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박수자, “초등학교 6학년 다큐멘터리 감상문의 양상”,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박순원, “독서 지수의 활용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박영민, “국어 교사의 쓰기 평가 효능감 분석”,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박영민, “국어 교사의 작문 평가 전문성 신장 방안”,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박영민,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수준과 측정 방법”,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박재현,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교육적 기능을 고려한 토론 유형 선택의 변수”,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박정수, “한·일 초등학교 국어과 교육 과정 비교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정진, “2007 개정 초등학교 국어 문법 영역의 교과서 실행 양상 분석”,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박정진, “아동 쓰기 발달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정진, “청소년 대상 독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언”,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종임,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태도” 범주의 문제점 고찰: 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박종훈, “방송 토론 듣기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박주용, “귀국 학생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방안: 중학생을 대상으로”,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진규, “조기 유학과 문식성 발달 지체에 대한 사례 연구”,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진용, “국어 교육과 교과서: 국어 교과서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박진홍, “초등학교에서 띄어쓰기의 교육 과정 수용 방안”,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박찬규, “학업 성취도와 학습자 변인의 관계”,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창균·이정우, “초·중·고 교사의 교수 화법에 대한 인식 조사”,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박치범, “일제 강점기 보통학교『조선어 급 한문 독본(朝鮮語及漢文讀本)』의 성격: 제일차 교육령기 사학년 교과서의 ‘연습’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2, 韓國語文敎育硏究會
박현이·김화선, “협력 학습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박현주·박효은, “중학교 과학과 지필 평가 문항의 국어학적 오류 분석”, 교육문화연구 17-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박형우, ““문법” 영역 수행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박호관, “대학 글쓰기의 교육 내용과 통합적 교수·학습 방법: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백경미, “유아의 언어 습득 과정에 나타난 용언 활용 오류”,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백정이, “자기 계발서의 구성에 따른 읽기 교육적 접근”,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서승아, “토론 기반 말하기 학습에 대한 연구: 대학생의 설득적 말하기 수업을 대상으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서승아,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토론 교육의 내용 체계 연구 -중등 학습자군의 웹 토론을 대상으로”,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서영진, “2011 개정 “화법과 작문”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설득” 범주 교육 내용의 재구성을 통한 대안 모색”, 화법연구 19, 한

국화법학회
서영진, “고등학생의 토론 효능감 구인 연구”,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서영진, “논증적 상호 교섭 전략으로서 논증 도식 유형에 대한 연구: 국어 교과서의 “논증”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서영진, “쓰기 교육 내용 조직의 위계성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서유경, “고전 소설의 비판적 읽기를 통한 창의적 독서 결과 표현 연구: 『심청전』의 개작본 『몽금도전』을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서종훈,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서종훈, “문단 구분과 쓰기 수행 능력 상관관계 연구: 중·고 학생들의 쓰기 사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서종훈, “문단 중심 고쳐쓰기 사례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서혁, “읽기(독서) 교육 체계화를 위한 텍스트 복잡도(Text Complexity) 상세화 연구 (1): 텍스트 복잡도 연구의 비판적 고찰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서현석,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초등학교 토론 대회에 대한 사례 연구”,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선주원, “다문화 소설에 형상화된 유목적 존재들의 삶 이해를 통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선주원, “이야기 유형을 활용한 옛이야기 수업(교육) 방법”,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손은남·이우진, “형태 통사적 범주에 따른 일반 아동(4-6세)의 의문사 이해 발달”, 언어치료연구 20-1, 한국언어치료학회
송영빈,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일본에서의 한자 교육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송현정·양정실, “다문화 사회의 국어 교육 변화에 대한 인식 조사 연

구”,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송현주·최진아, “인지 언어학에 기반을 둔 관용 표현 교육 연구”, 중등교육연구 59-3, 경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신동광,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기본 어휘의 선정 기준 -영어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신명선,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적 특징에 대한 통시적 연구: 1-7차 중학교『국어』1-1학기 1단원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명선, “국어 교육과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과 토론 교육 과정의 교과서 반영 양상에 대한 사적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신명선,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국어과 어휘 교육 내용의 유형화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신명선·권순희, “새터민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신선경, “공통 과학 교과서의 텍스트성 연구: 텍스트의 의도성과 용인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성환, “통섭(通涉)의 학문으로서의 ‘글쓰기 인문학’과 효율적인 평가 방안”, 수행인문학 41-2,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신승용, “문법 교육에서 구(句)와 어(語)의 문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신은정·이수진, “구두 작문을 통한 글쓰기 능력의 변화 연구”,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신지연,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지리 영역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헌재, “국어 교육의 발전을 담보할 국어 교과서관: “열린 교과서관”의 국어 교육학적 의미와 국어 교과서 개발에 주는 시사점”,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신헌재, “초등 예비 교사를 위한 국어과 수업 컨설팅 적용 연구”, 한국초등교육 22-1, 서울교육대학교
신현규, “중앙대학교 글쓰기 교육의 현황과 전망”, 어문론집 48, 중앙어문학회

신형욱·이재원, “교과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 텍스트 언어학의 과제와 한계”,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신호철, “중·고등학생의 문장 부호 사용 양상 조사”, 한민족문화연구 37, 한민족문화학회
심상욱, “콘텍스트 개념의 변화에 따른 독서 전략”,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심영택, “협상 담화 교육 방법 연구”,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심재기, “국어 교육의 정도 진입(正道進入)을 위하여 (2): 국한 혼용의 불가피성 논의”,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심재기, “국어 교육의 정도 진입(正道進入)을 위하여: 국한 혼용의 불가피성 논의”, 한글+한자문화 14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안부영, “2009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한 제언”,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안부영, “교과서에 반영된 “창조적 읽기” 양상”,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안주호, “2011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문법 교육 내용에 대한 연구”,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안찬원, “훈민정음 창제 원리에 따른 한글 자모 교육”,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양경희·이삼형, “쓰기에 나타나는 자기중심성에 대한 교육적 이해”,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양명희, “고등학교 사회 교과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양영희·서상준·손춘섭,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의 개선 방안”,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양정호, “중학교 사회 교과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이해: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어수진, “과정-장르 중심의 쓰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엄해영·조재윤, “국어 교육에서의 문학 창작 교육 연구”, 한국초등교육 22-1, 서울교육대학교

엄훈,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발달 양상 연구: 해부호화 능력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오세영, “2011년 도입 고등학교『국어』교과서 쓰기 전략 분석: 자기 주도적 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오영신, “2007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법 영역 내용 분석”,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오정훈, “하이퍼텍스트성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오현아, “근현대 국어 교육 자료 변화 양상 연구: 초등 국어 교육 자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오현아, “문법 교육에서 맥락의 수용 문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오현아, “학습자 중심 작문 평가 결과 제시 방식에 대한 고찰”,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오현아, “화제-초점 중심의 텍스트 구조 유형화에 대한 고찰: 설득 텍스트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오현진, “대학 신입생들의 글쓰기 양상에 대한 고찰”,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옥현진, “작문 연구의 국제 동향 분석과 대학 작문 교육을 위한 시사점”, 반교어문연구 31, 반교어문학회
옥현진·서수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그림일기 표현 활동에 나타난 복합 양식 문식성 양상 분석”,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왕효성, “한·중·일 모국어 교과서 단원 구성 체제에 대한 비교: 중학교 1학년 교과서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우신영, “문화사적 접근을 통한 교육용 문학사 서술 시론”, 정신문화연구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우형식·김윤미, “한국어 열린 읽기 프로그램의 적용과 평가”,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원용석, “차기 국어·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 차기 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원자경, “소설 텍스트의 읽기 능력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 연구: 이상

『날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원진숙·황정형·이형호, "장르 기반 환경적 쓰기 교수·학습 모형 개발 연구", 한국초등교육 22-2, 서울교육대학교
유동엽, "초등학교 2학년의 이야기 능력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유혜령, "작문 교육에서 문장 쓰기 지도의 방향",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유혜령·김성숙, "문법 능력과 작문 능력 간의 상관성 고찰: 고등학교 1학년생의 논술문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유혜원·김유미·김정녀, "여성 리더 발화 분석을 통한 말하기 교육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윤구희, "문장 부호 "따옴표"의 국어 교과서 사용 실태 분석: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윤재연,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와 글쓰기",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윤준채, "읽기 전략의 효과에 대한 검토: 메타 분석 연구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윤천탁, ""공정한 어휘" 사용의 생활화를 위한 어휘 교육 방안",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이경수,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초등학교 국어 어휘 교육에 대한 소고: 우리와 프랑스의 학업 성취도 평가 유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경숙, "초등학생의 그림책 읽기 과정 양상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이경화, "2007 개정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과정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이경화, "국어 교육과 교과서: 통합적 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 교과서 개발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이경화, "초등 국어 수업 평가 기준 설정 및 수업 평가의 실제", 초등교과교육연구 13,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이경화·이미영, "이야기 글 요약하기의 개념과 의미", 초등교과교육연

구 14,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이관규, “문법 교육의 인식 변화와 문법 교재의 양상”,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관규,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문법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관규·신호철, “국어 어문 규범 교재의 성격과 어휘 선정 원리”,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기연, “어휘력 평가의 평가 요소와 평가 유형에 대한 고찰”,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이남주,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토론 중심 고교 화법 교육 개선 방안 연구”,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이도영, “2009 개정 교육 과정의 작문 교수 학습 방법 및 평가”,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이도영,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어휘 교육 평가의 이론적 고찰 - 목표와 내용 타당도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도영, “초등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맥락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래호, “고등학교 국어 검정 교과서의 ‘음운 규칙’ 관련 기술에 대한 고찰”,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이명숙,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언어적 창의력 신장 방법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이미숙, “복합 양식 문식성 교육의 실천적 원리 탐색: 애니메이션 교수·학습 재구성 사례를 토대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이미정, “쓰기 상호 평가적 협의에서 또래 간 비계설정의 양상 연구”,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이병선, “한글+한자 문화 칼럼: 교육의 질 저하는 한자 교육의 부실에서 왔다”,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삼형,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생애 교육으로서의 독서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이삼형·이선숙, “주장과 근거 관련 용어의 재범주화: 2007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이상신, "'교육 연극'으로 여는 교과 융합형 쓰기 교수·학습 방법 연구: '맥락' 중심의 개정 국어 교과서와 '특화 단원'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29-1, 춘천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이상우·강연희, "초·중등 학습자를 위한 광고 비판적 읽기 전략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선영,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국내·외 토론 대회 현황 분석을 통한 토론 교육 발전 방안 연구",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이선웅,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의 방송 언어 활용사: 거시적 관점의 서술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성영,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초등 교과서의 이독성 비교 연구 -국어, 사회, 과학 교과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이성영, "초등 중학년의 읽기 학습 과업",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수진, "쓰기 직접 평가를 위한 텍스트 분석 평가의 실행 방안",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이수진·이동배·리차드발다우프, "초등 국어 교과서에 내재된 이데올로기 분석: 1-4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순영, "교사들의 텍스트 유형별 선호와 인식 연구: "정보 텍스트"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이순영, "차기 국어·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 21세기 국어과 교육 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 -미국의 "공통 핵심 기준"의 특성과 시사점 분석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순영, "텍스트 난도와 텍스트 선정에 관한 독자 요인: 초·중·고등학교 독자들의 반응을 중심으로 한 시론",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이승채, "이공계 교수의 반복 독서 경험에 관한 연구",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이승희, "조선 시대 한글 편지를 활용한 국어사 교육", 정신문화연구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이영태, "고등『문학』교과서 소재 고전 시가를 통한 문학 교육 방법

의 모색: 스토리텔링의 방법에 기대",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영호, "맞춤법 교육 내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초등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원선, "인터넷을 활용한 문학 비평 쓰기 활동 연구",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이유미, "토론 대회와 토론 지도: 프레임(Frame)을 활용한 교차 토론 방법 연구",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이은규, "언어 비평, 그 가능성과 필요성",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은미, "2011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작문 영역의 발전적 위계화 방안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은주, "독서 토론과 연계한 대학 글쓰기 수업의 효과: 덕성여대의 사례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이은주, "쓰기 과제에 드러난 내용 요소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은희,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성 연구: 단원 구성 체제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은희, "문법 평가의 영역 통합적 실현 양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이은희, "문법 평가의 현황과 과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재기, "교수 첨삭 담화와 교정의 관계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재기, "중등 상업용 교육 도서의 비판적 검토",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이재기, "학생 필자의 해석 텍스트에 대한 '반응 중심' 작문 평가",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이재석, "한자 공부는 어려서부터",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재성, "'강의-실습-과제' 연계 대학 글쓰기 교육 모델 연구", 인문논총 23,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재승,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쓰기 영역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이재승, “글쓰기 효능감 연구의 동향”,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재승,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개발 방향”,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재형, “국어과 교과서에서의 비판적 문식성 수용 양상”,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이정숙·김국태·박창균, “국어 수업 대화의 재개념화”,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정찬, “작문사적인 관점에서 본 근대 초기 작문 교재 연구”,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이종철, “어휘 교육의 발전 방향 탐색: 작문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지민·이성은, “문학 독서를 활용한 초등학생의 논설문 쓰기 양상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지영, “잠복된 문학 독서의 발현 양상에 대한 연구”,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이지영·박소희, “초등학생의 책 선택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창근, “맥락을 고려한 초등 문법 교육: 문장 쓰기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창덕, “듣기·말하기 영역의 문식력 교육: 초등학교 중학년 중심으로”,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창덕,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이상과 현실”,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창수, “어휘 교육 연구 어디까지 왔나”,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충우, “독자에게 적합한 도서의 선정”,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이향근,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우리말 꾸러미”의 교육 내용과 교사 인식”,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이혜인,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 ITC의 활용이 창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이호형,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의 비판적 이해와 교과서 구현 방안: 국어Ⅰ·Ⅱ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이호형, “언간을 통한 국어 생활사 교육 연구: 교재화 방안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이황직, “고전 읽기를 통한 교양 교육의 혁신: 숙명여대의 ‘인문학 독서 토론’ 강좌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임미성, “아동 독자의 읽기 발달과 읽기 지도”,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임미성, “읽기 발달 연구에서 질적 연구 방법의 의미”,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임성규, “‘ㅐ, ㅒ’ 발음의 교육 방법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임성규, “‘ㅐ, ㅒ’ 표기의 교육 방법 연구”,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임성규, “어린이 문학 교육의 발전 방향: 어린이 문학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임성규·이영심·이은주, “국어과 수업에서 창의성 발현 방안 연구”, 초등교육연구 25-2, 광주교육대학교초등교육연구원
임천택, “국어과 교수·학습 모형의 적용 사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임천택, “국어과 학습 부진아 지도 방법”,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임천택, “학습 목표 면에서 본 국어과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과제”,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임춘택, “전공 탐색과 진로 모색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전략과 지도에 관한 한 방안”,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임칠성, “국어과 수업 자가 평가 연구”,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임칠성,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토론의 본질과 토론 지도”,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장순희·성치경, “체제적 교수 설계를 위한 7학년 문학 평가 분석”,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장영희,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대학생 토론 교육의 실제와 개선 방안 연구 -남서울대 토론 지도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장은섭, “국어 교육과 교과서: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대한 학생과 교사들의 평가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장주연, “한자어 학습 과정에 나타난 비한자 문화권 출신 학습자의 어휘 학습 전략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전상우, “정전(正典) 개념의 확장을 통한 교과서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전은경, “공학 교육 인증제(ABEEK)와 과정·통합형 수업 모델 개발”,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전은주, “국어 교과의 영역명에 관한 일고: 듣기·말하기 영역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전은진, “유아의 어휘력 검사를 위한 발달 지표 연구”,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전인숙, “쓰기 과제의 수사적 요소에 대한 필자의 인식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전제응, “쓰기 워크숍 방식의 고쳐쓰기 지도가 초등학생의 쓰기 동기에 미치는 영향”,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전제응·신애경·고전·장승희, “교육 대학 토론 수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좋은 강의 실천 모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초등교육 22-2, 서울교육대학교
전한성, “자전적 서사의 형상화 과정을 통한 서사 창작 교육 방향 연구: 『백범 일지』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정미경, “고등학생의 쓰기 전략 인식에 관한 연구”,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정미경, “국어 교사의 성별에 따른 쓰기 평가 특성 분석”, 교원교육 27-4,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원
정미진, “개념 은유를 활용한 외국인 학부생 대상 교양 글쓰기 수업 연구”,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정민주, “협상 담화 지도를 위한 과제 구성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정병철, “수사학적 문법의 인지적 토대”,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정병철, “인지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문법 교육 과정의 개선 방향”,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정부자,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 부진 아동의 읽기 능력 및 읽기 관련 변인에 대한 종단 연구”, 언어치료연구 20-1, 한국언어치료학회
정영복, “국어 교과서의 반의어 내용 구성 방안”,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정옥년, “도서의 수준과 도서 선정에 관한 사회적 요인 탐색”,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정우기, “‘시 읽고 쓰기’ 중심의 초등학교 시 창작 교육 연구”,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정정순, “맥락적 지식 중심의 한시 교육: 두보의 『춘망(春望)』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정형근, “‘전통 계승 시’의 유형과 교육 방법”,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정혜승, “국어과 교과서 채택 기준과 채택한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반응: 2007년 개정 교육 과정에 따른 중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정혜승, “국어과 교과서의 다양성 구현 방안: 검정 전·중·후 단계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9-2, 한국교육과정학회
정혜승, “외국의 국어 교과서 체제 분석: 미국과 프랑스 초등학교 교과서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정희창, “한글 맞춤법의 “역사적 표기법”과 교육 내용 구성”,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제민경, “텍스트 중심 문법 교육의 방향 탐색: 신문 텍스트의 “전망이다” 구문을 중심으로”,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조동길, “교육 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반성적 성찰: 국어 교과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조병영, “구인 타당도와 결과 타당도 이론이 독서 평가의 해석과 사용에 주는 함의”,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조원형, “고등학교 『과학』 교과서의 흥미 유발 전략과 그 텍스트 언어학적 의의”,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조재윤, “국가 수준 국어과 학업 성취도 평가의 적합성 검토 연구: 국어과 평가의 적합성 검토 VRUT 모형을 사용하여”, 한국초등국어교육 46,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조재윤, “대학 “사고와 표현” 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 조사 연구”,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조재윤, “작문 평가의 도구와 방법 개선 방향 설정”,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조재윤,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 2007 개정 교육 과정에서의 토론의 성격 탐색”,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조증열, “초등 중학년의 한글 문식성 발달에 대한 인지 심리학적 이해”, 한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조형일, “읽기(독서)에서의 교육 내용 위계화: 읽기에서의 어휘 시소러스(thesaurus)의 응용”,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조희정, “국어 교육과 교과서: 국어 교과서의 역사적 변천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조희정, “대학 교양 수업의 비평문 쓰기 교육 연구”, 작문연구 12, 한국작문학회
조희정·이희영, “공과 대학 프로젝트형 글쓰기 상담 연구: 제안서와 결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주세형, “평가 문식성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사 교육”,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주세형, “한국어교육학회 제270회 학술 대회(2010.10.02) 특집: 국어과 문법 평가 이론의 발전 방향”, 국어교육 135, 한국어교육학회

주세형, “해암 선생이 남긴 국어 규범 교육의 원리”,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주세형·신호철, “국어 어문 규범 교육의 목표 및 내용의 재구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위계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주세형·조진수, “텍스트 이해 양상 진단 도구로서의 문법”,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지순정·이상도, “자기 결정성 이론에 기초한 동기와 독해 능숙도 및 독해 전략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지혜란, “시 창작 지도에서 피드백 방법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천경록, “국가 수준 국어과 평가의 정합성 분석: 중3, 고1 학업 성취도 평가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6, 한국어교육학회
천경록, “읽기 교육 과정과 교과서 간의 정합성 분석”,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최건아, “고등학생의 쓰기 효능감 및 쓰기 결과 기대, 글 점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최건아, “대학의 전공 쓰기 과제 분석”,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최건아, “이야기 읽기 중 초등학생의 상호 반응 유형: 초등학교 2학년의 소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최경희, “대학생들의 독서 경향 연구”, 초등교육연구 22-1,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최광제·김장원, “교양 교육과 실용적 글쓰기의 역학 관계 연구”, 서강인문논총 31,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최규홍, “초등학교 문법 단원 구성에 관한 연구”, 한국초등국어교육 47,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최규홍, “초등학생의 맞춤법 지도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최미숙, “문학 교과서와 재외 동포 문학 교육: 조선족 문학 작품을 중

심으로", 독서연구 26, 한국독서학회
최상민, "대학생 글쓰기 지도에서 평가 준거의 설정과 활용 문제",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최성훈, "소재 중심의 다중 텍스트 읽기를 활용한 교과서 구성: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 교과서를 중심으로", 초등국어교육연구 11, 대구경북초등국어교육학회
최소영, "국어 문화에 대한 교육 내용으로서의 어휘사 교육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최숙기, "읽기 교육의 상위 인지 수용 양상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1 국어과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최숙기, "차기 국어·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 차기 국어과 교육 과정 읽기 영역 내용 체계의 방향 설정",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최숙기, "Rasch 모형을 활용한 요약문 평가 준거 개발 및 타당도 분석: 고등학생 설명문 텍스트 요약하기를 중심으로",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최숙기, "Rasch 평정 척도 모형을 이용한 쓰기 불안 척도 분석",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최승식, "현행 작문 교육과 2009 개정 교육 과정 시행의 문제", 작문연구 13, 한국작문학회
최영인·박재현, "국어과 예비 교사들의 "시범 보이기"에서 나타나는 문제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최운선, "어휘 활용 능력 평가의 방법 연구", 장안논총 31, 장안대학
최인자, "국어 교과서 평가 기준의 비판적 성찰: 2007 개정 중학교 교과서 검정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최인자, "소설 화자의 맥락적 이해와 윤리적 반응 형성을 위한 소설 교육", 독서연구 25, 한국독서학회
최형기, "품사 통용을 이용한 국어 품사 교육 방안",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최혜민, "텍스트 종류에 따른 한국어 쓰기의 내용 평가 기준 연구: 설명문, 논설문, 감상문을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

어문학회
최홍원, “창의성에 대한 이해 지평의 확대와 국어 교육적 재조명”,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표정옥, “신화적 상상력을 활용한 경계를 넘는 독서 토론과 융합적 글쓰기 연구: 『삼국유사: 기이편』에 기술된 다문화 상상력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1, 시학과 언어학회
하애은, “4학년 읽기 교과서에 실린 서사 작품의 적합성 분석 연구”, 초등국어과교육 23, 광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학회
학회 자료, “한자 교육 자료: 언론에 나타난 한자 교육”, 한글+한자문화 1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 자료, “한자 교육 자료: 언론의 한자 관련 기사 -한자를 배워야 하는 이유”, 한글+한자문화 13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경숙, “2011년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 〈쓰기〉 영역의 내용 검토: 공통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한명숙, “차기 국어·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 2007 국어과 교육 과정과 초등 문학 교육 전망 -“내용 체계”의 비판과 구성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한수미,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텍스트 선정 원리와 경향 분석’에 대한 토론 글”,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한연희·전은주, “2011 국어과 교육 과정 듣기·말하기 영역 수직적 조직 분석: “국어” 과목 담화 유형을 중심으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한영옥, “문법 교육의 현실과 지향”,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함성민, “오락 프로그램을 통한 전통극 교수·학습의 한 사례”,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허선익, “담화에서 지엽적인 의미 연결 인식 연구: 고등학교 1학년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허재영, “근대 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한민족문화연구 36, 한민족문화학회
허재영, “문법 교육 과정 설계를 위한 가치 범주 설정 가능성”, 한말연

구 28, 한말연구학회
허재영, “문법과 문학의 통합과 텍스트 활용 양상”,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허재영·이규범, “어문 규범 교재의 실제”,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허현숙·곽경미·이윤경, “언어 학습 부진 아동의 구어 능력과 읽기·쓰기 능력과의 관계”, 언어청각장애연구 16-1,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Lee, Dong-bae, “The Period of American Post-War Influence on South Korean Education: Analysing Primary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한어문교육 2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기타〉

김미연,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독서 교육”, 교육경남 185, 경상남도교육청
박길자, “[기획 1: 생활 속 촘촘히 뿌리내리는 독서 교육] 독서 교육이 진화한다”, 꿈나래21 351, 교육과학기술부
최은희, “[기획 1: 생활 속 촘촘히 뿌리내리는 독서 교육] 생활 속 촘촘히 뿌리내리는 독서 교육 정책”, 꿈나래21 351, 교육과학기술부
한상수, “[기획 1: 생활 속 촘촘히 뿌리내리는 독서 교육] 디지털 시대의 독서 교육”, 꿈나래21 351,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어 교육

〈단행본〉

가나다 한국어학원 교재 연구회 저·최혜식 삽화, 『(New) 가나다 Korean for Foreigners: Intermediate 1』, 랭기지플러스 한글파크
가나다 한국어학원, 『(New) 가나다 Korean for Chinese: 초급 2』, 랭기지플러스 한글파크
가네시마·고우노 저·허재영 해제, 『3개월 졸업 일선 신회화』, 역락
가톨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편, 『OK 한국어 1』, 한국문화사
강현화, 『이주자 사회 통합 정책 교육 1: 이주자의 언어문화 교육』, IOM이민정책연구원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1』,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1-2』,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2-1』,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2-2』,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Workbook 1-1』,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편·김주연·손재은·이희정 저, 『(함께 배우는) 건국 한국어 Workbook 1-2』, 건국대학교 출판부
건양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 단어장: 초급』, 문경출판사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한국어 1-2』, 경상대학교 출판부
구재희·현진희·이소영·황선영·김민선, 『이화 한국어: Workbook 3-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구재희·현진희·이소영·황선영·김민선, 『이화 한국어: Workbook 3-2』,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국립국어원, 『2011년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 자료 개발 제작 사업 최종 보고서』(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연구 책임자: 이보라미),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연구 책임자: 이보라미), 도서출판 하우
국립국어원,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연구 책임자: 김중섭),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1』(연구 책임자: 서지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언어 지도 안내(베트남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몽골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베트남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영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일본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중국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캄보디아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타갈로그어(필리핀))』(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한국어)』(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교

사용 지도서 5수준』(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교사용 지도서 6수준』(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부모용 활용 안내서 5수준』(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부모용 활용 안내서 6수준』(연구 책임자: 이순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세종 한국어 1』(연구 책임자: 김정숙),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세종 한국어 2』(연구 책임자: 김정숙),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연구 책임자: 김정숙),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교원용 지침서』(연구 책임자: 김선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교원용 지침서』(연구 책임자: 김선정),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 개발』(연구 책임자: 이미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6 개발』(연구 책임자: 이미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연구 책임자: 허용),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중급 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연구 책임자: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초급 한국어 읽기: 교원용 지침서』(연구 책임자: 이보라미),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 주최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 교재』(연구 책임자: 한슬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연구 책임자: 정갑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연구 책임자: 한보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 교재 추천 제도 운영 방안 연구』(연구 책임자: 김호정), 국립국어원
국제한국어교육자협회 연구회, 『TOPIK 필수 어휘 1000: 중급』, 소통
권동오·신동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작문』, 나누리
권성미, 『(Dr. Kwon의) 한국어 기본 문법』, 박이정
金龍·林從綱 主編·權赫哲·滿秀娥 參編, 『韓國語寫作基础与實踐』, 北京大學出版社
김금옥·이양원·양해술, 『IT 공학 한국어』, 휴먼싸이언스
김선정·강현자·강진숙·윤정아, 『살아 있는 한국어 워크북 Level 4』,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선정·강현자·류선영·박미자, 『살아 있는 한국어 워크북 Level 2』,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선정·강현자·이명호·손현영, 『살아 있는 한국어 워크북 Level 3』,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선정·강현자·이소현·이정윤, 『살아 있는 한국어 워크북 Level 1』, 계명대학교 출판부
김영란, 『(언어 교육 이론에 비추어 본) 한국어 교육 교재와 연구』, 소통
김영주·김인호·남주연 지음·박수현 그림, 『요리 한국어』, 한국문화사
김춘해·오민탁, 『외국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중급』, 나누리
김칠관·윤병천, 『응용 언어학 개론』, 양서원
김현진·이인경·강여림·박은선·신희랑, 『이화 한국어: Workbook 2-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나찬연, 『벼리 한국어 회화: 초급 1-2』, 경진
南明哲 主編·趙愛仙·劉淑双·畢信燕·孫福姬 副主編, 『韓國社會与文化』, 北京語言大學出版社
라혜민·김순우, 『(한국어 선생님을 위한) 문법 교수법: 초급 1-2』, 소통
류향기·현혜선·한봉원, 『대원 한국어: 초급 1』, 대원대학교
李俊植·孫東植 編著, 『科技韓國語』, 延邊大學出版社
마스다 노리유키, 『열공하자! ハングル·會話練習帳: 처음으로 배우는 쉬운 한국어』, 에세이퍼블리싱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11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참가 자

료집』,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문화체육관광부·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편, 『한국어 확산 문화 프로그램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민진영, 『초보자를 위한 톡톡 한국어: A Guide Book of the A to Z's of Hangeul』, 박이정
박경자·장복명, 『언어 교수학』, 박영사
박덕유 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연구』, 박문사
박덕재·박성현, 『외국어 습득론과 한국어 교수: 한국어 교사를 위한 실제적인 교수 방법』, 박이정
박미경, 『성경으로 배우는 한국어』, 박이정
朴智英·劉素瑛 編著·任明杰 譯, 『跟李准基一起學習"你好!韓國語"』, 世界圖書出版公司北京公司
상보유 저·안희정 역, 『통번역과 언어 습득』, 중문출판사
서경숙, 『美味的韓語 31: 爲移民們准備的 通過料理學韓語』, 한국문화사
서경숙, 『美味しい韓國語 31: 移住者のための料理で學ぶ韓國語』, 한국문화사
서경숙, 『Delicious Korean 31: A Book for Immigrants to Learn Korean Through Cooking』, 한국문화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교재위원회, 『아하! 한국어: Student's Book 1』, 경문사
신동렬·권동오, 『외국인을 위한 종합 한국어: 초급』, 나누리
신영대·김도경·후림 편저, 『(관광 국제 비즈니스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무 한국어 회화』, 백산출판사
신영대·김도경·후림 편저,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관광 서비스 예절과 호텔 한국어 회화』, 백산출판사
안성희·황세레나, 『(일본어) 난타로 배우는 아름다운 한국어와 문화』, 아름다운 한국어학교
양명희·김정남, 『한국어 듣기 교육론』, 신구문화사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습: 중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고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중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편,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 초급』, 연세대학교 출판부
연재훈 엮음, 『유럽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쟁점: 유럽 한국어 교육자 워크숍 논문집』, 박이정
오정란·교지연, 『외국어로서의 한·중 언어 문화 비교』, 박이정
윤슬기·민경진·김미정, 『이집트에서 한국어 선생님으로 살기: KOICA 해외 봉사 단원 활동 경험담』, 시나리오 친구들
윤영·허연임·권경미·이을지·최우전, 『이화 한국어 4』,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미혜·구재희·박선현·안소정·오유영, 『이화 한국어: Workbook 1-1』,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이선이·이명순, 『(외국인을 위한) 오늘의 한국』, 한국문화사
이주민·이하나·안영희, 『대원 한국어: 중급 1』, 대원대학교
이주행, 『(알기 쉬운) 한국어 문법론』, 역락
이주현 펴냄, 『한국어 운동하기』, 마그네틱
이주현, 『한국어 여행하기』, 마그네틱
이해영·김은영·신경선·주은경·이정란·이현의 저·김미연 삽화, 『(생활 속) 한국 문화 77』, 한글파크
장미경,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월인
장소원·김성규·전영철·Paradowska, A. I.·Janasiak, C. J.·Huszcza, R.·남수경·채숙희, 『(폴란드인을 위한) 한국어 1-2』, 박이정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2011년) 지역별 한글학교 운영 실태 보고서: 2011년 재외 한글학교 교사 초청 워크숍 참가 학교 제출 자료 중심』, 재외동포재단 교육문화팀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편, 『베트남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교육 지도 자료』,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편, 『필리핀 다문화 가정 자녀 언어 교육 지

도 자료』,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정정덕, 『언어권별 한국어 문법 교육』, 지식과 교양
조동오, 『큰 소리로 읽는 한국어: 낭독의 발견』, 진영사
조동현, 『세계속의 한글 배우기: 월평 영재 한글 터득』, 월평교육문화사
조형일·김정현, 『읽으면서 배우는 한국어 연습』, 한국문화사
채영희, 『(신나라) 부경 한국어 1-7』, 부경대학교 출판부
천소영, 『한국어의 문화 전통』, 대원사
劉凝 主編, 『如影隨形: 韓國語親情影視人生』, 外文出版社
劉沛霖·劉鳳琴, 『韓國語慣用組合』, 商務印書館
최영희,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기본 문법』, 새론
崔晶·鄒積凱·宋敬敏 編著·李欣 修訂, 『走進韓國脫口秀: 即學即用MP3教你說地道韓語』, 中國紡織出版社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매일 만나는) 한국어 1-2』, 충북대학교 출판부
충북대학교 국제교류원, 『(쉽게 말하는) 한국어 3』, 충북대학교
케이노트 편집부, 『(For Self-Study) SELKO Korean Basic 1-1』, 케이노트
케이노트 편집부, 『(For Self-Study) SELKO Korean Basic 1-2』, 케이노트
呂浩 編, 『韓國漢文古文獻异形字研究之异形字典』, 上海大學出版社
판리리, 『실용 비즈니스 한국어』, 서울교육미디어
한국가곡연구소, 『외국인을 위한 한국 가곡 1』, 국학자료원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저·여현빈·송미영·민병권 삽화, 『열린 한국어: 중급 1-3』, 하우
한국어교육열린연구회 저·여현빈·송미영·민병권 삽화, 『열린 한국어: 초급 1-3』, 하우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한국문화학당 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학술적 글쓰기』,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한길, 『(외국인 대상) 한국의 언어와 문화』, 역락
황상심, 『다문화 아동의 언어 발달 특성』, 한국학술정보

孫艷杰·李曉明 編著,『无師自通韓國語語法一本通: 全國优秀暢銷書『无師自通韓國語』配套語法書』,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權震紅·兪炳洙 編著,『旅游韓國語』, 知識產權出版社
錢惠英·李海瑛·朴昌遠·金炫辰·崔炯龍·朴善姬 編著·王丹 譯審,『職場商務韓國語』, 北京大學出版社
韓梅·柳海準 主編·全源海·朱明爰·洪小熙·崔惠景 副主編,『韓國語口語教程. 初級 下』, 外語教學与研究出版社
Bialystok, Ellen 저·김영주·이정민 역,『이중 언어 발달: 언어와 문해력 그리고 인지』, 한국문화사
Day, Richard R.·Bamford, Julian 저·우형식·김수정·안은영·김윤미 역,『제2 언어 교실에서의 열린 읽기』, 한국문화사
Ganada Korean Language Institute,『(New) 가나다 Korean for Foreigners: Elementary 2』, 랭기지플러스 한글파크
Lee, Eunryoung·Yoon, Aesun edited,『Recent Trends in Language and Knowledge Processing』, Hankookmunhwasa

〈학위 논문〉

강려,〈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열음 오류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강명희,〈한국어 교사용 지침서의 과제(task) 지도 방법 분석〉,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강미함,〈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석사)
강수진,〈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반의어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강해 사마와디,〈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석사)
강혜림,〈한국어 학습자의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준말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고문희,〈UCC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고암,〈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석사)

고연숙, 〈의미에 기초한 고빈도 동사의 문형 분석 및 지도 방안〉,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고은정, 〈한국어 교육용 형용사 유의어 선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고형진,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결정성 동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고혜진, 〈베트남어권 학습자 맞춤형 한국어 교재 분석〉,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공민정, 〈'좋은' 한국어 교사에 관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식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공영, 〈한국어 관용 표현을 통한 개념 은유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감각 기관 관용 표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공영숙, 〈협력 쓰기가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문제 해결 쓰기 전략을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석사)
곽민경,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생활 문화 교육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곽민정,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수진, 〈형태 집중을 활용한 한국어 문장 구조 교육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교우박, 〈중국의 한국어 교재 『정독』에 대한 연구: 학습자의 반응과 요구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구와노 토모미, 〈한국어 초급 교재의 과제(task) 복잡성과 의사소통 기능 분석: 초급 2단계 말하기 과제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구은미, 〈다문화 가정의 문해 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강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구자혜, 〈대화 상대자 간 숙달도 차이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의미 협상 양상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구효진, 〈한국어 관용 표현 지도 방안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구희량, 〈한국 내 아시아인의 한국어 조음 음운 특성〉, 고신대 보건대학원(석사)

굴영,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 방안〉, 건양대학교 대학원(석사)

권민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거절 인접 쌍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상우, 〈한국인 학습자의 영어 학습을 위한 대화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사용 분석〉, 서울대 대학원(석사)

권승임,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읽기 자료 개발과 활용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유진,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학습 불안과 모험 시도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기영흠, 〈TOPIK 응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중급 어휘·문법 영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가람, 〈한국어 요청 전자 우편 쓰기 교수·학습 연구: 고급 학습자의 요청 화행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경섭, 〈외국 군을 위한 『군사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언어적 표현 연구〉, 경희대 대학원(박사)

김경현, 〈대화주의에 입각한 다문화 아동 쓰기 지도 방안 연구: 매체 언어를 활용하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경화, 〈한국어 시간 관계 연결 어미의 교수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여대 대학원(박사)

김광일, 〈한국어 능력 시험 결과 분석을 통한 언어권별 교수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남경,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배재대 대학원(석사)

김남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다원, 〈한국어 초급 교재의 대화문에 나타난 사회 언어학적 요소와 대화 구조 분석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동욱,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화 교재의 구성과 수업 방안 연구: 문화 체험 학습 사례를 대상으로〉, 청주대 대학원(석사)

김려연, 〈한국어 선어말 어미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김명민, 〈탈북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명자, 〈한국어 학습자의 색채어 의미 이해를 위한 기초 연구: '붉다' 계열 형용사를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김명화, 〈자녀 교과를 활용한 여성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목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중간 언어 양상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김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용 사자성어의 선정과 활용〉, 관동대 대학원(석사)
김문희, 〈전래 동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 대학원(석사)
김미경, 〈국어과 다문화 교육 연구: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소설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미경, 〈한국어 구어 능력 향상을 위한 종결 기능 연결 어미 교육 방안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나, 〈한국어 학습용 외래어 연구: 학습용 기본 어휘 선정 및 외래어와 순화어의 유의 관계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미란, 〈학습자의 근접 발달 영역 내 점진적인 적절한 도움 제공과 제2 언어 문법 습득〉,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미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의 지시 화행 연구: 요구, 제안, 부탁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김미옥, 〈한국어 기본 문형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김미향, 〈인도네시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교육 연구: 이주 노동자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민경,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민정, 〈관용 표현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민진, 〈세종학당 온라인 한국어 교재의 통사적 특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병호, 〈키르기스스탄 대학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에 관한 탐색〉,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김복수, 〈대중가요를 활용한 한국어 통합 수업에 관한 연구: 교육용 자료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봉성, 〈한국어 교재의 가치 문화 고찰: 집단주의 문화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김상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습 기술 교육 방안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미, 〈한국어 모어 화자와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논설 텍스트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용, 〈결혼 이민자 자녀를 위한 읽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김선희, 〈시제 체계 대조를 통한 '-었-'의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와 영어의 시제 불일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선희, 〈한국어 워크북에 대한 학습자 인식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성일,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연결 어미 '-아서'와 '-니까'의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세령,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김세현,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교재의 한국어 발달 측면에서의 적합성: 초등학교 저학년의 언어 발달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소영,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학술 전문 어휘 선정 연구: 언론 정보학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소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능력 신장 방안 연구: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소현, 〈육하원칙을 활용한 외국인의 전래 동화 읽기 교육 방안〉,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수연, 〈재외 동포 초급 한국어 교육에서의 높임법 교수·학습의 내용과 지도 방안 연구〉, 단국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정, 〈영어권 학습자의 '눈' 관용 표현 습득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수정, 〈한국어 교재와 TOPIK에서의 기본 어휘의 상관성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정, 〈한국어 교재의 공손성 분석: 요청 발화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김수진, 〈한국어 교육에서의 시간 관계 연결 어미의 교육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수현, 〈한국어 학습자의 '-겠-'과 '-(으)ㄹ 것이-' 사용 양상 연구: 추측 의미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김수홍, 〈읽기 폭 검사를 통한 한국어 읽기 능력 측정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아영, 〈한국어 국외 보급 정책으로서의 세종학당 연구: 세계 주요국가 자국어 보급 정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애순, 〈한국어 초급 교재의 쓰기 활동 연구: 영어 교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석사)
김연이, 〈한국어 치조 마찰음 발음 교육 연구: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연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부모 교육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영기, 〈초등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단락 듣기 이해력〉, 한림대 대학원(석사)
김영란,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취학 전 아동의 언어 특성 및 CAI를 활용한 부모 훈련의 효과〉, 이화여대 대학원(박사)
김영인, 〈관용적 표현을 통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 스페인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영호, 〈초등학교 다문화 학습자을 위한 친족어 지도 방안 연구〉, 부산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예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인사 화행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김옥사나, 〈러시아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방안〉,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윤선,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윤수, 〈한국어 교육에서 청유문 화행 연구: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윤진, 〈외국인을 위한 한글 자모 교재 개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율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생활 중심 읽기 교재 개발 방안〉, 전남대 대학원(석사)
김율희, 〈한국어 교재 대화문에 나타난 공손 표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정, 〈6~8세 아동의 문법성 판단 및 오류 수정 연구: 일반 아동과 다문화 가정 아동을 중심으로〉, 대구대 대학원(석사)
김은주,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사 역할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인경, 〈한국어 문화 교육 내용 유형의 적절성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일, 〈『춘향전』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외국인 학습자 대상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김장미, 〈한국어 교재 내의 문화 교육 양상과 개선 방안 연구: 문화와 언어의 통합을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김장식,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 영역 텍스트의 이독성 분석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재정, 〈극화 학습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교수 학습 방안〉, 공주대 대학원(석사)
김정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김정숙,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초등 국어 저학년 교과서 활용 방안 연구〉,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순,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가치 문화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은, 〈중국의 한국어 교재 오류 분석 연구: 중국에서 개발한 초급 정독 교재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읽기 영역의 차별 기능 문항 분석〉,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정희, 〈한·중 다문화 가정의 가족 문식성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김주희,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몽골어 학습 사전 편찬에 관한 기초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박사)
김준희, 〈초급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적절성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김지숙,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연결 어미 사용 양상 연구〉, 영남대 대학원(박사)
김지연, 〈중급 학습자를 위한 반의어 어휘 교육 방안〉, 중앙대 대학원(석사)
김지옥, 〈일반 아동의 다문화 인식 재고를 위한 연극 놀이 프로그램 개발 과정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석사)
김지현, 〈일본어권 대학생을 위한 단기 한국어 문화 연수 과정 교수 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혜, 〈동요를 활용한 활동 중심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재외 동포 아동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지혜,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소설 텍스트의 정서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진영,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진희, 〈한국어 교재의 문법적 연어 구성 연구: 의존 명사 구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창아, 〈한국어 문학 읽기 교재 구성 방안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

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희, 〈다문화 가정 아동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분석 및 개선 방안〉, 광주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한빛나리, 〈한국어 교원 교육의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미, 〈NIE를 활용한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현숙,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아, 〈멀티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결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석사)
김현영, 〈상황 학습 기반 디지털 스토리텔링에서 학습자의 지식 생성 과정 및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 탐색: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김현정,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은유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김현주, 〈인권을 주제로 한 이주 여성 한국어 교재 구성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형순,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영, 〈한국어 겹받침의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호정, 〈태국 대학생을 위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학과 재학생, 졸업생들의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화란, 〈태국 대학에서의 관광 한국어 교과 과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희정,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아서, -니까'의 교육 방안〉, 동덕여대 대학원(석사)
나디아, 〈말레이어·한국어 대조 분석을 통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나정윤,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범용 교재의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개발 방안: 국립국어원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대상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난매매,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수 모형〉, 상명대 대학원(석사)

남보현, 〈문화 체험 학습이 한국어 능력 신장에 미치는 영향〉,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남주연, 〈협동적 쓰기 과제에 나타난 형태 집중과 정확성 연구: 한국어 학습자의 상호 작용적 LRE 분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남주혜, 〈학문 목적 한국어 논설문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노금숙, 〈중국인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문학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노미경, 〈생각 말하기 활동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전략 지도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노미경, 〈읽기 전 활동 유형이 한국어 읽기 이해에 미치는 영향: 설명적 텍스트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노미숙, 〈일본인 학습자의 한국어 파찰음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노유미,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뇌뢰, 〈한국 추석 문화 교육 방법 연구: 한·중 문화 대조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당영,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담화 표지 연구: TV 토크 쇼에 나타난 '이제', '막'의 사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동가곤,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담화 표지 연구: '뭐', '글쎄', '있잖아'를 중심으로〉, 우석대 대학원(석사)

동신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대한 연구: 고급 학습자의 화행 전략과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동양, 〈한국어와 중국어의 중의성 대비와 교육 방안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동치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중 의성어·의태어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뢰유, 〈한국어 전성 어미의 기능과 교육 방법 연구〉, 건양대 대학원(석사)
류남, 〈한국어 부정 표현 지도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석사)
류미용, 〈태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모음 발음 오류 연구: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류방동,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주체 높임법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류선숙, 〈재외 동포 아동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모형 개발〉, 경기대 대학원(석사)
류은정,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류은주, 〈받아쓰기 작문(Dictogloss) 활동이 한국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 대학원(석사)
류한나, 〈선교사 자녀를 위한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류혜림, 〈'단어 활성화 도구'에 의한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연세 한국어 읽기 1』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류화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파열음 인식과 발음〉, 전북대 대학원(석사)
류희정,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리순푸,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 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 방안 연구: 신체어 '손'과 '발'을 중심으로〉, 배재대학교(석사)
리준, 〈중급 한국어 교재의 읽기 과제 분석〉,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석사)
마난차야 넷푹까나,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 대조 분석 연구: 초급 단계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마쓰야마 수미레,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독학용 한국어 발음 교재

개발 연구: 발음 교정을 목적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만비,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자음의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원광대 대학원(석사)
묘예나, 〈이공계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선정 및 교육 방안〉, 중앙대 대학원(석사)
무서이,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학습 방법 탐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무케쉬,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칭 대명사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석사)
뭉흐치멕, 〈몽골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미가,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방안 연구: 사회·친족 호칭어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민유경, 〈수필을 활용한 대화 일지 쓰기가 한국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민유미, 〈모국어와 숙달도에 따른 담화 표지 '뭐'의 의미 기능 이해: 중국인 학습자와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민주희, 〈한국어 학습자 쓰기 텍스트에 나타난 결속 기제 사용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기숙, 〈한국어와 중국 조선어 비교를 통한 어휘 교육: 조선족 학생을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박나현, 〈다문화 가정 아동의 교실에서의 언어적 상호 작용과 정체성 형성: 필리핀 어머니를 둔 아동의 사례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명실,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듣기-말하기 교육을 중심으로〉, 건양대 대학원(석사)
박미선, 〈놀이를 활용한 아동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미선,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의 교육 방안〉,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박미향, 〈한국어 능력 신장을 위한 현대 시 텍스트 활용 방안 연구: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박민정, 〈일본인 학습자를 위한 한자 사자성어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박민주, 〈다시 말하기 과제를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능력〉, 고신대 보건대학원(석사)

박상은, 〈대화 분석을 활용한 한국어 교재 전화 대화문 분석 연구: 전화 대화 수행 양상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설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착용 동사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박성미, 〈시각적 입력 강화가 한국어 학습자의 명사형 어미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박숙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의 내용 구성 방안〉,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아현, 〈처리 교수가 한국어 피동 학습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박연신, 〈이주 여성을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유진, 〈모바일(m-Learning)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윤정,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교육 연구: 모음 발음 분석과 교정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박은숙, 〈한국-몽골 초등학생 및 중학생의 보통 명사 정의하기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석사)

박은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진단 방안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박정님, 〈플래시 애니메이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아동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박정애, 〈상호 작용 활성화를 위한 중급 한국어 수업의 운영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박주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보조사의 양태성 연구: 교육적 분류와

활용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지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방안〉,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박지윤, 〈한국어 교육을 위한 양보의 연결 어미 연구: 기대 부정의 의미 기능을 바탕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진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초급 교재 내용의 적절성 분석〉, 강원대 대학원(석사)
박하나, 〈스페인어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과 습득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박혜레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듣기 교육을 위한 현실 발음 유형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주, 〈그림 동화를 활용한 이야기 구성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현주,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일 속담 비교 연구: 한국어 교재와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박혜경,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읽기 텍스트 구성 방안〉, 한성대 대학원(석사)
박혜미,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과제 유형 개발 방안: 말하기 숙달도 평가 과제 분석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반경희,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반려, 〈한국어 초급 학습자를 위한 연결 어미 교수-학습 모형: {-고}와 {-면서}를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석사)
반학포, 〈초급 한국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음식 문화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배고운, 〈Tandem 언어 학습법을 기반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박사)
배상남, 〈한국어 방문 교육의 효용성 연구: 청주 지역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승주, 〈멀티미디어 어휘 주석과 학습자 인지 양식이 우연적 한국어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백승주, 〈한국어 교사 발화에 나타난 관여 유발 전략〉, 연세대 대학원(박사)
백재파,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읽기 텍스트의 이독성 공식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종훈, 〈스마트폰을 활용한 한국어 학습 지원 어플리케이션 구성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벌러르마, 〈몽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유의어 교육 방안 연구: 중급 단계의 한국어 교재의 동사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범신성,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사용 실태 및 어휘 교육 방안 연구: 한자어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범엽, 〈한국어 연결 어미 '-고'와 '-어서' 구문 습득에서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 중간 언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빈도경,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캄보디아 노동자 대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사공진, 〈한국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사·어미 사용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서민정, 〈한국어 교재의 조사 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 단국대 대학원(석사)
서상영, 〈한국어 교원의 현직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국내 대학 한국어 교원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승이, 〈동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아름,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전략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영,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서유선,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중국어 학습 지도 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석사)
서정애, 〈초급 한국어 수업에서의 교사말 실태 연구: 문법 설명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서주연, 〈시조의 향유 전통과 한국어 교육적 함의: 하이쿠와 비교를 통하여〉,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서중운, 〈연결 어미 '-ㄴ/은/는데', '-지만'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석지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의존 명사 교육 방안〉, 계명대 대학원(석사)
석진주, 〈한국어 교육용 완곡 표현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선광용,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선어말 어미 교육 연구〉, 충남대 대학원(박사)
설수연, 〈서면으로 제공되는 수정적 피드백, 제2 언어 적성 및 학습자 태도가 한국어 조사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설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문법 습득에 관한 연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성아영, 〈한국어 학습자의 거절 화행 학습을 위한 연역적 교수와 귀납적 교수 효과 비교〉, 경희대 대학원(석사)
성은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유, 원인] 표현 습득 양상 연구: KFL 작문 자료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성인경, 〈한국어 교육에서 담화 표지를 사용한 발표 지도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손결, 〈한국어 연결 어미의 교육 방안 연구: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손근정, 〈심상을 활용한 어휘 교수·학습 방법이 한국어 학습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명진, 〈영화를 활용한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손병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한국어 집합 교육에 대한 요구 분석: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복희,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중국의 일반 대학을 대상으로〉, 공주대 대학원(석사)
손사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의 비교와 교수 방법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손성희,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학습 전략 분석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

손영헌, 〈인도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 발음 교육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손운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손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중급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석사)

손해숙, 〈딕토글로스(Dictogloss)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학습 방안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손현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종성 발음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손현화, 〈스리랑카와 베트남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한국어 문장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손호섭, 〈터키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의 주격 조사 오류 분석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아문,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사이시옷' 지도 방안 연구〉,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석사)

송연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송은영, 〈재외 동포 가정의 한국어 교육 실태와 부모 주도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송이슬, 〈한국어 읽기 수업에서의 읽기 후 활동 설계 및 제시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송재희, 〈한국어 교육 웹 교재의 내용 설계 연구: 문화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관동대 대학원(석사)

송종윤, 〈외국인을 위한 한글 듣기 교육용 콘텐츠의 설계 및 구현〉,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송지원, 〈한국 학습자의 관사 사용에 관한 중간 언어 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송효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중 속담 비교 연구〉, 공주

대 대학원(석사)
수혜교,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친족 관계 호칭어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승종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반복 구성 연구: 표현 항목으로서의 반복 구성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미진, 〈학부모로서 필요한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교재 연구: 학습자 요구를 반영한 읽기 텍스트 개발 방안을 중심으로〉,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승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단계별 의성어·의태어 목록 선정과 교육 방안 연구: 반복 형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아영, 〈감탄사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전략 교육 연구: '네', '그래', '아니'류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석사)
신영주, 〈한국어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예리, 〈한국어 발음 오류에 나타난 체코어 화자의 중간 언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신유정, 〈문맥 중심 어휘 지도 방법이 한국어 어휘 학습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지민, 〈고급 학습자를 위한 교육 연극 활용 한국어 교육〉,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심란희, 〈의사소통 중심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담화 표지 '그냥'의 기능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심마니, 〈자기 주도적 한국어 듣기 학습 지도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심반, 〈한국어 시제 체계의 교육 방안 연구〉, 명지대 대학원(석사)
심방,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순 교육 방안에 대한 고찰: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심은지, 〈한국어 학습자 작문에 나타난 시제 상 습득 연구: 담화 구조 가설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심은희, 〈전화 상황에서의 한국어 의사소통 전략 교육 방안 연구: 중·

고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심재숙, 〈동시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과정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 중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아마르자르갈, 〈현대 한국어와 몽골어의 격 조사 비교 및 교육 방안 연구: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 오류 분석을 통하여〉, 인하대 대학원(석사)
안나영, 〈의식 상승 과제 활동을 통한 한국어 연결 어미 교육 연구: '-(으)ㄴ/는데'를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선연, 〈몽골인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거절 화행 발달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선욱,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 연극 활용 방안 연구: 연극적 기법 활동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은경,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연구: 중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충북대 대학원(석사)
안정민, 〈한국어 교사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교사 효능감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안첨,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가정 표현인 {-면} 구문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안형미, 〈학습자 요구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야마시타 아이, 〈일본인 고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양경진, 〈일본 고등학교의 한국어 교재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양군,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철자법 교육에 관한 연구: 자음과 모음의 문자 습득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양루이,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능력 향상 방안 연구: 〈나무꾼과 선녀〉 설화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양전, 〈시를 매개로 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활성화 방안〉, 건국대 대학원(석사)
양지이, 〈한국어 비음화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양지현,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워크북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양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의지 표현 교육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엄나영, 〈구어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분석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엄상란, 〈한국어 교사와 중국인 학습자의 문화적 규범을 둘러싼 부적응 사례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엄수진,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 어휘 평가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여하나, 〈의사소통 능력 평가라는 관점에서 본 TOPIK의 타당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연준흠, 〈초보 한국어 교사의 교사 일지에 나타난 자신감과 불안 분석〉,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염결여,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한·중 한자 독음 유사성을 이용하여〉, 대불대 대학원(석사)

염길여, 〈한국어 한자어 교육 방안 연구: 한·중 한자 독음 유사성을 이용하여〉, 대불대학교(석사)

염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조사 사용 오류 분석: '에, 에게, 에서, 로'를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석사)

옌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오경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쓰기 오류 분석 연구〉, 호남대 대학원(석사)

오나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어휘 선정과 제시 방안 연구: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화 어휘를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오누리, 〈구성주의적 모형을 활용한 한국어 시간 표현 교육 방안〉, 계명대 대학원(석사)

오로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더-' 결합형과 '-던-'의 교육 방안〉, 서울여대 대학원(석사)

오복남,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통합 교육 방안 연구: 박완서의 단편소설 『그 남자네 집』을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오상미, 〈한국어 능력 시험 듣기 텍스트의 실제성 연구: 중·고급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오세미, 〈다문화 가정 자녀들을 위한 교과 연계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 대학원(석사)
오승영, 〈웹 기반 한국어 교재의 재사용성 제고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오우,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상명대 대학원(석사)
오윤정, 〈한국어 교육 전공 유학생을 위한 문법 전문 용어 선정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오은경, 〈한국어 초분절음 교육을 위한 자기 수정 활동의 개발과 효과〉,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오일륵,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보조 동사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오정, 〈중국인을 위한 접속 부사에 대한 교육 방안〉, 전남대 대학원(석사)
오혜인, 〈인도네시아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 양식과 성취도와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오희자, 〈일반 가정 학습자와 다문화 가정 학습자 비교를 통한 한국어 능력 신장 방안: 만 7세 아동을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석사)
온다르마, 〈몽골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작문에 나타나는 오류 분석 연구: 초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하대 대학원(석사)
와와메인, 〈한국어와 미얀마어 공손 표현 대조 연구〉, 원광대 대학원(석사)
왕가, 〈한국어 어학당의 교육 서비스 품질이 수강생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중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왕가영, 〈한국어 능력 시험 쓰기 문항 개발에 관한 연구: iBT TOEFL, iBT TOEIC과 신HSK의 비교를 통해서〉, 중앙대 대학원(석사)
왕나,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말하기 지도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상명대 대학원(석사)
왕맹,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탄사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왕문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속담을 중

심으로〉, 건양대 대학원(석사)
왕문비, 〈중국어권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격 조사 오류 분석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왕배배, 〈한·중 동형 이의 한자어 대조 연구: 한국 각 한국어 교육 기관 교재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왕슈에,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교육 내용과 방법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왕시훼, 〈중국 대학생을 위한 한국어 청자 경어법 교재 개선 방안 연구: 광동성 지역 대학교 교재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왕아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음성 상징어의 분류〉, 안동대 대학원(석사)
왕연, 〈중국 내 대학교 한국어 전공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연구: 행동 문화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박사)
왕엽,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로' 사용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왕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감정 관련 관용 표현 교육 방법 연구: '사랑'과 '미움'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왕재이, 〈중국 대학 한국어 학과의 교육 실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왕정, 〈한국인 중국어 학습자의 음소 및 형태소 인식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 대학원(석사)
왕지원, 〈한국어 교재의 옛이야기 비교 연구: 한국과 중국에서 출판된 교재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왕청청,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연구: 목록 선정과 등급 설정을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박사)
왕효효, 〈한국어 완곡 표현 교육 연구: 교재에 나타난 완곡 표현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요금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용효엽, 〈중국인 오·월 방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우레, 〈유머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어휘·말하기·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우보의, 〈한국어 높임법 교육 방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우혜, 〈동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우혜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시 문학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웅문도, 〈'벌써'와 '이미'의 교육 내용 구축과 사용 양상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원순련,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들의 글쓰기를 통한 능동적 한국 생활 적응에 관한 반성적 실천 연구〉, 경남대 대학원(박사)
위언려, 〈한국어 교육에서 어미 '-아'와 '-라' 그리고 '-아서'와 '-라서'의 관계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위원징,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울림소리 받침 발음 오류 분석과 지도 방안 연구〉, 경북대 대학원(석사)
유미정, 〈읽기 텍스트를 활용한 장르 중심 한국어 쓰기 교육 방안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유미현, 〈일본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어휘집 개발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서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 학습 전략의 연구: 한·중 한자어 의미 대조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유연경, 〈한국어 교실 상황과 학습 동기 및 태도와의 관계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고사성어의 대조 연구〉, 상명대 대학원(석사)
유영지,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재 분석 및 개선 방안〉, 전남대 대학원(석사)
유은우,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의 대화문 분석 및 구성 방안 연구: 사회 언어학적 요소를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유정, 〈중국인 화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유정정, 〈한·중 외래어 차용 방식 양상의 대조 연구: 한국어 교육용 외래어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유정정, 〈한국어 부사의 교육에 관한 연구: 초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 대학원(석사)
유지숙, 〈그림책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유창,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과 「의지」 표현의 교수 방안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유추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교육 연구: 고유어와 한자어 간의 유의어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유패패, 〈각색극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유해준, 〈한국어 교육 문법적 연어 항목 선정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유현정,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다큐멘터리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유효단, 〈속담을 통한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과 중국의 의, 식, 주 속담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유흔, 〈중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의성어 의태어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윤경동,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교육 실태 조사 및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윤경선, 〈국어 개념 은유의 사상 양상 연구: 감정 개념 정과 한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윤민애,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듣기·읽기 능력 상관관계와 전이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윤소영, 〈한국어 형용사 유의어 교육 연구: 연어 구성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윤영, 〈한국어 교육에서 영화를 활용한 소설 교육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
윤재한, 〈국제결혼 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

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혜경,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등급별 다의어 교육 연구: 신체 관련 다의 명사 '눈'을 중심으로〉, 관동대 대학원(석사)
윤혜란, 〈이주 초기 새터민 초등학생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혜진, 〈한국어 교육용 추측 표현 항목 선정과 등급화에 관한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이가화, 〈외국인 한글 학습을 위한 의성어·의태어의 시각화에 관한 연구: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적용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이경선,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의존 명사의 문법적 연어 연구〉, 동아대 대학원(박사)
이경선,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조사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이경숙, 〈방문 교육 지도사의 직무 만족과 직무 인식: 아동 양육 지도사 대 한국어 교육 지도사: 서울시 방문 교육 지도사에 대한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석사)
이경화, 〈한국어 능력 시험 읽기 영역의 텍스트 분석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이귀염, 〈중상급 수준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읽기·쓰기 교재 개발을 위한 문식성 과제 단위 요구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나라, 〈일본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자음 클러스터 산출 및 지각〉, 고려대 대학원(석사)
이덕향,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하다', '-되다'형 용언의 사용 양상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이라용, 〈한국어 교육을 위한 기본 색채어의 문화 상징 어휘 분석 및 교육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락희, 〈다문화 가정 방문 한국어 교육의 학습 효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명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에 대한 고찰〉, 원광대 대학원(석사)
이명화,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호칭어와 지칭어 교육 방안 연구: 여

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이명희,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호칭어·지칭어 사용 양상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이문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 어미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 대학원(석사)
이민경, 〈한국어 감정 관련 표현의 교육 방안〉, 동덕여대 대학원(석사)
이민아,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동작류에 따른 과거 시제 습득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이병희, 〈요약하기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교사와 학습자 대상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보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보혜, 〈폴란드어권 학습자들의 '이/가', '은/는' 사용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빈,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듣기 교재의 내용 선정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이선화, 〈전래 동화를 활용한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학생의 한국어 교육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설, 〈한국과 중국의 한국어 교육용 웹 사이트 내용 분석〉, 세종대 대학원(석사)
이설동,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내용 분석: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석사)
이설동,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된소리 발음 교육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이세훈,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문항 연구: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이수, 〈TV 광고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이수연, 〈한국어 문법 교육에서의 연결 어미 연구: 시간 표현 연결 어미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수현, 〈여성 결혼 이민자와 관련된 서식의 어휘에 관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순룡, 〈한국어 추측 양태 표현에 대한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이엘레나,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방안 연구: 대학용 교재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이연수,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육 연극 활용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연옥, 〈이동 동사 '가다/오다'의 기준점 설정에 대한 가설과 사용 양상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이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양태 표현의 대조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이영란, 〈그림책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영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수준별 어휘적 특성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이옥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자기 소개서 쓰기 교육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운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이운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연결 어미 '-아서'와 '-니까'의 나선형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이유경,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의 의미 교육 방안: 동사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이유림, 〈한국어 교육에서의 맥락 중심 영상 텍스트 읽기 방안 연구: TV 광고를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이유미,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 연구: 춘천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의 활동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윤경, 〈게임을 활용한 한국어 수업의 효과에 관한 연구: 게임 구성 요소 및 운용 방식에 따른 학습 효과〉, 경기대학교 대학원(석사)
이은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초분절음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이은숙, 〈한국어 능력 시험 중급(3·4급) 어휘·문법 영역과 읽기 영역

의 어휘 내용 분석〉,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정,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어휘 폭발기 아동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정, 〈한국어 '하다' 표현의 일본어 대응 양상 연구: 한국어 교육적 관점에서〉, 계명대 대학원(석사)
이은진,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통역 교육 과정 개발 연구: TV 뉴스를 중심으로〉,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혜,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 나타난 장르 인식 양상 연구: 설명문과 논설문을 중심으로〉,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화, 〈중국, 베트남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전래 동화 이해도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희, 〈다문화 시대의 성장 소설로서 『완득이』 읽기 교육 방안〉,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은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에 나타난 반복 양상 연구: 사적 담화와 공적 담화 비교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이은희, 〈한국어 조사 교육에 관한 연구: '이/가', '은/는', '을/를'을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이정,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이정란, 〈한국어 학습자의 양태 표현 습득에 나타난 문법 능력과 화용 능력의 발달 관계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박사)
이정민, 〈한국어 말하기 교재 속 '역할극' 활동의 구성 방안〉,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정원, 〈중국어권 학습자의 중한 번역에서의 오류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제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형용사·동사의 유의어 분석〉,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준기, 〈관광 가이드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이지아, 〈어휘 학습 전략을 활용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연, 〈설화를 활용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지도 방안 연구: 『선녀와 나무꾼』을 중심으로〉, 강원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훈, 〈러시아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격 조사 오류 분석 연구: 러시아어, 카자흐어, 우즈벡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진옥,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진주, 〈특정 항목을 대상으로 한 집중 피드백이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적 정확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이채원,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재 개발 방안〉,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천, 〈속담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신체 관련 속담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이춘매, 〈한국어 능력 시험과 신한어 수평 모의 고시의 어휘 문항 비교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향화,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사용에 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이현아, 〈초급 학습자를 위한 협동적 읽기 수업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이현희, 〈딕토글로스를 활용한 쓰기 수업이 형태 오류 감소에 미치는 효과 연구: 홍콩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이혜강,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지도 방안〉, 전남대 대학원(석사)
이혜진, 〈고전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홍길동전』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이환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양태 부사 교육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효정, 〈한국어 인과 표현 교육 내용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임보라,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에서의 문학 작품 활용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성욱, 〈한국어 교육용 속담 선정 및 등급화 연구: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시현, 〈한국어 교육을 위한 관형사형 어미 교수·학습 원리〉, 서울여대 대학원(석사)
임연희, 〈한국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문항 개발 및 적용〉,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은해,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어휘 표현 능력 비교〉, 나사렛대학교(석사)
임지현, 〈한국어 학습자의 독자를 고려한 쓰기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찬진, 〈설화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임희영, 〈텔레비전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장근영, 〈청소년 학습자 대상 한국어 능력 평가 개발 방안〉, 계명대 대학원(석사)
장기, 〈한·중 인터넷 신어의 형태·의미와 교육 방안 연구〉, 경기대 대학원(석사)
장단화,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추측 표현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장려려, 〈중국 내 한국어 교재의 문법 항목 분석 연구: 문법 항목 선정과 배열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장명원, 〈한국어 초급 교재의 읽기 담화 유형 분석〉, 상명대 대학원(석사)
장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과 관계 연결 어미 '-어서', '-니까'의 효과적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장수영, 〈설화의 이야기판을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콩쥐팥쥐』를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장옥경,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체언+용언'형 연어 목록 선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운잠, 〈토론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고급 학습자 대상

으로〉,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장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연구: 과거 시제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장유린, 〈한국어 조사 '으로, 으로서, 으로써'의 대조 분석: 중국인 학습자의 교육을 위하여〉, 동국대 대학원(석사)
장유림, 〈다문화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연결 어미 특성 비교: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을 중심으로〉, 용인대 재활보건과학대학원(석사)
장은혜,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장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현대 소설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소나기』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장쟁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연구: 중국어 권역을 중심으로〉, 우석대 대학원(석사)
장전자,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표현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장정윤, 〈번역 교육 모형 설계를 위한 고찰: 고급 수준 이상의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장정정, 〈중국인 학습자의 '-겠-'과 '-(으)ㄹ 것'의 사용 양상 분석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장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속담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장화숙,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작문 오류 분석을 통한 조사·어미 교육 방안〉, 충남대 대학원(석사)
전가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의 반복 구문 분석과 교육 방안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전경숙,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한글 맞춤법 교육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전미순, 〈한국어 문화 어휘 교육 연구〉, 부산대 대학원(박사)
전병옥,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다독 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전성민, 〈한국어 교육에 정의적 수업이 미치는 영향: 중국인 학습자

를 대상으로〉, 동국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숙자, 〈자유 쓰기의 오류와 유형별 지도 방법: 여성 결혼 이민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영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초인지 전략과 읽기 효능감과의 관계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전전령, 〈한국어 파생적 사동문의 교육에 관한 연구: 중급 단계의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인제대 대학원(석사)
전종영,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문화 체험 학습 요구 분석과 적용 방안 연구: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하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다운, 〈한국어 교재 대화문의 실제성 연구: '의사-환자'의 의료 면담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정미경,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수준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미진,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중·고급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선화, 〈구어의 특성을 반영한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정수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과제 유형에 따른 피동 표현 습득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정수아, 〈담화 표지어를 활용한 읽기 전략이 한국어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 대학원(석사)
정영선, 〈드라마형 뮤직비디오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영주,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 문화 기반 읽기 자료 개발 방안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은미,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알기 쉬운 통신문 작성을 위한 텍스트 수정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주리,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의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서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현, 〈노래를 활용한 초급 한국어 학습자의 어휘 교육 방안 연구:

다중 지능 유형별 활동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지현,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내용 중심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부산대 대학원(석사)
정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다의어 '가다' 의미 습득 양상〉,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정진희, 〈제2 언어로서의 한국어 영 주어와 영 목적어 습득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정해연, 〈한·중 음절 대조 분석을 통한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정현미, 〈한·일 속담 비교를 통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일본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정현옥, 〈이주민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연구〉, 전주대 대학원(석사)
정혜경, 〈효율적인 한국어 어휘 확장 교육 방안 연구: 희비 표현 감정 형용사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조경애, 〈읽기·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결혼 이민 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조경자,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어 교육 방안〉,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나,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경어법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 대학원(석사)
조동현, 〈캄보디아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의 원인과 교정〉,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렬녕, 〈중국 내 사설 학원용 초급 한국어 회화 교재 개발 방안 연구: 강소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조문경,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조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조아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단모음 'ㅣ, ㅗ, ㅜ, ㅡ'를 중심으로〉, 군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아라, 〈한국어 어휘 능력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이야기 산출 및 이해 능력 비교〉,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조애란, 〈Flash를 활용한 한국어 발음 교육 교재 개발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조영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영미, 〈영화 〈축제〉를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방안: 장례 문화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조영철, 〈CIRC 프로그램을 활용한 한국어 읽기·쓰기 통합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영화,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신체 내부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조윤희, 〈호랑이 전래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외국인 성인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석사)
조재현,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제2 언어의 선행 학습 경험이 제3 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조정, 〈한국어 관형사형 구문 수업 방안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조주동,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속담 교육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석사)
조현지, 〈거주 기간과 상호 작용이 여성 결혼 이민자의 연어 습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혜경, 〈한국인 모어 화자와 비모어 화자 간의 공손 인식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조혜란,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 방안: 장애음을 중심으로〉, 서울여대 대학원(석사)
조혜인, 〈한국어 교육용 관용 표현 목록 선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주경아, 〈공교육에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중등학교의 다문화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주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문화 교육 방법: 『춘향전』을 중심으로〉, 건양대 대학원(석사)

주로,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글 맞춤법 지도 방안 연구〉, 호서대 대학원(석사)
주서연,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법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주운,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학습 동기와 자기 효능감의 관계: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 효과〉, 전남대 대학원(석사)
주일문, 〈중국 신세대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블로그의 활용 방법을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주질,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어휘 교재 개발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주천문, 〈중국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외래어 교육 방안 연구: 한·중 외래어 비교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지승필, 〈한국어 중급 교재의 과제 제시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진류연, 〈중국인을 위한 독학용 문법 교재 개발 연구: 중·고급 단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진아름,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의성어·의태어 선정과 교육 방안 연구: 보육자 역할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진아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에'의 효과적 교수 방안〉,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진정신,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우체국 이용 교육 방안〉,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차순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동화를 활용한 자기 주도 학습 방법 연구: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채문숙, 〈SVO 언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문장 연구: 중국어권, 영어권, 스페인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채상이, 〈대화식 저널 쓰기와 교사의 피드백에 따른 한국어 쓰기 능력 향상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천신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외래어 교육과 교재 개발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초정, 〈시각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쓰기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 대학원(석사)

최경자, 〈동화를 활용한 한국어 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초등학교 다문화 가정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최고나, 〈텍스트 결속 구조 장치의 오용 및 개선 방안 연구: 학습자 글의 접속, 생략, 지시를 중심으로〉,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미진, 〈전래 동화를 활용한 수업이 한국어 읽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최보미, 〈자기 조정 전략이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쓰기에 미치는 효과 연구: 과정-장르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영, 〈중국 학생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최영희, 〈한·중 『선녀와 나무꾼』 설화를 활용한 한국어 학습자 문화 교육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욱, 〈한국어 학습자의 성격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유미, 〈한국어 모어 화자 담화와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설득 화행 분석: 설득 전략 유형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윤정, 〈한국어 학습자의 노트 필기 전략과 언어 학습 신념 및 전략에 따른 학업 성취도 연구: 학문 목적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 형식 연구〉, 동국대 대학원(박사)
최은정,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에 나타난 시제와 상 습득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최재찬,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연구: A대학의 한국어 도우미 프로그램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정희, 〈외국인 근로자 대상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 연구: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최진희, 〈경북 지역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방언 교육 연구: 듣기와 말하기를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최해주, 〈한국어 선어말 어미 교육 연구: '-었-, -겠-, -더-'를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박사)

최향란, 〈중국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교정 방안 연구〉, 조선대 대학원(석사)
최향옥, 〈한국어 고급 교재의 쓰기 영역 학습 활동 분석〉, 고려대 대학원(석사)
최현주, 〈비즈니스 한국어 교재를 위한 문화 요소 연구〉, 세종대 대학원(석사)
최형난, 〈TV 다큐멘터리를 활용한 한국어 교실 수업 모형〉, 부산대 대학원(석사)
최혜경, 〈태국 라후족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안〉, 한남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혜민, 〈한국 고유문화 어휘의 번역 방향 연구: 한국어 교재의 영어 번역을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최혜민,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석사)
최혜진,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최호량, 〈제2 언어 습득 과정에서 북경어권과 광동어권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ㄹ/ 발음 대조 연구〉,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최효정,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웹 기반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선문대 교육대학원(석사)
최희명, 〈수필 문학 텍스트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읽기·쓰기 통합 교육을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축명,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기사문 읽기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탁진영,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조사 오류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팽언, 〈한국어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편효경, 〈TV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재 개발 연구〉, 대불대 대학원(석사)
풀쌉쌔뚜, 〈태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연결 어미 교육 방안 연

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풍욱동,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과거 시제 표현 교육 방안〉, 청주대 대학원(석사)
피영민, 〈고급 단계 학습자의 문화 수업을 위한 설화 활용 방안 연구: 서동 설화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하 티 투 투이,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어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석사)
하수림, 〈귀국 학생 대상 한국 문화 교육의 실제와 발전 방안〉, 상명대 대학원(석사)
하지걸,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접속 부사 교육 방안 연구: 초·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하평평, 〈즉시 쓰기와 말하기 후 쓰기 비교 연구: 고급 수준의 한국어 학습자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한경화, 〈영상 매체를 활용한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우석대 경영행정문화대학원(석사)
한교,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감탄사 대조 분석: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 A등급 감탄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한미연,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관용어 목록 선정과 학습 지도 방안 연구: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상, 〈중국어 보어 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성대 대학원(석사)
한서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규칙 교육 방안: 연음 규칙과 겹받침 규칙 중심으로〉, 서울시립대 대학원(석사)
한선, 〈문화 간 의사소통 능력 중심의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박사)
한수정, 〈TV 광고를 활용한 어휘 제시가 학습자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청주대 대학원(석사)
한아름,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한국어 습득 양상 연구: 취학 전 만 2세-만 5세 아동을 중심으로〉,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염아, 〈'조사' 구현 양상에 대한 한·중 한국어 교재 대비 분석〉, 부

산대 대학원(석사)
한지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중 텍스트 대조 분석: 텍스트 결속 기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한하림,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교수 모형의 개발 및 적용과 평가〉, 고려대 대학원(석사)
한혜민, 〈원어민 영어 교사를 위한 e-러닝 한국어 학습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함윤희, 〈한국어 어휘 교육을 위한 상징 부사 중심 연어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함은주, 〈침묵식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음운 지도 방안〉,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허은영, 〈한국어 인쇄 교재의 가독성 향상 방안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현다운,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능력이 의료 서비스 이용과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 대학원(석사)
현은애, 〈여성 결혼 이민자와 유아를 위한 어머니 대상 '그림책 읽기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한남대 대학원(박사)
형연희, 〈교육 연극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연구: 중급 수준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형재연,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관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주제 및 기능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한성대 대학원(석사)
홍경화, 〈한국어 학습자 상호 작용에서의 모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 문법 의식 고양 과제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홍민경, 〈연역적, 귀납적 문법 교수의 상대적 효과 비교: 중급 한국어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승랑,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육에서의 스토리텔링 활용 방안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홍승연, 〈모국어와 숙달도에 따른 한국어 추측 표현 습득 양상 연구: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와 일본인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홍승희,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쓰기 교육 연구〉, 상명대

교육대학원(석사)
홍윤경, 〈학문 목적 학습자의 말하기 발표 오류 분석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홍칠선,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 개선 방안 연구: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황민형, 〈텍스트상의 한자 병기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황보람,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방문 교육 지도사의 역할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 연구: 전라북도 농촌 지역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중심으로〉, 한일장신대 기독교사회복지대학원(석사)
황산산,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자음 발음 교육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황성은, 〈한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에 대한 학술어 유의어 연구: 대학 수학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황예,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자 성어 교육 방안: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황용, 〈대중문화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대불대학교 대학원(석사)
황유진, 〈한국어 학습자의 위로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계명대 대학원(석사)
황윤정, 〈입양 청소년 대상 한국어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한 요구 분석〉,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석사)
황은지, 〈통합 교재에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황정인, 〈스키마 활성화 전략이 한국어 읽기에 미치는 영향: 중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황지민, 〈속담을 통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 방법 연구〉, 청주대 대학원(석사)
황지원, 〈한국어 교육 초급 문법 항목 선정과 범주화를 위한 연구〉, 동덕여대 대학원(석사)
황진재, 〈중국 내 한국어 교재 분석: 대학용 초급 정독 교재를 대상으

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Chu Wen Bo,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요청 화행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Chun, Hee Chung, 〈재미 교포 청소년의 문화 정체감과 한국어 숙달도의 상관관계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Ha Thi Thu Thuy, 〈베트남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관형어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Jaiswal Mukesh Kumar, 〈인도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인칭 대명사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Ji Meng,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활용하는 한국어 자음 지도 방안〉,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Kanghae Samawadee, 〈태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피동 표현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Lein, Gim Woon, 〈말레이시아 정부 장학생을 위한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과정의 중요도-만족도 분석을 통한 요구 분석〉,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Li Shun Fu, 〈중국인 학습자 대상 한국어 관용 표현의 단계별 목록 선정 방안 연구: 신체어 '손'과 '발'을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Liu Siyang,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중국어 성조의 영향: 동형 동의어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Phan Thi Hong Ha, 〈베트남 학습자를 위한 텔레비전 뉴스 이해 교육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Ren Zhonglin,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전래 동화 읽기 교육 방안 연구: '흥부와 놀부'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석사)

Vu Thi Ngoc Anh, 〈베트남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한자어 학습 전략〉, 부산대 대학원(석사)

Wang Meng, 〈중국 국내 학습자를 위한 관용어, 속담 교육 현황 분석 및 교육 방안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Wang Qiaoxia,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기능 발달 양상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Zhou, Wenxian, 〈초급 중국인 학습자의 한중 동형 이의 한자어 학습

전략 사용 연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남욱, “한국어 학습자의 시제 개념 습득 연구: 과거 시제 형태의 습득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강남욱·김호정,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습득 양상 연구 (3): 복문에서의 시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강소영, “해외 거주 한국 화교의 한국어 사용 현황 연구”,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강승혜,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사, 학습자 관련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강현화, “다문화 관련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쟁점”,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강현화,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 방법론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강현화, “한국 문화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세종학당 학습자를 위한 원형적 교수요목 개발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강현화, “한국어 문법 교육 연구의 현황과 전망”,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강현화·홍혜란, “한국 문화 교육 항목 선정에 관한 기초 연구: 선행 연구, 교재, 기관 현황 조사 자료의 비교를 통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강희숙,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 현황 및 대책: 광주·전남 지역 소재 4년제 대학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고형진·김영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결정성 동기 유형과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고혜원, “한국어 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곽수진·김영주, “형태 집중을 활용한 한국어 문장 구조 교육”,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곽지영, “멀티미디어 자료 개발의 실제: 일반 목적 한국어 고급 수업의 부교재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구민지, “읽기 텍스트 난이도 측정법 연구: 학문 목적 한국어 고급 읽기 교재 수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권경애, “일본어 모어 화자의 자연스러운 한국어 발음 교육을 위한 연구: 초분절적 요소를 중심으로”, 외국어교육연구 25-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권성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억양에 나타나는 비언어적 양상 연구: 평서문의 문말에 나타나는 친절성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7-1, 한국현대언어학회
권성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 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권성훈, “몽골에서의 한국어 연구 동향과 과제”, 인문과학논집 22,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권수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기술을 위한 연구”,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권순희·김승연, “‘콩쥐 팥쥐’류 동화의 문화 맥락 탐구 학습과 다문화 이해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권용해·최정윤, “초급 한국어 교실에서의 텔레비전 드라마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권유진·김영주, “한국어 학습자의 외국어 불안과 모험 시도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김남길, “국제 한국어 응용 언어학 특집을 꾸미면서”,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김낭예, “상징을 통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문화 상징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덕신, “접두 파생어 발음 오류를 통해 본 파생어 교육 실태”,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김동언, “호주 초·중등학교의 한국어 교육과 정책”, 인문과학논집 22,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류보비, “한국어의 ‘-적’ 파생 접사의 특성과 교수 방안 연구: 러시아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명광,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단어 형태와 음운 연결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명권, “몽골의 한국어 교육 현황과 그 발전 방향 제언”,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김미진,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 연구: 판소리계 소설 『심청전』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김민애, “한국어 토론 수업 내용 연구: 고급 학습자의 논증 구성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3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김상수, “한국어 학습자의 말하기 평가 담화에 나타난 결속 장치 사용 연구”,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상수·권경근,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말하기 평가 연구: 의사소통 기능의 실현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김서형, “한국어 학습자의 대체 표현 연구: 중·고급 학습자의 연결 어미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김선정,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다문화 사회와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김선정·김목아,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 언어 연구: 평균 발화 길이(MLU)와 어휘적 특성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선정·김목아, “한국어 학습자의 발달 양상 연구: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김선정·김예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인사 화행 연구: 언어적·비

언어적 접근",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선정·민경모, "표준 한국어 교육 과정의 기술 원리 및 적용 방안에 대한 고찰: 세 가지 "표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선정·석지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의존 명사 문형 교육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5-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김성수, "멀티미디어 기반 한국 언어·문화 교육의 실제: 광고 동영상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성숙,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능력에 대한 분석적 평가의 일반화 가능도 검증",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수미, "재외 동포 학습자를 위한 한국 문화 교육 교수요목에 대한 소고: 학습자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4,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김수정·유석훈, "영어권 학습자의 한국어 '눈' 관용 표현 습득에 있어서의 모국어 전이 효과 연구",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김순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말하기 교수-학습에 대한 소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김연정, "웹툰을 활용한 한국 문화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김연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에 대해"의 교육 내용 연구: 한국어 사전과 교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영규,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이해 교육의 연구 경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김영란·김영태, "취학 전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김영숙·허숙·응웬뚜언아잉, "결혼 이주 여성의 자기 문화 스토리텔링 활용 표현 교육 사례 연구", 비교문화연구 2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용, "논항 구조 인식을 통한 한국어 동사 교육 방안: 수여 동사 '주다'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김용경, “문법 범주를 활용한 한국어 문법 교육 방안 연구”,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용경, “오사카 세종학당의 한국어 교육 특성 연구”,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김용현,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현황과 분석: 학술지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용현, “한국어 교육학 학술지의 현황과 분석”,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유미, “균형적 접근법을 이용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한국어 문어 교육 방안”,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김윤신·이준규·이동은, “한국어 학습자의 “-어지다”류 동사 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 어근 동사에 따른 습득 차이를 중심으로”, 언어학 59, 한국언어학회
김윤주, “여성 결혼 이민자 대상 한국어 교재 비교 분석: 의사소통 상황 및 문화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김윤희, “한국어 학습자의 듣기 학습 전략 사용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69, 어문연구학회
김은혜, “동사 “먹다”를 통해 살펴본 한국어 고급 학습자의 다의 관계 인식 양상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은혜, “말하기 평가에 구현된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40, 국어교육학회
김은혜, “의미 중심 어휘 지도를 위한 고급 한국어 학습자의 단어 연상 조사”,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김의수·손현화, “이주 노동자의 한국어 구어 문장이 지닌 통사적 복잡성과 그 한계”,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김재욱, “귀화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정남·장소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 문화 교재의 주제 분석: 상호 텍스트성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정숙, “시행 결과를 통해 본 한국어 능력 시험의 발전 양상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김정숙,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육과정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김정숙·이준호·장미라,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김중섭,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재외 동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김중섭, “CIS 지역 재외 동포 대상 한국 문화 교육 항목 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김지숙, “연결 어미 “-고”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다문화 가정 아동 4-8세를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김지영,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 문화 교육 연구”,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지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었었-} 연구”, 인문논총 2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지혜, “담화 분석을 통한 한국어 간접 인용 표현 교육 방안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김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사용 양상에 따른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김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이야기 구성 능력에 대한 연구”,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진실, “대입 자격 시험을 통해 바라본 한국어 교육: SAT 한국어 시험과 IB 한국어 B를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0, 시학과 언어학회
김진희·한승규, “한국어 다의어 의미 항목별 교육의 필요성: 명사 “말”을 중심으로”, 시학과 언어학 21, 시학과 언어학회
김창구, “한국어 관계절 구조의 교수와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창수·심수진, “학습자 오류 및 교재 분석: There-구문 중심 문법 지도”,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김철주·고병철, “중등학교 다문화 교육 교과의 활성화 방향: 교육 정책과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6,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충실, “텍스트 문법에 기초한 한국어 읽기 교육 방안: 초급과 중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태나, “한국어 발화에서의 무례(無禮) 연구: 무례 유형과 서양의 무례(Impoliteness) 유형 비교”,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현숙, “간접 인용문에서 의문문의 실현 양상과 한국어 교육에의 적용 문제”,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김현진, “학위 논문 작성 교과목의 교수요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외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형복·김문기, “한국어 문법 ‘-게 하다’와 ‘-도록 하다’의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김혜영, “한국어 교육에서 교육자의 문화 의식 성찰의 필요성: 박완서의 소설 “그래도 해피 엔드”에 나타난 한국 문화 항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혜영, “한국어 교육에서 수준별 시 텍스트 선정을 위한 연구: 텍스트 위계화를 위한 변인에 대한 고찰”,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김훈태, “이탈리아어 모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나장함, “다문화 교사 교육 과정 연구에 대한 분석”, 교육과정연구 29-2, 한국교육과정학회
나카가와 마사오미, “한국어 인터뷰 시험에서의 발화 추출 방법 분석”, 시학과 언어학 20, 시학과 언어학회
남경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고급형 문제지의 오류 분석”,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남명애·김영주, “교사의 동기 전략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이 동기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7, 한국국어교육학회
남명철, “재중 조선족 이중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언어 능력과 언어 태도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집 22, 강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남빅토르,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쓰기 수업 방안”,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남상은·김영주, “한국어 어휘 학습에서 기억 강화 전략이 어휘 기억에 미치는 영향”,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남신혜·원미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외래어 조어소 선정에 관한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노미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연발 표현 연구: “-자마자, -는 대로”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노미연, “한국어 중급 학습자의 응결 장치 사용 연구: 발표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노지현,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인의 기저 지식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류투안, “베트남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한국 한자어 어휘력 향상 방안 모색: 한자음을 중심으로 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리스미스안젤라·변우영, “한국어 능력 시험 초급 어휘·문법 영역의 문항 목록 분석”,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마금선, “한국어 교재 발음 정보에 대한 고찰: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마희정, “한국어 문화 교육의 모색: 주요섭의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문금현,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문금현, “인간 어휘장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민경모, “해외 청소년 대상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해외 청소년용 교재에 나타난 어휘의 계량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민진영, “한국어 연결 어미 “-길래”의 특성과 교수 방안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문자, “언어 사용 원리에 입각한 한국어 교육의 과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박미희, “은유 추출 기법을 활용한 중국인의 한류 인식”,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박석준,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어휘 문법” 영역에 대한 논의”,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박선옥,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의 쓰기 활동 분석과 구성 방안 제언”,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선옥, “한국어 교원에 대한 한국 문화 능력 평가 현황과 개선 방안”, 인문과학연구 30,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박선옥, “한국어 교재 개발의 실제: 가톨릭대 한국어 교육 센터 급 교재를 중심으로”,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박선옥·이유림·김경미, “한국어 단기 과정 현황 분석 및 교수요목 설계: 학습자 요구 분석을 바탕으로”, 어문론집 46, 중앙어문학회
박성일, “한국어 교재에서 경어법 제시 방식에 대한 비교 분석: 중국어판 교재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박성현, “한국어 어두 파열음 삼중 대립 지각 학습 효과: 일본인과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세희,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의성어 의태어 교육 방법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박소연, “일본 대학에서 사용하는 한국어 교재 분석: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수진,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서사 담화 연구: 서사 담화 구조에 따른 시제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박시균, “교수법을 활용한 한국어 장애음 교육”,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박영순, “문화어를 통한 한국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박은하,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와 설문 조사에 나타난 호칭어 비교 연구”,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인기, “학교 교육과 다문화 교육의 커리큘럼 상호성”,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박주영, “한국어 교육 관련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박준언,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박지윤, “중도 입국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통역 보조 교사제에 대한 제언”, 이화어문논집 29, 이화어문학회
박진욱·노정은, “다문화 가정 자녀의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표현 교육 방안: 초등학교 국어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박찬숙, “아랍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자모 쓰기 교육 방안”,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박채형, “재외 한글학교 표준 교육 과정 총론 시안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초등교육 22-1, 서울교육대학교
박춘태·권연진, “국외에서의 한국어 보급 방안에 대한 연구: 한류 방 개설을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박하나, “외교관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 설계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박효훈, “학문 목적 한국어 읽기 교재의 읽기 후 활동 분석 연구”,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방성원, “문법 교육에 대한 한국어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방성원,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재 및 교육 자료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방성원, “형식과 기능의 상관성에 기초한 한국어 교육 문법 연구”,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방혜숙, “미국 내 비정규 한국어 수업 과정 현황과 발전 방향 연구: 주미 한국 대사관 수업 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배도용, “한국어 학습자 쓰기에 나타난 어휘 사용 빈도 예비 조사”, 동남어문논집 31, 동남어문학회
배윤경, “한국인·외국인 간 강의 듣기 전략의 사용 양상 비교”,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배윤경·우진아·정지은·강승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쓰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백수진, "비교 문화 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중국어 문법 교육: 인칭 대명사와 지시사",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백수진,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조사 '이/가', '은/는'의 교육: 중국어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백승주, "제2 언어 교실에서의 질문 분류 방식과 기능에 대한 재고 1: "정보 조회 질문"과 "정보 확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백승주, "한국어 접속 표현과 영어 접속 표현의 변환(shift) 현상 연구: 접속 부사 "그러나"의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비강강,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한남어문학 3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사와다히로유키, "학습 단계별 한국어 관용 표현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일본어 모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2, 국어교육학회
사와다히로유키, "한국어 요청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서경,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말하기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서세정·어지혜, "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별 연결 어미 정확도 변이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서승아, "한국어 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미시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서영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안: 카자흐스탄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오류 분석을 통해", 강남어문 21, 강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서혁, "다문화 시대의 국어 교육과 다문화 문식성 교육",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서희정, "한국어 교육에서 보조사 '나'의 교육 방안",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서희정·홍윤기, “한국어 교육에서 수사 의문문의 교육 내용: “무슨” 수사 의문문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서희정·홍윤기,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합성 동사의 선정과 배열”,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손복희, “중국의 발음 교재의 구성 체계에 대한 검토: 현재 중국 일반 대학의 한국어 발음 교재를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손성희·전나영, “한국어 학습자의 자기 효능감 분석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손성희·전나영, “한국어 학습자의 학습 동기 분석”,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손유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대상 요구 조사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손희연,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화용 능력 분석”,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손희연, “중간 언어 대화에 나타나는 “-었-” 사용 실태 연구: 결혼 이주 여성 관련 방송의 대화 자료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송재목, “재일 동포 총련 조선 학교의 교과 내용 변천: 국어 과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송향근,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육의 대조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신명선,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유창성 특성”,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한국콘텐츠학회
신상철, “한국어 교육과 한국학 교육의 연계 방안 모색: 호주의 경험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신영주, “한국어 화자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학위 논문 서론의 완화 표지 사용 양상 비교”,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신예리, “체코어 화자의 발음 오류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

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신윤경, “한국어 읽기를 위한 어휘의 문화 배경지식 활용”,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신자영·원미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병렬 말뭉치의 대조 주석 모형 개발 방안”, 언어와 정보사회 1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신찬양, “지역에 따른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및 관련 변인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신현단, “한국어 문화에 대한 태도 교육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신현숙, “의미망을 활용한 한국어 어휘 교육”, 한국어문학연구 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심상민,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및 내용, 교수-학습 모형에 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심상민, “호주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의 현황”,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심은지, “한국어 학습자 쓰기 담화에 나타난 텍스트 장르별 시제 상 습득 양상: 담화 구조 가설을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안경화, “한국어 교사의 관리와 평가”, 어문학논총 3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안수정, “한글학교 교사 교육의 방향 모색: 요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안여경,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현황 및 특징”,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안정민·김재욱, “한국어 교사의 교사 효능감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안주호, “한국어 교육 문법에서의 용언 설명에 대한 양상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안한나, “한국 다문화 교육 교수-학습 평가”,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양명희, “한국어 교육에서의 화행 교육의 목표와 방향: 칭찬 반응 화행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양지선, “의사소통의 민족지학 방법론을 활용한 한국어 문화 교육: 단편 드라마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어성연·정진희 “교육 대학 학생들을 위한 다문화 가족 관련 교양 과목의 개발 및 효과성 연구 3”, 한국교육문제연구 29-1,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어수진, “협동 학습을 통한 다문화 가정의 한국어 교육 방안 연구: 결혼 이주 여성과 그 자녀를 대상으로”, 세계한국어문학 5, 세계한국어문학회
엄진숙, “한국어 학습자의 해라체 평서문 습득 양상”,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여찬영,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재 An Intensive Course in Korean Book 1『한국어 교본』연구”, 인문과학연구 16, 대구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염창권, “중국 학생을 위한 한자어 음가 지도 방안”,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오경숙, “한국어 거절 화행 교육의 방안: 중급 단계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강인문논총 30,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오경숙,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었다가’의 문법 기술”,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오경숙, “한국어 이메일 쓰기 수업에서의 언어 문화 교육”,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오대환,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의 교육 내용에 관한 검토: 교육 내용의 발전적 측면”,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오대환, “해방 전 기독교 선교사를 위한 조선어 교육에 관한 기록의 발굴”,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오로지, “한국어 교육을 위한 ‘-더-’ 결합형과 ‘-던’의 교육 방안”,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오미라·김윤정, “영어 화자의 한국어 음운과 억양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오소정·김영태·임동선, “다문화 가정 아동의 품사별 어휘 정확도 및 반응 속도 특성”, 언어치료연구 20-4, 한국언어치료학회
오현정, “보조사 {은/는}과 주격 조사 {이/가}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어 고급 단계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왕교하·박동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현장 지시어 기능 습득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왕단, “중국의 한국어 교재 발음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0,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우창현, “방언 (한국어) 교육 방향: 결혼 여성 이민자 대상 문법 교육을 중심으로”, 서강인문논총 3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우창현, “방언 한국어 교육을 위한 문법 표현 비교: 시제 선어말 어미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우창현, “한국어 교육과 대학 유학생 유치 전략의 미래”, 언어와 정보사회 1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우형식, “한국어 읽기 텍스트의 실제성과 단순화에 대한 반성적 접근”,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우형식·김수정, “확장형 읽기 활동을 위한 한국어 읽기 자료의 선정과 등급 구분”,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우형식·김수정, “확장형 읽기 활동을 적용한 한국어 읽기 교육의 효과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우혜경, “문학 지문을 활용한 다문화 중학생의 한국어 교육”, 청람어문교육 44, 청람어문교육학회
원미진,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의 방향 모색”,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원미진, “한국어 학습자 사전의 용례 기술 방법에 대한 연구”,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원해영,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구어체 종결 어미 ‘-잖아(요)’ 연구”,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유경수·홍웅기,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 〈시크릿 가

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유홍주, "해외 한국학 교육 기관에서의 한국 문학 교육: 터키 에르지예스대학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윤미영·박덕유, "태국 교포 아동의 맞춤법 오류 분석과 교육 방안: 푸껫 거주 교포 아동의 맞춤법 오류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윤새롬, "알고 있는 단어의 텍스트 점유율이 읽기 이해 및 우연적 어휘 학습에 미치는 영향", 응용언어학 27-1, 한국응용언어학회
윤여탁, "한국어 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법",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윤은경, "음성학 기반의 한국어 모음 교육: 막대 사탕을 이용한 교육 방안 제시",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윤은경, "한국어와 영어 이중 모음의 대조 분석: 활음의 음의 길이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윤정기, "효율적인 발음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재 분석", 어문연구 69, 어문연구학회
이관식, "광주 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 연구", 시학과 언어학 21, 시학과 언어학회
이금희, "'-더니/-었더니'의 의미와 통사적 특징 연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교육 내용 구축 면에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이남, "한국어 보조 용언 '있다'와 중국어의 대응 표현 연구: '(-고) 있다'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이래호, "한국어 교육에서의 신어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이미향, "청자의 듣기 과정에서 본 한국어 듣기 교수-학습 연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이미향, "한국어 교수 설계를 위한 상호 작용적 관점에서의 언어문화고: 외국인 저술 초기 한국어 교재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미혜, "드라마를 활용한 듣기 중심의 한국어 수업 구성: 수업 모형

과 비디오 클립 제작을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이병운, "베트남인 학습자의 작문 오류 경향 분석: 조사·어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이상린, "읽기 영역 오류 문항 분석: 제21회~제22회 한국어 능력 시험 문항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이상린, "한국어 능력 시험 문항 분석 연구: 제21회 중급 평가 문항을 중심으로", 한어문교육 25,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이상혁, "해외 동포와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교육과 남북 언어 문제: 우리말 통합 교육 교재 편찬의 제안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이선진·김영주, "언어 유형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학습자의 주제 중심어적 특성 발달",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소영, "한국어 교육에서 외래어 교육의 위상",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소영·고경민, "한국어 교재에 수록된 문학 작품의 적합성 판단과 기준", 우리말교육현장연구 5-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이소현, "구어에 나타나는 한국어 연결 어미 "-는데"의 의미 연구: 수사 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수미,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법 연구: 전신 반응 교수법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이수미, "한국어 교육학 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 연구 1: 거시 구조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수정, "중국인 유학생의 학술적 글쓰기 경험에 대한 FGI 연구",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순연, "서울 지역의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중 언어 교육의 현황과 교육 주체의 요구 조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이승민·이순형, ""선생님" 호칭 사용에 관한 한일 대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이승연·장미경, "고급 한국어 교재 내 읽기 자료의 텍스트 전형성 연구: 사설·칼럼 텍스트 분석을 바탕으로",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이승은, “한국어 어휘 교육 실험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론적 고찰”,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양금, “한·영 대조를 통한 한국어 관용어 교육의 효과”, 응용언어학 27-1, 한국응용언어학회
이양혜,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특이 파생어 교수·학습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이연정,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연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영희,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세계한국어문학 5, 세계한국어문학회
이우연, “만화를 활용한 언어·문화 통합 교육의 방향: ‘동화’에서 ‘이문화(異文化) 이해’ 교육으로”, 수행인문학 41-2,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이원아, “시조의 ‘흥(興)’에 대한 한국어 교육적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이유경, “한국어 어휘 의미 교육 등급 선정을 위한 기초 연구: 동사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이윤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윤리적 글쓰기 교육의 방향”,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이은하, “한국어 학습자의 진급 여부 의사 결정을 위한 준거 점수 설정 방법 비교 연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은하·채윤정·안지은·김영규, “한국어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개인차 요인과 제2 언어 성취 간의 관계”,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이재성, “중국인 대학생 학습자들의 한국어 종속 접속문 구성 오류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재은·김영주, “한국어 학습자의 과제 수행에 나타난 자기 시발 자기 수정의 유형과 분포”,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이정란, “외국인 유학생의 구두 발표와 보고서에 나타난 응결 장치 비교”,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정란,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초급 양태 표현을 대상으로”, 시학과 언어학 21, 시학과 언어학회

이정란, “한국어 학습자의 화용 생산 능력과 이해 능력 비교: 추측, 희망 표현의 화행 실현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이정엽, “여성 결혼 이민자의 감성 이해와 표현을 위한 한국 현대 시 수업 모형 설계 연구”,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이정현, “한국어 교육에서의 문법적 연어 연구: 한국어 교재 말뭉치를 중심으로”, 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봄 학술대회, 한국중원언어학회
이정희, “외국인의 한국어 구어 발화에 나타난 연결 어미 사용 양상 연구: 결혼 이민자와 외국인 유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이정희,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이종복·임여국, “Perception on the Teachers' Use of English Only in Korean EFL Classrooms”,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주화·전나영,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교재 분석: 교재의 구성과 기술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준규, “반응 시간을 이용한 제2 언어 어휘의 연결 강도 추정”,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이준규·유현조, “한국어 교육을 위한 정형 표현 찾기”, 응용언어학 27-2, 한국응용언어학회
이준호,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읽은 후 쓰기 과제” 연구”,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지용,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한국어 수업 방안 연구: [정치는 전쟁] 은유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이진은,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조사 결합 교육 방안 연구”,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이해영, “베트남인 한국어 학습자의 추측 양태 습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이해영,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학습자 언어 연구 -오류 분석과 중간 언어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이해영·박선희·최은지,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의 단원 모형 개발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이혜영,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을걸” 억양의 변별 교육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이화진, “대조 언어학적 접근과 언어 보편성을 통한 한국어 단모음 교육 순서: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이훈병,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순천향인문과학논총 28,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임삼미, “변인에 따른 한국어 교수법에 대한 연구: 수업 변인, 학습자 변인, 교사 변인을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임은하,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속담 교육 양상 분석”, 인문논총 2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임채훈, “한국어 문화 문법(ethno-grammar)의 설정 가능성에 대하여”,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장미라, “한국어 초급 교재에 나타난 읽기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변천 연구”,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장은아,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교육 평가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장은화, “오류문 분석을 통한 시제 교육 방안: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장종임,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인체어 어휘장 분석: {머리}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장한업, “한국 이민자 자녀와 관련된 용어 사용상의 문제점: “다문화 가정”, “다문화 교육””,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장향실,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규칙 습득 연구”,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전룡화, “기초 한국어 교재 문법 항목 기술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가(이)’와 ‘-는(은)’의 경우를 들어”,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전미순·이병운, “한국어 문화 어휘에 관한 일 고찰: 문화 어휘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전영옥, “여성 결혼 이민자의 목적격 조사 오류 분석”,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전영옥,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어 조사 오류 분석”,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전은주, “한국어 말하기 듣기 교육에서 “실제성 원리”의 적용 층위와 내용”,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전지희·황민아·정미란, “학령기 다문화 가정 아동의 단어 유추 능력”,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전형길·박진욱, “학문 목적 한국어 능력의 구성 요소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정다운, “내용 중심 교육과 장르 중심 교육을 통합한 한국어 쓰기 수업 구성 방안 연구: 학문 목적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정다운, “외국인 대학원생의 한국어 요약문 분석을 통한 요약하기 교육 방법 연구”,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정대현, “한국어 경력 교사의 교수 지식 분석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정명숙,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정명숙, “한국어 구어 문법 평가의 방향”,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정미지, “한국어 음절 종성 지각에 모국어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일본어, 중국어권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4,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미진,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반론하기’의 전략과 언어 표현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정승혜, “오구라문고(小倉文庫) 소장 한국어 학습서에 대한 일 고찰: 『금고기관(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정지윤, “한국어 숙달도 평가에 대한 연구: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중심으로”,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해권, “한국어 문장의 주제와 초점 구조 습득: “은/는”과 “이/가”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해권·신주철, “한국어 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통합적 위계화 방안”,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정해권·이영진, “중국인 학습자 언어 발달의 체계성과 오류 분석”,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정혜, “언어 기능과 통합한 한국어 문법 능력 평가”, 한국학연구 37,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정효주·김영주,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비음화 발음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정희정,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문법 교육 방법론의 연구 동향 및 과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제효봉,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재귀 표현 사용 양상 연구: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제효봉,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텍스트 생성 과정 고찰: 단락 구성과 모국어의 영향 관계”,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조남민, “한국어 교육 과정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현상에 대한 연구: 한국어 교재에 나타난 성별 언어와 관련하여”,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조남민, “한국어의 발음 지각 능력 평가가 갖는 타당성과 효용성에 관한 연구”,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조수현·김영주, “한국어 교재와 TOPIK에 나타난 의사소통 전략 유형과 분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조옥이·박석준, “다문화 가정 중도 입국 자녀에 대한 한국어 문화 교육의 방안과 내용: 교육 사례 예시를 통한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조위수, “숙달도에 따른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사용 양상 연구: 반복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조유경, “아동의 담화 표지 습득에 의거한 한국어 교재 담화 표지 제시 방안 연구”, 수행인문학 41-1,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조은숙, “한국어 교육 과정의 설계와 개선 방향에 대하여: 중국 대학교

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조은숙, "한국어 쓰기 교재 개발 방안: 중국 대학 강의용 교재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조인정, "표현 문형 "-은/는 것이다"의 담화 기능",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재현, "유형론적으로 유사한 제2 언어의 선행 학습 경험이 제3 언어로서의 한국어 습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조항록, "한국어 교육자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조현선, "한국어 학습자의 상담 사례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조현용, "한국어 어휘 평가의 현황과 전망: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주송희,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공간 형용사 어휘 정보 연구: {높다}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어교육학회
주월랑·양명희, "여성 결혼 이민자의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요구 조사",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지민정, "한국계 미국인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과 정체성에 대한 견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지현숙·김새롬,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 용어에 대한 (예비) 교사의 인식 양상에 대하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진강려,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부정 의문문 교육 연구: 모어 화자와의 비교를 통하여",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진정란, "혼합 학습(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한국어 교원 양성 방안", 외국어교육연구 25-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채숙희, "한국어 교재의 인용 구문 분석: 구어 교육의 관점에서",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최경희,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호칭어 교육 연구: 사회 호칭

어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최권진, "이슬람권 학습자의 한국 언어문화 적응 연구: 사우디아라비아 학습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최문석, "입출력 강화를 통한 한국어 듣기 교육 방안 연구: 듣고 재구성하기 과제의 활용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최서원, "한국어 읽기 학습자의 태도 및 동기가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최선경,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기초 교육의 방향: 기초 교육 교재 개발 방향에 대한 제안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최수정·오현아·우미경·토코후지시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평가 기준과 교재 분석: 경희대·고려대·연세대 초급 1 교재 및 물건 사기 단원을 바탕으로",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최열, "인터넷 활용 능력이 한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최윤곤, "중국어권 한국어 문법의 교재 용어 분석 (1): 품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최윤정, "한국어 학습자의 노트 필기 전략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준말 종결 어미에 대하여: 종결 어미와 종결 어미의 통합형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최은경,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와 크메르어의 대조 분석 연구: 유형적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 22-1, 국제한국어교육학회
최은정·김영주, "한국어 초급 교실에서의 교사의 수정적 피드백과 학습자 반응", 응용언어학 27-1, 한국응용언어학회
최은지, "한국어 학습자의 "서술성 명사+접미사" 구성 어휘의 오류 양상",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최정순,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어 표현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최정순·윤지원, "한국어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문연구 63, 영남대학

교 인문과학연구소
최현정, “음절 길이 교육을 통한 중국인 학습자의 운율 오류 수정 효과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축취영, “중국 대학 한국어 전공자를 위한『양반전』교육 연구:『범진향시 급제(范進中擧)』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상미,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담화 및 화용과 한국어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한영목,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생의 자국어 교육 프로그램 인식”,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한정임·김주연,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모음 습득 과정에 대한 1년간의 종단 연구”,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함욱·김주영, “이야기 표현을 통한 결혼 이주 여성의 한국어 교육 방안”,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허유라, “한국어 초급 교재에서의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음운 변동 규칙을 중심으로”,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호취월, “한국어 사자성어의 존재 양상 및 외국어로서의 그 교육 방안”,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혼다토모쿠니·김인규, “한국어 교육과 일본어 교육에서의 학문 목적 쓰기 교재 분석”, 인문연구 61,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홍윤표, “해외 한국어 교육에서 한국학 디지털 자료의 활용 방안”,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홍혜란, “다차원 분석에 의한 한국어 논문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 연구: 전공 분야별 비교를 통하여”, 한국어교육 22-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황상심·이숙향, “베트남 다문화 아동과 기능적 조음 장애 아동의 말소리 오류 비교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황인교, “이중언어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기획 논문: 한국 문화 및 한국 문학 교육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황인교, “정규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의 문화 교육 사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황인교,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이해 양상 연구: 고급 학습자의 연구 논문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황혜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을래요’의 문법 정보 기술”, 인문논총 22,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Back, Ju Hyun, “A Corpus-based Study of Hedging in Korean EFL Students’ Academic Essays”,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Harman, Ruth, “쓰기 교육에 관한 다층적 연구: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도시 학급 학생의 주도적 반응을 통해”, 순천향인문과학논총 30,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wang, Ki Dong, “Characteristics of Student Questions in Korean EFL Classes”,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Kang, Su-Ja, “Effects of Learning and Teaching Conditions on L2 Grammar and Comprehension”,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Kim, EunSung, “Strategic Use of Third Person References in Korean Conversation”, 응용언어학 27-3, 한국응용언어학회
Kim, Ji-Hye, “Understanding Korean Exempt Binding by Korean Heritage Speakers in China”, 응용언어학 27-2, 한국응용언어학회
Kim, So Young, “Semantic Interpretation of Korean Focus Particle -man “only” in Language Acquisition”,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Kim, Sun Young, “The Role of L1 and L2 in an L3-speaking Class”, 비교문화연구 24,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Park, Hye Son, “Acquisition of Particles by L2 Learners of Korean”, 현대문법연구 64, 현대문법학회
Rhee, Seongha, “Divergent Specialization in the Grammaticalization of Native Korean and Sino-Korean Spatio-Relational Terms”,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Yoon, Sang-Seok, “Cross-sectional Analysis of KFL Students’ Requests and Refusals”,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기타〉

강승혜,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강현화,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성 모색”, 나라사랑 120, 외솔회
김선정,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 능력 검정 시험 문제 분석”,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김정숙,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변천과 그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김중섭,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육의 변화와 한국어 교원의 미래”,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송향근,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우창현,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어 교원과 국어 능력”,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이미혜, “TV 방송의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나라사랑 120, 외솔회
이영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한국어 교육 지원 사례”, 나라사랑 120, 외솔회
이진주, “귀국 조기 유학생의 학교 적응 언어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이해영, “다문화 가정 구성원을 위한 언어 교육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장인실,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이중 언어 강사 양성 과정 교육 지원 사례 연구”, 나라사랑 120, 외솔회
최은규,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현장의 수요와 요구”,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최정순, “[특집: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의 현황과 과제] 주요 국가의 외국인 대상 자국어 교육을 위한 교사 자격 제도 운영에 관하여”,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음성학・음운론

〈단행본〉

강옥미, 『한국어 음운론』, 태학사
김주필, 『국어의 음운 현상과 음운 변화 연구』, 역락
김주필, 『음운 변화와 국어사 자료 연구』, 역락
박한상,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 1』, 한빛문화
박한상, 『Praat을 이용한 음성 분석 2』, 한빛문화
배주채, 『국어 음운론 개설』, 신구문화사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지식과 교양
이토 지유키 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본문편』, 역락
이토 지유키 저·이진호 역, 『한국 한자음 연구: 자료편』, 역락
이현복, 『한국어 발음의 이론과 실용』, 한국학술정보
이현복·김선희, 『(언어 장애자와 정상인의 발음 진단을 위한) 한국어 발음 검사』, 한국학술정보

〈학위 논문〉

桂川智子, 〈日本語母語話者による韓國語外來語の音の知覺: 音韻構造の違いに注目して〉,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고미화, 〈현대 국어의 합성 명사에서 의미 관계에 따른 사이시옷 삽입 경향〉, 안동대학교(석사)
고흔영, 〈한국 한자음과 중국 방언의 비교 연구: 성모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김군종, 〈하악전돌증 환자의 악교정 수술 전후 한국어 모음 발음에 대한 음성학적 분석〉,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김옥란, 〈한국어 자음 발음 실태 분석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은주, 〈서부 경남 방언의 음운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적 분석: 모

음과 관련된 음운 현상을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주희, 〈사용자 발화의 의도 분석율 향상을 위한 음성 인식 결과 재순위화 모델〉, 서강대 대학원(석사)
김효재, 〈강제적 중재 방법이 조음 장애 아동의 일탈된 파찰음 교정에 미치는 효과〉,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남하정, 〈'아/으'계 어미의 '아/으' 탈락 현상에 대한 통시적 연구〉, 국민대 대학원(석사)
박종대, 〈『(무선생속수) 중국어자통』의 중한 역음과 현대 표준 중국어의 음운 대응 규율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배성은, 〈인공와우 이식 아동의 음운 규칙 사용 능력 연구〉, 단국대 특수교육대학원(석사)
배정선, 〈효과적인 억양 교육의 순서에 대한 연구〉, 부산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배준영, 〈대구 지역 새터민의 언어 적응 양상 연구: 음운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샤우쥬나스-까찐스까스 마르띠나스, 〈한·중·일 한자의 발음 비교 연구: 자음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박사)
서미석, 〈한국어 화자의 한국어와 영어 모음 발화에 나타난 음향 음성학적 특성: 대구 방언과 제주 방언 화자를 대상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성은정, 〈한·중 유사 발음 비교 분석을 통한 한국인 학습자의 발음 지도 방안〉,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신하영, 〈신활자본 음식 조리서의 음운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석사)
심현주, 〈한국어 단모음 자가 교정을 위한 프라트(Praat) 활용 기초 연구〉, 계명대 대학원(석사)
오재혁, 〈국어 종결 억양의 문법적 기능과 음성적 특징에 대한 지각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임지혜, 〈정상 아동의 마찰음과 파찰음 산출의 음향적 특성〉,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석사)
장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구조와 음운 체계 대조〉, 연세대 대학원(석사)

정영미, 〈한·일 한자음의 중고음 수용 현상 비교 연구: 자음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정은혜, 〈현대 육진 방언 자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정진숙, 〈다문화 가정 이주 여성의 한국어 운율 발화의 음향적 특징〉, 원광대 동서보완의학대학원(석사)
주림,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이중 모음에 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발음 오류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쩌우티투튀,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최은영, 〈자음군 단순화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한명숙,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 대학원(박사)
호양, 〈한국어 의문문 억양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한국어권·중국어권 화자 위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Lei Lei, 〈중국인이 발화한 한국어 파열음과 파찰음에 대한 실험 음향 음성학적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은경, “국어 혼성어에 대한 기술적 연구: 음운론적 특징을 중심으로”,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곽충구, “구개음화 규칙의 전파와 어휘 확산: 조선족 육진 방언의 경우”, 국어학 61, 국어학회
권경근, “구어의 음운 현상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권미지, “단어 단위 측정에 의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조음 음운 특성 분석”, 언어치료연구 20-4, 한국언어치료학회
김경아, “음운 변화와 패러다임의 상관관계”, 동양학 49,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김미혜·강선미·김기호, “중의성 해소에 기여하는 억양 단서의 인지적 민감도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김성란,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의 음성학적 대조 고찰”,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연희, “형태적 구성에 나타나는 겹받침 발음 연구 1: 표준 발음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김영주·유사양,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상성의 영향: 동형 동의어를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3-2, 한국음성학회
김진우, “Two Undercurrents in Korean Phonology”, 한국어와 문화 10,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김현, “경음화의 발생: 비어두 무성 무기음의 음소적 인식”, 국어학 62, 국어학회
김현, “공명도 및 관련 음운 현상에 대한 음성학적 접근”,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레이레이·김영주, “중국인 화자가 발화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 음성학적 특성”,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2, 한국음운론학회
박나영, “서울말 모음 충돌 회피 현상에 대한 최적성 이론 분석”,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2, 한국음운론학회
박상희, “학령 전 아동의 이중 모음 산출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박선우, “한국어 조음 위치의 유표성에 대한 검토”,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박선우, “한국어의 위치 동화에 대한 지각적 분석”,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1, 한국음운론학회
박시균, “한국어 용언 어간 말 자음군의 발음 연구: 서울 경기 지역과 충남 지역 출신의 20대 화자를 중심으로”,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박종희·권병로, “ㄱ 구개음화 현상의 인지적 고찰”, 한글 291, 한글학회
박지윤, “모음과 모음 형식 형태소 사이의 음절 말 기식음 약화 현상”,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지윤, “서울 지역 세대 간 /ㅔ/와 /ㅐ/ 모음의 포먼트 측정: 조음 음성학적 특징과 스펙트로그램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8, 한국국

어교육학회
박희정·황하정·박현, “단어 단위 음운 분석을 통한 2세 아동의 음운 특성 연구”, 언어치료연구 20-1, 한국언어치료학회
소신애, “국어의 ‘p/k 교체’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손민정, “삼분지 폐쇄음 발달 양상: 13-20 개월령 한국어 습득 유아에 관한 사례 연구”,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손형숙·안미애, “단어 내 위치에 따른 한국어 폐쇄음의 VOT 연구: 대구 지역어 화자를 대상으로”,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송민호, “개화 계몽기 문자/음성적 전통의 균열과 이인직의 언어 의식: 「血의 淚」의 고유명 玉運·옥연·옥련(옥년)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송윤경, “구강 개방 상태에 따른 말 명료도 및 말 용인도 특성”,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송향근, “음운 이론과 한국어 발음 교육”,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신부용, “정음 한글의 보편성과 서로(서믓)의 과제: 음성의 수치화”,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신승용, “공시태와 공시적 음운 기술의 대상으로서 진행 중인 변화”,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안성우·허민정·김유·김미경, “4세-7세 유아의 음운 인식 능력 발달 특성에 대한 대(규모)집단 연구”, 언어치료연구 20-3, 한국언어치료학회
양순임, “한국어 중첩 비음의 길이에 대한 고찰”,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오재혁, “종결법을 결정하는 운율 단서에 대한 지각적 연구”,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유사양·김영주,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서 보이는 중국어 음평과 양평의 영향: 동형 동의어를 중심으로”,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유재권·이경미, “한국어에서의 성인과 유아의 음성 인식 비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5, 한국콘텐츠학회
유정,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음운 변동 발음 오류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윤은경, “음성 산출의 정규화(normalization) 방법 비교: Bark Diff., Lobanov, Nearey 1&2, W/F”, 언어학 59, 한국언어학회
윤은경, “판별 분석을 통한 모음의 분류: 한국어와 일본어의 실험 음성학적 대조”,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윤은경·김슬기, “보조사 ‘-요’의 음장 변화에 따른 청자의 지각 차이 비교”,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이경·박동호,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단모음 발음에 대한 실험 음성학적 연구: “/ㅗ/”와 “/ㅓ/”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이근영, “『ᄉᆞ민필지(士民必知)』의 음운론적 연구”,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이기동, “북한의 말소리 연구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명순, “음성 장애 연속 구어의 음향학적 분석”,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이상직, “어간 말 자음 /h/의 음운론적 행위에 대한 지배 음운론적 접근”,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이상직, “영어 차용어에서 나타난 어중 자음 연쇄의 [i] 존재에 대한 지배 음운론적 접근”, 언어연구 27-3,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세창, “음소 체계에 나타난 자질 사용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그림의 법칙에 나타난 음 변화를 중심으로”,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이세창, “음운론적 불규칙성과 입력형의 설정에 관한 연구: ‘ㅅ-불규칙 용언’과 ‘ㅎ-불규칙 용언’의 통합적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이세창, “음절 말 자음군 단순화에 관한 연구”,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3, 한국음운론학회
이용훈·박예슬, “Implementation of Korean Syllable Structures in the Typed Feature Structure Formalism”, 언어연구 27-1,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진호, “국어 반모음화에 따른 운소 변동의 통시적 고찰”, 국어학 60, 국어학회
이혜경, “아동의 음운 습득과 음절 구조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 언어

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이희두, “[n]-출현 현상의 두 가지 양상”, 언어학 19-4, 대한언어학회
임석규, “활음 첨가 재론”,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임현열, “/ㄴㄹ/ 연쇄의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적 접근”,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정의향, “중국 무순 지역 한국어 단모음의 세대 간 차이에 대한 음향음성학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조성문, “국어의 어두 자음군에 대한 최적성 이론의 분석”,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조성문, “시문학파 시의 음운론적 특성 분석”,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최중호, “지명 표기에 나타나는 “상(上)”의 음가 연구”,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최지연·조혜숙·남기춘, “한국어의 운율 정보가 음운 단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16-4,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최한숙, “발화와 인식의 상호 작용: 폐쇄음과 모음 간의 길이 변화를 통한 고찰”,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최현정, “구어에 나타나는 모음 변이 양상: 부산 지역의 세대별 일상대화를 중심으로”,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한성만·김상범·김종열·권철홍, “목소리 특성의 주관적 평가와 음성 특징과의 상관관계 기초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허용, “모음 체계 연구: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대상으로”, 비교문화연구 2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허용, “연음화를 통해서 본 언어 보편적 음절 구조 연구: 한국어와 일본어의 대상으로”, 언어연구 27-3, 한국현대언어학회
허용, “한국어 자음 체계의 유형적 보편성 연구”,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Ahn, Mee-Jin, “The Nuclear Status of Onglides in Korean”,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3, 한국음운론학회
Han, Eunjoo, “A Stratal-OT Approach to the Overapplication of Coda Neutralization and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n

Korean",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Han, Eunjoo, "The Interaction of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and Aspiration Merger in Korean: A Stratal OT Approach",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Hong, Sung-Hoon, "Vowel Harmony in Korean Ideophones",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2, 한국음운론학회
Hwang, Hyun Kyung, "The Interaction of Accent and wh-intonation in Korean and Japaness", 어학연구 47-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Jang, Mi, "An Acoustic Analysis of the Aspiration Merger in Korean", 말소리와 음성과학 3-1, 한국음성학회
Jang, Mi, "Prosodically Driven Phonetic Properties in the Production of Korean Fricatives",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1, 한국음운론학회
Jang, Mi, "The Effect of Prosodic Position and Word Type on the Production of Korean Plosives",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Kim, Jieun, "The Prosody of the Alleged Korean Topic Marker -nun", 어학연구 47-1,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Kim, Jungsun, "Perceptual Development in the Categorization of Pitch Accent Contrasts in Children and Adults",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Kim, Jung-yoon·Lee, Yong-eun, "A Study of Korean Syllable Structure",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Kim, Mi-Ryoung,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 Language Phonetic Influences and L2 Proficiency in terms of VOT",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Ko, Do-Heung, "Electroglottographic Measurements of Glottal Function in Voice according to Gender and Age", 말소리와 음성과학 3-1, 한국음성학회
Lee, Minkyung, "Optionality as Local Optimality in Serialism", 언어과학 18-3, 한국언어과학회

Lee, Ponghyung, “Origins of Glides and /ʃ/-Decomposition in Korean Loanword Phonology”,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Lee, Yongeun, “The Gradient Nature of Syllabic Affiliations of Korean Glides”,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Nam, Hosung, “Phonology of Positional Asymmetry and Geminates: Constraints from Gestural Coordination Dynamics”,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Oh, Eunjin, “The Mid and Low Vowel Systems of Korean-English Bilingual Speakers”,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Oh, Mi Ra·Daland, Robert, “Word-Initial Stops in Korean and English Monolinguals and Bilinguals”, 언어연구 28-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Shin, Seung-Hoon, “Perception and Production of Illicit Lateral Sequences by Korean Learners of English”,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Son, Minjung, “A Language-Specific Physiological Motor Constraint in Korean Non-Assimilating Consonant Sequences”, 말소리와 음성과학 3-3, 한국음성학회

Son, Minjung, “Coordinations of Articulators in Korean Place Assimilation”, 말소리와 음성과학 3-2, 한국음성학회

Son, Minjung, “The Projection of Syllable Structure: A Case Study of Intervocalic /k/ in Korean”,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Son, Minjung·Kim, Sahyang·Cho, Taehong, “Supralaryngeal Articulatory Characteristics of Coronal Consonants /n, t, th, t͈/ in Korean”, 말소리와 음성과학 3-4, 한국음성학회

〈기타〉

이동석, “‘ㅎ’ 탈락 현상에 따른 오류”,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형태론

〈단행본〉

남기심·고영근, 『표준 국어 문법론』, 탑출판사
방향옥,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역락
배영환, 『'ㅎ'-말음 어간의 재구조화』, 지식산업사
심현숙, 『조선어 합성어 연구』, 박이정
조일규, 『파생법의 변천』, 역락
황화상, 『현대 국어 형태론』, 지식과교양

〈학위 논문〉

고인영, 〈조사 '에'와 '로'의 의미 기능 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곽은주, 〈신어에서 준말의 단어 형성법〉, 창원대 대학원(석사)
곽자건, 〈현대 한국어 파생어 연구〉, 호남대 대학원(석사)
권연이, 〈'ㅎ' 말음 체언의 재구조화 과정에 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석사)
권예란, 〈[N-V-suf]형 단어의 내적 구조 고찰〉, 충북대 대학원(석사)
김민진, 〈관형사와 접두사의 범주 설정에 관한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김빛나, 〈인스턴트 면의 상품명에 대한 형태·어휘적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아름, 〈모음 조화의 변화 양상 연구: 활용·곡용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루탄투이,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인칭 대명사 대비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박지연, 〈한일어 부사의 조어법 대조 연구〉, 가톨릭대 대학원(박사)
방향옥,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파생어 대조 연구〉, 조선대 대학원

(박사)
서성, 〈한국어 '-적'과 중국어 '的(de)'에 관한 비교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서총, 〈한·중 신조어의 형태론적·어휘론적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손연화, 〈한글을 통한 한중 한자어의 병행 표기에 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안소진, 〈심리 어휘부에 기반한 한자어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우정, 〈한국어 중첩형의 구조와 단어 형성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유췌, 〈한·중 한자 사자성어 비교 연구: 형태와 의미를 중심으로〉, 공주대 대학원(석사)
윤영민, 〈현대 한·일어 접사의 비교 연구〉, 고려대 대학원(박사)
임현열, 〈동일 형태소의 자유 변이 현상에 대한 인지 음운론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장증, 〈한·중 합성 명사의 구조 비교 연구〉, 선문대 대학원(석사)
장혜진, 〈한·중 2음절 동형 한자어 품사 대조 연구: 한국어 학습용 어휘 목록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전락, 〈한국어와 중국어의 반복어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박사)
정건진, 〈'-적'의 용법에 대한 한·중 대조〉, 한양대 대학원(석사)
정보경, 〈한국어 한자어 접미사와 중국어 접미사의 대조 연구: 사람과 관련된 명사를 중심으로〉, 목포대 대학원(석사)
정현도, 〈현대 국어 [부사성 의존 명사+'하다'] 구성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주교령, 〈한국어 한자어 접두사와 중국어 접두사의 비교 연구〉, 순천향대 교육대학원(석사)
최려나, 〈한국 색채어 파생 접사와 중국어의 대응 관계 연구: 한국인과 중국인 색채 인식의 비교를 통하여〉, 숭실대학교 대학원(석사)
한은실, 〈한국어 혼성어와 두자어의 비교 연구〉, 한림대 대학원(석사)
Luu Tuan Anh, 〈한국 한자어와 베트남 한자어의 대조 분석 연구: 한국 한자어의 어휘 교육을 위하여〉, 연세대 대학원(박사)
Nguyen Thi Nguyet Minh, 〈한국어 단어 형성에서의 '生'의 용법〉,

서울대 대학원(석사)
Wang Yan, 〈한·중 신어에 사용된 명사 파생 접미사의 비교 연구: 한자어·외래어 접미사를 중심으로〉, 아주대 대학원(석사)
Xu Xuefei, 〈한국어 체언+조사 결합형의 형태적·의미적 제약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고석주, "조사 '에'의 의미 재고", 국어학 61, 국어학회
고영근, "비판과 답변의 윤리", 형태론 13-2, 편집진
김명광, "총칭적 객관화 원리와 조건에 대한 재고찰", 형태론 13-1, 편집진
김민국, "파생 접사의 사용 양상과 생산성", 형태론 13-1, 편집진
김선철, "통신 언어 준말의 형성에 대한 음운론·형태론적 고찰",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김선회, "충실성 제약과 선행 제약, 그리고 그 서열 관계",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2, 한국음운론학회
김양진, "국어사전 속의 이두식 한자어 연구",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유범, "통사성과 합성어의 유형 변화",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김정남, "AABB형 반복 합성어에 대하여",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김혜미, "국어 통합 합성어 형성 원리 연구: 신어 분석을 기반으로",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두위, "한국어 한자어 합성어와 중국어 이합사의 대조 연구",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목정수, "한국어 "명사성 형용사" 단어 부류의 정립: 그 유형론과 부사 파생",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박병철, "지명어의 후부 요소 '遷'에 관한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박소영, "한국어 통합 합성어의 통사 구조와 형태-통사론의 접면", 생

성문법연구 21-4, 한국생성문법학회
박주원, “술목 구조 VN형 한자어의 논항 실현에 대하여”, 형태론 13-2, 편집진
송원용, “불규칙적 고유어 어근의 심리적 실재성”, 국어국문학 159, 국어국문학회
송원용, “한자계 어근 분류 방식의 심리적 실재성”, 형태론 13-2, 편집진
송재목, “Verbal Inflections in Korean and Mongolian: a Contrastive Analysis”, 언어연구 27-1, 한국현대언어학회
송창선, “국어 형태소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안종기·송경안, “한국어-영어 품사의 유형론적 비교 연구”,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양영희, “여성 지칭 접미사 ‘-네’와 ‘-댁’의 형성 과정과 기능 변천 고찰”,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오민석, “문장형 단어 형성 요소의 형성과 특성: 용언 어간과 종결 어미 결합형을 대상으로”,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왕정, “한국어와 중국어의 조어법 대조 연구”,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이금희,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에 대하여”, 어문연구 1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민우, “‘명사+명사’ 합성어 구성 요소의 의미 관계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이숙, “서술 종결형 어미 “-단다”의 형성과 의미 기능 분석”,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이영제, “수 분류사 구성과 파생 접사 결합형의 구조와 기능”,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이윤하, “김동찬(2005), 『조선어 단어 조성론』(조선어학전서 30)”, 형태론 13-1, 편집진
이정훈, “자료와 이론 구성”, 형태론 13-2, 편집진

이현근, “영어 합성어와 한국어 대응 합성어의 개념화”,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현희, “범주로서의 품사와 품사 전형성: 명사와 그 중복 범주를 대상으로”, 한국학연구 3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전후민, “‘-느-’의 형태소 분석에 대하여”, 형태론 13-2, 편집진
정혜, “한국어 복수 표지 ‘들’에 관하여”,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조나야, “한국어 격 조사의 언어 유형적 재분류: 러시아어 “격 어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어문학 51, 국어문학회
조민정·손혜옥, “합성 명사 형성 및 개념 확장 방식에 대한 논의: “N사냥”류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조민하, ““-는데”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조지연, “접두사 [강-] 의미 파생에 대하여”, 형태론 13-1, 편집진
차준경, “형태적 생산성과 저지 현상”, 형태론 13-1, 편집진
최규수, “‘X하다’와 ‘X를 하다’의 형태론과 통사론의 문제들”, 한글 292, 한글학회
최상진, “파생 접사 ‘-이’의 의미 성분 분석”,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최형용, “한국어의 형태론적 현저성에 대하여”, 형태론 13-1, 편집진
팽철호, “한자어의 오용에 대하여: 한자의 형태 및 발음과 관련된 사례를 중심으로”, 동아문화 49,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한기선, “음운론과 형태론에서의 가장자리 비대칭”, 인문학지 42,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한주희, “지명어 후부 요소 ‘-구미’의 재해석”,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황국정, “『청학사서(淸學四書)』에 나타난 만주어의 격 체계 연구: 근대 한국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5, 이중언어학회
Lee, Sun-Young, “Categorical Distinctions in SLA: Evidence from Inflectional Morphology in Korean”, 외국어교육연구 25-2,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교육연구소

통사론

〈단행본〉

김건희,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월인
김선효, 『한국어 관형어 연구』, 역락
김승곤, 『21세기 국어의 의향법 연구』, 박이정
김승곤, 『21세기 우리말본 연구: 국어학·문법론』, 경진
김용하 외, 『한국어 통사론의 전망: 김영희 선생 정년 퇴임 기념 논총』, 경진
남수경, 『한국어 피동문 연구』, 월인
송엽휘, 『한·중 접속문 대조 연구: 논리 인과 접속문을 중심으로』, 역락
연재훈, 『한국어 구문 유형론』, 태학사
유현경·한정한·김광희·임동훈·김용하·박진호·이정훈, 『한국어 통사론의 현상과 이론』, 태학사
이영희,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의 상 연구』, 역락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 힘과 거리의 미학』, 소통
Kim, Young-wha et al., 『Plurality in Classifier Languages: Plurality, Mass/Kind, Classifiers and the DPs』, 한국문화사

〈학위 논문〉

가리야 미쯔노부, 〈한국어와 일본어 인과 접속의 통사 및 의미 대조 고찰: '-아서, -니까'와 'て, ので, から'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강민규, 〈명사 bigram과 확률 모델을 이용한 한국어 복합 명사 분해〉, 국민대 대학원(석사)
강성금, 〈『토지』에 나타난 높임법의 양상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강성춘, 〈국어 연결 어미 연구: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를 중심으로〉,

상지대 대학원(박사)
강악, 〈접속 어미 '-고'에 대응하는 중국어 접속 표현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강혜미, 〈동격 인용절에 대한 통시적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경김, 〈한·중 영화 번역문 분석 연구: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화려한 휴가〉 〈패왕별희〉 〈인생〉을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석사)
경연, 〈한국어 접미사 '-적'과 중국어 구조 조사 '的'의 대조 연구〉, 창원대 대학원(석사)
고미선, 〈영한 번역에 나타난 의문문과 비의문문의 변조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석사)
곽정, 〈연결 어미 '-어서'와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곽현진, 〈한국어 1인칭 대명사 대용 표현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곽휘, 〈현대 한국어 차등 비교 구문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구라시마 레이코, 〈일본어 'の'와의 대조를 통한 한국어 '의'의 생략 양상 연구: 준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菊地香里, 〈일본어 「のだ」와 한국어 「것이다」 「거든」의 한일 대조 연구: 문법화의 관점에서〉, 고려대 대학원(석사)
권순호, 〈한국어 어휘 의미망을 이용한 비감독 어의 중의성 해소 방법의 성능 향상〉, 부산대 대학원(석사)
권인주, 〈시제와 상에 대한 영한 번역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김나리, 〈한·중 과거 시제 비교 연구 '了'와 '-었-', '過'와 '-었었-'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동수, 〈순서 표현 연결 어미 '-고'와 '-어서'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 번역 연구〉,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김문태, 〈일본어 「한어+する」의 한국어 번역 표현 연구: 이자 한어의 용례를 중심으로〉, 동의대 대학원(석사)
김미경, 〈한국어 양보 접속 표지의 중국어 번역 연구〉,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김민정, 〈현대 국어 '-었-'에 관한 연구〉,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병건, 〈국어 의향법 씨끝 변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

김보은, 〈'이다' 구문의 특성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김선영, 〈형용사·동사 양용 용언에 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박사)
김선화, 〈한영 통역에서 발생하는 언어 간섭: 의미 단위 재구성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김수미, 〈국어 정도 부사와 상태성 피수식어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수정, 〈복수 표지 '-들'의 실현 양상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김수현, 〈'말고'의 문법화와 의미 연구〉, 국민대 대학원(석사)
김애희, 〈국어 범주 통용의 유형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은진, 〈현대 국어 접속문의 시제 해석〉, 충북대 대학원(석사)
김지은, 〈한·불 번역에서의 속격 명사구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박사)
김지혜, 〈국어의 '이/가'와 '을/를'의 교체 구문 연구: 복합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김혜영, 〈국어의 능격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혜진, 〈국어 필수 부사어의 논항성에 대한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남기식, 〈전통 문법서에 나타난 연결 어미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대문, 〈한국어 부사격 조사 '-에', '-로'에 대응하는 중국어 표현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로크, 〈한국어와 네팔어의 '-에, -에서'에 대한 대조 연구〉, 인제대학교(석사)
마진동, 〈한·중 경어 표현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석사)
마쯔자키 마히루, 〈한국어 문장 연결 연구: 지시, 접속, 생략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박사)
문선희, 〈무생물 주어 타동사 구문의 영-한 번역 양상 분석〉,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박가연, 〈프랑스어와 한국어의 대명사 및 명사형 조응에 대한 연구: 양 언어 간 번역에의 적용을 목표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박부종, 〈『기』의 관용구에 대한 한·일 대조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박영민, 〈투사성의 원리를 이용한 결정적 한국어 의존 구문 분석의

보정 기법〉, 서강대 대학원(석사)
박현중, 〈영어와 한국어의 시제(Tense)와 상(Aspect)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인의 영어 습득을 중심으로〉, 충남대 대학원(석사)
배은나, 〈현대 국어 통합형 종결 어미 연구: 인용 구성과 접속 어미의 융합 형식을 대상으로〉, 서강대 대학원(석사)
비비, 〈한국어 연결 어미 연구〉, 호남대 대학원(석사)
서빈, 〈한국어 조동사와 중국어 대응 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서월아, 〈영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부사어 비교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석사)
손금추, 〈한·중 어순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명사구, 합성 명사, 부치사구를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박사)
손주한, 〈한국어 '를'과 일본어 'を'의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송기악, 〈한국어 조사 '-에'와 중국어 개사의 대응 관계 연구: 황석영의 〈삼포 가는 길〉·〈이웃 사람〉 원본과 중역본을 활용하여〉, 중앙대 대학원(석사)
松崎眞日, 〈한국어 문장 연결 연구: 지시, 접속, 생략을 중심으로〉, 경희대 대학원(박사)
송현주, 〈국어 구조와 의미 간의 동기화 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수혜충, 〈한·중 시간 부사의 대조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신애, 〈유생성에 따른 영어 타동사 구문의 한국어 번역 유형〉, 부경대 대학원(석사)
심도, 〈한·중 비교성 정도 부사의 대비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씨나롯 낫타완, 〈한국어 부사격 조사와 태국어 전치사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악흔, 〈한·중 차등 비교 구문의 대비 연구〉, 숭실대 대학원(석사)
안경록, 〈영어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상의 유형별 분석〉,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안다, 〈한국어와 몽골어 격 조사 비교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안신혜, 〈국어 의존 명사의 문법화 연구〉, 건국대 대학원(석사)

안연령, 〈한·중 관형어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안연진, 〈한·중 접속문 대조 분석과 교육적 활용에 대한 연구: 원인·이유 연결 표현을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석사)
안향란, 〈한국어 가치 반영 명사에 관한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양기기, 〈한국어 '-겠-'과 중국어 '要'의 대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석사)
양단, 〈한·중 시간 부사의 상적 특성에 대한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楊岳, 〈日韓兩言語の格助詞と中國語の特有表現の對照研究: 中國語を母語とする學習者が韓國語の接觸可否から受けた格助詞誤用の影響〉,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양양, 〈한국어 감탄사의 문법적 특성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엄세환, 〈방향 보어와 목적어의 어순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여흥초, 〈한·중 경어법의 비교 연구〉, 호서대 대학원(석사)
오려려, 〈한국어와 중국어의 과거 상황 표현 대조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왕넝박, 〈한·중 대우법 대조 연구〉, 호남대 대학원(석사)
왕로, 〈한·중 한자어 시간 부사의 대조적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왕페이, 〈의문문에 대한 한·중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왕한림, 〈한중 경어법의 비교 연구〉, 선문대 대학원(석사)
왕호, 〈한국어 단위 명사와 중국어 양사의 비교 연구〉, 대구대 대학원(석사)
왕효도, 〈한국과 중국의 지시사 비교 연구: '這/那'와 '이/그/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楢岡和香子, 〈日本語の「は」の誤用分析: 韓國語の「이/가」との對應を中心に〉,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유남숙, 〈「のに」と「는데」の對照研究〉, 한국외국어대학교(석사)
유산산, 〈한국어 감정 형용사 구문 연구〉, 한림대학교 대학원(석사)
유연염, 〈한·중 인칭 대명사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유지인, 〈한국어 '한정성 조사' 범주 연구: '가, 를, 는, 도'를 대상으로〉, 경희대 대학원(석사)

윤정원, 〈현대 한국어 인용 구문 연구: 인용 구문의 유형과 범주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윤현애, 〈한국어 피동 표현의 담화 기능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성옥, 〈텍스트 유형별 '-겠-'의 사용 양상〉, 한양대 대학원(석사)
이소정, 〈특수 조사의 통사와 의미 연구: '-까지', '-마저', '-조차'를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이시애, 〈한국어 감탄사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이영남, 〈한국어 분류사와 중국어 양사의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이영희, 〈상적 특성에 따른 한국어와 일본어 동사의 동작류 분류〉, 충남대 대학원(박사)
이유라,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적 기능에 대한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율하, 〈한국 수어의 동시적 결합 구조에 대한 통사론적 연구〉, 강원대 대학원(박사)
이혜민, 〈현대 국어 의존 명사 '것'에 대한 연구: '것' 구문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
장경우, 〈'보다' 구문 연구: 통사·의미적 비교 양상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석사)
장뢰, 〈한국어 '-더-' 결합 문법 항목의 대조 분석〉, 동국대 대학원(석사)
장방, 〈한·중 부정 의문문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장예, 〈한국어 보조사 '도'와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장은희, 〈영한 병렬 자료에 나타난 영어 긍정문의 한국어 부정문으로의 번역〉, 부경대 대학원(석사)
전무용, 〈한국어 번역 성경의 문체 연구: 주어와 서술어의 문법 표지의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박사)
전우화, 〈「-ている」와 「-었-」에 관한 고찰: 한·일 양국의 시간 개념의 차이를 중심으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전후민, 〈현대 국어 선어말 어미 '-느-'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정려민, 〈한국어와 중국어 부정 표현의 대조 연구〉, 청주대 대학원(석사)

정선영, 〈국어 명사구의 내적 구성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정영옥, 〈번역 투와 번역 품질 제고 방안〉,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정은아, 〈한국어 처소격 교체 구문에 대한 제약 기반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조민하, 〈연결 어미의 종결 기능과 억양의 역할〉, 고려대 대학원(박사)
조아남, 〈'-면서' 구문 연구: 관점상(viewpoint aspect) 기능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조정여, 〈한·중 형용사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진다위, 〈한·중 부사어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진설매, 〈한국어 조건 접속문과 중국어의 대응 구문에 대한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채숙희, 〈현대 한국어 인용 구문 연구: 구어 자료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박사)
채의나, 〈한국어 시상 형태소 '-고/어 있-'의 의미 분석 연구: 중국어 대응 표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초아매, 〈한·중 조건 연결 표현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최금자, 〈한·중 양보 표현에 대한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최효연, 〈한국어 높임법에서의 청자의 역할〉, 경남대 대학원(석사)
페이페이, 〈한국어 연결 어미 연구〉, 호남대학교(석사)
풍정, 〈한국어 연속 동사 구문과 중국어 연동문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풍진동, 〈한·중 경어 표현 비교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함병호, 〈한국어 양태 보조사 연구〉, 동국대 대학원(석사)
항가이마, 〈『몽어노걸대』와 『첩해몽어』의 구문에 대한 연구: 몽골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박사)
향우우, 〈한·중 부정 극어에 대한 대비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호접, 〈한·중 부정의 대조적 연구: 한·중 부정소의 언어적 특징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황아영, 〈한국어 복수 표지 '들' 연구〉, 조선대 교육대학원(석사)
Kariya Mitsunobu, 〈한국어와 일본어 인과 접속의 통사 및 의미 대

조 고찰: '-아서, -니까'와 'て, ので, から'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석사)

Megha Malhari Gokula, 〈한국어와 스리랑카어의 사동법 대조 분석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Prihantoro,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and Indonesian Noun Phrases with Numerals: Building a Machine Readable Linguistic Resource〉,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Zhang Xiaoman, 〈한국어와 중국어의 부사절 대조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선옥, "비상승 형용사 보문절 구조에 관한 통사적 연구",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강영세, "대격 허가: 통사론과 의미론의 접촉면", 어문학논총 3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강창석, "국어 문법과 주어", 개신어문연구 33,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고석주, "구문 기술을 위한 명사의 의미 정보: 피동 구문을 중심으로 한 시론적 고찰",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고석주, "한국어 무주어문 유형 연구: 시론적 고찰",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고영근, "현행 학교 문법의 "높임법"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형태론 13-1, 편집진

고창수, "문법의 차원 이론에 대하여",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고혜원, "정도 부사 '너무'의 의미와 공기 특성", 어문론집 46, 중앙어문학회

구종남, "'-어 오다/가다'의 직시적 의미와 상적 특징",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구종남, "국어의 부정 극어 허가자와 허가 양상",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김광희, “대용 표현”, 국어학 60, 국어학회
김기혁, “사동형 타동사 파생의 유형과 특징”, 한글 291, 한글학회
김대익, “동사 이동과 최소주의”,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김명광, “보조사 “-도”와 “-까지”의 의미 분화에 대한 일 고찰: 초등학생 1학년과 6학년 일기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135, 한국어교육학회
김명광, “통사적 접사 ‘-요’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김문기, “품사 통용 감탄사의 처리 방안 연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김미형, “조사 ‘이/가’와 ‘은/는’의 기본 전제와 기능 분석”,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김민국, “‘말이다’ 구성의 문법화와 화용화”, 국어학 62, 국어학회
김석득, “최소의 최대 생성의 끈 이론”, 인문논총 21,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성욱, “장소 주어 구문의 논항 실현”, 인문학지 43,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김수태, “씨끝 통합체의 변화: ‘-리X-’형을 중심으로”, 언어과학 18-3, 한국언어과학회
김수태, “안 맺음 씨끝 ‘-나-, -니-, -이-’ 통합체의 변화”, 한글 291, 한글학회
김승곤, “‘음’-이름법과 ‘기’-이름법의 말본”, 한글 291, 한글학회
김옥영, “‘어떻게’의 문법 범주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김용석, “한국어의 의문사 비대칭 현상에 관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김용하, “격과 조사”, 국어학 60, 국어학회
김용하, “조사의 핵성”, 언어연구 28-2,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김원경, “격 조사의 정보와 기계 번역: 한·영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김은일·안경록·정연창, “영어 수동문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기능 문법

적 설명",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김일환, "공기어 네트워크의 변화 양상: 〈가족〉과 〈친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김정남, "한국어 체언과 조사의 결합 제약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김정민, "體言締め文에 관한 일 고찰: 일본어와 한국어의 대조를 통하여",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창섭, "부접어의 설정과 부접 구성", 국어학 62, 국어학회
김천학, "동사와 상에 관한 유형론적 연구: 한국어의 Perfective와 Imperfective에 대하여",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2011년 추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한국중원언어학회
김혜영, "명사 수식 구문의 번역 글쓰기 문제", 돈암어문학 24, 돈암어문학회
김희경, "간접 인용문의 구조적 특징 연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나카무라마유, "시간 부사 〈갓〉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6,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남수경, "품사 통용의 몇 문제: 기본 개념을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3,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남윤진, "소설 자료를 통해 본 20세기 한국어의 부정문 사용 양상",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단명결, "한·중 형용사 통사론적 비교 연구: 형용사의 특징과 기능을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2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목정수, "한국어 구어 문법의 정립: 구어와 문어의 통합 문법을 지향하며",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문숙영, "접속문의 시제 현상과 상대 시제",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민경모, "지시사 수식 명사구의 유형 및 특징에 대하여", 국어학 60, 국어학회
박기성, "퍼지 문법으로서의 속격 명사구와 합성 명사 연구",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박동근, "동시 텍스트의 흉내말 사용 양상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박소영, “한국어 어휘상에 대한 통사론적 접근”, 형태론 13-2, 편집진
박소영, “한국어 장형 부정문의 격 교체와 “하다”의 유형론”,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박재연, “한국어 연결 어미 의미 기술의 메타언어 연구: ‘양보, 설명, 발견’의 연결 어미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박진호, “시제, 상, 양태”, 국어학 60, 국어학회
박진호, “한국어에서 증거성이나 의외성의 의미 성분을 포함하는 문법 요소”,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박진희, “국어 목적절의 네 가지 유형”, 국어학 61, 국어학회
박철우, “국어 화시 표현의 유형”,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박홍근, “Optional Topic (Phrase)?”,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박희문, “한국어 “주제화 구문”의 HPSG(핵어중심구구조문법) 분석”, 언어연구 27-3, 한국현대언어학회
배진영, “어휘적 결합 표현의 유형 연구”, 문법교육 14, 한국문법교육학회
백낙천, “조사 통합형 접속 어미의 특징”,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서종학, “‘시키-’의 통사와 의미에 대하여”,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손영숙, “관사구, 시제구, 부정구 재고찰”, 동서울대학논문집 33-2, 동서울대학
송재목, “‘-더니’와 ‘-었더니’: 선어말 어미 ‘-더-’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송재목, “한국어 증거성 표지의 중복 실현”, 비교문화연구 2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송재목, “한국어와 몽골어의 형용사 어두 중첩”, 언어학 59, 한국언어학회
송재영, “영어와 한국어 지시어의 용법 차이 연구”,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송창선, “국어의 기본 문형 설정”, 국어교육연구 48, 국어교육학회
송홍규, “준말에서의 어미 결합 제약에 대하여”, 한어문교육 24, 한국

언어문학교육학회
시정곤·김건희, "'의존 명사+이다' 구문에 대한 양태적 고찰",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신서인, "문장 부사의 위치에 대한 고찰", 국어학 61, 국어학회
안명철, "주격 중출 구문과 귀속역", 어문연구 3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안성호, "통사론 교육과 창의성 계발", 생성문법연구 21-2, 한국생성문법학회
안승신, "동사구 생략의 통사적 허가", 생성문법연구 21-1, 한국생성문법학회
안주호, "{만큼}의 문법적 특성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안주호, "한국어 문법 용어의 영어 대역어에 대한 계량적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안주호, "현대 국어 {-고} 계열 조사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양용준, "간접 화행과 상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분석",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양정석, "부가어 대응 규칙과 문법 기술", 형태론 13-2, 편집진
엄정호, "격의 개념과 한국어의 조사", 국어학 62, 국어학회
엄홍준, "한국어에서의 영 논항의 본질", 현대문법연구 63, 현대문법학회
오경숙, "한국어 교육을 위한 '-었다가'의 문법 기술", 어문연구 150,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오충연, "국어 어절의 통사적 내용: 지시 체계를 제안함",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오치성, "-I/Ka as a Focus Marker in Korean", 인문과학논집 43,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유현경, "접속과 내포", 국어학 60, 국어학회
유현경, "품사에 따른 어미 형태 교체에 대한 연구: /-는데/류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유현경, "한국어 어말 어미 체계에 대한 새로운 제안", 어문론집 46,

중앙어문학회
유혜원, ""이"와 "에"의 교체 구문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윤용선, "현대 국어 '-로-'의 용법에 대한 일 고찰", 인문과학연구논총 3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윤재학, "부정어의 잉여성",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윤정원, "『조선어 문장론』의 문장 유형 분류 연구: 『표준 국어 문법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국제어문 52, 국제어문학회
윤평현, "허웅 문법의 통사론 연구", 형태론 13-2, 편집진
윤혜영, "17세기 발화 풀이씨가 이끄는 어찌마디 연구", 동남어문논집 31, 동남어문학회
이규호, ""체언+부사" 구성과 부사의 서술성",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이금영, "근대 국어 의도 관계 연결 어미 연구", 한국언어문학 76, 한국언어문학회
이동석, "일부 국어 관형 표현의 일본어 영향설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이두원, "The Dative Agent in the Passivization of the SVC and Morphological Construction", 인문과학연구 28,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문우, "영어와 한국어의 현재 진행상 용법 비교 연구: 코퍼스(Corpus)를 바탕으로",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미선, "한국 자폐 아동의 양화사-부정어 구문 해석 양상",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이미숙, "유사 표현 '-(으)러', '-(으)려고'의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이미화·박기성, "영어 -ly부사 위치와 의미의 영한 번역 과정 상관성 연구",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이선웅,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연속 동사 구문", 언어연구 27-1, 한국현대언어학회
이수련, "'내가'와 '나에게'의 대비 분석", 한글 294, 한글학회
이연화, "영어와 한국어의 이중 목적어 구문", 언어연구 26-4, 한국현

대언어학회
이은섭, “보충어의 판별 문제와 어휘부 처리에 대한 시론”,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은섭, “체언 선행 부사에 대한 관견”, 국어학 61, 국어학회
이재성, “부사절의 시제와 상 결합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정민, “보조사 ‘마저’, ‘조차’의 문법화 연구”,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이정식, “국어 미완절 보충”,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이정식, “선택 부정 반복 동사 부정 극어”,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이정택,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분류 기준과 개념 설정을 중심으로”,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이정택, “주어를 제한하는 “NP+에서” 구성”,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이정훈, “접속의 순서와 구조 그리고 의미 해석”,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이정훈, “중간 투사 범주 X 이동의 가능성”,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이정훈, “통사 구조 형성과 명사구 및 동사구”, 국어학 60, 국어학회
이정훈, “후 보충 구문의 구조와 Ω 그리고 빈칸”, 현대문법연구 64, 현대문법학회
이진병, “‘-게/-도록’에 의한 사동문의 문장 의미 구성”,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이찬규·이성수, “한국어 이차 서술 구문의 의미 변별과 상 구조”,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필영, “‘-었더니’의 통사와 의미”, 어문연구 69, 어문연구학회
이필영, “해암 선생님의 국어 문법론에 대한 고찰”,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해윤, “술어-논항 구조와 수사 관계”,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이향천, “관계에 관하여”,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이호승, “목적성 이동 동사 구문과 복합 서술어”, 어문연구 70, 어문연구학회

임근석, “한국어 연어 연구의 전개와 쟁점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임동훈, “한국어의 문장 유형과 용법”, 국어학 60, 국어학회
임창국, “초점과 통사-음운 접합면”, 현대문법연구 63, 현대문법학회
장기성, “병렬 명사구(NP)의 어순 제약”,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장기성, “빈도수와 어순 제약: 테마와 레마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전재호, “대우 표현의 동서 대조 연구”, 한일언어문화연구 15, 韓·일언어문화연구소
전종섭·이유리, “‘개구리 이야기’ 내러티브 분석을 통한 국어와 영어 사용 아동의 명사 수식절(名詞修飾節) 활용 비교”, 언어와 언어학 5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전종섭·이혜미, “‘개구리 이야기’ 내러티브에 나타난 일반 아동과 정신지체 아동의 국어 동사 사용”,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정유진·강범모, “친족 명사의 공기어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 언어학 19-2, 대한언어학회
조동인, “초점 구조의 통사적 분석”,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조은영·이한민, “반말체 어미 “-게”의 문법화와 의미 변화”,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조현주, “‘이서’의 문법 범주”, 국어학 61, 국어학회
주송희, “한·중 공간 형용사의 대조 방법론적 연구: ‘깊다·얕다/深·淺’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채숙희, “결과의 ‘-라고’와 목적의 ‘-자고’에 대하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채숙희, “목적의 ‘-겠다고’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34-3, 한국학중앙연구원
최규수, “전제와 함축에 기초한 보조 조사의 의미 분석 (2): ‘부터’와 ‘까지’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최기용, “한국어 균열 구문의 ‘것’”, 생성문법연구 21-1, 한국생성문법학회

최웅환, “국어 품사론의 교육적 접근”,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최재희, “학교 문법의 겹문장 체계 기술 방안 연구”, 한글 292, 한글학회
최정애, “동작성 명사 논항의 실현에 대하여: ‘에 대한’, ‘에 의한’ 논항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3, 한중인문학회
하정수, “‘-ㅂ쇼, -ㅂ시고, -(으)십사’에 대하여: 형태 분석과 기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병수, “학교 문법의 피동 표현 연구”, 나랏말씀 26,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한정한, “통사 단위 단어”, 국어학 60, 국어학회
한정한·정희숙, “추측을 나타내는 양태 표현의 문법 제약: 문법적 연어 구성을 중심으로”,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허경행, “‘-을게’와 ‘-을래’의 의미: ‘수용’과 ‘거부’의 관점에서”,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허인순, “한국어와 일본어의 문말 술어 생략 현상에 대한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허철구, “조사 ‘인가’의 문법”,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홍기선, “영어의 결과 구문과 한국어의 “게” 구문”,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홍용철, “제시어에 대한 내포 성분 이동(SubMove) 분석의 문제”, 생성문법연구 21-4, 한국생성문법학회
황화상, “관용어의 문법 범주와 범주 특성: 용언형 관용어의 의미와 통사”,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Ahn, Hee Don·Cho, Sung Eun, “Notes on the Absence of CP Ellipsis in Japanese and Korean: A Reply to Saito (2007)”,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Ahn, Hee Don·Cho, Sung Eun, “Notes on Two Types of Fragments”, 언어연구 28-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Ahn, Hee-Don·Cho, Sungeun, “Notes on Apparent DP Ellipsis: A Reply to Lee & Kim (2010)”,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An, Duk-Ho, “A Note on Wilder’s (2008) Multiple Dominance Analysis of the Right Node Raising Construction”, 언어 36-2, 한

국언어학회
Choe, Hyon Sook, “On the Operator Movement in Korean Comparatives”, 생성문법연구 21-3, 한국생성문법학회
Choi, Ki Yong, “On the Nature of the Dependency between a Numeral and a Classifier”, 언어연구 28-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Choi, Young Sik, “Subject Raising in Korean Redux: Base-generated Left Dislocation”,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Choi, Young Sik, “Two Types of NPIs: Universal vs. Existential”, 언어학 19-1, 대한언어학회
Chung, Dae Ho, “A Constituency-Based Explanation of Syntactic Restrictions on Korean Predicates”, 언어연구 28-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Hong, Soo-Min, “The Status of the Coordinate Structure Constraint”,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Jhang, Se-Eun, “Personal Pronouns and Reflexives in Korean Sign Language”, 언어과학 18-3, 한국언어과학회
Jo, Mi-Jeung, “The Morphosyntax of Prenominal Relative Clause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4, 한국생성문법학회
Joh, Yoon Kyoung, “Lambda Abstraction and Scrambling”, 언어학 19-1, 대한언어학회
Jung, Duk-Ho·Kim, Jeong-Seok, “On the Light Preposition Hypothesis”,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Jung, Yeun-Jin, “Division of Labor in Right Node Raising Constructions”, 언어 36-3, 한국언어학회
Kang, Gi-Cheol, “A Study on Comparison of Refusal Strategies Used in Korean and English”, 인문학연구 41, 숭실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Kim, Byong-Kwon, “Scrambling as a Syntactic Operation”, 언어과학 18-3, 한국언어과학회
Kim, Jeong-Seok, “Depictives in VP Anaphora”, 언어 36-4, 한국언

어학회

Kim, Ji Hye, “An Experimental Syntactic Study of Korean Anaphor Binding: A case study of “caki””,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Kim, Ji Hyon, “Scrambling Effects on Relative Clause Comprehension in Korean”,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Kim, Jong Bok·Sells, Peter, “On the Korean Inferential Cleft Construction”, 현대문법연구 64, 현대문법학회

Kim, Jong-Bok, “Interactions among Aspectual Properties in the -A ISSTA Imperfective Construction”, 어학연구 47-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Kim, Kwang-sup, “On The Peculiarities of Comparative Inversion”,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Kim, Namkil, “The Modality of Apprehension in Korean”,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Kim, Soyoung, “A Developmental Investigation on Syntactic Constraint on Focus Assignment”,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Kim, Sun Woong, “A Note on NP/DP Parameter: Left Branch Extraction in Korean”, 언어연구 28-2,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Kim, Tae Ho, “An Empirical Study of Postposing Constructions in Korean”, 언어연구 28-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Kim, Yong Ha, “A Note on Particle Stacking”, 언어연구 28-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Kwon, Iksoo, “Mental Spaces in the Korean Reportive/Quotative Evidentiality Marker -Ay”,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Kwon, Iksoo, “The Ins and Outs of Non-Opposites Do Not Mean the Same in Korean”, 언어와 언어학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Lee, Chungmin, “Genericity and Topicality: Towards Dynamic Genericity”,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Lee, Hanjung, “Contrastive Focus, Usage Probability and Gradients

in Korean Case Ellipsis",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Lee, Hye-Kyung, "Futurity and Modality in Korean",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Lee, Hyeran, "A Movement Analysis of Control Construction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4, 한국생성문법학회
Lee, Jeong-Shik, "Rethinking Split Question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3, 한국생성문법학회
Lee, Kap Hee, "Parasitic Gaps Revisited", 언어연구 28-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Lee, Woo Seung·Oh, Young Il, "Symmetrically Case-Marked Noun Phrase Coordinations are Not NP Coordinations: Evidence from the Phonetic Experiment", 언어학 19-4, 대한언어학회
Lee, Wooseung, "Zero Realization of Arguments Revisited",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Lee, Yong Hun, "Implementation of Parasitic Gap Constructions in the Korean TCCG System", 현대문법연구 64, 현대문법학회
Lee, Yong Hun, "Reducing Syntactic Ambiguity in the K-TCCG System", 언어학 19-2, 대한언어학회
Oh, Eunjeong, "On Knowledge and Development of English Lexical Causatives by Korean Speakers", 언어정보 13,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ark, Jae-Ick·Park, Kwang Chul, "The Korean Case Marker Allomorphy: Violable Constraints vs. Inviolable Constraints",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Park, Jong Un, "Chain Reduction and Object Control into Infinitival Complement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2, 한국생성문법학회
Park, Jong Un, "On Controlled Subjects in Jussive Complements in Korean", 언어 36-2, 한국언어학회
Park, Myung Kwan, "Case in "ECM" Resultatives", 언어연구 28-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ark, Myung-Sun, "The Encoding of the Active and the Passive

Sentences in Terms of Given-New Approach in Relation to Information Structure",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Shin, Keun Young, "Case Markers and Word Order in Multi-{} Combinatory Categorial Grammar", 언어학 19-2, 대한언어학회

Um, Hong Joon, "Rethinking the Nature of the Null Object in Korean: Focusing on Ahn and Cho (2011)",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Yeo, Seungju, "The Morpheme -Key in Resultatives and Periphrastic Causatives/Passive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1, 한국생성문법학회

Yoon, Jeong-Me, "Double Relativization in Korean: An Explanation Based on the Processing Approach to Island Effects",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Yoon, Jeong-Me, "Wh-island Effects of Wh-in-situ Questions in Korean", 생성문법연구 21-4, 한국생성문법학회

〈기타〉

이병갑, "'사과 한 개'와 '한 개의 사과'",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어휘론 · 의미론 · 화용론

〈단행본〉

고영근, 『텍스트 과학』, 집문당
권기수, 『韓·日兩國語の類義語の對照硏究』, 인문사
김안제 편저, 『오자성어 집해: 한국·중국·일본』, 보성각
김양진, 『우리말 수첩』, 정보와사람
김이석, 『(오류를 바로잡아 주는) 국어 어휘·어법』, 미문사
김한샘, 『한국어 숙어 연구』, 한국문화사
박남일 글·이창섭·윤이나 그림, 『익은말? 익은말!』, 녹색지팡이&프레스
박일환, 『(미주알 고주알) 우리말 속담: 우리말의 숨은 맛과 멋을 찾아 속담 100편과 함께 떠나는 여행!』, 한울
서보건, 『십대를 위한 재미있는 어휘 교과서』, 뜨인돌출판사
서우석, 『시와 산문의 의미장』,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손종영, 『한·일 양 언어의 어휘 대조 연구: 부여어와 일본어를 중심으로』, 박문사
신운철·이경봉·조문택, 『대원 상용 외래어』, 대원대학교
심재기·조항범·문금현·조남호·노명희·이선영, 『국어 어휘론 개설』, 지식과 교양
염시열, 『365 속담으로 놀자』, 나비꿈
오예옥, 『언어 사용에서의 은유와 환유』, 역락
우리누리 글·심심스쿨 그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1: 우리말』, 길벗스쿨
우리누리 글·우연이 그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2: 한자어 외래어』, 길벗스쿨
우리누리 글·홍수진 그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대요 3: 속담』, 길벗스쿨

이경은·최희정, 『4컷 Cartoon 한국어: 의성어·의태어』, 한글파크
이주희, 『내 이름은 왜?: 우리 동식물 이름에 담긴 뜻과 어휘 변천사』, 자연과생태
임종대 편저, 『(우리 선조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한) 한국 고사성어』, 미래문화사
정은균, 『(국문 서사체의) 문체론』, 한국학술정보
정은균, 『(국어와 문학 텍스트의) 문체 연구』, 한국학술정보

〈학위 논문〉

강기수, 〈사복음서의 한중 번역 오류 대조 연구〉,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강민이, 〈한일 TV 드라마에서 나타난 인사 표현 연구: 만남과 헤어짐의 장면을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강범, 〈한·중 '하다' 결합 한자어 의미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강수정, 〈상호 텍스트성을 활용한 그림 동화 읽어 주기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석사)
고뢰, 〈한국어와 중국어의 경어 어휘에 대한 대조적 연구: 접두사 중심으로〉, 대전대 대학원(석사)
고아라, 〈관용 표현의 어휘 의미 확대 양상에 관한 연구: '밥' 포함 속담을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고종렬, 〈평택시 간판어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곽성민, 〈내기담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구혜윤, 〈면담 화법의 질의-응답 전략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권세라, 〈한중 색채어 비교 연구: 오색 계열 색채어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권지영, 〈학습 환경과 숙달도가 요청 화행 생산 및 인식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기봉,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비교 연구〉, 강원대 대학원(석사)
김금희, 〈한국어의 정보 구조와 어순 교육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난영,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기출 어휘 분석에 대한 연구〉, 부경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다영, 〈어휘 형성과 영어 외래어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명화, 〈한·중 12지신 동물 속담 비교 연구〉, 공주대 대학원(석사)
김미월, 〈중국 조선어의 어휘 차용에 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김성화, 〈『서유기』와 한글 번역 텍스트 간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김소희, 〈미국 드라마 『Friends』에 나타난 화행 분석: Searle(1976)의 화행 분류를 근거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송희, 〈한국어 처소 교체 술어의 의미론: 처소 논항의 척도성과 암묵적 서술 구조를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수령, 〈중·한 관용어에 묘사된 12지 동물의 상징 의미 비교 연구〉,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김영, 〈중국 조선족의 코드 변환 연구: 3·4세대의 구어 담화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석사)
김욱, 〈한·중 완곡어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은영, 〈한·일 외래어의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양국의 외래어 정착도에 대해〉, 경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인호, 〈한국어 교육을 위한 요리 동사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김지연, 〈재구성된 신체 이미지를 통한 감정 표현 연구〉, 국민대 대학원(석사)
김지향,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한일 번역에서 나타난 등가 양상에 대한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석사)
김진희, 〈『상례언해』의 어휘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김청룡, 〈한국어 높임법 어휘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김춘연, 〈한국어와 중국어의 호칭어 대비 연구: 친족 호칭어를 중심으로〉, 건국대 대학원(석사)
김하영, 〈언어 학습 환경이 화용 인식에 미치는 영향: 문법 인식과의 비교를 통해〉,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석사)
김현아, 〈요청 화행을 통한 국어의 공손에 대한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현아, 〈한국과 일본 속담의 비교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혜경, 〈한국어 부정 극어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연구〉, 한림대 대학원(석사)
김효선, 〈중의성을 이용한 전략적 언어 사용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나수경, 〈매스 미디어를 활용한 한국어 은유 표현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노은화, 〈한국어 '-었-'과 중국어의 '了'의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노지현, 〈한국어와 일본어의 상적 의미 대조 연구: '-고 있-', '-아 있-'과 '-ている(-teiru)'를 대상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대만빈, 〈현대 한국어 '하다'에 대한 대조적 연구: 특히 '하다'와 중국어 동사를 중심으로〉, 경원대 대학원(석사)
도야, 〈한국어와 중국어 요청 표현 방식의 사용 상황에 대한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도은희, 〈특수 조사 '조차', '까지', '마저'의 담화 정보〉, 단국대 대학원(석사)
도재학, 〈현대 국어 다의어의 대립적 의미 관계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두전하, 〈고유어계 관용구와 한자어계 관용구의 비교 연구〉, 인하대 대학원(석사)
류미란, 〈한·중 여성 묘사 그림씨 대조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류은지, 〈한·중 미각 형용사 의미 확장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류철우, 〈국어 줄인 말 유형 연구〉, 경희대 교육대학원(석사)
마계연, 〈한·중국어 색채어 비교 연구: 형태·의미를 중심으로〉, 강원대 대학원(석사)
문옥영, 〈한국어 진술서에서 책임 회피 시 나타나는 거짓의 언어·심리적 특징〉, 경기대 대학원(석사)
박길석, 〈불전 한글 번역과 용어에 관한 연구〉, 중앙승가대 대학원(박사)
박수정, 〈신문 텍스트에 나타난 주제별 외래어 분석: 사용 양상과 형태 분석을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승애, 〈「くださる」와 「いただく」의 한국어 대응 표현 연구: 화자의 표현 의도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옥화, 〈일본어·한국어·중국어의 한자 접미사에 관한 고찰: 인간 지칭 한자 접미사를 중심으로〉, 숭실대 대학원(석사)
박외숙, 〈일·한 양국어의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유의어의 의미 대조 연구: 「ダケニ」「ダケアッテ」「バカリニ」「만큼」「바람에」「탓으로」〉, 부산대 대학원(석사)
박요셉, 〈한국어 격 정보를 이용한 동사 의미 중의성 해소〉,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위선, 〈한·일 보조 동사의 상적 의미 비교〉, 숭실대학교 대학원(석사)
박정선, 〈구어 및 문어 담화의 내면 구조 연구〉, 울산대 교육대학원(석사)
박향옥, 〈구 차원에서의 단어 번역 전략〉, 세종대 대학원(석사)
박현주, 〈'-겠-'과 반어법의 화용적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박혜진, 〈한·중 동형 한자어의 의미 차이 연구: 부분 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배예연, 〈다문화 가정 아동과 일반 가정 아동의 어휘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백은정,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담화 표지 사용 양상 대조 연구〉, 영남대 대학원(석사)
서유경, 〈한국어 관용 표현의 러시아어 번역 전략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박사)
서은영, 〈말뭉치 기반 한국어 상징어 연구: 통사적 특성을 중심으로〉, 경북대 대학원(석사)
선단단, 〈한·중 신체 관련 관용구에 나타난 다의어 비교 연구: 한국어 '손', '발', '다리'와 중국어 '手', '脚', '腿'를 중심으로〉, 배재대 대학원(석사)
성배배, 〈한·중 인터넷 통신 언어의 비교에 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석사)
손성영, 〈가족 관계에 관한 한·중 속담 대조 연구〉, 조선대 대학원(석사)
손예화, 〈한·중 가열 요리 동사 대조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숙산산, 〈한·중 양국의 외래어 비교 분석〉, 안동대 대학원(석사)
쉬시앙, 〈한·중 전래 동요의 비교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신상범, 〈문화 고유어의 한영 번역 전략〉, 부산대 대학원(석사)
신칠범, 〈국어 감탄사의 담화 표지 기능 연구: 화자의 담화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안옥순, 〈신체 관용어의 정서적 분류: 『훈몽자회』 신체부 어휘를 중심으로〉,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양나영, 〈한중 음식 관련어 개념적 은유 대조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여정남, 〈중한 신체 관용어의 인지 의미론적 연구: '얼굴·마음·머리·눈'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대학원(박사)
오금희, 〈한국어 꽃 이름의 형태·의미 분석〉, 충남대 대학원(석사)
왕설명, 〈한국어와 중국어의 위치 표현 대조 연구: '상·하·위·아래'를 중심으로〉, 세종대 대학원(석사)
왕소단, 〈한국어와 중국어 완곡 표현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왕옥주, 〈중국어 '的'에 대응하는 한국어 표현 연구〉, 인제대 대학원(석사)
왕원원, 〈한·중 이형 동의 한자어에 대한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왕정, 〈한국어 '오다/가다'와 중국어 '來/去'의 대조 분석〉, 연세대 대학원(석사)
왕춘예, 〈한국어 연어의 중국어 대응 양상 연구: 신체어 관련 연어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우염, 〈한국과 연변 지역의 날씨 어휘 {바람, 눈, 비}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유경화, 〈한국어 관용 표현 분석과 목록 선정 연구〉, 배재대 교육대학원(석사)
유단청, 〈한국어와 중국어의 재귀 대명사 대조 연구: 한국어 '자기', '자신'과 중국어 '自己'를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유아려, 〈한·중 여성어에 대한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유연, 〈현대 한국어 경어법 전환의 화용론적 연구: 공손성을 중심으로〉, 서울대 대학원(석사)

육주, 〈한·중 신체어의 의미 확대 연구: 눈, 코, 입, 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윤선옥, 〈일본어「漢語＋する」동사의 한국어 대응 양상 고찰〉,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윤시내, 〈한·일 조리 동사의 의미 대조 연구〉, 동의대 대학원(석사)
윤초희, 〈미용 관련 속담 연구〉, 건양대 대학원(석사)
이민, 〈음식 {맛}과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대조 연구: {달다}와 {쓰다}를 중심으로〉, 상명대 대학원(석사)
이민정, 〈'하다'와 결합하는 선행 명사의 의미 특성〉, 동아대 대학원(석사)
이연니, 〈한-일 신체 어휘 관용어의 비교 연구〉, 선문대 대학원(석사)
이임라, 〈담화 표지 '이제'의 운율적 특징과 화용적 기능〉, 부경대 대학원(석사)
이정하, 〈일·한 양국어의 미각 형용사의 의미 대조 연구〉, 부산대 대학원(석사)
이준형, 〈인지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와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의 색채 표현 비교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이창진, 〈한국어·조선어·영어·중국어·일본어의 광물·암석 용어 비교 연구〉, 충북대 대학원(석사)
이홍염, 〈한·중 맞장구 표현 대조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임병, 〈'개'와 관련된 한중 속담, 성어 대비 연구〉, 숭실대 대학원(석사)
임엘레나, 〈'발'과 관련된 한·러 표현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임여주, 〈한·일 거절 표현의 대조 연구: 화용론적 관점에서〉,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잡려나, 〈현대 한국어 한자어 '別'의 의미와 문법〉, 서울대 대학원(석사)
장령, 〈한·일·중 신체 어휘 비교 연구: 두부 관련 관용 표현을 중심으로〉, 인천대 대학원(석사)
장망, 〈한·중 신체 동작 의태어 비교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장미령, 〈한국어와 중국어의 신체 관련 관용 표현 비교 연구: '손'과 '발' 관련 표현을 중심으로〉, 울산대 대학원(석사)
장용, 〈한국어 '오다/가다'와 중국어 '來/去(lái/qù)'의 비교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장원원, 〈한국어 동사 '놓다'와 '두다'의 비교 연구: 중국어 대응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전경아, 〈대화 주도자의 인기도에 따른 대화 양상 분석 연구: 초등학교 3, 4학년의 친교적 대화를 중심으로〉, 경인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정림, 〈한·중 색채어 대비 연구〉, 숭실대 대학원(석사)
정보희, 〈한일 대학생의 감사·사죄 언어 행동에 관한 연구〉, 전남대 대학원(석사)
정수진, 〈국어 공간어의 의미 확장 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정영심, 〈한·중 상용어 부분 이의어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석사)
정진규, 〈초평면 지명의 의미론적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조동진, 〈인천 지역 교회명 연구: 국어의 어휘·문법적 특징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조순애, 〈중국어 '這/那'와 한국어 '이/그/저/'의 대비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주소영, 〈문화 특수 표현의 개념 및 영한 번역 전략〉,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주요, 〈한국어 담화 표지에 관한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주자우, 〈한·중 신체어의 다의성 대비 연구〉, 서강대 대학원(석사)
진동하, 〈한·중 의성어의 특징 대비 연구: 동물의 소리를 중심으로〉, 전북대 대학원(석사)
진위명, 〈한국 한자 성어의 개념과 범위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진정정, 〈한·중 신체 관용어의 은유 비교 연구: 눈, 입, 귀, 코를 중심으로〉, 경상대 대학원(석사)
채미나, 〈중국어 '자기'의 한국어 대응 양상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채영, 〈한·중 신체어의 다의 대조 연구: '몸통 신체어와 사지 신체어'를 중심으로〉, 국민대 대학원(석사)
최본, 〈속담·사자성어를 활용한 관용 표현 연구〉, 중앙대 교육대학원(석사)

최유리, 〈한국어 담화 화제의 구조 유형과 의미 정보〉, 상명대 대학원(박사)
퉈잉, 〈한·중 양국의 속담의 비교 연구: 빈곤, 부유에 관한 속담을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풍혜월,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의 대조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퓨퓨민, 〈한국어와 미얀마어 분류사의 대비 연구〉, 원광대 대학원(석사)
허정영, 〈한·중 감각 형용사의 공감각적 의미 전이 대조 연구〉, 경희대 대학원(석사)
호결, 〈한국어와 중국어 지시어에 관한 대조 연구: 한국어 '이, 그, 저'와 중국어 '這, 那' 중심으로〉, 한양대 대학원(석사)
호녕녕, 〈한국과 중국의 말(馬) 관련 속담 비교 연구〉, 호서대 대학원(석사)
홍달오, 〈국어 공간어의 시간 개념화 양상 연구〉, 중앙대 대학원(박사)
황단, 〈한국어 '소원'의 뜻을 나타내는 관용 표현과 중국어에서의 대응 형식〉, 숭실대 대학원(석사)
황림화, 〈한·중 동사의 의미 대조 연구: '보다'와 '보다' 복합어를 대상으로〉, 고려대 대학원(박사)
Cui Chao, 〈조건 연결 어미의 의미에 대한 연구: '-으면', '-거든', '-아야'를 중심으로〉, 아주대 대학원(석사)
Liu Qinghua, 〈한국어 보조사의 의미 상관성 연구: '선택', '극단 예시', '강조'의 보조사를 중심으로〉, 아주대 대학원(석사)
Lok Nath Kharel, 〈한국어와 네팔어의 '-에, -에서'에 대한 대조 연구〉, 인제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범모, "의미론에서 "의미"와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과 번역어",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강범모, "형용사와 명사의 의미 운율",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강연임, “개화기 여성 가사의 분포 양상과 텍스트 언어학적 특성”, 인문학연구 83,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강우원, “신문 사설 텍스트의 주제와 주제 전개에 관한 연구”,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강현주, “인터뷰 면접자 담화에 나타난 “상호 작용 활성화” 발화 연구”,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구명숙, “『해조신문』과 『공립신보』의 상호 텍스트성 연구”,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구종남, “‘아무’의 지시적 성격과 출현 형태 및 의미적 해석”,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구현정, “관용 표현의 확장 기제: 신체어 ‘머리’를 중심으로”,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구현정, “구어와 담화: 연구와 활용”,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권순희·문재영·윤보라·허림, “일상 대화의 자기 점검을 위한 분석 기준”,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권순희·석예은·이형주, “TV 홈 쇼핑 화장품 판매에 나타난 쇼 호스트의 구매 설득 말하기 방식”, 세계한국어문학 6, 세계한국어문학회
김건희, “국어 형용사의 다의성에 대한 기초적 논의”,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김겸섭, “미디어의 이중성, 담론과 대화: 빌렘 플루서의 매체 철학”, 인문과학연구 37,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기(氣)’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0,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목(木)’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묘(卯)’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3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심(心)’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언(言)’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찰(察)’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화승(火繩)’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경수, “기초 한자 이야기: ‘황(黃)’에 대하여”, 한글+한자문화 144,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국화, “從『耳談續纂』韓漢諺翻譯反觀諺語翻譯策略”,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김동연·최진숙·안동환, “영한 번역 텍스트에 나타나는 주제 구조 비교”,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김무식, “문헌 성격에 따른 한자어 수용 양상”, 인문학논총 25, 경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상아, “업무 수행 관련 비즈니스 이메일 텍스트의 기능과 구성”, 수행인문학 41-1,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김선화, “언표적 행위 대상 메타 화행의 유형”, 한국언어문화 45, 한국언어문화학회
김수진·차재은·오재혁, “발화 요소와 발화 유형”,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김수현, “남북 사전의 뜻풀이 비교를 통해 본 어휘의 의미 차이 연구”, 국제어문 52, 국제어문학회
김순미, “번역 텍스트와 한국어 원문 텍스트 속의 외래어 사용 비교 연구: 정보 전달 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김신회, “양(quantity), 정도(degree), 가능 세계: 부사 “거의”의 어휘 의미를 중심으로”, 언어와 정보 15-2, 한국언어정보학회
김양진, “국어사전 속의 이두식 한자어 연구”, 어문연구 1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김억조, “결합 관계를 통한 차원 형용사의 의미 연구”, 국제언어문학 23, 국제언어문학회
김억조, “국어 차원 형용사를 포함한 관용 표현의 의미 척도 연구”,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김억조, “대립어 {가볍다/무겁다}의 의미 척도 체계 연구”, 언어과학

연구 57, 언어과학회
김영순·이효은, “사회·문화 교과서 텍스트의 사이버 문화 계열성에 관한 연구”, 언어와 문화 7-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유정, “언어 사용역을 활용한 “죽다”류 유의어 의미 연구”, 인문연구 62,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정남, “보조 용언 “놓다”와 “두다”의 양태적 의미”,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김정남, “한국어 요리 동사의 낱말밭”,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김정우, “영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김준기, “연결 어미 ‘-아서’의 의미 고찰”,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김진호, “문학 작품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김태나, “한국어에서의 불손 실현: Leech(1983, 2002)의 불손 격률”, 언어와 문화 7-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김태훈·박상진, “신어의 정착 연구: 1920-1930년대 대중 잡지에 소개된 신어를 대상으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김평원, “퍼지 논리를 활용한 논증 텍스트 분석 모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김한샘, “교육용 어휘 선정을 위한 단어족 분석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김해연, “국어 담화에서의 ‘-는 것 같다’의 화용적 의미와 상호 작용적 기능”,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김해연, “비판적 담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 “준동(蠢動)하다” 분석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김해연, “코퍼스에서의 어휘 ‘가깝다’의 의미와 용법 분석”,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김해연, “텍스트상에서의 동음이의어: 국어 말뭉치에서의 ‘다리’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김현강·손희연, “외국인 유학생의 텍스트 기반 구두 발표 연구: 문어 텍스트 재구성 양상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7, 이중언어학회

김현강·송재영, “담화 연구를 위한 자료 구축의 문제: 비언어 요소의 담화 기능을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혜령·정유남·황림화, “평행 이동 동사의 낱말밭”,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김혜영, “남성과 여성의 사적 대화에서 발화 특성 연구: 담화 기능 분석을 중심으로”, 언어와 언어학 53,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김혜영·강범모, “신문 사설의 어휘적 특징: 2009년 신문 코퍼스에 기초한 키워드 연구”,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김혜영·이도길·강범모, “사건 명사의 공기어 네트워크 구성과 분석”,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김홍범·이영주, “상징어의 의미 영역 분류 연구 (2): 사람과 관련하여 쓰이는 의태어를 중심으로”,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김흥수, “신동엽 산문의 담화·화용 양상: 문법 관련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김흥수, “신동엽 산문의 언어 특징”, 어문학논총 3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김희경, “한자어의 유형 분류 재고: 한중일 한자어의 대조 언어학적 연구를 위한 고찰”,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나은미, “‘-만큼’과 ‘-처럼’의 의미 특성과 비교·비유 표현”,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나은미, “장르 기반 텍스트, 문법 통합 모형에 대한 연구: 취업 목적 자기 소개서를 대상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남길임, “담화 유형에 따른 한국어 비유창성 현상 연구”,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남명옥, “중국 조선어의 한어 기원 한자어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남미정, “보조사 ‘까지, 마저, 조차’의 발달과 의미 관련성”,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남수경, “‘-어지다’ 의미 고찰에 대한 시론: 유형론적 관점에서”,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노명희, “명(明)·청(淸) 문학에 대한 조선 후기 문인들의 인식: 혼종어(混種語) 형성(形成)과 어종(語種) 제약(制約)”, 대동문화연구 7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노명희, “현대 국어 이종 어휘의 유의적 공존 양상”,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노형남, “비연계 비결속 사회 매체 추종자에 의한 언어 간극(間隙)의 자기 강화”, 언어와 정보사회 1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다바타 미쓰코, “효도 관련 속담의 한일 대조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다카치 토모나리, “다의성 분석의 입장에서 바라본 ‘-겠-’의 의미 구조”,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다키구치게이코·남길임, ““하다” 동사와 “する” 동사의 대응 양상: 동일 한자어 어근 구성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46, 이중언어학회
묘춘매, “한자어와 고유어 혼용 표현의 양상 연구”,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민현식, “갑자 상소문의 텍스트 언어학적 분석 연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갑수, “우리말 우리 문화: 굿 들은 무당, 재 들은 중: 굿”, 한글+한자문화 13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갑수, “우리말 우리 문화: 밥그릇 싸움: 그릇”, 한글+한자문화 14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갑수, “우리말 우리 문화: 쓴나물 데워 내어 달도록 씹어 보세: 나물”, 한글+한자문화 1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갑수, “우리말 우리 문화: 주머닛돈이 쌈짓돈: 주머니”, 한글+한자문화 14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박건숙, “명사 {소리}의 인지 양상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박경옥, “담화 분석을 통해 본 칭찬 화행 교육 방안 연구”, 수행인문학 41-2,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박기선, ““어느”와 “어떤”의 사용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박기성, “영어와 한국어 비교 구문 의미론 연구”,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상호 텍스트성: ‘텍스트 소환 기법’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0,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박동근, “도구 유입에 따른 어휘 의미 변화”,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박상진, “1920-1930년대 대중 잡지의 어휘 소개에 대하여: 현황과 명칭의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박상진, “고유어 단위 명사의 낱말밭”,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박성철, “학술 언어의 이상적 문체에 대한 비판적 일 고찰”,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여성, “기능주의 번역학의 토대를 위한 구상: 보그랑드의 『텍스트과학』을 중심으로”,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박정숙, “순명효황후 언간체의 조형성 고찰”, 한국어정보학 13-2, 한국어정보학회
박정준, “일상의 텍스트에서 보이는 논리 의미 관계”,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박지윤, “온라인 뉴스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 과정: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행위 이론”을 검증 틀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박철우, “화시의 기능과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박혜선, “담화 표지어 ‘좀’ 사용 연구”, 응용언어학 27-1, 한국응용언어학회
박혜인·허경호, “한국형 소통 스타일 하부 차원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대학생 집단을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 한국소통학회
배영준·최호섭·송유화·옥철영, “사전 뜻풀이를 이용한 용언 의미 군집화”, 인지과학 22-3, 한국인지과학회
배희숙·김현기, “『그림 어휘력 검사(PPVT-K)』 어휘 단위에 대한 개념 분포 및 개념 층위 연구”,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백경선, “장애적 담화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담화 유형에 따른 화자 주관성 언어 형태의 분석”,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백수진, “중국 현대 문학 작품의 한국어 번역 문체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범기수, “2010년 영국 총선 3당 당수 TV 토론의 진행 형식 및 내용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 한국소통학회
봉미경, “말뭉치에 나타난 부사 ‘더’와 ‘덜’의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서은아, “신문 광고 어휘의 품사별·어종별 분포 양상”, 한글 294, 한글학회
서종석, “인지 연산 문법의 역동적 원시소: 반반상대성이론에 대한 비판적 숙고”, 언어와 언어학 52,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성승은, “그림책의 고유 명사 번역에 관한 고찰”,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손평호, “‘앞’, ‘뒤’ 연구 (1): 의미와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손혜옥·이수미, “‘영어+하다’류 외래어 형용사의 국어 내 정착 양상 연구: 한자어, 고유어와의 유의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송민호, “개화 계몽 시대 “연설”과 “강연”의 분화와 비정치적 공론장 형성의 배경”, 한국문화 55,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송재목, “‘-으니’와 ‘-더니’, ‘-었더니’의 의미 기능: 접속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송지혜, “‘시원하다’의 통시적 의미 변화 양상 연구”,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신은수, “‘듣다’(落)의 의미에 대한 통시적 고찰”,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신지연, “주제 분석과 텍스트 유형”,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신현숙,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어휘 정보: {냄새}”,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안남일, “소설과 TV 드라마의 서사 구조 비교 연구”, 인문언어 13-2,

국제언어인문학회
안예리, “유의어 분석을 통한 어휘사 연구: 1930년대 대중 종합지『삼천리(三千里)』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안의정·차경희·남길임, “한글 필사본 음식 조리서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어문론총 54, 한국문학언어학회
안정아·남경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일기 텍스트에 나타난 접속 현상 연구: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양명희, “토론 댓글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다음 아고라의 토론 댓글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오현아·박진희, “한국어와 영어의 발상에 대한 비교 인지 언어학적 고찰: 청자 중심 원리와 화자 중심 원리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왕보하, “한·중 이형 동의(異形同義) 관용어의 의미 생성 양상: 완전 이형 동의 관용어를 대상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3, 한중인문학회
왕서령, “조사적 연어의 습득 양상 연구: 조사 ‘-에’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우박, “한·중 빛깔말의 인지 의미론적 대비 연구”, 문창어문논집 48, 문창어문학회
윤석민, “텍스트 언어학과 화용론: 그 상호 접점을 찾아서”,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윤재학, “따옴표 기사 제목과 인용에 대한 인식 차이”, 비교문화연구 2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윤정화, ““어떻게”의 담화 맥락적 분석”, 한국언어문화 45, 한국언어문화학회
이경규·오경순, “일본어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이경숙·신의진·조숙환·주금정, “아스퍼거 장애 아동의 이야기 분석”, 담화와 인지 18-3, 담화·인지언어학회
이광호, “현대어 ‘사과’의 통시적 혼란상과 정착 과정”,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이금희, “통사적 구성에서 어휘화한 부사에 대하여”,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동석, “겹말의 의미와 생성에 대하여”,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이동혁, “결합적 어휘 의미 관계의 독립성과 특성에 대하여”,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이동혁, “어휘 의미 관계의 발현과 규범화에 대하여”,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이동혁,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시작을 알리다: 최지훈, 〈한국어 관용구의 은유·환유 연구〉(혜안, 2010)에 대한 서평”, 한국문화연구 2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이미지, “‘-를 가다’ 구문의 화용적 쓰임과 의미: 장소 명사와 결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이민우, “어휘 의미의 자체 대립 유형 연구”, 어문론집 47, 중앙어문학회
이민우, “한국어 동사 “놓-”의 의미 변화 양상 분석”,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이상정, “한국 한자어의 중국어 번역에 관한 연구: 오역의 유형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론집 48, 중앙어문학회
이선영, “국어의 모순어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이선영, “한국어의 [대립]을 나타내는 표현들에 대한 논의”, 태릉어문연구 17, 서울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선희, “한중 언어 유형적 시각으로 본 형태소 “생(生)”, “생/날”의 의미 비교 분석”, 중국어문논총 50, 중국어문연구회
이성만, “상호 텍스트성과 전문 텍스트 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이성만, “전문(어) 텍스트 언어학의 경향과 과제: 1980년대의 전문(어) 텍스트 연구의 경향을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소현, “문어에 나타나는 “-는데”의 의미 연구”,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이숙의, “토론 프레임의 인지 언어학적 연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이연정, “광고에 나타난 은유 표현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 연구”, 어문연구 1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영경, “중세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그 형태·의미적 특성”, 어문연구 149,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영주, “On the Meaning and Uses of Ajik “Yet, Still””,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이영준, “자동사 파생 과정에서 의미 변화 연구: 한국어와 러시아어 비교”,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이유미, “의사소통과 화용론: 화용론과 의사소통론의 연구 범주를 통한 고찰”,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이윤경·정수영, “한·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스포츠 저널리즘 비교 연구: 김연아 선수와 아사다 마오 선수에 대한 〈네이버〉와 〈야후 재팬〉 뉴스를 중심으로”,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 한국소통학회
이윤선, “『서경별곡(西京別曲)』의 텍스트 언어학적 고찰”,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은주·김영태, “수화 사용 청각 장애 부모 가정 건청 자녀의 인지 심성 동사 의미 구조화 발달”, 담화와 인지 18-2, 담화·인지언어학회
이은희, “시사 토론에서의 말 차례 뺏기 발화의 양상: 토론자 발화 의도를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이정복, “한국어 경어법의 주요 기능”,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이정애, “NSM에 기초한 국어 간투사의 의미 기술”,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이지수·조은영, “‘대상’ 개념에 대한 비판적 일 고찰”,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이진로·임성호·신태섭,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사회적 소통”,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6, 한국소통학회
이철우·이혁화, “공익 광고 언어의 표현 전략으로 본 ‘우리’의 의미”,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이태우, “하버마스, 이데올로기, 의사소통”, 인문과학연구 37, 대구대

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한규, “한국어 담화 표지어 “예”의 의미”, 현대문법연구 65, 현대문법학회
이현희, “한국어 색채 표현의 양상과 그 분류”, 한글 291, 한글학회
이혜용, “의사소통적 특성을 고려한 정표 화행의 유형 분류”,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이호승, “절단어와 혼성어에 관련된 몇 문제”, 개신어문연구 33,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이홍매, “‘말(을/도) 마라’의 의미 화용적 기능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8-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이홍매, “부사 “거의” 의미 연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이홍매, “부사 “적어도”의 한정의 의미 연구”, 국어교육연구 28,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훈종, “민족 생활어 사전(民族生活語辭典): 부엌 세간”, 한글+한자문화 14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희숙, “러·한 관용어에 나타난 여성의 양상”,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임동훈, “담화 화시와 사회적 화시”,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임지룡, “국어 어휘 범주의 기본 층위 탐색 및 의미 특성 연구”,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임지룡, “다의어와 다면어의 변별 기준과 의미 특성”,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임지룡, “민간 모형의 의미 특성”, 한글 294, 한글학회
임채훈, “유의 어휘 관계와 문장 의미 구성”,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장경현, “영한 번역에서 조사와 어미의 의미 표현”,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장규수, “한류의 어원과 사용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9, 한국콘텐츠학회
장민정, “토크 쇼 대화에 나타난 질문-응대의 전략 분석”,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전은진, “후각 형용사의 의미론적 연구”, 국제어문 51, 국제어문학회
전정미, “대화의 회고적 기능에서 살펴본 응답어 ‘네’ 연구”,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전정미, “비동의 화행에 나타난 대화 전략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전혜영, “한국인의 정보(情報)에 대한 개념화 양상”, 언어와 정보사회 1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정경재, “분류사 “자루”가 수량화하는 범주의 변화”,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정병철, “동반 경험 망 모형에 의한 부사 ‘바로’의 체계적 다의성 연구: 대조 언어학을 위한 새로운 접근”,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정병철, “동반 경험 망 모형을 적용한 성서 히브리어의 신체 어휘 번역 방안 고찰”,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정성미, “애도와 치유 언어의 언어적 특징: 박완서 수필 『한 말씀만 하소서』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정수진, “연결 어미 “-고”의 다의적 쓰임에 대한 인지적 해석”,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정수진, “인지 언어학에 기초한 한국어 공간 개념 부사격 조사의 교육 내용 기술 방안 연구: ‘에’, ‘에서’, ‘로’를 중심으로”,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정연주·이영제·이화자, “대상 이동 동사의 낱말밭 연구”, 어문논집 63, 민족어문학회
정연주·최석재·정경미·홍종선, “감정 표현 관용구의 범위 설정”,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정연창·김은일, “영한 번역에 나타난 지시 표현의 변경에 관한 언어유형론 및 문화 심리학적 연구”, 언어과학 18-3, 한국언어과학회
정희창, ““부딪치다”와 “부딪히다”의 표기와 문법”, 대동문화연구 75,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정희창, “수량 표현 ‘한번’, ‘한’의 문법적 해석”, 국어학 61, 국어학회
조숙희·조의연, “한국어 무표형 명사의 단·복수 해석에 대한 화용적

분석”, 언어연구 28-2,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조원형,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 백과〉 문서의 텍스트성”,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조항범, “‘골’, ‘山’, ‘들’에 준거하여 생성된 ‘내[川]’의 명칭에 대하여”,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조항범, “‘장마’ 관련 어휘의 어원과 의미”, 국어학 61, 국어학회
조항범,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에 대하여: ‘명사’를 중심으로”, 개신어문연구 34,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종결, “한국어 “먹다”와 중국어 “吃(chi)”의 의미 확장 비교”, 국어문학 51, 국어문학회
주경희, “면접 담화에서의 대답 방법에 대한 연구: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주진국, “영어와 한국어 시사 용어의 의미 대조 연구”, 번역학연구 12-3, 한국번역학회
진태하, “문자학 특강: 잘못 쓰이고 있는 한자어”, 한글+한자문화 1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차준경, “‘-이’ 파생 명사의 다의 형성”,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채완, “광고의 전략과 언어 표현 기법”,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최금단, “현대 중국어의 삼음사(三音詞)와 현용 한국 삼 음절 한자어의 동형 동소어(同素語) 비교 연구”, 비교문화연구 25,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최상진, “파생 접사 ‘-이’의 의미 성분 분석”, 어문연구 39-4,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최석재·정연주·정경미·홍종선, “구조에서 나타나는 감정 표현 관용구의 의미”,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최숙이·백정민, “설득 화법의 전략 연구: 설득 실패 화법 분석을 통한 전략 제시”,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최윤지, “이접과 양태의 상관관계 고찰: ‘-인가’를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최재웅, “대우어 목록 추출 및 의미 특질 분석: 대명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최준, “경험 동사의 의미적 운율 연구”,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최형강, ““방”과 “집”의 의미와 단어 형성”,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최호철, “국어 발화의 의미에 대하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타이라카오리, “입말에 나타난 “다”의 담화적 기능에 관하여”,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편집실, “민족 생활어 사전: 머리쓰개”, 한글+한자문화 13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하길종, “시조에 나타난 반복 표현의 의미 특성”, 문법교육 15, 한국문법교육학회
하영진, “페터 지마의 사회적 술화와 비판적 대화”, 인문과학연구 37,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머리쓰개”, 한글+한자문화 13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무늬와 도안”, 한글+한자문화 142,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부엌 세간”, 한글+한자문화 14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부엌 세간”, 한글+한자문화 149,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한글+한자문화 141,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한글+한자문화 143,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학회자료, “민족 생활어 사전”, 한글+한자문화 146,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미선, “비속어의 영한 번역 사례 연구: 격식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한국번역학회
한승규·양예슬, “감탄사 ‘어’의 의미와 용법”,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

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한정한·유소영, "'돈' 관련 유의어들의 의미와 결합 정보", 국문학논집 2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허세립·이인순, "한·중 언어 표현의 차이에 대한 고찰", 한중인문학연구 33, 한중인문학회
현영희·남길임, "담화 장르에 따른 삽입 표현의 사용 양상", 한글 292, 한글학회
홍정하, "담화 표지 '-는/-가'와 화자 시점: 코퍼스 언어학적 접근",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홍정하·최재웅·유석훈, "텍스트 수준과 가독성: 한국어 학습 교재를 이용한 검증과 응용",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홍진옥, "A Discourse Approach to Korean Request Strategies: Korean Honorific Forms and Cultural Values",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황림화, "명사 '바닥'의 의미 분석과 의미 관계",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황미정, "최남선역 『ABC 契』의 한자 번역어 고: 신한어의 수용과 창출",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황주원, "한국어 결과 구문의 의미 특성",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Joh, Yoon-kyoung, "A Contextual Variable for the Pluralization Operator",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Kim, Jae-yoon, "Lexical Acquisition in Categorial Grammar", 언어과학 18-4, 한국언어과학회
Kim, Ji Eun, "Pragmatics behind the Usage of -nun", 언어학 19-4, 대한언어학회
Kim, Jong-Bok, "Ambiguities in the Korean -KO ISSTA Imperfective Construction",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Kim, Wonho, "From Semantics to Pragmatics: the Accusative Case in Korean",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Kwak, Eun-Joo, "Contrasted Meanings of Motun and On in Korean",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Lee, Chang-Bong, “A Pragmatic Study of -Ketun Conditionals in Korean”,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Lee, Dong-young, “A Study of Data-based Translation of English Financial News into Korean”, 한국학연구 38,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Na, Ikjoo, “Looking through Through”,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Noh, Eun Ju, “A Pragmatic Approach to Intervention Effect Sentences in Korean: Focus, Presupposition, and Metarepresentation”, 언어연구 28-1,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ark, Hyechong, “L1 Lemma Mediation on L2 Conceptual Representation: Semantic Overgeneralization and Conceptual Fossilization”,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Song, Jae-young, “The Affects of Foreign Languages on the Korean Neologism”,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Tran Thi Van Yen, “한국어 완곡어법의 의미 변화 현상”, 인문논총 23, 서울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Yun, Jiwon, “On the Meaning of wh-(N)-ina and wh-(N)-itun in Korean”, 어학연구 47-2,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기타〉

김무림, “‘땀띠’와 ‘뙤약볕’의 어원”, 새국어생활 21-3, 국립국어원

김무림, “모음 교체와 관련된 어원”, 새국어생활 21-1, 국립국어원

임소영, “‘식물 이름’에 대한 보고서”, 말과 글 128, 한국어문기자협회

정재도, “‘퇴’, ‘툇마루’도 우리말”, 한글새소식 464, 한글학회

국어사 · 국어학사

〈단행본〉

강길운, 『고대사의 비교 언어학적 연구: 독도는 물론 대마도도 우리 땅이다』, 한국문화사
강진호 외, 『'조선어 독본'과 국어 문화』, 제이앤씨
고영근, 『중세 국어의 시상과 서법』, 집문당
고영근·이용·최형용 편역, 『(현대어로 풀어 쓴) 주시경의 국어 문법』, 박이정
고은숙, 『국어 의문법 어미의 역사적 변천』, 한국문화사
고창수, 『신라 향가의 표기 원리』, 한성대학교 출판부
고창수, 『한국어의 역사와 문화』, 지식과교양
구길수 지음, 『(ㄱㄴㄷ…ㅎ의 뜻을 말하는) 천부인: ㅇㅁㅿ의 비밀 (상)』, 참글펴는 가림디
구길수 지음, 『(ㄱㄴㄷ…ㅎ의 뜻을 말하는) 천부인: ㅇㅁㅿ의 비밀 (하)』, 참글펴는 가림디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문헌 자료 총서 2: 구황촬요』(연구 책임자: 서종학), 채륜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 문헌 자료 총서 3: 내훈』(연구 책임자: 이선영·이승희), 채륜
국립중앙박물관 편저, 『금석문 자료 1. 삼국 시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편, 『(조선 왕실의 한글 편지) 숙명신한첩』, 국립청주박물관
김영배 역주, 『(역주) 불설대보부모은중경언해』, 세종대왕기념사업회
김영황, 『고구려의 언어 유산』, 역락
김응모, 『고려 가요의 낱말밭 연구』, 박이정
김주원·유원수·이용성·최문정·최운호·이호영·전순환·권재일, 『(언어

다양성 보존을 위한) 알타이 언어 문서화』, 태학사
나찬연·권영환·김문기·박성호·박영미·오효순, 『중세 국어 문법의 이해. 문제편』, 경진
남미정, 『근대 국어 청자 경어법 연구』, 태학사
노마 히데키 지음·김진아·김기연·박수진 옮김, 『한글의 탄생: 〈문자〉라는 기적』, 돌베개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고대 동아시아의 문자 교류와 소통』, 동북아역사재단
문화체육관광부, 『(한글 고문서를 통해 본 조선 사람들의) 삶: 한글 고문서 자료집』, 문화체육관광부
박은식 편저·최재목·김용구 역주, 『(한글 주해) 왕양명 선생 실기(王陽明先生實記)』, 선인
박종덕, 『한국어 형성과 국어사』, 글모아출판
백두현, 『(한글 편지로 본) 조선 시대 선비의 삶』, 역락
사사야마 저·허재영 해제, 『신안한어간』, 역락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1』, 보고사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2』, 보고사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3』, 보고사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4』, 보고사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5』, 보고사
신지연·최혜진·강연임 엮음, 『개화기 가사 자료집 6』, 보고사
오미영, 『한일 초기 번역 성서의 어학적 연구』, 제이앤씨
유부현, 『(한문 대장경의) 문자 이동 연구』, 한국학술정보
유윤겸·유휴복·조위·의침 편역·임홍빈 역주, 『(역주) 분류두공부시언해 권10』,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윤혜영, 『근대 국어의 인용 구조 연구』, 한국학술정보
이상규, 『한글 고문서 연구』, 경진
이재흥 편역, 『동국정운: 훈민정음의 창제 동기와 의의』, 어문학사
장세경 역주, 『(역주) 논어언해 권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영근·김기종, 『우리말 시가체 언어 연구』, 한국문화사
정광, 『삼국 시대 한반도의 언어 연구: 고구려어의 역사 비교 언어학

적 연구를 중심으로』, 박문사
정승혜·태평무·김영황, 『알타이어 계통 제 언어의 기초 어휘 연구』, 박문사
정주리·시정곤, 『조선 언문 실록: 실록으로 보는 조선 시대 사람들의 한글 사용기』, 고즈윈
정호완 역주, 『(역주) 소학언해 권1·2』,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정호완 역주, 『(역주) 소학언해 권3·4』,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조선 총독부 편·허재영 해제, 『조선어법 급 회화서』,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1』,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2』,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3』,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4』,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5』,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월간 잡지) 조선어 6』,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일제 강점기 일본어(국어) 보급 정책 자료 1』,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일제 강점기 일본어(국어) 보급 정책 자료 2』,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 (상)』,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 (중)』,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조선문 조선어 강의록 (하)』,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엮음, 『조선어문학회보』, 역락
조선어연구회 편·허재영 해제, 『중등학교 조선어 교과서』, 역락
최대희, 『17세기 국어의 이름마디 구조: '-오-'의 소멸과 이름마디 체계의 형성』, 한국학술정보
최명재, 『훈민정음의 숨겨진 진실』, 한글정음사
최문정·신용권·손남호·김윤신·김건숙·김주원·고동호·송재목·권재일, 『알타이 언어 현지 조사 질문지』, 태학사
최석정 저·금지용 해제, 『경세훈민정음도설』, 명문당
최춘태, 『중세 문헌 연구』, 정림사
허대동, 『고조선 문자』, 경진
허준 저·안상우·권오민 역, 『언해 두창집요: 국역』, 보건복지부

허준 저·안상우·박상영·이정화 역, 『언해 구급방: 국역』, 보건복지부
허준 저·안상우·이민호 역, 『언해 태산집요: 국역』, 보건복지부
황재문 외 저·돈암어문학회 엮음, 『국권 침탈 전후 한국 어문학의 형세』, 푸른사상

〈학위 논문〉

강신아, 〈『삼강행실도』의 문자 체계와 표기법: 대영도서관본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봉좌, 〈조선 시대 유교 의례 관련 한글 문헌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김성규, 〈『대한매일신보』 가사 텍스트의 주제 전개 방식 연구〉, 목원대 대학원(석사)
김한결, 〈'{-고져, -과뎌} 하-' 구성에 대한 통시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노해임, 〈한글 문헌에 나타난 한자어 사용 양상 연구: 15세기부터 19세기 변천 과정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
류상, 〈한국 한자음과 중국 한자음의 비교 고찰: 『천자문』의 한자를 중심으로〉, 충북대 대학원(석사)
문현수, 〈석독 구결 용언 부정사의 의미 기능 연구: 한문 부정소와의 대응을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석사)
민지원, 〈17세기 국어 계사문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박미숙, 〈중세 이후 한국 한자음의 변천 양상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박숙종, 〈동형 유의 한자어의 번역에 관한 통시적 기술 분석 연구: 일한 문학 출판 번역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박사)
박진하, 〈"금산사 몽유록"에 대한 언어학적 고찰〉, 숭실대 대학원(석사)
박향옥, 〈『역어유해』의 쇄설류 어휘 연구〉, 인천대 대학원(석사)
방영심, 〈근대 국어 형용사 연구: 어휘 체계와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대학원(박사)
송미영, 〈중세 국어의 표기법과 음운 현상 연구〉,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
송유나, 〈조선 초기 간행 『지장보살본원경』의 서지학적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석사)
안진영, 〈『노걸대언해』·『박통사언해』의 '有'자문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석사)
양언, 〈중세 언해 문헌의 전이어에 대한 연구: 써[以], 다맛/더브러/다려[與], 해여(곰)[使], 또/밋[及]을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오가현, 〈19세기 후기 국어의 표기와 음운 현상: 도교 문헌을 중심으로〉, 동아대 대학원(석사)
왕철, 〈한국어 순간 부사에 관한 역사적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위국봉, 〈한국어 /ㅎ/의 통시 음운론: k/〉/h/의 변화 과정과 관련하여〉, 서강대 대학원(석사)
유효홍, 〈훈민정음 문자의 전환 방식에 대한 연구: 『홍무정운역훈』의 표기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이상훈, 〈중세 국어 양보 부사 연구〉, 서울대 대학원(석사)
이수진, 〈『노걸대』 언해본에 나타난 부사의 통시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이자형, 〈개화기 국어 체언 말 자음의 표기에 관한 연구: 20세기 초 신소설 작품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장혜원, 〈『풍정도감의궤』의 국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전민규, 〈『박문수 실수담』의 텍스트 언어학적 연구〉,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석사)
정성애, 〈국어 부사의 통시론적 고찰〉, 신라대 대학원(석사)
정수현, 〈선어말 어미 '-오-'의 기능과 변천: 명사성의 약화와 그 기능 변화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박사)
정주연, 〈의문 어미 '-ㄴ가', '-ㄴ지'의 통시적 연구〉, 고려대 대학원(석사)
정한나, 〈1910년대 전반기 『매일신보』 문체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조운성, 〈『동국정운』 한자음의 성모와 운모 체계 연구〉, 연세대 대학원(박사)

주해영, 〈『노걸대신석언해』의 번역 양상과 특징〉, 국민대 대학원(석사)
진서화, 〈『이륜행실도』의 번역 양상에 대한 연구〉, 국민대 대학원(석사)
코뱌코바 울리아나, 〈『벽허담관제언록』 연작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박사)
탁현숙, 〈다산 정약용의 서간 연구〉, 조선대 대학원(박사)
한뢰, 〈삼국 시대 부전 가요에 대한 연구〉, 경상대 대학원(석사)
한승주, 〈『금강경삼가해』의 국어학적 연구〉, 공주대 대학원(박사)
한효진, 〈『해사일기』의 표현 특징에 대한 연구: 『해유록』과 『부상록』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허보미, 〈『번역소학』과 『소학언해』의 활용 어미 연구〉, 동아대 대학원(석사)
홍명화, 〈외규장각 의궤류의 서지학적 고찰〉, 숙명여대 대학원(석사)
Erdenetuya, Purevdorj, 〈『몽어유해』의 음운론적 연구〉, 상지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가와사키 케이고, ""어기설"과 중세 한국어 동사 활용", 형태론 13-2, 편집진
강신항, "한국 한자음(15, 16세기 현실음)과 위진 남북조 시대 음과의 비교", 진단학보 112, 진단학회
강진문, "한일 양 언어의 지시어 포함 접속사에 대하여",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고동호, "고려 말의 파찰음과 파찰음화", 한글 292, 한글학회
고명균, "한·일 한자어의 동의 관계 연구: '인어대방(隣語大方, 1882년간)'을 중심으로", 언어와 문화 7-3,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고혜원, "국어 의미론 연구의 동향과 과제: 의미론 연구사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8, 중앙어문학회
권용경, "근대 국어 '-어 가다' 구성에 대하여",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권인한, "『삼국지(三國志)』·위서(魏書)·동이전(東夷傳)의 고유 명사

표기자 분석”,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권화숙, “『월인석보(月印釋譜)』권십팔과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권육, 권칠의 번역에 대한 비교 연구: 의역과 직역 양상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권화숙, “『월인석보(月印釋譜)』와 『법화경언해(法華經諺解)』의 표기법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김동언·로스킹, “20세기 초 러시아 동방학원의 한국어 학습서 『조선어 독학(朝鮮語獨學)』에 대하여”,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김동진, “개화 초창기 한글문화 자강 활동에서 헐버트(1863-1949) 박사의 역할과 업적”, 한국어정보학 13-1, 한국어정보학회
김무림, “고대 국어 차음자 이문 연구”,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김무림, “구결 및 이두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김무봉, “『영험약초언해(靈驗略抄諺解)』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김병건, “서술법 씨끝의 변화 유형 연구: 근대 국어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김선효, “근대 국어의 조사 ‘의’의 분포와 기능: 동일 원문의 언해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론집 46, 중앙어문학회
김성규, “성조에 의한 어미의 분류: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김성수, “『월인천강지곡』 한글 활자 복원을 위한 실험 주조·조판 연구”, 서지학연구 49, 서지학회
김성언, “성장기 학동의 감성 훈련으로서의 대구 학습과 창작”, 석당논총 49,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김성주, “균여 향가 『보개회향가(普皆廻向歌)』의 한 해석”,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김성주,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문헌 연구: 영남대본 『불조력대통재(佛祖歷代通載)』의 서지와 구결”,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김성주·박용식, “좌등본 『화엄문의요결문답(華嚴文義要決問答)』의 자형”, 국제언어문학 24, 국제언어문학회
김소연, “근대 국어 중철 표기의 유형 검토”,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김순배, “하남(河南) 지역의 지명 변천”,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김양진, “(번역)『박통사』(상)의 명사류 난해어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김양진, “『박통사』(상)의 몇몇 난해어들”, 한성어문학 30,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김연주, “규장각 소장 가례 관련 연향의궤(宴享儀軌)의 음식 관련 차자 표기 연구”, 인문연구 63,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영욱, “목간에 보이는 고대 국어 표기법”,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김영욱, “삼국 시대 이두에 대한 기초적 논의”,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김유범, “행실도(行實圖)류의 역주 방법론 연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김윤주, “일제 강점기 『조선어 독본』과 『국어 독본』의 비교: 제1차 교육령기 보통학교 1·2학년 교과서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김인택, “유길준 문법에서 문법 단위와 문장의 종류”, 언어과학 18-1, 한국언어과학회
김정빈, “『침미다례(枕彌多禮)』 고”,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김주필, “고려대학교 소장 『훈민정음』(언해본)의 특징과 의미”, 어문학논총 30,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김주필, “송준길가 한글 편지에 나타나는 구개음화의 양상과 특징: 발신자의 ‘세대’, ‘성’, ‘수신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국어학 61, 국어학회
김주필, “조선 시대 한글 편지의 문어성과 구어성”, 한국학논총 35,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주현, “자료 소개: 『디구셩미리몽』과 그 주석”,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김진, “향가 해독의 방법 연구: 『처용가(處容歌)』를 중심으로”, 국문학보 18,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진식, “법정리 한역 지명 연구 Ⅱ”,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김창진, “한글+한자(漢字)문화 칼럼: 『훈민정음(訓民正音)』으로 살펴본, 세종대왕(世宗大王)이 “훈민정음”을 만든 본뜻”, 한글+한자문화 138,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김형철, “개화기의 천주교, 개신교 관련 자료”,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김효신·송혜정, “중세 국어 의존 명사 ‘ᄃᆞ’의 문법화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김희경, “한자어의 변역 어휘 연구: ‘구급방언해’의 어휘적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나까지마 히로미, “삼국사기 지리지의 백제 지명어 연구”,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남경란, “한국의 문자, 입겾(口訣)”, 민족문화논총 47,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남궁윤, “『천예록(天倪錄)』과 『동패락송(東稗洛誦)』의 국문 번역본 고찰”,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남성우, “『창진방촬요(瘡疹方撮要)』의 동의어 연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남풍현, “고대 한국어의 겸양법 조동사 ‘白/숣’과 ‘內/아’의 발달”,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남풍현, “중고 한국어의 문법 개관”,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리의도, “한글 노래의 변천사”, 국어교육연구 49, 국어교육학회
미즈노 슌페이, “‘구한말 한반도 지형도’ 지명의 자료적 가치에 대하여”,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미즈노 슌페이, “범자의 한글 음사(音寫)에 대한 고찰: 『오대진언(五大眞言)』의 “神妙章句大陀羅尼”와 “佛頂尊勝陀羅尼”를 중심으로”, 국어학 62, 국어학회
박병철,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정음 표기 지명과 한자어 지명의 대립, 변천에 관한 연구: 쇠병라-淵遷·金遷을 중심으로”, 국어학 60, 국어학회
박보라, “목간을 통해 본 고대 국어 문법 체계 연구”, 도솔어문 20, 단

국대학교 어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박부자, “선어말 어미 {삽} 이형태의 분포 변화”,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박부자, “안동 김씨 언간에 나타난 한글 흘림체 이어 쓰기 양상과 문법 단위의 관계에 대한 시론”, 어문연구 39-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박상수, “한국어 부정 요소 “아니하-”와 “아니”의 변화에 대한 통시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58, 언어과학회
박성종, “조선 전기 이두 번역문의 문체와 어휘”,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박성종, “『우마양저염역병치료방(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과 그 이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박용찬, “『두시언해』 초간본과 중간본의 문법적 특징 비교”, 우리말글 53, 우리말글학회
박인애, “한국어 듣기 교육 연구 동향 분석”,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박지연, “문헌별 한약 ‘약명’ 사용 양상 연구: 15-17세기 의약서 언해본 자료를 중심으로”, 어문학 113, 한국어문학회
박진완, “나에시로가와본(苗代川本) 『석음담(惜陰談)』에 대하여: 조선어 학습서로서의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박진호,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문헌 연구: 영남대 소장 구결 자료 『대혜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에 대하여”,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박형우, “18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배영환, “조선 시대 언간의 어휘 성격과 특수 어휘에 대한 고찰: 용언 어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배영환, “중세 국어 후음 ‘ㅇ’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백두현, “19세기 초기 전라 방언 자료 『수운정비회유록(睡雲亭悲懷遺錄)』 연구”, 한국문화 5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서상규, “최 현배의 『우리말본』 둘재매 유인본 연구”, 한글 291, 한글학회
서종학, “이두의 개념과 성격”,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석주연, “조선 시대 의학서 언해류에 나타난 분류사의 종류와 기능”,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성환갑·조재형, “‘-에게’형의 변천 과정에 대한 통시적 고찰: 중세 국어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39-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손성태, “멕이코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언어: 나와들어의 생활 용어를 중심으로”,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손희하, “무술맹하서내신간(戊戌孟夏西內新刊)『천자문(千字文)』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4, 한중인문학회
손희하, “석봉 천자문(石峰千字文) 판본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33, 한중인문학회
손희하, “을사 계동 완산 신간『천자문(千字文)』연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송철의, “일석 이희승 선생의 어문관과 한글 맞춤법”, 애산학보 37, 애산학회
신용권, “『번역 노걸대·박통사』에 나타난 정속음의 개념에 대한 재검토”, 한글 293, 한글학회
신중진, “‘미꾸라지[鰍魚]’의 형태사와 방언 분포”, 국어학 61, 국어학회
신중진, “개화기 신문과 잡지 자료의 국어사적 현황과 분류”,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신지연, “주제 분석에 기여하는 텍스트 요소: 개화기 가사 자료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심보경,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문헌 연구: 동빈문고본『법화영험전(法華靈驗傳)』의 서지와 국어사적 가치”,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안정희, “균여 향가(均如鄕歌)에 사용된 부정의 표현에 대하여”,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양희철, “구결 ‘ ’ 해독의 변증”, 인문과학논집 43, 청주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양희철, “향찰 ‘(-)頓(-)’ 해독의 변증”, 언어학연구 19, 한국중원언어학회
양희철, “향찰 ‘皆’ 해독의 변증”,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여찬영, “『분문온역이해방』의 분석적 연구: 영향 관계 및 번역사적 관점”,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오정란, “『삼강행실도』와 『오륜행실도』 도판 그림의 이야기 전달력 비교”, 인문언어 13-2, 국제언어인문학회
오창명, “『조선 지지 자료』의 제주 지명 (1): 제주군 신좌면(新左面: 조천읍) 지명을 중심으로”,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오현조, “17세기 초기의 표기법 단순화 연구: 방점과 “ㅇ”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원순옥, “『삼역총해』의 어휘 연구”, 우리말글 51, 우리말글학회
유경민, “국한 혼용문 성경의 정착 과정: 『간이 선한문 신약 성서(1913/1936)』를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유경민, “『신약전서(新約全書) 국한문』의 비한자어화 요소 연구”,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유필재, “후기 중세 국어 “거, 아/어”계 어미의 성조와 형태 분석”, 진단학보 111, 진단학회
윤혜영, “‘너기다’류에 나타난 어찌마디 연구: 19세기를 중심으로”, 언어학연구 20, 한국중원언어학회
윤혜영, “조선 시대 윤음 언해본에 나타난 인용 구조 연구”,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윤혜영, “『여사서언해』에 나타난 인용 구조 연구”, 어문학 112, 한국어문학회
이건식, “한국 고유 한자 咊의 시대별 용례와 시원적 의미”, 국문학논집 21,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건식, “『신편집성마의방(新編集成馬醫方)』의 향명(鄕名) 표기(表記) 해독”, 진단학보 113, 진단학회
이경란·정기섭, “유아 다문화 교육 연구 경향 분석: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석·박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17-2, 인하대학교 교육연구소
이광호, “전래 농서에서의 채과류 분류와 명칭의 혼란”,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이광호, “전래 농서의 과수류 분류와 상이 명칭”, 우리말글 51, 우리말

글학회
이광호, “중, 근세 국어 ‘멎/벚/봊’의 혼란상과 의미”,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대로, “한글문화 자강 활동과 한글 독립 투쟁의 발자취: 한글학회의 성립과 발전을 중심으로”, 한국어정보학 13-1, 한국어정보학회
이동석, “‘-도쇠’류 어미의 통시적 변화에 대하여”, 한국학연구 39,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이상돈, “쉽게 풀어본 구지가사(龜旨歌詞)의 해석”, 인문언어 13-1, 국제언어인문학회
이상혁, “북쪽 국어학자의 훈민정음 연구 분석과 학문적 계보”,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이상혁, “북한 조선어학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어학 전서』(2005)와 『언어학 연구 론문 색인 사전』(2006)을 대상으로”, 어문논집 64, 민족어문학회
이승재, “11세기 이두 자료로 본 부점 구결의 기입 시기”,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이승재, “미륵사지 목간에서 찾은 고대어 수사”, 국어학 62, 국어학회
이영경, “중세 국어 온도 표현 어휘의 체계와 그 형태·의미적 특성”,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영경,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언해의 성격에 대하여”, 진단학보 112, 진단학회
이영아, “국어사 자료로서의 ‘개화기 소설’: 개화기 소설 연구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이은규, “『백병구급신방』의 어휘 연구”, 민족문화논총 4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이장희, “고구려어의 속격 조사”,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장희, “고유 명사 표기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이준환, “16세기 후반·17세기 국어 한자음 운모의 대응 양상 및 특징 (1)”,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이준환, “16세기 후반·17세기 국어 한자음 운모의 대응 양상 및 특징

(2)", 대동문화연구 74,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준환, "일본 한자음과의 비교를 통한 /·/의 음가 고찰", 국어학 61, 국어학회
이준환, "향찰 표기자 한자음 연구의 회고와 전망",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이진호, "『진법언해(陣法諺解)』의 표기와 음운",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이현정, "'드위(飜, 搜)-'의 통시적 발달에 대하여", 형태론 13-2, 편집진
이현주, "『완월회맹연』의 이본 현황과 서지적 특징", 어문학 111, 한국어문학회
이현희, "해암의 국어사 연구",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이호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결사의 재구 시론: 『월인석보』 권25 권말 주석 복원을 겸하여", 국어국문학 157, 국어국문학회
이화숙, "한글본 의궤의 어휘적 특징: 『뎡니의궤』와 『ᄌᆞ경뎐진쟉졍례의궤』를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6, 언어과학회
임상석, "조선 총독부 중등 교육용 조선어 급 한문 독본의 조선어 인식: 『신편 고등 조선어 급 한문 독본(新編高等朝鮮語及漢文讀本)』의 번역과 문체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임홍빈, "일석 이희승 선생의 국어학 연구", 애산학보 37, 애산학회
장경준, "고려 시대 점토 구결의 부호에 관한 고바야시 요시노리(小林芳規) 선생의 논고에 대한 검토",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장경준, "석독 구결 자료의 전산 입력 및 교감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장경준, "석독 구결의 번역사적 의의에 대한 시론", 번역학연구 12-4, 한국번역학회
장숙영, "『노걸대』 언해류에 나타난 문장 구조 연구",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장요한, "중세 국어 "마초아"의 용법과 어휘화", 언어와 정보사회 14,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장요한, “중세 국어 접속 어미 ‘-디옷’의 문법에 대하여”, 국어학 61, 국어학회
장윤희, “문자 생활사 관점에서의 “갑자 상소문” 재평가”, 국어교육 134, 한국어교육학회
장윤희, “석독 구결의 속격 “-尸”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결연구 27, 구결학회
전무용, “‘머리’를 뜻하는 고대 한국어 고찰: 몽골어 신명 ‘텡게르’와의 의미 관련성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5,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정승혜, “역학서류의 역주 방법론 연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정영호, “중세 국어 2자 중성 합용자의 음 변화”,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정우영, “한글 불전류(佛典類)의 역주 방법론 연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조규태, “국어사 자료 역주의 원칙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조성문, “국어의 어두 자음군에 대한 최적성 이론의 분석”,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조용림·백낙천, “창원 황씨 한글 간찰의 종결 어미 형태”, 한국어문학연구 56,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조운성, “동국정운의 業모와 欲모”, 구결연구 26, 구결학회
조재수, “일석『국어 대사전』의 특징과 사회적 기여”, 애산학보 37, 애산학회
조재형, “고대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의 “바위”와 관련된 지명의 비교 고찰”,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조항범, “『순천 김씨 묘 출토 간찰(順天金氏墓出土簡札)』의 판독과 주해에 대한 재검토”, 개신어문연구 33, 충북대 개신어문학회
채완, “일석 이희승 선생의 학교 문법 체계”, 애산학보 37, 애산학회
최경봉, “근대 국어 연구의 특수성과 방법론”,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최대희, “18세기 국어의 “-ㅁ(음), -기” 이름마디 연구”,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최미현, “언해 의서류의 역주 방법 연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최영미, “『여씨향약언해』와 『이륜행실도』의 표기법 비교: 중앙과 경상도에서 간행한 문헌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최정은, “고대 국어 파생 부사 결합형 연구”,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최중호, “‘동래’와 ‘기장’의 옛 땅 이름 연구”,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최춘태, “/p/, /m/ 교체의 허실과 향가 執音乎에 대하여”, 우리말글 52, 우리말글학회
풍취아, “신라 고려 시대 서법 자료 집주”, 한국학논집 45,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영균, “『서유견문(西遊見聞)』 문체 연구의 현황과 과제”, 국어학 62, 국어학회
허원욱, “중세 국어 때 매김법의 통어적 결합 제약”,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허재영, “근대 계몽기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향”,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허재영, “근대 계몽기 언문일치의 본질과 국한문체의 유형”,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홍윤표, “김국표 서 『천자문(千字文)』 해제”,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홍윤표, “『증보천자(增補千字)』 해제”, 국어사연구 13, 국어사학회
황국정, “향가의 체언화소 ‘叱(-ㅅ)’의 설정에 대한 재검토”,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황선엽, “영남대학교 동빈문고 소장 문헌 연구: 영남대도서관 동빈문고 소장 표훈사판 『치문경훈(緇門警訓)』의 서지 및 구결”, 민족문화논총 4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황선엽, “차자 표기 자료의 역주에 대하여”, 국어사연구 12, 국어사학회
황은영, “조선 시대 언간 자료의 명칭 고찰”, 정신문화연구 34-2, 한국학중앙연구원
황호덕·이상현, “번역과 정통성, 제국의 언어들과 근대 한국어: 유비·등가·분기, 영한사전의 계보학”, 아세아연구 145, 고려대학교 아세

아문제연구소
후쿠이 레이, “오구라문고(小倉文庫)의 특징에 대하여: 중세어 자료와 대마도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규장각 39,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기타〉

김영환, “한글 만든 원리 “상형” 및 “자방고전”에 대한 비판적 이해”, 한글새소식 462, 한글학회
반재원, “‘자방고전’과 ‘무소조술’에 대한 견해”, 한글새소식 465, 한글학회
이병갑, “불안정한 접속 구조의 유형들”, 말과 글 129, 한국어문기자협회
장영준, “성경에 나타난 주어의 변화에 대하여”, 말과 글 126, 한국어문기자협회
허경무, “서체의 “변화”, “변천”, “발전”이란 표현에 대하여”, 한글새소식 462, 한글학회

사회 언어학

〈단행본〉

(사)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방송 프로그램 언어 건전성 평가 지수 개발 연구』(연구 책임자: 나미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김귀순, 『젠더와 언어: 평화로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녀의 소통 전략』, 한국문화사
김기덕, 『방송 글, 방송 말: 방송 언어의 이론과 실제』, 나남
김미형, 『(국어국문학도의) 대중 매체 언어문화 콘텐츠 창작』, 역락
김정은, 『한국인의 문화 간 의사소통』, 한국문화사
김홍석, 『은어와 우리말의 세계』, 글누림출판사
박윤철, 『영상 자막 번역과 두 줄의 미학』, 한국문화사
임하운, 『韓日の對面言語行動の對照研究: ポライトネスの觀点から』, 인문사
장진한, 『(한국인이면 반드시 알아야 할) 신문 속 언어 지식』, 행담출판

〈학위 논문〉

고재학, 〈신문 보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취재원 인용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의 세종시 수정안 기사를 중심으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석사)
권민정,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유형별 효과 비교 연구: 잡지를 중심으로〉, 중앙대 대학원(석사)
김영, 〈중국 조선족의 코드 변환 연구: 3·4세대의 구어 담화 중심으로〉, 숭실대학교(석사)
김재리, 〈AAC 사용자의 오류 문장 유형이 의사소통 상대자의 태도 및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김주현, 〈대중가요 가사의 정서 표현과 시대적 의미 연구〉, 중앙대

대학원(석사)
김주환, 〈사회적 요구 조사를 통해 본 국어 교과의 정체성〉, 고려대 대학원(박사)
김지혜, 〈한국어 시각 단어 재인에서 음운, 표기, 의미 이웃 크기 효과와 과제에 따른 양상〉, 고려대 대학원(석사)
김창선, 〈영상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연구〉, 가천의과학대 경영대학원(석사)
김학영, 〈TV 영상 자막이 수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연구: 시청자와 제작진의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석사)
김해진, 〈투자자 유형에 따른 주식 격언 속담에 관한 연구〉, 서울과학기술대 산업대학원(석사)
데듀 와나, 〈루마니아어의 공손 표현에 대한 한국어로의 분석 연구〉, 청주대 대학원(석사)
동동, 〈한·중 간판 언어 사용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 진주와 산동 청도의 대학가 간판 비교를 통해〉, 경상대 대학원(석사)
라니아, 〈한국어와 이집트어 호칭어 대조 분석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류가, 〈한국어와 중국어 어휘 높임법 비교 연구〉, 배재대 대학원(석사)
박수현,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 사용의 연구: 한국 화교 언어를 중심으로〉, 영남대 대학원(석사)
박주영, 〈일·한 경어 사용 실태 연구: 오용 표현 분석을 통하여〉, 명지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주현, 〈영상 매체에 구현되는 한글 가독성에 관한 연구: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영남대 교육대학원(석사)
방재홍, 〈신문 읽기 경험이 뉴스 매체 평가에 미치는 영향 연구: 대학생들의 뉴스 이용 행태를 중심으로〉, 고려대 언론대학원(석사)
백경은, 〈비음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령, 성별, 모음 환경, 문장 길이를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서인숙, 〈간판 언어 실태 분석을 통한 초등학교 학생의 언어 순화 방안〉,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손도영, 〈설득 담화로서의 텔레비전 공익 광고 텍스트 연구〉, 국민대

교육대학원(석사)
신준수, 〈띄어쓰기 및 철자 오류에 강건한 한국어 상품평의 감정 분류〉, 강원대 대학원(석사)
안미린, 〈조서의 하향형 설득 전략에 대한 연구〉,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안지혜, 〈학문적 텍스트 서론의 장르 분석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와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 자료를 기반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안태형, 〈인터넷 토론 댓글의 표현 전략 연구〉, 동아대 대학원(박사)
오성애, 〈중국 청도의 조선족 언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인하대 대학원(박사)
왕봉정, 〈한·중 화장품 TV 광고 언어의 수사법 비교 연구〉, 호서대 대학원(석사)
윤경원, 〈한국어 혼잣말의 의사소통적 특성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은선, 〈전주 지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전북대 대학원(석사)
이재경, 〈한·중 신조어 비교 연구: 사회 현상을 통해 본 한·중 신조어 발생 배경과 신조어 조어 과정 분석〉, 한중대 대학원(석사)
이주형, 〈댓글에 나타난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연구〉, 한국교원대 대학원(석사)
이현호, 〈한국 수화와 중국 수화 비교 연구: 기호 구성 방법 중심으로〉,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임진아, 〈『한글』지 소재 방언 연구〉, 경남대 대학원(석사)
장승혜, 〈어두 경음화 현상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 연세대 대학원(석사)
장현주, 〈일한 번역에 있어서 번역사의 번역 방식 비교 분석: 일본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부산외국어대 통역번역대학원(석사)
장혜연, 〈인쇄 매체 공익 광고의 국어학적 연구〉, 충남대 대학원(석사)
정민희, 〈디지털 글쓰기의 상호 작용성 연구: 디시인사이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남대 대학원(석사)
최지영, 〈중학생과 대학생의 통신 언어 사용 양상 비교: 전자 게시판 언어를 중심으로〉, 고려대 교육대학원(석사)
판디, 〈중·한 인터넷 통신 언어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석사)

한경섭, 〈인천 지역 상호명의 사회 언어학적 고찰: 음식점을 중심으로〉, 인하대 교육대학원(석사)
한아름, 〈정치 담화에서의 한일 스피치 스타일 분석〉, 가톨릭대 대학원(석사)
한은주, 〈공익 광고 언어의 화행 양상〉,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함승은, 〈광고 언어의 기호학적 분석: 러시아어와 한국어 광고 텍스트의 대조〉, 고려대 대학원(석사)
홍미주, 〈대구 지역어의 음운 변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경북대 대학원(박사)
Wu Xiao, 〈한국어와 중국어의 거절 화행 전략 비교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용택, "닉네임의 언어 특징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강현석, "해요체-합쇼체의 변이에 대한 계량 사회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강희숙,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와 언어문화의 질 제고 방안", KBS 한국어연구논문 61,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KBS 한국어연구회
강희숙·양명희, "청소년의 욕설 사용의 심리적 기제 및 순화 방안", 한국언어문학 79, 한국언어문학회
곽재용, "땅 이름 '지리산' 고찰", 지명학 17, 한국지명학회
곽충구, "해암 선생의 방언 조사·연구", 선청어문 39,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권두현, "구술과 기술 변증법으로서의 한국 극예술: 극예술을 통한 언어 체험의 현상학적 접근",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권영수, "성별의 언어적 구조",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김명광, "초등학교 6학년의 접사 "-기"의 사용 실태: 일기문 말뭉치를 중심으로",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김미형, "인쇄 공익 광고와 TV 방송 공익 광고의 구문 특성 분석", 한

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김병홍, “신문 칼럼 글쓰기의 유형 분석: 논증 구조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김병홍, “신문의 언어문화에 대하여”, 동남어문논집 32, 동남어문학회
김수정, “한·일 신체 언어 비교 연구: 손짓 언어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순자, “통신 언어에 나타난 말줄임표의 의미와 기능”,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김언조, “거절 방법의 의미 전략적 차이”,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김원회, “문화 간 의사소통 전략과 언어의 역사성”,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김인택, “통신 별명의 사회·문화론적 특성”, 한민족어문학 59, 한민족어문학회
김일환·정유진, “공기어 네트워크와 사회 계층에 대한 관심의 트렌드”,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김정선·이필영·김태경·이삼형·장경희·전은진, “청소년 입말에 나타난 비속어·유행어·은어 사용 실태”, 한국언어문학 77, 한국언어문학회
김정우, “방송 광고의 상호 텍스트성 활용 양상: 패러디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김정우, “시대 변화에 따른 라디오 광고 언어의 전략과 표현 양상 비교 연구: 초창기 라디오 광고와 2008-2009년도 라디오 광고를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김정태, “고유어 인명의 명명 특징”, 인문학연구 85,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김주관, “귀신 말 또는 한국어의 피그 라틴(Pig Latin)”, 비교문화연구 17-1,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김한샘, “방송 언어의 공공성 진단 기준”,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김혜영·하승완, “사적 대화에서 성별에 따른 의문형 발화 분석”,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김혜정, “가족 간 전화 대화의 구조적 양상 분석: 대학생 자녀와 부모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김희숙, “한국어 ‘스토리텔링’을 위한 하나의 제언”, 한국어와 문화 9,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어문화연구소
남기현·원성옥·허일, “한국 수화 내러티브 속에 나타난 구성된 행위 분석”, 언어연구 26-4, 한국현대언어학회
문영자, “한국어 어휘의 의미와 그 사용 실태”, 우리어문연구 39, 우리어문학회
박경희, “뉴스 전달 속도가 수용자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 연구”, 화법연구 19, 한국화법학회
박석진, “한국어 성별 언어의 개념에 대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4,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박재현·이관희, “어휘 능력의 성별·세대별 차이 연구”,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박재현·이관희·김승현, “공공 언어에 대한 요건별·장르별 만족도”,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서민정, “‘글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문화 반영: 『훈민정음』(1446)과 『글자의 혁명』(1947)을 바탕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서수현, “대학생의 보고서에 대한 동료 반응과 그 수용 양상”,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서은아, “방송 언어의 공공성 기준에 관한 연구”, 겨레어문학 47, 겨레어문학회
서종훈, “글말과 입말 수행에 대한 사례 연구: “쉼”과 “문장”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41, 국어교육학회
손승민, “증권 상담의 비언어적 표현 전략”,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송지혜, “문화재 안내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대구광역시 소재 지정 문화재 안내문을 대상으로”,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송희복, “아동 문학 평론가 이오덕의 우리말 의식에 관한 연구”, 어문학교육 42, 한국어문교육학회
신경민·하예림, “대중가요의 외래어 사용 양상 분석”, 나랏말씀 26, 대

구대학교 국어교육과
심영덕, “스토리텔링의 구성과 광고의 서사 전략”,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아라이 야스히로, “휴대 전화에 있어서의 행위 선택의 한일 대조 연구”,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안정근, “Cross-Cultural Variations of Apology Realization in Korean”,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안태형, “인터넷 토론 댓글의 방어 전략과 전략 선택 요인”,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양영하, “신문 언어의 공공성 척도와 사례 분석”,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오명기, “영어와 국어 2인칭 대명사의 화용적, 사회 언어학적 용법”, 현대문법연구 66, 현대문법학회
오미형, “한국 영화 제목의 효과적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학연구 19-2,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오새내, “사회 언어학의 이론으로 본 지역 인구 변동과 지역어 변화의 관련성”,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오새내, “사회 언어학적 맥락으로 본 방송 언어”, 한국어학 51, 한국어학회
유경애, “수신자 관점에서 본 한국 브랜드 슬로건의 언어학적 분석”,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유원호·채서영, “타이틀과 호칭어로 쓰이는 직업명: 일곱 개 언어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분석”,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유현아, “한·중 친족 호칭 “형수”와 “제수”에 대한 통시적 비교”, 비교문화연구 23,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이상린,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신문의 보도 양상 연구”, 새국어교육 89, 한국국어교육학회
이성범, “의사소통 행위로서 TV 방송 자막의 언어학적 고찰”, 언어와 정보사회 15,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이승왕·이병운, “초등학생의 비속어 사용 양상과 인식 실태 연구”, 한

국초등국어교육 45,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이시훈·박란희, “텔레마케터와 쇼 호스트의 목소리 분석 연구”,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 한국소통학회
이영제·김흥규·강범모,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명사의 사용 양상과 네트워크 분석”, 한국어의미학 34, 한국어의미학회
이유기, “반말의 성격과 청자 대우 체계의 실상”,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이유미, “설득 의사소통에 대한 인지적 분석: 프레임 변화를 이끄는 설득적 요소 분석”, 어문연구 15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 실태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와 사회 언어학: ‘한다요체’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이정복, “트위터 누리꾼들의 호칭어 사용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접근”, 어문학 114, 한국어문학회
이정복, “트위터의 소통 구조와 통신 언어 영역”, 인문과학연구 37,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준환, “방송 자막 언어의 특징과 관련 요인: 프로그램 종류에 따른 특징을 중심으로”, 어문연구 39-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지수·조은영·정은진, “군내 용어 순화를 위한 외래어 연구”, 한국군사학논집 67-1, 육군사관학교
이진성, “TV 화장품 광고에 반영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언어 태도의 차이”,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이찬규·이유미, “한·미 이중 발화 인식 양상 비교 연구”,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이찬규·황희선, “한국어 이중 발화 인식 양상 연구”, 어문론집 48, 중앙어문학회
장소원, “뉴스와 오락 프로그램의 진행자로서의 아나운서의 바른 언어 사용을 위한 제언”, KBS한국어연구논문 61, 한국방송공사 아나운서실 KBS 한국어연구회
정동훈·이은지, “대학생 시청자 성별과 이들이 인지하는 앵커의 성 역

할에 따른 언어·비언어 커뮤니케이션, 의사 인간관계 그리고 공신력 차이 분석",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15, 한국소통학회
정민영, "용촌리(龍村里)의 지명",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조경하·손달임, "게임 금칙어의 언어학적 연구: 변형형의 생성과 유형 분류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연구 20,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조국현, "정치인 팬 커뮤니티 분석: "박사모"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1, 한국텍스트언어학회
조태린, "부부 간 호칭어 및 높임법 사용의 양성 불평등 측면",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주명애, "유교 문화와 한국어", 한중인문학연구 32, 한중인문학회
지은희, "국어 교육에서 "구어, 문어"와 "구어성, 문어성"의 구분 문제", 한국언어문화 44, 한국언어문화학회
채완, "TV 광고 언어의 통합적 해석", 한국어의미학 36, 한국어의미학회
최진숙, "학자 그룹 인터넷 언어에 나타난 특성 분석",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하지완·심현섭, "어휘 인출과 구어 동반 제스처의 관계", 인지과학 22-2, 한국인지과학회
한명숙, "대학생들의 어두 경음화 실현 및 인지 양상 연구", 겨레어문학 46, 겨레어문학회
한성일,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회 언어학적 접근: 지역 브랜드 슬로건과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허상희, "의사소통 도구로서의 트위터(Twitter)의 특징과 소통 구조에 관한 고찰", 우리말연구 28, 우리말학회
허재영, "경멸적 평가어로서의 비속어 형성 과정과 요인 연구",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허재영, "복합어 구성 형태소의 결합 순서 변화에 대한 사회 언어학적 연구", 사회언어학 19-2, 한국사회언어학회
홍민표, "한일 경어법의 대조 사회 언어학적 고찰", 사회언어학 19-1, 한국사회언어학회
Oh, Hyeon-ah, "A Study on the Important Values of Contemporary

Korean Human Relations in TV Commercials", 한국언어문화학 8-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기타〉

김슬옹, "방송 언어의 역기능 문제에 대한 소통과 비평 관점의 해결 전략", 나라사랑 120, 외솔회
김혜정, "외래어 수용에 따른 의사소통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이정복, "통신 언어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임칠성·이창덕, "언어 예절 인식 변화와 언어 갈등 해결 방식 탐색", 나라사랑 120, 외솔회
조태린,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방언학

〈단행본〉

강영봉, 『제주 표선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고재환, 『제주어 개론 (상)』, 보고사
고재환, 『제주어 개론 (하)』, 보고사
곽충구, 『중앙아시아 이주 한민족의 언어와 생활: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태학사
국립국어원, 『2011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김봉국),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한성우),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김정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김무식),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이기갑),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강영봉),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연구 책임자: 박경례),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중국 무주촌 편』(연구 책임자: 소강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경북 의성 지역어』(연구 책임자: 최명옥),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1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

구 책임자: 한영목),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2011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연구 책임자: 박경래),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연구 책임자: 임영철),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1: 해초류』(연구 책임자: 강정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2: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연구 책임자: 강정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3: 자염』(연구 책임자: 강정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4: 돌살, 김 양식』(연구 책임자: 강정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5: 어촌 생활 어기초 어휘 조사』(연구 책임자: 강정희), 국립국어원·한남대학교
김공칠,『제주 방언 통사론: 비교 통사론』, 백산출판
김무식,『경북 고령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김봉국,『강원 홍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김성재,『방언 속에 내 고향이 있었네』, 박이정
김정대,『경남 산청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박경래,『충북 충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소강춘,『전북 군산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송상조,『제주 말에서 때 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이기갑,『전남 영광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이태영,『전라북도 방언 연구』, 역락
최명옥,『경기 파주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편,『경상남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한국문화원연합회 경상남도지회
한성우,『강화 토박이말 연구』, 인천학연구원
한영목,『충남 서천 지역의 언어와 생활』, 태학사
황대화,『1960년대 육진 방언 연구: 자료편』, 역락

〈학위 논문〉

김순자, 〈제주도 방언의 언어 지리학적 연구〉, 제주대 대학원(박사)
노문희, 〈이문구 소설의 세계관과 충남 방언 연구〉, 공주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순형, 〈실험 음성학적 방법에 의한 경남 방언의 성조 변화 연구〉, 한양대 대학원(석사)
안희은, 〈언어 인식 능력 신장을 위한 지역 방언 교육 방안 연구〉, 서강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애, 〈교동 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인하대 대학원(석사)
정영신, 〈전북 방언의 모음 조화 연구: 형태소 경계 사이를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석사)
천홍희,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 방언 연구: 연길 지역 방언의 어휘를 중심으로〉, 선문대 대학원(석사)
최화, 〈중국 연변 지역어 격 조사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박사)

〈일반 논문〉

강석한, “제주 방언 단음절 명사의 음성학적 액센트 유형과 중세 국어 성조와의 관계”, 영주어문 22, 영주어문학회
강석한·원종섭·김원보, “초점과 주제의 음성/음운론적 분석을 통한 제주 방언의 분화 연구”, 언어학연구 21, 한국중원언어학회
강영봉, “지역어와 지역 문학”,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강정희,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 방안: 제주 방언 연구의 생태 언어학적 가치”,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강흥구, “남부 지역 방언의 운율 체계 비교 연구”, 어문연구 68, 어문연구학회
강희숙, “전남 방언 담화 표지 고찰: 종결 담화 표지를 중심으로”,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곽충구, “일제 강점기의 방언 의식과 작품 속의 북부 방언”,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기무식, “대구 경북 지역어 연구 양상과 대구 문화”, 어문론총 55, 한국문학언어학회
김봉국, “강릉 말의 보존 과제”, 어문학교육 43, 한국어문교육학회
김봉국, “강원 방언과 강원 문학: 문학 작품 속의 강원 방언의 특징”,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김봉국, “경남·전남 접경 지역어의 음운”, 동남어문논집 31, 동남어문학회
김봉국, “부산의 지역어와 언어 문화”, 석당논총 50, 동아대학교 석당전통문화연구원
김세중,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 방안: 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발전을 위한 제주어 육성 정책의 진단과 향후 과제”,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김세진, “창원 방언 성조 체계에서 중고 한음 평성의 반영”, 한글 293, 한글학회
김순자, “제주어의 가치와 보전 방안: 제주어의 보전과 활용 방안”, 제주도연구 36, 제주학회
김영선, “방언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김정우, “지역어와 콘텐츠”, 우리어문연구 41, 우리어문학회
김차균, “진주 방언에서 된소리로 시작되는 상성형 낱말의 거성형화”, 한글 294, 한글학회
문순덕, “제주 구비 문학에 나타난 제주 방언의 문법 연구”,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박경래, “충청도 방언과 충청도 문학: 정지용의 『향수』에 쓰인 충청도 방언을 중심으로”,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박숙희, “경남 방언 외래어의 성조형”, 한글 291, 한글학회
박종덕, “안동 지역어의 단모음 체계 변화와 언어 외적 변인의 상관성 연구”, 국제어문 52, 국제어문학회
박지윤, “경북 방언 “인자”의 담화 표지 실현 양상: 중부 방언 “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18, 한국화법학회
백은아, “전주 방언의 “ㄹ” 말음 어간과 “으”의 수의적 실현”, 국어문학 50, 국어문학회

성진영, “동남 방언의 확인 의문문에 대하여”, 경상어문 17,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경상어문학회 편
오종갑, “국어 방언에 반영된 어두 경음화”,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이근열·김인택, “부산 방언의 문화 콘텐츠론”,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이기갑, “서남 방언의 대명사 ‘그놈’과 ‘그것’의 담화 문법”, 담화와 인지 18-1, 담화·인지언어학회
이문규, “경남북 접경 지역 방언의 성조 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이문규, “국어 방언 성조의 성격과 성조 체계 기술의 기본 단위”, 국어학 60, 국어학회
이옥희, “『칠대만법(七大萬法)』에 실현된 16세기 후기 동남 방언의 표기 및 음운적 특징”,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이태영, “전라 방언 ‘꾀벗다’의 방언사적 연구”,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이태영, “전라 방언 ‘솔찮다’의 어휘사”, 한국언어문학 78, 한국언어문학회
이토다카요시, “청년층 동남 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임규홍, “경상 방언 담화 표지 “마”에 대한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정성경, “전남 완도 약산면의 친족어 연구”, 배달말 49, 배달말학회
정희선, “방언의 상대 대우법 연구”, 경상어문 17,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경상어문학회 편
차윤정, “언어 권리와 로컬의 주체 형성: 제주 로컬어 부흥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족문화 40,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차윤정, “지역어에 대한 인식과 언어 주체 형성: ‘탯말두레’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29, 우리말학회
최유준, “대중음악과 호남 사투리의 감성 정치”, 호남문화연구 49,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최진숙·조숙정, “서평『한국의 언어 민속지: 전라남북도 편』, 왕한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년", 한국문화인류학 44-3, 한국문화인류학회
최화, "중국 연변 지역어 주격 조사의 식별에 관한 연구", 배달말 48, 배달말학회
한성우, "서울·경기 방언과 현대 문학",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허춘, "제주 방송의 우리말 사용 실태 검토", 영주어문 21, 영주어문학회
홍기옥, "경남 남해군 어촌 지역 생활 어휘 연구: 행위자 및 환경 관련 어휘를 중심으로", 한민족어문학 58, 한민족어문학회
황국정, "경주 지역어의 대상성 "-로" 구문에 관한 연구: 조사 "-로"와 "-을"이 기원적으로 이형태 관계였을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Han, Kyung Im, "Acoustic Cues for the Korean Stop Consonants Produced by Jeju Speakers", 언어과학연구 57, 언어과학회
Kim, Hyun-ju,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Onset-Sensitive Accentuation of Novel Words in North Kyungsang Korean",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2, 한국음운론학회
Lee, Dongmyung, "Tones in the Phrases of South Kyungsang Korean", 음성·음운·형태론연구 17-1, 한국음운론학회
Sohn, Hyang-Sook, "Pitch Accent Realization in North Kyungsang Korean: Tonal Alignment as a Function of Nasal Position in Syllables", 말소리와 음성과학 3-2, 한국음성학회
Stonham, John, "Merger of Vowels in Cheju Korean: Methodological Implications for Doing Fieldwork on Endangered Languages", 언어학 19-1, 대한언어학회

국어 정보학 · 사전학

〈단행본〉

甘瑞瑗·崔宇錫·具文奎·高点福·金鐘碩·宋珉庸·林泰顯·安炳三·黃信愛·尹銀廷·魏慧萍·孫艷·鄭林嘯·李麗·察慧淸 編, 『漢韓學習詞典』, 北京大學出版社

강범모, 『언어, 컴퓨터, 코퍼스 언어학』,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혜근·강택구·유일환·한학중 편저, 『한자 동의어 사전』, 궁미디어

국립국어원, 『2011 한글 문화유산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연구 책임자: 최순일),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통 지원 체계 구축: 최종 보고서』(연구 책임자: 김만흥),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용자 설명서』(연구 책임자: 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국어사전 비표준 문자 표준화 자료 구축 결과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최종 보고서』(연구 책임자: 강락근),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한국어 기초 사전: 사용자 설명서』(연구 책임자: 강미영),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AMH, 『2011 디지털 한글 박물관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특별 기획전 개발 사업: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연구 책임자: 윤성욱), 국립국어원·AMH

국립국어원·AMH, 『2011 디지털 한글 박물관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특별 기획전 개발 사업』(연구 책임자: 윤성욱), 국립국어원·AMH

남지순·프리한토로·박상택·야신프레쥬 외, 『(한국어 학습자용) 한국어 명사 대역사전: 한국어·인도네시아어·몽골어·아랍어』,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도원영·박주원 편,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 지식과교양
동아시아역사연구소 편, 『경기도 역사 지명 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마영태, 『영어-한국어-에스페란토 사전』, 명지출판사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국어 말뭉치 분석 및 사전 활용』,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
미래형 한글 문자판 표준 포럼 한글 확장 자판 표준화 위원회 편, 『한글 세계화와 한글 확장: 한글 확장 자판 표준화 위원회의 2011년 연구 성과 총람』, 미래형 한글문자판 표준포럼
박호석 편저, 『(불교에서 유래한) 상용어 지명 사전』, 불광출판사
세비스천 레이싱어 지음·박명관·김선웅·김유희 옮김, 『언어학자를 위한 통계 분석 입문: 언어학 연구 방법론』, 한국문화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한글글꼴개발연구원, 『한글 글꼴 용어 사전』,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송기한·김교식·박태옥, 『한국 개화기 시가 사전』, 국학자료원
송세진, 『비즈니스 글쓰기 상식 사전』, 길벗
송정남·박연관·이강우 엮음,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윤상기,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 하브솜
이경현·응웬 쑤언 튀 링·부 티 번 아잉·응웬 티 띵, 『비즈니스 용어 사전: 한국어-베트남어, 베트남어-한국어』, 밀앤빌파트너즈
임형재 편저, 『(중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전희정, 『(5개 국어 한영프중일로 보는) 한국 음식 용어 사전』, 교문사
정영림 편저, 『한국어-인도네시아어 사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조기형·이상억 엮음, 『한자 성어·고사 명언구 대사전 23,000어』, 한국학술정보
최고야 엮음, 『(중약대사전·중화본초) 한글 색인집』, 한국학술정보
최운호, 『알타이 언어 텍스트 자료의 분석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실제』, 태학사

하영휘·전송열·이대형·임재완·제송희·윤성훈·박형우 편저, 『옛 편지 낱말 사전: 선인들의 간찰 읽기』, 돌베개
현평효·강영봉 편저, 『제주어 조사·어미 사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학위 논문〉

강찬미,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활용 및 구축 방안 연구〉, 연세대 대학원(석사)
김경은, 〈한국어 학습 사전의 화용 정보 기술 연구〉,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김보겸, 〈형태소 품사 부착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Two-level 어휘 사전 자동 구축〉,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김태권, 〈안드로이드 OS 기반 한국어 TTS 서비스의 설계 및 구현〉, 원광대 대학원(석사)
맹지은,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 사전 개발 연구〉, 한양대 교육대학원(석사)
민승기, 〈한국어 명사 어절의 처리 과정〉, 영남대 대학원(박사)
박노순, 〈한·중·영 모국어 화자의 발화에 나타난 한자 사용량에 관한 고찰: KY코퍼스를 활용하여〉, 계명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성해, 〈웹 기반 이야기 창작 교수·학습 자료의 설계와 활용 방안〉, 대구교육대 교육대학원(석사)
박에스더, 〈한국어 패러프레이즈 추출을 위한 피봇 가중치 접근〉, 고려대 대학원(석사)
박종호, 〈온톨로지(Ontology) 기반 한국어 동사 의미망 구축 방법 연구〉, 청주대 대학원(박사)
박혜림, 〈영한 번역에 나타난 영어의 명사 중심 성격과 한국어의 동사 중심 성격에 관한 연구〉, 부경대 대학원(석사)
배상준, 〈한국어 위키피디아와 분류 기술을 이용한 개체명 자동 추출 및 중요도 측정〉, 동아대 대학원(석사)
배지연, 〈한영 기계 번역의 격 실현 연구〉, 세종대 대학원(박사)
백수연, 〈음절 기반 인식 단위를 사용한 한국어 연속 숫자 음 인식〉,

고려대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석사)
신중길, 〈복수개 분류기 합성을 통한 한국어 문서에서의 개체명 자동 인식〉, 서울대 대학원(석사)
심승혜, 〈온라인 질의문의 질의 초점 자동 인식을 위한 어휘·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안동미, 〈한·일 기계 번역 시스템의 문제점에 관한 고찰: 전문 번역가의 번역문과 대조 분석을 통해서〉, 순천대 대학원(석사)
안애림, 〈한국어 오피니언 문장 분류 시스템을 위한 사전 및 구문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석사)
안찬민, 〈질의응답 시스템에서 의미적인 퍼지 포함 정도를 사용한 탐색적 지식 추천〉, 인하대 대학원(박사)
원애련, 〈『조선어문』과 『국어』 읽기 텍스트 어휘의 계량 비교 연구: 중학교 1학년 상권을 중심으로〉, 전남대 대학원(석사)
유종헌, 〈오규원 초·중기 시의 어휘의 통계학적 접근: 품사를 중심으로〉, 연세대 교육대학원(석사)
윤태진, 〈한글 자소 정렬 기법을 이용한 적응적 비속어 필터링 시스템〉, 부산대 대학원(석사)
이두행, 〈통계에 기반한 한국어 연어 결합 측정의 평가〉, 연세대 대학원(석사)
이새벽, 〈언어 예측 모델을 이용한 뇌-컴퓨터 한국어 입력기〉, 고려대 대학원(석사)
이선아, 〈온톨로지에 기반한 한국어 의미 분석에 관한 연구〉, 인천대 대학원(박사)
이승욱, 〈초분절적 운율 정보를 이용한 HMM 기반 한국어 음성 합성〉, 한국과학기술원(석사)
이옥화, 〈스마트러닝 한국어 학습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충북대 교육대학원(석사)
이지선, 〈학습자 요구 분석에 따른 스마트폰 어휘 학습용 어플리케이션의 구현〉, 신라대 교육대학원(석사)
장하연, 〈언어 자질 기반 한국어 감정 분석〉, 서울대 대학원(석사)
전유리, 〈한글 디자인 활자 자형에 대한 연구: 최정호, 최정순을 중심

으로〉, 상명대 디자인대학원(석사)
정진우, 〈형태소 및 구문 분석을 통한 한국어 문장 유형의 자동 파악〉, 한국과학기술원(석사)
정철, 〈웹 사전 검색 실패어의 유형 연구: 사전학적 활용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석사)
홍주희, 〈외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사전 정의문 연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석사)
Haid, Joseph, 〈Developing an English-Korean Dictionary of Military Terminology〉,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석사)
Jun, Kisuk, 〈A Corpus-Based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and American Presidential Addresses〉, 한남대 대학원(박사)
Li, Jinji, 〈Structural Transfer of Morpho-Syntactically Divergent Language Pairs for SMT〉, 포항공과대 대학원(박사)
Quan, Yingxiu, 〈문자정렬을 이용한 중국어-한국어 통계적 단어정렬 개선〉, 고려대 대학원(석사)

〈일반 논문〉

강범모·김흥규, "명사 빈도의 변화, 사회적 관심의 트렌드: 물결 21 코퍼스[2000-2009]",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강신재·강인수·남세진·최기선, "WordNet을 매개로 한 CoreNet-SUMO의 매핑",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
강원석, "질의문 유형 분석을 통한 서답형 자동 채점 시스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2, 한국콘텐츠학회
강현화,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자료 구축 방안에 대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고창수, "한국 어문학의 경계와 정보학", 국어국문학 158, 국어국문학회
곽은주·진실로, "텍스트 차원에서의 복수 표현의 영한 번역 전략", 번역학연구 12-1, 한국번역학회
권순진·김원일·유성준, "검색 의도 파악을 위한 질의어 관계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1-4, 한국지능시스템학회

김동성, “언어 자료를 활용한 한국어 복합 명사 구조 분석”, 언어학 19-3, 대한언어학회
김문현·구영현·유성준, “추천 키워드 및 기계 학습을 이용한 문서 분류”,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1, 한국정보과학회
김민호·권혁철, “한국어 어휘 의미망의 의미 관계를 이용한 어의 중의성 해소”,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10, 한국정보과학회
김선철, “국어 형용사와 부사의 표현적 장음화: 『연세 한국어 사전』을 중심으로”, 언어학 59, 한국언어학회
김선혜·장승혜, “병렬 말뭉치를 활용한 한일사전 기술 방안 연구”,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김선혜·한승규, “학습자 사전에서의 고유 명사 표제어 선정의 문제”,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김성동, “실용적 영한 기계 번역을 위한 확률적 품사 결정의 확장”,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8, 한국정보과학회
김성원·김정우, “전문 용어 번역의 유형과 방법론: 의학 전문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김성찬·김경민·맹성현, “웹 질의에 존재하는 동사구 수준의 사용자 의도 탐지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2, 한국정보과학회
김용도, “텍스트 연구 문헌 검색 사이트”,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김일환·이도길, “대규모 신문 기사의 자동 키워드 추출과 분석: t-점수를 이용하여”, 한국어학 53, 한국어학회
김정우, “한국어 번역문의 중간 언어적 특성: 그 연원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1, 한국번역학회
김진옥·이선숙·용환승, “한글 텍스트의 오피니언 분류 자동화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 데이타베이스 38-6, 한국정보과학회
김진희·한승규, “사전 메타 용어 선정을 위한 연구: ‘꼴’, ‘따위’의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김창일, “한국 민속 대백과사전 웹 서비스 구축 현황과 향후 전략 모색”,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김해연, “말뭉치 분석을 통한 “멀다”의 의미와 용법 연구”, 언어학 61, 한국언어학회
나중채, “문자열 집합에 대한 일반화 접미사 트리의 병행적 생성 알고리즘”, 정보과학회논문지: 시스템 및 이론 38-1, 한국정보과학회
남길임, “구어 비유창성 현상의 주석 체계 연구”, 텍스트언어학 30, 한국텍스트언어학회
남길임, “확장된 어휘 단위에 대한 연구 동향과 한국어의 기술”,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두도, “코퍼스 기반으로 ‘-적’에 대한 한·중 대조 분석 및 활용 연구”,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박경미·황규백, “자연어 처리 기반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시스템”,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17-4, 한국정보과학회
박동근, “국어사전의 표제어 늘리기와 ‘유령어’ 범주의 문제”,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박영민·서정연, “투사성과 재탐색을 이용한 결정적 한국어 의존 구조 분석의 보정 기법”, 인지과학 22-4, 한국인지과학회
박용규, “문세영『조선어 사전』의 편찬 과정과 국어사전사적 의미”, 동방학지 154,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형익, ““사전연구초”의 사전학적 분석”, 한말연구 29, 한말연구학회
배진영·손혜옥·김민국, “구어·문어 통합 문법 기술의 방향과 자료 구축의 문제”, 인문논총 27, 경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범기혜, “중한사전의 품사 체계에 대한 고찰”,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범엽, “한-중 의성·의태어 학습 사전 모형 개발 연구”, 한국어문학연구 3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회
봉미경, “다면성과 다면 말뭉치에 대하여”,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봉미경, “학습용 유의어 사전 기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서은아, “신문 광고 어휘의 계량 연구: 개화기 국문 신문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28, 한말연구학회

소병철·정진우, “사용자 검색 질의 단어의 순서 및 단어 간의 인접 관계에 기반한 검색 기법의 구현”,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1-6,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송종석·이수원, “상품평 극성 분류를 위한 특징별 서술어 긍정/부정 사전 자동 구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3, 한국정보과학회
신진원·박기성, “경제 텍스트에서의 은유 번역 사례 연구: 개념적 은유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심광섭, “형태소 분석기 사용을 배제한 음절 단위의 한국어 품사 태깅”, 인지과학 22-3, 한국인지과학회
심광섭, “CRF를 이용한 한국어 자동 띄어쓰기”, 인지과학 22-2, 한국인지과학회
안의정·한송화, “한국어학당 학습자 말뭉치의 구축과 활용”, 언어사실과관점 28,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안희돈·안덕호·최정연·황종배·김지현·전문기, “한국어 어미와 선어말 어미의 형태론적 처리: 점화 실험을 중심으로”,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양선·고영중, “한국어 비교 마이닝을 위한 비교 요소 자동 추출”,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12, 한국정보과학회
오미형, “문장 구역 원격 강의: 상호 작용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한국번역학회
원미진·한승규, “한국어 학습자 사전 뜻풀이 어휘 통제를 위한 기술 방법에 관한 연구”, 언어와 언어학 50,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유현경, “한국어 사전 편찬의 현황과 이론적 전개”,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유현조·장하연·조유미·남승호·신효필·김윤신, “한국어 TimeML: 텍스트의 사건 및 시간 정보 연구”,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윤근수, “유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한국어 맞춤법 오류 교정”, 정보과학회논문지: 컴퓨팅의 실제 및 레터 17-2, 한국정보과학회
윤서향, “영영한사전 비교 분석”,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이승아·배지연, “시사 잡지 텍스트에 나타난 개념적 은유 표현의 번역

전략: 영한 병렬 코퍼스에 기반한 분석", 번역학연구 12-3, 한국번역학회
이여덕, "한글+한자 문화 칼럼: 최초의 국어사전, 조선어 사전(朝鮮語辭典)", 한글+한자문화 147,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이인근·김화선·조훈, "표준 의학 용어 체계의 매핑을 위한 시스템의 설계 및 개발",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1-2,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이재성, "한국어 형태소 분석을 위한 3단계 확률 모델",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5, 한국정보과학회
이주리애, "기사문 번역의 재맥락화 양상에 대한 일 고찰: 뉴스위크 한국판과 일본판의 평가어 분석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이지민·이진식·이근배, "문장 분배기를 사용한 의존 구조 분석기 통합",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4, 한국정보과학회
이지영, "조선어연구회의 『선화 신사전(鮮和新辭典)』에 대한 고찰: 조선 총독부의 『조선어 사전(朝鮮語辭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15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이현주·조동성, "학술 전문 용어 정비 및 표준화의 특징 및 과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임수종·김영태·나동열, "자질 가중치의 기계 학습에 기반한 한국어 의존파싱",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4, 한국정보과학회
정연주, "형용사의 경험주 논항 처리 방안: 심리 형용사에서 성상 형용사, 성상 형용사에서 감각 형용사로의 전용에 대하여",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정주석·김준혁·김해일·오성호·강신재, "한국어 Hedge 문장 인식을 위한 태깅 말뭉치 및 단서 어구 패턴 구축", 한국지능시스템학회논문지 21-6, 한국지능시스템학회
정한데로, "임시어의 형성과 등재: "통사론적 구성의 단어화"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조민희·정도헌, "구문 다양성 해소를 위한 복합 명사구 색인 방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3, 한국콘텐츠학회

조석현·윤현철·나중채·심정섭, “일반화 접미사 배열을 이용한 선형 시간 최장 공통 비상위 문자열 알고리즘”, 정보과학회논문지: 시스템 및 이론 38-5, 한국정보과학회
조영순, “말뭉치를 이용한 신문 표제어 연구”, 언어 36-4, 한국언어학회
조준형, “병렬 코퍼스와 텍스트 어휘 측정법”, 언어정보 12,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조준형·이영훈·계명훈·고여림·김보현·김지은·이상인, “병렬 코퍼스를 활용한 번역 평가 연구: 프랑스 소설『모데라토 칸타빌레(Moderato Cantabile)』의 한국어 번역에 나타난 고빈도 명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2-3, 한국번역학회
차재은, “『큰 사전』 고유어 복합어의 음장”, 한국어학 50, 한국어학회
채춘옥, “한중 한자어 비교 사전 구축을 위한 초보적 고찰”,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최재웅·윤혜준·전지은, “어형적 연관성을 고려한 어휘 빈도 산출”, 한국어학 52, 한국어학회
최정도, “말뭉치를 이용한 사전 편찬에서의 몇 문제에 대하여”, 언어사실과 관점 27,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최중환·최석두·김이겸·박영욱·정종희·안희정·정한민·김평, “국방 과학기술 전문 용어 사전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표준화 및 활용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1-8, 한국콘텐츠학회
한승규, “『표준국어대사전』의 북한어 기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사전학 18, 한국사전학회
한영균·고은아, “유의적 정도 부사의 빈도·분포·결합 관계의 분석과 그 활용: 학습자 사전의 용법 기술의 관점에서”, 한국어의미학 35, 한국어의미학회
한용진·박세영·박성배, “자연어 인터페이스를 위한 관계에 대한 자연어 표현 자동 수집 방법”, 정보과학회논문지: 소프트웨어 및 응용 38-10, 한국정보과학회
허재영, “국어사에서 근대 계몽기의 설정과 사전 편찬의 필요성”, 한국사전학 17, 한국사전학회
홍사만, “『왜어유해(倭語類解)』와『일어유해(日語類解)』 표제 한자어

대역 일어 교체형 비교 분석", 한일언어문화연구 15, 한·일언어문화연구소

Ahn, Hee Don·An, Duk Ho·Choi, Jung Yun·Hwang, Jong Bai·Jeon, Moon Gee·Kim, Ji Hyon, "Processing Nominal Suffixes in Korean: Evidence from Priming Experiments",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Ahn, Mikyung·Kim, Sung-A, "A Corpus Analysis of Grammatical Evolutions of Korean Positive Causal Expressions", 언어와 언어학 5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Hong, Shin Chul, "A Corpus-Based Analysis of the Two Predicate Frames of 'Give'", 언어과학 18-2, 한국언어과학회

Kim, Hyung-Sun·Heine, Bernd, "Native and Non-native Use of Existential There in CMC", 언어 36-1, 한국언어학회

Kim, Jong Bok, "English Conditional Inversion: A Construction-Based Approach", 언어와 정보 15-1, 한국언어정보학회

Kim, Jong Bok·Yang, Jae Hyung, "Symmetric and Asymmetric Properties in Korean Verbal Coordination: A Computational Implementation", 언어와 정보 15-2, 한국언어정보학회

Kim, Jong Bok·Yang, Jae Hyung·Song, Sang Houn·Bond, Francis, "Deep Processing of Korean and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Resource Grammar", 언어연구 28-3, 경희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Park, Heum·Yoon, Ae Sun, "Automatic Mapping Between Large-Scale Heterogeneous Language Resources for NLP Applications: A Case of Sejong Semantic Classes and KorLexNoun for Korean", 언어와 정보 15-2, 한국언어정보학회

2. 정기 간행물 목록

가라문화	경남대 박물관 가라문화연구소
가톨릭대학교논문집	가톨릭대
강남어문	강남대 국어국문학과
강릉교육대학논문집	강릉교대
강릉어문학	강릉대 국어국문학과
강원문화연구	강원대 강원문화연구소
강원민속학	강원도민속학회
개신어문연구	개신어문학회
건양논총	건양대
겨레어문학(구 건국어문학)	겨레어문학회
경기교육논총	경기대 교육대학원
경기어문학	경기대 국어국문학회
경남문화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구 경남문화연구소)
경남어문	경남어문학회
경남어문논집	경남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경대문학	경기대 국어국문학회
경산문화연구	대구한의대(구 경산대) 경산문화연구소
경상어문	경상어문학회
경원어문논집	경원대 국어국문학과
경찰대학논문집	경찰대
경희대학교대학원논문집	경희대 대학원
경희어문학	경희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계룡어문학	공주교대 국어교육연구회
계명연구논총	계명문화대학
고대문화	고려대 고대문화편집위원회
고문서연구	한국고문서학회
고서연구	한국고서연구회
고인쇄문화	청주고인쇄박물관

고황논집	경희대 대학원
공사논문집	공군사관학교
공주사대논총	공주사대
과학논총	서울여대 대학원
관대논문집	관동대
관동민속학	관동대 강릉무형문화연구소
관동어문학	관동어문학회
관동향토문화연구	춘천교대 관동향토문화연구소
관악어문연구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광주초등국어교육연구	광주초등국어교육학회
교사교육논총	강원대 교사교육센터
교사교육연구(구 사대논문집)	부산대 사범대학 과학교육연구소
교수논문집	상명대
교수논문집	상지대
교수논총	한국교원대
교원교육	한국교원대 교육연구원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경남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과정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교육과학연구	신라대 교육과학연구소
교육과학연구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육과학연구소
교육논총	경인교대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논총	국민대 교육연구소
교육논총	동국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서원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성균관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전북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전주대 사범대학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논총	중앙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한국외대 교육대학원
교육논총	한양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교육논총(구 공주교대논총)	공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
교육대학원논문집	경북대 교육대학원
교육문제연구	고려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문화연구	인하대 교육연구소
교육발전	서원대 교육연구소
교육발전연구	경희대 교육발전연구원
교육사회학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교육연구	덕성여대 고등교육연구소
교육연구	부산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성신여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춘천교대 초등교육연구원
교육연구	한국교육생산성연구소
교육연구논총	충남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홍익대 교육연구소
교육연구	상명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	전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연구정보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교육이론과 실천	경남대 교육문제연구소
교육한글	한글학회
구결연구	구결학회
국문학	고려대 문리과대학 국문학 학생회
국문학	공주사대
국문학논집	단국대 국어국문학과
국문학보	제주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국문학연구	국문학회
국민어문연구	국민대 국어국문학연구회
국어과교육	부산교대 국어교육학과
국어과교육	부산대
국어과교육연구	전국 교육대학 국어과 교수 연구 협의회
국어교육	한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논총	연세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논총	제주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논총	조선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론지	대구교대 국어교육연구회
국어교육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연구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국어교육연구	원광대 사범대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	조선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국어교육연구	춘천교대 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연구	국어교육학회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	동아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부산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	전북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논문요지집	동국대 대학원 국어국문학 학생회
국어국문학논문집	동국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논문집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논문집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국문학연구회
국어국문학연구	군산대 국어국문학회
국어국문학연구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국어국문학연구	원광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연구회
국어문학	국어문학회
국어사연구	국어사학회
국어학	국어학회
국제고려학	국제고려학회
국제고려학회서울지회논문집(구 국제고려학회논문집)	국제고려학회 서울지회
국제문화연구	청주대 국제협력연구원
국제어문	국제어문학회
국제언어문학	국제언어문학회
규장각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극동정보대학논문집	극동정보대학
기전문화연구	경인교대 기전문화연구소

꿈나래21(구 교육마당21)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
나라사랑	외솔회
나랏말씀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나랏말씀	대구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남도문화연구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남도문화연구소
남명학연구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남명학연구소
논문집	가톨릭상지대학 사회개발·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강남대
논문집	건국대 교육연구소
논문집	건국대 교육학부
논문집	경기대
논문집	경남과학기술대(구 진주산업대)
논문집	경남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경북대
논문집	경북전문대
논문집	경원대
논문집	경희 알타이어연구소
논문집	고신대
논문집	공주대
논문집	공주대 영상보건대학
논문집	광양대학
논문집	광운대
논문집	광주교대
논문집	광주대(구 광주경상대)
논문집	광주보건대학
논문집	교육행정연수원
논문집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논문집	군산대
논문집	군장대학
논문집	금오공과대
논문집	김천대학

논문집	김포대학
논문집	대구교대
논문집	대구보건대학
논문집	대림대학
논문집	대신대
논문집	대전대
논문집	대전보건대학
논문집	동강대학
논문집	동남보건대학
논문집	동부산대(구 동래여자전문대)
논문집	동신대
논문집	동양공업전문대
논문집	동의과학대(구 동의과학대학)
논문집	동의여전
논문집	마산대학
논문집	명지대
논문집	명지전문대학
논문집	목원대
논문집	배재대
논문집	부경대
논문집	부산교대
논문집	부산정보대학
논문집	삼육대학
논문집	서남대
논문집	서울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서울보건대학
논문집	서원대
논문집	서해대학
논문집	선린대학
논문집	성균관대
논문집	성심외국어대학

논문집	수원가톨릭대
논문집	수원대
논문집	수원여대
논문집	순천제일대학
논문집	순천제일대학 지역문화연구소
논문집	순천청암대학
논문집	순천향대
논문집	숭실대
논문집	숭실대 대학원
논문집	신구대학
논문집	안양대(구 대신대)
논문집	여수대
논문집	영남대
논문집	영남이공대학
논문집	영진전문대
논문집	용인대
논문집	원광대
논문집	원광대 대학원
논문집	유한대학
논문집	육군3사관학교
논문집	육군사관학교
논문집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논문집	인덕대학
논문집	인산전문대
논문집	인천대
논문집	인천전문대
논문집	인하공업전문대
논문집	인하대
논문집	적십자간호대학 건강과 재해 연구소
논문집	전남대
논문집	전남도립대

논문집	전주교대
논문집	전주비전대학
논문집	제주국제대
논문집	제주대 초등교육과
논문집	조선대 문리과대학
논문집	중부대학
논문집	진주교대
논문집	진주보건대학
논문집	청주교대
논문집	청주대
논문집	청주대 대학원
논문집	총신대 대학원
논문집	충남대
논문집	충남대 대학원
논문집	충북대
논문집	충주대
논문집	충청대
논문집	충청대학
논문집	한경대
논문집	한국국어교육연구회
논문집	한국방송통신대
논문집	한국외대
논문집	한국철도대학
논문집	한국체육대
논문집	한국폴리텍7대학 창원캠퍼스(구 창원기능대)
논문집	한국한문학회
논문집	한국해양대
논문집	한남대
논문집	한성대
논문집	한양대
논문집	한양대 대학원

논문집	한양여자대학
논문집	혜전대학
논문집	혜천대학
논문집	호서대
논문집	홍익대
논문집	경일대
논문집	대구한의대(구 경산대)
다문화교육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
다문화사회연구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다뭇어문	경남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단국대학교논문집	단국대
담화와 인지	담화·인지언어학회
대구대학교학술논문집	대구대
대동문화연구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대신문화	대신대학
대전어문학	대전대 국어국문학회
대학원논문집	건국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경상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동아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원광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전주대 대학원
대학원논문집	한남대 대학원
대학원논총	경남대 대학원
대학원연구논집(구 연구논집)	동국대 대학원
대학원학술논문집	건국대 대학원
덕성어문학	덕성여대 국어국문학과
덕성여대논문집	덕성여대
도서문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
도솔어문	단국대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
독서문화연구	대진대 독서문화연구소
독서연구	한국독서학회

돈암어문학(구 성신어문학)	돈암어문학회(구 성신어문학연구회)
동경어문논집	동국대
동국논집	동국대 경주캠퍼스
동국대학교논문집	동국대
동국어문논집	동국대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동국어문학	동국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동국어문학회
동남어문논집	동남어문학회
동덕어문논집	동덕여대
동방학지	연세대 국학연구원
동북아연구	홍익대 동북아연구소
동서문화교류연구	한국돈황학회
동서문화연구	한남대 인문과학연구소
동서문화연구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동서연구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동서울대학논문집	동서울대학
동아교육논총	동아대 교육대학원
동아논총	동아대
동아문화	서울대 인문대학 동아문화연구소
동아시아 문화와 사상	열화당
동아시아문화연구(구 한국학논집)	한양대 동아시아문화연구소(구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동아어문논집	동아어문학회
동아연구	서강대 동아연구소
동양대학교논문집	동양대
동양문화연구	대전대 동양문화연구소
동양학간보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양학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동원논집	동국대 대학원 총학생회
동의	동의과학대(구 동의과학대학)
동의논집	동의대
말과 글	충북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말과 글	한국어문기자협회(구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

말글	어문연구회
말소리와 음성과학	한국음성학회
매지논총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
모악어문학	전주대 국어국문학회
목원어문학	목원대 국어교육과
목포대학교논문집	목포대
몽골학	한국몽골학회
문법교육	한국문법교육학회
문법연구	문법연구회
문창어문논집	문창어문학회
문학과 교육	문학과 교육연구회
문학과 언어	문학과 언어학회
문학교육학	한국문학교육학회
문학한글	한글학회
문헌과 해석	문헌과 해석사
민속학연구	안동대 민속학과
민족과 문화	한양대 민족학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화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
민족문화논총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민족문화연구논총	인천대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	한성대 민족문화연구소
반교어문연구	반교어문학회
방송언어순화자료집	KBS 한국어팀
방언	한국학중앙연구원
방언학	한국방언학회
배달말	배달말학회
배달말가르침	경상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배달말교육	배달말교육학회
백록논총	제주대 사범대학·교육과학연구소

백록어문	백록어문학회
백양인문논집	신라대 인문과학연구소
백제문화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부산한글	한글학회 부산지회
북악논총	국민대 대학원
비교문화연구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부산외대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비교문화연구소
비교문화연구	한양대 비교문화연구소
비교한국학	국제비교한국학회
사대논총	서울대 사범대
사라어문	제주대 초등교육과
사림어문연구	창원대 국어국문학회
사회언어학	한국사회언어학회
산학연구소논문집(구 논문집)	전주기전대학 산학연구소
상명대인문과학연구	상명대 인문과학연구소
상주문화연구	상주대 상주문화연구소
새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학회
새국어생활	국립국어원
새국어소식	국립국어원
새얼어문논집	새얼어문학회
생성문법연구	한국생성문법학회
생활과학연구논총(구 교육생활과학논총)	충북대 생활과학연구소
서강대학논문집	서강대
서강인문논총	서강대 인문과학연구소
서경대학교논문집	서경대
서라벌대학논문집	서라벌대학
서울산업대학교논문집	서울산업대
서울학연구	서울시립대 부설 서울학연구소
서지학보	한국서지학회
서지학연구	서지학회

석당논총	동아대 석당학술원
선문논총	선문대
선주논총	금오공과대학 선주문화연구소
선청어문	서울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성곡논총	성곡학술문화재단
성균어문연구	성균관대 성균어문학회
성신한문학	성신한문학회
성심어문논집	성심어문학회
세계한국어문학	세계한국어문학회
세명논총	세명대
세종어문연구	세종어문학회
세종학연구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솔뫼어문논총	안동대 어학원
솔뫼어문학	안동대 국어국문학회
수련어문논집	수련어문학회
수행인문학(구 인문학연구)	한양대 수행인문학연구소(구 인문학연구소)
숙명어문논집	숙명여대 숙명어문학회
순천대학교논문집	순천대 자연과학논문집 편집위원회
순천향대학논문집	순천향대
순천향어문논집	순천향어문학연구회
순천향인문과학논총	순천향대 인문과학연구소
숭실어문	숭실어문학회
숭의논총	숭의여자대학
시민인문학	경기대 인문과학연구소
시학과 언어학(구 서강어문)	시학과 언어학회
신라대학교논문집	신라대
신라문화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아세아연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아세아학보	아세아학술연구회
아시아문화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아시아문화연구	경원대 아시아문화연구소·중앙민족대 한국문화연구소

안동대학교논문집	안동대
안동문화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안동문화	안동문화원
안동어문학	안동어문학회
알타이학보	한국알타이학회
애산학보	애산학회
어문교육	부경대 어학연구소
어문교육	어문교육연구회
어문논집	경남대 국어교육학회
어문논집	계명대 국어국문학회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어문논총	경희대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어문논총	동서어문학회
어문논총	전남대 한국어문학연구소
어문논총	전북대
어문론집	중앙어문학회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어문생활(구 어문회보)	한국어문회(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경북대 어학연구소
어문연구	어문연구소
어문연구	어문연구학회
어문연구	한국어문교육연구회
어문연구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 어학교육부
어문학	어문학회
어문학	한국어문학회
어문학교육	부산교육학회
어문학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어문학논집	전남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회
어문학논총	국민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조선대 국어국문학연구소
어문학논총	숙명여대 어문학연구소

어문학보	강원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어문학연구	전북대 어문학연구회
어문학연구	상명대 어문학연구소
어원연구	한국어원학회
어학교육	전남대 언어교육원
어학논지	창원대 어학연구소
어학연구	강원대 어학연구원
어학연구	군산대 어학연구소
어학연구	서울대 언어교육원
어학연구	순천대 어학원
어학연구	전주대 어학연구소
언론연구논집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언어	한국언어학회
언어과학	한국언어과학회
언어과학연구	언어과학회
언어사실과 관점	연세대 언어정보연구원
언어연구	경희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연구	대구언어학회
언어연구	부산교대
언어연구	부산대 언어연구교육원
언어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연구회
언어연구	성신여대 어학연구소
언어연구	한국현대언어학회
언어와 문화	목포대 어학연구소
언어와 문화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언어와 언어교육	동아대 언어교육원
언어와 언어학	한국외대 외국어종합연구센터 언어연구소
언어와 정보	한국언어정보학회
언어와 정보사회	서강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정보	고려대 언어정보연구소
언어청각장애연구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언어치료연구	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학	대한언어학회
언어학	한국언어학회
언어학논집	언어정보연구원
언어학연구	서울대 대학원 언어학과
언어학연구(구 언어학)	한국중원언어학회(구 중원언어학회)
연구논문집	성신여대
연구논문집	울산과학대학
연구논문집	창원문성대학(구 창원전문대)
연구논문집	한민대
연구논집	이화여대 대학원
연세교육과학	연세대 교육대학원
연세교육연구	연세대 교육연구소
연세어문학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영남국어교육	영남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영남문화연구	영남대 영남문화연구소
영남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영산논총	영산대
영주어문	영주어문학회
예산농업전문대학논문집	예산농업전문대
오산대학논문집	오산대학
외국어교육	한국교원대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교육연구	한국외대 외국어교육연구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외국어연구	성심외국어대학 외국어교육연구소
외대논총	부산외대
외대어문논집	부산외대 어문학연구소
외대어문논총	경희대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용봉논총	전남대 인문학연구소
용연어문논집	경성대

용운언어	대전대 국어국문학과 국어학분과
우금치문학	공주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우리말·글	대진대 국어학연구회
우리말·우리얼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우리말과 삶을 가꾸는 글쓰기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우리말교육	부산교대 국어과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우리말글	우리말글학회
우리말내용연구	우리말내용연구회
우리말연구	우리말학회
우리어문연구	우리어문학회
우산어문학	상지대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우석어문	우석대 국어국문학연구회
우암논총	청주대 대학원
우암어문논집	우암어문학회
울산어문논집	울산대 국어국문학과
웅진어문학	웅진어문학회
원격교육논총	한국방송통신대 원격교육연구소
원우논집	숭실대 대학원 학생회
원주학연구	연세대 매지학술연구소
음성·음운·형태론연구	한국음운론학회
응용언어학	한국응용언어학회
응용언어학(구 언어교육)	서울대 어학연구소
이문논총	한국외대 대학원
이중언어학	이중언어학회
이화어문논집	이화여대 이화어문학회
인문과학	경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목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서울시립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	연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과학	홍익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문집	대전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문집	숭실대
인문과학논문집	한남대
인문과학논집	강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논집	서울대
인문과학논집	청주대 한국문화연구소
인문과학연구	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대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대신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동덕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서경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서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성신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안양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전주대 인문과학종합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조선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구 강원인문논총)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논총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대구가톨릭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과학연구	안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건양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경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경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배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인문논총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인문논총	서울여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아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울산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전주우석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창원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논총	호서대 인문학연구소
인문대논집	고려대 인문대학
인문비평	전국대학 인문학연구소협의회
인문사회과학논문집	신흥대
인문사회과학논문집	광운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총	서울여대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논총	인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공주대 부설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세명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과학연구	한서대 인문사회과학연구원
인문사회과학연구	호남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사회학연구	동신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인문언어	국제언어인문학회
인문연구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인하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논총	경북대
인문학논총(구 인문과학논총)	경성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경상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경희대 인문학연구원
인문학연구	관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상지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숭실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제주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조선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	중앙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	한림대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구 논문집)	충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연구(구 동서문화)	계명대 인문과학연구소

인문학지	충북대 인문학연구소
인제논총	인제대
인천국어교육	인천시 국어한문교육연구회
인천문학	인천어문학회
인천어문연구(구 인천어문학)	인천어문학회
인천어문학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인하어문연구	인하대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인하어문연구회
인하인문	인하대 문과대학
자하어문논집	상명어문학회
작문연구	한국작문학회
장안논총	장안대학
전농어문연구	서울시립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라문화논총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전문용어연구	전문용어언어공학연구센터
전북대논문집	전북대
정신문화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제주도연구	제주학회
조선어연구	조선어연구회
중국어문논총	중국어문연구회
중등교육연구	경북대 사범대학 부속 중등교육연구소
중등교육연구	경상대
중원문화연구(구 중원문화논총)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중원어문학	건국대 국어국문학과
지명학	한국지명학회
진단학보	진단학회
진주문화	진주교대 부설 진주문화권연구소
청람어문교육	청람어문교육학회
청송문학	관동대 국어교육학과
청파문학	숙명여대 문리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초등교과교육연구	한국교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강원초등국어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	광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부산교대 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초등교육연구	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제주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진주교대 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청주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한국초등교육연구원
초등교육연구	한국초등교육학회
초등교육연구논총	대구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국어과교육	광주교대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등국어교육	서울교대 초등국어교육연구소
초등국어교육연구	대구·경북 초등국어교육학회
총신대논총	총신대
취경	경원대
탐라문화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태동고전연구	한림대 태동고전연구소
태릉어문연구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
텍스트언어학	한국텍스트언어학회
통일논총	숙명여대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연구	서경대 통일문제연구소
통일연구	연세대 통일연구소
통일인문학논총(구 인문학논총)	건국대 인문학연구원
퇴계학보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퇴계학연구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학술논총	원주대학
한겨레어문연구	한겨레어문학회
한국교육문제연구	동국대 교육연구원
한국교육문제연구	중앙대 한국교육문제연구소
한국교육학연구	안암교육학회
한국군사학논집(구 육사논문집)	육군사관학교

한국말글학(구 국문학연구)	한국말글학회(구 대구가톨릭대)
한국문학연구	경기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	동국대 문화학술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화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문화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연구원논총	인제대
한국문화인류학	한국문화인류학회
한국민족문화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한국방언학	경북대 한국방언학회
한국사전학	한국사전학회
한국어교육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교육	한국국어과교육개발연구회
한국어교육	한국어문교육학회
한국어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어문교육	한국교원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한국어문연구(구 계명어문학)	한국어문연구학회(구 계명어문학회)
한국어문학연구	이화여대 문리대학 한국어문학회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어문학연구학회
한국어문학연구	한국외대 한국어문학연구회
한국어와 문화	숙명여대 한국어문화연구소
한국어의미학	한국어의미학회
한국어정보학	한국어정보학회(구 국어정보학회)
한국어학	한국어학회
한국언어문학	한국언어문학회
한국언어문화	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언어문화학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한국의 민속과 문화	경희대 민속학연구소
한국초등교육	서울교대 초등교육연구원
한국초등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한국학논집	강남대 부설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논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총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보	일지사
한국학연구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단국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숙명여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한국학연구소
한글	한글학회
한글+한자문화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
한글경북	한글학회 대구지회
한글문화	한글문화보급회
한글문화	한글학회 전북지회
한글사랑	한글사
한글새소식	한글학회
한남어문학	한남대 한남어문학회
한림어문학	한림대 국어국문학과
한말연구	한말연구학회
한민족문화연구	한민족문화학회
한민족어문학	한민족어문학회
한밭한글	한글학회 대전지회
한불연구	연세대 한불문화연구소
한성어문학	한성대 한성어문학회
한신논문집	한신대
한신인문학연구	한신대 학술원 인문학연구소
한어문교육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한일언어문화연구	한·일언어문화연구소
한자한문교육	한국한자교육연구회
한중인문학연구	한중인문학회
한힌샘주시경연구	한글학회
함께 여는 국어교육	전국국어교사모임
해사논문집	해군사관학교

해양문화연구	부경대 해양문화연구소
향란어문	성신여대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회
현대문법연구	현대문법학회
협성논총	협성대
형태론	편집진
호남문화연구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호서문화논총	서원대 호서문화연구소
홍대논총	홍익대
화법연구	한국화법학회
화용론논집	언어정보연구원
황해문화	새얼문화재단
효림	대구가톨릭대(구 대구효성가톨릭대)
효성어문학	효성어문학회
KBS한국어연구논문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Ⅳ.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및 대학원

1. 전국 대학 국어 관련 학과

국어국문학

가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성남)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031) 750-5124
http://www.gachon.ac.kr/major/civilization/01/

가톨릭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 (02) 2164-4201 (F) (02) 2164-4774
http://songsim.catholic.ac.kr/~cukdkl/

강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031) 280-3988
http://knkl.kangnam.ac.kr/index.jsp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강릉)
210-702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 (033) 640-2100 (F) (033) 640-2100
http://gukmun.gwnu.ac.kr/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033) 250-8120 (F) (033) 250-8120
http://vculture.kangwon.ac.kr/~korean__2004/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서울)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02) 450-3324 (F) (02) 2049-6320
http://korea.konkuk.ac.kr/

건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충주)
380-701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 (043) 840-3327 (F) (043) 840-3317
http://korean.kku.ac.kr/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서울)
120-7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 (02) 390-5110
http://web.kyonggi.ac.kr/korean/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전공(수원)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031) 249-9506
http://web.kyonggi.ac.kr/kkll

경남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전공
631-70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 16길 11
☎ (055) 249-2106 (F) (055) 242-7985
http://kucms.kyungnam.ac.kr/korean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053) 950-5106 (F) (053) 950-5106
http://korean.knu.ac.kr/

경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1020
http://nongae.gnu.ac.kr/~hk/

경성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 (051) 663-4218
http://ks.ac.kr/korean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961-0223, 967-0223 (F) (02) 963-3152
http://gukmun.khu.ac.kr/main.html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1960
http://kukl.kr/

고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세종캠퍼스)
339-700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2511
☎ (041) 860-1210
http://kukl.korea.ac.kr/

관동대학교 인문대학 미디어문학과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 (033) 649-7200 (F) (033) 649-7196
http://cms.kd.ac.kr/user/media7200/

광운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길 26
☎ (02) 940-5350 (F) (02) 911-1434
http://korean.kw.ac.kr/

국민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 (02) 910-4360
http://humanities.kookmin.ac.kr/site/korean/info.htm

군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 (063) 469-4311
http://cms.kunsan.ac.kr/user/korean/

단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전공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031) 8005-3020 (F) (031) 8005-3021
http://www.dkkorean.com

단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한국어문학과(천안)
330-714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041) 550-3110
http://hompy.dankook.ac.kr/gomcorea

대구가톨릭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712-70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053) 850-3381 (F) (053) 850-3381
http://dept.cu.ac.kr/user/kor/index.html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 850-6010 (F) (053) 850-6019
http://korean.daegu.ac.kr/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정보대학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학전공
712-715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 (053) 819-1305
http://kor.dhu.ac.kr/

대전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전공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 (042) 280-2210 (F) (042) 284-0180
http://home.dju.ac.kr/krlit/

대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 (031) 539-1570 (F) (031) 539-1570
http://korean.daejin.ac.kr/koreanindex.do

덕성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 (02) 901-8181
http://academy.duksung.ac.kr/korean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8706
http://deptkorean.dongguk.edu/

동국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경주)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 (054) 770-2114 (F) (054) 770-2001
http://kor.dongguk.ac.kr/

동덕여자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 (02) 940-4340 (F) (02) 940-4340
http://korean.dongduk.ac.kr/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051) 200-7019 (F) (051) 200-7033
http://korean.donga.ac.kr/

동의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051) 890-1210 (F) (051) 890-1209
http://korean.deu.ac.kr

명지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 (02) 300-0520 (F) (02) 300-0504
http://www.mjukll.com/

목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북로 88

☎ (042) 829-7490 (F) (042) 829-7490

http://korean.mokwon.ac.kr

목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34-7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 (061) 450-2110 (F) (061) 450-6449

http://dorim.mokpo.ac.kr/~kll

배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114

http://kll.pcu.ac.kr/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051) 629-5405 (F) (051) 629-5408

http://myweb.pknu.ac.kr/korean/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2-1507 (F) (051) 582-4823

http://bkorea.pusan.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학부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40-3026~7 (F) (051) 640-3560

http://cms.pufs.ac.kr/korean/html/main/default.aspx

상명대학교 어문대학 한국어문학과(천안)
330-72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 (041) 550-5112 (F) (041) 550-5120
http://www.smkorean.com/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220-702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 (033) 730-0114, 0210
http://www.sangji.ac.kr/korean/index.action

서강대학교 국제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 (02) 705-8278 (F) (02) 705-8276
http://korea.sogang.ac.kr/

서경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 (02) 940-7260
http://kr.skuniv.ac.kr/

서남대학교 인문학부 국어국문학과
590-711 전라북도 남원시 춘향로 439
☎ (063) 620-0255
http://wtiger.seonam.ac.kr/~n__korean/home/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6031, 6058 (F) (02) 878-1246
http://plaza.snu.ac.kr/~korean/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02) 2210-2268 (F) (02) 2210-2885

http://korean.uos.ac.kr/

서울여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 (02) 970-5411

http://www.swu.ac.kr/univ/01__lib__0101.html

서원대학교 어문학부 국어국문학과

361-7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 (043) 299-8510 (F) (043) 299-8510

http://homepy.seowon.ac.kr/korea/index.htm

선문대학교 인문외국어대학 국어국문학과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403

http://kor.sunmoon.ac.kr/

성균관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02) 760-0231

http://liberal.skku.edu/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02) 920-7069 (F) (02) 920-2082

http://www.sungshin.ac.kr/korean/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한국어문학과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 (043) 649-1760
http://korea.semyung.ac.kr/

세종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43-74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 (02) 3408-3301
http://cm.sejong.ac.kr/user/sejongkorean/

수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 (031) 220-2502 (F) (031) 220-2502
http://korean.suwon.ac.kr

숙명여자대학교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02) 710-9310 (F) (02) 2077-7310
http://korean.sookmyung.ac.kr/

순천향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 (041) 530-1106
http://homepage.sch.ac.kr/kookmoon/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02) 820-0320 (F) (02) 824-4382
http://korlan.ssu.ac.kr/web/korlan

신라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287 (F) (051) 999-5287
http://korean.silla.ac.kr/

아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443-8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 (031) 219-2802 (F) (031) 219-1617
http://human.ajou.ac.kr

안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760-74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 (054) 820-5350 (F) (054) 823-1622
http://home.andong.ac.kr/kukmun/

안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 (031) 467-0785
http://home.anyang.ac.kr/department/htm/baa.htm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2265
http://web.yonsei.ac.kr/kor/index.htm

연세대학교 인문예술대학 국어국문학과(원주)
220-842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연세대길 1
☎ (033) 760-2176 (F) (033) 760-2818
http://web.yonsei.ac.kr/ykll/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2110 (F) (053) 810-4728
http://korean.yu.ac.kr/index.jsp

울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052) 259-2506 (F) (052) 259-1703
http://korea.ulsan.ac.kr/

원광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5114 (F) (063) 850-6666
http://korean.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인문과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2137~8 (F) (02) 3277-2164
http://www.ewhakukmun.ac.kr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부 국어국문학전공
621-74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055) 320-3150 (F) (055) 320-3150
http://homepage.inje.ac.kr/~korea/

인천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032) 835-8110 (F) (032) 835-8110
http://korean.incheon.ac.kr/cls/class1/front.jsp

인하대학교 문과대학 인문학부 한국어문학전공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7990 (F) (032) 868-8435
http://korean.inha.ac.kr/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3130 (F) (062) 530-3140
http://korean.jnu.ac.kr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063) 270-3166 (F) (063) 270-3169
http://korean.jbnu.ac.kr/

전주대학교 인문대학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063) 220-2210 (F) (063) 220-2050
http://kukmunin.jj.ac.kr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064) 754-2710 (F) (064) 725-1901
http://korean.jejunu.ac.kr/

조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062) 230-6514
http://korean.chosun.ac.kr/

중앙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 820-5084
http://build.cau.ac.kr/caukorean/

창원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641-7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 (055) 213-3100 (F) (055) 213-3109
http://portal.changwon.ac.kr/home/korean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043) 229-8315
http://www.cju.ac.kr/web/kor/univ__a__03__02__t1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5321
http://human.cnu.ac.kr/korean/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2090 (F) (043) 272-7709
http://gukmun.chungbuk.ac.kr/xe/

평택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50-701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031) 659-8524
http://www.pt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110-79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 (02) 3668-4550 (F) (02) 3668-4189
http://korean.knou.ac.kr/

한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7311
http://www.kukmunin.com

한림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033) 248-1510
http://korean.hallym.ac.kr/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 (02) 760-4017 (F) (02) 760-4480
http://edu.hansung.ac.kr/~korean/

한신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447-79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 (031) 379-0400
http://minjung.net/zbxe/

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 한국언어문학과(안산)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 (031) 400-5310 (F) (031) 407-8663
http://hyal.hanyang.ac.kr/

한양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서울)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02) 2220-0730 (F) (02) 2220-0730
http://hykorea.hanyang.ac.kr/

호서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화학부 국어국문학전공
330-7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041) 560-8160
http://korea.hoseo.ac.kr/Pages/default.aspx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02) 320-1158 (F) (02) 320-1158
http://hkorean.cafe24.com/xe/

국어교육학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45-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033) 250-6610 (F) (033) 257-6609
http://kedu.kangwon.ac.kr/

경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31-70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북 16길 11
☎ (055) 249-2324 (F) (055) 999-2145
http://www.kyungnam.ac.kr/kor/main/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053) 950-5821 (F) (053) 950-6803
http://koredu.knu.ac.kr/

경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2150
http://korlan.gnu.ac.kr/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경기)
430-7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 (031) 470-6210 (F) (031) 470-6219
http://sub.ginue.ac.kr/korean/index.jsp

경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인천)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 (032) 540-1210 (F) (032) 553-2055
http://sub.ginue.ac.kr/korean/index.jsp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2340 (F) (02) 921-1978
http://koredu.korea.ac.kr/

공주교육대학교 초등국어교육과
314-71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 (041) 850-1620
http://pro.gjue.ac.kr/~kedu/index.htm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8170 (F) (041) 855-2653
http://koredu.kongju.ac.kr/

관동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 (033) 649-7740
http://cms.kd.ac.kr/user/korean/index.html

광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500-703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 (062) 520-4127
http://korean.gnue.ac.kr/index.sko

대구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 (053) 620-1310

http://www.dnue.ac.kr/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 850-4110 (F) (053) 850-4111

http://koredu.daegu.ac.kr/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8746

http://duce.dongguk.edu/

목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 (042) 829-7430 (F) (042) 829-7430

http://koredu.mokwon.ac.kr/

부산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 (051) 500-7210 (F) (051) 500-7211

http://www.bnue.ac.kr/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611 (F) (051) 583-2053

http://koredu.new21.net/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090 (F) (02) 2287-0064
http://koredu.smu.ac.kr/

서울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02) 3475-2420
http://www.snue.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7657~8 (F) (02) 883-7630
http://plaza.snu.ac.kr/~ed705/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61-7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 (043) 299-8310
http://dragon.seowon.ac.kr/~seowonke/

순천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40-95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 (061) 750-3310
http://koredu.sunchon.ac.kr/index.jsp

신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241 (F) (051) 999-5178
http://koredu.silla.ac.kr/

영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3190

http://koredu21.yu.ac.kr/index.jsp

원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6504

http://koredu.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4210 (F) (02) 3277-4211

http://home.ewha.ac.kr/~kle/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7840 (F) (032) 862-7840

http://koreanedu.inha.ac.kr/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2410 (F) (062) 530-2419

http://koredu.jnu.ac.kr/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063) 270-2711 (F) (063) 270-2718

http://home.jbnu.ac.kr/koredu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560-75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 (063) 281-7126
http://www.jnue.ac.kr/

전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063) 220-2300
http://koredu.jj.ac.kr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064) 754-3210 (F) (064) 756-3202
http://koredu.jejunu.ac.kr

조선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062) 230-7317
http://www.chosun.ac.kr/koredu/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660-756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 (055) 740-1219 (F) (055) 740-1210
http://www.cue.ac.kr/

청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361-71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2065
☎ (043) 299-0729 (F) (043) 299-0728
https://www.cje.ac.kr/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200-7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공지로 126

☎ (033) 260-6410 (F) (033) 264-3024

http://home.cnue.ac.kr/major/korean/index.jsp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2661 (F) (043) 264-2661

http://edu.chungbuk.ac.kr/department/?d__part=02

한국교원대학교 제2대학 국어교육과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043) 230-3517

http://kredu.knue.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345

http://www.hufske.com/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7405 (F) (042) 629-8396

http://kukkyo.hannam.ac.kr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20-1120

http://www.kledu.hanyang.ac.kr/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 (02) 320-1179
http://koredu.hongik.ac.kr

한국어교육학

경동대학교 한국어교원과
217-70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4길 46
☎ (033) 631-2000 (F) (033) 631-9542~3
http://korean.k1.ac.kr/

경북외국어대학교 글로벌어학부 대외한국어교육전공
702-320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861
☎ (053) 320-3600 (F) (053) 320-3610
http://www.kufs.ac.kr/

경주대학교 관광외국어대학 국제한국어교원학과
780-712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188
☎ (054) 770-5114 (F) (054) 748-5553
http://univ.gju.ac.kr/liter/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한국어학과(용인)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031) 201-2239 (F) (031) 204-8112
http://korean.khu.ac.kr

경희사이버대학교 국제지역학부 한국어문화학과
130-7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3299-8654 (F) (02) 959-0837
http://www.khcu.ac.kr/hallyu/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053) 580-5784
http://web.kmu.ac.kr/kor/

광신대학교 국제한국어교원학과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 소로 36
☎ (062) 605-1065
http://www.kwangshin.ac.kr/sub.asp?ksu=03010601

광주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어교육과
503-703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로 52
☎ (062) 670-2281
http://korean.gwangju.ac.kr/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제한국어교육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 850-6878 (F) (053) 850-6879
http://dukorean.daegu.ac.kr/

대구한의대학교 국제문화정보대학 한국어문학부 한국어학전공
712-715 경상북도 경산시 한의대로 1
☎ (053) 819-1305
http://kor.dhu.ac.kr/

동신대학교 문화관광대학 한국어교원학과
520-714 전라남도 나주시 건재로 185
☎ (061) 330-3617
http://korean.dsu.ac.kr/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인문사회계열 한국언어문화학과
120-0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 (02) 2287-0381
http://class.scau.ac.kr/language/

배재대학교 하워드대학(글로벌인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187
http://tkfl.pcu.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어문학부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40-3026~7 (F) (051) 640-3560
http://cms.pufs.ac.kr/korean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376, 3312
http://www.cufs.ac.kr/cmt/mdp/cmtmdp__index.jsp

선문대학교 국제평화대학 한국언어문화학과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541
http://korean.sunmoon.ac.kr/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학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 (043) 649-1760
http://korea.semyung.ac.kr/

세한대학교 한중교류대학 국제한국어교육학과
526-7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 (061) 469-1114
http://ch.db.ac.kr/

우석대학교 문화사회대학 한국어학과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063) 290-1311
http://korean.woosuk.ac.kr/

원광디지털대학교 한국문화학부 한국어문화학과(익산)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70) 7730-1977, 0096
http://lms.wdu.ac.kr/Home.do?cmd=deptMain

중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한국어학과
312-70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 (041) 750-6365 (F) (041) 750-6366
http://web.joongbu.ac.kr/hankook/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 한국어교육과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345
http://www.hufske.com/

한중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다문화교육학부
240-713 강원도 동해시 지양길 200
☎ (033) 520-9202
http://handa.hanzhong.ac.kr/

호남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학부 한국어학과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 (062) 940-5885

http://korean.honam.ac.kr/korean/

호남대학교 인문사회대학 한국어학과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 (062) 940-5216 (F) (062) 940-5005

http://kl.honam.ac.kr/

화신사이버대학교 문화학부 한국어교육학과

611-70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

☎ 1588-5215 (F) (051) 850-1499

http://www.hscu.ac.kr/home/department__12.jsp

언어학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언어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2170
http://kling.korea.ac.kr/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정보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518 (F) (051) 582-0572
http://linguistics.pusan.ac.kr/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6164 (F) (02) 882-2451
http://plaza.snu.ac.kr/~linguist/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6391
http://human.cnu.ac.kr/lang/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인지과학과(용인)

449-791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 (031) 330-4286
http://linguistics.hufs.ac.kr/

2. 전국 대학 국어 관련 대학원

국어국문학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성남)
461-701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031) 750-5023~4 (F) (031) 750-5502
http://www.gachon.ac.kr/major2/ilban/main/index.jsp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성심)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 (02) 2164-4201 (F) (02) 2164-4774
http://www.catholic.ac.kr/~cukgs/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031) 280-3988
http://www.grdkangnam.ac.kr/03/05__02.php

강릉원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강릉)
210-702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 (033) 640-2100 (F) (033) 640-2100
https://gukmun.gwnu.ac.kr/default.asp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033) 250-8120 (F) (033) 250-8120
http://korean.kangwon.ac.kr/

건국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서울)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02) 450-3324 (F) (02) 2049-6320
http://korea.konkuk.ac.kr/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서울)
120-70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9길 24
☎ (02) 390-5114
http://www.kyonggi.ac.kr/kgraduate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053) 950-5106
http://korean.knu.ac.kr

경상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1020
http://nongae.gsnu.ac.kr/~hk/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08-736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 (051) 663-4218
http://ks.ac.kr/korean/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961-0223 (F) (02) 963-3152
http://gukmun.khu.ac.kr/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1960
http://graduate.korea.ac.kr/index.jsp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8135 (F) (041) 855-2653
http://koredu.kongju.ac.kr/index.html

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 (033) 649-7200 (F) (033) 649-7196
http://cms.kd.ac.kr/user/grad/

광운대학교 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로 20
☎ (02) 940-5350 (F) (02) 911-1434
http://korean.kw.ac.kr/

국민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 (02) 910-4360
http://gds.kookmin.ac.kr/

군산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 (063) 469-4311
http://cms.kunsan.ac.kr/user/korean/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031) 8005-3020 (F) (031) 8021-3021
http://dkkorean.com/main/main.php

대구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712-70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053) 850-3381 (F) (053) 850-3381
https://dept.cu.ac.kr/user/kor/index.html

대구대학교 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 850-6010 (F) (053) 850-6019
http://grad.daegu.ac.kr/

대전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300-716 대전광역시 동구 대학로 62
☎ (042) 280-2210 (F) (042) 284-0180
http://home.dju.ac.kr/krlit/index.htm

대진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487-711 경기도 포천시 호국로 1007
☎ (031) 539-1570 (F) (031) 539-1570
http://grad.daejin.ac.kr/gradindex.do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2-714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 144길 33
☎ (02) 901-8181
http://graduate.duksung.ac.kr/

동국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8706
http://deptkorean.dongguk.edu/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 (02) 940-4107~8 (F) (02) 940-4109
http://grad.dongduk.ac.kr/grad/3/gra__3__2__1.html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051) 200-7019 (F) (051) 200-7033
http://korean.donga.ac.kr/

동의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051) 890-1210 (F) (051) 890-1209
http://korean.deu.ac.kr/grad__intro

명지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 (02) 300-0503 (F) (02) 300-0504
http://gs.mju.ac.kr/user/graduateuniv/index.action

목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 (042) 829-7490 (F) (042) 829-7490
http://gs.mokwon.ac.kr/sub/sub02/sub__0102.jsp

목포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34-729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 (061) 450-2110 (F) (061) 450-6449
https://admgraduate.mokpo.ac.kr/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114
http://kll.pcu.ac.kr/

부경대학교 대학원 일반과정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051) 629-5405
http://myweb.pknu.ac.kr/korean/

부산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507 (F) (051) 582-4823
http://bkorea.pusan.ac.kr/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 한국학과 한국언어문화전공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316
http://grad.smu.ac.kr/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220-702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 (033) 7300-0683, 0199
http://www.sangji.ac.kr/user/graduate/index.action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 (02) 705-8278
http://korea.sogang.ac.kr/

서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90-711 전라북도 남원시 광치동 720
☎ (063) 620-0255
http://wtiger.seonam.ac.kr/~gengrd/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 국어국문학과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6031, 6058 (F) (02) 878-1246
http://plaza.snu.ac.kr/~korean/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02) 2210-2268 (F) (02) 2210-2885
http://graduate.uos.ac.kr/graduate/main.jsp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683 (F) (041) 530-2968
http://graduate.sunmoon.ac.kr/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02) 760-0231
http://web.skku.edu/~korea/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02) 920-7069 (F) (02) 920-2082
http://www.sungshin.ac.kr/gras/html/main/index.html

세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 (043) 649-1120
http://smugrade.cafe24.com/gnuboard4/main.html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43-747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209
☎ (02) 3408-3301
http://graduate.sejong.ac.kr/grad/

수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445-74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안길 17
☎ (031) 220-2502 (F) (031) 220-2502
http://korean.suwon.ac.kr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02) 710-9310 (F) (02) 2077-7310
http://korean.sookmyung.ac.kr/

숭실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02) 820-0320 (F) (02) 824-4382
http://korlan.ssu.ac.kr/web/korlan

아주대학교 대학원 인문학계열 국어국문학과
443-82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 (031) 219-2802
http://human.ajou.ac.kr/grad/grad__1.jsp

안동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760-74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 (054) 820-5350 (F) (054) 823-1622
http://home.andong.ac.kr/kukmun/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2265
http://web.yonsei.ac.kr/kor/index.htm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2110 (F) (053) 810-4728
http://graduate.yu.ac.kr/graduate/index.htm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052) 259-2506 (F) (052) 259-1703
http://korea.ulsan.ac.kr/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5118 (F) (063) 850-7175
http://wgs.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2137~8 (F) (02) 3277-2164
http://www.ewhakukmun.ac.kr/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21-74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055) 320-3150 (F) (055) 320-3150
http://homepage.inje.ac.kr/~korea/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032) 835-8110, 8902 (F) (032) 835-8110
http://grad.incheon.ac.kr/cls/class57/front.jsp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한국어문학전공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8476 (F) (032) 860-8474
http://korean.inha.ac.kr/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3130 (F) (062) 530-3140
http://korean.jnu.ac.kr/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063) 270-3166 (F) (063) 270-3169
http://korean.jbnu.ac.kr/

제주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064) 754-2710 (F) (064) 725-1901
http://korean.jejunu.ac.kr/

조선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062) 230-6514
http://www.chosun.ac.kr/~grad/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 820-5084
http://build.cau.ac.kr/caukorean/

창원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641-7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 (055) 213-3100 (F) (055) 213-3109
http://portal.changwon.ac.kr/home/korean

청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586
☎ (043) 229-8308~9 (F) (043) 229-8310
http://www.cju.ac.kr/web/ggrad/degree__a__1__01

충남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5321
http://human.cnu.ac.kr/korean/sub/sub0302.jsp

충북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2090 (F) (043) 272-7709
http://gukmun.chungbuk.ac.kr/

한남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7311
http://gra.hannam.ac.kr/

한림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033) 248-1510 (F) (033) 256-3423
http://korean.hallym.ac.kr/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447-79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 (031) 379-0137 (F) (031) 379-0134
http://dept.hs.ac.kr/gradu3/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서울)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20-0730 (F) (02) 2220-0730
http://hykorea.hanyang.ac.kr/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

330-713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78

☎ (041) 560-8160

http://grad.hoseo.ac.kr/Pages/default.aspx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 (02) 320-1158 (F) (02) 320-1158

http://www.hongik.edu/grad/univ1/index.html

국어교육학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245-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033) 250-6610 (F) (033) 250-6610
http://kedu.kangwon.ac.kr/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2150 (F) (055) 772-2150
http://korlan.gnu.ac.kr/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과정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 (032) 540-1210 (F) (032) 553-2055
http://sub.ginue.ac.kr/graduate/index.jsp

경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780-712 경상북도 경주시 태종로 188
☎ (054) 770-5045~6
http://www.gju.ac.kr/graduate/hot/major3__2.jsp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어학계열 국어교육전공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961-0135~6 (F) (02) 964-6674
http://edu.khu.ac.kr/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2340
http://graduate.korea.ac.kr/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과
314-711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27
☎ (041) 850-1361
http://www.gjue.ac.kr/gra/main/main.jsp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과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8170 (F) (041) 855-2653
http://koredu.kongju.ac.kr/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210-701 강원도 강릉시 범일로 579번길 24
☎ (033) 649-7740
http://cms.kd.ac.kr/user/edugrad/index.html

대구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705-715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 (053) 620-1310 (F) (053) 620-1522
http://graduate.dnue.ac.kr/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경주)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 (054) 770-2119
http://gsedu.dongguk.edu/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교과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서울)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8746
http://duce.dongguk.edu/

목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 (042) 829-7430
http://egs.mokwon.ac.kr/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611-736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대로 24
☎ (051) 500-7210 (F) (051) 500-7211
http://gs.bnue.ac.kr/main/index.jsp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611 (F) (051) 583-2053
http://koredu.new21.net/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032
http://edu.smu.ac.kr/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02) 3475-2420
http://grad.snue.ac.kr/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7657~8 (F) (02) 883-7630
http://plaza.snu.ac.kr/~ed705/

서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361-74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 377-3
☎ (043) 299-8310 (F) (043) 299-8310
http://homepy.seowon.ac.kr/Graduate/index.htm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117
☎ (043) 649-1115~6, 1120
http://smugrade.cafe24.com/gnuboard4/main.html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540-95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 (061) 750-3114
http://gse.sunchon.ac.kr/web/gse/home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241 (F) (051) 999-5178
http://edugrad.silla.ac.kr/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3262~5 (F) (02) 2123-8657
http://gse.yonsei.ac.kr/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3190
http://koredu21.yu.ac.kr/index.jsp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063) 290-1230
http://www.woosuk.ac.kr/WoosukGraduate.do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6504
http://cms.wonkwang.ac.kr/teacher/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4210 (F) (02) 3277-4211
http://home.ewha.ac.kr/~kle/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교육전공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7840 (F) (032) 862-7840
http://edugrad.inha.ac.kr/Default.aspx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2410 (F) (062) 530-2419
http://love.chonnam.ac.kr/~edukorea/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협동과정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2410 (F) (062) 530-2419
http://love.chonnam.ac.kr/~edukorea/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560-75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50
☎ (063) 281-7126
http://gs.jnue.kr/index.sko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690-75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064) 754-3210 (F) (064) 756-3202
http://koredu.jejunu.ac.kr/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사라캠퍼스)
690-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일주동로 61
☎ (064) 754-4761 (F) (064) 754-4730
http://graduate.jejunu.ac.kr/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전공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062) 230-7317
http://www.chosun.ac.kr/~edu/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660-756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 (055) 740-1219 (F) (055) 740-1219
http://grad.cue.ac.kr/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043) 229-8315
http://www.cju.ac.kr/web/gsedu/home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초등국어교육전공
200-703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공지로 126
☎ (033) 260-6410 (F) (033) 264-3024
http://www.cnue.ac.kr/graduate/index.jsp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2661 (F) (043) 264-2661
http://gsedu.chungbuk.ac.kr/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교육과
363-791 충청북도 청원군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 (043) 230-3517
http://kredu.knue.ac.kr/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7405 (F) (042) 629-8396
http://edupro.hannam.ac.kr/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20-1120
http://www.sgs.hanyang.ac.kr/index.html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 (02) 320-1179

http://www.hongik.edu/grad/univ4/index.html

한국어교육학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 (02) 2164-4173, 4176, 4787
http://ged.catholic.ac.kr/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 한국어교육학과
420-743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지봉로 43
☎ (02) 2164-4106, 4177 (F) (02) 2164-4759
http://www.catholic.ac.kr/~cukgs/

건양대학교 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320-711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
☎ (041) 730-5251 (F) (041) 730-5255
http://grad.konyang.ac.kr/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
407-753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로 62
☎ (032) 540-1342~4 (F) (032) 540-1345
http://sub.ginue.ac.kr/graduate/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어학계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031) 201-2239 (F) (031) 204-8112
http://korean.khu.ac.kr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제한국언어문화학과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031) 201-2239 (F) (031) 204-8112
http://korean.khu.ac.kr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130-73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3299-8707
http://grad.khcu.ac.kr/gkorean/

계명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053) 580-5579
http://korean.kmu.ac.kr/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 (051) 990-2127
http://web.kosin.ac.kr/Web/Grad02__Home.php

공주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과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8170 (F) (041) 855-2653
http://koredu.kongju.ac.kr/index.html

광주여자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한국어문학과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 (062) 950-3801~2 (F) (062) 950-3803
http://graduate.kwu.ac.kr

군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170
☎ (063) 469-4306
http://cms.kunsan.ac.kr/user/gradu4/index.html

동덕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학과 협동과정
136-714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3길 60
☎ (02) 940-4340
http://cafe.naver.com/ddkorean/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051) 200-7019 (F) (051) 200-7033
http://gse.donga.ac.kr/

배재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육전공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187
http://edu.pcu.ac.kr/

배재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187
http://tkfl.pcu.ac.kr/

부산대학교 대학원 학과 간 협동과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2-2010
http://www.pusan.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40-3358 (F) (051) 645-6227
http://edu.pufs.ac.kr/html/02__class/class__05__01.aspx

부산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40-3357 (F) (051) 645-6227
http://gra.bufs.ac.kr/html/02__class/class__01__07.aspx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032
http://edu.smu.ac.kr/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한국학과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361
http://grad.smu.ac.kr/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인문계열 국어국문학과(한국어교육전공)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 (02) 970-5411 (F) (02) 970-5970
http://www.swu.ac.kr/grd/new/department__01.html

선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605 (F) (041) 530-2968
http://graduate.sunmoon.ac.kr/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과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602 (F) (041) 530-2968
http://graduate.sunmoon.ac.kr/

세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한국어학과
526-7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 (061) 469-1500~3 (F) (061) 462-1507
http://grad.sehan.ac.kr/?mid=C001__home

순천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540-950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255
☎ (061) 750-3144
http://gse.sunchon.ac.kr/index.jsp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02) 820-0288~9 (F) (02) 826-4269
http://edu.ssu.ac.kr/web/edu/index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3262~5 (F) (02) 2123-8657
http://gse.yonsei.ac.kr/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언어정보학 협동과정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3513 (F) (02) 393-5001
http://ilis.yonsei.ac.kr/~linginfo/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학 협동과정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4113 (F) (02) 2123-4113
http://koreanstudies.yonsei.ac.kr/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과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3541 (F) (053) 810-4788
http://kle.yu.ac.kr/kle/index.htm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문화대학원 한국어지도학과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063) 290-1218 (F) (063) 290-1288
http://www.woosuk.ac.kr/WoosukGraduate.do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2118~9 (F) (02) 3277-2841
http://ged.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3652, 3956 (F) (02) 365-0942
http://gsis.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외국어교육 특수대학원 한국어교육과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6907~10 (F) (02) 3277-6911
http://tfl.ewha.ac.kr/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한국어교육학과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032) 835-8110, 8902
http://grad.incheon.ac.kr/cls/class57/front.jsp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8391~2
http://edugrad.inha.ac.kr/

전남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교육학 협동과정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2410 (F) (062) 530-2419
http://altair.chonnam.ac.kr/~edukorea/

중부대학교 인문산업대학원 한국어학과
312-70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 (041) 750-6526~7 (F) (041) 752-0558
http://www.joongbu.ac.kr/grad/sub03__03.do

중부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국문학과
312-702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101
☎ (041) 750-6526~7 (F) (041) 752-0558
http://www.joongbu.ac.kr/grad/sub03__01.do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660-756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 (055) 740-1219 (F) (055) 740-1219
http://grad.cue.ac.kr/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5320~1
http://egc.cnu.ac.kr/

충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국어국문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5046
http://human.cnu.ac.kr/korean/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345
http://builder.hufs.ac.kr/user/gse/index.action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7405
http://edupro.hannam.ac.kr/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어문학과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 (02) 760-4017 (F) (02) 760-4480
http://gs.hansung.ac.kr/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어문학계열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전공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20-0262 (F) (02) 2297-7137
http://gse.hanyang.ac.kr/

호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한국어교육학과

506-71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로 330
☎ (062) 940-5951 (F) (062) 940-5953
http://graduate.honam.ac.kr/

언어학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언어학과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2170
http://graduate.korea.ac.kr/

부산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언어학과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518 (F) (051) 582-0572
http://home.pusan.ac.kr/~linguistics/main/main.html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언어학과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6164
http://plaza.snu.ac.kr/~linguist/

충남대학교 대학원 인문사회계열 언어학과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6391
http://human.cnu.ac.kr/lang/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인문계열 언어인지과학과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384~7 (F) (02) 2173-3369
http://www.hufs.ac.kr/gra/

3. 전국 한국어 교육 관련 기관

한국어 교육 기관

가나다한국어학원
121-81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로 25길 15
☎ (02) 332-6003 (F) (02) 332-6004
http://www.ganadakorean.com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461-701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42
☎ (031) 750-5645
http://gilc.gachon.ac.kr/

강남대학교 평생어학교육원 한국어교육원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031) 275-7400 (F) (031) 899-7079
http://www.edukangnam.ac.kr/

강릉원주대학교 한국어교육원
210-702 강원도 강릉시 죽헌길 7
☎ (033) 640-2766 (F) (033) 640-2768
http://www.gwnu.ac.kr/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02) 450-3075 (F) (02) 455-6709

http://kfli.konkuk.ac.kr

경기대학교 어학교육원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 (031) 249-9114

http://www.kyonggi.ac.kr/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217-70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 (033) 631-2000 (F) (033) 639-0183

http://nationalkor.k1.ac.kr/?__page=35

경북대학교 어학원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053) 950-6731~3

http://lang.knu.ac.kr/

경상대학교 국제어학원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0723~8, 0740~1 (F) (055) 772-0729

http://english.gsnu.ac.kr/index.html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961-0081 (F) (02) 959-9018

http://korea.iie.ac.kr/kor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053) 580-6352 (F) (053) 580-5909
http://intlcenter.kmu.ac.kr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1455 (F) (02) 921-0534
http://www.korea.ac.kr/do/Index.do

광운대학교 언어교육원
139-701 서울특별시 노원구 광운길 26
☎ (02) 940-5306 (F) (02) 940-5303
http://kile.kw.ac.kr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 (02) 910-5803, 5806 (F) (02) 910-5810
http://iie.kookmin.ac.kr/

김포대학 국제교육원
415-761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김포대학로 97
☎ (031) 999-4114 (F) (031) 989-4337
http://www.kimpo.ac.kr/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031) 8005-2114
http://k2.dankook.ac.kr/user/ildku/

대구대학교 국제교류처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053) 850-5681~5688 (F) (053) 850-5689
http://dia.daegu.ac.kr/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3114 (F) (02) 2277-1274
http://www.dongguk.edu/main/main.jsp

동서대학교 어학당

617-716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
☎ (051) 320-2097 (F) (051) 315-8450
http://kowon.dongseo.ac.kr/%7Ekji/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051) 200-7000
http://global.donga.ac.kr/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부민캠퍼스)

602-76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 (051) 240-8452 (F) (051) 240-8457
http://www.donga-edu.com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680-7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051) 890-1770 (F) (051) 890-6211
http://language.deu.ac.kr/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20-0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 (02) 379-0004 (F) (02) 379-2211
http://language.scau.ac.kr

명지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학당
120-7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거북골로 34
☎ (02) 300-1513 (F) (02) 300-1516
http://www.mju.ac.kr/eng/korean/Regularprogram.jsp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42) 520-5730
http://www.pcu.ac.kr/~kli

부경대학교 외국어교육원
608-737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 (051) 620-6952 (F) (051) 628-6261
http://web.pknu.ac.kr/~flec/main/school__main.htm

부산대학교 언어교육원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3301 (F) (051) 514-3944
http://pnuls.pusan.ac.kr/pnuls.htm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33-3231 (F) (051) 633-3233
http://www.bufs.ac.kr/html/00__main/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075-2198 (F) (02) 764-7856
http://lsp.smu.ac.kr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센터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764-7825 (F) (02) 764-7826
http://cklc.smu.ac.kr/sub06.php

서강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한국어교육과정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 (02) 705-8088 (F) (02) 701-6692
http://sgedu.sogang.ac.kr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5483 (F) (02) 871-6907
http://language.snu.ac.kr/pages/SN00001__00.jsp

서울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139-774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621
☎ (02) 970-7802 (F) (02) 970-5904
http://swell.swu.ac.kr/klep

서울한국어아카데미

135-080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34
☎ (02) 563-3226 (F) (02) 563-3227
http://www.seoul-kla.com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30-719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277
☎ (041) 559-1214 (F) (041) 559-1339
http://kli.sunmoon.ac.kr/

성공회대학교 아시아언어문화센터 한국어학당
152-716 서울특별시 구로구 연동로 320
☎ (02) 2610-4802 (F) (02) 2610-4135
http://studykorean.skhu.ac.kr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과정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02) 760-1341 (F) (02) 760-1300
http://home.skku.edu/~sli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02) 920-7302 (F) (02) 920-2111
http://www.sungshin.ac.kr/slc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02) 710-9164~5, 9818, 9662 (F) (02) 710-9278
http://www.lingua-express.com/

순천향대학교 국제교육교류본부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 (041) 530-1114 (F) (041) 542-4615
http://www.sch.ac.kr/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755 (F) (051) 999-5753
http://www.klec.silla.ac.kr

신라대학교 한국어학부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754 (F) (051) 999-5079
http://klc.silla.ac.kr/index.jsp

아주대학교 어학교육원 한국어학당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 (031) 219-1677 (F) (031) 219-1674
http://alsi.ajou.ac.kr

안동대학교 어학원

760-749 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1375
☎ (054) 820-5114 (F) (054) 820-1629
http://korea.andong.ac.kr/kr/main.html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3470
http://www.yskli.com

영남대학교 한국어교육원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7883 (F) (053) 810-2028
http://kli.yu.ac.kr

영산대학교 언어교육원

612-74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순환로 142
☎ (051) 540-7251 (F) (051) 543-9347
http://ile.ysu.ac.kr/korean__school.htm

울산대학교 국제교류원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052) 277-3101
http://int.ulsan.ac.kr/international/korean__1.htm

원광대학교 어학원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5114 (F) (063) 850-6666
http://langcenter.wonkwang.ac.kr/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3184 (F) (02) 3277-2855
http://elc.ewha.ac.kr/

인천대학교 인천한국어학당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032) 835-9580~2 (F) (032) 585-1149
http://www.uikorean.kr/

인하대학교 언어교육원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8272 (F) (032) 875-1555
http://site.inha.ac.kr/ltc/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3648 (F) (062) 530-3629

http://www.jnu.ac.kr/Pages/Default.aspx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지구 백제대로 567

☎ (063) 270-3593 (F) (063) 270-3665

http://lec.chonbuk.ac.kr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 820-6237 (F) (02) 826-3303

http://www.cau.ac.kr/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641-7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 (055) 279-7895

http://www.changwon.ac.kr/~lang/

충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6158 (F) (042) 822-0986

http://dream.cnu.ac.kr/

충북대학교 국제어학원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3214

http://cie.chungbuk.ac.kr/

평택대학교 사회교육원

450-701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031) 659-8006 (F) (031) 659-8003
http://home.ptu.ac.kr/~edu/

포항공과대학교 어학센터

790-330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청암로 77
☎ (054) 279-8004
http://poslec.postech.ac.kr/

한국어교육문화원

135-894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173길 15
☎ (02) 511-9314 (F) (02) 511-7096
http://www.edukorean.com/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과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961-4174 (F) (02) 962-0575
http://www.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260 (F) (02) 2173-2257
http://www.hufs.ac.kr/hufskorean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8346 (F) (042) 629-8347
http://www.hankls.co.kr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033) 249-2973 (F) (033) 252-8232
http://www.klec.or.kr

한서대학교 어학연수원
356-70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 1로 46
☎ (041) 660-1144 (F) (041) 660-1149
http://www.hanseo.ac.kr/index.htm

한성대학교 언어교육원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 (02) 760-4374, 5595 (F) (02) 760-4299
http://language.hansung.ac.kr/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90-1663 (F) (02) 2290-1664
http://www.hanyang.ac.kr

혜천대학교 한국어학원
302-715 대전광역시 서구 혜천로 100
☎ (042) 580-6114
http://www.hcc.ac.kr/

호서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학당
336-795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호서로 79번길 20
☎ (042) 540-5273
http://hoseoflec.com/pro/pro03-01.php

호서대학교 한글아카데미

137-8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
☎(070) 8299-8633~4 (F) (02) 6670-2332
http://www.hangeulsam.com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02) 320-1368 (F) (02) 320-1370
http://huniv.hongik.ac.kr/~korean/index.htm

한국어 교사 양성 과정

가톨릭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760-711 경상북도 안동시 상지길 45
☎ (054) 851-3071~3 (F) (054) 856-4034
http://www.csj.ac.kr/

강남대학교 평생어학교육원 한국어교육원
446-702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 (031) 899-7070~6
http://www.edukangnam.ac.kr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 (033) 250-6114 (F) (033) 251-9556
http://www.kangwon.ac.kr/

강원대학교 평생교육원(삼척)
245-711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346
☎ (033) 570-6114 (F) (033) 572-8620
http://samcheok.kangwon.ac.kr/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충주)
380-701 충청북도 충주시 충원대로 268
☎ (043) 840-3114
http://www.kku.ac.kr/

건국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143-701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 (02) 450-3075 (F) (02) 450-4170
http://kfli.konkuk.ac.kr/

건양대학교 평생교육대학
320-711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
☎ (041) 730-5114 (F) (041) 733-2070
http://www.konyang.ac.kr/

경동대학교 국제어학원
217-705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 4길 46
☎ (033) 631-2000 (F) (033) 631-9542
http://www.k1.ac.kr/

경북대학교 어학교육원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 (053) 950-6731
http://lang.knu.ac.kr/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660-701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 (055) 772-0114
http://www.gnu.ac.kr/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경기)
430-739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막로 155
☎ (031) 470-6151~3 (F) (031) 470-6155
http://www.ginue.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국제캠퍼스)

446-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 (031) 201-2114

http://www.khu.ac.kr/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과정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02) 961-0081~3 (F) (02) 959-9018

http://korea.iie.ac.kr/

계명대학교 국제교육센터 한국어학당

704-70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 (053) 580-6353, 6355 (F) (053) 580-5909

http://web.kmu.ac.kr/kintlcenter/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 (02) 3290-2971

http://klcc.korea.ac.kr/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

☎ (051) 990-2114 (F) (051) 911-2525

http://web.kosin.ac.kr

공주대학교 국제교육원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6030 (F) (041) 850-6039

http://lei.kongju.ac.kr/

공주대학교 원격교육연수원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8742
http://cyber.kongju.ac.kr/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원
314-701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 (041) 850-6030 (F) (041) 850-6039
http://www.hansaram.kr/

광주여자대학교 대학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506-713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 (062) 956-2500 (F) (062) 953-2218
http://www.kwu.ac.kr/

국민대학교 국제교육원
136-702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 (02) 910-4114
http://iie.kookmin.ac.kr/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사회교육원
151-869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548
☎ (02) 839-0388 (F) (02) 839-0385
http://ktu.ac.kr/

군산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573-701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558
☎ (063) 469-4113
http://www.kunsan.ac.kr/

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740-704 경상북도 김천시 대학로 214
☎ (054) 420-4000 (F) (054) 420-4003
http://www.gimcheon.ac.kr/

단국대학교 국제어학원

448-701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031) 8005-2114
http://www.dankook.ac.kr/

대구가톨릭대학교 어학교육센터

712-702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하양로 13-13
☎ (053) 850-3114 (F) (053) 852-8030
http://www.cu.ac.kr/

대불대학교 평생교육원

526-702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 (061) 469-1114 (F) (061) 462-2510
http://www.daebul.ac.kr/

동국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경주)

780-714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 (054) 770-2114 (F) (054) 770-2001
http://web.dongguk.ac.kr/

동국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 (02) 2260-3114 (F) (02) 2227-1274
http://www.dongguk.edu/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 (051) 200-7180
http://www.donga.ac.kr/

동의대학교 외국어교육원 한국어한국문학교육부

614-71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
☎ (051) 890-1770~2 (F) (051) 894-6211
http://language.deu.ac.kr/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20-09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37길 60
☎ (02) 1588-7101
http://www.scau.ac.kr/

목원대학교 국제교육원

302-729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 (042) 829-7114 (F) (042) 825-5020
http://www.mokwon.ac.kr/

배재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 (069) 9567-5231 (F) (069) 5600-3987
http://eckfl.pcu.ac.kr/

부산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 (051) 510-1984 (F) (051) 510-3303
http://ili.pusan.ac.kr/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608-738 부산광역시 남구 석포로 15

☎ (051) 640-3000 (F) (051) 640-3233

http://klce.bufs.ac.kr/html/00__main/

삼육대학교 사회교육원

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 (02) 3399-3636 (F) (02) 979-5318

http://www.syu.ac.kr/

상명대학교 한국언어문화교육원

110-743 서울특별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02) 2287-5114

http://www.smu.ac.kr/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220-708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길 83

☎ (033) 730-0591

http://www.sangji.ac.kr/user/edu/index.action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 (02) 705-8114

http://www.sogang.ac.kr/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137-742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96

☎ (02) 3475-2312~3 (F) (02) 3475-2387

http://www.lifelongstudy.ac.kr/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지도자과정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5114 (F) (02) 885-5272
http://www.snu.ac.kr/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 (02) 880-8570, 5488
http://lei.snu.ac.kr/klec/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민대학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02) 2210-2114
http://www.uos.ac.kr/

서울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422-742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89번길 52
☎ (032) 340-9114 (F) (032) 349-9400
http://www.stu.ac.kr/

선문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36-708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선문로 221번길 70
☎ (041) 530-2114 (F) (041) 541-7424
http://www.sunmoon.ac.kr/

성결대학교 언어교육원
430-7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성결대학로 53
☎ (031) 467-8114
http://www.sungkyul.ac.kr/

성균관대학교 성균어학원 한국어과정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 (02) 760-1345 (F) (02) 760-1300

http://home.skku.edu/~sli/

성신여자대학교 국제문화교육원

136-74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 (02) 920-7114

http://www.sungshin.ac.kr/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

390-711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65

☎ (043) 649-1756, 1205 (F) (043) 649-1756

http://sem.itshome.co.kr/

숙명여자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 (02) 710-9165 (F) (02) 710-9278

http://www.lingua-express.com/

순천향대학교 평생교육원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 (041) 530-3008 (F) (041) 534-3010

http://lec.sch.ac.kr/lms/

순천향대학교 한국어교육원

336-745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순천향로 22

☎ (041) 530-1114 (F) (041) 542-4615

http://sgee.zc.bz/index.php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156-743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369

☎ (02) 820-0281 (F) (02) 817-4524

http://lle.ssu.ac.kr/

신라대학교 한국어교육센터

617-736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051) 999-5755~6 (F) (051) 999-5753

http://klec.silla.ac.kr/

아주대학교 한국어학당

443-74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99

☎ (031) 219-1675

http://kli.ajou.ac.kr/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430-71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37번길 22

☎ (031) 467-0700

http://www.anyang.ac.kr/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 (02) 2123-8550~2 (F) (02) 2123-8662

http://ilre.yonsei.ac.kr/

영남대학교 외국어교육원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 (053) 810-1634~9

http://fli.yu.ac.kr

영동대학교 사회교육원

370-701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대학로 310
☎ (043) 740-1114
http://www.youngdong.ac.kr/

우석대학교 한국어교육원

565-701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063) 290-1114 (F) (063) 291-9312
http://www.woosuk.ac.kr/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052) 277-3101
http://www.ulsan.ac.kr/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 (052) 259-1084 (F) (052) 224-2064
http://utbi.ulsan.ac.kr/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570-749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460
☎ (063) 850-5513
http://inform.wonkwang.ac.kr/

원광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570-75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 (063) 840-1114 (F) (063) 840-1566
http://www.wu.ac.kr/

원광보건대학교 다문화복지과
570-750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 514
☎ (063) 840-1114 (F) (063) 840-1566
http://www.wu.ac.kr/

위덕대학교 어학교육원
780-713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동해대로 261
☎ (054) 760-1114
http://www.uu.ac.kr/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2114
http://www.ewha.ac.kr/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교육부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 (02) 3277-3183 (F) (02) 3277-2855
http://elc.ewha.ac.kr/korean/ko/index.asp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621-749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 (055) 334-7711 (F) (055) 334-0712
http://www.inje.ac.kr/

인천대학교 한국어학당
406-77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 (032) 835-8114 (F) (032) 835-0715
http://www.incheon.ac.kr/

인하대학교 평생교육원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 (032) 860-8292 (F) (032) 862-0080
http://conedu.inha.ac.kr/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5114 (F) (062) 530-1189
http://www.korjnu.kr/

전남대학교 언어교육원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 (062) 530-3631~3 (F) (062) 530-3629
http://language.jnu.ac.kr/language/main/mainFrame10.asp

전북대학교 언어교육원

561-756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 (063) 270-2250, 3593 (F) (063) 270-3665
http://lec.chonbuk.ac.kr/

전주기전대학 평생교육원

560-701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267
☎ (063) 280-5208
http://www.kijeon.ac.kr/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660-75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 1577-7177 (F) (063) 220-2464
http://www.jj.ac.kr/

중앙대학교 한국어교육원

156-756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 (02) 820-6237, 6274 (F) (02) 822-6488

http://korean.cau.ac.kr/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 (064) 754-2704 (F) (064) 702-5508

http://psg.cheju.ac.kr/

조선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한국어학당

501-759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309

☎ (062) 230-6519

http://ih.chosun.ac.kr/

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660-756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길 3

☎ (055) 740-1410~3

http://www.cue.ac.kr/

창원대학교 어학교육원

641-773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학로 20

☎ (055) 213-2441~3 (F) (055) 213-2449

http://www.changwon.ac.kr/~lang/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

467-744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청강로 162

☎ (031) 637-1114 (F) (031) 637-9696

http://www.ck.ac.kr/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043) 229-8311 (F) (043) 229-8310

http://www.koreanlab.or.kr/

청주대학교 평생교육원

360-76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 (043) 229-8778 (F) (043) 229-8961

http://www.chongju.ac.kr/education/

총신대학교 한국어학당

156-879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143

☎ (02) 595-5789 (F) (02) 595-5313

http://www.csklsi.ac.kr/

충남대학교 언어교육원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8805 (F) (042) 822-0986

http://dream.cnu.ac.kr/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교육원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 (042) 821-5114

http://www.cnu.ac.kr/

충북대학교 국제교육원

361-76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 (043) 261-3214

http://cie.chungbuk.ac.kr/

침례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305-358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190
☎ (042) 828-3114 (F) (042) 825-1354
http://longlife.kbtus.ac.kr/

평택대학교 국제교육원

450-701 경기도 평택시 서동대로 3825
☎ (031) 659-8114 (F) (031) 659-8011
http://www.ptu.ac.kr/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10-791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86
☎ (02) 3668-4431 (F) (02) 3668-4437
http://cle.knou.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 (02) 2173-2260 (F) (02) 2173-2257
http://www.hufs.ac.kr/hufskorean/

한남대학교 한국어학당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 (042) 629-8346
http://hankls.hnu.kr/

한림대학교 국제교육원 한국어교육센터

200-702 강원도 춘천시 한림대학길 1
☎ (033) 248-2973 (F) (033) 252-8232
http://www.klec.or.kr/kr/main.php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305-719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125

☎ (042) 821-1602 (F) (042) 821-1671

http://lec.hanbat.ac.kr/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

356-706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한서 1로 46

☎ (041) 660-1144 (F) (041) 660-1149

http://home.hanseo.ac.kr/edulife/

한신대학교 평생교육원

447-791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길 137

☎ (031) 379-0191 (F) (031) 379-0193

http://www.hanshin.ac.kr:8080/~life/index.htm

한양대학교 국제어학원 한국어과정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 (02) 2220-1663~6 (F) (02) 2220-1664

http://www.hyili.hanyang.ac.kr/

한일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565-706 전라북도 완주군 상관면 왜목로 726-15

☎ (063) 230-5400 (F) (063) 284-7863

http://www.hanil.ac.kr/

호서대학교 산업문화교육원

137-867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9

☎ (041) 540-9746

http://www.hangeulsam.com/

홍익대학교 국제언어교육원

121-7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 (02) 320-1363 (F) (02) 320-1374
http://huniv.hongik.ac.kr/

화신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611-708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분로 191번길 1
☎ 1588-5215 (F) (051) 850-1499
http://www.hscu.ac.kr/

Ⅴ.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국어 관련 학회 및 단체

◇ 학회/단체의 공식 명칭

1. 주소
2. 설립 목적
3. 설립일
4. 대표
5. 회원 수
6. 정기 간행물
7. 기타 간행물
8. 2011년도 사업

◇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 [200-70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2호관 309-1호
   /전화 033-250-8137~8 /전송 033-250-8137
   /전자 우편 korcon@kangwon.ac.kr
   /누리집 http://kcc.kangwon.ac.kr
2. (1) 강원도민의 국어 사용 능력 향상
   (2)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3) 강원도 내 거주 외국인 대상 한국어 교육
   (4) 강원 지역어 조사 및 연구
3. 2007년 1월 25일
4. 남기탁
8. (1) 국어 상담 및 글쓰기 상담
   (2) 자체 국어문화학교(찾아오는 국어문화학교) 6회 진행
   (3)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9기
   (4)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찾아가는 다문화학교 14회 진행
   (5) 찾아가는 새터민학교 16회 진행
   (6) 공문서 바로 쓰기 강좌 4회 진행(국어 책임관 연계 사업)

(7) 외국인 대상 한국 문화·한국어 교육
(8) 제5회 외국인 글짓기 및 장기 자랑 대회
(9) 국어 사용 실태 조사
(10) 법무부 지정 사회 통합 프로그램(KIIP) 거점 운영 기관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1. [121-719]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12층(공덕동 재정회관빌딩)
/전화 02-3275-0815(사무처), 02-3275-1919(편찬실)
/전송 02-3275-3715
/누리집 http://www.gyeoremal.or.kr
2.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는 겨레말을 남과 북이 공동으로 채집·연구하고 『겨레말큰사전』을 편찬함으로써 겨레의 말과 글의 통일과 모국어 공동체의 형성, 나아가 남북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5년 2월 20일
4. 고은
5. 30명
6. (1) 겨레말(연 1회): ~9호
(2) 겨레말큰사전 정기 누리판(연 6회): ~36호
7. (1) 언론 보도 자료집
8. (1) 사업 내용: 겨레말큰사전 원고 집필, 말뭉치 구축 및 정비, 내외 지역어·문헌어 조사 등
(2) 회의 및 행사
1) 제49~55차 남측 편찬 위원회 회의(총 7회 개최, 1월 1일~12월 31일)
2) 『겨레말큰사전』 남북 언어 차이 체험 교실(6월 3일, 일산 안곡중학교)
3) 남북 언어 차이 조사를 위한 자문 회의(12월 21일, 사업회 회의실)
4) 사전 편찬 기관 실무자 초청 자문 회의(12월 27일, 사업회

회의실)

◇ 경북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 [702-701]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대학원동 108호
   /전화 053-950-7497~8 /전송 053-950-7499
   /전자 우편 klrc@knu.ac.kr
   /누리집 http://knukorean.knu.ac.kr
2. 국어 기본법에 의거하여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국가의 의지에 부응하고, 경북대학교 구성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경북대학교 발전에 이바지하며, 대구 경북 지역 주민의 국어 능력 향상에 기여한다.
3. 2005년 6월
4. 남길임
5. 상근 4명(책임 연구원 1명, 상근 상담원 2명, 행정 조교 1명), 비상근 10명
7. (1) 2011 국어 책임관 활동 사업 보고서(대구시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사용 개선 사업)
   (2) 대구시 공공 기관 누리집 공공 언어 바로 쓰기 사례 안내서
   (3) 대구시 소재 문화재 해설문 다듬기 결과 보고서
   (4) 외국인을 위한 글쓰기 교실 교재
   (5) 국어문화학교 어문 규범 특강 교재
   (6) 한글날 UCC 공모전 수상작 CD
8. (1) 국어 상담 및 교열 업무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3) 교직원 및 지역민 국어 능력 향상 사업('국어 생활 이야기' 매주 월요일마다 전자 우편으로 발송)
   (4) 대구시 문화재 해설문 다듬기 사업
   (5) 청소년 국어 문화 교육 사업
   (6) 대구 거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7) 공공 기관 누리집 언어 개선 사업

(8) 청소년 언어 사용 실태 조사 사업
(9) 청소년 토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0) 공무원 공공 언어 바로 쓰기 교육 사업
(11) 국어 능력 인증 시험 대구 경북 지역 시행 관리
(12) 경북대학교 유학생 한국어 능력 시험 개발 및 시행
(13) 한국어 교육 전문가 과정 운영
(14) 우리 지역 알리기 문구 공모 및 새 도로명 손 글씨 공모

◇ 경상대학교 국어문화원

1. [60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301동 103호
   /전화 055-772-0761~2 /전송 055-772-0769
   /전자 우편 ckc@gnu.ac.kr
   /누리집 http://ckc.gnu.ac.kr
2. 국어문화원의 운영은 국어 문화를 연구하고 발굴·보존·보급하며, 국어 기본법에 따른 여러 가지 표준 어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공 기관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 등에게 계도·교육·상담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사회의 국어 문화에 관련한 전반적인 조사·연구·상담할 연구 기관이 시급하다. (2) 국어 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 국어문화원과 표준 국어 어법 교육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3) 재외 동포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국어 강의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와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4) 국어 기본법에 따른 국어 능력 검정 자격시험에 대비해야 할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5) 오늘날 취업에서 점차 강조되어 가고 있는 국어 사용 능력(화법, 논술, 표준 어법 등)을 기르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관이 필요하다.
3. 2005년 7월
4. 황병순(경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5. 18명(행정 직원 2명을 포함한 사무국 직원 수)
7. (1) 한국어 교육 방법론 세미나 자료집

(2) 취업 대비 국어 특강(상반기/하반기)
(3)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자료집
(4) 국어 책임관 교육 과정 자료집
(5) 지역어 보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6) 진주 지역의 제례 문화(소책자)
(7) 2011년 경남 국어 책임관·경상대 국어문화원 합동 세미나 자료집

8. (1) 국어 상담, 교정 및 윤문 연중 시행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3) 청소년 대상 국어 문화 교육
(4) 한글날 기념 우리말 겨루기 사업
(5) 지역어 보전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6) 진주 지역 언어문화 총서 2: 진주 지역의 제례 문화
(7) 취업 대비 국어 특강
(8) 경남 외국인 말하기 대회
(9) 국어 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협의회
(10) 공공 언어 개선 지원 사업
(11)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사업
(12) 경상대학교 신문사 교열 및 교정
(13) 경상남도 지역 한국어 강사 파견 관리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1. [130-70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
/전화 02-961-0081~2 /전송 02-959-9018
/전자 우편 iie@khu.ac.kr
/누리집 http://www.iie.ac.kr
2.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국제화된 세계 시민 양성을 교육 이념으로 경희인의 국제화와 외국인 및 재외 동포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한국어, 외국어, 한국학에 대한 질 높은 연구와 교육을 설립 목표로 한다.

3. 1970년 3월
4. 김중섭
5. 147명
6. 국제교육소식(연 4회): ~31호
7. (1) 한국어 교재 및 워크북: 한국어 초급 1·2, 중급 1·2, 고급 1·2
   (2) 언어 기능별 한국어 교재: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3) 언어권별 한국어 교재: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8. (1) 정부 기관 위탁 한국어 교육
   1) 대한민국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한국어 연수
   2) 한국예술종합학교 장학생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3)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어문화 전문가 양성 과정
   4) 대한민국 정부 초청 중국 주요 대학 한국어학과 대학생 한국어 연수
   5) 중국 한국어 교육자 연수
   6) 국외 한국어 교원 초청 연수
   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어 연수
   8)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동반자 한국어 특별 과정
   9) 결혼 이주민 한국어·한국 문화 연수
   10) 서울글로벌센터 한국어 과정
   (2) 기타 위탁 한국어 교육
   1) 한국프로농구연맹(KBL) 위탁 한국어 교육
   2) 일본 대학 한국어 연수
   3) 주식회사 삼성물산 한국어 과정
   4) KIST 한국어 과정
   (3) 주한 외교관 한국어·한국 문화 강좌
   (4) 한국어 언어 능력 강화 및 평가 프로그램
   (5) 한국어 몰입 교육 프로그램
   (6) 한국학 지원 프로그램 운영(북미, 유럽, 아시아)
   (7) 한일 정부 공동 일본 공과 대학 학부 유학생 파견 국내 예비 교육 과정

(8) 한일 학술 문화 및 청소년 교류 일본 대학생 초청 연수
(9) 해외 입양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10) 서울특별시 교육청 위탁 중등 교사 영어 연수
(11) 초·중급 영어 학습자를 위한 심화 과정
(12) 전국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경희 국제 문화 축제 개최

◇ 고려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관 109A
/전화 02-3290-1648
/전자 우편 rili@korea.ac.kr
/누리집 kuweb.korea.ac.kr/rili
2. 언어정보연구소는 자연 언어 텍스트 및 정보 처리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고, 그 인문·사회 과학적 활용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3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어 및 각종 외국어를 대상으로 대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자연 언어 처리 및 인문·사회 과학적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이들 자연 언어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아울러 전자적 텍스트 및 정보 처리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을 개발하고, 언어 습득 및 교육에 대한 이론 언어학적인 연구도 병행한다. 또한, 국내외 학계와의 활발한 협력 및 교류를 통해 정보화 시대의 첨단 과제들을 탐구하며 언어학, 문학, 전산학, 심리학, 사회학, 매스 커뮤니케이션 등 언어 정보의 분석 및 활용과 관련된 학문 분야의 협력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993년 10월 16일
4. 유석훈(고려대 언어학과 교수)
6. 언어정보(연 2회): ~13호
8. (1) 언어정보 12호 발행(3월 31일), 13호 발행(9월 30일)
(2) 월례 발표회(5월 24일, 고려대학교)

(3) 세미나, “언어 유형론과 한국어 문법 연구”(5월 23일, 고려대학교)
(4) 세미나, “근대 한국어 신어·신개념 데이터베이스 구축 구상”(6월 29일, 고려대학교)
(5) 언어 자료 처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코퍼스 처리 워크숍(7월 6일, 고려대학교)
(6) 세미나, “중국 조선족 언어생활의 현황과 전망-연변을 중심으로”(11월 9일, 고려대학교)
(7) 특강, “Processing of Long-distance Syntactic and Referential Dependencies in Korean: Reading Time, Eye-tracking and ERP Experim”(7월 26일, 고려대학교)
(8) 특강, “The Interactional Instinct: The Evolution and Acquisition of Language”(8월 1일, 고려대학교)
(9) 특강, “The Second Language Lexicon: A Case of English Compound”(8월 1일, 고려대학교)
(10) 특강, “Text as Image: Pattern, Structure, and Network Analysis”(9월 26일, 고려대학교)
(11) 심포지엄, “번역 인문학의 나아갈 길”(11월 26일, 고려대학교)

◇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전화 02-3290-2576 /전송 02-3290-2576
/전자 우편 klle@korea.ac.kr
/누리집 http://klle.korea.ac.kr
2. 한국어문교육연구소는 한국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문화의 우수성과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한국어로 이루어진 문화유산을 잘 보전하고 아울러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한국어문교육연구소는 교육 구국의 고려대학교 건학 이념과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범 대학의 설립 이념을 존중하며, 국어 교육과 관련한 연구·교육·개발을

도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언어문화 창달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국어 교육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10년 7월 8일
4. 이남호(고려대 국어교육과)
5. 152명
6. 한국어문교육(연 2회): ~10호
8. (1)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제2차 전국 학술 대회
   (2) 창립 기념 국제 학술 대회 개최

◇ 구결학회

1.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길 110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학부 이지영
   /전화 010-3033-3787 /전송 031-781-2247
   /전자 우편 zeezero@aks.ac.kr
   /누리집 http://www.ikugyol.or.kr
2. 구결학회는 차자 표기를 중심으로 하여 국어사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회이다. 차자 표기는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하여 우리말을 표기한 것으로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우리 조상들이 이용했던 문자와 표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차자 표기는 이두, 구결, 향찰 등의 문장 표기와 지명, 인명, 관명, 물명 등의 어휘 표기로 나뉜다. 이들을 음운론, 문법론, 어휘론, 문자학의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어사 연구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우리의 고대 언어 자료와 문자 표기의 전통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3. 1988년 2월 7일
4. 장윤희
5. 298명
6. 구결연구(연 2회): ~27집
8. (1) 제41회 전국 학술 대회(2월 9~10일, 한신대학교 송암관 유사홀)

(2) 제42회 전국 학술 대회(8월 9~10일, 동국대학교 서울 캠퍼스 만해관 B253호)
(3) 구결연구 제26~27집 발간

◇ 국립국어원

1.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전화 02-2669-9775 /전송 02-2669-9777
/누리집 http://www.korean.go.kr
2. 국립국어원(원장 민현식)은 어문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어문 정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어문 규정과 관련한 업무를 주관하며 교양 있고 표준적인 언어생활의 기초를 다짐으로써 국어 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및 국어 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 언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며, 한국어를 국외에 보급하여 한국어의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3. 1990년 11월 14일
4. 민현식
5. 45명
6. (1) 새국어생활(연 4회): ~21-4호
(2) 쉼표, 마침표.(온라인 소식지, 월간): ~73호
(3) 국어 연감(연 1회)
7. (1)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검색 유통 지원 체계 구축: 최종 보고서
(2)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사용자 설명서
(3)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4)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5) 공공 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교재: 바르고 쉬운 공공 언어
(6) 공문서 쓰기 길잡이(안)

(7) 국립국어원 국어 문헌 자료 총서 2: 구황촬요
(8) 국립국어원 국어 문헌 자료 총서 3: 내훈
(9) 국어사전 비표준 문자 표준화 자료 구축 결과 보고서
(10)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1회 '호금도'인가 '후진타오'인가: 중국 인지명의 외래어 표기를 현지 발음에 따라야 하는가
(11)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2회 '부산'은 Busan인가 Pusan인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 이대로 좋은가
(12)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3회 '북엇국'만 되고 '북어국'은 안 되나: 성문화된 한글 맞춤법 규정을 유지해야 하는가
(13)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4회 표준어만 되고 방언은 안 되나
(14)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5회 '누리꾼'인가 '네티즌'인가: 외국어의 순화를 강화할 것인가
(15) 국어 정책 연속 토론회 자료집 제6회 대학 영어 강의를 의무화해야 하는가
(16) 국외 동포 언어 실태 조사 기초 연구
(17)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18) 남북 언어 통합과 재일 동포 언어 국제 학술 대회 논문집
(19)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1
(20)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언어 지도 안내(베트남어)
(21)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몽골어)
(22)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베트남어)
(23)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영어)
(24)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일본어)
(25)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중국어)
(26)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캄보디아어)
(27)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타갈로그어(필리핀))
(28) 다문화 가정 부모를 위한 자녀 지도서 3단계(한국어)
(29)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교사

용 지도서 5수준
(30)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교사용 지도서 6수준
(31)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부모용 활용 안내서 5수준
(32)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학습지: 부모용 활용 안내서 6수준
(33)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34) 다문화 가족 국어 사용 환경 기초 조사: 통계표 및 설문지
(35) 마음을 담아내는 창, 말
(36) 문장 부호 지침서(안)
(37) 바른 국어 생활: 교사 직무 연수 교재
(38) 바른 국어 생활: 국어문화학교 국어 전문 교육 과정 교재
(39) 바른 국어 생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40) 보도 자료 쓰기 길잡이
(41)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1
(42)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2
(43)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3
(44)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
(45) 새터민 언어 적응 지원을 위한 새터민 교사 연수 교재 2011
(46) 새터민을 위한 표준어 교육 교재 2011
(47) 세계 언어 정책의 현황과 과제: 국립국어원 개원 20주년 기념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48) 세종학당용 초급 한국어 표준 교재 개발 과제 최종 보고서
(49) 세종 한국어 1
(50) 세종 한국어 2
(51) 신문과 방송의 언어 사용 실태 조사
(52) 어휘 의미 연계 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최종 보고서
(53)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3: 교원용 지침서
(54)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4: 교원용 지침서
(55)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5 개발

(56) 여성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6 개발
(57) 요긴하게 쓸 만한 다듬은 말 61개
(58) 이주 노동자를 위한 아자 아자 한국어 2
(59) 제5회 국어문화학교 강사 연수회 자료집
(60) 중급 한국어 2: 교원용 지침서
(61) 청소년 언어 실태 언어 의식 전국 조사 결과 보고서
(62) 청소년을 위한 바른 국어 생활
(63) 청소년을 위한 바른 언어생활 교재 개발
(64) 체제 통합과 언어 문제 국제 학술 대회
(65) 초급 한국어 읽기: 교원용 지침서
(66) 캐나다 오타와 세종학당 주최 한국어 교육자 연수회 교재
(67) 표준 언어 예절
(68)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표준 화법 보완을 위한 토론회
(69) 한국어 교재 추천 제도 운영 방안 연구
(70) 한국어 기초 사전: 사용자 설명서
(71)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개선 방안 연구 2
(72)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 길잡이
(73) 한눈에 알아보는 오락 프로그램 언어 바로 쓰기
(74) 행정 기관 보도 자료 작성 지침
(75) 2011년 국어 정책 통계 조사
(76) 2011 국어 정보 처리 시스템 경진 대회: 국어 말뭉치 분석 및 사전 활용
(77) 2011 디지털 한글 박물관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특별 기획전 개발 사업
(78) 2011 디지털 한글 박물관 누리집 유지 보수 및 특별 기획전 개발 사업: 사용자 및 운영자 지침서
(79) 2011 세계 한국어 교육자 대회 참가 자료집
(80) 2011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1
(81) 2011 청소년 언어 개선 활동 사업 보고서
(82) 2011 한글 문화유산 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83) 2011년 국어 정책 통계 포털 구축 완료 보고서
(84) 2011년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 자료 개발 제작 사업 최종 보고서
(85) 2011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1
(86) 2011년 행정 기관 공공 언어 진단 2
(87) 2011년도 강원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88) 2011년도 경기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89) 2011년도 경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90) 2011년도 경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91)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1: 해초류
(92)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2: 명태잡이에서 덕장까지
(93)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3: 자염
(94)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4: 돌살, 김 양식
(95) 2011년도 민족 생활어 조사 5: 어촌 생활어 기초 어휘 조사
(96) 2011년도 전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97) 2011년도 제주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98)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1
(99)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2: 중국 무주촌 편
(100) 2011년도 중국 집단 이주 한민족의 지역어 조사 보고서 3: 경북 의성 지역어
(101) 2011년도 충남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102) 2011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어휘·음운·문법
(103) 2012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2
(104)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of the Language Policies in the World: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Conference for the Commemoration of the 20th Anniversary of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8. (1) 국어 문화 발전 기초 연구
1) 의사소통 체계 고도화 연구
· 어문 규범 연구 및 관리

· 특수 언어 표준화 연구 (1), (2)
· 언어 정책 토론회 운영
2) 국어 정책 통계 지표 개발 및 조사 수행
3) 언어 정책 국제 학술 대회
· 남북 언어 국제 학술 대회
(2) 국어 정보지 발간 및 홍보
1) 새국어생활 제21권 제1~4호 발간
2) 국어 연감 발간
3) 쉼표, 마침표.(온라인 소식지) 제62~73호 발간
(3) 국어 문화유산 자료 구축
1) 한국어의 지역적 분포 조사
2) 민족 생활어 조사
(4) 언어 정보 자원 통합 관리
1) 디지털 한글 박물관 구축·운영
2) 언어 정보 자원 공유 체계 구축
3) 국어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
(5)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1) 수요자 중심의 한국어 자료 집대성
(신어, 생활 용어, 방언, 전문 용어 등)
2) 위키피디아형 언어 지식 관리 체계 구축
3) 한국어 기초 사전 및 다국어 사전 구축
(6) 올바른 국어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
1) 공공 언어 지원 체계 구축
2) 방송·신문 매체 언어 향상
3) '표준 언어 예절' 발간
4) 청소년 언어 개선
5) 우리말 다듬기
6) 전문 용어 정비
7) 국어 생활 종합 상담실 운영
(7) 국어 능력, 국어 사용 환경 실태 조사 및 연구
1) 국민의 국어 사용 실태 조사

2) 표준 화법 국어 사용 실태 조사
3) 공공 언어의 정책 효과 조사
4) 새터민 어휘 학습용 실물 교재 개발

(8) 국어 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1) 어문 규범 단계별 교육 교재 발간
2) 단계별 학습 관리 체계 구축 및 강좌 개발
3) 교과서 전문 감수
4) 국어 특별 교육 과정(프로그램) 개발
5) 국어문화학교 운영(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개설)

(9) 한국어 교원 양성 및 교육 자료 개발
1)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 한국어 교육 자료 연구 개발 및 보급
3) 한국어 교원 양성 및 인재 교육
4) 한국어 교원 자격 심사 위원회 운영
5) 한국어 학습용 매체별 콘텐츠 개발
6)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한국어 방문 학습 자료 개발

◇ 국어교과교육학회

1. [609-390]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전화 051-510-1611 /전송 051-583-2053
/전자 우편 koredu@hyowon.pusan.ac.kr
2. 국어교과교육학회는 국어 교육학의 이론을 탐구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모색하여 올바른 국어 교육의 기초를 마련하며, 국어 교육의 연구 결과를 일반화함으로써 국어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99년
4. 나경수
5. 202명
6. 국어교과교육연구(연 2회): ~19호
8. (1) 국어교과교육연구 세미나 1월, 8월

◇ 국어교육연구소

1.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9동 403호
   /전화 02-880-7666~7 /전송 02-878-2593
   /누리집 http://korinst.snu.ac.kr
2. 국어교육연구소는 1993년 설립된 국어 교육학 및 한국어 교육학 연구의 대표 기관으로서 국어 교육 연구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연구의 체계화와 세계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본 연구소의 주요 연구 사업은 국어 교육과 한국어 교육 분야로 대별할 수 있다. 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국어 교육 연구 사업의 추진, 학술 대회 및 강연회 개최, 국어 교육 과정과 중·고등학교 교과서 개발, 매체 교육 연구, KBS 뉴스 원고 검토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현대 민족어문 교육 기초 연구와 사이버 가정 학습 심화 학습형 콘텐츠 개발 등 국가 기관의 지원 연구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는 세계 각국의 한국어 교육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 학술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센터 및 베트남 국립 하노이사범대학교와의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하여 한국어 교육의 세계적인 저변 확대와 연구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3. 1993년
4. 윤여탁
5. 30명
6. 국어교육연구(연 2회): ~28호

◇ 국어교육학회(경북대)

1. [702-701]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416호
   국어교육과 내
   /전화 053-950-5821 /전송 053-950-6803
   /누리집 http://kukgyohak.knu.ac.kr

2. 국어교육학회는 전국의 뜻있는 국어 교육학자와 국어 국문학자, 현직 중등 교사가 중심이 되어 창립한 학회로, 연구와 학술 발표회를 거듭하다 1969년 창간호를 발행하였다. 이후 수차례 전국 규모 학술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중등학교 국어 교육에 관한 바른길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어 교육의 이론과 이에 대한 교육 현장에서의 실천적 노력을 함께 추구해 나가고 있다.
3. 1969년 4월 20일
4. 김형철
5. 900명
6. 국어교육연구(연 2회): ~49집
8. (1) 국어교육연구 제48~49집 발행
   (2) 2011년도 전국 학술 발표 대회, "국어과 교육 과정의 쟁점과 담론의 새 지평"(12월 10일, 경북대학교)

◇ 국어교육학회(수원대)

1. [445-743]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산 2-2 수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전화 031-220-2502 /전송 031-220-2502
   /누리집 http://koredu.net
2. 국어교육학회는 국어 교육학이라는 학문을 정립하고 국어 교육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된 학회이다. 국어교육학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어 교육을 성찰하고 더욱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연구를 발전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학술 대회와 논문집을 통해 연구 결과물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국어 교육의 영역을 확장함과 동시에 한층 더 실천적인 연구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3. 1991년 3월 22일
4. 김중신(수원대)
5. 580명
6. 국어교육학연구(연 3회): ~42집

8. (1)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편집 위원회(3월 5일)
(2)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편집 위원회 2차(4월 9일)
(3) 젊은 국어 교육학자 상 시행 공포
(4) 제48회 학술 발표 대회(4월 9~10일, 원광대)
(5) 국어교육학연구 제40집 발행(4월 30일)
(6)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편집 위원회(7월 6일)
(7)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편집 위원회 2차(8월 22일)
(8) 국어교육학연구 제41집 발행(8월 31일)
(9) 제49회 학술 발표 대회(9월 3일, 인하대)
(10)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국어 교육 관련 학회의 연합 학술 대회 개최(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회 연합, 10월 1일, 서울교대)
(11)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편집 위원회(11월 3일)
(12)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편집 위원회 2차(12월 10일)
(13) 국어교육학연구 제42집 발행(12월 31일)

◇ 국어국문학회

1. [140-742]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숙명여자대학교 새힘관 507호
/전화 02-710-9307
/누리집 http://www.korlanlit.or.kr
2. 국어국문학회는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정신을 앙양하여 세계 문화에 기여한다.
3. 1952년 11월 1일
4. 정병헌(숙명여자대학교)
5. 2,260명
6. 국어국문학(연 3회): ~159호
8. (1) 제54회 국어국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국어국문학의 학문 경계와 융합"(5월 27~28일, 동국대학교 문화관)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1. [110-8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415호
/전화 02-735-0991 /전송 02-738-9494
/전자 우편 baro@barunmal.org
/누리집 http://www.barunmal.org
2. 국어 발전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민의 국어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3. 2005년 10월
4. 남영신
8. (1) 삼성화재보험 약관 개선 사업(4~9월)
   1) 자동차 보험 약관, 장기 보험 약관
   (2) 공공 기관 문장 교열(4~12월)
   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환경과학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등
   (3) 서울시 공무원 대상 맞춤형 공공 언어 교육(5~7월)
   (4)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스비에스) 외국어 표기 감수(6~7월)
   (5) 생활 언어 개선 사업(9월)
   1) 병원, 은행, 백화점 등에서 잘못 사용하는 응대 표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을 뽑아 바로잡아 주기 위해 시행함.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 이를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함(국민은행, 일산병원, 현대백화점)
   (6) 방송 언어 조사(9~10월)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요청에 따라서 방송 글쓰기 교육 프로그램 작성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상파 3사 뉴스 언어를 조사함
   (7) 제3회 서울말 겨루기 대회 개최(12월)
   1) 서울 토박이말은 우리나라 표준어의 기준이 된 언어로서, 600년 전통을 지닌 서울의 고유한 문화를 만들어 낸 말이기 때문에 표준말 보급과 다른 각도에서 보존하고 보급할 가치가 있어 이 대회를 개최함

◇ 국어문화운동본부

1. [110-872]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4 415호
   /전화 02-735-0991 /전송 02-738-9494
   /전자 우편 baro@barunmal.org
   /누리집 http://www.barunmal.org
2. 국어 발전과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국민의 국어에 관한 궁금증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3. 2005년 10월
4. 남영신
8. (1) 일반인 국어 상담(1~12월)
   1) 인터넷, 전화, 전자 우편 등을 이용한 상담
   (2) 국어 문장사 강좌(3~11월)
   1) 이론 강의: 어문 규정 및 문법, 문장 구성, 공공 언어 개요
   2) 실무 강의: 문장 작성, 문장 교열, 공공 언어(공문서, 신문 문장) 교열
   (3) 신문 언어 조사(3~11월)
   1) 조사 대상 일간지: 중앙 일간 신문 6개, 지방 일간 신문 6개, 특수 신문 3개(경제 신문, 스포츠 신문, 인터넷 신문)
   2) 조사 기사: 보도 기사, 주장 기사(사설과 칼럼), 해설 및 정보 제공 기사
   3) 조사 항목: 어문 규범 준수, 어휘 사용, 문법 준수, 공공성 준수
   4) 조사 방법: 조사원이 주어진 신문 기사를 읽고 조사 틀에 맞추어 문제점을 찾아 넣는 방식(기사는 무작위로 조사함)

◇ 국어사학회

1. [151-74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황선엽 교수 연구실
   /전화 02-880-6102 /전송 02-878-1246

/누리집 http://www.gugeosa.or.kr
2. 본회는 국어사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고 국어사 자료의 강독과 연구를 통하여 국어학 연구 제 분야의 발달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997년 5월 10일
4. 박병철
5. 250명
6. 국어사연구(연 2회): ~13호
7. (1) 2010년 겨울 전국 학술 대회 자료집
(2) 2011년 여름 전국 학술 대회 자료집
8. (1) 2010년 겨울 전국 학술 대회(1월 11일)
1) 국어사 자료의 역주 방법론
(2) 2011년 여름 전국 학술 대회(7월 13~14일)
1) 주제1) 개화기 국어사 자료
2) 주제2) 영남대 소장 문헌 연구

◇ 국어학회

1. [151-742]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동 313호 정승철 교수 연구실
/전화 02-880-6033 /전송 02-878-1246
/누리집 http://www.skl.or.kr
2. 국어학회는 순수한 국어학의 연구와 보급을 꾀하며 아울러 연구자 서로의 친목을 두텁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59년 11월 22일
4. 송철의
5. 974명
6. 국어학(연 3회): ~62집
8. (1) 국어학 제60~62집 발간
(2) 2011년 국어학회 여름 학술 대회 개최(인하대학교)
(3) 2011년 국어학회 겨울 학술 대회 개최(이화여자대학교)

(4) 2011년 제35회 일석 국어학 연구 장려상 시상(수상자: 김현주)
(5) 2011년 제7회 심악 국어학 저술상 시상(수상자: 임지룡)

◇ 국제어문학회

1. [136-70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서경로 124 서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이복규 교수 연구실
/전화 02-2260-8841 /전송 02-2260-8841
/전자 우편 shglem@cau.ac.kr
/누리집 http://www.iall.or.kr
2. 국제어문학회는 언어와 문학, 예술과 문화를 연구하여 한국학의 위상 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79년 2월 16일
4. 김창현(총무 이사)
5. 550명
6. 국제어문(연 3회): ~53호
8. (1) 2011년 봄 학술 대회(5월 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2) 2011년 가을 학술 대회(10월 8일, 상명대학교 천안 캠퍼스)
(3) 월례 발표회 7차례 개최

◇ 국제언어인문학회

1. [139-79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사서함 77호 교수부 영어과 허진 교수 연구실
/전화 02-2197-2742 /전송 02-977-5317
/누리집 http://www.inahsl.or.kr
2. 국제언어인문학회(회장 문경환)는 인문학의 제 분야 학자들이 학술 활동의 연계성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학회이다.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은 회자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구호에 그치는 경향이었고, 더구나 이러한 학제적 의지를 정식 '학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구체화하는 경우는 아직 없다. 인문학 분야들 간의 상

호 연계성은 아직 매우 빈약하여 산발적인 유대 관계만이 있을 뿐이다. 이런 면에서 언어인문학회는 우리나라 초유의 학회인 셈이다. 본 학회는 갈수록 전문화해 가는 여타 학술지와 정반대의 노선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전문주의 효율성의 이면에는 공동의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이 부분별로 분해되어 본연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개 전공의 울타리 속에 축적된 지식들을 보다 넓은 지평에서 음미하는 가운데 상호 소통하는 일이 중요하며, 다면적인 지식 추구의 진정한 의의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회의 명칭이 시사하듯이 본 학회의 근본 취지는 '언어를 통한 인문학 연구'인 바, 언어에 역점을 두는 이유는 다양한 전공 분야의 참여로 생길 수 있는 '이질적 집합'의 형태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언어는 일상 담화뿐 아니라 학구적 담론을 위한 공통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언어인문학회는 인문학 불변의 가치와 시대적 사명을 인식하는 국내외의 학자들이 특정 전공의 어휘에 얽매이지 않고 '인문학의 언어'로 철학, 문학, 언어학, 종교, 역사, 문화, 예술 등을 논할 공동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이다.

3. 2000년 7월 29일
4. 문경환
5. 145명
6. 인문언어(연 2회): ~13-2호
8. (1) 인문언어 13권 1호(6월 30일), 13권 2호(12월 30일) 발간
   (2) 2011년 국제언어인문학회 학술 대회 개최(9월 3일, 연세대학교)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1.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516호
   /전화 02-941-5037 /전송 02-941-5037
   /누리집 http://www.iakle.com
2. 국제한국어교육학회(IAKLE)는 한국어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지원하는 국내외 한국어 교육계와 한국어 교육자의 성장과 발전을

목적으로 삼아,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와 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자들이 뜻과 힘을 모아 1985년에 설립한 학회이다. 학회 설립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세우고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1) 한국어 교육자의 연구 활동과 교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지와 소식지 발간, (2) 전 세계 한국어 교육자가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제 학술 대회 개최, (3) 국내 한국어 교육자가 참여하여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는 국내 학술 대회 개최, (4) 한국어 교재 및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 (5)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학술 자료 발간, (6) 정보 공유 및 학문적 교류를 위한 누리집 운영. 위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는 한국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한국 경제와도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어를 사랑하는 학회와 학회원은 한마음으로 열심히 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

3. 1985년 7월 12일
4. 김정숙
5. 1,600명
6. 한국어교육(연 4회): ~22-4호
8. (1) 2011년도 제35차 춘계 학술 대회(5월 14일, 연세대학교)
   (2) 제1차 남아시아 한국어 교육자 현지 워크숍(5월 6~7일, 인도 델리대학교)
   (3) 2011년도 제21차 국제 학술 대회(8월 6~7일, 경희대학교)
   (4) 2011년도 제36차 추계 학술 대회(10월 29일, 서울시립대학교)
   (5) 한국연구재단 2011년도 학술지 발행 지원 사업
   (6)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 개발 2단계 과제 보고(12월 20일, 국립국어원)

◇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1. [302-73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 배재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최정순 교수 연구실

/전화 042-520-5149 /전송 042-520-5187
/전자 우편 edit-ink@daum.net
/누리집 http://www.ink.or.kr

2. 인류의 문화가 발달하면서 언어가 만들어지고 발전되었다. 언어는 문화의 소산이면서 문화를 이끌어 가는 핵심 동력이 되었다. 언어와 문화는 간단없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언어는 문화를, 문화는 언어를 반영하고 이를 축적해 왔다. 문화를 모체로 하는 언어는 이제 문화의 모체가 될 만큼 상호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많은 학문의 영역이 이제는 두꺼웠던 벽을 허물고 상호 관련 영역에 주목하고 있는 바, 언어문화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본 학회는 언어와 문화가 상호 작용하는 표면 현상과 그 내면의 배경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학문의 영역을 구축하고, 한국 언어문화와 여타 세계의 이질 언어문화와의 대조 연구를 통하여, 국제 사회 속에서 한국 언어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를 국제 사회에 보급하는 데 학회의 주된 목표를 둔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향상과 함께 한국어의 국제적 위상도 매우 높아 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어 교육과 언어문화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본 학회는 한국어 및 한국 언어문화 교육 진흥에도 주요한 활동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본 학회는 한국 언어문화의 이론적 연구와 타 언어문화와의 대조 연구, 한국 언어문화의 교육 및 해외 보급에 주된 목표를 둔다.
3. 2001년 1월 5일
4. 최정순
5. 383명
6. 한국언어문화학(연 2회): ~8-2호
8. (1)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1차 학술 대회 개최, “다문화 시대의 학교 교육”(3월 26일, 전주교육대학교 교육문화관)
   (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제12차 학술 대회 개최, “문화권에 따른 한국 언어문화 교육 방안”(9월 24일,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 동)

◇ 담화·인지 언어학회

1.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본관 435호
   /전화 02-2173-2376 /전송 02-966-6183
   /누리집 http://www.discog.com
2. 담화인지언어학회는 담화 문법, 인지 언어학, 화용론에서 대상으로 삼는 언어 현상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1991년 설립되었다. 담화인지언어학회는 1년에 2~4회의 학술 대회를 개최하여 회원들이 서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교류하는 생산적인 학문의 터전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담화 문법, 인지 언어학, 화용론 분야의 학문적 동향 또한 소개하고, 특정 주제를 집중적으로 발표·토론하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담화와 인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전공 학생들의 학문적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국제 학술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이 외국학자들과의 교류를 갖고 학문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담화인지언어학회는 담화와 인지 분야 언어 연구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연구 주제의 개발, 인접 학문과의 소통을 통한 연구 외연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3. 1991년 10월 5일
4. 이한규
5. 700명
6. 담화와 인지(연 3회): ~18-3호
8. (1) 담화인지언어학회, 사회언어학회 공동 학술 대회(4월 23일)
   (2) 가을 정기 학술 대회(11월 19일)
   (3) 등재 학술지 계속 평가 등재지 선정

◇ 대한언어학회

1. [320-711]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21 건양대학교 교양학부 김창수 교수 연구실(공학관 326호)

/전화 041-730-5307 /전송 041-730-5137
/전자 우편 cskim@konyang.ac.kr
/누리집 http://www.korling.or.kr

2. 대한언어학회는 꾸준하게 발전하고 있는 언어학 이론을 연구하고 이에 따른 연구 성과를 분과별 세미나 및 종합적인 정기 학술 대회 활동 등을 통하여 발표함으로써 언어학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함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통하여 언어학 제 분야의 우수한 연구 논문을 국내외에 알리고 언어학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각 논문의 연구는 동학들에게 제안, 비평 및 관점을 제시하여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후학들에게는 유익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본 학회는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들었다고 자부하고 앞으로 학술지 발간 이외에도 각 분야별 도서 발간 및 보다 알찬 국내적·국제적인 학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앞으로 명실공히 국내외적으로 언어학을 주도하는 학회가 되기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3. 1992년 9월 5일
4. 이정식
5. 500명
6. 언어학(연 4회): ~19-4호
8. (1) 대한언어학회 봄 학술 대회(5월 21일, 전주대학교)
   (2) 대한언어학회·한국영어학회 공동 가을 학술 대회(10월 15일, 대불대학교)

◇ 돈암어문학회

1. [136-74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4다길 2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920-7069 /전송 02-920-2082
/전자 우편 donam@sungshin.ac.kr
/누리집 http://web.sungshin.ac.kr/~donam
2. 돈암어문학회는 국어국문학을 연구하고 그 학풍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연구 논문집인 돈암어문학을 연 1회 이상 간행하며,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기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3. 1998년 10월 17일
4. 임치균
5. 350명
6. 돈암어문학(연 1회): ~24호
8. (1) 제32차 정기 학술 대회, "한국어문학사와 번역 1"(10월 8일)

◇ 동남어문학회

1.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단2동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영선 교수 연구실
   /전화 051-200-7019 /전송 051-200-7033
   /누리집 http://www.dakll.org
2. 본회는 국어국문학 연구와 이를 통한 학풍 수립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료의 수집 및 정보 교환, 학회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연구 발표회, 강연회, 강좌 개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3. 1990년 9월 24일
4. 최낙복
5. 150명
6. 동남어문논집(연 2회): ~32집
7. (1) 언어와 문학의 방향성 재고
   (2)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 문화 연구
   (3) 공공 언어 개선의 정책 효과 분석
8. (1) 국내 학술 대회 개최
   1) 동남어문학회 상반기 학술 대회: 언어와 문학의 방향성(2월 25일)
   2) 동남어문학회 추계 학술 대회: 타자의 문화적 재현, 이주민

의 재현 양상(9월 16일)
(2) 동남어문논집 발행
1) 동남어문논집 제31~32집 발간

◇ 동아대학교 국어문화원

1. [604-714] 부산시 사하구 낙동대로 55번 길 37 동아대학교 인문과학대학 1113호, 1114호
/전화 051-200-7180~7181 /전송 051-200-7180
/전자 우편 klc7180@donga.ac.kr
/누리집 http://kor.donga.ac.kr
4. 엄정호
8. (1) 국어 상담 및 홍보 활동 연중 시행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실시(45회 실시)
(3) 국어 문화 강좌 시행(도서관 및 각 중·고등학교)
(4)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시상(현재 46호까지 현판 수여)
(5) 어르신 한글 교실(10, 11기)
(6) 부산 지역 상호명 사용 실태 조사(남포동, 광안리, 서면 및 해운대 지역 과거와 현재 간판 비교 조사, 해운대 및 화명동 신시가지 일대 조사, 장림 및 신평공단 일대 조사)
(7) 초청 강연 5회 실시
(8)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13, 14기)
(9) 부산 지역 제6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지역 예선
(10) 우리말 겨루기, 우리말 사랑 표어 공모전
(11) 부산 지역 자치 단체의 행정 용어 순화 지원
(12)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
(13)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연 6회 실시
(14) 국어 책임관 국어 문화 교육 실시

◇ 민족문화연구원

1.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전화 02-3290-1610~3 /전송 02-926-8385
   /전자 우편 riks@korea.ac.kr
   /누리집 http://riks.korea.ac.kr
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은 1957년 설립된 이래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오늘날 한국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1997년 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된 이후에는 인문학적 전통의 토대 위에서 시대적 학문 조류에 맞게 정보 처리 이론과 기술을 도입하는 한편 한국학 연구의 국제화를 폭넓게 추진하고 있다. 현재 120여 명의 우수한 전문 연구자와 지원 인력은 안정적인 연구 인프라와 풍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원을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3. 1957년 6월 1일
4. 최용철
5. 120명
6. (1) 민족문화연구(연 2회): ~55호
   (2) 민연소식(연 2회): ~27호
   (3) ICKS NEWSLETTER(연 2회): ~9-2호
   (4) IDP SEOUL NEWS(연 2회): ~3호
   (5) 웹진 민연(연 12회): ~8호
7. (1) 고려대 한국어 사전 2011(아이폰용 애플리케이션/애플 앱스토어, 2월)
   (2) 조선 후기 시가사의 가곡 연행(10월 31일)
   (3) 19세기 문예사와 기생의 한시(12월 30일)
   (4)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과 사전학(6월 16일)
   (5) 구술로 만나는 마당극 1~5권(9월 7일)
8. (1) 연구 프로젝트
   1) 한국 문화의 동역학(2007년 11월 1일~2017년 8월 31일)

2) 한국 근대 장편 소설 사전 편찬(2008년 7월 1일~2011년 6월 30일)
3) 해외 소장 한국 전적의 해제 및 디지털화를 통한 공유화 사업(2008년 11월 1일~2014년 6월 30일)
4)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 자원 구축(2009년 3월 1일~2012년 2월 29일)
5) 한국 전통 미학과 예술 비평 자료의 역주·평석 및 개념사 연구(2009년 7월 1일~2013년 6월 30일)
6) 해외 한국학 진흥을 위한 정책 연구
7) 조선 시대 지식·지식인 재생산 체계에 관한 연구(2011년 5월 1일~2014년 4월 30일)
8) 조선 시대 역학서의 종합적 연구(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9) 2011 상설 인문 강좌 해외 석학 강좌 지원 사업(2011년 10월 17일~12월 31일)
10) 한국 근대 전자 역사 지도 편찬(2011년 12월 1일~2012년 11월 30일)
11) 계몽기·근대 시조의 XML 데이터베이스 문서화(2011년 12월 30일~2012년 6월 29일)
12) 한국 전통 연희 사전 편찬(2010년 6월 25일~2013년 6월 24일)
13)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6년도 우수 학자 지원' 과제
· 한국 유학사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2006년 12월 1일~2012년 11월 30일)
· 한국 한문학 및 고전 주석학의 기초학사 연구(2006년 12월 1일~2011년 11월 30일)
14)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8년도 학술 연구 교수 지원' 과제(2008년 9월 1일~2011년 8월 31일)
15)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9년도 학술 연구 교수 지원' 과제 수행, 비평에서 제작으로 -袁珂의 중국 신화 집대성과 20

세기 후반 중국 신화 담론(2009년 7월 1일~2012년 6월 30일)

16) 한국연구재단 지원 '2009년도 우수 학자 지원' 과제 수행
- 옛 시조의 모티프·미의식과 심상 공간의 역사(2009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 동아시아사의 시각으로 본 고려 말 조선 초 시대(2009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17) 한국연구재단 지원 2010년도 인문 사회 단독 과제 수행
- 영국 근대 도시의 실업 문제와 도시인(2010년 5월 1일~2013년 4월 30일)
- 조선 중기 문풍(文風)의 변화와 과문(科文)(2010년 5월 1일~2011년 4월 30일)

(2) 국제 학술 대회

1) 제2회 Korea University-UC Berkeley Forum(6월 22~24일)
2) 만주학 연구의 현황과 과제(4월 12일)
3) 서울-京都 상호 방문 국제 학술회의, "식민지 연구의 최전선" 1~2회(7월 1일, 8월 26일)
4) 비서구 문화의 정전성과 타자성(9월 29~30일)
5) 1894년, 조선과 동아시아 역사상의 재조명(7월 9일)
6) 근대 제국주의 침탈과 동아시아의 전환(10월 27~28일)

(3) 국내 학술 대회

1) 버클리대 한국 고전적 자료의 학술적 가치와 디지털화 사업의 성과(4월 29일)
2) 중한사전(中韓辭典)의 사전학적 평가(6월 17일)
3) 지훈 학술 심포지엄(9월 16일)
4) 최장집의 한국 민주주의론(11월 19일)
5) '한국 고문헌의 지식 계보학적 연구 자원 구축' 사업의 성과와 전망(12월 16일)
6) 한국에서 문명 교류 연구의 회고와 전망(12월 17일)

(4) 대중 강좌

1) 지훈 예술제(9월 24~25일)
2) 전주 평생 학습 한마당(10월 6~9일)
3) 고산 학술제(10월 19~20일)
4) 실크 로드 "길 위의 인문학"(11월 1일~12월 6일)
5) 청춘, 그것은 시!(11월 11일)
6) "돈황 인상(敦煌印象)"전(2011년 12월 14일~2012년 1월 15일)
7) 영리더스 겨울 인문 캠프(12월 26~30일)
8) HK한국문화연구단 문화 학교 도구 언어 강좌 시리즈(2009년 7월~현재)

(5) 연구 발표회

1) 월요 모임(2011년 3월~2012년 2월, 40회)
2) HK 기획 연구 '정전 형성의 비교 문화론적 탐구'팀 연구 발표회(3월 31일~4월 3일)
3) HK 기획 연구 '은과 동아시아'팀 연구 발표(3월 31일~4월 3일)
4) HK 기획 연구 '도래할 한국 민주주의'팀 연구 발표회(5월 19일, 6월 30일)
5) HK 기획 연구 '대중 서사의 표상 체계와 매체 역학'팀 연구 발표회(2011년 11월~2012년 2월)
6) HK 전자 인문학 '물결 21'팀 연구 발표회(6월 19~22일)

(6) 초청강연회, 워크숍

1) HK 전자 인문학 '물결 21'팀 초청 강연회(3월 30일)
2) HK 기획 연구 '조선 시대 지식·지식인 재생산 체계'팀 초청 강연회(2011년 6월~2012년 1월)
3) HK 기획 연구 '개인의 전통과 근대'팀 초청 강연회(9월 2일)
4) HK기획 연구 '정전 형성의 비교 문화론적 탐구'팀 초청 강연회(2010년 4월~2011년 12월)
5) HK 기획 연구 '도래할 한국 민주주의'팀 초청 강연회(9월, 10월)
6) HK 기획 연구 '식민지 극장의 문화 정치학과 동아시아'팀

초청 강연회(2011년 8월~2012년 1월)
7) HK 기획 연구 '대중 서사의 표상 체계와 매체 역학'팀 초청 강연회(2011년 7월~2012년 1월)
8) HK 연구 세미나 '동아시아 귀신과 신비주의'팀 초청 강연회(10월 3일)
9) HK 한국문화연구단 만주학센터 초청 강연회(9월, 10월)
10) 국제한국학센터 "인문(人文)으로 세계와 만나다"(5월, 8월, 9월)
11) 국제한국학센터 해외 저명 학자 초청 강연회(4월, 6월, 11월)
12) 해외한국학자료센터 해외 저명 학자 초청 강연회(9월 15~16일)
13) HK 기획 연구 '정전 형성의 비교 문화론적 탐구'팀 워크숍(5~9월, 6회)
14) HK 기획 연구 '식민지 극장의 문화 정치학과 동아시아'팀 워크숍(3~7월, 4회)
15) 장편 소설 사전 편찬실 워크숍(3월 28일)
16) HK 기획 연구 '조선 시대 지식·지식인 재생산 체계'팀 워크숍(5~11월, 6회)
17) HK 기획 연구 '동아시아 구비 서사 인물 탐구'팀 워크숍(4월, 8월)
18) 2011년 국제 IDP 협력 기관 전체 워크숍(10월 10~12일)

(7) 연구 모임, 세미나
1) HK 한국문화연구단 기획 연구팀(2011년 3월~2012년 2월)
2) HK 한국문화연구단 연구 세미나팀(2011년 3월~2012년 2월)
3) 민족문화연구원 세미나팀(2011년 3월~2012년 2월)

◇ 민족어문학회

1. [136-05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34길 39 백옥빌딩 6층
/전화 010-5159-8247 /전송 02-922-7017
/전자 우편 mjeomun@naver.com
/누리집 http://www.kll.or.kr

2. 민족어문학회는 한민족의 주체성을 살려 국문학과 국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계 문학과 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1956년에 설립되었다. 본 학회는 국문학과 국어학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설립되어 한국어문학의 특징을 구명하고 그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3. 1956년 1월 10일
4. 이병헌
5. 380명
6. 어문논집(연 2회): ~64호
8. (1) 2011년도 정기 학술 대회, "'소통'으로서의 한국어문학"(10월 29일, 부산외국어대학교)

◇ 반교어문학회

1. [330-704] 충남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115 백석대학교 박석문 교수 연구실
   /전화 041-550-0508 /전자 우편 bangyo@bangyo.or.kr
   /누리집 http://www.bangyo.or.kr/index.html
2. 반교어문학회는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다음을 주된 사업으로 한다. 1) 학술 연구 발표회 2) 학회지 및 연구서 발간 3) 기타 필요한 사업
3. 1981년 12월
4. 박석문
5. 310명
6. 반교어문연구(연 2회): ~31호
8. (1) 정기 학술 발표회 개최
   (2) 반교어문연구 간행

◇ 배달말학회

1. [660-701]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영훈 교수 연구실
   /전화 055-772-1028 /전송 055-772-1019
   /전자 우편 yhoon2@gnu.ac.kr
   /누리집 http://badal.web.riss4u.net
2. 배달말학회는 배달말·글에 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배달겨레의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73년 3월 15일
4. 황병순
5. 432명
6. 배달말(연 2회): ~49호
8. (1) 2011년도 전국 학술 대회(10월 22일, 경상대학교)
   (2) 배달말 제48~49호 발간

◇ 사단 법인 전국국어교사모임

1. [110-8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702호
   /전화 02-744-3426 /전송 02-2269-3428
   /전자 우편 uri-mal@hanmail.net
   /누리집 http://www.naramal.or.kr
2. ㈔전국국어교사모임은 올바른 국어 교육을 위해 고민하는 국어 교사들의 연구 실천 모임으로 국어 교육에 관한 이론 연구, 지도안을 비롯하여 각종 수업 연구 자료 개발, 다양한 수업 모형 개발, 국어 교육 관련 연구 성과물 발행, 국어 교사를 위한 각종 연수 활동을 통하여 국어 교사들의 전문성을 신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3. (1) 1988년 3월 모임 결성
   (2) 2005년 1월 사단 법인으로 전환

4. 조장희
5. 23,687명
6. (1) 함께 여는 국어 교육(격월간): ~102호
   (2) 어린이와 함께 여는 국어 교육(연 4회): ~31호
7. (1) 우리말 교육 현장 연구 5-1(2011년 상반기 분과별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통권 제8호)
   (2) 우리말 교육 현장 연구 5-2(2011년 하반기 분과별 학술 발표회 발표 논문, 통권 제9호)
8. (1) 우리말 교육 대학원 겨울 학기 강좌(1월 3~21일, 대전대학교)
   (2) 전국국어교사모임 겨울 방학 연수 '검정 교과서 시대에 국어 교사의 길 찾기'(1월 19~21일,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3) 제12회 전국 중·고등학생 이야기 대회(1월 30~31일, 경상대학교)
   (4) 토론 강좌 '토론의 전사, 호모 디베이투스 8기'(2월 16~25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5) 서울 '새 학기 준비 연수'(2월 23~24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6) 서울 '마인드맵 연수'(2월 26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7) 경기 인문 강좌 '정수일 교수와 함께하는 실크 로드 학교' 연수(3월 14일~4월 14일, 경기도 미술관 세미나실)
   (8) 서울 '자기 주도 학습 코칭 방법' 연수(3월 16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9) 토론 강좌 '토론의 전사, 호모 디베이투스 9기'(4월 5일~5월 2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10) 우리말 교육 연구소 '전산 언어학' 강좌(4월 16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11)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최시한 교수와 함께하는 글 한 편 완성하기' 연수(4월 23일~6월 13일, 대전시립미술관 강의실)
   (12) 초등 국어 교과 모임 '줏대(개성)와 잣대(기준)를 기르는 이야기 수학!' 연수(4월 28일~6월 23일, 에듀니티 강의실)
   (13) 경기 새내기 연수 '국어 수업 즐겨찾기'(4월 23~24일, 한양

대학교 안산 캠퍼스)

(14) 서울 인문학 연수 '조정래 진중권과 함께하는 인문학 강좌'(5월 6~27일, 조계사 한국 불교 역사 기념관)

(15) 경기 고전 심화 연수 '우리, 고전(古典)에 흠뻑 반하다'(5월 28일,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16) 문학 기행 '김재용 교수와 함께하는 백석 통영 문학 기행'(6월 5~6일, 경남 통영 일대)

(17) 서울 '시 창작 강의'(5월 24일~7월 19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18) 서울 '행복한 수업을 위한 6가지 방법' 연수(6월 11일~7월 2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19) 제7회 한중 학술 교류 토론회(7월 28~31일, 중국 요령성 심양 조선족 제4중학교)

(20) '교사가 지치지 않는 독서 교육' 연수(7월 29~31일, 전주 성심여고)

(21) 인천 젊은 국어 교사 연수(7월 18~20일, 인천 계산고등학교)

(22) 경남 연수 '작가에게 듣는다'(7월 20~22일, 부산대 밀양 캠퍼스)

(23) 토론 강좌 '토론의 전사, 호모 디베이투스 10기'(8월 4~6일, 전국국어교사모임 강의실)

(24) 2011 열정 문학 강좌 '인간 탐구, 그 빛나는 가을밤 별들의 향연'(9월 1~30일)

(25) 문학 기행 '전상국과 함께하는 문학 기행'(10월 8일, 춘천)

(26) 토론 강좌 '토론의 전사, 호모 디베이투스 11기'(9월 21일~10월 19일, 에듀니티 강의실)

(27) 우리말교육현장학회 연수 '최시한 교수와 함께하는 글 한 편 완성하기'(10월 15일~11월 5일, 에듀니티 강의실)

(28) 가을 월례 특강1 '건방진 우리말 달인을 찾아서'(9월 29일, 에듀니티 강의실)

(29) 초등국어교과모임 연수 '줏대와 잣대를 기르는 옛이야기 수학! -하반기 강좌'(10월 25일~11월 29일)

(30) 가을 월례 특강 2 '문학, 삶 그리고 시간 -프루스트의 '잃어 버린 시간'을 중심으로'(10월 27일, 에듀니티 강의실)
(31) 가을 월례 특강 3 '상상력과 시'(11월 24일, 전교조 서울 지부)

◇ 사단 법인 한국언어학회

1.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전화 010-5319-1397 /전송 02-2210-2885
/전자 우편 webmaster@linguisticsociety.kr
/누리집 http://www.linguisticsociety.kr
2. ㈔한국언어학회는 회원 상호 간에 언어학 연구를 독려하여 우리나라의 언어학 연구의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56년 10월 1일
4. 이기갑
5. 312명
6. 언어학(연 3회): ~61호
8. (1) ㈔한국언어학회 여름 학술 대회(6월)
(2) ㈔한국언어학회 겨울 학술 대회(12월)
(3) 언어학 제59~61호 발간

◇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

1. [330-72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상명대길 31 상명대학교 송백관 212호
/전화 041-550-5391 /전송 041-562-0213
/전자 우편 koreancl@smu.ac.kr
/누리집 http://www.smkorean.net
2. 상명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유도함으로써 지식 정보 전달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며, 나아가 국어를 잘 보전하여 민족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04년 9월 16일

4. 구현정
8. (1) 국어 상담 및 문건 교정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정부, 지방 자치 단체, 공기업, 산업체 등의 요청이 있을 때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여 공문서 바로 쓰기, 한글 맞춤법, 언어 예절 등에 관한 교육 수행
(3) 우리말글 바로 알기 홍보 자료 게시 사업: 상명대학교 교내, 충남학생회관, 천안 지역 초등학교 8곳
(4) 대학생 대상 우리말 경연 대회: 상명대학교 학생 대상(5월 9일, 11월 22일)
(5) 이주민 대상 한국어 경연 대회: 글쓰기 대회, 말하기 대회, 도전, 한국어 달인! 등(10월 7일)
(6) 아름다운 가게 이름 선정 및 시상 사업: 아가샘(어린이집), 한내들(음식점), 함께 웃는 치과 의원(병원)에 기념 현판 수여
(7) 대학생 대상 글쓰기 강좌 운영: 상명대학교 학생 대상
(8)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충남 지역 예선 개최: 제6회 중학생 대상 전국 국어 대회의 충남 지역 예선(11월 5일)
(9)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 사업: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을 위하여 문제가 되는 댓글에 대해 "[바른 댓글 문화 운동] 지금 쓰신 글이 좀 과격한{폭력적인/선정적인/저속한/무책임한/상스러운} 것 같습니다. 바른 인터넷 댓글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자제해 주시면 좋겠어요."라는 문구를 다는 일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인터넷 댓글 문화를 개선. 악성 댓글이 계속 올라올 때는 4단계까지의 접근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을 함
(10) 2011년 주요 외국 인명과 지명의 한글 표기 구축 사업(20,262개)
(11)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다문화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학습 도우미 사업: 천안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의 취학 아동 4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국어 교육 실시
(12) 2011년도 결혼 이민자 한국어 소그룹 교육 사업: 천안 지역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의 한국어 소그룹 교육 수행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전화 02-969-8851 /전송 02-969-8854
   /전자 우편 sejong@sejongkorea.org
   /누리집 http://www.sejongkorea.org
2. 세종대왕기념사업회는 세종 성왕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성왕의 민족 자주정신과 애민 정신 및 창조 정신을 온 국민에게 계승시켜 민족중흥의 역사적 과업 수행에 기여한다.
3. 1957년 5월 14일
4. 박종국
5. 개인 회원 163명, 단체 회원 116명, 지부 단체 회원 60곳
6. (1) 세종학연구
   (2) 글꼴 현황 보고서
7. (1) 국역 치평요람 35~38집
   (2) 국역 각사등록 23~27집
   (3) 역주 소학언해 1집, 2집
   (4) 역주 번역소학
   (5) 역주 논어언해 1집, 2집
   (5) 역주 두시언해 권10
   (6) 역주 불설대부모은중경언해
8. (1) 세종날 기념 제36회 전국 초·중·고 글짓기 대회 개최
   (2) 한글날 기념 제7회 한글문화 상품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3) 한글날 기념 제12회 외국인 한글 글씨 쓰기 대회 개최
   (4) 한글날 기념 제19회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개최
   (5)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글씨 개발 보고회 개최
   (6) 조선왕조실록 고유 명사 용례 사전 편찬 사업

◇ 어문연구학회

1.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윤석진 교수 연구실 내
   /전화 042-821-5320 /전송 042-823-7022
   /전자 우편 eomun@korea.com
2. 어문연구학회는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문화의 전통성과 향토 문화의 고유성을 중점 계발하여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나아가 세계 문학의 대열에서 일익을 담당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1962년 11월 19일
4. 정종진
5. 670명
6. 어문연구(연 4회): ~70호
8. (1)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297차 정기 발표(1월 28일)
   (2) 어문연구학회 현대 문학 분과 제298차 정기 발표(1월 29일)
   (3)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299차 정기 발표(2월 26일)
   (4) 어문연구학회 현대 문학 분과 제300차 정기 발표(3월 26일)
   (5)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1차 정기 발표(3월 26일)
   (6) 어문연구학회 현대 문학 분과 제302차 정기 발표(4월 23일)
   (7)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3차 정기 발표(4월 23일)
   (8)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4차 정기 발표(5월 28일)
   (9)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5차 정기 발표(6월 25일)
   (10) 어문연구학회 현대 문학 분과 제306차 정기 발표(8월 28일)
   (11) 어문연구학회 현대 문학 분과 제307차 정기 발표(9월 24일)
   (12)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8차 정기 발표(10월 29일)
   (13) 어문연구학회 고전 문학 분과 제309차 정기 발표(11월 26일)
   (14) 어문연구학회 전국 학술 대회(12월 2일)

◇ 언어과학회

1. [712-881] 경북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80-9
   /전화 053-819-5303 /전송 053-742-5706
   /누리집 www.lss.or.kr
2. 언어과학회는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발달하고 변화하는 언어학의 이론을 연구하여 발표하고, 일반 언어 이론과 개별 언어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80년 10월 1일
4. 김주식
5. 약 350명
6. 언어과학연구(연 4회): ~60호
8. (1) 전국 학술 발표 대회 연 2회 개최: 하계(8월) 및 동계(2월)
   (2) 연 4회 논문집 발간: 3, 6, 9, 12월
   (3)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학술지 지원 학회로 선정됨
   (4) 국제 학회로 진입하기 위한 노력

◇ 언어연구소(한국외국어대)

1.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본관 904호
   /전화 02-2173-2543
   /전자 우편 lri@hufs.ac.kr
   /누리집 http://lri.hufs.ac.kr
2. 언어연구소는 인간 언어 활동의 구체적인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개별 자연 언어의 음운, 형태, 통사 및 의미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다양한 언어 간의 대조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를 통해 인간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 언어의 특수성 및 그 관계를 유기적으로 설명하여 인간 언어 능력과 활동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연구소 설립 및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3. 1969년 4월 20일
4. 김백기
5. 500여 명
6. 언어와 언어학(연 4회): ~53호
8. (1)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전반기 학술 대회, "기호로서의 언어: 소리에서 텍스트까지"(6월 29일)
   (2) 2011년 하계 학술 대회 및 수사학 여름 학교(7월 1일)
   (3)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후반기 학술 대회, "Grammatical Construction의 유형론적 분석"(12월 2일)

◇ 언어정보연구원

1.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전화 02-2123-3513 /전송 02-393-5001
   /전자 우편 ilis@yonsei.ac.kr
   /누리집 http://ilis.yonsei.ac.kr
2. 언어정보연구원의 설립 목적은 한국어를 비롯한 여러 언어를 널리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이를 정보화하며, 각종 언어 정보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본 연구원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1) 큰사전을 비롯한 각종 사전 편찬에 관련된 연구, (2) 언어의 정보화에 관련된 전자·전산 기술의 개발, (3) 언어 정보에 관한 자료의 수집, 정리, 출판, (4) 국내외 유관 학자, 학회, 기관과의 교류, (5) 연구 및 실무 인원의 양성과 연수, (6) 국제 사회에서 한국어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문화 간 의사소통'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사업, (7) 한국어의 사회적 현상과 관련된 화용론, 담화 연구, 수사학, 이야기 연구 등에 관한 연구와 사업, (8) 고전적 인문학과 관련된 각종 서지, 문헌, 고문서, 문자 자료 등에 관한 연구와 사업, (9) 그 밖의 연구원의 목적에 따르는 일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3. 1989년 4월
4. 김하수

5. 연구원 112명, 동인 회원 641명
6. (1) 언어 사실과 관점(연 2회): ~28호
   (2) 웹진 한국어+(연 2회): ~7호
7. (1) 인문 언어학 총서 간행: 인문 언어학의 전망과 과제(김하수 외)
8. (1) 제68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스페인어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효과적인 한국어문화 교육을 위한 한국과 중남미 간 Intercultural Communication 이해의 중요성(2월 11일)
   (2) 제69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언어 유형론과 한국어 문법 연구(2월 25일)
   (3) 제70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한일 대조 연구와 한국어 교육(4월 29일)
   (4) 제71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한국어 개념사 연구 방향 모색(5월 19일)
   (5) 제72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에스니시티(ethnicity)의 변형을 통한 한국 사회 이주 노동자의 문화 변용 연구(6월 17일)
   (6) 제73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웹 기반 한·일 사전에 대하여(8월 25일)
   (7) 제74회 언어정보연구원 학술 발표회: 번역어의 연쇄와 언어 제국주의의 정치 역학(10월 13일)
   (8) 제2회 언어정보연구원 HK사업단 워크숍: 인문 자료의 정보화와 확산을 둘러싼 문제들(9월 23일)
   (9) 언어정보연구원 제27회 학술 대회(1월 21일)
   (10) 언어정보연구원 제28회 학술 대회(7월 8일)
   (11) 연세 현대 한국어 사전 편찬(계속)
   (12) 인문 한국 사업: 복합 지식의 창출과 소통을 위한 인문 언어학(계속)
   (13) 전문 용어 표준화 제도 정비를 위한 정책 연구
   (14) 연세 초등 국어사전(제2판)
   (15) 한국어 기초 사전 및 다국어 대역사전

◇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 [120-74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전화 02-2123-8550~2, 2123-3464~5 /전송 02-2123-8662
   /누리집 http://www.yskli.com
2. 한국어학당은 외국인과 재외 교포로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하려는 학생, 선교사, 외교관 및 대사관 직원, 외국인 교수, 주한 상사 및 언론 기관 임직원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며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것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
3. 1959년 4월 1일
4. 이석재
5. 147명
6. (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연 1회): ~36호
   (2) 한국어학당 연보 2012(2011년 4월~2012년 3월)
7. (1) 교재 출판__국내
   1)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 연습(초급, 중급, 고급)
   2)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 연습(초급, 중급, 고급)
   3) 대학 강의 수강을 위한 한국어 쓰기 중급 2
   (2) 교재 출판__국외
   1)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토픽 어휘(초급)
   2)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토픽 어휘 대강(초급)
   3)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토픽 문법(초급)
   4)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토픽 문법 대강(초급)
8. (1) 한국어학당 200회 졸업식 및 기념 전시회(3월 21일)
   (2) 한국어학당 창립 52주년 기념식 및 우수 강의 상, 우수 직원상 시상식(4월 1일)
   (3) 제5회 한국어학당 큰잔치(5월 26일)
   (4) 제7회 한국어 교육 학술 대회, “대조 분석과 학습자 오류 분석”(9월 3일)
   (5) 제20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국내 대회, 미국 대회(10월 7일)
   (6) LA연세어학당 미주 지역 한국어 교사 하계 연수 지원(8월)

(7) 국제 캠퍼스 대학 한국어 과정 개설(3월)
(8) 교재 개발 및 말뭉치 구축 등 총 15건의 연구 과제 진행

◇ 영남대학교 국어문화원

1. [712-749]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280 영남대학교 국제교류센터 210호
/전화 053-810-3561 /전송 053-810-4752
/전자 우편 ccrk@ynu.ac.kr
/누리집 http://ccrk.yu.ac.kr
2. 국민들의 국어 생활을 상담하고 언어문화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언어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국어 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2004년 7월 1일
4. 이혁화
5. 상근 상담원 3명, 무급 연구원 4명, 소원 30명(교수 제외)
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7. (1)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한국어 교재
(2) 성인 문해 교육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교재
(3) 2011 성인 문해 백일장 당선작 '어르신들의 세상을 향한 나들이'
(4) 경상북도 국어 책임관 사업 '경상북도는 국어를 사랑합니다'
8. (1) 대학생·교직원·지역민 대상 어문 규범·글쓰기 상담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국립국어원 주관)
(3) 자체 국어문화학교
(4) 소외 계층을 위한 한국어 문화 교육(칠곡군 교육문화복지회관)
(5)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마음 사랑방)
(6)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영남대학교, 칠곡군 교육 문화 복지 회관)
(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필리핀 현지 강사 파견 협정 체결)
(8) 경상북도 공무원 교육원 강의 지원

(9) 국어 및 한국어 교육에 관한 세미나
(10) 각종 강좌 교재 개발
(11)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학점 은행제 개설(～현재까지, 칠곡 교육 문화 회관, 영남대 사회교육원)
(12) 토론 왕 선발 대회
(13) 제6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지역 예선
(14) 제565돌 한글날 행사, “우리말 겨루기 대회”
(15) 법무부 지정 ABT대학 “한국 사회 이해” 전문 과정 개설
(16) 제4회 세계인의 날 행사
(17) 칠곡 성인 문해 교육 백일장 대회 개최(칠곡군 교육 문화 회관)

◇ 영주어문학회

1.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아라일동, 제주대학교)
/전화 064-754-2710 /전송 064-725-1901
/전자 우편 yeongjull@naver.com
/누리집 http://www.yeongju.biz
2. 영주어문학회는 국어학 및 국문학을 연구하고 자료를 발굴 정리하며, 연구 결과의 평가를 통해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국어국문학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학회지 『영주어문』 간행, 연구 발표회 및 학술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3. 2001년 3월 22일
4. 김병택
5. 280명
6. 영주어문(연 2회): ～22호
8. (1) 2011년도 상반기 전국 학술 대회 “개인 발표”(6월 9일, 제주대학교)
(2) 2011년도 하반기 전국 학술 대회 “유배 문학의 재조명”(11월 25일, 제주대학교)

◇ 우리말교육현장학회

1. [110-888]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702호
   /전화 02-744-3429 /전송 02-2269-3428
   /전자 우편 urimal-so@urimal-so.or.kr
   /누리집 http://www.urimal-so.or.kr/cms/default.aspx
2. (1) 나라 안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대학의 현장 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 교육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해외 동포나 외국인에게 나라 안팎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현장 문제를 연구하여 우리말 교육을 바람직한 길로 이끌고 드높이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갈라진 북녘의 우리말 교육 현장의 문제를 연구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겨레가 하나임을 지키고 북돋우는 일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3. 2006년 9월 23일
4. 임지룡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5. 1,500명
6. 우리말교육현장연구(연 2회): ~5-2호
8. (1) 2011년 7월 여름 학술 발표회
   (2) 2011년 12월 겨울 학술 발표회

◇ 우리말글교육학회(구 두류국어교육학회)

1. [660-756]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69번 길 3 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전화 055-740-1219 /전송 055-740-1210
2. 우리말글교육학회는 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들 서로가 국어 교육에 대한 학술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을 개선 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1997년 2월 1일
4. 양태식
5. 200여 명
6. 우리말글교육학회(연 1회): ~14호

◇ 우리말글학회

1. [712-714]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내
   /전화 053-850-5820 /전송 053-850-6019
   /전자 우편 urimalgeul@hanmail.net
   /누리집 http://www.urimalgeul.org
2. 우리말글학회는 우리말과 우리글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82년 3월 1일
4. 김태엽
5. 730명
6. 우리말글(연 3회): ~53호
8. (1) 2011년 우리말글 학술 발표 대회, “지역 어문학 연구와 도시 공간”(8월 19일, 대구대학교)

◇ 우리말학회

1. [608-060] 경상남도 김해시 인제로 197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학부
   /전화 055-320-3154
   /전자 우편 kiikang@inje.ac.kr
   /누리집 http://home.pusan.ac.kr/~urimal
2. 우리말학회는 국어학 및 관련 학문을 연구하고 이러한 학술 연구를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한편, 좁게는 언어학, 넓게는 타 학문과의 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한다.

3. 1991년 1월 1일
4. 강우원
5. 약 300명
6. 우리말연구(연 2회): ~29집
8. (1) 2011년도 겨울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 대회(2월 11~12일, 부산대학교)
   (2) 2011년도 여름 우리말학회 전국 학술 대회(8월 17일, 인제대학교)
   (3) 우리말연구 제28~29집 발간

◇ 우리어문학회

1.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화 02-2173-3961
   /전자 우편 contributions@hanmail.net
   /누리집 www.wooree.or.kr
2. 본 학회는 일차적으로 우리의 언어와 문학의 제반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동아시아 각국의 언어와 문학, 나아가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학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 문학의 주체적 인식을 심화·확장시키도록 한다. 우리의 언어와 문학에 대한 연구는 세계 각국의 언어와 문학 일반 가운데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는 개별어이자 개별 문학이다. 때문에 우리 언어와 문학만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특정 영역에 가둬두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타자의 영역으로 앎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우리의 세계'를 확정지을 수 있는 주체적 인식이 있어야 한다. 주체의 주체됨을 떠받치고 다른 여러 언어와 문학의 능동적 이해에로 나가가는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언어와 문학'에 대한 선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언어와 문학을 함께 연구 발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언어와 문학은 결코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짓고 우리 사고를 형성 발전시켜온 근간이 언어이며 문학이다. 우리라는 주체적 인식은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본 학회가 우리의 언어와 문학을 항상 연계해서 연구·발표하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와 그 언어로 이룩된 문학적 자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의 주체적 인식을 심화·확장하고 이를 통해 세계 보편의 언어와 문학으로 우리의 앎을 확장하려는 것이 본 학회의 설립 목적이다.

3. 1975년 3월 12일
4. 정경일(건양대학교 교수)
5. 358명
6. 우리어문연구(연 3회): ~41호
7. (1) 2011 동계 학술 대회, 2011 하계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8. (1) 2011 동계 학술 대회, “남북한 어문학의 현황과 전망”
   (2) 2011 하계 학술 대회, “지역의 언어와 문학”

◇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1.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 93 울산대학교 국어문화원 14-601호
   /전화 052-259-1911 /전송 052-259-1912
   /전자 우편 uoukorean@ulsan.ac.kr
   /누리집 http://uoukorean.ulsan.ac.kr
2. (1) 국어 연구와 보급
   (2) 국어 개선 사업
   (3) 국어 교육(내국인, 외국인)
3. 2009년 3월 1일
4. 이은섭
5. 사무국 직원 4명(연구원 4명)
8. (1) 울산 지역 공무원을 위한 좋은 글쓰기 과정
   (2) 울산 지역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강의

(3) 울산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우리말 바로 쓰기
(4) 재미있는 글쓰기 과정
(5) 울산대학교 중국어 번역 동아리 번역 문장 바로 쓰기 강의
(6) 울주군청 다문화 가정 지원 강사 재교육
(7) 한국어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한국어 특강
(8) 소외 계층 국어 교육
(9) 한글날 기념 외국인을 위한 우리말 겨루기 대회
(10)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예선
(11) 2011 울산 지역 시민 인문학 강좌
(12) 공공 언어 개선 지원 사업(민원 관련 공문서 쉽게 쓰기)
(13) 한국어 교육 강사 재교육(양성) 프로그램

◇ 이중언어학회

1.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807호
/전화 02-3277-6673 /전송 02-3277-2899
/전자 우편 korbiling@korbiling.org
/누리집 http://www.korbiling.org
2. 이중언어학회는 이중 언어학 및 이중 언어 교육의 이론적 연구와 응용을 통하여, 해외 동포 및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보급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을 후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1981년 9월 26일
4. 이다미(한양대학교)
5. 1,220명
6. 이중언어학(연 3회): ~47호
7. (1) 학술 대회 발표 논문집
8. (1) 제26차 전국 학술 대회, "다문화 사회 내에서의 의사소통 문제"(4월 1~2일, 전주대학교)
(2)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 대회, "이중 언어 사용과 문화 정체성"(11월 5~6일, 숭실대학교)

(3) 이중언어학 제45~47호 발행

◇ 이화어문학회

1.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국어국문학과 내
/전화 02-3277-2139, 2140 /전송 02-3277-2164
/전자 우편 ewhapress@paran.com
2. 국어국문학 연구를 통해 회원 간의 학문적 함양과 학계의 연구 풍토 조성에 이바지하여 새로운 연구 방법의 교환과 깊이 있는 학문 연구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화어문학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한 회원들이 1975년 6월 19일 '우리의 말과 글을 갈고 닦아 정성껏 다듬어 온 소중한 얼을 바탕으로 참된 우리 것을 창조해 보려는 솟구치는 의욕'에서 출발하였다. 초기에는 매월 회원들의 학술 발표회를 중심으로 진지하게 발표하고 토론함으로써 학문의 폭을 넓혔으며, 저명한 학자들을 초빙하는 특강의 기회를 통해 학문의 질을 높였다. 현재는 연간 2회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학술 발표회의 성과와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모은 학회지 『이화어문논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3. 1976년 10월
4. 한혜경
5. 160명
6. 이화어문논집(연 1회): ~29집
8. (1) 이화어문논집 제29집 발간
(2) 정기 논문 발표회 개최: 2011 여름 학술 대회, "문화 번역의 가능성과 미래"
(3) 정기 논문 발표회 개최: 2011 겨울 학술 대회, "한국어의 분석 층위와 기술"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문화원

1. [120-7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자대학교 학관 308호
   /전화 02-3277-3250 /전송 02-3277-2164
   /전자 우편 eomun@ewha.ac.kr
   /누리집 http://eomun.ewha.ac.kr
4. 전혜영
7. (1) 2011 한국어 교실 수업 자료집
   (2) 2011 국어문화원 한국어 상담소 상담 자료집
   (3) 이화어문학회 자료집
   (4) 문화원 연합회 워크숍 자료집
   (5) 필리핀 세종학당 한국어 수업 자료집(교재)
   (6)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한국 문화 교육 자료집(교재)
   (7) 공공 언어 개선 사업 기초 연구 자료집
   (8) 한글 주간 학술 대회 자료집
   (9) 국어 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자료집
8. (1)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한국어 문화 교육(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3) 필리핀 세종학당 한국어 및 한국 문화 체험 연수회 개최
   (4) 한글 주간 학술 대회 “서울의 말과 문화” 개최
   (5) 공공 언어 개선 사업(서울시와 업무 협약 체결)
   (6) 2011 국어문화원 한국어 상담소 운영
   (7) 이화어문학회 겨울 학술 대회 “한국어문학 여성 주제어 사전 편찬을 위한 예비 고찰” 개최
   (8) 이화어문학회 여름 학술 대회 “문화 번역의 가능성과 미래” 개최
   (9) 제6회 전국 국어 대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서울·인천 지역 예선(11월 5일)
   (10) 한글 주간 사진전-답사 사진 엽서 공모전 개최(11월 16일)
   (11) 국어 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 연찬회 개최(12월 19일)

◇ 인공지능연구실

1. [609-735]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 자연대 연구 실험동 316호 인공지능연구실
   /전화 051-510-2875 /전송 051-516-6764
   /누리집 http://klpl.re.pusan.ac.kr
2. 인공지능연구실은 인공 지능과 관련한 문제 중 자연어 처리와 정보 검색을 중점 연구·개발한다. 지금까지 한국어 정보 처리 분야에서는 오류가 적은 소량의 문서 처리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대용량의 한국어 분석 시스템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이 시스템은 형태소 분석과 태깅, 통사 분석과 의미 분석 등이 가능하다. 대용량인 만큼 오류가 많지만, 이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변해 가는 미래 정보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 사전 접근 구조, 언어 지식 저장 구조, 언어 분석 알고리즘, 언어 처리 모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추진한다.
3. 1988년
4. 권혁철
5. 8명
8. (1) 누리집과 전화를 통한 우리말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
   (2) 한국어 정보 처리 관련 연구 개발 활동(교육과학기술부, 산업체 지원)

◇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1.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253 인하대학교 서호관 438호
   /전화 032-860-8394 /전송 032-860-8394
   /누리집 http://www.inhakorean.or.kr
2.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은 국어 기본법에 따른 여러 국어 어문 규정을 학생과 지역 주민, 공무원, 개별 업체 회사원 등에게 계도·교육·상담하고 한국어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

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표준어 발음법·외래어 표기법·로마자 표기법 등의 어문 규정 교육을 통해 학생과 지역 주민·공공 기관 공무원·기업체 회사원 등의 바른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예절 준수와 국어 순화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이에 필요한 각종 연구 활동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인천 국어 생활 문화 고양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자료의 발굴·보존·보급에 힘쓰고 있다.

3. 2011년 2월 22일
4. 박덕유
5. 20명
6. (1) 단행본 발간
   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연구(연 1회)
   2) 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연 1회)

   (2) 교육 자료집 발간
   1) 지역민을 위한 국어 능력 향상반(연 1회)
   2) (초등학생)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연 1회)
   3) (중학생)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연 1회)

   (3) 홍보집 발간
   1)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 설립 및 안내 책자(연 1회)
   2) 제2회 인천 독서 체험 한마당(연 1회)
7. (1) 국어 생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2) 대학생과 일반인의 국어 사용 실태 파악 및 체계적 조사·연구

   (3) 지방 자치 단체나 국가 공공 기관, 기업체의 직원에 대한 국어 생활·문화 교육
8. (1) 국어 문화 발전 기초 연구 및 국어 생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1) 국어 상담을 위한 국어 규범에 관한 교육
   2) 재미있는 우리말 맞춤법 특강(5월), 꼭 필요한 자기 소개서 쓰기 특강
   3) 지역민을 위한 국어 능력 향상반

4)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5)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6) 국어 사용 능력 개발을 위한 청소년 독서·토론 대회
7) 공무원을 위한 국어 능력 향상반
8) 국어 생활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
· 한국국어교육학회 상반기 학술 대회 개최
· 연구 결과 단행본 출판

(2) 국어 정보지 발간 및 홍보
1)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음운 교육 연구(단행본)
2) 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단행본)
3) 지역민을 위한 국어 능력 향상반(자료집)
4) (초등학생)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책자)
5) (중학생)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책자)
6) 인하대학교 국어문화원(홍보용 소책자)
7) 제2회 인천 독서 체험 한마당(소책자)
8) 알수록 재미있는 우리말 제1화(홍보 자료)
9) 알수록 재미있는 우리말 제2화(홍보 자료)
10) 알수록 재미있는 우리말 제3화(홍보 자료)
11) 인하대에 '시민들의 국어 길잡이' 국어문화원 생겨 맞춤법 등 바른 말·글 알릴 것(언론 보도 자료)
12) 인천공단 소방서, 소방 공무원 친절 향상 교육(언론 보도 자료)

◇ 재단법인 외솔회

1. [110-111] 서울시 종로구 종로 12길 6(관철동)
/전화 02-734-5048 /전송 02-734-5049
/전자 우편 oesolhoe@hanmail.net
/누리집 www.외솔회.org
2. 나라사랑의 큰 뜻을 품으시고 평생을 나라와 겨레에 바치신 외솔 최현배 선생의 높은 뜻을 이어받아 이를 널리 펴냄과 아울러 이

로써 우리 겨레와 사회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함이 본회의 취지이다. 외래의 문화 세력에 침식된 우리의 자주 민족정신을 바로 세워 강건한 민족 주체성을 겨레 마음에 심고, 역사 속에 파묻혀 쓰러져 가는 겨레 정신과 겨레 문화를 발굴하여 새로운 한국학의 부흥을 기함으로써 이 땅에 참된 한국 정신을 발양코자 함이 그 목적이다.

3. 1970년 3월 23일
4. 성낙수
5. 2,480명
6. 나라사랑(연 2회): ~120호
7. (1) 학술 대회 논문 자료집 "사회 통합 매체로서의 한국어와 한글의 역할"
8. (1) 제4회 토박이말 글쓰기 한마당
   (2) 제1회 온 나라 초등학생 외솔 전기 독후감 공모 한마당
   (3) 565돌 한글날 기념 '제3회 집현전 학술 대회'
   (4) 제33회 외솔상 시상식

◇ 전남대학교 국어문화원

1. [500-757] 광주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 사범대학 1호관 305호
   /전화 062-530-0313 /전송 062-530-0330
   /전자 우편 kor@jnu.ac.kr
   /누리집 http://www.korjnu.kr
3. 2005년 10월 1일
4. 서상준
5. 운영 위원 5명, 상근 상담원 2명
8. (1) 국어 및 국어 생활 상담(방문·대면·전화·누리집)
   (2) 우리말글 100자 풀이(누리집 문제 풀이)
   (3) 토요 청소년 독서 토론 논술 교실
   (4)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광주시 주부 명예 기자 국어 문화 대학)
   (5) 대학생 우리말 지킴이 활동 지원

(6) 국어 교사를 위한 국어 교육 세미나
(7) 다문화 가정 여성을 위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8) 중학생 황금 사전 선발 대회 광주·전남 대회
(9) 한글날 기념 고등학생 논설문 쓰기 대회
(10) 한글날 기념 전라도 사투리 경연 대회(전라도 말 한마당)
(11) 한글날 기념 전라도 사투리 경연 대회(중학생 전라도 말 겨루기)
(12) 한글날 기념 전라도 말 대표 말 가려 뽑기
(13) 한글날 기념 전라도 말 학술 대회
(14) 한글날 기념 외국인 유학생 한글 경연 대회
(15) 한글날 기념 다문화 여성 백일장 및 말하기 대회
(16) 전남대학교 토론 왕 선발 대회
(17) 11월의 집현전
(18) 광주시 공무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19) 담양군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
(20) 국어문화원 자체 연찬회

◇ 전주대학교 한국어문화원

1. [560-75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교수연구동 804호
/전화 063-220-3095, 3096 /전송 063-220-3017
/전자 우편 korean5@paran.com
/누리집 http://korean.jj.ac.kr
2. (1) 국어 사용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상담, 연구 등 제반 사업 수행
(2) 지역민의 올바른 국어 생활을 위한 교육 및 상담 사업 수행
(3) 지역의 국어 문화 환경 개선과 지역민의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
(4) 국제결혼 이주민 및 그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5) 국어 문화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캠프 마련

3. 2006년 11월 23일
4. 소강춘
5. 30명
8. (1) 국어 상담 및 글쓰기 상담 연중 시행
   (2) 재학생을 위한 국어문화학교(총 5강)
   (3) 재학생을 위한 글쓰기 문화 학교
   (4) 청소년을 위한 국어문화학교(총 20강, 7월 26일~11월 26일)
   (5)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글쓰기 및 한국어 문화 학교 (총 15강, 9월 29일~11월 30일)
   (6) 실버 세대를 위한 글쓰기 문화 학교(총 10강, 10월 7일~11월 5일)
   (7)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8)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연 4회 운영)
   (9) 전북 도내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시행(11월 12일)
   (10)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전주 지역 예선(9월 26일)
   (11) 2011년 신어 조사 사업

◇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1.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1호관 8230호
   /전화 064-754-2712 /전송 064-726-2440
   /전자 우편 halla2712@jejunu.ac.kr
   /누리집 http://malgeul.jejunu.ac.kr
2.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발전·보전 기반 마련을 통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민족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7년 1월 4일
4. 강영봉
5. 원장 1명, 운영 위원 5명, 자문 위원 5명, 연구원 4명(특별 연구원 2명 포함) 등 총 15명
7. (1) 제주어 센터 총서 1: 제주어 조사 어미 사전(현평효, 강영봉

편저)
(2) 제주어 구술 자료 총서 4: 솔벤 절벤 귀짖촹 고장떡 톡 더 끄곡(제주시 금악마을 김기생 할머니 생애 구술)
(3) 상담 자료집 발간(최근 5년간 국어문화원에서 상담한 자료 정리)
(4) 제주 문화의 얼굴 '문화재 안내판' 문구 바루기 보고서
8. (1) 국어 생활 및 제주어 상담 연중 시행
(2) 2011 제주어 말하기 대회 개최(제주도 내 초·중·고생 25팀 참가 11팀 입상, 6월 17일)
(3) 제10회 전도 고등학생 논술 경시대회 공동 개최(고등학생 250여 명 참가, 7월 14일)
(4) 부설 제주어 센터 개소(8월 4일)
(5) 제5회 전도 외국인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외국인 유학생·이주민·근로자 8개국 34명 참가, 10월 9일)
(6) 2011 소외 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동려 평생학교 학생 대상 주 1회 2시간씩(8시간, 2개 반 운영)
(7) 2011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9개 단체 22회)
(8) 2011 영주어문학회 학술 대회 공동 개최
(9)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제주 지역 예선(11월 5일)
(10) 제주 문화의 얼굴 '문화재 안내판' 문구 바루기 사업(제주도내 문화재 안내판 300여 개 문구 현장 조사 및 바루기, 본보기 문구 개발)
(11) 공공 언어 개선을 위한 국어 책임관과 국어문화원 공동 협의회(12월 16일)

◇ 중앙어문학회

1.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흑석로 84번지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무실
/전화 02-820-5084 /전송 02-826-5084
/누리집 www.cakoll.or.kr

2. 본회의 목적은 국어국문학의 연구를 통하여 국어국문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어국문학의 학풍을 진작함에 있다.
3. 1993년 1월 26일
4. 안기수
5. 296여 명
6. 어문논집(연 3회): ~48호
8. (1) 제25회 중앙어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고전 문학과 대중성"
   (2) 제26회 중앙어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국어학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 인지 의미론(인지 언어학을 중심으로)"
   (3) 제27회 중앙어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해방기 북한 문학 예술 제도 형성 과정 연구"
   (4) 제28회 중앙어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고전 문학의 영웅 인물"

◇ 청람어문교육학회

1.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 탑연로 250
   /전화 043-230-3521 /전송 043-232-7175
   /전자 우편 korea712345@hanmail.net
   /누리집 http://home.knue.ac.kr/~koredu/22.htm
2. 청람어문교육학회(회장 신헌재)는 국어 교육학, 국어학, 현대 문학, 고전 문학, 한문 교육학의 연구 및 연구 결과를 보급·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학술 단체이다. 학회 회원이 학계의 전문가는 물론 전국의 초·중등학교의 교원과 교육 전문직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국어학, 국문학, 한문학 등 순수 학문 영역을 바탕으로, 초·중등학교 국어 교육 과정의 기획, 운영, 평가 전반에 초점을 두고 초·중등의 국어 교육, 한문 교육에 관한 다양한 양적·질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1987년 3월 2일
4. 신헌재
5. 1,720명

6. 청람어문교육학(연 2회): ~43집
8. (1) "차기 국어·한문과 교육 과정 내용 체계의 방향"에 관한 학술 대회 개최
   (2) "국어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관한 학술 대회 개최
   (3) 청람어문교육학 제42집 발간
   (4) 청람어문교육학 제43집 발간

◇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

1. [360-764] 청주시 상당구 대성로 298 청주대학교 인문대학 206, 207호
   /전화 043-229-8311 /전송 043-229-8310
   /전자 우편 sangdam@koreanlab.or.kr
   /누리집 http://www.koreanlab.or.kr
2.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은 우리 사회의 올바른 국어 생활과 균형 있는 국어 보급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 지역 주민, 공공 기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 및 상담을 전개함으로써 국어 표준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그 설립 목적을 둔다.
3. (1) 2003년 3월 3일 청주대학교 국어생활문화센터
   (2) 2005년 9월 16일 청주대학교 국어 상담소 승인(국립국어원 지정)
   (3) 2008년 4월 청주대학교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문화체육관광부)
4. 김희숙
5. 20명
6. 새국어문화생활(연 1회): ~3호
7. (1) 세계화 시대에 한국어, 한국인이 모른다.
   (2) 2010~2011년 충청북도 행정 용어 순화집
8. (1) 국어 관련 상담 연중 시행
   (2) 지역 주민을 위한 우리말글 신문 기고
   (3)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4) 충청북도 중·고등학생을 위한 국어 순화 특강
   (5) 공무원 국어 능력 향상 강좌 운영

(6) 행정 용어 순화 및 자료집 발간
(7) 충북 지역의 도시 언어 경관 조사
(8) 국어 능력 인증 시험 특강
(9) 한글날 기념 한글 주간 선포 및 '한글 사랑' 백일장 대회 개최
(10) 제2회 '전국 우리말 사랑왕 선발 대회' 주관
(11) 제6회 국제 학술 초청 강연회 '한국어 학습·번역을 통한 한국 문화와의 만남'(강사: 안선재, 현 단국대학교 석좌 교수)
(12) 제6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지역 예선 실시
(13) 소외 계층을 위한 야간 한국어 교실 운영

◇ 충북대학교 국어문화원

1.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418-1호
/전화 043-261-3450 /전송 043-276-9909
/전자 우편 korean@chungbuk.ac.kr
/누리집 http://korean.chungbuk.ac.kr
2. (1) 지역 주민,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글쓰기 등을 교육하여 국민들의 국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수준 높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을 통해 이주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2)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국어 생활에 대한 궁금증과 어려운 점을 상담하여 이들이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3) 위의 '교육'과 '상담' 활동에 필요한 국어 어문 규범, 언어 예절, 국어 문장, 국어 능력의 향상 방안, 국어 정책 등을 연구한다.
(4) 지역 주민의 언어 사용 실태와 지역어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지역어 보전에 노력한다.
(5) 지역 주민이나 학생들의 국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교내외 행사를 주최한다.

3. 2005년 10월 1일
4. 이호승
5. 5명
6. (1) 2011 상담 일지
   (2) 2011 교정 자료집
   (3) 11기 국어문화학교 일반
   (4) 2011 국고 보조 사업 실적 보고서
   (5) 2011 국고 보조 사업 정산서 및 집행 내역 영수증
7. (1) 생활 안내서『바른 국어 생활』발간
   (2) 다국어 요리책『행복 반찬』재발간
   (3) 소외 계층 자녀 글쓰기 교재
   (4) 대학생 독서 교육
   (5) 국어문화학교 교재
8. (1) 국어 상담 연중 시행
   (2) 청원군 국제결혼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3) 제6회 전국 국어 대회 황금 사전 선발 대회 예선
   (4) 국어문화학교 제11기 운영
   (5)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13회 시행
   (6) 청주시 고지도 도록 편찬 및 해석
   (7) 대학생 독서 교육
   (8) 소외 계층 자녀 글쓰기 교육
   (9) 다국어 요리책『행복 반찬』재발간
   (10) 한국어 강사 양성 과정 운영
   (11) 신문 기고:『충청투데이』에 국어 관련 내용 기고
   (12) 제6회 고등학생 우리말 실력 겨루기 대회 개최
   (13) 제7회 대학생 우리말 경연 대회 개최
   (14) 외국인 유학생 한국어 글쓰기 대회 개최
   (15) 결혼 이민자와 함께하는 우리글 축제
   (16) 충청북도 관공서 누리집 언어 개선

(17) 청주시 보도 자료 언어 정비
(18) 국어 문화 홍보 리플릿 제작 배포

◇ 한겨레말글연구소

1. [121-750]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16-25 한겨레신문사 서관 3층
/전화 02-710-0085
/전자 우편 cspcsp@hani.co.kr
/누리집 http://hanmalgal.org
2. 한겨레말글연구소는 한겨레신문사 부설 연구소로서, 언론 말글 바로 쓰기, 쉬운 글·바른 글 본 보이기, 국어 정보화 바탕 닦기, 어문 규범 점검, 남북 말글 차이 좁히기를 비롯한 실생활 속의 국어 연구 결과를 매체를 통해 실천하고 널리 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3. 2005년 6월 30일
4. 박창식
5. 19명
8. (1) 한겨레말글연구소 제7차 학술 발표회, "정치 언어 무엇이 문제인가"(11월 28일, 한계레신문사 청암홀)

◇ 한국고문서학회

1. [463-791]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하오고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신)장서각
/전화 031-704-0567 /전송 031-781-2164
/전자 우편 sjann@aks.ac.kr
/누리집 http://www.gomunseo.or.kr
2. 고문서는 우리의 역사, 문화, 사회 연구의 1차 자료이다. 고문서가 모든 계층민의 생활상, 신분, 법제, 경제, 민속, 언어 등의 연구에 무한한 가치를 가진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무관심 속에 소실되거나 해외 반출, 공개 기피, 무지와 무관심 등으로 인멸되어 갔다. 한국고문서학회는 1991년 설립된 이후 2011년까지 170여 회

의 연구 발표회를 통해 고문서의 수집을 활성화하고, 새로 발굴한 자료의 소개, 고문서의 체계적 분류, 고문서 강독, 고문서 용어 풀이 등 활발한 활동을 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학회지 총 39집, 조선 시대 생활사 1~3 등을 편찬 간행하여 고문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왔다.

3. 1991년 4월 26일
4. 김현영
5. 211명
6. 고문서연구(연 2회): ~39호
8. (1) 제167회 연구 발표회(3월 12일, 대우재단빌딩)
   (2) 제168회 연구 발표회(4월 9일)
   (3) 제169회 연구 발표회(5월 14일)
   (4) 제170회 연구 발표회(9월 3일)
   (5) 제171회 연구 발표회(10월 8일)
   (6) 제172회 연구 발표회(11월 12일)
   (7) 제173회 연구 발표회(12월 10일)

◇ 한국국어교육학회

1. [402-751] 인천광역시 남구 인하로 100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32-860-7843 /전송 032-862-7840
   /전자 우편 korean-lang@hanmail.net
   /누리집 http://www.korean-lang.com
2. 한국국어교육학회는 국어 교육이 일반 교육의 근간이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국어 교육에 대한 전국적인 연구 기관이 별로 없었던 1963년 9월 29일 국어 교육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본 학회는 국어 교육의 방법 연구, 교과서 연구, 참고서의 분석 연구 출판, 국어 순화, 청소년 문예 기능 지도, 국어 교육 자료 제공 등 국어 교육 전반에 걸쳐 효과적인 역할을 선도해 왔다. 또한 1963년 12월 30일 창간호 발

간을 시작으로 2011년 10월 현재 통권 88호의 학술지 『새국어교육』의 발간과 117차에 걸친 학술 대회, 그리고 10년이 넘게 '국무총리상 및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상 편지 쓰기 현상 공모 대회'를 개최해 왔다. 특히, 매년 3회(4월, 8월, 12월) 발간되는 학회지 『새국어교육』은 한국연구재단의 등재 학술지로 매년 학술 대회 및 학회지 발간 지원은 물론, 학술정보원으로부터도 일정 금액을 지원받고 있다.

3. 1963년 9월 29일
4. 박덕유
5. 1,960명
6. 새국어교육(연 3회): ~89호
7. (1) 제117차 전국 학술 대회, "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6월 18일, 인하대학교)
   (2) 제118차 전국 학술 대회, "정보화 시대 언어 교육"(11월 12일, 충북대학교)

◇ 한국글꼴개발연구원(구 한국글꼴개발원)

1. [130-0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6
   /전화 02-969-8851~3 /전송 02-969-8854
   /전자 우편 sejong@sejongkorea.org
   /누리집 http://www.sejongkorea.org
2. (1) 한국글꼴개발원(현재 한국글꼴개발연구원)은 한글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글꼴의 올바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고품위 글꼴 개발의 촉진과 건전한 유통 보급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한글의 과학적이고 미적인 발전과 아울러 법적 제도적 보호 강화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의 문화적 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국어 정보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글꼴 개발에 관련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 연구 사업, 유통 보급 사업, 교육 홍보 사업의 추진을 위해 1998년에 문

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사단 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부설 기관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설립 당시 문화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이 주관하는 국어 정보화 중장기 발전 계획인 '21세기 세종 계획'의 일환으로 '글꼴개발보급센터'로 2006년까지 지정받은 바 있다.

3. 1998년 3월 19일
4. 박병천(경인교대 명예 교수)
5. 23 서체 개발 업체
7. (1)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글씨본(아람 이한순 글씨, 의당 이현종 글씨, 규당 조종숙 글씨, 한곬 현병찬 글씨, 난정 이지연 글씨) 5책
   (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5인 글씨 디지털 한글 시디 제작
8. (1) 제19회 한글 글꼴 디자인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10월 8일~11월 7일)
   (2) 현대 한국 대표 서예가 한글 글씨본 5인(아람 이한순 글씨, 의당 이현종 글씨, 규당 조종숙 글씨, 한곬 현병찬 글씨, 난정 이지연 글씨) 디지털 글씨 개발

◇ 한국문법교육학회

1.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내
   /전화 02-3290-2576 /전송 02-3290-2576
   /전자 우편 grammar__edu@naver.com
   /누리집 http://www.grammaredu.net
2. 한국문법교육학회는 국어 문법의 논리적 체계를 재정립하고 문법 교육의 효율적인 방법론을 연구하여 이를 국어 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04년 3월 27일
4. 박홍범(한남대 국어교육학과)
5. 243명

6. 문법교육(연 2회): ~15호
8. (1) 제14차 전국 학술 대회(2월 19일, 서울여자대학교)
   (2) 제15차 전국 학술 대회(8월 13일, 고려대학교)

◇ 한국문학언어학회

1. [702-701] 대구광역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인문대학 406호 국어국문학과
   /전화 02-950-5112 /전송 02-950-6106
   /전자 우편 ljh@knu.ac.kr
   /누리집 http://www-2.kyungpook.ac.kr/~kpem
2. 한국문학언어학회는 국어국문학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언어와 문학의 발전 및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지역 어문학을 새롭게 발굴하고 탐구하여 지역 어문학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지역학은 물론이고 한국학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3. 1962년 10월 9일
4. 이상규
5. 268명
6. 어문론총(연 2회): ~55호
8. (1) 2011년 동계 전국 학술 발표 대회(1월 14일, 경북대학교)
   (2) 2011년 상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국어학 월례 발표회(3월 5일, 경북대학교)
   (3) 2011년 상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현대 문학 월례 발표회(4월 30일, 경북대학교)
   (4) 2011년 상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고전 문학 월례 발표회(6월 4일, 경북대학교)
   (5) 2011년 한국문학언어학회 하계 전국 학술 발표 대회-우리말글학회와 공동 주최(8월 19일, 대구대학교)
   (6) 2011년 하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고전 문학 월례 발표회(9월 24일, 경북대학교)
   (7) 2011년 하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국어학 월례 발표회(10월 22

일, 경북대학교)
(8) 2011년 하반기 한국문학언어학회 현대 문학 월례 발표회(11월 26일, 경북대학교)
(9) 어문론총 제54~55호 발간

◇ 한국방송(KBS) 국어문화원

1. [150-7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1750~1754 /전송 02-781-1759
/누리집 korean.kbs.co.kr
2. 국어 기본법에 따라 전국 대학 국어학과에 국어 상담을 위한 상담소가 설치되었는데,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KBS 아나운서실이 국어 상담소로 지정되었고, 이후 국어문화원으로 개칭되었다.
3. 2005년 10월
4. 이규원
5. 207명
6. KBS 한국어 포스터(1월 '가는 해, 오는 해', 2월 '우리는 한 단어, 붙여 써 주세요', 3월 '3·1절에 아직도 사용하십니까?', 4월 '전쟁 관련 비유를 삼갑시다', 5월 '교통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6월 '표기법에 어긋나는 영화 제목들', 7월 '알쏭달쏭 표준어', 8월 '틀리기 쉬운 행정 구역', 9월 '외국어, 이렇게 순화했어요', 10월 '짜장면도 표준어가 되었어요', 11월 '대문자로 써야 하는 단위 기호', 12월 '아나운서처럼 발음해 봐요')
7. (1)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바른 우리말
8. (1) KBS 한국어 포스터 발간 및 배포(전국 3,423개 초등학교)
(2)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교육(전국 100개 중·고등학교)
(3) 한국어 상담(전화 02-781-3838)
(4) KBS 한국어 발음 사이트 운영(korean.kbs.co.kr)
-발음 동영상 강의 및 '나도 발음왕' 선정 등
(5) KBS 한국어 포스터 전시

◇ 한국방송(KBS) 한국어연구회

1. [150-790]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1750~4 /전송 02-781-1759
   /누리집 korean.kbs.co.kr
2. 방송 언어에서 축적한 음성 언어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올바른 표준 한국어 사용을 위한 연구와 표준어 보급을 위하여 KBS 아나운서를 회원으로 하고 국어, 음성학, 소통 학계의 전문가를 자문 위원으로 위촉해 연구와 교육 사업을 펼치고 있다.
3. 1983년 4월 23일
4. 김성수
5. 207명
6. (1) KBS 한국어연구 논문집(연 1회): ~61호
   (2) KBS 한국어 포스터(매월)
7. (1) 아나운서와 함께 배우는 바른 우리말
8. (1) 신입 아나운서 교육
   (2) 방송 출연자를 위한 2011 한국어 공개강좌
   (3) 한국어연구회 자문 위원 회의
   (4)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교육(100회)
   (5) 바른 말 고운 말 프로그램 제작(라디오, TV)
   (6) 한국어 상담(전화, 인터넷)
   (7) KBS 가요, 방송 언어 심의, 정부 외래어 심의
   (8) 방송 언어 이러닝, 각종 사외 스피치 강연 출강
   (9) 한국어연구 논문집 발간, KBS 한국어 포스터 발간 등
   (10) KBS 대학생 여름 방송 캠프

◇ 한국방언학회

1. [712-714]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53-850-6012 /전송 053-850-6019

/전자 우편 moyttara@hanmail.net
/누리집 http://sokodia.or.kr

2. 한국방언학회는 방언을 학술적으로 조사·연구하고 그 연구 결과물을 보급함으로써 언어·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방언에 대한 조사·연구 및 그 결과물의 보급, (2) 방언에 대한 연구와 보급을 위한 행사, (3) 회지 및 도서의 간행, (4) 기타 필요한 사업.
3. 2004년 9월 11일
4. 곽충구
5. 215명
6. 방언학(연 2회): ~14호
8. (1) 2011년 제8회 전국 학술 대회(6월 24~25일, 한림대학교)

◇ 한국사전학회

1. [302-735] 대전 서구 연자 1길 배재대학교 인문대학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전화 042-520-5463 /전송 042-520-5463
/전자 우편 koreanlex@hanmail.net
/누리집 http://www.korealex.org
2. 사전의 편찬은 한 언어의 문화 전체를 하나로 집대성하는 일로서 겨레의 자주적, 창조적 발전에 무엇보다도 긴요한 일이다. 『우리말 큰사전』을 필두로 하여, 『국어 대사전』, 『새 우리말 큰사전』, 『연세 한국어 사전』, 『표준국어대사전』 등 국어학, 언어학, 사전 편찬학, 전산 언어학을 바탕으로 한 우리나라의 사전 편찬의 역사는 근 한 세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사전 자체에 대한 학술적 연구의 결집은 아직까지 든든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근래에 사전의 개념이 언어 정보학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사전과 사전 편찬은 새 세기의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 떠올라 새로운 학술적 관심과 각오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사전에 관한 연구와 실천의 성과들을

기초로 삼아 우리 학계에 사전학 및 사전 편찬학을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참신한 학문으로 정립시키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날의 사전 연구가 언어학, 국어학뿐 아니라 서지학, 문헌 정보학, 전산 언어학 등 여러 학문 분야의 학술적인 연대를 필요로 함을 알기에 상기 각 분야의 학자와 관심이 있는 모든 분의 참여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우리는 현대 사전학이 전 지구적 학문으로 정착된 사실을 중시하여 '아시아 사전 학회', '유럽 사전 학회', '북미 사전 학회' 등 세계 학회들과의 조직적 유대와 교류를 통하여 첨단 학술 정보를 입수하고 국내의 연구 및 실천의 결과를 널리 알리는 일에도 적극 힘쓸 것이다.

3. 2002년 2월 15일
4. 김하수
5. 약 230명
6. 한국사전학(연 2회): ~18호
7. (1) 학회 소식지
8. (1) 제19차 전국 학술 대회, "번역과 사전"(8월 19일,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 한국사회언어학회

1. [320-711] 충남 논산시 대학로 119 건양대학교 영미영어문화학과
   /전화 041-730-5351 /전송 041-730-5358
   /전자 우편 hskim@konyang.ac.kr, kspaik@hywoman.ac.kr
   /누리집 http://www.socioling.com/
2. 사회 언어학과 관련된 제반 연구에 참여하거나 관심이 있는 학자들이 모여 서로 논문 발표와 토론을 통해 언어학적 이론의 깊이를 꾀하고, 동시에 언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순수 학술 단체이다. 언어를 사회적 현상이나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체계적 이론의 깊은 이해를 통해서만이 언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인간 상호 간의 이해와 함께 인간의 사유 및 행동과 그의 삶을 지배하고 창조하며 인간성의 본질적인 핵심에

까지 관계하는 힘을 기르기 위해 사회 언어학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3. 1990년 12월 8일
4. 김혜숙
5. 480명
6. 사회언어학(연 2회): ~20-1호
8. (1) 한국사회언어학회·담화인지언어학회 2011년 봄 공동 학술 대회(4월 23일)
(2) 한국사회언어학회 가을 정기 학술 대회(11월 12일)

◇ 한국알타이학회

1.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안
/전화 02-880-6167 /전송 02-882-2451
/전자 우편 altai@plaza.snu.ac.kr
/누리집 http://plaza.snu.ac.kr/~altai
2. 한국알타이학회는 알타이 제 민족의 언어, 문학, 역사, 민속 등 문화 전반에 관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85년 10월 1일
4. 김주원
5. 158명
6. 알타이학보(연 1회): ~21호
8. (1) 알타이학보 제21호 발간(6월 30일)
(2) 제10차 알타이학 국제 학술회의 개최(7월 15~16일)
(3) 알타이계 언어 현지 조사

◇ 한국어교육원(서강대)

1. [121-742]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35 (신수동)
/전화 02-705-8087, 7887 /전송 02-701-6691

/전자 우편 ckss@sogang.ac.kr, sogangkip@gmail.com
/누리집 klec.sogang.ac.kr,
koreanimmersion.org, koreanteachers.org

2.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은 국내외 외국인 및 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연구·교육하는 기관이다. 본 기관은 의사소통 능력을 효과적으로 배양시키기 위하여 과제 중심, 의사소통 중심 교육 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축적된 교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재를 출판·보급하고 있으며, 한국 사회, 언어문화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여 2~3년마다 교재를 개정하고 내용을 최신화하고 있다. 1998년에 한국어 무료 학습 사이트 사이트를 개통하여 해외 독학자들의 한국어 학습을 지원해 왔으며, 2012년에는 한국어 교사 사이트를 개통하여 한국어 수업 자료, 부교재를 해외 한국어 교사들에게 무상 제공하고 있다. 또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 방법론에 대한 다각적 연구와 실천을 위해 국내외 한국어 교육가들이 교류·협력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습자 중심, 과정 중심, 활동 중심의 교육 과정은 다국적 학습자들을 '한국어로 소통하고 한국 사회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며 학습자 자문화와 목표 문화를 통합 발전시키는 창조적인 인재'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1990년 4월
4. 허구생
5. 2,800명
7. 서강 한국어 영어 문법 단어 참고서 5A, 5B 출판
8. (1) 미 국무부 파견 청소년 한국어 교육 과정 수탁 운영(6월)
   (2) 미국 초·중·고교 한국어 교사 대상 한국어 교사 연수 공동 주최(미국 한국어진흥재단,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7월)
   (3) 한국 언어문화 집중 교육 과정(Korean Immersion Program, 7~8월)
   (4) 중국 범주강 삼각주 한국어교육학회 공동 주최(중국 사천외대,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범주강 삼각주 한국어교육학회, 10월)
   (5) 해외 대학교 한국어 교수법 워크숍 공동 주최(중국 남경사

범대, 서강대 한국어교육원, 12월)
(6) 학문 목적 과정 강사진 9명 중국 현지 연수 실시(12월)

◇ 한국어교육학회

1. [151-748]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윤여탁 교수 연구실
/전화 02-880-7659 /전송 02-880-7657
/전자 우편 koreaedu@hanmail.net
/누리집 http://www.koredu.org
2. 한국어교육학회는 국어 교육의 이론 및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국어 교육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55년 2월 25일
4. 윤여탁
5. 1,088명
6. 국어교육(연 3회): ~136집
8. (1) 제271회 봄 학술 대회 및 교육 과정 토론회(5월 14일, 한양대학교)
(2) 2011 개정 국어과 교육 과정에 대한 국어 교육 관련 학회의 연합 학술 대회(주관: 한국어교육학회, 한국국어교육학회, 국어교육학회,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서울교대초등국어교육연구소, 10월 1일, 서울교육대학교)
(3) 제272회 가을 학술 대회(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4) 국어교육 제134~136집 발간

◇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 [137-87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627-1 한국어문회관 501호
/전화 02-6003-1400 /전송 02-6003-1441
/누리집 http://www.hanja.re.kr
2. 본회는 국어국문학 학술 연구와 한자 교육을 통한 국어 교육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전개한다. 1) 국어국문학과 그 교육에 관한 연구와 발표 2) 학술지『어문연구』간행 3) 상용한자 선정(안) 연구 4) 한자 능력 검정 시험용 대표 훈음 연구 5) 국어·어문 교육·한자 교육 등 관련 교재의 간행

3. 1969년 7월 31일
4. 성환갑
5. 1,500여 명
6. 어문연구(연 4회): ~39-4호
8. (1) 제9회 어문 논문상 시상(2월 14일)
   (2) 제182회 전국 학술 대회 개최(4월 16일)
   (3) 제183회 학술 강연회 개최(5월 13일)
   (4) 제184회 창립 42주년 학술 강연회 개최(7월 29일)
   (5) 제185회 전국 학술 대회 개최(9월 24일)
   (6) 제186회 전국 학술 대회 개최(12월 10일)

◇ 한국어문교육학회

1. [611-736] 부산시 연제구 교대로 24 부산교육대학교 내 /전화 051-500-7210 /전송 051-500-7211
2. 한국어문교육학회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북돋우고 학회지 발간을 통하여 한국 어문 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 초등 국어 교육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초등 교육 전문가 양성과 전문성 계발에 기여한다.
3. 1976년 11월 13일
4. 심상교
6. 어문학교육(연 2회): ~43호
8. (1) 연구 발표회 제243~245차(연 3회)

◇ 한국어문기자협회

1.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2호

/전화 02-732-7367～8, 722-0940, 2001-7618
/전송 02-723-8755
/전자 우편 proowri@chol.com
/누리집 http://www.malgeul.net
2. 신문과 방송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우리말 연구를 통해 언어문화와 신문·방송 발전에 기여한다.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지킨다.
3. 1975년 10월 17일
4. 이경우
5. 300명
6. 말과 글(연 4회): ～129호
8. (1) 말과 글 제126～129호 발행(2011년)
(2) 제30회 전국 신문·방송 어문 기자, 아나운서 세미나 "신문·방송 언어 환경 개선을 위한 어문 기자의 구실"(3월 24～26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3) 제28회 한국신문협회장 배 전국 신문·방송 어문 기자 체육대회(10월 8일, 경기 고양시 농협대학 운동장)
(4) 2010 한국 어문상 수상자 해외 연수(6월 30일～7월 1일, 베트남 호찌민 등)
(5) 제23회 한국 어문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개최(12월 8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클럽)

◇ 한국어문학연구소

1.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 1호관
/전화 062-530-3299 /전송 062-530-3140
/전자 우편 limhm@.chonnam.ac.kr
/누리집 http://altair.chonnam.ac.kr/～koreanll
2. 본 한국어문학연구소는 한국의 어문학 전반에 대한 학술 연구 및 연구 지원과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한편으로는 지식 기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 사용 능력 신장 교육과 연구 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03년 9월 1일
4. 임칠성
5. 50명
6. 어문논총(연 1회): ~22호
7. (1) 공무원 대상 '공공 언어와 화법과 글쓰기' 강좌 운영(3월)
   (2) 한국어문학연구소 정기 학술 발표회: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4월)
   (3)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학과 주체 학술 발표 대회,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4월)
   (4)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30차 시험 문제 출제(5월)
   (5) 한국어문학연구소 정기 학술 발표회: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5월)
   (6) 한국어능력평가협회와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에 관한 협약 체결(5월)
   (7) 한국어문학연구소 정기 학술 발표회(7월)
   (8) 『어문논총』 22호 발간
   (9)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31차 시험 문제 출제(8월)
   (10) 한국어문학연구소·국어교육학과 주체 학술 발표 대회, "토론 지도의 원리와 실제"(9월)
   (11)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32차 시험 문제 출제(10월)
   (12) 한국어문학연구소 정기 학술 발표회: 분야별 연구 논문 발표(11월)
   (13) 한국 실용 글쓰기 검정 33차 시험 문제 출제(12월)

◇ 한국어문학연구학회

1.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만해관 413호
   /전화 02-2260-8913
   /전자 우편 e-hanyeon@hanmail.net
   /누리집 http://www.hanyeon.kr

2. 본회는 한국의 어문학에 대한 연구 및 연구 결과의 보급을 통하여 한국의 어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64년 3월
4. 한만수
5. 363명
6. 한국어문학연구(연 2회): ~57호
8. (1) 2011년도 상반기 정기 학술 대회(5월 21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2) 2011년도 하반기 정기 학술 대회, "조선 전기 언해(諺解)의 사회 문화적 맥락과 학술사적 의의"(11월 26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한국어문학회

1. [704-701] 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인문대학 한국어문학과 최미정 교수 연구실
   /전화 053-580-5083 /전송 053-810-4728
   /전자 우편 eomunhak@naver.com
   /누리집 http://www.eomunhak.or.kr
2. 한국어문학회는 국어학 및 국어 교육, 고전 문학, 현대 문학 등 국어국문학의 연구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학회로, 전국의 국어국문학 연구자 1,0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956년 11월에 창립되었으며, 한국어문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인 『어문학』은 1956년 11월 15일 1집을 발간하였고, 2001년에 인문학 분야 최초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되었으며, 매년 4회씩 발간하고 있다. 이밖에도 어문학 학술 총서를 기획·간행하는 등 국어국문학 연구를 통한 세계 문화 창달에 앞장서고 있다.
3. 1956년 11월 8일
4. 최미정
5. 약 1,000명
6. 어문학(연 4회): ~114호

7. (1) 어문학 학술 총서 기획
8. (1) 2011년 한국어문학회 전국 학술 대회 개최, "국어국문학 연구의 대중화 방안"(10월 29일, 경북대학교 우당교육관)

◇ 한국어문화교육원(한국외국어대)

1. [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전화 02-2173-2260 /전송 02-2173-2257
   /전자 우편 cklace@hufs.ac.kr
   /누리집 http://korean.ac.kr
2. 외국어 교육의 요람인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한국어·문화 교육 전문 기관으로서 1992년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더 많은 학습자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개편하여 2006년 독립적인 한국어 교육 기관인 한국어문화교육원으로 거듭났다. 본원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목표로 하여 학습자에게 실제적이고 수준 높은 한국어·문화 교육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다.
3. (1) 1992년 4월(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어연수평가원 한국어과 개설)
   (2) 2006년 9월(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으로 직제 개편)
4. 김재욱
5. 45명
7. (1) 정규 과정 졸업생 논문집(연 4회)
   (2) KFL 강의안(연 4회)
   (3) 사회 통합 프로그램(KIIP)를 위한 한국어 중급 1 교사용 지침서(12월)
   (4) 2010년도 세종학당 운영 평가 연구 보고서(1월)
8. (1) 한국어 정규 과정 및 단기 과정
   (2)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KFL)(연 4회)
   (3) 태국 방콕 세종학당(2011년 3월~2012년 2월)

(4) 법무부 사회 통합 프로그램(3~11월)
(5) ABT 구술 시험관 직무 교육 개설(5월, 11월)
(6) ABT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양성 과정 및 보수 교육(12월)
(7)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8월)
(8) 문화 엑스포 개최(4월)
(9) 한국어 말하기 대회 개최(7월)
(10) 일본 천리대학교 한국어 특별 과정(8월)
(11) 일본 니가타현립대학교 한국어 특별 과정(8~9월)
(12) NHN 한국어 특별 과정(4월, 9월)
(13) 미군 제2사단(Camp Casey) 대상 한국어 특별 과정(4~5월)

◇ 한국어세계화재단

1. [157-857]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608호
/전화 02-2669-9764 /전송 02-2661-3895
/누리집 www.glokorean.org, www.sejonghakdang.org
2. 한국어의 세계 보급 및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2001년 1월 13일
4. 송향근(현 부산외국어대 교수)
7. (1) 한국어 발음 교육
(2) 한국어 교수법
(3) 한국어 문법 교육
(4) 100대 한글 문화유산 자료 출판(훈민정음, 초발심자경문, 연행가, 홍무정훈역훈, 역주 번역노걸대와 노걸대언해, 국문연구의정안, 송강가사, 춘향전, 몽산법어언해 등)
(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학습 사전
(6) 초급 한국어 말하기
(7) 초급 한국어 쓰기
(8) 초급 한국어 읽기
(9) 초급 한국어 듣기

(10) 러시아어 한국어 사전

8. (1) 3월 학기제 세종학당 신설 및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2) 9월 학기제 세종학당 신설 및 지원 사업(문화체육관광부)
(3) 누리-세종학당 구축 및 운영 사업(문화체육관광부)
(4) 세계 한국어 교육자·학습자 대회(문화체육관광부)
(5) 세종학당 공동 브랜드화 사업 위탁 용역(문화체육관광부 용역 사업)

◇ 한국어의미학회

1. [443-76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이준희 교수 연구실
/전화 031-249-9113
/전자 우편 ksemantics@hanmail.net
/누리집 http://www.semantics.or.kr
2. 한국어의미학회는 언어학 중 최근 세계적으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의미론 분야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국어학 연구 핵심 분야의 하나인 의미론에 관한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는 어휘 의미론, 문장 의미론, 화용론, 인지 의미론, 응용 의미론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분석하며, 연구자들 상호 간에 의미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고자 한다.
3. 1997년 2월 21일
4. 최호철
5. 350명
6. 한국어의미학(연 3회): ~36호
8. (1) 한국어의미학회 제28차 전국 학술 발표 대회(2월 16일, 상명대학교)
(2) 한국어의미학회 제29차 전국 학술 발표 대회(8월 16, 17일, 강릉원주대학교)

◇ 한국어학회

1. [136-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 02-3290-1973
   /전자 우편 koreanlingua@daum.net
   /누리집 http://www.koling.org
2. 한국어학회에서는 현재 국어사 자료 연구회, 음운론 연구회, 형태론 연구회, 통사론 연구회, 의미론 연구회 등의 연구 모임을 통하여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국어학 전반에 대한 연구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한편 1996년 10월 23일 충청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학회 중부 지회'를 창립하여 연구 발표회를 갖고 있으며, 1997년 8월 1일에는 미래의 정보 사회를 주도할 학회로 거듭나기 위해 '한국어공학연구소'를 설립하여 현재 '영한/한영 번역기'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3. 1985년 7월 27일
4. 조일영(한국교원대학교)
5. 634명
6. 한국어학(연 4회): ~53호
8. (1) 제57차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 대회, "방송 광고 언어"(2월 20일, 삼육대학교)
   (2) 제58차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 대회, "번역 한국어의 문체와 어휘"(8월 17~18일, 한국교원대학교)
   (3) 제59차 한국어학회 전국 학술 대회, "격과 조사"(11월 19일, 단국대학교)

◇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1. [314-701] 충남 공주시 공주대학로 56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41-850-8170 /전송 041-855-2653

/누리집 www.haneomun1993.net

2.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는 국어국문학과 국어 교육 분야의 연구에 힘써 해당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국어국문학 및 국어 교육 분야에 대한 학술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고 학회지를 발간하는 등 여러 학술적 사업을 개최하는 것을 그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3. 1993년 1월 30일
4. 송명희
5. 492명
6. 한어문교육(연 2회): ~25집
8. (1) 제58차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년 정기 학술 대회, "국어 교과서 검정 체계와 그 대안"(8월 19일, 부경대학교)
   (2) 제59차 한국언어문학교육학회 2011년 국제 학술 대회, "한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문화 비교 연구"(10월 27~28일, 우즈베키스탄 니자미사범대학)
   (3) 한어문교육 제24~25집 발간

◇ 한국언어문학회

1.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김신중 교수 연구실
   /전화 062-530-3134 /전송 062-530-3140
   /전자 우편 kore05@daum.net
   /누리집 www.koreall.or.kr
2. 한국언어문학회는 한국어, 한국 문학을 연구하여 한국 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상호 간의 학술 교류 및 학문 증진을 도모하여 학계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63년 2월
4. 김신중
5. 1,257명
6. 한국언어문학(연 4회): ~79집

7. (1) 전국 학술 대회 발표 자료집
8. (1) 2011년 제52차 한국언어문학회 정기 학술 대회, "한국 언어 문학 새 자료의 발굴과 공유"-기조 발표와 함께 국어학, 고전 문학, 현대 문학, 국어 교육 등 4개 분야에 걸쳐 총 23명의 연구자가 논문 발표(11월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2) 한국언어문학 제76~79집 발간

◇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1. [110-7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성균관대학교
   다산경제관 32327호 박성태 교수 연구실
   /전화 010-3243-8537 /전송 02-760-1300
   /전자 우편 klaces@gmail.com
   /누리집 http://www.klaces.or.kr
2.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의 설립 목적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 교육을 위한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학회의 근본 목적인 것이다. 최근 한국어 교육의 중심축은 한국어의 언어적 지식 교수가 아닌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한 교수로 옮겨 가고 있고, 그 변화 과정에서 한국 문화 교육 역시 자연스럽게 한국어 교육과 밀접한 연관을 맺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어 교육과 한국 문화 교육의 방법론을 학제 간의 관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아 체계적 연구를 꾀하는 것이 본 학회의 실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3. 2003년 11월 1일
4. 허용
5. 330명
6. 언어와 문화(연 3회): ~7-3호
8. (1) 제5차 국제 학술 대회(1월 23~26일, 홍콩 중문대학 전업진수학원)
   (2) 제14차 전국 학술 대회(4월 30일, 서울교육대학교)
   (3) 제15차 전국 학술 대회(10월 14~15일, 건국대학교)

◇ 한국언어문화학회

1. [426-791]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국제문화대학 문화콘텐츠학과 박상천 교수 연구실
   /전화 031-400-5316
   /전자 우편 image@hs.ac.kr
   /누리집 http://www.klnc.net
2. 한국언어문화학회(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Culture)는 우리말과 글의 학문적 발전을 도모하여 우리의 삶을 좀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하려는 이들의 모임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학의 자료를 발굴·정리하고 이론을 정립하여 한국 어문학과 문화 연구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1974년 12월 20일
4. 박상천
5. 240명
6. 한국언어문화(연 3회): ~48호
8. (1) 2011년도 여름 학술 대회 개최, "인문학을 다시 생각한다."(8월 26~27일, 전북 완주군 고산 자연 휴양림)

◇ 한국언어학회

1. [363-1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태성 탑연로 250 한국교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전화 043-230-3554 /전송 043-236-3554
   /누리집 http://www.linguistics.or.kr
2. 한국언어학회(회장 김기호)는 인간학으로서의 언어학 연구 및 발전, 언어의 이론적 연구와 그 응용을 목적으로 창립되었다.
3. 1975년 10월 25일
4. 김기호
5. 835명
6. 언어(연 4회): ~37-2호

8. (1) 국제 학술 대회(WICLIS-2011)
   (2) 봄 학술 대회
   (3) 가을 학술 대회
   (4) 국제 언어학 올림피아드 국가 대표 선발전

◇ 한국작문학회

1.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정희모 교수 연구실
   /전화 02-2123-5266 /전송 02-392-0314
   /전자 우편 writing@hanmail.net
   /누리집 http://www.rokwa.org
2. 인간은 작문 활동을 통하여 창의적으로 의미를 구성하고,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며 유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우리의 선인들은 작문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 왔을 뿐만 아니라, 작문 활동을 격조 높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 왔다. 작문 활동은 현대인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학습 양식이다. 작문이 학습의 바탕인 점에서 그 가치에 대한 재인식은 물론이고, 작문 과정과 작문 상황, 작문 효과 등 여러 관점과 바탕에서 이론과 현상을 탐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작문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관심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간 작문에 대한 연구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었다. 그리하여 그 성과도 크지 못할 뿐 아니라 이론의 정립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여러 정황에 따라 그간 작문에 관해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온 이들이 중심이 되어 학제적인 방법으로 서로 국내외 정보를 교류하고 지속적으로 작문에 관한 여러 연구 사업을 펼쳐 작문의 이론 정립을 이루고자 이 땅에 처음으로 작문 학술 단체인 한국작문학회를 창립하는 바이다.
   한국작문학회는 앞으로 작문과 연관되는 제반 현상을 학술적으로 탐구하고 작문 이론을 정립함으로써 한국 작문학의 발전에 주력하며, 나아가 바람직한 작문 문화의 향상과 작문 환경의 조성 및 작문

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해 나갈 것이다.
3. 2005년 6월 4일
4. 정희모
5. 600명
6. 작문연구(연 3회): ~12호
8. (1) 한국작문학회 제22회 학술 대회, "2009 개정 교육 과정과 작문 교육의 방향"(3월 26일, 서울교육대학교)
(2) 한국작문학회 제23회 학술 대회, "작문 평가의 쟁점과 과제"(7월 2일, 연세대학교)
(3) 한국작문학회 제24회 학술 대회, "언어학과 글쓰기"(9월 24일, 서울여자대학교)
(4) 한국작문학회 제25회 학술 대회, "장르와 글쓰기"(12월 10일, 한성대학교)

◇ 한국중원언어학회

1.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52 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전화 043-261-2664 /전송 043-264-2661
/전자 우편 kcshik@chungbuk.ac.kr
/누리집 http://www.jwl.or.kr
2. 한국중원언어학회는 언어학, 언어 교육, 번역 및 언어 관련 분야의 통섭에 관한 학술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은『언어학연구(Studies in Linguistics)』발간, 연구 발표회, 강연회, 국내 및 국제 학술 교류, 공동 연구, 도서 출판 등이다.
3. 1994년 10월 5일
4. 김진식(충북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5. 300여 명
6. 언어학연구(연 3회): ~21호
8. (1) 한국중원언어학회 봄 학술 대회, "언어학과 그 실제"(5월 13일,

충주대학교)
(2) 한국국어교육학회-한국중원언어학회 가을 학술 대회, "정보화 시대 언어 교육"(11월 12일, 충북대학교)

◇ 한국지명학회

1. [500-757]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용봉동) 전남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과 손희하 교수 연구실
/전화 062-530-3135, 010-9616-9509 /전송 062-530-3140
/전자 우편 shh@jnu.ac.kr
/누리집 http://www.placename.or.kr
2. 한국지명학회는 지명을 조사, 정리, 연구하여 지명과 관련된 학술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회는 지명 연구와 관련된 모든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보편타당한 이론이 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중앙과 지방의 자치단체를 비롯한 각급 기관의 지명과 관련된 정책 수립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3. 1997년 9월 20일
4. 손희하
5. 200여 명
6. 지명학(연 1회): ~17호
8. (1) 2011년 제21회 한국지명학회 전국 학술 대회, "『삼국사기』 〈지리지〉·『조선지지자료』에 나타난 지명"(10월 21~22일, 서원대학교)

◇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1. [500-703]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 55 광주교육대학교 연진관 211호 국어교육과
/전화 062-520-4127 /전송 062-520-4128
/전자 우편 sglim@gnue.ac.kr

/누리집 http://gukeo.web.riss4u.net

2.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는 전국의 교육 대학 국어 교육과 교수진과 대학원생들 간의 학문적 교류를 활성화하며, 한국 초등 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고, 회원들 서로가 연구 결과에 대한 학술 정보를 원활히 교환함으로써 우리나라 초등학교 국어 교육을 개선 발전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1984년 12월 10일
4. 임성규
5. 430명
6. 한국초등국어교육(연 3회): ~47호
8. 학술 대회(8월 5~6일, 광주교육대학교)

◇ 한국텍스트언어학회

1. [151-7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독일학과 박여성 교수 연구실
/전화 064-754-2747
/전자 우편 textlinguistik@gmail.com
/누리집 http://www.textlinguistics.kr
2. 한국텍스트언어학회는 독일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텍스트 언어학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반 연구를 수용하여 한국 어문학에 응용함으로써 텍스트 분석 연구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한국 어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년에 2번씩 학술 대회를 개최하고 6월 말과 12월 말에 학회지 『텍스트언어학』을 간행하며 기타 학술 행사 및 교류를 추진한다.
3. 1991년 12월 26일
4. 박여성
5. 390명
6. 텍스트언어학(연 2회): ~31집
8. (1) 춘계 학술 대회(4월 16일, 덕성여자대학교)

(2) 여름 집중 강좌(7월 4~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3) 추계 학술 대회(10월 8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 텍스트언어학 제30~31집 발간

◇ 한국현대언어학회

1. [305-764]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99 충남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전화 042-821-6519
/전자 우편 vshong@cnu.ac.kr
/누리집 www.mlsk.or.kr
2. 한국 현대언어학회는 회원 간 (1) 국어학, 영어학, 불어학, 독어학, 일어학 등을 비롯한 개별 언어학과 일반 언어학 연구와 학술 교류, 연구 능력 향상, 학문성과 확산을 도모함 (2) 외국어 교육 같은 응용 언어학 등 일반 언어학의 융합적, 실용적 외연 확대 (3) 학문 후속 세대 등과의 연계성 강화, 학문적 연속성 고취를 목적으로 삼는 학회이다.
3. 1983년
4. 홍성심
5. 약 510명 (2011년도 476명 이후 가입자 30여 명)
6. 언어연구(연 4회): ~27-3호
8. (1) 춘계/추계 학술 대회
(2) 워크숍 연 2회
(3) 부정기적 컬로퀴엄(Colloquium) 및 분야별 소그룹 연구 모임
(4) 임원 신년 하례식
(5) 춘계 혹은 추계 회원 단합 대회

◇ 한국화법학회

1. [560-12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학로 89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본관 314호 권순희 교수 연구실
/전화 063-281-7132

/전자 우편 speech-com@hanmail.net
/누리집 http://www.koreaspeech.org

2. 한국화법학회의 설립 목적은 국어 화법학,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에 관하여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화법론 발전과 화법 교육의 향상에 기여하는 데 있다. 화법학은 여러 언어 기능 연구 영역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서구에서는 화법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기간에 걸친 유교의 영향으로 화법학이 발전하지 못하였다. 그동안 화법학은 주로 외국에 유학을 다녀온 신문 방송학자들이 외래 이론에 의존하여 연구하여 왔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화법 교육론에 대한 연구도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초·중·고 각급 학교에서 교사들이 국어 화법 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한국인들이 말하기와 듣기 생활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화법학을 정립하려면 무엇보다도 한국어학, 한국 문화 인류학, 한국 사회 언어학, 한국 심리 언어학, 전산 언어학 등의 여러 학문 분야와 공동 연구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의 연구는 이러한 인접 학문의 고려 없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화법학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인접 학과 관련지어 밀도 있는 연구를 하기 위하여 본 학회를 설립한 것이다.
3. 1998년 8월 28일
4. 임칠성 교수(전남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5. 255명
6. 화법연구(연 2회): ~19호
8. (1) 제23회 봄 전국 학술 대회(4월 9일, 전남대학교)
   (2) 제24회 가을 전국 학술 대회(9월 24일, 경인교육대학교)
   (3) 화법연구 제18~19호 발행

◇ 한글문화연대

1. [121-731]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03호
   /전화 02-780-5084 /전송 02-6082-8855
   /전자 우편 urimal@urimal.org
   /누리집 http://www.urimal.org
2. 한글문화연대는 외국 말글의 침투로 스러져 가는 우리말글을 가꾸며 우리 문화와 학문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로, 학술, 방송,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말과 글을 더욱 가꾸어 나가 세계화의 공세 속에서 잃어 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더 나아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2000년 2월 22일
4. 고경희
5. 정회원 330명, 준회원 1,500명
6. (1) 한글문화연대 백서(연 1회)
   (2) 한글 아리아리(누리망 주간지): ~386호
7. (1) 한글문화연대 10년사
8. (1) 소방방재청의 '하트세이버' 사업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라는 항의 공문 보냄(1월)
   (2) 환경부의 '그린카드' 사업 이름을 우리말로 바꾸라는 항의 공문 보냄(1월)
   (3) 2011 정기 총회(2월)
   (4) '광화문 한글 현판 걸기' 기자 회견(3월)
   (5) 종로구청에 세종대왕 나신 터에 '어린이 영어 도서관'을 세우는 것을 멈추라는 항의 공문 보냄(4월)
   (6) 국어 책임관, 국어문화원 연구원 강의 '사진으로 보는 우리말글'(5월)
   (7) 휴먼시아 아파트 주차장 영문 표기를 한글로 바꾸라는 항의 공문 보냄(6월)
   (8) 1회 새말 찾기 공모전 '번뜩이는 새말을 찾아라'(6~9월)

(9) 법무부에 국내외 법제 정보 검색 누리집(아이로)의 알림판 '스마트 스타트'의 뜻에 대해 묻는 항의 공문 보냄(7월)
(10) 대전광역시가 만든 '2011 기타 물건 시가 표준 액표' 한문 글자 표지를 한글로 바꾸라는 항의 공문 보냄(7월)
(11) '쉬는 한글날'을 바라는 일인 시위(7~10월)
(12)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성명 공동 기자 회견(10월)
(13) 2011 특수 분야 직무 연수-한글 맞춤법과 우리 말 글 바르게 쓰기(8월)
(14) 한글날 행사 4회 '한글 옷이 날개' 맵시 자랑(10월)
(15) '광화문 한글 현판'을 바라는 일인 시위(2011년 10월~2012년 2월)
(16) 3회 바른 말 고운 말 표어 공모전 '아름다운 말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듭니다'(10월)
(17) 서울시와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업무 협약(11월)
(18) 서울시에 누리망 '원순 씨의 서울 e야기'의 이름을 바꾸라는 항의 공문 보냄(12월)
(19) 15회 한글문화 토론회 '한국인의 언어생활 실태'(12월)
(20) 2011년 우리말 사랑꾼 해침꾼 선정(12월)

◇ 한글학회

1. [110-0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7
/전화 02-738-2236 /전송 02-738-2238
/누리집 http://www.hangeul.or.kr
2. 우리말글의 연구·통일·발전과 한글·한국어의 정보화 및 세계화를 꾀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1908년 8월 31일
4. 김종택
5. 정회원 1,012명, 일반 회원 6,807명
6. (1) 한글(연 4회): ~294호
(2) 한글새소식(연 12회): ~472호

(3) 교육한글(연 1회, 휴간)
(4) 문학한글(연 1회, 휴간)
(5) 한힌샘연구(연 1회, 휴간)

7. (1) 한글새소식 합본(11집)
(2) 614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자료집
(3) 565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자료집
(4) 한글 마루지 조성과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 시민 공청회 자료집

8. (1) '한글 마루지' 조성·광화문 현판 다시 달기 대책 회의(1월 19일, 한글학회 회의실)
(2) '한글 마루지 조성과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 시민 공청회(2월 10일, 서울기독청년회관 대강당)
(3) 2011년도 정기 평의원회·회원 총회(3월 26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4) 김동길 선생 초청 특강(3월 26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5) 세종날 기념 '말: 잔치 특별전'(5월 10~30일, 한글회관, 움직이는말글문화와 공동)
(6) 세종날 기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꽃 바치기(5월 14일)
(7) 614돌 세종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한글 맞춤법 다시 보기"(5월 14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8) 헐버트 박사 62주기 추모식 참여(8월 5일, 양화진 외국인 묘지)
(9) 한글학회 창립 103돌 기념 행사(8월 31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10) 외국인 체험 수기 공모 수상자 시상(8월 31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11) 565돌 한글날 기념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꽃 바치기(10월 9일)
(12) 2011 한힌샘 주시경 학술상 시상(수상자: 김차균 충남대 명예 교수, 10월 9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13) 565돌 한글날 기념 전국 국어학 학술 대회, "우리말 사전 다시 보기"(10월 15일, 경북대 우당교육관)
(14) 565돌 한글날 경축 행사(10월 9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15) 제7회 휴대 전화 쪽글 자랑 한마당 시상식(10월 9일, 한글

회관 얼말글교육관)

(16) 제1회 의령군 초·중학생 글짓기 대회 주최(이극로박사기념사업회 주관, 10월 8일, 경남 의령 충익사)

(17) 지회 사업 지원(제18회 대학생 논문 발표 대회: 부산 지회, 제35회 국어 순화 경시대회: 경남 지회, 제15회 대학생 우리말글 연구 논문 발표 대회: 대구 지회, 아름다운 우리말 가게 이름 선정: 진주 지회, 제1회 책 읽고 우리말 겨루기 대회: 진주 지회, 제9회 한글 서예 한마당: 부산 지회)

(18) 제14회 한뫼 한글 백일장 후원(김해 문화원 주최, 10월 9일, 김해 문화원 나비공원)

(19) 제20회 외국인 한글 백일장 후원(연세대 한국어학당 주최, 10월 7일, 연세대 노천극장)

(20) 광화문 한자 현판 떼기 기자 회견(10월 9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21) 부설 한글서체연구원(원장: 허경무) 설립(10월 21일)

(22) 중국 절강성 제5차 한글문화 큰잔치 후원(10월 29일, 중국 절강설 월수외대)

(23) 서울시와 공공 언어 바르게 쓰기 업무 협약 맺음(11월 23일, 서울시청)

(24) 중국 절강성 지회(지회장: 유은종) 설립(12월 1일, 절강성 월수외대)

(25) (자체) 세종대왕 생가 복원 촉구 기자 회견(5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왕 나신 곳' 표지석 앞)

(26) 제2회 장한 한말글 이름 청소년 상 시상식 후원(주관: 한말글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 5월 19일, 대한축구협회 파주 국가대표 훈련원 강당)

(27) '한자 교육 기본 법안' 철회 권고문 냄(5월 24일)

(28) '한자 교육 기본 법안' 규탄 국민 토론회(6월 9일, 한글회관 얼말글교육관)

(29) '국어 기본법 개정안' 대책 회의(7월 11일, 한글학회 회의실)

(30) '이극로 박사 기념 사업회' 창립 총회 후원(5월 26일, 교보

생명빌딩 법무법인 한결한울 대회의실)
(31) 한글 맞춤법 연구
(32) 국어사전 바로잡기
(33) 한글 손 글씨 공모전(10월~, 디엑스코리아와 공동)
(34) '한글 마루지 조성 사업', '조선어학회 선열 추모 사업' 추진
(35) 광화문 한글 현판 달기 운동(집회와 서명 운동, 성명서·청원서·건의서 등 냄)
(36) 세종대왕 나신 곳에 영어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서울 종로구의 계획 반대 운동
(37) 세종대왕 생가 복원 운동
(38) '한자 교육 기본법' 제정 반대 운동
(39) 기관지 발행 사업(한글 연 4회, 한글새소식 연 12회)
(40) (국고) 한글 박물관 건축·전시 설계 설명회(문화체육관광부)

◇ 한남대학교 국어문화원

1. [306-791]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 70 한남대학교
/전화 042-629-7474 /전송 042-629-8347
/전자 우편 urimal@hnu.kr
/누리집 http://urimal.hnu.kr
2. 본 문화원은 대전 시민 및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국어 생활 관련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국어 관련 각종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올바른 국어 생활을 선도하고 국민의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2009년 4월 16일
4. 강정희
8. (1) 공공 언어 개선 지원 사업(대전 지역 생활 안내문 실태 조사): 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2) 2011 국어 책임관 활동 지원 사업(국어 생활 통합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 보고서 등 발간
(3) 연구 조사

1) 제품 사용 설명서 언어 실태 조사(보고서 및 자료집 발간)
2) 국어 순화의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 보고서 발간

(4)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
(5) 국어 계도 및 홍보: 국어 상담, 국어 순화 방송, 칼럼 게재
(6) 한글 행사: 제3회 외국인 유학생 말하기·예쁜 글쓰기 대회

◇ 한말연구학회

1. [219-705] 강원도 속초시 속초우체국 사서함 57호, 충효관 1224, 한국어교원과 김용경 교수 연구실
/전화 033-639-0354, 011-204-4189
/전자 우편 ykkim@k1.ac.kr
/누리집 http://www.hanmal.or.kr
2. 우리 학회는 우리말(한말)과 우리글(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1986년 4월 19일 창립한 민간 학술 단체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매년 2회의 정기 학술 대회를 가지며, 학회지 '한말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별 연구 발표회를 개최하거나 학술서를 발간·보급함으로써 국어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한말'은 '우리 겨레, 곧 한겨레의 말'이란 뜻으로 쓴 것이다. 일찍이 주시경 선생이 이른 '한나라말'을 줄인 셈이며, 우리 겨레의 문자를 '한글'이라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3. 1986년 4월 19일
4. 정동환
5. 300명
6. 한말연구(연 2회): ~29호
8. (1) 제33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 대회, "근대 국어사에 대한 재해석"
(2) 제34회 한말연구학회 전국 학술 대회, "한국어의 이론과 실용적 접근"

◇ 한민족어문학회

1. [712-701] 경북 경산시 하양읍 가마실길 50 경일대학교 인문계열 자율전공학과
   /전화 053-850-7105 /전송 053-810-4602
   /전자 우편 hanemun@hanmail.net
   /누리집 http://www.emunhak.com
2. 한민족어문학회는 국어국문학을 연구함으로써 민족 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1974년 1월 15일
4. 박규홍
5. 390명
6. 한민족어문학(연 2회): ~57호

◇ 현대문법학회

1. [706-809]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37-31번지 English House 1층
   /전화 053-764-8006
   /누리집 http://www.grammars.org
2. 현대문법학회는 현대 문법 및 언어학 이론의 연구 발표와 학술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의 언어학 및 문법 이론의 연구와 교수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3. 1989년 3월 20일
4. 임채경
5. 670명
6. 현대문법연구(연 4회): ~66호
8. (1) 2011년 동계 학술 대회(2월 9일, 강원대 삼척 캠퍼스)
   (2) 2011년 봄 현대문법학회-대한언어학회 공동 학술 대회(5월 21일, 전주대학교)
   (3) 2011년 하계 학술 대회(8월 10일, 계명대학교)

(4) 2011년 추계 학술 대회(10월 15일, 영남대학교)

◇ 형태론

1. [130-74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인문대학 김영욱 교수실
   /전화 02-2210-2775
   /전자 우편 kimyu@uos.ac.kr
   /누리집 http://plaza.snu.ac.kr/~komorph/new
2. 한국어를 중심으로 한 개별 언어의 굴절법과 조어법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공시적·통시적으로 다룬 논문이나 비평, 서평 등을 실어 형태론 연구의 발전을 도모한다.
3. 1999년 1월 5일
4. 김영욱
5. 240명(정기 구독자)
6. 형태론(연 2회): ~13-2호
8. (1) 2011 형태론 봄 집담회(3월 5일, 서울대학교)
   (2) 2011 형태론 가을 집담회(8월 27일, 서울대학교)

◇ 훈민정음학회

1.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전화 010-9210-8480
   /전자 우편 scripta08@gmail.com
   /누리집 http://www.scripta.kr
2. 훈민정음학회는 훈민정음을 비롯한 세계 문자에 대한 연구를 심화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 학술지를 발간하며 훈민정음을 문자 언어 사용자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론적 연구와 사업을 전개한다.
3. 2007년 9월 14일
4. 이승재
5. 133명

6. SCRIPTA(연 1회): ~3호
8. (1) SCRIPTA Vol. 3 발간(9월 30일)
(2) 제3회 국제 학술 대회 및 정기 총회 개최(10월 8일)

담당 연구원: 정희원(학예연구관)
김한샘(학예연구관)
정상은(분석 요원)
안예리(분석 요원)

국어 연감 2012

2013년 2월 26일 인쇄
2013년 2월 28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방화3동 827)
전화: (02)2669-9712
전송: (02)2669-9737

제자(題字): 송은 심우식(서예가)　비매품